참父母經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경

머리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번식·만물주관의 3대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3대축복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게 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한 기쁨을 누려 보지 못하셨습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부모의 자리를 복귀하기 위해 모든 탕감조건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학자 여사와 1960년 어린양 혼인잔치인 성혼축복식을 거행하셔서 처음으로 이상부부로서 참부모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의 이상을 이루어 선의 인간시조가 되심으로써 창세 이후 최초로 하늘가정의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메시아 재림주로서 억만 사탄과 싸워 지상과 영계에서 모두 승리하여 복귀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시고 하나님과 일심·일체·일념·일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실체대상이 되셨습니다. 또한 인류의 참부모·참스승·참주인으로서 참사랑을 실천하고 세계평화의 길을 닦으셔서 마침내 창조이상세계인 천주평화통일국, 곧 천일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참부모경》은 3대축복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한을 해원하시고자 한평생을 살아오신 양위분의 행적을 말씀 중심으로 13편으로 분류하고 참부모님 주요 섭리 실록을 수록하였습니다. 말씀은 그 내용이 광대무변하고 천상만태(天狀萬態)로 마치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어 이루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방대한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성취하신 업적을 중심대강(中心大綱)으로 잡고 종횡》전후 입

체적으로 정리하여 《참부모경》이란 이름으로 집대성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경》은 참부모님의 탄생과 성장, 소명, 성혼, 그리고 인류 구원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섭리적 행적 등 감동적인 생애노정에 관한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참부모경》은 참부모님께서 남기신 피와 땀과 눈물의 전승기록(戰勝記錄)이자 섭리사의 최종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 성화 이후 방대한 말씀을 요약·집대성하여 천일국 3대 경전을 편찬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천추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경전으로서 천일국의 영원한 초석이요 이정표를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천일국 기원절을 맞아 《천성경》 증보판과 《평화경》을 봉정해 드린 데 이어 2015년 기원절에 《참부모경》을 발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부모경》은 영원히 전승할 경전이란 점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써오던 참부모님의 호칭을 '아버님''어머님''부모님'으로 통일했으며, 각 편에 곁들여진 지문은 최초 발간일의 시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남겨 주신 말씀을 생활화하고 참사랑의 전형적 삶을 본받아서 천일국을 완성하는 전통의 계승자요 상속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신 참부모님의 소망이요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참부모경》을 내려 주신 하나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경전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길이 함께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천일국 3년 천력 1월 13일(양력 2015년 3월 3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경

| 차례 |

머리말 ····· 3

제1편 참부모님 현현과 참부모시대 ····· 19

제2편 참부모님의 성탄과 소명 ····· 117

제3편 공식노정 출발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 208

제4편 축복결혼을 통한 인류 구원 ····· 297

제5편 섭리 기반 확대와 연두 표어 ····· 393

제6편 세계순회와 세계선교 ····· 573

제7편 참부모님의 수난노정과 승리 ····· 719

제8편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실현 ····· 835

제9편 심정문화세계를 위한 언론·교육·예술활동 ····· 983

제10편 환경창조와 해양·중남미섭리 ····· 1097

제11편 초종교평화운동과 영계 해방 섭리 ····· 1237

제12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여성시대 섭리 ····· 1345

제13편 복귀섭리 완결과 천일국 정착 ····· 1449

참부모님 주요 섭리 실록 ····· 1591

제1편 참부모님 현현과 참부모시대

제1장 참부모의 복귀섭리사적 의미

1절 참부모는 인류의 참시조 ····· 24
2절 재림주 참아버지와 성신실체 참어머니 ····· 30
3절 참부모는 복귀섭리의 완성자 ····· 47
4절 참부모는 하나님의 실체 ····· 58

제2장 참부모님 성혼과 참부모시대

1절 참부모님 성혼과 '어린양 혼인잔치' ····· 67
2절 참부모님의 성혼식 ····· 76
3절 성혼식 후 7년노정과 참자녀 탄생 ····· 85
4절 참부모시대와 구원섭리 완성 ····· 93
5절 참부모님을 닮고 참부모가 되는 길 ····· 105

제2편 참부모님의 성탄과 소명

제1장 참아버님의 성탄

1절 참아버님 성탄과 그 배경 ····· 120
2절 참아버님의 가계 ····· 127

제2장 참어머님의 성탄

1절 참어머님 성탄과 그 배경 ····· 133
2절 참어머님의 가계 ····· 137
3절 참어머님과 신령교단 ····· 141

제3장 참아버님의 섭리적 준비시절

1절 자연과 더불어 보낸 어린 시절 ····· 149
2절 하나님의 소명 ····· 159
3절 학창시절 ····· 163
4절 일본 유학과 원리 구명 ····· 174

제4장 참어머님의 섭리적 준비시절
1절 신앙 분위기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 183
2절 학창시절과 참아버님과의 만남 ····· 188
3절 하늘이 택해 세운 참어머님 ····· 195
4절 참어머님의 고난과 승리의 길 ····· 198

제3편 공식노정 출발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제1장 참아버님의 공식노정 출발
1절 공식노정 출발과 기독교단의 불신 ····· 207
2절 평양 전도생활과 대동보안서 섭리 ····· 217
3절 8단계 탕감복귀와 영계 43일 승리 ····· 225
4절 흥남감옥과 예수님 사명 계승 노정 ····· 231

제2장 참아버님의 남하와 부산 노정
1절 참아버님의 남하노정 ····· 236
2절 부산에서의 새 출발 ····· 240
3절 《원리원본》 집필 ····· 248
4절 부산과 대구 개척전도 ····· 252

제3장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1절 협회 창립의 배경 ····· 258
2절 청파동 본부교회 ····· 269
3절 참아버님의 정성과 신앙 지도 ····· 275
4절 전국 120개 지역 40일 첫 개척전도 ····· 284
5절 일본과 미국 선교 ····· 289

제4편 축복결혼을 통한 인류 구원

제1장 축복결혼의 주요의식
1절 축복결혼의 의미 ····· 300
2절 축복결혼 상대 결정과 그 조건 ····· 307
3절 축복결혼 관련 주요의식 ····· 317

제2장 축복결혼의 역사
1절 36가정 축복결혼식 ····· 322
2절 72, 124, 430가정 축복결혼식 ····· 326
3절 777, 1800, 2075, 6000가정 축복결혼식 ····· 337
4절 6500, 3만, 2세가정 축복결혼식 ····· 341
5절 축복결혼 세계화와 축복결혼식의 확대 ····· 351
6절 조상해원식과 영인축복식 ····· 357

제3장 참가정운동과 축복가정의 전통
1절 청소년 순결과 참가정운동 ····· 366
2절 축복가정의 전통과 생활 ····· 373
3절 축복가정의 공동체 생활 ····· 381

제5편 섭리 기반 확대와 연두표어

| 차례 |

제1장 협회 등록과 내적 기반 확대
1절 협회 법인 등록과 성전 건축 ····· 396
2절 성화청년회 ····· 400
3절 성화학생회와 전국대학원리연구회 ····· 407
4절 《원리해설》과 《원리강론》 출간 ····· 417
5절 《성가》 출간 ····· 421
6절 청평성지 개발과 수련소 건축 ····· 428

제2장 7년노정 설정과 대외적 기반 확대

1절 민족복귀의 기대를 닦은 제1차 7년노정 ····· 439
2절 국가·세계복귀의 기대를 닦은 제2차 제3차 7년노정 ··· 450
3절 40일 계몽전도와 전국순회부흥회 ····· 460
4절 축복가정의 총동원 활동 ····· 471
5절 가정교회와 통·반 중심의 활동 ····· 479
6절 통일원리·승공사상 사회지도자 교육 ····· 490

제3장 주요 명절 선포

1절 심정부활의 날과 실체부활의 날 선포 ····· 501
2절 부모의 날 선포 ····· 505
3절 자녀의 날 선포 ····· 509
4절 만물의 날 선포 ····· 513
5절 하나님의 날 선포 ····· 518

제4장 연두표어와 단계적 섭리 목표 설정

1절 섭리적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1960년대 ····· 523
2절 통일기반과 천국실현의 토대를 닦은 1970년대 ···· 530
3절 가정교회 활동과 조국창건에 중점을 둔 1980년대 ····· 539
4절 참부모 자랑과 축복에 주력한 1990년대 ····· 547
5절 천일국이상 실현에 역점을 둔 2000년대 ····· 558

제6편 세계순회와 세계선교

| 차례 |

제1장 참부모님의 세계순회

1절 제1차 세계순회 ····· 576
2절 제2차 세계순회 ····· 594
3절 제3차 세계순회 ····· 600
4절 세계순회 중에 보내신 참부모님의 편지 ····· 608

제2장 참부모님 미국 섭리와 공개강연
1절 참부모님의 미국 섭리 출발 ····· 630
2절 세계통일십자군 활동 ····· 640
3절 미국 주요 도시 순회강연 ····· 648
4절 '희망의 날' 한국 대회와 구국세계대회 ····· 660
5절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대회 ····· 668
6절 미국 의회 초청강연과 워터게이트선언 ····· 684

제3장 일본 특별순회와 세계 선교사 파송
1절 해와 국가·어머니 국가인 일본의 책임 ····· 690
2절 참부모님의 일본 특별순회 ····· 694
3절 세계 선교사 파송과 수난 ····· 704

제7편 참부모님의 수난노정과 승리

제1장 일제와 북한 공산 치하의 수난과 승리
1절 독립운동과 경기도경찰부 수난 ····· 722
2절 평양 대동보안서 수난 ····· 729
3절 평양형무소와 흥남감옥 수난 ····· 733
4절 모범적인 수형생활과 승리 ····· 746
5절 흥남감옥 해방과 식구 수습 ····· 758

제2장 이대·연대 퇴학사건과 서대문형무소 수난
1절 이대·연대 퇴학사건 ····· 765
2절 서대문형무소 수난 ····· 771
3절 서대문형무소 무죄 석방 ····· 777

제3장 댄버리 수난과 참부모님의 승리

1절 참아버님의 탈세 혐의 재판 ····· 783
2절 문흥진님 성화와 애승일 선포 ····· 793
3절 댄버리 수난과 옥중생활 ····· 803
4절 옥중 평화운동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규합 ····· 811
5절 댄버리 출감과 참부모님의 승리 ····· 819
6절 옥중 수난이 주는 교훈 ····· 826

제8편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실현

차례

제1장 남북통일운동과 북한 방문

1절 승공계몽운동과 국제승공연합 ····· 838
2절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 849
3절 참부모님 북한 방문 및 김일성과의 회담 ····· 855
4절 북한 투자사업과 평화공원 제안 ····· 866
5절 참어머님 대학가 순회강연과 대학생·청년 통일운동 ····· 872

제2장 세계승공운동과 공산주의 종언 선언

1절 일본 국제승공연합 ····· 882
2절 남북미통일연합과 중남미통일연합 ····· 895
3절 공산주의 종언 선언과 모스크바대회 ····· 901

제3장 유엔 갱신운동과 천주평화연합

1절 유엔 갱신운동 ····· 910
2절 국가메시아와 분봉왕 ····· 919
3절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 928
4절 천주평화연합 ····· 934
5절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 180개국 순회 ····· 945
6절 조국향토환원대회 세계순회 참어머님 말씀 ····· 951

제4장 환태평양문명권시대와 한반도

1절 환태평양문명권시대 도래와 한반도 ····· 964
2절 국제평화고속도로와 한일·베링해협 해저터널 ····· 974

제9편 심정문화세계를 위한 언론·교육·예술활동

차례

제1장 통일사상과 국제학술활동

1절 통일사상연구원 ····· 986
2절 국제과학통일회의 ····· 998
3절 세계평화교수협의회 ····· 1007

제2장 세계언론인회의와 언론매체 창설

1절 세계언론인 회의 ····· 1015
2절 세카이닛포와 뉴스월드 ····· 1021
3절 워싱턴타임스 ····· 1025
4절 세계일보 ····· 1032
5절 주간지 및 통신·영상·출판매체 ····· 1039

제3장 교육기관 설립과 인재 육성

1절 교육기관 설립의 취지 ····· 1048
2절 주요 교육기관 ····· 1052
3절 원모평애재단과 선학평화상 ····· 1062

제4장 문화예술단체 활동

1절 리틀엔젤스예술단 ····· 1068
2절 유니버설발레단 ····· 1075

제5장 스포츠를 통한 심정문화세계 실현

1절 88서울올림픽과 세계문화체육대전 ····· 1081
2절 축구단 창단과 운영 ····· 1087
3절 선문피스컵과 원구피스컵 ····· 1090
4절 세계평화무도연합과 통일무도 ····· 1093

제10편 환경창조와 해양·중남미섭리

차례

제1장 환경창조를 위한 경제활동

1절 환경창조를 위한 경제기반 조성 ····· 1100
2절 총생축헌납과 경제적 평준화 ····· 1104
3절 부산 범냇골 시절과 초창기의 경제활동 ····· 1114
4절 기업체 설립과 경제기반의 확대 ····· 1121
5절 과학기술평준화를 위한 노력 ····· 1127

제2장 해양섭리와 해양자원 개발

1절 한국을 중심한 해양섭리 ····· 1133
2절 미국을 중심한 해양섭리 ····· 1141
3절 낚시와 정성 ····· 1153
4절 해양자원 개발과 인류 식량문제 해결 ····· 1162
5절 해양지도자 양성과 세계낚시대회 ····· 1174
6절 신공법 선박건조와 조선사업 ····· 1181
7절 라스베이거스와 후버댐 섭리 ····· 1186

제3장 자르딘 선언과 참가정 이상공동체 교육

1절 판타날과 새소망농장 ····· 1190
2절 상파울루 선언과 자르딘 선언 ····· 1196
3절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와 40일 수련 ····· 1213
4절 남북미 통일운동의 과제와 실천 ····· 1217
5절 중남미를 중심한 이상공동체 실현 ····· 1224

제11편 초종교평화운동과 영계 해방 섭리

차례

제1장 초교파운동과 종교연합운동

1절 종교의 참뜻 ····· 1240
2절 종교를 통한 인류 구원과 하나님 해방 ····· 1249
3절 초교파운동과 기독교와의 대화 ····· 1259
4절 종교연합운동과 세계평화 ····· 1268

제2장 초종교평화운동과 초종교 축복결혼식

1절 국제종교재단과 세계종교의회 ····· 1276
2절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 1285
3절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과 초종교 축복결혼식 ····· 1290

제3장 영육계 일체시대와 영계 해방

1절 참부모님과 영계 ····· 1297
2절 영인 구원과 영계 해방 ····· 1306
3절 영육계 일체시대 주요 선포 의식들 ····· 1315
4절 영연세협회시대와 영계 대혁명 ····· 1339

제12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여성시대 섭리

차례

제1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1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그 배경 ····· 1348
2절 참부모님 말씀과 훈독회 제정 ····· 1355
3절 '가정맹세'제정 ····· 1365

제2장 팔정식과 칠일절 선포

1절 팔정식과 천부주의 선포 ····· 1369
2절 칠일절 선포와 환고향 섭리 ····· 1381

제3장 성약시대 개막과 성약섭리 전개
1절 성약시대 선포와 종족메시아 활동 강화 ····· 1393
2절 주요 선포식과 성약섭리 전개 ····· 1403

제4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참어머님 세계순회
1절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여성시대 선포 ····· 1419
2절 참어머님의 세계순회 ····· 1429
3절 참어머님 책임 완수와 승리 ····· 1438
4절 일본 여성 16만 명 특별수련회와 자매결연 ····· 1442

제13편 복귀섭리 완결과 천일국 정착

|차례|

제1장 하나님 왕권 즉위식과 해방권 대관식

1절 하나님왕권즉위식 ····· 1452
2절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과 축복가정왕 즉위식 ··· 1461
3절 쌍합십승일과 후천시대 개막 ····· 1468
4절 천주평화의 왕 즉위식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 1476
5절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 1485

제2장 천일국 기원절과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

1절 천일국시대 개막과 기원절 ····· 1491
2절 참아버님의 성화와 전통 상속 ····· 1499
3절 천일국 3대 경전 편찬 ····· 1506
4절 천일국 헌법 제정 ····· 1509

제3장 참부모님의 생활철학과 공적 생활

1절 참부모님 생활철학 ····· 1525
2절 참부모님 공적 생활과 정성 ····· 1534
3절 참부모님 건강생활 ····· 1543

제4장 천일국 정착과 우리이 갈 길

1절 초창기 신앙 회복과 환경창조 ····· 1548
2절 축복가정의 책임과 미래 지도자 양성 ····· 1557
3절 천일국 국민의 생활 ····· 1570
4절 천일국 정착의 길 ····· 1579

제1편 참부모님 현현과 참부모시대

|차례|

제1장 참부모의 복귀섭리사적 의미

1절 참부모는 인류의 참시조 ····· 24
2절 재림주 참아버지와 성신실체 참어머니 ····· 30
3절 참부모는 복귀섭리의 완성자 ····· 47
4절 참부모는 하나님의 실체 ····· 58

제2장 참부모님 성혼과 참부모시대

1절 참부모님 성혼과 '어린양 혼인잔치' ····· 67
2절 참부모님의 성혼식 ····· 76
3절 성혼식 후 7년노정과 참자녀 탄생 ····· 85
4절 참부모시대와 구원섭리 완성 ····· 93
5절 참부모님을 닮고 참부모가 되는 길 ····· 105

제1편 참부모님 현현과 참부모시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장기간을 무사히 통과하여 완성 인간이 된 후에 축복을 받아 인류 최초의 부부가 되고 선한 인간시조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개성완성 이전의 성장기간 중인 장성기 완성급 단계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혈통을 더럽힌 원죄를 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해와는 선한 인류의 시조가 되지 못하고 악한 후손들을 번식함으로써 타락한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상지옥과 천상지옥이 생기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제2차 아담 사명자로 4천년 동안 선민으로 길러 온 유대민족 가운데 보내셨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되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제2차 해와를 찾아 신부로 세워 성혼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중심한 부부가 되고 참부모가 되어 인류 구원섭리 역사를 완수했을 것이다. 제2차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노정이 선택받은 자들의 불신으로 중도에서 좌절되자 하나님은 다시 제3차 아담 재림메시아를 보내는 섭리를 하시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신의 중생역사를 통한 기독교의 영적 구원섭리 2천년사가 제3차 아담 재림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이었다.

재림메시아는 공중 강림이 아니라 예수님 때와 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로 태어나시고, 기독교단은 유대교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했던 것처럼 재림메시아를 믿고 모셔야 한다. 재림메시아는 인간시조가 원죄를 짓게 된 배경부터 샅샅이 구명(究明)해 냄으로써 사탄의 정체를 밝혀 죄의 뿌리를 뽑고, 영계권을 상대로 생사를 건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사탄을 자연굴복시키고 수많은 도주와 종주들로부터 '재림메시아 참아버지'라는 증언을 받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원섭리의 열매로 예비된 독생녀 성신실체를 찾아서 신부로 맞이해야만 재림메시아의 뜻은 지상에 착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림메시아의 참부모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양위분을 탄생케 하셨으니, 재림메시아 곧 제3차 아담으로 오신 문**선**명(文鮮明) 참아버님과 제3차 해와 곧 재림메시아의 성신실체 신부로 오신 한학자(韓學子) 참어머님이시다. 양위분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의 개천·개국이념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평화를 애호해 온 대한민국에서 탄생하셨다.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탄생하신 참아버님은 하늘의 특별한 섭리역사로 유·소년기를 지내시던 중 16세 되던 해 부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재림 사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소명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12년간 진리 구명의 피어린 고난길에 나서시어 마침내 창조원리와 인간의 타락과 죄의 뿌리, 인간 책임분담 및 탕감복귀섭리의 원리원칙을 밝혀 구원섭리 역사 과정에 얽혀 있는 모든 곡절을 풀어내신 것이다. (p. 22)

하나님께서는 탕감복귀섭리의 중심 주체로 재림주님을 지상에 보내시는 한편 그

분의 상대 배필로 오실 제3차 해와를 복귀하는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참아버님의 탄생을 전후로 한반도에 신령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참어머님의 가계도 그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 이런 섭리적 배경 속에서 참어머님께서는 1943년 음력 1월 6일 외가인 평안남도 안주에서 탄생하셨다. 참어머님은 재림주의 지상탄생을 신앙해온 조원모 외할머니, 홍순애 대모님. 참어머님으로 이어지는 3대 독녀의 가정에서 성장함으로써 하늘의 신부로 예비되신 삶을 출발하셨다. 그리고 복중교 허호빈씨의 모친이 여섯 살 된 참어머님께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축복을 하는 등의 영적 증거가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광복과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참아버님은 남한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공식노정을 출발하셨다. 그러나 예비된 신령교단의 불신으로 인해 북한 평양으로 가셔서 전도활동을 하셨지만 여기서도 기독교단의 질시와 공산당국의 무고로 옥고를 치르면서 두 차례 혹독한 고난길을 가셔야 했다. 참아버님은 6·25전쟁으로 흥남 감옥에서 출옥할 때까지 영적·육적으로 탕감복귀의 승리적 기대를 세우고 남하셔서 마침내 1945년 5월 1일 서울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셨다. 참아버님이 만 33세 되신 해에 예수님의 33년 수난의 생애를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운 터 위에 기독교단을 대신한 아벨형 교단으로 새출발하신 것이다.

협회 창립 이후 참아버님의 발표하는 원리말씀에 감동하여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몰려들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기독교단은 참아버님을 더욱 박해하고 투옥에까지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따르는 제자들은 참아버님을 재림하신 메시아로 한층 더 굳게 신봉하게 되어 장성기 완성급 복귀의 승리적 조건을 찾아 세우게 되었다. 이로써 광복 후 공식노정 14년이 지난 1960년 4월 11일 드디어 하늘이 특별히 성별하여 고이 기르시고 예비해 오신 성신실체 참어머님을 신부로 맞이하여 하늘의 축복으로 참부모님 성혼식을 거행하였다. 재림메시아가 예비된 성신실체 신부를 맞아 참부부가 되는 성혼의식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관문이 열리고, 창조본연의 아담과 해와가 참부모로 현현하시게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한 것이다. 인류는 드디어 원죄를 영육으로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중생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3

참부모님께서는 참아버님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세운 지 40년이 되는 1994년에 이르러 이를 대체하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을 선포하셨다. 인류의 참부모 양위분이 하나되어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을 탕감복귀하셨깅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공동으로 창립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는 인류의 복귀된 참시조로 오신 참부모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질 세계임을 밝혀 주신 것이다.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2001년 1월 13일 하나님왕권즉위식과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식 및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대관식을 통해 하나님의 한을 해원성사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안착할 수 있는 기틀을 놓으시고 2013년 천력 1월 13일을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기원절로 세우셨다. 참아버님은 성화(2012년 천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하시기 21일 전 지상 생애 최후의 공식선포 보고를 통해 구원섭리의 최종 완성의 완결을 선언하시고 모든 축복가정들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종족 메시아가 되라는 축복과 함께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다.

참부모님 양위분이야말로 무형의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유형의 실체로 완성하신 참된 인간의 원형이요, 참부모님께서 삶과 행적으로 세워 놓으신 전통과 가르침은 인류가 본받고 배워야 할 전형이다. 절대유일 전무후무의 참부모님은 영원히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밝히시는 근원이시다.

제1장 참부모의 복귀섭리사적 의미

1절 참부모는 인류의 참시조

참부모는 완성한 아담 해와

하나님은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류의 시조로 지은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대상이다. 인류는 오직 한 쌍의 시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 1남1녀 이외의 또 다른 참사랑의 가닥을 만드실 수 없다. 만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통해 완성하여 선한 자손을 번성하였더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종적인 무형의 참부모로 모시고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지상의 횡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는 이상가정이 실현되었을 것이다. 참가정을 근원으로 하여 번성한 아담과 해와 일족이 민족과 세계로 번창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3대축복이 완성된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 세계가 곧 하나님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신 이상천국이다. (p. 24)

1 하나님이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합해 계시다는 것은 아담 해와를 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되어 아담 해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체와 대상인 사람, 즉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중심삼고 비로소 거기에서 아들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도 인간이 창조했다는 결론의 자리에 세워 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부부가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태어나는 아들딸은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 놓고 기뻐하시던 기쁨의 위업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들딸을 낳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체를 사랑하는 아들딸의 입장에 있는 인간이 몽땅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053-166, 1972.02.19)

2 본래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실체를 쓴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한 존재가 인류의 선한 시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몸과 하나된 가운데서 주고 또 주고 싶어하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발동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고 또 돌아 완전히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자를 뿌렸다면 그러한 종자의 열매가 맺히게 되므로 그 씨는 아무리 쪼개어 보아도 그러한 내용을 갖춘 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뜯어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모셔 들여서 종자를 개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같이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무형의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의 실체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심 실체로 등장시키는 것이 인류의 선한 조상 참부모입니다. (038-173, 1971.01.03) p. 25

3 아담 해와는 참부모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기 때문에 가정의 왕이요 왕후입니다. 그 아들딸은 미래의 왕이 되고 왕후도 될 수 있는 후계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볼 때에 할아버지는 하나님 왕권을 우리 집안에 옮겨 준 자리요, 어머니 아버지는 만국에 벌어질 가정들을 대표한 가정의 왕입니다. 본래 가정의 왕입니다. 그다음에 아들딸은 미래의 왕손으로서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 왕녀의 자리입니다. (221-255, 1991.10. 25)

4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경륜하고 하나님이 창조이상으로 세우고자 했던 인류의 창조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아무리 잘나고 호강하는 사람, 천하를 다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타락한 조상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제일 원통한 일입니다. 타락한 시조를 가진 인류는 사탄 지옥을 향하여 맹진하고 있으니, 이것을 가로막고 참조상으로 와서 참자녀로 품어 줄 수 있는 본연의 주인, 본연의 부모를 찾아 헤매어 나오는 것이 인류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천년 역사를 통해 복귀의 도상을 가고 또 가서 타락 전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 입장이 자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154-261, 1964. 10. 03)

5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는 인류의 참조상입니다. 창아버지 참어머니입니다. 몸을 쓴 인류의 참부모입니다. 그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가 사탄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본연의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선남선녀로서 성례식을 치르고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다면 만물은 아담 해와와 화동하면서 즐거이 그 가정에 필요한 물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인류의 참부모가 되고, 인류의 표본적인 참부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참다운 자녀가 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그

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정의 주인도 하나요 사랑의 주인도 하나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009-137, 1960.05.01) p. 26

6 타락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벌어졌기에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복귀의 목적은 아담 가정 복귀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나라를 찾기 전에, 민족과 교회를 찾기 전에 당신의 상대를 찾고 한 중심 가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이상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참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참가정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활해 오던 가정과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이상적인 참가정을 찾지 못하면 이상적인 나라도 세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본연의 참된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할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구원의 목표가 아니고 참가정이 구원의 기본단위가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해와는 참사랑에 의한 이상적인 참부부가 되고 나아가 참부모가 되어 그 후손과 전 인류의 참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참부모로 하여 번성된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어 아담문화권의 평화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294-067, 1998.06.11)

7 하나님의 복귀섭리역사는 슬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잃어버린 것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를 잃어버리면 그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담 해와의 일족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 일족이 확대되어서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을 것이고, 하나의 세계로 확대되었을 것인데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해와를 잃어버림으로써 하늘나라의 왕권을 중심삼은 그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민족을 잃어버렸고, 하늘나라의 종족을 잃어버렸으며, 하늘나라의 가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남자 여자, 독생자 독생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복귀섭리역사는 이것을 되찾는 역사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번성하여 오늘날 수십억의 인류가 전부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가정적으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3-025, 1986.03.15)

8 인류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류**는** 참된 조상을 못 가졌고 참된 후손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된 가정·민족·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참된 뿌리를 찾아가야 되고, 참된 가정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섭리를 통해 소망의 세계, 참된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 통일의 세계, 하나

의 세계를 추구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개인적인 중심,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중심을 가르쳐 줌으로써 전인류를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자는 것이 섭리역사입니다. (267-297, 1995.02.05) p. 27

9 다시 오시는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적으로 망상적인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을 발판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신부를 맞이해서 인간조상이 6천년 전에 인류의 참조상이 되지 못하고 거짓 조상이 됨으로써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될 수 있는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완전한 남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할 수 있는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완전한 여성이 역사시대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때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는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사랑받던 그 이상의 자리요, 아담 해와한테 축복해 주시던 그 이상의 자리입니다. 지상에서 그런 기점이 생겨나야 사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인간시조 아담 해와가 그런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천사장은 사탄이 되지 않고 완전한 종의 자리에서 인간을 시봉하는 입장에 섰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칙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잃어버린 인류는 고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리를 찾을 수 잇는 인류의 참된 부모가 이 땅 위에 나타나야 됩니다.

10 본래의 아담은 개인이자 가정의 중심이요 국가의 중심이요 세계의 중심입니다. 문화라는 것도 아담 문화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이 시작되고 모든 인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은 인연의 역사도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인류의 참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과 참된 사회·민족·국가·세계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적 사상이 어느 때에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소망의 세계를 미래에 두고 바라보고 나왔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닦아진 그 사상을 중심삼고 그것을 본떠서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현재·미래의 중심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나라를 중심삼고 설정됩니다. 그 나라가 성립되면 그 나라의 문화는 영영 스쳐 지나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생생히 살아남고 문화적 원천으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통일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050-251, 1971.11.07) p. 28

참부모는 참감람나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한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를 뿌리로 한 인류는 본래 지상천국에서 살다가 사후에 천상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어 한 형제요 한 권속이 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돌감람나무이므로 참감람나무인 참부모의 접붙임을 받아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 에덴동산에서 출발되어야 했던 영원한 이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류의 소원은 참부로를 맞아 하나님을 중심한 선한 가법을 대대로 전수하면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하늘주권을 중심으로 통일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11 참부모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과 완전히 하나된 분입니다. 그런 참부모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을 참감람나무 가정이라 하면 타락한 세계의 사람들은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 버리고 참감람나무의 가지와 순을 접붙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참감람나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참양심이 다시 연결되어 완성하게 되면 지상·천상천국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3대 되는 손자 손녀를 못 가졌지만 사탄은 손자 손녀를 가졌고 종족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번식되어 수많은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성한 한 남자를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완성한 한 여자도 못 가져 봤습니다. 그 완성한 남자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와서 참부모 자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연의 가정을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4-198, 2001.03.09) p. 29

12 아담 해와가 인류의 참조상이 되었으면 구주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는 선한 세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지상에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락은 하나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부모가 못 되고 거짓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부모의 혈통을 전부 지워 버리고 참부모의 혈통을 받아서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돌감람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참감람나무가 되어야 할 것인데 돌감람나무가 되었으니 이것을 잘라 버리고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023-162, 1969.05.18)

13 하늘의 참감람나무로 오시는 분은 여러분을 다시 낳아 줄 참부모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천리이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는 이 땅에 하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뿌리를 갖고 현현하십니다. 사탄의 거짓 사랑을 뿌리로 하여 태어난 인류를 깨끗이 밑동부터 베어 버리고 참사랑의 순을 접붙여 주는 사명을 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참부모입니다. 이

처럼 우리 인류가 찾아야 할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참부모로부터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494-013, 2005.04.27)

14 참부모는 참사랑과 참핏줄을 가지고 옵니다. 거짓 부모는 거짓 사랑과 거짓 핏줄을 엮어 놓았습니다.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참아들딸의 가정을 이루려면 참핏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부모의 자식이 되려면 참부모와 핏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말, 아버지 또는 자식이라는 말은 핏줄이 연결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가를 수 없습니다. 사탄도 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약시대를 맞아 참부모에 의한 축복결혼을 통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실패를 탕감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핏줄, 본연의 기준에 접붙여서 돌감람나무 밭이라도 참감람나무 밭이 되어야 하며,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부모님과 일체·일심·일념이 되어야 합니다. (347-174, 2001.07.04)

15 참부모는 완성한 아담 해와를 말합니다. 그 아담 해와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되고 하나님까지 해방되어야 합니다. 참부모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보내신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 참부모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생명·혈통을 상속합니다. 그 사랑·생명·혈통을 상속받는 것이 아들딸입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도 지상에 참부모의 완성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부모가 다른 사랑·생명·혈통을 연결시켜서 타락한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180도 전환시키기 위해서 참부모가 나와서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연결하고 참생명을 연결하고 참혈통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362-011, 2001.12.02) p. 30

16 참부모는 이 세계의 거짓된 자식, 돌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은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서 타락하지 않은 열매로 수확하여 하늘나라의 창고에 다시 입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서 메시아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메시아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된 아들딸의 씨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써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의 인연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거짓 사랑이 인연되었기 때문에 구원섭리를 통해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252-228, 1994.01.01)

2절 재림주 참아버지와 성신실체 참어머니

참부모가 되어야 할 독생자와 독생녀

하나님의 소망은 아담 해와가 창조본연의 모습대로 성장 완성하여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절대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당신의 모든 소망을 걸고 지으신 독생자 아담과 독생녀 해와였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할 존재로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창조 순서에 따라 아담을 먼저 복귀하신 후 그 아담을 통하여 해와를 복귀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연의 아담을 대신할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연의 후해와를 찾아 부부가 됨으로써 인류의 선한 첫 시조인 참부모가 되셔야 했다. (p. 30)

1 예수님의 사상 가운데 제일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사랑을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첫사랑과 인연된 개인입니다. (138-256, 1986.01.24) p. 31

2 에덴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독생녀입니다. 그들이 다 장성하여 봄날이 되어 꽃이 필 때 둘이 서로 봄노래를 불러 가면서 '당신은 내 오빠가 아니오?''당신은 내 누이동생이 아니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꽃이 환해져 향기를 풍기게 되면 하나님이 묶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식을 해줌으로써 이루려던 창조의 최고 이상이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생자와 독생녀로서 잘 커서 사춘기까지 가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159-195, 1968.05.10)

3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고 했습니다. 독생자에게 필요한 것은 독생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 출발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생자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목적은 세계를 통일해서 호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 위의 인간들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의 모델가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기 전에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만나 결혼식을 한다면 그 결혼식 주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섭리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독생자 독생녀 입장에서 장성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 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축복을 이루어 인류의 참된 조상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됩니다. (159-192, 1968.05.10)

4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독생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역사시대, 아담과 해와의 실패한 역사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혈통적 내용을 중심삼고 지구성에 독생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태어났지만 독생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4천년 동안 구원역사를 통해 완성된 아담을 다시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상대가 될 수 있게끔 아담을 지으신 원칙,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본떠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골자를 따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아담은 이 땅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직계 참사랑의 핏줄을 통해서 아담은 찾았지만 해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해와를 찾으려면 지금까지 타락한 이후의 역사를 다시 가정으로부터 부활시켜 접붙여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야곱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 열두 지파입니다. 선민사상을 중심삼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착지해서 세상에 승리의 판도를 확대시킨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천년 동안의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인 것입니다. (347-171, 2001.07.04) p. 32

5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말한 것이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고 한 사실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라는 이름이 지상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수천년 탕감역사를 거쳐 나오는 데 있어서 희소식 중의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중심삼고 비로소 유대 나라와 유대교, 가인과 아벨을 바꿔치고 핏줄을 바꿔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자란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데는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준비된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종족을 터전으로 해서 연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정에서부터 핏줄을 전환해야 됩니다. (164-256, 1987.05.17)

6 인류가 생겨난 이후 4천년 만에 이천지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났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독생

자가 나오지 못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랑의 인연을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그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남성이 나왔으므로 그 이상 복된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독생자가 안 나왔다면 큰일 납니다. 역사상에 그런 사람이 나왔으니 온 인류가 그의 편이 되어야 하고, 천지도 그의 편이 되어야 하며, 창조주도 그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자는 망하고 환영하는 자는 흥하게 됩니다. 독생자가 나왔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남자가 엮어 나온 것입니다. 독생자가 왔으면 그다음에는 독생녀가 와야 합니다. (023-149, 1969.05.18) p. 33

7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종적인 부모로 계시는 분입니다. 수직은 하나입니다. 횡적인 자리에서 수직이 되는 것은 90각도 한 자리입니다. 남자의 자리도 90각도 하나이고 여장의 자리도 90각도 하나입니다. 둘이 없습니다. 인류역사에 처음으로 그 90각도에 맞춰서 사랑을 받은 자가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 앞에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독생자로 와서 독생녀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데는 그냥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해와를 찾아야 됩니다. 사탄이 빼앗아 간 해와를 찾아야 됩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남자와 여자가 90각도에 하나될 수 있는 길을 맞춰 놓지 않고는 천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성성상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와 독생녀가 하나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임재하는 것입니다.

8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자녀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탄의 참소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노정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사탄이 왕이 되어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난 자리에서 탄생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되었다면 로마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오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천년 만에 독생자는 찾아 세웠지만 독생녀는 찾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했듯이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신의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원리에서 하나님은 중심인물이나 민족이 책임을 못할 때에는 대신자를 세운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

로써 독생녀를 보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녀를 따로 길러 나오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07.01, 천정궁) p. 34

9 하나님이 인간세계에 있어서 사랑의 주인이라면 그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가정이 이 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본향 땅이 있으면 그 본향으로부터 본향의 족속이 벌어지고, 그 족속으로부터 민족이 벌어지고, 그 민족으로부터 국가와 세계가 벌어지고, 그럼으로써 지상에 천국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본향은 인류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곳이며, 천지가 화합하여 만우주의 존재가 행복하고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춤출 수 있는 동시에 만우주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춤출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럴 수 있는 날을 맞이할 본향이 나왔더라면 오늘날 이 세계는 불행한 세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아들딸, 즉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핏줄을 받고 태어난 아들딸들은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 있을 것입니다. (023-152, 1969.05.18)

10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삼고 세계를 평화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권이 있어서 그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가정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몸과 마음이 싸움하는 패들은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무리 죽음의 고비가 오더라도 천도를 버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된 독생자가 몸과 마음이 하나된 독생녀를 맞이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들기 전에는 세계를 복귀하더라도 그것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은 핏줄이 연결된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핏줄로 연결되면 동족이 됩니다. (023-152, 1969.05.18)

1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정은 신부를 맞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인격적 신부를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표해서 세계적 기독교 무대에 신랑을 모셔 놓고 그 신랑을 중심삼고 결혼해야 신랑 신부의 사랑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되어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사랑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사랑권을 가지고 독생녀의 사랑권을 취함과 동시에 이 독생자 독생녀를 중심삼고 **신**랑 신부의 사랑권이 확립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역사가 길고 놀라운 문화배경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되는 부부의 사랑의 기준이 귀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찾지 않고는 세상만사는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독생녀가 되어 신랑 신부로서 부부의 사랑권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권이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자녀의 사랑권이 성립됩니다. (138-257, 1986.01.24) p. 35

12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있었는데 독생녀가 없습니다. 독생녀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와서 어린양잔치, 즉 혼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은 남자와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자리입니다. (041-311, 1971.02.17)

13 메시아는 하나님의 본연의 직계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을 중심삼고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찾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사의 주목적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올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옵니다. 그는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를 잃어버렸으니까 상대도 없습니다. 해와와 가인 아벨을 잃어버렸으니까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랑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신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자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독생자가 아담입니다. 타락했으니 독생자가 없어졌고 독생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독생녀는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였던 것을 사탄이 전부 망쳐 놓았으니 그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해와를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새로운 아들의 씨를 보내서 해와를 다시 창조해야 됩니다. (285-024, 1997.04.19)

14 인간은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정을 축소해 보면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으니 독생자가 됐으면 독생녀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 독생자와 독생녀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 해와가 돼야 합니다. 독생자 독생녀**는** 아들딸을 낳아야 됩니다. 참부모를 모시고 아들딸을 완성하려면 환경적 여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사방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들딸은 부모를 위해서 살고, 그 부모는 또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형제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한 가정의 표본을 중심삼고 볼 때 서로 위하는 가정이라면 천국 가정임이 틀림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252-125, 1993.11.14) p. 36

원죄가 없는 예수님과 재림주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해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하였다. 원죄는 하나님이 혈통을 더럽힌 '불륜한 성범죄'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대를 이어 나가야 할 인류가 사탄의 거짓 사랑으로 후손을 번식시킨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태어나기까지의 혈통적 계보가 나온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서 선악의 혈통을 분립·전환하면서 4천년에 걸쳐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청산해 온 탕감복귀섭리역사의 기대 위에서 마침내 원죄를 근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로 탄생하신 것을 보여 주는 기록이다. 이렇게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류의 참아버지로서 참어머니를 맞이하여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 원죄 없는 직계자녀를 탄생시키는 한편 타락한 인류를 중생시켜 원죄를 청산케 하시려고 지상에 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이 모든 과업을 재림하여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제3차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주는 예수님을 중심한 모든 탕감복귀섭리의 역사적 전통과 결실을 영육 아울러 상속받음과 동시에 메시아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참부모의 자리에 등극하심으로써 지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실현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게 된다.

15 예수님은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난 입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사탄과 접한 것이 원죄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조건을 넘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꿔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때 바꿔치고 또 베레스와 세라 때 바꿔쳐서 승**리**의 기반을 닦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022-257, 1969.05.04) p. 37

16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원죄를 벗어난 자리에 섰습니다. 사탄의 참소조건을 가진 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본연의 기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제2차 아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죄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벗어남과 통시에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천사장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본연의 아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159-206, 1968.05.10)

17 성경에는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와 하나되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중심삼고 유다지파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인륜 도덕관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4대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밧세바가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창세기와 맞먹는 것인데, 역사시대에 있어 첫 장에 이런 거룩하지 못하고 오점을 지니고 있는 여자들이 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타락론을 모르고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비로소 아버님시대에 와서 그것을 다 밝혀 준 것입니다. (211-138, 1990.12.30)

18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해와와 딱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정혼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약혼 단계에 있을 때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고 다말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통을 맑힌 여성을 대표한 기준에서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희생당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운 여성이었습니다. 다말과 같이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는 것을 최**고**의 희망으로 알고, 자기 일신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계승하려고 한 역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139-304, 1986.01.31) p. 38

19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다말처럼 절개와 충절을 다하며 귀한 하늘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험이라도 강행할 수 있는 당돌한 입장에 섰던 여성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곧 잉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그 당시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고 자기 위신과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역사상 처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035-222, 1970.10.19)

20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도 마리아가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기가 되었고, 또 출생에 이르는 과정도 복중의 승리의 터전을 가진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사탄의 아무런 참소조건도 있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복중에서부터 기원한 아담과 해와 이후의 모든 싸움의 터전을 비로소 복중에서부터 갈라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통을 타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선지자나 어떠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와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혈통적 내용을 갖추고 오신 세계적인 대표자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내용을 전부 가려서 오신 분이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주로 한 혈통적인 내용을 지니고 태어난 첫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동기와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이 땅 위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035-223, 1970.10.19) p. 39

21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하늘 편의 천사장권이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사탄세계를 능가하고 하늘편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정권을 이어받아야 본연의 아담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혈통적으로 분별된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태어난 대표적인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69-195, 1987.10.31)

22 인류역사상 국가적 차원에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은 혈통을 전환하여 승리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복중에 임신하더라도 사탄이 '그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심정적 전통을 이어받은 역사적인 기준 위에 국가적 차원에서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해와의 실수를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야 할 길 앞에 결실의 자리에 서서 혈통전환, 즉 장자복귀 완성기준의 심정권 위에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탄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맑힌 혈통적 터전 위에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장자권으로 잉태하더라도 사탄이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죽에서부터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들이 지구성에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장자 혈족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타락의 인류역사 위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을 수 있는 첫 번 대표자가 되고 역사적인 대표자가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독생자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을 중심삼은 장자권복귀에 있어서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9-309, 1986.01.31)

23 예수님은 핏줄을 맑혀서 왔습니다. 쌍둥이 시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복귀하고, 다말의 복중에서 베레스와 세라의 역사에 없는 싸움을 통해 뒤바꿈으로써 혈통전환을 했습니다. 역사가 다 보여 주었습니다. 성경은 참 계시적입니다. 세계사, 문화사, 종교사에서 빼 버릴 수 없는 보전입니다. 인류역사에 대한 곡절의 사연과 비밀이 다 잠겨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래서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탄세계의 혈통을 전환했습니다. 혈통을 전환한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대 될 수 있는 신부도 혈통전환 역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40-149, 1986.02.09) p. 40

24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 하게 되면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그 남자 여자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참부모가 그 아담 해와를 대신한 자리에 와서 선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가 미완성해서 거짓 조상이 되었으니 참부모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완성 성사할 수 있는 자리에 대신 서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완성한 아담이상으로 찾고자 하던 그 자리가 참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땜질하여 그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참아버지 참어머니라고 하는데 외모를 보면 여러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사탄세계의 타락한 부모를 통한 타락의 뿌리를 타고 나왔지만 참부모는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비로소 역사상에 참다운 사랑을 중심한 통일논리를 가지고 나타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148-040, 1986.10.04)

25 아버님이 혈통적으로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천년 동안 수고해서 재림하여 신랑 신부를 이룬 자리를 인계해 주는 식입니다. 그 식이 통일교회 축복가정을 세우는 식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54-270, 1972.03.25)

26 타락 이후 모든 죄악이 전 인류의 몸을 정복했습니다. 사탄의 혈통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길이 탕감노정입니다. 참부모는 그것을 다 청산했습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인 단계에서 탕감을 치렀습니다. 참부모에 의해 참혈통에 연결되어 모두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은 소메시아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탄 편 혈통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혈통에 속해 있습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사탄 편이고 부모님의 뿌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본연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참사랑을 참부모가 상속받아 그것**을** 여러분에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접붙임을 받은 후에 참부모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146-302, 1986.07.20) p. 41

27 아버님이 이 땅에 와서 사탄세계를 중심삼고 종적 8단계, 횡적 8단계를 승리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사탄권 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만 없어지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원죄를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참사랑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 8단계를 중심삼고 다 청산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16세에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가 될 때까지는 본연의 아담의 몸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본연적인, 타락하지 않은 완성을 향한 남자였습니다.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재림주가 와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싸워서 사탄을 몰아냈습니다. 죄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뽑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아담 16세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아담세계와는 관계없는 승리한 아담 자리에서 전 인류를 찾아온 것입니다. (265-142, 1994.11.20)

28 내가 한국 시골의 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근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이지지(生而知之)라고 합니다. 또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이지지(學而知之)라고 합니다. 나는 나면서 알고 배워서 안 것이 아닙니다. 천이지지(天而知之)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 가운데 태어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까지 반대받으면서도 그 세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542-285, 2006.10.23)

29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미리 창조적인 준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영계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모셔 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보고 모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중심된 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낼 때에는 성상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같은 기준을 중심삼고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형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028-094, 1970.01.04) p. 41

30 아버님은 이 땅에 어느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10살 넘어서부터 벌써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안 문중에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그 세계를 알 수 있게끔 하늘이 몇 천년 전부터 준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통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579-076, 2007.10.25) p.42

재림주로 오신 참아버님과 성신의 실체로 오신 참어머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지상에서 참부모의 길을 가시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신부를 찾게 되었으니 그분이 곧 성신이시다. 예수님은 영적 참아버지, 성신은 영적 참어머니신으로서 타락한 인류를 영적으로만 중생시켜 주는 한정된 구원섭리를 하시게 되었다. 영육 아우른 구원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야만 된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지상에 탄생하시는 제3차 아담 곧 재림메시아로서 준비된 성신실체를 신부로 맞아 인류를 영육으로 완전히 중생시켜 주는 실체 참부모가 되셔야 하는 것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류는 실체 참부모 양위분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영육 완전구원을 가능케 하는 중생, 곧 혈통전환의 은총을 받게 된다.

31 아담이 실수했기 때문에 대신 보내신 예수님은 제2아담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조상을 잃어버렸으니 참조상을 복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아버지격입니다. 그리고 성신은 인류의 참어머니격입니다. 이와 같이 참아버지 참어머니를 영적으로 세워 놓고 이를 실ㅊ체 형상으로 이 땅 위에 나타내려는 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인류 앞에 참다운 아들딸이 나타나는 때가 끝날입니다. 참조상을 잃어버림으로써 타락한 후손이 되고 참부모와 혈통적인 인연을 맺지 못했으니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딸을 찾는 때입니다. (007-116, 1959.07.26)

32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양잔치입니다. 어린양잔치는 예수님과 성신인 한 여자가 실체를 쓰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성신은 어머니신입니다. 어머니**신**이기 때문에 어머니신인 성신을 받지 않으면 중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신인 성신이 낳아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요 성신은 어머니, 즉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신은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신이 임하여서 성신이 신랑 된 예수님을 사모하는 힘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일치될 때 불을 받는 것입니다. 뒤넘기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적 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019-202, 1968.01.07)

33 참아버지는 완성한 아담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인류의 참조상이 못 되었으니 우리는 전부 참조상이 아닌 거짓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에 참조상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참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삼위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아버지이고 성신은 참어머니이므로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중생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 없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성신이 실체를 쓰는 날입니다. 그때가 재림시대입니다. 신부 단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어린양잔치는 잃어버린 참부모를 거꾸로 모셔 들이는 날입니다. (007-158, 1959.08.30)

34 예수님은 아버지입니다. 성신은 어머니신입니다. 어머니신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해와, 어머니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성한 어머니신이 와서 내 몸 마음을 맑혀 줘서 완성된 아버지와 영적으로 하나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는 중생할 길이 없습니다. 성신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신은 어머니신입니다. 어머니 뱃속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낳아 줘야 됩니다. 거짓 사랑으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참사랑으로 참어머니 참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시 낳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45-027, 1993.02.28)

35 예수님이 가정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부인 성신을 맞아야 합니다. 실체 성신을 맞이하게 되면 평면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들딸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조건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완전 탕감의 기준을 못 세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하늘 대신이요 여자는 땅 대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아버지요 성신은 인류의 참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성신이 실체를 쓰고 임해야 되는데 실체 되는 독생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023-176, 1969.05.18) p. 44

36 천국은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지 못하여 아들딸을 두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원에서 2천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신으로 하여금 역사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여성신인 성신이 어머니의 실체로 나타나 죄를 씻고 세상을 깨끗이 하면 예수님은 다시 신랑으로서 새로운 씨를 가지고 재림해야 됩니다. 재충전하여 새로운 천지의 참부모의 혈족으로 하나님을 중심삼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1-199, 1968.11.20)

37 기독교에서는 성신을 말해 왔는데 성신이 바로 어머니신입니다. 후해와입니다. 인류의 어머니인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해와로 어머니신인 성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멍이 뚫렸으면 뚫린 그 구멍을 때워야 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 하듯이, 해와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인간이 전부 사망세계에 들어갔으니 성신이 와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은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땅에 사는 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해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인류의 참조상이 되었다면 이 땅 위에 선한 아들딸을 낳았을 텐데 타락하여 사탄의 자식을 낳았으니 해와가 다시 해산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못 얻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신이 이 사명을 짊어지고 오늘날 인류를 붙들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이 다 끝나야만 해와가 구원되고 성신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009-138, 1960.05.01) p.44

38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영과 육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 일치된 입장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신을 세우고 갔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와야 합니다. 그 재림의 이상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몸적인 어머니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성취는 영육이 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세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영육을 갖춘 부모가 천지간에 나타납니다. (005-072, 1958.12.21) p. 45

39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중심삼고 여성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한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성신실체, 이 땅 위에 복귀할 수 있는 해와가 나타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예증합니다. 그러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아내가 되고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격자가 된 다음에는 참된 여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소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적 소행을 담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여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참된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참된 아내가 될 수 있고 참된 왕후가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받게 될 때에는 사탄세계에서 용감무쌍하게 박차고 갈 수 있는 여자여야 됩니다. (093-040, 1977.05.01)

40 어머니 복귀노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하나를 찾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곡절을 거쳐 온 역사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찾아 나오는 데에도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기준을 이어 나오기 위해 수천년 전에 계시를 받아 준비했던 사람이 계대를 잇고 이어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촛불을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를 중심삼고 꺼지지 않게끔 해서 지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264-056, 1994.10.09)

41 성신은 영적 어머니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신이 합하여 영적인 자녀를 번식시켜 세계적인 기반을 닦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만 세계적 구원섭리의 기반을 닦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기반을 중심삼고는 영육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육적 세계가 미완성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독교 세계의 기반을 육적 세계 기반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영육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적 역사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073-241, 1974.09.22) p. 46

42 예수님은 아담 가정에서 실수한 것을 국가적으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국가적 가인 아벨이 나타났고 그것이 세계에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국가기준을 못 넘었기 때문에 한을 품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 없는 영적 개발의 초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신인 성신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성신, 물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체를 입을 수 있는 신부 창조의 역사를 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시대에 와서 세계적 기준에서 어머니를 세운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상에서 실체권 해방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407-180, 2003.05.15)

43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대모님, 어머님 자신까지 3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의 자리에 못섭니다. 외할머니는 성주교, 대모님은 복중교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모님은 실체 주님을 모시려니 고향 땅을 떠나 망망한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키웠습니다. (541-211, 2006.09.30)

44 아버님은 함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3대 해와의 역사를 거친 딸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그런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성주교, 복중교의 계대를 이어 나와 1차 해와, 2차 해와의 축복을 받아 나왔습

니다. 대모님을 통해 그런 역사를 해 나온 것입니다. 탕감복귀 원칙에 따라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시는 주님을 승리의 판도에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못한 것도 이러한 탕감복귀 원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65-153, 1994.11.20)

45 참부모는 가인 아벨이 하나된 기반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 되는 성신과 아버지 되는 예수님이 비로소 영계에서 이 땅 위에 찾아와 참아버지 참어머니 실체와 더불어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 가정 출발을 함으로써 핏줄을 접붙여 축복가정을 이루게 되고 영계의 해방권, 지상의 해방권을 연결시켜 사탄까지 굴복시킨 것입니다. (333-015, 2000.09.24)

46 이제 참부모가 지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님과 하나되고 성신은 어머니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협력을 못해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본래 모든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인 전체가 예수님 앞에 하나되어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시 낳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예수시대에 횡적으로 못한 것을 이 시대에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평면적으로 벌어짐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어머니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는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아버님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235-252, 1992.09.20)

47 가정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천사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담의 자리에 있는 아버님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어머니의 분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아버지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어머니의 분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아버지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아버지의 아들딸이었다는 조건을 걸고 다시 태어나서 복귀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아들딸로 다시 태어났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결혼하기 전에 아담의 뼛속에 아기 씨로 있던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발전소의 전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으로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성신실체와 마찬가지입니다. (243-224, 1993.01.10)

48 어머니는 세계를 대표한 여자로서 아들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여자들은 어머니의 분신이 됩니다. 어머니를 자기 남편 이상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성신입니다. 성신을 배반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 해도 밑천

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분입니다. 다시 낳아 축복하는 것입니다. (233-087, 1992.07.30)

제3절 참부모는 복귀섭리의 완성자

참부모는 재림주·구세주·메시아 사명 완성자

타락 인류 앞에 현현하신 참부모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이다. 참부모는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펼치는 재림역사의 주인이요, 인류를 거짓 사랑과 악한 혈통으로부터 참사랑·참생명·참혈통으로 전환하고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구세주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있다. 참부모를 중심삼은 가정의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되어 완전한 사랑의 수수작용을 하게 되므로 구세주가 필요 없고 원죄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부부·자녀 가정 전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곳이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시는 역사의 최종 목적지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귀섭리 목적과 인류가 바라는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p. 48)

1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하나님이 지상에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완성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귀해서 완성해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동안 복귀섭리를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된 남편과 부인을 세우는 것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구약 신약이 같은 목적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완성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약시대는 신약시대의 완성권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한 성약시대 안에는 신약 완성권과 구약 완성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구약시대가 모두 들어가서 완성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시대로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시대의 성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완성과 신약시대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재림주에 의해서 수습됩니다. 이 재림주에 의해서 구약시대권과 신약시대권, 역사적인 모든 것이 수습될 수 있는 축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0-325, 1993.10.15)

2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원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예수님시대에 국가적 기준에서 영계와 육계가 통일되었으면 제2 이스라엘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까지 하나로 만들어 이스라엘 나라와 하늘땅, 영계와 육계를 통일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한 시대 높은 차원으로 연장시켜서 2천년을 맞추어 아담 가정에서의 실패, 예수님 가정의 실패를 비롯해 막힌 모든 담을 헐어야 됩니다. 영계와 육계, 영계의 낙원과 지옥의 막힌 담을 헐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선명은 구세주다! 재림주다! 메시아다! 참부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라고 하면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필요 없습니다. 참부모에 일체화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471-213, 2004.10.03) p. 49

3 참부모는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해 줘야 됩니다. 거짓 부모가 세상을 거짓 사랑으로 낳아 놓았으니 세상을 구하는 데는 참부모의 참사랑으로 구해야 됩니다. 종교를 하나 만드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종교를 통일시켜 참사랑을 중심삼고 가정 정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 이스라엘인 유대 나라와 제2 이스라엘권도 그 나라를 중심삼고 가정 실패, 나라 실패, 세계 실패를 한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제1 아담, 제2 아담을 거쳐 제3 아담을 중심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세계 지상세계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비로소 찾아 가지고 그 위에 서 있는 분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세상의 구세주의 왕입니다. 참부모는 메시아의 왕입니다. 참부모는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왕입니다. 참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실체입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참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나 하나님이나 참된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399-178, 2002.12.23)

4 메시아 구세주는 이 땅에 와서 배고픔에서 해방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그 나라가 수난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서 해방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구세주는 와서 무엇을 해방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에서 해방해 주어야 됩니다. 구세주는 사랑을 중심삼은 해방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 해방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혈통의 해방자입니다. 혈통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혈통이 같다 할 때에는 형제권이 들어가는데 혈통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데 있어서 근본 되는 핏줄을 중심삼고 해방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194-011, 1989.10.15)

5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압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벌써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자연히 안다는 것입니다. 몸은 자연히 마음과 하나되게 돼 있지 마음과 몸이 싸우게 안 돼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각도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 각도를 맞추려니 종교세계에서는 반드시 몸을 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참혹한 정경을 당하지 않고는 본연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도를 개인적으로 맞추어야 되고 종족적으로도 맞추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맞추어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맞추어야 됩

니다. 그러려니까 참사랑을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각도를 맞출 수 있는 모델형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178-190, 1988.06.04) p. 50

6 아버님이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재림주라면 재림주가 될 수 있는 실적과 실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세계를 이겨 그들이 공증할 수 있는 증거 위에 서지 않고는 메시아의 자각성, 참부모의 자각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생과 어려운 일을 거쳐 지상세계나 천상세계에서 참부모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기반 위에 서야만 메시아 참부모의 자각성이 천지를 넘어설 수 있는 기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일대에 수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 어느 개인이 꿈을 꾸지 못하는 일을 다 거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396-265, 2002.11.10)

7 아버님이 메시아의 소명적인 책임과 그 관을 놓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메시아로구나. 아니 갈 수가 없구나.'라는 자각이 앞서야 됩니다. 타락은 에덴동산의 아담 해와가 자체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했으면 축복한 대로 실천해서 그것이 틀림없어야 동거하고 동위권에 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참·동위·동거함으로써 상속 받습니다. '틀림없이 참부모요. 틀림없이 메시아다.'라고 해야 됩니다. 밤에 비치는 등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등대는 틀림없이 밤에는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어두운 세상에 광명한 빛을 발해야 됩니다. (396-023, 2002.11.02)

8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동위권·동참권이 있고 축복과 상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탄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은 채 그 주위에까지 침입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방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천년의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해방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 본래의 가정이상 기준을 복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해 왔습니다. 아버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전후좌우 전부를 정리해서 사탄권 방비의 대책과 공식을 세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시하면 걸려버립니다. 참부모는 그런 것에서 전부 승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승리권, 가정적인 승리권을 전부 세웠다는 것입니다. (290-103, 1998.02.03) p. 51

9 영계의 지옥세계를 철폐하고 닫혀 있는 천국문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한 숙명적인 사업의 곡절을 풀기 위해서 생애를 바쳐 나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환경이 인정해서 모실 수 있는 그 기반 위에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참부모란 말을 안 했지만 영계에서 직접 받아서 참부모이고 메시아이고 구세주라고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메시아, 개인적인 참부모, 개인적인 구세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주적인 메시아라고 하늘땅이 공인해야 됩니다. '저분은 우리 참부모요. 메시아다.'라고 공인하는 영계의 통일적 기반에서 그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승리의 패권 자리에 서야 됩니다. (396-265, 2002.11.10)

10 메시아는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적 아벨로 오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역사를 탕감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이 완결되면 그 기반 위에 비로소 부모의 내용을 갖추고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와 유대교가 하나되어 가인 아벨이 어그러뜨린 역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완결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은 참부모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복귀 역사에 있어서는 형제가 하나된 후에 부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적 기준에서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되고 유대교와 제사장이 가인 복귀를 통해서 하나됨으로써 그 국가적 기반 위에 메시아가 현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메시아가 하나 되었으면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중심삼고 분립되었던 가인 아벨, 분립되었던 국가적 기준을 하나로 완결지음으로써 메시아는 부모의 형태를 갖추어 새로운 가정 편성과 동시에 세계적인 현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11-116, 1999.08.29)

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삼고 전체가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부모권·왕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장**자권은 전부 이루었지만 부모를 모릅니다. 오시는 재림주, 부모를 모셔서 왕권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모가 와서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세계가 되면 지상천국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세계 역사에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라든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우주'라든가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지상에 참부모가 와서 부모권복귀 왕권복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나라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세계적 정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이지만 여기에는 영계가 가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주, 하나의 천주가 아니기 때

문에 ‘하나님 아래의 영계와 육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주가 와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삼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로마까지 점령했으면 하나의 세계가 되고, 그다음에는 영계까지 통일했으면 ‘하나님 아래 하나의 우주, 하나의 천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오시는 재림주 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311-116, 1999.08.29) p. 52

12 메시아는 아버지로 와야 됩니다. 부모로 와야 마지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참부모가 있기 때문에 참아버지가 있고 참어머니가 있고 참사랑이 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참부모에게서 참아들딸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이 거기에 있을 수 있고 참된 가정을 연해서 횡적으로 확대하면 참된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군림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참부모는 과거에도 없었고 후대에도 없습니다. 역사상에 한 분밖에 없는 참부모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 이상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혈연적 관계, 부자인연을 가졌다 할 때에는 참부모의 승리의 패권을 서슴지 않고 상속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초월해서 무한한 세계에까지 나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참부모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부모를 표제로 하여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참부모의 사랑 가운데 참된 가정과 세계, 참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266-250, 1995.01.01) p. 53

13 타락의 고개를 넘어서 참부모의 승리적 발판을 중심삼고 새로운 지상·천상천국의 해방·석방시대를 선포할 수 있는 때에 들어갑니다. 타락하지 않았던 기준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영계를 모르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인들, 위인들이 전부 통일 결의를 하였고, 영계의 낙원에서부터 지옥까지도 결의해서 해방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지상도 그러한 자리에 세워 주려는 것입니다. 구세주·메시아·참주인인 재림주가 와서 다 완성했습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새로운 해방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같이 살면서 손댈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574-187, 2007.09.04)

복귀섭리를 완성하신 참부모님

하나님의 복귀섭리역사는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탕감복귀하여 인류의 참아버지 참어머니, 즉 참부모가 등장하실 때까지 계속된다. 참부모는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단 하나의 중심적인 모델로서 현현하신다. 역사는 여기서부터 수습되고 열매 맺히고 출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흘러간 과거가 부활되는 것도, 분열된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수습되는 것도, 그 하나의 세계가 기원이 되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참부모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복귀섭리의 완성자가 되신다. 참부모는 인간의 최고·최종 희망이기 때문에 역사적 소원은 참부모가 현현한 현실권 내에서 성사되는 것이다. 참부모가 나타난 그 시대가 역사 완성의 출발점이다.

14 참부모는 하나님이 창조의 출발에서부터 창조과정, 탕감복귀역사 노정에서 목표로 삼고 나온 소원입니다. 참부모의 현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이상적 사랑을 중심삼은 완성체의 중심이요, 가정적 완성체의 중심이요, 종족·민족·국가·세계적 완성체의 중심입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지상에서 그 완성체 중심의 대상적 기반을 이루려던 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전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와서 다시 완성적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기반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참부모와 하나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섭리역사의 목적입니다. (268-163, 1995.03.31) p. 54

15 타락이 없었다면 참부모라는 말이 필요 없고 구원섭리니 복귀섭리니 재창조섭리니 부활섭리니 하는 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타락함으로써 구원섭리가 있게 되었고 구원섭리를 이룰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세주는 어그러진 과거사를 청산짓기 위해 하나님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해서 나타난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해야 될 일은 사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지배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천사장이 아담을 전도(顚倒)해 버렸습니다. 아담을 주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주인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구세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원리적 내용을 제시해서 종 되는 사탄을 자연굴복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적 평화의 기점을 지상에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4-260, 1991.02.03)

16 복귀섭리는 재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데는 본연의 창조원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본연의 창조원리의 중심이 하나의 완성된 남성이요 하나의 완성된 여성입니다. 그런 완성된 남성과 여성은 부부를 맺어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의 다리를 놓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이상의 도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 타락의 그날로부터 지

금까지 재창조의 원리원칙을 따라서 아담을 찾아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세계적 종교에는 반드시 재림사상이 있습니다. 도주들이 다시 와서 평화의 세계, 이상적 세계로 인도한다고 하는 재림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중심, 완성된 아담을 표준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195-130, 1989.11.07)

17 아담 해와는 부모에 의해 완성되고 부모와 하나됨으로써 그 모든 아들딸이 승리권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8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 8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타락한 것은 아담 해와 개인이지만 타락권은 천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인 아담 해와가 타락했지만 그 결과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천주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영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권을 탈환하지 않는다면 해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넘기 위해서 많은 탕감을 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오는 데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초래한 장본인은 어디까지나 아담 해와입니다. 아담 해와가 그 조상입니다. 그 악한 조상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완성한 조상이 와서 모든 것을 해명하고 누구든지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 내용을 교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한 주인이 아니면 그 고개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재림주이고 참부모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는 개인완성·가정완성·종족완성·민족완성·국가완성·천주완성을 이루고 최후에는 하나님까지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251-019, 1993.10.15) p. 55

18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음 받았지만 원수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원수의 자식으로 취급받아 나왔습니다. 따라서 참부모는 자녀를 찾아야 되며 역사적인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부모는 역사과정에 더럽힌 모든 것을 청산하고 사탄이 참소 못하는 자리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육계에서 영계에 올라가거나 영계에서 땅 위에 내려와도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자리를 닦아 놓아야 합니다. 참부모가 왕래하는 길에 있어서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막아야 됩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게 된 것은 인류의 조상이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참조상으로 오시는 참부모는 과거·현재·미래에 통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닦아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019-205, 1968.01.07)

19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싸움을 그만두게 할 수 없고, 사탄도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은 아

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재창조하고 싶어합니다. 복귀노정은 재창조의 노정입니다.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재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대교·기독교·통일교가 중심입니다. 3단계로 올라가서 끝날의 재림 때 참부모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그 참부모는 하나님의 비밀, 사탄의 비밀, 그리고 인간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계는 전후·좌우·상하가 무질서합니다. 재림 때 참부모가 이 땅 위에 나타나서 그것을 청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영계까지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이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주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류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고속도로를 닦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게 되면 이상세계, 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해될 것이 있을 수 없고 사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세계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영계와 육계의 해방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세계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참부모가 나타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문제없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315-139, 2000.01.30) p. 56

20 부모님이 가는 길은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 골짜기를 메우고 넘어서 이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한, 만년 한을 품고 하늘부모와 지상부모의 한을 겹쳐서 책임을 해야 될 예수님의 사도,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늘·지상부모를 해방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고 복 받겠다고 합니다. 저나라에서 다 걸립니다. 하나님은 폭포수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357-055, 2001.10.26)

21 재림주는 인류의 참부모 입장에서 다시 참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 천지부모의 자리를 거쳐 인류 구원 섭리를 완성해야 됩니다. 메시아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가정보다도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훌륭하게 모실 수 있는 효자·효녀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참사랑을 중심한 아버지의 자리에서 참생명과 참혈통을 연결해 새로이 출발해야 되는 인류 이상적 핵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축복결혼 가정을 연결하여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315-213, 2000.02.02)

22 영원한 사랑에 취해서 영생을 찬양하고 영생의 가치를 하나님가 더불어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랑 신부가 새로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자리는 수많은 인간을 대표한 자리, 하나님과 인간이 상봉하는 자리입니다. 신랑 신부라는 자리가 본래의 인간으로서 희망하였던 최고봉이 아닙니다. 신랑 신부의 자리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이 출발할 때에 부모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였으니 부모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권 내에서 키움을 받고 나타나야 할 것이 신랑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자리가 이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야 할 최후의 종착점은 참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그의 참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그의 참된 아들딸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인간이 바라는 최후의 희망봉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교회는 참부모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과정을 거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들딸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인간이 타락되었던 것을 다시 복귀 완성하여 하나님을 참된 부모로 모시고 영원한 가치의 일체요 영원한 생명의 일체요 영원한 사랑의 일체로 화하여 새로운 재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지상에 현현하는 것이 복귀 도상에서 인간이 가야 할 최후의 종착점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가는 길이 복귀의 노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대해 구원섭리해 나온 것도 이러한 목적에 도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068-133, 1973.07.29) p. 57

23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참다운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고 갈라지려야 갈라질 수 없는 참다운 부부를 이루어 참다운 아들딸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부모·참부부·참아들딸이 되어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다운 아들딸이 우주와 인류의 중심이 됩니다. 그들을 중심한 나라가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나라는 망하고 중심이 없는 세계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는 세계를 돌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출발하여 발전한 문화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는 하나님을 모셔 오고 온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활제도는 만민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제도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국가관, 여기에서 논의되는 세계관,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이념은 전 세계 만민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국가관이요 세계관이요 이념입니다. 인류는 하나의 문을 향하여 끝날의 때를 바라며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참부모의 소원은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된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복귀할 수 있습니다. (019-205, 1968.01.07) p. 58

4절 참부모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은 종적 부모, 참부모는 횡적 부모

하나님의 실체대상으로서 창조한 남성격 대표가 아담이요 여성격 대표가 해와이다.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자존하면서도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1남1녀로 창조하신 목적은 실체세계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체(體)를 입기 위함이었다.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의 체를 입고 실체세계와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체를 입지 않은 무형의 하나님으로는 유형실체세계를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일체가 되어 완성한 터전 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면 아담과 해와는 외적이요 횡적인 참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내적이요 종적인 참부모가 되는 것이다. (p. 58)

1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죽어서 영계에 가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쓰고 사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체를 가진 아버지로서 이 땅에 현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리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첫 조상되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유형과 무형 양면으로 현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형세계와 무형세계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되는 모습이요 우주가 하나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체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온전히 전수하여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유한한 물질세계의 원리원칙을 터로 하여 만든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완성에 이르면 그들 속에 내재하여 완전일체를 이룸으로써 아담이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자 아담인 영원한 참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개인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결혼식을 올릴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물론 대대손손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을 상속받고 사는 하나님의 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501-032, 2005. 07. 14) p. 59

2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투입해서 사랑의 절대대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랑의 실체대상이 필요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지상세계는 물론 천상세계에서도 실체가 없으면 실체 자녀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으로서 체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한 참부모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

을 중심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조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대상으로 지은 인간이 영존하도록 하기 위해 번식의 기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대 창조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요 혈통의 뿌리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뿌리입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아담 해와가 결혼할 때 하나님은 아담 해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일체적 사랑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요 아담 해와는 횡적인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부모의 혈육을 받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종적인 자신이 되고 몸은 횡적인 자신이 되어 일심·일체·일념·일화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65-315, 2007.06.13)

3 하나님이 몸과 같은 분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가 완성한 아담 해와입니다. 완성했다는 것은 종적 하나님과 횡적 아담 해와가 하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몸이 되고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마음같이 돼 있습니다. 참사랑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적인 하나님도, 횡적인 아담 해와도 서로 위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전체를 대신해서 있는 것입니다. (338-212, 2000.10.29)

4 인간은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그 존재의 가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 즉 종적인 참부모와 횡적인 참부모의 두 참부모가 하나되어야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이고 완성한 아담 해와는 횡적인 참부모가 되어서 그 두 부모가 하나된 터 위에 나의 심신통일이 이뤄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란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함께 이상으로 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천주의 대표적 가정과 중심적 가정이란 천상에 있는 대표이고 땅에 내려오면서 8단계의 원형으로 수직이 되는 가정입니다. 수직적인 입장에서 천상의 대표와 중심이 하나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565-307, 2007.06.13) p. 60

5 하나님은 생명의 기원이요 사랑의 기원이요 혈통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하나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횡적인 부모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자식인 동시에 형제입니다. 형제인 동시에 부부요, 부부인 동시에 나중에 아들딸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낳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기뻐하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자기 아

들딸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지와도 바꿀 수 없고 자기 일신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223-267, 1991.11.12)

6 아담의 아들딸은 하나님의 사랑권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아들딸이 되었다면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종횡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딸은 두 나라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와 지상나라, 종적인 나라와 횡적인 나라, 종적인 부모와 횡적인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종적인 부모의 내적인 모든 것과 횡적인 부모의 안팎의 모든 것을 전수받은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황족은 두 나라를 이어받은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황족이 되면 두 나라에서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완성적인 기반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식화되어 이뤄짐으로써 종적인 나라와 횡적인 나라를 이어받은 하늘땅의 완성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과 아담 해와의 외적인 실체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황족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이고 아들딸은 이 두 세계의 이상을 이어받은 혈족이라는 것입니다. (240-017, 1992.12.10)

7 하나님을 1대라고 하면 2대가 되어야 할 분이 참부모입니다. 그 2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참혈통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3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3대 복귀가 통일교회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입니다. 영계까지 무한하게 연결**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실체의 횡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종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횡적인 아버지는 참부모입니다. 그것이 90각도에서 사랑으로 만납니다. 그곳이 남편과 아내도 하나되는 곳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되는 정착지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 생식기를 통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하나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되어 혈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을 상속해서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주체와 대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상과 형상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형실체와 유형실체가 하나되는 것이 결혼식인데, 그렇게 결혼한 첫날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은 인간으로서의 아담과 해와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과 참부모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생명·혈통과 참부모의 사랑·생명·혈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363-073, 2001.12.16) p. 61

8 하나님은 종적입니다. 아담 해와가 횡적으로 와서 만나게 될 때에는 중앙

에서 만나 부딪쳐야 됩니다. 남자 여자의 평등기준이 종적입니다. 둘이 품겨 하나되려고 할 때 반드시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을 중심삼고 서로 도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자일체·부부일체·형제일체라는 말은 사랑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몸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될 때에는 종적인 기준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적 기준이 먼저 연결됩니다. 종은 인력에 의해서 빨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횡보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종적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되어 돌게 된다면 전체가 하나를 중심삼고 구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이 되고 아담 해와는 부체가 되어 사랑의 구형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들딸이 완성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262-189, 1994.07.23)

9 참된 종적 부모가 하나님이고 참된 횡적 부모가 참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천주의 축복권을 상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맺어진 심정권에서는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평등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적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횡적 부모는 참부모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6-214, 1993.04.16)

10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종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조상은 횡적인 수평적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바퀴 돌려놓아도 어디든지 같은 위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90각도를 갖춘 것은 동서가 상하로 되어도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가 남자 여자의 자리에 와도 좋고, 아들딸의 자리가 어머니 아버지 자리에 가도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손자 손녀의 자리에 가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일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가정 구성 이념에 있어서 통일적 기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소모가 없고 투쟁이 없으니 평화의 진리가 만년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4-105, 1990.07.01) p. 62

하나님은 참부모의 형상으로 영존

창조본연의 세계에서는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참된 부부의 사랑으로 완전일체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신다. 무형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실체대상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하나님과 일체가 된 참부모가 되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상가정,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성인간을 통하여 영계와 지상계가 연결된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해와가 참부모가 되어 지상 생애를 다 마치고 완성한 영인체로 영계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참부모인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현현하시게 된다. 즉 하나님은 완성한 아담 해와인 참부모에게 임재하여 양위분의 형상으로 영존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

한 죄악세계를 창조본연의 세계로 탕감복귀하여 창조이상세계를 완성하신 참부모님께서는 지상과 영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되신다.

11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분립해서 본성상 본형상의 실체가 되고 본음성과 본양성의 실체가 되어 지상에 현현함으로써 천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고 위치나 차원에 있어서는 남성격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 남성격 주체가 참부모를 중심삼고 실체 속에 들어와서 핏줄이 하나되고 사랑과 생명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체의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권속으로서, 창조이상이 완결된 전체·전반·전능의 세계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각자가 그 영생의 천국에 주인 가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육이 승리한 실체 세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602-258, 2008.11.16) p. 63

12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도 체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체대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낳아서 천국에 입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한 본연의 형태를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백성을 거느려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완성해 갈 것이 부부입니다. 오목 볼록이 비로소 하나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랑의 대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하나님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자기 위치와 가치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그 말이 계시적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생활해서 그러한 실체로 거두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가정적·종족적·민족적·국가적 대상이 되고 모든 영광의 실체로서 무한세계에서 영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상입니다. (264-153, 1994.10.09)

13 우주는 하나님의 모양을 중심삼은 상징적인 실체입니다. 그다음에는 형상적인 실체이고 실체적인 실체입니다. 모든 것이 본체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 닮은 것이 형상적이요, 형상을 주체로 하고 닮은 것이 상징체입니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돼 있습니다. 상징·형상·실체를 3단계라고 말하지만 그 중심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니까 통일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징도 하나를 원하고 형상도 하나를 원하

고 실체도 하나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상징적인 존재는 만물입니다. 형상적인 존재는 인간입니다. 실체적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현현하기 위한 것이 창조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도 되지만 또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실체를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출발 기지가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 상징적 중심존재요 형상적 중심존재요 실체적 중심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세계의 참부모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을 대신한 실체와 일체 돼 있는 것입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도 상징세계가 있고 형상세계가 있고 실체세계가 있습니다. 내용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안팎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중심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심도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실체의 중심은 영계에 가서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98-106, 1999.01.01)

14 본래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통해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전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부 전수해서 아담에게 나타나 체를 입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체로서 전부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자기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나가는 자리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절대시해야 됩니다. 마음은 부모보다 앞서고 스승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상은 자기의 몇천만배 좋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아담 해와 자체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행동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형체로도 아는 것입니다. '나같이 하나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270-271, 1995.07.16)

15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참부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상이 필요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완성을 위해서 대상을 만들었고 체를 입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번식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땅에 실체가 없으면 번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요건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체를 입어야 됩니다. 체를 입으려면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의 체를 입힌 것이 아담 해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그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270-272, 1995.07.16) p. 64

16 만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무형의 내적 부모요, 완성한 아담 해와는 영원한 유형의 외적 부모가 됩니다. 최대의 사랑은 주체와 대상이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아서 완전히 하나될 때 나타나고 결실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는 자동적인 통일이 벌어지고 또 생명이 연결되며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대상 존재인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부모와 자녀로서, 주체와 대상으로서, 또 무형의 창조주와 유형의 실체로서 완전 조화-통일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이상을 이루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흔히 창조주와 피조물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창조주 앞에 사랑이상의 실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상은 자녀인 아담 해와를 유형실체대상으로 세워 영원히 그들과 합일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무형의 하나님의 사랑이상이 실체 인간을 통하여 실현되는 기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상체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135-011, 1985.08.20)

17 지상의 왕은 아담 해와로 횡적인 참부모요, 천상의 왕은 하나님으로 종적인 사랑의 왕입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그때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참부모로서 합덕하는 시간입니다. 지상천국, 즉 횡적 천국을 출발시킬 수 있는 왕의 현현과 종적인 천상천국의 왕의 현현이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모든 것의 중심, 본궁이 남자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 궁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왕궁의 주인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입니다. 생명의 왕궁도, 혈통의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천국의 왕도 하나요, 천상천국의 왕도 하나입니다. 아담 해와가 결혼하는 날이 하나님의 결혼식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사랑의 인연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완성시켜서 해방의 자리에 세워 주는 것입니다. (253-213, 1994.01.23)

18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상속한 인간이 횡적인 자녀를 번식해야 됩니다. 씨의 주인이 참부모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번식해서 그것을 횡적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부모는 아들딸이 많은 부모입니다. 아들딸이 많은 가정의 부모가 축복을 많이 받는 기반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 가치를 완성하게 되면 이 가정 기반을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전후좌우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완성의 점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완성이 여기에서 이뤄지고 형제의 완성, 부부의 완성, 부모의 완성이 여기에

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은 이것을 닮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딸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때 보이는 세계에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이상, 부부의 이상, 형제의 이상, 자녀의 이상, 이 네 가지가 부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자녀가 점점 자라 형제가 되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되어 사방으로 돌게 될 때 완성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재창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현한 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들의 결혼 첫날밤 거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48-109, 1993.08.01) p. 66

19 무형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형상을 쓰고 유형세계에 영존하시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 해와는 참부모, 참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체를 가진 아버지가 되므로 보이지 않는 무형과 유형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주가 하나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체를 갖출 수 있는 모습으로 아담 해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해와를 하늘나라 왕궁의 왕좌에 오르게 하여 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궁을 만드는 것입니다. 왕국은 사랑의 왕국입니다. (341-104, 2000.12.31)

20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체를 갖추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유형세계인 지상세계와 무형세계인 영계를 통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이자 아담 해와의 통치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즉 평화왕국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지상천국의 왕이자 천상천국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담 해와는 모든 피조물 위에 절대적 존재요 유일한 존재이며 영원하고 불변한 참사랑의 실체 부모, 실체 왕, 실체 주인, 실체 스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체를 쓰고 사는 분신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501-033, 2005.07.14) p.66

제2장 참부모님 성혼과 참부모시대

1절 참부모님 성혼과 '어린양 혼인잔치'

성혼식과 '어린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된 '어린양 혼인잔치'는 참부모님 양위분의 성혼식으로 실

현되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아담 해와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찾아 맞추는 것이다. 양위분의 성혼식은 인류역사 종말시대에 제3차 아담으로 온 재림메시아가 그 배필이자 제3차 해와인 성신실체를 신부로 맞아서 하나님께서 참된 인류시조 부부로 축복해 주시는 예식이었다. 잘못 태어난 인류는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참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담과 해와가 성장기간 중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거짓부모로 떨어지고, 예수님마저 이스라엘 선민에게 불신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한 자리에서 참부모님의 성혼식이 거행된 것이다. (p. 67)

1 본래 인간시조는 선한 부모로서 출발해야 했는데 악한 부모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악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내 사랑과 같이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직계 사랑을 통한 혈족으로서 남아진 아들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의 그 자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어린양잔치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신랑으로 와서 하나의 신부를 찾아서 한 기준 위에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을 설정하여 확고한 목적을 세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세계가 기독교문화권 내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를 맞이하려면 그렇게 발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참된 아들 하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아들 하나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도주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습니다. (041-028, 1971.02.12) p. 67

2 수많은 종교 경서 중에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고 들고 나온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원천입니다. 그다음에는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한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 받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사상은 신부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독생자이지만 신랑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있으니 독생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신랑 신부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신랑 신부의 잔칫날이란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의 깃발을 들고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 혼인잔치 석상이 에덴동산에서 바라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 나갔으니 인류세계의 종말에서 이 혼인잔치 석상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5-125, 1985.10.04) p. 68

3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독생자다.'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

니다. 그다음에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독생자이고 신부는 독생녀입니다.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양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잔치를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독생자와 독생녀로 삼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160-272, 1969.05.17)

4 성경을 보면 끝날에는 메시아가 와서 어린양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양잔치는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삼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참부모로서 나타났다면 사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를 중심삼고 그 혈통을 묶어 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남자 여자, 성상형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여 생명을 움직여서 사랑·생명·혈통이 하나되어 소용돌이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자와 남자의 주인이 바뀌어 둘 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된 자리에서 생명의 씨, 후손이 연결됩니다. 그것이 창조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깨져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만물을 대신해서 찾고 인간을 대신해서 찾고 부모를 대신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섭리의 골자입니다. (325-131, 2000.06.30)

5 재림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 즉 어린양잔치를 하려면 예수님을 중심삼은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부가 타락하기 전 아담 앞에 있었던 해와입니다. 예수님은 2차 아담이고, 오시는 재림주님은 3차 아담입니다. 그래서 3차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와서 타락하기 전의 해와를 찾아서 어린양잔치를 해야 됩니다. 결혼함으로써 인류의 부모가 되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악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가하기 전의 선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선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양잔치를 하는 것은 선한 부모로 등극하기 위해서입니다. (036-264, 1970.12.06) p.69

6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고 때와 환경을 갖추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참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되고 타락한 조상이 되었으니 만민 앞에 타락하지 아니한 선의 조상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는 하늘에 가 있는 영인들에게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을 기독교에서는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어린양잔치는 재림 예수가 아버지로 오셔서 어머니를 세우는 잔치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신랑 신부요 신랑 신부의 중심은 어린양잔치입니다. 이 어린양잔치의

중심 뜻은 본래 하나님이 허락한 때와 환경을 갖추어서 하늘과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참다운 인간 조상으로서 축복받는 것입니다. (009-254, 1960.06.05)

7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담 해와의 대신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을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나무 대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완결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한 날을 못 가졌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명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한 시간, 6천년 원한의 심정을 터놓고 하나님과 혹은 앞으로 오시는 주님과 아들딸의 인연을 맺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2천년 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년 기독교 역사는 딸을 찾는 역사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딸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해원하는 그날이 어린양잔칫날입니다. (007-303, 1959.10.11) p. 70

8 지금까지 종교는 이상적인 하나의 남자와 이상적인 하나의 여자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몽땅 내 사랑이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랑 신부라고 하는 것은 곧 세계를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찾기 위한 내용을 말합니다. 완성된 남자와 여자가 이 땅 위에서 만나 혼인잔치를 치러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재림주님은 신부를 찾아서 어린양잔치를 해야 됩니다. (041-027, 1971.02.12)

9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원죄 없는 아들딸을 낳아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선 부모는 참된 부모입니다. 또 그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된 가정입니다. 그 아들딸은 하나님 가정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뜻을 창세기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신랑 신부의 이름을 세워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신랑은 완전한 참아버지로 오시는 분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참어머니로 등장하는 분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써 사탄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해 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찾아 비로소 하나님을 중심삼고 성례식을 이룬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양잔치라는 말입니다. (053-037, 1972.02.06)

10 천지가 생겨난 후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어 신랑 신부로 등장하는 날, 하나님이 '땅위의 갖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심정을 찾고 하늘부모를 찾아오기에 얼마나 수고했느냐!'라고 하시며 무형의 하나님 대신 실체를 갖춘 참부모로 축복해 주는 잔치가 어린양잔치입니다. 참신부의 약속과 이념을 갖춘 기준과 참효자·참효녀의 기준 위에 세워 식을 올리는 것이 어린양 잔치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그날부터 참부모가 됩니다. 무형의 하나님을 대신한 유형의 실체를 쓴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선한 세계에서 잘 자라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심정을 대신할 수 있는 효자 효녀다.'고 할 수 있는 심정의 인연을 완결지어야 됩니다.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효자 효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노정을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창조이념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본연의 아담 해와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됩니다. 어린양잔치는 바로 그 형태를 갖추는 식입니다. (009-107, 1960.04.24) p.71

11 어린양잔칫날은 6천년 전에 잃어버렸던 참부모를 모셔 놓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아니한 인간은 자식 된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거꾸로 된 것입니다. 참부모를 모시고 참자녀를 낳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될 텐데 타락한 인간이 번식되다 보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을 반대로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탕감복귀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태어난 인간은 전부 반대로 가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반대의 길로 가야 됩니다. (019-203, 1968.01.07)

12 예수님은 신부를 찾는 것이 일대에 이루어야 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는 최후의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 이스라엘권 내에 있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일 잘 믿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특등 신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찾아 나온 것이 예수님 이후의 2천년 역사입니다. 신부를 찾음으로써 참다운 조상이 나오고, 참조상이 나옴으로써 참부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동산에서 참조상인 참부모가 생겨났어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6천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재림시대를 중심삼고 참조상을 찾아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세계 앞에 승리한 하나의 남자가 생겨나서 하나의 해와를 재창조한 기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혼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6천년 전에 인류의 참조상이 세워졌

어야 할 기준을 복귀한 것입니다. 수많은 타락의 자식들이 번식된 6천년 만에야 거꾸로 참부모가 생겨난 것입니다. (019-163, 1968.01.01)

참부모님 성혼식은 구원섭리사의 전환점

1960년 4월 11일에 거행된 참부모님 양위분의 성혼식은 탕감복귀역사에서 장성기 완성급의 탕감고개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세계적이고 천주사적인 사건이다. 기나긴 섭리사의 기반 위에 완성한 아담으로 오신 참아버님은 지상에서의 섭리기반을 닦으신 뒤 해와인 참어머님을 맞이하셨다. 하늘 대신인 참아버님, 땅 대신인 참어머님께서 하나되어 갈라진 하늘과 땅을 비로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여 서로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구원섭리사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p. 72)

13 '역사는 1960년대부터 대변천시대로 들어갔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통일원리를 중심삼고 말한다면 '1960년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삼고 지상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기독교문화권이 모든 것에 실패하고 그 기지가 될 수 있는 한국이 반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이름을 중심삼고 성혼식을 한 거기에서부터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그 역사의 환경이 사망세계로 점점 떨어져 내려가 인류가 분열되어서 파탄의 세계로 가는 것 같지만, 변화하는 역사시대는 점점 서로 다른 지역적 환경을 넘어서 세계로 가는 시대로 급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부모님의 혈족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확대해야 될 섭리시대를 맞이하여 사상의 혼란이 오고 전통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전부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후 14년이 될 때까지 한국 기독교 자체로 보면 재건교회나 신사참배를 한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한국을 중심삼고 세계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1960년 4월의 성혼식이었습니다. 이 성혼식을 하고 부모의 날이 설정됨으로써 비로소 인류역사에 있어서 거짓 부모로부터 더럽혀진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이어받았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삼은 본연의 새로운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인연이 이 지상에 뿌리를 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까지 타락된 천사장의 핏줄을 이어왔지만 1960년대에 부모님이 생겨난 그날부터는 본연의 아담 해와의 핏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뿌리를 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6-218, 1990.01.01) p. 72

14 복귀섭리에 있어서 최고점, 정점은 1960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국

가와 국민,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통일교회가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성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새 역사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때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도 1960년은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52-068, 1971.12.22) p. 73

15 부모님이 성혼한 1960년 4월 11일, 그날은 외적으로 보면 평범한 날이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혼식을 한 것이 다른 날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인연을 갖춘 것이냐? 또 그 기간이 역사적인 인연을 거치고 시대적인 인연을 거치고 미래의 인연을 거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 나타난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전체를 집약시킨 대표적인 핵이 될 때 역사는 그날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032-069, 1970.06.21)

16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해와의 말을 들음으로써 주관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창조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으로 와서 거기에 일치될 수 있는 하나의 여성을 찾아야 됩니다. 아담을 통하여 해와를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의 순서를 거쳐 해와, 즉 신부를 세워 새로운 가정을 성립시켜야만 비로소 완성세계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타락한 시대의 끝날이요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1960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인연이 현현하였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위업은 아담 해와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즉 성혼식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해 나오는 복귀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것은 장성기 완성급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류는 이것을 다시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소생기는 종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요, 장성기는 양자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완성기는 적자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의 시대인 구약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나타남으로써 역사는 양자의 시대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시조가 양자권인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외적인 형태와 인연을 갖추어 다시 만들어서 장성기 완성급의 위치까지 올려놓아야 비로소 친자권을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 시조

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장성기 완성급에 가야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은 가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가정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 기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1960년에 부모님을 중심삼고 그 기준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028-012, 1970.01.01) p. 74

18 아버님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 위에서 모진 바람에 휩쓸리면서도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몇 천만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만나는 고비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이 뜻을 누가 세울 것이냐?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사지가 잘려 병신이 되어 누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반을 닦기 전에 이름이 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지 않고 40고개를 넘어갈 날을 고대하며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말없이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복귀의 기준을 세운 이후의 4천년 역사를 끝날에 40수를 세워서 넘어가야 함을 알고 40고개가 어서 넘어가기를 손꼽아 기다린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아버님의 숙원이었습니다. 천주 앞에 일신을 세워 놓고 죽지 않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013-039, 1963.10.16)

19 하나님은 예수님을 4천년 만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오신 분입니다. 태어나기야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10개월 만에 태어났겠지만 땅 위에 오시기 위해서 4천년 전부터 준비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인연을 지니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4천년 역사를 탕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세 때에 예수님이 그런 역사적인 탕감을 했어야 되는데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인해 그것을 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7년노정에서 탕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40일 복귀란 말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세 고비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우리에게 40대 고개를 바라보고 가야 할 노정이 남아 있습니다. 즉 그러한 탕감노정이 남아 있기에 다시 오시는 주님**도** 7년 대환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019-150, 1968.01.01) p. 75

20 1960년의 40고개를 어떻게 넘느냐? 원리가 가르쳐 주는 40고개를 어떻게 넘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 40고개가 되는 7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세상에 7년 대환란이 남게 되었

습니다. 그러니 이 고개를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야곱이 거쳐 나간 복귀노정과 수많은 선조들의 엉클어진 탕감의 노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길에는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었습니다.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가는 길 앞에 짐이 되었고 가시를 박아 놓았으며 돌짝밭을 만들어 놓았지 거기에서 도움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019-111, 1967.12.31)

21 아버님 일대를 보면 40세까지는 개인 승리의 기준을 중심삼고 비로소 횡적인 기반으로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역사의 목적이 아담 하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1960년대는 아담을 중심삼고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때였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이 실패했던 국가기준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960년대의 통일교회는 예수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권을 아버님의 나이 만 40세를 기준 삼고 실체적으로 탕감해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던 통일교회는 1960년대에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결정적인 선서를 하지 못했다면 역사는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075-010, 1975.01.01)

22 부모님의 성혼식은 지상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천주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세계적 기준에 있어서 종적 탕감조건을 횡적으로 이 지상에서 해결하는 실체로서 영육 아울러 승리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아버님은 성혼식 전에 예수님이 세 제자, 반역한 그 제자를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성혼식의 목적이 아담 가정을 탕감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버이인 아담과 해와는 부부관계에서 타락되었습니다. 타락이 부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귀는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남자 혼자서는 복귀되지 않습니다. 여자 혼자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 입장을 복귀하여 참부모의 기준을 지상에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제자의 약혼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22-190, 1969.02.02) p. 76

23 복귀는 아담 가정 복귀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이 실수하니 그 뜻이 노아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심판으로 멸하고 사탄 침입의 조건을 넘어선 가정을 세워서 섭리의 기반을 지상에 구축해 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옮겨지고 예수님께로 이어져서 우리 시대까지 온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세 자식을 복귀하

지 않고서는 참부모의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제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아담 해와에게 있어서 세 천사장을 상징합니다. 세 천사장이 하나되어 아담 해와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타락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부모의 경지에 서기 위해서는 세 천사장격인 세 제자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재리주님도 완전히 복종하는 3명의 신앙의 자녀를 갖지 않으면 참부모 입장에 설 수 없는 것이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사의 경지를 넘어서 박해의 한 가운데도 따라가고 효도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은 그러한 세 제자를 1960년 4월에 찾아 세웠습니다. 복귀노정은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것이니까 축복은 자식의 입장에 서 있는 자가 먼저 받습니다. 가정권은 야곱의 가정이니까 12수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인의 제자, 3인의 자식을 중심으로 하고 그와 같은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22-190, 1969.02.02)

24 부모님이 1960년에 성혼식을 한 후에 성염을 만들었습니다. 참부모님이 타락한 세계의 물건을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완성한 부모가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성염을 불태우는 조건으로서 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림으로써 사탄세계를 청산해 버리고 하늘 편이 취할 수 있는 조건적 방편적인 물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설정되면 세상 나라의 모든 골동품, 세상 나라의 모든 물건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267-119, 1995.01.03) p. 76

2절 참부모님의 성혼식

성혼과 참어머님

예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타락 역사를 종결짓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를 복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선민과 유대교인의 불신으로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림의 약속을 남기신 채 영계로 가셨다. 참아버님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1945년 8월 15일 한국 땅에서 광복과 더불어 메시아로서의 공식노정을 출발하셨다. 그러나 기독교와 하나되기 위한 초기 섭리노정이 그들의 불신으로 실패함에 따라 기독교를 대신한 새로운 섭리단체 기반을 닦으시기 위하여 3대축복의 조건복귀를 위한 탕감노정과 수난노정을 걸으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54년 5월 1일 서울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시고 그때로부터 신약시대 전체를 탕감복귀하는 7년노정을 걸으시어 탄생 이후 총 40년의 탕감노정을 승리하심으로써 사탄 분립 노정을 세우시게 되고, 드디어 1960년 4월 11일 참어머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인간시조 부부로서 영광의 성혼식을 가지게 되신 것이

다. (p. 77)
1 2천년 전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소원을 2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제1차로 유대민족을 중심삼고 이루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제2차로 기독교의 세계적인 판도를 중심삼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봉을 실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점을 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직계 아들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연결해 맞추기 위한 것이 재림이상입니다. 재림이상에 있어서도 역시 참다운 가정이 있어야 천도가 출발하는 것이요, 이것이 있어야 참된 사랑과 참된 행복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019-104, 1967.12.31)
2 고장 난 것은 원상태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도 새 세상, 나라도 새 나라, 민족도 새 민족, 사람도 새 사람, 아들도 새 아들, 딸도 새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새 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 딸을 찾던 도중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주의 소망인 어머니 한 분을 찾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노정에는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벌판에서 저 벌판으로 몰리고 도망다니면서 핍박받던 처량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윗 종족의 요셉 가정을 중심삼고 뜻을 세우려 한 예수님이 가정에서 뜻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출가해서 3년 공생애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019-161, 1968.01.01) p. 77
3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았으니 뱃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이런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중생해야 됩니다. 영적인 구원섭리는 완결지었고 영적으로는 중생되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육 동시에 중생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은 참부모로 오십니다. 실체를 쓴 인류의 아버지로 오시는 것이요, 실체를 쓴 신랑으로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실체를 쓴 인간 가운데에서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참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타락한 부모는 가졌지만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복귀섭리를 거쳐 실체를 쓰고 참부모의 사명을 완결짓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역사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의 영적 구원을 기반으로 영육 완전한 아들딸을 해산하지 못한 것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012-228, 1963.05.15) p. 78
4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성신도 이 땅 위에 와서 신부의 체를 쓰지 못했습니다. 영계에 가 보면 성신은 어머니신입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서 실체를 갖추게 되면 신부는 천도의 모든 내용을 알고, 즉 진리 가운데 신부의 자격을 완수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한 가정을 준비하고 한 국가를 준비하고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운동이 세계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두 악한 혈통을 받고 태어난 타락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참여성이 나와야만 합니다.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대표적인 존재가 나올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지므로 세계적인 여성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여자가 남자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기는 타락한 것을 여자가 복귀할 수 있는 때이므로 종말기인 지금 여자는 천적인 해와를 대표하여 나설 수 있는 혜택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해방과 더불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러한 때에 참다운 어머니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를 땅 위에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때문에 땅 위에 신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016-182, 1966.03.22) p. 78

5 통일교회는 부모의 종교입니다. 종의 종교에서부터 양자의 종교, 서자의 종교, 그다음에 직계 아들딸의 종교, 아들딸의 종교에서 어머니 종교를 통해 발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머니를 찾아 나왔습니다.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인데 여성격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상대인 동시에 이 땅의 왕후요, 종족 왕의 왕후요, 가정 왕의 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대신이요, 어머니 대신이요, 자기 아내 대신이요, 자기 딸 대신입니다.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본래 있으면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후가 되고, 이 나라의 왕후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 조상들의 할머니가 되고, 자기 어머니가 되고, 자기 아내도 되고, 자기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한 것이 어머니의 가치입니다. (398-134, 2002.12.09) p. 79

6 여러분은 가정을 믿는다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누구를 믿느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예수님 가정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에게 물어봐도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지 석가모니의 가정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구세주종교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참부모주의입니다. 참부모종교입니다. 참부모종교는 사위기대를 이루는 참부모 생활종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딸의 구세주가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복귀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성경 끝 장에 복귀의 내용을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부와 성신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신부는 주님의 아내가 되며 성신은 영적인 것이니 여기에서 영육이 합한 어머니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아버지로서 남성이니 여성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찾아서 새로운 세계로 구원해야 됩니다. (021-050, 1968.09.01)

7 아버님은 훌륭한 어머니를 맞이하였습니다. 얼굴이 미인이라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목소리도 아름답고 모습도 우아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의 철학을 자신이 이루고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 원리대**로** 가기 위해 어머니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찬양하면서 생활해 왔고 대중에게 찬양하고 선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에 통하기 때문입니다. (229-224, 1992.04.12, 한국중앙수련원) p. 80

8 세상 사람들이 내 아내가 미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미인인지 내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인은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미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예뻐야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년이 지나더라도 그 미모를 상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순화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환경을 고이 빛내고 품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미인 중의 미인인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미인 중의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20-175, 1991.10.19)

9 어머님은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어머님의 눈이 훌륭합니다. 싸악 웃을 때에는 내가 그 웃는 매력적인 눈에 홀딱 반해 버립니다. 그런 매력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어머니 코를 참 좋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코가 발락 발락하고 웃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매력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대해서 그렇게 감동시킵니다. 그다움에 심각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머니가 입을 내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입이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는 잘생긴 데가 정말 많습니다. 부인들이 그런 무기를 가졌으면 만사형통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7-093, 1983.05.05(목) 한국 중앙수련원)

10 어머니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감이 빠릅니다. 천성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심하

고, 또 그 결심한 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수난길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중심삼은 인내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귀한 것을 자기 아들딸이 아닌 여러분에게 서슴지 않고 백 퍼센트 다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성격이라고 봅니다. (092-329, 1977.05.03)

11 어머니는 20년간에 열두 명 이상의 아들딸을 낳아서 야곱 가정을 완전히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모두 하나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별개의 종족으로 묶어진 형제권이 문제였습니다. 야곱 가정은 네 여자를 **통**해 낳은 열두 아들딸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년 이내에 열두 명 이상의 아들딸을 낳지 않으면 어머니의 사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0세가 넘으면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만 18세까지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1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40세 아버님이 17세의 어머니와 결혼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16세 때 모든 것을 결심하고 나선 것처럼 여자도 16세를 넘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여성의 해방권을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247-255, 1993.05.09) p. 81

12 역사시대에 여자들이 거친 모든 참상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위할 수 있고 더 고생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뜻 앞에 서 있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풍상을 많이 겪었으니 도리어 내가 낙망할 때에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정적인 탕감을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에도 걸리지 않고 내려올 때에도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20세 전까지 내려와서 20세 전 소녀를 하늘이 상대로서 허락한다면 그 소녀는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가더라도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배후에서 찾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고 다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배후로 홍씨 할머니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121-212, 1982.10.27)

13 어머니는 성혼식 때 17세였습니다. 아버님은 40세였습니다. 40세인 남자가 17세 처녀를 어머니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사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셔서 이루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할 때 어머니에게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대로 가기 때문에 아버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에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공격할 때에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길대로 가니까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더

라도 넘어야 되고 가야 됩니다. (236-109, 1992.11.03)

14 나는 성혼식 한 달 전에 아버님께서 몽시에 나타나셨고,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고 계시가 내렸습니다. 그때로 말하자면 하늘이 청혼을 했다기보다는 하늘의 훈령이 내린 것입니다. 훈령이 있었을 **때** 나는 완전히 자아를 떠난 입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늘의 섭리가 아니고는 그런 큰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아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라며 계시에 대해 나의 마음을 응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만 17세 때의 2월쯤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아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정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 수련소)

15 우리 외가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원모 외할머니의 조씨 문중에 조한준 미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991년 아버님을 모시고 북한에 갔을 때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한준 미륵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하늘의 공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나라를 위한 정성을 기억해서 충정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할머니로부터 대모님이 태어나셨고, 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재림메시아를 맞이하고 재림메시아 상대를 길러 내기 위한 하나님의 환경창조가 그 조한준 미륵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 앞에나 하늘 앞에 정성들인 것은 반드시 하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님을 만나게 될 때 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환경창조 가운데서 탄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내가 이뤄야 될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12.25, 천정궁)

참부모님 성혼식

예수님의 노정을 재탕감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 나오신 참아버님께서 1960년 3월 27일 새벽 4시에 서울 청파동 1가 전 본부교회에서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해 지극정성을 바쳐 나왔던 홍순애 대모님의 외동따님인 참어머님과 가약식(佳約式)을 가지셨다. 나흘 뒤 3월 31일에 참부모님 성혼식과 세 제자 축복식에 대한 정식 결정이 있었고, 4월 11일(음 3.16) 오전 10시 전 본부교회에서 전국 각 교회에서 선발된 식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참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되었다. 제1차 식은 '탕감복귀 부모의 식'이었고 곧이어 거행된 제2차 식은 '영광의 부모의 식'이었다. (p. 82)

16 어머니를 모신 것은 해방 후 14년 만인 1960년입니다. 왜 14년 만이냐? 인간시조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14년의 핍박 노정에서 한국에 착륙해 통일교회라는 제단을 만들어 기독교와 대한민국과 싸우면서 어머니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세운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지상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시대로부터 노아시대, 아브라함 이후에 섭리사적으로 문제 되었던 것들의 탕감조건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설정해 나오던 역사적인 모든 문제들을 기독교문화권이 이어받고 2천년 동안 영적으로나마 탕감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어머니를 택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던 그때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유대 나라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중심삼고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 입장이고, 통일교회는 그때의 예수님과 기독교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나라와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졌으니 그와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143-178, 1986.03.18) p. 83

17 아버님은 결혼식장에 나가기 전날까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배반자들이 참소하는 일,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반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를 잘 믿던 열두 명이 하나되어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일교회 편 되었던 사람도 반대하고, 기독교도 반대하고, 나라도 반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와 가룟 유다가 하나돼서 예수님을 죽이던 것과 마찬가지 운명에 몰린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1960년 음력 3월 16일입니다. 그때는 반대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한 발짝을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서 새로이 출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최고의 천운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던 것처럼 신부를 맞을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혼식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세의 제일보를 내디딘 것입니다. 비로소 하늘의 중심을 잡고 환경을 처리해서 급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067-250, 1973.07.01)

18 탕감복귀역사는 원칙을 거쳐야 됩니다. 원칙적 조건을 거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통일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반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두 명이 단결하여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버님을 나라가 반대하고, 기독교가 반대하고, 통일교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세 패가 하나되어

서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 편에서 보면 나라는 소생이고, 기독교는 장성이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086-238, 1976.04.01) p. 84

19 7년 동안 준비해서 부모님의 성혼식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1955년에는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식을 하고 선포식을 해서 전국적인 기반을 닦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도를 하고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까지 국가적인 기반을 닦아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반대하고 기독교가 반대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성혼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나아가던 그와 같은 환경에서 성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나라가 반대하고 기독교가 하나되어서 반대하고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111-199, 1981.02.20)

20 가약식이 있은 15일 후 성혼식이 있었습니다. 성혼식은 '탕감복귀 부모의 식'과 '영광의 부모의 식'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차 식에는 각 12명씩 양 옆으로 들러리가 섰습니다. 흰 치마저고리에 긴 면사포를 쓰고 신부단장을 한 나는 아버님과 함께 성가 '사랑의 봄동산'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2층 계단에서부터 내려와 행례대에 올랐습니다. 아버님의 기도와 선포에 이어 대표식구의 송사와 송시 봉독이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제2차 식은 한국 전통의 사모관대, 족두리에 활옷 차림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하나님께 선서하시고, 일동 4배를 한 다음 상면 3배, 예물교환, 상면 1배로써 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표식구의 예물 봉정과 송사 봉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서하신 뒤 참석자들을 위해 손을 들어 축복기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역사적인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어머님 2013. 11.30, 천정궁)

21 아버님께서는 성혼식 참석자들에게 아버님의 도장이 찍힌 참석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이 표만 있으면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부모님 성혼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신 말씀이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고이 간직하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에 따라 성혼식 상이 준비되었습니다. 40종류로 차려진 잔칫상이 단상에 크게 마련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와 겸상하시어 큰상 앞에서 진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경축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관복과 활옷을 벗고 한복 차림으로 아버님과 함께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먼저 노래를 하신 후 나에게도 청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지명하셔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류의 첫 참부모로 등극하게 되는 성혼식은 그 의의와 가치로 보아 만민이 경하와 찬양과 영광과 송영을 올려야 할 섭리적 예식이었으나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어머님 2013.11.30, 천정궁) p. 85

22 하늘이여,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옵고, 땅이여, 환희의 보답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옵소서. 영광, 영광, 무한한 영광, 천지가 합하여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길이길이 후대 만상까지 이 기쁨의 시간을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북을 쳐서 사탄세계를 향하여 진군 진군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을 어서 속히 복귀의 용자로 세우기 위해 있는 피살을 다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맹세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날 세우신 딸을 받으시옵고, 승리의 월계관을 씌우시어서 한스러웠던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50-113, 1960.03.27)

23 오늘 성혼식이 있기까지 준비해 나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자리에 딸을 보내 주셔서 6천년 섭리와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부름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황공할 따름입니다. 뜻이 이뤄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심정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치가 되어 나아가기를 맹세하겠습니다. (참어머님 1960.04.11, 전 본부교회)

3절 성혼식 후 7년노정과 참자녀 탄생

참부모님의 성혼식 후 7년노정

1960년 성혼 이후 7년간은 참부모님의 가정이 사탄 침범을 받지 않는 조건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직접주관권내에 들어갈 수 있는 본연의 가정 기반을 완성하는 기간이었다. 성혼식 후 참부모님 가정은 장성기 완성급 고개를 넘어 완성기까지 7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육계의 공세에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셨다. 동시에 7년노정은 참어머님께서 뜻에 대한 절대복종으로 탕감조건을 세우고 참아버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되어야 하는 책임분담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7년노정은 참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참어머님을 완성기준으로 세워 나가시는 상대 완성의 기간이기도 하였다. 양위분이 믿음과 사랑과 실체로 하나되는 기간이다. 이때는 축복가정들이 태어나실 참자녀들과 복중시대로부터 하나가 되고 참자녀들을 아벨로서 사랑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양위분은 참부모님 가정과 축복가정들을 이끌고 인류역사상 최초의 사위기대 가정 완성을 위한 7년노정을 개척해 나가시어 마침내 승리하셨다. 7년노정의 내적인 탕감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에 인류시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설정하신 후 1968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4대명절을 완전히 복귀하셨다. (p. 86)

1 아버님은 1960년까지 무엇을 했느냐? 야곱 노정과 같은 14년노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의 7년노정은 여러분에게는 제1차 7년노정이지만 아버님에게는 21년 노정의 마지막 노정입니다. 이 7년노정을 중심삼고 우리는 이 민족과 상봉할 운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반3년노정에는 내적으로 가정적인 기준을 세우고, 후반4년노정에는 외적으로 사회적인 기준을 세우면서 7년노정을 맞추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버님은 가정적인 대표, 민족적인 대표, 세계적인 대표를 찾았다는 조건을 세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만물의 날을 설정하고 그 터전 위에 세계적으로 성지를 택정한 것입니다. (017-135, 1966.12.11)

2 예수님이 다윗 종족, 즉 요셉 가정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대 없이 승리의 일로를 개척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탕감복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복귀·가정복귀·종족복귀를 하여 통일종족을 중심삼고 대한민국 앞에 민족복귀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제1차 7년노정을 설정하고 활동해 나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통일교회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시대권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 7년노정을 감으로써 민족적인 탕감조건을 세워서 예수님의 소원인 민족을 구원하는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019-165, 1968.01.01) p. 87

3 탕감복귀 해원성사에 있어서 해와 완성을 위한 탕감복귀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님은 아담 복귀완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거쳐서 승리의 터전을 닦아 온 당당한 남성으로 설 수 있지만, 여성이 당당한 여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해와의 탕감복귀노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심정적 투쟁은 물론이요 몸적 투쟁도 물론이요 신앙적 투쟁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아슬아슬한 길을 개척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7년노정이 끝남으로써 비로소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날을 맞이했던 것이요, 비로소 이 땅 위에 여자로서의 자격을 얻어서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059-284, 1972.07.27)

4 개인적인 탕감노정을 끝낸 아버님은 가정으로서 생활의 터전을 갖춘 1960년부터는 가정적 십자가의 길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6천년의 역사를 탕감해야 될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교회보다 가정적 십자가를 어떻게 탕감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모의 날을 책정하고, 자녀의 날을 책정하고, 만물의 날을 책정하고,

하나님의 날을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1960년부터 시작해서 1968년 정월 초하루를 기하여 하나님의 날을 선포할 때까지의 내적인 수난노정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아버님은 사탄과 대결하여 가정적 단계로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030-334, 1970.04.06)

5 제1차 7년노정 기간에는 부모로서 비로소 탕감역사를 해원성사하는, 하늘땅 앞에 맺혔던 모든 타락의 기원을 청산짓는 내적인 싸움을 해 나왔습니다. 이 시기는 혈통적 문제에 있어서 아담 해와가 실수했던 모든 역사적인 곡절을 풀어서 청산지어야 할 내적 싸움의 때입니다. 뜻 앞에 자기 일신은 물론이요 자기 전체의 심정문제까지도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인연을 가려나가면서 1차 7년 노정을 완결함으로써 부모의 승리적 탄생을 보게 딘 것입니다. (077-215, 1975.04.12)

6 1960년을 맞이해 어머님을 모심으로써 통일교회가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반대하고 기독교가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국가를 밀고 나갈 수 있고 기독교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을 모시더라도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그냥 아버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결혼 후에 3년 기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부터 가정을 찾아 들어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리의 길을 그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1차 7년노정 가운데서는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다 탕감하는 일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제1차 7년노정은 어머님을 중심삼은 가정적 기반을 닦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또 장성기 완성급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기 완성급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106-267, 1980.01.01) p. 88

7 하나님은 6천년 동안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역사적인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머니 한분을 찾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내서, 즉 아담을 재창조한 후에 그를 통해서 어머니 한 분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후에 아담을 위주로 하여 해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창조에 있어서도 아담을 보내서 해와를 찾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1차 7년노정 동안 어머니가 사탄세계의 참소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머니 자신이 사탄과 직접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아버님을 절대 믿고 언제나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책임을 못해서 해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을 복귀하고 사탄을 굴복시켜서 승리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7년 기간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세워 놓은 다음에는

어머니를 세워 심령적인 기준을 연결해서 타락한 부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여 참부모의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017-322, 1967.04.10)

8 제1차 7년노정은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 해와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부모가 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더라도 이 기간을 무난히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적 대표의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 아버님을 중심삼은 제1차 7년노정입니다. 그러니 이 7년 기간에 어머니와 아버님을 중심삼고 역사시대에 엉클어진 모든 것을 풀어 놓아야 됩니다. 이 7년 기간은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던 것을 번복해서 완전히 아담 권한을 세워 해와를 다시 교육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를 교육해서 자기 기준 앞에 무슨 일이든지 절대복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순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기간이 이 제1차 7년노정 기간입니다. (073-245, 1974.09.22) p. 89

9 부모님의 가정이 자리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 정상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소생·장성·완성의 자리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 완성의 기준은 7년노정입니다.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정도 거기에서 7년노정을 거친 것입니다. 1968년 정월 초하루 하나님의 날을 책정할 때까지 어머니는 여자로서 가기 힘든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 길을 다 가려서 무난히 하늘의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훌륭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170-034, 1987.11.01)

참자녀 탄생과 사위기대 완성

성혼 이후 참부모님 가정에 맏딸 예진님과 맏아들 효진님을 필두로 14명의 참자녀들이 태어났다. 맏아들딸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참부모 가정의 사위기대 완성은 복귀섭리상 인류가 본받고 이뤄야 할 이정표가 되었다. 참어머님께서 일선 식구들과 같이 보리밥을 드시는 등 같은 심정으로 생활하며 해산하셨다. 식구들은 가인적 자녀로서 참자녀와 사랑으로 일치되어 쌍태와 같은 반열로 다시 태어나는 조건을 세워야 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자녀님 봉헌식 때 식구들에게 3대 제물 조건으로 세 가지 선물을 분배하신 후 미역국과 밥과 우유를 먹게 하셨다. (p. 89)

10 부모님 가정에 아들과 딸이 태어남으로써 여러분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닦아졌습니다. 그런 조건을 세우려면 같이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조건을 세우는 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진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온 식구가 국밥을 먹는 식을 가졌습니다. 효진 아기 때에도 전국적으로 이 식을 거행했

습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해산과 더불어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054-225, 1972.03.24)

11 여러분은 아버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 씨와 같은 자리에서 조건을 세우고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태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부모님의 아들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부모님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어머니와 같이 식구들이 국밥을 먹는 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진이가 나옵니다. 예진이가 첫딸입니다. 이로써 모든 조건을 탕감하여 모든 여자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낳았다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3년 동안 하나된다는 식을 가져야 됩니다. 효진이는 첫아들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예진 아기 생일을 아벨적 생일날로 기념해야 되고, 남자들은 효진 아기 생일날을 아벨적 생일날로 기념해서 하나됐다는 실체적 조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054-225, 1972.03.25) p. 90

12 1963년 음력 4월이 지나기 전에 식구들끼리 맺힌 것을 모두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962년 이전에 교회를 나간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세계를 대하여 문을 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1월 18일은 효진이가 탄생한 지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이 더 기뻐해야 됩니다. (012-131, 1963.01.18)

13 참부모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식과 하나될 수 있는 기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외적 자식과 내적 자식,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961년에서 1963년 사이에 우리 예진과 효진의 두 아들딸이 생겨났다는 것은 복귀섭리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만물의 날을 세우고 제1차 7년노정이 끝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차 7년노정이 끝난 후인 1968년부터 통일교회는 정상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책정했다는 것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완성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069-301, 1974.01.01)

14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척당한 것이므로 그 예수님의 위치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림에 의한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성장해 버린 우리는 글자 그대로 완성한 아담 몸속에 씨의 입장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부모님으로부터 태어

난 참자녀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거듭나기 위한 조건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완전히 굴복함으로써 양자(兩者)는 모두 복귀된다는 원리가 있으므로, 이 원리에 의해 가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벨 입장인 죄 없는 참자녀와 일체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일체화함으로써 우리는 복귀된 자녀로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죄 없는 참자녀가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때 여러분은 음식물과 그밖의 같은 성분의 것을 나누어 받았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은 참자녀의 입장에 참여하는 노정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참자녀와 일체화하고 새로이 태어날 자녀로서 조건을 세우느냐? 아버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부모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만이 아니고 부모와 그 자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55-119, 1972.04.01) p. 91

15 한국에서는 1960년부터 1963년까지 3년 기간에 국가기준을 중심삼고 전체 축복가정이 복귀의 노정을 갔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국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가복귀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전체가 나가서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아버님 어머님도 일선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상에 받쳐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들도 같이 그렇게 먹었다는 조건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054-225, 1972.04.01)

16 예진 아기와 효진 아기가 태어날 때 미역국을 먹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가인적인 가정은 아벨을 하나님 이상 모셔야 됩니다. 참부모 이상 모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다말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복중에서 뒤집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낳자마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권을 가정적으로 연결해야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뿐이 아닙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들은 그런 환경적 여건을 중심삼고 부모님과 접붙이지 않고는 자기 상대적인 존재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8-256, 1999.01.10)

17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아기들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3년 동안 복중의 아기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960년부터 1962년까지 3년간의 표어를 첫째 '생애 중 최대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 둘째 '아버님의 대신자가 되자', 셋째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자'로 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

주고 자랑하라는 것은 사위기대 복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3단계를 중심삼고 복중에 있는 아기와 더불어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과 같은 조건을 세워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3년 동안은 여러분이 보리밥을 먹을 때 같이 보리밥을 먹었고, 여러분이 나가서 활동할 때 같은 조건의 활동을 했습니다. 예진 아기와 효진 아기는 어머니가 보리밥을 먹고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035-228, 1970.10.19) p. 92

18 천사장은 아담 해와가 창조되는 그 시간부터 그들이 시집 장가갈 때까지 모시고 봉사하고 받들어야 했습니다. 천사세계가 아담 해와를 받들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한을 재차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 복귀의 과정은 맨 처음 아담 해와가 창조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세 아들딸을 세워 그들이 여러분의 아기를 복중에서부터 모시는 자리에 서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만으로 그냥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워 놓고 축복을 받아 아들딸을 낳으면 그 아들딸에게는 혈통복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천국 가기 전에 걸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1960년대에 자녀들을 중심삼고 복중에서부터 복귀해 나옴으로써 그런 조건을 다 세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미역국을 먹고 우유도 먹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것이 다 조건입니다. (023-316, 1969.06.08)

19 1963년까지 부모님도 보리밥을 먹으면서 일을 해 나왔습니다. 3년간은 탕감을 해야 됩니다. 가정적 탕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외지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리밥을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됩니다. 내적인 면에서 생활적으로 세계적인 제물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아들딸을 바쳐야 됩니다. 그 일을 해 나왔습니다. 예진 아기를 낳은 다음에 여러분이 국밥을 먹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국밥을 먹을 때 그 피를 받는 것입니다. 효진 아기를 낳을 때에도 그 기준을 중심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자녀의 날을 찾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만물의 날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기준을 중심삼고 축복의 한 날을 세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1차 7년노정이 끝나고 부모님 가정이 해방됨과 더불어 하나님의 날을 책정한 것입니다. (047-340, 1971.08.30) p. 93

4절 참부모시대와 구원섭리 완성

참부모 선포와 구원섭리

참부모님은 성혼 후 7년노정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 사위기대를 완성하심으로써 지상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출발 기대를 세우시게 되었다. 복귀섭리의 진전에 따라 각 시기에 맞는 탕감조건을 세우고 승리하심으로써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선포식을 거행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1990년 4월 1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언론인대회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무신론을 포기하라는 권고를 하시고 귀국하여 4월 30일부터 전국 12곳에서 열린 '모스크바대회 승리귀국 참부모님 환영대회'를 통해 한국 국민 앞에 참부모를 선포하셨다. 특히 1992년 8월 24일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 축하만찬회에서 세계지도자들에게 '본인은 금년 7월 초 한국의 5대 도시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여성연합지도자대회에서 본인과 본인의 내자 한학자 총재는 인류이 참부모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라고 선포하였습니다.'라고 밝히셨다. 참부모님은 축복결혼을 통해 인류를 참된 혈통으로 전환시켜주는 초인종·초종교·초국가적 차원의 혁명적 대역사를 하신다. 하늘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참부모만이 섭리적인 때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인류의 구원섭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p. 93)

1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기독교가 실패한 그 기준을 다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부를 찾아 세울 길이 없습니다. 40년간 세례 요한의 실패를 완벽하게 복귀하고 기독교문화권을 완전히 복귀해서 미국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미국 국회에 가서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하고 유엔에까지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자유세계를 대표합니다. 신부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머님이 신부 입장에 서서 미국과 일체가 되고 자유세계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엔에 가서 당당히 참부모를 선포하는 데 반대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위에서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했는데 전부 감동해서 박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249-109, 1993.10.08) p. 93

2 인간조상이 타락함으로써 4대 심정권과 3대왕권을 잃어버린 것을 이제 참부모의 이름을 중심삼고 해방된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든 사실을 4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재탕감하여 이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생애에 걸쳐 내적인 심정의 고독한 길을 걸어오심도 이 한 날을 대비하고 숙명적인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1992년을 맞이하여 4월부터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중심삼고 어머니가 총재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여성해방과 더불어 온 만민의 가정들을 하늘 앞에 품을 수 있는 부모가 현현했다는 사실을 중심삼고 출발해서 7월에는 메시아를 선포하고 참부모를 선포하고 구세주를 선포하고 재림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 위에 중심이 없고 소망의 기틀이 없던 가정과 나라의 혼란된 환경에 하나의 축을 세울 수 있는 섭리사적인 정착지대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조건을 세워서 어머님의 해방과ㅏ 2세의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241-249, 1992.12.26) p. 94

3 한국은 재림주가 오시는 곳입니다. 그 재림주가 아버님입니다. 1992년 7월 3일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글씨를 써서 재림주가 누구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써 놓았습니까? 문선명! 처음으로 쓴 것입니다. 발표했으니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천하에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232-109, 1992.07.03)

4 1992년 8월 세계문화체육대전 중에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8개 분과의 세계적인 정상급들만 1천 명 정도 모아 놓고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참부모다!'라고 해도 고개를 끄덕이지 흔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세계를 주름잡고 다니는 사람인데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줄 모르겠습니까? 전환시대를 측정하는 데에 나 이상의 감각이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가 공인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리를 못 잡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부부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했으니 이제 선포하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지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될 때 각료를 택했다 하더라도 택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나서야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임을 선포했으니 자리를 잡게 됩니다. (243-168, 1993.01.03) p. 94

5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 선포를 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해방의 참부모가 이 땅 위에 나타났다고 세계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참부모가 나왔으니까 아들딸도 참부모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참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써 참부모라는 말, 참부모라는 존재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322-250, 2000.05.21) p.95

6 아버님이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만난 것은 구약시대의 에서와 야곱의 만남과 같습니다. 야곱의 입장에 있는 미국·일본·한국을 대표한 아버님이 에서 입장에 있는 소련·중국·북한을 대표한 고르바초프를 만나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참사랑을 심어 주었다는 것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야곱의 환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에게는 형제와 하나되고 하늘부모를 모시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형제인 자유세계와 하나되고 하늘부모를 모시는 일만이 공산권이 사는 길입니다. 이는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이며 하늘 편의 승리를 가져오는 신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민족 앞에 참부모 환영대회를 통해 참부모를 선포한 것입니다. (204-144, 1990.07.06)

7 참부모 선포를 했으니 세계적이고 우주사적인 전환시기가 찾아옵니다. 참부모 뒤를 따르려면 참부모의 아들딸이 있어야 합니다. 참부모의 일족이 있어야 되고, 참부모의 일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참부모 선포를 했으면 참자녀를 중심삼은 참가정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제1차 아담, 제2차 아담이 실패했으니 이것을 탕감할 수 있는 종족적 메시아권을 확보해서 참부모를 대신한 선포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전환적인 국가기준과 세계기준의 터전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202-178, 1990.05.20)

8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수습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시는 재림주는 3차 완성한 아담으로 와서 1차 아담이 실패한 것, 2차 아담이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본래 인류는 1차 아담의 후손이 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아들딸로 인류가 꽉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미 통일천하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결혼해서 아들딸을 낳았으면 예수님의 일족이 이 땅 위에 장손으로서 왕권을 남겨서 천년만년 계승할 것이었습니다. 민주세계는 형제주의입니다. 부모주의가 아닙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 부모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 위의 형제주의, 이 세계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와야 합니다. (224-054, 1991.11.21) p. 96

9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10대에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남녀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씨를 뿌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라든가 가정붕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입장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 만민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본래의 주인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부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짓 부모에 의해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결딴내는 끝날이 되면, 그 반대의 하나님 편은 참부모를 중심삼고 새로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과 천상의 모든 것이 하나되는 세계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부모가 나와서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출발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362-158, 2001.12.12)

10 메시아는 참아버지로 오시는 분입니다.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거짓 부모가 생겨서 인류가 거짓 혈통을 상속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구원섭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아무리 맑히더라도 깨끗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년이 흘러도 인류의 구원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책

임분담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이상입니다. 그러한 창조이상을 아담 해와가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나와서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을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길을 준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탕감복귀의 노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334-035, 2000.09.27)

11 지금까지 아버님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수백 번이라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만큼 두렵고 심각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길이 쉬운 **길**이었다면 사탄이 먼저 취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갈 수 없는 길을 아버님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권역을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남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인류의 중보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닦아 하나님을 모셔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주 기반에서부터 세계·국가·민족·종족·가정 기반에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하는 자리는 부모권 자리입니다. 이제 사탄이 넘어올 수 없는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248-037, 1993.05.30)

12 아버님은 유명한 왕국의 왕자로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재림주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민주와 공산, 모슬렘과 기독교의 4대 원수권 싸움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수확기가 된 때에 와서 이것을 수습하여 통일해야 됩니다. 명실공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성공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가족이 얽혀 고생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국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전부 정리해 왔습니다. (249-085, 1993.10.08)

13 주님이 다시 와서는 좌우익 세계를 통일해야 되고 종교세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좌우익 세계를 하나 만들고 종교세계를 하나 만드는 일을 아버님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소련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뤄야 합니다. 이러지 않고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섭리와 더불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나옴으로써 섭리와 더불어 역사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역

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온 것입니다. (235-212, 1992.09.20)

14 축복가정은 예수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복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조 10지파와 남조 2지파로 나뉘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에 의하여 하나되어야 했던 것이 분쟁에 의해서 국가적인 기준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입니다. 그것이 가인 아벨의 입장으로 세계적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위에 재림주가 와서 전환을 함으로써 승리권을 이루어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의 사명을 지닌 사람은 공산주의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세계 제일의 챔피언으로 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나 만들어야 하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고, 미국까지도 수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계와 정치계를 모두 하나되도록 해야 됩니다. (250-331, 1993.10.15) p. 98

15 참부모는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을 연결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걸려 있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담을 어떻게 부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사탄대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역사를 어떻게 막느냐 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사탄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언제나 사탄을 제거하는 일을 해 나온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안 받는 자리에서 이 일을 진척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탕감노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책임분담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책임분담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이 메시아의 책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 세력을 총출동시켜 참부모를 공격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탄의 담을 부수는 일을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영계까지 거쳐 해 나왔습니다. (131-070, 1984.04.16)

16 옛날에는 주류 종교를 믿어서 선한 이름을 남기고 선한 영계에 가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상의 섭리를 도와 왔습니다.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참부모님이 이 땅에 나와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 전통을 세우고 싸워 승리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권 해탈입니다. 세계적인 승리의 판도를 가졌기 때문에 참부모 시대에는 종교가 없어집니다. 아담 해와 자체가 타락하지 않고 참부모가 됐으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 자체를 중심삼고 영원히 하늘과 일체로 합덕하게 되고 그 일체적 이상을 중심삼고 선조들이 언제든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민권, 기독교의 세계적

선민권, 통일교회의 천주적 선민권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탕감복귀했기 때문에 종교권 해탈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지상세계와 평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민권을 통해서 종교를 거쳐 영계와 연결되어 과거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참부모 승리로 말미암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 주류권 내에서 구약완성시대로 접해 들어서 영계에 간 모든 선조들이 언제나 지상의 자기 후손들을 찾아와서 협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02-255, 1990.05.24) p. 99

참부모님의 최종일체·구원섭리 완결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2010년 천력 5월 8일(양 6.19) 오전 2시 20분과 5월 15일(양 6.26) 오전 3시 25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나님가 종적으로 일심·일체·일념·일화·일핵을 이루고 양위분이 횡적으로 최종일체를 이룬 터전 위에 구약·신약·성약시대의 완성·완결·완료와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2011년 천력 11월 17일(양 12.11) 천정궁에서 '천지의 모든 조재가 초점을 맞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기준을 찾아 세우신 가운데 모든 섭리의 완성·완결·완료와 최종승리를 선언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발표하셨다. 해양천정궁에서 천력 11월 17, 18일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이라는 선포문을 쓰시고 '하나님과 참부모님 일체(一體) 완료! 하나님이 완성·완결·완료! 아주! 시봉 천국 되다. 축 문선명 아주!'라고 선포하셨다. 또한 참아버님께서는 2012년 성화(천력 7월 17일, 양 9.3)하시기 21일 전인 천력 6월 26일(양 8.13) 지상 생애의 최후 공식선포문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남기셨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완결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 종족메시아가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17 아버님은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몸으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없는 전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늘땅을 생각하고 정성들입니다. 그 정성이 사무쳐서 하늘땅에 연결될 때 그 정성이 주류가 되어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속과 모든 영인들이 다리를 놓고 이 길을 통해서 아버님이 닦은 터전으로 오는 데는 사탄이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완전히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85-303, 1997.06.29) p. 99

18 아버님이 가는 길을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국이 반대했고

김일성이 반대했고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다 넘은 것입니다. 좌익을 무너뜨려 공산세계의 해방과 더불어 사탄권을 완전히 통일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나오는 것이 아버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길을 가는 데에는 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별의별 담이 있었지만 다 무너뜨렸습니다. 개인에서부터 하나님, 8단계까지 갔으니 담이 없이 돌아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개인 통일, 가정 통일, 종족 통일, 민족 통일, 국가 통일, 세계 통일, 천주 통일입니다. 아버님이 사탄세계의 담을 다 헐고 통일된 환경을 만들어서 조국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241-325, 1993.01.01) p. 100

19 4천년 기간을 대신한 지난 40년 동안 부모님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온 인류, 온 국가가 반대해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고개를 넘고 넘는 길은 사탄세계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천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여 사탄세계의 담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의 담까지 하나씩 무너뜨려서 고속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담과 해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장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하늘세계가 오고 사탄세계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모님이 가는 길에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244-208, 1993.02.07)

20 내 앞에 있는 개인적인 담, 가정적인 담, 국가적인 담을 포함해서 쌓였던 8개의 담을 전부 뚫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아담 해와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전부 닦아 나온 것입니다. 그 길은 내 개인적으로 돌아가고도 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국가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이만큼 살아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승리의 공포문입니다. 사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35-248, 1992.09.20)

21 복귀라는 것, 완성이라는 것은 아**담**이 일대에 해야 됩니다. 참부모 일대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선포식을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깃발을 꽂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포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인 되는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깃발을 꽂은 곳은 참부모와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권리권 내에 들어오지 사탄 권리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을 거치고 소련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와 참부모 선포식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족이 반대하지 않고 환경적 여건이 환영한다는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탄이 후퇴해야 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선포권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사탄이 끌어갈 수 없습니다. 나라 없이 살던 사람이라도 국경이 설정된 후에는 그 나라의 법과 환경에 맞춰 따라가게 되면 백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29-267, 2000.08.11) p. 101

22 아버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고 현현한,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려 온 구세주·재림메시아·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영계에서나 땅 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는데, 선언한 것은 헌법을 결정해서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일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법에 일치됨을 선언하고 나선 사람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완성의 표준이 되는 것은 물론 법의 결정의 표준이 되는 헌법 이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다 발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발표를 안 했지만 아버님 자신이 이제 갈 때에는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뜻을 중심삼고 관여했던 그 환경권 내에 인연되지 않음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가야만 천상세계에서도 비로소 안착할 수 있는 출발과 더불어 지상에서도 거기에 상대가 되어 하나됨으로써 평화의 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님 자신도 생사지권을 넘어서고 죽음을 제거하기 위한 최고의 정성을 퍼부어서 이 자리에까지 나왔고 이 일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504-203, 2005.08.16)

23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실체 이상 참부모로 모시겠다고 해야 됩니다. 어두움을 제거하고 빛 가운데 빛의 길을 따라가서 지옥 해방권까지, 천상세계에 사탄의 발자국, 그림자도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분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분담을 해서 하나님이 '내 천하다. 내 천주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에 한계선이 없고 언제나 24시간 광명천지니까 광명천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넘겨주고야 탕감, 해방·석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분담 완성권 해방권입니다. 하늘나라에 경계선이 없고 지옥에 경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큰 골짜기를 평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영계의 조상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조상을 부르면 오게 되어 있고 조상의 말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본래의 기준을 만들고 하

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창조이상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분단 완성이 됩니다. 원리원칙을 몰라서 타락했으니 참부모가 가르쳐서 일체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방권 지상 이상천국, 본향의 땅에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조국광복이 시작됩니다. (598-108, 2008.09.19) p. 102

24 아버님은 이제 다 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더라도 꿈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안팎으로 다 해놓고 틀을 닦고 훈련을 하고 또 틀을 닦고 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고생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평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311-107, 1999.08.19)

25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고향과 조국을 잃어버렸지만 지구성이 우리의 고향 땅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어떻게 효자·충신·성인·성자가 되고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천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4차 아담권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팔절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완전 정착 이후 구구절과 삼십절을 중심삼고 해방권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아버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전부 없애고 파괴했던 것을 참부모가 재창조해서 전부 복귀완성해 통일세계, 가정이상 일체 지상천국시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해방권을 중심삼고 4차 아담권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 몇 천년 동안 천국이 비었던 것을 한꺼번에 갖다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되고 사탄까지도 용서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이제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창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13-282, 1999.12.26)

26 아버님은 일생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인 반대권을 다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개인 완성과 동시에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 8단계 완성을 틀림없이 한 것입니다. 6천년의 역사가 걸렸어도 완성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에는 탕감이 없습니다. 제4차 아담의 심정권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을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궁전 앞에까지 직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와 휘발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휘발유만 공급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32-042, 2000.09.04)

27 하나님은 일대만이 아니라 수천 년의 구원섭리가 이어져 내려와서 이때

까지 4천년 복귀역사를 해 나왔습니다. 전체는 6천년이지만 이스라엘 선민권을 중심삼은 4천년의 복귀 역사가 틀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이것을 40년 동안에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일생을 통해서 닦아 놓은 모든 복을 어머니에게 전부 전수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자기 할아버지같이 믿고 자기 아버지같이 믿고 자기 오빠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훌륭한 것이 그것입니다. (256-219, 1994.03.13)

28 섭리적 희년인 2007년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는 일이 뭐냐? 아버님이 무형의 하나님 대신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천기, 땅의 비밀, 인간의 비밀을 전부 밝혀내고 탕감해서 승리한 기반을 어머니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것을 중심삼고 180개국에서, 그다음에 가인 아벨이 하나돼서 40개국에서 일체권 가정을 중심삼고 수습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 가정들이 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1대, 아담이 2대, 그다음에 아담 가정의 가인 아벨이 3대인데, 3대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것을 넘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넘어섬으로써 해와권이 승리했고 부모권이 승리한 것입니다. (569-071, 2007.07.22)

29 아버님은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평양에 갈 때 벌써 어떠한 사람을 만날 것인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해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갈 때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모두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옥중을 거치면서도 열두 제자 이상을 다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 세워야 탕감복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념탑을 세울 곳은 어디냐? 아버님이 옥중생활을 하던 그곳이 기념될 수 있는 실체의 자리를 닦은 곳입니다. 댄버리 이상을 중심삼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될 수 있는 일체권을 발표했습니다. (566-183, 2007.06.19) p. 104

30 참부모님께서는 모든 탕감복귀 섭리역사를 완성·완결·완료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천일국의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뜻을 모르는 많은 여러분의 이웃과 더 나아가 여러 나라 사람들을 교육해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하늘 앞에 진 빚을 갚는 길이며 세계 앞에 사명을 다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0.22, 일본 고베)

31 2010년 음력 5월 15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최후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과 그 외에 대한 방침을 아버님과 어머님이 약속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머님이 아버님과 일치되어 나간다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공포한 시간이 2010년 음력 5월 15일 오전 3시 25분입니

다. 타락한 세계의 종막전에 있어서 어머님이 아버님과 하나님을 중심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2010년 음력 5월 15일 오전 3시 25분의 사건입니다. 그 때 '3시는 초부득삼(初不得三)의 3시대를 대표하여 구약·신약·성약시대의 완성·완결·완료의 시대를 맞아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의 최종일체권이 완성·완료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함'이라고 했습니다. (2010.07.01, 청해가든)

32 천지의 모든 존재가 2011년 12월 11일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부모가 이 땅 위에 주인된 창조주의 본연의 기준을 완성·완결·완료함으로써 땅과 하늘, 아버지와 자녀, 가정과 세계가 일체 해방·석방되고, 천주의 참부모의 승리와 창조이상세계의 승리의 패권을 완성·완결·완료 선포하는 이날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만세! 참부모님 만만세! 만우주의 해방 승리의 패권의 왕자, 참하나님과 참부모 일체권 가정의 천국이 되게 허락하여 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승리의 주권이 결정된 것으로 선포하나이다. **하**늘땅 천지부모 일체 될 수 있는 이 아침에 완성 해방 종료를 선포하는 시간이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2011.12.11, 천정궁)

5절 참부모님을 닮고 참부모가 되는 길

참가정의 전형을 세우신 참부모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개성완성을 하여 참된 부부,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참된 가정은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순차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생활의 시공간권으로서 창조목적을 완성하는 근본기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소원이 된다. 참된 가정의 일원이 된 인간은 참사랑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인을 침해하거나 만물세계를 악용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하나님의 창세 이후 최초의 참된 가정이상을 완성하심으로써 인류가 본받아야 할 삶의 전형을 세우셨다.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시며, 즉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위하는 삶'을 살아오신 천지인참부모님의 생애 전통을 본받아 그대로 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p. 105)

1 부모님 가정이 전체 가정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의 가정을 수평에 놓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전부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에서 부모권이 이루어지고 왕권이 벌어지고 황족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부터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전부 표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 통일된 조국입니다. 가정이 전부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가정을

중심삼고 전부가 통할 수 있어야 조국이 됩니다. 새 가정들이 연결된 것이 조국입니다. 내가 그런 모델 가정이 되면 어느 집에 가더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47-334, 1993.06.01)

2 저나라에 가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에 따라와서 같이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나 많은 사람이 출입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부모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된 새로운 가정 조직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맞는 것입니다. 장자권복귀·부모권복귀·왕권복귀와 4대 심정권복귀가 되면 통일교회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새 가정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완전한 가정들을 연결시킨 것이 조국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같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도 참부모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듯이 여러분도 좋아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가정들이 커진 것이 조국입니다. 모델 가정이 참부모 가정이고, 그 가정을 본떠서 수많은 가정을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7-335, 1993.06.01) p. 106

3 타락한 인간세계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타락권 내를 넘어선 참부모입니다. 원리로 말하면 책임분담을 완성한 그 권내를 넘어선 사람이 참부모입니다. 간접주관권 내에서 직접 주관권 내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직접주관권은 사랑에 일치된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주인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랑에 일치되면 두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주인을 원치 않고 사람도 다른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으로써 영원한 기지가 됩니다. 그것이 모델이 됩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확대되고 종족·민족·국가로 확대되어 그 사랑의 축을 중심삼고 천운은 돌게 마련입니다. (149-155, 1986.11.21)

4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는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하고 참된 자녀, 참된 형제, 참된 부부, 참된 부모의 4대 심정권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인간시조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천사장과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은 악의 씨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관계로 인류는 악한 부모와 악한 자녀를 통해 악한 생명과 악한 혈통의 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타락의 기원은 바로 청소년기에 발생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무분별한 가치관 혼란으로 인류시조가 그랬듯이 타락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프리섹스니 이기주의니 하며 도덕과 윤리를 부정하고 부모와 자녀

를 부정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지옥이 됐기 때문에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참사랑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님 편으로 180도 전환해야 됩니다. 즉 악마가 인류의 가정을 파괴했으니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반대 경로를 통해 참부모를 중심으로 한 참가정의 모델을 세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본연의 입장에서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71-148, 1995.08.27) p. 107

5 지금 이 세계는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체도 무질서하고 형제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전부 중심이 없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부모를 완전히 앎으로써 가정은 수습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정뿐만 아니라 참부모를 모르고 붕괴된 삶을 살다 간 과거 선조들의 가정들도 지상에 다시 불러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재림복귀입니다.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체휼하는 기준 위에서면 후손을 지키고 바른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가 필요한 이유는 참가정으로 수습하기 위해서입니다. (237-218, 1992.11.17)

6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8단계 참사랑의 모델 주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복중시대·유아시대·형제시대·약혼시대·부부시대·부모시대·참조부모시대·참왕과 왕비의 시대를 거쳐 영원히 변치 않는 참사랑의 전통을 세워 부자관계인 참사랑의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참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하므로 자손만대의 불변된 참사랑을 중심한 모델로서 상속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는 부자일체·부부일체·형제일체가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들이요, 남편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내요, 형님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동생입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가 없고, 아내가 남편이 없고, 형은 동생이 없으면 각각 사랑의 주인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기보다도 높이고 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에서는 몸 마음 일체, 가정에서는 부부일체·형제일체, 그리고 국가일체를 형성하여 8단계 이상 모델인 사랑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형제자매, 국가들이 모두 이러한 참사랑을 중심으로 8단계 모델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가정과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세계적 평준화가 시작되므로 지상천국이 출발되는 것이요 또한 천상천국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16-245, 2000.02.13)

7 참부모가 나와서 가정의 모든 모델을 보여 주고 교육하지 않는 한 평**화**세계는 그 기원이 없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세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 국제축복결혼은 단순한 한 종단의 결혼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통을 세우는 구국·구세의 운동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혼전순결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절대 신의와 정절의 서약아래 축복결혼을 하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참사랑의 가정을 통하여 가정의 붕괴를 막고 나라와 세계에 평화의 초석을 놓습니다. 특히 정치적 역사적으로 불화하고 원수관계에 있었던 국가 간의 사람들이 그 높은 담을 넘어 사돈관계, 참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니 평화의 폭은 국가를 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평화로 가는 고차원의 공식은 불화와 원수관계인 가문, 더 나아가 원수국가의 자녀들끼리 교차결혼축복을 하여 천지가 원하는 참사랑의 참가정 완성의 축복권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끼리 교차결혼을 해야 평화의 출발이 벌어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나라끼리도 그렇고, 사상끼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사상계를 넘어서 사상계 이상의 행복과 평화의 세계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원하는 영원한 평화세계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359-140, 2001.11.06) p. 108

8 참부모님이 걸어온 탕감노정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게 되면 영계에서 과거의 모든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신 그 기준이 영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심정일체를 이뤄야 됩니다. 참된 아버지라는 개념을 중심삼고 심정에 화합할 수 있는 핏줄이 연결된 아들딸이 되고, 그 아들딸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열매의 실체로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됨으로써 이성성상의 정분합 본체 심정권에 일치되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종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부생화를 중심삼고 동서가 하나되고 아들딸을 중심삼고 전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모델의 금형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의 표제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에서 느낄 수 있고 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좌우관계 상하관계로서 일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한 아들딸이 되고 부부가 되므로 횡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생명·혈통이 연결됩니다. (355-277, 2001.10.06)

9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선**생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이것이 3대 주체사상입니다.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 중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주인 중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부모 중의 부모가 돼야 합니다. 참주인·참부모·참스승이 되려면 참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참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삼고 참인간·참가정·참국강와 백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참부모는 참되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참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16-057, 1991.03.09) p. 109

10 천정궁에서 휘호로 쓴 표제가 '천일국 진성덕황제 억조창생 만승군황 태평성대 만사형통(天一國 眞聖德皇帝 億兆蒼生 萬勝君皇 太平聖代 萬事亨通)'입니다. 이 표어를 중심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천지이치를 다 체득하고 살아갈 길, 공식적 길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533-011, 2006.07.18)

11 부모님은 지금 지상에서 전체를 넘어서 승리의 패권 자리, 하나님의 왕권 수립과 더불어 자주국 승리의 해방세계와 원일(圓一) 통일세계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창세 이후의 섭리역사 전체 완결을 나 자신이 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정된 그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과 예수님의 인과 참부모의 인을 받아야만 해방이 됩니다. 그런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탕감할 수 없으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중심삼고 여러분의 소유관념이라든가 욕망, 이런 모든 기준이 부모님 이상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서 상대적 실체권을 나 개인으로부터 가정을 넘어서 국가·세계·천주까지 넘어서더라도 변치 않을 수 있는 가정모델 형태를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축복받은 기준이 전체를 넘어 공인받을 수 있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만 창조이상세계,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일 통일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378-173, 2002.05.11)

12 개인에서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로 자유 왕래할 수 있는 모델이 참부모님의 가정이므로 여기에 영원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정에서부터 세계까지 전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참자녀로서 동화되어야 통일된 조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부모님 가정이 그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세계와 전부 연결돼야 합니다. 참부모님의 가정은 일체 된 여러분 가정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를 넘어 전체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왕래할 수 있는 모델이 부모님의 가정이므로 여기에 영원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개인에서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모델이 되기 위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정에서부터 세계가 하나님과 참부모와 참자녀로서 동화되어야 통일된 조

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동화된다는 것은 완전히 화해서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자녀는 부모님의 직계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부모 가정을 본떠서 세계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모델은 하나님과 참부모를 대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부모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참부모와 직계자녀를 중심삼고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42-312, 1993.01.02) p. 110

인류가 가야 할 참부모의 길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복귀의 길을 운명적으로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억만 사탄을 자연굴복시키고 승리하신 참부모님 양위분의 전형노정을 그대로 밟지 않고는 타락의 인연을 청산할 길이 없다. 참부모님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처절한 영적 싸움까지 이겨 오면서 하나님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시며 위하는 삶의 실체가 되었고, 그 승리적 기반을 축복가정들에게 상속해 주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인류는 참부모님 양위분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전통을 상속받아 제2의 참부모가 되고 종족메시아와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p. 110)

13 인간은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목적과 방향을 모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변하는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이랬다 저녁에는 저랬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가는 길이 내 길이요, 참부모가 사는 생활이 내 생활이요, 참부모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자리요, 참부모의 세계가 내 세계다.'라는 사상을 공고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제일로 좋아한다고 해야 됩니다. 참부모를 모시고 가는 길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이것을 행복한 것으로 소화하고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가서는 세계복귀니 하나의 세계니 하는 것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의 역사적 전통과 소망의 기준이 될 참부모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미래의 세계적인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이 되는 가정이 참부모의 가정입니다. (044-136, 1971.05.06) p. 111

14 여러분은 자기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부모의 형태를 닮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인간의 소원은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시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부모를 만난다면 역사를 찾는 것이요 시대를 찾는 것이요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참부모입니다. 타락한 과거의 역사는 하나의 세계를 소원해 왔습니다. 어느 한때에 평화의 세계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미래의 소망으로 품고 나온 것입니다. (035-237, 1970.10.19)

15 부모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 인류의 가정을 가정 대 가정으로 대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복귀시대에 왔기 때문에 하늘 편의 가정 모델을 만들어 놓고 사탄세계의 가정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생이 오빠를 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했던 도리를 초월해 완성한 하나의 모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종횡의 참된 부모의 심정을 다 이어받아서 완성한 아들딸이 되어야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구상한 완전한 형제의 이상을 이룬 다음에는 부부가 됩니다. 부부 중에서도 소망하던 최고의 완성한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부모가 되는데, 부모로서도 완성한 자리에 있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가정을 중심삼고 이념으로 기다린 심정적 계열적인 완성의 실체로 나타난 것이 참부모입니다. (240-204, 1992.12.13)

16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과 참부**모**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표준 입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인 원래의 참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체계를 이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전통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 입장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쁜 습관과 관념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장래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참소조건이 됩니다. 가장 두려운 조건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습관, 조건들을 일소해 버리고 참된 가정체계를 확실히 해 나가야 됩니다. (228-023, 1992.03.01) p. 112

17 모든 축복받은 가정들은 참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전체 가정의 참부모화시대입니다. 세계적인 통일을 하기 위한 기반에 부모와 자녀가 정착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은 참부모화시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모든 축복가정의 부인들은 어머님 전통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참부모가 되려니까 그 부인들은 어머니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참부모화시대에 종족권 전부를 하나 만들기 위해 어머니 대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참어머니는 성신 대신이기 때문에 영육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젊은 청년과 1세 남자까지 다시 해산해야 됩니다.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가정적 메시아권을 해방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낳아서 해방해 줘야 됩니다. 다시 낳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가정과 종족을 낳아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종족의 자리에서 모든 종족을 하나의 종족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어머니 입장에서 다시 낳아서 가정과 종족적 메시아권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아담 가정, 예수님 가정이 실패했던 것을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8-159, 1993.08.01)

18 이제는 여러분이 아담 해와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개인적 생활 기준의 가정을 넘고 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가정이상을 완결해야 됩니다. 거짓 부모가 되었던 아담의 모든 것을 참부모가 일대에 청산해야 됩니다. 참부모 일대에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미지의 사실을 놓고 사탄이 심어 놓은 더러운 사망의 피를 정리하고 본연의 기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체권 심정적 세계를 중심삼은 가정을 넘고 종족·민족·국가·세계를 넘고 천주를 넘어서 비로소 정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 해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제4차 아담 심정권을 통해서 비로소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담 가정이 지금까지 수천만년을 거쳐 해방된 자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519-096, 2006.02.28) p.113

19 가정에서는 효자의 도리, 나라에서는 충신의 도리, 세계에서는 성인의 도리, 하늘땅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가정이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이 개인을 대표한 것만이 아니라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의 대표형으로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이 개인의 입장에서 타락한 것처럼 세계의 수천억을 한 사람과 같이, 한 가정과 같이 생각해서 일시에 탕감해야 됩니다. 축복가정들의 각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공적을 중심삼고 각자 축복받은 가정이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는 개인에서 종족으로 퍼져 나갔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합해 세계 개인형, 세계 가정형이 되어 세계 완성형인 참부모의 모델기준과 일치될 수 있는 상대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제물적인 입장에서 인침을 받아 가정 전체를 대신해서 세계 인류의 모델형에 일치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델형에 일치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델기준을 개척하기 위해서 부모님 일대에 지금까지 개척의 역사를 해 나온 것입니다. (557-163, 2007.02.27)

20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참아버지의 나라, 참어머니의 나

라, 참장자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서 천국 백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백성이고 아들딸이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황족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효자, 나라의 주인은 애국자인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야 합니다. 한 길로 가야 됩니다. 효자로부터 애국자, 애국자로부터 성인, 성인으로부터 성자가 되는 것이 한 방향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 필요로 한다. 어려운 자리이거나 행복한 자리이거나 같이 있겠다.'고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부정하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면 거기에는 탕감이 없습니다. 한번 이룬 결과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293-209, 1998.05.26) p. 114

21 참부모는 참사랑의 주인입니다. 참부모는 사랑의 왕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참부모·참사랑·참생명·참혈통은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부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류가 참사랑을 중심삼고 주체와 대상으로서 영원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참사랑을 중심삼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부모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6-320, 1991.04.15)

22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담이 생긴 것을 비로소 참부모가 나와서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사랑을 중심삼고 담이 없는 길로 닦아 놓았습니다. 가고 안 가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부모에 의해 모든 마음에 고속도로가 생겨났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려면 자기 노력으로 차를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인류역사의 심정적 세계와 영계 육계에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그 인연을 통하여 큰 수도 파이프로 전 가정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과 영계의 통일권이 비로소 이 기반 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169-125, 1987.10.29)

23 지금부터 우리는 창조본연의 부부인 아담 해와의 전통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창조이상의 부부권 완성을 통해 참부모가 되어서 참아들딸에게 참사

랑·참생명·참혈통을 재차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축복가정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부모가 된 것은 개인이 가정적 승리권으로부터 종족적 승리권, 민족적 승리권, 국가적 승리권, 세계적 승리권, 천주적 승리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방권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35-022, 1992.08.24)

24 참부모는 가정을 수습하고 구세주는 나라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의 씨를 가지고 접붙임으로써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 사랑, 거짓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돌감람나무가 되었으니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고 참사랑에 접붙여 참사랑을 중심삼은 생명을 다시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부모의 혈족이 못 되는 것입니다. (238-074, 1992.11.19) p. 115

25 모든 책임자들은 자기 대신자 혹은 상속자를 세우게 될 때 자기보다 나은 존재를 원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이치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고 모시는 제일 가까운 아들딸에게 자기 주인보다도 높이 되라고 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사탄은 거기에서 떨어져 내려가게 문을 닫아 버렸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타락한 핏줄의 흔적이 없는 완전·완결한 본연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통치의 주인으로서, 참부모·참스승·참왕으로서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믿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뤄 놓은 참부모 가정의 대신자, 참부모의 상속을 받는 대신자로서 전부를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땅에 선언하는 선언문인 것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574-188, 2007.09.04)

26 여러분도 참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족적 참부모가 되겠습니까, 민족적 참부모가 되겠습니까, 국가적 참부모가 되겠습니까? 국가적 참부모가 되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참부모는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일가는 사람이 종족적 참부모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민족·국가·세계적 참부모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가정이 안 되어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가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편성하는 데는 가정을 연합해서 하게 됩니다. 연합을 통해서 공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공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완성한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참부모주의입니다. 참부모로서 가는 길입니다. (268-078, 1995.03.05)

27 성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사랑을 빼 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는 사랑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중심자입니다. 참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마음을 닮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시대에 와서 참부모**를** 닮으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177-297, 1988.05.20) p. 116

28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권을 어떻게 일체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상세계나 지상세계, 조상들이나 영인들이나 천사세계가 전부 그를 중심삼고 옹호하고 보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뼛골의 골수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육신, 사지백체가 참사랑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주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주변, 이 우주라는 것은 전부 그러한 주인 앞에 하나되어 주인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을 남기고 죽는 피해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골수로부터 몸과 내 생각 전부가 하나되어 참사랑의 인연 가운데에서 만우주의 주인 자격, 하나님이 지을 때에 바랐던 창조이상적 주인 자리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의 모든 전체를 닮아난 아들딸입니다. (345-143, 2001.06.11)

29 우리에게는 완성 개념이 있습니다. 그 완성을 어떻게 이루느냐? 공식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종족·국가·세계·천주에 대한 공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공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큰 공식과 작은 공식이 하나되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반, 가정 기반, 종족 기반, 국가 기반, 세계 기반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옆에 서는 것입니다. 중심이란 종적으로 영계와 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하나되는 과정, 중간 입장에 있다는 것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허해하고, 남을 위하려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부모님의 대표자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챔피언이다.'는 관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제2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개인완성이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완성도 문제없고 종족완성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8-185, 1993.08.03) p. 116

제2편 참부모님의 성탄과 소명

| 차례 |

제1장 참아버님의 성탄

1절 참아버님 성탄과 그 배경 ····· 120
2절 참아버님의 가계 ····· 127

제2장 참어머님의 성탄

1절 참어머님 성탄과 그 배경 ····· 133
2절 참어머님의 가계 ····· 137
3절 참어머님과 신령교단 ····· 141

제3장 참아버님의 섭리적 준비시절

1절 자연과 더불어 보낸 어린 시절 ····· 149
2절 하나님의 소명 ····· 159
3절 학창시절 ····· 163
4절 일본 유학과 원리 구명 ····· 174

제4장 참어머님의 섭리적 준비시절

1절 신앙 분위기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 183
2절 학창시절과 참아버님과의 만남 ····· 188
3절 하늘이 택해 세운 참어머님 ····· 195
4절 참어머님의 고난과 승리의 길 ····· 198

next

제2편 참부모님의 성탄과 소명

하나님께서 인간조상인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 구원섭리를 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불신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다시금 한민족 가운데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로서 참부모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담당하게 될 참부모님의 탄생은 그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섭리사의 대사건이니만큼 많은 징표들이 뒤따랐다. 참아버님 탄생 전에 생가 앞 노간

주나무에 금계(金鷄)가 앉아 울고 갔다거나 참어머님의 탄생 전에 홍순애 대모님에게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는 계시가 내리는 등 여러 증거가 나타났다.

참아버님께서는 16세 되던 해인 1935년 4월 17일 눈물어린 산상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신 이후 장래 섭리적 사명자로서 고향에서 3년, 서울 유학 3년, 그리고 일본 유학 3년으로 이어지는 준비기간을 보내셨다. 특히 서울 학창시절에는 자취와 하숙생활을 통해 고행에 가까운 생활훈련을 거치면서 학업과 신앙에 정진하셨다. 그리고 일본 유학시절에는 학업 외에도 조국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원리 구명에 몰두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이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전념함에 따라 어린 시절을 주로 외가에서 보내면서 신앙의 정수를 몸에 익히셨다. 그리고 남하한 이후에는 효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구, 서귀포, 춘천 등지를 거치면서 학업을 계속하셨다.

참어머님께서는 1956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만 13세 때 참아버님을 처음으로 만나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은 나를 보는 순간 눈을 감으시고 속삭이는 것같이 '아,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이 한국에 보내 주신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회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인 재림주와 독생녀인 하늘신부를 보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그 터전 위에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어린양 혼인잔치를 하시고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등장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복귀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시고 승리하셔서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선의 조상이 되셨다. (p. 119)

제1장 참아버님의 성탄

제1절 참아버님 성탄과 그 배경

성탄의 시대적 배경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보내신 참아버님의 탄생을 앞두고 민족적으로는 일본의 점령 아래에서 수년간 흉년으로 대환란이 몰아쳤고, 국제적으로는 온 세계가 둘로 나뉘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 등 종말시대를 방불케 하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혼란상이 극에 달한 것은 재림주님의 지상탄생을 위한 세계적 탕감기대를 세우기 위한 하늘의 섭리로 볼 수 있다. 참아버님께서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음력 1월 6일(양 2.25)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부친 문경유(文慶裕) 충부(忠父)님과 모친 김경계(金慶繼) 충모(忠母)님 사이에서 6남7녀 중 둘째 아드님으로 탄생하셨다. (p. 120)

1 본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고 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모두 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러한 계획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을 재창조하여 잃어버렸던 인류의 참아버지 입장에 다시 세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너는 내가 창조이념으로 지었던 아담으로서 나의 사정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이다!'라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고 이 땅 위에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그러므로 6천년 역사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완성한 인류의 조상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010-143, 1960.09.18) p. 120

2 하나님은 예수님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지상에 양자의 인연만을 남겨 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이 땅에 보낸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직계의 인연을 찾을 수 있는 터전을 개척하기 위해 2천년 동안 섭리해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아들에게 직접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의 종말시대에 주님은 어떤 자격을 갖고 오느냐? 참부모의 자격을 갖고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만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위로하는 생활적인 터전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시 오시되 영광의 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위안해 드릴 수 있는 효성의 도리를 먼저 하고 나서 선택을 받고 사탄까지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참부모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복귀섭리의 개관입니다. (017-074, 1966.11.12) p. 121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혼란의 세계, 전쟁의 시대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노정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류사라는 거대한 역사를 두고 탕감역사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성인들이 지금은 급변하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면 절망이 세계에 도달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망의 세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근대문명을 지도해 오던 서구문명은 이미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벌써 밤 세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구문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왔던 기독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를 중심한 가정·사회·국가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의 젊은 사람들 중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암담한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종착점을 향해 그냥 달리게 할 것

이 아니라 이것을 대치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희망의 곳으로 연결하는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3-039, 1979.02.02)

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60년, 70년 기간은 세계적인 격동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수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운명의 기간입니다. 아버님도 이 기간에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 수난을 당하며 지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이 역사의 중대한 수난기, 격동의 수난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있게 되었는가? 수난을 당하는 배후에서 망하느냐 재생하느냐의 두 가지 내용을 역사는 언제든지 결정해 나왔습니다. 이 기간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인 운명의 기간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하늘 아버지는 그 인류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인간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의 기준을 이 지상에 세우는 중대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고난 속에서 끌고 밀어 나감과 동시에 그 배후에서 새로운 하늘 섭리의 기반, 발전의 기반을 재생시켜 오셨음이 틀림없습니다. (035-194, 1970.10.14) p. 122

5 일본은 동양을 중심삼고 영국 문화를 인수받아 나왔고, 대륙문화를 중심한 한국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지중해 문화권의 로마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담 국가인 한국에 재림주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 국가로서 넘어야 할 탕감조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40년간 일본에 예속된 것입니다. 내가 1920년에 태어나게 될 당시가 탕감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체 섭리사를 종결짓기 위한 그 뜻을 우리 가문에서 이어받아야 했으며,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통적 탕감 노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13-070, 1999.11.12)

6 내가 태어난 때는 1920년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그다음 해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3년간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이상 흉년이 들어 제일 어려운 때에 3·1만세사건을 중심삼고 국가가 혼란한 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가가 일본 치하에서 사탄 편의 방향에 맞춰 끌려가니 여기에 혁명을 제시하여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주도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방향, 일본 제국주의 방향이 아니라 미국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와 민족을 중심삼고 완전히 그 문화권을 평준화권으로 이룰 수 있었던 사실은,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미국을 중심한 기독교문화권으로 방향을 갖추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반향운동으로부터 기독교

는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2-054, 1986.03.01)

7 1919년 3월 1일은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임으로써 많은 사람이 희생한 날입니다. 왜 3월 1일에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이 기간에 잉태되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10개월이면 1920년 정월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나라라도 찾아서 주님이 태어나야지. 조건적인 나라도 없으면 오시는 주님이 공중에 떠 버리기 때문에 하늘은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 흉년이 들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는 그렇게 해 나옵니다. (244-326, 1993.03.01) p. 123

8 16세에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타락하지 않은 해와와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아담 국가에서의 해와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해와 입장에 있던 유관순 열사의 몸을 사탄 입장인 일제가 여섯 조각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6수는 사탄수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일신을 희생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에 나는 복중에 있었습니다. 독립되지 않은 땅에서 그냥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내 생명을 중심삼고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0개월 후인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229-033, 1992.04.09)

한반도와 정주

한반도는 동서양 문명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재림주님이 탄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온 섭리적 땅이다. 참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주(定州)'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점이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고을이다. 그리고 참아버님이 탄생하신 상사리(上思里)는 하늘을 흠모하며 공경하는 의미의 대표적인 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p. 123)

9 아시아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한반도는 현대문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일본과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륙과 접촉하는 데는 대륙 자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도 반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화교류의 역할을 하는 곳은 반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가 동서양의 문명을 결실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반도를 중심삼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 문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수습의 역사를 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국에 가서 문명은 종교를 통해서 결실되는 것입니다. (078-312, 1975.06.10)

10 메시아는 어떠한 나라로 오겠습니까? 원리적 관점에서 그분은 독립된 나라에는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와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

는 유대교가 기반이 되어 메시아를 맞아야 했는데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헤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 나라와 그 교회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대할 수 있는 나라와 교회가 없는 자리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시대를 통하여 그러한 입장에 있는 한 나라를 재림의 한 날과 연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비참과 분열의 역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하의 단계에 있는 역사적인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입장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민족은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대민족과 흡사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067-244, 1973.07.01) p. 124

11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심에 불타고 있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 하나님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선지선열의 어떠한 예언도 없었던,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온 한민족은 무엇인지 모르게 하늘을 대한 신앙심이 높습니다. 동반구의 손톱같이 조그마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시대 시대를 거쳐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나왔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주변국으로부터 수백 차례의 침범을 받는 위험한 역사노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민족을 민족정기로서 흐르는 그 무엇을 가지고 소망의 한 날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이 극동의 한반도를 움직여 나오던 소망의 민족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 나온 민족에 메시아가 오지 않겠습니까? 정적인 면에서도 극동에는 한국 사람 이상 정열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이제는 신의의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 주장하던 불교 유교 기독교도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민족정신을 중심삼고 세계 이념에 불탈 수 있는 숨은 정열이 마음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민족입니다. (007-166, 1959.08.30)

12 한국은 5천년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지금까지 희생해 나왔습니다. 중국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민족은 동이민족으로 본래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륙을 버리고 반도로 몰려온 것입니다. 공자도 거기에 성인이 산다고 동이민족을 찬양하면서 이 동이민족에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침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불의의 공격을 당할 때에는 불같습니다.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의에 불타는 민족입니다. 만주나 시베리아 같은 곳을 다니다가 죽은 한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담뱃대와 부싯돌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밤에 코리언이라면서 대문을 두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열어 주면서 들어오라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 사는 나라이니 아버님 같은 사람이 나올 만합니다. (179-030, 1988.06.15) p. 125

13 아버님 고향은 북한의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그곳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화가 많습니다. 앞으로 세계인들이 그곳을 이슬람교의 메카, 기독교인의 예루살렘과 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아버님의 고향에 가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곳에 가 보지 못하고 영계에 간다면 생전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034-069, 1970.08.29)

14 여러분이 '나는 참부모를 모셨다. 출발에서부터 모셨고 나중에도 모셨다.'고 할 수 있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황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모시고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본래 에덴입니다. 참부모님이 태어난 곳이 에덴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고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에덴동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태어난 곳이 인류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향도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6-255, 1987.06.07)

성탄의 징표와 함자의 의미

참아버님의 성탄을 전후로 여러 길조가 나타났다. 1919년 3·1운동 이전 참아버님의 생각 앞 노간주나무에는 금계(金鷄)가 앉아 울고 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문정흘 증조부가 한 쌍의 용이 바다에서 승천하는 몽시를 받고 나서 참아버님 대 항렬을 '용 룡(龍)'자로 해서 '용(龍)'자 '명(明)'자로 이름을 지었지만, 1945년 광복 직후 공식 섭리노정을 출발한 뒤 평양 전도 시절에 그 크**신** 섭리적 사명에 뜻 맞춰 하늘로부터 '선(鮮)'자 '명(明)'자를 새로이 받으시고 개명하셨다. (pp. 125~126)

15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잉태하여 해산 날짜가 가까워지자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인 대산동 앞에는 제석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배서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궂어지고 폭풍이 불면서 산과 마을 전체가 구름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더니 그 제석산 꼭대기에 황금용이 나타나 산허리를 돌면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가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산꼭대기가 금세 바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꼬리로 물을 치면서 용틀임하는 황금용 두 마리가 나타나 '세상아, 잘 있거라.'락 인사 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내가 여덟 살 때 '아무리 봐도 네가 해야 될 책임인 것 같다.'라고 하며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뜻을 알고 보면 하늘의 약속 가운데 그런 일이 다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다거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 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된 자리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1-218, 2003.01.07)

16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얘기하던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에 용 몽시를 받았고, 똑같은 몽시를 며느리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그 실체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외갓집 앞에 있는 제석산 위에서 황금용 두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머니는 사실로 본 것입니다. 낮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산을 보니 그런 현상이 보인 것입니다. (412-064, 2003.07.15)

17 내 이름을 보면 '선(鮮)'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魚)와 양(羊)인데, 바다와 육지, 물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창하고 명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밤에 비가 오고 난 뒤 아침 해가 찬란히 빛나면 선명합니다. '명(明)'자는 해(日)와 달(月)입니다. 그래서 땅도 화창하고 하늘고 화창하다는 의미의 두 글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남자를 뜻하고 땅은 여자를 뜻하는데, 이 둘이 하나된 것을 말합니다. 맑고 밝고 명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文)'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름과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이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46-284, 1993.04.20) p. 127

2절 참아버님의 가계

가문의 전통

남평 문씨의 시조인 무성공(武成公) 문다성(文多省)은 서기 472년 2월에 오늘의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소재 장자연 인근의 큰 암석 위의 석함에서 탄강했는데, 그 석함에는 붉은색의 '글월 문(文)'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남평 문씨 족보를 보면, 신라시대의 자비왕이 몽시 가운데 '이 나라에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찾아라.'는 명을 받아서 남평에 있는 문암이라는 바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낸 데서부터 문씨 조상이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문다성은 진흥왕 때 보

상 겸 대국사의 지위에 오른 뒤 용모가 단정한 사람들을 뽑아 풍월주(화랑도의 수장)라 부르고 효·충·의를 가르쳤다고 한다. 참아버님께서는 '남평 문씨는 전통적으로 양심적이며 절개가 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무서운 고집을 가진 문중'이라면서 '팔도강산에서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후히 대접해 보내라.'는 집안 전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p. 127)

1 세계 사람들은 아버님의 핏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조상들이 희생한 터 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생은 뭐냐 하면 썩는 것입니다. 썩는 데에 생명의 씨를 심으면 잘 자랍니다. 역사시대에 수난을 받고 고통을 받은 그 민족은 생명의 씨를 받아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난을 받은 지역에서는 성인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주장, 의로운 나라, 의로운 주의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334-232, 2000.09.30)

2 아버님은 남평(南平) 문씨입니다. 남평은 말 그대로 남쪽의 평지를 의미합니다. 남쪽은 이상을 말합니다. 남쪽 나라에 평지를 이룰 수 있는 활동 무대, 자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글월 문(文)'자입니다. '글월 문'자를 보면 '또 우(又)'자 위에 점(')을 올려놓아 제사상(文)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문씨는 제사장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제주(祭主)가 되어야 합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리는 제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283-157, 1997.04.12) p. 128

3 자기 조상들 가운데 나라의 충신이나 성인, 성자의 공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조상 중의 조상으로 모셔야 됩니다. 문극겸이라는 분은 고려시대에 무관과 문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해를 붙이다가 객사했습니다. 문극겸 할아버지는 전통의 역사를 가려서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엮을 수 있는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화씨를 중국에서 들여온 문익점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23대권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606-234, 2009.01.13)

4 우리 집은 증조부가 이사 오셔서 정주에 살기 시작했는데, 집안에 가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 '팔도 강산을 그리워하면서 팔도강산의 귀한 손님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해라. 길을 지나가다가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해라. 그러면 팔도강산의 복이 우리 문중에 찾아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손님을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달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서 보내면 후대에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삼천리강토에서 찾아오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은 그러한 터전 위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한 터전을 통해서 복을 받았으니 또 삼천리반도를 넘어서 세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7-085, 1983.05.05)

5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가훈이 있어서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절대 그냥 보내지 말고 언제나 대접해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거지가 온다고 박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전통이 그렇습니다. 겨울에 거지가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먹다가도 할머니나 어머니가 냉큼 나가는데, 준비를 안 하면 할아버지가 당신 밥상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밥을 못 먹습니다. 거지에게 밥을 주고는 당신은 못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남지방 영남지방 등 팔도강산의 사람들이 이북을 거쳐 중국으로 갈 때에는 국도로 가게 됩니다. 동네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자고 하면 '저기에 가면 문씨네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라.'라고 알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언제나 춘하추동 사시사철 사랑방이 비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는 우리 어머니가 일생 동안 시달린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팔도 사람에게 밥을 먹인 그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도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후예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147-306, 1986.10.01) p. 129

6 우리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여덟 살쯤에 자다가 일어나면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밤에 잔치를 했습니다. 왜 모였느냐고 물어보면 귀엣말로 '독립군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천막 같은 데서 자고, 지붕도 올라 다니고, 담도 한 손만 짚고 넘어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밤참으로 국수를 해 주었습니다. 닭을 잡고 국수를 하는 것이 밥을 하는 것보다도 빠르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못 먹더라도 그들에게 먹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가훈이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300-134, 1999.03.02)

7 참부모의 가문도 애국 충신의 역사적인 전통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이상한 것이, 가족 가운데 누가 담배를 피우든가 술을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웁니다. 또 가정의 전통이 훌륭한 것은 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부터 보더라도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최고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우리 종조부가 목사였는데 예언서에 대한 것을 통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가족들도 기도하면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83-064, 2008.04.12)

참아버님의 가족

남평 문씨가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에 뿌리를 내린 것은 충선공 문익점의 다섯 아들

중 3남 의안공(毅安公) 문중실(文中實)때부터였으며, 그중 의안공의 5세손인 문달(文達)이 평안북도 정주에 정착하였다. 참아버님의 고조부 문성학(文成學)은 의안공의 19세손이며, 정호 정기 정흘의 세 아들을 두었다. 그중 막내아들 문정흘이 바로 아버님의 증조부로서 상사리에 처음 터를 잡았다. 문정흘은 치국(致國) 신국(信國) 윤국(潤國)의 세 아들을 두었으며, 그 맏아들 문치국이 참아버님의 조부이다. 문치국은 참아버님에 대해 '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인즉 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도록 하라.'고 일렀다. 문치국은 경우(慶裕:음 1893.7.11~1954.10.11) 경복(慶福) 경구(慶球) 등 세 아들과 두 딸을 두었고, 문경유 충부님은 연안 김씨 경계(慶繼:본명 周觀, 음 1888.10.15~1968.1.7) 충모님**과** 혼인하였다. 충모님은 정주 유지로서 독립운동과 오산학교 설립에도 도움을 준 부친 김백홍(金伯洪)과 모친 인동 장씨(張氏) 슬하 3남 2녀 중 맏따님으로 태어났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연안 김씨 집안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정결하고 기품 있게 성장하였다. 키가 크고 성격은 활달하고 정열적이며 참아버님의 재림노정에 완전히 모자협조의 섭리 기반을 이룬 희생적 삶을 살았다.

8 우리 가정은 증조부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때에 와서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후에는 탕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축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탕감을 받았습니다. 열만한 축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만한 탕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우리 가정에 상단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산이 탕진되었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축복을 받으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탄세계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세계에서 들이치는 것입니다. 3대에 걸쳐 탕감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229-033, 1992.04.09)

9 옛날에 나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가족에게는 믿기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모두 해결해 나왔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있었고 친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할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한문에도 능하고 중국 역사도 훤히 아는 분이었습니다. 또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영어도 잘했습니다. 서양문명도 꿰뚫어볼 줄 아는 독립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의논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장래에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는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배후에 영적 현상으로 인해 일가족, 부모로부터 친족에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078-312, 1975.06.10)

10 나는 3·1운동을 주도하던 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종조부인 **문**윤국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종조부로부터 '너는 할아버지보다 훌륭한 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그 배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067-244, 1973.07.01) p. 131

11 우리 아버지로 말하면 법이 없이도 사실 분이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어디에서 급하게 빚을 얻어 왔을 때에는 그 빚을 갚는다고 약속한 날에 이자까지 갚아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분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007-166, 1959.08.30)

12 우리 어머니가 아들딸 열셋을 낳았습니다. 내 위로 누나가 셋이나 됩니다. 아들로서는 내가 둘째입니다. 다섯이 죽고 나머지 여섯 딸과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들을 키우다가 보내고 딸들도 키우다가 보낸 것입니다. 동생이 죽어서 그 관을 아버지가 갖다가 묻는데 우리 형님이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고 간단한 널을 짜서 죽은 동생을 넣고 어깨에다 메고 가서 묻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떠나보내며 눈물짓고 있는데, 아버지는 혼자 묻고 돌아와서도 손을 안 씻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손을 씻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묻고 손을 씻고 밥을 먹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상의 유언을 법보다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79-030, 1988.06.15)

13 우리 어머니는 후덕한 분이었습니다. 남자 같은 분으로 아주 무서운 성격이었지만 며느리 역할은 잘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침에 어디로 떠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벽밥을 해 드렸습니다. 일생 동안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본을 많이 받았습니다. (034-067, 1970.08.29)

14 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혁명적인 기질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학자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한번 들으면 요즘 컴퓨터와 같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창조력은 내가 우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혁명적인 소질이 많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자기 동네에서 바다와 관계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섯, 일곱, 여덟 살 때에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곤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흥분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166-255, 1987.06.07) p. 132

15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열세 명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미재미 해도 다른 재미는 없더라. 아기를 낳아서 젖먹이고 키울 때의 그 이상 재미는 없더라. 늙어서 아기를 못 낳으니 매사에 재미없어 못살겠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면 많은 수고를 하여 꺼칠해졌습니다. 갖은 풍상을 다 겪은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아기를 키우던 그 수고의 모습이 보기에 좋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려움과 희생을 동반하지만 그 희생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참사랑을 하게 되면 희생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희생이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살이 되고 뼈가 되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401-218, 2003.01.07)

16 우리 형님은 동생인 나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인 입장에서 완전히 탕감할 수 있는 기대가 자연히 조성된 것입니다. 형님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6·25사변과 8·15해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영계의 지시를 통해 해결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역사상에 수많은 형이 있었고 수많은 동생이 있었지만 내 동생은 역사적인 동생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내가 평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복귀섭리 도상에 있어서 크나큰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부탁한 것은 보통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형님은 이런저런 내용을 갖추어 동생을 위해 도왔습니다. 그 부탁이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형님이었습니다. (412-064, 2003.07.15)

17 형님은 영계를 통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형제관계는 어느 집이나 다 있고, 일족의 어느 누구나 종횡으로 관계되어 있지만, 형제 중에서 내 동생이 역사의 일등 동생이다.'라는 그것만은 알았습니다. 영계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하면 집을 팔고, 소를 팔라고 하면 소를 팔고, 학비가 없다면 땅을 팔아서라도 대어 주려고 했지, 하나라도 반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을 복귀한 것입니다. (246-284, 1993.04.20) p. 132

제2장 참어머님의 성탄

1절 참어머님 성탄과 그 배경

성탄의 종교적 배경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재림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녀 실체성신인 하늘신부를 보내기 위한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특히 하늘은 복귀된 해와를 보내기 위해 신령교단을 세워 많은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참어머님의 탄생을 전후해 신령운동이 한반도에 크게 일어났고 집안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참어머님께서는 1943년 2월 10일, 음력 1월 6일 외가인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 26번지에서 부친 한승운(韓承運) 선생과 모친 홍순애(洪順愛) 대모님 슬하의 외동따님으로 탄생하셨다. (p. 133)

1 섭리역사의 중심인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예수님 등도 그 부인이나 어머니의 역할에 의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고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비참함과 고통으로 인한 한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나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전 유명했던 이호빈 목사가 계시를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매결혼시켰습니다. (참어머님, 1988.02.24, 한남 국제연수원 p. 133

2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응아!'하고 우는데, 나는 울지 않고 '랄라랄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원모 외할머니가 '이 아이는 커서 음악가가 되려나 보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모님이 첫 미역국을 먹고 나를 안고 잠이 들었는데, 시커멓고 뿔난 사탄이 다가와서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내가 죽게 되었다.'라며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모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딸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딸인데 네가 무엇이라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외할머니께서 '야, 네가 속이 허한가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모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뿔이 난 사탄이 와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에 소리를 쳤습니다.'라고 하자 외할머니는 '그거 이상하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모님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이 아기는 정성을 들여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길러서 주님께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p. 134

3 대모님은 나를 낳은 직후 신비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일제 치하 태평양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곡물과 쇠붙이를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보급물품과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탈한 엄청난 물자는 일본열도에 하늘 높이 쌓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출된 물자가 현해탄을 건너 한국 땅으로 배에 실려 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우리 집 앞 마당에 하나씩 하나씩 쌓였답니다. 일본으로 갔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반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모님은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꿈은 가인과 아벨을 화해시켜 하나 만들어 하늘부모님께 나아가야 할 어머니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참어머님 2012.12.25, 천정궁)

4 한국에는 성경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단순히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형식화한 기독교단과는 다른 특별한 영적 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신부를 찾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전후의 종교적 정황이었고, 나는 특별히 준비된 영적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그 당시의 일들을 생각하고 비감에 젖은 것은 대모님이 속해 잇던 그 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던 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탕감노정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실로 믿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만난다는 유일한 희망으로 고난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숟가락부터 의복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옷의 사이즈까지 알고 있었을 정도로 대단히 자세하게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운하게도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죽어 갔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3대에 걸쳐 인계 되었는데, 그들 계시이 마지막 정점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p. 135

‘하늘의 신부’로 축복

참어머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태어남을 넘어서서 하나님 섭리사의 결실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천년 기독교 역사는 재림주님을 맞기 위한 한국의 신령운동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조원모 외할머니, 홍순애 대모님, 참어머님으로 3대에 걸쳐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참어머님께서 탄생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성주교의 김성도씨가 구속되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뒤 허호빈씨의 복중교가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후 허호빈씨가 옥고로 자리를 비우자 복중교를 이끌었던 허씨의 어머니는 여섯 살 된 참어머님께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증거하며 축복하였다. 그리고 참어머님 탄생 이전에도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는 등의 많은 예언이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성의 기반이 참어머님께 승계되었다. (p. 135)

5 나의 부친은 안주에서 태어나셨고 평생을 교사로서 사신 교육자입니다. 체격은 건장하고 체력도 좋으셨으며 성품은 치밀하고 늘 봉사를 하면서 사셨

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셨고 교편생활로 인해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이용도 목사의 새예수교회에서도 간부로 활약하셨습니다. 대모님은 외할머니와 함께 안주의 새예수교회를 근거지로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자연스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이때 혼인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던 중에 대모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결혼할 당시 한승운 아버지는 26세, 대모님은 21세이셨습니다. 이후 주님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쓰시던 대모님은 철산의 성주교를 왕래하셨고, 혼인 후 9년 만에 나를 잉태하셨다고 합니다. 지극한 정성과 돈독한 신앙생활을 통해 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6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상에 보내시려는 계획을 놓고 계시를 받은 허호빈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허호빈씨의 어머니는 내가 여섯 살 때 '이분이야말로 하늘의 신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허씨의 어머니는 어린 소녀가 하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고 소명 받은 신령교단이 주로 북한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 세력이 대단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7 북쪽에서는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면서 종교에 대한 탄압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허호빈씨도 1946년 8월 평양의 대동보안서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재림주님을 만난다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도 평양에서 전도하시다가 붙잡혀서 같은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허씨의 수제자를 통해 허씨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간수에게 들켜서 아버님이 고된 고문을 당해 이까지 부러지는 수난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이 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허씨의 어머니가 계시를 받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때가 6세였습니다. 허호빈 집단은 재림주님을 위한 신부의 사명을 하는 단체인데, 그 명목 아래 나에게 축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다음에 큰 사명을 할 사람이라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나를 혼자 불러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면서 축복을 해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8 이북의 서해안 지방에 김성도씨의 성주교가 있었습니다. 김성도씨가 죽은 후에는 허호빈씨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모님은 그 허씨를 독실하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모님은 어머님이 4세 때 그 집단으로 데리고 갔는데, 허씨의 어머니가 6세 된 어머님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에게로 사명

이 승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만났을 때 아버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모든 것이 196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부모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052-186, 1971.12.29)

참어머님 함자의 의미

참어머님이 태어날 당시 부친 한승운 선생이 몽시에서 학을 본 뒤 참어머님의 이름을 '학자(鶴子)'라고 짓게 되었다고 한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이름에 대해 '한스러운 하나님에 대해 최고로 공부한 학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대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다고 풀이하셨다. 그리고 '아들 자(子)'는 '하나님의 왕자와 인연맺도록 본래부터 타고난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다. (p. 136)

9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몽시,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주 울창**한** 소나무 숲 가운데에서 맑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학 두 마리가 화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학자(鶴子)'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p. 137

10 어머니 이름이 '학자(鶴子)'인데, 학자라고 하는 것은 '학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학은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평원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이것은 해와의 사명과 다름없습니다. '자(子)'라는 것은 아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여자로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히말라야산맥을 넘어서 평화의 세계에서 아들딸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은 잡된 것을 먹지 않고 깨끗한 것만을 먹습니다. 영양가 있고 가벼운 것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학은 한번 날기 시작하면 방향을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높이 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학을 참 사랑합니다. (246-285, 1993.04.20)

2절 참어머님의 가계

하늘이 예비하신 가계

참어머님의 부친 한승운 선생은 1909년 1월 20일 부친 한병건(韓炳健)과 모친 최기병(崔基炳) 슬하 5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교편생활을 하다가 1946년 5월경에 월남하였다. 그리고 남하 후 서울과 경기 일원의 초등학교에서 봉직하는 등 1974년 2월까지 41년에 걸쳐 교육계에서 활동하였다. 홍순애 대모님은 1914년 음력 2월 22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친 홍유일(洪唯一)과 모친 조원보(趙元模):1889.음11.7~1962.9.3) 슬하 1남1녀 중 맏딸로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조원모 외할머니는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신여성이었다. 그 조상 중 한 분인 조한준씨가 사재를 털어서 평안북도 정주의 달래강에 큰 돌다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p. 137

1 나는 1943년 음력 1월 6일 새벽,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주 시골은 아니었습니다. 집 뒤에는 야산이 있고 개울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말입니다. 뒤뜰에는 식구들이 먹기 위해 재배하던 옥수수밭이 있었는데 그 옥수수가 아주 컸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의 고향 정주와 내 고향 안주 사이에는 강 하나가 있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텔에스테)

2 나의 고향 안주는 예로부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란 말은 평양과 안주에서 한 자씩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평야지대여서 농사가 잘 되었고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고조선 시기에 이미 고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흐르는 청천강을 중심으로 평북과 평남으로 구분하는데, 아버님이 고향인 정주까지는 약 60킬로미터이며 평양까지는 75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대모님은 성주교가 있던 철산에까지 새로운 말씀을 찾아다니며 매일같이 정성을 들였는데 철산은 무려 12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p. 138

3 참어머니의 외할머니인 조원모 할머니는 조한준의 직계 후손입니다. 조씨는 '나라 조(趙)'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머니 되는 분이 대모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전통이 있는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화입니다. 정주에 있는 달래강 다리가 수십년이 지나도 누가 수리도 안 하고 내버려두니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사람이 건너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리를 통해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지고 모래더미가 밀려와서 묻혀 버렸습니다. 거기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달래강 다리에 바위를 깎아서 세워 놓은 장승 같은 표석이 묻히는 날에는 나라가 없어지고 드러나는 날에는 한국에 신천지가 펼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455-261, 2004.06.26)

4 중국의 사신이 한국으로 오려면 정주에 있는 달래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다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다리를 놓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외할머니의 조상되는 조한준 할아버지가 사재를 털어서 다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다리는 돌다리였지만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큰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다리를 세우는 데에 전 재산을 다 쓰고 엽전 세 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리 준공식에 갈 것이라고 하고 남은 돈으로 짚신을 사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한준아, 네 공이 크구나. 그래서 너희 가문에 천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남겨 놓은 엽전 세 푼이 하늘에 걸려서 공주를 보내겠노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몽시를 받고 나서 그 달래강에 나가 보니까 그 언덕 위에 돌미륵불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텔에스테)

5 다리 준공 후 달래강가에 돌미륵**불**이 땅 속에서 솟아오르자 동네 사람들은 집을 지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했습니다. 그 미륵불이 점점 커 가면서 지붕이 뚫리게 되자 다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미륵불의 배가 불룩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씨 문중에 태어난 딸들은 모두 미륵불처럼 배가 나와서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룩 나은 배를 깎았는데 거기에서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돌에서 피가 나오니 신령하기도 하고 겁도 나서 얼른 회칠을 해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미륵불 옆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지 않으면 말의 다리가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옵니다. 이렇듯 충정 어린 조씨 가문을 통해 하늘은 조원모 외할머니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환경창조가 그 조한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12.25, 천정궁) p. 139

6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조씽인데, 그 조씨들이 사는 곳이 부촌입니다. 나라의 벼슬을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기와집 촌입니다. 거기에 조한준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그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전통을 중심삼고 외할머니와 대모님이 어머니를 참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기른 것입니다. 대모님이 오시는 주님을 모시겠다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느라 제대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길러줬습니다. 그리고 영계에 대한 모든 비밀을 누구보다도 알아야겠다고 한 것이 이 가문입니다. (573-262, 2007.08.24)

7 홍유일 외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미남이셨습니다. 처음 아버님을 뵈었을 때에도 외할아버지와 모습이 꼭 닮았고 같은 인상이셨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며느리에게 하이힐을 사 주실 정도로 신식 할아버지이셨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는 작고 얼굴이 예쁜 데다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셨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하셨지만 신여성이셨고, 재봉틀 상회를 하셨습니다. 재봉틀을 팔고 난 뒤에는 고장 난 것을 수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텔에스테)

하늘신부를 미리 준비한 한민족

참어머님의 본관은 충청북도 청주이다. 참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충청'은 '마음의 중심이 맑다.'라는 의미이고, '청주'는 '맑은 고을'이다. 강이나 바다의 물이 맑으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맑은 도인 됨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고을이란 뜻이다. 그리고 청주 한씨의 '한(韓)'은 '한국(韓國)'을 대표하고 '우주'를 대표한다. 또한 '한'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일'을 뜻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청주 한씨를 통해 하늘 신부를 예비하신 것이다. (p. 140)

8 한국은 4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고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천문을 연구해서 하늘의 운세를 풀던 동이민족입니다. 천문학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국교가 있었는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 이전에 한씨가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615-173, 2009.08.22) p. 140

9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고조선 이전 시대에 단군을 낳으신 환웅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환(桓)은 옛 음을 따르면 한(韓)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환웅과 한웅은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를 신화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군신화에는 한민족을 천손민족으로 택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유물이나 관련 자료도 발굴되고 있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말이나 대한민국 국호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근원은 '한(韓)씨 조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천년 전에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의 통치자가 한씨 혈통이며, 그 나라를 '한씨 조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고 우리 국호가 대한민국이 된 것은 바로 이 한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씨 조상이 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10 '한민족'이란 말은 그 원류를 찾아 보면 '한(韓)'에서 유래합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을 부르는 고유 명칭입니다. 그 뜻은 으뜸가는 민족이요 큰 민족이라는 것이며 하늘의 뜻을 세워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천손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씨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왕족 혈통이요 명문 혈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혈통을 통해 하늘은 어머니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11 '한(韓)'은 하나(一)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며, 우주만상의 합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크다(大)는 뜻으로서 우주만상을 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득하다(滿)는 뜻으로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훌륭하며 세상의 '으뜸'과 만상의 '태초'임을 뜻하기도 합니

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역사의 주체가 되고 진리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는 역할을 맡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12 우리 민족은 배달민족입니다. 배달이란 것은 밝은 나라, 환한 나라, 하늘을 숭상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군을 배달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수천년 전인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늘은 노아, 아브라함 등 중심인물을 세워 역사를 해오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천손민족이요 홍익인간의 사상을 가진 천민으로 한민족을 택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림주님을 보내는 섭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민족이 후천개벽시대에 평화왕국 창건의 선봉에 세우기 위해 하늘이 택한 선민의 혈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13 훈민정음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소리를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국민은 천년 역사, 만년 역사에 다 망하더라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이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고조선으로부터 4천년 역사로 잡고 있지만, 고조선 전에 3천년 동안 한(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의 한반도 본고장을 청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동양사로부터 고대 한국의 역사서를 편찬해서 연대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 역사를 잇고자 하는 것입니다. (613-043, 2009.06.03)

3절 참어머님과 신령교단

새로운 하늘 섭리를 준비한 신령교단

하나님께서 재림메시아를 한국 땅에 보내기 위한 섭리를 서두르시는 가운데 1900년대 초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고 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신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신령운동은 이용도 목사를 중심한 새예수교회, 김성도씨의 성주교(聖主敎), 허호빈씨의 복중교(腹中敎)로 맥이 이어진다. 이러한 기반 위에 하늘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섭리가 신령교단을 중심으로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p. 141)

1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국 강토에서 기독교를 중심삼고 신령한 역사를 **해** 나왔습니다. 해방이 되기 전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하나님은 이를 준비시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기독교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사연을 받들고 내적인 뜻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혹은 수많은 개척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해 나왔습니다. 철

산, 평양, 혹은 원산의 모든 움직임은 그 시대적 환경을 대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받들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그것을 가일보 전진된 환경에서 하나님은 준비시켜 나온 것입니다. (028-058, 1970.01.03) p. 142

2 신령한 역사를 한 사람 가운데 철산에 김성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흥에는 백남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남주씨는 총독부에 성주교의 인가를 받아 낸 사람입니다. 영계에서 전부 가르쳐 줘서 한 것입니다. 맨발로 철산으로 가라는 영계의 지시를 받은 백남주씨는 철산에 갔습니다. 함흥에서 평양까지 600리 700리나 될 것입니다. 맨발로 철산으로 가서 김성도씨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동과 서가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수난을 받지 않게끔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할 성(聖)'자에 '주인 주(主)'자를 넣은 성주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김성도씨가 주장하는 것과 그외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서로 상치되어 나타납니다. 김성도씨는 '하늘이 나를 중심삼고 해와의 사명을 가르쳐 줬으니 주님이 오시면 내가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3-211, 1991.11.10)

3 김성도씨 집안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명은 김성도씨를 지성껏 모시던 허호빈이라는 부인에게로 인계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전부 주님을 중심삼고 생활해 나왔습니다. 하늘은 그 부인에게 맨 처음에 죄를 벗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는 생활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또 그다음에는 주님이 오신 뒤에 자녀를 기르는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허씨 부인은 주님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법도와 전체적인 규례를 세워서 준비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해방 전부터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7년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한국의 해방을 중심삼고 재림이념이 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인계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때는 한 단계 떨어집니다.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중을 통하여 주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적 사명입니다. (008-223, 1960.01.06)

4 2천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하늘은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가정을 이루고 하나된 국가를 만들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되고 책임을 진 중심인물들이 하늘의 깊은 뜻이나 사정보다도 현실문제에 급급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모시지 못함으로써 끝내 십자가에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 2천년 동안 내려오는 기독교문화를

중심삼고 새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의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늘은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치며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늘은 한국을 선민의 나라로 택하시고, 한국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전후를 통해서 새 주님을 맞기 위한 내적 준비를 하는 단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복중교를 만든 허호빈씨 부부를 통해 하늘은 내적으로 어떻게 재림주님을 모셔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33년 생애노정을 걸으실 때까지의 불행했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전체 의복을 각각 나이에 맞춰서 만들도록 하는 등 모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텔에스테)

참어머님에게 결실된 신령역사 기반

참아버님께서는 '김성도씨를 중심한 성주교와 허호빈씨 중심의 복중교가 대모님을 거쳐 어머니에게까지 연결되어 나왔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홍순애 대모님은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 신령교단인 성주교와 복중교에 다니면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허호빈씨 모친이 참어머님께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라고 축복하였는데, 이는 모든 신령역사의 정성 기반이 대모님을 거쳐 참어머님께로 승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p. 143)

5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참부모님의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 과거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 좋은 가족, 좋은 혈통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장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모님은 1914년 음력 2월 22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셨고, 일생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아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살았지만 대모님**의** 일생은 그것과는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6 2천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내적인 준비가 많았듯이 해방 전 한국에도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한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복귀섭리역사를 내면적으로 해 나오던 단체들도 많았는데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그런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로지 뜻만을 위해, 오로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신앙생활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항상 깊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항상 분별되고 정갈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나의 생활은 대개 대모님으로부터 배웠으며 외할머니에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텔에스테)

7 조원모 외할머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이 뛰어나셨고 모든 일에 열성적이셨습니다.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만 다섯

살이 된 대모님을 등에 업고 그 대열에 끼어서 만세운동을 하시던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대모님도 이러한 외할머니의 열성적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아서 열아홉 살까지 장로교 신앙을 하셨습니다. 철산에서 김성도씨가 교주로 있는 성주교가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8 내가 태어난 이듬해인 1944년쯤 대모님은 조원모 외할머니와 함께 복중교에 들어가서 주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허호빈씨가 하루는 여자들은 모두 옷을 한 벌씩 해봐야 재림주님이 현현하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면서 대모님에게 오후 1시쯤 되었는데 밤이 되기 전까지 옷 한 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보통사람의 옷 같으면 몇 시간 만에도 만들 수 있겠지만 주님의 옷을 짓는 일이었기에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모님은 순종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하루는 대모님이 밤낮 영적으로 재림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허호빈씨가 몹시 부러워 '몽시에라도 재림주님을 한번 뵈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몽시가 있었습니다. 몽시에 대모님이 개끗한 초가삼간에서 아래위 흰색 옷을 입고 부엌에서 진지를 준비한 뒤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나오는데, 외할머니가 이 방은 누구도 못 들어가는 방이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꾸도 안 하고 공손하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얌전하게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분이 동쪽에다 상을 하나 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척 돌아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내가 너 하나 찾으려고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눈물이 저절로 나고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울다가 깨었답니다. 깨어나서야 '그것 참 이상하다. 그분이 아마 재림주님이신가 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모님은 몽시를 통해 참아버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9 허호빈씨가 대모님에게 '하늘에서 재림주님 내외분이 신으실 갖신과 사모를 안주에서 해 오라고 하시네.'라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주에서 갖신과 사모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집을 찾아가서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세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최고로 만드세요.'라고 하면서 치수를 적어 주고 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서 보니 갖신은 잘 만들었는데 사모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사모를 받아들자마자 팔에서부터 저려 오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노랗게 보이

고 아예 몸이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집 방바닥에 발이 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자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모님은 눈을 부릅뜨고 사모를 만든 분에게 야단을 쳤더니 벌벌 떨면서 다시 잘 만들어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가 보니 그때는 정말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 놓았답니다. 돈을 치르고 평양에 가지고 나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얘기를 허호빈씨에게 했더니 웃으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또 몽시를 보았습니다. 대모님은 몽시를 아주 똑똑히 보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본 그분이 다시 오시더니 '내가 북을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니 네가 제일 아끼는 이불과 요와 양복 한 벌을 배낭에 넣어달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집에 들어가니 이상하게도 이불과 요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양복도 연한 색이면서 천이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가 막힌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싸서 배낭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둘러메시면서 '내가 3년 있다가 올 거니까 너는 3년 동안 마음 변치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시더니 북쪽을 향해 휘파람을 불면서 혼자 외롭게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대모님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러 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외롭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마음이 변할 리가 업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시고 3년 동안 변치 말고 있으라는 황공한 말씀을 하고 가시는구나.'라며 울다가 꿈에서 깨셨습니다. 그렇게 대모님은 재림주님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p. 146

10 1946년 8월 복중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공산당국에 밀고하여 허호빈씨와 복중교 간부들이 경찰에 의해 평양 대동보안서에 구금되었습니다. 내무서원들이 허호빈씨에게 '네 복중에 있는 예수가 언제 나오느냐?'라고 물으면 며칠 있다가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자꾸 그런 지시가 내렸던 것입니다. 허호빈씨는 재림주님이 감옥에서 나오실 일시를 말했기 때문에 20~30명의 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매일 감옥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서원들이 그간 지어 놓은 옷을 몽땅 싣고 갔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 1년여 동안 정성들여 다시 그만큼을 만들었지만 그때까지도 허호빈씨는 출옥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11 1946년 6월경에 아버님께서는 서울을 떠나 북한 평양으로 가셔서 경창리에서 집회소를 열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무렵 북한 공산당국은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복중교의 허호빈씨 등이 종교를 사칭한 죄목으로 입건되었을 때 아버님께서도 그와 유사한 단체 지도자요 이승만의

첩자라른 등의 혐의로 대동보안서에 구금되셨습니다. 특히 섭리적 신부격으로 준비된 복중교가 신랑격인 아버님을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자 아버님께서 두 차례 사람을 보내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거부한 결과 하나님은 옥중에까지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8월 11일부터 100일간 옥고를 치르시며 허호빈씨와 접촉하려고 수차례 조치 하셨지만 허호빈씨는 끝내 아버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한 섭리적 선처를 외면한 채 불신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1월 21일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빈사지경의 상태에서 방면되셨습니다. 하늘의 가호가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복중교 간부들은 그 무렵 고문치사를 당하고 그 후 6·25전쟁으로 인해 전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은사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섭리적 사명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엄한가를 교훈해 주는 산 역사였습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p. 147

12 대모님과 조원모 외할머니는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로 평생을 일관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안일한 가정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늘 앞에 봉사하며 지성을 다하셨습니다. 대모님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수난길을 걸어 나왔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나도 그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뜻을 위해 가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13 대모님의 생애처럼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양가 부모 네 분 중에서 대모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보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대모님'이라고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모의 칭호를 받기까지 하늘만이 아는 피눈물 나는 정성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기 전에는 재림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는 참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정성을 들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과의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모님은 10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참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참어머님, 1989.12.02, 이스트가든)

14 앞으로 여러부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뜻을 위해 아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족과 일국가, 남북통일을 위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을 돌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붉게 불타오르는 그 한 심정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모님과 마찬가지로 24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을 성사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대모님에게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모라는 이름을 내가 내려 준 것입니다. (208-346, 1990.11.21)

15 대모님은 부모님 성혼 이후 노동자의 아내로부터 황족까지 별의별 여자들이 어머니를 치는 판국을 수**습**하는 데에 수고하였습니다. 어머니 혼자로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3대에 걸쳐서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계대를 놓는데 있어서 책임을 한 할머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이 대모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갈 사랑의 길에서 태산준령처럼 막혀 있는 담을 헐어 버리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뒤집어씌우기 때문에 모든 짐은 나에게 지워 달라고 통곡하고 그 일을 해 나왔습니다. 부모님 가정의 모든 걱정을 해원해 달라고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스러운 희생의 길을 통하고 국가기준을 넘고 세계기준을 넘어서 통일천하를 향하고 해방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것입니다. 이 전환시기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갔고 충심으로 모두 모셔야 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대모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일편단심의 심정을 이어받고 자기 후손들 앞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전통을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할머니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시는데 있어서 그 이상 일편단심 충정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1989년 11월 4일 휘호를 충심봉신(忠心奉身)이라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생축의 제물이 되는 길을 다 간 이 할머니처럼 가게 될 때에는 핍박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5-152, 1989.11.07) p. 148

16 대모님은 일생 동안 오로지 한 곳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운 섭리역사에 있어서 재림주가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새로운 교단을 마련한 모든 역사에 처음부터 참여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주교를 중심삼고 어머니 계통을 이은 것은 김성도씨가 1대조입니다. 또 한 갈래가 복중교의 허호빈씨입니다. 그 계통으로 신앙의 주류적 역사의 전통을 이어받고 오시는 재림주를 모시기 위해 선발주자로 달려오신 분이 대모님입니다. 어머님을 낳아서 3대의 해와적 역사를 거쳤는데, 어머님시대에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뜻을 암암리에 알고 준비해 나온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그간에 있었던 그 수고라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동지, 모두가 몰이해하는 이 길을 홀로 나오며 생식을 하면서 별의별 역사를 다 거쳐 왔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중심사상을 굽히지 않고 나옴으로써 어머님이 아버님과 만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했습니다. (265-009, 1994.11.07) p.

제3장 참아버님의 섭리적 준비시절

1절 자연과 더불어 보낸 어린 시절

자연과 함께하며 얻은 교훈

참아버님께서는 초등학교 졸업 무렵까지 18년간 고향인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 주변 20~30리 안팎을 활동 무대로 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참아버님께서는 궁금증과 호기심과 탐구 열의가 남달랐으며, 전형적인 농촌 환경 가운데서 다채롭고 다양한 정서와 자질을 함양하셨다. 특히 새나 곤충들을 통해 어미들의 새끼 사랑을 관찰하면서 인간 사랑의 이치를 확인하는 등 모든 사물이 참아버님께는 정서적인 친구가 되고 교재가 되었다. (p. 149)

1 자라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많은 교재를 남겨 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산을 바라볼 때에도 잊을 수 없는 정서적인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또 개울을 본 때에도 그렇습니다. 개울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수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배움의 재료로 활용할 때에는 자기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공급받는 데에 잊을 수 없는 기본적인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산하에 있는 동물과 식물, 자연계의 모든 것을 교재로 삼아 자기가 내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풍요로움을 갖추어 주는 많은 재료를 남기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187-294, 1989.02.12)

2 내가 사는 땅, 내가 보고 있는 주변의 마을과 산등성이, 산 너머의 지역까지 보겠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가 보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거기에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라는 물고기는 다 잡아 보았습니다. 안 잡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훤하게 압니다. 가재는 물론이고 물고기도 많이 있는 곳이 어디고, 산짐승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로 갈 때 어디에 가면 잘 잡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271-259, 1995.08.28)

3 나는 매일같이 산에 다녔지 평지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산에 가면 꽃도 많고, 새들도 많고, 산짐승도 많고, 박물관처럼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자연에서 배워 만든 것이 많습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보름달이 뜨게 되면 잠을 집에서 안 자려고 했습니다. 솔밭에 갑니다. 내가 자란 거기에는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달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큰 소나무 아래에는 솔잎이 많고 풀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앉거나 누워도 젖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 데 가서 밝은 달을 보게 되면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큰 나무가 흔들리면 오색 가지 빛깔로 반사됩니다. 거기에 취합니다. 이상은 것은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가 사람 말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통일원리가 그러한 자연 가운데 다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62-165, 2007.05.06)
p. 150
4 나는 자연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앉아 있다가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큰 나무에 기대 자연 가운데서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물을 뜯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서적인 인간으로서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재를 나한테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천에 있는 나무가 다 같은 나무라도 모양 모양이 인상에 남습니다.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추억이 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하나의 교재,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187-295, 1989.02.12)
5 우리 동네에 찾아오는 철새를 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철새는 새끼를 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새끼를 칠 것인가, 어째서 여기에 나타났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새가 나타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주변에 둥지가 있든가, 물을 먹으러 왔든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물을 먹는데 좋은 물을 먹어야 하니까 좋은 물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샘을 찾아봐서 좋은 샘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샘물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샘을 찾아서 2주일쯤 지켜보았습니다. 틀림없이 물을 먹으러 올테이까 매일같이 아침부터 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새를 발견했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새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180-245, 1988.08.22)
6 고향에 개울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사는 물고기라는 물고기는 다 잡아 보았습니다. 미꾸라지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별의별 오만 가지 담수고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잡아 보았습니다. 이들 고기를 큰 못이 있었다면 거기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물고기를 기르는데, 그때 그럴 수 있는 못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물구덩이를 파서 잡아넣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느 물에서나 다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물고기가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 사정도 모르고 '정성들여서 널 살려 주려고 하는데 왜 죽었느냐?'라며 슬퍼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나는 정적인 사람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보고도 '야, 네 엄마가 울겠구나. 내가 울어줄게.'라고 하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184-294, 1989.02.12)

7 내가 뱀장어를 잡는 데 있어서 챔피언이었습니다. 바다가 우리 집에서 20여 리 떨어져 있었는데 나는 남들보다 빠른 시간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쪼끔눈이'라고 불렸는데 쪼끔눈이가 뱀장어를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잡아서 찜을 해 가지고 돼지를 먹이고 소를 먹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뱀장어 얘기를 하면 나는 준비하라고 말을 해놓고 뱀장어를 잡으러 뛰쳐나갑니다. 식사 때에 맞춰서 뱀장어를 잡아다가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뱀장어탕, 뱀장어찜을 먹겠다고 타령하다가 실컷 먹게 되는 것입니다. (615-148, 2009.08.22)

8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미물의 동물까지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주인의 자격을 갖추게 될 때에는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사람의 사랑을 원하고, 참새도 사람의 원하고, 거미도 사람의 사랑을 원합니다. 전부 주인의 사랑을 받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새를 잡는 데에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라는 새는 못 잡아 본 것이 없습니다. 철새들도 못 잡으면 밤잠을 못 잤습니다. 철부지였을 때에는 그랬지만 철이 들고 나서는 그 새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샘을 파 주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 샘을 파놓으면 새가 와서 물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것을 먹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더라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173-027, 1988.02.01)

9 동물들도 봄이 되면 다 사랑의 짝을 찾아 헤맵니다. 새들도 그렇고, 곤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되어 곤충이 우는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그 우는 소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고파 우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짝을 만나고 싶어서 우는 소리입니다. 신호가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니 친구와 같이 무엇을 먹으러 가자. 그다음엔 좋은 상대를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나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곤충을 참 많이 잡아 보았습니다. 또 안 잡아 본 동물이 없습니다. 살쾡이로부터 너구리, 토끼를 비롯해 다 잡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합니다. 그것들이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다 짝이 있었습니다. 전부 쌍쌍입니다. 곤충세계 조류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40-296, 1986.02.14) p. 152

10 나는 잣나무를 사랑합니다. 잣나무에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리기 때문입니다. 또 잣은 아무나 까먹지 못합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깨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까면 된다 하는 그 방법을 알아 가지고 까더라도 정확히 때려야 껍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까먹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심더라도 얼어 터져야 순이 납니다. 정반대되는 때에 심습니다. 봄철에 심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얼어야 됩니다. 본질을 들었다 놓더라도 그 본질의 소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지 않고 반대로 환경 전체를 폭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봄을 맞이하여 싹이 나와서 잣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엽송입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을 중심삼고 하나의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잣나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나무는 아주 잘 자랍니다. 똑바로 올라갑니다. 뿌리도 똑바르고 순도 똑바로 올라갑니다. (178-119, 1988.06.01)

자립생활의 훈련

참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 논갈이, 밭갈이, 모내기, 김매기 등 시골 농사일을 두로 경험하셨다. 특히 벼 콩 옥수수 고구마 등을 잘 키우는 비결, 밭에 거름을 뿌리는 일, 산에서 나뭇잎 긁는 일 등을 익히면서 소년기를 보내셨다. 그리고 양말이나 옷이나 모자도 손수 짜서 사용하는 등 자립생활에 강한 면모를 보이셨다. (p. 152)

11 나는 학교에 갔다 오면 옷을 모두 벗어젖히고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형님 누나들과 경쟁해도 언제나 앞서 나갔습니다. 농촌에서 왕과 같은 승리적 농군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는 그 농사꾼 세계에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땅에 콩을 심어야 하고 팥을 심어야 하는지를 훤하게 다 압니다. 땅을 척 보고 '여기는 고구마가 잘되는데 왜 이것을 심었어요?'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라고 합니다.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농촌에 가면 농군 중의 농군입니다. 어촌에 가도 그렇습니다. 배도 만들고 참치를 잡는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220-333, 1991.10.20) p. 153

12 나는 양말을 직접 짜서 신고 옷도 직접 만들어 입었습니다. 추워지면 모자도 만들어 씁니다. 우리 누나들한테 뜨개질을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도 뜻을 위해서는 혼자 살 준비도 해야 됩니다. 팬티 같은 것도 통 광목을 갖다 놓고 본을 떠서 만들어 입으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버선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야야. 버선을 장난삼아 만드는 줄 알았는데 발에 잘 맞는구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연구해 둬야 합니다. 옷도 떠서 입을 줄 알아야 되고, 양말이나 모자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혼자 살아도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222-271, 1991.11.03)

13 요즘에 내가 그리운 음식이 있습니다. 내가 안 먹어 본 요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명하다는 요리는 다 먹어 봤지만, 지금도 제일 그리운 요리가 뭐냐? 옛날에 시골에서는 5월 감자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자만

먹다가 보리를 수확해새 보리쌀로 밥을 해먹는 것입니다. 보리쌀도 요즘의 납작보리쌀이 아니고 통보리쌀입니다. 그 통보리쌀을 물에 불렸다가 밥을 하게 되면 숟가락으로 꽉꽉 눌러서 떠도 알알이 삐져 나갑니다. 그것을 고추장으로 비벼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다른 것으로 비비면 맛이 없습니다. 얼큰한 고추장으로 비벼서 불그스름한 것을 한 입 집어 넣으면 이 사이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우물우물 먹던 것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212-180, 1991.01.06)

14 시골에 가면 참 재미있고도 멋진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재료를 수습해서 앞날에 큰 집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농사지을 줄도 알고, 바닷가에 가면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투망질을 하더라도 새벽에 나갑니다. 이왕 할 바에는 기록을 낸다는 신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첫닭이 울 때에 나가서 별이 뜰 때까지 그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나는 언제나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꼴찌는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절대 안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들이는 데도 그렇습니다. (050-303, 1971.11.08) p. 154

눈물과 정이 많은 소년

참아버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눈물이 많으셨다. 지극히 정이 많고 동정심 많은 소년이었다. 새나 물고기를 잡아 집에서 기르다가 죽으면 어미의 입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애틋한 동심의 정을 발로하셨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과 맞서 싸우기도 하셨다. 밥 굶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부모 몰래 쌀독에서 쌀을 퍼다 주셨고, 출산을 했는데도 양식이 없는 집에는 미역과 쌀을 가져다 주기도 하셨다. 명절 때 새 옷도 갖춰입지 못한 어려운 처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깊은 온정을 베푸셨다. (p. 154)

15 여섯 살을 지나 일곱 살이 되면 철이 들 때입니다. 학교에 다닐 나이 때에는 동네 아주머니의 배가 얼마만큼 부르면 언제쯤 아기를 낳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 아주머니에 대해 조사해서 쌀이 없으면 한 달 전부터 쌀을 갖다 주었습니다. 임신한 아주머니 댁에 미역이 없으면 미역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못사는 사람들이 모든 비밀을 나한테 다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을이 되면 밤이라도 따서 나눠 줘야 되고, 옥수수라도 따다가 그 집에 갖다 줘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을 다 먹여 살리려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431-107, 2004.01.12)

16 옛날에 동네에서 우리 집이 잘살았습니다. 동네에 못 먹고 못사는 친구들이 도시락으로 조밥이나 보리밥을 싸 와서 먹으면 바꿔 가지고 먹으면 먹었지 그것을 보고 내 밥을 그냥 못 먹었습니다. 또 친국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갈 돈이 없을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개 집 우리 동무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가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이 열한 살쯤 됐을 때 쌀 대두 한 말을 팔아서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아버지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아버지 몰래 쌀을 한 말을 짊어지고 20리 길을 걸어갔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것을 새끼줄이나 무슨 줄로 묶어서 메고 가야 할 텐데 그냥 메고 가니까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수없이 헉헉거렸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뜻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입장에 서게 한 것입니다. (058-082, 1972.06.06) p. 154

17 나는 겨울에 떨면서 지나가는 거지를 보게 되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잤습니다.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거지를 안방에 데려다가 잘 먹여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네에서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몰래 쌀독에서 쌀을 퍼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056-035, 1972.05.10)

18 나는 떡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떡을 해 달라고 하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들딸 시집 장가도 보내려면 옷감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 바쁘다며 안 해줍니다. 쉴 새 없이 바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먹을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쉬운 것, 팥법벅떡이나 시루떡 같은 것을 합니다. 큰 시루에다 떡을 해놓게 되면 그것이 사흘도 못 갑니다. 전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동네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이 그러한 심정을 지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네에 못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잘살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같이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성이 그래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물이므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울타리에 기대어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056-035, 1972.05.10)

19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수백 통의 양봉을 했습니다. 양봉을 하게 되면 원판대기를 딱 붙여 놓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벌들이 둥지를 틀어서 꿀을 저장할 곳을 만듭니다. 집은 스스로 만듭니다. 그 원판이 비쌉니

다. 그것을 캐비닛 같은 데에 쌓아 놓는데 그것을 찾아서 전부 짓이깁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켜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석유는 못 주더라도 촛불이라도 켜라고 하며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짓이겨서 일일이 배급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으로 얼마 하는지 내가 철부지였으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혼쭐이 났지만 절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아버지가 중간쯤 가다가 끝내더라는 것입니다. (163-159, 1987.05.01)

20 한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이 안 보이고 부인은 신체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동네에서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언제나 부인이 절뚝거리면서도 지팡이를 짚고 남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입도 틀어졌고 오만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인을 남편이 미인 이상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반드시 우리 방앗간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적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불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슬퍼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420-211, 2003.10.11) p. 156

21 나도 여러분같이 발랄하고 희망에 벅찬 청춘시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뜻을 알기 전부터 불쌍한 사람의 친국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못사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있더라도 잘살고 드센 집 아이들과는 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밥을 못 먹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잠을 안 자고라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친구 이상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7-018, 1982.01.30)

불요불굴의 성격과 예견 능력

참아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집요하게 한길을 파고드는 성격과 악착같은 승부근성의 소유자였다. 옳다고 판단하면 절대 미루거나 기다리지 않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셨다. 이렇듯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완성해야 될 참부모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기르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참아버님은 어린 시절부터 인근 사람들의 병고와 재난을 예견하는 등 특별한 영적 감별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 (p. 156)

22 어머니 아버지, 동네 전부가 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문씨 가문의 무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씨름이든 권투든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3등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1등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의 두 배, 세 배 노력하는데 왜 1등을 못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인생문제 종교문제의 근본, 뿌리를 파서 뒤집은 것입니다. 성격이 한번 손을 대면 끝나기 전에는 밥 먹는 것, 잠자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탕감복귀에 제일 필요한 성격입니다. (319-112, 2000.03.17)

23 나는 울기 시작하면 한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명이 '하루울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나야 그치기 때문에 하루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 우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울지 않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나와 가지고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해서는 자던 사람들까지 깨게끔 울었습니다. 큰일 난 것처럼 계속 울었습니다. 목이 붓고 쉬게 되어서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울어도 가만히 앉아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훌떡훌떡 뛰면서 상처가 나서 살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게 하면 울었습니다. 그만하면 내가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번 한다고 결심하면 죽기 전에는 놓지 않습니다. (050-297, 1971.11.08) p. 157

24 나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보통 사람의 3배는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게 되면 잠을 안 잡니다. 밤에 족제비 사냥을 나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독한 사람입니다. 벌써 10대를 넘어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조종했습니다. 그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걸려 들어가는데 그 뿌리에 어머니 아버지가 항복 안 하고는 안 되었습니다. 나는 뼈가 부러져도 양보를 안 합니다. 죽어도 양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를 하라고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잘못했다고 대답을 합니까? (136-132, 1985.12.22)

25 나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악착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내가 싸워서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석 달, 넉 달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은 사나이입니다. 무섭다면 누구보다 무서운 사나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지는 것을 절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져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서 꼭 이기지 질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벌써 질 것, 이길 것을 다 압니다. 내가 손대는 날에는 죽기 아니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056-284, 1972.05.18)

26 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욕을 한마디 먹더라도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누구한테 한 대 맞게 되면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기질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운동을 해도 내가 이기고 만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나에게 비참한 경지, 이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경지가 몇 십번, 몇 백번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창피하다면 그 이상 창피할 수 없는 경지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극복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불같은 성격이 있을 터인데, 성격대로 한번 하게 되면 세계를 전부 쓸어버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꿋꿋이 참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남아졌다는 것입니다. (065-328, 1973.03.04) p. 158

27 내가 젊어서는 내 나이 또래와 씨름을 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의 나보다 세 살 더 먹은 사람과 씨름해서 내가 한번 졌습니다.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아카시아나무는 봄철이 되어 물이 올랐을 때 껍질을 벗기면 소나무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봄철에 물이 오를 때 자꾸 휘면 껍질이 떨어지니 그것을 쭉 벗기는데, 이것이 질깁니다. 이 아카시아나무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너를 내가 깔고 앉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다!'이래 가지고 6개월 만에 그를 타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39-052, 1986.01.26)

28 내가 여덟 살 때부터 누님, 사돈의 팔촌, 동네방네 사람들까지 시집 장가갈 때 사진을 보고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내가 '오늘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이 동네에서 사람이 하나 죽는다.'고 하면 죽었습니다. 그러한 일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사람이 나한테 상대 될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야야야, 이것 좀 봐 다오. 좋겠니, 나쁘겠니?'라고 묻습니다. 척 보고 '나빠.'라고 하면 반드시 나쁜 것입니다. 보는 것도 오래 안 봅니다. 보고서 '좋아.'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13-236, 1981.05.08)

29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오산집 작은아이로 통했습니다. 눈이 작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오산집 쪼끔눈이'라고 하면 나인 줄 압니다. 눈이 얼마나 작은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눈이 없다고 하면서 한참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눈을 벌려 보니까 깜빡깜박 해서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 데를 볼 수 있는 소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까지 해부해서 논리적으로 해부학을 만든 사나이입니다.

이런 가치를 알게 되면 세계가 나만 따라 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찾아 보려는 행렬이 현해탄을 건너 태평양 복판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204-089, 1990.07.01) p. 159

30 내가 소도 볼 줄 압니다. 판매장에서 소를 보고 '저 소 나쁘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소는 못 파는 것입니다. 소는 목덜미가 잘 생겨야 되고, 앞발이 잘생겨야 되고, 뒷모습이 잘 생겨야 되고, 허리가 잘생겨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잘생겨야 좋은 소입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소를 사러 가면 내가 따라가서 감정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 그거 어떻게 알아?'라고 했습니다. 나는 벌써 복중에서부터 배워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138, 1982.10.05)

31 내가 옛날 어린 시절에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알아보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다.'라고 생각될 때,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따라가면서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랬지요?'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영계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벌써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알지요?'라며 놀랍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 방에 누가 있느냐,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나쁜 일을 하고 있느냐, 좋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 나쁜 사람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040-298, 1971.02.07)

2절 하나님의 소명

탕감길을 간 가족들

참아버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된 전후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혹독한 탕감을 치러야 했다. 16세 무렵까지 온갖 시련이 몰아쳤다. 사탄의 마지막 참소조건까지 청산지어 완전한 하늘 편 승리의 기점을 확정짓기 위하여 섭리상 불가피한 희생이 뒤따랐다. 3대에 걸쳐 형제들이 객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더군다나 참아버님의 6남7녀 중 각별히 애정 깊었던 다섯 남매가 연달아 요절하였다. 하늘은 참아버님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의지할 만한 인연과 관심을 갖는 외적 환경들을 모조리 끊어 버렸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긴장된 나날을 일생 동안 거쳐 오신 것이다. (p. 160)

1 통일교회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탕감노정을 거쳐 가야 합니다. 내가 열여섯 살 때 이 길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열세 형제 가운데 여덟만 남고 다섯이 죽었습니다. 또 개가 죽고 소가 죽고 말이 죽었습니다. 도깨비놀음이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깨비장난 같은 일을 여러분은 모

를 것입니다. 수수께기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파탄시키기 위한 악마의 궤계(詭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만국을 대표해서 승리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 싸움터에서 혈족 끝을 중심삼고도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해야 되고, 본인 자신의 역사성에 있어서도 세계 만민, 세계 인류 앞에 대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통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국을 창건하는 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14-215, 1991.02.02) p. 160

2 영적인 현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아버님의 일가를 망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과 누나가 미쳐서 아주 큰일이 났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한 영적인 배경과 영적 세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친 줄 알았던 형이 가만히 보니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에 형님이 혼잣말처럼 하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방법이 때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몇 명의 영인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님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227-116, 1992.02.11)

3 나 자신에게 제일 가까웠던 친구들, 하늘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친구들은 다 데려갔습니다.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잘라 버린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평안북도 사람도 있었고 황해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가까웠던 친구들을 다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또 내가 제일 사랑하던 손아래 여동생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많았지만 이모 집에는 딸이 없었기 때문에 이모의 간청에 의해 그 동생이 이모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 동생을 위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동생은 오빠에 대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로서 동생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해주어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까지도 다 잘라 버렸습니다. 여동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동생도 데려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탕감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029-210, 1970.02) p. 161

4 나를 사랑하던 친구들은 전부 영계에서 데려갔습니다. 왜 그들은 영계에서 데려갔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과 사정을 나눌까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책임지고 나가는 내가 그들과 사적인 정을 나눌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모두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려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022-124, 1969.02.02)

16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참아버님께서는 장로교회에 입교할 무렵 신학문 수학과 함께 사고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면서 장래문제와 현실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에 봉착하셨다. 영문모를 집안의 환란과 더불어 일제 치하 민족의 비참상, 그리고 약소민족의 고통과 비애를 깊이 체감하셨다. 동시에 인생의 근본문제들에 대해 고심하면서 해결점을 찾고자 몸부림치셨다. 그러던 중 정주보통학교 전학 직후 16세 되던 해인 1935년 4월 17일 새벽, 오랜 시간 눈물어린 산상기도 중에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심오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 후 여러 번 직접 대화를 나누셨다.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명(天命)을 받으신 이후 고향과 서울 유학, 그리고 일본 도쿄 유학을 거치면서 장래 섭리적 사명자로서 책임의식 체득과 신앙을 심화하는 준비기간을 보내셨다. (p. 161)

5 나는 16세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포함한 영계의 성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087-285, 1976)

6 내가 초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은 16세 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소년시대부터 인생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죽은 후에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혹은 무력하신가?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왜 인류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 지구상에는 왜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후부터 9년 동안 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영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놀랄 만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고 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문화의 서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성서에 기초를 둔 이 특별한 계시는 유대교의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는 모든 종교를 포섭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계시는 오늘날 원리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02-288, 1979.01) p. 162

7 16세 때 얼마만큼 심각한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어렵

고, 예수님과 종교단체들이 제일 어려운 최후의 때였습니다. 한국이 일본 치하에 들어가서 코너에 물려서 갈 데가 없는 삼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늘땅과 하나님도, 5대 성인들도, 종교권도 전부가 한 점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 한 점에 소명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나를 중심삼은 가정이라든가 한국 자체가 지극히 심각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려야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보입니다. 순식간에 천하가 다 무너지겠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했겠느냐는 것입니다. (554-257, 2007.02.04)

8 내가 받은 새로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백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 뜻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종파가 아닙니다. 통일교회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개인,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하나님을 중심한 국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87-254, 1976) p. 162

9 아담 해와가 16세에 타락했으니 본성적 내연을 중심삼고 하늘이 아담 해와를 길러 오신 심정의 맥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16세까지입니다. 특별히 하늘이 나를 택해 세워서 길러 나왔기 때문에 16세에 비로소 영계와 육계를 하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나는 본연의 16세의 심정적 인연과 연결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사탄세계는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사탄은 형님의 자리, 할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종교권에 앞서서 국가의 자리에서 치리해 나왔습니다. 주관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엇갈려 바뀔 수 있는 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나라가 앞서서 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16세부터 이것을 접붙여서 새로이 하늘의 비밀과 사탄의 비밀, 또 인류역사의 비밀을 전부 알아 가지고 이것들을 중심삼고 뒤집어 나가는 것입니다. (493-229.2005.04.25) p. 163

10 나 자신도 때로는 앞이 캄캄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적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시던 그 음성이 나의 뼛골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서글픈 사정을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만을 알고 있어야 하고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분부하시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불쌍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보다도 더 불쌍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분함과 더불어 지금까지 참아 오신 아버지

의 심정을 무한히도 가슴 아프게 체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아들딸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효자 중의 효자가 되고 효녀 중의 효녀가 되지 않았습니까?'라며 당당히 나서서 아버지를 위로해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싸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종교단체가 통일교회를 반대하고 나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누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터전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028-296, 1970.02.11)

3절 학창시절

글방과 초등학교 시절

참아버님께서는 7세부터 13세까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셨다. 특히 암기력이 뛰어나셨고, 붓글씨의 경우 훈장 대신 체(體) 글을 써 주실 정도로 발군의 재질을 나타내셨다. 그 무렵 장차 3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겠다는 꿈을 키우면서 1933년 14세에 원봉학원에 들어가 진학시험 준비를 한 뒤 1934년 오산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셨다. 그리고 1935년 4월 일본어 공부를 위해 정주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진학하셨으며, 1938년 3월 25일 제29회 졸업식에서 모든 식순이 끝날 무렵 자진해서 단상에 나가 장시간 특별소견을 발표하셨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허구성과 그 위선적 형태를 낱낱이 꼬집고, 교사들 개개인에 대한 문제점도 일일이 지적하셨다. 이를 계기로 참아버님께서는 일본경찰로부터 요시찰인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p. 164)

1 나는 그림을 그리는 소질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소질이 많습니다. 글방에 가면 여덟 살부터 아홉 살, 열 살, 스무 살, 서른 살짜리 형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매일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열 두 살 전부터 글씨 쓰는 책에 본글을 써 줬습니다. 그러면 그 글씨본에 수백 번 쓰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벌써 다릅니다. 척 보게 되면 붓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꼭대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니 아무리 긴 것이라도 척척척 써서 맞추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글방에 다니다가 처음으로 학원에 갔습니다.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화선지라고 하는 그림 그리는 종이에다 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화선지를 놓고 그리려고 하는 꽃을 생각하고 구상을 합니다. 화선지가 얼마만큼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는 마음으로 줄을 그어서 그것을 따라 그려 나갑니다. 하나 둘 그려 가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만 그리면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칠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학원 벽에 붙었습니다. (349-056, 2001.07.14) p. 164

2 내가 열 살 때 글방에 다닐 때에는 책을 하루에 한 장만 떼면 되었습니다. 30분 내에 다 떼는 것입니다. 딱 정신을 집중해서 하면 30분에 다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장님 앞에 가서 조잘조잘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는 훈장님이 낮잠을 잘 때 나는 산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훈장님이 힘드니까 낮잠을 자주 잤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어디에 있고, 새둥지는 어디에 있고, 승냥이는 어디에 있고, 버섯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녔으니 어머니가 나를 찾으러 다녀도 못 찾는 것입니다. (204-249, 1990.07.11) p. 165

3 철이 나고 열 살을 넘어서까지 글방에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나 뜻적으로 볼 때에도 둘째 번으로 태어난 아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공부를 시키면 죽는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못 가게 하고 글방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라던 아버님의 일생은 전부 갯척과 개혁이었습니다. 글방에 다니면서 비로소 뜻에 대한 길을 알고 난 후 16세부터 마음을 정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글방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고 기차가 달리는 과학문명의 시대가 점점 확장되어서 앞날을 이끌어가게 될 것을 완연히 느끼는 자리에서 '이런 글방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부터 혁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 공부해서 그때로 말하면 보통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는 오산보통학교였습니다. 편입시험을 쳐서 오산보통학교 3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열심히 안 할 수 없었습니다. (211-133, 1990.12.30)

4 오산보통학교에서는 일본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립만세운동의 33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일본과 원수의 자리에서 투쟁한 대표적인 사람인 이승훈씨가 세운 학교이고, 그런 학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본말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에 대해 세밀히 모르고서는 적과 싸우더라도 대비책을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주보통학교에 편입 시험을 쳐서 4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길이라든가 인생의 근본이라든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11-133, 1990.12.30)

5 정주보통학교에 편입하여 학교에서 일본말을 배웠습니다. 가타가나 히라가

나를 공부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것을 하루저녁에 다 외워 버렸습니다. 학교에 가 보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일본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갔기 때문에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니, 남들은 다 춤추고 노는데 그 춤추는 복판에 들어가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셈이었습니다. 그때 그 거북했던 것은 느끼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모든 책을 보름 만에 다 외워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귀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171-258, 1988.01.02)

6 나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무슨 공부를 했어도 세계적인 학자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머리를 가졌다고 하여 내가 공부를 해서 세계에 이름난 학자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학자가 되어 봤자 칠판 앞에서 백묵가루를 마시고 일생 동안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그저 연구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근본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 중에서 무슨 길이 제일 어렵고 힘든 길이냐, 가기에 힘들다고 하는 길을 나는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역사시대, 과거·현재·미래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고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90-044, 1976.12)

7 내가 공부할 때에는 벼락같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에 하는 것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내 고향은 정주에서 동북 방향으로 한 8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농촌입니다. 호롱불을 켜고 공부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밤을 새워 공부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야! 잠자라. 몸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늘 친구로 했던 것이 밤벌레들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밤벌레를 친구로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시골 밤은 참 고요합니다. 곤충들이 달밤에 우는 소리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100-160, 1978.10.09)

서울 유학생활

참아버님께서는 정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1938년 4월 12일부터 1941년 3월 8일까지 서울 흑석동 경성상공실무학교에 다니셨다. 참아버님께서는 가장 일찍 등교하셨고 교실 청소를 도맡아 하실 때도 많았다. 그래서 동급생들도 어려워했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약한 학생은 보호해 주셨으며, 힘 있고 교만한 자들과는 맞서서 옳고 그름을 가리셨다. 활달하셨지만 평소 과묵하고 진지하셨다. 천도(天道)를 밝히고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늘 침묵하셨다. 참아버님 학적 기록에는 '명랑하고

활발하며, 꾸임없이 진지하고, 강인하고 건전하며, 스스로 앞서서 모든 일에 대해 열심히 한다.''신체가 건강하고 출석상황이 양호하며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평가되어 있다. (p. 167)

8 겸손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 가운데도 자기 위치와 처지도 모르고 주먹질이나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교만을 부리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무엇인지 모르게 위압감을 느낍니다. 주관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하고 싶지만 그가 가만히 있어도 왠지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시절에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절대 재잘 재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를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급생들이 나를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에게 공갈이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의몬을 했습니다. (037-130, 1970.12.23) p. 167

9 학교 친구들은 나를 무서워했습니다. 한 반의 동무들과는 서로 만나면 놀이도 하면서 지냈지만 딴 동창생들이 나를 다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말을 안 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누구도 모르게 그 친구들을 도와준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운동선수였습니다. 씨름선수였고 축구선수였습니다. 철봉도 잘했습니다. 몸집이 컸지만 날쌨습니다. 흑석동에서 난다 긴다 하던 사람들은 일주일 이내에 다 만나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왕초인가를 알아보고, 그들을 내가 교육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2010.01.23, 천정궁)

10 내가 중학교 시절에는 혼자서 청소를 다 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두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교생을 대신해서 내가 청소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남이 도와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해 놓았어도 다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친구들이 아예 혼자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혼자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133-182, 1984.07.10)

11 나는 한번 붙들면 안 놓습니다. 젊어서도 그랬습니다. 동네방네 보이는 것도 다 내가 검증하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중심삼고 학교 선생을 몰아친 사람입니다. 이런 공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추고 헤치고, 파고 또 파고 했습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해서는 안 통합니다.

(162-277, 1987.04.17)
12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문제에 무엇이 나올지를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합니다. 그 학생이 구석에 있으면 구석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바라보고 강조하는 논조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시험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되면 A, B, C로 암호를 해놓는 것입니다. 책 한 권 가운데 열 곳만 표시한 뒤 그것만 공부하게 되면 낙제를 안 합니다. 그 옆까지 봤기 때문에 답을 쓰면 30퍼센트나 40퍼센트는 맞힐 수 있습니다. 강의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11.17, 천정궁)

자취생활과 눈물의 기도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학창시절 3년 동안 자취와 하숙생활을 통해 고행에 가까운 생활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학업과 신앙에 정진하셨다. 처음 얼마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통학하셨고 주로 흑석동에서 자취와 하숙을 하셨다. 특히 고향 집에서 충분한 학비를 보내 주었지만 우물 두레박줄이 손에 달라붙는 혹한에도 찬방에서 지내고 찬물을 길어 밥을 짓는 등의 자취생활을 통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셨다. 이때부터 점심은 늘 금식을 하셨다. 언제나 일식일찬(一食一饌)이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깝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 기도에 몰입하기도 하셨다. 거듭되는 기도로 무릎과 팔꿈치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였다. 특히 학교 근처 솔밭, 그리고 교회 뒤편 서달산 바위 언덕과 산너머 동작동 쪽 산기슭에서 심각하고 처절한 담판기도를 하기도 하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면서 심정적 일체를 이루셨다. (p. 168)
13 서울에 와서 자취생활을 할 때 겨울에는 아주 추웠습니다.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17도에서 21도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추웠습니다. 동지섣달에 찬방에서 살고 찬물로 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산등에 파 놓은 열 발 이상 들어가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물이 참 좋았습니다. 두레박은 끈이 끊어지니까 고리를 쇠사슬로 합니다. 그것을 잡을 때 손이 달라붙어서 '호호'하던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런 생활에서부터 인생살이를 해보았습니다. (139-050, 1986.01.26)
p. 169
14 내가 여자 없이도 혼자 살겠다고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일생 동안 독신생활을 하더라도 이 뜻을 내 필생의 사업으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신세를 안지고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밥도 잘합니다. 도마질하는 것을 보면 풋

내기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또 반찬 만드는 것을 보면 솜씨가 있는지 없는지 벌써 압니다. 나는 7년 이상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내게는 많은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지방에 가게 되면 반찬을 수두룩하게 한 상을 차려 오지만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입맛에 맞으면 됩니다. 나는 한 가지를 대하게 되면 그 끝장을 보고야 마는 성격인데 반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젓가락은 대 보지만 먹는 반찬은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만 사다가 끊여서 먹습니다. (050-296, 1971.11.08)

15 통일교회 역사를 찾아서 오는 사람은 흑석동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흑석동이 백석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살았던 흑암의 골짜기 여기가 세계 만민에게 광명의 햇빛을 비춰 주는 전통의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노들강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의 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그 시대 흑석동에 살던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지만 후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된 그 아들딸들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얘기하며 역사를 부활시켜서 시대를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16 내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흑석동에 살 때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소나무가 우거지고 그 너머에는 화초를 가꾸는 일본식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쭉 돌아가면 논이 있고 그 너머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개척전도를 다니던 집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 길에 병이 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 학기 개학이 되어 학자금을 가져왔을 때니까 3월 말쯤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아들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안에 자기 딸네 집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학자금을 몽땅 털어서 여비와 병을 치료할 것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선조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를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갑에 있던 책 살 돈과 하숙비 전부를 털어서 안겨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3킬로미터 정도를 업고 가던 것이 엊그제 일같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을 하늘이 만나게 해주었으면 하늘이 동정해 주라는 이상 동정해 준다고 해서 절대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백을 도와주게 된다면, 아흔은 내가 하늘 앞에 공적인 것으로 취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열을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다섯을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열만큼 도와주기를 바라게 될 때에는 열 이상을 도와줘야지, 열 이하를 도와줬다가는 여러분의 은혜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56-039, 1972.05.10) p. 170

17 나는 배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에서 학비를 4월 초순에 보내오면 5월이면 다 써 버립니다. 다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입니다. 일화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신문배달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하는 것입니다. 탕감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도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말도 서툴고 풍속도 서툰데 첫 번 방학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뜻을 알고 나서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떼느냐는 것입니다. 또 누이동생들은 오빠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현재의 입장에서 바라는 길과 반대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날 모든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동네가 분주하고 학교가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이제부터 이 방에서 아무개 아무개가 돌아올 때까지 내 할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방학기간을 보냈습니다.

18 모든 사람은 우주주관을 바라고 있지만 자아주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밥 먹는 것부터 주관해야 됩니다. 밥 먹는 것은 금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사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경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배고픈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 자취생활을 할 때 친구들은 쌀이 귀하기 때문에 서로 밥을 더 먹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먼저 놓는 사람이 나중에 놓는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의 생활은 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야 됩니다. 하늘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것을 믿고 실천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세계적인 판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249-204, 1993.10.10) p. 171

19 내가 철이 들 때부터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나라도 없는 주제에 밥을 세 끼씩이나 다 찾아 먹을 자격이 있느냐면서 그랬습니다. 밥이 그리운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밥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민족을 그리워하는 길을 갔습니다. '밥보다 민족과 나라를 더 사랑해야지.'라며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 있으면서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049-074, 1971.10.03)

20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바쁠 때에는 하루에 1시간만 자도 됩니다.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인류역사 가운데 잠을 제일 적게 자는 대표자가 나일 것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나같이 배고파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해방을 바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세까지는 점심을 빼고 두 끼만 먹는 이식주의였습니다. 하루에 밥 다섯 그릇을 먹어도 거뜬히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두 그릇도 못 먹으면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밥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사랑의 그리움을 앞세우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생활의 탑을 쌓겠다고 노력해 왔습니다. (197-163, 1990.01.13)

21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를 대하듯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대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숙집 주인아주머니가 명절날 같은 때에 밤을 새워 가면서 준비한 음식이나 혹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내가 있는 방에 갖다 주지 않고서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냥 안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낙네들의 정성들인 그 음식까지도 나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꿈에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천번 만번 이 몸이 으스러지고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역사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가 있든지 함께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도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022-122, 1969.02.02) p. 172

22 기도를 할 때에는 등이 구부러지고 무릎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해야 됩니다. 무릎에는 옛날에 기도하면서 생긴 굳은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마룻바닥에서 해야 됩니다. 눈물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자국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사람입니다. 흘러가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025-334, 1969.10.12)

23 복귀의 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같이 먹고 자고 편안했겠습니까? 원리 자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는 기도하느라고 무릎에 굳은살이 박였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갈 길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눈이 붉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햇빛을 못 볼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143-331, 1986.03.21)

24 여러분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생활도 하루의 십일조를 해야

됩니다. 매일 2시간 24분, 10의 1조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한창 때에는 엎드려서 17, 18시간, 보통 12시간 기도했습니다.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사방이 딱 막혀서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바늘구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정을 거쳐서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리책을 붙들고 울어봤습니까? 일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시집장가를 가서 아들딸을 낳게 되면 짐을 지고 손수레를 끌고 허덕이다가 그냥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선의 세계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190, 1990.02.16)

명수대교회 설립과 주일학생 지도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흑석동 시절 초기에 일제강점기 재도권 교회의 독선적 교회 행정과 교리 중심의 신앙 행태에 반발하여 한국적 성령운동을 주도한 오순절교회에 인연되셨다. 그리고 서빙고 오순절교회를 다니시다가 1939년 가을 흑석동에 새예수교회를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 평양에서 이 호빈, 박재봉 목사가 자주 와서 부흥회와 사경회를 가졌을 때에는 거기에 동참하시고 그들과 깊은 교분을 가지셨다. 그리고 새예수교회 주일학생들을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하셨으며, 방학 때 평양에 가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하셨다. (p. 173)

25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지도했습니다. 흑석동교회에서도 그랬고 서빙고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밤에 추우니까 한강이 얼어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런 한강ㅇ을 건너다니면서 서빙고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해 주게 되면 학생들이 그만해 달라고 해야 될 텐데 따라다니면서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87-307, 1989.02.12) p. 173

26 서울 흑석동에 명수대 새예수교회를 내가 세 친구들과 힘을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학비를 털어서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흔적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빙고를 중심삼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겨울이면 한강물이 꽝꽝 얼어서 얼음판이 터지는 소리가 아주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한이 많은 역사시대에 추억도 많습니다. (543-331, 2006.11.07)

27 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경배한 사람입니다. 세 살 난 아이를 하늘의 왕자같이 정성껏 모셨습니다. 나는 공증할 수 있는 안팎의 모든 역사적 승리의 터전을 닦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3

대 이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통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나 자신의 소망의 상대로 여기고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던 명 지도 요원이었습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도 안 가고 내 뒤를 따라다니려고 했습니다. 가인을 사랑하는 역사를 개척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060-200, 1972.08.17)

28 이호빈, 박재봉, 한준명 목사가 새예수교회의 주류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평양의 새예수교회에 수천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름이 났고 교회당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르게 될 때면 언제든지 학생회를 책임지고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을 잘 알고, 젊은 청소년을 중심삼고 유명해지니까 누구든지 자기들 집에 나를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441-271, 2004.03.06) p. 174

29 내가 평양 새예수교회의 이호빈, 한준명, 박재봉 목사의 비밀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이런 소명적 책임을 중심삼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볼 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신구약성서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학생으로 거기에 들르게 되면 자기의 수천 명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할 만큼 유명한 학생 지도자였습니다. 아이들이 홀딱 반해서 내가 떠나면 정거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다 돌아서서 방어선을 쳐서 나를 보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목사는 언제든지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463-059, 2004.07.31)

4절 일본 유학과 원리 구명

하나님 해방의 뜻을 품고

참아버님께서는 미래의 섭리를 위해 더 크고 넓게 준비하고자 일본 유학을 떠나셨다. 1941년 3월 31일 경부선 히카리(光)호 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떠나셨으며, 4월 1일 부관(釜關)연락선 쇼케이마루(昌慶丸)를 타고 부산을 출발, 시모노세키로 향하셨다. 그리고 4월 초순 와세다대학교 부속 와세다고등공학교(早稻田高等工學敎)전기공학과에 입학하셨다. (p. 174)

1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나라가 일본보다 강한 나라였다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배경과 약한 기반에 서 있기 때문에 비참한 운명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세계 제일의 강국이 어느 나라냐? 미국

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미국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보다 더 큰 나라인데, 미국도 일본이 하는 것과 같이 자기 국권을 확장하기 위해 약한 나라를 점령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마찬가지다. 한다! 그러면 정의의 국가, 이 세계를 대표해서 정의의 자리에 서서 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키워 줄 수 있는 정의의 나라는 없느냐?'라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만일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압박받는 민족의 해방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종교를 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향하면서 신앙노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가 봐야 되겠다.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갔다 와야 되겠다. 현지에 가서 약소민족이 서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213, 1990.02.17) p. 175

2 한강 철교를 지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던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고아와 같은 이 민족을 두고 일본에 갈 때 기차에서 외투를 뒤집어쓰고 부산까지 통곡하면서 갔습니다. 한 일본 아주머니가 기차 안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고는 '청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그러한 슬픔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슬픔은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메워져 있어서 나온 슬픔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039-062, 1971.01.09)

3 내가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 서울에서 히카리호라는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갈 때 '내가 일본에 가서 배워 올 것이 뭐냐? 이 나라를 해방하고, 자라고 있는 우리 2세들이 희망찬 전진과 출세를 할 수 있는 길, 자주적 독립국가를 갖출 수 있는 길을 내가 닦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기차가 한강 다리를 지날 때에 난간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사나이가 안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199-184, 1990.02.16)

4 내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는데,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고 가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는 일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이 민족을 누가 속박에서 구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내

가 밤을 새워 별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해방의 한 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떠나가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여, 지켜 주십시오.'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을 남기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039-062, 1971.01.09) p. 176

5 내가 와세다대학에 다닐 때 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고학생들의 비용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노동자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로써 그것을 호소하지 않고는 일본이 설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세를 갖추고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의 역사를 품고 통곡과 더불어 사죄를 해야 될 날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590-145, 2008.05.20)

6 일제 대 일본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빈틈없이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나한테 의논하러 왔습니다. '한국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본 친구들한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마디를 하면 나는 두 마디를 한 것입니다. 나는 말이 참 빠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도 빠르게 합니다. 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청년들까지 내 손을 소화해 세계를 위해서 써먹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의 일본 사람들 이상 상식을 갖고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205-069, 1990.07.07)

7 옛날에는 말을 빠르게 하지 않고 느리게 했습니다. 일본에 와서부터 일본말을 배우면서 일본인과 1분간에 누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는지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분가량 이야기를 하는데 더디게 하면 천 마디밖에 못하던 것을 어떤 때에는 배 이상 빨리 하여 2천 마디 이상이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055-056, 1972.04.23)

'원리' 구명과 심신훈련

참아버님께서는 일본 유학시절부터 원리 구명과 체계화에 몰두하셨다. 성경 전반을 반복해 독파하고 새롭게 구명하신 원리와 대조 검증하셨다. 하숙집 책상 위에는 언제나 국어·일어·영어 성경이 놓여 있었다. 특히 국어·일어· 성경에는 글씨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방선이 그어져 있었다. 방대한 천륜의 근본진리를 체계 잡는 과정은 그 누구도 길잡이 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독한 탐구의 길이었다. 그리고 학업 외에도 하류층의 생활로부터 중류·상류층의 생활까지 고루 거치면서 고된 수련을 하셨다. 장래 혁명적 사명 완수를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한계선을 돌파하고 목적지

점까지 가시고자 만사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셨다. 특히 집에서 보내온 생활비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지게꾼 짐수레꾼 등이 되어 일을 하기도 하셨다. 노동자들의 친구이자 형제가 되어서 함께 피땀 흘리며 고락을 나누셨다. '만고지승자(萬苦之勝者) 영고지왕자(榮高之王者)'가 될 수 있음을 자립훈련을 통해 몸소 체득하기도 하셨다. (p. 177)

8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성서를 연구하기도 하고 종교관계 서적이나 보통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철학서적을 읽었습니다. 와세다대학 정경과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있던 그 친구와 격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또 노방에서 큰소리로 연설한 적도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내일의 청년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언했던 것이 지금 다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구경하러 와서 내가 연설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015-182, 1965.10.08)

9 서울 학교에서 추천해서 와세다고등공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공부 대신 교회와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있는 미지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한 장을 중심삼고 5년 동안 연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렇게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전부 환하게 풀어야 합니다. 원리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늘과 더불어 이것을 풀어냈기 때문에 하늘이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571-190, 2007.08.10)

10 20세가 되지 전에 피눈물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거지들과 친구해서 이들을 내 형님과 같이, 내 어머니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정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수련과정을 거치기 위해 민족을 넘어 일본에 가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노동판에 가서 돈벌이를 하여 친구들의 학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려운 곡절의 길을 자청한 것입니다. (137-286, 1986.01.03) p. 178

11 눈이 오는 날이나 태풍이 부는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때에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던 때니까 거기에서 손이 새까맣게 되더라도 비에 맞아서 깨끗하게 씻겨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 기분이 참으로 상쾌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으면 혼을 내 주었습니다. 때로는 덩

치가 큰 사람을 해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판에서는 조장이 착취를 하는데 급료의 3할은 떼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항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015-181, 1965.10.08)

12 옛날에 도쿄에 있을 때 27개 구역을 손수레로 배달하는 배달부 노릇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운수회사면 운수회사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몰라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여름에 전봇대를 손수레에 싣고 네거리를 가다가 이것이 옆으로 쏠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십자도로를 건너다가 옆을 쏠리게 되니까 손수레가 삥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도망가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또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빈민굴에서의 생활입니다. 거기에서 누더기를 뒤집어쓰고 이를 잡던 생활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선 장병이 되어서 사탄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게릴라가 되었습니다. (199-174, 1990.02.16)

13 일본에 가 있을 때 노동판에 다니던 일과 긴자에서 짐수레를 끌고 다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것은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못 나가게 된 학생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내가 몇 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까지 했습니다. 밤이 따로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만큼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았고, 글씨를 써서 팔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회사에서 현장감독도 해보았습니다. (026-069, 1969.10.18) p. 179

14 나는 세상에 대해서 훤하게 압니다. 벌써 어릴 적부터 팔도강산 안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안 돌아가닌 데가 없습니다. 어려운 데는 다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큰 회사 빌딩의 사환으로부터 다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의 유학생에 불과하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빈민굴에서부터 다 거쳐 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가져서 실적을 남겨야 됩니다. (131-322, 1984.05.19)

자아주관과 참사랑의 길 체험

참아버님의 일본 유학시절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표어를

몸소 실행하는 기간이었다. 특히 몸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으셨고 오관 통제훈련, 일시에 웃음 멈추는 훈련, 간지럼 참는 훈련, 보고 싶은 것 참는 훈련 등을 거듭하셨다. 그리고 인정을 물리치고 천정을 앞세우시고 유학시절 내내 '일본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조건을 세우자.'라는 생각으로 원수 나라 사람을 형님과 부모같이 절절히 사랑하시는 수련과정을 거치셨다. (p. 179)

15 나는 소년시대에 이 길을 닦아 나올 때에는 나를 주관하기 전까지는 극장 앞에도 안 지나다녔습니다. 술집 앞에도 안 지나다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주관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자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 배고픈 것입니다. 그다음이 정욕문제입니다. 이것이 3대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도 그것을 주관하기 위해 수양의 과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굶으면서도 수양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수양의 과정으로 세워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기 전에는 우주주관을 못합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서야 우주주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관권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관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131-322, 1984.05.19)

16 일본이 전쟁을 할 때 도쿄 신주쿠의 뒷골목 등을 쭉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 계속 연구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취해 오는 것입니다. 나쁜 곳에 가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합니다. 그런 주의입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양하는 데는 꼭 조용하고 장엄한 곳이나 깊은 산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만 공부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터나 엔진이 돌아가는 공장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런 일을 잘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힘센 패거리가 약한 자를 괴롭힐 때에는 그들을 단독으로 해치우기도 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입니다. 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철학에 필요한 문제입니다. (015-131, 1965.10.03) p. 180

17 나는 여러분보다도 희망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종의 길로 내몰아야 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먼저 종의 몸을 썼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종살이를 시킬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종살이를 시키려면 나 자신이 먼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충실한 종이 되어서 세 살 된 아기를 아침 저녁으로 모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하나님같이 모신 것입니다. 또 일본 유학시절이가 들끓는 빈민굴에서도 살아 보았고, 석탄 짐도 져 보았고, 소금 짐도 져

보았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을 여러분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적 혹은 심정적 결의의 기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그런 기점을 잡는 자리에 여러분은 나 대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부터 눈물 흘리고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의 혈관에서 아버님의 피가 뛸 것입니다. (025-212, 1969.10.04)

18 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라고 숙고한 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훈련을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밥을 가져오면 사발로 서너 그릇을 단번에 먹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배고프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전쟁시대인 그때에는 식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식권을 가지고 '몇 그릇이나 먹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먹어 보자.'하고는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먹는데, 닭고기 계란덮밥을 일곱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일곱 그릇을 먹고 나니까 목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가 고픈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나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있으면 자신으로부터 민족이 멀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에게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신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을 개척해 나왔습니다. (015-183, 1965.10.08) p. 181

19 도쿄의 학생시절에 비가 오는 날에는 학생 옷을 입었지만 될 수 있으면 축축한 노동자 옆에 갑니다. 제일 냄새나는 데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이분이 내 형님이요 내 아버지였다면 어떠했을 것이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타면 전차 속의 학생들 가운데 잘 차려 입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웃음결에는 너희 청춘이 흘러가고 너희 일생이 흘러가지만, 나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내 일생이 빛날 것이고 장래 희망의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보장되고 희망이 있지만 너희는 미래의 희망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참부모의 이름을 세운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주체성을 지닐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117-019, 1982.01.30)

20 아버님은 일본에서 공부하던 학창시절에 고향 집에 갈 때 전보를 안 쳤

습니다. 정주역에서 집까지 한 20리 되는데, 바람이 불고 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 될 수 있으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해 보면, '참, 훌륭한 분이 세상을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해가 기울어 밤이 되었을 때나 흰 눈이 내리던 밤에 혼자 걸을 때 느끼던 그 추억들은 일생 동안 잊히질 않습니다. 조금 선물이나마 양손에 번갈아 가면서 들고 갈 때 부모가 어떤 얼굴로 대할까를 생각하면 아주 감상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기간이 얼마나 복된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018-243, 1967.06.11) p. 181

조기 졸업과 귀국

참아버님께서는 당시 전시 상황 변화에 따라 학기가 반년 단축되어 1943년 9월 30일에 와세다고등공학교 전기공학과를 제25회로 졸업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졸업과 동시에 고향 집에 귀향 일정을 알리는 전보를 치고 10월 4일 발 부관연락선 승선표를 예매하셨다. 출발 당일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도쿄역 매표소에 들어서려 할 때 어쩐 일인지 마음이 불안하고 발길조차 떨어지지 않아 고심 끝에 출발을 보류하셨다. 그날 참아버님께서 승선하기로 예약한 부관연락선 곤론마루(崑崙丸)가 10월 5일 오전 1시 15분께 오키노시마(沖の島) 북동쪽 약 10해리 해상에서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였다. 귀향일자 연기 통보를 받지 못한 고향 본가에서는 사고소식을 접하자 발칵 뒤집혔다. 참아버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민족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일본 청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칠 때가 올 것이니 그때 다시 만나자.'라는 내면의 기약 가운데 10월 중순 귀국길에 오르셨다. (p. 182)

21 졸업할 당시는 태평양전쟁 중이었는데 병역문제도 있고 해서 6개월 단축해 9월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집에는 부관연락선으로 돌아가게 되어 몇 시에 도착한다고 전보를 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전쟁 때문에 침몰해 버렸습니다. 고향에서는 승선자 명단을 조사해 보니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여 대소동이 일어났고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015-147, 1965.10.03)

22 내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인 1943년에 곤론마루가 침몰하였습니다. 졸업을 6개월 단축시켰기 때문에 시모노세키를 거쳐 한국 서울에까지 오는 표를 끊었는데 그때 타야 할 배가 곤론마루입니다. 기차를 타려고 도쿄역에 척 들어섰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안 탔습니다. 집에는 틀림없이 며칠에 도착한다고 연락을 해 두었습니다. 표를 끊고 벌써 몇 시에 간다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그날 그 시간에 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역에서 내가 뒤돌아선 것입니다. 그 배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도쿄역에 전송하러 나온 친구들과 아타미(熱海)인가 어디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연락을 해도 온다는 사람이 없으니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에서 서울까지 580리 길이니까 기차로는 열 시간 걸립니다. 부산까지 오려니 얼마나 정신이 돌았겠습니까? 치마를 안 입고 홑바지 걸음으로 나섰습니다. 신발이 언제 벗겨졌는지 모르고 뛰어다니다 보니 아카시아 가시가 발바닥에 박혀 굳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내가 돌아온 후에 뽑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아,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125-310, 1983.03.29) p. 182

제4장 참어머님의 섭리적 준비시절

1절 신앙 분위기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정성과 축복의 신앙생활

참어머님께서는 홍순애 대모님이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전념함에 따라 어린 시절을 주로 외가에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정수를 몸에 익히셨다. 대모님은 참어머님이 북한에 계시는 여섯 살 때까지 사탄이 갖은 방법을 다해 위해하려고 따라다니는 것을 몽시를 통해 자주 목격하고 유모와 같은 자리에서 참어머님을 정성껏 양육하였다. 따라서 참어머님께서는 하늘신부로 서실 때까지 대모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p. 183)

1 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달쯤 되어 대모님 몽시에 '새주님' 김성도 할머니가 하얀 구름을 타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시더니 '순애야, 그 아기를 위해서 걱정했지? 걱정하지 마라.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젖만 잘 먹여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모님은 그 명령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살았습니다. 나는 자랄 때 보통 아기들과는 달랐습니다. 돌 전에 걷고 말까지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아주 똑똑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도 '이 아이는 아무래도 다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조금도 허술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2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와 신앙으로 평생 일관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안일한 가정환경의 틀에 박힌 신앙이 아닌, 24시간을 전적으로 하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에 지극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대모님은 그러한 신앙생활로 거의 집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에 주로 외할머니와 함께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

테)
3 외할머니는 나에 대한 하늘의 뜻을 아시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라서 하늘 앞에 쓰일 수 있는 귀한 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공을 들이셨습니다. 항상 외할머니는 나에게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푸근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아서는 사람들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별다른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뭔가 늘 나를 감싸 주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았으며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대모님이나 외할머니께도 육신의 부친에 대해서나 두 분이 왜 이렇게 사시는지 등의 이런저런 질문을 전혀 안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은 내 일생에 전혀 없었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4 내가 평안남도 안주에서 6세 때까지 지냈는데, 6년 동안 대모님 몽시에 늘 사탄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모님은 꼬박 6년 동안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뜻은 모른 채 '왜 사탄이 이렇게 쫓아다니며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이상하게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5 대모님은 새예수교회와 성주교를 찾아다니셨고, 마지막으로는 복중교에서 재림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도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4세쯤 되었는데, 나도 대모님을 따라서 경배를 하는 등 정성을 함께 들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공식적인 경배시간이 있었는데 각자 묵상기도를 드리다가도 자주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남으로 내려오던 6세까지 그 생활은 변함없었습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6 나의 어린 시절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본래 내 성격은 외향적이지 않았고 세상에서 떨어져 자기 자신의 세계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도 외할머니나 대모님에 대해 천정의 도리를 나에게 이어 주기 위해서 신골(身骨)이 녹아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절대복종하고 절대순종하는 길을 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별의별 유혹의 환경과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늘이 세상과 떨어져 성별생활을 시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월남 후 전쟁과 수난 극복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 참어머님께서 복중교에 오가실 때인 1948년 북

한 공산당국의 종교 탄압으로 함께 11일간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산당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게 되자 조원모 외할머니가 이남으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그 무렵 이남으로 떠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이남은 세 분에게 무척 생소한 곳이었지만 마침 철산 성주교의 김성도씨 장남 정석천씨가 먼저 이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대모님의 남동생 홍순정씨는 일본 유학 중 전시 상황에 따라 중도 귀국해서 육군사관학교 약제관 교육을 받은 후 중위로 임관돼 군복무 중이었다. 그 남동생을 만날 것도 겸해서 세 분은 1948년 한밤중에 길을 떠나 사선을 헤치고 천신만고 끝에 월남한 것이다. (p. 185)

7 내가 안주에서 살고 있었을 때 대모님은 신앙적 열정으로 거의 집을 비우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줄곧 외가 식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던 아버지는 공산당국의 위협을 피해 1946년 부득이 먼저 월남하였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 대모님에게 함께 떠나자고 한 일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참어머님, 2004.11.23, 한남국제연수원)

8 공산 치하의 신앙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는 남한에 있는 아들 홍순정 외삼촌을 만나기 위해 대모님과 나와 함께 남하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3대 모녀는 남하 중에도 주님을 향한 경배를 올렸습니다. 홍유일 외할아버지는 평양이 에덴궁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를 지키기 위해 남으셨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9 내가 월남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갈아엎은 논밭을 따라 나오느라 발이 빠지고 추위에 떨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이 겨우 삼팔선 인근에 다다랐을 무렵입니다.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던 북한 인민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빈집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잡혀 온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민군들은 남자들에게는 험하게 대했지만 여자와 어린아이에게는 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추위에 떨면서 보초를 서던 인민군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라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미소를 지으면서 먹을거리를 인민군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하니 군인들은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인민군들이 고향을 돌아가라고 하며 우리를 풀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힘이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p. 184

10 외할머니는 나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외할머니와 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너무 예쁘다면서 다들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나다니지 못하는 시절이었지만 나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심부름도 많이 해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아녀자들 가운데 어린아이인 내가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월남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삼팔선을 막 넘을 때였습니다. 남한의 군인들이 인기척이 나는 곳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사격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랫소리를 듣고 총부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따님을 데리고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겠다.'라면 남쪽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참어머님, 2004.11.23, 한남국제연수원)

11 대모님이 복중교를 오고 갈 무렵에 외삼촌 홍순애씨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외삼촌은 지식인이면서 아주 멋쟁이셨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외삼촌 또한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론과 다른 북한 공산체제를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이론과 모순되는 체제를 보고 부모가 계신 북으로 가지 않고 남으로 가서 군 입대를 한 것입니다. 외할머니는 군대에 있는 외삼촌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대모님과 나와 함께 외삼촌을 만나러 남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서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하했을 때에는 서울 효창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도 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가는 곳마다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만일 내가 일찍 혼인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빼아실 수 있는 여자도 많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성혼시켜서 하늘이 나를 미리 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12 서울에서 외삼촌을 찾을 때에도 하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삼팔선을 넘어 고생 끝에 이남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외삼촌을 찾을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헤매면서 수소문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삼촌 친구를 만나게 되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우신조였습니다. 그때 외삼촌은 서울 인근의 군대 막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가자 무척 반겼습니다. 늘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니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을 하나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바로 청파동 전 본부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13 내가 8세 때 6·25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피란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외삼촌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삼촌이 육군본부 의무장교로 있어서 한강 다리가 폭파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한강 다리 통과증을 갖고 있던 외삼촌을 군용차를 몰고 와서 외할머니와 나를 태우고 남쪽으로 피란하게 되었습니다. 대모님은 오로지 주님 만날 생각만 하면서 늘 정성들이셨는데 그 피란길에 처음에는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외삼촌은 우리에게 다리를 건너자마자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내려서 엎드렸는데 순간 한강 다리가 '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강 다리를 건너오던 많은 군인들이 강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다행이 우리 일행은 외삼촌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강 다리를 건널 때면 그 일이 떠올라 마음이 아픕니다. 내 연령쯤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과 어려운 수난시대를 겪었지만, 나는 모든 일에 항상 하늘의 보호가 있어서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모님께서는 피란 생활 중에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엿을 물려 기침을 방지하도록 하셨고, 상처가 났을 때에는 선인장에다가 밥을 으깨어 상처에 발라 치료해 주셨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14 우리 일행은 1950년 6월 28일 새벽 3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이후 남쪽으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 군인가족피란수용소에서 머물다가 9·28 서울수복 후에 귀경해서 빈 적산가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 서울은 또다시 공산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1·4후퇴 때 다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군인 가족은 다른 피란민들보다 먼저 특별열차를 탈 수 있어서 그 편에 서울을 떠나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육군본부가 대구로 옮겨오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외삼촌 집 인근에 거주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피란노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도, 남한에서 피란 와중에서도 늘 보호하셨습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p. 187

2절 학창시절과 참아버님과의 만남

하늘의 인도대로 살아온 학창시절

참어머님께서는 서울 효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구, 서귀포, 춘천 등지를 거치면서 학업을 계속하셨다. 특히 춘천 봉의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매우 정숙하고 친절하며, 어딘지 고상한 태도가 보이고, 급우 중에 가장 여자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학교 졸업 때에는 우등상을 받으셨다. 그리고 참어머님은 1956년 4월부터 1959

년 3월까지 성정여자중학교에 다니셨다. 그 후 참부모님께서 선정중학교로 교명이 바뀐 이 학교를 1987년 4월 인수하셨다. 그리고 1959년 3월에 오늘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전신인 서울의 성요셉간호학교에 입학하셨다. (p. 188)

1 나는 월남한 뒤 서울 효창동에 방을 얻어 지내면서 효창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제주도로 옮긴 뒤에도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대모님이 나를 더욱 정결하게 키우겠다는 의도로 1954년에 제주도로 건너간 후로는 서귀포 신효초등학교, 즉 오늘의 효돈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춘천의 보급창장으로 발령받은 외삼촌이 편지를 두 차례나 보내와 춘천으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효자동 외삼촌 집과 가까운 약사동에 방을 얻어 살면서 1955년 2월에 춘천 봉의초등학교로 전학하고 곧 6학년에 진급한 뒤 이듬해인 1956년 3월 2일에 제11회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외삼촌의 도움으로 1956년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성정(聖正)여자중학교에 입학하여 1959년 3월 25일 제3회로 졸업하였습니다. 이 기간 외삼촌 식구들과 함께 돈암동과 신당동에서 생활하면서 사직동을 통학을 하였습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2 내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전교생이 있는 자리에서 단에 올라가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때 국어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선생님들이 '야! 학자가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는 조용하고 얌전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얼른 가까이하기도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주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설명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첫 경험이었습니다. (참어머님 1991.11.10, 한남국제연수원) p. 188

3 최근 나를 찾아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중학교에 다녔는데 그의 아버지가 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1년 선배가 나를 보고 단정하고 예쁘다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캐나다에 살면서 자주 나에게 편지를 보내 오기도 하고 한국에 오면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니던 학교에 가 보니까 그 당시 국어선생님이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 국어선생님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또 수학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p. 189

4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전쟁이 끝난 뒤라서 거리마다 부상자가 넘쳐났습니다. 전쟁 고아와 아이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더라도 제때 치료받는 사람은 더물었습니다. 그들이 너

무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5 나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착실하게 보여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너는 요즘 아이 같지 않다. 좀 나가 다녀 보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고민이 많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춘기라든가 성장기에도 나는 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나 대모님께서 항상 하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모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여러 가지 책을 숙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한 두 명의 친구와 과일나무를 키우며 전원생활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너는 새침데기이지만 시집은 먼저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성혼한 후에는 과거 학창시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때의 기억이 조금 되살아나곤 합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6 나는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독서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적인 이미지의 학생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극히 감정적이지도 않고 극히 격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좀 차**가**운 느낌까지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기숙사에서 수녀와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서 핀 한 송이의 꽃같이 완전히 바깥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격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언젠가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 성별하고자 하는 하늘의 준비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p. 190

7 나는 1960년까지는 의복으로 감싸듯이 나 자신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늘이 나를 세상과 타협 안 하는 생활로 이끄시니까 단출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탄세계의 공기를 마시는 것도 싫어할 만큼 철저히 보호해 주셨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의 생각을 다 없애고 하늘이 인도하는 생활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기를 썼는데, 이상한 것은 생각 없이 글을 쓴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든가 대개 이런 문구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기억되곤 했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

테)
8 어머니는 단상에서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단상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른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아주 유명했습니다. 누가 앞에 있든지 단상에 올라가면 챔피언처럼 당당했습니다. (227-022, 1992.02.10)
9 어머니는 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기만 한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을 대할 때에는 아버지와 비교해봐서 '우리 아버지가 이러니 저 남자들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만큼,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과 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리하고 예민한지 모릅니다. 한마디 하게 되면 주어가 어떻게 되고 목적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민하지만 잘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10대 때 친구들 앞에 인상적인 여성으로서, 기억할 수 있는 표상의 여성으로서 생각했다는 말들을 듣게 되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도 함부로 안 다녔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435-020, 2004.01.31)

참아버님과의 만남

성주교의 김성도씨는 장남 정석천씨에게 '내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이 뜻을 성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룰 것이다. 그 대신자도 나와 마찬가지로 음란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를 것이다.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고 유언을 하였다. 그래서 정석천씨는 누님 정석온씨와 함께 어머니 대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다음 대 아니면 그다음 대에 가서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남하한 뒤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를 올리면서 어디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찾아다녔다. 그런 가운데 신문에 보도된 이화여대 퇴학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은 뒤 정석온씨가 딸과 함께 장충동 서울 통일교회를 찾게 되었다. 그 후 참아버님께서 1955년 10월 4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무죄로 석방되신 후 정석천씨의 소식을 듣고 대구 동성로의 정씨 집을 방문하셨다. 이로 인해 대모님과 참어머님이 참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 (p. 191)
10 참아버님께서 서대문형무소 출감 후 부흥회 격려 차 대구에 내려오셨을 무렵인 1955년 11월경 춘천에 계시던 대모님은 정석천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주교와 똑같은 교회가 서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아버님께서 지금 대구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니 빨리 와서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모님은 사정상 곧바로 대구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음 달인 12월에 내려가셨습니다. 대모님이 대구로 내려가니 정석천씨가 '이제야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복중교에서 옷을 준비하고 맞이하려던 그분을 이

제야 찾았습니다. 그분이 대구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미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복중교에서 가르치던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모님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그리던 분을 뵐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부족함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몽시에서 황금용 한 쌍이 서울 쪽을 향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모님은 속으로 '대구로 올 때에는 하얀 용이 보이더니 대구를 떠나려 하니 황금용 한 쌍이 보이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참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복중교 시절 두 번의 몽시에 뵈었던 바로 그 모습, 꿈에도 그리고 그린 주님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대모님은 너무나 황공한 마음이 들어서 몸 둘곳을 몰랐다고 합니다. (참어머님, 2014, 10.11, 천정궁)

11 나는 북한에서는 아버님을 만나**뵐** 수 없었고, 남한으로 내려온 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만 13세 때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당시는 대모님과 함께 입교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나는 강원도 춘천에서 살고 있었고 아버님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956년 3월 대모님에게 이끌려 청파동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아버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님과의 만남 이후 청파동교회에 다니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p. 192

12 아버님께서 학생복을 입은 나를 보시고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감탄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내 성격으로 보나 살아온 배경으로 보나 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이삭을 이미 거기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상황 판단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재림주님의 상대로서 준비된 자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다른 여자 같았으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자리였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겨 나왔습니다. (참어머님 1999.10.2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13 여러분은 아버님이 성혼을 결심하고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첫 대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식구들이 아버님을 좋아하면서도 어렵게 대하는 때였지만 나는 무섭게 생각되지 않았습니

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낼 것 같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꼭 우리 외할아버지를 뵙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저 사람은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대담하다.'라고 느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시 할아버지로 느끼고, 아버지로 느끼고, 그다음에 신랑으로 느끼고, 오빠로 느끼고, 아들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4.09.16, 한남국제연수원)

14 아담 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타락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시대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지 않았어도 본심의 작용에 따라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생각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내가 만 17세에 아버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탕감복귀섭리역사를 내 대에서 끝낸다. 내가 끝낸다.'라고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 그러한 내용을 교육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어머님, 2012.01.07, 천정궁)

15 나는 아버님을 만났을 때 섭리역사를 알았습니다. 원리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탕감복귀섭리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님이 재림주로서 사명을 완성·완결했다고 선언하려면 내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누구한테 미루지 않겠다. 나 스스로가 책임을 다한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뜻은 발전하고 성공한다. 사탄은 반드시 물리친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나는 몸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하였습니다. (참어머님, 2013.08.24, 천정궁)

남한에서의 신앙생활

참어머님께서는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과 함께 1948년 월남하신 뒤 서울과 대구, 서귀포, 춘천 등지를 옮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대모님이 대구에서 지낼 때 낯선 남자 한 사람이 참어머님을 보고 '천지간에 신성한 분'이라고 증거를 하는 등 참어머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주목의 대상이었고 많은 영적 증거를 받으셨다. (p. 193)

16 성주교의 김성도씨는 옥고를 치른 뒤 타계하고 남은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명맥을 유지하다가 허호빈씨를 중심한 복중교가 그 뒤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성주교는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성도씨의 장남 정석천씨는 월남하여 광산사업을 하다가 대구 동성로에 집을 마련하고 쌀과 석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대구에서 6·25전쟁을 거치면서 정씨 가족과 대모님 일행의 해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모님은 정석천씨 식구들과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북에 있을 때 성주교의 새주님과 복

중교의 허호빈씨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큰 역사가 있었다. 재림 주님은 한국에 오실 것이니 이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씨의 누님 정석온씨도 부산에서 올라오게 하고, 여러 식구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대모님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어머님, 2014.10.11, 천정궁)

17 대모님이 대구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삿갓을 쓰고 지나가던 도인이 초등학생이던 어린 나를 보더니 놀라운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 딸은 열 아들 부럽지 않으니 잘 키우십시오. 열일곱 살이 되면 나이 차가 많은 사람과 결혼할 귀한 딸입니다. 육해공의 재산을 가지고 부자로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모님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대모님은 그 말을 듣고는 진리 말씀을 찾아 신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온전하게 길러야겠다고 생각하여 제주도로 가서 생식을 하는 등 혹독한 영적 단련생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 참아버님을 만나서는 나를 통일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키우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티끌 한 점 묻지 않도록 하여 하늘의 뜻을 위해 바치기 위한 섭리에는 극단적이고도 눈물겨운 사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18 조원모 외할머니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별된 생활을 하셨으며 나에게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대모님은 성경을 열심히 봉독하고 성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늘 성경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하늘부모님이 인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대구에 피란 가서나 동란 이후 제주도와 춘천으로 전학해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생 대표로 노래도 자주 불렀습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19 대모님은 피란해 있던 대구에서 성주교 김성도씨의 장남 정석천씨를 만난 뒤 새주님이 한국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면서 솔잎을 먹는 생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나는 예쁘고 공부를 잘해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모님은 내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나에 대해 '주님의 딸'이라는 계시나 증거가 많았기에 그랬습니다. 결국 대모님은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 1954년 제주도로 건너가셨습니다. 나는 뱃길에 멀미가 심해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20 대모님의 관심은 늘 '하늘의 신부'라고 축도받은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

고 순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6·25전쟁이 끝난 이듬해 혼란한 육지를 떠나 제주도에서 약 9개월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성주교 김성도 할머니의 작은아들 정석진(정평화)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체휼하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고통을 재현할 정도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모님은 이분과 함께 더욱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아 농사일을 하고 생식을 하면서 밤에는 기도와 정성을 들이는 나날이었습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p. 195

3절 하늘이 택해 세운 참어머님

3대에 걸쳐 예비하다

참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체 신부 기반을 대표한 여성이 인류의 참어머니가 되는 데에는 거기에 합당한 섭리적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 첫째 조건은 사탄세계의 참소를 넘어설 수 있는 혈통적 내연이다. 전체 인류 여성을 대표해서 한 여성이 세워져 참어머님에까지 연결하기 위해 그 배후에는 3대 독신 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어머님 모계는 3대 독녀를 둠으로써 하늘 편으로 성별해 나왔다. 그리고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 참어머님께서는 모두 외동딸로서 주변 친척이 많지 않은 단출한 생활을 통해 분별생활을 하면서 하늘신부 기반을 준비하였다. (p. 195)

1 아무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섭리가 해와 역사를 중심한 섭리와 연결된 인연을 중심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안팎을 맞추어 주님이 와서 세 여성의 협조를 받아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 여성은 소생·장성·완성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딸까지 3대가 하나되었다는 것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모가 정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심입니다. 소생이 중심이 아니고 장성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 역사시대의 모든 것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평면적 시대의 모든 것은 세 번째 단계를 완성해야 완성된 단계에 서는 것입니다. (212-076, 1991.01.02) p. 195

2 어머니는 세계 여성들의 대표입니다. 그 인류 전체 여성을 대표하여 한 여성이 이어져서 어머니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배후에는 3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독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독자요, 예수님도 독자입니다. 재림주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독자입니다. 독자의 뜻을 세워 가니 만큼 독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로 보게 될 때 남자와 여자가 상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되어 엮어져서 세상 사탄세계를 넘어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223-241, 1991.11.10) p.

3 어머니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가 독녀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인 터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내력을 보면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홍순애 할머니, 어머니까지 3대가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홍씨 할머니는 재림주님을 맞을 수 있는 신령교단의 중요한 간부로서 교육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내려올 무렵에 어머니가 허호빈씨 어머니로부터 하늘의 신부가 되리라는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러한 축복을 받은 터전은 하늘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220-337, 1991.10.20)
4 어머님의 3대가 재림주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신교로부터 반대받고, 천주교로부터 얼마나 반대받았습니까? 이용도 목사를 중심삼고 새예수교회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신령한 역사와 한국의 골수들을 전부 연결시켜서 어머니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일족이 12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210-301, 1990.12.25)
5 복중교는 주님이 사람으로 와서 어머니를 택정하고 열두 사도를 세운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 주님을 모시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그 특정적 집단을 통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복중교 교주의 모친이 어머니를 불러다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축복을 다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외동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1-254, 1989.06.25)
6 오시는 재림주를 환영하기 위해 준비한 대표자가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용도 목사가 기성교회에서 쫓겨나서 새예수교회를 만들어 철산의 김성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백남주를 통해서 동과 서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는 새예수교회로 나가고, 하나는 여자를 중심한 복중교로 나간 것입니다. 복중교에서 주님을 맞는 데에 선도적인 대표로 집을 떠나 가지고 돌아다닌 사람이 대모님입니다. 새예수교회로부터 축복받고 복중교로부터 축복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가문을 보니까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403-239, 2003.01.23)

하늘신부로서의 준비 생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로서 재림주님을 보내시고 독생녀인 하늘신부를 미리 준비해 나오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주변으로부터 하늘신부가 될 것이라는 영적 증거를 수차례 받고 있었다. 어린양 혼인잔치가 가까워지자 참어머님이 하늘신부가 될 것이라는 몽시가 여러 식구들에게도 나타났고, 특히 대모님도 몽시를 받았다. 모두 흰 예복을 입은 여자 식구들이 분홍빛 꽃을 손에 들고 참아버님 방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식구 아닌 여자들도 꽃을 들고 서 있었다. 그때 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6천년 동안 여자를 찾아오셨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참어머님께서 좌정하신 참아버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는 동안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한곳으로 모였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역시 그때까지도 대모님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대모님은 오랫동안 몽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성들이면서 참어머님을 양육해 나왔다. (p. 197)

7 대모님이 주님을 맞기 위해서 역사적인 수난길을 걸어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런 훈련을 거친 역사가 있습니다. 뜻을 위해 열성을 다하는 남편의 길이라면 더 열성을 다해 따라갈 수 있는 여성과 그러한 가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맞이한 것입니다. (121-213, 1982.10.27) p. 197

8 대모님은 핍박받으며 새예수교회에서 복중교를 거쳐 통일교회까지 나왔습니다. 3교단을 모시는 역사가 없어서는 어머니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모님은 어머니를 영계의 명령이 있어서 낳은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머니를 아무나 갖다 세울 수 없습니다. (539-060, 2006.09.17)

9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3시대의 제물적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외동 딸의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대모님이 홀로 어머니를 배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순결한 남편을 찾는 3시대의 여자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고개를 넘고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아무나 택해 세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님은 할아버지 대신이요 아버지 대신이요 남편 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을 대할 때에는 오빠같이 생각하고 아버지같이, 할아버지같이, 왕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그것을 알고 그와 같은 동생의 자리에서 키워 나가야 됩니다. 약혼녀의 자리, 부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484-085, 2005.01.20) p. 197

10 어머님은 존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3개 교단을 거쳐 왔습니다. 대모님으로부터 앞으로 주님이 오는데 주님을 모시려면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것을 몇 번씩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골수에 뱄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가 못 됩니다. 이 17세 된 딸이 여왕이 돼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여왕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결혼한 후에 통일교회에 있어서 상대의 자리, 어머니 자리, 할머니 자리, 그 위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그 어머니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머니입니다. 아내라고 하면 그 아내는 왕 대신의 아내이므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593-216, 2008.06.16) p. 198

4절 참어머님의 고난과 승리의 길

남모르는 고난의 길

참어머님께서는 하늘신부의 성혼식을 올리기 전후 온갖 고난을 딛고 승리의 길을 걸으셨다. 절대적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대상으로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본보기노정을 가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어떤 역경이라도 섭리라면 뚫고 나가는 강한 면모를 보이셨다. 참어머님께서는 '내가 걸어온 길은 생각하기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회고하셨다. (p. 198)

1 아버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은 똑같이 그리고 단순히 내가 대단히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원래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할 필요 없이 오로지 그 위치에 뽑히게 된 분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천주의 어머니로서 아버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고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그 위치에 서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나도 당연히 나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견디기 어렵고 감당키 어려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물론 나도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완성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달해야 되는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때로는 목표까지 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난날 이러한 사정과 내가 걸어왔던 노정에 관하여 돌이켜 생각할 때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하려면 고난과 시련의 기억들이 모두 다시 생생히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p. 199

2 내가 걸어온 길은 생각하기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아버님에게 시련을 주신 것같이 나에게도 몇 번이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아버님과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나 역시 시험하였습니다. 메시아가 통과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가혹하고 지독한 시련을 이 약한 여성이 통과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거친 바다에 뜬 작은 돛단배와 같았습니다. 한편으로 그 당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깊이 느낀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인도가 없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지켜 주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을 향하여 고민해 왔던 성장기간이 끝나고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에 도달한 내가 그 당시를 되돌아볼 때 그 고난에 찬 기억 모두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아버님과 언제든지 깊이 얘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나 사이에는 끝이 없는 화제와 한없는 이해가 있었고 무한한 신뢰로 가득 찬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깊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통과해 오신 사정과 내가 걸어온 길이 신비할 정도로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과는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그 때문에 불굴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고난과 싸워 완성기준에 도달해서, 이제 사탄이 일절 침입할 수 없는 기준까지 걸어왔다는 승리감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내가 서로 마주볼 때 서로서로 느끼는 승리감에 의하여 나는 한없이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어머님, 1977.05.03, 벨베디아수련소)

3 나는 나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성취하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모두 **통**과해 왔는데, 그 어느 쪽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히 성숙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천국의 기쁜 일만을 누려 왔다면 천국의 생활을 그렇게 깊이 맛보고 감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까지도 통과하고 그 쓴맛도 보았습니다. '이 이상,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라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참으로 지치지 않는 불굴의 신앙과 결의와 인내였고, 그것이 오늘의 나 자신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천국적인 면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적인 면도 당연히 예기(豫期)해야 됩니다. 지옥의 밑바닥 감옥을 통과할 것도 당연히 예기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제일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더욱 굳건히 설 수가 있고, 원만하고 총합적인 인격과 영성을 갖춘 인격자로 더욱 성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더욱 깊이 체휼할 수가 있을 것입

니다. 그러한 체험이 언젠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승리와 인내의 기록이야말로 어느 날엔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1977. 05.03, 벨베디아수련소)

승리하신 참어머님

참어머님께서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심으로, 때로는 한없이 절제하는 숭고하신 눈물로, 때로는 소녀처럼 방긋 웃으시는 그 해맑은 미소로, 때로는 천하를 주무르듯 맑고 낭랑하면서도 땅끝까지 울리는 웅장한 소리로 어둠을 뚫고 광명한 빛을 발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승리로 인해 복귀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참어머님의 승리에 대해 '실로 무사(無私)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하셨다. 참아버님께서 1999년 6월 14일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선포 표창패'에서 밝히신 것처럼 참어머님은 '하나님의 특명과 복귀섭리역사의 결실로 맺어진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 그리고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리고 참어머님께서는 하늘만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탕감복귀의 고난노정을 승리하여 참부모로서의 영원한 전통을 세우셨다. (p. 200)

4 어머님은 가정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천주의 어머니로서, 당연한 참어머니로서 더욱 큰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점은 태어나서부터 예민한 영적 직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물이나 사물을 대하는 통찰력과 관찰력이 대단히 정확하고 직관력도 대단히 예민하고 명석하니까 어머님의 마음에 반영된 것은 언제나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아버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뭐라 해도 뭐든지 하겠다는 것을 깊이 결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앙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세월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승리해 온 것입니다. (1977.02.23, 벨베디아수련소)

5 아버님은 어머님이 뜻에 대해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이 항상 사심이 없으며,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구를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 중에서 무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하고 주는 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참어머님에게는 많은 기쁨이 있고 보석과 옷 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어서 기쁘게 하고 싶어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한 어떤

날, 아버님과 외출을 해야 되는데 옷장 속에 옷이 별로 없어서 그 날씨에 맞는 적당한 옷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 자신의 전통에 따라갈 수 없을 것이지만, 어머님은 아버님 이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1977.02.23, 벨베디아수련소)

6 어머님은 오로지 완성기준을 향하여 7년간 싸워 왔습니다. 이 7년이란 기간에 실로 여러 가지의 비난과 중상, 소문, 오해들이 참부모님 일가를 둘러싸고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비난과 중상과 박해 때문에 피 흘리는 것 같은 기간이었지만 그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견디며 비난받아도 그것을 극복하여 넘어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것에 승리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오로지 침묵을 지키고 참고 견뎌야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 가운데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겨도 어머님은 끝까지 불굴의 신앙으로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신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난받아 왔던 사정들의 모두가 거꾸로 되어 모든 사람이 어머님 앞에 머리 숙여 '이분은 정말 천주의 어머님이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존경하며 모시게 되었습니다. (1977.02.23, 벨베디아수련소) p. 202

7 때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결국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버님은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사정들을 어떻게 주관하여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최종적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원리를 몰랐다면 정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심이며, 모두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문제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사랑을 정복하고 복귀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심정복귀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스스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고 끝내 승리하였습니다. (1977.02.23, 벨베디아수련소)

8 어머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로 승리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대모님도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 천주적인 승리 이후 지금 아버님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모님도 생애를 통해서 어머님의 모친에 알맞은 정당한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자손들에게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원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버님은 어머

님을 그전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귀의 과정이고, 그토록 어렵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님과 대모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선택받았는데, 통일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입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 노정을 출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가장 높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한 최저의 자리를 이겨내고 받아야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영원한 것이 되며 온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1977.02.23, 벨베디아수련소) p. 202

before

제3편 공식노정 출발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차례|

제1장 참아버님의 공식노정 출발

1절 공식노정 출발과 기독교단의 불신 ····· 207
2절 평양 전도생활과 대동보안서 섭리 ····· 217
3절 8단계 탕감복귀와 영계 43일 승리 ····· 225
4절 흥남감옥과 예수님 사명 계승 노정 ····· 231

제2장 참아버님의 남하와 부산 노정

1절 참아버님의 남하노정 ····· 236
2절 부산에서의 새 출발 ····· 240
3절 《원리원본》 집필 ····· 248
4절 부산과 대구 개척전도 ····· 252

제3장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1절 협회 창립의 배경 ····· 258
2절 청파동 본부교회 ····· 269
3절 참아버님의 정성과 신앙 지도 ····· 275
4절 전국 120개 지역 40일 첫 개척전도 ····· 284
5절 일본과 미국 선교 ····· 289

제3편 공식노정 출발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참아버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해방과 함께 복귀섭리를 위한 공식노정을 출발하셨다.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그토록 소망한 새 시대가 개막되었지만 섭리의 길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놓여 있었다. 참아버님께서 새말씀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 장로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섭리의 새 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신령교단을 찾아가실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영급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김백문씨가 인도하는 예수교회 이스라엘수도원으로 찾아가 1945년 10월부터 6개월간 온 정성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셨다. 김씨는 이듬해 3월 초에 참아버님에 대해 '솔로몬왕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했지만 그 후에 모시고 따르지는 않음으로써 참아버님은 더 이상 김씨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그곳을 떠나게 되셨다. (p. 205)

참아버님은 이렇듯 남한에서 섭리의 기반을 닦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 평양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고 1946년 6월 6일 평양에 도착하여 기도정성의 제단을 쌓으셨다. 평양에서는 하늘의 인도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전도로 상당수의 예배인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인을 참아버님께 빼앗겼다고 생각한 목사 장로들의 반대와 고발로 참아버님은 그해 8월 11일에 평양 대동보안서에 수감되셨다.

참아버님은 대동보안서에서 신령교단의 지도자를 만날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육신 재림의 계시를 받고 있던 복중교 교주 허호빈씨가 갇혀 있었다. 참아버님은 허씨에게 '내가 누구인지 기도해 보라.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나가라.'는 비밀 쪽지를 보냈지만 그의 불신으로 오히려 그 쪽지가 간수들에게 발각됨으로써 공산당국의 모진 고문을 당해 빈사상태로 석방되셨다. 결국 참아버님은 남북한 양쪽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령교단으로부터 반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선민과 유대교인의 반대로 40일 금식과 3대시험을 당하신 것같이 대동보안서에서의 혹독한 고문과 3대 시련노정을 가시게 되었다.

그 첫째는 '여호와의 부인'이라는 **박**을용씨를 통한 시련이다. 참아버님은 종의 종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실체대상 자리까지 올라가는 종적 8단계의 탕감복귀노정에서 승리하셨다. 둘째 시련은 영계에서 성현들을 중심한 모든 영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43일간에 걸친 진리싸움 노정이었다. 참아버님께서는 혈통전환·소유권전환·심정권전환의 3대 주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문선명의 주장이 옳다.'는 하나님의 공인과 어인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 셋째 시련은 예수님의 사명 계승자로 출발하기 위해 예수님이 12제자를 잃어버리고 십자가 고난을 겪은 것을 탕감복귀하는 노

정이었다. 참아버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리와 같은 흥남특별노무자수용소(흥남감옥)에서 12명 이상의 제자를 복귀하여 승리하셨다. (p. 206)

특히 참아버님은 1948년 5월 20일부터 2년 4개월 25일간 흥남감옥에서 강제노동형을 받게 되었다. 흥남감옥에서의 생활은 열악한 숙식환경, 가혹한 강제중노동으로 1년에 수용자의 40퍼센트가 죽어 나가는 생지옥이었다. 참아버님은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말도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제자들을 찾아 세워야 하셨다. 전도 방법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헌신적인 생활로 영계를 동원하는 길밖에 없었다.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수감 중인 후손들에게 몽시나 계시를 주어 많은 사람들이 참아버님을 모시고 따르게 되었다.

6·25동란의 와중에 유엔군의 상륙진격으로 흥남감옥에서 구사일생으로 해방되신 참아버님은 옛 식구를 찾기 위해 도보로 10일이 걸려 평양으로 가셨다. 옥중생활 전에 전도된 김원필씨를 먼저 찾아 식구들을 방문하게 하셨으나 그들 모두가 참아버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40일간의 평양 체류 후 참아버님께서는 김원필씨와 감옥에서 먼저 나와 다리가 부러진 박정화씨를 자전거에 싣고 세 사람이 1950년 12월 4일에 평양을 떠나 도보로 남하의 길에 오르셨다.

남하 55일 만인 1951년 1월 27일 부산 초량역에 도착하신 참아버님께서는 그해 5월 11일부터 1년간 《원리원본》을 집필하셨다. 1953년 7월 20일 강현실씨를 처음으로 개척전도사로 대구에 보내셨다. 이것이 최초의 공개 원리 선포였다.

참아버님께서는 1954년 5월 1일 서울 북학동 세대문집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셨다. 협회창립은 참아버님이 북한 탕감노정의 승리적 기반 위에 기독교를 대신한 아벨적 교단을 세운 것으로,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협회를 중심으로 새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p. 206)

제1장 참아버님의 공식노정 출발

1절 공식노정 출발과 기독교단의 불신

세계대전의 하늘 편 승리와 공식노정 출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기독교문화권을 중심한 하늘 편이 승리함으로써 재림주님을 중심한 섭리적 기대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통치 40년을 마감하고 해방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한국이 일본의 압정에서 벗어나면서 섭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 207)

1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미국·프랑스가 연합해 일본·독일·이탈리아를 대해서 싸운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타락할 때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둬야 됩니다. 아담 해와, 그다음에는 가인 아벨로 뿌려졌기 때문에 세계도 두 갈래로 벌어집니다. 하늘 편도 아담 해와와 가인 아벨, 사탄 편도 아담 해와와 가인 아

벨,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뿌려져서 열매맺힌 것이 세계적 나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하늘편 해와이고, 미국은 하늘 편 아벨이고, 프랑스는 하늘 편 가인입니다. 일본은 사탄 편 해와이고, 독일은 사탄 편 아벨이고, 이탈리아는 사탄 편 가인입니다. 2차대전에서 하늘편과 사탄 편이 싸워서 사탄 편이 졌습니다. (189-212, 1989.04.06) p. 207

2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한국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압제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조상이 타락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귀섭리의 목적은 이 사위기대를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4수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40년과 400년 탕감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복귀와 탕감이 이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담 국가가 되려면 해와 국가의 통치하에 놓여야 합니다. 해와 국가를 이겨냄으로써 독립을 쟁취해야 됩니다. 당시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결합하였는데, 이들 나라는 모두 섭리적으로 사탄 편 국가입니다. 하늘 편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독일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20년 안에 복귀될 수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당해야 될 큰 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먼저 공격했던 나라가 패했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연합해서 사탄 편 국가들을 이겼습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사탄 편 해와 국가였습니다. 그 40년 기간에 일본은 한국의 문화적 전통, 심지어 한국의 언어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052-138, 1971.12.27) p. 208

3 이스라엘 나라와 기독교가 영육을 중심삼고 사탄권에 지배받으면서 싸워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40년간 육적인 면에서 원수에게 지배 받으면서 영적인 면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각오하는 무리를 중심삼고 독립운동을 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기를 중심삼고 하나님은 섭리의 인연을 세워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을 규합, 결속하고 기독교를 위주로 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자들이 영적인 면에서 일제강점기 40년 동안 나라도 없는 가운데서 죽음길을 자진해 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충절의 도리를 세웠다는 것은 섭리사적으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071-230, 1974.05.01)

4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새로운 섭리적 운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을 중심삼고 벌어져야 했습니다. 기독교와 미국을 중심한 세계적 승리의

터전,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역사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출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새로운 원리를 중심삼고 지하활동을 해 나왔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표면으로 나타나야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군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정과 하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중심삼고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미군 행정처와 결탁하고 있었고, 지하운동을 한 기독교인들은 국내파로서 외국에 대해 친숙하지 않아서 미군 행정처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를 지지하던 기독교인과 일본 정부를 반대하던 기독교인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61-069, 1987.01.02)

5 종교의 목적은 아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섭리 목적은 아담 완성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게 될 때에 천사는 아담 완성을 협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송영과 협조의 대상자로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천사장의 목적이 아담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계, 영계와 육계를 놓고 재탕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을 중심한 하늘 편에 선 천사권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삼고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이뤄진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전 세계가 하늘 편 천사권이 싸워서 승패를 겨룬 것이 2차대전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아마겟돈전쟁이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하늘 편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은 영계의 하늘 편 천사권과 지상 천사권이 사탄세계를 대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대전 직후에 재림주 현현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2-094, 1982.11.01) p. 209

6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이 가까이 왔을 때 일제의 압박으로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졌고, 그들은 결정적인 심판이나 판결을 한국에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영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 경찰이 붙잡으려고 할 때 피하거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이 언제 패배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2차대전 후에는 세계의 역사가 한국을 중심삼고 전개될 것이라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그러한 몇몇 단체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버님이 그런 단체들과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아버님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원리의 어떤 것도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도 있었거니와 한국이 해방되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일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만에 의해서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모든 기독교회가 분열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052-139, 1971.12.27)

7 1945년 해방 직후 아버님을 중심한 통일운동은 대번에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벌써 국가기준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국은 주권이 없었고, 기독교문화권을 중심한 미국이 천사장의 승리권 기반 위에 양자 기반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터전 위에 세계적 판도 기반을 이뤘다면 천사세계 완성과 양자세계 완성이 이루어져서 직계자녀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문화권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아벨문화권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천사장권과 양자권이 이어지고 아들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종적 역사가 횡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습해서 통일하지 않으면 사탄의 기점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131-045, 1984.04.01) p. 210

8 아버님이 8·15광복 전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모든 기반을 닦았다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에 갇힌 재건파는 아버님의 믿음의 기반 위에서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기독교가 내 말을 다 받아들여서 연합군을 맞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계 전체가 연결되어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을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연합군이 들어오면 이북에서 직접 환영하게 됩니다. 그랬으면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신령한 사람들이 연합군을 중심삼고 하나되면 사탄이 침범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을 그르치게 되니 할 수 없이 이러한 모든 것을 조건으로라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집단이 안 받아들이니 아버님은 외로운 자리에서 사람들을 보내 세 번 이상 통고하고, 하늘 앞에 보고하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너희 국가와 세계는 파괴되고 지금까지 세워진 공적을 하늘이 거두어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고해서 아버님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고 한국의 해방을 기다린 것입니다. 해방이 올 때에는 세계 어디서나 행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4-076, 1985.01.04)

9 아버님은 일제 치하에서 압제를 받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포부를 크게 갖고 아무리 벅찬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하더라도 내적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색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위를 살펴보고 안팎으로 감정해야 했습니다. 안심이 된다고 확실히 느끼지 못하고는 제아무

리 훌륭한 사상이나 이념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유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버님은 남이 모르는 복귀의 노정, 지금까지 원리 가운데 나타난 복귀노정을 더듬어 싸우면서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가 26세였습니다. 그때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축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야단하고, 우리 천지가 되었다고 세계를 흔들어 뒤집어 엎을 만한 기쁨에 충천해서 야단했습니다. 나도 역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해방된 그날 이후 이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만세를 불러 본 적이 없습니다. 기뻐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민족에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사명이 있음과 동시에 아버님도 새로운 역사적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귀 세계를 향해서 제일보를 내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남한 땅에 섰으니만큼 남한 땅을 중심삼아 가지고, 더욱이 서울을 위주로 해서 복귀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157-071, 1967.02.14) p. 211

기독교 지도자의 불신과 신령교단

복귀섭리는 세계사적인 전환기인 1945년 해방 직후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늘 주권을 세우고 세계를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러한 섭리를 담당할 참아버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섭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렇듯 서울을 중심한 1차 출발 섭리가 좌절되면서 1946년 6월 이후 평양을 중심을 2차 출발 섭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 준비했던 모든 섭리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옥중 수난길을 가셔야만 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가운데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교단도 있었지만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리면 싸운 애국적인 지하 교인들고 많았다. 신령교단은 이런 가운데 해방 14년 전부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쌓아 나갔다. 특히 한반도 동쪽 원산을 중심으로 남성들의 신령역사가 일어났고 서쪽 철산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신령역사가 나타났다. 그중 여성대표는 성주교의 김성도, 복중교의 허호빈, 여화의 부인이라 일컫는 박씨 할머니였고, 남성대표는 새예수교회 계통의 이용도, 김백문씨였다. 특히 세례요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김백문씨는 참아버님께 솔로몬왕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지만 참아버님을 모시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섭리적인 출발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p. 211)

 세계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은 민주세계는 제2 이스라엘권이요, 기독교

는 민주세계의 사상적인 지도를 맡아야 할 입장, 즉 이스라엘 나라 앞에 유대교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역사는 영적인 이스라엘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승리적 기반을 갖춘 터 위에서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개인에서부터 영적인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권까지 승리적인 터전을 갖추어 지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상 수습작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재림역사입니다. 영계를 굴복시켜 휘하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상에 군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에서는 실체적인 재탕감노정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세계적인 이스라엘권이 승리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세계적 이스라엘권은 세계적 천사세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림주님은 제3 아담이기 때문에 제2 아담인 예수님이 영적으로 승리한 영적 이스라엘권의 발판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038-099, 1971.01.03) p. 212

11 한국은 해방 후 기독교권인 민주세계의 보호에 의해 세계가 하나된 자리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새로운 역사적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건국 당시의 요원들과 손을 잡고 최고의 자리에서 출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대표한 몇몇 목사가 반대함으로써 가로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한 국가형태가 생겨났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반대함으로써 전국의 기독교가 반대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067-248, 1973.07.01)

12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무리와 신사참배를 거부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옥중이나 지하로 들어가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사람은 표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던 내적인 신령한 집단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외적인 사람들을 재교육해서 수습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이 와서 자기 단체를 지도하고 주님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이 독립하는 때에 주도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내적인 신령집단이 주체가 돼야 할 텐데 반대로 신사참배를 했**던** 무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적당히 사회와 접촉해 나오든 사람들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중심한 재림사상과 더불어 연결된 개념 밑에서 교회 부흥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해방 무렵 한국의 기독교회는 거의 북한에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평양을 중심삼고 있었으므로 북한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의 교회운동이 국가적 기틀이 될 수 있고 정신적 기조가 될 수 있는 기독교의 새로운 세계적 활동을 위한 하나님 섭리의 터전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못 됐습니다. 나라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교회 기지가 서기 전에 사탄이 먼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 나라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남한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통일되지 못하고 두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삼고 통일적 국가 터전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의 기반이 되는데 완전히 사탄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6-118, 1986.06.08)

13 광복 후 한국의 상황은 신사참배를 한 기독교파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재건교회파, 그다음에 신령한 집단, 이렇게 세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기독교파는 소생이고 재건교회파는 장성이고 신령파는 완성입니다. 이 신령파가 에덴복귀파인데 구약적 에덴복귀파는 박동기파, 신약적 에덴복귀파는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파입니다. 그다음 성약적 에덴복귀파는 부인들이 주동이 된 허호빈파입니다. 이들은 소생, 장성·완성형의 종적인 복귀를 합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횡적인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재건교회파와 신령한 집단이 완전히 하나돼야 합니다. 그러한 터전 위에 아버님이 서야 할 터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집단의 책임자들은 주님이 사람으로 오는 줄은 알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165-020, 1987.05.19)

14 김성도씨는 해와적 사명자요 허호빈씨는 마리아적 사명자입니다. 허호빈 집단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33년 동안 살다가 뜻을 못 이루고 원치 않는 십자가의 죽음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한국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키는 얼마이고 체격은 어떠하다는 것까지 계시를 받아서 옷가지에서부터 침구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땅 위에 없으면 주님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이 누울 방 한 칸 준비하지 못하여 예수님은 말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한을 가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어 생활적인 모든 것, 즉 옷과 방과 가정기물 일체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시대에 문화생활을 하는 동서양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최고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008-224, 1960.01.06) p. 214

15 한반도의 동해안 지방에서 일어난 영적인 운동 집단에는 이용도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성령의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늘은 영적인 일꾼들을 하나로 묶고자 했습니다. 영적인 운동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내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적이었습니

다. 이용도 목사를 중심하여 새예수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허호빈 씨의 복중교와 새예수교회를 통일하라는 하늘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집단이 하나되기 위해 동쪽집단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으나 동족 집단은 서쪽 집단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 두 집단의 통일을 이루는 데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의 새로운 운동,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김백문씨였습니다. 백남주씨는 소생 단계였고, 이용도씨는 장성 단계, 그리고 김백문씨는 완성 단계였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1933년에 3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이처럼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의 압제를 이겨내게 하려고 그렇게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아버님은 내가 가야할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052-148, 1971.12.27)

16 아버님이 25세 전후에 전국에 있는 신령한 사람들을 편답했습니다. 이름 있는 목사들과 이름 있는 승려, 역술가 등을 전부 편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관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을 비교하면서 이론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타락이 뭐냐고 질문하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됐느냐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근본이 희미한 기반에서 출발한 것은 아무리 과정이 놀랍고 결과가 세계적이라고 해도 완전한 완성의 종착점에 기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의 근원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타락이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부 아는 관점에서 수많은 신령한 사람을 만나 봤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발표할 수도 없었습니다. (211-135, 1990.12.30) p. 215

17 아버님이 소년시대를 거치고 청년시대를 거쳐 철이 나면서부터 성경 내용을 깊이 탐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다는 것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8세에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하교회를 편답했습니다. 해방 전 24세 때부터 지하교회 편답을 시작한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할 것이고, 이런 준비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라고 하면서 유명하다는 신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삼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하교회의 책임자는 모를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서 영계를 통하는 신령한 사람들은 아버님을 증

거했습니다. 내가 일주일만 거쳐 가게 되면 거기에 있던 신령한 사람들은 내 뒤를 따라오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교회도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교회를 편성하기 위해 뜻있는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10년쯤 덮어뒀다가 발표했으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버님에게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못합니다. 정면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기관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사탄세계를 대치하여 극복해 넘어가야 됩니다. (211, 135, 1990.12.30)

18 아버님은 해방 3개월째 되던 1945년 10월에 김백문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개신교 수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하나의 수도원을 소유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력을 준비하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늘로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집단을 찾아가서 그를 만났고, 그와 함께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052-150, 1971.12.27) p. 216

19 아버님은 김백문 집단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할 간곡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던 마루에는 눈물이 얼룩지고 흘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르쳐 준 내용을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그들은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었음에도 거기에서 아무 말 없이 봉사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같이했습니다. 그들은 영이 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은 그들에게 아버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023-283, 1969.06.08) p. 216

20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님은 김백문씨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후에 김씨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는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 세계의 솔로몬왕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아버님이 김씨를 만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가 하늘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해주라고 계시를 받았다면 그는 모든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나에게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5퍼센트 책임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를 따르던 독실한 추종자들이 아버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버님은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가 갖고 있던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052-150, 1971.12.27)
21 아버님은 해방 후 김백문씨와 같이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김백문씨와 나는 가인과 아벨,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신령한 면에서는 당시 기독교에서 최고 신앙기준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씨의 수제자와 신령한 교인들이 영계를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계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님을 따라가라고 가릇쳐 주었습니다. 그랬지만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반에 들어가서 그 기반을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연적으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모범적인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없이 지냈던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아버님을 따르려고 결심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038-060, 1971.01.01) p. 216

2절 평양 전도생활과 대동보안서 섭리

‘평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참아버님께서는 1946년 5월 27일께 삼팔선을 넘으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6월 6일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공산주의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평양에 당도하셨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평양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로서 무너진 교회의 재건을 꿈꾸고 있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스라엘수도원에서 신앙적 교분을 갖고 있던 평양 경창리 한 신도의 집에 머무르며 말씀을 전하셨다. (p. 217)
1 내적인 기준에서 대표적인 사명을 짊어진 사람과 외적인 기준에서 대표적인 사명을 짊어진 사람이 상봉할 수 있는 한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6천년 역사의 정상에서 반드시 가인과 아벨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만나는 그 정상의 자리에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가인이 천도를 받들어 아벨 앞에 순응하는 기준을 갖추게 되면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 탕감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이 이 고개를 정상적으로 넘어간다면 서로 상대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가인 아벨이 이 기준을 이루지 못하여 아벨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버님이 이 길을 출발할 때 이승만 박사와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섭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잘못함으로써 틀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낮은 기준으로 떨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최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아버님은 이북으

로 갔습니다. 이북으로 가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016-058, 1965.12.26) p. 217

2 아버님은 이 길을 출발할 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생각했습니다. 총살을 당할 것도 생각해 봤고, 오거(五車)에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에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역사해야 되겠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원수와 대결하는 자리, 즉 원수를 찾아갔습니다. 원수의 본거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중심한 뜻의 기반이 사탄 편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사탄의 소굴인 이북으로 간 것입니다. (034-048, 1970.08.29) p. 218

3 아버님은 세계적인 공산당과 싸워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이북을 찾아갔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영어의 몸이 될 것을 각오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시련이 나를 덮쳐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극한 굶주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생활권 내에서 아무리 쪼들리는 생활을 하더라도 하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일에서 구속당하더라도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의 동기와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아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034-048, 1970.08.29)

4 예수님이 반대를 받아 이방 종교를 통하고 이방 민족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의 나라를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북에 들어갔습니다. 이북에서는 전부가 원수입니다. 적국입니다. 발을 디디는 곳이 전부 원수였습니다. 나라와 교회는 물론 백성까지도 아버님을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먹으로 대하게 되면 망합니다. 희생봉사를 해야 됩니다. 열 번 맞고도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고, 천번 천대를 받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작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을 해 나왔습니다. 천번 만번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참아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37-051, 1970.12.22)

5 아버님은 혼자였습니다. 외톨박이였습니다. 개신교를 중심으로 기반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반대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우를 때려서 시작된 역사였기 때문에 아우를 맞아들인

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의한 인습적인 교리라든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교회로부터 반대받는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그것은 쫓겨난 예수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실체 예수님의 입장을 이어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복귀노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2천년 역사를 20년으로 탕감하려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한 탕감을 하기 위해 사탄의 본거지인 이북으로 갔습니다. 사탄세계인 공산권으로 간 것입니다. (035-175, 1970.10.13) p. 219

말씀 전파와 몰려드는 신도

1946년 6월 6일 평양에 도착하신 참아버님께서는 경창리에 방 한 칸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기도정성을 들이면서 교회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다. 그때까지 평양에는 기독교회와 독실한 기독신도들이 많이 있었다. 참아버님은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었으나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새 식구를 찾으셨다. 종일 문밖을 내다보며 식구들이 오기를 기다리신 적이 많았다. 자기 발로 참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하여 다른 기독신도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참아버님이 도착하신 후에 참아버님에 관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영계의 인도로 독실한 신도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하셨다. 참아버님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가운데는 참아버님 탄생 전부터 참아버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도 있었다. 영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심정세계의 인연은 그렇게 오묘하게 맺어진 것이다. 그렇게 인연된 사람들은 참아버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나면 감격해 날아갈 것 같고 춤을 출 정도로 참사랑에 감화되었다. 참아버님은 노인은 물론 누가 찾아오든지 밤을 새우면서 말씀해 주셨다. (p. 219)

6 해방 이후 3년 동안 혼란시대가 왔습니다. 기독교 혼란, 정치계 혼란 등 혼란시대가 와서 모든 것이 자리를 못 잡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도 주님이 오는지 뜻이 어떤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건교회니 고려파니 해서 여러 교파가 나왔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경쟁하는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지하에서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수습해야 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호빈파와 김성도파와 백남주파는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약적 준비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알지만 만나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아무리 만나도 그 사람이 주님인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직접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삼각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나 신

령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계에서 가르쳐 줘야 움직이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야 할 텐데, 말씀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전부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님이 평양에 가서 40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른 얘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영계가 역사해 주었습니다. 영계가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준비해서 신령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223-215, 1991.11.10) p. 220

7 평양에 있을 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버님은 식구를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어떤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그 식구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려 보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가운데에서 기도해 보면 기도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하나님이 같이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042-161, 1971.03.04)

8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나한테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평양에 갔을 때가 27세였습니다.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 성중에서 큰 교회의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와서 녹아났습니다. 성경 로마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으면 '천년사를 다 알았구나. 어떻게 알았기에 그렇게 다 맞을까?'라고 할 것입니다. (227-245, 1992.02.14)

9 내가 이북 평양에 가 있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나보다 나이가 30세 정도 위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영계에서 가르쳐 줘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고 물으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참으로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상하냐고 재차 물으니 자기에게는 그것이 수수께끼라면서 자기가 24세 때 아버님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입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종적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을 좇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형태는 지금 나타나지만 심정이 세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심정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미래에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내내 갖고 있기 때문에 영계는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런 심정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남성이 어느 한때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심정을 통해서 그를 가르칠 수 있고 인연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정세계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063-306, 1972.10.15) p. 221

10 내가 평양에 가서 전도활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만나기 20년 전에 어떤 집에서 이런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이 27세에 이북에 갔으니까 7세 때부터 하늘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주시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땅 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장 입장에서 아버님에 대한 증거적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원리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나오기 전에 나 이상의 도를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세기 전부터 아버님을 모실 영인들이 실체시대에 이 땅을 협조해야 지상의 사탄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025-343, 1969.10.12)

11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버님을 좋아합니다. 80세 된 할머니들이 내가 평양에 있을 때 영계에서 가르쳐 줘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찾아 오겠습니까? 영계에서 가르쳐 줘서 모인 할머니들은 내 옷자락을 그저 한번 만지고 집에 가게 되면 그날은 절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게 되면 돌아갈 때 훌훌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밥도 안 먹 종일 춤춰도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요술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사랑의 분위기에 접하면 그렇게 됩니다. 괜히 좋습니다. 주면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면서도 좋고, 욕을 먹으면서도 좋고, 일을 지성으로 하면서도 좋다고 합니다. (121-208, 1982.10.27)

12 옥세현 할머니도 누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느냐고 기도하고 영계를 통해서 보니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절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 어디로 옵니까?'라고 하니까 '평양에 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경창리 조그마한 어떤 집 방에 숨어 계신다.'락 가르쳐 주빈다. 아버님이 그때 거기에 숨어 지내고 있어서 그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창리에서 개척할 때입니다. (141-048, 1986.02.16) p. 222

13 아버님이 평양에 가 있을 때 찾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 27세였는데, 그 할머니는 72세였습니다. 길선주 목사 때부터 이용도 목사를 거치면

서 은혜를 받은 할머니인데 세상에 없는 굉장한 이적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평양의 모란봉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기필코 한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밀어치우려고 하는 일이 있을 터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기도를 반드시 새벽 2시나 3시에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남편은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다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국이 택함 받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평양에 있는 여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세계가 되고, 한국에 기쁜 행운의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온 뜻이 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와서 몰리고 쫓김 받아 홀로 죽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자기 생명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위해 상대적인 입장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터전이 이 땅위에 남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023-271, 1969.06.08)

14 아버님이 27세 때부터 평양에 가면 평양에서 야단하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야단했습니다. 그때 동네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내가 있는 방에만 자꾸 오려고 하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까지도 내가 있는 집 변소에 와서 소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줍니다. 그저 밥먹는 것도 잊어버리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십 가지 놀이를 고안해서 재미있게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 어머니 어디 갔니? 너희 아버지 어디 갔니?'라고 해서 전부 알아 놓고, 애들을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늦게까지 놀면 고단하니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전도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업어다 줍니다. 자기 아이를 업어다 주니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095-234, 1977.12.04) p. 223

15 내가 전에 평양의 하숙하던 집에서 세 살 난 아이와 마주치면 경배한 적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늘같이 모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부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까지 높여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대해서 시를 읊고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존경어를 갖추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인을 받아 그 아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법도에서 상하관계가 어긋났으니까 이것을 바로잡아 이렇게 복귀의 길을

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권을 만들어 놓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런 것을 상속받아서 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060-203, 1972.08.17)

기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대동보안서 수난

평양에서 참아버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역사로 활기를 띠게 되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히로 나가지 않고 참아버님이 계신 곳으로만 참석하게 되니 그들이 속해 있던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참아버님 집회소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일부 교인을 납치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그들은 공산당국에 참아버님을 남한에서 온 수상한 인물이고 불법집회를 하는 자로 고발하게 되어 1946년 8월 11일 대동보안서에 갇히시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동보안서 안에서 신령교단의 교주를 만날 것을 아시고 그곳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대동보안서에는 복중교 교주인 허호빈과 그를 따르는 간부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허호빈씨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버님과는 다른 감방에 있었지만 남자 간부는 참아버님이 계시는 감방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당시 복중교는 주님이 허씨의 복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가 진동할 때만다 나오는 말을 통해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참아버님께서는 그 신앙을 부인하고 감방에서 풀려 나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허씨는 참아버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비밀리에 쪽지를 허씨에게 보내셨다. 허씨는 참아버님의 말을 믿느냐 무시하느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는 참아버님을 만나 본 일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참아버님의 말씀 보다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그 쪽지를 버렸다. 참아버님을 메시알 알았다면 그 쪽지를 귀하게 보관하였을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심하게 버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쪽지가 보안서 당국에 발견되어 참아버님은 모진 고문을 당해 빈사상태로 보안서 밖으로 내처지게 되었다. 이러한 참아버님을 경창리 교회 식구들이 교회로 모셔서 극진한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다. 이에 참아버님은 건강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지만 허호빈씨와 간부들은 그 후 옥사하는 등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p. 224)

16 1946년 6월 공산당은 이북 전역에서 새로운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단체가 있으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버님은 평양 경창리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남에 있다가 이북을 갔느냐? 그 당시 한국은 신앙의 중심지가 평양이었고, 또 거기에서 역사적인 신앙의 투쟁이 엮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준비해 놓은 기반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북에 갔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8월 11일 공산당에게 잡혀 대동보안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24-192,

1969.08.10) p. 224
17 1946년에 아버님이 공산당에 의해 평양 대동보안서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서는 기독교계가 해방을 맞이하여 교회를 재건하면서 역사적인 사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출발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평양에 가서 새로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이 민족 앞에 찾아온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일제 치하에서 압정을 받으면서 슬픈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한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에 벅차 교회의 재건과 신앙의 혁신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재건의 불길이 번지는 상황 가운데서 경창리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기독교의 중심되는 신도, 혹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속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버님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은 서문에서 가까운 경창리에서 전도를 하며 교회 출발의 터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024-187, 1969.08.10) p. 225
18 아버님이 허호빈씨 집단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감옥에 있을 때 허씨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이 쪽지를 쓴 사람은 하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은 기도를 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한다. 만일 당신이 계시받았던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석방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그 쪽지가 간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946년 9월 18일 오후 2시의 일입니다. 그때 남한에 있는 미군의 스팡이로도 고발되어서 소련 조사관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으나 무죄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1946년 11월 21일 오후에 풀려났습니다. 허씨와 그 추종자들은 아버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그 집단의 실패 때문에 아버님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건적인 수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052-154, 1971.12.27)

3절 8단계 탕감복귀와 영계 43일 승리

참아버님의 종적 탕감복귀노정

참아버님께서는 김백문씨로부터 축복받은 터 위에 완성격 해와 입장의 여성을 만나야 했는데, 그가 '여호와 부인'이라고 자처하는 박씨 할머니이다. 그는 당시 하나님이 인도하고 영계가 따라 움직이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참아버님께서는 해와로부터의 주관권 복귀를 위해 박씨 할머니를 찾아가셨다. 참아버님께서는 할머니의 자녀들을 수발하는 것은 물론 최하의 자리에서 할머니를 섬기면서 희생봉사의 길을

걸으셨다. 그 할머니는 종의 종에서 종, 양자, 서자, 직계아들, 하늘나라 총리대신,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대상 실체 등으로 참아버님을 단계적으로 증거하였다. 이렇게 해서 해와로부터의 주관권 복귀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종적 8단계 지위를 찾아 세우셨다. (p. 225)

1 남자한테 축복의 상속을 받았으면 여자한테도 축복의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백문 집단을 중심삼고 남자 앞에 축복을 받았으니 여자한테도 축복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국 강토에서 하나님이 닦아 놓은 모든 **섭**리의 기반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 앞에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갈라져 나왔으니 이제는 여자 앞에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여자가 근본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본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까지 수난길을 거쳐 온 것입니다. 종의 문을 열고, 양자의 문을 열고, 아들딸의 문을 열기 위해 역사노정에서 수난길을 간 것입니다. (023-287, 1969.06.08) p. 226

2 평양에 이상한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신령한 집단들은 그러한 사실을 서로가 속속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 이상한 할머니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러한 여인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여! 복귀의 사명을 중심삼고 천륜의 법도의 터를 이 삼천리반도에 마련하였으니, 이러한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닦아 나온 것을 해결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평양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재탕감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삼팔선을 넘을 때에도 무지개가 앞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120리 길을 직접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인도를 받아 평양의 박씨 할머니를 만나서 탕감복귀역사를 한 것입니다. (023-284, 1969.06.08)

3 아무리 재림주라고 해도 축복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아벨입니다.'라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밤이나 낮이나 정성을 다하고, 모든 복을 넘겨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반 위에 하늘이 같이하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로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아벨의 자리, 메시아의 후계자 자리에 들어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메시아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니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분은 어머니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여자를 통해 태어나기 축복해

줄 사람은 어머니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와서 자기가 모실 수 있는 메싱아라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기다.'라고 하게끔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커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종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133-144, 1984.07.10) p. 227

4 사람들이 아버님을 따르고 모시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갖다 주면 아버님은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는 박씨 할머니 가정 식구들 앞에 전부 갖다 바쳤습니다. 오늘날 통일교인이 이 민족을 복귀하기 위해 농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살피고 아기들 코를 닦아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들도 하지 못할 그 할머니의 빨래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복귀노정의 공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탕감복귀역사는 종의 기준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아버님 자신도 반드시 종과 같이 취급당해야 됩니다. 종처름 취급받는 그 자리에서 정성을 들이면 자꾸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은 아버님이 '원리는 반드시 이렇다.'라는 것을 팍 펴놓을 때까지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늘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어야 됩니다. 종의 종 자리에서부터 축복복귀를 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종의 종에 제일가는 종이 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정성을 들이면 양자의 자리에서 양자의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023-286, 1969.06.08)

5 내가 여호와의 부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계의 성인현철들을 데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연하고, 공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모세가 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아버님이 종, 천사장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사랑하는 종의 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니까 '아이고,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쌍둥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귕입니다. 그다음에는 '형님이다.', '하늘나라의 총리대신이다.'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총리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의 총리니까 '하늘나라의 왕이다!'라고 하고, 왕만 돼서는 안 됩니다. '영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 중의 선생이고 아버지 중의 아버지다. 아버지인 동시에 선생이요 선생인 동시에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박씨 할머니를 종의 종으로서 섬겨

나오던 것과 완전히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38-292, 2004.02.18) p. 228

43일 영계 승리노정

참아버님께서는 종적 8단계 지위를 찾아 세우신 후 43일간 영계의 시련을 겪으셨다. 예수님과 전 영계 성인 현철들이 참아버님의 원리말씀을 반박하는 형국이 벌어졌다. 그래서 천리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반대에 맞서 홀로 결판의 싸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참아버님의 주장이 복귀의 한을 푸는 원칙이요 천륜의 비결 중의 비결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여 어인을 내리셨다. (p. 228)

6 아버님은 박씨 할머니에게 축복받은 후에는 '나는 누구이고 그대는 누구이니 복귀의 한을 풀려고 하는 하늘의 뜻 앞에 굴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 있었던 젊은 청년이 그러고 나서자 특히 자기가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던 판국인데 굴복해야 되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순종했다면 아버님도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거기서 천 명이면 천 명이 다 꺾여 나갑니다. 그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고 반대한 그 시간부터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안팎의 축복기준을 갖게 되기까지 영적인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43일의 시험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영계의 모든 영인들이 몰아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천리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혼자 43일간 지금까지 왔다 갔던 수많은 영계의 도인들,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동원된 전 영계와 싸웠습니다. 싸움판의 천지로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의 43일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판정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천리의 원칙, 이것이 아니면 하늘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찾아 나온 이 길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최후의 판가리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008-229, 1960.01.06)

7 재림주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반대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영육의 판도를 갖춘 승리적 패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건해야 됩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의 4천년 역사를 복귀하던 역사를 영계에서부터 다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인들을 중심삼고 싸웠습니다. 여기에서 영계가 반대했습니다. 사탄편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반대한 것입니다. 탕감복귀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으로부터 수습해야 됩니다. 진리, 이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은 주먹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 투쟁과 참사랑을 가지

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43일 동안 영계에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도주들을 중심삼고 종교지도자들이 책임 못한 것이라든가, 복귀과정에서는 심정을 중심삼고 혈통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버님이 발표함으로써 영계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론 투쟁에서 진 것입니다. (261-123, 1994.06.09) p. 229

8 재리주가 되려면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인을 받고 와야 됩니다. 아버님이 영계에 들어가 43일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지옥 밑창에서 천상까지 전부가 '문 선생은 이단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래에서부터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맨 나중에는 성현들과 하나님 앞에서 담판해서 정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판가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영계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핏줄이 달라졌다. 혈통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느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소유권 전환입니다. '땅 위에 살면서 자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배반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도주들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영계에서 싸울 때 자신만만하게 '이단이 뭐야?'라며 버텼습니다. 최후에는 영계에 대혼란이 벌어지겠으니 하나님이 심판장으로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반대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늘을 배반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도 아담 완성자를 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맺혔던 담이 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반대하고 하나님까지 저편에 서 있는데 단 하나 아버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혼란의 와중에 있는 영계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님이 말하는 혈통전환·소유권전환·심정권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패권자로서 어인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264-050, 1994.10.09)

9 해방 직후 자유세계를 중심삼고 한국과 기독교 전체가 하나되어 아버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던 것과 마찬가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죽여서 아담 가정이 망하고 예수님을 죽여서 기독교문화권이 연장된 것처럼 세계시대에 왔기 때문에 전권을 다해서 평면적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무섭지만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공격하는 것고 무섭지만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총합해서 아버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봐라! 모근 것을 다 해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영적 세계 전체와 육적 세계 전체가 합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는 세계와 하늘땅에 내 후손을 통해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참부모이니, 이 두 패의 싸움권 내에서 해방을 받지 않으면 참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원리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아버님이 세계의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영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단계의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268-279, 1995.04.03) p. 230

10 아담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탕감복귀의 법칙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쳤기 때문에 끝날에 재림주로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대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대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투쟁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영계가 혼란되는 것이 계속되겠으니 43일 이내에 하나님은 누가 승리했다는 결정적인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승리했다는 어인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전체의 승리적 패권을 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인을 받아 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4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영계의 모든 분쟁을 수습했습니다. (261-124, 1994.06.09)

11 아버님은 시련의 와중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맨 복판에 들어가서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라든가 동네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개인이 막판에서 공격해 봤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꺾여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아버님을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계에서 43일간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니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예수님이 반대하고, 공자가 반대하고, 석가가 반대하고, 마호메트가 반대하고, 영계 전체가 하나되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43일 동안 싸우면서 양보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43일 동안에 결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님은 하늘과 땅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자라고 선포했습니다. (161-041, 1987.01.01) p. 231

4절 흥남감옥과 예수님 사명 계승 노정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 가기 위한 탕감노정

흥남감옥 시련은 재림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 가시기 위한 탕감섭리노정이다. 재림메시아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12명 이상의 제자를 십자가상에서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흥남감옥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십자가와 다름없었다. 참아버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한 탕감노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다. 특히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없었지만 영계에 있는 수감자들의 조상들이 후손에게 몽시로 나타나서 참아버님에게 특별히 잘해 드리고 모시라는 가르침을 주게 되면서 참아버님께서 감옥에서 나오실 때에 12명 이상의 제자를 두게 되셨다. 그리고 흥남감옥에 입감되신 후 처음 보름 동안은 급식의 절반을 수감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모친이 정주에서 흥남까지 와서 차입한 미숫가루와 옷들을 모두 이들에게 건네시는 등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재소 기간에 3회나 모범노동자상을 받으셨다. 매일 배급되는 식수 일부를 남겨 놓았다가 몸을 깨끗이 닦으시는 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p. 231)

1 예수님은 영계의 지옥 밑창에 가서 3일 수난길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육을 중심삼은 승리의 기점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참소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계의 지옥에 가서 개척하여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러한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이북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평양형무소에서 쇠고랑을 차고 형벌을 받고 있던 중에도 누구누구를 만날 것임을 다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가면 예수님의 3대 제자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복귀의 운세권 내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천도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길도 최고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절망 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절망 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길을 닦아 그 수고의 공적을 통해서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옥살이를 하고 옥에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옥에 들어가서도 제일 어려운 일을 내가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047-190, 1971.08.28) p. 232

2 해방 후 아버님은 원수들이 우글대는 이북 땅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길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평양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어떠어떠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는 영계에서 무지몽매한 강도나 절도범이나 살인범 등의 수많은 죄수들에게 아무 감방에 번호가 596호인 사람이 있으니 그분에게 어떤 것을 갖다드리라고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버님이 입을 옷이 없을 때에는 그들을 시켜서 옷을 가져다주기도 했으며, 또 내가 먹지 못하여 배가 고

플 때에는 난데없는 사람에게 아버님 이름과 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먹을 것을 가져다주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양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희망 가운데 거기에서 1948년 5월 20일까지 지냈습니다. 그때 감옥의 창가를 스치던 버들잎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남으로써 원수의 딸, 제일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하늘의 밀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병사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몰리고 쫓겼으니 그렇게 감옥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022-129, 1969.02.02)

3 아버님이 평양형무소에 있다가 흥남감옥으로 쇠고랑을 차고 가는 데 17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찻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찬 입장에 있는 아버님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6천년 섭리역사를 다시 탕감복귀해야 되는데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려면 수천년 걸려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산야의 외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나 혼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나쁜 강도와 둘이 조를 이뤄서 쇠고랑을 차고 가면서 '어떻게 이 환경에서 살아남느냐?'라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심각했겠느냐는 것입니다.

4 아버님은 이북 평양과 흥남감옥에서 2년 8개월의 예수님 공생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보냈고 열두 사람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열두 사람을 복귀함으로써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조건들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아버님을 따르지는 않았어도 아버님이 석방되었을 때 그들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늘은 천사장 국가인 미국과 유엔군을 통해 북한을 공격하게 해서 아버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네 사람이 나를 따랐습니다. 유엔군이 남한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하늘의 운세는 다시 민주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고, 기독교를 복귀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052-185, 1971.12.29)

5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했고 사랑하는 세 제자까지도 배반했습니다. 그러기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열두 제자와 같은 수를 탕감복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입을 열지 않았어도 제2 이스라엘권 내에 있는 영계의 영인들이 전도해서 그 수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연을 거쳐 나왔습니다. 공산당의 삼엄한 감시와 주목을 받는 옥중생활에서도 남이

모르는 심정적인 단결운동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드러내 놓고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영계에서 전도해 주었습니다. (016-059, 1965.12.26) p. 233

북한 탕감노정에서 승리하신 참아버님

참아버님께서는 흥남감옥에서 누구보다도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고 노동현장에서도 동료들을 위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셨다. '감옥의 성자'로 부를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탕감복귀섭리의 조건을 세우셨다. 흥남 감옥에서는 유엔군이 흥남에 상륙한 이후 1950년 10월 12일부터 수감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하였다. 참아버님의 처형 날이 10월 14일이었는데, 유엔군이 이날 총공격을 단행하자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참아버님과 수감자들은 모두 해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 도보로 10일 걸려서 평양에까지 오시게 되었다. (p. 234)

6 10월 14일은 흥남감옥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곳을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아 나가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죽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데서, 언제나 그 일터에서 표적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것이 살아나가는 비법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도 아닌 1천 명에 가까운데 간수들이 나를 선정해서 최고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길을 달려 나와서 뜻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한 많은 복귀의 고개를 넘는 책임자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민족의 원한, 세계 기독교가 실패한 원한, 저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소화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분 편이 되어 내 길을 재창조해서 기독교문화권 이상을 나를 중심삼고 편성해 나왔습니다. (220-078, 1991.10.14) p. 234

7 내가 흥남 비료공장에서 일하는 데에 챔피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모두가 내 뒤만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조를 편성하는데 매일 같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를 편성하게 되면, 내가 변소에 갔더라도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내가 대장이 됩니다. 가마니를 묶는 것에서부터 끌어내어 화차에 싣는 것까지 하는 일이 아주 효율적으로 공식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세계적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미래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지만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적으

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번 표창할 때마다 모범노동자로 뽑혀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222-295, 1991.11.03)

8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1일 미군 B29 폭격기가 총공격하여 흥남을 크게 폭격하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으로부터 직경 12미터 이내는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두 내 주위에 있도록 일렀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격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금후의 이상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상이나 이상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귀의 사명을 하는 사람을 영계에 데려가면 하나님에게는 천주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방비해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035-189, 1970.10.13) p. 235

9 연합군이 폭격하기 며칠 전부터 공산당은 수인들을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삼베 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직감적으로 최후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심각한 기도를 했습니다. 간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물 속에 거꾸로 처박아 죽인 것입니다. 다음 차례가 아버님이었는데, 그날 밤 새벽 2시경 유엔군의 총공격으로 살아서 흥남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5-189, 1970.10.13)

10 1950년에 유엔군이 북한을 폭격했는데 먼저 흥남을 폭격했습니다. 아버님이 있던 흥남감옥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유엔군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내력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동해안에 있는 흥남에서 평양에까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서쪽 지방의 평양에까지 걸어서 간 것입니다. 아버님은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면서 제자들을 찾아봤으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052-156, 1971.12.27)

11 1950년 10월 14일 석방되어 동해안을 통과해 평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평안남북도 경계선인가 되는 곳에 왔을 때 인민군들이 도망가다가 고개를 넘을 적마다 불순한 사상이 있는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수십 명씩 줄을 세워 죽이던 그 고개를 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형무송에서 석방돼 죄수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인민군들은 자기들의 적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씩 죽음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549-208, 2006.12.26) p. 235

제2장 참아버님의 남하와 부산 노정

1절 참아버님의 남하노정

제자와 함께 걸어온 남하노정

참아버님께서는 1948년 2월 22일부터 1950년 10월 14일까지 2년 7개월 21일간 평양내무서와 평양형무소, 흥남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혹독한 강제노역 속에서 사경을 넘어 탕감노정을 승리하셨다. 흥남감옥에서 출감하신 뒤 이미 많은 사람이 피란을 떠난 평양에서 옛 식구 수습에 전념하시다가 40일 만에 남하 길에 오르셨다. 참아버님께서는 12월 4일 밤 평양 기독교 대표 신부격인 김원필씨와 함께 옥중제자 대표 천사장격으로 부상당한 박정화씨를 자전거에 태워 대동강 하류에서 배편으로 강을 건너셨다. 황해도 벽성군에 이르러 청룡반도 남단에서 용매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 남하하셨다. 평양에서 두 제자와 함께 남하하는 고난의 노정은 타락한 인류를 인도해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늘섭리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p. 236)

1 나는 흥남감옥에서 나와 평양에까지 와서도 부모가 고향에 계시는 것을 알지만 고향에 못 갔습니다.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었는데도 못 갔던 것입니다. 그때 고향에 못 간 것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따르던 식구들의 안위가 궁금해서 이들을 만나 수습하여 다 통고하고 나서 고향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따라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가 전세가 바뀌어 고향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가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들르지 않고 그 식구들을 급급히 찾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팔선을 넘을 때에 기도하기를 '내가 이렇게 고향을 두고 떠나는 것은 하늘을 위해서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 내 손으로 이북을 해방하고 내 고향땅을 찾아와서 하늘의 승리를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중심삼고 싸워 나온 것입니다. (125-295, 1983.03.29) p. 236

2 흥남감옥에서 나와 평양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평양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를 따르던 식구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최후의 세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닏. 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피란을 떠났습니다. 1950년 12월 4일에 평양을 떠났습니다. 인민군이 입성해서 숙청하는 과정에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리를 다친 박정화라는 사람을 자전거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인민군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국도는 인민군이 차지했기 때문

에 피란민들은 그 가외의 소로라든가 길 없는 들과 산을 넘어서 삼팔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과는 불과 30리 안팎을 떨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박정화가 도중에 '이러다가는 세 사람이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떨어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갈 길에 방해된다는 것을 알고 자결하려다가 나한테 야단 맞고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용매도로 나올 때에는 박정화를 업고 나왔습니다. 박정화를 업고 나오는데, 조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감탕길을 나오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549-209, 2006.12.26) p. 237

3 삼판선을 중심삼고 국군경비대는 남쪽에 있고 인민군대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삼팔선에서 경비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경비대가 지키고 있으니 일반인은 한 사람도 삼팔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단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나서야 됩니다. 삼팔선에 문제가 벌어진 것을 내가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국군경비대가 길목에 있기 때문에 삼팔선에 문제가 있다면 이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 국군경비대가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삼팔선을 떠났습니다. 걸어서 부두에 가 보니 부두에서 용매도가 15리입니다. 2시간 이내에 15리를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물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봐사 15리 길을 걸어야 할 텐데, 물이 나갈 때부터 건너가서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빨리 걸어야만 15리 길을 갈 텐데 위험천만입니다. 하늘을 믿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던 생각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15리 감탕길을 뛰었습니다. 그러니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탕 바가지가 되었고, 물이 부두를 넘기 전에 겨우 건넜습니다. (603-115, 2008.11.18)

4 내가 이남 땅으로 내려오게 될 무렵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판선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 말대로 안 했으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쉼 없이 앞길을 재촉했습니다. 삼팔선에서 경비대원들이 전부 후퇴하고 있었으니까 사태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재빨리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용매도를 통해 일단 이남으로 나갈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때 경비대원들이 전부 후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용매도로 갔다가 우리가 탈 배가 없으니 다시 나와야 삼팔선을 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158-056, 1967.02.14) p. 238

5 우리가 임진강 근처에 도착한 날 저녁 안에 임진강 턱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버님이 비상작전, 비상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최고로 뽑아서 보는 것입니다. 보통 때에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저녁이 되었다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전부 마을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데 우리만 12시를 지나 1시에 임진강 접경의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는 전부 이남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날까지 임진강이 얼지 않았습니다. '오늘밤에 이 강이 얼지 않으면 안 될 텐데.'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날 저녁에 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빨리 온 줄 알았는데 그 동네에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우리 일행을 마지막을 하고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전부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대 한 1분만 서성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예 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많이 벌어지는데 천도를 가려 가는 길 앞에 무슨 일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냐는 것입니다. (057-273, 1972.06.04)

6 흥남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평양에서 남한까지 내려오는 약 2개월간은 걸식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먹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이 없으니 뭐라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일은 틀림없이 어떤 어여쁜 부인이 길가에서 무엇인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다음날에 틀림없이 생각했던 대로 새하얀 옷을 입은 부인이 길가에서 기다렸다가 '어젯밤 꿈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준 마을에는 때가 오면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버님과 하나님이 서로 부둥켜안고 울던 그 슬픔은 지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심정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온통 세포가 저려 오는 것만 같습니다. (035-190, 1970.10.13) p. 239

삼팔선을 넘을 때의 결의

참아버님께서는 삼팔선을 넘으면서 반드시 이 손으로 자유세계를 규합해 공산당을 소화하고 북한을 해방해서 남북을 통일하겠다.'는 비감어린 맹세의 기도를 올리셨다. 참아버님께서는 그날의 기도와 맹세를 잊지 않으시고 일생을 싸워 나오셨다. 임진강을 건넌 후 서울까지 80여 킬로미터를 걷는 데 일주일이 걸렸다. 1950년 12월 21일 임진강에서 출발하여 문산역에 도착하셨고 12월 27일 한강을 건너 평양을 떠난 지 24일 만에 학창시절 머무르셨던 서울 흑석동에 도착하신 것이다. (p.239)

7 나는 삼팔선을 넘을 때 기도하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 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삼팔선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든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든 저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가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싸워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앞에 맹세하고 나선 걸음은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064-251, 1972.11.12)

8 내가 삼팔선을 넘으면서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이북 흥남감옥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삼팔선 이남을 중심삼고 하늘 앞에 기도하던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슬픈 환경이지만 오늘을 맞아 가지고 삼팔선을 넘는다고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던 것을 같이 오던 사람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던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뒤에 두고 떠나오면서 이 불효자식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려 달라고, 죽지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고 떠나온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공산당에게 고문을 받으면서 '내 이 시퍼런 눈을 뜨고 네 일족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을 네 입으로 증거하는 그날을 갖고야 말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그날을 볼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결의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사무친 심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051-260, 1971.11.28) p. 240

9 아버님은 홀로 이북땅에서 몰리는 몸으로 남한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 기간에 꿈같은 사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흥남감옥에서 나와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는 31세로 상당히 젊을 때였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오면서 결심한 것이 재출발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북한 땅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잊고, 그 어려웠던 사실이 내가 가는 길 앞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출발을 하는 데에 하나의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길을 통해서라도 뜻의 길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30대 젊은이로서 새로이 출발한다는 결의가 강했습니다. 삼팔선을 넘어 경주를 거쳐 부산에까지 오는 데에 한 2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때 부산에 와 보니까 어디 은신할 수 없을 만큼 피란민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굴을 파고 피란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168,

1978.10.14)

2절 부산에서의 새 출발

부산에 이르는 노정과 피란생활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흑석동에 도착하신 뒤 명수대 새예수교회 시절 가까웠던 신앙 동지 곽노필씨 집을 찾았으나 이미 부산으로 피란 가고 없었다. 그 집에 짐을 푼 뒤 며칠간 머무르셨다. 1950년 12월 30일에는 옛 하숙집 이기봉씨 가족을 수소문 끝에 찾아 밤늦도록 정담을 나누셨다. 31일 곽씨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경관의 불심검문으로 흑석동 파출소로 연행되셨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김원필씨와 마찬가지로 방위군 징집 명목으로 창경궁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셨다. 젊은 머리인 데다 이북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는 말에 검사원은 도망병이나 간첩일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병종(면제)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불합격증을 받고 김씨와 함께 흑석동 곽씨 집으로 다시 돌아와 1951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셨다. 이틀 후 신검 불합격증을 가지고 파출소로 가서 피란민증을 발급받고, 1·4후퇴로 인해 1월 3일 서울 전역에 피란 퇴거령이 내려지면서 참아버님 일행도 부산을 목적지로 다시 피란길에 오르셨다. (p. 241)

1 내가 이북에서 이남을 올 때 머리가 깎인 채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도 이남에 왔고 젊은 사람이니까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창경궁에 신체 검사를 하는 젊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갓 나왔지만 몸집이 말라깽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역조사를 하는데, 나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간첩과 군인이 막 섞여 다녀 분간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머리를 깎았으니 간첩이 아니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간첩을 군대에 집어넣으면 자기 목이 달아나겠으니까 조사하고서는 '병종'이라고 낙제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증명서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184-218, 1989.02.11) p. 241

2 여러분은 아버님이 고생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고생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인민군이 소리를 지르고 뒤따라오는 가운데 피란의 땅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피란민 가운데 우리가 제일 늦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의 전투가 끝난 후에 부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피란 나오는 가운데 소련군의 위험, 중공군의 위험, 북한군의 위험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톡톡히 피란살이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님 일생에 지나가는 역사의 하나의 발걸음이 아니고 역사시대의 탕감이라는 한의 구덩이를 메우기 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내가 뒤를 바라보면서 갈 길을 편안히 갈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

서는 안 됩니다. 피란살이를 하면서 집이 없어서 잔디 위에서 자고 모래판에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별을 바라보며 한의 눈물을 이 삼천리반도에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516-109, 2006.02.06)

3 평양에서 걸어서 부산까지 나오는 데에 55일이 걸렸습니다. 밥도 얻어 먹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재미있는 것이 하늘은 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지치게 되면 안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쯤 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와서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합니다. '누구세요? 난 모르는데요.'라고 하면 '간밤에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닭도 잡고 떡도 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으니 '보기에 초라한 행인으로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선생님 얼굴과 흡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떡도 얻어먹고 닭고기도 얻어먹고 했는데,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153-089, 1963.10.18) p. 242

4 북한에서 나를 따르던 식구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따라다니며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식구들까지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간곡한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 전달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에게 가보니 그 사람도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왜 감옥에 갔겠는가?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부 삿된 것이다.'라고 해서 편지고 뭣이고 받아 보지도 않고는 '이단 사람이 나왔구먼, 또 이단 일을 하려고 찾아왔소?'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피란길을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철길 옆으로 난 도로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때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영천의 그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내려가다가 다시 한 번 읽어 보고는 찢어서 날려 버렸습니다. 그때가 1951년 1월 18일입니다. 그런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성분자였던 사람도 믿을 수 없는 배신자로 떠나간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이 와서 인사를 하더니 울면서 '저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 사연을 말해서 내가 '그럴 수 있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170-016, 1987.11.01) p. 242

피란민 생활과 그 고난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1월 27일 부산 초량역에 도착하신 뒤 김원필씨와 함께 대

합실에서 버터 깡통에 밥을 지어 요기하고 첫날밤을 보내셨다. 당시 부산은 피란민들로 인산인해였다. 다음날 아침 서울 흑석동 집에 주소만 남겨 놓고 피란 내려와 있던 곽노필씨를 찾아 3일간을 보내셨다. 그리고 1월 31일 우연히 일본 유학시절 친구 엄덕문씨를 만나 엄씨의 강권에 못 이겨 곧바로 부민동 그의 단칸 셋방으로 옮겨 부인과 두 자녀 등 네 식구와 더불어 옹색한 생활을 시작하셨다. 일주일간 말씀을 들은 엄씨는 무릎을 꿇고 '그대는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나의 선생이요 위대한 성인이요 또 철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참아버님과 김원필씨는 4월 초순경 초량역 뒤쪽의 협소한 판잣집 노무자 숙소에 들어가 10여 일을 지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흥남 옥중제자 김원덕씨의 괴정동 집에서도 반달가량 머무르셨으며, 해방 전에 전기회사 직원사택으로 썼던 범냇골 어귀 집에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가량 하숙을 하셨다. 또 제3 부두에서 목도 일을 하시면서 반달가량 지내셨다. 어떤 때에는 양지쪽 숲속이나 방공호에서도 주무시는 등 눈물어린 피란민 생활을 하셨다. 그리고 밥을 얻어 드시고 때로는 낯선 집 처마 밑에 몸을 의탁하셨다. (p. 243)

5 부산에 도착하니 사람으로 초만원이었습니다. 방은 어디에 가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같고 빈 상자 같은 데에도 두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 역에서 피란해 온 사람들이 부산에 전부 모인 것입니다. 마치 끓는 가마솥 같았습니다.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은 언제나 초만원이었습니다. 똑바로 서 있어도 밀려가는 듯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부산에 왔는데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2월이니까 추웠습니다. 밤에는 일을 하고, 한밤중 10시에서 12시쯤에 돌아오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무릎 있는 데까지 덮고 새우처럼 움츠리고 잠을 잔 것이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그때 덮은 외투를 기념으로 남겨 두게끔 식구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한 외투라고 버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이 본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기념이 되는 외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한발 한발 걸어 나와 오늘과 같은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1974.05.12, 일본 도쿄)

6 엄덕문씨는 학창시절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수정동 네거리에 있는 조흥은행 앞에서 비가 내리는 날 낮 12시쯤에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길 가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봤습니다. 엄씨는 나를 만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북에서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엄씨는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늦게까지 피란을 왔기 때문에 집이라는 집의 처마 아래에까지도 앉아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후 1시 2시

제일 따뜻할 때 외투를 뒤집어쓰고 동산에 올라가 바위 사이에 앉아서 자던 상황에서 엄씨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해주던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485-327, 2005.02.02) p. 244

7 아버님의 흥남감옥 이후 부산까지의 노정은 넉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아버님의 옷이 그동안에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옷이 너무 더러워서 뒤집어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홑옷을 입고 내려오던 때가 12월이었으니까 몹시 춥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는 기지 부두에 가서 노동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잠자리를 정해서 잠도 자고 혼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052-279, 1972.01.03)

8 아버님은 부산에 피란 가서 부둣가에서도 자고 산속에서도 잤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군인 외투를 깔고 잘 때에는 2월 초라서 추웠습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낮에는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양지쪽에 가서 가만히 앉아 꿩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자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옷을 입었을 때에는 김삿갓의 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겨서 죽이 먹고 싶으면 부둣가로 나갑니다. 부둣가의 아주머니들이 팥죽을 쑤어 오면 식을세라 보자기를 덮어서 그저 자기 귀동자 외아들을 품고 사랑하듯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죽을 사 먹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친구였습니다. (153-090, 1963.10.18)

범일동 토담집에서 새 출발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8월에 부산시 동구 범일4동 1513번지, 범냇골 막바지 수정산 중허리에 자그마한 토담집을 지으셨다. 맨돌과 흙만 포개 쌓다 보니 두 번이나 무너져 앉아 세 번째 만에야 완성되었다. 두 평 안쪽 단칸방이었다. 별도의 부엌은 없었고 바깥 한쪽은 솥 한 개를 얹은 부뚜막이 있었다. 그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고 허리를 굽히고서야 드나들 수 있는 1미터 높이의 출입문이 있었다. 허리를 펼 수 없는 낮은 지붕은 전투식량 상자로 연결해서 맑은 날이면 하늘이 보이고 궂은날엔 비가 들이쳤다. 비가 오면 방 한구석에 작은 샘이 솟고 밑에는 도랑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산 쪽의 굴뚝을 통해 들어온 물은 방고래를 거쳐 아궁이로 흘러나왔다. 바닥에는 몇 겹의 거적을 깔고 서너 겹 가마니를 펴서 깐 다음 폭이 넓고 긴 요를 펴서 깔았다.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후반기에는 김원필씨 직장 뒷바라지와 내적 준비에 주력하셨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온 김씨는 부업으로 미군들의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했다. 한 장에 4달러짜리를 하루에 10장 안팎, 많을 때에는 30장까지도 그렸다. 참아버님께서는 《원리원본》을 집필하면서

밤에는 부산 시내를 바라보시며 섭리의 미래를 그리셨고, 새벽이면 산에 올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 (p. 245)

9 내가 피란시절인 서른두 살 때 부산 초량에 처음 왔었는데,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미남이었습니다. 내가 부산진 4부두에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 부둣가에서 팥죽을 팔던 아주머니들, 시루떡을 팔던 아주머니들이 생각납니다. 또 초량에 노무자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 조그만 방에서 《원리원본》을 쓰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주 조그마한 방이어서 눕더라도 바로는 못 눕습니다. 대각선을 누워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누웠댔자 발이 다 닿습니다. (143-171, 1986.03.18, 초량동 부산교회) p. 245

10 부산 피란민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면 그들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서 조그만 오두막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개집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진흙과 바윗돌을 재료로 해서 지은 아주 초라한 주거 장소였습니다. 집을 지을 만한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산비탈에다 오두막집을 지은 것입니다. 짓고 보니 바닥 중앙으로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붕은 헌 상자로 덮었습니다. 방은 아주 조그마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넉 달 동안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052-279, 1972.01.03, 미국 워싱턴 D.C)

11 아버님이 이 길을 출발하면서 부산 범일동에 제비둥지와 같은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삽이 있어야 합니다. 삽을 빌리려 해도 누가 빌려 주지 않았습니다. 피란민들이 돈만 생긴다면 뭐든 다 팔아먹으니까 안 빌려 주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야 하는데 삽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부삽으로 했습니다. 곡괭이도 없기 때문에 부삽을 가지고 터를 닦았습니다. 또 벽돌을 만드는 도구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에 가서 전투식량 상자를 가져다가 귀퉁이를 째고 펴서 붙이고 그 위에 흙을 퍼다가 반죽해서 발라 집을 지었습니다. 흙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둥지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153-288, 1964.03.26, 한국 전주교회, 초창기 부산에서의 활동)

12 이북에서부터 만났던 식구들이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옛날의 아버님을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부산 범일동 작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은 조그마한데 그 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땅이 없으니까 산비탈을 깎아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말하지 않으니 산비탈을 가로로 파서 지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 방에서 샘물이 솟습니다. 얼마

나 멋집니까? 21세기의 최고 문화주택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습니까? 땅을 한 반자쯤 파서 돌을 주워다가 수문을 내는 것입니다. 수문을 내고 그다음에는 그 위에다 온돌을 놓았습니다. 그 온돌 아래에는 샘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집입니다. (153-288, 1964.03.26, 한국 전주교회, 초창기 부산에서의 활동)

13 1953년에 휴전협정이 됐으니까 6·25전쟁이 계속될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군수물자 선단이 줄지어 부산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버님은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50척이고, 어떤 때에는 100척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시상황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배의 수가 많아진 것을 볼 때 '아, 이 전쟁이 치열해지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배들이 적어지면 '아, 이제는 전쟁이 그저 이럭저럭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아버님을 따르던 식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영계를 통해 인연이 되어서 만났던 식구들이 그때 범일동에 혼자 살고 있던 아버님을 총총걸음으로 찾아오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143-172, 1986.03.18)

14 아버님이 옛날 피란시절에 부산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집이 없습니다. 바윗돌에다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조그마한 탁상이 하나 있고,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있었습니다. 한국동란에 참전했다가 고향에 돌아가는 미군부대 사람들에게 초상화를 그려 주던 캔버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아버님은 양쪽 네 군데에 호주머니가 달려 있는 미군 작업복을 고동색을 물들여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물을 들인 한복 바지를 대님도 매지 않고 입었습니다.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것도 크기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것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 처량하게 앉아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바위가 '눈물의 바위'입니다. (168-036, 1987.08.30) p. 247

15 우리가 부산에서 피란생활을 할 때 김원필은 그림을 그려서 팔았습니다. 내가 틀도 만들고 종이에 줄까지 쳐 주었습니다. 얼굴에 코만 그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칠했습니다. 밤을 같이 새워 가면서 그린 것입니다.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하루저녁에 초상화를 30장까지 그렸습니다. 그것을 전부 그리려면 줄을 먼저 쳐야 됩니다. 30장씩 가져오면 먼저 줄을 치고, 그 줄을 따라 본떠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전부 내가 쳐 주는 것입니다. 한 장 그려 주는 데 4달러를 받았습니다. 미군들이 귀국할 때 자기 아내한테 선물로 줄 것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임

을 알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30달러 40달러, 아니 한 300달러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평균 20장 이상을 하루저녁에 그리는데 그것을 혼자 그릴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줬습니다. 밤을 같이 새운 것입니다. (096-143, 1978.01.03)

16 나는 김원필을 데리고 범냇골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아와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는, 자기를 위해 주는 시간의 여유가 어느 때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서로가 위해 주는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과 뜻을 중심삼고 심정적인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033-098, 1970.08.09)

17 부산 범일동 성지는 공동묘지 근처로 돌투성이의 골짜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 곳에 아버님은 돼지우리와 같은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면서 이 지상의 어떠한 궁중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행을 할 수 있는 제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깊은 내심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검을 대로 검어 있었고, 복장은 한국 옷과 서양 옷을 섞어 입고 있었습니다. (022-186, 1969.02.02) p. 248

18 여러분은 부산 범냇골 성지에서 아버님이 바위를 붙들고 비통해했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6·25동란 때 화물선들이 꽉 찬 부산항, 무기를 나르느라고 배들이 꽉 찬 부산항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통일교회는 명실공히 고아의 자리, 세상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충효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준비한 사나이가 여러분이 따르고 믿고 모신다는 아버님입니다. (145-342, 1986.06.01)

19 세계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한국을 찾아옵니까? 부산 성지, 내가 앉았던 곳을 찾아옵니다. 그때야말로 피란민으로서 처량한 때였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저 대해를 건너 내가 마음으로 기대하던 심정의 인연을 저 나라에 가서 뿌려야겠다. 씨를 뿌려 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빙산 같은 이 세계에 부모가 어디 있고 처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가 6·25동란 때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봐라.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며 큰 상선, 하늘 상선에 나를 태워 놓고는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것을 보여 주고 위로하셨습니다. (148-271, 1986.10.11)

3절 《원리원본》 집필

하나님으로부터 공증받은 원리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5월 11일 《원리원본》 집필에 들어가셔서 이듬해 5월 10일 완료하셨다. 식구들이 옆에서 연필을 깎아 대기 바쁘게 속기하셨다. 《원리원본》을 쓰시는 동안 울면서 찬송하시고 또 울면서 기도하셨다. 때로는 뒷산 자그마한 평지에 올라 노래와 명상을 계속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 써 나가셨다. '기록 제1권'부터 '기록 제5권'으로 나눠 기술한 《원리원본》은 각 권마다 네 곳에 구멍을 내어 묶으셨으며 총 690여 쪽에 달한다. 본문 내용은 연필로 국한문 혼용의 횡서 흘림체로 쓰셨고, 교정과 교열작업은 검정 파랑 갈색 잉크를 사용해 펜으로 하셨다. 미미하게 밑줄을 치는 데에 빨간 색연필이 사용되었다. 특히 중간 10여 쪽 분량(291~300쪽)의 본문은 파란색 잉크펜으로 씌여 있다. 《원리원본》은 친필로 작성되고 현존 최초의 원리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심대하다. 이 《원리원본》을 초기에는 제자들이 필사해 돌려 보았다. (p. 249)

1 원리말씀을 할 때에 나는 성경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편집한 내용이 많습니다. 참은 참것으로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학관, 자기 이론을 갖다가 혹처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증을 받았느냐, 자기 이론을 갖다가 붙이라는 허락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허락받지 않은 것을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행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습니다. (346-055, 2001.06.21) p. 249

2 범일동에 있을 때에는 옷도 변변치 못하게 입고 더벅머리를 한 채 남자 둘이서 토굴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처량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김원필은 돈을 벌어 오겠다고 해서 내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리원본》을 쓰고 있었는데, 동지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에 대한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필이 회사에 나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1킬로미터 이상 따라 나가곤 했는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또 저녁이 되어 돌아올 때가 되면 반드시 마중을 나갔는데, 그 만나는 맛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불이 없어서 포대기 한 장만 덮고 자곤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026-070, 1969.10.18)

3 아버님이 부두가 내려다보이는 범일동에서 원리를 썼습니다. 《원리원본》의 초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시와 같이 썼습니다. 내가 골자를 빼서 썼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원리원본》의 초를 잡아 놓고 1952년 5월에 《원리원본》 집필을 마쳤습니다. 《원리원본》 이후 《원리해설》. 그다음에 《원리강론》이 나왔습니다. (549-211, 2006.12.26)

4 아버님은 성경만 보고 원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장이면 요한계시록은 복귀의 장이다. 이것이 생명나무로서 이렇게 되었으면 생명나무로 복귀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맞으면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씨를 심어서 난 것은 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씨에서 움터 나오는 순이 위로 뻗어야지 옆으로 뻗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원리의 가르침은 추리적 방법을 통해서 섭리사관에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이 살아 있는 한, 그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섭리의 뜻을 펴 나가고 있는 한 세계는 반드시 그 문화권을 중심삼고 통일시대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왜 사랑을 좋아하나 하는 것들을 밝혀낸 것입니다. (195-140, 1989.11.07) p. 250

5 하나님은 모든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염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곳에 하나님은 상대적인 형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시는 것입니다. 선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말라고 해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원본》을 보게 되면 대상이나 대상의 가치니 하는 내용까지도 전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고받으면 반드시 상대성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주고받은 만큼 대상의 기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선, 참을 중심삼고 움직이면 그것은 남아지게 마련입니다. (060-163, 1972.08.17)

6 여러분이 원리책을 갖고 다닐 때에는 지나치리만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책이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이 책 원고의 초를 잡을 때 그 관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원리책 한 권으로 일족이 흥하고 망하고, 일국이 흥하

고 망하고, 이 세계가 흥하고 망하고, 하늘땅이 흥하고 망하고, 영원한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심정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려면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073-063, 1974.07.29)

7 아버님은 원리를 중심삼고 원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고생으로 닦아진 터전입니다. 원리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페이지마다의 내용에 얼크러진 아버님의 피눈물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젊은 청춘을 희생시켜 여기에 투입한 것입니다. 피와 눈물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무가치한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숙연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러러보는 원리입니다. (199-056, 1990.02.15) p. 251

진리의 진수 《원리원본》

참아버님께서는 《원리원본》은 진리의 진수를 압축해서 기록한 데다 본연의 심정을 통해 사랑의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적 표현보다는 시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셨다. 여러 종교의 경전을 두루 탐구했던 유효원 전 협회장은 《원리원본》을 처음 접하고, 놀라운 진리의 세계에 심취하면서 한 페이지를 필사하는 데에 몇 날이 소요될 만큼 울고 또 울었다고 고백하였다. (p. 251)

8 아버님이 《원리원본》을 쓸 때 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수십 장의 해설이 필요한 내용을 한 장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효원이 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한 페이지의 내용을 해설해 주니 거기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제 머리로는 미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415-182, 2003.08.14)

9 부산에 피란 내려와 1951년 5월 11일 《원리원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리원본》을 시적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모릅니다. 내가 유효원에게 설명해 주니까 머리가 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보고 페이지마다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적셔진 원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는 내용이라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공산주의의 근본이 다 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485-269, 2005.01.31)

10 유효원 협회장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원리원본》을 읽고 자기 몸이 영원히 하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제물이 되더라도 감사하겠다고 서면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고독한 때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아버님의 심정은 심각했습니다. 심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몽땅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045-139, 1971.06.24)

11 아버님은 유효원 협회장에게 원리의 전폭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리원본》은 시적으로 쓴 것입니다. 상당히 비약하고 압축해서 썼습니다. 유 협회장이 그 책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원리원본》의 내용에 감동받은, 아마 역사적으로도 통일교회 원리를 접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협회장은 나를 만나지도 않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선생님을 시봉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 영도로 내려가 21일 동안 수련히를 열었습니다. 수련회를 할 때 유 협회장이 처음으로 아버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자 자기의 모든 과거 심각했던 사연을 얘기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때 영도 수련회에서 모든 사람이 영계를 통하고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가 끝나고 세상에 나올 때 수련생들은 '이런 세상이 있었던가?'라고 할 정도의 변화를 느꼈던 것입니다. (292-318, 1998.04.27) p. 252

4절 부산과 대구 개척전도

부산 개척시대

참아버님께서 부산에 도착하신 1951년 1월 이후 거의 반년 동안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피란민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8월 범냇골 토담집을 친히 지으시고 입주하면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오신 그 그리움 이상으로 산에 올라가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등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원리원본》 집필을 마무리한 날인 1952년 5월 10일 고려신학교 2학년에 다니던 강현실 전도사가 연결되었고, 그해 12월 1일 일찍부터 기독교단에서 목회를 한 이요한 목사가 들어 오는 등 하늘은 준비된 성도들을 보내 주셨다. 참아버님께서는 1953년 1월 식구들이 늘어나고 일부에서 반대를 극심하게 해서 범냇골 토담집에서 수정동으로 이사를 했고, 수정동 내에서도 몇 차례 거처를 옮기셨다. (p. 252)

1 아버님이 6·25동란 때 피란 나와 부산에서 3년 기간을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 그리움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던 그리움의 심정을 땅 위에 있는 아들에게 체휼시키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자기 부모가 그리워서 눈물짓는 것이 아

니요 부모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인 가인 아벨을 중심한 복귀의 원칙을 어떻게 해결짓느냐? 그것은 자기 혈족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외적인 혈족을 중심삼고 종족 기반을 승리의 터전 위에 세워서 민족적 터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복귀의 노정입니다. (046-134, 1971.08.13) p. 253

2 아버님이 부산 범일동에서 하나님과 인연될 식구들을 그리워하던 때에 온갖 정성을 다하며 기다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오기는 오는데 실제로는 가까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일동에서는 식구라고는 아버님까지 합하여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연락하면서 산천을 친구로 삼고 살았습니다. (018-038, 1967.05.14)

3 아버님이 범일동에 있을 때에 정말 사람이 그리워서 혼자 앉아 중얼중얼할 때가 많았습니다. 백지장으로 가려진 저편에서 대중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립니다. 들리기는 들리는데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 백지장만 제쳐 버리면 대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자 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수가 차면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굳어서 일어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완전히 싸이게 됩니다. 통일교회 출발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자기 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뜻을 위하여 사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056-026, 1972.05.10)

4 '부모의 심정으로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이런 말을 괜히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표어대로 나가서 전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식구가 없으면 문을 열어 놓고 식구를 그리워하게 되면 사람이 오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실이 처음 범냇골에 나를 찾아올 때에도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160-183, 1969.05.12) p. 254

5 범냇골 토담집 시절에 '범일동 꼭대기에 사탄 괴수가 나왔으니 기독교인들은 가지 말라.'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만 드려도 벌써 그 동네

교회가 전부 알고는 가지말라고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사탄의 멱살을 잡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네가 이기지 못하는 한 너는 내게 굴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153-316, 1964.03.26)

6 부산 범냇골 시절 범일동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에 대해 사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를 다녔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잘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자기 교인이 될 줄 알고 좋아서 첫날은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날에 틀림없이 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렇게 무식하오? 성경이 무식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이렇게 한마디 해놓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아버님은 '나는 교회에 안 나가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 한번 들어 볼래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슬슬 시작해 나갑니다.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들어서 체할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눈치를 봐서 신경질적인 사람이면 나는 그 반대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만 얘기하게 되면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026-071, 1969.10.18)

7 부산 피란 시절 범일동에 집을 짓고 세 사람이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얘기할 때에는 아버님이 세 사람을 놓고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3천만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현재 수억의 기독교인과 수많은 인류를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을 놓고도 땀을 흘리며 동네가 떠나갈 것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주일만 되면 주변에서 '저 사람 또 야단이구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릎을 맞대고 소**곤**소곤 귓속말로 해도 다 알아들을텐데, 한 150미터 떨어진 우물가에 있는 아주머니한테까지 들리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의 교회 다니던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밖에서 듣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총각들이 사는 방에 들어오기가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엉망입니다. 말은 세상에 없는 말, 그저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말을 하는데 앉아 있는 모양을 보니 처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통일하고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

들딸이다. 천국이 건설되고 지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3-315, 1964.03.26) p. 255

8 범일동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길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저 집은 싸움을 안 하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요즈음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와서는 '역사상에 당신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와서 통일세계를 꿈꾸었는데도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이 통일하겠다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참 처량했습니다. 물이 흘러가게끔 도랑을 파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방구들 아래에서는 쫄쫄쫄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집에 앉아서 그런 엄청난 말을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내 말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들어 보고는, 어수룩하게 생겨서 그러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어떻고 어떻다고 하면서 야단하는 것을 보고는 그 동네에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늘땅이 뒤집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집에서 살지만, 세계를 한주먹에 쥐락펴락하고 하늘땅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한국과 세계를 통일한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저 동네에 가 보았더니 우물에서는 말이 없던 그 사람이 굉장하더라.'라는 소문이 나니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것입니다. (026-072, 1969.10.18)

9 내가 부산 범일동 골짜기에서 피란생활을 하던 때 부산항의 많은 배들을 보면서 '내 손으로 만든 배를 타고 한번 부산항에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항구에 드나드**는** 큰 배를 보며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이 저 배를 타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날, 자유와 평등의 무대 위에 그럴 수 있는 환경의 한 날이 어느 때에 오겠느냐?'라며 하나님이 일구월심 천만년사를 넘나들면서 희망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선두에서 대양을 향하는 전진의 항로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109-048, 1980.10.26) p. 256

10 부산은 피란민이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골수 신앙인들도 전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학창시절 흑석동의 교회 역사, 평양의 교회 역사, 그다음에 서울의 교회 역사, 이런 역사가 전부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북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네 사람, 여자 세 사람과 남자 한 사람을 복귀했습니다. 남자는 천사장 대신 세운 것입니다. 여자는 옥세현 할머니, 지승도 할머니, 이기완씨입니다. 이기완씨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을 중심삼고 비로소 새로

이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동에 적산가옥을 하나 구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441-274, 2004.03.06)

대구 개척활동

참아버님께서는 새 식구들이 모여들자 이요한 목사에게 이름 있는 목사와 신령한 지도자들을 찾아가 만나게 하는 등 밖으로 눈을 돌리셨다. 특히 1953년 7월 20일 강현실 전도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협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격려 말씀을 하신 뒤 옷 한 벌만 가지고 대구 개척전도를 나서게 하셨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원리가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요한 목사를 또다시 대구에 파송하셨다. 강 전도사가 닦은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 있었다. 그래서 30~40명의 새 식구들이 모이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등 기독교단의 핍박과 반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일찍 자리를 잡았다. (p. 256)

11 초창기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몇몇 식구들을 모아 전국에 신령한 사람들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중에 대구에 전도를 보냈던 강현실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는 범일동 천막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아가씨였습니다. 범일동 산골짜기에는 절밖에 없었는데, 맨 마지막 집에 이상한 청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도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매일매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천막교**회**를 버리고 통일교회를 믿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구에 전도를 보냈습니다. 대구는 남한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보낼 때 아무것도 없이 내보냈습니다. 여비도 안 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내보낼 수 밖에 없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 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영계에서 코치를 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대구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143-173, 1986.03.18) p. 257

12 강현실 전도사에게 '대구에 가서 개척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전도를 나가서 울면서 다니니 하나님이 권고한 것입니다. 대구에 갔을 때 '너는 지금 여기에 와서 울지만 나는 천년 한을 품고 일한다.'고 권고해서 도망가려다가 보따리를 다시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자기편의 사정은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개척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어디에 가면 어떤 때에는 차표를 사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가는 도상에 잔칫상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48-293, 2001.07.10)

13 전도할 때에는 앉아서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쓴다고 되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

이 가르쳐 줍니다. 발이 부르트게 활동을 하고 일을 만들어야 거기에서 역사가 벌어집니다. 강현실의 간증을 들어 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대구 한복판으로 개척전도를 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거리를 방황하고 있자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신세타령을 하니까 '너는 지금 하루 가지고 그 모양이냐? 그렇게 천년 만년을 계속한 아버지의 심정에 도달하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235-176, 1992.08.29)

14 아버님이 대구에 있었을 때에는 한 달 동안에 열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나타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 얼굴만 보이면 '문 아무개 나타났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다 하면 교회에서 매일같이 '이단 괴수 아무개 추방하라.'고 야단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으르렁거리며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163-153, 1987.05.01) p. 257

제3장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1절 협회 창립의 배경

협회 창립의 섭리적 배경

참아버님께서는 1953년 9월 17일 상경하신 후 서울을 중심한 본격적인 활동을 모색하시면서 대구와 부산교회를 찾아 개척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식구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셨다. 그리고 불신한 기독교와 국가 지도자들을 대신해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재출발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셨다. 친히 섭리적 아벨의 사명기준을 찾아 세우신 것이다. 이러한 종적 탕감복귀 기대 위에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지역 교회 기반을 중심하고 실체기대 복귀를 위한 횡적 섭리의 활로를 모색하셨다. 그리고 1954년 5월 1일 서울시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391-6번지 소위 세대문집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셨다. 협회 창립은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까지 탕감한 터전 위에 그들을 대신하여 참아버님께서 홀로 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독교단의 불신으로 북한에서 탕감복귀노정을 승리한 기반에서 협회가 세워짐으로써 참아버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주류섭리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변혁이 사회와 국가 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p. 258)

1 아버님이 해방 직후 기독교와 손을 잡고 출발하려 했을 때 기독교 목사들이 반대해서 그것이 틀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대한민국과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했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과 기독교가 아버님을 맞아들여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에

섬으로써 교회와 나라가 분립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겨나서 기독교가 이방의 종교가 된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탄세계를 거쳐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세계적 사탄권 공산주의인 북한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재차 복귀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 탕감이 필요하고, 가정적 탕감이 필요하고, 종족적 탕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해 나온 것입니다. 한 번에 될 것이 몇 차례 뒤넘기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유대교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대신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그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하고 책임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든 것이 통일교단입니다. (039-137, 1971.01.10) p. 259

2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독교나 신령한 단체가 선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섰습니다. 반대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혼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에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한 집안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원수 입장에 섬으로써 그때까지 닦은 기반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아버님을 중심삼고 새로운 차원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운명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민주세계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수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948년부터 3년간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한도 한국 땅이기 때문에 사탄 편 일선에 가서 그런 싸움을 해야 했고, 남한도 사탄 편이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그런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남북을 중심삼고 그런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구약시대에 맞먹고, 남한은 신약시대에 맞먹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북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고, 1950년 12월에 이북에서 나와 4년 동안 남한에서 기반을 닦아 1954년 5월 1일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087-057, 1976.05.01)

3 예수님이 끌려가 옥중생활을 거쳐 십자가에서 죽어 갔기 때문에 복귀노정에서도 옥중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출발하려 했던 모든 길이 반대로 십자가의 노정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통일교회 역사도 옥중에서 출발해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열두 제자를 잃어버린 것을 실체적으로 복귀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더라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수의 기준을 찾는 데 영계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24명의 멤버들이 암암리에 옥중에서 천명에 의해 결속되어 출발한 것입니다. 감옥에

서 나올 때에는 네 사람이 함께 나섰습니다. 사위기대 복귀원칙에 일치되는 역사적 조건을 하나님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흥남감옥에서 나와 평양에 가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식구들을 다시 규합해서 출발한 것이 현재의 통일교회입니다. (071-231, 1974.05.01) p. 259

4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6천년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섭리해 나온 복귀노정을 탕감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국가를 중심삼고 이루었어야 할 전체적인 문제를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한국을 중심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방 전까지 하나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지닌 많은 인물들을 보내서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부인들을 중심삼고 섭리한 일면이 있는 동시에 남자들을 중심삼고 섭리해 나온 일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 알지 못하고 신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특별히 택한 자들을 세워서 내적 외적으로 역사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해방 후에 새로운 발전적인 내용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전하기 위해 통일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016-055, 1965.12.26) p. 260

5 사탄 편인 북한은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1950년에 6·25동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하고 흥남을 공습해서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흥남감옥에서 아버님이 나와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남한은 완전히 헤쳐졌습니다. 그때까지 서울이나 어디에 기반을 닦고 있던 것이 완전히 헤쳐졌습니다. 남한 정부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도망가려 하고, 기독교 목사들은 아들딸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등 국내는 혼란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통일교회는 기반을 닦아 나왔고, 통일교회 기반이 닦아짐에 따라서 이 나라도 새로운 정부 형태로 수습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섭리관입니다. 사회상이 혼란한 것은 하늘의 섭리가 사탄 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닦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954년 협회를 창립하여 거기에서 혼란된 사회 환경을 거쳐 새로운 기반을 확대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대치하고 기독교와 대치해 나오면서 통일교회는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161-073, 1987.01.02)

6 아버님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 앞에 사무친 한이 많아도 참았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무골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0여 년의 생애를 참아 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후 2천년간이나 참으며 뜻을 이루기 위한 터전과 때를 마련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를 닦

기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복귀의 노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태풍아 불어라. 설한풍이 불어라.'라며 참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 때입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책임이 무엇이냐? 몰리고 쫓기면서 감옥에 들어갈 때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세계 인류를 위해 맞고 세계의 고난을 전부 끌어다가 섬멸해야 됩니다. '아무려면 세계의 고난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에 이만한 어려움이 없을쏘냐?'라며 고난을 오히려 당연시했습니다. 아버님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귀섭리역사는 필시 그런 자리에서 결정을 짓고 한 장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했고, 또 그런 사람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한 것입니다. (014-309, 1965.01.02) p. 261

북학동 세대문집에서 협회 출발

협회 간판을 붙인 북학동 세대문집은 처마 끝에 손이 닿을 정도로 초라한 집이었다. 그러다 보니 간판은 동네 아이들이 떼어다가 놀이판으로 쓰기도 하였고 반대하는 사람이 메쳐 쪼개 버려서 다시 연결해 붙이는 등 수없이 훼손당했다. 머리 숙여 세 개의 대문을 거쳐 집안에 들어서면 두세 평 넓이 마당 한구석엔 우물이 있고 그 옆으로 조그만 장독대가 있었다. 바른쪽에는 세 사람이 누우면 꽉 차고 발이 닿는 반 평가량의 안방이 있었고 왼쪽에는 한 평 못 되는 사랑방이 있었다. 안방에는 남자들, 사랑방에는 여자들이 기숙했다. 낮은 천장은 머리가 닿으면 기우뚱했다. 이처럼 협회는 초막과 같은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참아버님께서는 소수가 모였어도 웃옷이 땀에 젖도록 수천 명에게 하시듯 우렁찬 목소리로 기도와 말씀을 하셨다. 어느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도 한 시간 넘도록 우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 통곡이 벌어져 눈물로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1945년 광복 이후 준비된 기독교가 참아버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탕감노정을 거친 후 협회를 세워 세계복귀의 출발 기대를 닦으셨다. (p. 261)

7 내가 맨 처음에 붙인 통일교회 간판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였습니다. 기독교 통일을 하기도 힘든데 신령까지 통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버님이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방에 누우면 발이 닿을 정도인데, 그것도 세(貰)로 얻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을 위해 종 같은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종의 입장, 양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합격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방되어 가는 것입니다. (093-057, 1977.05.01)

8 맨 처음 통일교회 간판을 붙인 집은 오막살이 집이었습니다. 그 집 대문이

세 개였습니다. 우리같이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이 들어가려면 몸을 옆으로 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간판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고 붙였습니다. 세계의 기독교를 통일해도 어머어마 한데 신령한 세계까지도 통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도 통일하지만 신령한 세계도 통일하겠다는 협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처마 끝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고 간판은 붙였는데, 들여다보니 세 대문입니다. (200-081, 1990.02.25)

9 통일교회 간판을 서울 북학동에 있는 집에 붙였는데, 그때 그 집은 아마 서울에서 제일 작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 가로로 누우면발이 닿습니다. 세로로 누워야 겨우 안 닿습니다. 그런 방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이 있었는데 그 방도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유명한 것은 대문이 세 개 있어서 세 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문이 큰 문이 아니고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대문입니다. 또 간판을 붙이는데 처마 끝이 손에 닿으니까 간판을 붙인 자리는 아이들도 건드릴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간판을 엄청난 집에다가 붙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제일 작은 집에다가 붙여 놓았으니 거기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간판이 동정받을 만큼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모릅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 때 이것을 떼어서 놀이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는 '기독교를 통일한다고? 이단이구먼!' 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리쳐 가지고 둘로 쪼개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간판을 그냥 버릴 수 없어 그 간판에 못을 쳐서 연결시킨 뒤에 다시 붙였습니다. (200-162, 1990.02.25)

10 나는 아무리 처마 밑이나 움막집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여기에서 모셔야 하는데 이 자리가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귀원칙에 있어서 제일 조그마한 집에서 세계적인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대표자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사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더 큰 집에서 세계적인 대표에 적응되는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일교회는 작은 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북학동 세대문집에서 발전하여 이처럼 커 나온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주류사상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천하가 다 알 만큼 소문을 내면서 다니는데도 통일교회가 작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062-241, 1972.09.25) p. 26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의미와 목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에는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최종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모종교이다. 그래서 그 이름에 '세계기독교(世界基督敎)'라는 말을 붙였다. '통일(統一)'은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 세계 인류까지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이다. '신령(神靈)'은 진리와 함께 영육계의 조화를 통해 지상과 천상에 천국 기반을 세우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협회(協會)'는 영육계 통일권을 완성해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단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p. 263)

11 지금까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왜 달고 나왔느냐? 기독교를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떼어 버리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버려야 됩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니 새로운 약속입니다. 신약이 없으면 성약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구약 위에서 신약이 나오고 신약 위에서 성약이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연장입니다. 그것을 버리게 될 때에는 아버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국가적 기준이 장성기 완성급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님이 자주적인 기반을 획득할 때까지는 기독교 위에, 신약 구약 위에 서야 됩니다. (284-189, 1997.04.17)

12 아버님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엄청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대체 통일은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만 하더라도 이제까지 400개 이상의 교파로 나뉘어 싸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위하여 존재한다는 철칙을 가진 교파라면, 그리고 그 교파 이상으로 모든 교파가 노력한다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교(異敎)라 하더라도 그 종교가 주장하는 그 정신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 종교까지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의 상대적인 위치를 지켜 나가면 자연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 위에 서서 통일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071-022, 1974.05.07) p. 264

13 '통일(統一)'할 때 '통(統)'자는 '지도받는 통'자가 아니라 '거느릴 통'자입니다. 거느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느리기 위해서는 거느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자로서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주체자는 책임을 져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통일교회는 하늘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는 보호해야 됩니다. 악한 세계로부터 침범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실상세계를 성별해서 보

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만의 환경체제로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악한 것은 제지해 버려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거느려서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하나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근본 된 하나님, 주체 된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자는 것입니다. (209-121, 1990.11.28)

14 통일은 간단합니다. 통일이라는 말이 제일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 자신 있게 나서려거든 몸과 마음이 하나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양심으로 보나 내 몸의 행동을 보나 행색이 어긋남이 없는 일치된 자리, 하나된 자리에서는 당당합니다. 통일된 기반 위에서는 당당한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 앞에 정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당당한 것입니다. 당당한 그 기반 위에서 부모님도 살려고 하고 그 가문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천지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라는 말 자체가 위대합니다. 천지를 다 헤쳐서 알고 보니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기 때문에 아버님이 통일교회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233-030, 1992.07.20)

15 신구약을 통한 모든 종교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아들의 종교는 종의 종교, 양자의 종교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동시에 그 아들의 종교를 통해서 부모의 종교권을 통하고 영계와 하나님 세계에까지 공인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계 기독교는 자동적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기독교 통일을 위한 신령한 협회라는 것입니다. 통일협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통일협회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신령한 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사람들을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은 또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치다'라는 말은 목적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 내용에 도달하고,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루기를 바라는 그 뜻에 도달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신령한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113-098, 1981.05.11) p. 265

16 통일교회도 하나님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한국의 선한 영인들, 여러분의 선한 조상 같은 선한 영인들의 협조도 받지만 세계 성인들의 협조를 받자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기독교만의 협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기독교 계열 세계의 하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독교 영인들, 예수님을 위주로 한 영들만의 협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종파적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의 협조를 받고, 대한민국 충신열녀들

의 협조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성인들의 협조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084-067, 1976.02.22)

17 하나님이 인간 타락 이후 6천년 동안 역사를 끌고 나오는 최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늘땅을 걸어 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들딸을 찾는 것이요, 충신을 찾는 것이요, 열녀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땅 위의 어느 한 지역을 중심삼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심정을 통하여 하늘 대신 선포하는 말에 천상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 말이 참다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전파되면 그들의 마음이 격동할 것이요, 그 움직임이 이 땅 위에 벌어지는 날에는 사탄세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이런 목표 밑에서 세계를 향하여, 천지를 향하여 봉화를 든 여러분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어마어마한 간판을 내건 이상 이 한 시대에 쓰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꿰뚫어서 개인을 통하고, 가정을 통하고, 사회를 통하고, 국가를 통하고, 세계를 통하여 천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간판을 떼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아버님은 일생의 목표를 이 길을 돌파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009-115, 1960.04.24) p. 266

18 통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통일교회 하면 그 모든 종교를 통일하겠다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2천년 동안 그 전통을 가려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을 통하고 수많은 교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학설이 나오게 했고, 그 신학설이 안 좋다고 해서 뒤집어 엎고 하면서 기독교 문화권을 형성하며 하나의 세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수많은 교파로 나뉘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만 통일하는 것도 문제인데 종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를 통일하고 그다음에는 영계까지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08, 1990.05.01)

19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되어 악한 사탄세계를 무찌르고 사탄세계의 주권을 하늘 주권으로 돌리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오시는 주님이 그러한 싸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53-046, 1972.02.06)

20 종교의 진리는 어떤 진리여야 하느냐? 내용만을 설명하는 진리는 필요없습니다. 몸과 마음과 심정이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주의, 그러한 이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거나 인연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에 이끌려갈 것입

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끄는 느낌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보따리를 다 정리해서 그리로 따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와 더불어 남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은 옛날의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합당치 않은 탈바가지를 벗어 버리십시오. 양심가는 양심의 탈을 벗어 버리십시오. 종교의 간판을 떼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통일교회 간판을 뗄 날을 고대학 있습니다. 통일교회 간판을 내건 것은 상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이고 투쟁 상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간판을 떼어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세계, 심정의 세계에 무슨 간판이 필요합니까? 그냥 있어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지을 수 있는 제1 기준입니다. (007-253, 1959.09.20)

21 통일교회의 창립 목적을 우리 교회에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닙니다. 창립의 날을 범위를 넓혀 이 나라를 뜻 앞에 새롭게 세우기 위한 날로 연결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 지상에 하늘이 소원하는 천국을 세우기 위한 창립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하기 위해 통일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역사과정에서 나왔던 보통 교회와는 달리 전체적인 섭리를 대신해서 총 탕감하고 총결산을 지음과 동시에 미래의 소망의 표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의 터전을 남겨야 할 전반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 창립은 한낱 교파의 창립이 아니라 전체의 섭리를 대신하고 뜻을 중심한 하나의 기반을 지상에 세우기 위한 창립입니다. 이렇게 창립된 교회 기반 위에서 개인들이 하늘 앞에 새로이 세움을 받아야 되고, 그 개인들을 통해 새로운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전통적 사상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식구의 뜻과 사명

협회는 참사랑의 식구(食口) 공동체를 지향한다. 식구는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이상을 중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모와 친척·교회·민족·나라·세계를 사랑하지 못한 한을 풀어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통일가(統一家)는 이념과 종교·인종·국경 등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한 식구로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매진하고 있다. p. 267

22 오늘날 택함 받은 지상의 성도들이 뭉쳐서 하늘 가정으로부터 하늘 종족, 하늘 민족을 이루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4천년 역사를 대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민족의 차원을 넘어 세계와 6천년 역사를 대표해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행사는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

리는 서로 식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형제 아닌 형제로서, 종족 아닌 종족으로서 하나의 형제와 종족이 되어 천륜의 뜻을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의 서러움을 체휼하며 개척의 길을 가야 되겠고, 사탄과의 싸움의 노정을 거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002-221, 1957.05.26) p. 268

23 우리는 통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유대교를 다시 찾아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통일 족속들은 잃어버린 씨족을 찾아 세운 것과 마찬가지요,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찾아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회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인연을 거치지 않고는 씨족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또 형제의 인연에 연결시키기 전에는 교회도, 민족도, 국가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의 인연을 중심삼고 연결시켜야 할 사명이 통일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구라는 명사가 성립됩니다. 식구를 통해야 형제의 인연이 맺어지므로 이 식구라는 말은 천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본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식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통일교회 식구끼리는 서로소로가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037-171, 1970.12.25)

24 통일교회는 식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일원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삼고 식구라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싶은 고귀한 그 인연과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찾고자 하는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은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연이 우리 식구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중심적인 인연을 갖고 나타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입장에서 사랑의 인연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 간접적인 입장에 있더라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025-285, 1969.10.05) p. 269

25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도 뜻을 품은 우리의 형님 누님, 혹은 식구들 가운데 자지 않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배부를 때에 굶주리는 식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눈물 어린 마음, 잠을 자도 눈물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영적인 힘으로 도와주고 기도로써 호소하여 제단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언제든지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대기하고 있으니 밤이나 낮이나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실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거든 그

러한 내적 준비라도 같이 하고 싸워 나가는 여러분이 돼야 환란도상의 십자가 과정을 거치는 식구의 인연이라도 붙들고 나올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함께 싸우고 있는 그들과는 오래지 않은 기간에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낙오되어 패잔병이 돼 버립니다. (156-069, 1965.12.07)

2절 청파동 본부교회

섭리의 중심기지가 된 본부교회

1954년 5월 1일 서울시 성동구 북학동 세대문집에서 협회를 창립한 뒤 1955년 1월 17일에 본부교회를 성동구 흥인동 241-44번지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중구 장충동 1가 37번지의 정원을 갖춘 2층 건물로 옮겼고, 참아버님께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하신 직후 1955년 10월 7일 다시 용산구 청파동 1가 71-3번지로 옮겼다. 이후 협회는 1963년 5월 31일 이 주소로 사회단체 제261호로 정부에 등록되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곳에서 피어린 기도와 정성으로 섭리를 확산시켜 나가셨으며, 주야로 식구들을 교육하면서 세계를 향한 본격적인 섭리를 준비하셨다. (p. 269)

1 오늘날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만 남았나이다.'라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천지 가운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삼고 타락한 세상에 구원의 터전을 넓혀 나온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청파동 1가 71의 3번지 통일교회입니다. 이곳을 바라보시며 6천년의 한을 풀겠다고 나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눈물이 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상으로 침울한 자리에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심**정에 얼마나 접해 봤으며, 정적인 통일교회에서 이러한 심정을 바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27-075, 1969.11.23) p. 270

2 우리가 갖고 나온 인연은 입체적인 인연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어떠한 사상을 기조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기조로 하고 본성의 인격을 표준으로 하여 시작된 인연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연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시 해야 됩니다. 그 인연이 이곳 청파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청파는 푸른 언덕을 뜻하고 푸른 언덕은 이상을 상징합니다. 피안의 이상세계를 소망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푸른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푸른 소망을 노래하는 청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인 사위기대를 출발할 수 있는 터전이 청파동 통일교회 본부라는 것입니다.

3 청파동 본부 자리는 옛날 어떤 절의 자리였는데, 일제 치하 때의 적산 건

물입니다. 이것이 또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1955년 그때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온 뒤 오갈 데가 없어서 비상대책을 취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손수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도깨비 장터 같았습니다. 기둥도 새까맣게 된 것을 전부 양잿물로 닦았습니다. 역사적인 인연이 맞부딪친 집입니다. '이 집에서부터 원한이 사무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채찍으로 치던 무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해야 되겠다. 몰아내던 무리를 몰리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천하를 휘어잡고 칠 수 있는 기백은 언제나 깃들어 있습니다. (051-227, 1971.11.28)

4 우리는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 깃발이 드높이 들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장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은 토굴같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살면서도 세계를 한번 요리해 보자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파동 본부교회 건물을 보고 통일교회가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도 본부의 건물은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고 말합니다. 아버님이 보아도 형편없습니다. 지붕이 깨져서 엉망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깨진 기와지붕을 고칠 수 있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붕을 고칠 수 있는 그 돈을 아껴서 민족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언젠가 싹이 터서 자라는 날에는 이 민족은 통일교회를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싸워 나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민족이 통곡할 것입니다. 삼천리강산에 그런 한 날이 오기를 숙원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도 진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상처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상처가 있는 이상 내 집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022-105, 1969.01.26)

5 앞으로는 본부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본향을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들 앞에 보고 또 봐도 영원히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을 한층 북돋워 주고 사기를 올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 인류를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못하면 본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서 찾아온 외국 식구들을 하루 이틀, 1년이라도 기쁨으로 맞이하여 이마를 맞대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면 지내겠다는 여유 있는 심적인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조국이요 본향이라고 찾아오는 많은 외국 식구들에게 큰 상처를 줄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청파동은 오늘의 청파동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통일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수많은

식구들이 이 한국을 본향 땅, 조국 땅으로 생각하면서 찾아올 것이고, 더욱이나 청파동을 사랑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현재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좋은 장소를 택하여 웅대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곳을 그리워하지 않고 바로 청파동 이곳을 그리워하며 찾아올 것입니다. (023-087, 1969.05.11)

본부교회는 역사적 성지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는 1층은 강당, 2층은 참아버님 침실, 협회본부 사무실, 기념일 행사장, 상담실 및 직원 숙소로 사용했다. 식구들이 모였다. 참아버님 말씀에 은혜가 소낙비처럼 충만하게 쏟아져 내렸고 예배 전 협회장이 매일 원리강의를 하면서 식구들이 더욱 부활되었다. 성전은 항상 정성들이는 할머니들을 중심한 식구들로 넘쳐났고 기도와 영적 역사가 연이어 일어났다. 눈물과 웃음, 보고와 증거, 원리강의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심정의 용광로였다. 또 이곳은 참부모님 성혼식과 4대 명절 제정, 참자녀님 탄생, 36가정·72가정 축복식 등을 거친 역사적 인연의 기원지이다. 전국 식구들은 전 본부교회를 향해 경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등 모든 정성이 이곳으로 모아졌다. 청파동 전 본부교회는 참부모님의 눈물자국이 어려 있는 거룩한 제단이며 역사적 성지이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그리워하며 찾아오게 된다. 참아버님께서는 함부로 개조해서는 안 되며, 원형을 고이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곳은 비록 초라해도 역사적 사연과 곡절이 배어 있고 향수가 서린 성소이기 때문이다. (p. 272)

6 통일교회 본부는 서울 청파동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본부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버님은 하루에도 몇 십 번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측근에서는 다 알 것입니다. 아버님은 한마디만 하면 그저 통곡합니다. 대단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삼천리반도에 널려서 이 시간에도 굶주린 자리에서 애절한 기도를 올리는 식구가 있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구들에게 심정의 인연을 전달해야 될 매개체들이 여러분입니다. 본부에 있는 사람은 벌어 받아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새로운 말을 할 적마다 본부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가서 먼저 하고 나중에 본부에서 합니다. 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땅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012-327, 1963.08.11)

7 여러분은 청파동 본부의 사진만 보고도, 아니 본부를 기억만 하고도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통곡하며 찾아오는 그들을 마음으로 반겨 기뻐하며 간곡한 마음으로 대해 주고 마음의 친구가 되

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본부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인연을 같이해 왔고 같이 풍상을 겪어 왔기 때문에 아버님은 고이고이 하늘 앞에 축복받고 하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012-329, 1963.08.11)

8 협소한 본부교회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 무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잘 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는지 몰라도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교회를 지어 주십이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문 뒤에서 밀고 당기면서 서로 들어 오려고 야단 법석입니다. 이것을 처량하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을 위로해 드리기 위하여 '한때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앞으로 세상을 탕감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실한 재산이요 탕감복귀할 수 있는 진실한 재산이요 탕감복귀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불행의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속사정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혜택과 은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017-273, 1967.02.15) p. 273

9 앞으로 청파동 본부교회에 세계 인류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꿈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았고, 여기에서 뜻을 찾아 나왔기에 내가 지도하는 이념을 따라 국경을 넘어 찾아올 것입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면 지금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은 역사적인 행사를 한 곳이고, 하늘땅이 통곡을 한 곳입니다. 뭇 사람들이 통곡한 자리입니다. 피를 뿌려 몸부림치며 호소하던 자리입니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곡절로 인연된 눈물자국이 어려 있는 곳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거룩한 제단입니다. 함부로 들어오고 함부로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012-328, 1963.08.11)

10 아버님이 정성들인 이 모든 터전을 여러분 자신이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6천년 역사를 거치고 하늘의 뜻을 대해 온 교회라면 이 길을 거쳐 오면서 눈물로 얼룩질 수 있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마룻바닥에서 눈물지으며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이 자리가 아버지께서 천년만년

고대하던 소원의 한 터전이란 것을 느끼고, 뼛골이 우러나오고 피살이 인연된 심정으로 자기 일신의 모든 의식을 잊어버리고 눈물만으로 시작하여 눈물만으로 끝낼 수 없는 슬픔과 서글픔이 나를 점령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환경을 잊어버리고 호소한 때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님이 그 이상의 자리를 통해서 기반을 닦아 놓은 터전이 있으면 그 터전의 정성이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아버님도 하나님의 억천만세의 수난길을 걸어오시면서 뜻을 위해 들인 정성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성을 중심삼고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니 이것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정성들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정의 한 시간을 내 환경에 남기겠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지극히 몸부림치는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042-233, 1971.03.14) p. 274

11 본부를 대해서 자기가 바라던 기준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중심삼고 나쁜 의미의 평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본부를 그리워했던 그 그리움이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던 곳이 이곳이냐?'라는 생각을 학 입을 열어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리 정성을 들여 왔다 하더라도 그 정성들인 것이 거기에서 무효가 되고 맙니다. 초라한 본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성들여 나오던 곳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본부를 어떤 교회의 본부보다도 훌륭한 본부로 만들겠다.'라고 결의하고 눈물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 하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차원 높은, 하늘의 품에 품길 수 있는 좋은 동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식구들이면 누구나 대번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외국 식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국에 있는 통일교회 식구로서 이 본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 외국 식구들과 비교해서 뒤져서는 안 됩니다. (051-217, 1971.11.28)

12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역사에 없는 성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서 1960년에 성혼식을 했습니다. 36가정을 축복했고, 72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교회를 지으려면 당장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한국의 어느 교회에 뒤지지 않는 교회를 당장에 지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정성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을 중심한 동기가 되지 않고서는 욕심을 갖거나 그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전통의 역사라는 것은 수

단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051-228, 1971.11.28) p. 275

13 여러분 눈앞에 있는 통일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의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궁전을 다 구경했습니다. 그 궁전에 가서 볼 적마다 '나는 작은 집에서 세계를 살릴 것이다.'라고 하며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세계의 호화로운 집에서보다도 더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성과 심정의 샘터를 찾아올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위굴이든, 산등성이의 높은 어떤 곳이든 개의치 않고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곳이면 모두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 참된 생수라면 거기에 도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은 문화의 발상지가 될 수 있고 역사의 기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051-229, 1971.11.28)

14 본부교회의 기둥을 보면 내가 어느 때 이 기둥을 붙들고 눈물 흘리던 생각이 납니다. 역사가 회상되고, 그때 나라가 우리를 반대하던 상황이 눈앞에 훤히 떠오릅니다. 그런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수건 하나를 가슴에 일생 동안 보물 중의 보물로 품고 사랑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가져가서 쉽게 버릴 수 있는 손수건이지만,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값으로 보면 몇 푼 안 되지만 거기에 사랑이 깃들어 있을 때에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083-172, 1976.02.08)

3절 참아버님의 정성과 신앙 지도

정성과 투입

참아버님의 서대문형무소 출감과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 정착 이후 1957년 전반기까지는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위한 전열정비 기간이었다. 참아버님께서 전 본부교회를 중심으로 식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유효원 전 협회장의 원리강의와 더불어 전도에 주력하는 시기였다. 또한 자주 야외로 나가 훈련과 친화를 도모하였다. 신앙 열의와 예배, 원리강의 등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열렬하였다. 참아버님께서는 점퍼 차림으로 예배를 집례하셨고, 좁은 성전이지만 예배 때면 밤낮없이 식구들이 가득 찼다. 그중 10여 명의 대학교수를 비롯해 지적 수준이 높은 부인식구들과 청년식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전도활동은 자발적인 시스템에 의해 행하여졌다. (p. 275)

1 1957년부터 개척전도를 할 때 아버님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밤을 새워 가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새로운 세계로 출발할 때에 나 자신이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21년 노정을 승리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한 것입니다.

(114-232, 1981.10.20) p. 276
2 통일교회를 만든 이후에는 안방에 꼬부리고 앉아 새벽 3시 4시까지 매일 같이 7년 동안 정성들여 나왔습니다. '네 정성을 다 퍼부어라! 지치도록 퍼부어라! 배고파도 퍼부어라!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퍼부어라! 하늘이 공인할 때까지.' 이렇게 심정으로 씨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 씨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세계에 연결되어 나갈 것이다. 반드시 그것이 한때에 거두어질 날이 있으니 한국에서 못 거두거든 세계에서 거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82-324, 1976.02.01)
3 통일교회 초창기에 아버님은 코피를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역사적인 피를 대신해서 만민이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통곡하고도 갚을 수 없는 코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민이 맞을 매를 내가 맞겠다고 아우성치는 자리에서 맞았다면 얼마나 영광의 매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국자 중의 최고의 애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매를 열 대 맞은 사람이 있고 백 대 맞은 사람이 있다면 백 대 맞은 사람이 더 애국자입니다. 또 천 대 맞은 최고의 애국자가 있는데 만 대 맞은 최고의 애국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 대 맞은 사람 앞에 십만 대 맞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복을 갖지 않으려 해도 빼앗아 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047-334, 1971.08.30)
4 아버님이 청춘시대에 희생해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이어받아 그야말로 승리의 자리, 만국이 찬양하는 자리에서 만국을 사랑하고 만국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아버님 이상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복만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선두에 서야 됩니다. 아버님은 초창기에 식구들을 사악한 세상에서 흘러가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 밤낮 훈련시켰습니다. 비 오는 날 관악산에 비를 철철 맞으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미끄러져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국가와 싸우고 세계와 싸울 수 있는 큰 전장에 나서서 패배자, 패잔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훈련을 시켜 왔습니다.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143-331, 1986.03.21) p. 277
5 아버님이 1957년에 식구를 만들 때에는 일대일 작전을 했습니다. 남는 것은 일대일 작전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강의할 때에도 백 사람, 천 사람을 놓고 강의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수천수만 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명령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정성들여서 그럴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3단계의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되고, 여러분과 지방에 있는 식구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3단계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되고, 아담과 아담의 아들이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3단계 완성을 못하면 사위기대 완성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096-285, 1978.02.13)

6 아버님은 누가 나에게 심정적인 한마디만 얘기해도 통곡을 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척추가 내리 꽂히는 듯한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더라도 생활 전부는 기도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메어 쓰러지고, 나무를 붙들고 전신주를 붙들고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정, 억울하고 분통한 사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몸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의 심정을 체휼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슬픈 일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상에 중심적인 책임을 지고 왔으니만큼 영육을 중심하고 수습해주고 심정적 터전을 연결지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반드시 연결시키고 통고하는 것입니다. (060-219, 1972.08.17)

7 통일교회는 전부 보리밥을 먹기 때문에 거지들까지도 보리밥을 준다고 가지 말라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생일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생일도 못 지내고 죽어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동정해 주고 영계에 가서 인연을 맺기 위해서 3년 동안 생일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단상에서 양복을 입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복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놓고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다해 설교했지, 지나가는 손님 맞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연들이 그립습니다. (141-056, 1986.02.16) p. 278

8 아버님은 일생에 걸쳐 전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해 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는 잘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 환자를 위해서 생명을 투입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은 통일교회 식구들을 기르기 위해서 밤낮을 잊어버립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저녁밥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흘러가는 물도 쉬며 찬양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고기들까지도 여러분 밥상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동정할 수 있는 환경을 남겨 놓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먹고살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책임진 곳은 안 들어가 본 집이 없게끔 열 바퀴, 백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 바퀴, 만 바퀴를 돌면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을 마을마다 찾아가 백 바퀴, 천 바퀴를 돌겠다고 하고, 돌지 못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남의 심령을 책임진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참부모, 종적인 참부모와 횡적인 참부모의 도리를 대신자로서 이어 나가게 될 때 구부러지지 않고 바른 방향을 갖춰서 자리를 잡고 따라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20-305, 1991.10.20)

9 아버님이 1957년쯤에는 한 400명의 식구를 위해 언제든지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계점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자기와 관계된 식구들은 가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정성을 들여 보십시오.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 그들의 심령 상태가 상하게 될 때에는 별의별 모양으로 보여 줍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도 있고, 보자기를 쓴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여 줍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식구는 벌써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슬픈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070-181, 1974.02.09) p. 279

10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에는 시신경이 쉬다가 깨어나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겠구먼. 오늘은 이런 식구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얼굴색만 봐도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압니다. 걷는 것만 봐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안테나가 높아서 감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없이 그 환경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님은 어디를 가나 자기 목표를 중심삼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일념을 중심삼고 정성들이고 사방을 한 바퀴 돌면 평형을 이루어서 원형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올라가면 이 권내는 하늘이 주관할 수 있는 권이 되기 때문에 이 권내의 양심적인 인사들은 끌려옵니다.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정성들여야 됩니다. (207-349,

1990.11.11)

초창기 열기와 사랑의 바람

1950년대 참아버님께서는 열성적으로 식구들을 지도하셨다. 밤이 늦도록 식구들의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으며, 강단에 서실 때에는 눈물로 설교를 하셨다. 그러다 보니 식구들은 참아버님을 그리워하며 늘 교회를 찾았고, 교회에 와서는 집에 돌아갈 줄을 몰랐다. 이러한 신령과 진리,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교회는 수난을 딛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이룩하였다. (p. 279)

11 아버님은 옛날에 식구들을 기르던 재미가 제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식구들이 가고 싶어해도 이야기하는 재미에 취해서 계속합니다. 아버님은 1시 2시 3시가 되어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강의하면서 취하고, 강의하면서 눈물짓고, 강의하면서 감사하고, 강의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생명이라도 주사를 한 대만 주게 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늘이 같이하기에 거기에는 전기가 통합니다. 몇 억 볼트의 힘이 같이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이 납니다. 얼마나 통쾌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눈을 감으려 해도 감기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퍼뜩 눈이 떠집니다. (167-329, 1987.08.20) p. 280

12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살려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강의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1950년대에는 눈물을 안 흘리고 설교한 날이 없었습니다. 통곡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고, 피땀을 흘리고, 정신이 아뜩한 경지, 나 죽는다고 쓰러진 거기에서 나서겠다고 해야 하늘이 위로해 주고 역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가서 일하고 많은 전도를 했으면 잠자기 전에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진 군이면 군을 위해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거든 제일 깊은 골짜기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거룩한 곳,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172-196, 1988.01.21)

13 역사에 남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실적이 남습니다. 준비가 남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님 말씀이 아닙니다. 학교나 어디에 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적을 놓고 말해

야 됩니다. 강의하게 될 때에는 통곡을 해서라도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초창기에는 그 모진 박해의 와중에서도 피땀을 흘리면서 설교했습니다. 목이 터지게 설교를 해서 모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핍박에 지쳤지만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 힘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힘을 투입하려니 소모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정력을 다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끌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133-232, 1984.07.19)

14 1957년 1958년에는 아버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어떤 할머니,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말을 제일 잘 들어 주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 말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들어 주는 사람이라는 통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오게 되면 시집가던 날로부터 영감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도 나**한**테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선생님은 내 말을 다 들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말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을 거꾸로 들어서 다 털어야 그다음에 집어넣어면 들어갑니다. 말을 들어 줄 때에는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을 진정으로 들어 주고 또 내 말을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096-322, 1978.02.13) p. 281

15 내가 전도를 할 때에는 80세가 된 노인이 찾아와도 젊은 사람을 대하는 때와 다를 바 없이 대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 하늘땅에서 그 누구도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조상을 만난 것같이 반갑게 대해야 됩니다. 자기 할머니보다 더 반갑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바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대하는 것은 하늘의 질서적 법도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늘의 순리적 다리를 놓는 것이 됩니다.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047-321, 1971.08.30)

16 아버님을 따라나선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인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영감이 있고 다 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두었다가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고, 그저 화동해서 힘든 것을 풀어주려고 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내가 개척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야단하고 나라에서 추방하려고 하는데도 아버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사람이

전도되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매일 교회에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자기 집보다 낫고, 학교보다 낫고, 직장보다 나으니 집에도 안 가려고 하고, 학교에도 안 가려고 하고, 직장에도 안 가려고 하고 전부 교회에 모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096-144, 1978.01.03)

17 초창기에는 통일교회 여자식구들이 교회에 무척 가고 싶어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가고 싶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벌써 다른 세계의 말을 합니다. 영계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기라고 하면 그 사랑에 통할 수 있는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니 내가 가면 기분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갈 수 없어 찾아갑니다. 이 청파동 고개가 도깨비 고개입니다.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안 가겠다고 아무리 결심했더라도 방에서 나와 뜰을 빙빙 돈다고 했는데 대문을 열고 나가 어느새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 느껴 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166-228, 1987.06.07) p. 282

18 통일교인들은 몰리고 쫓기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내리는 동삼삭의 밤에 집에서 쫓겨난 가련한 신세의 식구들,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담벼락에 비벼대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내가 압니다. 이런 한이 가슴에 어려 있지만 하늘의 참고 참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 가슴에 하늘땅의 한을 품고 다니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면서 눈물을 많이 삼켰습니다. (157-138, 1967.04.02)

지속적인 원리강의

유효원 전 협회장은 초창기에 전도 대상자에게 원리강의를 도맡아 하였다. 처음 온 사람은 저녁에 와서 듣고, 사흘이 지난 사람은 대개 3일간 꼬박 묵으면서 수련회식으로 강의를 들었다. 하루 18시간 강의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거동이 어려운 유 전 협회장은 누워서 시험지에 적어 가며 강의를 했다. 강의 후에는 참아버님께서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하셨다. 새 식구들이 이 과정을 통해 원리말씀의 심오한 진리에 감화 감복되어 뜻길을 가기로 결단하였다. 훗날 오전과 오후로 강의를 계속하였다. (p. 282)

19 옛날 유효원 협회장은 3년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지금같이 식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을 앉혀 놓고 했고, 새로운 사람이 안 오면 그냥 그대로 우리 식구들을 놓고 매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172-047, 1988.01.07) p. 283

20 유효원 협회장은 강의할 때 내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앉아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듣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받았습니다. 저녁에 강의하러 내려와서 이야기하다가 1분도 안 되어서 조는 것을 보고 아버님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눈물의 교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듯 통일교회 역사는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래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영계가 역사를 안 하면 영계가 없는 것입니다. (107-249, 1980.05.19)

21 교회에 사람이 없더라도 문을 열어 놓고 통곡을 하면서 설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말을 좀 들어 보라고 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누구 때문에 흘리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그 길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의하다가 쓰러지면 내가 간호해 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내가 장사도 지내 주겠습니다. 그러면 영계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목이 터지도록 강의하다가 쓰러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님을 밀어주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107-248, 1980.05.19)

22 일주일 동안 통일교회에 와서 수련을 받고 시내에 나가면 몇 천년 전의 전차가 가든가, 버스가 거꾸로 가든가 할 정도로 만판 다른 세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전부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통일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겠습니까? 옛날 초창기에는 대문을 닫아걸어도 담을 타고 넘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라고 정문으로 쫓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와서 '엉엉' 울면서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야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밤낮없이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협회장에게

하루 18시간 강의하라고 했습니다. (107-244, 1980.05.19) p. 283

4절 전국 120개 지역 40일 첫 개척전도

120개 지역 40일 개척전도

참아버님께서는 1957년 7월 1일 식구들과 7일 금식을 함께 하신 데 이어 7월 20일부터 전국 120개 지역에 2명씩 40일 개척전도사를 파송하셨다. 이렇듯 본격적인 전도활동으로 식구들이 늘어나고 지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자 1958년 들어 지방 전도 체제를 강화하셨다. 1959년 들어 협회 주관의 40일 전국전도사수련회가 3차에 걸쳐 열렸으며, 이후 계속하여 40일 원리수련회가 지도자 교육과정으로 실시되었다. (p. 284)

1 하나님이 뜻을 성취해 드려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내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적인 문제와 관계를 지어 영원한 가치를 실현해 놓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천적인 복음의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의 길을 나서면 하나님이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위하는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재창조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002-014, 1957.01.06) p. 284

2 40일 특별활동은 1957년 7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통일교회 전 식구가 7월 1일부터 일주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버님도 그때 금식을 하면서 40일 특별활동을 선언했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언제나 7월 20일을 중심삼고 하계 40일 전도활동을 합니다. 이때는 학교도 방학을 하는 제일 더운 때입니다. 제일 더운 때에 뜻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탕감조건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탕감조건이 크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택한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에는 돈을 못 가지고 갑니다. 돈이 있으면 전부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갑니다. 자기 생활은 현지에 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든가 뭘 하든가 생활을 하면서 그 지방 사람들을 도와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167-240, 1987.07.19)

3 1957년에 통일교회에 처음으로 120곳에 전도를 내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돈을 갈 수 있는 차비만 가지고 옷도 두 벌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도 하는데 가서 미숫가루만 먹고 40일 동안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하고 얻어먹는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것

을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인간 최하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3년 동안 생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식탁도 없이 음식을 바닥에 놓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김치, 간장을 비롯해 세 가지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탕감복귀입니다. 입는 것도 얻어 입었습니다. (125-126, 1983.03.14) p. 285

4 초창기에 식구들이 전도를 나갈 때 불평불만을 하거나 돈 타령을 하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한 생명을 구하겠다고 새벽에 동네방네 모든 개를 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 동네에서 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백리길을 일하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해서 번 돈으로 동네에 돌아가서 뻥튀기 과자라도 사서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찬란한 섭리사의 자료로 남아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자료를 남긴 것입니다. (215-043, 1991.02.06)

5 1957년부터 전도기간을 정해 놓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서로서로 길가에서 만나 기뻐하던 그 시간, 또 서로가 헤어질 때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산허리를 돌면서 눈물로 이별하던 시간들은 여러분이 억천만금을 주고도 못 살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나 있습니까? 지극히 귀한 사연들을 전부 흘려버린다면 그 무엇이 귀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무대에서까지 여러분이 아버님과 동행해서 만민 앞에 하늘의 전통을 자랑하고 새로운 사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여러분이 그 재료를 만들고 어느 때에 그 재료를 수습할 것이냐? 이때밖에 없습니다. (051-272, 1971.11.28)

6 아버님이 1950년대 통일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훈련시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게 하고 개척전도를 시키면서 모든 분야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버님이 보고파서 찾아왔다가 돌아갈 때 늦으면 데려다주고, 밤을 새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버님만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자동차가 귀해서 전부 걸어 다녔습니다. 달밤, 새벽에 서로서로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하고 하늘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 선서하고 떠나던 그런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애국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사랑에 빠진 그 이상의 고차적인 영적 분위기에서 움직이던 것이 언제나 그립습니다. 그런 인연을 어떻게 유발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자기들의 활동 목표로 세워야 할 일입니다. 그 전통 기반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표준입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이 기반을 일으켜

나온 전통을 존중시하고 전통과 교육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자기 후계자들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잘했더라도 미래의 후계자들이 지금보다 못하면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잘돼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84-112, 1988.12.20) p. 286

7 책임자들은 말씀 선포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실적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뿌리는 책임자가 되지 말고 뿌리고 나서 거두는 책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두기까지에는 3년 이상 걸립니다. 대번에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1957년에 120군데의 전도지를 설정해 파송하면서 '여러분이 3년 동안 복역하고, 거기에 팔려가 고용살이한다는 입장에서 마을이면 마을에 가서 충성을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의 도리를 가르쳐 줘라. 이뿐만 아니라 실천해서 보여 줘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계받겠다고 할 것이다. 너도나도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은 그 마을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29-194, 1970.02.28)

초창기 전도활동 분위기

참아버님께서는 전국 각지에 전도대원을 파송하면서 편도 차비와 두 벌 옷만 가져가게 하셨다. 또 보리밥 이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전도대원들은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고 때로는 개밥을 거둬 먹으며 최하의 자리에서 개척생활을 하였다. 하루 벌어 한 끼 먹고살기가 힘든 그 시절, 전도대원들은 길을 가다가 영양부족으로 헛다리를 딛는 일도 많았다. 통일교회라는 말은 못 꺼내고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 청소를 하거나 밭매기 등을 해주면서 인연을 맺었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기에 집안 식구들과 세상 친구, 이웃으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받았다. 1960년 이후부터 식구들에 의해 서울시내 주요 공원을 비롯해 지방 각 도시에서도 가두에서 전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p. 287)

8 우리는 나이 많은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그동안 피어린 투쟁을 해 나왔습니다. 온갖 시련이 앞길을 막았으나 오직 뜻만을 생각하면서 이겨 왔습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 눈물과 피와 땀을 뿌려 발판을 닦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3년 노정을 출발할 때 죄인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후퇴하지 않기 위해 싸워 나온 것을 압니다. 임지를 지키기 위해 피를 팔면서까지 싸워 나온 식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한된 환경에서 수고했지만 그 수고에는 엄청난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는 앞길을 예비한 것이므로 새로운 방향을 갖추어 나갈 터전이 될 것입니다. (029-194, 1970.02.28)

9 통일교회가 맨 처음 전도할 때에는 사람의 입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몽시를 통해 '통일교회에 가라.'라고 해서 안 가면 방망이로 치는 일들이 벌어져 전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계에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영계에서 아들딸에게 '어디를 가면 문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안 가려고 하면 내쫓거나 몰아내서라도 기어이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통일교회 식구입니다. (049-201, 1971.10.10)

10 초창기에 전도 나갔던 책임자들은 핍박이 심하니 외롭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서로 소식을 몰로 궁금하게 되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통해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대개 50리, 100리입니다. 아무 날 두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50리 길이면 25리씩 걸어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장소나 있습니까? 그러니 네거리나 지서 앞, 다리 밑 등 이름난 곳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면 점심을 먹든가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헤어집니다. 그중에는 형님 같은 사람도 있고, 누나 같은 사람도 있고, 동생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차되는 심정의 애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자기 형제나 부모를 중심삼고 살면서 갖지 못했던 정열의 투입이 벌어집니다. '다음에 올 때에는 무엇을 해서라도 점심을 대접해야겠다. 닭을 사다가 대접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서라도 그것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나중에 노동을 해서 그것을 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피가 끓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턱이 먼저 떨립니다. 그런 경지에서 다시 만나면 서로 붙안고 기도하고 함성을 지르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삥 둘러서 있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던 그때의 그런 일들이 모두 역사적 자료입니다. (215-043, 1991.02.06) p. 288

11 한국에서 개척지에 나가 전도하던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한 끼 먹고살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헛다리를 짚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들이 어떤 동네에 개척을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동네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소문이 나고 핍박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0리 길 이상을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들이 본부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 가운데서 개척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 자기 사정을 식구들에게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 식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알고는 붙들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도시락을 갖다 먹이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밥을 먹어야 할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밥을 굶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서로서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죽더라도 뜻을 이루자.'라며 심정적 유대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094-229, 1977.10.01)

12 통일교회에 성화학생회가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통일교회 전도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부모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부모가 싸 준 도시락을 돌아가며 전도사한테 가져다주었습니다. 학생들이 30명이면 하루에 세 사람씩 도시락을 놓고 가게 되면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오고, 아침 점심 저녁을 돌아가며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도시락을 먹으면서 개척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보았다면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붙들고 뜻의 세계를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전진적인 그날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15-042, 1991.02.06) p. 288

13 통일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좋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던 학생이 통일교회에 들어간 다음에는 도시락을 안 가지고 오고, 점심때에는 혼자 교정에 몰래 숨어 있다가 교실로 들어오는 것이 동무들에게 발견되곤 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알려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친구가 계속 그런 일을 하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친구 어머니에게 가서 '아들이 점심을 잘 가지고 다니더니 요즈음 통일교회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안 싸주고 왜 그럽니까?'라며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 학교에서 도시락을 안 먹는다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크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했습니다. 더욱이나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을 빼앗아 가는 이리 떼가 들어온다고 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던 아버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094-230, 1977.10.01) p. 289

14 지금까지 우리는 외적인 분야를 중심삼고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나라의 한스러운 담벼락을 헐기 위하여 수난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해원하리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달갑게 받아 왔습니다. 이 삼천리반도를 누가 피땀을 흘려 지켰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부여안고 누가 충성을 했느냐 할 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만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만이 찾아오는 천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035-311, 1970.10.30)

5절 일본과 미국 선교

해외 선교사 파송

참아버님께서는 40일전도를 통해 국내 전도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셨다. 특히 서대문형무소 수난 다음해인 1956년 충남 계룡산 갑사에서 기도 중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다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예감하시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난국을 타개할 하나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 만일 일본이 공산권에 서면 반드시 한국이 위협받게 된다고 보신 것이다. 그래서 원수 나라였던 일본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편 상대국가로 세우려 하셨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야 했던 뜻이 여기에 있었다. 이와 함께 예수님 당시 로마와 같은 미국에도 선교사를 파견해 세계선교의 중심국가로 세우고자 하셨다. (p. 290)

1 아버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듯 진실로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나아가 사회와 국가 복귀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 낯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내 국가만을 위해 염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관심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를 보낼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정상적인 수속을 밟지 못한 채 조그마한 배를 타고 몰래 일본으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미국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에 원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귀섭리의 원칙은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섭리의 뜻이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찾아 들어오도록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015-072, 1965.02.13)

2 통일교회가 한국 정부에 등록할 당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1963년입니다. 아버님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천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벨이 구속을 받게 되면 가인을 세워서 탕감복

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옛날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이제는 외국을 중심으로 가인 제단을 형성하여 아벨 재단을 받들 수 있고 아벨 제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인연을 지어 놓기 위해 쫓기고 몰림 받으면서도 외국에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모험을 하면서 미국에 세 사람, 일본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자유당 정권하에서 성장에 나왔습니다. 자유당 정권은 통일교회가 없어질 것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에는 피어린 역사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반드시 국가적인 탄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내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느껴 미국과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고 독일에까지도 보냈습니다. (016-064, 1965.12.26) p. 291

3 우리는 세계 앞에 작전이 필요합니다. 엉클어진 세계를 참부모를 중심삼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탕감복귀노정을 넘어가야 할 때에는 5퍼센트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기준을 세워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같은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같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몰림 받고 핍박 받고 설움 받던 예수님의 사정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아버님이 말한 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만 사탄과 싸우다가 죽어 그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힐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013-212, 1964.03.15)

4 우리는 한국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사명도 해야 됩니다. 통일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버님은 자유당 정권의 핍박을 받으면서 일본과 미국에 선교사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한국 정부가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를 밀선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오늘날 이와 같은 승리의 터전을 절대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019-141, 1968.01.01)

5 한국이 살아남고 나아가 일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종교이념과 사상을 갖고 일본국민을 중심한 문화적 중심도시, 혹은 중심 터전 위에 어떻게 정착화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가서 규탄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교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정착화할 수 있느냐? 그것만이 미래에 한국이 살고 일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선교를 갔던 그 청년은 일본에서 피신하고 있는 몸

으로서 통일교회를 개척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적인 운동보다도 어떻게든지 일본 위정자들 앞에 길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통일교회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10-167, 1980.11.17) p. 292

일본에 선교사 파견

참아버님께서는 1958년 5월 30일 새벽 충남 계룡산 갑사 뒤뜰 소나무 숲에서 최봉춘씨에게 두 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신 뒤 일본 선교사 파견을 결정하셨다. 누구보다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일본을 구하시기 위해서였다. 최 선교사는 벅찬 설렘과 감회를 안고 1958년 7월 15일 부산을 출발하여 몇 곳을 거쳐 히로시마 구레항으로 항해 중 일본 당국에 불법 입국자로 잡혔다. 오무라수용소 감금, 외부병원 입원, 병원 탈출 끝에 도쿄 도착 후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던 중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도쿄교회' 이름으로 전단지를 돌리며 하나 둘 새 식구를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 10월 2일 신주쿠구 도쓰카초 니초메(新宿區 戶塚町 二丁目) 85번지에서 가진 첫 예배를 출발로 일본 협회가 발족되었던 것이다. (p. 292)

6 일본과 아버님은 일대일로 하면 원수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벌거벗고 있고 굶고 있으면 그를 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일본에 최봉춘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일본 전체가 반대하고 한국 자체가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수십년 후에는 그것이 한국을 위하고 일본을 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국 국민이 손을 모아 감사하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대한 탄압이 최절정에 있을 때 일본 선교사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꾼도 아쉬운 그때 눈물을 머금고 일본에 사람을 보내는 데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룬 업적은 일본 역사상에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와서 한국은 아버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합니다. 아버님도 일본의 역사상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했습니다. 일본 사람 이상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본이라면 일본 사람 이상의 심정으로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1969.04.27, 일본 도쿄)

7 일본이 내 원수이지만 내가 일본을 어느 나라보다도 사랑함으로써 앞으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상대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체국 앞에 상대적 국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

을 구하기 위해 빚을 얻어서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을 위해서였습니다. (083-109, 1976.02.05) p. 293

8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업을 개척한 때가 1958년입니다. 그때는 자유당 정권하여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극렬히 반대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삼고 소련과 중국이 후원하는 입장에 있음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난국을 해결할 하나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일본을 뚫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일 간에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치하에 있는 한 국민으로서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110-167, 1980.11.17)

9 우리의 뜻이 세계적인 뜻이라면 이웃 국가 일본에도 뜻을 펼쳐야 될 책임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뜻을 펼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난길을 거치면서도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책임을 하는 데에도 먹고 남거나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개척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빚을 얻어서 선고사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떠나보낼 때 '너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죽더라도 가야 한다고 내몰던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신의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데 빚을 얻어서 그런 일을 하니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뜻의 길은 좋을 때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032-307, 1970.07.26)

10 아버님이 일본으로 떠나는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정성들일 것이다. 죽더라도 임무를 다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가 부산을 통해 일본에 가자 붙잡혀서 히로시마에 있는 요시우라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한국을 송환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한테 표를 받아 들고 생명을 걸고 갔던 사나이가 죽으면 죽었지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송환되기 위해 시모노세키로 가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려니 기차 속도가 빠르고 굴이 많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모노세키에 도착해 송환되기 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송환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열흘을 금식하는 바람에 열병 같은 것을 앓게 되어 의사로부터 심장병이라

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전도를 해서 일본 통일교회 용사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023-137, 1969.05.18) p. 294

11 아버님이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천운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을 넘어선 자리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천운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일을 하려니 항상 죽음이 엇갈리고 고통이 엇갈리고 핍박이 엇갈리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남 좋은 대로 한다면 무슨 핍박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충입니다. 가로막을 때에는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교인들은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058-317, 1972.06.25)

12 일본에 첫 번 선교사를 보낼 때 내가 부탁한 말은 '누구보다도 일본 사람을 사랑해라. 눈물 흘리면서도, 몰리면서도 사랑해라. 쫓기면서도 사랑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을 남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일본 민족이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이상으로 그 기준을 뚫고 올라가게 될 때에는 그 민족은 머리 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도 도망쳐 나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제도하에서는 나쁘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일본 민족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쁘게 평하고 조건을 들고 반박했을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지남에 따라 남긴 사연은 앞으로 올 수많은 후손들을 눈물과 더불어 품을 수 있는 동기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159-056, 1968.01.28)

미국에 선교사 파견

참아버님께서는 1959년 1월 2일 식구들과 여의도 임시비행장에서 미국 선교사로서 최초로 파송되는 김영운씨를 환송하셨다. 김 선교사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 1955년 3월 통일교회 신앙을 이유로 퇴직을 당하고 있다가 미국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김 선교사는 미국에 도착하여 오리건대학교에 연구원으로 취직하였으나 학교를 그만두고 하늘의 밀사와 같은 처지에서 전도활동을 하였다. 영어 원리 교재를 제작하여 새진리와 영적 체험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 원리를 전하였다. 참부모님의 정성과 김 선교사의 활동에 힘입어 미국교회는 1962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법인단체로 등록한 데 이어 1963년 4월에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았다. (p. 295)

13 역사는 동시성의 시대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영적 이념을 중심한 제2 이스라엘이 있게 됩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2천년 전의 유대교 입장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중심한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대 나라와 같은 입장이며 미국은 로마와 같은 입장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내적 이스

라엘을 대표하는 내적 유대교 입장으로 세계 기독교의 축소형이며, 한국은 내적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과 같이 한국은 미국에 경제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와 한국 민족과 한국 기독교가 하나되었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유대교가 하나되지 못했던 것을 탕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함으로써 통일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대하는 기독교와 싸워 승리한 형으로 등록 허가가 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등록되었으니 이제는 사위기대를 중심하여 본연의 가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3-097, 1963.10.23)

14 우리는 세계적인 선교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우선 미국을 중심한 선교를 빨리 해야 됩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서구 문명을 이루는 데에 개척적인 사명을 하였지만 지금은 선도적인 역할을 미국에 양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미국을 상당히 동경하고 있다는 보수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새로운 입장에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을 부러워하면서 미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일반 청년들은 미국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구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증적인 결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024-098, 1969.07.13) p. 296

15 미국에 선교를 나간 김영운씨는 전도할 때 영통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이 책이 무슨 책인지 기도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고차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도해 보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해보면 불호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차렷을 하고 큰절을 해서 모셔 들여라. 그분이 돈이 없으니 돈을 줘라.'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미국에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049-202, 1971.10.10)

16 아버님이 미국에 선교사를 동부와 서부, 서북부에 배치했습니다. 동부에는 남자, 서부에는 여자, 서북부에는 남자를 배치했습니다. 동부의 남자선교사는 아담형이요, 서부의 여자선교사는 해와형이요, 서북부의 남자선교사는

천사장형입니다. 미국에 해와가 먼저 왔습니다. 해와가 먼저 와서 아담의 길을 닦고 천사장의 길을 닦아서 셋이 하나되는 사명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원리적인 관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 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이 갈라지면 천사장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60년의 환란시대에 이러한 섭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선교사를 이런 작전하에 보낸 것입니다. (067-256, 1973.07.01)

17 이제 미국이 새로이 각성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미국 땅에 새로운 새벽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있는 전체 주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주에서부터 다른 주에까지 여러분의 활동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수가 제한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 개인은 이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책임을 해내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못하면 아벨 입장에 있는 미국은 가인 입장에 있는 공산주의 정권을 통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진영 전체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책임을 완수한다면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5-073, 1965.02.13) p. 296

제4편 축복결혼을 통한 인류 구원

|차례|

제1장 축복결혼의 주요의식

1절 축복결혼의 의미 ····· 300
2절 축복결혼 상대 결정과 그 조건 ····· 307
3절 축복결혼 관련 주요의식 ····· 317

제2장 축복결혼의 역사

1절 36가정 축복결혼식 ····· 322
2절 72, 124, 430가정 축복결혼식 ····· 326
3절 777, 1800, 2075, 6000가정 축복결혼식 ····· 337
4절 6500, 3만, 2세가정 축복결혼식 ····· 341
5절 축복결혼 세계화와 축복결혼식의 확대 ····· 351
6절 조상해원식과 영인축복식 ····· 357

제3장 참가정운동과 축복가정의 전통
1절 청소년 순결과 참가정운동 ····· 366
2절 축복가정의 전통과 생활 ····· 373
3절 축복가정의 공동체 생활 ····· 381

제4편 축복결혼을 통한 인류 구원

참부모님의 중심 사명은 타락하여 원죄를 지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 중심에 원죄를 청산하고 타락한 혈통을 바로잡는 축복결혼 섭리가 있다. 축복결혼은 사탄 중심의 악한 혈통을 하나님 중심의 선한 혈통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타락 이후 혼란스러웠던 사탄 중심의 사랑을 청산짓고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축복결혼 섭리는 참부모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이상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며 과정이고 결과가 된다.

1960년 4월 16일 3가정의 축복결혼식을 시작으로 36가정부터 72가정 124가정 430가정까지의 축복이 민족·국가적인 축복의 형이라면 777가정부터 1800가정 2075가정 6000가정을 거치면서 국제축복결혼식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6500가정 축복은 한일 교차축복결혼식으로 이루어졌으며, 3만가정이후는 세계적으로 축복이 크게 확대되었다. 36만가정 축복과 함께 영인축복의 길이 열려 참부모님의 사랑을 통한 선의 혈통권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1997년 11월 29일 4000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을 처음으로 영인축복식과 함께 거행함으로써 영계 해방과 천주적인 축복권을 세우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결혼식과 더불어 청소년 문제와 가정붕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순결운동과 참가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셨다. 이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순결의 전통과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초종교·초국가·초인종의 영역으로 확대하여야 창조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축복결혼이 확대되고 대중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뜻 실현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이 자기 가정보다도 종족과 민족·국가·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밝히시고, 상대를 하나님 대신자로 생각하면서 이웃에 본을 보이는 것은 물론 종족과 국가·세계·천주를 복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축복가정의 삼위기대를 편성해 주시고 축복가정은 삼위기대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형제의 사랑을 체험하고 온 인류가 국경과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p. 299

제1장 축복결혼의 주요의식

1절 축복결혼의 의미

혈통복귀와 사랑의 질서 확립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부터 축복결혼을 통해 인간 구원의 새 장을 여셨다. 축복결혼은 사탄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축복결혼은 국가와 인종, 종교 등의 장벽을 허물고 온 인류가 교차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p. 300)

1 본래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완성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축복이 있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삼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천년 역사를 거쳐 선민 이스라엘을 찾아 메시아를 보내어 예수님시대에 축복을 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제3차 아담 재림시대에 와서 모든 국가적·세계적 승리 기반을 닦아 축복이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묶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215-273, 1991.02.21) p. 300

2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는 자기들을 중심한 그릇된 사랑으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중심한 사랑을 중심삼고 천사장을 개입시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본연의 아담과 해와를 추방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랑의 인연을 도입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원죄를 벗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거짓된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참된 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재현시키지 않고는 원죄를 벗을 수 없습니다. 원죄는 거짓 부모의 사랑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를 중심한 사랑의 기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035-215, 1970.10.19)

3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에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거짓 결혼을 함으로써 혈통과 소유권을 뒤집고 일족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통복귀를 해야 됩니다. 참부모의 순결**한** 혈통을 영원히 자기 후손에게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순결한 혈통을 이루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우리는 축복결혼을 통해 절대혈통, 절대소유권, 절대심정권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69-096, 1995.04.08) p. 301

4 부모님은 영계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혈통을 복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거짓 부모의 잘못된 결혼에 의해서 멸망의 인류가 된 것을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킨 혈통권을 이룸으로써 본연의 하나님나라로 돌아가게 하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은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준 것입니다.

5 아담 해와가 완성할 경우 하나님이 결혼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상대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되어야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첫사랑을 하는 그 자리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하늘땅이 하나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하나되고, 하나님의 혈통과 인간의 혈통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보이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로부터 형제, 부부,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일을 인간세계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가정을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과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286-017, 1997.07.01)

6 축복은 본래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딸한테 자기들의 사랑을 전수하고, 사랑의 부부·자녀·가정·국가·세계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종적 부모가 되어서 천주의 모든 소유권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축복결혼식입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세속적인 관념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의 사상은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의 중심은 참부모의 완성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참부모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천지만물도 생겨났습니다. (286-087, 1997.08.09)

p. 302

7 참사랑을 중심삼고는 모든 것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되지 않습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수평으로 연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앙에 하나님이 사랑의 전통의 수직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이 아담 해와가 결혼하는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무형의 하나님이 임재하게 됩니다. 천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와 땅 부모가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적인 성상 형상인 하나님이 외적인 성상

형상인 아담 해와에게 들어가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세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286-088, 1997.08.09)

8 통일교회는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통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힘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외적인 것은 수습할 수 있지만 내적인 인격이 기반이 된 사랑의 세계까지는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힘에 팔려 가지 않고 돈에 팔려 가지 않고 지식에 팔려 가지 않습니다. 참의 것에 팔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는 참된 사랑을 찾아 갑니다. 남자 여자는 참사랑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229-182, 1992.04.12)

9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가정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 후손인 요즘 젊은이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프리섹스의 근원이 에덴동산에서의 타락입니다. 그렇게 뿌린 것이 세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들이 그렇게 타락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동물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적 만족을 얻기 위해 동물과 마찬가지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 없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 인격의 표본을 제시하여 사랑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국가**와** 세계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을 통일교회가 손을 대어 재창조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세계가 하나되고, 악한 사탄세계를 하늘나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082-115, 1976.01.10) p. 303

10 통일교회가 세계적인 축복을 해주는 것은 가정시대가 오게 될 때에 중심적인 사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식은 백 몇 십개국에서도 한꺼번에 해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형제입니다. 전부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부 축복해 주어서 세계 대표가정들을 배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가정들이 참부모님을 따라오면 참부모를 중심삼고 부자관계가 맺어지고, 사위기대를 완성한 상대적 가정 기반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부모가 승리한 모든 것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수해 주기 위해 종족메시아로서 가정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232-266, 1992.07.10)

11 민족과 국가,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정문화를 창건한 것이 통일교회 축복결혼식입니다. 하늘나라권 내에 모든 나라가 들어가는 것

입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입니다. 타락은 몸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몸 마음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아들딸이 갈라진 것이 타락입니다. 가정적 타락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 가정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완성한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260-184, 1994.05.08)

12 천운은 세계가 한 울타리요 인류가 하나의 지구가족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달은 정보·통신·교통의 혁명으로 인해 인류 전체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가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공동보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간의 이기적이요 자기 본위적인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이며, 자국 이익 중심의 국가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시원이요 뿌리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과 천리를 따르는 데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즉 주고도 또 주고 싶고, 베풀고도 기억하지 않는, 그리고 대상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을 중심하고서만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참**부모 아래 한 형제라는 자각이 있을 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 아래 인류가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어 서로 위하고 화합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본인은 생애를 통하여 참사랑의 도리를 교육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위하고 베풀면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위하면서 이타적 실천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국가·초인종·초종교적인 참사랑의 이상가정을 이루는 국제축복결혼 행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 일은 인류문화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참사랑으로 국경을 헐고 인종의 벽을 뚫어 미움과 투쟁을 극복하고 서로 위하는 이상가정이 탄생함으로써 새 문화세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267-261, 1995.01.12)

13 교차결혼은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교차결혼, 혈통을 섞는 일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초월하고 대륙을 초월하여 교차결혼을 함으로써 혈통 수평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초국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간에 국경철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족 통합으로 인해 국경철폐를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교류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교류함으로써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부모와 하늘 중심한 문화를 중심삼고 결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86-180, 1997.08.10)

참된 결혼의 의미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결혼을 통해 참사랑을 중심으로 참된 부부와 참된 부모, 참된 자녀, 참된 형제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참사랑에는 상속권·동위권·동참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참사랑 전통을 이어받아 이를 사회와 국가 세계로 확산시켜 나갈 때 비로소 천국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p. 304)

14 창조원칙으로 보게 된다면 상대를 자기가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천리원칙, 재창조의 법도를 따라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상대를 찾아 주는 것이 천리의 공약입니다. 참부모님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천륜의 공약을 중심삼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알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 밑에서 참부모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결혼을 주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결혼관입니다. (083-218, 1976.02.08) p. 305

15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이치에 맞추어 상하를 갖추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리의 법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하 전후를 완전히 축소시키고 하나로 엮어서 사랑으로 두루마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된 우주의 핵심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그 사랑의 주체와 내가 상대적 관계를 맺어서 태양계에 속해 있는 모든 행성들이 궤도를 도는 것과 같이 영원히 궤도를 돌면서 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의 우주 인격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체와 대상을 이루는 세포와 같은 존재로서 남아지는 것입니다. (101-038, 1978.10.28)

16 남자 여자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나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달로 말하면 반달밖에 안 됩니다. 완전한 달이 되려니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대에게 자기를 위하라고 하면 도망가지만 위하려고 할 때에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222-098, 1991.10.28)

17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여자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남자

입니다. 남자가 사랑을 완성시켜 그것을 남자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여자 앞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주인입니다. 여자가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면 여자는 백년도 못 가서 없어집니다. 여자가 태어난 것은 남자를 위해서이고, 남자가 태어난 것은 여자를 위해서 입니다. 여자 남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혼자 못합니다. 축복받은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결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519-215, 2006.03.04) p. 305

18 많은 종교에서 독신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통일교회에서는 축복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결혼은 종교 역사에는 없습니다. 축복결혼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연결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 자리는 최고의 귀한 것을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 최고의 귀한 것을 상속받기 전에 그 최고의 귀한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이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세계 인류를 대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어 주는 자리에 올라가서 해야 됩니다. 씨는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맨 종자 씨와 내용이나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수천수만이 되더라도 아담 해와가 지녔던 본연적 가치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달라지면 종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61-052, 1994.05.22) p. 306

19 결혼은 사랑으로 하나되기 위한 본연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은 영원히 누가 못 깨뜨립니다. 종적으로 하나님이 있고, 횡적으로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남자는 서쪽에 있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찾아 갑니다. 그렇게 횡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지었습니다. 그들이 다 커서 상대가 될 때에는 남자의 눈은 여자, 여자의 눈은 남자에게로 향합니다. 아담 해와가 성숙했을 경우 여자가 한 발짝 가게 되면 남자도 한 발짝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똑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결혼한 첫날에 사랑을 통해 구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핵이 되고 아담 해와는 사랑의 부체가 됩니다. 이것을 옮겨 심음으로써 핵심적 사랑의 씨를 이어받은 것이 마음이고 부체적 씨를 이어받은 것이 몸이며, 그렇게 마음과 몸이 하나된 것이 완성한 아담 해와입니다. (222-023, 1991.10.27)

20 결혼은 하나님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하면 참사랑에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것이 됩니다. 아내 것이 남편 것이요, 남편 것이 아내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 동위권, 같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참권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인간 욕망의 최고기준인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나는 왕자와 같은 자리, 왕녀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왕자 왕녀의 자리에 서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222-100, 1991.10.28)

21 축복결혼은 하나님과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대표한 자리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 오빠 동생을 대신한 입장으로 남자를 사랑해야 되고, 남자는 어머니와 아내 누나 동생을 대신한 입장으로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4대 입장을 대신하여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서로가 그 자극을 느끼게끔 묶어 준 인연이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내를 어머니와 누나 동생 대신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남편을 아버지와 오빠 동생 대신, 그 이상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상상대를 중심한 가정의 부부사랑입니다.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37-108, 1970.12.22)

22 결혼하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만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가정에서 끝났고, 너와 나 사이에서 끝났기 때문에 갈래갈래 나뉘어 모래알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와 나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하늘땅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혈족이 벌어집니다. (037-109, 1970.12.22)

2절 축복결혼 상대 결정과 그 조건

축복결혼을 위한 기준과 조건

참부모님께서는 천년만년 공을 들이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만민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축복결혼식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축복에 앞서 원리수련과 전도, 금식 정성 등의 기본적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 결혼 상대는 반

드시 부모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p. 307)
1 축복을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 생활을 비판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례로 하는 것이 축복이다. 나 자신도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고, 교회에 들어온 지 몇 해가 넘었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소망하시던 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날을 맞이함으로써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할 수 있는 일치점이 마련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횡적인 터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내심에 일치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한 날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아들딸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030-172, 1970.03.22)
2 하나님은 사탄이 아담 해와를 침범함으로써 영광의 한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침범하기 이전의 아담 해와를 능가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부를 가져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딸을 찾아가 다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하나님은 위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사정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패자로서 남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번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후손이 걸려들고 또한 선조까지 걸려들게 됩니다. (030-173, 1970.03.22)
3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연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자기들끼리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은 끼리끼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입회하에서 결혼식을 했을 것입니다. 주례는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어릴 때에는 남매같이 철모르고 지냈지만 자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춘기권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를 보아도 때가 다 되었고 남자를 보아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얼굴에 수염 난 것을 보면 알고, 여자도 외형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하나님 입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인은 아담도

아니고 해와도 아닙니다. 사랑의 주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042-043, 1971.02.19) p. 309

4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대할 수 있는 남편도 하나요 아내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고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남아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못 들어갑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까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알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든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꿈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축복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랑하던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참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상의 사랑 관념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091-178, 1977.02.06)

5 여러분은 앞으로 청산할 것이 많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사탄 사랑의 줄을 달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혼자서 순수하게 자라던 아담 해와와 같이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로서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그 참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영계와 육계가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적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091-178, 1977.02.06)

6 축복결혼의 상대 결정은 하늘이 하고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 혼례식이 천법에 가까운 결혼 방법입니다. 부모의 승낙 없이는 절대로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부모에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부모의 공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이 사귀어도 좋다고 인정해 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보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030-188, 1970.03.22) p. 310

7 제일 복된 것은 순결한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천상의 뜻을 따라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지의 행운아입니다. 천하의 인생행로와 만사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장이 뒤집어지는 입장에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간절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부끄러운 몸이오니 어찌하오리까?'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오냐,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용서해 주고 그런 쓰라린 고개를 넘어온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다 알고 용서해 준다고 하는 하늘의 동정의 힘이 자기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축복의 자리에 참가해야 됩니다. (157-344, 1967.10.16)

8 이상적인 것은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둘이 좋다고 해서 이상적인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후손을 위하는 데에 이상적인 상대가 있습니다. 결국은 반대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제일 이상적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극과 극, 제일 싫은 사람끼리 만나서 제일 좋아하면 여기에서는 제일 좋아하면 여기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뜻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결혼관과는 반대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반대의 것을 감사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아무런 여성, 아무런 남성을 대해서도 이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반대 사람도 결혼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러한 입장에서 축복을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만 되어서 사는 날에는 걸작품의 아들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좋았으면 한 시대는 나쁜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대는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밑창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랑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069-328, 1974.01.03)

9 축복은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개인으로서 복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하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으로 하여금 종족·민족·국가·세계를 대신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자기 개체, 김씨면 김씨만을 위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 김씨만의 가정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대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축복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개체로는 두 사람이지만 역사적 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종족·민족·국가가 필시 현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반이 결정되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030-165, 1970.03.22)

10 통일교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우선 만물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는 사탄으로부터 나 자신을 찾아왔다는 조건을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는 믿음의 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창조원리에 의한 재창조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7년 동안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재창조해야 됩니다. 재창조하려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다시 만들려면 하나님 편에 속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년 이상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나를 재창조할 물질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희생시키면서 그런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3년 반 동안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나 자신을 찾아 세움과 동시에 이 기간에 세 아들 딸, 즉 믿음의 세 자녀를 찾아야 됩니다. 영계의 협조를 받고 영계와 인연을 맺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 아들딸을 그 기간에 찾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완성된 부부가 될 수 없고, 완성된 본연의 부부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62-059, 1987.03.22)

11 여러분 중에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식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서는 정식 교인이 되려면 일주일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내지 8일 동안 밥을 굶으면 대개 죽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생명을 건 하나의 목적을 중심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인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사탄에 대한 방어선이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는 이와 같은 절식을 함으로써 생활의 공포심을 언제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세계적인 뜻을 위해 '일주일을 단식하더라도 나는 전진하겠다.'는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위대한 전통이 될 것입니다. (073-010, 1974.07.21)

참부모님의 축복결혼 상대 결정기준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4월 16일 3가정 축복결혼식 이후 개인과 가정은 물론 후

손까지 내다보면서 짝을 맺어 주고 축복결혼식을 집례하셨다. 특히 국적이나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짝을 맺어 주시거나 사진을 통해 상대를 결정해 주셨다. (p. 312)

12 아버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계를 통해서 상대를 정해 주는데 손이 먼저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손이 찾아갑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다가도 발이 머무릅니다. 눈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장치를 했는지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정신수양을 하면 사탄과 하나님과 개인 욕망의 삼각지대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압니다. 정신을 통일해서 무아경지에 이르면 손발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살아남았습니다. (300-088, 1999.03.01)

13 아버님은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결혼 상대를 맞춰 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여덟 살 때부터 동네에서 결혼해 주는 대표자였습니다. 사진을 갖다 보여 주면, 척 보고 맞지 않으면 그림자가 집니다.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번에 압니다. 보고 사진을 집어던지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와서 어떠냐고 할 때에 사진을 그냥 놓으면 결혼해도 좋고 던지면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했는데 결혼하면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축복가정들이 있는데, 수백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인 데서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 가운데에는 자기 이상상대를 영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계에서 그 상대가 어느 나라의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받았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그것을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300-323, 1999.04.15) p. 313

14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결혼시켜 줬습니다. 남의 일생을 책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님은 사람을 보면 어떤 소질이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과부가 될 팔자인지 홀아비가 될 팔자인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아버님이 땅에 있지만 비상작전을 합니다. 안테나를 높입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공중에 띄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짝을 맞추어 놓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 여자를 열셋까지 맞추어 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님도 참 꾸준합니다. 자기가 싫다는 것을 왜 시킵니까? 내가 맞춰 주는 것은 자기들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책임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축복결혼을 해주는 데에서 정성을 들이고 해야 될 조건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57-211, 1967.04.02)

15 아버님은 수많은 사람을 지도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대번에 압니

다. 저런 남자의 얼굴과 이런 여자의 얼굴을 합치면 어떤 타입의 자녀가 태어날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상대를 고르면서 쭉 둘러보면 그 남자와 맞는 여자의 얼굴이 쑥 올라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손이 아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맞출 경우에도 손이 갑니다. 눈으로 쳐다보지 않더라도 걸아가다가 멈추어 서서 사진을 손이 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을 마음대로 갈라 버리면 큰일 납니다. (331-233, 2000.09.03)

16 아버님이 약혼해 줄 때 몇 천명씩 모아서 하게 됩니다. 5명씩 원하는 사람을 적으라고 하면 10퍼센트도 안 되는 남자 여장에게 전부 몰려듭니다. 1대 100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을 ale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기한 것은, 자기들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다 몽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몽시로 받은 것을 생명시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교회가 가르쳐 준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그것을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손이 압니다. 걸어가는 발이 압니다. 그렇게 해주면 영계에서 가르쳐 **준** 것과 틀림없이 맞습니다. (390-098, 2002.08.05) p. 314

17 남자가 뜨겁다면 여자는 차야 되고, 여자가 뜨겁다면 남자는 차야 됩니다. 상대를 그렇게 묶어 주어야 됩니다. 아버님은 척 보면 뜨거운 존재인지 찬 존재인지 바로 압니다. 화합될 수 있게 묶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스님이 일생 동안 자기는 한 쌍도 하기 힘든데 아버님은 수억 쌍을 했으니 무슨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수억 쌍을 볼 줄 아니까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 준 사람은 전부 괜찮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운세와 내려가는 운세의 중간에서 서로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묶어 주었기 때문에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아들딸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뜻을 위해 충성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보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상태를 보면 뜻을 위해 정성들였는지 어땠는지를 압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을 보고 그 아들딸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336-051, 2000.10.08)

18 사람을 보면 내려가는 운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운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죽거나 망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올라가는 운세이면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운세끼리 합치면 단명합니다. 그 아들딸도 오래 못 삽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쌍을 맺어 줄 때 높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은 낮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과 맺어 줍니다. 그래야 균형을 취하지 둘 다 높을 수 있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사랑의 길이 무서운 것입니다.

팔자소관을 조정하기에 따라서 일생의 문제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타원형이 되기도 하고, 수평이 되어 없어지기도 하고, 동그래지기도 합니다. 동그래져야 오래가는 것입니다. (2009.11.18, 천정궁0

19 통일교회 식구들은 기도하면 '네 이상상대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 줍니다. 북극 나라에 살던 백인이라도 먼 곳에 있는 섬나라 사람을 보여 주면 '네 이상상대는 이런 사람이다. 새까만 얼굴이 이상상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렇게 보여 줍니다. 약혼을 하는 자리에서 흑인도 몇 사람 없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흑인을 찾아서 맺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백인은 백인 가운데 앉아서 '흑인은 없구먼, 내 상대로 영계에서 가르쳐 준 것은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아버님이 찾아내서 맺어 줍니다. 영계에서 가르쳐 준 대로 아버님이 찾아내서 맺어 줍니다. 영계에서 가르쳐 준 대로 아버님이 어떻게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오색인종 가운데서 틀림없이 그렇게 맞춰 줍니다. (449-161, 2004.05.13) p. 315

20 아버님이 결혼 상대를 맺어 주는데, 수천 명이 앉아 있는 끝 쪽에 있더라도 상대를 대번에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이고 짝이 될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를 통해 10년 전에 보았던 사람과 틀림없이 맺어 주는 것입니다. 아버님 손이 향합니다. 발이 갑니다. 그렇게 맺어 준 것을 마음대로 평하고, 통일교회 축복결혼을 비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전부 탕감하고 해주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황공하게 생각하고, 한걸음 더 올라가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 가운데 역적이 없겠습니까, 살인마가 없겠습니까? 축복받은 여러분이 그 혈족의 결실로서 광명한 태양빛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340-283, 2000.12.27)

21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데는 원수가 서로 결혼해서 하나되는 그 이상의 직단거리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교차결혼을 하게 되면 절반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두 번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수끼리 어떻게 빨리 축복결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결혼하게 되면 평화의 세계는 반드시 빨리 오게 됩니다. 초민족적인 결혼을 시키는 데는 아버님이 챔피언입니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을 맺어 주는 것도 엉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짝을 맞추려고 해도 아버님이 보는 기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을지라도 살아 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고

가장 중요한 결혼이란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후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후손을 어떻게 바꾸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250-033, 1993.10.11)

22 아버님은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망하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원수가 있다면 천국을 못 이룹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면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인과 살인마를 축복해 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식과 살인마의 자식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교차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수 사이였던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백 퍼센트 교차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되게 되어 있습니다. (325-056, 2000.06.29)

23 아버님이 여러분의 결혼 상대를 무엇을 믿고 맺어 주느냐? 자기 눈으로 봐서 좋다는 사람보다도 앞으로 좋은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상대를 택해 맺어 줍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로 좋다는 사람과 맺어주어서 아들딸을 낳았는데 세상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을 아들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불행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불행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불구의 몸이거나 자기에게 어떤 결함이 있어서 느끼는 불행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은 후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생김생김은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좋은 점만을 닮은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짝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028-304, 1970.02.11)

24 여러분이 자기 상대를 찾는다고 해도 아버님이 볼 때에는 볼품없는 모습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찾는다면 아이는 모두 볼품없을 것입니다. 2세를 잘 낳아서 위대한 인물로 기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번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아버님은 진지한 입장에서 여러분 상대를 맺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맺어 줄 때 사진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것이 정말이냐고 할 것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면 선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선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자기 상대 사진을 보고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사진도 보지 않고 기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를 맺어 준 그 기준은 세계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사탄세계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183-077, 1988.10.29)

25 아버님이 짝을 맞추어 줬는데 그것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좋지를

않습니다. 절대 순응해 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볼트 너트를 맞춰서 끼울 때 처음에는 제 짝이 아닌 것처럼 잘 안 맞습니다. 결혼해서 대번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맞추어야 됩니다. 맞기를 바라고 맞추겠다고 해야지. 싫다고 하면 영원히 맞출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화장품 용기의 뚜껑을 닫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대번에 재까닥 맞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맞추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3대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3대를 통해서 맞추어야 됩니다. (233-034, 1992.07.20) p. 317

26 결혼은 일생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하나님의 욕망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맺어 줄 때에도 올라가고 내려가서 수평이 되어 통일되어서 하나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맺어 주어야 됩니다. 흑인이니 백인이니 하는 인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색깔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님이 해주는 축복결혼식이 전통으로 섰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봐도 부모보다 낫습니다. 그런 전통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몇 만쌍이 사진만 보고도 결혼하는 것입니다. (233-034, 1992.07.20)

27 3만쌍 축복결혼 때 사진을 가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세계에는 없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점자리, 절대신앙을 가진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해와는 타락함으로써 절대사랑을 못 가졌지만, 이들은 국경을 넘어서 사탄세계에 없는 사랑의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277-132, 1996.04.07)

28 아버님은 결혼 상대를 맺어 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평이 났습니다. 3년은 살아 보아라. 3년 동안 살아 보고 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하나 둘 낳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잘해 주었나 못해 주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아이고, 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아들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입니다. 선조와 후손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18-226, 1982.06.06)

3절 축복결혼 관련 주요의식

약혼식·성주식·탕감봉 행사

축복결혼식은 타락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탕감하는 복귀의식이다. 그래서 약혼식과 성주식, 축복식, 탕감봉 행사 등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특히 약혼식(約婚式)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약혼 단계의 상태로 복귀하는 의식이며, 성주식(聖酒式)은 원죄를 청산하여 사탄의 혈통을 하나님 혈통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축복식(祝福式)은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 축복가정으로서 책임완수를 서약하는 의식이다. 탕감봉(蕩減棒) 행사는 과거에 하체를 잘못 써서 타락한 것을 탕감하는 의식으로, 신랑 신부가 서로 둔부를 몽둥이로 세 번씩 치게 된다. (p. 318)

1 통일원리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중심삼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타락하기 전 약혼 단계의 입장으로 복귀하자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직전은 약혼 단계이니만큼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과 해와의 자리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약혼 단계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해와가 거짓된 사랑으로 타락하여 거짓 부모가 되었고, 이 거짓 부모를 중심삼고 세 아들인 가인과 아벨가 셋, 그리고 그들의 아내까지 포함한 여덟 식구가 타락한 입장에 섰기 때문에 이 여덟 식구의 형태를 복귀하기 위한 안팎의 비용이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입니다. 이것을 복귀한 후에 하늘의 부모를 모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부모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기대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 앞에 이 메시아가 없어서는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인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면 원죄를 벗지 못합니다. 그 메시아가 참부모입니다. 참부모가 필요한 것은 참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접붙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이 원죄를 벗어 버리고 죄 없는 해방된 자리에서 완성 단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혼식은 아담 해와가 약혼 단계에서 타락한 것을 복귀하는 식입니다. (035-216, 1970.10.19)

2 여러분은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진 혈통을 청산하고 창조본연의 선한 혈통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천년 역사를 전부 청산하고 탕감복귀하는 식을 하지 않으면 축복의 자리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약혼식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약혼 단계의 상태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035-210, 1970.10.18) p. 319

3 성주식은 타락으로 인해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사탄의 피를 뽑아 버리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를 뽑아 버리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 못 나아갑니다. 사탄의 혈통적 내용을 자신의 몸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려야 나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 원죄는 거짓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려면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탕감조건을 세워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원죄를 벗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 원죄를 벗지 않고서는 완성한 자리에서의 하나님 사랑을 중심한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035-216, 1970.10.19)

4 우리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다시 복중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중심으로 일체가 되어 복귀된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귀된 아담에게 돌아가서 일체가 되고 혈통을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와는 타락할 때 사탄을 중심으로 영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육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완전히 복귀된 아담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식이 성주식입니다. 사랑의 인연을 복귀하는 식입니다.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여자가 되어 실체로서 남자를 복귀하는 것이 축복결혼식입니다. (035-211, 1970.10.18)

5 성주에는 21가지에 이르는 여러가지 귀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혈통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는 타락세계의 혈통이 연결된 조건과 복귀된 세계의 혈통이 연결된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해서 하지 않으면 사탄세계를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한 그 기반 위에서 축복을 받아서 낳은 아들딸들은 타락세계를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주식은 혈통을 전환하는 식입니다. 참사랑은 개인의 심정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혈통전환식을 하지 않으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약혼 시절의 아**담** 해와권에 들어가서 성숙했다는 조건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소생·장성·완성기준에 있어서 완성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수양하면서 부부가 함께 완전한 방향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딸이 자기 부부를 하나님보다도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게끔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어 일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축복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29-074, 1992.04.09) p. 320

6 축복식 후에 탕감봉을 맞는 것은 궁둥이를 잘못 써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3시대의 혈통을 더럽혀 놓은 원한의 고개를 넘기 위한 조건물입니다. 이

아픔이 가시게 될 때에는 아들딸이 해방된 자리에서 하늘 앞에 쌍수를 들어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천지만물과 하늘나라 전체가 화답해야 됩니다. (215-086, 1991.02.06)

성별기간과 삼일식

축복결혼 후 40일 성별(聖別)기간을 거친 뒤 부부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40일 성별기간은 야곱부터 재림 때까지의 4천년과 참아버님이 걸으신 40년의 40수를 넘는 탕감기간이다. 이때에는 전체 뜻과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삼일식을 통해 소생·장성·완성의 3시대를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운 뒤 부부생활을 해야 된다. 성주를 통해 내적으로, 성건(聖巾)으로 몸을 닦아 외적으로 성결케 한 후 삼일식을 통해 실체를 복귀한다. 이틀간은 신부가 상위 사랑을 함으로써 어머님 입장에서 신랑을 낳아 주고, 사흘째에는 신랑이 상위 사랑을 함으로써 본래의 아들 위치를 회복하고 주관성을 복귀하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부부요 가정으로 탕감복귀되는 것이다. (p. 320)

7 축복결혼 후 40일 동안의 성별기간은 40년 기간에 해당합니다. 아버님의 40년 기간과 맞먹습니다. 이 40수를 넘어서야 됩니다. 복귀노정에서 야곱으로부터 4천년 후에 재림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4천년 수를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40수를 넘어가야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탕감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는 40고개를 넘어가서야 비로소 사랑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4천년 역사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동안은 사랑을 찾기 위한 역사입니다. 또 야곱을 세워 재림주까지 4천년을 연장해 온 것도 사랑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부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40일은 그것을 탕감적인 조건으로 세우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전체의 뜻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야지 자기 아내 남편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공동적 입장에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정성들여야 됩니다. 40일 동안에는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40일 기간이 끝난 다음에 부부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090-133, 1976.12.21) p. 321

8 통일교회에는 삼일식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병의 근원을 전부 파헤쳐 해독해서 치료할 수 있는 주사침입니다. 결혼해서 40일 기간을 거친 후에 처음 부부가 사랑관계를 맺을 때 여자가 하늘 편(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까지 그렇게 합니다. 소생·장성, 두 번까지 사탄 편이 하늘을 깔아 뭉갰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만에 비로소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천지 혈통전복식이라는 것입니다. (273-315, 1995.10.29)

9 여자가 해와 입장이면 남자는 천사장 입장입니다. 그러니 결혼 상대가 없습니다. 여자 앞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다시 낳아 주어야 됩니다. 그 실체를 낳아 주기 위한 것이 삼일식입니다. 40일을 중심삼고 역사를 대표해서 다시 낳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3대를 거쳐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를 거쳐 성약시대 자리에 와서 비로소 남편이 생겨났기 때문에 3일 째에는 남편이 아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인이 두 번 위에 올라가고 세 번째에는 땅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에 절대복종하고, 아내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과정을 중심삼고 구약시대·신약시대를 거쳐 성약시대에 남편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조건적 식이 삼일식입니다. (355-235, 2001.10.05)
10 하나님 편의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다시 낳아 주어야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 해와가 아담을 낳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체적 복귀식은 3일 동안 거행합니다. 그것이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3일간의 의식 중에 소생 장성은 여자가 위가 되어 복귀해서 낳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귀되어서 남자가 위로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남자가 위가 되어 생활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남자는 자기 아내를 따라야 됩니다. (229-075, 1992.04.09)

제2장 축복결혼의 역사

1절 36가정 축복결혼식

3자녀 축복의 섭리적 의미

1960년 4월 16일 서울 청파동1가 전본부교회에서 김원필(金元弼)·정달옥(鄭達玉), 유효원(劉孝元)·사길자(史吉子), 김영휘(金榮輝)·정대화(鄭大和) 가정의 3자녀 축복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참아버님께서는 성혼식 전에 3자녀 약혼식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3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된 이상권을 이루었다는 조건을 세우셨다. 축복가정도 믿음의 3자녀가 약혼한 뒤에 자신이 축복을 받고 나서 그 3자녀를 축복시키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날 축복식은 만물복귀의 식인 제1차식에 이어 3쌍이 영원한 부부가 되는 축복의 예식인 제2차식으로 진행되었다. 제2차식은 '자녀복귀의 식'과 '혼례본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아버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1성(性)을 닮아 나왔다. 이들 1남1녀의 결합은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과 마이너스 성품을 닮은 중심체이다. 또 부부는 하나님의 전체를 표상하는 이념의 결합이다. 특히 남자는 플러스 성품을 대신함으로써 참아버지의 분신이며 여자는 마이너스 성푸을 대신함으로써 참어머니의 분신이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은 천주를 품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 상봉이다.'라는 요지의 혼례사를 내리셨다. 그리고 3

자녀 축복은 영육 아우른 완성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p. 322)

1 1960년에 부모님은 성혼식을 올리기 전에 36가정 중 3가정을 약혼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성혼식을 올린 후에 이 3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베드로·야곱·요한과 같이 아버님을 중심으로 3자녀가 하나님의 이상권에 섰다고 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질 수 없다는 승리적 기반을 세운 것입니다. (055-164, 1972.05.07)

2 아담 대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대신이 재림주님입니다. 재림주님도 완전히 복종하는 3명의 신앙의 자녀를 갖지 않으면 참부모 입장에 설 수 없는 것이 공식입니다. 생사의 경지를 넘어서 박해의 한가운데도 따라가고 효도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은 그러한 3제자를 1960년 4월에 찾아 세웠습니다. 복귀노정은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것이니까 축복은 자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가정권은 야곱의 가정이니까 12수 기준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제자, 3자녀를 중심삼고 그와 같은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 가정의 가인 아벨 셋, 3인의 부활체로서 상대기준을 이루고, 그 기대 위에 약혼 입장을 넘어서서 실체적으로 부모 입장을 결정한 것이 1960년의 성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되는 아담 가정의 3자녀와 부모가 일체 된 입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상에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한국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에 새로운 역사의 운세가 돌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 위에서 1960년 4월에 3자녀를 축복하였습니다. (022-191, 1969.02.02)

3 3가정의 성례식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상입니다. 아담 해와가 성숙하면 이루어 주시려 했던 성례식입니다. 하나님 창조이상의 심정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실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식전은 창조 이후 처음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몸은 제물의 입장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남1녀는 무형이신 하나님의 실체대상으로 나타난 아들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한 실체대상입니다. (009-083, 1960.04.16)

4 믿음의 아들딸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느냐?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믿음의 아들딸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딸 열 사람 기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아버님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니와 성혼하기 전에 세 아들딸의 약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성혼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혼식은 내가 먼저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세워 놓아야 불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담 세계로 연결하여 가인세계를 살려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세 천사와 같은 믿음의 아들딸은 물론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141-218, 1986.02.22)

5 통일교회 축복받은 사람들은 혈통이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혈통을 전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가정들은 혈통전환을 했지만 악주권 내에 있습니다. 이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중심삼고 개인적으로 절대순종해야 됩니다. 세 천사장과 같은 입장이 36가정**의** 3가정입니다. 이들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기준에 서서 하나되고 그다음에는 가정적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 3가정이 하나되지 못하면 개인이 피해를 받게 되고, 가정이 피해를 받게 되고, 종족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부모님 가정에까지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가정이 중요합니다. (055-251, 1972.05.09) p. 324

36가정은 복귀된 인류조상

36가정 축복결혼식은 1961년 5월 15일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36가정은 아담 가정(제1 가정), 노아 가정(제2 가정), 야곱 가정(제3 가정)으로 각 12가정씩 세우셨으며, 이들은 지상과 영계의 조상가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제1 가정은 기혼가정이며, 제2 가정과 제3 가정은 미혼가정이다. 36가정은 1960년 4월 축복결혼한 3쌍과 1961년 5월 축복결혼한 33쌍을 합해 일컫는다. 축복식은 '제1, 제2, 제3 이스라엘 가정 성혼식'이라는 이름으로 새벽 4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3차에 걸쳐 거행되었다. 특히 혼례식은 한 쌍씩 입장하여 성혼문답과 성혼선포, 예물교환과 악수, 참부모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복식 후 피로연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신랑 신부들의 탕감봉 행사를 주재하셨다. 신혼여행은 버스를 전세 내서 인천 송도와 주안 쪽을 돌아보고 함께 고기잡이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5월 18일 36가정 가정선서 후 임지활동을 출발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36가정은 참부모 가정의 철옹성 같은 울타리가 되고 거름이 되어야 하며, 후배 가정에 대해서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p. 324)

6 36가정은 복귀노정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 받아 수행하지 못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사탄이 유린되었던 역사를 복귀한 입장입니다. 36가정은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심정을 계승하여 완성한 인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선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실패한 선조가 아니고 승리한 선조의 기준을 지상에 확립시킨 것이 36가정입니다. 그러므로 36가정은 복귀된 인류조상입니다. (055-167, 1972.05.07) p. 324

7 36가정 중에 제1 가정인 12가정은 기혼가정들입니다. 기혼가정들이 축복을 받아 이 땅에 연결됨으로써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살다가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이 지상과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영계에 있는 모든 선조들이 지상에 재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노아 가정부터 아브라함 가정까지 실수하여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세 아들을 찾음으로써 노아 가정이 실수한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는 야곱 가정에서 끝나는데 아브라함·이삭·야곱의 3대가 모든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결혼한 기혼 가정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가정을 다시 찾았다는 조건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해서 영계에 간 영인들이 복귀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에는 약혼 단계에까지 와 있는 처녀 총각들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성신이 약혼 단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바라는 내적인 심정적 기준이 깊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처녀 총각을 중심삼고 자기 시대 이상의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꿰어놓고 대표로서 탕감하기 위해 36가정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6가정은 잃어버린 36대를 대신한 조상입니다. (019-120, 1967.12.31) p. 325

8 36가정 축복은 선조들이 실수하였던 것을 현실에서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복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싸움이 36가정을 중심삼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을 사람들은 세상의 부모나 인연된 사람들과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사탄세계의 그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러분이 갈 길을 결정짓고 난 후에 초청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린 역사적인 한을 탕감복귀해야 되고, 종적인 역사를 현실에서 횡적으로 탕감복귀하여 조상들의 기원과 조상들이 세우려 했던 기준을 다시 찾아 놓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36가정을 축복한 것입니다. (016-061, 1965.12.26)

9 36가정은 역사적인 탕감조건을 밟고 올라선 가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에서 하늘 가정을 앞에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36가정은 과거의 대표자요, 오시는 주님은 현실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실이 비로소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한 입장이 될 때 세계적인 축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36가정이 지닌 책임입니다. 36가정은 역사적인 탕감조건을 막아낼 수 있는 결실의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탕감조건권을 세워서 탄생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입니다. 부모님 가정은 그 역사와 시대적 기반 위에서 승리한 가정, 현실적 입장에서 승리적 권한을 갖고 나타난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님 가정과 36가정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모님 가정이 없어서는 현실에서 새로운 세계

로 갈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 가정이 현실적 기준을 중심삼고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뒤에서 울타리가 되고 거름이 되어서 부모님 가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발전하게 됩니다. (028-063, 1970.01.03) p. 326

2절 72, 124, 430가정 축복결혼식

72가정은 가인 아벨의 종족적 복귀형

72가정 축복결혼식이 1962년 6월 4일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72가정은 가인 아벨 두 형으로 세운 가정으로서, 36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정형을 종족형으로 복귀한 가정이다. 이때부터 축복결혼식위원회가 결성되고 축복결혼식 취지서가 발표되었다. 축복 예식은 24쌍씩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p. 326)

1 아담 해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렇게 망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후손들이 싸움을 하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6대의 아들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고 하나되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로 분립한 수, 즉 36의 2배수인 72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이 72가정이 세워짐으로써 가인과 아벨이 싸우지 않고 사위기대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선조의 터전을 닦은 것입니다. 사탄을 방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019-121, 1967.12.31)

2 하나님의 소원은 개인구원만이 아닙니다. 가정구원을 요구하고 종족 구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6가정의 가인 아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팎에 횡적으로 두 가정을 연결시켜 72가정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횡적 세계의 축발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족장이 됩니다. 족장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15-279, 1981.11.22)

3 72가정은 예수님의 70문도에 해당합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70문도를 중심삼고 편성하려고 했던 종족을 이룬 형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70문도를 가정형으로 복귀한 종족형이 72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6가정과 72가정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12지파와 70문도와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형을 복귀한 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삼고 찾으려던 기본수가 다 찾아진 형입니다. (054-293, 1972.03.26) p. 327

공개적인 첫 축복행사 124가정

124가정 축복결혼식이 1963년 7월 24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24가정은 세계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120문도를 상징한다. 124쌍 축복결혼식은 한국인으로만 하는 마지막 축복이요 공개적으로 개최한 첫 번째 축복이다. 축복결혼식 후 신랑 신부들은 150대의 자동차에 분승해 서울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쳐 시민의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p. 327)

4 우리가 축복결혼식을 외부에 나타나게 한 것은 124가정부터입니다. 그것은 세계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기독교권으로 보나 세계적인 형 시점으로 보나 세계 운세를 중심삼고 섭리를 추진하는 주체국이기 때문에 124가정을 세계 대표로 설정할 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124가정은 세계를 대표하는 형입니다. 36가정과 72가정 축복은 우리 교회 내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를 중심삼고 민족 형성의 기반을 닦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중심삼고 내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적 기반을 보면, 세계사적 기독교문화권을 접선시키기 위하여 124가정을 중심삼고 세계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124가정이 축복을 받을 때에는 유엔 가입국도 124개국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세계 국가의 대표인 한국에서 내적 탕감 요인을 확립시키는 세계사적인 조건을 세우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110-123, 1980.11.10)

5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12수를 10배 한 120수는 평면적인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와 같은 수를 맞추기 위해 120쌍을 축복한 것입니다. 원래는 120가정이지만 4방수인 4쌍을 더해서 124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120문도를 대신한 124가정은 세계적인 형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에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대표형(形)으로서 세계적인 탕감조건을 세울 수 있는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4가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124개 국가가 넘으면 그때가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6-063, 1965.12.26) p. 328

6 124가정 축복을 할 때 그 가운데 전과자 4가정을 집어넣었습니다. 반드시 전과자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는 희생시키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이니만큼 믿는 신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양심적인 사람, 죄지은 사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국가대표를 세우고 가정적 문을 세워서 세계 만민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죄를 짓고 옥중에서 신음하는 사람까지도 통할 수 있는

문을 세워서 열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4가정을 중심한 축복 기반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100-172, 1978.10.14)

7 124가정 축복결혼식을 할 때에는 굉장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전부 택시를 타고 서울시내를 돌았습니다. 택시 150대가 달리니까 시민들이 다 놀랐습니다. 서울 장안이 뒤집어지고 삼천리반도가 흔들흔들하는 자리에서 올리는 이 결혼식이 남자든 여자든 한 번쯤 해볼 만한 결혼식이 아닙니까? 앞으로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외국 사람들도 데려다가 축복식을 할 예정입니다. (012-346, 1963.08.11)

4300년을 탕감하는 430가정 축복결혼식

430가정 축복결혼식이 1968년 2월 22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430가정은 한국역사 4300년을 탕감복귀하는 형(形)이다. 일본 가정 1가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축복을 외국인에게 연결하는 조건을 세우셨다. 이 축복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들은 관광버스와 자동차에 나눠 타고 서울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p. 328)

8 한국에서 통일교회가 국가기준의 탕감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진 것이 430쌍 축복이었습니다. 430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축복하던 해의 단기 4300년과 이스라엘 민족의 애급노정 430년에 해당하는 것이 43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상인 민족해방의 기준을 중심삼고 한국의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 이상의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종교와 같이 개인의 이상을 중심삼고 길을 열어 주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상대이상의 길을 사방팔방으로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을 움직이고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탕감의 실체를 지체 일대에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055-170, 1972.05.07)

9 한국이 개국한 지 4300년 되던 그 해가 430가정이 축복받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430가정은 모든 종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족을 대표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도 못 들어간 성씨가 있더라도 친척관계, 외갓집이나 고모네 집 등에서 들어가니 전부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각 성씨가 전부 430가정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갔습니다. 또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백성, 43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죄를 짓고 하늘 앞에 설 수 없던 사람에게도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전부 끈을 달아서 다리를 놓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저절로 살 길이 생기고 하늘나라

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133-197, 1984.07.10)

10 3수와 4수는 하늘과 땅을 상징합니다. 4수와 3수를 승하면 12수가 됩니다. 12수는 조화수입니다. 하늘땅의 조화수가 12수이기 때문에 전체 수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4300년 만에 430수에 해당하는 축복을 해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30수를 맞춰서 축복해 준 것은 대한민국 가정은 누구나 다 어느 때든지 자유로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을 세운 것이 430가정 축복입니다. 국가기준을 중심삼고 보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430가정 축복으로 말미암아 설정되었습니다. (075-151, 1975.01.02)

11 1960년을 중심으로 하여 36가정 72가정 124가정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노정의 마지막 고비를 중심삼고 430쌍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666수 이상의 축복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6수는 사탄수이며 그 위치는 하나님 앞에 원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6수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성가정까지 모두 합해 760가정이 7년 내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19-113, 1967.12.31)

12 아버님은 해와를 복귀하고 천사장을 복귀했으니 결국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담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가정을 중심삼고 아들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되게 되면 선한 사람이 탕감하는 시대가 아니라 악한 사람을 탕감시켜서 선이 이익을 보는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통일교회 운세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하나되어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가정적 사위기대 기반을 갖추어 아버님같이 사방으로 올라서게 될 때에 천운은 여기에서부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귀섭리는 이 원리를 안 거치고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세계를 중심삼지 않고는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들은 부모님 가정과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중심을 떠난 가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430가정을 축복할 때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신과 같은 사명, 즉 부활한 예수님과 성신의 실체로서 그 종족을 구하는 역사를 하는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이 아닌 실체로서의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040-217, 1971.02.01)

10개국 43가정 축복결혼식

참부모님께서는 1969년 제2차 세계순회 노정 중에 10개국 43가정 축복결혼식을

주재하셨다. 세계순회 중에 치러진 10개국 43가정 축복은 한국의 430가정과 연결시키고 세계로 축복을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참부모님은 2월 28일 미국 워싱턴DC교회에서 13쌍(신혼 7쌍, 기성 6쌍), 3월 28일 독일 에센교회에서 8쌍(신혼 7쌍, 기성 1쌍), 5월 1일 일본 도쿄교회에서 22쌍(신혼 12쌍, 기성 10쌍)을 축복하셨다. (p. 330)

13 1968년부터 시작된 제2차 7년노정을 중심삼고 세계가 돌아갑니다. 세계는 가인과 아벨이 싸우던 입장과 같이 우익과 좌익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우는 세계를 수습해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원리관입니다. 그것이 통일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리하여 1968년 정월 초하루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날을 이 지상에 설정했습니다. 이날은 통일교회로서 승리한 날입니다. 그리고 430쌍까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날을 횡적으로, 세계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겠기에 부모님이 1969년에 세계를 순방하면서 43쌍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430쌍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43쌍을 축복해 줌으로써 10개국을 횡적인 무대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세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58-223, 1972.06.11) p. 330

14 43쌍 축복은 국제결혼이 많습니다. 미국인은 독일인, 네덜란드인은 영국인, 이런 식으로 국제결혼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자기 나라 사람끼리는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감정이나 사랑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감정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모두들 좋다고 하니 그것을 보는 아버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축복을 해주고 나서 그들에게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역사상에 아시아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럽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통일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022-229, 1969.05.02) p. 331

15 430가정을 축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통일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한국 백성이 통일교회를 믿지 않고 있지만 430가정을 중심삼고 제3 이스라엘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권내에서 탕감조건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민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30가정을 축복한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땅과 백성을 확대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지를 택정해 놓고 그다음에는 430가정에 접붙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순회에서 40개국을 중심삼고 성지를 택정하고 2차 순회에서 43가정 축복을 했습니다. 430가정의 대수가 되는 43가정을 일본과 미국과 독일을 중

심삼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입니다. 그럼으로써 세계의 수많은 믿지 않는 인류도 이스라엘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천년 혹은 6천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를 거쳐 왔는데 그렇게 전통을 이어받아서 믿고 나오던 그들과 같은 혜택권, 믿지 않고도 평면적 시대에 그 혜택권 내에 가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110-124, 1980.11.10)

기성가정 축복결혼식

첫 기성가정 축복결혼식이 1963년 2월 8일 26쌍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거행되었다. 그리고 4월 7일 두 번째로 27쌍에 대한 축복식이 개최되었다. 이들은 축복결혼식을 받기 전에 가정을 이룬 부부들로서 대부분 협회 초창기에 공헌한 교회 원로급 식구들이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들 기성가정은 후배 가정들 앞에 본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한편 1992년 4월 10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대회 직전 행사로 1천 267쌍의 세계기성가정 축복결혼식이 있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33개국에서 참가하였다. 특히 참부모님께서는 중동 이슬람권 9개국에서 45쌍이 참가함으로써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 축복을 공개화했다고 말씀하셨다. (p. 332)

16 기성가정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둘이 결혼해서 이룬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남자면 그 남자는 하나님이 가정을 중심삼고 찾아 나오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대표적 중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벨에서부터 노아·아브라함·모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던 전통적 기원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야 할 대표적 존재가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가 지니고 가야 할 사상이나 생활관, 생애노정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기성가정을 중심삼고 사랑하던 그 사랑 이상의 자리를 남자가 먼저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옛날 가정에서 부부끼리 사랑하던 입장을 부정하고 새로 맺은 부부로서 역사시대에 없는 새로운 사랑의 인연을 세워야 됩니다. (058-171, 1972.06.11) p. 332

17 기성가정은 기성가정이 아닌 가정 앞에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시대에 아벨이 희생하였던 것을 탕감해 줄 수 있고 가정적 섭리에 있어서 아벨이 믿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서로서로 반발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의논할 수도 있고, 의논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가정을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으로 보

면 형님 가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형님입니다. 아벨은 동생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형제들입니다. 기성가정이 형님인데, 이것은 원치 않는 형님의 자리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더라도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아벨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가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벨이 하늘 앞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가인 가정이 아벨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더 많이 들여야 됩니다. (058-182, 1972.06.11)

18 대개 기성가정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적인 생활을 그냥 그대로 지니기 쉽습니다. 옛날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옛날 그 남자와 같은 입장, 그 여자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상습화되기 쉽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이 가정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옛날 가정보다 역사적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는 데 있어서 옛날과는 달라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들 둘만을 위했지만 지금은 자기들끼리 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야 됩니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위하지 못함으로써 타락하여 슬픔의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성가정들이 그런 하나님의 내정적 심정을 풀어 드릴 수 있고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부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이 찾아오는 아들딸을 중심삼고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058-174, 1972.06.11)

19 기성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는 축복받기 이전의 자녀와 다릅니다. 또 부모와도 현격히 다릅니다. 그렇게 현격한 차이를 결정지어 놓을 수 있는 책임은 먼저 남자에게 있으며 그다음에 여자에게 있습니다. 부부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내는 타락하였던 남자를 모시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자는 타락하였던 아내를 모시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과 해와의 기준을 세워 비로소 모셨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성가정은 옛날과 차원이 다른 입장에 있는 가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더욱이 기성가정으로서 다시 묶어진 그 가정이 하늘 뜻을 중심삼고 하나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 앞에 그야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의 뜻을 모르는 자리에서 슬픈 역사를 엮어 나왔습니다. 뜻을 중심삼고 새로이 묶어지고도 옛날의 전통과 습관에 젖은 생활 형태를 반복한다면 이것은 하늘 앞에 제2차적인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보다 현격히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가름하고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야 될 책임이 기

성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058-175, 1972.06.11)
20 기성가정들은 새로이 축복받은 가정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이 축복받은 가정들은 자기들만으로 새로이 가정을 출발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또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기성가정들을 비교하여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성가정은 지극히 중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성가정은 과거와는 다른 입장에 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격하게 달라야 됩니다. 현격하게 다르지 않으면 하늘의 가정, 하늘이 원하는 가정으로서 설 수 없습니다. 또 가인 입장이라 해도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이 축복받은 가정들 앞에 가인적인 가정으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통일교회 기성가정을 중심삼고 성립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결혼했던 세계의 수많은 가정들은 복귀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058-177, 1972.06.11) p. 334
21 내가 가정에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에게도 전부 길을 열어 주는 특사를 내렸습니다.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자리, 타락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아들딸 자리에 선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했으면 세계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더불어 여성해방 운동을 통해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가정을 중심삼고 타락했던 아담 해와가 다시금 가정기준으로 돌아온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외적 세계의 가정들 앞에 특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 모든 기성가정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종족적 메시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들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233-055, 1992.07.30)
22 아침에 태양은 올라올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환경을 창조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입니다. 본격적인 축복은 1961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세계화되는 때는 1992년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있다가 1992년부터 확장시킨 것입니다. 통일교회 축복을 공개화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시대 도래와 더불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325-317, 2000.07.02)
23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데 이들이 하나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992년 4월 10일 세계기성가정 축복결혼식을 통해서 아버님이 어머니와 더불어 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결혼 잔치와 더불어 전부 엮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권입니다. 그것이 국가기준입니다. 로마를 밟고 올라가 세계적 판도 위에서 다시 살아서 2천년 역사를 초월해 승리적 판도를 다지고 구원하여 어머니를 세계적 해와권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해방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축복을 해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갈 길이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230-055, 1992.04.15) p. 335

24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축복가정들은 전부 같은 수준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고 무슨 종교인이고 할 것 없이 참부모의 특권을 가지고 모든 가정을 같은 자리에 세워 주는 것입니다. 아벨을 축복한 것은 가인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의 부모들은 자기 멋대로 결혼했고 통일교회를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들은 종족적 메시아라는 이름을 중심삼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인 모든 중심분야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 8월 세계문화체육대전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일반 기성가정들에게 문을 다 열어 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자리에 서면 하늘의 혈족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33-301, 1992.08.01)

독신축복식

첫 독신축복식이 1963년 3월 28일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연령문제 등 사정에 의해 땅에서 상대를 맞이해 축복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독신축복을 받아 영계에서 상대를 만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축복식에는 입교 6년, 60세 이상 된 식구 41명(남 1명, 여 40명)이 참가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독신자 축복식이 개최되었다. (p. 335)

25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집가려야 갈 수 없고 장가가려야 갈 수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1963년 부모의 날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죽은 다음에 갈 가정적인 낙원형을 저나라에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의 낙원은 가정적인 낙원이 아닙니다. 상대 인연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천사세계와 마찬가지로 전부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부모님이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상대이념을 갖추게 해서 저나라에 예약된 낙원적인 가정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천국은 본래 가정을 중심삼고 부모처자를 거느리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것을 못했으니 부모님이 낙원적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지상에서 상대를 못 맺고 죽어 영계에 가게 되면 영인들과 상대할 수 있는 기준의 약속이라도 해야 됩니다. (152-037, 1963.03.03) p. 336

26 아버님이 아담 자리에서 타락한 해와를 복귀해야 이 복귀된 해와를 통해서 자기 상대를 복귀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해와를 복귀해 주니 비로소 하늘 편에 서게 됨으로써 미래의 남편을 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해와 말을 듣고 따라가 타락했지만, 복귀시대에는 완성한 해와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인을 찾아서 그와 하나됨으로써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계에서 상대를 찾아 약혼식을 하고, 해와 복귀식을 하고, 그다음에 성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랑을 복귀해 주는 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가야 여러분이 저나라에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다리는 영인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영인들이 자기를 상대로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먼저 가서 '우리끼리 살자.'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영계에 가서 승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1-310, 1978.11.07)

27 1978년 11월 7일 오후 5시 53분을 기하여 101쌍의 약혼식을 거행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딸들과 영계에 있는 아들들이 하나될 수 있는 인연을 허락하시옵소서. 지상의 딸과 영계의 아들을 상대로 맺어주는 데 있어서 미래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을 하늘의 이름과 참부모의 이름으로 부여하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온 영계의 영인들이 소원하는 추앙의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질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들과 더불어 지상의 어떠한 때를 지나 영계에 가서 묶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인연을 여기에서 결정하오니, 아버지, 부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계에 가서도 참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하나됨으로써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설정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는 실체를 갖고, 영계에서는 미래의 조건적인 영적인 실체로서 축복의 길을 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시옵소서. 이 101쌍의 약혼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제 거행할 결혼식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101-310, 1978.11.07) p. 337

3절 777, 1800, 2075, 6000가정 축복결혼식

국제축복결혼시대를 개막한 777가정 축복결혼식

777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은 1970년 10월 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축복식에는 한국 539쌍, 일본 235쌍, 구미 16쌍 등 10개국 총 790상이 참가

하였으며, 축복식 후 신랑 신부들은 42대의 대형버스에 분승해 서울 시내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참부모님께서는 777가정 축복을 통해 축복결혼식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p. 337)

1 1969년에 세계의 수많은 국가를 대표해서 43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국가기준의 430가정 앞에 43수의 상대적 가정입니다. 한국의 모든 종족들이 하늘권 내에 가담하는 특혜를 입었는데 이는 세계 민족이 가담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상대적 기준을 연결시키면 외적 세계의 종족도 내적 세계의 탕감 기준에 있는 한국 민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국제결혼시대로 들어갑니다. 한국 통일교회 교인은 한국 민족적 통일교회 교인이 아니라 세계적 통일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교회 식구가 있으면 그 식구는 독일 민족적 통일교회 식구가 아니라 민족적 통일교회 식구를 넘어서 세계적 통일교회 식구권 내로 들어갑니다. 결혼국제연합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777쌍을 중심삼고 국제결혼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00-033, 1978.10.04)

2 세계는 통일교회 운세권으로 들어와 점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 10월 21일에 처음으로 국제축복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777쌍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77쌍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직접 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777쌍 국제축복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개국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상을 중심삼고 세계 어느 나라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를 중심을 세계의 운세는 통일운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5-171, 1972.05.07) p. 337

3 부모님이 1970년 777쌍 축복식에 10개국을 참가하도록 한 것은 세계를 대표해서 10수를 탕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파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파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초민족적인 기준에서 새로운 지파 편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 외에는 여기에 돌어올 수 없습니다. 한국 민족을 위주로 해서 나아가게 되면 초민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초민족적인 길이 벌어집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 나온 그 형을 우리가 섭리적인 뜻 앞에 민족 편성을 하여 세계를 대표해서 묶어 놓은 것이 탕감적인 민족형입니다. (054-297, 1972.03.26) p. 338

4 777가정 축복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민족이라도 하늘에 갈 수 있게 다리

를 놓았습니다. 10개국을 중심삼고 역사한 것입니다. 43쌍도 10개국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10수 이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세계의 10개국이 비로소 하늘과 더불어 횡적으로 좌우 왕래할 수 있고 가정이 어디로 가더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놓은 세계적인 선포식이 777쌍 축복입니다. 3 곱하기 7은 21, 3-7수의 한의 고비를 탕감복귀하는 목적은 21년노정에서 영육계와 남자 여자를 중심삼고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으로 축복가정이 참소권을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터전을 10개국을 중심삼고 닦아 놓은 것이 777가정입니다.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의 것은 세계의 것이요, 세계의 것은 한국의 것이 됩니다. (058-061, 1972.06.06)

5 777가정은 3년간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복가정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로 가기 위하여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세계를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각국이 그렇게 되면 세계통일은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아버님은 그 전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055-108, 1972.04.29)

세계적으로 이목을 끈 1800가정 축복결혼식

1800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1975년 2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축복식에는 한국 892쌍(재일동포 18쌍 포함), 일본 811쌍, 구미 111쌍, 대만 2쌍 등 총 1천816쌍이 참가하였다. 이 가운데 87쌍이 국제적으로 맺어졌고 총 20개국이 참가하였다. 축복식에는 국토통일원 장관의 축사가 있었으며, 행사 후 서울 시내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p. 339)

6 1975년 2월 8일 1800상 축복결혼식[1]을 거행했습니다. 통일교회가 개인적으로 선을 보이고 가정적으로 선을 보이는 데 있어서 부모님 가정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일교회 교인들이 세계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승리해서 하나의 말뚝을 박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1차 7년노정, 제2차 7년노정의 공적을 터전으로 하여 제3차 7년노정 위에 부모를 중심삼고 여러분 가정을 평면도상에 횡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위, 하나의 공격전을 펼친 것이 1800쌍 축복행사였습니다. (077-217, 1975.04.12, 한국 전본부교회)

7 제3차 7년노정에 처음 들어와서 1800쌍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7년

1) 원문에는 합동결혼식으로 쓰여 있음.

노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타락권이 아니고 완성권 내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빛나는 전통으로 남겨야 됩니다. 1800가정 축복은 세계적인 축복입니다. 20개국에서 모여 와서 세계사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초민족적인 전통기준을 세우는데 있어서 한국을 대표한 여러분은 부끄러운 사나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나라가 그 경쟁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축복을 받았으니만큼 주체국으로서 빛나는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자기들 멋대로 해서 타락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083-255, 1976.02.08)

2075가정과 6000가정 축복결혼식

1982년 7월 1일 미국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2075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개최되었다. 참아버님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축복식에는 1979년 5월에 약혼식을 올린 705쌍과 1980년 12월에 약혼식을 올린 843쌍, 1982년 6월에 약혼식을 올린 653쌍이 참가하였다. 1982년 10월 14일에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6000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개최되었다. 6000가정 축복결혼식에는 한국 1천500쌍, 일본 3천600쌍, 동남아 90쌍, 미국 150쌍, 중남미 100쌍, 유럽 400쌍, 아프라카 60상 등 85개국에서 참가하였다. (pp.339~340)

8 1982년 7월 1일에 2075쌍 축복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쌍만 해도 그 동네가 축제를 하는데, 수천 쌍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행사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이 놀랐을 것입니다. 서구사회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축복결혼식을 많이 자랑해야 됩니다. (119-009, 1982.07.03) p. 340

9 지금 아버님이 미국에서 법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초상집이 되고 야단할 일이지만 2천쌍 이상 결혼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런 때일수록 이런 모든 것이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반대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재촉하느냐? 그것은 아버님이 모스크바대회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119-011, 1982.07.03)

10 6000쌍 축복결혼식은 섭리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하나의 종착적인 결말을 지은 행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한국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전세계 사람들의 심정을 모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무대로 확장하는 세계적 확장운동을 통해 전 세계인의 심정을 규합시킬 수 있었던 좋은 한때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나라가 85개국입니다. 자유세계는 물론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참가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대회 자체는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영계의 선조들, 85개국의 선조들이 전부 단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섭리상에 별의별 축복할 일이나 자랑할 일이 많았지만 영적 세계 전체가 초국가적인 입장에서 단합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섭리역사 과정에 이 한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85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서 축복받는 그 순간의 환경이라든가 축복받는 본인들도 역시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바라보는 초점과 지상에서 바라보는 초점이 일치할 수 있었던 때는 지금까지 역사상에도 없었지만 금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세계적인 경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121-045, 1982.10.15) p. 341

11 통일교회는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축복결혼식을 합니다. 통일교회는 인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에 있어서는 백인이 다르고 흑인이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가 위대하고 통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6000쌍 국제축복결혼식 때에도 내가 일본 여자들과 흑인들을 70쌍 정도 결혼시켰습니다. 강제로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140-260, 1986.02.12)

12 6000쌍 축복을 받은 사람을 세계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종이 완전히 묶어지고 종횡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상하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동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역사적인 조류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조수가 달라집니다. 가정적 이상은 사랑을 중심삼고 이루어지는데, 비로소 세계 역사 이후에 사랑의 조수가 하나님 편으로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 이번 축복입니다. 비로소 지구성에 사랑의 사춘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6000쌍 축복결혼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6수는 사탄수인데 사탄권 내를 격파할 수 있는 것이 6000쌍입니다. 사랑의 6000쌍 깃발을 휘날림으로써 사탄세계는 완전히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122-111, 1982.11.01)

4절 6500, 3만, 2세가정 축복결혼식

교차축복시대를 개막한 6500가정 축복결혼식

6500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1988년 10월 30일 일화 용인공장에서 거행되었다. 이 축복결혼식은 17개국에서 참가하였으나 한국 신랑과 일본 신부 1천 435쌍, 한국 신부와 일본 신랑 973쌍 등 한일 간의 교차결혼이 상당수였으며, 일본 신랑과 일본 신부 3천660쌍도 참가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약혼식에서 주로 사진으로 결혼 상대를 결정해 주셨다. (p. 341)

1 6500쌍을 축복할 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교차결혼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담 국가는 한국이요 해와 국가는 일본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제멋대로 결혼함으로써 세계를 잃어버렸던 것인데 이제는 국가기준에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188-314, 1989.03.01)

2 국가기준의 2세들이 교차결혼을 함으로써 사탄세계는 무너지고 부모님의 전권시대의 터에서 이상천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상징물**로**서 모여온 것이 6500쌍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이내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간부들이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야단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돕게 되고 한국대사관이 돕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도왔다는 조건을 세우고 한국도 도왔다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190-282, 1989.06.19) p. 342

3 1988년 10월 3일 세계통일국개천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나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개인적으로 타락해서 사탄에게로 갔으니 이것을 탕감해서 복귀해 가는 데 있어서 사탄세계를 대표한 아담 국가와 해와 국가의 2세들을 중심삼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으로 복귀해서 가나안 7족에 물들어 결혼을 잘못해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가 다 파괴되어 문란한 사회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부모님이 한국의 2세들과 일본의 2세들을 교차결혼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덴동산에서 개인적으로 결혼을 잘못함으로써 사탄세계가 되었는데, 하늘부모와 참부모를 중심삼고 아담 나라의 대표와 해와 나라의 대표가 교차결혼을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하늘에 안길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199-082, 1990.02.15)

4 한국과 일본이 원수 나라인데, 이것을 물리치고 한국에서 교차결혼을 해주었습니다. 한국도 반대하지 못하고 일본도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결혼하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6500쌍 축복행사를 전부가 환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 사탄이 따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83-347, 1988.11.09)

5 부모님이 서울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1988년 9월 27일에 섭리적 통일전환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10월 3일에 세계통일국개천일

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체국인 아담 국가 한국과 대상국인 해와 국가 일본의 2세들을 묶은 것입니다. 올림픽 때에 세계의 청년들, 2세들을 묶었으니 통일교회 내의 한국과 일본의 2세들을 교차결혼시킨 것입니다. 이 교차결혼은 아담 해와가 개인적인 한 부부 입장에서 타락한 것을 복귀하기 위해 국가적인 입장의 아담 해와가 아들딸을 대표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한 개인으로 타락한 아담 해와가 국가적 대표의 입장에 섭으로써 2세들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를 통일하니 그 하나된 기반 위에 부모님이 서는 것입니다. (204-273, 1990.07.11) p. 343

6 1988년 10월 30일 6500쌍 합동결혼식을 하였는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교차결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통일교회 교인들끼리 사진을 보고 결혼시켰다고 하면서도 신랑 신부끼리 다 말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도 모르는 사람끼리 맺어져서 몇 천명이 앉아 있지만 조용했습니다. 왜 조용했습니까? 말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은 꼭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1만5천 명이 모였는데 한번 짝을 잃어버리면 서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멋집니다. 그런 것은 통일교회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186-027, 1989.01.24)

초국가·초인종의 결혼 대축제인 3만가정 축복결혼식

1992년 8월 25일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세계 131개국 선남선녀들이 참가한 가운데 3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개최되었다. 이 축복식은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축복의 세계화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항공편 예약 등으로 미처 입국하지 못한 6개국 축복 대상자들을 위해 처음으로 위성중계가 이루어져 이들도 같은 시간에 함께 축복예식에 참가하였다. (p. 343)

7 1992년에 3만쌍 세계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3수는 완성수로서 하늘수를 대표합니다. 소생·장성·완성입니다. 3만가정을 축복했다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3만쌍 결혼 후에는 통일교회 합동결혼식에 대한 반대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만쌍 결혼식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도 없고,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고, 문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할 때에는 그 경계선을 못 넘고, 자기 나라를 중심삼고, 자기 나라에서도 자기 족속을 중심삼고 그것도 자기와 관계있는 족속들만 찾아서 결혼했지만, 이것을 완전히 터 버린 것입니다. 국경이나 민족·인종·종교·문화의 벽을 전부 터서 한 형제로서 비로소 결혼운동에 처음 가담하는 역사가 국제축복결혼식

이라는 것입니다. (269-301, 1995.05.01)
8 3만쌍 축복은 국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정치권을 초월해서 한 국제결혼입니다. 3만쌍이면 6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흘도 아니고 하루에 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130여 국가에서 백인·흑인·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와서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아무리 달라도 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위하여 사는 삶의 문화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천하게 살지만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20년 후에 하나의 세계,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48-184, 1993.08.03) p. 344
9 3만쌍 축복 때에는 공이 없는 사람까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종족적 메시아를 보내서 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들이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반대했고 그 종족 전체가 통일교회를 반대하였습니다. 극성맞게 반대한 사람들은 도리어 통일교회에 들어온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반대한 부모를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242-105, 1993.01.01)
10 세계의 가정들을 연합해서 세계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를 초월한 세계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번 3만쌍 세계적인 축복식입니다. 이것은 세계가정부활식입니다. 이 세계가정부활식을 하는데 여기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세계가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가정을 끌어다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할 때에는 여러분이 가정 전도를 하는 것은 무사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체의 역량을 담당할 수 있는 실증적인 내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234-342, 1992.08.27)
11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만조까지 6시간이나 걸립니다. 수평까지 가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때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복귀를 통해 국가기준 세계기준을 갖추게 되면 1시간 내에 평면기준에 설 수 있습니다. 시대의 혜택권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참부모가 오시는 것은 전 세계 만민을 평등한 입장에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없으면 세계 인류를 한꺼번에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수권의 입장에 서는 조건으로 일주일만 수련받으면 똑같이 만수가 된 것과 같은 기준에서 축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것이 3만쌍 축복입니다. (257-206, 1994.03.15) p. 345
12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축복결혼을 통해서 만국에 통일

권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3만쌍까지 부모님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면적입니다. 같은 혜택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하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인 아벨의 세계적 판도를 하나 만들기 위한 하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복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사탄 편을 추방해서 세계를 수습하고 비로소 천주에서 세계·국가·민족·종족·가정까지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늘이 찾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 위에 오시는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사탄을 추방한 가정의 기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 시대가 3만쌍 축복을 중심삼고 3년노정을 거치는 때입니다. (269-011, 1995.04.06)

13 하나님을 중심삼고 결혼하지 못한 것이 타락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족보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만쌍 결혼식 때에는 이런 족보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인류를 평면상에 세워서 부모님이 책임지고 해방의 자리에 세워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주일 수련을 받고 축복을 통해 참부모가 역사 전체를 탕감해 줌으로써 자신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49-249, 1993.10.10)

2세 축복과 2세 가정의 책임

축복가정 2세 첫 축복결혼식이 1986년 4월 12일 36쌍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참부모님께서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야 될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기 개인을 중심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가에서 일대 혁명을 제창하기 위해 결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역사적 페이지를 우리로 말미암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이 식전에 임해야 된다.'고 당부하셨다. (p. 345)

14 축복가정 2세의 뿌리는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을 절대시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가정보다도 절대시**해**야 됩니다. 부모님 나라와 부모님 세계권, 하늘땅을 찾아서 그것을 모시기 위한 전통을 전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과 세계와 나라의 전통을 종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제1문호, 잎과 가지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늘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횡적인 대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라의 전통이 있어야 되고, 세계의 전통이 있어야 되고, 세계의 전통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의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류사상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되어 사탄세계의 역사와 격

리된 새로운 족속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144-070, 1986.04.30) p. 346
15 여러분 2세를 왜 축복해 주어야 되느냐? 2세 자체의 가정을 택할 때, 그 가정이 세계 도상에서 핍박받는 가정에 속해 있으면 그 2세들을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섭리적으로 볼 때 통일가에서 축복가정들도 핍박받을 수 있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습니까? 참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참부모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대 부모를 모셔야만 복귀됩니다. 종적중심인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종회에 연결될 수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3대 부모입니다. 아버님은 종적인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낙제를 안 했습니다. 틀림없이 모셔 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착륙하였습니다. 위로부터 완전히 뿌리를 박았습니다. 착륙한 거기에 여러 가정들이 수평선을 중심삼고 있고, 여러분의 부모는 수평선이 된 가정이니까 평화기준으로 만국의 가정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144-070, 1986.04.08)
16 통일가에 2세 축복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2세들이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축복가정이 잘못함으로써 침범받은 조건을 다시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2 방어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중심삼고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닦아 놓은 세계 기반 위에 대한민국 백성이 영적으로는 통일교회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45-063, 1986.04.30)
17 2세 축복받은 사람들은 축복가정들의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러기 떼가 날아갈 때에는 선도자가 있어서 가는 방향을 안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족을 중심삼고,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를 대표해서 여기에 불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기들을 위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187-205, 1989.02.11) p. 347
18 아버님은 가정을 중심삼 천국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허덕여 왔습니다. 국가와의 모진 싸움, 모진 풍상을 겪어 오면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이루어진 가정 중심의 천국 기반과 가인 부모 사위기대 기반이 하늘과 더불어 완전히 하나될 때 천국은 거기에서부터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들을 앞장세우고, 탕감복귀의 조건으로 2세 36가정을 축복한 것입니다. (145-349, 1986.06.01)
19 2세 축복받은 가정들은 사탄 악마를 단 한방으로 때려치울 수 있는 개인적인 권한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와 천주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나 개인의 입장에서 사탄을 때려치울 수 있는 아들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을 대표해서 사탄의 멱살을 잡고 몰아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탄이 무서워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주의 대원수, 악마를 개인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2-193, 1987.04.12)

20 2세 축복가정들은 본래 동서남북, 상하·좌우·전후를 통해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중심삼고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서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해야 될 것이 2세 축복가정입니다. 앞으로 2세 축복가정은 남녀문제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187-206, 1989.02.11)

21 2세 교육에서 부모님이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습관성을 망각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통일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을 중심삼고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2세들이 축복도 안 받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통일교회를 벗어나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음행을 하면 돌려 때려죽인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이상의 무서운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천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자기 일국을 망치고 세계를 망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148-213, 1986.10.09)

22 통일교회 여러분은 세속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대 확청운동을 해야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2세 36가정은 부모님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72대 조상들이 걸려 버립니다. 영계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축복받고 낳은 자녀가 그게 뭐야?'라고 시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들딸이 잘될 수 없고 가는 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할 수 없으니 죄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줄을 달아 끊어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내 아들이 2세 축복을 받았으니 적당히 움직여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뜻을 세계로 발전시켜 세계 축복기준을 세워 만년 해방의 축복이라는 해방의 길을 가야 할 운명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축복 가정들이 책임을 못했으니 아들딸들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169-201, 1987.10.31) p. 348

23 축복가정 2세 여러분은 오직 부모님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탈락해 버립니다. 2세들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한 것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 아들딸이 잘못해도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

려면 여러분이 3세대를 중심삼고 책임 맡아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희생시켜서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 말에 절대 순응해야 됩니다. 입이 있다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회에 대해 불평하면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증법 논리가 투쟁개념입니다. 불평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파탄시키면서 이론적인 터전을 갖고 나와 세계무대를 혼란시키는 이때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9-202, 1987.10.31)

24 아버님시대 40여 년 가운데서 4천년의 역사를 뒤집어 샅샅이 다 꿰매고 심정의 근원에서부터 그 어긋난 길까지 다 바로잡아서 인류의 해방권까지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군림하여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도리를 펼 수 있었다는 것은 꿈같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짓말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나라를 찾아 세울 때까지는 내 다리를 안 보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부 졸라맸습니다. 사탄세계에 보이기 싫었습니다. 또 아무데나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 관리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 앉을 때에는 반드시 성별하고 앉고, 일어설 때에는 반드시 성별하**고**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걸어온 것은 사탄세계를 분별하기 위한 본연의 자세의 길인 것을 알고 2세 여러분만이라도 그 전통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 전통을 못 받은 것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한인 줄 알고, 2세 여러분만은 이 전통을 받아 살겠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182-160, 1988.10.16) p. 349

25 2세들은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 역사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핍박이 남아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없으면 부모님과 여러분의 부모가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뿌리를 뽑지 못하도록 박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박아 주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지 못하게 철두철미한 사상의 뿌리를 박아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비례적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족을 중심삼고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6-016, 1990.10.03)

26 축복가정 2세들을 단단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2세 여러분도 개척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깊은 데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꼭대기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르게 마련입니다. 골짜기 깊은 데에 뿌리를 내려야 거름도

많고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 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좋은 것이 전부 높은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높은 데에도 있지만 제일 낮은 데에도 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제일 귀한 것이 뿌리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게끔 밑창에 박습니다. 뿌리는 종대뿌리에서부터 직선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대뿌리를 중심삼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의 사방으로 잔뿌리를 쳐야 됩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나무 자체에 달려 있는 줄기와 가지도 크는 것입니다. 뿌리가 트면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거꾸로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늘입니다. (206-011, 1990.10.03)

27 내가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은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2세 36가정 72가정은 뜻대로 안 갔다가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 뜻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렸습니다. 나라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 사탄세계가 나를 밀어낸 것이지 내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섬으로 정배를 가서 바라를 헤엄쳐 상륙하여 지금 이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자기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아버님은 세계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여러분 2세들은 여러분의 기반을 닦아서 친척과 동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앞에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206-022, 1990.10.03) p. 350

28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은, 40년 가나안 복귀노정의 뜻을 두고 볼 때 지금 통일교회는 가나안 복지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 기준에 있어서 앞으로 통일교회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통일교회 풍토를 따라가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식자로부터 일반 대중까지 느낄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차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이 차고 나가 기관차가 되고 포탄이 되어서 격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야 될 시점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축복가정 2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자기 개인을 중심한 결혼이 아닙니다. 통일가에서 일대 혁명을 제창하기 위해 결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삼자의 어떠한 사고방식이라든가 관념이 개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돌아서야지 제삼자가 개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4-127, 1986.04.12)

29 야곱의 아들이 열둘인데, 그들 가운데서 제일 축복받은 아들이 열한 번째, 열두 번째인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열 형님들이 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한 열 가정 이상을 반대하고 천대하는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지만 형님들이 자기를 죽을 자리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권위와 모든 욕망을 저버리고 형님들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님들을 사랑했다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세들도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축복 가정 2세들을 축복해 준 것은 혼자 잘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를 반대하고 통일교회를 싫어하는 **열** 아들과 같은 환경의 그들을 구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책임적 사명을 지고 대표로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같은 자리에서 축복받은 가정의 아들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가정 자녀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의 아들딸들을 하나님과 부모님이 축복해 주어서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환경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112-181, 1981.04.12) p. 351

5절 축복결혼 세계화와 축복결혼식의 확대

36만가정 축복결혼식

36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1995년 8월 25일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축복식은 인공위성 생중계를 통해 160개국 55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후 축복결혼식은 그 수를 늘려 가면서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p. 351)

1 인간조상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결혼을 잘못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참부모의 이름으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권한을 가지고 만민 해방권을 선포하는 것이 36만쌍 축복입니다. 이 36만쌍은 아담권, 노아권, 야곱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담권 완성, 예수님권 완성, 재림주권 완성을 평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36만쌍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6만쌍이 문제가 아닙니다. 360만쌍, 3600만쌍 축복결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69-057, 1995.04.07)

2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노정을 지나고 7년노정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통을 세우지 못해 패망국이 되었지만, 우리는 건국이념,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40년노정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남은 이 7년노정 가운데서 건국 사상과 통일적 세계, 평화의 이념에 충만한 국민으로 결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배 되는 1세와 2세가 가인 아벨로서 하나되어야 할 텐데 1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

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묶느냐? 축복을 서둘러 줌으로써 구해 주자고 하는 것이 36만쌍 결혼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기성가정이 참가합니다. (269-217, 1995.04.23)

3 36수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야곱 가정까지 36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수는 조상수입니다. 그러니 36만쌍 축복은 세계적인 모든 전체의 등골, 조상과 같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장성기에 해당합니다. 이 결혼식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 세계의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란된 이 가정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문제로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회가 36만쌍 청년 남녀들을 중심삼고 새로운 가정을 편성해서 그 가정들이 이상적으로 잘살아 간다고 할 때에는 세계의 모든 파괴된 가정들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이 됩니다. (269-301, 1995.05.01) p. 352

4 3만쌍부터 공개적인 축복을 세계적으로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제2인자까지 참석하였습니다. 장관급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36만쌍 축복결혼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하였습니다. 세계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만쌍에서 36만쌍을 3년 만에 함으로써 3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믿은 분은 하나님과 부모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세계를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생 가정권 세계 판도의 3만쌍을 기반으로 해서 장성권 36만쌍을 중심삼고 조상들이 잘못한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36만쌍은 36가정을 세계 판도 위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272-027, 1995.08.30)

5 36만쌍 축복을 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면서도 1995년 8월 25일이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1976년 9월 18일 워싱턴 대회를 하던 그 이상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늘 앞에 선언한 위신과 체면이 여기에서 깨져 나가느냐 도약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우하고 사랑하사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롭고 비참하게 산 아버님을 동정하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지 않았는데 36만쌍 축복을 초과 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6 3만쌍 결혼식을 하고 3년 후에 36만쌍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도 이런 일을 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적입니다. 사탄세계 가정 전체를 밟고 올라갔다

는 것입니다. 장성적 기준인 36만쌍을 승리했으니 사탄세계의 나라를 밟고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360만쌍입니다. 이것은 전권시대입니다. 결혼 전권시대로 들어갑니다. 사탄세계의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는 가정 발판을 세계에 펴 놓았기 때문에 참부모시대를 지나서 왕권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75-282, 1996.01.01) p. 353

7 3만쌍 축복을 할 때 된다고 하고 출발했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3만쌍 축복을 할 때에도 가망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6만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하는 답을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매일 밤이 되든 어디를 가든 이 초점을 끌고 다니면서 그 초점에 맞추어서 정성들였습니다. 내 정성이 세계 인류의 정성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체는 완전한 대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상의 신념은 완전한 실체의 신념으로 하나님이 성사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념 그대로 되었습니다. (272-117, 1995.08.30)

8 36만쌍 축복은 참된 가정, 이상가정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가정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딸이 이상가정을 형성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원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정치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경제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외교능력 혹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가르침은 벌써 세계를 넘고 민족과 종단, 교파를 넘어서 이런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같은 사실입니다. (272-197, 1995.10.05)

9 여러분은 축복결혼을 해서 세계의 일등 부부가 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이상 나라를 찾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상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안식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장성기 완성급 고개를 못 넘었기 때문에 완성한 부모로서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를 넘어갔습니다. 40년 고개를 넘어서 36만쌍 축복을 돌파함으로써 3만쌍부터 시작해서 소생기 장성기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세계의 그 누구도 통일교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272-074, 1995.08.30) p. 353

360만가정에서 4000만가정으로

1997년 11월 29일 미국 워싱턴DC RFK스타디움에서 세계 각국에 인공위성을 생중계되는 가운데 4000만 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개최되었다. 이 축복식은 당초 360만쌍 축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수가 늘어나 4000만가정 축복을 치러졌다. 제3회 세계문화체육대전의 일환으로 거행된 이날 축복식에는 세계 6대 종단 대표들의 축하메시지 발표가 있었으며 영인축복도 함께 이루어졌다. (p. 354)

10 360만쌍을 축복하면 통일천하가 되는데, 통일천하는 무엇을 중심삼고 돌아가느냐? 이 360만쌍은 닻입니다. 악마의 주관하에 습관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지상세계를 청산할 수 있는 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줄을 대서 여러분을 밀어내는데 닻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일족이 되어야 합니다. 끊어질까봐 일족을 묶고 국가적인 메시아를 묶어 주는 것입니다. (280-263, 1997.01.02)

11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모든 가정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참부모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그것이 세계적 판도가 되었으니 가정을 넘고 국가를 넘고 세계까지 넘어가서 해방하여 전부 한 꿰미에 꿰어 같은 가치를 중심삼고 360만쌍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경도 없고 종교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평면적으로 전 세계 마을 마을마다 같은 가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은 아담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가정기준을 벌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284-119, 1997.04.16)

12 360만쌍만 축복하게 되면 하늘의 축복이 세계권까지 연결됨으로써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피조세계에 있어서 사시사철 춘하추동 거룩한 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고 주일에만 성찬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전체·전권시대와 더불어 360만쌍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계권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했던 그 탄식권에서 벗어나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고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의시대로 들어갑니다. (285-297, 1997.06.29)

13 외형적으로는 통일교회가 기독교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얼마나 투쟁의 역사를 거쳐 왔는지 모릅니다. 사탄을 **분**립시켜 분별하기 위한 투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재차 하나님 품에 품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개인으로부터 8단계를 거쳐서 전 세계 민족이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세계기준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60만쌍 축복이며 40년 고개를 넘는 것입니다. (286-070, 1997.08.06) p. 355

14 부모님은 지금까지 열두 고개를 넘었습니다. 360만쌍이 열두 고개입니

다. 이 열두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아리랑'이라는 말은 '사랑 애(愛)'자, '마을 리(里)'자, '고개 령(嶺)'자입니다. 사랑하는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민요 아리랑에 열두 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두 고개를 넘느라고 고생한 것입니다. 이제 열두 고개를 넘었으니까 순식간에 전부 평준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갈 수 있습니다. (289-263, 1998.01.21)

15 1997년 7월 15일 360만쌍 축복 완료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참 마음이 다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역사한 것입니다. 8월에 들어와 우리가 천지부모천주안식권을 선포했는데, 그 날이 8월 9일입니다. 그런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문이 열려 이 지상에 영인들이 행차해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360만쌍 완료'를 선포하였습니다. (289-013, 1997.12.30)

16 360만쌍 축복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은 복중의 자녀, 그 축복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성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를 걸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복중에 있는 자녀는 타락한 혈통과 관계가 없는 절대순결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성주를 전수한다는 조건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하나되어서 하늘에 맹세하고 선포하며 성주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생하는 것입니다. 복중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289-063, 1997.12.30)

3억 6000만가정에서 4억가정까지

3억6000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1998년 6월 13일 미국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195개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개최된 데 이어 1999년 2월 7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도 3억 6000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본래 이 축복결혼식은 장자권 국가 미국에 이어 어머니 국가 일본에서 개최 된다고 밝히신 적이 있다. 이때 영인축복식도 치러졌다. 그리고 2000년 2월 13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4억가정 1차 축복결혼식이 개최되었다. 4억가정 2차 축복식은 2001년 1월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4억가정 3차 축복식은 2002년 2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등 수차례 4억가정 축복결혼식이 거행되었다. (pp. 355~356)

17 360만쌍을 축복하면 원래는 완전히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들어갈 때 제일 속도가 느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체 된 바닷물 앞에 완전히 흡수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천지이치를 중심삼고 운동을 하고 존속하는 것입니다. 3600만쌍이 끝나고 바로 3억6000만쌍을 시작하는 것이 왜 좋으냐 하는 것은 이미 고개를 넘고 산골짜기를 다 내려왔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설 수 있는 단계

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3억6000만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완성급입니다. (288-149, 1997.11.27)

18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은 사랑이상, 절대사랑을 중심한 이상적 천국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상을 다 찾은 후에는 상속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다 상속하기 위한 것이 3만쌍 축복입니다. 3만쌍 축복은 소생, 36만쌍은 장성, 360만쌍은 완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360만쌍, 3600만쌍 축복을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3억 6000만쌍만 승리하는 날에는 세상천지, 이 땅 위에 심정권 통일세계가 오기 때문에 이 심정권에서 살고 갈 가정은 아담 가정을 완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상천국에서 살다가 천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88-329, 1998.01.01)

19 성약시대에는 결혼이상을 완결해야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 뒤집어졌던 것을 3억6000만쌍을 통해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간 후에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부모로서 본연의 사랑·생명·혈통을 중심삼고 자기 직계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제1차 아담시대, 제2차 아담시대, 제3차 아담시대를 거쳐 제4차 아담시대로 넘어갑니다. 3억6000만쌍 축복이 끝나게 될 때에는 탕감이 필요하지 않은 제4차 아담권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에덴에서 자기 부모가 하나님 대신 축복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민 앞에 자기가 축복한 일족들을 중심삼고 천국에 직행하는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아담권 시대에 탕감이 필요했던 것은 사탄이 더럽힌 핏줄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차 아담권 시대에 들어와 사탄세계의 혈통을 단절함으로써 그 흔적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처럼 해방적 자리에서 만민, 인류 전체 가정이 평면도상에서 한꺼번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290-030, 1998.02.02) p. 347

20 4억쌍 축복을 완수하려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삼고 순결다짐식을 해야 됩니다. 순결다짐식은 처녀 총각들을 그냥 놓아두면 타락하니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교와 경찰이 합해서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게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정의 아들딸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지 않게 환경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 둘이었기 때문에 타락을 했지만, 이제는 부모와 일족이 가담하고 학교와 선생이 가담하고 경찰이 합해서 타락할 수

없게끔 환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301-262, 1999.05.020

21 부모님이 영육을 중심삼고 국가기준에서 핍박받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사탄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권 가정적 기반을 정착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탕감하던 예수님시대 국가 기준을 세계에 연결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영계, 사탄세계의 지옥까지 전부 내쫓았습니다. 지상재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후원함으로써 이스라엘권 세계화시대가 왔습니다. 세계 만민이 축복받을 수 있는 선민권 내로 들어왔고 이스라엘권 세계화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4억쌍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육 세계를 중심삼고 완전히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심정을 가지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360-157, 2001.11.15) p. 357

6절 조상해원식과 영인축복식

조상해원

참부모님께서는 영계의 조상들은 후손들이 해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1999년 2월 12일부터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직계 7대 조상을 시작으로 해원식을 거행하게 하셨다. 참부모님은 조상들이 지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참부모님 특권으로 축복을 하는 시대적 혜택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해원식과 축복식을 거쳐 지상에 재림하여 후손들에게 협조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pp. 357~358)

1 영계에 가 있는 여러분의 조상은 천사세계의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아담 해와의 세계와 맞먹습니다. 또 앞으로의 후손은 미래세계와 맞먹습니다. 영계가 아담 해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 입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영계의 조상들이 천사의 사명을 갖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함으로써 결국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119-045, 1982.07.03) p. 358

2 조상해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후손이 풀어 줘야 됩니다. 아담 해와의 아들딸이 복귀해 주어야 됩니다. 아담 해와는 못합니다. 아담 해와와 하나되어 2세가 복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리관입니다.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해원식은 6천년 역사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412-119, 2003.07.16)

3 조상해원식을 다 해야 됩니다. 7대를 해방해야 됩니다. 7대에서 올라가 120대까지 해야 됩니다. 그 조상들을 중심삼고 하면 한꺼번에 120대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문이 깨져 나가겠습니까, 안 깨져 나가겠습니까?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영계에 가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걸리면 안 됩니다. 영계를 정리해 놓으면 지상은 언제든지 영계를 통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301-206, 1999.04.26)

4 참부모의 명령과 선언으로써 성인 현철들과 종교권에 속해 있는 모든 영인들, 양심적인 아들딸로서 태어났다가 이 땅 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영계에 간 어린 아기들부터 16세 이상의 모든 영인들까지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계의 사무친 경계선을 넘을 수 있게 만국의 조상들을 해원하고, 이뿐만 아니라 해원성사를 거친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에까지 머무를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청평의 홍진군과 대모님이 대형님을 비롯해 통일가의 일족을 중심삼고 모든 선령들과 협조하여 지상 실체권 세계와 상대기준을 이루어 참부모와 더불어 높은 기준에서 연결시킬 수 있고 참부모와 뗄 수 없는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346-265, 2001.07.01)

5 재림시대에 참부모가 와서 고향 땅을 찾고 나라를 찾아서 하늘땅의 더럽혀진 핏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조상을 해원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계는 영원하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과 달리 그것을 한번 복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전부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핏줄을 바로잡으면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축복은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교회 내의 축복이지 나라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교회 축복에서 나라 축복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찾아 입적해야 됩니다. 나라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라기준을 넘어서서는 세상 나를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절대 일방통행이어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지옥에서 외치는 원성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참부모는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영계 육계의 부산스러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353-165, 2001.09.06) p. 359

6 어떤 영인이라도 조상해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면 선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지옥에 갔다고 하더라도 해원을 하고 축복을 받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지옥에 간 조상들이 참부모님의 시대적 혜택권 내에 들어가서 축복받는다는 것이 영계에서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여기에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일체 모든 것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398-289, 2002.12.15)

7 하나님은 영계에서 지금까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아몬드 실체와 같

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참 놀랍고 두려움의 상징 실체인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훈시했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입장에서 훈시할 수 있는 길은 조금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중간 입장에서 대행할 수 있는 내용만 해결했지 시작과 끝을 종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영계나 육계에서 그 시작과 끝을 제정하여 실천장을 만들지 않으면 영계의 흥진군도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인들을 지상에 재림시켜서 40일 교육을 하고 영계의 담들을 헐고 영계의 조상들을 해원하는 것입니다. 조상해원은 조상이 지금까지 탄식권, 한을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효자가 못 된 것을 효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원래는 저나라에서 조상에게 축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 소유권을 부여받은 천사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재림주가 지금까지 아담이 16세 이후에 사탄세계에 남긴 모든 것을 청산해서 잘라 버리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계의 가정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축복받은 아담 가정을 협조할 수 있고 받들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아담적 실체 축복가정들을 형님으로 모시고 동생의 자리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섬으로써 아담권 문화 창조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천상세계도 보조를 지상세계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10-048, 2003.06.30) p. 360

8 여자인 해와가 타락해서 불쌍한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천사장세계의 조상들을 해원해 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영계가 지상에 강림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영향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방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력해서 그렇게 안 되면 통일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상들을 해원하고 축복하는 것은 천주청평수련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흥진군한테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해원식과 축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국가인 일본도 앞장서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422-321, 2003.10.26)

9 조상들을 해원하고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 일족, 성씨가 몽땅 와서 축복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해방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데 이 일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영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상대가 없습니다. 상대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형제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축복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일족을 전부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

입니다. (423-180, 2003.10.28)

10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조상들을 데려다가 교육해서 해원하고 축복해 줍니다. 해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서 자기 민족 전체가 해방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뿌리가 막혀 있고, 줄기와 가지, 잎, 꽃, 열매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원해 주어야 됩니다. 해원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정상적인 뿌리와 줄기와 순을 중심삼고 뻗어 갈 수 있는 가지를 만들어서 그 가지들을 접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본연의 줄기**와** 순을 중심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한 참감람나누 밭만이 남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일국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요, 천일국이 청산해야 될 소명적 책임입니다. (437-115, 2004.02.10) p.361

11 조상들을 해원했으면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조상들이 혈통을 전환하지 못하고 영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아벨 가정이 그 일을 해줌으로써 아벨 가정이 형님이 되고 조상들이 동생이 되고, 참부모님의 모든 갖춘 가정 기준을 접붙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권에서 그렇게 교체되는 것입니다. 형님과 동생 둘이 하나되어 있으면 그 문중이 축복받을 수 있고 동네 전체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성씨를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했으면 군 전체도 휩쓸어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4-297, 2004.04.08)

영인축복과 영계 해방

참부모님께서는 영계 해방을 위해 1995년 8월 25일 36만가정 축복결혼식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영인에 대한 축복식을 함께 진행하셨다. 특히 36만가정 축복결혼식 전날 새벽에 충부님과 충모님, 대형님, 그리고 대모님 가정에 대한 축복결혼식을 하신 데 이어 1997년 11월 29일 4000만가정 축복결혼식에서 최초로 영계축복식을 주관하셨다. 그리고 이해 12월 1일 영계 축복 개문선포식을 하신 데 이어 1998년 6월 13일 3억6000만가정 축복결혼식 당시 성인과 악마에 대한 축복도 함께 하셨다. 이렇듯 영인에 대한 축복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영계의 지옥이 해방되고 모든 영인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p. 361)

12 36만쌍 축복식을 하기 전날에 부모와 형님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부모와 형님, 아들딸의 삼위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모님 가정을 축복해 주고 그 아들딸을 묶은 것입니다. 이렇게 3시대를 거쳐 비로소 참부모를 중심삼고 부모님의 아들딸과 여러분 가정이 가인 아벨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이 3대 조상이 비로소 축복받은 자리에 섬으로써 영계의 분립된 모든 조상들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상에서 확대되었으니

몇 천년 걸려 그 수가 아무리 많아졌더라도 이 조상만 해방해 놓으면 모두 해방되는 것입니다. 조상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승리한 것은 아무리 자식이 악하더라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관계를 중심삼고 상속권이 벌어지면 모든 것이 상속받는 권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 해방과 지상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엮어야 됩니다. (272-313, 1995.10.13) p. 362

13 360만쌍 축복이 끝나는 날에는 흥진군과 대모님을 시켜서 부모님의 축복을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흥진군과 대모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교회에서 독신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나라에 가서 옛날의 자기 남편과 아들딸을 찾아서 가정을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독신축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기준에 그 한계를 풀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전부 다른 사람과 축복을 해야 하지만 이제는 종친을 축복할 때 혼자 축복을 받더라도 재편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족이 지옥 가더라도 불러올 수 있고 지옥을 일시에 해방할 수 있습니다. 지옥부터 천국이 될 수 있게끔 참부모가 탄탄대로를 전부 닦아 놓았기 때문에 운전만 하게 되면 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285-105, 1997.04.21)

14 360만쌍 축복을 하는 때는 하늘 땅이 접하는 때입니다. 종적 세계와 횡적 세계가 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과 모든 인류가 타락지 않은 입장에 서서 축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가정 완성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치를 상속받는 대표적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가정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선조들과 후손들도 해방받을 수 있는 통일적인 해방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예수님이 실패했지만 재림주가 와서 완성함으로써 가정을 이루어서 성약시대를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조들이 잘못했지만 여러분이 재림주에 속한 가정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조들도 해방받을 수 있는 통일권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 이후에 천상세계가 다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축복시대에서 영계 축복시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285-206, 1997.05.04)

15 지상세계에서 3억6000만쌍 축복이 끝나게 되었으니 영계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혈통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전권시대,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가 옵니다. 참부모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선한지라!'라고 기뻐하면서 '네가 말한 대

로 모든 것이 이름 지어진다!'라고 하던 특권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293-091, 1998.05.24) p. 363

16 3억6000만쌍 축복 완성을 해서 사탄 혈통을 단절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려니까 지옥문 천국문을 다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원수시하던 것들이 부모님을 맞이하여 모시는 환영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가정에 모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족·민족·나라·세계에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천하에 처음 여는 잔치 가운데 원수된 형제, 원수 된 남녀가 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천지의 대도를 밝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상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296-300, 1998.11.18)

17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아들딸이 없었지만 참부모로 말미암아 참아들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부모가 완전히 소유권을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가정을 찾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3억6000만쌍 축복을 하게 되면 사탄 혈통이 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야 내 가정을 지상·천상천국에 갖게 되었구나! 내가 주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본연의 이상적 개념이 출발하게 됩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을 전부 되찾는 것입니다. 재창조 과정에서 겪어 온 수난길을 끝나고 가정으로부터 천주까지 해방되는 것입니다. (293-179, 1998.05.26)

18 3억6000만쌍 국제축복결혼식 행사 때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성인들을 중심삼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모든 영인들의 해방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옥과 중간영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이 안 이어졌기 때문에 혈통적 인연을 이어 주어야 됩니다. 아벨이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되면 가인도 같이 축복받는 것이 천리원칙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계자녀들 앞에 동생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인들은 종교권에서 탕감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악인들은 사탄 편에서 파괴 분립시키기 위해 수고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참부모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가인과 아벨로 갈라졌던 모든 역사를 제**물**적 입장에서 탕감해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것은 통합하는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294-044, 1998.06.10) p. 364

19 아담 자신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의 일체권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미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

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부모의 책임입니다. 참부모가 천주를 대혁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대 성인들을 축복했고, 최고의 악한 들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원수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등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나갔다가 들어와 만수가 될 때 수평을 이루어서 돕니다.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흘러 나간 물이 다 들어와 만수가 되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물에 밀려서 나가고 만수권에서는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해방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만수권과 같은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 성인과 살인마의 축복이었습니다. (320-239, 2000.04.16)

20 하나님이 사탄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으면 영원히 평화의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원수관계를 소화하고 창조하던 때 이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탄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원수와 원수가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차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끼리 교차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살인마들까지 같은 자리에서 결혼시켜 준 것입니다. (371-098, 2002.02.24)

21 하나님은 지옥까지 해방해서 온 영계부터 지상까지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참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중의 원수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에게 품겨 주고도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까지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역사적인 모든 죄악을 탕감하고 그것을 선포하여 마디마디 끊고 넘어와서 해방된 왕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 해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까지 해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최종 정착지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294-028, 1998.06.05) p. 365

22 3억6000만쌍 축복을 하면 참부모의 이름과 지상의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갈라졌던 모든 것이 통합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대전환시대에 '3억6000만쌍 축복 완성과 사탄 혈통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아담이 완성을 했더라면 지옥과 중간영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전에 영계와 지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영계의 성인들을 독신축

복을 받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여인들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권이 하나로 수습됩니다. 그다음에는 사탄세계에 있는 악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294-045, 1998.06.10)

23 인류역사에 처음으로 참부모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악인들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계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바로잡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사탄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정상에서 묶어 주었습니다. 참부모가 횡적인 것을 종적으로 묶어 줌으로써 횡적인 악인들이 종적으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대전환기가 3억6000만쌍 축복입니다. 그것은 대사건입니다.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천상이 개문되어서 지옥으로부터 천상까지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부모가 탕감조건을 치르고 인류와 더불어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은 대사건입니다. (320-241, 2000.04.16)

24 축복받은 가정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부모님이 3억6000만쌍을 축복함으로써 그 조상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축복하기 이전에 영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1998년 6월 13일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인과 살인마들을 축복해 주었는데, 성인은 장자 입장이고 살인마는 차자 입장입니다. 그 차자들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개념을 가지고 장자를 따르게 됨으로써 횡적으로 수평이 된 것입니다. 국가의 원수와 세계의 원수들이 똑같은 차원에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인류에게 그러한 축복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전 인류가 참부모의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306-100, 1998.09.20) p. 365

제3장 참가정운동과 축복가정의 전통

1절 청소년 순결과 참가정운동

참가정운동의 필요성

참가정운동은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빚어진 이 세계를 하나님 중심의 창조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는 데에 가장 근간이 되는 섭리적 활동이다. 특히 하나님 중심의 이상가정을 통해 지상·천상천국을 실현하고자 인종과 국가 종교 등을 초월해 세계적 규모의 축복결혼식을 전개하고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청소년 순결운동과 함께 축복결혼식을 통한 참가정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셨다. (p. 366)

1 악한 열매를 심었던 인류의 조상에 의해 악한 결실을 이룬 것이 청소년 윤락과 가정 파탄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가정이 뒤집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결실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은 대환란

시대입니다. 나라나 세계가 모두 환란이지만 제일 뿌리가 되는 가정이 환란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고, 부부가 부부 노릇을 못하고, 자녀가 자녀 노릇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개인주의 사상이 박히면서 하나님도 없고 세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사회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83-013, 1997.04.08) p. 366

2 세상에서 가치관의 몰락을 말하는데 그 가치관은 금전적인 가치관도 아니고, 지식적인 가치관도 아닙니다. 가치관의 제일 중심 되는 것은 참사랑의 가치관입니다. 참부모가 참사랑의 가치관을 받아 세워야 되고, 참부부가 그 가치관을 받아 세워야 되고, 참자녀가 그 가치관을 받아 세워야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루어야 할 가치관, 부부가 이루어야 할 가치관, 형제가 이루어야 할 가치관은 절대적이요 하나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관을 중심삼고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부부·형제만을 떼어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만을 가지고는 통일천하,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58-138, 2004.07.08)

3 지금 세계화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중심삼고 그렇게 말하느냐? 경제나 학문, 체육 등을 중심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가정세계화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진국가에서는 가정이 다 깨져 나갔습니다. 프리섹스가 가정들을 다 깨 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정세계화 운동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가 가르쳐 온 이상가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78-168, 1996.05.05) p. 367

4 참사랑을 중심삼고 보면 이 세계는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태풍이 부는 것이 축복운동입니다. 공백 된 세계에 그런 태풍이 불어 깨끗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의 주인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 혈통을 중심한 자녀·종족·구가가 생김으로써 악한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참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사랑의 힘은 고압의 전기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닿기만 하면 순식간에 불타 버리는 것입니다. (287-119, 1997.09.01)

5 인류 번영과 평화통일세계는 만인의 소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든,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이상적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적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부모사랑은 자식을

갖고서야 그를 통하여 결실되며, 자식의 사랑은 부모가 있기에 그를 통하여 결실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혼자서는 촉발되지 않는 참사랑이상을 실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한 부자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중의 참부모요, 스승 중의 참스승이요, 왕 중의 참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사랑을 베푸는 영원한 참부모이고 참스승이며 참부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 하나님과 같은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모두는 서로 위하는 참사랑으로 도와 상대 위치를 정착함으로써 사랑이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천리대도는 이렇게 이타적으로 위하는 참사랑에서 진정한 가지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상하의 부모관계, 좌우의 부부관계, 전후의 형제관계가 조화되는 속에서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확대되어 국가·세계·천주가 완성되는 것도 같은 원리와 공식입니다. 교육·언론·예술·구제활동 등 부모님이 이룩한 세계적인 기반들도 모두 같은 공식에 의**하**여 위하는 참사랑을 투입함으로써 이상세계를 성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인격을 목표로 한, 위하는 참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1999.02.01, 한국 서울) p. 368

6 냉전이 종식된 지금 우리는 사회의 도덕과 가정의 사랑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적 도덕의 타락과 마약 남용이 이미 젊은 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의 이러한 문제는 그러한 의도 이상의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주의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젊은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정신의 문제를 무시한 데서 기인하였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참어머님, 1994.07.26, 미국 워싱턴DC)

7 본래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이상적인 부모로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그리고 그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가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와 세계 구현의 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상적인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평화는 단지 정신적인 구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서 시작하여 가정의 사랑으로 자라나 지구가족에서 결실맺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강하고 참된 가정의 확립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을 물질 중심과 폭력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1994.07.26, 미국 워싱턴DC)

8 참가정운동이 뒤넘기치는 날에는 끝입니다. 참가정운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부모만이 손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인류를 중심하고 싸우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참부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고 사탄도 못합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을 구속하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사탄을 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사탄이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가정 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부모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문제를 거짓 부모가 만들었으니 이것을 해결하고 세계평화와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참부모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311-139, 1999.08.29)

9 세계적으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청소년 문제와 가정파탄 문제인데 이것은 누가 손댈 수 없습니다. 각 나라의 교육부나 국방부도 손을 못 대고 정치·경제의 힘을 가지고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참부모의 특권입니다. 아담 해와가 10대 때에 타락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번 가정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절대사랑, 절대 순수한 혈통을 심어야 됩니다. 청소년이 타락하고 가정이 파탄되었으니 끝날이 되면 심은 대로 전 세계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섹스, 동성애, 에이즈 같은 것들이 판을 침으로써 전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의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약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 의사가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결운동과 참가정운동

순결운동은 청소년기부터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형성된 성품을 청산하고 참사랑의 질서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운동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인류 최대의 현안인 청소년 문제와 가정파탄 문제는 순결운동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순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셨다. 특히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사춘기 연령대인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순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탄 혈통을 근절하여 하나님의 보호권 내에서 성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p. 369)

10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순결과 절대 성입니다. 순결운동과 참가정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결운동과 참가정운동은 참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

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순결과 참가정이지 참사랑이 없으면 순결도 없고 참가정도 없습니다. 순결 하면 벌써 참사랑인 줄 압니다. 그다음에 참가정은 절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춘향과 이도령같이 철석같은 절개로 인연을 존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가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286-115, 1997.08.09) p. 369

11 대학에 순결운동과 참가정운동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고 참가정을 어디에 정착시키느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퇴폐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12세부터 시작해서 24세까지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마을이나 나라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울타리가 되어 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을 피폐케 하는 동성애와 프리섹스부터 법으로 제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 사상을 중심삼고 가정이 바로 서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개조해야 됩니다. 가정도 개조하고 청소년도 개조해야 됩니다. 개조할 수 있는 기준은 가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삼고 나라의 모든 중진들이 하나되어 가정적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여 가정절대주의를 주장해 나가야 됩니다. (329-090, 2000.08.08) p. 370

12 21세기는 참가정 이상주의가 전통이 됩니다. 부모님이 할 일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참가정·참부모·참혈통입니다. 사탄 혈통의 뿌리가 마음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순결운동 시위를 해야 됩니다. 시위를 안 하면 종족메시아를 기독교인들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결운동은 가정을 중심삼고 해 나가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 시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순결운동을 하지 않으면 빼앗겨 버립니다. 선취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누가 먼저 내느냐는 것입니다. 세 사람씩 계속해서 시위하라는 것입니다. 참부모·참혈통·참가정·참사랑입니다. (310-247, 1999.06.30)

13 순결을 지킴으로써 에이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가 최후에 정리해야 될 과제입니다. 청소년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축복 혈통을 연결 할 때 지상천국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조상이 청소년 때에 뿌린 것이 지금 열매맺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려면 청소년을 중심삼고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상·천상천국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순결교육

을 한 것입니다. 참가정 교육, 청소년 순결운동을 우리가 했습니다. 나라가 할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349-011, 2001.07.13) p. 370

14 부모님이 세계적으로 참가정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참사랑운동, 순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1천만에 가까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사상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반대받았는지 모릅니다. 반대를 받더라도 고향과 조국을 주인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세계 판도권 내에 드러날 수 있고 주체적 관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349-015, 2001.07.13) p. 371

15 젊은 청년들을 타락하지 않게끔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순결운동을 하면서 모범적인 청년 남녀들은 마을이나 지역 대표자로 표창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대해야 됩니다. 순결을 지켜 나가는 학생들은 교사나 교장이 나서서 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결혼해 줄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혼을 해주는 것입니다. (272-191, 1995.10.05)

16 청소년들이 이성에 대한 눈을 뜨기 전에 인간조상이 타락할 때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가정과 마을, 나라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순결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순결운동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우리밖에 이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타가 공인합니다. 순결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소명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95-103, 1998.08.17)

17 지금 국가축복시대를 지나 세계 축복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캔디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복중에 아기가 있을 때 어머니가 순결캔디를 먹는 것은 중생식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먹는 것은 부활식입니다. 결혼 때 먹는 것은 영생식인데 이때에는 성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사탄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길을 막고 오가는 사람에게 성주를 주게 될 때 거기에 순응하면 천하는 우리 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94-158, 1998.06.14)

18 성약시대의 안식권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성약시대는 세계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세계인류의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는 혜택권 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혈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건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

교에서 순결캔디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복중에서부터 사탄 혈통을 청산해야 됩니다. 중생입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은 복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주를 마시게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활주 대신 순결캔디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인을 하나씩 스티커 모양으로 붙여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부모와 더불어 순결을 지키겠다는 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부모가 주었기 때문에 순결한 아들딸이 되기 위해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랑으로 순결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요, 학교 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입니다. (290-218, 1998.02.27) p. 372

19 모든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재창조한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짝을 맺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짝을 맺은 둘이 서로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까지 순결을 지키기 위해 공동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 허락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 중의 부모요, 스승 중의 스승이요,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를 대표한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는 대표 학부모가 아이들을 중심삼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통일교회 법입니다. (300-322, 1999.04.15)

20 사탄 혈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모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타락은 주변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순결교육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순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모든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서 아들딸을 보호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아들딸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입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본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아담 해와는 아기 때부터 결혼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전부 결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들딸에게 자기 짝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참부모가 명령해서 짝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에덴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귀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복귀된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리에서 아들딸에게 짝을 맺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크면서 자기 짝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약속을 해서 세웠는데 기

다려야 할 장성기 완성급의 자라는 기간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법적 조치를 못하고 사탄세계 내에 떨어져서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301-174, 1999.04.25) p. 373

21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6세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게 잘 길러야 됩니다. 18세만 넘어서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중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모 품에서 기른 아들딸들을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순결한 자녀들로서 맺어 주어야 됩니다. (365-131, 20002.01.06)

2절 축복가정의 전통과 생활

축복가정의 전통과 책임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모와 부부, 자녀가 하나되는 것은 물론 자기 가정보다도 종족과 민족·국가·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축복가정 정착시대는 어머니와 자녀의 책임시대이기 때문에 형제인 가인 아벨의 일체화, 어머니와 자녀의 일체화, 그리고 참부모 가정과 일체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p. 373)

1 통일교회에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혈통을 전환했다는 말입니다. 마크를 하나 찍은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 합격은 아닙니다. 조건적인 마크입니다. 조건적인 혈통, 조건적인 생명,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적인 혈통이 자꾸 살아 퍼져 나가면 사탄이 못 가져갑니다. 이 생명이 자라면 사탄이 못 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자라 나가게 될 때에는 사탄이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조건적인 것이 죽었을 때에는 아무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주더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기고 키워 나가야 됩니다.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6-217, 1991.04.01) p. 374

2 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가 하나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 셋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지상천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절대부모 절대부부 절대형제가 하나되는 센터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기지입니다. 군대의 기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그리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가정 기지입니다. 참부모가 없으면 참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부모가 없으면 참자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부부라면 아들딸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가정은 3대가 연결된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39-212, 2001.12.16)

3 하나님의 아들딸이 축복을 받고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사랑이 완성된 기반 위에서 영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자리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앞에 절대진리체가 여자입니다. 절대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자 앞에 여자가 없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랑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고마움도 모르고 아들딸의 고마움도 모르고 남편의 고마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권에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을 사랑의 일체권에 연결시켜 주는 사람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352-333, 2001.09.01)

4 축복받은 부부는 축복받은 그날부터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부부가 합하여 가정을 형성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쳐서 민족 혹은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의 가정이 합하여 새로운 세계관 아래 하나의 종족을 편성해야 됩니다.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자면 먼저 새로운 종족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족은 분열된 종족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종족이라야 됩니다. 그러니 축복받은 열 사람의 목적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 가정들은 사탄세계에서 찾아 세운 소수의 가정들이기에 언제나 사탄세계의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가 되어 단결해서 그 환경에 압도해 들어오는 외부의 힘을 능가할 수 있게끔 결속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을 능가하려면 자체 내에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된 모습이 된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사탄의 침범을 받더라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집된 실체를 갖춘 데에서부터 사탄세계의 침범을 받지 않는 새로운 종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결된 종족을 통하여 민족이 형성되고 그 단결된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030-175, 1970.03.22) p. 375

5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것은 자기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를 위하기 전에 종족을 위해야 부부로서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종족은 국가를 위해야 종족이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지고, 국가는 세

계를 위해야 국가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축복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축복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가 하나되어 가정을 형성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만일 그런 축복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다 할 때에는 그 한 가정이 그런 책임을 절대적으로 져야 됩니다. 그런 신념 밑에서 나아가는 가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가정 한 가정 남아지게 되면 복귀섭리는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길을 가는 가정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주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국가를 위한 가정이요 세계를 위한 가정입니다. 그런 자각 밑에서 나아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들도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은 역사적인 남편이 되고 그 아내는 역사적인 아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후손은 하나님의 복귀섭리 도상에서 세계를 복귀하는 데에 필요한 종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종족적인 인연을 갖춘 부부가 되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조상의 자리에 등극할 것입니다. (030-178, 1970.03.22)

6 축복받은 부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약을 위하여, 그 나라의 공약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기 상대가 잘나고 못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할 목적성이 문제입니다. 즉 자기들이 살아서 후손이 가야 할 정상적인 길을 어떻게 닦아 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국가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대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30-179, 1970.03.22) p. 376

7 축복가정은 자기 가정보다 종족을 더 사랑해야 되고 민족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과 축복받은 동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연결된 하나의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아무리 많은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 결합한 그 가정에서는 국가를 사랑하는 모양, 세계를 사랑하는 모양, 하늘을 사랑하는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하고 당신은 내 것이라는

등 지금까지 세상 부부들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축복가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아내 된 사람은 시간만 나면 그러한 남편이 되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또한 남편 되는 사람도 시간만 나면 그러한 아내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서로서로가 힘에 힘을 합해 도와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상심하지 않도록 서로가 용기를 주고 서로가 인도하면 인도를 받아야 할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것이 부부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030-181, 1970.03.22)

8 우리 통일가는 현재 입장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운세를 안고 세계의 운세를 안고 태어날 수 있는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결혼은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럴 수 있는 인재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서는 결혼을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역사노정에 있었던 수많은 가정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의 가정입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탕감복귀시키고 영계에 있는 영인들과 후대의 후손들을 **위**하여 대신 길잡이가 되어 갈 길을 열어 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주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030-185, 1970.03.22) p. 377

9 이제 자녀가정 정착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정 정착시대는 첫째, 어머니 책임시대입니다. 어머니가 메시아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자녀 책임시대인데, 가인 아벨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인 아벨, 형제가 하나되어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 아벨을 분별하기 위해 역사시대에 많은 희생을 해 나왔는데 또다시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가인 아벨이 있는데, 동네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아벨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책임시대는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셋째는 어머니와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책임시대, 자녀 책임시대가 가정에서 정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되어서 남편과 아버지를 복귀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 안 되어서는 아버지 복귀가 안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책임을 해야 되고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는 참부모 가정과 일체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전체화시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248-159, 1993.08.01)

축복가정의 가정생활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대신하여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축복가정은 배우자를 하나님 대신자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본을 보여야 하며, 그러한 생활습관과 심정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때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특히 참부모님께서는 성자(聖子)의 도리를 이어받기 위한 것이 축복결혼의 목표이니만큼 축복가정은 성자의 길을 갈 것을 당부하셨다. (p. 377)

10 하나님이 찾아 나오시는 가정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 세운 가정은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할 수 있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고 하늘을 대표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 나온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기 때문에 하늘부모의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정성들이는 가정으로서 정상적인 길을 갈 때에 그 아들딸들은 통일교회의 대운을 타고날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하늘의 운세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운세를 타고날 수 있는 후손을 어떻게 남기느냐? 부모가 정성들이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를 위하고 세계와 하늘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했고, 얼마만큼 그 마음이 간절했으며 지성을 다했느냐에 따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움직여 보았댔자 하늘이 그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계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같이하십니다. 그래서 보다 넓고 높은 사랑을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 축복가정의 길입니다. (030-186, 1970.03.22) p. 378

11 부인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대신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딸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아내와 딸, 셋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을 남편 입장에서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아버지 이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체험을 총합한 가치 이상의 가치를 발견한 기준에 서서 대해야 됩니다. 그러한 심정기준을 복귀하지 못하면 사탄이 파괴한 이상 상대의 기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남자는 자기가 아내의 자식이라고 하는 심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와 같고 자기 딸과 같은 심정이 끓어올라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하루도 지낼 수 없고 밤이나 낮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22-205, 1969.02.04)

12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방어 제일주의로 나오는 것이 타락한 세계입니다.

이제는 보호주의 시대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추궁에 있어서 피어나야 할 꽃이 사랑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꽃은 자리를 주장할 때에는 안 핍니다. 서로가 위하겠다고 하는 것이 생명선까지 넘어서게 될 때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이 핌으로써 그 꽃의 빛과 향기를 찾아오는 것이 **천**사세계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04-075, 1999.09.10) p. 379

13 남편 된 사람은 아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순수한 사랑을 몰랐지만 남편을 통해서 순수한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남편을 통해서 오빠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남편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알았다. 남편은 모든 사랑을 가르쳐 준 장본인이다.'고 할 수 있는 남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어머니 대표요 신부 대표요 누가 대표의 심정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랑의 인연을 체휼하면서 살아가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이 아니고는 질식하겠다고 할 만큼 그것이 생활습관이 되어서 어느 사회에서든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요, 내 아버지 어머니요, 내 형님 누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심정은 세계 도체에 보편화되고, 그러한 가정에서의 심정이 보편화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틀림없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같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고 어디를 가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051-199, 1971.11.21)

14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같이 인류를 사랑하였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보면 자기 아들딸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 동생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보면 자기 동생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같이 품어주고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되어서 하나님 대신 자리에서 재창조의 심정권을 체휼하게 하는 것이 아들딸 출산입니다. 부모는 태어난 아들딸을 바라보면서 서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사랑의 상대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찬가지의 심정을 체휼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하는 것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상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참된 부모의 길을 따라가려면 이러이러한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46-078, 1993.03.23)

15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기록 카드에 전부 기입하게 됩니다. 축복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았고, 아버님이 한 말씀을 몇 퍼센트 실행했으며, 몇 시간 활동을 했는지 그 시간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것이 그 카드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부부가 지금까지 어떠한 혜택을 받고 통일권 내에 살았다 하는 비판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안 지나갑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안 통합니다. 이 지상에서도 그렇지만 영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 축복받은 가정이면 영계에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와 지상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빚진 생활을 하지 말고 빚을 지우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233-255, 1992.08.01) p. 380

16 결혼 후 한걸음 잘못 디디면 영원히 길이 어긋납니다. 세상에서 시집 장가가는 것과 같이 생각하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한의 조건이 남습니다. 지금 밤을 새우며 눈물로써 부모님을 부르고, 옛날의 그날이 얼마나 그립고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축복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다시 계승할 수 있다면 무슨 노릇을 못하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여자로서 세상에서 밟히는 운명을 거치더라도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로서 세상에서 보기에 딱한 길을 거쳐 가더라도 그 길을 회복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어그러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가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부모님에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들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부모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복귀원리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또 이런 일을 해놓고 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157-310, 1967.10.16)

17 축복받은 가정들은 어디로 가야되느냐? 자기 가정으로 가는 사람은 흘러갑니다. 아버님도 결혼한 목적은 가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고 천주복귀의 사명을 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그 일을 위해서 맹세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일을 붙안고 눈물 흘리며 가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역사에 부모로서 남겨 주어야 할 선물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정을 중심삼은 생활철학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만일 그런 길을 못 같 자리에 있으면 천추의 한을 품고, 하늘을

보기에 부끄럽고 땅을 보기에 부끄럽고 스승을 보기에 부끄럽다며 몸 둘 바를 모르고, 천년만년 흐르는 하염없는 눈물로써 속죄의 하소연을 하며 하나님의 동정을 바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157-308, 1967.10.16) p. 381

18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은 하늘땅을 중심삼고 성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인의 도리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의 도리를 이어받기 위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횡적인 면에서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갈 수 있는 창조의 이상입니다. 내가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늘 앞에 효자가 없었고 충신이 없었고 성인이 없었고 성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상만이 나라를 창건할 수 있는 이상적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효자니까 하늘 앞에 나라를 가질 수 있고, 하늘 앞에 충신이니까 하늘 앞에 세계를 가질 수 있고, 하늘 앞에 성인이니까 하늘 앞에 하늘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늘땅을 주고 산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266-105, 1994.12.18)

3절 축복가정의 공동체 생활

삼위기대를 세우게 된 배경

참아버님께서는 축복가정에게 삼위기대를 편성해 주시면서 삼위기대를 형제 이상으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다. 공동체 생활도 이 삼위기대를 기반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삼위기대는 에덴동산에서 아담 가정의 가인 아벨 셋의 부부가 복귀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실현하는 모델적 기대를 의미한다. (p. 381)

1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 세 사람, 여자 세 사람, 이렇게 삼위기대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주님을 모셔야 할 우리는 아담 가정의 아담 부부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형을 대신할 수 있는 모형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하나되지 않으면 또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남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영적으로 하나되고 몸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한계권내의 기대가 아니고 시간성을 초월한 주체적인 하나의 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삼위기대의 세 사람이 하나되어 뜻을 대신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발판을 만든다면, 다시 말하면 하늘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삼위기대가 되어 있다면 하늘은 이런 기대 위에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런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을 중심삼고 삼위기대를 편성하였습니다. (003-241, 1958.01.03) p. 382

2 아담 가정의 3수를 찾는 노정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삼위기대 편성입니다. 따라서 삼위기대를 중심삼고 서로 하나가 못 된다면 하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삼위기대가 하나됨으로써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복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이 지난 야곱 때에 와서 12형제를 찾아 세워 섭리의 뜻을 세워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수를 기본으로 하여 열두 제자를 찾아 하나가 된 연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부모를 모실 수 있게 되고, 나아가 하나의 지파를 대신할 수 있는 종족권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가정 때부터 야곱 가정 때까지 2천년 역사를 탕감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예수님도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005-119, 1959.01.04)

3 참다운 부모를 모시려면 참다운 부부가 되어 참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참부모를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마음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가정의 형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만민은 형제가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삼위기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삼위기대를 이루어서 자기들이 부모 입장에 섰을 때에도 형제끼리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합해서 해야 됩니다. 부모와 형제가 합해야만 가정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민족형을 갖추려면 이러한 가정이 12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0수 이상 되어야만 민족적인 조건을 대신 맡을 수 있습니다. (005-126, 1959.01.04)

4 신앙길은 혼자서는 못 갑니다.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3인 이상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기대가 필요합니다. 인간 성품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세 기준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해도 직접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종적으로는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3인이 하나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잘못해도 두 사람이 잘못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산기도도 3인 이상이 함께 해야 은혜가 빨리 내립니다. 기도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논의해야 됩니다. 타인과 의논하면 사탄이 침범합니다. 3인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히 번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연히 번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

지 않아도 셋이 하나되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식구를 대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018-043, 1967.05.17, 한국 전본부교회) p. 383

5 여러분은 현재 처해 있는 자리에서 원수를 가려내야 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가 낮인지 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같이하는 자리인가, 은사가 떠난 자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협조하는 무대를 갖추어 전진해야 됩니다. 혼자 전진하지 말고 동지와 함께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이 낮인지 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삼위기대의 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기대를 갖추어 합동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전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전진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합동작전을 하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019-148, 1968.01.01)

6 앞으로의 이상세계는 가정의 삼위기대를 중심삼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조목적은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사위기대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인간을 중심한 사회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을 닮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 통일교회를 세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을 통해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세계는 **온** 세계가 하나의 사람 모양을 형성하는 세계입니다. 거기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026-190, 1969.10.25) p. 384

7 하나님이 맺어 준 삼위기대, 이 삼위기대의 가치를 느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이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위기대의 가치를 느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생활을 대신 땅 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삼위기대를 편성하는 목적은 행동통일과 생활통일, 그다음에는 이념통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삼위기대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통일과 행동통일과 이념통일입니다. 이념이 있는 행동은 조직적이고 원리원칙적입니다. (150-012, 1986.08.17)

축복가정 삼위기대와 종족복귀

축복가정은 삼위기대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형제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정의 세 아들로 이루어진 삼위기대를 모델 삼아 각 종족을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우고 종족메시아의 길을 가야 한다.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들은 가정적 삼위기대를 완성한 뒤 참부모님 가정을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이루게 될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p. 384)

8 축복가정은 삼위기대를 편성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삼위기대 가정 중에서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자기 자녀를 양자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기 자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020-345, 1968.07.20)

9 가정은 전체를 대신한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의 잘못은 전체의 잘못으로 연결되므로 개인의 잘못은 용납할 수 있지만 가정의 잘못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체의 기쁨을 전체의 기쁨이 되게 하려는 심정이 충만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주관과 소망을 빼버리고 전체의 사정과 주관과 소망을 세워야 더 큰 것에 융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송전소와 같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전체에 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기대는 한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가정을 재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012-182, 1963.05.01)

10 통일교회는 식구라는 명사를 씁니다. 삼위기대를 중심삼고 볼 때 전부 형제입니다. 아버님은 이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나오면서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셨고 형제를 깊이 사랑하였고 자녀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시대를 거치고 형제의 시대를 거쳐 자녀의 시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모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버님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은 달라져야 됩니다. 창조목적은 참부모를 모시고 효성의 법도를 천주 앞에 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원칙이었습니다. (012-257, 1963.05.22) p. 385

11 축복가정 삼위기대는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삼위기대가 경제 문제를 놓고 서로서로 도와야 합니다. 자기 개인과 가정 문제만을 염려하지 말고, 삼위기대 가정 가정이 서로 같은 입장에서 돕고 위로하면서 하나되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위기대 가정들이 경제 문제를 초월하여 정신적으로 하나로 결합하여 같이 먹고살 수 있는 기준이 됐다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들을 침범하려 하더라도 삼위기대 세 가정이 완전히 하나로 단결되어 나아가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기대를 중심한 체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으로서의 기준을 세우고 이 시대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삼위기대 가정들은 12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12가정이 하나님 앞에 공적

인 자리에 서서 공을 세우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삼위기대 가정들이 중심이 되어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그리고 1년 사시절과 열두 달을 대표한 절대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에까지 내 가정이 동기가 되어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세 가정이 서로 동기가 되어 끌어올리게 되면 이 세 가정을 중심삼고 36가정까지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발전 원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중심삼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033-174, 1970.08.11)

12 삼위기대를 중심삼고 단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주체와 대상의 관념이 투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언제든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 입장인가 주체 입장인가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상은 대상으로서 절대적인 대상이 되고, 주체는 주체로서 절대적인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든 단체운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가정이 삼위기대가 되었으면 거기에서 한 가정은 반드시 주체 입장에 서고, 다른 두 가정은 대상 입장에 서서 주체 입장에 선 가정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어 하늘 가정을 규합해야 됩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맺어지면 수수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수작용이 백 퍼센트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033-175, 1970.08.11) p. 386

13 우리 자체 내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종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관계는 횡적인 관계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느냐? 심정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기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거나 제일 어려울 때 그를 심정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는 사람이 주체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지적인 사람보다 정적인 사람, 이론적인 사람보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주체를 정할 때 삼위기대 가운데서 뜻을 위해 보다 더 공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많이 노력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피땀을 많이 흘린 사람을 주체로 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투표해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수단이 좋은 사람을 택하지만 하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심정적으로 그 폭이 넓고 양이 많고 뜨거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 공과 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

사탄을 개입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033-176, 1970.08.11)
14 우리는 아직까지 가정적인 참다운 부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인 참다운 부모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부모를 그냥 찾을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내려갔으니 다시 찾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형제의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참다운 부모를 찾아 나가거나 나 자신이 참다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해원의 조건을 들어서 탕감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삼위기대의 의의입니다. 삼위기대(三位基臺)의 형제들이 하늘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중심을 갖추어서 3형제가 하나되고 12형제가 하나될 때 비로소 하늘나라의 가정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교단이면 교단, 민족이면 민족, 국가면 국가를 대표하는 형태를 갖추어 그 위에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기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교단적인 형태를 갖추어 세계적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05-124, 1959.01.04, 한국 전본부교회) p. 387
15 축복가정들은 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룬 가정이 원래 아담이 이루어야 했던 가정형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종족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이룬 가정이 사방성을 띠면 12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중심하고 3제자가 축복을 받아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덟 식구가 되는데, 이는 아담 또는 노아의 여덟 식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 가정과 여러분의 삼위기대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되면 사탄의 모든 참소조건을 끊고 종족메시아 입장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위기대를 이루어 여덟 식구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021-015, 1968.08.13)
16 육적 세계는 사탄의 활동 무대,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어 언제나 엇갈려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귀섭리시대에 한의 요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엇갈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권과 하나님을 중심삼고 치리받은 몸권을 마련해야 됩니다. 생활권 내에서 이것을 발전시킴으로써 통일 기반이 확립됩니다. 그것이 일치된 남성과 여성이 하나되면 하나의 가정적 일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적 일치점을 가진 가정들이 삼위기대를 중심삼고 12수면 12수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종족적인 경지를 넘어 민족적인 경지의 입장이 되면서 하나의 전통적 기원, 통일적 기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045-213, 1971.07.01)
17 부모님을 중심삼고 36가정이 있듯이 김씨면 김씨 가문에서 먼저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김씨 가문의 36가정형이 있어야 됩니다. 36가정이 못되면 12가정형의 조상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삼위기대를 이루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종족의 조상이 되어 여러분 가정을 중심한 새로운 지파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12지파형입니다. 12지파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두 제자가 있어야 되고, 열두 제자가 중심이 되어 70문도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 120문도와 같은 형태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직계 종족입니다. (031-277, 1970.06.04) p. 388
18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님의 특권입니다 부모님의 특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예약적 축복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적 기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팎의 가정으로 그 입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즉 아벨 가정인 부모님 가정 앞에 여러분 가정이 가인 가정 입장으로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그 기준이 안되었지만 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을 중심삼고 부모님 가정 대신 아들 가정의 입장에서 가인 가정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족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족을 복귀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은 가인적 가정의 조상이 되고 또한 장손적인 가정이 되며, 부모님 가정은 아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 삼위기대를 복귀해서 부모님 가정을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세 아들딸을 세워서 자기 가정과 완전히 하나되어 부모님 가정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034-209, 1970.09.06)
19 통일교회에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처녀 총각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의 세 아들딸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복귀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가정만 가지고는 세계복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파를 편성해야 됩니다. 종족을 복귀하려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세 아들이 가정을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가정적인 삼위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두고 보면 여러분이 부모님과 가정을 중심삼고 사위기대를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삼위기대가 하나되어 부모님 가정과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 사

위기대보다도 종족적인 삼위기대가 벌어집니다. 가정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파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0-085, 1968.08.11) p. 389

20 여러분은 원칙적인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종으로서 합격하고 양자로서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심정적 인연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한 도수가 극에 달하게 될 때 삼위기개의 가정 기반을 중심삼고 충성을 다했다 할 때에는 축복가정을 하늘을 대신한 아들과 딸로 여기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새로운 전통으로 삼고, 우리 문화의 기원을 삼고, 우리 생활의 밑천으로 삼아서 우리나라와 세계에 길이길이 남기에 될 때 하늘나라는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사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통적 사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족을 대신하여 종족의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 외에는 생각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회 신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더구나 축복받은 가정은 이의가 없습니다. (045-087, 1971.06.13)

삼위기대와 공동체 생활

참부모님께서는 삼위기대가 하나 안 되고는 세계를 통일할 수 없다면서 삼위기대는 3년 동안 한 식구처럼 살면서 한 형제의 심정을 체휼하고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종족을 넘어 나라와 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공동체 생활 전통을 세움으로써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p. 389)

21 여러분은 삼위기대를 편성해야 됩니다. 세 집이 반드시 한집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락한 인간이라서 전부 갈라져 있었지만, 그 갈라져 있던 것이 복귀시대를 거치면서 합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한 내 가정만이 잘되겠다고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기 한 가정이 아닌 세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 셋이 합하여 못해도 최소한 열두 집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느 식구가 찾아가면 자기 생활기준에 따라 어느 때든지 정성 어린 모습으로 대해야 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오셔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어느 때든지 즉석에서 준비해 드릴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적인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50-297, 1961.04.15) p. 389

22 원래 삼위기대는 3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삼위기대는 자식을 바꾸어 놓고 살아도 자기 자식처럼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귀찮게 알면 낙제생입니다. 삼위기대 중 한 가정의 남편이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나머지 두 가정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뜻에서 얼마나 먼 거리에 있습니까? 사탄이 '가인을 아벨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라고 공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사탄이 떨어져 나갑니다. 삼위기대 가정의 아기들을 데려다가 키울 때에는 자기 아기보다 2배 3배 정성들여 키워야 합니다. 삼위기대가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를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세 나라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삼위기대는 한 형제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되면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삼위기대를 망각하고 자기 가정을 위주로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부모님을 대신하지 말고 책임과 심정에서 부모님을 대신해야 됩니다. (021-177, 1968.11.20) p. 390

23 여러분은 평면적인 기준에서 종적인 3시대형을 횡적으로 탕감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삼위기대를 모두 묶는 것입니다. 삼위기대는 소생·장성·완성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생·장성·완성이지 혼자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세 가정이 하나이지 한 가정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가정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도 세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부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두 시대의 혜택권을 거쳐야 됩니다. 완성되려면 내가 아무리 완성이 되어 있어도 소생 장성을 거쳐서 완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3분의 2 이상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합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삼위기대가 합동생활을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틀림없다. 사탄도 참소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다음에 사탄이 분립되어 나갑니다. (156-337, 1966.12.31)

24 여러분이 삼위기대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집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집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탕감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 거기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을 같이 살게 해서 생활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삼위기대 가정들이 한집에서 살다가 나가야 됩니다.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세 가정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후원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적으로 후원받지 말고 횡적으로 후원받아야 됩니다. 자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형제가 하나되고 여섯 사람이 하나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늘땅을 다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한다고 그랬는데, 삼위기대가 하나되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자랑입니다. 이제 내가 직접 지시해서 36가

정에서부터 전부 한집에 세 가정씩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형제가 한꺼번에 살다가 세간을 나야 됩니다. 하나되기 전에는 못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상 형제보다 나을 수 있는 복귀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되지 않고는 세계를 통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6-093, 1985. 12.20) p. 391

25 천국은 가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위기대, 부모님을 중심삼고 세 가정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모든 천리의 규약을 중심삼고 일체화할 수 있게끔 하나되어야 합니다. 흑인·백인·황인종이 믿음의 삼위기대가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3년 동안 하나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12가정, 혹은 36가정이 한 파트가 되어 있으면 그 전체의 공인을 받은 가정은 자유해방이라는 것입니다. (287-205, 1997.10.03)

26 아담과 해와가 일체화하면 가인과 아벨도 일체화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양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상적 출발이 벌어지고 동양과 서양의 일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가 환국,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국시대입니다. 하늘부모님, 완성된 부모님이 처음으로 귀국시대, 나라로 돌아갈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사상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통일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독일인과 미국인이 한 가정에서 모두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민족감정이라든가 종족 민족, 혹은 문화의 세부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로 얽힌 과거의 참소적 파벌인 사탄의 권한을 완전히 소화하여 하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공동화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2명만이 아닙니다. 8명이 되어야 합니다. 4개국 가정이 부모님을 위해 훈련해야 됩니다. 8명의 공동체와 같습니다. 4명이 각자 짝을 이루면 8명이 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과 미국인과 독일인이 하나의 가정 안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 네 쌍둥이처럼 생활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생활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인은 일본인 나름대로, 한국인은 한국인 나름대로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의 원리적 방식에 의하여 생활환경을 개조함으로써 미래의 세계는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후손도 천국 직행 완성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230-300, 1992.05.08) p. 392

27 한국을 중심삼고 4개 나라에서부터 12개 나라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그 열두 나라만 연결하게 되면 12지파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또 외국 사람들은 한

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언제나 그럴 수 없으니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 초등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축복받은 가정들은 초등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각 나라 교회를 중심삼고 여러분이 나가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축복가정들을 전통적 신앙기준을 중심으로 묶어 공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자라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4-091, 1989.10.17)

28 세계를 하나의 큰 나무라고 생각할 때 자기 가정은 그 나무에서 작은 가지 중의 가지에 해당합니다. 자기 가정은 몇 천년 된 큰 나무의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기반이 되는 가지를 위해, 또 그 순을 위해 서로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수수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천운이 보호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상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은 자기 일개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동시에 세계적이고 천주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말하면, 하나의 세포는 수십조나 되는 전체 세포를 대표합니다. 그 수십조나 되는 세포는 하나하나의 사랑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부가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통일된 가정은 천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227-056, 1992.02.10) p. 392

제5편 섭리 기반 확대와 연두표어

| 차례 |

제1장 협회 등록과 내적 기반 확대

1절 협회 법인 등록과 성전 건축 ····· 396
2절 성화청년회 ····· 400
3절 성화학생회와 전국대학원리연구회 ····· 407
4절 《원리해설》과 《원리강론》 출간 ····· 417
5절 《성가》 출간 ····· 421
6절 청평성지 개발과 수련소 건축 ····· 428

제2장 7년노정 설정과 대외적 기반 확대

1절 민족복귀의 기대를 닦은 제1차 7년노정 ····· 439

2절 국가·세계복귀의 기대를 닦은 제2차 제3차 7년노정 … 450
3절 40일 계몽전도와 전국순회부흥회 …… 460
4절 축복가정의 총동원 활동 …… 471
5절 가정교회와 통·반 중심의 활동 …… 479
6절 통일원리·승공사상 사회지도자 교육 …… 490

제3장 주요 명절 선포

1절 심정부활의 날과 실체부활의 날 선포 …… 501
2절 부모의 날 선포 …… 505
3절 자녀의 날 선포 …… 509
4절 만물의 날 선포 …… 513
5절 하나님의 날 선포 …… 518

제4장 연두표어와 단계적 섭리 목표 설정

1절 섭리적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1960년대 …… 523
2절 통일기반과 천국실현의 토대를 닦은 1970년대 …· 530
3절 가정교회 활동과 조국창건에 중점을 둔 1980년대 …… 539
4절 참부모 자랑과 축복에 주력한 1990년대 …… 547
5절 천일국이상 실현에 역점을 둔 2000년대 …… 558

제5편 섭리 기반 확대와 연두표어

1960년 4월 11일(음 3.16) 참부모님 성혼식은 새로운 섭리역사가 출발하는 기점이다. 이날로부터 제1차 7년노정이 시작되었고 대외 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지방조직도 강화되었다. 매년 동·하계 계몽전도 활동이 펼쳐졌고, 대학원리운동과 초교파·승공운동 등을 통해 종교계와 대사회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참부모님께서는 계몽운동을 시작하면서 갈 길을 몰라 허덕이는 한민족 앞에 생명의 철장을 가지고 나가 외치라고 식구들을 독려하셨다. 식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국민들이 통일교회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협회가 정부에 등록되면서 안정적 활동기반이 마련되었다. 1963년 협회가 창립 10년 만에 사회단체로 정부에 정식 등록된 것은 섭리사적으로 제3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고 유대교 입장을 복귀할 터전

을 마련한 것이다. 로마제국과 같은 미국에서의 등록에 이어 한국에서도 등록을 이끌어 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1957년에 《원리해설》을 출간한 데 이어 1966년 《원리강론》을 발간하셨다. 《원리강론》이 나옴으로써 대사회적인 원리 전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원리공청회, 원리대강연회, 특별부흥회 등을 통하여 통일원리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갈 길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는 전국대학원리연구회 활동을 전개하여 공산주의 사상의 침투를 방어하고 교수와 학생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갈 길을 제시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부터 3차의 7년노정을 설정하시고 내적 외적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셨다. 특히 제1차 7년노정은 참부모님께서 한국 해방 직후 이루지 못한 개인·가정·종족 복귀를 통해 통일종족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민족복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신 기간이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제1차 7년노정과 제2차 7년노정의 승리 기반 위에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이 기간에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제정·선포하신 후 하나님이 날을 찾아 세우셨다. 또한 매년 연두표어를 발표하시면서 그해의 섭리적 목표를 정하시고 새해를 출발하셨다.

제1장 협회 등록과 내적 기반 확대

1절 협회 법인 등록과 성전 건축

협회 법인 등록

1960년 10월 14일 협회 기구가 처음으로 확정된 이후 교회 발전에 따라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63년 5월 31일 협회가 창립 10년 만에 정부에 사회단체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10월 4일 유지재단 법인 인가도 획득하였다. 이로써 참부모님께서는 민족복귀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실 수 있게 되었다. (p. 396)

1 1960년까지 우리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박해를 받았지만 우리는 차츰 성장해 왔습니다. 복귀섭리는 가인과 아벨 사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협회를 정부에 등록하려고 했을 때 문교부에서 등록 업무를 취급하였는데, 그때 문교부장관이 우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것이 번복되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70년, 700년 또는 7000년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번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운동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번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1963년 5월 31일 협회가 정부에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052-187, 1971.12.29) p. 396

2 통일교회는 제3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 충효의 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대교의 입장으로 복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의 정부 등록증이

나온 것입니다. 로마제국과 같은 미국에도 등록이 되었고 유대나라와 같은 한국에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중심삼고 세계적인 무대를 닦아 놓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누가 추방할 수 없고 죽이려야 죽일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적인 면을 담당하고 새로운 천지를 향하여 가는 방향을 가르쳐 줘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책임을 통일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013-051, 1963.10.16)

3 우리 교회가 정부에 등록된 것은 기뻐할 일이었지만 아버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투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제1차 7년노정이 마무리되고 아버님의 21년노정도 끝나게 됩니다. 이 민족은 **점**점 혼란에 빠져 갑니다. 우리는 이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속죄의 제단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이 민족을 대표해 동원되어 세계를 위해 희생봉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눈물과 피로써 세계를 복귀해야 됩니다. 한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와 천주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013-084, 1963.10.20) p. 397

4 아버님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7년노정의 3년기간에 다리를 펴고 잠을 자지 못한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머리를 숙이고 지도해 달라고 하고, 민족과 국가가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통일교회가 정부에 등록됨으로써 어느 권세로도 갈 길을 막을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죽지 않도록 하려고 민주주의를 세우셨습니다. 협회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못합니다. (013-079, 1963.10.19)

5 오늘날 통일교회는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 어떤 시대적인 과정에 놓여 있느냐? 제1차 7년노정의 3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은 3년 공생애노정 끝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중심삼고 승리의 발판을 닦는 기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연장되었는데 언제까지나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 치하 40년과 3년의 미 군정기간은 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급고역 430년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3년 중에 첫해는 어떠한 해였느냐? 첫해는 설 자리가 없어서 육계와 영계가 합하여 자리를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통일교회로서는 생사의 결정을 짓는 해였습니다. 아버님이 1960년에 성혼을 함으로써 비

로소 개인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기점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점이냐?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의 3일 기간에 세운 것과 같은 기점입니다. 복귀역사의 모든 것이 이 3년 기간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마침으로써 이루어진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1963년 음력 4월 13일에 협회 등록의 선포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012-273, 1963.06.20)

세계본부 부지 매입 및 지방교회 건립

세계선교본부 건립을 위해 1971년 4월 14일 서울 여의도에 부지 1만4천여 평을 매입하였다. 식구들도 한 평씩 산다는 조건으로 정성을 모았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순회를 끝내고 귀국하실 때마다 이곳에 들러 기도하셨다. 그리고 전국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셔서 1974년 6월 10일 충남교구 신탄진교회를 시작으로 A타입 성전이 1976년까지 전국에서 188동이 세워졌다. (p. 398)

6 부모님은 지방에 가서 초라한 교회문을 들어설 때에 교회가 이렇게 비참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 비참한 모습이 현시대에는 비참함으로 흘러갈 것이지만, 역사적인 시대가 오게 되면 이 비참함은 깃발을 드높여 만국 국민 앞에 자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우고 잠자는 사람에게는 평화의 해방이 찾아올 것이고, 승리의 영광의 찬양 소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일교회는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합니다. (059-212, 1972.07.16)

7 본부라고 해서 청파동의 본부가 세계본부가 아닙니다. 내가 외국 식구들한테 이 청파동 본부는 이러이러한 역사를 중심삼은 무엇을 지닌 곳이기 때문에 초라하지만 이곳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세계본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본부라는 것은 제일이라는 의식을 주어야 됩니다. 또 세계본부는 새로운 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에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세계본부의 땅을 사려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곳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 곳에 세계본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해 세계본부가 있어야 됩니다. (045-185, 1971.06.27)

8 이제는 통일교회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본부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네 곳의 땅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사위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경제적 터전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038-123, 1971.01.03)
9 세계본부는 세계를 지도해야 될 전당입니다. 세계본부를 지으려면 2만2천 평은 사야 되는데 지금 사려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만4천 평 되는 땅이라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한국 식구들이 사야 됩니다. 부모님은 정성을 다하여 나라를 넘고 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뜻을 안 사람으로서 여기에 가담하지 못하게 된다면 천추만대에 한이 남을 것입니다. (038-124, 1971.01.03)
10 한국을 보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여의도에 세계본부도 좋게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의도는 서울의 중심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예상한 것이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본부 앞에는 광장이 생깁니다. (045-334, 1971.07.11) p. 399
11 앞으로 교회를 전국에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 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협력하고 본부도 협력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1975년에 1천명의 국제기동대가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1천명이 전부 서울에 한꺼번에 머무를 수 없으미 8대 도시를 순방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되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 들이고 피땀을 흘려서 지어야 그 교회를 바라볼적마다 그것을 지을 때 어려웠으면 어려웠을수록 신앙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표상적인 전당이 될 것입니다. (071-158, 1974.04.30)
12 내가 A형 교호 짓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의 절반은 여러분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 절반을 마련하는 곳부터 지어 줄 것입니다. 재료를 갖다가 조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본부에서 그 장소가 적합한가 안 한가를 감정할 것입니다. 건물을 피난처 같은 데에다 지어 놓으면 건물이 죽는 것입니다. 풍치라든가 전후 좌우의 모든 환경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해서 불합격이 되면 다른 데에다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합력한 터전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기초하는 팀이 가는 것입니다. 그 팀이 먼저 가서 기초만 닦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골조, 골격을 세우면 됩니다. 트럭으로 재료를 실어다가 기둥과 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격을 세워 놓으면, 기와를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새게 해 놓고, 그다음에는 미장하는 사람이 가서 미장을 하고, 마루를 까는 사람이 마루를 까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담책임을 주어서 이동하며 한꺼번에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071-165,

1974.04.30)
13 1975년 '희망의 날' 대향연 집회 이후에는 기독교가 우리를 반대할망정 일반 국민은 지지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핍박받을 때에는 어려웠지만 환영받을 수 있는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향산천을 찾아가 여러분의 종족을 찾아서 하늘나라의 족보를 꾸미는데 가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족을 족보에 편입시키지 않고는 여러분은 선조로부터 참소받을 것이요, 앞으로 후손으로부터 참소받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본부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 놓고 지방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청평에 세계의 젊은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련소와 대학교 부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084-158, 1976.02.22) p. 400

2절 성화청년회

'성화 '의 의미와 성화청년회

1954년 12월 31일 협회에 처음으로 성화기독학생회(成和基督學生會)가 출범하였다. '성화'라는 명칭은 참아버님께서 직접 명명해 주셨으며, 이후 여러 단체에 그 이름을 활용하였다. 말씀에 의하면 '성화'는 완성과 화동(和動), 즉 서로 화(和)해서 완성해 간다는 뜻이다. 성화기독학생회는 1955년 3월 27일 성화청년회로 이름을 바꿔 1960년까지 협회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날을 기해 기관지 〈성화(成和)〉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p. 400)

1 여러분은 성화청년회라는 이 글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화(成和)라는 말은 어떠한 자극에 의해 파동적인 입장에서 화(和)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화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중심삼고 출발한 여러분인데 아침에는 좋아하더니 저녁에는 울며 야단이고, 또 밤이 되면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침에는 울고 저녁이나 밤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러니저러니 하며 많은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학생 졸업생들을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최고의 일선에 내보내서 쓰러지게 하여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어야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을 시켜야 합니다. (013-119, 1963.11.08) p. 400

2 성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화학의 '화(和)'는 본질까지도 변하지만 성화의 '화(和)'는 다릅니다. 절대적인 상대성과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성화로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중심삼은 세계관과 생활관, 자기를 중심삼은 천적인 심정을 공고화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씨알로서 결실되어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

다. 그래야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은 훌륭한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지가 못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025-108, 1969.09.30)

3 성화의 '화(和)'는 개성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개성진리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1천 명이 있다면 이 1천 명이 다 각각 다릅니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성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화합(化合)은 개성이 변해서 하나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개성을 지닌 채로 하나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모든 개성들이 합해서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루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연결되어 완성하면 완전히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53-129, 1994.01.23) p. 401

4 성화청년회의 성화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성(成)은 완성을 의미하고 화(和)는 화동을 의미합니다. 서로 화해서 완성해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은 말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둘째,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의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일일이 의논하지 않고도 심정적으로 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전후·상하·좌우로 화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실체가 되는 것이 표준입니다. 예수님도 청년시절에 뜻의 일선에서 일했습니다. 30세 전후의 청년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아버님의 젊음에 여러분의 젊은 열정을 플러스시켜서 일해야 됩니다. 재창조 위업에 가담해서 영광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이 한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세상 사람들을 대해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는 심정을 갖춰야 합니다. '너희는 해내지 못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이런 정신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평면적으로도 어디를 보아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008-329, 1960.02.21)

5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청년 남녀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목사 장로 앞에 천륜을 입증하여 그들의 인격을 비판하고, 천적인 가치 앞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어긋난 것은 천상의 어떠한 존재나 지상의 어떠한 존재든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들어왔으면 기성종교 관념을 초월해야 됩니다. 회의적인 신앙 관념을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 관념의 입장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실체를 모실 수 있는 안식처가 못 되니 그것을 무자비하게 밟고 넘어설

수 있는 용단성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003-274, 1958.01.12) p. 402

6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의 때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앙에 뜻을 안 사람으로서 하늘 앞에 헌신하고자 나섰으니 귀한 청춘시대를 아무런 미련 없이 하늘 앞에 완전히 바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간혹 청춘시절을 뜻과 더불어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뜻이 어떤 것이고 젊은 시대에 뜻과 더불어 지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망각한 자리에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시대에는 반드시 고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반드시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청춘시절이 있는데 그 한 때를 누구와 더불어 지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일신이나 일가의 행복을 위해서 지내는 것보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문제를 중심삼고 사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043-067, 1971.04.18)

청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사명

협회 창립 이후 중심은 청년과 학생들이었다. 패기 충천한 청년학생들은 교회의 힘이요 꽃이었다. 그리고 초창기 식구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인사들로서 그 면모가 출중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지성인들만 가는 교회다.'라는 소문도 들었다. 청년들은 초창기 교회의 기둥으로서 민족과 세계복귀의 첨병 역할을 하였고, 참아버님께서도 청년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가 극기훈련을 시키거나 자연과 친화할 기회를 갖게 하는 등 그들을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 (p. 402)

7 일반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로 나갑니다. 그다음에는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물론이고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면 사회의 어떠한 도덕권 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는 방향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로 나간 사람은 그 걸음이 사회에서 머무를 것이고, 가정으로 간 사람은 가정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과 사회를 넘어 국가와 세계로 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신념으로 하루하루 생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그 날들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능동적인 실체가 되지 못하면 언제나 비관과 낙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가는 방향이 같지만 경우가 다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가정의 가장이 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삼은 개인적인 가정의 환경을 타파

해서 종족에 연결될 수 있는 가정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정의 형태를 갖춰서 세계의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 청년들과 입장이나 생각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해야 될 개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개체로서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모체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025-080, 1969.09.30) p. 403

8 청소년이 지녀야 할 긍지는 무엇이어야 하며,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청소년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불신의 조상인 아담 해와가 더럽힌 노정을 따라가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가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절대희생·절대신앙·절대복종·절대순응만이 일방통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청소년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복귀시대의 한계점이 다가오는 이때에 태어난 성화 중고등학생, 통일교회 청소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흘러간 역사시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영계와 육계의 통일적인 기반을 갖추고 육적인 아벨 기반을 갖추어서 새로운 세계에 등장하여야 됩니다. 통일사상을 지니고 이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기수로서 이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기수로서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할 무리는 나이 많은 장년이나 노인이 아니라 피끓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런 빛나는 청소년의 무리를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날이 와야만 하나님이 6천년 한이 풀릴 수 있고, 아담의 원한의 터전이 되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과 상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천주는 암흑 그대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세대는 청소년 세대라는 것입니다. (059-275, 1972.07.27)

9 여러분은 선조들이 걸어간 노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몰리고 고난당했고, 예수님이 민족과 교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가정으로부터 불신당하였는데, 여러분도 이런 슬프고 억울한 자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고난당하신 아버지의 심정을 체휼하고, 선조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천년만년 그 뜻을 위해 변치 않고 단결하여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청년 남녀를 하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적인 뜻에 사무친 진실한 청년들을 하늘은 찾아 나오셨습니다. 민족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원한의 심정을 느끼고 아버지의 슬픔을 내 몸에 품고 원수를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정병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과 이념을 통일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서러움과 예수님의 서러움과 선조들의 서러움과 후손들의 서러움을 해원하기 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003-296, 1958.01.19) p. 404

10 여러분 청년 남녀들은 자기 자신을 단장하기 전에 이 삼천만 민족을 단장하려는 마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이 땅 위의 만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풀 한 포기까지도 붙들고 울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중에서 폭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갖지 못하고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못 됩니다.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눈물의 열매요, 하나님의 고통의 열매요, 또한 하나님의 피의 제단 위에 오르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의 갈 길을 개척할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 이 민족을 위하여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계를 구원할 사람은 청년 남녀들이라는 것입니다. (005-021, 1958.11.09)

11 반만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우리 민족은 갖은 고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어디 가서 호소할 줄 모르고, 분함과 억울함이 있어도 호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이 민족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민족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아와 같은 이 민족이지만 우리끼리 손을 붙들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이야 있든 없든 하늘이 허락한 같은 피와 뼈살을 가지고 태어난 형제이니, 자기 개인의 사정을 넘어서서 부모의 역사적인 혈통과 심정에 결합하기 위해 울 줄 아는 아량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피끓는 정열이 일신의 출세와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일개인의 한계권 내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005-080, 1958.12.21) p. 405

12 인간의 본래 이념은 무한대의 선을 넘고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본래의 이념을 위하여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거쳐 온 역사노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면 그 섭리의 종국에 하나님은 어떠한 무리를 요구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울 줄 아는 무리일 것입니다. 하나의 뜻에 엉키어 울고, 하나의 심정에 엉키어 울고, 하나의 행동에 엉키어 울면서 먼저 제물이 되겠다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005-080, 1958.12.21)

13 우리가 양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가는 데에는 악이 대립하고 있고 사탄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 일체 되는 그 기점 위에 인정(人情)과 천정(天情)이 일체 되고, 우리 이념과 천적인 이념이 일체 되는 그 기점 위에 우리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하나되고, 우리 사랑과 천적인 사랑이 하나로 엉키는 그 기점 위에서 하늘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하늘과 우리 마음이 하나되고, 생명이 하나되고, 이념이 하나되고, 사랑이 하나된 인연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끼리끼리 맺은 정의 인연도 끊지 못하여 울고불고 야단인데 천정에 엉키어 하나된 그 인연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악의 힘이 강하고 땅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 근본에서 맺어진 정적인 흐름의 한 기준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찾을 때까지 역사는 허덕일 것이며 인류는 도탄 중에서 신음할 것인데, 이것을 방지할 용자는 땅 위에 없을 것인가?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고 이러한 사명의 노정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의 폭탄으로, 하나의 원자탄으로 삼고 사탄 도성을 터뜨려 버리겠다는 불붙은 폭발의 심정을 가진 용자가 있기를 나는 고대합니다. 이러한 용맹성을 갖춘 하늘의 정병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하늘은 바라고 있습니다. (005-158, 1959.01.11)

14 최후에 남아지는 이념의 한 곳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게 하는 것은 심정입니다. 심정이 최후의 내 전체를 **결**정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심정 하나만을 붙들고 조심성 있게 찾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보여주는 환상을 볼 수 있으며, 생활에서의 모든 실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느끼며 초조한 심정과 불안한 마음을 억제하면서 새로운 이념을 찾고 움직이는 청년 남녀들이 있고, 그들의 울부짖는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심정의 움직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심정을 통하여 역사적인 모든 것과 오랫동안 느껴 오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심정을 느끼고 자기를 각성하여 '하늘이 찾던 이념의 주체가 이것이었구나! 세계가 찾던 참된 모습과 하늘 땅 앞에 세워서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순간을 갖는 사람만이 역사의 주인이요 섭리의 주인이요 천륜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관계와 인연의 세계에서 책임을 다하고 실적을 남겨야 할 인생행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본연의 인간을 대신한 승자의 모습이 나였구나!'라는 각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이 세계와 우주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006-121, 1959.04.12) p. 406

15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인류의 행복의 기점이 이 땅 위에 나타나

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어 걸음을 걷지 못하고 뒤넘기치면서 이것을 책임지겠다고 엎드려 호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의 무릎 앞에 머리를 묻고 통회해야 됩니다.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기 한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나아가는 무리가 있거든 결사적으로 그들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자, 이러한 양심적인 인사가 이 민족 가운데서, 특히 이 민족의 청년 남녀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민족은 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원불변의 이념적인 발판입니다. 이 모습이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정에 있어서는 제가 아니면 당신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고, 제가 아니면 당신의 옷을 매만져 줄 사람이 없고, 제가 아니면 당신의 신발을 고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어느 한 부분도 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무리가 모이는 날에는 싸움을 하지 않고도 이 사탄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010-180, 1960.09.25) p. 406

3절 성화학생회와 전국대학원리연구회

성화학생회와 성화동창회

통일교회 초기 활동은 성화 출신들이 주도하였다. 1955년 10월 23일 중등부와 고등부 성화학생회가 각각 결성된 이후 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성화학생회를 수료한 정회원과 가수료한 준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성화동창회 창립총회가 성화 7회까지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1963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이후 해마다 총회가 열렸다. (p. 407)

1 성화라는 이름을 왜 젊은이들에게 붙여 주었느냐? 피 끓는 젊은이, 순결의 피가 끓어올라 하나님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는 피를 가진 젊은 청소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성화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성화(成和)의 뜻은 이루어서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서 화합하는 것입니다. 화합했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누룩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아이들인 웃음동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 젊은이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제부터 성화학생 여러분은 하나님을 해방해 드릴 수 있는 기수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싸워 나오신 신념 이상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047-080, 1971.08.19) p. 407
2 성화의 '성(成)'은 창조이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주 전체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완성의 기준을 세우는 시기는 인간시조가 타락했던 연령인 16세 때입니다. 그래서 20세 전후의 성화를 중심삼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 완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시기입니다. 아버님은 청소년기에 소원의 표준과 생애의 목표를 세우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정통을 인계받은 자로서 직행해야 됩니다. (021-083, 1968.10.27)
3 타락한 후손들은 탄식권 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탄식권 내에서 선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갖고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더 큰 선을 창조하려면 신념을 갖고 그릇된 환경을 짓밟고 투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 악한 환경도 선의 환경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제2의 창조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부딪혀도, 어떤 파도가 휘몰아쳐도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이러한 신념을 갖고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재창조를 하려면 상대적인 위치가 아니고 주체적인 위치에 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재창조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학생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도중에 쓰러지면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은 재창조의 목표를 세워 놓고 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재창조해야 됩니다. 선을 창조하는 나, 선을 대변하는 나로 재창조해야 됩니다. 나는 선을 세울 수도 있고, 선을 깨뜨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두 갈래 길에 선 모체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욕망을 채우려면 하나님 앞에 대상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선을 옹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012-287, 1963.07.27) p. 408
4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걸어 나왔지만 아직까지 세계무대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데는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맹도 누구한테 지지 않고 싸우는 데서도 누구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 않고는 세계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민족적인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승리의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처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일의 이념권 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부모님이 지향하고 하나님이 지향하는 승리의 세계로 가기 위해 스스로의 입장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슬픔

을 느끼는 졸장부가 되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천상세계가 허락하는 하늘의 왕자가 되고 왕녀가 되고, 영광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024-088, 1969.07.06)

5 우리는 사탄의 철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맺힌 한을 풀어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하나님으로서 만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장애물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전부 제거해서 만국을 자유와 평화의 천국으로 주관하는 당당한 절대자로 모셔 드리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념을 가진 성화학생, 젊은이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젊은이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러한 젊은이가 되었다면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흉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희망이 깃들어 있는 것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소망과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047-080, 1971.08.19) p. 409

6 우리 젊은이들은 더 좋은 가치가 없다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더 가치있는 것을 창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갈 때 제2의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그 소망을 향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썩어 가는 나뭇가지와 같은 젊은이들을 다시 창조하여 환경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성화학생들 중에는 반대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환경을 거쳐 여기까지 흘러왔겠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이념을 가지고 보다 좋은, 보다 가치적인 환경을 창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012-287, 1963.07.27)

7 하나님의 뜻을 책임지고 이 시대를 수습하려는 책임자가 있다면 그는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동자입니다. 통일교회도 지금까지 생각하는 시대로부터 준비하는 시대와 실천하는 시대를 거쳐 나와 어느 정도까지는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나 통일교회 식구들은 피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동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개인적인 승리의 기반을 닦지 않고는 개인적인 주동자의 입장에 설 수 없으며, 나아가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인 주동자의 입장에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졸업생 여러분은 뜻적으로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 먼저 개인적인 승리의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지금은 종족과 민족이 한꺼번

에 연결되어서 종족적인 승리의 기반 위에 민족을 수습해야 될 시대입니다. (013-111, 1963.11.08)

8 성화학생 졸업장을 받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못 가겠다고 반대하고 모세를 내쫓던 무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내적인 세계에서 마음을 중심삼고 싸워 승리의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맹세하고 꾸준히 준비하여 선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실천 무대인 세계무대에서 멋지게 싸워 승리함으로써 최고 영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3-122, 1963.11.08) p. 410

9 역사의 주인은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어머니 아버지형도 싫어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의 마음을 변화시켜 감사하고, 내일의 희망에 벅차고, 소망에 불타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내가 태어났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 주고 싶은 마음,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을 나눠 주고 싶은 마음, 자기가 아무리 조밥을 먹고 죽을 먹더라도 남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서러움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난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하고 역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033-289, 1970.08.21)

10 우리는 좁은 가슴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넓히고 넓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예수님과 성신을 해방하고, 영계에 있는 모든 천천만 성도를 해방하고, 남북통일을 우리 손을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좌우로 갈라지고 혼란한 이 세계를 방향을 잡아서 통일의 지상천국으로 변혁시켜야 할 사명이 청소년 여러분의 두 어깨에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나로서 잠자리에 들고, 그러한 나로서 아침에 깨어나게 될 때 짊어진 중임(重任)이 자기를 억누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패자, 졸자가 되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올라가서 빛나는 가치를 나로 말미암아 플러스시켜 하나님과 후손 앞에 넘겨주고 말겠다는 결의에 사무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통일교회 청소년들의 사명입니다. (059-289, 1972.07.27)

11 젊은이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승리하려고 합니다. 패자가 되는 것은 절대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젊은이들로서 하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야 합니다. 그러니 사회 각 분야에서 역사적인 업적을 남겨야 하고 그 분야들을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청년들입니다. 지금 세상 대부분의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삼고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출세를 하느냐, 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 젊은이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차원 높은 윤리관에 입각해서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차원 높고 넓은 시야의 행복관을 가져야 하고 그 행복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심적인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025-079, 1969.09.30)

전국대학원리연구회

참부모님께서는 1966년 1월 9일 제2회 대학생 및 청년 특별수련회에서 '앞으로 대학가에 크게 관심을 가져서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대학생들을 일깨우고 규합하는 일에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동기가 되어 수련회에 모인 젊은이들이 뜻을 모아 대학가 원리운동의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하였고 1월 10일 전국대학원리연구회가 창립되었다. 전국대학원리연구회는 각 대학에 동아리로 등록한 뒤 통일원리 전파와 승공 활동에 앞장섰다. (p. 411)

12 민주와 공산의 두 진영을 통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2천400개 면에 적어도 한 사람씩은 배치해야 됩니다. 삼위기대를 이루어서 배치하려면 7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 출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과 연세대학을 중심하고 하려던 것이 무너져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고생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7년노정의 3년노정 기간은 이 민족에게 통일신도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남한은 현재의 상태로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중류층 이하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리를 전파하고 생활지도와 계몽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각 면의 삼위기대는 이념지도와 생활지도와 계몽운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학생들을 1년씩 지방으로 보내서 중등교육을 책임지게 한다면 그들은 농촌의 사정도 체득하고 애국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제물이 되는 참다운 사상을 대학가에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자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젊은이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전국대학원리연구회 창립 목적입니다. (016-144, 1966.01.10) p. 411

13 한 국가의 흥망은 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의 나를

창조해야 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국대학생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순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향상선(向上線)에 섰던 선조가 있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후손이 일관된 목적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라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할수록 발전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많은 식물들이 햇빛 하나만을 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종대 순을 세우고 횡적인 환경을 이루시는 역사를 엮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순이 될 수 있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를 찾아 나옵니다. 한국은 이런 순의 입장에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순은 모든 가지가 받는 시련을 일시에 받지만 전진적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계적인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017-208, 1966.12.21) p. 412

14 통일신도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샘물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폭포와는 반대입니다. 산짐승도 샘물을 찾아옵니다. 샘이 없는 산은 명산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학생 여러분은 부패한 대한민국을 정결케 할 샘이 되어야 합니다. 샘물은 솟아 정결함 그 자체를 더럽히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려 할 것입니다. 샘물이 인간의 생명과 인연되기 위해서는 그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순수한 샘물은 반석을 뚫고 나온 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017-209, 1966.12.21)

15 핵심적인 대학원리연구회 회원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펼치기 위해 학사를 각 대학에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연구회를 중심삼은 학사와 성화학생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이 되면 전부 원리강의를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각 대학의 각 학과에 배치해 우리 사상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직을 강화해 놓으면 짧은 시일 동안에 급속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 출신들을 전국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자기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분위기를 알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됩니다. (022-063, 1969.01.19) p. 413

16 앞으로 대학원리연구회를 핵심적인 활동체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 철두철미한 결의를 한 사람들을 지역 요원으로 배치해 활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강화해 놓으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원리연구회도 상당히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면으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만큼 여러분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새로운 분야에서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리연구회를 세계적으로 조직하여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개최해야 됩니다. 앞으로 원리연구회의 중요한 멤버들을 각 나라의 핵심요원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요원들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022-065, 1969.01.19)

17 아버님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지금까지 갑론을박하며 여러 가지로 비판하던 사람들이 국제과학통일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를 선전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론적인 사람, 철학을 한다든가 종교나 사상을 연구하는 몇몇 사람만 우리를 선전하게 되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되면 대학원리연구회 활동을 어떻게든 급진적으로 전개해서 그들을 여기에 연결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연구회 기동대를 만들어 출동하게 한 것도 그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각 주 대표들과 각 도시의 책임자들은 지금까지 국제과학통일회의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수들과 적극적으로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삼촌처럼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삼고 일반 학생들을 추천받아 외적인 원리연구회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089-270, 1976.12.04)

18 대학원리연구회 정회원은 대학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공부해야 될 청춘 남녀들의 그 원기 왕성한 열기를 다 뿜어서 천리원칙의 가치적 사랑의 깊은 골짜기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칠**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천의는 공산세력과 교회 몰락, 청소년 윤락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윤락의 길로 빠져드는 청년 남녀를 붙들고, 신앙이 파탄되어 가는 기독교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괴열(壞裂)되면서 그 자리를 타고 들어오는 공산세력을 방어해야 됩니다. (121-180, 1982.10.24) 414

19 대학가에서 활동하는 대학원리연구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교회 부흥활동이나 승공활동을 원리연구회에 결부시켜야 합니다. 원리연구회가 초교파운동보다 YMCA나 YWCA와 같은 단체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대학가에서 활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흥회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전도되

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유대관계를 맺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원리연구회 활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원리연구회 활동은 대학교 내의 활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학생이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재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자기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동료들과 친구가 있고, 자기 전공학교를 중심삼고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창이나 친구, 동기들과 사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활동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022-054, 1969.01.19)

20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우리 활동에 대해 승공이란 명사를 인정한 것은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뜻을 성사시킬 수 있는 승리의 팻말은 이미 꽂혔다고 봅니다. 이제 종적인 승리의 기준은 되었으니 이것을 기반으로 횡적으로도 승리해야 될 조직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통일의 이념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학문적이고 사상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상을 중심으로 학계와 관련지어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반공운동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대회 전도활동이요, 학생을 중심으로 펴고 있는 것이 대학원리연구회 운동입니다. (017-341, 1969.04.30)

21 대학 내에서 공산사상을 가진 적색분자들이 침투할 수 있는 노선을 승공활동을 해서 사전에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원리연구회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통일원리의 최후의 승패는 세계적인 학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통일원리를 세계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각 대학교의 종교학과나 철학과의 권위 있는 교수들에게 통일원리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이 통일원리를 세계 학계에 제시하여 세계화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전에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기반을 닦아 놓자는 것입니다. (022-058, 1969.01.19) p. 415

22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 혹은 노동조합을 중심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가를 중심삼고 교수와 학생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공산당이 세계를 침식해 온 한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에서 교수와 학생을 단합시켜서 노동자와 농민을 선동하여 대중 데모를 중심삼고 혼란을 일으키는 역사를 해 나오는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학원리연구회는 반드시 교수들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세계평화

교수협의회를 세워 활동해 왔습니다. 이 세계평화교수협의회와 원리연구회가 하나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113-213, 1981.05.05)

23 일본과 미국의 대학원리연구회는 공산세력과 일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활동을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수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문서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여건만 되어 있지, 직접 백주에 생사의 대결을 하는 입장에는 못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백주에 나가 생사를 걸고 대결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의 팻말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9년부터 원리연구회가 이 일을 전개하여 1980년 말에는 이미 미국 전역에서 대학가를 휩쓸던 공산주의 일색의 모든 풍조를 막아냈습니다. 일본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공산당 계열 학생들이 시위하는 곳에 원리연구회 회원 5명이 가서 수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가의 공산세력은 원리연구회 학생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미국 원리연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3-213, 1981.05.05)

24 일본에서는 YMCA나 YWCA 같은 기독교 단체의 활동이 미약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는 조직을 만들어 교육해 가면서 하려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교 당국도 반대하고 선생들도 반대하는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차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부 공산당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였던가를 내 눈으로 봤고 보도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막힌 사정이 많았던 것을 모를 것입니다. 아버님은 일본을 위해 싸웠습니다. 일본의 중심 대학에서부터 싸운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영향권을 만들고, 사회 분야에서 공산당 기지를 토벌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본 공산당이 아버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통일교회가 없고 원리연구회만 없으면 일본은 틀림없이 공산화가 되고 적화가 될 텐데 통일교회 때문에 큰일 났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104-080, 1979.04.01)

25 미국 젊은이들에게 불을 질러야 됩니다. 대학원리연구회 활동을 중심삼고 대학가를 정상화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교회를 중심삼고 전도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미국 가정의 젊은이도 우리와 같은 젊은이로 만들어야 되고, 대학가에서는 우리 청년과 같은 청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미국이 반대하지 않고 아버님을 지지하는 환경이 되어 가면 그다음에는 공산세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반공활동을 한 그 전통을 일본에 전수하고, 미국에 전수하고, 소련에까지 전수해야 됩니다. 대

학가에서는 원리연구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현재의 가정교회 활동은 미국에서 어떠한 전통을 남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문제와 청소년 윤락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리와 철두철미한 가정적 기반을 중심삼고 그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104-259, 1979.05.27)

26 여러분은 천의를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가던 것과 같이 말없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짐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을 통해 대학가에 확산되고 하나의 풍조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대학가에는 새로운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대학원리연구회는 한국 대학원리연구회를 앞서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대학원리연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원리연구회 젊은 청년들을 규합하여 베를린 장벽 문제를 제기하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아서 베를린 장벽을 내 손으로 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젊은이도 못 도고, 세계를 수호하는 통일가의 원리연구회 회원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121-183, 1982.10.24) p. 416

27 우리가 대학가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에는 대한민국은 살 길이 없습니다. 서유럽의 국가들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공산세력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대학원리연구회 세계대회를 합니다. 1차, 2차, 3차 대회를 끝내고 이번에 베를린장벽을 격파할 것입니다. 대학생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켜 공산세력을 내쫓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앉아서 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남북을 통일할 수 없습니다. (167-273, 1987.07.21) p. 417

28 대학가에서 좌익계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해야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체제는 없어졌지만 민주주의 체제도 와해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리어 공산주의라는 반대세력이 여기에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자체 내에서 자각하게 할 수 있는 활성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짐으로써 민주세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리어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민주세계의 붕괴 상태는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좌익계열도 혼란 상태에 들어가 있고 민주세계도 혼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면의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교수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할 만한 실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어적인 교육의 제안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리연구회를 중심한 대학가 활동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241-054, 1992.12.19)

4절 《원리해설》과 《원리강론》출간

《원리해설》과《원리강론》

《원리해설》집필 작업은 《원리원본》을 기초로 하여 유효원 전 협회장에 의해 1955년 5월부터 진행되었다. 1957년에 들어와 참아버님의 감수를 받은 원고가 매달 〈성화〉에 게재되었으며, 최종 교정작업을 거쳐 8월 15일 《원리해설》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이날 참아버님의 친필 서명된 212권이 지방전도지에 발송되었다. 1966년 5월 1일 《원리해설》을 보다 체계화하여 강의하기 쉽게 만든 《원리강론》이 출간되었다. p. 417

1 해방 후 7년 만에 내가 해야 될 소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본·교재인 《원리원본》을 만들었습니다. 《원리해설》을 발표한 때가 1957년이었습니다. 《원리강론》은 1966년에 나왔습니다. 1957년과 1966년은 9년의 차이가 있는데 9년 동안에 아버님이 원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2 《원리원본》을 중심삼고 《원리해설》을 출판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이 필요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만 하면 누구든지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일선에 나갔습니다. 열다섯 살 이전에 전도 나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해와가 열여섯 살에 타락했습니다. 그랬으니 순정이 불탈 때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전도를 나간 것입니다. (601-208, 2008.11.07)

3 통일교회 책임자들이 전도 나갈 때에 두 사람씩 내보내면서 여비도 못가지게 하고 맨손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대로 가서는 초를 잡아 놓은 《원리원본》을 중심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원리원본》을 베끼라고 나눠 줬는데, 그것을 베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원필은 내가 쓴 《원리원본》을 직접 받아써서 자기가 공부해 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다.'고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원리해설》이 나와서 본격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것은 읽을 줄만 알면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해설》의 골자만 뽑아 외워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601-209, 2008.11.07)

4 아버님을 보지도 않고 따른 첫 사람이 유효원 협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원리원본》을 읽고 아버님을 따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

다. 유 협회장은 아버님보다 여섯 살 위였습니다. 세계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위였습니다. 그래서 유협회장은 세례 요한 입장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원리를 해설해야 했습니다. 유 협회장이 원리책을 쓸 때 그에게 이런 식으로 또는 저런 식으로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052-156, 1971.12.27)

5 아버님이 부산 피란 시절인 1951년에 《원리원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와 같이 쓴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설명을 해줘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원본》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설해 놓은 것이 《원리해설》입니다. (549-257, 2006.12.28)

6 《원리강론》을 쓸 때 전부 글을 감정하고 틀리면 고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은 아버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구는 발전소와 송전소, 배전소를 거친 전기가 소켓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무것이나 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버님 이외에 아무도 책을 쓸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한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영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265-223, 1994.11.23) p. 419

7 《원리해설》 다음에 나온 것이 《원리강론》입니다. 《원리해설》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원리강론》까지 가르치니 그 수준은 대학교 이상입니다. 나라가 갈 수 있는 모든 전체가 《원리강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원리강론》에 정치문제·경제문제·사회문제·역사문제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리강론》만 통달하게 되면 세계 어떤 나라의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대학 교수도 가르칠 수 있는 이상의 실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601-209, 2008.11.07)

통일원리와 《원리강론》

《원리강론》은 참부모님께서 밝혀내신 '통일원리'를 체계화하여 강의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며, 창조와 타락과 복귀 등 하나님 섭리사의 전반을 밝혀낸 근본진리를 담고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대 초부터 변화·발전하는 시대상에 맞도록 통일원리의 서술 방법과 내용 전달에 보다 쉽고도 논리하된 체계의 필요성을 느껴 유효원 전 협회장에게 집필을 지시하셨다. 유 전 협회장은 통일원리를 선포하신 참아버님의 철두철미한 대필 사명자로서 《원리강론》원고 한 줄 한 단어 속에 참부모님의 심정과 진리를 보다 온전하게 담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p. 419)

8 통일원리에서 그동안 발표한 내용 가운데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부분적으

로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의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원리' '타락론'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등에서 보이는 중심사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원리는 그것에 대해 협의를 해서 바꾼다거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091-124, 1977.02.03)

9 통일원리는 하나의 철학도 아니고 학설도 아니고 말씀 그 자체처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한번 그 진리가 밝혀지면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하고 그 원리하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원리의 성취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진리와 완전히 일체가 되었을 때에는 사탄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 데려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진리를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되었더라면 사탄이 침범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는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살아 있는 인간 속에서 존속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리는 사탄에게 빼앗기고 잘못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조건이 조성되고 진리가 어떤 선까지 실체적으로 구현될 때까지는 새로운 진리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091-124, 1977.02.03) p. 420

10 통일원리는 내 생애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생활 경험입니다. 이 통일원리는 내 속에 있고 나는 통일원리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단지 진리의 발표자이고 그 전달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진리대로 살고 있으며 그것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와 나의 행동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원리를 통하는 것뿐입니다. 통일원리를 알고 연구함으로써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91-125, 1977.02.03)

11 아버님이 발표할 것이 많고 많지만 조금 더 있다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원리강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먼저 알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리강론》에는 아버님에 대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원리강론》은 예수님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리강론》만 중요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마음으로 따르고 동고동조하면서, 그리고 그 생활에 감격하여 내일의 역사 창조의 기수로서 책임 다할 수 있는 통일교회 신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정이 결여되면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037-263, 1970. 12.27)

12 아버님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봐서 사실이 아닌 것만 부정합니다. 영계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 보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세계를 대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말씀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입니다. 진리가 '그럴 것이다.'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나 화학 공식에서는 '그럴 것이다.'하는 말이 없는데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통일원리'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심정이란 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격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입니다. 말씀도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구체적인 심정과 인격과 말씀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이 현실세계에 부합되고, 이 현실세계에서 영원한 위치를 결정지어 현실세계의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014-180, 1964.10.03)

5절 《성가》 출간

성가의 기원과 의미

성가(聖歌)에는 참부모님의 고난과 승리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특히 참부모님께서는 명상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가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식구들이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참아버님께서 1946년 8월 11일 평양 대동보안서 수난을 당하신 뒤 100일 만인 11월 21일 빈사지경으로 석방이 되어 1947년 초 식구들을 모아 집회를 하시면서 '승리자의 새 노래'를 지으셨다. 최초의 성가였다. 그리고 1950년 10월 14일 흥남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신지 20여일 만인 11월 초에 평양에서 '성려의 새 노래'와 '영광의 은사'를 작사하셨다. '성려의 새 노래'는 '새'라는 접두사가 열세 번 나올 정도로 새 출발의 결의가 넘쳐흐르고 있으며, '영광의 은사'는 새 세계와 새 역사 건설에 대한 감격과 소망이 약동하고 있다.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부산 피란시절 범냇골 토담집에서 '어둠에 싸인 세력', 1953년 수정동 세 번째 집에서 '복귀의 동산''성원의 은사', 1959년 2월 17일 제1회 전국전도사수련회 참가자를 위해 '원리용사가', 1961년 전국 40일전도에 파송된 식구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늘의 용사'를 작사하셨다. 특히 '어둠에 싸인 세력'은 부산 피란시절에 사탄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서 쫓기는 생활 모습과 죄인의 입장을 벗어나 구원의 길을 향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매우 절실하게 표현하셨다. '복귀의 동산' 역시 참아버님께서 부산 수정동 교회 시절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복귀의 노정에 대한 각오와 결의가 잘 담겨 있다. 그리고 '성원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큰 은사 앞에 보답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성가에는 식구들이 작사한 노래와 외부 노래이지만 식구들이 즐겨 부르면서 차용해 온 것이 있다. 식구들이 지은 것으로는 '내 가오리다''고난의 새 생

명''성화청년회가''내 몫에 태인 십자가''맹세''사랑의 봄동산''영광의 날''성화용사의 노래''나는 제물''빛나는 조국''복귀의 심정''성화청년행진곡''주일학교 어린이 노래' '성취하자 하나님의 기업''빛은 동방에서''모든 것 다 바쳐 싸워 나가세''하나로 뭉치세''통일용사의 노래''새에덴의 노래''주님 오시네''농원의 노래''주는 나의 전부라'가 있다.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지은 노래로서 성가로 편입된 것은 '동산의 노래''부름받은 몸''내 어린 양''한숨을 걷어차라''쓸쓸한 골짝''찾아진 양떼''맘에는 원이로되' '동산의 봄노래'가 있다. 1956년 10월 4일 참아버님과 식구들이 작사한 곡들을 모아 《성가》 초판을 발행하였다. (pp. 421~422)

1 통일교회의 성가 가운데 '하늘의 용사'의 내용은 첫째가 심정입니다. 1절은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로 시작합니다. 진리의 인연으로 세계가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길잡이입니다. 실체와 관계를 맺기 위한 다리와 마찬가지요, 심정을 전달하기 위한 중간 형태입니다.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라고 할 때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타락한 이 세계를 대하여 품고 있는 탕감복귀해야 될 한의 심정이 아니라 해원하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은 당신께서 참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개인을 찾지 못한 것이요, 가정을 찾지 못한 것이요,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014-181, 1964.10.03)

2 하나님의 첫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신 개체가 한의 조건으로 걸려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한의 조건을 제가 풀겠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개체로서 해원성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해원성사되고 종족·민족·국가·세계가 해원성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에 세계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어 주신 본성의 인연'이 본래의 우리 인연입니다. 타락한 이 세계의 인연은 우리 인연이 아닙니다. 하나로 묶어 주신 이 심정이 본래의 인연입니다. 그다음에 '영원히 주고받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성의 인연에 의해 하나로 묶어짐으로써 영원히 주고받게 됩니다. 본성의 심정을 중심삼고 영원히 주고받는 거기에 비로소 우리의 본향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비로소 행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014-182, 1964.10.03) p. 423

3 복귀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온 누리에 빛을 비춰 주니 온 누리 그 빛 속에 형제가 되어 바라신 선의 부모 길이 모시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정녕코 하나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용사' 1절은 심정입니다. 심정의 인연으로 영원히 주고받는 우리의 본향은 온 인간이 사는 곳입니다. 본향이 좋다는 것은 부모와 가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심정입니다. 모든 행복의 길을 닦아 놓은 곳이 우리의 본향, 행복의 터전입니다. 2절은 인격입니다. 무한한 인격으로 빛을 돋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격으로 빛을 돋우는 데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인격을 빛을 돋우는 지으신 말물들의 영광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솟구치는 본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가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영원히 만세에 소망의 가치로 꽃피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세에 소망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온 우주에 꽃피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질서의 기틀 위에 참을 세우고'에서 그 질서는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질서의 기틀 위에 참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참이란 영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약속하는 불변의 가치, 드높이 세워지는 진리의 푯대입니다. 이러한 푯대를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양양한 선한 날을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길이길이 뻗어 나가는 선한 하루하루를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동방에 밝아 오는 찬란한 문화 온 누리 그 빛 속에 형제가 되어 바라신 선의 부모 길이 받들어 정녕코 이루리라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심정으로 인격을 이루고 인격을 이루려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세계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026-203, 1969.10.25) p. 424

4 '승리자의 새 노래'는 내가 지은 것입니다. 이 노래 4절에 '지으심의 선하심'이 나옵니다. 이 뜻을 출발하면서 지었던 옛날의 역사가 오늘에 꽃피운 현장, 새로운 천국 이름을 대표한 천일국 광장 앞에 첫해 첫 아침의 모임 자리에서 이 노랫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 꿈이 가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한 꿈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64-096, 2002.01.01)

5 '영광의 은사'할 때에는 영광의 말보다도 고생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고생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밑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하나되게 하려니 '모시리'라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눈물 없이 대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지은 것입니다. 동방에 외롭게 와서 서방으로 가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반대받은 것입

니다.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야 합니다. 미국과 유엔까지도 구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바쁘게 그 일을 청산짓는 것입니다. (547-251, 2006.12.03)

6 흥남감옥에서 나와 평양에서 식구들을 수습할 때 내가 정성을 들이면서 지은 노래가 '영광의 은사'입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상황이 어떻고 아버님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봐야 그 노래가 자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의 노래가 아닙니다. 내 노래인 동시에 내 가정의 노래이고, 내 가정의 노래보다도 내 일족의 노래이고, 내 나라의 노래이고, 내 세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영원한 저나라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해방된 왕자 왕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579-145, 2007.10.29)

7 '동산의 노래'를 부르면서 취하고 눈물짓고 '바람벽도 내 친구지.' 이러고 살던 때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동산의 노래'는 남편 아내의 부부끼리 사는 그 동산, 그런 환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서로가 다 주님이 되고 주님의 상대가 되어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꽃이 피었으니 향기가 나야 되고, 나비와 벌이 화동해야 됩니다. 천가지가 화합하고 화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살면서 관심을 남길 수 있는 부부가 못 되면 그 동네에서 빚지는 것입니다. (569-221, 2007.10.29) p. 425

8 통일교회 교인은 '동산의 노래'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먼 데 있더라도 다 좋아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나는 곳에 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부르면 좋고 나쁘고 하는 희로애락이 동반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 말 중에는 더 고마운 것이 노래입니다. (332-208, 2000.09.22)

참부모님 애창곡

참부모님께서는 각종 집회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거나 신구들을 불러내어 노래를 시키면서 분위기를 돋우셨다. '사랑해''엄마야 누나야'는 명절 행사 때나 화동회에 양위분이 함께 부르거나 식구들과 합창을 한 노래이다. 참부모님은 본향을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사가 담긴 노래(가고파, 고향무정, 향수)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피는 새싹처럼 새생명과 희망이 약동하는 봄노래(봄처녀, 사월의 노래)도 즐겨 부르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여수 청해가든에서 해양섭리를 주관하시면서 '뱃노래'를 일본 식구들과 열창하시고, 일본 노래 '후루사토' '아카돈보'도 식구들과 함께 합창하시곤 하셨다. 외로운 뜻길을 상징하는 독도에 대한 가사가 담긴 '홀로아리랑'과 변함없는 충정을 나타내는 '천년바위'도 좋아하셨다.

성화 직전에는 손주님들을 무릎이나 탁상 위에 앉혀 놓고 '할미꽃'을 함께 부르며 즐거워하기도 하셨다. '대한팔경''조국찬가'등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염원하셨다. (p. 425)

9 '홀로아리랑'은 독도(獨島)에 대한 노래인데, '독도'는 '외로울 독(獨)'자와 '길 도(道)'자로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을 맞아서 조그만 얼굴이 하룻밤을 어떻게 지냈느냐는 것입니다. 백두산 맑은 물과 설악산 맑은 물이 동해로, 동쪽으로 찾아갑니다. 해가 오르는 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독도를 찾아가서 닻을 내리고 아침 햇빛을 맞는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이 노래를 다 알아야 됩니다. 독도가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섬은 해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가 도를 닦는 독도입니다. 여자들이 아이들을 품고 이 독도의 노래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눈물이 아니면 부를 수 없습니다. 내용이 깊다는 것입니다. (399-211, 2002.12.23)

10 '천년바위' 노래는 아버님이 댄버**리** 생활을 회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아버님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밤이나 낮이나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광명한 빛의 왕권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댄버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2절은 저녁이 되어서 밤중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중이 되면 내가 숨 쉬고 사는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계에 가더라도 뜻의 길을 증거해야 되고, 감옥에도 천국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님은 '옥중의 성자'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세상에서 그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알고 체험하고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는 각도를 맞추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탈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을 바로 찾아가서 하늘이 원하는 이상천국을 창건하고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515-185, 2006, 02.25) p. 426

11 '가고파'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고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겠다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열두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회가 가는 길과 맞습니다. 복귀노정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가사 내용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본향 땅을 찾고 조국광복을 위해 가야 할 복귀노정과 같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노래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밤에는 낮을 그리워하는데, 여명이 지나게 되면 낮이 찾아오게 됩니다. 핍박받는 것은 원수세계의 모든 것을 상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자진해서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고개 너머에 평지가 있고, 더 큰 산을 넘게 되면 더 큰 평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샘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조그만 강이 생기고 더 크고 큰 강이 생겨나서 나라를 동서로 꿰뚫고 포용할 수 있는 물결로서 흘러가는 그 주변에는 무한한 평원, 광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간절한 그 심정이 복귀의 심정을 찾아가는 통일교회 사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419-248, 2003.10.04)

12 '광야의 사나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사나이라면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황량한 광야를 달리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가 전도 일선에 나가 있는데 남편이 바랑에다가 먹을 것을 지고 돈을 갖고 그 아내를 찾아가는 기분이 근사한 것입니다. 정자나무 아래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만나서 지금까지의 자기 회심을 풀고 '당신 얼마나 수고했어요? 앉읍시다. 그대가 외로운 자리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를 후원하기 위해서 수고했소.'라고 하는 자리에서 천년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076-193, 1975.02.09) p. 427

13 '빛나는 대한'에 나오는 '딩동댕동'은 시적이고 음악적입니다. 통일교회를 '딩동댕동 교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높은 데 낮은데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좋은 내용의 말입니다. 통일교회가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등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이 높지를 않기 때문에 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고 가까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누구를 처음 만나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고 담이 막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면을 갖추고 일생 동안 사는 그 영향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영향을 미치고 살 수 있고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품고 나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12-293, 2009.05.31)

14 '대한지리가'의 내용이 좋은데, 거기에 애국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교회를 믿는 세계 사람들은 이 가사 내용을 따라서 한국에 대한 지식 기반을 중심삼고 사상과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백의민족 배달민족의 홍익이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상적 골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아보았더니 목사인 우리 종조부가 이 글을 써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르쳐 준 것입니다. (576-280, 2007.10.02)

15 통일은 우리 정성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성취해야겠다는 마음

을 가지고 '통일의 노래'를 힘차게 한번 불러 봅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한과 북한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세계적인 체제를 갖추어 악착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를 굴복시키고 삼천리반동에서 추방할 때까지 우리는 형극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나라를 빠른 시일 내에 부흥시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안팎으로 단결하여 남북을 통일해 자주적인 국가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원수 사탄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흥을 해야 됩니다. 외적인 부흥은 자연히 내적인 부흥 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를 사랑하고 종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부흥이 됩니다. (043-176, 1971.04.29) p. 428

6절 청평성지 개발과 수련소 건축

청평 성지 택정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대부터 인종과 문화 종교 국경 등을 초월하여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천일국 공동체 모델을 세우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 특히 낚시와 천막 생활을 통해 정성을 들이시면서 청평 일대 땅을 매입해 섭리의 터전으로 삼으셨다. 참부모님께서는 1972년 7월10일 청평수련소 앞 울업산 정상에서 이 일대 21곳의 이름을 새로 명명하셨다. 주산인 천성산은 본래 장락산으로 병풍 모양이다. 정상 아래 평지를 본전성지로 정하셨다. 오늘의 천정궁(天正宮)박물관이 세워진 곳이다. 주변 산야는 수련소를 중심으로 모란꽃 형상이며 복귀된 에덴동산을 상징한다. (p. 428)

1 아버님이 팔도강산을 다 다녀 봤습니다. 1960년대에 여러분을 전국 각지에다 배치하여 놓고 전국의 명산을 전부 답사하여 보았습니다. 통일교회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이냐, 이 기반을 어디에 닦느냐를 염두에 두고 답사한 것입니다. 좋은 장소는 반드시 호수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서울에서 너무 멉니다. 서해안은 도시가 집중되어 있고, 간만의 차가 상당히 심하여 바닷물이 빠지면 간석지가 되고, 또 감탕물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장소를 찾다 보니 설악면 송사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참 멋있습니다. 내가 청평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037-084, 1970.12.22)

2 아버님이 여기 청평에 와서 보니까 자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기도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정성들이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길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그룹이든지 최고의 그룹은 정성의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래서 혼자 울업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내가 비록 손바닥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결심한 것은 지금까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이룬다고 한 것은 기필코 이루고야

맙니다. (046-165, 1971.08.13) p. 428
3 돈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이고 천적인 내용을 중심삼고 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청평에 땅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땅을 사는 것은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기 위해서 청평에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시대를 지나 점진적인 세계시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위한 국제적인 교육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리 돈을 써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033-160, 1970.08.11) p. 429
4 청평 땅은 세계의 조국 땅, 만인류의 심정적 고향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딸이 추앙할 수 있는 승리적 창조이상을 완성시켜서 하늘땅이 연결될 수 있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고향 땅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800만 평 되는 땅을 산 것입니다. 산과 이 둘레의 땅은 우리 미래의 고향을 위한 땅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185개국에 우리 기지가 있는데, 부모님의 소원은 이곳을 이 185개국의 모든 역사적 전통을 전시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지에서 각 나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전통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수련소, 교육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한 땅으로 기도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판도를 통일교회가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승리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282-046, 1997.03.10)
5 아버님은 청평에 자주 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 길을 닦아 나오면서 고생하던 그 자리가 그립고, 산야가 그립고 ,들려오던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그리워서 가는 것입니다. 그 흘러내리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늘의 감동적인 세계에 접촉하던 그 기분이 그리워서 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움은 죽을 때까지 누가 빼 가지 못합니다. 어려운 자리, 배고픈 자리에서 참고 명상을 하면서 하늘과 더불어 인연맺던 그 시간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결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과거의 인식을 현실의 생활권 내에 재촉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느낀 그것이 자극적인 동기가 되었다면 현실에서는 생활적인 동기로 현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049-057, 1971.10.03) p. 430
6 부모님은 청평의 지형이 좋은 것을 알고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청평호

수를 중심삼고 우리 수련소 지을 장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수련소가 있는 그 장소는 본래 집 지을 수 있는 터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고, 뽕나무가 열댓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청평 전체 산야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곳이 중앙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천막을 치고 땅을 사기 시작해서 수련소를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을 많이 사게 된 것은 이곳을 앞으로 국제수련소,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수련받을 수 있는 세계본부와 같은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골짝 골짝을 미국촌·영국촌·독일촌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자랑하고 추앙하는 하나의 관광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234, 1978.10.14)

7 청평은 모든 것이 완전히 정착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름도 그렇습니다. 청평의 '청(淸)'은 맑은 것을 말하고 '평(平)'은 평평한 것을 말합니다. 곧 청평은 맑고 평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지작업은 다 되어 있으니 설계해서 기둥만 세우면 됩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060-155, 1972.08.17)

8 청평수련소 앞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펑퍼짐한 땅에 우리 별장이 있습니다. 그 별장을 천유장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 가서 보면 참 묘한 곳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모란꽃같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에 모란봉이 있지요? 그 모란봉이 왜 유명합니까? 모란꽃을 보게 되면 꽃잎이 빽 둘러 있는데, 그 가운데 노란색이 조화를 부리면서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낳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모란봉이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천성산을 중심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아주 멋이 없고, 올라가서 보면 제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산을 병풍으로 하고 앞에 연결된 모든 산야들은 모란꽃잎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0-235, 1978.10.14)

9 청평수련소 앞뜰에서 내다보면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강물이 들어오는 길도 모르겠고, 나가는 길도 모르겠고, 호수와 같이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련소에서 내려다보면 경치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이곳은 호수와 산야가 조화된 아름다운 곳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합니다. 이러한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수련을 해야 수련생들이 산을 바라보나 뜰을 바라보나 고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질녘의 산꼭대기, 맨 높은 산봉우리로 넘어가는 해라든가, 아침에 높은 산봉우리로 뜨는 해라든가, 그 가운데 날고 있는 새라든가, 그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의 풍경이라든가 이러한 전부가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멍해져서 몽상권 내로 들어갑니다. 공상도 하고, 꿈도 꾸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기백이 크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한번 이 물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저 산을 넘어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를 지나는 등 이렇게 얼마든지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경치 좋은 곳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는 학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울리거나 푸른 호수에 조각배가 한 척 떠 있어도 시를 읊게 되고, 또 기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장단을 맞추어 춤도 추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갖춘 곳이 청평수련소입니다. (100-235, 10.14) p. 431

10 청평수련소 일대를 보면 참 잘 생겼습니다. 이 수련소의 뒷산 전체를 천승대(天勝臺)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산은 원래 장락산인데 내가 천성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성산을 비롯해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봉우리는 '거룩할 성(聖)'자를 쓴 천성산(天聖山), 오른쪽 봉우리는 '이룰 성(成)'자를 쓴 천성산(天成山), 왼쪽 봉우리는 '재 성(城)'자를 쓴 천성산(天城山)이라고 했습니다. 3성산인데 거룩을 표시하고, 완성을 표시하고, 보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3성산을 정할 때 10리 이내에 저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높은 산이 있는 산맥이 줄기를 뻗어서 장락산을 거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올라가 보니까 장락산이 높게 직선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잘 생겼고 병풍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물은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백 번씩 변합니다. 이것은 조화(造化)를 말합니다. 조화라는 것은 희망을 말하고 무한을 말하고 전체의 번창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청평수련소 자리가 아주 명당이라는 것입니다. (060-146, 1972.08.17) p. 432

11 청평수련소 앞에 있는 호수 이름을 천심호(天心湖)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산은 선인봉(仙人峰)이라고 짓고, 그다음에 '이룰 성(成)'의 천성산 오른쪽에 있는 산을 천선산(天善山)이라고 했습니다. 수련소 바로 앞에 있는 산 이름을 아버님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인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련소 오른쪽으로 '성인 성(聖)'자 천성산으로 쭉 뻗어 올라가 있는 곳을 천인대(天引臺)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련소 본관을 지을 곳입니다. 거기는 정성의 도수가 차고, 외국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성역지대를 만들어서 왕궁처럼 지을 것입니다. 저 산 밑에는 1만5천 평 정도 평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길을 닦으

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천인대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듯 전부 그 이름을 풀이하게 되면 이상동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60-155, 1972.08.17)

12 세계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청평입니다. 이 청평 땅에 국제수련장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다가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 선교부가 있는 각 나라의 블록, 즉 일본이면 일본 블록, 미국이면 미국 블록을 만들 것입니다. 방대한 지역을 사서 미국 블록이면 미국인들에게 떠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와서 수련받을 수 있게 미국인들이 와서 수련받을 수 있게 미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총합할 수 있는 환경 도시, 종합 촌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우리 수련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본부에 와서 수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순회할 때 인상에 남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045-185, 1971.06.27)

청평수련소 건축

참부모님께서는 1971년 7월 12일 서울 청파동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이은 섭리사의 완성적 성지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 75-1번지에 청평수련소를 세우셨다. 이 수련소는 건평 93평, 강당 70평으로 200여 명 숙식이 가능한 목조 슬레이트 건물이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장마철 악천후에도 매일 현장을 찾으셔서 일일이 감독을 하셨다. 수련소 첫 집회는 12일부터 5일 동안 28명의 기독교 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목사하계수양회였다. (pp. 432~433)

13 청평에 수련소를 지을 때 두 달 정도 걸려야 될 것을 8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7월 초하루부터 터를 닦으라고 해서 2일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다 지은 것입니다. 청평에 지은 수련소가 93평입니다. 수련소 강당만 따진다면 한 70평이 되니까 200여 명은 잘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짓는 일을 일주일 동안에 해치운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만 열흘이 됩니다. 오늘이 1971년 7월 11일인데 원래는 어제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일 동안에 전부 끝내고, 그다음에는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페인트칠을 하고 한 3, 4일간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장은 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피란 통에 시집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단장을 하지 않고 시집을 가더라도 신랑을 만나서 잘살면 되는 것입니다. (045-326, 1971.07.11) p. 433

14 청평에서 수련소를 짓는데 날이 궂지만 않았어도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져서 문제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작업이 끝나리라 보고 있는데 끝나지 못하더라도 내일은 기독교 목사들이 집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재료들을 구입해 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이 직접 나가서 재료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님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비가 얼마나 들이퍼붓는지 배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꼭 도망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뒤에서는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입장과 같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045-324, 1971.07.11)

15 천막을 쳐 놓고 기독교 목사들을 모셔다가 수련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날씨는 비가 오고 구질구질한데 천막을 들락날락 해야 되니 참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1971년 7월 8일까지 수련소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서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명을 지방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면서 지구장 아래에 있던 부장급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그 사람들을 당장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청평에서 특별수련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파라고 한 것입니다. (045-181, 1971.06.27) p. 434

16 청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십 일 동안 땅을 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러니 죽을 지경입니다. 어제는 내가 부상자는 나서라고 하니까 26명 중에 8명이 나섰습니다. 3분의 1이 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니 심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탕감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번에 지구를 새로운 편제로 개편했는데, 지구에서 실무 책임을 졌던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045-324, 1971.07.11)

17 내가 목수는 아니지만 집 짓는 일을 몇 십년 한 사람이 하는 일도 내가 코치를 해야 제대로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입장에서 그 표준의 가치를 놓고 관찰하게 되면 그것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온돌을 놓는 것도 아버님이 '온돌은 이렇게 놓아야 한다.'고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어디에 파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수들이 일을 잘못했다가 나한테 기합을 받고 다시 뜯어내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잘못했다가는 말을 듣겠으니 나한테 와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굳은 땅과 무른 땅의 접경이 있으면 그 접경이 직선으로 가다가 꺾이는

곳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 했더니 '언제 우물 파는 것을 다 배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내가 배우기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지도해 나오는 책임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오던 것이 이제는 전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척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결과는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보는 데는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봅니다. 집터를 닦더라도 전체를 봐서 닦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045-325, 1971.07.11)

18 청평수련소 지붕에 슬레이트를 올리는데 슬레이트를 가져오는 것이 3일 전부터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락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는 바람에 공사 마지막 날에도 슬레이트가 도착 안 했습니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전국목사하계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 텐데 그날 끝나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왕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쫓아다니면서 돈을 안 내면 슬레이트를 못 준다고 하는 것을 사정해서, 또 똑딱선을 전세 내서 밤 11시 반에야 수련소를 실어 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내려놓다 보니까 새벽 2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딱선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밤이 늦었고 통행금지 시간이라서 그 주인이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사이에 슬레이트는 물론 용마루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때 비가 오니까 '임시로 저렇게 올려놓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올라간 슬레이트 위에는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몇 시간 이내에 완전히 슬레이트를 올려 지붕을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도깨비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색칠을 했기 때문에 어울립니다. 또 가만히 서서 보면 납작한 것이 엎드려서 도를 닦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앞으로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060-149, 1972.08.17) p. 435

천주청평수련원 기공식과 봉헌식

참부모님께서는 1997년 3월 10일 옛 청평수련소 일대에 전 세계 식구들을 교육하는 국제적 규모의 천주청평수련원(천성왕림궁전) 기공식을 거행하셨으며, 1999년 11월 7일 완공과 함께 봉헌식을 가지셨다. (p. 435)

19 1997년 3월 10일 오늘은 청평 성지에서 하늘땅이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통일가의 새로운 훈련도장, 혹은 정성들이는 성전, 더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심정적 세계를 출발하는 기원지, 하나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기공식을 갖는 날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이고 하늘의 섭리사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 청평 성지는 본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지어진 이 수련소를 중심삼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통일교회라는 조그마한 교단을 만들어 이곳이 섭리사에서 세계 만민이 추앙할 수 있는 초종교적이요 초이상적인 기지뿐만 아니라 고향 땅이 될 것을 생각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30년 전을 생각하면 감회가 깊습니다. (282-045, 1997.03.10)

20 청평 땅은 영과 육을 중심삼고 하늘땅과 협력한 자리에서 개인이 출생할 수 있는 기지, 가정이 출생할 수 있는 심정적 기지, 혹은 국가가 출생할 수 있는 기지, 더 나아가 세계와 하늘땅이 출생할 수 있는 심정적 기지뿐만 아니라 지상천국·천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심정의 기지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통일교회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축복가정들이 수련을 받아 세계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일이 이 청평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대신해서도 자랑할 수 있고 민족과 국가가 자랑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전 인류가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282-048, 1997.03.10)

21 오늘은 청평 성지에 하나님의 전당을 기공하는 축하의 날이 되겠사오니, 이 기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판문점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남북을 통일하여 하늘의 통일적 금문점(金門店)이 될 수 있는 표시로서 영계·육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정의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출발기지를 건설하는 기공식이 되겠사오니, 하늘땅 전체가 축하의 날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땅 위의 참부모와 하나되어 심정적 기틀을 마련하여 영원한 역사시대와 후속시대를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심정적 통일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사를 대표한 전통의 교량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형제애로 묶고, 만국을 하나의 형제국으로 묶어 하늘땅이 하나의 형제국가로서 하나님과 참부모가 치리하는 새로운 지상·천상의 왕권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영계에 간 모든 선조들이 땅 위에 연결된 그의 후손들과 일체화도어 평화의 세계를 향하는 통일적 이상이 일취월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바람이신 장자권복귀를 지나고 부모권복귀를 지나서 왕권복귀시대에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체·전반·전능시대로 진입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각국의 식구들이 정성들여 이 기공식을 축하하는 자리를 기꺼이 보시어서 만국과 연결될 수 있

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282-117, 1997.03.10)

22 1999년 11월 7일, 천성왕림궁전 봉헌식을 앞두고, 하늘이 주시하는 가운데 천상세계의 축복가정과 지상세계의 축복가정이 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의 주권 현현을 영육으로 다짐할 수 있는 승리의 궁전 이름을 가진 터전을 봉헌하는 이날을 맞이하여 이 성별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이날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소유권으로 결정하여 천년 만년 자손만대에 추앙의 기지가 되고 사랑의 전통적 영육 일체 심정권의 출발 기지로 삼으시옵소서. 이곳이 천하에 사모의 궁전이 되고, 사랑의 궁전이 되고, 혈통적 인연을 존중할 수 있는 숭배의 궁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천지부모가 언제나 중심이 되시어 만세 사랑의 통치권에 의해서 사랑으로 연결된 세계화 운동에 성별 확대를 위한 기념적인 하나의 기원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312-304, 1999.11.07) p. 437

23 한민족은 물론이요 세계에 널려있는 수많은 국가 국가들이 하나의 혈족으로 단일민족권을 편성하여 하나님을 중심삼은 자주적인 사랑의 주권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걸어 나오던 모든 것이 국가를 넘고 세계화시대에 선두의 자리에 서서 모범을 보이는 일을 해야 될 출발의 출현 기지로서 이 궁전을 건설하였사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직접 주관하시어서 영계 전체가 일체화되어 축복받은 선조들과 지상의 축복받은 후손들이 하나되어 통일천하, 평등 평화의 세계로 전진할 수 있는 해방 지상천국, 해방 천상천국의 시대를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뜻을 이어 만민의 가슴 가슴에 생명의 인연을 통해 사랑의 혈통적인 결속을 다짐하는 수련 궁전으로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봉헌하오니, 천상세계에 가 있는 모든 영들과 모든 존재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지상 전 세계의 인류를 대표하고 만물을 대표하여 초점을 맞춘 승리의 하나의 기지로서, 당신의 하늘나라 왕자 왕녀의 권한을 갖출 수 있는 승리적 인간 해방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전당으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312-307, 1999.11.07)

천정궁 입궁 및 봉헌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왕권즉위식을 거행하신 이후 2001년 7월 8일 본전성지인 천정궁 기공식을 가지셨다. 이후 5년 만인 2006년 6월 13일 천주 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대관식을 거행하셨다.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본전성지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황궁, 본연의 집이다. 그리고 천정궁(天正宮)은 '두(二) 사람(人)이 바르

게(正) 만든 궁(宮)'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만사를 주관할 수 있는 주인 중의 주인, 왕 중의 왕이 되시어 억조창생이 영원히 공존·공생할 수 있는 천국이상권의 본궁이다. (p. 437)

24 청평에 하늘나라의 왕궁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국가 전체가 합해서 지상에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도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닐 만큼 그 몇 배 이상 가치 있게끔 정성을 들여 영원한 궁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속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474-338, 2004.11.04) p. 438

25 천정궁은 하나님의 고향이요 하나님의 조국이요 인류의 고향입니다. 천정(天正)은 두 사람이 싸움을 접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궁(宮)'자는 갓머리(宀)아래에 '법 려(呂)'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하늘의 바른 법이 궁을 조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궁에는 마음대로 올 수 없습니다. 사위기대의 축복을 거치고 3대가 해방의 자리를 갖추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539-119, 2006.09.19)

26 참부모님이 가정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3시대권을 대표한 3대가 하나되어 40개국 순회 집회를 완결함으로써 천정궁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천정궁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벗어날 수 있게끔 탕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섭리사와 일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정궁의 '천(天)'자는 두(二) 사람(人)을 말합니다. '정(正)'은 '머무를 지(止)' 위에 '한 일(一)'자를 덮어놓은 것입니다.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정(正)'자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탕감해서 정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일적인 횡적 기반, 참부모의 기반을 중심삼고 정지해서 들어가야 할 곳이 천정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538-151, 2006.09.14)

27 천일국 이름을 중심삼고 왕권즉위식, 왕권봉헌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 왕권을 대표한 천주부모와 천지부모와 천지인부모가 합덕하여 선의 왕 중 왕으로서 대관식을 마치는 자리이옵니다. 당신 앞에 아뢰옵나니, 당신의 승리의 기반을 닦기 위해 그동안 주관한 모든 전체, 관계됐던 모든 소유권, 모든 것을 다 나눠 주고 이제는 홀연히 아버지 앞에 아무런 짐도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대신 에덴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아담의 핏줄을 찾는 주인이 되시옵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벌어진 혼란의 세계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어서 가인 아벨이 없고 싸움이 없는 나라를 찾기 위한 당신의 천일국 이상 심정통일권, 통일적 가정 형태의 세계적 판도를 아버지 앞

에 마련해 드리옵니다. (529-257, 2006.06.13) p. 438

제2장 7년노정 설정과 대외적 기반 확대

1절 민족복귀의 기대를 닦은 제1차 7년노정

제1차 7년노정의 출발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성혼 이후 1967년까지 민족복귀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 제1차 7년노정을 설정하셨다. 이 기간을 전 3년노정과 후 4년 노정으로 나누어 총력 체제로 활동을 전개하셨다. 7년노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참부모님께서는 7년노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탕감복귀섭리를 이끄셨다. 7년노정은 섭리의 주역들이 책임을 다할 때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시 7년이 연장된다. 따라서 1차 7년노정은 참부모님과 식구들이 긴장된 나날을 보내면서 섭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기간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는 후일 모든 식구들이 걸어야 할 전형노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추진되었고 섭리적 기틀이 놓였다. 참부모님 성혼을 기점으로 시작된 7년노정은 1960년 7월 전 식구 일제 전도활동으로 본격화하였다. (p. 439)

1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완성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완성 단계의 기간이 7년입니다. 소생·장성·완성 3단계의 7년씩을 전부 더하면 21년, 만으로는 20년이 됩니다. 한국 나이로 21세, 만으로 20세 때는 인간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성숙기에 들어가면 사랑의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결혼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을 받고 인류의 참된 부모로 공약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권내에서 타락하여 이런 단계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남아진 이 7년의 한으로 인하여 6천년 역사에 천년왕국의 1천년을 더한 7천년 역사의 한이 남게 된 것입니다. 1년이 1천년, 7년이 7천년으로 연장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7년으로 탕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노정입니다. (023-217, 1969.05.25) p. 439

2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7년노정을 걷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예수님도 27세부터 33세까지의 7년간을 중심삼고 제1차 7년노정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세부터 40세까지가 제2차 7년노정이며, 만약 예수님이 20세부터 출발했으면 제3차 7년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40세까지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야 했는데, 민족이 받들지 못함으로써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7년 대환란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021-061, 1968.09.01) p. 440

3 여러분이 축복받은 자리는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걸어간 십자가

의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를 그냥 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날아갈 수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거쳐야 한다고 할 때, 그 다리가 위험하다면 철근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다리 이로 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걸어간 7년노정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7년노정과 가정적 7년노정은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은 완성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선상 이상 올라가야 비로소 원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서 원죄를 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나선 자리는 완성기 완성급이 아니라 장성기 완성급입니다. (035-233, 1970.10.19)

4 7년노정은 하나님의 아들딸을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해원성사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 정성을 들이고, 교회를 위해 정성을 들이고, 민족을 위해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의 한을 총괄적으로 탕감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따라 이 7년노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이런 7년노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7년노정을 거쳐야 합니다. 7년노정은 누구나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17-146, 1966.12.11)

5 여러분은 7년노정을 절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노정을 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3년노정을 걷고 7년노정을 넘어갔으면 40대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3년노정을 걸음으로써 제1차 7년노정이 33세까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1차 7년노정을 못 넘었다는 것입니다. 1차 7년노정을 출발하여 3년노정에 걸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복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3년노정에 가정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복귀역사를 해야 됩니다. (024-346, 1969.09.14)

6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과 하나님의 한을 해원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한이 해원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의 한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3년 공생애노정이 있었던 것같이 여러분도 3년 동안 공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3년 동안 120명을 전도 못하겠습니까?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만들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승리했다는 조건을 세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의 아들딸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 가정에서부터 야곱 가정의 형태를 복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지파와 같은 개별적인 한 종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11-215, 1961.07.17)

7 통일교회는 1960년부터 시작된 제1차 7년노정 중 3년노정을 지나왔습니다. 3수는 자녀를 찾기 위한 분별수이며, 4수는 만물을 찾아 세우는 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1차적인 계획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승리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러한 터 위에 제2 이스라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4년은 민족복귀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백성과 국토를 복귀하기 위해 활동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걸어왔던 40년을 여러분은 4년 동안에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 간판을 떼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교회가 아닌 통일한국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 통일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 못하면 다른 민족을 시켜서라도 할 것입니다. (013-091, 1963.10.22)

8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노정 이전에 3일노정이 있었습니다. 이 3일노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복귀노정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다시 40수를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복귀섭리가 이런 노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님도 40노정을 거친 후 3년노정을 걸었고 또다시 4년노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복귀역사를 종결짓고 하늘의 주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걷는 3년노정을 거치고 만물복귀의 기간, 즉 사방성을 갖추기 위한 4년노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7년노정입니다. 이 7년노정으로 탕감복귀를 종결해 나가야 됩니다. 참부모를 찾기까지의 역사노정을 놓고 보면 3년노정 4년노정 40년노정이 짧은 노정이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모든 슬픔을 전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요, 역사적인 분함을 총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요, 역사적인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입니다. (013-287, 1964.04.12) p. 442

9 제1차 7년노정의 3년은 역사적인 탕감기간을 줄여 놓은 최소한의 연수로서 개인의 탕감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 식구는 누구나 이 3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심정일체라 말하였으니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밤에 부모님은 무엇을 하실까, 뜬눈으로 밤을 새우지는 않으실까 생각하며 부모님 입장에 서서 부모님을 닮고 심정을 느껴 보라고 허락한 것이 이 3년이라는 특사기간입니다. 3년 동안 1년에 40일 계몽전도활동을 두 차례씩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인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됩니다. 원래 이 기간은 금식하면서 넘어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간에 여러분이 설 자리를 찾고 신앙의 목적을 바로 찾아 세우기 바랍니다. 만일 때를 놓치면 그러한 위치나 목적도 잃어버리고 부모

님과도 무관하게 됩니다. (011-275, 1961.12.17)
10 아버님만 믿고 나가면 여러분은 밀려나지 않습니다. 3년만 극복하십시오. 1960년에 아버님은 3년 동안 징역살이를 가는 셈치고 전도 임지에서 종살이를 하라고 여러분을 내 보냈습니다. 아버님도 푸른 수의를 입고 탕감복귀해서 이겼다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아버님이 몰리고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으니 여러분도 지금 몰림을 당하는 환경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종적으로 탕감해야 될 것을 탕감하지 못해서 남긴 역사적인 한을 여러분이 횡적인 길을 걸음으로써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025-214, 1969.10.04)
11 제1차 7년노정은 종의 종 자리에서부터 직계자녀 자리까지의 단계를 복귀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7년노정 동안에 가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심정적으로 원리를 중심삼고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개의 혈통을 중심삼은 아들딸로서가 아니라 천전을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적 일치점을 찾아서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적 일치점과 소망적 일치점을 찾아서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심정의 일치, 행동의 일치, 소망의 일치가 되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를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행동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복귀섭리역사를 주장하며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주는 것입니다. (034-060, 1970.08.29) p. 443
12 우리는 제1차 7년노정에 6천년 죄악의 역사를 종결지으시려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천년 전 예수님 이후 기독교가 피어린 순교의 제단을 쌓으며 남아진 섭리의 인연을 종결짓기 위해 수고해 나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신은 물론이거니와 뜻을 위해 이 땅에 왔다가 한때의 한을 남긴 채 사탄세계를 마음으로만 디디고 뜻을 세워 맹세하면서 희생의 자리, 혹은 죽음의 가지로 간 수많은 선지선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의 요구는 한 시대와 한 기점에 집중되어 사탄과 하나님의 판가리 싸움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종결시킬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자가 누구냐? 이 민족 가운데에서 몰리고 쫓김을 받던 통일의 무리가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지금까지 우리와 더불어 험로를 개척하시고 동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지닌 특권이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입니다. 역사과정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보람 있는 기간이 1차 7년노정입니다. (019-128, 1968.01.01)
13 여러분은 21년 전에 아버님이 공식노정을 출발하던 시점에 놓여 있습니

다. 아버님은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나라로부터 몰림을 받았고, 많은 영통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라와 종교와 수많은 교파와 영통인들이 세계적으로 증거하고 환영할 수 있는 시대권 내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아버님보다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전부 뒤집어 탕감해야 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모든 여건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탕감의 시대는 지나가고 영광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좋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입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부모가 잘못하여 인류 앞에 고난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부모 입장에서 책임을 완결하였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 있는 여러분은 모든 핍박과 참소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제1차 7년노정입니다. (021-061, 1968.09.01) p. 444

민족복귀의 기대를 닦은 제1차 7년노정

7년노정은 참부모님께서 걸으시는 노정이며, 축복가정들에게는 본보기 노정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참아버님께서 개인적 14년 노정을 승리하시고 성혼 이후 7년노정부터 식구들이 참부모님의 노정을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7년노정의 전반 3년간은 잃어버린 부모와 자녀를 찾는 기간이요, 후반 4년간은 물질적·환경적 기반 조성과 동시에 민족적 기반을 개척하는 기간이었다. 참부모님 노정에 동참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의 7년노정은 온전히 개인을 깨워 일으켜 달리게 하며, 개인이 실적을 세우면서 뜻 앞에 영광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둔 기간이었다. (p. 444)

14 여러분이 7년노정 기간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개인적인 승리의 주관권을 갖춰야 되고, 가정적인 승리의 주관권을 갖춰야 되고, 종족적인 승리의 주관권을 갖춰야 되고, 민족적인 승리의 주관권을 갖춰야 되고, 국가적인 승리의 주관권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의 후손인 여러분은 직접 7년노정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부모를 세워 영계와 육계에 그러한 길을 닦게 해서 여러분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014-246, 1965.01.01)

15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참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만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이 4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장성기 완성급에서 떨어져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 되고 타락한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물도 타락권 내에서 사무치는 한을 가진 만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사탄 주관권 내에 들

어갔기 때문에 전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복귀한 기준을 세운 때가 제1차 7년노정인 1960년부터 1967년까지의 7년간입니다. 이 기간에 잃어버린 것을 복귀할 수 있는 기준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023-180, 1969.05.18)

16 여러분을 왜 1960년부터 제1차 7년노정에 가담시켰느냐? 그전부터 가담시키지 않고 왜 1960년부터 가담시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귀 역사는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를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7수를 중심삼고 3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1수 기간이 지나야 그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생기 장성기까지는 타락으로 인해 사탄의 침범을 당한 기간입니다. 부모 입장에 있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소생 장성의 기간에는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세워야 할 시련과 고통의 기준에 자녀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완성 단계에 해당하는 7년 기간에 복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지 않은 기준에서 복귀의 길을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7년 기간에 여러분이 수고한 것은 탕감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016-065, 1965.12.26) p. 445

17 성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지상에 하나님을 중심한 참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역사 이래에 악한 부모는 태어난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삼은 선한 부모의 기준은 이 지상에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설정되는 날에는 사탄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 나오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탄 세력은 갖은 힘을 다해서 반기를 들고 핍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성혼식을 하고 나서도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혼한 기준이 장성기 완성급이어서 아직 7년노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7년노정을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7년 노정을 넘어야만 직접주관권에 도달합니다. 원리결과주관권을 거쳐서 직접주관권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책임분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적으로 하나될 수 있는 사랑의 이상을 갖추어 그것이 갈라지려야 갈라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직접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랑을 위주로 한 가정 기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기반에서부터 천지가 합덕하고 남녀가 합덕함으로써 새로운 사랑 기반, 새로운 생명 기반, 새로운 혈통 기반을 중심삼고 사방으로 평면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6-214, 1990.01.01)

18 통일교회 식구들에게 제1차 7년노정은 아버님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벨적인 노정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아버님이 동쪽을 가면 동쪽

을 따라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가서 여러분은 잎사귀가 되든 가지가 되든 떨어지지 말고 부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7년노정은 말랐을망정 부러지지 않는 가지와 떨어지지 않는 잎사귀의 입장에 세워 놓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7년노정 기간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전체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세계적인 사탄이 총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때가 1960년부터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아버님을 잡아넣겠다고 행렬을 지어 경찰서에 투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반대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탕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17-140, 1966.12.11) p. 446

19 제1차 7년노정은 아버님의 21년 노정의 종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1차 7년노정에 여러분은 개인으로 참여했지만, 세계사적인 의의로 보면 이는 역사적인 수많은 인간을 대표해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에 여러분이 들인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추만대에 땅의 인연으로 남아질 것이며, 천상에 가서는 수많은 선한 영들이 찬사를 바칠 수 있는 터전에 될 것입니다. 이런 기간은 지구상에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한을 풀기 위해 삼천리반도에서 통일의 기치를 들고 나온 우리는 지금까지 핍박과 비난의 화살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리고 쫓김을 받더라도 자신을 내적으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외적으로 정비하는 데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대한의 삼천리반도 그 어디에도 통일교회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총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이 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런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삼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19-130, 1968.01.01)

20 제1차 7년노정 기간에 부모님은 가정적인 기준을 세우고 종족적인 기준을 세워 나오면서 교회를 통해 민족적인 탕감조건을 세워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기준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야 할 것이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재탕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노정 기간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애써 나온 것입니다. (017-316, 1967.04.10)

21 제1차 7년노정의 3년노정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불쌍한 이 민족을 대신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다시 넘어지면서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선의 세계를 건설하는 역군으로서 준비하고 연단하는 시련 도상에서 사탄세계로부터 참소받지 않는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연단받는 과정에서 세운 전통을 새로운 천국이념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전통으로 남겨야 합니

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다 갔다고 할 수 없고, 인생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하늘의 참다운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고통이 뒤따르고 시련이 뒤따르더라도 그에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에 만인류가 내 가치를 찬양하고 만우주가 감사할 수 있는 입장에 서고 만우주 앞에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013-327, 1964.04.14) p. 447

22 우리는 천국을 이루었다는 웃음소리가 삼천리반도와 온 지구상에 도높이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서 행진해야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인데 쉴 새가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통일신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소망하였던 천국을 이루어 드리고, 예수님과 성신이 못 다 이룬 한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물의 과정을 거쳐 간 천천만 성도들이 지상천국을 못 이룬 복귀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해원성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내용을 알고, 이 엄청난 사명을 짊어진 우리가 쉴 새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죽더라도 전력을 다하여 가야 할 복귀의 길이 남아 있다하여 가야 할 복귀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3년노정을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에는 누구나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일편단심 자기가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지 않고 배를 곯으며 모험을 부릅쓰고 가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전개시킨 이 스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 누구를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쓰러지고 희생하더라도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발판을 닦는 용사에게 어찌 원수의 화살이 없겠으며, 어찌 원수가 자신을 포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것이요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비록 그 길이 멀다 하더라도 지름길을 찾아 즐거이 가야 하는 것이 통일용사들의 발걸음입니다. (013-158, 1964.01.01)

23 부모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인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책임을 못하는 자리에 설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앞세워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먼저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제1차 7년노정의 남아진 4년 기간을 가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 지칠 수 있는 때이니 더욱 분투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가인과 아벨이라는 열매를 맺었

으니 이것을 식구들을 중심삼고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탕감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각 지역에서 남이야 가든 말든 충성을 다하여 가는 효자 효녀의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부모님이 지향하는 목적을 대신하여 눈물과 피와 땀으로 민족적인 한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복을 빌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모님의 상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적인 역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7년노정의 후반 4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여 민족적인 승리적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족적인 승리의 날을 여러분이 맞이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일구월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끝난 후에는 세계적인 승리적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만민이 그런 혜택권 내에서 머물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날을 완전히 승리의 날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013-158, 1964.01.01) p. 448

24 부모님은 1965년 12월 31일과 1966년 1월 1일 양일에 걸쳐 한국의 기준을 세워 국가적 기준에서 개인복귀·가정복귀·종족복귀를 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개인적인 승리의 터전, 가정적인 승리의 터전, 종족적인 승리의 터전, 민족적인 승리의 터전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족은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을 의미하며, 민족은 이런 종족으로 이루어진 통일민족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통일민족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서 가인 아벨을 세워야 할 천적인 위치와 중심을 탕감해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명 분야를 향하여 총진군해야 되는 것이 제1차 7년노정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016-071, 1965.12.26)

25 제1차 7년노정 출발 첫해의 표어가 '생애 중 최댕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입니다. 이것은 남자로서 어머니를 찾자는 것입니다. 2차년도 표어는 '우리는 아버지의 대신자가 되자'입니다. 비로소 어머님을 찾았기 때문에 복귀된 천국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대신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슨 아버님의 일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해의 표어는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자'입니다.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들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복귀노정을 중심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표어는 여러분의 표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1차 7년노정을 중심삼고 하늘 앞에 생애 최고의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남성으로 잃어버린 여성을 찾는 최고의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 보여 주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승리적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

위기대를 완전히 복귀하였으니 승리권을 주관해야 됩니다. 1960년에 아버님이 '이번 7년노정이 지나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기반이 닦아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했지만, 지금 보게 되면 그때 말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025-239, 1969.10.04) p. 449

26 제1차 7년노정을 승리했지만 부모님은 7년노정에서 피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누가 아니 간다고 원망할 일도 아니고 친국가 없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섭리의 결과를 거두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에 널려 있는 선의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심정의 낫질로 이러한 결실을 거두어서 갈라진 자신을 통일하고 분리된 천정(天情)과 인정(人情)을 통일해야 됩니다. 우리 몸 자체는 무딘 낫 끝일망정 수확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서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를 통하여 오늘날 망해 들어가는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삼고 새로운 중심의 세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교회 교인들의 사명입니다. (020-192, 1968.06.09)

27 우리는 1960년을 중심삼고 새로운 승리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즉 2천년 전의 예수님이 소원하던 기준을 이 땅 위에서 복귀할 수 있는 섭리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기점이 마련되었으므로 1960년부터 새로운 역사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차 7년노정의 7년 동안에 민주주의가 세계를 수습하지 못하고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망하고 있는 것을 흥하게 할 수 있는 이 7년 기간을 중심삼고 민족을 복귀하여 국가적인 민족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나아가 세계가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7년 기간 내에 전부 복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소원하던 것은 예수님 자신을 중심삼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찾아 그 찾아진 부모와 자녀와 만물의 날을 중심삼고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소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중심삼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세웠으며, 1차 7년노정을 넘어서 1968년 정월 초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019-215, 1968.01.07)

2절 국가·세계복귀의 기대를 닦은 제2차 제3차 7년노정

제2차 7년노정과 우리의 책임

참부모님께서는 제1차 7년노정은 부모 노정이며, 그 후 1974년까지 제2차 7년노정은 자녀 노정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이 기간의 연두표어인 '전면적인 진격''승리적 통일전선''통일기반 확보''통일전선 수호'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국가복귀 기대 조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기간이다. 제2차 7년노정은 축복가정이 종족메시아 사명을 다해 조상 자리를 복귀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이 기간에는 민족·국가복귀의 기반을 닦기 위해 먼저 종족을 복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p. 450)

1 1960년부터 1967년까지의 제1차 7년노정에서는 부모가 종적 기준을 중심삼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7년노정은 여러분이 횡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2차 7년노정은 장성시대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둘째를 중심삼고 판가리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2차 7년노정에는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2차 7년노정이 끝나는 1974년까지는 한국이 통일교회 뜻을 협조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뜻을 가로막고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터전을 중심삼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2차 7년노정이 끝날 때에는 국가기준을 넘어서야 하고, 3차 7년노정을 넘어설 때에는 세계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3차 7년노정이 끝나는 때는 1981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세계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은 원리의 궤도를 탕감복귀하는 데에 횡적으로 지나간 역사를 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5-235, 1969.10.04) p. 451

2 제1차 7년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성사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 책임 기준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참부모로서 책임을 다한 승리의 터전을 따라서 자녀들도 그 나라를 찾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안팎으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서 이루어야 할 본래의 뜻을 완결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승리한 터전을 따라 자녀들이 그 터전을 다시 국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데까지 닦아 나오는 것이 제2차 7년노정입니다. 그러므로 1968년부터 7년 기간은 나라면 나라의 전체 분야까지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반대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반대했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065-268, 1973.01.01)

3 1968년부터 가정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때입니다. 6천년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민족과 국가를 대신한 심자가를 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십자가의 길, 가정적인 십자가의 길이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6

천년 역사가 돌고비 길을 거쳐 왔기 때문에 양면적인 탕감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1960년까지 개인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14년노정은 야곱이 걸었던 14년노정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넘어서야만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의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땅 위에 자리를 잡아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030-333, 1970.04.06)

4 하나의 완성격 남성 앞에 하나의 완성격 여성, 즉 어머니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기간이 제1차 7년노정입니다. 이 제1차 7년노정이 부모님의 가정기준을 설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위기대의 복귀 형태, 지상에 하나의 가정적 점(点)을 구축했습니다. 이 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 축복가정들이 완전히 단결해야 됩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야 하는 이 기간이 제2차 7년노정입니다. 2차 7년노정은 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 축복받은 가정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되어서 하나의 아벨권이 되어 민족기준을 다시 수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075-010, 1975.01.01) p. 452

5 1974년까지의 제2차 7년노정 기간에는 대한민국의 복귀와 천국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귀는 영과 육을 중심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말씀을 중심삼고 영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상을 중심삼고 육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세계가 하지 못하는 승공사상을 통일교회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급을 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해당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중심삼고 밖으로는 세계 공산권을 굴복시키고 안으로는 가정의 법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무대로 연결되어 나가게 되면 지상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025-240, 1969.10.04)

6 남자나 여자가 복귀되었다면 하나의 신부와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참다운 부모의 자리가 결정되었으면 이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다운 종족과 참다운 민족을 편성하여 복귀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제1차 7년노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민족 편성을 마친 후 국가적 기준의 탕감조건을 세움으로써 국가적인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시대권 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권 내에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운세가 우리 앞에 다가왔고, 한국이 아벨 입장에 서게 되었으니 가인적인 사탄세계와 하나님 편의 영계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합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계인류가 이러한 책임을 중심삼고 협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통일교인들이 가는 길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처량하

고 비참한 역사과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2차 7년노정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복귀의 한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중심삼고 민족적인 한계점을 넘어 책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가정적 메시아의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019-224, 1968.01.07)

7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 나온 제1차 7년노정은 예수님을 중심삼고 해원성사하기 위한 탕감복귀의 조건으로 소모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중심삼고 탕감복귀하여 자신의 소원을 해원성사하기 위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개인은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세계적인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계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반대받는 길이 아니라 환영받으며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권 내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부모를 중심한 세계적인 복귀의 한계점이며, 7년 기간을 중심삼고 그 기준을 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019-224, 1968.01.07) p. 453

8 1968년부터 제2차 7년노정이 시작되었으니 그때부터 자녀의 노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걸었던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걸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자녀를 복귀하여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만물의 축복까지 받아서 사명을 인계하고 안식의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1968년부터 이 7년 동안에 못하면 21년으로 연장됩니다. 하나님의 날은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실체로서 나타나는 날이니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참부모님에게 굴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을 세움으로써 천사가 아담에게 굴복하고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했다는 조건이 세워졌습니다. 2차 7년노정은 복귀된 장자 입장에서 출발하는 기간입니다. 과거에는 차자입장에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아야 했기에 핍박을 받았으나 이제는 장자의 자리에서 복을 나눠 주는 입장이 되었으니 우리를 미워하지도않고 핍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응하면 때려서라도 하늘의 자녀로 복귀해야 될 사명이 장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1차 7년노정에서 부모님이 메시아의 사명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제2차 7년노정에서는 여러분이 종족복귀를 위한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023-190, 1969.05.19)

9 하늘 앞에 쫓겨난 무리, 하늘이 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가는 노정이 제2차 7년노정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쫓겨나지 않은 입장에서 찾은 것과 같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통일교회 아들딸들이 출동하여 2차 7년노정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족을 복귀하는 때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면적인 진격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때가 예수

님이 어부를 찾아 제자로 삼고 교회를 이루어 가정적인 기반을 세우고 전면적인 진격을 해야 했던 때와 마찬가지이고, 땅에서도 준비되어 있고 영계에서도 협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완전한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1960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축복을 해줌으로써 가정복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식구들도 2차 7년노정이 시작된 1968년부터 3년간, 즉 1970년까지 이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020-344, 1968.07.20) p. 454

10 제2차 7년노정에서는 민족을 위해 충성하던 그 이상의 충성으로 자기 부모형제와 친척을 복귀해야 됩니다. 즉 종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조상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복귀섭리와 하등 관계가 없는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종족을 복귀함으로써 참다운 종족적인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영계의 선한 성도들도 여러분과 더불어 재림부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적인 은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선조들이 지상에 무수히 재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악한 사탄세계는 점점 사라지고 통일의 운세가 새로운 세계로 점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볼 때 1974년까지 우리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 급진적인 발전을 할 것입니다. (019-166, 1968.01.01)

11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리의 기준을 잡은 다음에 제2차 7년노정을 중심삼고는 부모님의 가정이 아니라 축복가정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 가정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했고, 나라를 위해서 그 가정들이 어떻게 봉헌하고 어떻게 공적인 길을 가야 되는가를 국민들 앞에 교육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 전체가 동원되었습니다. 2차 7년노정은 가정적인 노정이기 때문에 전 축복가정이 동원된 것입니다. 1970년에 들어와서 3년 동안은 전체 가정의 아내들이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출동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살고 아들딸을 거느리고 살던 가정에서 떠나게 될 때에는 남편이 원수였고 아들딸이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미리 원수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다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로 나타났더라도 사탄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조건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고 한 말씀이 통일교회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말뿐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6-269, 1980.01.01)

12 1974년은 제2차 7년노정의 마지막 되는 해입니다. 내적인 제1차 7년노정 앞에 외적인 2차 7년노정을 결부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이 1974년까지입니다. 결국은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이 일선에 나서서 사탄과 총대결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 1971년 1972년의 이 3년 동안 통일교회 모든 축복가정 부인들이 자식들과 남편, 가정을 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기반을 이어서 세계적으로 비로소 부모와 자식이 하나될 수 있는 영적 기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삼고 작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까지 와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와 영적으로 하나되어 로마에 입성하여 죽지 않고 전도하는 것과 딱 마찬가지입니다. (069-302, 1974.01.01) p. 455

13 1974년까지 두 차례의 7년노정은 야곱의 14년노정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야곱이 14년 기간을 통해서 가정을 찾아 하늘땅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가가 제2차 7년노정을 거침으로써 가정을 중심삼고 비로소 이 땅 위에 완전히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축복받은 가정들은 어떠한 가정보다도 행복스럽고 어느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애국애족하는 무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 세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무리라는 것이 공인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가정들이 비로소 이스라엘 권한을 가지고 땅 위에 닻을 내려 발붙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2차 7년노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과 통일교회에 결정적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반대하던 이스라엘 나라나 반대하던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던 대한민국과 반대하던 기독교 앞에 통일교회가 대등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대등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회가 우위에 서게 되므로 그 교회와 나라가 따라오지 않으면 망하는 운세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056-323, 1972.05.18)

14 제2차 7년노정이 끝나기 전의 3년 기간은 세계적인 7년노정으로 전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이 2차 7년노정이 끝나기 전 3년노정 기간은 세계적인 7년노정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존 당시에 유대나라를 하나 만들고 로마 나라를 하나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영적 기준을 대신한 것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와 지금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 때는 국가적 시대였지만 지금 때는 세계적 시대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노정을 중심삼고 민주세계에 대표하는 미국에 와서 이런 기반을 닦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071-012, 1974.03.24) p. 456

15 아벨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민주세계라고 한다면 가인 세계, 사탄의 세

계가 공산세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승리해서 이 제2차 7년노정을 넘어가게 되면 영적 기준에 있어서 세계적인 사탄세계는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공산세계는 세계적인 실체 기반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기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세계가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이 공산세계와 싸울 수 있는 터전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벨 입장인 이 민주세계는 공산세계와 대립된 입장에서 영과 육으로 갈라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점령해 나감에 따라 육적인 면에서도 여기에 관계를 갖고 승리해 점령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71-012, 1974.03.24)

제3차 7년노정과 우리의 책임

참부모님께서는 1975년부터 1981년까지의 제3차 7년노정을 설정하고 세계복귀의 기반을 닦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다. 제1차 7년노정은 가정적으로, 제2차 7년노정은 국가적으로, 제3차 7년노정은 세계적으로 섭리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제물 기간이기 때문에 뜻을 위해 모두 생축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제3차 7년노정은 내적 승리 기반 위에 실체기준 일체화 운동을 통해 하나의 세계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내적 승리는 참부모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외적 승리는 자녀 입장의 식구들이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주관하시는 내적 기준을 중심하고 실체기준 일체화에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당부하셨다. 특히 이 기간에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민주세계를 넘고 공산권을 넘어서야 하늘의 승리권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p. 456)

16 1960년 어머님을 모신 것은 구약시대의 완성과 예수님시대의 신부권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였던 기준을 넘어서 세계적 완성기준, 세계적 제3차 7년노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 아담 가정에서부터 소생과 장성과 완성의 21년 기간, 1960년부터 1981년까지 3차례의 7년 노정이 지상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21년노정이 아담시대·예수님시대·재림주시대까지 3차에 걸쳐서 6천년 역사를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전부 평면적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266-063, 1994.12.11) p. 457

17 제1차 7년노정은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때입니다. 부모의 가정이 완전히 자리 잡는 기간입니다. 제2차 7년노정은 자녀들의 가정이 완전히 기반을 닦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3차 7년노정은 종족과 민족이 자리잡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068-020, 1973.07.23)

18 아버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국가복귀와 세계복귀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7년노정은 3차에 걸쳐 가야 되는데, 제3차 7년노정까지 세계에 드러나야 합니다. 야곱이 영적 천사를 굴복시키고 가인 편인 형 에서를 굴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계적인 사탄을 굴복시키고 공산세계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천사와 밤새껏 싸워서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도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세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일대에 영광으로 출발해야 될 뜻길이었지만 기독교가 믿지 않음으로써 2천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오던 것을 21년노정으로 탕감해 나오는 길이 3차례의 7년노정입니다. (054-227, 1972.03.24)

19 부모님이 전부 책임지고 싸워서 이긴 기반 위에 여러분이 가야 할 제3차 7년노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7년 동안 미국을 중심삼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자리에 있는 이 땅 위의 인간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세계를 대표해서 미국을 하늘의 뜻 앞에 세우고 세계적인 한 나라를 복귀했다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여러분에게 부여하겠다고 해서 설정한 것이 세계적인 제3차 7년노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건국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세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071-018, 1974.03.24)

20 통일교회는 1975년부터 영육을 중심삼은 세계무대로 전진할 수 있는 때로 들어서게 됩니다. 공산세계에까지 진격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세계기준을 넘어서는 충분한 조건을 세웠습니다. 1975년부터 제3차 7년노정으로 들어갑니다. 제3차 7년노정의 3년 기간에 통일교회 교인들이 부모님이 미국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하던 것과 같이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3년노정을 여러분이 또 실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073-254, 1974.09.22) p. 458

21 1981년, 제3차 7년노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중심과 완전히 하나되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인 과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혹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돌파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1년까지 그러한 무대를 닦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심각하고도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마련인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부모님과 하나되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그것의 결정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다가 쓰러질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065-274, 1973.01.01)

22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제3차 7년노정까지는 민주세계를 넘어서 공산권을 제압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늘의 승리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권의 침범을 받게 되면, 조건적인 침범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탄이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권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님이 미국에서 제3차 7년노정을 중심삼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하원을 중심삼은 내적 기잔 공고화와 더불어 전국을 반공체제로 강화시켜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것은 제3차 7년 노정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083-020, 1976.02.05)

23 부모님은 제3차 7년노정에서 미국을 중심한 활동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1년까지는 세계적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1981년은 3차례 7년노정의 21년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라를 넘어서 세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적 탕감노정을 거치지 않고는 세계적 종교로서 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일교회 위에서 섭리해 나오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와 같은 조건적인 공식노정을 통해서 가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책임을 하는데 있어서 온갖 정성을 다해 보조를 맞추지 않고는 그 나라의 백성, 그 세계의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63-200, 1972.10.14)

24 제3차 7년노정에서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대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종족적 메시아의 자리에서 가정교회를 승리하고 나설 때에는 그야말로 여러분은 만세에 자랑할 수 있는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3차 7년노정을 승리로 끝내고 새로운 나라에 입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부모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종족과 민족을 초월해서 그냥 그대로 부모님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3차 7년노정에서 승리할 때에는 세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시대가 여러분 목전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제3차 7년노정 기간에, 있는 정성을 다해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103-070, 1979.02.02)

25 제3차 7년노정 기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계무대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영계에 있는 예수님이나 수많은 영인들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제발 한걸음만 더 가자. 한걸음에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영계에 대해서 기도하듯이 영계에서도 땅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계를 위해서 협조했지만 이제는 영계가 우리를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081-116, 1975.12.01)

26 아버님이 1971년 12월 18일 미국 땅에 들어오면서 느끼던 그때의 심정을 여러분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3차 7년노정이 끝나기 전까지 아버님이 미국 땅에 발을 딛고 맹세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선교 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후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책임진 주에서 반드시 큰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위해, 그리고 통일교회와 부모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089-285, 1976.12.04) p. 459

27 여러분은 제3차 7년노정을 가고 있는데, 이 노정은 1981년까지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갔습니다. 지금은 아버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세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려거든 이 7년노정을 거치고 와서 불러야 됩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7천년 역사 가운데서 만물복귀·사람복귀·심정복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년 노정에서 경제복귀를 해야 되고, 사람복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여러분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093-279, 1977.06.11) p. 460

28 부모님이 제3차 7년노정을 정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복귀의 목적 완성이라는 그 결과를 향해서 전진을 다짐하고, 가정 부정, 국가 부정, 아시아 부정, 세계 부정을 해서라도 제2의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기점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남아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돌아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면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권력의 권위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승리자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님이 결론지은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이상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상 종족을 사랑하고, 종족을 사랑하는 이상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상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이상 세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2-140, 1981.04.12)

3절 40일 계몽전도와 전국순회부흥회

40일 전도 출발

참부모님의 성혼 이후 1960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하계 40일 계몽전도 활동은 전국에 민족복귀의 불씨를 댕기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413개 지역에 659명이 파송되었다. 서울에서도 가정방문과 원리강의를 계속하였고 파고다공원(탑골공원) 등 주요 공원전도가 실시되었다. 식구들은 참부모님과 함께 40일간 꽁보리밥을 먹으며 갖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심정적으로 일체화한 기간이었다. (p. 460)

1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4천년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의 4천년 역사를 탕감하기 위한 탕감기간으로 세운 것이 40일전도 기간입니다. 이런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몇 천리 되는 길이라도 가장 빠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탕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년 노정이 있고 40년노정이 있지만 그것은 40수를 중심으로 한 기간입니다.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지름길을 닦아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기간이 40일전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024-115, 1969.07.13) p. 461

2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을 중심삼고 활동한 40일전도 기간이 역사적인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귀의 산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길은 기필코 가야 될 길입니다. 살아생전에 가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가야 할 길입니다. 하늘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위의 모든 환경이 아무리 즐비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넘어가야 할 고개에 있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그 산정보다 낮은 기준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패배자의 행로를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임진 사람들은 언제나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 식구의 일원으로서 따라가기는 쉬울는지 모르지만, 책임진 사람들은 전체를 걸어 놓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결과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024-158, 1969.07.27)

3 통일교회는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계 40일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의 모든 환경에 지배되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적이요 전체적인 분야에 인연을 맺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모든 존재들도 현재 나타난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상징하고 세계 전체, 제

한된 환경 전체를 상징하고 과거를 상징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를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시대를 대표하고, 이 세계를 대표하고, 미래를 대표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귀한 것입니다. (167-207, 1987.07.19)

4 여러분은 하계 40일전도 기간에 보리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자아의식과 소유관념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를 거치고 양자의 자리를 거친 다음 아들딸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이 되려고 하였으나 백성들의 불신으로 제물로 간 것입니다. 재림주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960년 1월 1일 아침에 아버님은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복역하는 입장에 서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몸으로는 종의 입장에 서서 피와 땀과 눈물로 제물이 되어 제사장의 자리에 나아가 속죄의 책임을 지고 아들딸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의 대신자가 되어 사탄을 심판하자!' 이것이 우리의 표어요 실천 요강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들딸로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길을 적시고 피와 땀과 눈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야 됩니다. (011-175, 1961.07.09) p. 462

5 여러분이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는 탕감법을 통하고 부모의 뼛골을 통하여서 나왔다는 원리적인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들딸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 1960년을 중심으로 1961년과 1962년의 3년간에 걸친 40일전도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왜 보리밥을 먹어야 했느냐? 이 3년 동안이 탕감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부모님의 직계자녀를 중심삼고 사위기대를 복귀하여 넘어가는 기간이었고, 여러분은 부모를 중심삼은 가인 아벨의 관계를 세워 가인 아벨을 일치화해 나가는 기간이었습니다. (026-310, 1969.11.10)

6 해방 이후 민족의 서러운 역사를 대표적으로 책임지고 민족이 소망하는 터전을 바라고 나온 길이 있다면 그것은 통일의 길이요, 그러한 모임이 있다면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통일교회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몰림을 받았습니다. 조롱받는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이 이슬같이 맺혀 떨어지는 서글픔을 품고 나왔습니다 아침 햇빛을 보면서 내일은 광명한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자기 모습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은 슬픔의 날, 인내의 날, 오늘 찾아오는 밤은 십자가의 시간으로 삼아 이것을 극복하기를 수십년 생을 거쳐 지금까

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몰림을 받던 통일의 무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애국애족하는 무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노력한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교단체를 말한다면 통일교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배척하던 무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028-296, 1970.02.11) p. 462

참부모님 지방 순회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하계 40일 전도에 맞춰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지프차로 전국 전도지역을 순회하시며 계몽대원들을 격려하셨다. 개척 일선의 전도사들은 감격의 눈물로 참부모님 일행을 맞이하였다. 밤새는 줄 모르고 전도사들의 활동보고를 경청하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며, 꽁보리밥을 드시는 등 식구들과 함께하셨다. 참부모님의 지방 순회는 그 후에도 이어졌다. (p. 463)

7 아버님이 여러분을 전도 내보내고 순회하였던 1960년이 아주 인상에 남습니다. 요즘 순회를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 오신다고 행로에서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찬바람이 부는 곳에서 외롭게 서 있던 초초한 그때의 모습, 사망 세계의 보초인 양, 혹은 생명을 다짐하는 하늘의 깃발인 양 정성을 다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천지의 인연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심정적인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들에게 몰리고 쫓기자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호소했을 때 그 심정 앞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엘리야에게 승리의 결정권이 새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017-083, 1966.11.12)

8 아버님이 21일간 지방을 순회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이 길이 지금은 험한 산골길이지만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차로 달리게 될 때 최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을 통일교회 식구들의 손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나 한 개인만의 길이 아닙니다. 연속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길이 일시적인 길인 줄 알고 활보하며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아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은 일시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민족과 인류와 영인들과 아버지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국민, 그리고 영인들과 대주재 되시는 하나님이 행차할 때에 그 길을 보고서 '아들딸이 가기에 편하겠구나!'라고 느끼게 해야 됩니다. (012-162, 1963.03.16)

9 아버님도 노숙을 해 가면서 지방을 순회했습니다. 개척전도를 할 때에는

모두 그랬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달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잘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프차 안에서 잤습니다. 아버님도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게 되면 이슬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차에서 자는 것입니다. 차를 타면 그냥 휴식입니다. 목적지가 30분 거리라면 눈만 감으면 바로 잠이 듭니다. (227-191, 1992.02.11) p. 464

10 아버님은 지방 교회를 순회하게 될 때 통일교인들이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과 같이하옵소서! 제가 이런 환경을 거쳐 올 때 당신이 저와 더불어 같이하셨고, 제가 아버님을 대신하여 이런 자리에 섰을 때 갈 길이 남아 있다고 권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연을 저들에게도 맺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비참한 그 자리가 비참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참한 자리에서도 선을 중심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악한 세계를 근본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진 풍랑이 몰아치는 곳으로 여러분을 내몰지 않으면 안 될 이 스승의 입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귀한 소망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호소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016-255, 1966.06.19)

11 내가 지방을 순회할 때 눈물로써 식구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서글펐습니다.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비참함 가운데서 하늘과 심정적인 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고생하겠다고 하며 굶으면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는 하늘의 간장이 녹아는 것입니다. 뜻을 위하다가 철창에 갇혀 매를 맞고 눈물짓는 고문의 자리에는 하늘의 심정이 폭발되어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효자의 명패를 박겠다고, 충신의 명패를 박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역사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이런 역사적인 심정의 배후를 알아서 하늘을 위로하고, 지금까지 역사상의 한 많은 순교 열사들을 해원성사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당신들이 간 길이 이러한데 나도 이 길을 감으로써 당신들을 위로하고 당신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한 약속을 가까운 미래에 두고 기필코 성취해 드리겠소,'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6-322, 1966.12.25)

12 아버님은 지방 순회를 많이 합니다. 강원도의 험로를 자동차로 달리면서 느낀 것은 길을 조금만, 한 자만 더 넓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운전사와 탑승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가

정이 겨우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닦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길을 닦을 적에 조금 더 고생하고 희생하더라도 넓게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운명의 길을 개척하는 통일교회 식구들은 어떠한 길을 닦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한 개척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곡괭이와 쇠스랑이 들려 있습니다. 후손들로부터 '이것은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었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러한 길을 걸었을까?'라고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길을 닦아야 할 개척자입니다. (012-161, 1963.03.16) p. 465

13 아버님이 1960년에 21일 순회노정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앞으로 일본 식구들에게 답사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21일 코스는 개척전도 당시에 아버님이 핍박받으면서 털렁털렁한 지프차를 타고 다녔던 산골 길인데 이 길은 성지니만큼 너희는 신발 벗고 걸어라.'고 하면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삼천리반도 산지사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끔 해놓고 일본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미국, 이렇게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질 급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미리 와서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순회하던 코스를 맨발로 걷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발을 벗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순방하는 크리스천을 보면 길을 걷는 것도 조심스럽게 걷고 별천지 천국에 들어와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나라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교의 순례자들이 메카 같은 그 사막지대를 연달아 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보다 더 굉장한 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을 잘살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046-184, 1971.08.13)

전도사수련회

제1차 전도사수련회가 1959년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핵심 활동요원 교육을 위해 전도사수련호가 수차례 진행되었다. 직장인의 경우 야간에 70일수련을 거쳐 동등한 자격을 얻었다. 특히 1961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된 제9회 전국전도사수련회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제일 문제는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것이요, 그러려면 역사와 시대와 미래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영원히 남아지는 자, 말씀·행동·이념·생활·심정의 지도자가 되라고 당부하셨다. (pp. 465~466)

14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 인격을 연마하는 목적, 심정을 갖추는 목적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사탄을 쳐부수고 사탄 편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을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함을 품고, 슬픔을 품고, 한을 품고 틀림없이 승리하겠다는 여러분을 만들고 원수를 퇴치할 때까지 총단결하여 싸워 낼 수 있는 하늘의 병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010-300, 1960.11.11)
15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소화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선 몸이니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공적인 입장을 취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땅을 대신하고 전체 뜻을 대신한 우주사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책임적인 자리에서 각오와 맹세를 해야 됩니다. 전도사 수련을 받은 후에는 지도자의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010-296, 1960.11.11)
16 여러분 수련생은 지극히 슬픈 자리에 있는 자신들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런 슬픈 나(我)이고, 문제 해결의 초점이 되는 나(我)라는 것입니다. 한스러운 역사의 후손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한을 대신 책임지고 풀어야 합니다. 심판장에 가서 한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며 '이 죄악 된 민족을 심판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충신이요 효자이오니 저희를 보시사 저희와 같이 있는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새 시대에 남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분한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려니 분한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슬픈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려니 슬픈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한히 한스러운 하나님을 모시러 나갑시다. 무한히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러 나갑시다. 무한히 분한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리러 나갑시다.'라고 하는 아들딸이 나와야 죄악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하여는 분개심을 일으키되 세계나 인류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010-299, 1960.11.11) p. 466
17 하나님은 최일선에서부터 아들딸을 찾아 나오십니다. 끝에서부터 찾아 올라오십니다. 하나님은 천민(天民)사상을 갖고 있는 교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민족의 밑바닥에서부터 걸어야 합니다. 이 세계를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세계정세는 하늘의 움직임과 더불어 돌아가니 여러분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님은 여러분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하여 3년을 기한으로 하여 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수련시키는 것입니다. (011-043, 1960.12.20) p. 467

18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우리는 그것을 한탄하지 맙시다. 민족 앞에 나서서 너희의 모든 슬픔을 우리에게 고하라고 하며 그들의 슬픔을 책임지고 죽음과 희생과 인내로써 막아 내겠다고 나서는 무리가 있다면, 그 무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살아있는 실체들로서 이 땅 위의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주인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교파에서 그러한 무리가 나타날까 하고 6천년 동안 고대해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상 고통을 당하고, 우리 이상 죽음의 고비를 넘고, 우리 이상 애통한 곡절의 심정을 품고 안식의 터전을 찾지 못한 채 허덕이며 찾아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아버지가 역사노정에서 수고하신 것도 나 때문이요, 이 시대에 섭리의 뜻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도 나 때문이요,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수고하실 것도 나 때문이니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되어야 할 인연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만민을 대신하여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만이 새 시대의 역군이 되는 것이요, 새 시대의 하늘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010-242, 1960.10.16)
19 전도사수련회를 마친 여러분은 남한 각지로 떠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는 사람은 애국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걱정하는 자녀을 낳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러한 민족과 국민들을 가진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낡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생활을 위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선 찾아가는 마음을 위하여 근심하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은 죄악의 아들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딸로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사회·민족·나라·세계를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은 40평생 한 시도 이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012-100, 1962.12.10) p. 468

전국순회 원리대강연회

1963년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추계 전국특별부흥회가 3년 전도 기간을 종결하고 재출ㄹ발 기틀 마련을 위해 1천 420곳에서 개최되었다. 부흥회는 전국 8개 지구를 4개 지구씩 남군과 북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북군 경기지구 300개소와 남군 경북지구 250개소에서 열리는 등 10월 13일까지 해당 지구를 중심하고 부흥회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한국은 통일원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밝히시고, 한국을 만방에 드

러낼 세계섭리의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삼천만 민족을 붙들고 뛰어야 한다고 독려하셨다. 특히 참부모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대구 원리대강연회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열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다. (p. 468)

20 1963는 9월부터 23일간 우리가 남군 북군으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특별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나라가 어느 때 자리 잡을 것이냐? 하늘이 세우려는 이념이 자리를 잡은 후에라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리를 못 잡습니다. 천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 잡기 전에는 이 나라도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앞에 있기에 이 민족의 정신을 지도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이 민족도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013-042, 1963.10.16)

21 1964년 4월 대구에서 원리대강연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용기를 내어 싸워야 됩니다. 천지가 변해도 나는 불변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와 하늘과 땅에 사무친 아벨의 한을 내 몸으로 탕감하여 하늘의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신념에 불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신념에 차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우리의 것입니다. 대세가 바뀌어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핍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골에서 굶고 허덕이는 백성의 비참함은 곧 과거 하나님의 입장과 같습니다. 불쌍한 백성을 볼 때 손을 잡고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그들이 원수 앞에 눌렸으니 그 비참함을 보고 통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굶더라도 낙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통곡하는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통곡할 줄 아는 자녀가 참자녀입니다. 오늘의 굶주림과 비참함은 미래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평생 하늘 대하여 품었던 불변의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아서 지치지 말고, 청춘을 탄식하지 말고 불변의 마음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014-038, 1964.04.28)

22 하계 40일전도 기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전체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참가해 책임진 입장에서 맡겨진 하늘 정병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1964년에 들어와서 삼천리반도를 편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원리대강연회를 해서 지역장들을 다시 배치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1965년 1년 동안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천 명 이상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014-130, 1964.07.17)
23 우리는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하늘 앞에 충효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한을 해원하기 위해 우리 생활은 하늘을 중심한 목적과 관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원리대강연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승리했습니다. 가인적인 세계를 아벨이 굴복시키듯이 기독교를 굴복시켜 우주사적인 승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하면 천사가 본연의 위치로 복귀하게 되어 창조본연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일교회 신도들은 기독교를 굴복시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014-037, 1964.04.28)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바쳐야 합니다. 효자가 되려면 젊은 시절에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던 심정으로 여러분도 민족을 위해 충성과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입교하는 사람은 어려운 자리에서 충성한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아버님이 청춘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으니 여러분도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됩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대구에서 이러한 원리대강연회를 하지 못한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구는 원리대강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일단락을 지었으니 여러분은 지방에 돌아가서 기독교를 위해 고생함으로써 그들을 자연굴복시켜야 합니다. 기독교는 영육 합한 가인입니다. 수천년의 터를 닦은 기독교이니만큼 여러분은 야곱이 에서를 자연굴복시키던 그 지혜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014-038, 1964.04.28) p. 470
25 통일교회 전체가 합해서 부모님의 책임을 대신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이 민족과 국가를 통일의 이념을 중심삼고 심정적으로 품고, 이념적으로 그 위치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늘 앞에 책임하게 하고, 부모님이 하늘을 대하던 그 기준을 여러분이 움직여서 연장시키고 지속시키려니 여러분 앞에 전체 동원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964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전국순회 원리대강연회 기간은 여러분이 책임을 다할 수 있고 하늘 앞에 지금까지 민족적인 사명을 못하였던 것을 어떠한 조건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한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이 삼천리강토의 수많은 도주들과 군중 앞에서 외치고 싶고, 수많은 군중을 교육하여 삼천리반도를 움직이고 삼천만 민족의 운명을 해결짓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몸이 하나라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님의 40대 연령을 대표한 대표자로서 외치고 싶은 하늘의 사명을 짊어지지 못한 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원리대강연회 6개월 기간을 중심삼고 탕감적인 조건을 세워 놓고 지성을 다

하는 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154-240, 1964.09.18)

26 1967년까지 21년간 아버님이 수고한 것은 어떤 일면에서는 대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거둔 내용이 공인받게 될 때, 즉 삼천만 민족이 알아볼 때 그 배후에 크나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통일교인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고 나온 결과는 사회를 중심삼고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단순한 사회인으로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핵심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보급로는 일찍부터 하나님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우리는 외적인 기준을 잡고 내적인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어떤 교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해도 그들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부흥회를 열어 그들이 통일교회를 잘못 알았다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현 사회에 천적인 인연의 환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017-332, 1967.04.30) p. 471

4절 축복가정의 총동원 활동

축복가정 부인 3년 총동원의 의미

36가정부터 777가정까지 축복가정 부인들이 1970년 12월 1일부터 3년 동안 총동원되었다. 전국 120곳에 10명씩 1천200명이 배치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가정을 파탄시킨 것이 해와였기 때문에 여자들을 일선에 내세우는 것이며, 아내가 나라를 위해 고생할 때 남편도 아들딸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전통을 세워야만 복귀된 가정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특히 축복가정 부인들에게 북한이 재차 남침할 위험성이 있어 특별히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임지에서 기도정성을 들이라고 당부하셨다. 이후 1800가정과 6000가정 6500가정 3만가정 등 모든 축복가정 부인들에게도 이 같은 전통이 계승되었다. (p. 471)

1 아버님이 탕감노정의 길을 나설 때에는 가정을 버리고 나섰습니다. 아버님이 북한을 향하여 나섰던 것과 반대로 여러분은 여자의 입장에서 남한을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북한 사탄세계를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자가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3년 공생애노정 중에 가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후아담이라면 이 후아담 앞에 후해와의 기반이 형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해와가 뜻을 갖추어 역사적인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3년 기간을 탕감하는 기간이 축복가정 부인들의 3년 총동원 전도기간입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을 3년 동안 출동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38-033, 1971.01.01)

2 1970년 12월 1일부터 축복가정 부인들이 동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3년노정을 가다가 여자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민족을 잃어버렸고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가정 부인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노정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3년노정을 가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민족과 국가를 찾고 세계까지 찾아 드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소원하고 고대해 나오던 신부의 기준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자유분방한 자리에서 해방을 노래할 수 있고, 하늘을 중심삼은 평면적인 기준 앞에 새로운 가정 출발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까지 3년 동안 개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때는 아버님이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3년과 마찬가지 기간입니다. 아버님은 감옥살이를 했지만 여러분은 감옥살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스러운 남한 땅에서 아버님이 북한 땅에서 감옥생활을 했던 것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독교, 기독교 여성들이 아버님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수난노정을 가야 했던 것을 전부 다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뜻을 중심삼고 나라를 위하여 온갖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036-154, 1970.11.25) p. 472

3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정보다 종족을 더 사랑하고, 종족보다는 민족을 더 사랑하고, 민족보다는 세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복귀를 위해서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777쌍 축복이 끝나게 되면 1972년까지 3년 동안 여자들을 모두 동원해야 됩니다. 왜 동원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은 개인적인 탕감시대를 거쳐 왔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탕감시대를 거쳐 올 때 부모님은 가정적 탕감시대를 이미 거쳤습니다. 가정적 탕감시대를 거쳤지 때문에 하나님의 날, 만물의 날, 자녀의 날, 부모의 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035-247, 1970.10.19)

4 1960년대까지는 개인이 승리를 다짐하는 때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정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1960년부터 1967년까지는, 즉 하나님의 날을 책정할 때까지는 아버님 자신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는 때였습니다. 가정의 제반 요인을 탕감하여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년이 지나 1970년을 맞이하고 제2차 7년노정의 3년을 넘기는 마당에서는 가정적 승리의 터전을 갖추어야 할 텐데, 이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 12월 초하루부터 777쌍 축복받은 가정 부인들에게 총동원하라고 통

고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을 중심삼고 전체 축복가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035-302, 1970.10.30)

5 복귀섭리의 뜻은 가정을 위주로 한 섭리의 터전으로서 가정 기반을 어느 시대나 닦아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입니다. 개인은 가정을 찾아 종적인 탕감의 과정을 거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중심삼고 종적인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종적인 출발을 파괴한 것이 여자인 해와였기 때문에 여자를 내세우는 것은 원리적으로 타당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1970년 12월 1일부터 3년 동안 축복가정 부인들을 총동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딸이 어머니를 찾아가고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야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러한 아들딸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상을 탕감의 과정에 세워야만 복귀된 가정으로서 새로이 수습될 수 있습니다. (036-033, 1970.11.08) p. 473

6 개인은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가정이 그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가정부터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남편만 나라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위기대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언제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 보았습니까? 못해 보았기 때문에 사위기대적 사랑의 한 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교회는 할 수 없이 통일 운세의 시대가 목전에 다가오는 이때에 축복가정 부인 전체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036-080, 1970.11.15)

7 여러분 축복가정 부인들이 총동원되어 지방에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편과 아들딸을 떼어놓고 나감으로써 여러분 가정의 사위기대는 어머니를 중심삼고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딸은 어머니를 사모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는 어머니가 지방에 나가 활동하는 것을 중심삼고 아들딸에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너의 어머니는 나라와 하늘의 뜻을 위해 나가서 싸우고 있다.'라며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존중하게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중심삼고 모자일치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사위기대가 일시에 협조하여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는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모자협조 기반을 위해서 수고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모자협조 완성은 물론이요 부부협조 완

성까지 하여 사위기대 완성의 협조 기반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036-146, 1970.11.25) p. 474

8 1970년 12월 1일부터 축복가정 부인들은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이번에는 부인들만 동원하니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개의 부인을 동원하고 아무개의 어머니를 동원한다는 것은 가정을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책임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의 영인들과 수많은 조상들을 대표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동원에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036-027, 1970.11.08)

9 가정을 일선에 내세우는 데는 남편보다도 아내를 내세워야 됩니다. 타락의 동기가 된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해와입니다. 해와가 천사장과 비원리적으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길을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도 깨뜨려 버렸으며, 아담과 영원한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길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까지 완전히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장본인이 해와입니다. 해와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 축복가정 부인들이 사탄세계의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 일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해와가 천사장과 타락하기 전 단계의 입장을 가정을 대표해 재현해서 나선 것과 같습니다. 축복가정 부인 1천200명을 120곳에 파송한 것은 전체의 수를 대표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파송된 곳이 대한민국 땅이지만 대한민국의 한정된 땅이 아니라 세계 전체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038-023, 1971.01.01)

10 여성들의 개척노정에도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 노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6천년 동안 복귀섭리를 해 나오는데 있어서 남성을 중심삼고 세 차례 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적인 면에서 남자들이 탕감해 나왔기 때문에 여자들은 횡적인 면에서 앞장서서 탕감해야 됩니다. 종적인 탕감을 횡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차 노정을 통해서 개인을 복귀하고, 가정을 복귀하고, 종족·민족·국가를 복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복귀노정까지는 여성들이 3차의 개척노정을 거쳐 나가지 않으면 탕감원칙의 노정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036-153, 1970.11.25) p. 475

11 아무리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된 가운데서 축복가정 부인 3년 동원기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1970년대를 지향해 가는 이때에 바라던 터

전이 1970년부터 1972년까지의 3년 기간에 닦아지는 날에는 한국은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을 협조해 줄 분도 하나님뿐이요 믿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으며, 더구나 중국과 소련이 배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권을 동북부에서 맞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지금 중국과 손을 잡고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앞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에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안일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바 없습니다. (040-191, 1971.02.01)

12 예수님은 3년 공생애노정을 갔습니다. 그 3년 공생애노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을 찾기 위한 것, 즉 가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을 찾아서 종족을 찾기 위한 것이며, 교회를 찾아서 나라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노정에서 바라던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한계점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기반 위에 설 수 있는 시대권 내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197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축복받은 가정들이 참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완전히 단결되어 참부모님 가정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하나되어서 국경선을 넘어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서 최후의 경계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040-207, 1971.02.01)

축복가정 부인들의 활동 방법

축복가정들은 제비뽑기로 임지를 결정하고 36가정 72가정 등 선배들이 조장이 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본래 혼자 임지를 향해 가야 하지만 험한 세상 환경 때문에 10명 1개조로 편성해 배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열두제자들이 분열된 입장을 탕감하고 족장 편성 기반을 대신 완결짓기 위해 모든 대원들은 자기 생활습관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한국 국민이 통일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살 수 없다고 공인한 승리의 기반 위에서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을 중심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다. (pp. 475~476)

13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뜻의 길을 따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가겠다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뒤에 두고, 자식을 뒤에 두고 연약한 아낙네로서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여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걸음 앞에 하나님은 같이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부모님은 축복가정 부인 동원을 단행하면서 내심에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았습

니다. 나 자신이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세워서 부모님이 이익을 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이 있다면 내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으로, 세계의 이익으로, 역사의 이익으로, 인류의 이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정상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있는 기쁨이 통일교회 내의 기쁨으로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세계의 기쁨으로 남아져서 추앙의 대상, 기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단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037-201, 1971.12.27) p. 476

14 축복가정 부인들이 동원되어 일선에 나갈 때에는 아기들을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특별명령을 했습니다. 아기들을 맡겨 놓을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사돈의 팔촌에게라도 맡겨 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일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3년 동안 출동을 하느냐며 부모 친척들이 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은 아기를 친정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맡기고,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삼촌네 집에다라도 맡기고, 아니면 시집에 갖다 맡기고 임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싫든 좋든 맡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기를 키워 줌으로써 그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갖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욕은 다 먹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욕을 하다가**도** 아기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욕을 했다가도 어린 아기와 정이 들어 자기들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친척과 문중이 관심을 갖게 되고 국가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세계도 여자가 어떻게 세계를 구할 수 있느냐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천주, 온 피조만물과 천사세계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을 통일교회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039-216, 1971.01.10) p. 477

15 아버님이 1970년 11월 1일부터 수택리에서 열리고 있는 축복가정 부인동원 수련회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들을 전부 집에 두고 동원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임자들이 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환란시대가 있었고 풍파가 있었지만 모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씨가 되어서 봄절기를 맞이하여 심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전부 정리해야 되는 것입

니다. 앙상한 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의 열매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한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제일 귀한 것을 뽑아다가 심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제일 귀한 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딸도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036-031, 1970.11.08)

16 1970년에 전국에 있는 통일교회 축복가정 부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비운에 도달했고 비상사태에 임박했으니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가정과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여 3년 동안 자식들을 맡기게 하고 거지 모양으로 전부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친척집에 '이 아들은 아무개의 아들이니 내가 3년 동안 갔다 올 터인데 좀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등등의 별의별 비극적인 배후를 남기고 행각의 노정을 떠나서 싸워 온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통일교회는 나쁘되 삼천만이 통일교회 사람과 같이 되는 날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흘러가는 역사, 정처 없는 방향의 천지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배척받는 입장에 서서 그것이 역사적인 그 무엇으로 남아지기를 바라면서 명령하는 아버님도 불쌍한 사나이입니다. (085-123, 1976.03.02) p. 478

17 1970년대에는 외적으로 활동을 하되 극소수의 사람에 한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구들을 동원하여 활동하게 해서 최후의 한계선을 넘겨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70년 12월 1일부터 3년간 축복받은 부인들이 총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은 지금까지 정성들이고 노력해 온 모든 것을 투입해서 최후의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10명이 한 조로 편성되어 120곳의 전도 임지로 출동하게 됩니다. 각 지구본부로부터 지역본부, 구역본부에까지 출동해서 1972년까지는 12만 명 이상 확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식구들이 한 달에 한명씩만 전도하게 되면 지금보다 배 이상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036-205, 1970.12.01)

18 축복가정 부인들이 동원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래는 혼자서 가야 되는 길이지만 세상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 여러분의 동지인 형제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환경에 침범받을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오직 뜻만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서로서로의 기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를 위주로 하다가 서로 다툼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조원들

간에 문제가 벌어지면 조장이 전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조장입니다. 조장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열 사람의 조원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가 분열되었던 그 입장을 오늘날 여러분이 탕감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여자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한 조를 12명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열되었던 환경을 여자들이 대신하여 일체 된 환경을 갖추어 하늘 앞에 하나되기 위한 것이요,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족장 편성의 기반을 대신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완결짓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하나되어야 합니다. (036-155, 1970.11.25) p. 478

19 1970년에 축복가정 부인들이 동원되어서 기반을 닦음으로써 부모님이 국가적 기준에 서게 되었습니다. 3년을 지나고 나니까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통일교회는 그야말로 애국 단체이고, 통일교인과 같이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살 수 없다.'라는 여론이 전국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우리가 더 희생했고 기독교보다 우리가 더 희생했습니다. 더 희생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전통의 길을 차지해 나오는 것입니다. 편안하려는 사람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낙후됩니다. 그 일이 끝나기 전, 1972년 이전에 이미 통일교회는 애국하는 단체로서 나라나 국민이 전부 '통일교회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이내에 국가적 탕감기준을 세웠고, 반대하는 기독교와 싸워서 기독교 이상의 국가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기반을 중심삼고 부모님은 해외로, 세계부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연결한 것입니다. (161-076, 1987.01.02)

5절 가정교회와 통·반 중심의 활동

가정교회와 종족메시아 활동

참부모님께서는 1978년 3월 15일 미국 주책임자 회의에서 가정교회 활동을 강조하시고, 4월 1일부터는 3만명 식구 확보를 목표로 《원리강론》과 원리강의 카세트·비디오테이프를 나누어 주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1978년 9월 25일 귀국하셔서 '타락한 인간이 복귀할 수 있는 탕감조건이 360가정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 식구들에게 10월 1일부터 가정교회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셨다. 18세 이상 식구는 전원 참여하되 축복가정은 가정당(家庭當), 그 외는 개인당 360가정 복귀를 위해 활동한다는 원칙이었다. 이로써 종족메시아가 되고 참

부모님께서 세계적으로 이룩하신 승리기반을 이어받을 것을 당부하셨다. 또한 1979년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 1980년 '가정교회는 천국 기지', 1981년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등 연두표어를 통해서도 이를 강조하셨다. (p. 479)

1 1978년 11월 12일 오늘을 기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아 자격자로서 가정교회 구역에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거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만들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기전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101-341, 1978.11.12) p. 479

2 부모님은 세계적으로 반대받으면서 세계적 기반 위에서 탕감조건을 세우고, 제3차 7년노정의 3년노정에서 2차년을 넘어가는 1976년 9월 18일에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승리하는 기반을 닦고 비로소 금의환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한국에 돌아와 종족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이어 줍니다. 이제 통일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종족적 메시아권 360가정만 전도해서 이들이 환영할 수 있는 기반만 되는 날에는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에서 세계적으로 통일교회를 환영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년 기간에 그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노정에서 종족적메시아가 되어야 했는데 못 되었습니다. 세계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인류 전체가 그러한 가치적 자리, 부모님의 희생적 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부자관계의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099-265, 1978.09.25) p. 480

3 통일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정교회입니다. 복귀섭리의 종착역은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1954년 협회 창립 이후 25년 만에 가정교회 운동까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공입니다. 하늘땅이 다 축하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생한 것도 이것 만들기 위해서이며, 예수님이 죽은 것도 이것 만들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6천년간 섭리하신 것도 이것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래야 천국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천국문의 열쇠를 땅에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104-185, 1979.05.01)

4 가정교회는 천주를 축소한 것이고 세계를 축소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국도 들어가 있고, 미국도 들어가 있고, 소련도 들어가 있고, 영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가 다 들어가 있고, 불신자·양심자·종교인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교·불교·기독교 등 모든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 천주를 대표한 하나의 표상이요 그 축

소체가 가정교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자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탄세계의 에센스를 다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위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위하는 조건이 되고, 거기에서 희생봉사하는 것은 전 세계를 위해 일생 동안의 희생봉사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119-042, 1982.07.03) p. 480

5 부모님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결속했다는 조건 기반을 여러분에게 전수해 준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탕감조건인데, 이 탕감조건을 여러분이 모릅니다. 개인 책임분담에서 사탄이 침범함으로써 가정 책임분담으로 끝날 것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정 책임분담으로 확대됐고, 종족 책임분담, 민족 책임분담, 국가 책임분담, 세계 책임분담, 천주 책임분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옥세계에까지 확대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분담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와서 지금까지 40년 기간에 이것을 전부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5퍼센트의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360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참소받지 않고 어느 집에서난 환영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지금까지 닦아 놓은 모든 역사적 승리의 탕감조건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135-325, 1985.12.15) p. 481

6 가정교회란 세계적인 승리의 전체 판도를 최소단위로 축소한 하나의 제단입니다. 360가정은 세계의 360 족속도 되는 것입니다. 360은 종적인 시간을 말하고 횡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0은 세계를 대표한 강인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계를 대표한 장자 입장인 가인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천국이 되려면 아벨, 동생으로서 형님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복귀를 하지 않고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가인이 장자의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자의 자리에서 세계를 대표한 장자권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한꺼번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세계적 조건을 중심삼고 승리한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가정교회는 역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장자복귀의 세계사적인 모든 것을 일시에 탕감할 수 있는 제단입니다. (100-318, 1978.10.22)

7 가정교회 360가정은 세계적인 탕감조건을 닦은 것을 접붙여서 세계를 대표한 하나의 중심형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는 자기 종족은 세계적 종족권에 등장하여 같은 가치의 자리에서 탕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들을 하나 만들어 탕감하여 부모의 자리에 등장하는데 메시아 자격을 갖추어서 **종**족적 메시아, 즉 자기는 신랑의 자리에 서서 신부를 모심으로써 종족적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099-264, 1978.09.25) p. 482

8 가정교회는 종족 기반입니다. 예수님 당시 요셉 가정과 사가랴 가정이 하나 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종족 기반을 가져야 됩니다. 종족 기반이 없어서는 가정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종족적인 기반이 있어야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려면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운동을 하면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 가정, 요셉 가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요셉 가정이 하나 안 되어서 가정을 못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탕감해야 됩니다. 가정을 가지려면 거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교회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세계국가가 됩니다. 하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17-264, 1982.03.28)

9 이제는 세계적인 때입니다. 부모님이 120명을 전도하라고 축복가정 부인들을 동원하였던 해가 1970년이었는데, 그때는 국가적인 때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국가적인 때를 탕감복귀해서 해방되었으니 핍박이 없는 데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전부 했으면 종족적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 자기 믿음의 아들딸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야 됩니다. 친족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아들딸들을 종심삼고 하나되어 종족적 메시아권을 복귀함으로써 영계의 다른 족속들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합적인 전선이 이루어집니다. (198-366, 1990.02.11)

10 360가정교회를 왜 하느냐? 36이란 12수의 3배입니다. 12수는 천리의 도수입니다. 이것은 영계의 열두 진주문을 말합니다. 36가정 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3단계 운세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도를 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360일의 하루라는 것은 영원을 대표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하루하루 가정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역사시대의 수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 승리의 날**로**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360가정은 인류가 하늘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승리의 날을 세우지

못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60가정은 360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요, 하늘나라를 인류와 더불어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60가정이 필요합니다. (105-339, 1979.10.28)

11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지구상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360가정을 가짐으로써 그 360가정에 하나님을 현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추방해 버린 천사세계가 지구상에 현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타락함으로써 만물을 잃어버렸습니다. 360가정은 지구성과 마찬가지요 잃어버린 우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 가운데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인류를 잃어버렸습니다. 360가정은 세계의 360종족과 같은 전체를 표상적으로 상징한 대표수이므로 거기에는 만민을 대표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은 역사 이전에 타락한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모든 것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현, 천사세계 현현과 더불어 만물복귀, 인간복귀를 해서 이 세계에서부터 지상천국화하는 것입니다. (100-218, 1978.10.14)

12 가정교회를 왜 해야 됩니까? 장자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복귀해야만 부모가 복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복귀역사는 아벨, 차자로서 장자복귀의 노정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세계적 가인, 장자를 굴복시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권 장자복귀권 기반과 아벨권 장자 복귀권 기반이 하나되는 날에는 종족적 메시아권의 사명이 끝나고 종족적 참부모의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를 중심삼은 종족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360가정권에서 1981년까지 3년 동안 절대복종한 사람은 공을 안 들이고도 그냥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된 사실입니다. 이제 비로소 통일교회시대에 들어와 장자 가인이 차자 아벨을 치던 역사에서 아벨이 장자 자리에 서서 가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일교회를 받대하다가는 즉각적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판도로 전개될 것입니다. (100-221, 1978.10.14) p. 483

13 하나님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부모님시대에 와서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하늘의 승리가 되며, 섭리의 종국이요 모든 역사의 종국이요 사탄세계의 종국이요 천국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111-317, 1981.03.09) p. 484

14 통일교회가 주장해 나온 것은 전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귀섭리의 심정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부모님이 이 전통을 세우기 위해 걸어나온 일생의 모든 심정을 여러분이 인계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계받을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가정교회요, 그 운동이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가정교회를 안 가지면 하늘나라에 갈 때 부모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정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24만이 되면 전 인류를 대해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앞으로 가정교회를 배치받을 수 있는 혜택권 내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도처에 가정교회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대이동을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배치를 받기 위해서 전 세계로 대이동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14-163, 1981.10.18)

15 이제부터 여러분은 가정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탄세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부패된 사탄세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가정을 움직일 수 있고 종족을 움직일 수 있고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가정교회 운동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만 끝내고 이것만 닦아지면 세계를 당겨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천국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099-189, 1978.09.18)

16 아버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싸워 나온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산지을 수 있는 결산장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제일주의시대입니다. 가정교회r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자신들의 가정교회가 종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종족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김씨나 박씨라는 종족교회만 연합하면 민족은 자연히 생깁니다. 종족복귀의 기반만 되면 국가는 자연히 생겨납니다. 종족교회·민족교회·국가교회·세계교회·천주교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41-222, 1986.02.22) p. 484

가정교회는 사랑의 실천장

참부모님께서는 360가정은 세계적 탕감기반을 접붙여 세계를 대표한 하나의 중심형이며, 여기에서 승리하면 자기 종족의 세계적 종족권에 등장해 같은 가치의 자리에서 탕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360 가정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라고 강조하셨다. 사랑 못해 준 것을 탄식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360가정에서 막힌 것이 어디에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360가정은 모든 사람을 자기 형제나 부모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수련장이며,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완전한 주체가 된다고 밝히셨다. (p. 485)
17 여러분 마음에서 사랑의 종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입은 사랑의 말만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아닌 것은 귀가 듣지 않으려 하고, 사랑이 아닌 것은 눈이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사랑에 취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직접 통하여 가정교회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능란하게 자기도 모르게 쉽사리 다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360가정의 어떠한 문제라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이 나갑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별의 별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03-037, 1979.01.28)
18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가게 되면 본가를 떠나 자기 남편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를 믿고 나서는 가정교회로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집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안 거치고는 천국에 못 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들딸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위하는 이상,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이상으로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권 내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당신에게 사랑을 돌려보냅니다.'하는 그 내용물이 가정교회권 내에 전부 커버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천국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운동으로 하나되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4-292, 1979.06.01) p. 486
19 가정교회는 여러분 부부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남편이 사랑을 찾는 가정교회의 기반이교, 아내가 사랑을 찾는 가정교회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가정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보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 못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악의 세계에서 본연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그 경계선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나라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아내나 자식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정교회를 아무리 움직여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우주가 따라

옵니다. 누구 막을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연히 환경이 녹아나고 전부가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가 그립고, 거기에 있는 길이 그립고, 거기에 있는 집들이 보고 싶어서 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서 가야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참사랑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163-060, 1987.04.01)

20 가정교회가 없으면 교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조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조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면 고향이 이루어지고, 조국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사람보다 사랑해서 하나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계인이나 세계인이나 모든 존재들을 하나되게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교회를 중심삼고 작은 태양, 작은 별과 같은 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와서 캄캄한 이 세상에 광명한 천국이 개문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땅 위에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행차할 수 있습니다. (102-267, 1979.01.14) p. 486

21 가정교회에 갈 때 의무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사무쳐서 가야 합니다. 자기 아들딸이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자기가 감옥을 찾아가야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곳이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상속자가 되게끔 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103-030, 1979.01.28)

통반 중심의 활동

참부모님께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남북통일과 남북총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통반격파운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셨다. 그래서 사회 조직의 근간인 통·반 지부장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정교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통·반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가정교회 활동의 기반이 통·반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방으로 가정 전체를 일원화해서 소화하기 위한 운동이 통·반 중심의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 국민의 신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p. 487)
22 참부모주의를 중심삼고 세계에 새로운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반장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은 새로 나온 연한 가지에서 핍니다. 통지부장 소속의 반장을 중심한 가정은 새싹에 해당합니다. 그 새싹에서 꽃이 피는 날에는 한국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통지부장으로부터 반장을 중심으로 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로 키워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고 새로 태어나는 그 가정은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지는 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를 중심삼고 핀 꽃은 같은 꽃이 될 수 있고 같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주의 보화요 인류의 보화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게 되면 종자를 받아 가지 말라고 해도 틀림없이 받아 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부모님이 선두에 섰습니다. 이제는 통지부장 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반을 어떻게 편성하여 정착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조직이 끝나는 날에는 전국 조직이 순식간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꽃이 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애국사상을 이어받아야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열매로서 토착화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142-255, 1986.03.12) p. 488
23 가정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지부장과 반지부장입니다. 그다음에는 동지부장입니다. 동지부장 통지부장 반지부장 이 셋이 삼위일체만 되는 날에는 다 끝납니다. 그러려면 땅 위에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라면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자랍니다. 비로소 역사 이래 한국에서 천국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부장을 중심삼고 반상회를 해서 열 가정이든 스무 가정이든 소화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양을 주어 뿌리를 뻗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의 영양 줄기의 영양, 잎사귀의 영양이 가지를 뻗게 해야만 나무가 큽니다. 통일교회 조직 전체는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반의 반지부장이나 반상회를 중심삼고 그 도시의 전 가정에 참부모를 모시는 가인 아벨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인인 반지부장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아벨이 되고, 그다음에는 반상회를 중심삼고 예수님 앞에 열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열 가정 이상이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사탄의 기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 뿌리가 점점 깊이 내리게 될 때 우리의 가지, 부모님의 가지는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145-031, 1986.04.30)
24 아버님이 통지부장과 반지부장을 만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노력을 투입해서 비로소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군 책임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동 책임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통지부장과 반지부장을 어떻게 연결해서 살려 놓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 놓아야 됩니다. 하나는 종적 대표이고 하나는 횡적 대표이니 그 둘이 살아나면 그 도시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지입니다. 그래 놓으면 기독교가 반대하더라도 통·반지부장이 방어하게 됩니다. 통·반지부장을 중심삼고 기독교 요원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으면 기독교의 반대나 모든 부작용은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통반격파운동의 초점입니다. (148-196, 1986.10.09)

25 통·반에는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장관들도 들어가 있고,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통일교회의 세포조직이 해야 될 것은 통반격파입니다. 가정에서 뒤집어 박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앙을 철저화해서 가정을 중심하고 확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 환경적 여건을 상대로 하여 하나되면 더 큰 분야의 주체적 입장에 서서 더 큰 환경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크게 확대하여 나라와 세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의 소화운동입니다. 가인을 소화하지 못하면 아벨이 될 수 없습니다. 가인에게 승리한 다음에 아벨이 됩니다. 상대적 입장이 아닙니다. 소화해서 흡수한 후에 아벨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아벨권이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구원섭리의 완결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몸 마음을 중심삼은 가정에서 정착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격파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313-152, 1999.11.10) p. 489

26 부모님은 흘러갈 수 없습니다. 만민 앞에 부모로 와서 이제는 사탄세계를 정비하여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권에서 두익사상을 중심삼고 좌우를 수습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최고 정상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의 한 많은 사연을 누가 압니까? 그렇지만 나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망살(亡煞)이 뻗친 이 역사를 뚫고 올라와서 이러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피값으로 엮어진 것에 신세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값으로 접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은사에 보답하는 길이요, 부모님 앞에 서서 자기 면모를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통반격파입니다. 가정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목표, 이상적 정착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딸을 중심삼은 새로운 가정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은 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악마의 뿌리를 잘라 버

리고 순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라야 되느냐? 반에서부터 잘라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남북통일은 불가능합니다. (172-296, 1988.01.24)

27 부모님을 중심삼고 거국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영향을 줘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이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 밭에다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뿌려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위기대입니다. 창조이상은 사위기대의 완성입니다. 사랑이상의 중심인 가정에 심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씨가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서 거두어 한 바퀴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순환법도입니다. 순환논리에 의해 열매를 따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아래에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가 좋아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반격파의 목적입니다. (173-201, 1988.02.18) p. 490

28 남북한을 해방하는 첩경이 통반격파입니다. 북한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사촌 혹은 친척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게 될 때 붙들고 울듯이 이제 가정 가정을 찾아가서 심정적으로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심정적 인연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탄생합니다. 그런 기쁨의 함성과 더불어 해방의 그날이 내 눈앞에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참다운 형제의 인연을 거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랑의 가정이 형성되도록 하나님의 심정적 통고자로서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209-113, 1990.11.27)

6절 통일원리·승공사상 사회지도자 교육

통일원리 및 승공사상 교육의 필요성

참부모님께서는 1970년대 이후 기독교 목사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사회 각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통일원리와 통일사상, 승공사상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셨다. 이는 통일교회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는 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세계평화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p. 490)

1 우리에게는 국가를 중심삼고 1970년대에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극복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 목사들을 초빙하여 원리공청회를 갖고 교

수들을 중심삼고 원리세미나를 여는 것은 이것이 1970년대에 있어서 국가적인 환경을 우리와 연결시켜서 전면적인 방향을 타개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가를 위주로 이런 작전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에 대한 사상무장도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같은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일한 환경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금후에 더 범위가 넓고 큰 상대적 여건을 우리가 타개하고 극복해 내기가 심히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과거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까지도 극복해 내겠다는 신념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수난과 역경의 노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환경을 타개하고 극복했다 하면 그 극복은 대한민국만의 극복이 아니라 아시아적인 극복이 될 것입니다. (042-146, 1971.03.01) p. 491

2 공산당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또 종교를 없애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주의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주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있을 것이라고 믿어 나왔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주의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세계와 공산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원리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철학사상을 중심삼고 교재를 만들고 교육론이라든가 논리학이라든가 하는 제반 이론을 갖추어 이미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과 교수들에게 새로운 사상으로 통일사상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학자들은 한국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상적인 모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통일교회를 배후에서 후원하는 교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사상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를 볼 때 통일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학계와 종교계, 이 두 분야에서 안팎으로 완전히 사상무장을 하는 날에는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054-164, 1972.03.23)

3 1971년 들어 부모님은 대학가를 우리 뜻과 어떻게 결속시키느냐 하는 문제, 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트느냐 하는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표한 국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 이 3대 목표를 중심삼고 주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학가는 대학가대로,

군의 장병에서 최고 장성들까지 교육하고 있고 요즘에는 국방대학에서까지 우리가 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인 길로 결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리에까지 올라오는 데에 하나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준이 전체에 연결되면, 이것은 정부면 정부에서 혹은 국회면 국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기준에 연결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교계를 중심삼고 볼 때 먼저 기독교와 통일교회가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52-027, 1971.12.01) p. 492

4 1972년을 앞둔 지금 세계정세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만큼 우리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에 북한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적십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정책적인 기준을 세운 뒤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들에게 말려들어 가기 쉬운 것입니다. 사상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 몰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산가족들이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사상교육을 하는 것처럼 남한에서도 강력한 사상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상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체는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상교육을 해서 화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046-237, 1971.08.15)

5 앞으로 남북총선거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1천만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국제승공연합과 함께 승공사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만한 인원을 어떻게 국가로부터 후원받아서 준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버님은 항시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우리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부흥,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 민족의 사상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교회도 기독교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하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입장에서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유도하여 하나의 방향을 갖춘어 나가면서 이 민족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전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체를 책임진 아버님은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들을 1차 2차 타진해서 나라의 비운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공동전선을 세워 그들에게 어떻게 승공정신을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046-126, 1971.08.13) p. 493

6 사탄세계에 이기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공산세계에 이기기 위

해서는 승공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싸우고 있는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리 합격, 승공이론 합격, 통일사상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사탄세계를 추방하고 공산세계를 철폐하며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완성을 하는 데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남아 있는 한 지장이 있고, 가정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남아 있는 한 큰일 나겠고, 천국도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면 다 깨져 버립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에 있고,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에 있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권에 있으니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원리와 승공이론과 통일사상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사상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 한국에서는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역사상 처음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고 나면 하나의 나라를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가족을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판문점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면하여 싸우는 지상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금이 분기점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독교 목사들을 초청하여 원리수련을 했습니다. 만일 이 기간에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를 박해하는 모든 기독교인과 국가를 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핍박은 좋은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박해가 도리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분립하게 해주었고 하나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아담과 해와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장이 해와를 말을 가지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천사장을 복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세계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진리로 구원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산주의자와의 대화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리로 민주주의 세계와 싸우고 있고, 승공이론으로 공산주의 세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리와 승공이론은 복귀의 두 기둥입니다. (052-073, 1971.12.22) p. 494

8 통일사상 교육, 승공이론 교육, 그다음에는 통일원리 교육을 통·반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통일사상 교육은 교수들을 중심삼고 국민연합이 책임지고, 승공이론 교육은 승공연합이 책임지고, 통일원리 교육은 통일교회가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육은 못해도 통일원리 교육을 빨리 시키는 것이 빨리 해방되는 길입니다. 통일원리 공부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식구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탕감길을 가야 된다는 것

을 알고 그 길을 감으로써 가인을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입장에서 가인을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제승공연합 지부장이고 통일교회 교회장이고 상관없이 전 국민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해야 될 초소는 통·반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통·반 사람들을 교육해서 기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167-034, 1987.06.14)

교역자·교수 원리공청회

1970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성교회 목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역자 원리공청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목사들에게 통일원리를 소개하였다. 1971년에만 총 12차에 걸쳐 915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통일원리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문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1971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많은 대학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수초청 통일원리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이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렇듯 각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원리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셨다. (p. 494)

9 전통적 기독교는 아버님에 대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하는 것으로 일방통행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통일교회는 그렇지 않다.'며 환영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대하는 기독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목사들을 데려다가 전도한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062-153, 1972.09.17) p. 495

10 기독교 목사들을 중심삼고 통일원리공청회를 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지역본부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잎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잎보다는 가지와 줄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고 기독교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니, 첫째는 목사들에 대해서 아버님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성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원리를 한 번 듣게 되면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다르고 두 번 할 때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원리원칙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은 함부로 들이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놓고 들여야 됩니다. 아버님은 정성을 들일 때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다고 생각되

면 추울 때도 옷을 벗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042-168, 1971.03.04)

11 통일교회가 기독교로부터 몰렸지만 그들로부터 환영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71년부터입니다. 통일원리공청회를 통하여 목사들을 1천 명 이상 데려다가 교육했습니다. 거기에는 '통일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교회 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만 하면 신자들이 불을 받고 좋아합니다. 몇 번만 해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058-268, 1972.06.13)

12 예수님시대에 있어서 하나되지 못했던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되게 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지금 시대에 고마워하는 것은 오늘날 통일교회와 기독교 목사들이 서로 왕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교회는 초창기에 기독교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기독교 목사들이 왕래할 수 있는 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년 역사를 탕감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원래 목사초청원리공청회를 3차까지만 해도 조건에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6월까지 7차를 하게 됩니다. 1971년은 7천년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하는 운세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통일원리공청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1971년 6월 말까지 7차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한 목사의 숫자가 600명에 1명만 넘어서면 조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00명을 넘겨 보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해 나왔습니다. 통일교회 교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탕감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044-293, 1971.05.24) p. 496

13 완전한 플러스와 완전한 마이너스가 하나될 때에는 우주가 영원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하나되겠다는 것은 기독교를 살려 주자는 것입니다. 완전한 플러스 자리에 서서 완전한 마이너스 자리에 있는 그들을 살려 주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자리에 있는 그들이 우리와 하나되지 않으면 나라가 말려 들어옵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참의 결과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온 천지를 동원하여 법도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대 안정권이 우리 행로에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발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맞추어야 됩니다. 맞추려면 이것이 대각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하려면 통일교회가 기독교와 하나되고 나라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기독교 교인들은 2주일만 통일원리를 교육받으면 여러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207-304, 1990.11.11)

14 복귀노정에서 아벨은 가인을 복귀하고 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랑해 가지고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입장에서 복귀해야 됩니다. 기독교 목사 통일원리공청회에도 아버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나를 반대했으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복귀되기 전까지는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뜻이 있고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가인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개인적 아벨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인을 구해 주어야 되고, 가정적 아벨이라면 가정적 가인을 구해 주어야 되고, 종족적인 아벨이 되면 종족적인 가인을 구해 주어야 되고, 민족적인 아벨 통일교회라면 민족적인 가인 교단을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비로소 국가를 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시급한 것은 어떻게 아벨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교회의 소원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046-147, 1971.08.13) p. 497

15 1971년 정월부터 12월 초까지 기독교 목사 통일원리공청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800여 명의 목사들이 공청회를 거쳐 갔습니다. 또 대학가를 중심삼고는 교수 초청 통일원리공청회를 4회 했습니다. 이 대학가는 우리가 아니면 학생들의 새로운 갈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문교 당국도 그런 견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승공노선을 중심삼고 볼 때에도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두고 볼 때 뜻을 중심삼고 절정에까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왔기 때문에 통일교회 식구들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활동체제를 갖추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이 지금 전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과 더불어 이 가정과 관계되어 있는 식구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052-028, 1971.12.01)

16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사상이 미약하고 부패한 것을 청소하고 청산짓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우리의 사상이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통일교회에서 기독교 목사 통일원리공청회를 하겠다고 할 때에는 목사들이 올 것 같으냐고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천륜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의 대표 되는 서너 사람만 협조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055-329, 1972.05.09)

17 통일교회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통일교회 자체로는 절대 안 됩니다. 통일교회가 살아 가려면 반드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를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수많은 배후 인물들을 움직여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수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난 3차 통일원리공청회에도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경비를 써 가면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들을 중심삼고 통일교회 원리를 연구하게 하여 각자 전문분야에서 본 통일원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자기 소감을 첨부한 것을 책자로 빨리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교수들이 공인한 책자를 보는 사람들은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시급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교수들의 공청회를 통한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어느 누구도 공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046-128, 1971.08.13)

18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리연구교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통일원리를 연구해서 자꾸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많이 해서 학자들이 많이 엮어 나왔는데, 그런 학자들을 중심삼고 어떻게 그 나라의 책임자들이 통일원리공청회를 할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기독교 책임자들과 교수가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와 대화하게 되면 목사들이 완전히 머리 숙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의 기성 종교와 합해서 많은 인원과 접촉시켜야 합니다. 한꺼번에 교회가 넘어오면 사람들이 뭉청뭉청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어떻게 하든지 600명씩 해서 3만 명을 완전히 확보하여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움직이면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089-051, 1976.10.03)

지도자 승공사상 교육과 해외 연수

참부모님께서는 1968년 1월 13일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시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 승공 및 통일사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셨다. 국제승공연합은 미국과 일본 연수를 주선해 통일원리와 참부모님의 세계적 활

동을 소개함으로써 사회지도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p. 498)
19 남북통일에 대비해 조직 편성을 해놓아야 됩니다. 평화대사들을 승공이론과 통일사상, 통일원리로 무장시킴으로써 세계를 수습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120곳에 평화대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평화대사들을 반·리·면, 반·통·동에 배치해야 됩니다. 지방이나 수도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가 일괄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런 조직을 해서 매일같이 사상무장을 해야 됩니다. (405-011, 2003.02.08) p. 499
20 아버님이 애국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원리와 승공이론, 통일사상까지 교육해야 됩니다. 아버님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으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풍조로써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이 절대가치를 중심삼고 지금까지 평화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이것을 높이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존경한 기반을 역사의 전통으로 삼아 후세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착지가 필요합니다. (402-019, 2003.01.12)
21 기독교인들이 통일원리를 듣고는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 연수에 참가한 교장선생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좋다는 소문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같은 말씀을 듣고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눈을 가지고 보고, 그런 귀를 가지고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것이 전부 자기를 때려죽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는 말로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나니까 한번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마음문을 열고 들어 보니까 백 퍼센트 와 닿는 것입니다. 요즘에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교육을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우리 책임자를 며칠씩 찾아와서는 교육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미국 연수에 참가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장로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벌써 교육받은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중류계층은 거의 다 통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6-342, 1990.10.14)
22 지금까지 국제승공연합과 통일교회를 통해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계되었고 그 사람들을 전부 엮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미국에 연수 갔던 교수와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을 전부 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협회의 조직을 일원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리연구회 학생들은 별도로 활동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나갔습니다. 전부 한집에 들어와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원수들이 다 무너졌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이제 학생국이 생길 것입니다. 학생국은 교수들과 중고등학교 교장**들**, 초등학교 교사들까지 묶어서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교육기관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안 다니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에서 주동해서 움직이면 그 가정들은 상대적으로 자연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만 돌이켜 놓으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가정이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려다가 일주일만 원리를 가르쳐 주게 되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208-066, 1990.11.15) p. 500

23 미국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5만명을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5만 명을 연수시키게 되면 한 군에 200명이 됩니다. 미국 연수를 시킨 것은 앞으로 국가를 움직이기 위한 주동 인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육받고 난 후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통일교회의 이 뜻을 중심삼고 수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기준만이 아니고 세계로 통하고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인맥과 연결시키는 데는 통일교회 기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망의 방향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30-016, 1992.04.15)

24 부모님은 중고등학교 활동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미국 연수를 갔다온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교장 교감 선생들 중에서 3분의 2정도가 우리 체제권 내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교장 교감선생을 중심삼고 하나되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학제로 끌어 올리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길은 대학교수보다도 중고등학교 선생들입니다. 교직원을 중심삼은 활동과 학생 교육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자리를 잡기만 하면 됩니다. 대학은 벌써 한 단계 떨어집니다. 대학교는 학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 동기라고 하더라도 심정적인 유대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같은 과목권 내에 단일 책임을 맡은 선생이 모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 앞에 형제와 같은 심정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어떻게 사상적인 것을 심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막강한 배후세력 기반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장이 찬양하고 학생들이 찬양하게 되면 학부형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함으로써 식구화운동을 해야 됩니다. (241-057, 1992.12.19) p. 500

제3장 주요 명절 선포

1절 심정부활의 날과 실체부활의 날 선포

심정·실체부활의 날 선포 배경

참부모님께서는 3자녀 축복식을 치른 다음날인 1960년 4월 17일을 '심정부활의 날', 1961년 4월 17일을 '실체부활의 날'로 선포하셨다. 참부모님 성혼식 이후 심정부활·실체부활·만물부활의 기대를 닦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심정권을 실체로 부활시킴으로써 부모의 날을 통해 자녀와 만물을 찾아 세우게 되었다. (p. 501)

1 본래 부모의 날은 심정부활의 날과 실체부활의 날이 선포되고 나서 나와야 합니다. 부활의 과정을 살펴보면 심정부활·실체부활·만물부활로 되어 나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만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심정부활·실체부활·만물부활을 해 나오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부모의 날과 자녀의 날, 그리고 만물의 날이 찾아집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님 자신이 형극의 길을 걸어오면서 탕감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탕감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조건을 벗어나서 축복된 부모의 날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017-322, 1967.04.10) p. 501

2 인류시조인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부모의 날과 자녀의 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이날들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나 자녀의 날이 그렇게 무가치한 날이 아닙니다. 자녀의 날이 나오기 위해서는 타락한 모든 것을 복귀해야 했습니다. 타락함으로써 심정적 문제에 걸렸고, 실체적 문제에 걸렸고, 그다음에는 천사장 한테 걸렸습니다. 타락한 순서를 보면 천사장이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심정에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부 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치되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는 심정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심정부활의 날이 선포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심정부활이 먼저입니다. 타락은 사탄과 인간의 몸이 하나**됨**으로써 심정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노정에서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심정부활의 날을 먼저 선포하고 그다음에 실체 부활의 날을 선포해야 됩니다. (051-125, 1971.11.18) p. 502

3 1960년에 성혼식을 함으로써 부모의 자리를 종적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의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은 그러한 형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날을 설정하여서 횡적인 입장에서 자녀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부활·심정부활·실체부활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새로운 역사시대로 들어갈 수 있

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대해서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새시대의 아들딸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탕감노정에서 부모님처럼 실체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다 접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021-204, 1968.11.20)

4 아담은 심정세계의 미급한 자리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타락했습니다. 심정을 체휼해서 온 사람은 이 역사시대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심정복귀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담 혼자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가 함께 유린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정적으로 해방의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정부활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2천년 동안 별의별 희생을 당해 왔지만, 이러한 이념을 가진 원리와 천리를 통한 심정적 배경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부터 푸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부가 나와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심적 해방이 벌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늘나라의 '심정문'이 열리면서 인간 부부들의 참다운 심정의 천국형이 시작됩니다. (097-303, 1978.03.26)

5 하나님의 심정적 벽을 만든 것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탕감조건을 세움으로써 심정적 기준과 마음 방향이 일치한 자리에서 '당신이 진 십자가를 대신 인계받아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중심삼고 실체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겠나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세계에서 인간의 심정세계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에 인간조상의 자리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심정적 십자가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심정적인 수난길을 통해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하는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넘었다고 선언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듯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60년 4월 11일 부모님 성혼식이 지나고 7일째 되는 4월 17일을 기해서 심정부활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위에 심정부활을 선포한 날입니다. 인간세계에 남아진 심정문제만 세계적으로 해결하는 날에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097-306, 1978.03.26) p. 503

6 지상에 현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심정적 부활권을 성취하지 않고는 완성의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활을 중심삼고 통일교회에서

심정부활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심정부활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실체부활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되고, 그 하나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몸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횡적으로 몸이 심정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탄권 내로부터 침범받았던 참소기준을 초월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부활권을 성사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횡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60년과 1961년에 각각 심정부활의 날과 실체부활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완성한 아담이면 아담, 완성한 해와면 해와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67-144, 1973.06.01)

심정부활과 실체부활

참부모님께서는 '심정부활의 날'은 6천년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심정의 유대를 공식적으로 맺은 날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시 탄생하는 실체부활의 조건을 세워야만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사권 내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p. 503)

7 우리는 어차피 심정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심정의 문을 통과했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심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도 심정이요, 첫 번째 만 번째도 심정입니다. 이 심정의 문을 열어야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날 그 몸과 마음과 심정에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09-088, 1960.04.17) p. 504

8 부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심정이 문제입니다. 하늘이 바라는 대로 현실에서 가치적인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을 완결하였다는 사람이 하늘에도 땅에도 없었는데, 이 불쌍한 민족이 사는 한반도에서부터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기준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정의 주도권을 쥐고 오시는 아버지 앞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돌려드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심정세계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 신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움과 하나님주의와 충성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의 심정, 부부의 심정, 군신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를 통일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밑에서는 서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곡절이 맺힐 수 없습니다. 신랑의 이름으로는 양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 임금 이름 밑에서 충성하는데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정부활의 총결론입니다. (009-091, 1960.04.17)

9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에는 하나님과 심정적 기준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지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자각이 벌어져야 됩니다. 즉 심정부활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길을 위해서 심정부활식을 했습니다. (090-130, 1976.10.21)

10 여러분이 실체부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역사적인 기준을 탕감하고 현실의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체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실체부활의 날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인계받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 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실체부활은 심정까지 통해야 됩니다. 그날은 천지가 돌아가는 날입니다. 실체부활의 날이 나오려면 실체부모가 있어야 하고 실체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실체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주권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길은 죽든 살든 가야 할 길입니다. (011-337, 1962.04.17) p. 505

11 통일교회에 오면 이상합니다. 아예 보따리를 싸서 교회에 들어와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보따리를 싸서 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을 나오다시피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실체부활입니다. 몸이 하늘권으로 들어갔다는 표를 받게 됩니다. 실체부활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정부활과 실체부활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혈통적 인연이 연결될 수 있는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090-130, 1976.10.21)

2절 부모의 날 선포

부모의 날 선포 배경

1960년 음력 3월 1일(양 3.27) 서울 청파동 1가 전 본부교회에서 거행된 참부모님 가약식은 사실상 참부모님이 이 땅에 등장하신 날이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이듬해인 1961년 음력 3월 1일 약혼 기념일을 부모의 날로 발표하셨다. 1994년 제35회 부모의 날에 주요 명절에 '참'자를 붙여 '참부모의 날'처럼 부를 것을 말씀하셨다. (p. 505)

1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과 부모의 날과 자녀의 날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창조의 이상은 심정일체입니다.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로

이어지는 심정적인 일직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 창조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조화의 이치를 세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방법과 그 설계도 이 원칙에 의거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날을 갖는 동시에 부모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세워서 만민이 축하하는 날을 가져야 모든 기념일을 완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011-263, 1961.11.08)

2 부모의 날은 역사시대에 부모가 잘못한 모든 것을 영적 육적으로 탕감한 승리의 기반 위에서만 설정됩니다. 참부모는 아담 해와가 되어야 했지만, 이들이 타락함으로써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선민권을 중심삼고 국가적 기준에서 참부모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086-215, 1976.03.31)

3 이 땅 위에 참부모가 참부모의 입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전을 해야 됩니다. 참부모로서 자격을 갖추어 승리해야 됩니다. 먼저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다음에 영계에 가서 양자의 부모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생·장성·완성 부모의 3대 역사를 거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땅 위에 자녀 입장으로 태어난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심정적 내용이라든가 살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전반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부모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에게는 죽은 자식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방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부모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과정은 소생·장성·완성 3시대의 부모 역사를 거쳐 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최후에 남아질 부모는 육계나 영계나 사탄세계에서 승리의 결정권을 가지고 나오는 부모입니다. (026-288, 1969.11.10, 한국 전본부교회) p. 506

4 하늘과 땅이 통일되지 않고서는, 즉 영적인 세계와 지상세계가 통일되지 않고서는 완전하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세계를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시키려고 해도 천륜의 법도가 남아 있고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통일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정의 터전으로부터 마음의 터전, 생활의 터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가로막혀 있고 간격이 되어 있는 것을 청산지어 놓지 않으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청산해야 될 간격은 지상만이 아니라 천상세계에까지 무한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간격을 무엇으로 타개할 것이냐? 이것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으니 인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기 위해서는 막힌 영계와 무한한 투

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상에 통일적인 세계관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영계에서 통일적인 역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계의 역사가 지상에 반영되어 실체적인 현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상에 부모의 날을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날은 천지간에 승리를 결정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소망해 온 승리의 날로 세워질 수 있는 날이요, 인간이 소망해 온 역사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요, 만우주의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017-078, 1966.11.12) p. 506

5 지금까지도 선한 가운데 나타나야 할 참된 부모의 혈연이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고아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즉 사탄의 아들과 딸이자 원수의 아들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로 보아서 인간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쇠사슬로 묶어서 못 가게 유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최후의 생사의 결단을 지을 수 있는 인류의 소망의 기점이 부모의 날입니다. (042-291, 1971.03.27) p. 507

6 참부모는 두 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분이 없으면 참부모의 기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기눈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상에 실체 참부모가 세워지지 않으면 실체세계에서 승리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계에서 승리의 조건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지상에 참부모가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 세계의 발판에 해당하는 발판을 이 지상에 닦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는 참부모는 이것을 위해 생명을 바쳐 땅과 하늘을 대신하여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기간이 40년 기간입니다. 참부모는 이 40년 기간에 어떠한 싸움을 거쳐야 하느냐? 우선 영계에서 영적인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상에서 실체적인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영육 합하여 참부모의 인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6천년 섭리역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날은 영육 합하여 참다운 승리의 기점을 잡은 날이요, 참부모의 이념이 출발한 날입니다. (013-285, 1964.04.12)

부모의 날의 의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가 됐더라면 그때 부모의 날이 세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부모의 날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섭리해 나오셨다. 부모의 날은 이렇듯 아담 해와가 잘못한 것을 참부

모가 영적 육적으로 탕감한 승리 기반 위에서 설정되었다. (p. 507)
7 메시아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된 본연의 이상적인 남성형을 갖추어서 타락성을 초월한 자리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의 중심이 되어 세계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메시아는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은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신부는 해와입니다. 해와를 잃어버렸으니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와서 해와를 찾아야 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라는 말을 중심삼고 역사상에 처음으로 부모의 날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은 남성과 여성이 부부를 이루는 부모의 날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남자의 몸과 마음, 여자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수평선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바랐던 이상적 완성권이 출발한 날이 부모의 날입니다. (128-137, 1983.06.11) p. 508
8 인간시조가 타락하였기에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직계자녀는 없고 양자들만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지간에 위업을 상속해 주어야 할 텐데 핏줄이 다른 양자만 있으니 쉽게 상속해 주고 싶겠습니까? 부모라면 난데없이 생겨난 남의 자식에게 천지간의 위업을 상속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본래 창조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천지창조의 원칙은 본래의 아들딸에게 위업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아들딸을 찾기 위한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의 사명과 자격을 갖추고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일등 신부는 재림주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가 나온 다음에는 그분들의 아들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는 날이 바로 부모의 날입니다. 이 날은 통일교회에서 갖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역사상에 부모의 날이 생겨났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인류의 승리를 찬양하고, 악에 대하여 공의의 법도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서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날을 선포한 것이 부모의 날인데, 바로 음력 3월 초하룻날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부모의 날은 필요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들이 아담과 해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날이 부모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022-012, 1969.01.01)
9 우리가 부모의 날을 세웠는데, 이 부모의 날이 통일교회만의 부모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맞이할 수 있는 부모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맞이할 수 있는 부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날

에는 만세의 한 맺힌 고개를 넘기 위하여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심정을 품고 이 죄악의 세계를 파탄시켜 해방의 나팔소리와 해방의 환호성이 천지에 가득한 그 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방군으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아들딸로서 충과 효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날은 통일교회 울타리 안의 소수의 무리만이 축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전 역사에 걸쳐 길이 찬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미래의 만민들이 자랑의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로 길이 기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입니다. (019-340, 1968.03.29) p. 509

10 여러분은 부모의 날을 진정으로 자신의 부모의 날로 세워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부모의 날로 세워야 되고, 사회의 부모의 날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의 부모의 날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계의 부모의 날로 세워서 천주의 부모의 날로 세워야 원래 하나님의 참부모를 세우려던 창조이념이 완결되는 것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부모의 날을 세우지 못했던 한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천상천하에 부모의 날을 세워야만 복귀의 한이 완전히 해원된다는 것입니다. (013-295, 1964.04.12)

3절 자녀의 날 선포

자녀의 날의 의의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음력 10월 1일(양 11.19) 서울 청파동 1가 전 본부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친히 주재하셨으며, 이듬해 이날을 자녀의 날로 공포하셨다. 자녀의 날이 결정됨으로써 아담과 해와가 뿌린 죄악의 씨를 뽑아 버리고 인류를 악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기원이 만들어졌다. 이날은 타락인간들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녀로서 승리해 비로소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기념의 날이다. (p. 509)

1 하나님은 부모의 날이 세워지기를 6천년 동안 고대해 나오셨습니다. 본래는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이 고대해야 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6천년 동안 그날을 고대해 오셨습니다. 어그러진 역사가 시작된 그날부터 숱한 고빗길에서 하나님에게는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단 한 가지 소원했던 것은 부모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찾아짐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같이하실 수 있는 인류의 참된 부모를 세워서 '너희는 인류의 참부모다.'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부모의 이름을 갖고 나옴으로써 부모의 축복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자녀가 세워지게 되고, 그럼으

로써 지상에서 자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017-079, 1966.11.12) p. 510

2 1960년 부모의 날을 설정한 후에 자녀의 날을 설정했습니다. 인류의 부모가 등장하게 될 때에 자녀도 결정지어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정짓는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부모의 출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귀노정에서는 부모만이 아니고 자녀의 인연도 닦아댜 합니다. 횡적인 인연인 자녀를 중심삼고 볼 때에는 부모의 날이 먼저 출발하고 자녀의 날은 나중에 출발해야 되지만, 복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녀의 날이 먼저 출발하고 부모의 날은 나중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횡적인 기준에서 부모의 날을 설정하고 자녀의 날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간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녀의 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천지간에 승리의 환성을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이 설정됨으로써 영계는 때를 맞았으니 맺혔던 것이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악한 세력은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021-200, 1968.11.20)

3 자녀의 날을 맞이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 여러분 아들딸이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생·장성·완성의 3시대형으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상징복귀·형상복귀·실체복귀의 입장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딸들이 자녀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천상에 한이 맺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딸을 중심삼고 세계를 복귀해야 되고, 나를 중심삼고 낙원에 가 있는 모든 선영인들을 복귀해야 되며, 교회를 중심삼고 하늘땅의 도리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이런 3단계 원칙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적인 환경에서부터 이날을 기념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날이 오기를 고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이 '때때옷 입고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는 명절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자녀의 날이 온다고 좋아**하**는 자리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026-318, 1969.11.10) p. 511

4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부모를 잃어버렸고, 자녀를 잃어버렸고, 만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탕감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세워야 했는데 그중에서도 세우기 가정 어려운 날이 자녀의 날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참다운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핏줄을 타고나야 됩니다. 참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앞에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효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수습해야 되고, 그 환경으로부터 공인받고, 부모로부터 공인받아

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아담 해와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중심으로서 뜻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차이가 있어서는 효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충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효자나 충신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효자나 충신은 과거를 대표하고, 현재를 대표하고, 미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맹세' 제정

참부모님께서는 1962년 10월 28일 제3회 자녀의 날을 기해 전문 5절로 이루어진 '나의 맹세'를 제정·공포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맹세란 하나님과 미래를 두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야 되고, '나의 맹세'로써 각자 참아들딸이 된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나의 맹세'는 1994년 5월 1일 '가정맹세'가 제정될 때까지 제창되었다. (p. 511)

5 여러분이 맹세를 할 수 있겠나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종으로서도 맹세를 못했고 아들딸로서도 맹세를 못했습니다. 맹세를 하려면 심정이 통해야 됩니다. 이 맹세는 참아들딸이 된다는 의미의 맹세입니다.

1. 천주의 중심존재로서 아버님의 뜻과 맡겨 주신 책임을 완수하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의 자녀가 되어 창조이상세계에서 영원히 아버님을 시봉하는 참효자·효녀가 되기를 나는 맹세하나이다.
2. 아버님께서는 6천년간 제물 된 십자가노정을 참으시며 죽은 나를 참자녀로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주시어 일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천주의 상속권을 주시려는 거룩한 뜻을 나는 완전히 상속받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원수에게 잃어버린 자녀와 천주를 복귀하기 위하여 아버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시고 종의 몸을 쓰시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시며 나 대신 역사노정을 두시고 원수 사탄을 무찌르시던 무기를 지니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아버님의 본을 받아 나는 참아들딸이 되어 적진을 향하여 용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아버님께서는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의 원천이시며 아버님을 모시려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와 천주는 본성의 인간을 통하여서만이 심정일체 이상세계를 완결하므로 나는 참사람이 되어 심정의 세계에

서 아버님의 대신자가 됨으로써 피조세계에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을 옮겨 주고 아버님께 기쁨과 만족을 돌려드리는 참아들딸이 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주권을 자랑하고, 하나의 백성을 자랑하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하고, 하나의 부모를 중심한 자녀 됨을 자랑하고, 하나의 전통을 이어받을 혈족임을 자랑하고, 하나의 심정세계를 이룩하는 역군임을 자랑하고 이를 실현시킬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러한 의무와 사명을 성취하는 데 책임을 지고 생명을 바쳐 싸울 것을 나는 선서하며 맹세하나이다. (151-179, 1962.11.01) p. 512

6 왜 기독교가 재림사상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중심삼고 새로운 씨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거짓 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새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씨를 갖고 오는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참아들딸의 참사랑 참생명을 중심삼고, 참혈통적 논리를 중심삼고 사악한 세상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주적인 힘을 가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맹세'에 나오는 내용대로 우리는 하나의 주권을 자랑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백성을 자랑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혈족입니다. 그다음에는 하나의 국토입니다. 이 땅이 내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니 하늘이 가담해서 쌍태로 섭리하는 것입니다. 쌍태시대입니다. 에서와 야곱같이 쌍태입니다. 복중에까지 찾아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으니 새로운 틀을 통해 복중에까지 탐색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데에는 없습니다. (226-320, 1992.02.09) p. 513

7 여러분이 '나의 맹세'를 매주일 외우는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외워서는 안됩니다. 이 맹세문의 첫째가는 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주권을 자랑하는데, 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랑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자 여자입니다. 개인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준이 달라지면 자연히 갈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현세의 사람이 중시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갈라지는 것은 사랑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35-262, 1992.10.11)

8 나의 맹세 5절 가운데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하고, 하나의 부모를 중심한 자녀 됨을 자랑하고, 하나의 전통을 이어받을 혈족임을 자랑하고, 하나의 심정세계를 이룩하는 역군임을 자랑하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왜 혈통이나 심정보다도 먼저 나왔느냐?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알고 난 후에 혈통과 심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리원칙을 따라서 전부 그렇게 쓴 것입니다. (135-200, 1985.11.13)

4절 만물의 날 선포

헌공식과 만물의 날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1963년 음력 6월 6일(양7.26)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헌공식(獻貢式)을 개최하셨다. 하늘자녀의 이름으로 사탄권에 속해 있던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 바쳐 드리는 의식이었다. 참부모님께서는 헌공식을 기해 음력 5월 1일로 소급해 매년 만물의 날로 기념하도록 하셨다. 3년노정의 종결 선포 다음날인 1963년 음력 5월 1일(양 6.21)을 만물의 날로 정하셨다. (p. 513)

1 오늘 헌공일을 맞이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조건들을 세워서 나라가 없고 백성이 없고 영토가 없어 슬퍼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제부터 천국 백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생겨날 것이고, 그 아들딸이 승리하여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합하여 민족과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움직여 세계적 기반을 닦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기뻐하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볼 때 종교적으로 1차적 승리의 기반을 닦아 놓고, 성혼식을 통하여 2차적인 출발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라에 선포한 중심 내용은 우리의 진리와 축복입니다. 성혼 가정을 통해 그러한 것을 선언해 왔습니다. 이렇듯 1차, 2차를 거쳐 오면서 국가적인 대행사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인연을 맺게 되는 시대적인 혜택권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12-283, 1963.07.26) p. 514

2 인간은 믿음·심정·실체를 잃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하기 위하여 가장 믿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람 등을 찾아 그들이 역사를 대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심정을 가지고 있고, 실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험했습니다. 믿음을 결정한 후에 심정부활과 실체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종적으로 찾아온 것을 횡적으로 세운 후에 축복했습니다. 이 기준 위에 상을 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횡적인 기준이 세워진 후에 성지 택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

을 바친다는 조건의 헌공식을 함으로써 종적인 것이 횡적으로 전개되었고 평면적인 기준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013-012, 1963.09.12)

3 오늘 헌공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참석한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이 길은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울고 울어도 그칠 수 없는 눈물의 자리요, 통곡하여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단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남이 모르는 포부를 가졌다고 한다면, 어떤 외적인 물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갖고 있는 이 원한과 이 분함을 억천만금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의 것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것을 완결하기 위한 책임을 짊어질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전체의 중심 심정으로 우러르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비로소 6천년 슬퍼하셨던 슬픔을 우리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전체 슬픔을 엄숙한 자체로서 상속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상속해 놓고 아버지께서 세우시려던 본연의 만물을 만우주 세계에 아버지의 기쁨의 것으로서 찾아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는 신념만이 여러분 자체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픈 역사를 가진 하늘의 곡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2-293, 1963.07.26) p. 515

4 아버님, 이 헌공금은 만물을 온통 아버지 앞에 드리는 조건의 제물이옵나이다. 이것을 끝맺기 위하여 참부모를 세우셨사옵고, 참가정을 세우셨사옵고, 참성지를 세우셨사옵니다. 이 성지를 기반으로 하여 정성어린 마음의 터전 위에 조건을 세우시사 수많은 자녀들이 모은 이 헌공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옵니다. 이는 온 천주를 상징함이요, 이는 아버지께서 6천년 동안의 슬픔을 해원해 달라는 지극히 미미한 조건물이옵니다. 물질 그 자체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배후에 연결된 심정만을 보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알기에 이 조건을 아버지 앞에 드리옵니다. 여기에는 피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통일신도들이 성지를 찾아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앞에 호소한 인연이 연결되어 있사오니 에덴의 땅 위에, 한반도 위에 있는 만물을 이제 아버지 것으로서 장악하시옵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나라로서 장악하시옵고, 온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승리의 터전으로서 받아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152-289, 1963.07.26)

5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께 탕감기금을 드려야 합니다. 성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릴 때에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천지가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

물을 잘못 드림으로 인해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는 별의별 역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피를 팔아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한이 됩니다. 그런 역사를 볼 적마다 눈물 흘리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우주적인 이념을 중심삼은 뜻이라 한다면 그 이념권 내에선 부모를 위주로 한 형제, 그런 형제를 위주로 한 가정,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한 천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물복귀의 한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012-253, 1963.05.22) p. 515

6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크나큰 못 자국을 남겨 맺혀진 그 한을 풀지 않고서는 하늘과 땅을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복귀를 위해서는 원래 만물의 제물시대, 자녀의 제물시대, 부모의 제물시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로 단 한번도 부모의 입장에서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부모의 날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부모를 통할 자녀의 날이 나와야 하고 만물의 날이 나와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해원성사하고 부모의 심정, 자녀의 심정, 만물의 심정을 해원성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담은 타락했지만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세워 탄식권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정할 때에 거꾸로 부모의 날을 먼저 정하고, 그러고 나서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정했던 것입니다.

7 만물의 날이 어떻게 나왔느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뿌린 죄의 씨앗이 그들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로 거두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씨를 뿌린 부모가 복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주사적인 부모복귀 기대를 중심삼고 충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복귀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결정된 후에 비로소 만물의 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널려 있는 만물은 지극히 불쌍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지은 만물이었고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지은 만물이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만물은 인간을 대신한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슬프게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들릴 수 없기 때문에 만물을 제물삼아 희생적인 제사를 드려 왔다는 것입니다. (016-259, 1966.06.19)

8 복귀노정에서는 만물을 복귀하고, 자녀를 복귀하고, 부모를 복귀해 나왔습니다. 만물을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모가 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신이 그런 핍박을 지금까지 받아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것을 또

거꾸로 세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날을 책정한 것은 십자가의 이장성 단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자녀의 날도 그렇고, 만물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날을 설정한 것입니다. (073-247, 1974.12.07) p. 517

만물의 날을 대하는 자세

만물은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 특히 축복가정은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이름으로 다시 상속받아야 한다. 참부모님께서는 만물은 참다운 주인을 만나 공적인 권한과 가치를 부여받고 참사랑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일상생활의 모든 필수품은 피조만물을 축소한 것인 만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귀하게 다루고 평가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p. 517)

9 만물의 날을 통해서 이제 제3 부모의 인연을 우리가 가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나가고, 새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나감으로써 앞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타락권 내에 있어서 3대 탄식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부모로부터, 인류로부터, 만물로부터 해원성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교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길을 개문하는 첫출발의 날들이 부모의 날이요 자녀의 날이요 만물의 날입니다. 만물은 제3의 부모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사랑하듯이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인 앞에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058-233, 1972.06.11)

10 만물의 날을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만물을 하나님 앞에 결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유재산은 물론 공동재산인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또 세계 지구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봉헌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이름을 통해서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런 소유 권한이 어느 천지에든지 연결될 수 있는 권을 만들어 놓아야 만물의 날을 축하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172-050, 1988.01.07)

11 인간을 재창조하려면 아담 해와가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로부터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 이전에 지어진 피조만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러한 피조만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7수의 반이 되는 3년 내지 3년 반 노정에 반드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늘의 물질적 요건을 복귀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

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수는 탕감노정 기간이고 7수는 안식권이라고 볼 때, 3년 내지 3년 반 노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피와 살을 퍼부어야 합니다. 자기 피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물질적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와 살을 투입해서 사탄세계의 물질을 성별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을 위한 물질이 아니고 우주적이고 공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공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172-050, 1988.01.07) p. 518

12 아버님은 초창기에 사냥을 다녔습니다. 새벽같이 가서는 저녁에 해가 지고 깜깜할 때까지 산중에서 내려오지 않고 밤에 거기에서 자면서까지 사냥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높은 산이란 산은 다 답습했습니다. 어느 날은 멧돼지를 잡으려고 출발했는데 14일이 지나도록 멧돼지 발자국 하나 못 봤어도 계속했습니다. 남들은 아버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했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려고 다닌 것이 아니고 산을 답습한 것입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 깊은 골짜기를 답습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났으니 그 다음에는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에 가서 배를 수십년간 탔습니다. 1968년에 천승호를 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를 만들어 타기 시작하여 평생을 탔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숨겨진 보물입니다. 영원히 살아 있는 실체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대양을 뒤지고 전부 답사한 것입니다. (294-143, 1998.06.14)

5절 하나님의 날 선포

하나님의 날 선포 의의와 배경

참부모님께서는 1968년 1월 1일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날은 부모의 날과 자녀의 날과 만물의 날을 찾아 세운 승리적 기반 위에서 선포되었다. 참부모님께서 1960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혼식을 올리신 이후 제1차 7년노정을 승리로 마무리하신 뒤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신 것이다. 특히 이날은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성혼 이후 8년째 되는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지상에 안착하시는 역사 이래 처음 맞이하는 기쁜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p. 519)

1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은 있으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천지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삼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 정월 초하룻날을 하나님의 날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019-171, 1968.01.01)

2 1968년 정월 초하룻날은 하나님이 비로소 사랑을 중심삼고 영계를 통합하고 지상을 통합하기 위해 착륙하신 기념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부모의 인연이 맺어진 그 부모를 참부모라고 합니다. 1968년 1월 1일은 비로소 하나님이 지상에서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소망하시던 날이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한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상에 착륙할 수 있는 기쁜 날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천하가 다 반대하더라도 이날은 하나님에게 역사 이래, 창세 이후 처음으로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161-045, 1987.01.01)

3 하나님의 날에 대한 역사적 동기를 찾아보면, 1968년에 통일교회에서 제정해서 생겨난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창조이상 가운데 있었던 날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등장할 수 있을 때 자동적으로 생겨날 수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소원의 터전 위에 만물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어진 만물을 보고 지극히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만물 자체가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축하하고 높인다는 의미에서 선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창조의 위업에 기쁨과 찬양의 여건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중심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만물을 그 휘하에 넣고 주관하라고 축복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직계자녀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편성하는 날을 맞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전에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은 사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022-007, 1969.01.01)

4 제1차 7년노정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가정에 스며들 수 있는 사탄의 내연을 전부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1968년을 맞으면서는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는 이 가정을 중심삼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입장에서 사탄의 참소 조건을 안팎으로 전부 가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평면적인 입장에서 가림과 동시에 과거 역사노정에 왔다 간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와 예수님이 못다 이룬 것을 중심삼고 내적인 탕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독교가 2천년 동안 십자가노정을 걸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내적, 혹은 실체적으로 탕감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 기간이 1차 7년노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1967년을 넘기고 1968년 정월 초하루를 비로소 하나님의 날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037-301, 1971.01.01) p. 520

5 세상에서는 생일을 맞아 축하하고 결혼기념일을 맞아 축하하지만, 하나님의 날을 맞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는 축하의 날들을 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날들을 축하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날을 국가적인 날로 세워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노동의 날이니 여성해방의 날이니 하는 날들은 전부 하나님의 날을 찾아 세우기 위한 방편적인 축하의 날들입니다. 그 축하의 날들은 그날 자체로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날을 찾아 나오는 과정에 필요한 방편적이고 조건적인 축하의 날이지, 절대적인 명사를 쓸 수 있는 축하의 날은 못 됩니다. 인간이 최고로 축하할 수 있는 날은 하나님이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축하하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날을 맞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날이 있더라도 그날을 축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랄 수 있는 한 날을 앞에 두고 그날을 동경하면서 세계적인 기쁜 날로 연결시키기 위해 축하하는 기념의 날이라면 그날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037-302, 1971.01.01)

6 하나님의 날이 뭔지 압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반대하고, 그 무엇이 어떻다고 해도 아내의 남편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남편이 가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가 믿지 못하는 자리에서 타락한 것인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자리와 더불어 남편이 백 퍼센트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해와가 아담을 망쳤기 때문에 여자는 백 퍼센트 믿**을** 수 없는 역사를 거쳐 왔는데, 비로소 어머님을 하나님이 백 퍼센트 믿고 아버님이 백 퍼센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날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68년입니다. (113-140, 1981.05.01) p. 521

7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사탄세계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의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비로소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날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완성한 아담 해와가 사랑의 인연을 맺었으면 하나님의 날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어야 했었는데 제1차 7년노정이 끝남에 따라 비로소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기준의 부모의 인연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책정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새로운 가정이 출발한 그 기준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성숙한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사랑의 인연을 맺어 준 기준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세계가 참소를 하거나 탕감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한을 가지고 천사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가정적 시대권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달라졌다는 것입니

다. (159-077, 1968.03.03)

8 하나님의 날은 인간시조가 꿈에도 소원하던 완성 단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날이요, 창조본연의 세계가 소원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 놓고 소원하시던 날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소원하던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아담 해와가 축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됩니다. 또한 이날은 선한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담과 해와가 비록 개체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삼고 생명의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분리된 입장에서 다른 생명의 인연을 계승하여 악한 조상으로 출발했던 모든 한의 여건을 넘어서 선한 자리에 올라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인연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재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날이 설정된 것입니다. (037-301, 1971.01.01)

하나님의 주관권 회복 시대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날 선포를 계기로 사탄세계가 하늘나라 왕권, 부모 왕권, 자녀 왕권, 만물 왕권 지배하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권, 참부모권, 참자녀권, 만물권에 속하므로 그 어떤 것도 사탄이 약탈해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로 참아버님 21년노정과 식구들의 제1차 7년노정을 마무리하고 제2차 7년노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pp. 521~522)

9 하나님이 구원섭리를 해온 터전은 사망권이요 악의 주관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주관할 수 있는 터전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은 이 천지만물의 사랑의 주인으로 아담 해와를 세워 놓았기에 아담 해와와 만물이 일체가 되면,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은 직접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중심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일체가 되지 못하고 사탄과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터전이 사탄세계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인연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원리에 의해 이 세계를 수습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017-073, 1966.11.12)

10 하나님의 날이 찾아지기까지 7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이 이 7년노정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직접주관권인데, 원리결과주관권의 3단계를 거쳐서 10수의 단계를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찾아가려니 7년 기간이 소모될 것입니다. 1960년 부모님의 성혼식 이후에 자녀들을 끌고 모든 날들을 만들어서 만 7년이

되고 8년의 첫날이 되는 1968년 정월 초하룻날을 비로소 하나님의 날로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부모님은 세계적으로 뻗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로서 통일교회가 뻗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5-043, 1989.01.01)

11 인류와 하나님이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은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서 1968년 정월 초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설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직접주관권 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주관권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과는 관계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천사장도 완전히 굴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탄편 장자의 기준을 탕감복귀하여 하나님 편 장자의 기준을 세운 입장이기 때문에 사탄 자신도 완전히 굴복해야 될 때에 들어온 것입니다. 1967년까지는 아벨이 가인을 굴복시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탕감복귀해 나오는 때였습니다. (023-181, 1969.05.18)

제4장 연두표어와 단계적 섭리 목표 설정

1절 섭리적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1960년대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부터 매년 연두표어를 발표하시고, 모든 식구들에게 섭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주셨다. 1960년대에는 성혼식과 참자녀 탄생, 축복가정 배출은 물론 참부모님께서 직접 7년노정을 앞장서 걸으시면서 전 세계 통일 식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연두표어도 1960년 '생애 중 최대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 1961년 '아버님의 대신자가 되자', 1962년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자', 1963년부터 1967년까지는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 1968년과 1969년은 '전면적인 진격을 하자'등 총력적 활동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정하셨다. 특히 1968년 1월 1일 새벽 3시 참아버님 21년노정과 식구들의 제1차 7년노정을 끝내고 제2차 7년노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셨다. (p. 523)

생애 중 최대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

1 1960년의 표어는 '생애 중 최대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입니다. 1960년은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대의 실적을 남겨야 할 해입니다. 최대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환경을 흡수하여 출발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사탄의 참소조건을 제거할 수 있는 해가 1960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민족적·국가적인 메시아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는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던 때여서, 우리가 자유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올 것인가 하고 마음을 졸이는 때였습니다. 이제는 하늘 것으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생애 중 최대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라는 것은 실적을 세워서 사탄의 참소조건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21-284, 1968.12.01)

2 '생애 중 최대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사탄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탕감의 인연을 갖추어 사탄세계 앞에 분별된 입장에서 역사적인 모든 죄악을 탕감복귀하여 승리하자. 즉 개인복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소망입니다. 개인복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하나님 대신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019-131, 1968.01.01) p. 524

3 나는 1960년 이해의 벽두에 '생애 중 최대의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 즉 '이 한 해에 일생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제일 큰 일을 하라,'고 여러분 앞에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일신의 행복을 위하여 돈을 벌려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돈이 있거든 하늘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호화스러운 거처를 붙들고 지금까지 싸워 왔습니까? 하늘 백성을 안식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면 평화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자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삼천만 민족이 울부짖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피땀을 흘리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겠다. 욕먹는 곳이 있거든 내가 가겠다.'라고 하며 이를 악무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눈물짓는 인연을 남기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이상 사무친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10-081, 1960.07.03)

아버님의 대신자가 되자

4 1961년 1년 동안 우리가 표어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는 아버지의 대신자가 되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1년 동안에 아버지의 대신자라는 것을 친히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상대되는 것으로서 땅을 지으셨고, 자신을 대신한 실체대상으로 인류조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본떠서 먼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크게 보면 한 덩어리요, 작게 보면 모두 하나님의 대신 존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존재의 입장에 서

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대신 존재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냐?'라는 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본래 일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체의 관계입니다. 하늘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통이요, 하늘이 몸통이라면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011-051, 1961.01.01) p. 525

5 우리는 세계적인 혼란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혼란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 놓은 본연의 중심 목표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중심 앞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고, 사정이 같고, 심정이 같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적을 완전히 성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정이 통할 수 있고 심정이 하나될 수 있는 소망의 동산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할 입장에 서 선 인간도 역시 뜻이 하나여야 합니다. 둘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내 뜻이요, 하나님의 사정이자 내 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자 내 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체득하여 그러한 입장에 섰다고 자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대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되지 않으면 대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같아야 되고, 사정이 같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심정적인 일치점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011-055, 1961.01.01)

6 통일교인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후까지 남아지는 사람이 아버지의 대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딸로서, 그리고 대신자로서 이 나라 삼천만 겨레를 위해서 가라고 목이 아프도록 울부짖고 계십니다. 곳곳마다 아버지의 대신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딸을 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대신자요 아들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호화찬란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죽어야 할 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입장에 있는 여러분이기에 아들딸이지만 죽음의 길을 놓고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

니다. (011-239, 1961.10.29)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자

7 1962년의 표어는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자', 즉 보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자,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탄을 어디까지라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어하시고 가정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어하시니, 이것을 위해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계와 육계를 연결할 수 있는 아들딸이 됩니다. 싸움에서 이겨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가정의 복귀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1962년에는 보여 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싸울 때에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또는 하늘 가정을 중심삼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가장 고생스러운 자리에서 싸워야 합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노동자, 혹은 왕거지로부터 시작하여 꼭대기를 눌러 가지고 굴복시켜야 됩니다. 부모와 합동작전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합력하여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한 가정이 총대를 나란히 하고 싸워서 천적인 가정·종족·민족을 이루어 온 세계를 복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을 중심삼고 싸워야 합니다. (011-288, 1962.01.03) p. 526

8 1962년은 역사적으로 두 번 다시 없을 해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몇몇의 통일교회 신도만이라도 해원해 드리겠다는 목표 아래 새해를 맞이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사탄의 참소를 피하여 하나님이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말고 전후·좌우·상하, 안팎으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섭리해 오시면서 자랑하고 싶어하시던 소원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 온 피조만물 앞에 인정받고, 더 나아가 이 땅과 사탄세계까지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해에는 그것을 실천하고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011-279, 1962.01.03)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

9 1963년의 표어는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입니다. 지난 3년간은 인간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63년부터는 그 단계를 넘어서 만물복귀를 하는 해로 들어가니 앞으로는 계속 같은 표어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복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지를 사야 되겠고, 일단 사게 되면 절대로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

도 성지 가까이에 가서 살고, 죽더라도 성지 가까이에 가서 묻히려고 해야 됩니다. 성지는 피값을 모아서 사야 합니다. 즉 인류의 부모로 오셨던 예수님을 판 피값을 내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해야만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표준입니다. (012-119, 1963.01.01) p. 527

10 우리는 산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고생해야 됩니다. 1963년부터 5년간은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라는 표어를 중심하고 활동해야 됩니다. 잘 참고 견디어 왔으니 이제 공세를 취합시다. 이제는 만물을 복귀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산 교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작인 사명시대는 지나고 민족을 걸고 하는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개인을 중심한 가정의 시대를 지나 가정을 중심한 민족의 시대가 올 것이니 하늘을 중심한 민족을 창건해야 됩니다. (013-012, 1963.09.12)

11 여러분이 승리적 주관자가 되려면 전체의 승리를 바라기 전에 먼저 개체의 승리적인 터를 닦아 나가야 됩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과거에도 바라 왔고, 현재도 바라고 있고, 미래에도 바라고 나가야 할 명사입니다. 하나님도 바라셨고, 땅도 바라고 나왔고, 우리 선조들도 바라고 나왔던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와 하나님은 지으신 이 이념의 세계에서 승리라는 명사를 지니지 못하고 슬픔과 비참의 명사를 지니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요건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완전한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013-138, 1964.01.01)

12 여러분은 어떠한 승리적 주관자가 되어야 하느냐? 신앙을 중심삼고 믿는데 있어서 승리적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부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긴 후에는 하늘땅의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을 위주로 한 승리적 주관자가 됩니다. 공인을 받는데 어떠한 한정된 시간권 내에서만 공인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무대에서만 공인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를 통하는 입장에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개인으로부터 세계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13-144, 1964.01.01)

13 제1차 7년노정 가운데 후 4년노정의 표어를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땅을 찾아 세워 드러야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까지 어디를 가든지 전체가 환영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스러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4녀노정 기간에 여러분이 해

야 될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적인 입장에서 하늘땅을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승리적인 터전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과 땅과 만민을 주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귀노정을 받들어 나온 수많은 선조들도 승리적인 주관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2천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그 사명을 완결짓기 위하여 왔지만, 그분도 역시 이 땅 위에서 승리적인 주관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이 지금까지 2천년 동안 승리적 주관자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싸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리적 주관자의 최후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이 승리적인 기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적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승리적인 주관자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014-238, 1965.01.01)

14 통일교회는 승리적인 부모를 모셔야 되겠고, 승리적인 자녀를 가져야 되겠고, 승리적인 양자를 가져야 되겠고, 승리적인 종의 무리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나가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으로 나가서도 사탄을 물리치고, 양자로 나가서도 사탄을 물리치고, 직계 아들딸의 명분으로 나가서도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이름으로 나가서도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야만 승리적 주관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의 승리적 주관자, 양자 자리에서의 승리적 주관자, 직계자녀 자리에서의 승리적 주관자 중 그 어떠한 위치라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에서 전부 단결하여 승리적인 결정권을 가졌다면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승리적 주관자의 권한을 민족이면 민족 전체가 환영해야 되고, 나아가 그 위신과 권위가 민족을 넘어 지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세계를 대하여 명령할 수 있는 기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지상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지상에 천국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종의 종, 종, 양자, 자녀, 부모의 자리까지 거쳐 나와야 하는 역사적인 숙명이 있습니다. 전체를 책임진 아버님은 종적으로 흘러나온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하는 승리적인 실체로 서서 이를 수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14-241, 1965.01.01) p. 529

15 제1차 7년노정 기간은 고개라 한다면 제일 높은 고개요 골짜기라 한다면 제일 깊은 골짜기입니다. 부모님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이 골짜기에 고여 있습니다. 이 고개나 골짜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지로 만드는데 산을 파서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아니고 이 고개를

몽땅 들어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7년노정은 단 한 번뿐입니다. 복귀섭리역사에 두 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편단심으로 최후의 고개를 넘어 승리적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승리적 주관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017-220, 1967.01.01)

전면적인 진격을 하자

16 1968년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금년에는 '평화를 선도하는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자', 즉 '전면적인 진격을 하자'라는 표어를 중심삼고 제2차 7년노정을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벽두부터 전국과 전 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교인들에게 권고하는 과제입니다. (019-131, 1968.01.01)

17 1968년 표어는 '전면적인 진격을 하자'입니다. 진격보다는 전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격이 과격한 말이라면 '전면적인 전진을 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면적 전진'이라는 표어 아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적 정비, 둘째는 목표의식의 확립, 셋째는 패자(敗者)의 결과 체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의 세 가지를 갖춰 기필코 승리해야 됩니다. 내용을 정비하여 전진하는 데 있어서 무모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헤아려 알고 작전하는데 방이나 낮이나 그 환경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019-167, 1968.01.01)

18 1968년은 제2차 7년노정의 출발과 동시에 '전면적인 진격을 하자'라는 표어를 세워서 밀고 나온 해였습니다. 전면적인 진격은 어떠한 개인을 중심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중심삼고 하여 세계를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그러하듯이 한국도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그러하듯이 아시아도 그러한 입장에서 나아가야 되**고**, 세계도 그러한 입장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나 아시아나 우리나라나 모두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대사조를 따라서 고초를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를 중심삼고 개인적인 면을 전체적인 동향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일교회는 천적인 목적을 중심삼고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어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성취하지 못하면 표어만 남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어를 중심삼고 출발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국가적으로 통일교회를 전면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기준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체제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1969년에도 역시 '전면적인 진격'을 표어

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69년까지는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어를 중심삼고 체제와 활동을 강화하면서 움직을 것을 여러분에게 천명합니다. (021-325, 1969.01.01) p. 530

2절 통일기반과 천국실현의 토대를 닦은 1970년대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대에 가정과 교단적 기반을 닦아 나왔다면 1970년대에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면서 승공 및 초교파운동 등 대외적 활동에 집중하셨다. 그래서 1970년 '승리적 통일전선', 1971년 '통일기반 확보', 1972년부터 1974년까지 '통일전선 수호'등의 연두표어를 정하셨다. 1970년부터 5년간은 세계 진출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 활동을 펴는 기간이었다. 특히 1972년 이후 새해를 미국에서 맞이하시면서 40개 도시 공개강연 등 미국 중심의 세계선교 활동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1975년 1월 1일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천국실현'을 연두표어로 정하시고 제3차 7년노정 출발을 선포하셨다. 이어 1976년 '자녀로 인한 천국실현', 1977년 '이상가정으로 인한 천국실현', 1978년 '공식노정을 통한 천국 완성', 등의 연두표어를 통해 이상가정 실현과 가정교회 활동을 통한 천국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셨다. (p. 530)

승리적 통일전선

1 이제 우리는 1970년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는 '승리적 통일전선'이라는 표어를 세워 놓고 1년 동안 달려야 하겠습니다. 제2차 7년노정의 전반기 2년간은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어를 중심삼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면적 진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중심삼고 두드러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해야 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적 통일전선'이란 표어를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귀섭리를 수행해 나오신 하나의 목적도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을 거쳐 모세시대를 거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시대를 거쳐서 6천년 역사를 이어 내려온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워 나오신 그 하나의 목적도 승리의 한때를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027-325, 1970.01.01) p. 531

2 1970년대를 새로이 맞는 이 아침에 유대교를 대신한 통일교회가 민족을 규합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승리의 기준도 이미 세워졌으며, 종족적인 승리의 기준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교적인 승리의 기반을 결정하여 새로운 무대를 향하여 진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맞이할 수 있었던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시대권 내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준비해 나오셨고, 외적 세계도 그에 부합되도록 시대 사조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끌고 나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현 정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문만 일으키면 새로운 역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바로 1970년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한의 시대요 탕감의 시대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분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 1970년부터는 그러한 것을 모두 종식시키고 새로운 역사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싸운 것이 영광의 결실로 거두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027-329, 1970.01.01)

3 여러분은 개인에서부터 승리적 통일전선을 펴야 합니다. 승리적 통일전선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과 몸이 하나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번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번식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번식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주고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전선을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로 펴 나가야 됩니다. 현재 통일교회는 민족을 중심삼고 국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입장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족과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권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세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우리 문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한 꺼풀만 벗는 날에는 날게 되어 있습니다. (027-345, 1970.01.01) p. 532

통일기반 확보

4 1971년 연두표어는 '통일기반 확보'입니다. 다시 말하여 통일의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 표어를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면적인 진격'이니 '승리적 통일전선'이니 하는 표어를 설정해 놓고 뜻이 외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하는 일을 1960년 이후부터 10년간 해왔습니다. 1960년 이후부터 1970년까지 그야말로 소모전을 해온 것입니다.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다시 말하면 통일교회가 가는 길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

해서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이면 서울, 중앙이면 중앙의 최고 위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뜻이 바라는 표준을 놓고 볼 때, 최고의 기준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민족과 수많은 교단으로부터 반대를 받음으로써 그와 반대로 최저의 말단, 하부에서 출발하여 상부로 지금까지 발전하여 나왔습니다. 그 기간에 수많은 개인이 희생된 것은 물론이고 통일교회 가정들도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통일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중심삼고 그 배후에 있는 친척이라든가 심정적인 터전을 통하여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중심삼고 이 나라에서 필요적절한 때를 맞기 위하여, 외부에 벌어져 있는 모든 핍박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일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1960년부터 10년간 온갖 노력을 투입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간은 우리 자체 내에서 공고한 터전을 닦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038-011, 1971.01.01) p. 532

5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되고, 아들딸과 부모가 하나되고, 가정과 종족이 하나되고, 종족과 민족이 하나되고, 민족과 국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세우고자 해서 1971년의 표어로 '통일기반 확보'를 세운 것입니다. 통일기반은 개인으로부터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기준까지 벌어져야만 확고히 세워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통일할 수 있는 주체적인 기준을 국가를 중심삼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044-065, 1971.05.05)

통일전선 수호

6 1972년 표어를 '통일전선 수호'라는 말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이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한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전선 수호'라는 표어를 세운 것은 내부를 안정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이 전체를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내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내부는 안정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전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통일교회 식구들은 중심을 위해서 서로서로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이 세계적이요, 가정이 세계적이요, 종족이 세계적이요, 민족이 세계적이요, 국가가 세계적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통일전선을 수호하는 데에는 이러한

원칙적인 사상적 기반, 생활적 기반, 활동적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상적인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1972년부터 그러한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1972년 표어를 '통일전선 수호'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052-236, 1972.01.01)

7 국가의 위기와 세계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방어선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전선 수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 닦아 놓은 모든 기반 위에 세계적으로 그물을 쳐 놓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주름을 잡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단결된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총동원될 수 있느냐? 통일교회는 백 퍼센트 동원돼야 합니다. 여기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에서 가나안복지를 향해 나서게 될 때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나서야 했습니다. 그와 딱 마찬가지의 때입니다. 세계적인 가나안복지를 향하여, 세계에 새로운 나라의 선민권을 이루기 위해서 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시하는 곳에 전체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056-203, 1972.05.14) p. 534

8 1972년에 우리는 '통일전선 수호'라는 방대한 표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수호의 한계선은 자기 일신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한계선이 되어서 국가를 넘어 세계를 방어해야 된다는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지는 의미에서의 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방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땅에서 하늘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때에는 직접 하늘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계를 방어하자는 것, 세계적인 섭리에 있어서 피해를 방어하자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하는 하나님의 심정에 안식의 터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닦자는 것입니다. (060-023, 1972.08.01)

9 이제부터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나라도 움직일 수 없는 전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민주세계를 방어할 수 있는 천적인 기반이 조건으로나마 남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하나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이 완전히 하나되는 것이 개인의 통일전선을 수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통일전선을 수호할 수 있는 하늘의 전통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통일전선 수호보다도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인 통일전선 수호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통일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되어 이를 성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국에서 그런 기반을 닦아서 하나될 수 있다면 미국 전역에 이러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세계는 내려가기 시작

합니다. 선이 올라갈 때 악은 같이 못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성사되면 일본이 아무리 사탄권 내에 있다 하더라도 구해 낼 수 있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님이 미국에서 1972년부터 1974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74년까지 초국가적인 단체로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본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065-285, 1973.01.01)

10 1972년 1973년 1974년은 '통일전선 수호'라는 표어 밑에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요, 어떠한 한정적인 지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두고 통일전선을 수호해야 되겠다고 하늘 앞에 맹세하고 나선 무리입니다. 통일전선을 수호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사탄세계에 침범받지 않게끔 보호 육성해서 전진할 수 있는 입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069-270, 1974.01.01) p. 535

천국실현

11 1975년은 '천국실현'이라는 표제를 걸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부터는 무엇이 제일 빠른 길이냐? 세상에 나가 전도하면서 다닐 필요 없이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세상에서 일하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발전합니다. 이것을 알고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을 규합하고 민족을 규합할 수 있는 길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1975년부터는 이것이 완성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종족을 평면적인 기준에서 접촉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길이 쉽게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한 판도의 천국실현을 가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천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실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중심삼고 실천해야 됩니다. (074-345, 1975.01.01)

12 1975년 표어를 '천국실현'이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천국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실현하는데, 본래의 천국기준은 하나님의 창조원칙을 중심삼고 설정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 세계는 지옥이 되었지만 타락하지 않았던 그 세계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뜻은 변할 수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

인간이 타락했을망정 유일무이한 뜻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대적인 뜻을 세워서 완결짓지 않으면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의 종 시대, 종의 시대, 양자의 시대, 자녀의 시대를 거쳐 부모의 시대로 거꾸로 올라온 역사노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국에는 하나님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과정이 필요치 않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천국실현이 안 됩니다. 창조가 끝나고 창조목적이 실현되어야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074-305, 1975.01.01) p. 536

자녀로 인한 천국실현

13 1976년의 표어는 '자녀로 인한 천국실현'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천국실현이 아닙니다. 1975년까지는 막연하게 천국실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녀로 인한 천국실현이기 때문에 천국실현의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사랑의 공약을 중심삼고 우주가 돌아가게 될 때에 전체의 영향권이 나로 말미암아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개인이지만 천국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고, 가정이 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전부 통합니다. 또한 통일교회 종족권에서 천국이 벌어질 수 있고, 국가권에서 천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상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083-227, 1976.02.08)

14 1976년 1월 1일 말씀의 제목이 '자녀로 인한 천국실현'입니다. 자녀로 인한 천국실현이 되려면 옛날의 아들딸로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날에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분야의 천국실현이 일보 일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딸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함으로써 사탄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082-105, 1976.01.01)

이상가정으로 인한 천국실현

15 1977년 표어는 '지상천국과 이상적 가정', 즉 '이상가정으로 인한 천국실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타락한 세계에서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세계적 도상에 선 하나의 가정을 추구해 나온 것이 복

귀섭리의 뜻입니다.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직접주관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기원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완성된 가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탄의 침범을 **받**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는 권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가정의 기원을,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아담 해와의 완성기준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가정권 내에 들어감으로써 사탄이 반대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늘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늘로 복귀될 수 있는 반작용적 작용을 하는 때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 사탄세계는 무너져 가고 우리는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090-191, 1977.01.01) p. 537

16 통일교회의 당면 과제는 천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가정 기반을 여러분 각자, 혹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붕괴된 사탄세계권을 모두 흡수하는 데에 하나의 기원이 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완전히 하나된 것과 같은 생활권, 참된 부모를 중심삼고 그 부모와 내적인 생활에서나 외적인 생활에서나 모든 환경적인 생활이 일치화하는 생활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못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보게 되면, 자녀는 부모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고 영원히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음을 스스로 느끼는 자신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과 여러분이 부자의 관계라면 참된 부모와 참된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부모와 참된 아들의 관계는 여러분과 부모님이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재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가정에 하나님이 같이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같이해서 하나님이 묶어줘야 여기에서 새로운 하늘 가정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것입니다. (090-192, 1977.01.01)

공식노정을 통한 천국실현

17 1978년 통일교회의 표어는 '공식노정을 통한 천국실현'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먼저 부자관계인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딸이 하나님을 중심삼은 하나의 심정을 갖춰야 됩니다. 가정에서와 같이 책임자들은 어머니 입장이니 그와 같은 심정적 인연의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담대히 용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 표제를 걸고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097-305, 1978.03.26)

18 가정을 확대한 것이 나라입니다. 미국은 수많은 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모인 그 배후에는 수많은 문화적 배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나라의 하나님입니다.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주권자는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신자입니다. 같은 공식이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그 주권자가 아내와 완전히 하나되고 아들딸과 완전히 하나되면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와 아들딸들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한 생명이요 나라를 위한 사랑이어야 되고, 나라를 중심삼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을 중심삼고 개인천국을 이룰 수 있고, 부부끼리 가정을 중심삼고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나라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096-030, 1978.01.01)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

19 1979년 새해의 표어는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입니다. 가정교회라는 말은 본래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 하게 되면 종교를 말하는데, 종교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라는 글자를 풀이해 보면 마루 되는 가르침입니다. 집으로 보게 되면 마루를 말합니다.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원리적이요 원칙적이요 중심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면 우주가 왕창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새로운 우주의 집을 짓기 위한 섭리의 기반이기 때문에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마룻대를 올려놓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102-229, 1979.01.01)
20 가정교회의 역군은 하나님같이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국민, 그러한 세계 인류가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지상 어디에나 행차해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둘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부모와 같이 모시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스승과 같이 모셔서 배우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세우고, 이런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벨적 사람, 하늘 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벨 중에 왕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 챔피언, 가정적 챔피언, 종족적 챔피언, 민족적 챔피언, 국가적 챔피언, 세계적 챔피언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이래 하늘땅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로소 전체를 대표한 챔피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2-242, 1979.01.01) p. 539

3절 가정교회 활동과 조국창건에 중점을 둔 1980년대

참부모님께서는 1980년 1월 1일 뉴욕세계선교본부에서 연두표어로 '가정 교회는 천국기지'를 발표하신 데 이어 1981년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 1982년 '가정교회 승리', 1983년 '가정교회는 우리 정착지' 등 1980년부터 1983년까지 4년 동안 가정교회와 관련된 연두표어를 세우시고 본격적인 가정교회 활동을 전개하셨다. 그리고 1984년과 1985년 '조국창건', 1986년 '천국창건', 1987년과 1988년 '조국통일', 1989년 '한국통일' 등 1984년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조국창건과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연두 표어를 발표하셨다. (p. 539)

가정교회는 천국기지

1 통일교회 교인들은 1980년대에 어디로 갈 것이냐? 198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정교회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제3차 7년노정이 끝나게 되면 완전히 가정교회 체제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뜻적인 관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는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이라는 연두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내 왔고, 1980년에는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는 곳은 안식하는 곳이요, 행복이 깃드는 곳이요, 사랑이 깃드는 곳이요, 평화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면 안식하는데 나 혼자만 안식할 것이냐? 물론 내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종족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개인이 안식하고 싶어도 부모가 안식할 수 없고, 아내가 안식할 수 없고, 자녀가 안식할 수 없다면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참부모님이 안식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참부모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6-266, 1980.01.01) p. 540

2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를 찾아 나오기까지 얼마나 탕감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가정교회를 찾기 위해 역사시대에 종교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피살을 에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나옴으로써 아버님이 날개를 펴고 천하에 당당한 사나이로 나타날 수 있고, 통일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권내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자랑하고 형제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 가정교회 활동은 점점 쉬워져 갑니다.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점점 쉬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108-120, 1980.07.01)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

3 1981년 표어는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입니다. 통일교인들은 빨리 가정교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집에 있어야 됩니까?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을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 때이기 때문에 1981년에는 여러분이 다 가정교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1978년 1979년 1980년, 3년 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1-339, 1981.03.09)

4 통일교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360집 가정교회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개인기준을 넘어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기준까지 탕감조건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탕감을 하게 하기 윙해 축소한 무대로 결정해 준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대표한 형으로서 사탄과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것을 잘해도 가정교회 활동을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환경, 즉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난 환경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천국을 만들자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느냐? 환경천국을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종족권이 벌어지면 가정천국은 자동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이상은 가정천국 실현입니다. 그 종족권 가운데서 가정천국은 자연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환경천국의 승리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가정교회 활동을 하지 않고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고 하늘과도 통할 수 없습니다. (110-264, 1981.01.01) p. 541

5 1981년부터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맡았던 하늘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수해줘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가운데서 부모님의 일을 대행해 뜻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1979년부터 1980년, 1981년까지 3년째인데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삼고 여러분이 일할 때에 들어왔습니다. 가정교회라는 표어를 내건 것은 1979년인데, 그때는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이었고 그다음에 1980년은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였습니다. 그런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2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 기반 위에 1981년 연두 표어로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을 세웠습니다. 그 '나의 천국'은 부모님의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중심삼은 천국입니다. 부모님의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을 중심삼은 '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과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는 전체를 표준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중심삼고 이룰 수 있는 직접적인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10-257, 1981.01.01)

가정교회의 승리

6 1982년 표어는 '가정교회의 승리'입니다. 가정교회는 타락한 부모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모로 왔는데,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하나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탕감해야 됩니다. 그 죄를 탕감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교회만으로 끝나느냐? 종족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민족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국가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세계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천주교회가 생겨나야 됩니다. (116-192, 1982.01.01)

7 가정에서 승리해야 종족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족 기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승리하고 나서야 종족 기반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 둘이 하나되면 그 가정을 중심삼고 아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벨 종족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족 기반을 닦고 나서야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종족 기반이 울타리가 되지 않고는 가정이 안식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족 기반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족 기반을 복귀해야 자기 집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기 아들딸도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완성 후에는 쉴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종족 승리입니다. 가정 승리를 했으니 종족 승리를 해야 됩니다. (116-292, 1982.01.02)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

8 1983년 표어는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맞추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원리를 가르쳐 주는 선생, 종교 통합을 하고 공산주의를 수습해서 통일사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되지 않고는 세계인으로서 지상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상천

국에 들어가면 종교도 초월하고 공산주의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주류사상은 지식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사랑은 자기를 중심삼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지금까지 미국에서 희생했습니다. 사랑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했다는 전통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123-300, 1983.01.06)

9 부모님이 정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 가서 정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3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통일교회를 새로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이제 고개를 넘어갈 때가 왔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을 동원하고 신학자를 동원하여 그 자리를 인계해 줄지도 모릅니다. 백인들이 못하거들랑 아시아 사람을 데려와서라도 배치할 것이고, 미국에 사는 소수민족을 동원해서라도 배치할 것입니다. (123-176, 1983.01.01)

10 1982년 표어는 '가정교회의 승리'였는데 여러분은 승리했습니까? 1981년에는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이라고 했는데 나의 천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980년에는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또 1979년에는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완성'이었는데 천국 완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국의 모든 축복가정에게 동원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축복가정도 동원할 것이고 미국의 축복가정까지 전부 동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유랑하는 집시의 행각을 영원히 계속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더라도 부모님을 못 찾아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인적 낙원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적 낙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적 낙원에서는 아내가 참소하고 아들딸이 참소할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아들딸이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23-177, 1983.01.01) p. 543

조국창건

11 1984년의 표어는 '조국창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현대의 집시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정착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참부모의 나라인 조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모님으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화합과 일치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끝날에 가서 그들이 찾아와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는 자리에 누가 동참하겠습니까?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1984년은 섭리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1983년 3월 미국에 기동전도대를 편성하고 전체를 동원했습니다. 그일은 복음전도를 위한 가장 원대한 첫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인 조국을 창건하기 위해서입니다. (130-278, 1984.02.07)

12 여러분은 통일교회 민족을 통해서 천국 갈 것입니까, 통일교회 국가를 통해서 천국 갈 것입니까, 통일교회 세계를 통해서 천국 갈 것입니까? 세계가 있기 전에 나라가 잇어야 되고, 나라가 있기 전에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만민이 이상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규합된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지상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야 하나님의 천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130-110, 1984.01.01)

13 지금까지 역사과정의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장자복귀의 기준을 찾아서 세계적 탕감노정을 부모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장자 차자의 권한을 세계적 기준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셨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조국창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조국창건의 서광이 비쳐 옵니다. 지금 새로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외적으로 다 무르익어 갑니다. 아버님이 말하는 환경에 맞게끔 외적으로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만 완전히 하나되어서 장자 차자를 중심삼고 투쟁이 없게 되는 날에는 여기에서부터 통일가를 중심삼고 지상천국 이념이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 가정교회 출발이 됩니다.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 천국의 정착지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4-336, 1985.08.16)

천국창건

14 1986년 새해의 연두표어는 '천국창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국창건'이었습니다. 천국을 창건하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역사노정에 있어서의 가인 아벨 문제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 해와가 장자가 되고 장

녀가 되어 하나님의 직계자녀가 되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써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 지금까지 사탄이 장자의 자리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자를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해야 되는데 강제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자권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장자권을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타락한 부모 혹은 타락한 형님, 타락한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은 전부 사탄권에 속한 사랑인데, 이 사탄권의 사랑이 장자권에 속한 사랑입니다. 오늘날까지 세상 사람들의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등 이 모든 사랑은 장자권, 타락권에 속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차자의 자리에서 거꾸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137-014, 1986.01.01)

15 조국이라고 하면 자기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관념입니다. 조국하면 자기 나라 관념이지 천국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상세계에서 먼저 아벨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국창건입니다. 이제는 **'천**국창건'입니다. 천국이 되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돼야 합니다. 이 지상과 영계, 지상 나라와 영계 나라가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하나된 자리에 서지 않고는 천국창건이 안 됩니다. 1986년 표어는 '천국창건'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하나되게 되면 그다음에는 지옥과 천국이 하나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언제 하나됩니까? 1985년 2월 1일 그 문을 여는 개천문일을 선포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스트가든에 있고 아버님은 댄버리에 있으면서 새벽 3시에 기도하고 사랑의 도리를 세워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1985년이 지나가고 1986년이 시작됐는데, 그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이 거꾸로 돌게 되었습니다. 시곗바늘이 돌듯이 돌았다 하면 한 바퀴 다 돌아와서 지금부터는 거꾸로 돌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회가 세상에 밟히며 나왔는데 1986년부터는 통일교회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137-036, 1986.01.01) p. 545

조국통일

16 1987년 신년의 통일교회 표어는 '조국통일'입니다. 이 조국통일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표어가 세계적이고 천주적이라 할 때에는 문제가 큽니다. 이 길을 타개해가는 공식적 방법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은 가정을 극복해야 되고 가정은 종족을, 종족은 민족을, 민족은 국

가를, 국가는 세계를, 세계는 천주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가는 공식적 방법을 이와 같은 섭리적 과정을 중심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완성과 가정 완성, 이것이 하나의 팀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완성하려면 몸 마음의 싸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적인 기준에서 몸과 마음의 싸움을 극복해서 하나돼야 합니다. 그래야 외적 환경의 가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싸움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종족으로 나아가려면 물론 가정의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종족권으로 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종족권 내에서 종족의 모든 것이 통일되지 않고는 민족권으로 못 나아갑니다. 그러면 '조국통일'이란 표어가 국가적 기준이냐, 세계적 기준이냐? 문제가 되는 내적인 미국 국민성과 나라를 수습하고 나서 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나서야 세계의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공식노정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것을 넘어서 천주적이라 할 때에는 이 지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상의 지역문제로부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야 천상세계의 문제를 환경적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갑니다. (161-093, 1987.01.04) p. 546

17 1988년 표어를 1987년과 같이 '조국통일'로 정했습니다. 아직도 남북통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영계를 움직여 이 일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남한의 전체적인 조직 편성을 강화함으로써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함에 따라서 북한의 정치풍토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국통일은 너나 할 것 없이, 북한도 남한도 어차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숙명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남북한의 통일은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고는 제아무리 북한이 남한을 해방해서 통일했다 하더라도 그 통일은 영속될 수 없고, 남한이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해서 북한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속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을 엮어서 남북통일을 하는 길만이 장구한 통일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섭리사적 견지에서도 일치가 됩니다. (171-144, 1988.01.01)

18 오늘날 한국 강토가 하나님이 조국광복의 기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한민족이 잠을 자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불철주야 생명을 투입할 것입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전체와 남한 전체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을 갖는 대한민국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이 조국통일을 바라는 것은 망할 수

밖에 없는 국가 배경을 중심삼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없었던 초국가적인 조국광복을 위한 도상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상적 체계를 갖추어 논리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흡수 소화할 수 있는 주체사상을 지닌 사람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를 무서워하고 민주주의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먹혀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88년 정초에 세운 표어가 '조국통일'인데, 그 조국은 본연의 '조국통일'인데, 그 조국은 본연의 주체인 하나님이 바라는 조국입니다. 이 온 우주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터전입니다. 영계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 주택이요 나라입니다. (172-042, 1988.01.03) p. 547

한국통일

19 지금까지는 조국광복을 아무리 외쳤어도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1988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한국에서 섭리적 전환시기를 선포했고 세계통일국개천일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를 전후해서 세계의 2세들과 통일교회 2세들이 내적으로 결속한 것을 조건으로 삼아 모든 문제를 중심삼고 새로운 전환시대에 희망적인 세계로 갈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터전이 인간세계는 물론 영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일본 조상들이 한국에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원수 나라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시대에 들어왔으니 일본의 선한 영들이 일본을 희생시켜서라도 한국의 통일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떤 나라든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선한 영들은 한국통일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영적 세력 기반이 지상에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184-300, 1989.01.01)

20 오늘날 남북한의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많은 종파가 있고 수많은 집단이 있고 수많은 가정이 있고 수많은 정당이 있지만 그 자체들이 사랑에 화한 자체가 되어 자기를 투입해서 공명체적 상대를 창조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가야 할 길은 나라의 부, 나라의 이익을 위해 돕는 것입니다. 정당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 염려해야 됩니다. 일방향적 당의 이익만을 중심삼게 될 때에는 나라를 차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중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 세계의 통일교회 교인들을 이 땅에 데려와서 새로운 종족 편성을 중심삼고 민족 편성을 완결하여 나라를 위해서 통일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을 사랑의 공명권에 감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1989년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통일한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종족·민족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184-310, 1989.01.01)

4절 참부모 자랑과 축복에 주력한 1990년대

참부모님께서는 1990년과 1991년 '내나라 통일', 1992년 '새나라 통일', 1993년 '새 가정과 통일조국'등 1990년대 초반에는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연두표어를 발표하셨다. 그리고 1994년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 1995년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자', 1996년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자' 등 1990년대 중반에는 참부모에 대한 자랑과 사랑을 중심으로 연두표어를 제시하셨다. 그리고 후반에는 축복 목표 완수를 연두표어의 주요 주제로 내세우셨다. 즉 1997년 '참부모님 자랑과 사랑은 360만쌍 축복 완수', 1998년 '참하나님 절대로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억6천만쌍 축복 완성과 사탄세계 혈통 단절', 1999년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 등 그해 축복 목표를 두고 발표하셨다. (p. 548)

내 나라 통일

1 1990년 표어는 '내나라 통일'입니다. '나의 나라의 통일'입니다. 섭리사로 볼 때 1980년대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1980년대에 섭리사적 전환기를 이루지 않으면 섭리사에 지대한 난관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고심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를 중심삼고 전 섭리사에서 탕감해야 될 모든 내용을 넘었습니다. 통일가가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149, 1990.01.01)

2 올해 표어가 '내나라 통일'인데, 이것은 먼저 개인의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되어야 하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자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본원지적 자각을 재인식하는 나를 찾기 전에는 나라의 이상권도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전체를 대표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우주와 세계, 나라, 민족을 대표하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아들딸을 대표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을 확대한 것이 세계 인류입니다. 3단계 계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입니다. 그런데 자각적인 모든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대표한 총합적인 핵의 기준을, 아담 해와 가정으로부터 세계에 연결할 수 있는 본원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본원지를 확정지으면 얼어붙

었던 빙산이 봄날을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각적인 나로부터 시작하는 내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196-207, 1990.01.01)

3 1990년에 내가 1991년에도 같은 표어를 가지고 연두사를 삼기로 했었는데, 1991년 표어도 '내나라 통일'입니다. 작년에도 '내나라 통일'이 되고 올해도 '내나라 통일'입니다. 그다음 3년째인 내년에는 이것을 완결짓기 위한 '새나라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211-297, 1991.01.01) p. 549

4 1990년대를 출발하는 이날 부모님이 세계를 재수습해서 통일천하를 향하여 전진해야 될 시점에서 여러분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엄숙한 시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나라 통일'이 이뤄지는 그때는 역사 이래 몇 만년, 몇 억만년 섭리사를 중심삼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소원이 착지할 수 있는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또 수많은 종교인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려 가면서 자기들의 원통한 한을 풀어 달라고 하늘에 축수하며 소원성취의 한 날을 바라던 모든 것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숨 막히는 시간이 목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나라 통일'은 이 한반도만을 중심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국가를 대표한 것입니다. 세계 국가입니다. 원래는 '내나라 통일'에 '내세계 통일'을 집어넣어서 '내나라 통일과 내 세계 통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줄여서 그냥 '내나라 통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를 통일해서 한국에 접붙이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애국자나 충신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가는 걸음을 재촉하면서 눈물과 더불어 '또 가야 되겠다.'라고 박차를 가하는 나날의 생활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늘의 전통을 기록할 때 한 줄의 역사에라도 등장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211-347, 1991.01.01)

새나라 통일

5 미국에서 1992년 정월 초하룻날 메모한 내용입니다. '새나라 통일'이라는 제목 아래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자권복귀입니다. 새나라 통일을 하려면 장자권복귀를 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복귀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부모권복귀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새로운 부모가 설정되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모권 설정, 장자권복귀입니다. 장자권 부모가 생겨나야 됩니다. 이것이 참부모입니다. 장자권이 복귀되면 장자권 부모가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왕권복귀입니

다. 장자권 부모가 왕 중의 왕입니다. 부모권복귀, 왕권복귀에도 장자의 뜻이 들어가야 됩니다. 왕권도 장자권 왕권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왕이요 땅의 나라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입니다. 이것은 참부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황족권 복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왕을 중심삼고 황족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왔다고 하지만 황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혈통을 통한 직계의 왕자 왕녀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귀되어야 합니다. 본래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는 황족이었습니다. 이 황족권에서부터 전부 연결되어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225-195, 1992.01.20) p. 550

6 아담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실패하고 기독교가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참부모를 모시는 재림시대에 실패한 모든 것까지도 아버님 일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수습하여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삼고 세계적 판도를 승리적으로 수습하려고 했던 것까지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까지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독교나 미국과 같은 어떤 나라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버님과 하나되어야 할 상대적 권에 섰던 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다시 이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에 7년을 더한 1952년, 이때에 벌써 오늘 말하는 '새나라 통일', 새로운 나라가 통일되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신교를 중심한 독립국가입니다. 신교 국가로서 아벨입니다. 이 신교를 중심한 미국, 제2 이스라엘권이 전 세계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어서 주인이 되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오시는 참부모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참부모를 중심삼고 종교와 국가가 하나되는 기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갈라진 것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의가 있는데, 그 주의는 참부모주의요 아담주의입니다. (225-011, 1992.01.20)

새 가정과 통일조국

7 1993년 새해의 연두표어는 '새 가정과 통일조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정성들였던 1992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머니를 중심삼고 세계사적인 역사를 한 해요, 비로소 역사 이래에 여성해방을 선포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국가적으로 여성들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타락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 타락한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여성

해방시대가 오지 못합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이고, 복귀섭리는 재창조섭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섭리는 여자를 찾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구원섭리는 남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역사가 그릇된 것은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사랑의 길을 그릇되게 갔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는 이렇게 거짓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귀하려면 재창조역사를 해야 됩니다. 재창조역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41-281, 1993.01.01) p. 551

8 우리는 하나된 조국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가정에서부터 하나의 조국, 통일된 조국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이 아닙니다. 조국통일이라 하면 조국이 갈라진 것을 통일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통일조국이란 말은 새로이 통일된 조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 가정과 통일조국'이 새해의 표어가 되는 것입니다. 새 나라에서 통일해야 됩니다. 새 나라 통일이 조국의 광복입니다. 그러한 시대로 넘어갑니다. (241-274, 1992.12.26)

9 금년의 표어가 '새 가정과 통일조국'인데, 이것은 먼저 내 개인이 통일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내 개인이 통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자와 통일되어야 하고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자와 통일되어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밥 먹는 것, 배고픈 것보다 더 진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담 해와가 축복받았다면 그 자리는 첫사랑을 하는 자리입니다. 첫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대하면 잘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에게 절개가 없었습니다. 남자에게 절개를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켰습니다. 여자에게만 절개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서 여자가 절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에서는 여자의 절개보다도 남자의 절개를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241-314, 1993.01.01)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

10 1994년 표어는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입니다. 안착은 정착과 의미가 다릅니다. 안착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자리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개인이 미완성했고, 가정이 미완성했고, 종족이 미완성했고, 민족·국가·세계·천주가 미완성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있어서도 창조이상을 완성하려 했던 전부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재창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탕감복귀, 본연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구원역사입니다. (252-226, 1994.01.01) p. 552

11 개인에서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안착시키고 가정에서 안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안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하늘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천국과 통하는 것입니다. 3대 원칙입니다. 개인에서 안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 마음을 통일해야 됩니다. 부부가 참사랑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싸워서는 안 되고 눈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주장을 하되 천리원칙에 따라서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중심삼고 다 가르쳐 줬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가정은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모델입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부부, 아들딸까지 4대 계열이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부, 아들딸과 같은 4대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가정을, 가정은 종족을, 종족은 민족을, 민족은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원칙을 중심삼고 세계 사람들을 자기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부, 아들딸 이상 높여야 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백성 이상 높이면 천국의 본궁과 일치된 자리에서 완성하여 천국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2-265, 1994.01.01)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자

12 1995년의 표어는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자'입니다. 승리권이라는 것은 하늘땅의 모든 전통, 지금의 인류와 금후에 올 모든 후손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이런 모두 앞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섭리를 해오면서 역사시대에 실패한 모든 것이 한으로 맺쳐 있는데, 참부모님이 아담 가정으로부터 엮어져 나온 한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승리적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역사를 지배해 나왔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사탄의 세계적 승리권을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그 한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담 가정으로부터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의 한의 뿌리, 야곱으로부터 모세, 그다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시대의 모든 한을 뽑아 버려야 됩니다. 이 사탄세계를 무엇을 갖고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참부모님의 역사적인 이 모든 말씀은 승리적 패권을 제시하기 위

한 하나의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연두표어에 '참부모님의 승리권'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267-073, 1995.01.02) p. 553

13 남북통일의 운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995년을 중심삼고 남북통일을 해서 하늘 앞에 봉헌하여 삼천리반도에 하나님 해방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일생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보조도 받지 않고 이 길을 갔으니 여러분도 누구의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의 보조를 받아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보조를 받지 않고 부모님 이상 하게 될 때 부모님이 찾아가서 부모님이 가진 재산까지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자 충신의 도리를 갖춘 후에는 세계사적 성인 성자의 길을 무난히 점령할 수 있는 길이 1995년의 자기 행동 여하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효자 충신 열녀로서 탈락되지 않도록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도상에서 계대를 잇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가정에서 효자가 되면 충신의 계대를 잇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나라에서 충신이 되면 성인의 계대를 잇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하늘나라 지계 왕자의 자리에 서면 평면도상에서 성자의 도리도 문제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의 기반은 충신의 발판이 되는 것이요, 충신의 발판은 성인의 발판이 되는 것이요, 성인의 발판은 성자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늘의 서러운 사실을 탕감복귀해서 비로소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지상에서 완결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1995년 원단에 통일교회와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상속하는 것입니다. (266-297, 1995.01.01)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자

14 1996년의 표어는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자'입니다. 1995년의 표어는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나 인류의 소원이나 모든 만물의 소원은 참부모가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요, 창조의 과정이요, 창조의 목적과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참부모가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상이었습니다. 타락하지 않는 아담 해와가 이 땅의 참부모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광물세계·식물세계·동물세계,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부모를 중심삼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아담 가정을 중심삼고 아담 해와와 더불어 하나되어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275-254, 1996.01.01) p. 554

15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 아들딸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없었던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여러분도 세상에 없는 사랑의 세계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늘나라의 황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997년에 360만쌍이 축복결혼을 하게 되면 천국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참부모를 자랑해야 되고, 참부모를 증거해야 되고, 참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1996년 원단에 표어를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자'로 정한 것입니다. (275-301, 1996.01.01)

참부모님 자랑과 사랑은 360만쌍 축복 완수

16 1997년 표어는 '참부모님 자랑과 사랑은 360만쌍 축복 완수'입니다.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자'는 1996년의 표어였습니다. 금년에 360만쌍 축복이 완성되는 날에는 이것은 천주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360만쌍 축복이 완성됐다 하면 그다음에는 3600만쌍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모든 완전수를 넘어설 수 있는 승리적 패권이 지상에 설정된다고 봅니다. 3600만쌍을 완성하고 나서 3억6000만쌍, 36억쌍을 하게 되면 인류가 전부 축복받는 것이 몇 년이면 끝나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아담과 해와, 남자와 여자에서부터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 어떤 연장의 역사를 거치더라도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이 하나로 차지하는 것이 아담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담 가정은 역사성을 총월해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280-184, 1997.01.01) p. 555

17 참부모를 자랑하고 사랑하자는 말을 여러분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조건을 세운 것을 이어받아 여러분도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되고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적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세계적 메시아라면 국가적 메시아의 자리가 아니고는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국가적 메시아가 그 아래에 자랑하기 위해 교육하려면 종족적 메시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족적 메시아가 자기 아래 후대와 선조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는 가정적 메시아의 계열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사상이요 참부모가 가야 할 길입니다. 메시아 하면 참부모인데, 참부모가 되려면 가정에

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맞찬가지의 전통을 세우고 자기 부모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적 사랑권과 자랑권을 중심삼고 국가적 사랑권과 자랑권, 세계적 사랑권과 자랑권, 천주적 사랑권과 자랑권으로 올라가 하늘의 축복을 대신해 내려와서 천국 가정으로서 비로소 행방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0-217, 1997.01.01)

참하나님 절대로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억6천만쌍 축복완성과 사탄세계 혈통 단절

18 1998년 표어가 '참하나님 절대로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억6천만쌍 축복 완성과 사탄세계 혈통 단절'입니다. '참부모님 자랑과 사랑은 360만쌍 축복 완수'는 1997년 표어입니다. 금년 표어는 '3억6천만쌍 축복 완성'이고 그다음에는 '사탄세계 혈통 단절'입니다. 그것만 새기면 됩니다. 작년에는 참부모였지만 이제는 참하나님입니다. 그리고 3억6000만쌍 축복 완수이고 사탄세계 혈통 단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한 것입니다. 이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뽑을 수 있는 힘이 부모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289-181, 1998.01.01)

19 우리가 축복행사를 해서 지금까지 4000만쌍 축복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입니다. 일시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 누가 **다**시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3억6000만쌍 축복은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3억6000만쌍 고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역사를 전부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사탄 추방, 더럽힌 사탄 혈통을 완전히 단절 철폐해야 됩니다. 대전환과 대전복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4000만쌍 축복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지에 가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청소년 문제를 우리 가정, 우리 동네, 우리나라가 책임질 수 없고, 어느 환경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문제입니다. 청소년 때 타락함으로써 아담 가정이 파탄되었는데, 에덴에서 봄절기에 그러한 씨를 뿌린 것이 가을 수확기의 끝날에 와서 세계적으로 열매맺힌 것입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전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남길 것,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전복시켜야 됩니다.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단절

20 1999년의 연두표어는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입니다. 사탄 혈

통 근절은 사탄세계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참을 중심삼고는 거짓이 상대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에는 '참 하나님 절대로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억6천만쌍 축복 완성과 사탄세계 혈통 단절' 이라고 해서 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섭리를 해왔기 때문에 사탄 앞에 깔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적 기준에서 가인적 기준을 자연굴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거치기 위해서 '참하나님 절대로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억6000만쌍 축복을 하면 사탄세계 혈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미 1998년 9월 30일을 중심삼고 넘어설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상대적 관계의 투쟁적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개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의 3억6000만쌍 축복 완성은 이 고개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아담 해와 자리에 서서 세계 인류를 축복함으로써 이 고개를 넘어섰고, 본래 아담 가정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이 축복받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막혀 있던 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사탄 혈통 근절입니다.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축복의 혜택권을 천주, 영계와 육계에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8-210, 1999.01.08) p. 557

21 금년이 1999년인데 999의 9수는 사탄수입니다. 999가 소생·장성·완성으로 전부 10수를 바라봅니다. 해방수가 된다고 봅니다. 참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참축복의 천주화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에 가슴에 맺혔던 우주적 해방의 정착,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참된 가정을 축복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탄의 뿌리를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999년을 놓치지 말고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우주에 확대해서 축복하게 되면 세계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적 인연이 따라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동네에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집마다 사랑의 인연을 남기지 않은 곳이 없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체로서 햇빛과 같이 비추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해방권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못 가게 되면 타락되고 저나라에 가서도 한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아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어도 그 일을 했습니다. 보도도 하지 않고 한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담 해와가 보고하고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보과지 않더라도 그

앞에 나가서 보고한 이상의 가치로서 열매맺게 하는 것이 천리 대도의 원칙입니다. (308-215, 1999.01.05)

22 1999년 표어는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입니다. 단절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잎사귀도 단절하는 것이고, 가지도 단절하는 것이고, 큰 줄기도 단절하는 것입니다. 단절이라는 말은 뿌리를 뽑는다는 근절과 다릅니다. 여자의 뿌리를 뽑아야 되고 남자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의 출발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먼저 뿌리를 박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타락성이 남아 있는 것은 사탄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세계의 뿌리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뽑는 데는 하나님이 원수와 같이 두들겨 패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랑으로 이것을 심었기 때문에 뽑을 때에는 참사랑으로 뽑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8-229, 1999.01.09)

p. 558

5절 천일국이상 실현에 역점을 둔 2000년대

참부모님께서는 2000년대를 맞아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천일국이상을 실현하고 천지인참부모 승리 해방 완성을 목표로 하는 연두표어를 발표하셨다. 즉 2000년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완성', 20001년 '해방된 천지부모와 자녀가 일심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뜻을 완성하소서'라는 표어에서 참사랑을 통한 일체화를 강조하셨다. 이어 2002년 '천지부모의 이상인 자유 평화 행복의 천일국 안착 만세', 2003년 '참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천일국의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참가정을 완성하소서', 2004년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선포', 2005년 '내외 천일국이상을 완성하소서', 2006년 '천주평화이상모델섭리 안착시대', 2007년 '천주평화천일국 태평성대 억만세', 2008년 '천주평화연합 천일국 쌍합칠팔희년 만세'등 천일국 관련 연두표어를 제시하셨다. 그리고 2009년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절대 성 참사랑·참생명·참혈통권 승리 선포시대', 2010년 '참사랑 천주 안식권 청심일만승일 만세', 2011년 '천정부모 지화자녀 정착종최일체완료 천주정착 천일국 만세', 2012년과 2013년 '천지인참부모 승리 해방 완성시대'등 천지인참부모님의 일체화와 승리를 표어로 발표하셨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두표어로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를 발표하셨다. (p. 558)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완성

1 2000년 표어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완성'입니다. '참사랑 천주화'라는 말은 참사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존재세계의 참사랑 천주화입니다.

천주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은 새로운 천년을 통하여 완성한다는 표어입니다. 참사랑의 천주화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어디서든지 거할 수 있는 새천년시대의 천국 완성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304-322, 2000.01.01)

2 천국은 자유가 영원히 있는 곳이요, 희망이 영원히 있는 곳이요, 행복이 영원히 있는 곳이요, 참사랑과 참생명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전부가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내집이다. 우리 집이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은 식구입니다. 가정과 식구가 천지안식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원리를 따라서 통일교회는 가정 제일주의, 형제 제일주의, 식구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혈통과 연결된 참가정입니다. (304-331, 2000.01.01) p. 559

3 2000년 표어가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완성'입니다. 천년왕국시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천년 천국완성'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국가를 찾음으로써 해와가 타락하던 장성기의 기준을 넘고 아담 해와 완성의 기준을 넘어 가정·종족·민족, 전부를 축복해서 천지의 전부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제3차 아담시대에 탕감을 해소해 해방적 제4차 아담권 시대가 되었으니 국가를 넘어선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시대에 왔으니 자유 승리의 정착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해방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입적이 필요 없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유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냥 그대로 하나되어 살게 되면 자주적인 입장에서 지상 천상 어디를 가든지 행로에 제재를 받지 않는 해방시대를 향해 들어가니 이제 국경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인 입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빌고 비나이다.'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보고입니다. 선의의 보고입니다. (314-267, 2000.01.09)

해방된 천지부모와 자녀가 일심 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뜻을 완성하소서

4 가정맹세문 8절 끝에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2001년 표어가 '해방된 천지부모와 자녀가 일심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뜻을 완성하소서'입니다. '참사

랑의 주체성'만 하면 되는데 '참사랑의 주체성' 다음에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뜻을 완성하소서'가 들어갑니다. 이 표어는 새천년 기간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이것을 이뤄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루어야 됩니다.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해방된 천지부모와 해방된 자녀가 이뤄야 됩니다. 일심일체가 되어서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주체성, 주류사상입니다. 주체성 하면 골자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려던 절대사랑·유일사랑·불변사랑·영원사랑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1-137, 2001.01.01) p. 560

5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2천년 기간은 제2 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탕감노정을 걸어오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나가고 여명이 찾아와 새로운 성약시대를 맞이해서 축복의 이상이 천주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천지부모와 자녀가 일심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뜻을 완성하소서'라는 표어는 한 때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세계에까지도 여러분에게 남아지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천지부모님의 뜻을 완성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계 주권을 찾아 드려야 됩니다. 모든 주권하에 있는 가정들이 천지부모, 하나님의 전통사상을 따라가면 됩니다. 개인을 찾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 8단계 참사랑의 이념적 국가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또 참부모의 이념이 되는 국가관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참부모의 승리권을 축복으로 이어받은…'이었습니다. 축복이 없으면 참부모의 승리권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참부모와 혈연적 관계를 맺었고 혈통이 끊어진 것을 새로이 연결시켰기 때문에 참부모의 아들딸 인연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하나님께 치리되는 이 전부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실체권으로서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핏줄이 제1대조 아담 해와의 가정에서부터 묶어져서 이것이 씨가 되어 확대되었을 것인데, 3대를 통한 이 결실적 혈통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부모님이 1대라면 여러분은 2대인데, 여러분이 아들딸을 잘못 기르면 타락한 후예의 그 전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1-137, 2001.01.01)

6 이제부터 부모님을 마음대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나라가 되면 엄격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 중에 대한민국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10배 이상의 법을 중심삼고 넘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

니다. 일생에 그것을 안 넘어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 있으니만큼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기도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구세주가 있어야 기도도 통합니다. 구제주가 해방권으로 다 인도했습니다. 해방권을 벌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표어가 '해방된 천지부모와 자녀가 일심 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뜻을 완성하소서'입니다.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보고하는 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보고 잘되지 못했을 때에는 만회해야 됩니다. 만회하기 전에는 보고를 못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보고입니다.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는 실적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 못 옵니다. (341-146, 2001.01.01) p. 561

천지부모의 이상인 자유 평화 행복의 천일국 안착 만세

7 '천일국'의 '천(天)'자는 두(二) 사람(人)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이(二)'자는 위의 수평과 아래 수평을 말합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평화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천일국, 수평은 통일의 '일(一)'자입니다. 그래서 2001년 표어는 두 사람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사랑의 주체성인 절대·유일·불변·영원의 뜻을 완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사랑이 아니면 뜻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 절대적 사랑, 유일적 사랑, 불변적 사랑, 영원한 사랑의 뜻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하나된 나라, 천일국입니다. 천주라는 말은 하늘땅의 집을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수평이 되어 하늘을 모셔야 됩니다. 모시는 하늘을 중심삼고 내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하나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어야 하고, 형제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전부 두 사람입니다. 주체 대상권이 어디서든지 하나를 이루는 데에는 참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참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개인적 중심, 가정적 중심, 점점 커 갑니다. 그다음에는 부모와 자식의 중심, 형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정착입니다. 가정 정착이 되었으면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과 하나되고, 종족이 하나되었으면 종족을 중심삼고 민족과 하나되고, 민족이 하나되었으면 민족을 중심삼고 국가와 하나되고, 국가는 세계, 세계는 천주, 천주는 하나님과 하나된 통일적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횡으로 가나 종으로 가나 부딪치지를 않습니다. (364-071, 2002.01.01) p. 562

8 2002년 표어는 '천지부모의 이상인 자유 평화 행복의 천일국 안착 만세'인데, 그 자유·평화·행복은 참사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자유, 참사랑을 중심삼은 평화, 참사랑을 중심삼은 행복입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기초는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번식되어야 합니다. 사위기대는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부이며 아들딸까지 포함하면 4대입니다. 이것이 한 범주입니다. 사위기대 위에서 아담의 손자부터는 수십 쌍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씨가 되어 있고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두 지파가 나오고 수백 지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들딸을 많이 낳아서 쌍을 이룰수록 아담의 가정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기대 완성 밑에서 4계열이 나옵니다.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부 3대가 살면 아들딸이 나옵니다. 3대를 중심삼고 창조본연의 아담 해와의 아들딸과 손자들이 나오는데, 이 4개부터는 씨가 되어서 결혼만 하면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364-276, 2002. 01.03)

참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천일국의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참가정을 완성하소서

9 2003년의 표어는 '참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천일국의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참가정을 완성하소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이상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에 있어서 참가정을 중심삼은 효자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성인이고, 성인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성자입니다. 그리고 성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왕권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속은 하나님의 왕권을 차지한 기반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개인의 소유권이나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은 전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타락한 세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수의 핏줄로 연결되어 더럽혀진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자도 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흥망성쇠를 거쳐 온 이 악한 세계를 하나님이 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0-204, 2003.01.01)

10 참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천일국의 주인이 되고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효자가 된 후에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충신·성인·성자의 참가정이 되어야 주인이 됩니다. 그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리원칙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초석을 놓은 자리이니만큼, 절대신앙하고 절대사랑하고 절대복종해서 자기가 천신만고의 수난길도 감사하며 백번 천번 죽더라도 무한대의 세계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교권을 중심삼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자기편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참고 도와주지 못하는 원통한 마음자리를 여러분이 체휼해야만, 가는 길 앞에 눈

물이 앞을 가리고 피땀이 자기 주위에 물들어 있어야만 사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자국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0-204, 2003.01.01) p. 563

11 가정의 모델이 충신과 통하고, 충신의 모델이 성인과 통하고, 성인의 모델이 성자와 통하고, 성자의 모델이 왕권과 통합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계시는 천일국에는 참부모·참주인·참스승·참왕이 가는 것입니다. 효자·충신·성인·성자·왕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까지 넘어가야 상속받습니다.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중간에서는 안 됩니다. 복 받겠다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공동묘지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틀림없는 길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다 압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4일 워싱턴에서 하늘해방선포식 때 영계 결의문을 선포했습니다. 제1은 '절대 참부모인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알고 믿는다.', 그다음에 '절대 참스승인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알고 믿는다.', 그다음에 '절대 참주인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알고 믿는다.', 또 그다음에 '참부모님을 알고 믿는다.', 또 그다음에 '참부모님을 하나님의 실체로서 참부모·참스승·참주인으로 믿고 행한다!'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되어야 합니다. 참부모·참스승·참주인입니다.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은 부모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상속받습니다. 왕 앞에 가서 왕자가 되어야 상속받습니다. 성자가 되어야 상속받습니다. 그것을 못 받게 되면 저나라에 가서 걸립니다. (400-221, 2003.01.01)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선포

12 2004년 1월 1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에 들어갑니다. 선언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전세계, 하늘땅에 미쳐지기 때문에 선포의 내용은 이미 선언시대를 지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조국광복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조국광복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평화왕국시대도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평화왕국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430-107, 2004.01.01) p. 564

13 하나님의 조국이라는 말을 2004년 1월 1일 이 아침에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조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화왕국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이 시작되었으니 그 자리는 타락한 세계와 하등 관

계가 없는 자리입니다.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조국입니다. 그 조국강토에 친족이 살 수 있고 민족이 살 수 있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전체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이 아닌 실존적 존재권입니다. 이 조국 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의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국이 귀한 명사라는 것입니다. 조국이 없는 데서 이루어진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백의민족이라는 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조국땅의 내용이 역사시대를 거쳐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에 연결돼 세계의 조국광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조국 위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탕감법에 대용하기 위해서 조건적 기준을 중심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조국 강토가 벌어졌다고 할 때에는 과거의 조건적 입장에서 그 명분을 세워 나왔던 것을 다 밟아 치우고, 끊고, 뒤집어서 이 조국 강토 위에 다시 세워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30-107, 2004.01.01)

14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조국을 원했고, 인간은 평화왕국을 원했습니다. 하늘이 바라고 땅이 바랐던 것을 소원성취했으니 죽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땅을 대해서 감사하고, 만물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충효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끄러운 아들딸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30-154, 2004.01.01)

내외 천일국이상을 완성하소서

15 2005년 표어는 '내외 천일국이상을 완성하소서'입니다. 여기에서 '내외'의 뜻은 내적인 하늘나라, 외적인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천일국이라는 것은 두(二) 사람(人)이 하나(一)된 나라(國)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고, 부모와 자식,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하나된 것입니다. 내외의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외'는 참부모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외 천일국'을 풀어서 말하면, 내외적인 천주평화통일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천일국 자체로는 완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천일국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 몸으로 인해 하늘과 땅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외 천일국입니다. 천일국시대가 도래하고 평화통일왕국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481-023, 2005.01.01) p. 565

16 여러분은 부모 앞에 자녀의 명분과 나라 앞에 충신의 명분과 세계 앞에

성인의 명분과 하늘땅 앞에 성자의 명분을 갖추지 못한 자식의 도리를 여러분 일대에 완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지만 전부 개별적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부모의 핏줄을 연결한 하나의 혈족으로서 부모를 대신해서 아들딸의 도리를 중심삼고 효자의 가정, 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가정,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세계 지구성 어디에도 경계선, 한계선이 없는, 부모님이 자주장할 수 있는 해방·석방의 기반 위에서 자유천지와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와 하늘땅에 일원화되고 사랑의 핏줄로 연결된 해방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상·천상천국이 해방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데서 복귀 완성한 억천만세의 태평성대, 억만세 찬양할 수 있는 태평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평화통일왕국을 완성하는 것도 나요, 천일국의 왕권을 완성하는 것도 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481-025, 2005.01.01)

천주평화이상모델섭리 안착시대

17 2006년 표어는 '천주평화이상모델섭리 안착시대'입니다. 섭리 안착시대 가운데는 섭리 가정 안착시대, 섭리 국가 안착시대, 섭리 세계 안착시대, 지상천국 안착시대까지 다 포함됩니다. 천주평화이상모델섭리 안착시대에서 그 섭리 가운데는 모델섭리 가정 안착시대, 모델섭리 국가 안착시대, 모델섭리 세계 안착시대까지 하나되어 있습니다. (513-210, 2006.01.01)

18 2005년에 참부모님이 120개 국가를 거치면서 말씀한 제목이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세계의 모델'입니다. 그것이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상가정이라고 할 때 타락한 세계에서 그 이상을 어떻게 찾습니까? 평화세계의 모델이라는 것은 끝날에 새 세계의 새로운 건국이념을 중심삼고 출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역사를 거쳐서 가정모델 하나가 나오고 지상·천상천국의 모델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세계의 모델'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전부 들어갑니다. (513-229, 2006.01.01) p. 566

19 '천주평화이상모델섭리 안착시대'가 2006년 표어인데, 모델 가정시대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모델 국가시대는 예수님시대인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모델 세계시대는 영계 육계의 통일세계시대인 성약시대를 말합니다. 재림주가 투쟁과 싸움이 없이 무난히 돌파하여 천주평화이상모델섭리 안착시대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

정 안착시대도 지나갔고, 국가 안착시대도 지나갔고, 이제 세계 안착시대만 남아 있습니다. (513-240, 2006.01.01)

천주평화천일국 태평성대 억만세

20 2007년의 연두표어는 '천주평화천일국 태평성대 억만세'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은 통일교회가 지금 펼치는 세계평화운동의 주제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땅과 집을 말합니다. 사람은 아직까지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과 땅 혹은 만물이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만물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만물은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사는 데 필요한 위로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상징적인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각각 개성진리체로서 어떠한 존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잘난 녀석, 못난 녀석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온유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뒤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떠나서 공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550-121, 2007.01.01)

21 2007년 표어가 '천주평화천일국 태평성대 억만세'인데, 무엇이 태평성대입니까? 천일국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창조본연의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없게 될 때에는 천일국의 보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적 내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인이라 하더라도 미인의 모양을 가꾸어 주어야만 미인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일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고 싶은 집안 안팎의 내용을 충만히 구비해서 누구든지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딸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을 더주고 정을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천주평화 창조의 이상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안팎에 충만한 것이 이상의 것이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게끔 좋은 곳이라면 태평성대가 되는 것입니다. 천주평화의 기원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에서부터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평성대라는 말은 행복이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대, 자랑스러운 세계라는 말입니다. 억만세 억만세 계속해서 기쁨의 해방의 권한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50-122, 2007.01.01) p. 567

22 '천주평화천일국 태평성대 억만세'라는 표어에서 말하는 태평성대시대가

우리 생활권을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천운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지나는 운세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혁명, 대변혁을 해야 되고 교체해야 될 문제가 뭐냐? 아버님 한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이것은 역사적인 증인들만 세우더라도 언제나 역사시대에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간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듣고, 또 그러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조국이 내가 바라보는 조국의 모양을 갖지 못했고 향토도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길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더 차원 높은 조국을 창건하고 더 아름다운 이상향을 남길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550-130, 2007.01.01)

천주평화연합 천일국 쌍합칠팔희년 만세

23 2008년 연두표어는 '천주평화연합 천일국 쌍합칠팔희년 만세'입니다. 천주평화연합과 천일국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나라는 두 사람, 두 패, 두 내외, 두 클럽이 통일된 나라, 천일국입니다. 천주라는 것은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의** 주인들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584-026, 2008.01.01) p. 568

24 2008년 표어인 '천주평화연합 천일국 쌍합칠팔희년 만세'에서 '칠팔희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희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세계 칠팔이 하나되어 만세를 하는 데 따라서 9수가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9수는 11수 12수까지인데, 12수는 6수와 6수를 합한 수입니다. 전편 1에서 6까지, 후편 7에서 12까지가 가인 아벨의 쌍이 되어서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의 통일적 운세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합칠팔희년 만세입니다. (584-041, 2008.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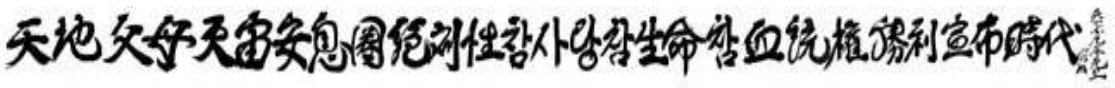
25 2008년 연두표어를 통해 쌍합칠팔희년을 발표함으로써 7수에서 8수로 넘어왔습니다. 참부모는 하나님 대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참부모를 믿고 이 땅 위에 왕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천주평화연합 천일국 쌍합칠팔희년 시대가 왔다고 선포했는데, 거기의 왕 중 왕은 참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참부모는 책임을 완수하고 이 땅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루가 바쁩니다. 천년만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날을 천년 희망의 디데이로 정해서 기도하고 바라야 됩니다. 원리가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이미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구해 주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으니 한 생명이라도 사탄세계에 남기지 않고 해방해 주어서 하나님을 내세움으로써 해방을 공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이 부모님 생애에 결정적인 디데이라는 것입니다. (584-158, 2008.01.14)

천지부모천주안식권 절대 성 참사랑·참생명·참혈통권 승리 선포시대

26 2009년 표어는 '천지부모천주안식권 절대 성 참사랑·참생명·참혈통권 승리 선포시대(天地父母天宙安息圈絶對性참사랑참生命참血統權勝利宣布時代)'입니다. 절대 성이란 혼자 이룰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만 돼 가지고는 절대가 안 됩니다. 상대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천지부모천주안식권에 들어가야 할 것은 절대 성인데 하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혼자 절대 성이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성 가운데서 상대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떤 속성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유일입니다. 절대가 되려면 둘이 아니라 하나, 유일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앞에는 유일이 있어야 되고 영원이 있어야 되고 불변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유일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영원해야 됩니다. 절대를 받쳐 줄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중심속성인 절대에는 유일이 있어야 되고 불변이 있어야 되고 영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11-123, 2009.05.08) p. 569

27 '천지부모천주안식권 절대 성 참사랑·참생명·참혈통권 승리 선포시대



의 '권'자는 '둘레 권(圈)'자가 아니라 힘을 말합니다. 최고의 이상적 힘, 그 '권(權)'자를 씁니다. '천지부모천주안식권 절대 성 참사랑·참생명·참혈통권 승리 선포시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교회의 결론은 소생·장성·완성을 통해 그것들이 하나되어 제1차 아담시대 구약시대, 제2차 아담시대 신약시대, 제3차 아담시대 성약시대, 제4차 아담시대를 거쳐서 심정권 세계에 안착해야 정리가 끝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결론내기가 쉽습니까? 구약시대는 소생시대이고, 신약시대인 예수님시대는 장성시대이고, 성약시대는 완성시대로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사는 하나님을 모셔다가 살겠다는 제4차 안식권 안착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605-155, 2009.01.01)

28 '천지부모천주안식권 절대 성 참사랑·참생명·참혈통권 승리 선포시대'에서 안식권은 개인·가정·종족·민족 등 8단계 안식권이 있습니다. 레벨이 다 다릅니다. 8단계 종류가 다른데 부모님이 이 8단계를 연이었습니다. 아벨유엔을 중

심삼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왕유엔권이 나오게 되면 통일천하를 중심삼고 하나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승리한 참부모유엔, 하나의 혈통을 중심삼은 이상세계 통일 해방·석방 영원 태평성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국과 본향땅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605-169, 2009.01.01)

참사랑천주안식권 청심일만승일 만세

29 2010년 표어는 '참사랑천주안식권 청심일만승일 만세'입니다. 청심일만승일은 흘러가는 이야기기 아닙니다. 오늘 승리권의 획을 긋는 표제가 '참사랑천주안식권 청심일만승일 만세'입니다. 하늘의 대신자 권한과 상속권이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2010.01.01, 천주 청평수련원)

30 2010년을 맞이하면서 특기할 사항은 '신·구력을 통일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력은 필요 없습니다. 음력은 천세력을 중심삼고 천년의 역사가 되어 있고 만년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음력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러나 양력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은 3년 만에 한 번씩 열두 달이 열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수가 되기도 하는데, 열세 고개를 넘기 힘듭니다. 열세 고개를 넘게 되면 새 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너와 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인과 아벨이 평화롭게 가정과 일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족을 7대나 8대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0.01.01, 천주 청평수련원) p. 570

천정부모 지화자녀 정착종최 일체완료 천주정착 천일국 만세

31 2011년 표어는 '천정부모 지화자녀 정착종최 일체완료 천주정착 천일국 만세'입니다. 새해에 하늘땅이 일체적 통일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만민 축복을 받아 만천주에 선포 분별하시옵소서. (2011.02.03, 천주청평수련원)

32 2011년 2월 3일 오늘 하늘땅, 영계와 육계의 승리적 패권의 권한을 가진 부모님이 하늘땅 전체를 연결하여 승리의 패권적 왕의 자리에 서서 2010년 11월 4일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대회'에서 한 말씀을 부모님 전체 생애노정을 중심한 교재 교본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 가운데는 제44회 참하나님의 날 말씀과 하나님왕권즉위식에서 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안 해도 됩니다. 부모님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표상적인 동상이 아닙니다. 산 사람으로서 전체 승리의 패권적 왕좌의 깃발을 이 땅 위에 들고 행차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출발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2011.02.03, 천정궁)

33 천주의 중심이 되는 핵과 기둥인 천지부모, 참부모, 천주의 선왕, 후손들이 일체가 되어 무한한 대우주의 사랑으로 피어날 수 있는 영원한 이상조국, 영원한 영계와 공히 살 수 있는 지상·천상천국을 창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부모와 땅의 부모가 일심일체가 되어 참사랑의 씨를 만국 만해, 천지의 어디든지 뿌린 것을 축복받은 하늘의 백성들이 참사랑으로 양육하기를,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의 꽃씨에서 싹이 난 것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무궁한 천주의 참부모 핏줄과 연결된 모든 부모와 형제가 하나되어 영원무궁토록 참사랑의 결실을 가지고 먹고살고, 지켜 줄 수 있는 표준으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지상 천상 실체의 일심일체의 한 중심, 한 핵과 한 기둥을 중심삼고 영속적인 천국이상을 확대해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2011.02.03, 천복궁) p. 571

천지인참부모 승리 해방 완성시대

34 2012년 표어는 '천지인참부모 승리 해방 완성시대'입니다. 천지인참부모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된 자리에서 여러분 생애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 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전부 하늘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번 디데이 부모님 결혼식 때에 하늘나라의 인을 부모님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니까 여러분의 8대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되어 동화·동족·동권의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지인참부모 정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걸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 가정이 이와 같은 실적을 남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 되고 조상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3대를 거쳐서 정화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늘땅의 길이 막히고 담이 쌓이게 됩니다. (2012.01.24, 천복궁)

35 여러분이 2012년 1월 28일 참부모님 탄신일인 오늘부터 전후좌우 전체 환경여건을 넘어서야 됩니다. 개인시대나 가정시대나 종족시대나 민족시대나 국가시대를 다 넘어서야 됩니다. 최후에 걸린 것을 사생결단하고 전력투구해서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적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이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대회'책자를 봐서 알듯이 교본 교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 자기가 있는 데서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넘고 아시아를 넘고 세계를 넘어 하늘땅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천지인참부모의 승리권과 해방권과 완성권을 넘어선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 쉬는 것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2012.01.29, 천

정궁)

36 2013년 천력 1월 1일 원단과 참하나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부모님을 경외하면서 높이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늘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영계에 가서 참아버님을 뵈올 면목이 없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내가 지상에서 이렇게 너희를 가르쳤고 어머님까지도 너희에게 이렇게 간절히 당부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일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필코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2.10, 천정궁) p. 572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

37 2020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표어는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늘부모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창조주 되시는 하늘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상계가 잘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복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그다음에 하늘부모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무지로 인해 지금 세계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피해를 덜 본다고 해서 멈출 일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무지를 일깨워서 환경을 잘 보전해야 됩니다. 죽어 가고 있는 땅과 바다를 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과 같이 참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 하나가 되고 서로 협조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4.01.01, 천정궁)

38 모든 일에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흘러가 버립니다. 참된 주인, 이것은 우리가 2020년까지 이 나라 복귀와 세계복귀를 위해서 하루도, 한 시간도, 일분일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늘의 지혜를 빌려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서 바꿔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꿔 놓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통일 한 가족입니

다.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늘부모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뻐하실 수 있는 실적을 매달 매년 더 크게 높게 돌려드리는 참효자 참효녀 참충신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책임진 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4.01.01, 천정궁) p. 572

제6편 세계순회와 세계선교

|차례|

제1장 참부모님의 세계순회

1절 제1차 세계순회 ····· 576
2절 제2차 세계순회 ····· 594
3절 제3차 세계순회 ····· 600
4절 세계순회 중에 보내신 참부모님의 편지 ····· 608

제2장 참부모님 미국 섭리와 공개강연

1절 참부모님의 미국 섭리 출발 ····· 630
2절 세계통일십자군 활동 ····· 640
3절 미국 주요 도시 순회강연 ····· 648
4절 '희망의 날' 한국 대회와 구국세계대회 ····· 660
5절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대회 ····· 668
6절 미국 의회 초청강연과 워터게이트선언 ····· 684

제3장 일본 특별순회와 세계 선교사 파송

1절 해와 국가·어머니 국가인 일본의 책임 ····· 690
2절 참부모님의 일본 특별순회 ····· 694
3절 세계 선교사 파송과 수난 ····· 704

next

제6편 세계순회와 세계선교

| 차례 |

하나님은 재림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미리 조성하셨다. 과학문명 발달로 지역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종교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이 그 좋은 본보기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의 중심국가로 미국을 택하셨다.

참부모님께서 1965년 1월 이후 세계순회에 나선 것은 세계복귀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제1차와 제2차 순회가 성지 택정과 선교부 설치, 축복결혼식 주재 등 선교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제3차 순회는 미국 기독교 재건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제1차 순회 중에는 미국 48개 주를 순회하면서 55개소의 성지를 택정하시는 등 정성을 들이셨고, 제2차 순회 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선교에 본격적으로 대비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1971년 12월 18일 워싱턴DC에 도착하신 이후 가장 먼저 7대 도시 강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국가로서의 각성과 기독교의 책임을 명확히 하시고 공산주의 위협 등을 제기하셨다. 이 당시 일간지에 강연회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주제로 한 10만 달러 소설 현상공모를 발표하는 등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셨다. 특히 1974년 9월 18일 3만여명이 운집한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와 1976년 6월 1일 5만 명이 참석한 뉴욕 양키스타디움 대회, 9월 18일 30만 명이 모인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만천하에 공표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성공적인 미국 선교에 맞추어 1975년 2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교사회의에서 세계 95개국 선교사 파송을 결정하고 127개 선교국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각국의 세계통일십자군을 동원하여 1975년 한국에서 '희망의 날' 대향연과 구국세계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셨다. 1967년 6월에는 한국의 간부들을 대동하고 방문하시는 등 수차례 일본을 찾아 선교활동을 독려하셨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9년 1만2천 명의 여성 선교사들을 150개국에 파송하는 등 해와 국가·어머니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p. 575)

제1장 참부모님의 세계순회

1절 제1차 세계순회

첫 세계순회와 그 의의

참아버님께서는 1965년 1월 28일 한국을 떠나 역사적인 제1차 세계순회 길에 오르셨다. 일본 미국 캐나다와 중남미 5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6개국, 아시아 8개국 순으로 방문하시고 일본을 거쳐 10월 10일 귀국하셨다. 제1차 세계순회를 하신 것

은 모세 때 가나안복귀를 위해 40일간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과 같이 세계적 가나안 복귀를 위해 40개국을 연결해야 될 섭리적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p. 576)

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고 정부에 등록함과 더불어 민족적 기반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세계적인 제물의 입장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국에서 아버님을 중심으로 실현해서 세계로 연결해 뻗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타락 이전의 기준에서 축복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영계는 타락하기 전의 천사장 입장을 찾아 세우고 땅은 타락하기 전의 아담 입장을 찾아 세운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세움으로써 영계는 땅을 협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천사가 협조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계 40개국을 순회하고 256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40 곱하기 6의 240에 4 곱하기 4의 16을 더하면 256입니다. 4수와 6수를 복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순회를 하고 돌아온 날인 10월 10일이 뜻이 있습니다. (015-229, 1965.10.12)

2 1965년 안으로 12개국 선교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귀의 시기는 아무 때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 가운데 한점 물보라 같은 것입니다. 좁쌀 한 알과 같은 기준이 바다 전체의 가치에 상당하는 것과 같은 때가 복귀의 시기입니다. 사람과 돈은 얼마든지 있고, 또 내일에라도 천년 후에라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없습니다.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귀하는 일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하늘 편에 바쳐야 됩니다. 자신의 피와 힘의 원동력, 이것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015-139, 1965.10.03) p. 577

3 한국에서 가인 아벨이 세워야 할 천적인 위치와 중심을 탕감해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야를 향하여 총진군해야 되는 것이 7년노정의 사명입니다. 이제 종족기준과 민족기준을 세우고 국가기준을 세워 세계적인 시대로 넘어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한 국가의 사상이 그 국가에 국한되는 시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에 대한 천적인 의의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락한 세상에 다리를 놓으며 섭리적인 기반을 쌓아 올라왔습니다. 1960년부터 1967년까지의 7년노정이 끝남과 동시에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가나안, 즉 세

계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아버님이 40개국을 순방할 때 14개국에 통일교회 선교부를 설치한 것입니다. (016-071, 1965.12.26)

4 1965년부터 독일 통일식구들이 그 인근 여러 나라에 배치되어 개척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국이 14개국을 넘어야 됩니다. 1967년에 40개국 이상의 터전을 만들어 세계적인 작전을 세우려면 그런 재료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조국, 우리의 세계를 위함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녕 하나님의 뜻 앞에 도움이 되는 길이고 전통을 남길 수 있는 역사적인 터전을 닦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서슴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피땀 흘리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가야 합니다. (015-227, 1965.10.10)

5 아버님은 제1차 세계순회 기간에 역사상 가장 많은 파란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님이 가는 길은 뜻의 길이 아닙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서 길을 닦아 안식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길을 닦으면 그는 태풍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몰아닥치는 태풍과 노도 속을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6천년간 그 물결이 굽이치며 인류를 휩쓸어 사망의 세계로 몰아놓는 고역이 있었기에 그 파도를 잠재우고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마음 가운데 단단한 충격을 받으면서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015-221, 1965.10.10) p. 577

6 제1차 세계순회 노정에서 내가 세계를 돌아보고 돌아오면서 마음으로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어떻고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늘이 뜻하신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이 소망하시는 자리에 서서 아벨적인 기준에서 가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고 민족적인 책임과 세계적인 책임을 다하는 세계적인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인을 굴복시키고 세계를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015-267, 1965.10.17) p. 578

7 아버님은 세계를 순회할 때에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내 사명은 그 모든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자식들을 통하여서라도 없애 버릴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리가 아니고 부활의 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물을 바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의 조건으로서 겟세마네를 넘고 갈보리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015-126, 1965.10.03)

8 통일교회는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차후에 삼천만 민족이 당할 어려움의 고비를 먼저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의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을 제물이 되어 희생함으로써 살릴 수 있고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 된 자가 어려운 고개를 넘으면서 먼저 맞고 먼저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은사를 받아서 민족이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제물 된 자는 은사를 받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인들은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싫다고들 합니다. 이번에 민주세계를 중심삼고 세계를 순회할 때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회적 여건입니다. (015-250, 1965.10.17)

9 아버님이 제1차 세계순회 노정에서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세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찾아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아버님을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몇 달, 며칠, 몇 시간이나 가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하였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 본 사람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일본에 가면서 제일 염려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희는 일본 사람이라는 감정을 가지면 그들도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세계주의를 주장해도 세계주의에 대해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부딪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원칙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 가나, 미국에 가나, 어디를 가나 다른 나라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017-041, 1966.11.06)

40개국 120개 성지 택정

참부모님께서는 1962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일원에 5개 성지를 택정한 뒤 그곳의 흙과 돌을 채취하였으며, 1965년 세계 40개국 순방 중에 각국의 성지를 택정하시고 그곳에 한국에서 가져온 흙

과 돌을 묻으셨다. 이는 한국의 수도 서울 성지를 세계적으로 접붙여 주고 정성과 승리 기반을 동등한 기준에서 분배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36가정 72가정을 찾아 민족적 중심을 만들고 세계국가형인 120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세계국가 섭리시대로 들어가면서 40개국에 120개 성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성지 택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천지만물을 창조한 기준과 같다. 그러므로 아담 승리권의 심정기준에서 하늘자녀 입장인 선교사를 각국에 파송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적 활동기반이 마련되었다. (p. 579)

10 아버님 앞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찾아야 할 세계적인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는 것이 제2의 사명이요, 성별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3의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놓고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성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를 중심삼고 하나되어 하늘과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아버님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과 성신을 대신하는 기준을 찾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봉헌식을 할 수 있습니다. (012-183, 1963.05.01)

11 이제부터 통일교회 운세는 국가를 거쳐 세계적 운세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계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만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함성소리가 삼천만 민족의 가슴 가슴에 울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날을 맞기 위하여 한국에다 승리의 터전을 마련하는 성지를 택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지 택정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또한 하나님의 창조법도에 따라서 합니다. (016-073, 1965.12.26) p. 580

12 통일교회가 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려고 했던 개인완성 가정완성 종족완성 민족완성의 기준, 즉 하나님이 찾으려던 가정과 종족과 민족의 기준을 우리가 넓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4가정을 한국 각지에 배치하면서 성지를 택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성지를 중심삼고 일체적인 인연을 갖추어 나가며 사명을 다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사명을 다한 것이 기준이 되어 세계사적인 전체의 책임을 중심삼고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승리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동서남북 4대 성지와 중안성지까지 5개 성지를 택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승리의 시대가 오자 1964년 12월 31일과 1965년 1월 1일을 기해 서울의 5개 성지에서 흙과

돌을 가져다가 외국에 가지고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흙과 돌은 무엇이냐?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담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전부 사탄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승리적인 터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땅을 찾을 수 있는 시대권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성지에 있는 흙과 돌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016-074, 1965.12.26)

13 성지를 조건으로 삼천리반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싶어해야 됩니다. 이 땅에 피어린 역사의 전통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정하면 천주도 정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하늘이 우리를 중심삼고 생활이념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지와 성물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축복받은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축복가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룩한 땅을 찾아야 합니다. 성지와 성민을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013-014, 1963.10.01) p. 580

14 하나님과 인간과 성지가 일치되면 어떠한 인연이 벌어지느냐? 타락하기 전의 아담 해와가 복귀됐다는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성지를 택정하는 것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사람과 땅과 만물을 복귀할 수 있는 땅을 갖추고, 사람을 찾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초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또한 성지를 결정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영계가 바로 천사세계였습니다. 천사세계는 아담 해와가 빨리 완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활권 내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세계는 아담과 해와를 협조하여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평화의 터전을 이룩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성지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가정과 같이 성별된 곳이므로 그곳을 영계가 협조할 수 있습니다. (016-075, 1965.12.26)

15 앞으로 민족적인 운세와 더불어 세계적인 운세가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택한 성지를 세계적으로 접붙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접붙이는 것입니

다. 이렇게 성지를 택한 기반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을 보내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성지를 택정해 놓고 통일신도들을 빨리빨리 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복귀된 아담 해와의 기준으로 세워 지금까지 영계가 접하지 못하였던 기준을 탕감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횡적인 싸움을 전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천사가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을 추방해야 됩니다. 이것이 탕감복귀의 원칙입니다. 영계를 동원하여 지상에서 사탄을 추방해야 됩니다. 제1차 세계순회에서 105개 성지를 택정하였고 120개 성지를 택정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하늘의 영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지를 축복함으로써 국가 주권이 하늘 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016-076, 1965.12.26)

16 사람을 찾은 후에는 땅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40개국을 순회한 이유는 성지를 택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타락 전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성지를 택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40개 국가에서 120곳의 성지를 택해야 됩니다. 120가정은 120개 국가를 상징합니다. 한국에서는 70수를 중심으로 하여 72곳을 찾아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성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지가 택해졌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땅을 지은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서면 인간과 땅이 창조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세계와 영계가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20개 성지를 가진 것은 120개국의 영토를 가진 것이 됩니다. (016-008, 1965.12.21) p. 582

17 124가정을 축복함으로써 예수님이 소망하였던 상대적인 이념을 찾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다 찾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만물을 찾아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세계 국가를 대표한 40개국에서 120개 성지를 정하였습니다. 40개국을 중심한 120개의 성지는 120개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40세, 즉 1960년에 성혼식을 했으므로 40년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 40세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120개 국가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40개국에서 120개의 성지를 택했다는 것은 세계적 120개 국가와 우리 뜻과 물질적 관계가 일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통일교회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아들딸을 찾았고, 종족

과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찾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성지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운세는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54-294, 1972.03.26)

18 세계적으로 120개 성지를 택정했는데 그 때 아버님과 최원복 김영운 최봉춘이 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뜻적으로 보면 최봉춘은 해와 국가인 일본을 대표하고 김영운은 세계적인 천사장 국가인 미국을 대표한 입장에서 아담국가를 중심하고 사위기대형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세계를 순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와 국가 입장은 남자가 되었고 천사장 국가 입장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내적 아담 해와를 상징적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순회가 제1차 세계순회 노정이었습니다. 그때 세계를 순회하면서 주로 그 나라의 중앙청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역사와 현실의 주권을 결보시켜서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져간 돌과 흙을 성지 곳곳에 심어 놓고 그 나라의 돌과 흙을 거두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돌과 흙을 가져갔다는 것은 뜻을 중심삼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책정한 승리적 기반 전체를 가져가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심어 주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 복을 옮겨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이 나라가 그 나라와 주고받을 수 있는 혜택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052-250, 1972.01.01) p. 583

19 아버님은 왜 세계를 순회했느냐? 지금까지 승리한 기준을 세계적으로 분배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세계순회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룬 사명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승리적 기준이기에 그것을 세계 전 인류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지를 결정하면 타락하기 전의 천지가 생긴 기준과 같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지상에 역사는 기대가 성립되고 거기에 아벨격이 아담의 승리권, 타락하지 않은 심정기준을 가진 우리의 하늘자녀를 보내면 그를 중심삼고 말씀의 실체 재창조와 심정기준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015-150, 1965.10.07)

20 아버님이 성지를 택하여 기도할 수 있는 땅을 정해 놓았습니다. 몰리고 쫓길 때 기도하러 갈 곳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정할 수 있는 성지가 택정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승리의 팻말을 꽂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1965년에 세계를 순방하면서 40개국에 120개 성지를 택정하였습니다. 많은 경비를 쓰면서 여러 나라에 성지를 택정하여 그곳의 돌과 흙을 한국에 가져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천지의 운세에 박자를 맞추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40개국의 120개 성지는 하나님의 선민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더라도 영계의 영인들이 지켜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팻말을 박고 싸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민족복귀 운동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점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016-262, 1966.06.19)

21 내가 성지를 찾는 데에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레바논의 베이루트였습니다. 베이루트의 바닷가는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지키는데 새벽 3시에 달과 별빛이 비치는 하늘을 보고 가서 베이루트 해안지대에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중동에서 성지를 만든 곳이 레바논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성지와 레바논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밤에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네 사람이 들어가서 성지 택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싸움 중에 그런 싸움이 없는 격전 도상에서 성지 경계선을 만든 것입니다. (597-182, 2008.09.11) p. 584

22 시리아에 가서 성지를 택할 때에는 7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성지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시리아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동유럽을 중심삼은 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련의 위성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산물을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련 전시관에 들어갔었는데, 그때의 인상이 잊히지 않습니다. 낮에는 성지를 택정하지 못하고 밤에 택정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낮에 길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로 때려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던 세르비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지를 택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지를 택정하던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018-232, 1967.06.11)

23 아버님은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갈 때마다 앞으로 아벨적인 존재의 터전을 복귀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한 섭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성지를 택정해 왔습니다. 성지를 택정하는 것은 환경 복귀를 위한 터

전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 곳에다 아벨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갈 적마다 저금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 돈으로, 일본에 가서는 일본 돈으로, 독일에 가서는 독일 돈으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통장에 예금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식이 만물을 대할 수 있는 심정적인 인연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님이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자랑입니다. 그것은 물질복귀를 위한 아벨적인 제단을 쌓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016-079, 1965.12.26)

24 세계 40개국의 120개소에 설정해 놓은 성지에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하나의 방송국이 되어 세계에 전파를 보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세계의 성지에서 그 전파를 수신하여 하늘 **앞**에 감사와 송영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지는 하나님의 지상 초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선지자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서러움의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지에 대한 마음이 지극히 깊은데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러우시겠습니까? 성지에 대한 하나님의 서러운 마음은 여러분이 사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효의 도리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로 인해 서러움을 느끼게 될 때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충신 열녀는 다시 될 수가 없습니다. (017-244, 1967.01.29) p. 585

일본 1차 순회

참아버님 일행은 1965년 1월 28일 제1차 세계순회의 첫 기착지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일본 식구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다. 이날 일본본부에서 환영대예배가 있었으며, 통일기를 일본협회에 수여하시고 존함을 넣은 기념품을 전원에게 하사하셨다. 그리고 도쿄와 나고야 등지를 순방하시며 성지를 택정하시고 2월 12일 오전 미국으로 향하셨다.

25 아버님이 일본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각오하고 이 길을 출발하여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을 각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비참한 죽음의 상황에 당면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를 결정하고 나서 출발하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해온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탐나

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65.10.08. 일본 도쿄) p. 585

26 세계 인류 전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일본 국민이 앞장서서 하면 일본 국민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민이 됩니다. 이러한 인격에 합당하고,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에 사무쳐 사는 사람은 하나님나라에 남아질 수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선 일본을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이상으로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세계를 아버님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님이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아버님이 쓰러지더라도 울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고, 아버님이 사랑하는 인류를 누가 사랑하고, 아버님이 사랑하는 천주를 누가 사랑하고, 아버님이 지고 있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015-041, 1965.01.31) p. 586

27 아버님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수고를 칭찬하고 눈물로써 훌륭하다고 하고 싶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싸워서 지쳐 있는 여러분에게 '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길은 세계적인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와 살로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투지의 심정을 가진 용사를 보내 때리고 또 때려도 끝나지 않을 사탄세계입니다. 6천년의 원수입니다. 인류의 원수인 사탄을 이 손으로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생활해 온 절대 충효성과 우리가 남긴 공적에 대해서 모든 만물이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 공인의 가치는 어떠한 사탄이라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싸우는 한 사람이 일본에 있다면 하나님은 일본을 버릴지라도 그 한 사람을 택하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세계에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 세계를 버리고서라도 그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014-342, 1965.01.28)

28 아버님은 일본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에 합당한 참을 가진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심정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지 않으면 안 될 십자가의 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형제들이 맞이하는 마음은 쇠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희망의 하나의 세계, 하나님

이 이상으로 하시는 목적의 땅을 건설하기까지 눈물로써 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는 탕감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벼랑길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의 포탄이 되어 적중에 돌입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간 뒤에 '누가 이 심정을 이어서 해줄 것인가?'라고 묻는 하나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용맹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노정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 한가운데 서 있는가? 그 목적을 향한 전 생활인가?'라고 자신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원의 세계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 의미밖에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사정과 심정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과 융합성, 통일성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간이 되면 그 사람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014-342, 1965.01.28) p. 587

29 우리는 일본에 주어진 책임감을 더욱더 강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을 대표한 사람에게 평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결코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심정을 알 수 없고 고생을 통해서만 그것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님은 전 세계가 반대해도 반드시 이 길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싸우겠다는 결심이 이미 서 있습니다. (1965. 02. 08, 일본 홋카이도 삿포르교회)

북미 순회

참아버님께서는 1965년 2월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거쳐 13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하셨다. 3월 29일까지 43일간 미국의 48개주를 주파하시는 여정 가운데 55개의 성지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3월 31일 워싱턴DC에 도착하신 뒤 3개월간 체류하시며 미국 전역에 걸친 선교기반 확립과 세계 12개국 선교지를 위해 진두지휘하시며 구체적 방도를 강구하셨다. 그리고 21일수련회 등에 참석한 식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 6월 25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아이젠하워 전대통령을 예방해 요담하셨다.

30 아버님은 외국 사람들을 잘 울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 더 잘 울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시에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그날 온다는 소식만 듣고 비행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 몸이 달았는지 아버님이 도착하여 비행장에 천천히 나

타나니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우는 사람, 웃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만 같은 통일교인이 되고 보니 웃는 것도 모두 같고 우는 것도 모두 같았습니다. 웃을 때 이가 보이고 울 때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019-304, 1968.03.10) p. 587

31 내가 미국에서 43일 동안에 48개 주를 순회하였습니다. 하루에 700킬로미터 이상을 자동차로 달려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트윈픽스라는 이름의 성지를 택하였습니다. 어머니 성지와 아버지 성지입니다. 미국 전체에 55개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지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지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통일교회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회를 동부에서 하였고 서부에서도 하였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동과 서를 갈라 가면서 하였습니다. 로키산맥을 차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넘었습니다. 미국에 애국자가 있더라도 나한테 배워야 되고 내 기록을 깰 수 없습니다. 사연도 많았습니다. 호텔에 가서 자지 않고 차 안에서 자고, 모래사장이 있으면 모래사장에서 자기도 하였습니다. 자다가 깨어 침낭에서 얼굴만 내밀면 별빛이 비쳐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꿈도 많았습니다. (580-116, 2007.11.10) p. 588

32 미국의 48개 주를 돌아다닐 때 식빵과 베이컨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끼에 그것 한 조각씩입니다. 빵 조각과 베이컨과 그다음에는 김치입니다. 젊은이들은 한 끼에 3개씩 먹어도 부족할 텐데 하나씩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일화가 많습니다. 밤 12시쯤 된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3시간을 자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가 고장 났다고 해서 길가에다가 차를 대 놓고 쉬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한잠 자면 됩니다. 네 사람이니까 호텔비가 한 사람에 80달러면 320달러가 절약됩니다. 그것만 가지면 일주일 먹고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700킬로미터를 달려야 됩니다. 1천300킬로미터까지 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43일 동안에 48개 주를 순회한 것입니다. (322-089, 2000.05.14)

33 아버님은 미국에 갔을 때 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룩된 미국 문화를 둘러보면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중심본부가 바로 이곳이구나. 앞으로 창건할 새로운 문화 세계는 이곳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세계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왜 자랑하는가? 이는 흘러가는 한 시대의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계를 창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팻말, 하나의 탑도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복지의 문화를 중심삼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를 창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016-165, 1966.03.13)

34 미국이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연의 심정을 중심삼고 볼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영광의 상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천지가 슬픔과 탄식의 구덩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기가 막힐 일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찬란한 문화로 이룩한,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빌딩입니다. '이 뉴욕 땅에서 너를 중심삼고 하늘과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너도 탕감을 받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뉴욕 땅에서 아무리 찾고 들춰보아도 하나님과 본연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참부모가 이 땅 위에 오실 때 참다운 혈연적인 인연을 맺어 아들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뉴욕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할 때 없었습니다. 미국 국민을 다 들춰보아도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있기 전에 미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디언이 있기 전에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020-128, 1968.05.01) p. 589

35 오늘날의 미합중국은 2천년 전 로마제국과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20세기의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그들의 문화만을 자랑하던 1세기의 로마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국을 지배하기 위해서만 애를 쓰는 나라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어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한 어느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어느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세계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크신 축복을 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위대한 이념이 진실로 이 땅 위에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 인류는 하나의 형제라는 위대한 이데올로기가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15-067, 1965.02.13)

36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명은 한국보다 더 크고 세계적인 데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관심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형제자매들도 미국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혹은 미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미국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미국만을 위하여 울어서도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린다면 세계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를** 위하여 피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을 사랑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015-075, 1965.02.13) p. 590

37 1965년에 미국에 갔을 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에게 3대 조건을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사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간의 면회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는 아쉬워하면서 나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생활관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또한 처칠,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는 것 등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교회는 미국을 제1비행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회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대해 어떤 말을 했을 때 '사실이 그렇다.'라고 인류가 공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016-242, 1966.06.19)

38 내가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동란 참전 문제를 중심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민주세계가 작전을 세워 공산세계를 방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는, 민주세계가 공산세계를 이기더라도 공산세계는 이슬람권을 통해서 다시 민주세계에 대항해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사탄 편인 좌익은 외적인 공산세계와 내적인 종교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 편 입장에 있는 우익은 외적인 민주세계와 내적인 기독교가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6천년 동안 계획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미국이 우익적인 입장에서 하늘을 옹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권과 손을 잡고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민주세계의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국민은 하나님이 미국을 200년 동안 무한히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세계의 것을 빼앗아다가 준 것입니다. 사탄세계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다음에는 원수의 국민보다 많은 수의 국민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중의가 문제 될 것을 아시

는 하나님은 물질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축복을 미국에 해주셨습니다. 미국은 오른편 강도의 책임을 담당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옹호하고 기독교를 옹호하고, 물질 위주의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054-050, 1972.03.10)

중남미·유럽·중동 순회

참아버님께서는 1965년 7월 3일 파나마, 4일 콜롬비아, 5일 칠레, 7일 아르헨티나, 8일 브라질 등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셨다. 그리고 7월 9일 브라질을 떠나 아프리카의 세네갈을 거쳐 10일 포르투갈에 도착해 8월 24일까지 유럽 17개국을 돌아보셨다. 이어 8월 2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하여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신 뒤 9월 6일까지 중동 6개국을 순방하시면서 세계 식구들을 격려하셨다. 특히 8월 31일 예루살렘 성지순례 때 예수님을 골고다 산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노정을 회상하면서 애달팠던 그 사정을 깊이 위로하셨다.

39 아버님이 브라질에 갔을 때 어느 일본 식구가 그 나라의 말을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자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보았습니다. 황무지 같은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정의 세계는 국경과 무력으로 막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도 더 심정적이었습니다. 황혼녘 비행장에 서서 떠나오던 아버님을 눈물로 전송하던 그 충성어린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제물로서 찾아가는 그 눈물의 터전 안에서 통일의 역군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뜻과 사명은 민족적인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015-226, 1965.10.10)

40 유럽을 순회하면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지만 알프스를 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히말라야를 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려운 곳, 최전선에 가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작전입니다. 이 길은 복귀의 길이기 때문에 원리원칙에 맞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급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원수가 종교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종교의 원수는 공산당이다.'라는 세계적인 명제하에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015-225, 1965.10.10)

41 로마의 바티칸 궁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천년 역사에 6억 이상의 교인을 가진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없이 분열된 교파와 교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로 통일해 놓을

것이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은 유럽 문명의 총본산지이며 또한 집결지입니다. 유럽문명의 진수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참과 거짓이 부딪치면 거짓이 깨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016-237, 1966.06.19) p.592

42 나세르를 중심으로 군부가 다스리는 이집트를 방문한 날은 이집트군 창설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군사 수효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집트 군도 현대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는 그들의 공업이나 산업 발전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카이로에서 400여 리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들의 산업과 공업 발전상을 보고는 이집트가 아무리 큰소리를 쳐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10년 내지 20년은 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집트가 동서냉전을 이용하여 계획한 것이 1차 적중해서 발전하였지만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018-229, 1967.06.11)

43 나는 제1차 세계순회 때에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을 중심삼고 중동 일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영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야영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의 수용지가 있습니다. 이 민족은 주권을 복귀하자는 복고 사상을 가지고 옛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땅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선민사상을 빼낼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선민사상은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 몰림을 받더라도 철두철미하다는 것입니다. (018-227, 1967.06.11)

44 아버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산정까지 올라가던 도중 쓰러졌다는 곳에 팻말이 박혀 있었습니다. 열두 번이 나 넘어졌다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탕감길을 거쳐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님은 '암흑과 같은 2천년 전에 새로운 천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정이 얼마나 애달프셨습니까? 그렇지만 크고 부유한 많은 민족들을 다 제쳐놓고 이렇게 지지리도 보잘것없고 지지리 메마른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신 것은 민족복귀의 한을 하루라도 빨리 풀고자 했던 아버지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품었던 사연을 깊이 위로해 드리는 기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사탄은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은 위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슬퍼서 울고 하나님은 기뻐서 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통곡하였고 사탄도 아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귀의 길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을 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을 울리고 사탄까지도 울릴 수 없어 가지고는 복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018-165, 1967.06.04) p. 593

45 아버님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반은 사막지대입니다. 낙타를 볼 때 저 큰 체격에 배가 부르게 먹을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풀이 없는 반사막지대였습니다. 그곳을 보면서 한국은 복지 중의 복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의 포도 넝쿨은 한 아름도 채 안 됩니다. 낮에는 태양열에 3분의 1이 말라 버립니다. 그 잎이 너무 시들시들해져서 포도 넝쿨인지 무슨 넝쿨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다른 넝쿨 같습니다. 그런데 낮에 뜨거운 만큼 밤과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로 식물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처럼 유대 백성들도 새벽을 기다리고, 그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또 그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엇이 있습니다. 감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감동해서 부르는 노래가 최고의 절규이고 심령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017-021, 1966.11.06)

아시아 및 일본 2차 순회

참아버님께서는 1965년 9월 7일 인도 뉴델리에 도착하신 이후 아시아 8개국을 순방하시며 성지를 택정하셨다. 7일부터 11일까지 뉴델리에 머무르고 있던 전 사라와크 왕 앤터니 브룩 경의 특별안내를 받으셨다. 12일부터 인도 콜카타를 둘러보고 28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홍콩 대만 등을 순방하셨다. 9월 29일 일본에 도착하신 후 10월 1일 닛코, 5일 하코네를 방문하시고 해와 국가인 일본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출국 256일 만인 10월 10일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46 아버님이 아시아의 남방국들을 순방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더위였습니다. 더운 데서 선교하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인도 콜카타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전도

하려면 참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기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어디에 사람이 더 많이 사는가 생각해 볼 때 극동지방보다 열대지방에 더 많이 삽니다. 중국에도 전 인구의 절반이 더운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 아시아에서도 북쪽보다 남쪽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018-086, 1967.05.21) p. 594

47 여러분은 일본 통일교회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설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내 1대에 이루지 못하게 되면 2대 3대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파도가 휘몰아칠 때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의 수에 따라 민족적인 승리가 결정됩니다. 통일교회 식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느 한때가 되면 이 지상에 나타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일본이 첫째 번이 되면 일본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015-085, 1965.09.29)

48 금후의 문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이념의 철저화, 둘째 조직 강화, 셋째 공동 활동으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이상으로 강한 조직력과 활동력을 가지고 대결해야 됩니다. 나아가 조직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밤이 없고 낮도 없습니다. 식사도 잊어버립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려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정부가 통일교회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의해 일본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세워지면 어느 고개를 넘고 나서는 조직운동을 해야 됩니다. (015-094, 1965.09.30)

2절 제2차 세계순회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한 제2차 순회

참부모님께서는 1969년 2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세계 21개국을 대상으로 제2차 세계순회를 하셨다. 2월 2일 일본 도쿄 본부에서 지구장회의를 주재하시고 3일 나고야에 도착해 리틀엔젤스 일본 마지막 날 공연을 참관하셨다. 2월 4일 미국 순회에 오르셨으며, 3월 16일부터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키프로스 이스라엘 이란 등지를 순

회하셨다. 그리고 이란 테헤란을 출발해 인도 뉴델리, 태국 방콕, 홍콩을 경유하여 4월 18일 자정 무렵 일본 도쿄에 도착하셨으며 5월 2일 귀국하셨다. (p. 595)

1 1969년은 잃어버린 세계를 찾기 위해서 민족의 운명으로부터 국가의 운명, 즉 최고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아에서 더더욱 최고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각오로 약 100일 동안 세계를 순회하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통일교인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이 엄청난 사상을 중심삼고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과거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어린 사람은 통일교회의 미래를 위한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상을 이 민족과 국가 앞에 하나의 기점으로 세워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까지 총진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삼천리반도가 되고, 삼천만 민족이 쌍수를 들어 하나님을 환영하게 되고 이 나라의 주권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삼천리반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통일할 뿐만 아니라 지휘할 수 있고 20세기뿐만 아니라 수십 세기 이후에까지 새로운 역사시대를 여는 원천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022-106, 1969.01.26)

2 1968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설정했다는 것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본연의 기준을 승리적으로 찾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편의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구원섭리를 해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탕감역사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을 희생시켜서 제물 삼는 것이 아니라 사탄 편의 사람을 희생시켜서 탕감하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동유럽에서도 새로이 서구의 사상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의 기세가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꺾여 내려갑니다. 최고의 기준에서 세계를 움직여 나오던 그들의 세력이 이제는 내려가야 할 운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의 3년 기간을 섭리사적인 한 과정으로 복 있습니다. 따라서 **섭**리적으로 볼 때 이 3년 기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과정을 혁신해서 청산짓고 넘어가야 할 기간입니다. 아시아의 정세도 급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을 중심하고 볼 때 남북한 정세는 금년 1969년이 위험한 고비입니다. (022-222, 1969.05.02) p. 596

3 현시대는 상당히 긴박한 때입니다. 세계를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전 세계가 우리의 뜻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65년과 1969년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면 세계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목전의 사실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뜻은 커지고 세계는 점점 사망권 내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022-221, 1969.05.02)

4 앞으로 여러분은 통일을 중심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지를 중심삼고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세계순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시간 나는 대로 성지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못 가거든 낮이나 저녁에라도 성지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초창기에 이 성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제까지 성지를 택정하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책정하기까지 얼마나 수고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중심삼고 1968년 정월 초하루 하나님의 날을 책정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불쌍하였고 부모님도 불쌍하였고 통일교인들도 불쌍하였습니다. 이제 통일의 기원을 온 세계에 세워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비록 딱딱한 돌 위에 앉아서 기도할망정 돌이 눈물짓고 산천이 머리 숙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계순회를 할 때 여러분에게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지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통일의 노래를 열심히 불러 그 마음이 민족감정과 인류와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대한 통일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만민이 본받을 수 있게 성지를 중심삼고 정성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올 때에는 수많은 민족에게 통일의 기원을 세우는 책임을 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022-158, 1969.02.02)

5 아버님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 감람산에 올라가 오래된 올리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천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야고보·요한 세 제자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3차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세 제자는 아마도 그 나무 밑에서 졸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 한테 책망을 받은 자리요 예수님을 그의 제자 유다가 팔아넘겼던 곳이니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이 죽기 위

해 여기에 오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어 가셨으니 잘 죽어 가셨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022-275, 1969.05.04)

6 1965년에 40개국을 순방할 때와 1969년에 21개국을 순방하면서 세계적인 정세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중심삼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지향하는 뜻과 이 세계의 정세가 하나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965년 아버님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의 사회생활을 보고 느낀 것은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로서 언제나 자기 나라가 아니면 세계를 수습하지 못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사회 속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미국 자체의 힘 가지고는 미국은 물론이고 민주세계 전체의 문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흐름을 전반적으로 헤아려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시기가 촉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기타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일대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통일이념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사명을 다해야 될 통일용사들의 세계적인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023-297, 1969.05.14)

7 내가 미국 식구들에게 '미국이란 나라가 태평양 멀리 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손을 뗀다고 될 줄 아느냐? 공산당은 미국 안에도 있다. 만일 베트남에서 손을 떼면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가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1965년에 남미 일대를 조사해 본 결과 남미 대부분이 반미사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쿠바의 인접 국가들 중에 한 나라만 공산권에 가담하고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 불을 달아 놓게 되면 베트남전과 같은 전쟁이 미국의 코 아래에서 벌어지는 줄을 왜 모르느냐? 10년 이내에 공산당이 그런 정책을 가지고 미국 땅에 불을 지를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다.' 고 얘기하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공작전에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대비해서 미국에서의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발 벗고 활동하도록 강조하고 왔습니다. (160-163, 1969. 05.12) p. 598

8 하나님의 6천년 역사를 통하여 풀지 못한 모든 역사적인 문제를 아버님 일대에 풀었습니다. 이제 죽더라도 통일원리는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아

무리 일본의 1억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통일주의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일본 자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계와 지상세계, 천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움직이면 세계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고 생활권 내에 실존하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감상적인 심정이 아니고 실증적인 심정입니다. 복귀의 노정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의 모든 권내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참소받지 않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축복의 조건을 세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022-196, 1969.02.02)

강행군 속 세계 식구 격려

참부모님께서는 제2차 세계순회 기간에 강행군을 하면서 각국 선교사와 식구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지침을 내리셨다. 특히 제2차 세계순회 기간에 미국 독일 일본에서 10개국 43쌍의 축복결혼식을 주재하셨다.

9 세계를 순회하면서 외국 식구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한국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보내 줄 것 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오면 되지만 올 때에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전통을 세워 놓으면 앞으로 세계어는 틀림없이 한국어가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순회 노정 중에 독일에서 11개국의 선교사를 모아 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1970년 4월까지는 성지를 택해 놓은 4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120개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상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민족이 된다는 것을 알고 통일교회에 들어온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022-229, 1969.05.02) p. 599

10 세계 곳곳을 다닐 적마다 외국 사람들이 아버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기쁜 반면에 슬픈 심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떠난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인연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6천년 전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죄의 전체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눈물을 쏟고 갔으니, 그때의 절망으로 갈라졌던 인류가 환희의 소망 가운데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울음바다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탕감복귀할 수 없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고 동서양의 문화를 초월하여 그분이 눈물의 교차로를 갈 때 나도 가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망하더라도 나는 승리자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023-050, 1969.05.11)

11 내가 수십 국가를 순회하면서 수많은 민족 앞에 소망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책임자로서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빚을 지고 가느냐, 빚을 지우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빚을 안 집니다. 그들이 밤을 새우며 정성을 들였다면 나도 밤을 새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고 피곤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거쳐 온 수많은 애혼(哀魂)들이 나를 추앙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의 심정과 어떻게 일치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빚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온 나라에 남아진 것은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024-030, 1969.06.22)

12 부모님이 제2차 세계순회를 하면서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 6월 1일부터 4개월간은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조국 한국을 위하여 정성을 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의 식구들이 아침이면 한국을 향해서 간곡**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순회 기간은 부모님에게는 참으로 큰 싸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이상 피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부모님이 오기를 내심으로 고대하다가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부모님이 좀 더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본을 거쳐 돌아올 때에는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지탱해 나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정말 무리를 하였습니다. (023-245, 1969.05.25) p. 600

13 제2차 세계순회 노정 중에도 부모님이 미국과 일본과 독일에서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축복가정이나 다른 가정이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제일 가난한 사람과 제일 부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르냐? 똑같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가는 부자라도 거지 옷을 입혀 놓으면 거지나 다름없이 보입니다. 거지가 아니라도 거지 노릇을 하면 거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지 옷을 입은 부자가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죽었다고 하지 거지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가 다른 것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은 귀한 것입니다. (023-245, 1969.05.25)

3절 제3차 세계순회

세계적 선교기반을 닦은 제3차 순회

참부모님께서는 1971년 12월 5일부터 1972년 5월 8일까지 15개국을 대상으로 제3차 세계순회를 하셨다. 이 기간에 특히 미국 영국 독일 3개국 주요 도시 강연회를 주재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미국 비자 문제로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 12월 18일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입국한 뒤 공개강연을 하시는 등 눈부신 활동을 펼치셨다. 그리고 1972년 3월 16일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 20일부터 22일까지, 3월 23일 독일 에센에 도착해서 28일부터 30일까지 공개강연을 하셨다. 3월 31일 네덜란드에 도착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이란 인도 태국 대만 일본 등지를 거쳐 귀국길에 오르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제3차 세계순회를 통해 미국에 머무르면서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선교활동을 체계화하고 식구들을 직접 교육하심으로써 선교역사의 신기원을 마련하셨다. (참부모경 p. 601)

1 제3차 7년노정이 1975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그 기반을 닦지 못하면 세계적인 3차 7년노정에서 유효적절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3년간을 준비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이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1972년에 이 3차 7년노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연결시키는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닦은 터전을 중심삼고 미국 등 세계의 중요한 국가에 상대적인 기반을 닦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반을 닦는 것이 제3

차 세계 순회 노정입니다. (055-269, 1972.05.09) p. 601

2 1970년 10개국에서 참가한 가운데 777쌍 축복결혼식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3차 세계순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닦아진 기반을 그 나라들에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기반을 다른 국가들에 횡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축복결혼식에 참예한 사람들은 한국으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052-080, 1971.12.22)

3 아버님이 제3차 세계순회 노정에서 세계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독교를 구하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기독교보다도 세계 기독교와 미국을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각도로 방향을 잡아서 국제적인 활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한국을 대표한 세계적인 부흥단이 출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전 세계를 대표한 부흥단이 세계를 순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한 부흥단이 세계를 순방할 수 있는 조직을 불원한 장래에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몇 개국의 부흥단이 한 팀이 되어서도 활동하고 혹은 몇 개국에서 일시에 활동하는 작전을 하려고도 합니다. (051-205, 1971.11.21)

4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기반을 닦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내외에서 통일교회가 몰리는 때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계에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공산당이 새로이 정비해서 세계 진출을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비하여 하늘 편도 새로이 정비해서 외적인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본부를 세우고자 여의도 땅을 사고, 세계적인 수련장을 만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청평 땅을 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도 땅을 샀습니다. 외적으로 갖추어서 세계로 진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순회를 가게 되면 못해도 40개국 이상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돌아와야 할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이내에 120개 이상의 나라에 선교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050-236, 1971.11.07) p. 602

5 한국동란은 북한이 남한을 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때 민주세계가 한국을 후원하여 북한의 침공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여기에는 16개국이 참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4수에다가 4수를 곱한 수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세계의 대표 국가들이 한국에 와서 싸웠느냐? 섭리적인 차원

에서 볼 때 한국은 그들의 조국과 같은 입장에 있어서 그들이 조국광복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고는 민주세계가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주세계가 아버님을 도와준 것같이 되었고 나라를 도와준 것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을 옥중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둘 다 살려준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세계가 다시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떨어져 내려가고 영국도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그 은혜를 갚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끌어주어야 되고 영국도 끌어주어야 됩니다. 통일교회가 신령을 중심삼고 영적 기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안팎의 기반을 닦았다는 입장에 서야만 영적 민주세계의 기독교권을 협조하여 이렇게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그런 입장에서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제3차 세계순회 노정입니다. (054-198, 1972.03.24)

6 1971년은 제2차 7년노정의 중간 해입니다. 이해에 부모님이 제3차 세계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일본에 갔다가 캐나다를 들러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오기까지 많은 장애물과 싸워야 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차츰 줄어들 것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 해와의 자리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해와 자리에 있는 영국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거둔 승리적 기반을 일본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 해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그 승리적 기반을 연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타파함으로써 하늘이 한국에서 복귀한 승리의 기반을 여러분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에는 독일로 갈 것입니다. 영국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그러한 조건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귀섭리는 공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공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052-070, 1971.12.22) p. 603

7 아시아에서 한국·일본·대만의 3개 국가를 중심삼고 이어 나오려고 했던 것이 아버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세계시대로 넘어갑니다. 아시아에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2 전선인 미국이 방어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제3 전선은 독일이 됩니다. 1977년은 1917년에 공산당이 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미국에 가서 '1977년, 1978년이 되면 미국은 공산세계의 위협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통일교인들은 3년 동안에 그 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준비해서 완전히 방어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버님의 제3차 세계순회의 중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과 대만에 이어 제2 방어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양에서 자유세계를 대표한 국가를 중심삼고 아담 국가형, 해와 국가형, 천사장 국가형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독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이 닦아 나온 터전을 거기에 심어 주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한국에서만 살지 않아도 될 때가 왔습니다. 제3차 세계순회 노정을 끝마치고 한국 땅에 돌아와 책임을 하고 나면 한국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055-212, 1972.05.09)

8 기독교는 영적 구원의 종교입니다. 실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복귀의 역사, 다시 말해서 천사장 복귀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영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영계에 가 있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들의 사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될 텐데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사장 복귀의 사명을 책임지고 해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영적 구원섭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통일교회가 영육을 중심삼고 예수님이 쫓겨 가던 이상의 기준만 만들어 놓으면 천사장 세계는 굴복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 것은 국가기준에서 승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기준만 되면 천사장 세계는 땅에 절대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아담을 중심한 본연의 세계권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제3차 세계순회 노정입니다. (060-191, 1972.08.17) p. 604

9 통일교회는 영육을 중심삼고 국가 기준에서 아직까지 아벨적인 승리의 기반을 못 닦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에서 국가기준과 세계기준을 볼 때 사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첨단에 섰습니다. 우리 이론은 누구도 못 당합니다. 종교로 말하면 통일교회가 안팎으로 공인될 수 있는 때에 왔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는 못 되었지만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준에서 국가를 넘어선 아벨기준을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준에서 아벨복귀를 완성했기 때문에 영적 기준에서 가인복귀를 완성하기 위한 출발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제3차 세계순회 노정에서 영적 가인세계인 기독교 문화권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가인 국가의 대표국이기 때문에 그 대표국 앞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시대에는 영육을 중심삼은 아벨의 입장을 선포하였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해 영적인 입장에서 선포하였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반대받지 않고 돌아오는 날에는, 환영 받았다는 입장에 서는 날에는 육적 복귀의 출발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제3차 세계순회 노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한국은 육적 복귀의 내적 기반이 닦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060-191, 1972.08.17)

10 이번에 미국에서 대중 집회를 열게 된다면 그것은 아버님 생전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7개 도시에서 이러한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각 도시에서 3일간씩 해서 21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노정의 첫출발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획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나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라디오와 신문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도시의 세부 계획과 일정을 세우면 아버님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독일과 영국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번이 제3차 세계순회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말씀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052-078, 1971.12.22) p. 605

11 부모님이 한국을 떠나게 될 때에는 영적 기준에 있어서 이미 한국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이 통일교회의 방향을 따라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영적 기준을 이미 설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 정부나 기독교가 통일교회의 움직임과 가는 길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영적 기준에서는 기독교의 권위를 넘어 국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탕감조건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1972년 1973년 1974년의 3년노정 기간에 한국을 떠나 민주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을 중심삼고 전 세계에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민주세계를 두고 보면 아담 국가형이 미국이요, 해와 국가형이 영국이요, 천사장 국가형이 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이 3개국을 연결시키는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1972년 3개국을 중심한 강연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중심삼고 로마까지 연결시켜야 했던 것처럼 그 상대적 국가를 중심삼고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

운 복음 선포의 공격전입니다. (073-249, 1974.09.22)

12 미국의 7개 도시를 비롯하여 영국과 독일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왜 미국에서 7개 도시를 택하였느냐? 미국은 세계적 주도국이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지역을 택함으로써 영국이나 독일에 하나의 기준이 되겠기 때문에 그러한 작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기준을 연결하려면 이러한 일을 통해 한국과 연결해야 됩니다. 1972년에 들어와 그러한 기반을 중심삼고 내가 새로이 출발하면서 일본 식구와 독일 식구와 영국 식구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삼고 미국 식구는 물론이요 영국 식구, 독일 식구, 일본 식구 등 주도적인 국가의 식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닦은 그 영적인 1차 기반 위에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전 세계 통일교회 교인들을 데려다가 이 기반과 일치시키는 운동을 해 나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만 영적 기반을 닦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상대적으로 영적 기반에 하나되어야 합니다. (073-249, 1974.09.22) p. 606

세계선교의 환경 조성

참부모님께서는 1972년 11월 21일 한국을 떠나 일본을 거쳐 23일 미국에 도착하셨다. 제4차 세계순회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떠났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머무르며 집중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8개월 만인 1973년 7월 22일 귀국하셨다. 이 당시 미국 방문의 목적은 세계선교의 환경 조성과 세계통일십자군(국제기동전도대) 재교육이었다. 제3차 세계순회 당시 편성된 국제기동전도대의 실적을 검토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였다. 참아버님께서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제1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세계 도덕 계도에 대한 통일과학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셨다.

13 아버님은 국가면 국가를 중심삼고, 통일족속이면 통일족속을 중심삼고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버님을 위하고 뜻을 위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큰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해야 될 때가 되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아버님을 따라오면서 일을 해 나왔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찾아와서 일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아버님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개인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가정이 자리를 잡아야 축복받은 가정이 순차적

으로 자리를 잡아 들어갑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전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기반이 넓어져서 이러한 한 국가만 성립되면 세계복귀는 단시일 내에 된다는 것입니다. (052-230, 1972.01.01)

14 여러분 자신이 아버님의 사명을 인계받아서 책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나라를 위해 핍박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보다 세계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내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침범받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책임지고 방어할 수 있느냐, 수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제3차 세계순회 노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세계를 대해 순회노정과 같은 새로운 길을 3차 이상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야 하고 가정적으로도 가야 합니다. 부모님 가정이 당할 수 있는 수난길이나 외적으로 당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탄으로부터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052-230, 1972.01.01) p. 607

15 지금의 세계 국가들을 볼 때 미국도 공산당에 휩쓸리기 쉽게 되어 있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모두 사탄권에 쫓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싸움의 표적, 목적을 잃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유주의 국가권에서는 모두 모릅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그때가 말세입니다. 그 반면에 통일교회는 개인복귀·가정복귀·종족복귀·민족복귀·국가복귀, 이렇게 복귀의 기반을 넓혀서 조건적으로는 이미 세계의 횡적 기반까지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3차의 세계순회 노정을 중심삼고 한국에서 20여년간 싸워 나오면서 거둔 그 실적으로 그대로 횡적으로 세계에 연결시키는 운동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055-072, 1972.04.23)

16 우리는 외적인 세계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선을 넘어서 생명을 각오하고 가라고 하면 그저 가야 됩니다. 이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동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공산권이요 하나는 민주권인데, 세계를 중심삼고 이런 안팎의 전선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1972년은 '통일전선 수호'라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탄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식구들에게 1차, 2차 이야기하고 3차까지 이야기해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

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선두에 서서 경비를 대어 그 기반을 닦아 주고 돌아온 노정이 제3차 세계순회 노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동대를 재교육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이 제4차 세계순회 노정입니다. 재교육을 해서 강한 편제를 만들어 세계적인 무대로 점점 확대시켜 갈 것입니다. (065-223, 1972.11.19)

17 아버님이 제3차 세계순회 노정 중에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원의원 10명을 일주일 동안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원의원 15명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유명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전면과 워싱턴포스트 전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7대 도시에서 부흥회를 했고, 링컨센터를 얻어서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만나자고 하면 상원의원도 호기심으로라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금후 미국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산당한테 말려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10명을 만나 보았으니까 10분의 1을 만나 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 국제정세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아버님의 말은 전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세계순회 중에 미국에 가게 되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전부 궁금하게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문 안에 들여놓지도 않고 찾아가 보지도 않던 내가 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금후의 작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062-292, 1972.09.26) p. 608

18 부모님은 제4차 세계순회 노정을 불원한 장래에 떠날 것입니다. 이제 뉴욕에 가게 되면 1972년 11월 23일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강연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을 살립니다. 통일교인들이 앞으로 세계로 갈 길도 닦아 놓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이 머지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세계순회를 떠나면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빨리 통일교회 식구를 많이 만들어서 한국 사람을 가정마다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065-077, 1972.11.13)

4절 세계순회 중에 보내신 참부모님의 편지

참아버님께서는 제1차 세계순회 노정 중에 한국에 계신 참어머님과 참자녀들, 유효원 협회장, 식구들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격려하셨다. 쉼 없는 여정에서도 1965년 2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신을 보내신 이후 수십 차례 서신과 그림엽서 등을 보내셨다. 당시 순회 상황과 그때그때의 감회를 피력하며 활동을 격려하셨다. 특히 서신에서는 참어머님과 참자녀들 그리고 식구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기대, 순회노정에 대한 감회를 엿볼 수 있다. 본부 간부들 역시 참아버님께 서신을 통해 활동보고를 하였다. (p. 608)

참아버님께서 참어머님께 보내신 편지

1 엄마에게, 고국을 떠난 지 벌써 20일이 되어 갑니다. 그간 많은 역사를 남기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상항(桑港;샌프란시스코)까지 와 새로운 문화의 생활을 더듬으며, 또는 여러 명승지를 구경하면서 엄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뜻을 위한 복잡한 생활 속에서 홀로 얼마나 마음 쓰일까를 생각하니 미숙한 체험 속에서 감려(感勵)가 크실 것은 당연한 것이오나, 금번 기간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환경을 승리하기만 기다리옵니다. 미국에 와 우리 서로가 떠나보니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욱 느끼며, 서로가 얼마나 큰 사명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점에서 체험할 줄 알면서 감사할 뿐이옵니다. 즉 하늘땅의 책임과 역사적 운명을 해결해야 한다는, 누가 할 수 없는 한 부부라는 것과 우리의 잘잘못이 전체를 좌우하는 초점상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생애 직책이리요. 그러므로 하늘을 대하여는 충효의 도리를 다해야 하며, 땅을 대하여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역사적 소망에 대하여 해원성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길이 빛내는 부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아빠는 일본 식구들 앞에서나 미국 식구들 앞에서나 하늘 앞에서나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이올시다. 식구들의 간절한 표정과 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늘의 자녀들이 다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참부모의 입장이 두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하는 여러 문제도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일본 식구와 미국 식구는 참 대조적이올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약(略)합니다.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시고 또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딸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어머니다운 모습을 높이 길러 주십시오. 나도 고국의 지금 처하여 있는 입장과 외국에 대한 사명을 염려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그리면서 힘껏 금번 여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할 말은 많으나 다시 만나서 전할 날을 바라보면서 지면으로는 약합니다. 내내 안녕하기를 빌면서 실례합니다. 1965.2.15, 상항에서. (p. 609)

2 엄마, 많은 날들을 헤어보지 않아도 자꾸만 지나가는군요. 벌써 1삭이 되어 갑니다. 그간 고국산천도 생각 중으로 그리는 만리이역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편지에 적혀 있는 대로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입니다. 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도박장으로 알려진 곳이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침에 떠나 미국에서 제일로 큰 휘트니(Whitney)라는 산에다가 성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분지로 되어 있는 동반구에서도 제일 낮은 곳으로 유명한 데스밸리(Death Valley)라는 곳을 찾아 성지를 정하고 세 시간 달려와 지금 호텔에 유숙 중이올시다. 내일 아침 8시에는 이곳을 떠나 작정한 코스를 따라 순회에 오르오니 그리 아시고, 편지 연락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소식 없어도 그리 궁금해하지 말고 작정한 시간 따라 공부와 자기가 처하여 있는 중대한 여러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책임을 다하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전번에 샌프란시스코 주소로 보낸 편지가 로스앤젤레스로 보내온 것을 잘 봉독하였습니다. 효진 예진이 소식 반가웠소! 역시 멀어지면 생각이 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구먼요. 태모 중이니만큼 조심하여 조리하여 주세요. 아빠는 이왕 출발노정이니 미국 땅에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여야 할 사명감에서 오늘과 내일을 주름잡으면서 미 대륙의 남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큰 천적 사명을 위하여 지내는 날까지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 미국 와서 상항과 나성(羅城; 로스앤젤레스)을 거치며 미국 식구들과 많이 친밀함을 느끼면서 별로 거북함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역시 식구들이라 본국과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으니 안심하소서. 이제부터 미국은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크나큰 미 대륙에 하늘의 불길이 붙어 주기를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올시다. 순방의 동반자는 영운, 최, 미국 청년 2명 합 5인이 출발하여 넓고 넓은 길, 멀고 먼 길을 3월 한 달 거쳐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네바다주 외 몇 주는 사막지대로 되어서 일주간은 사막지를 통과하여야 된다고 하여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느낀 것은 금후의 통일교회 운명은 미국 땅과 싸워야 될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높은 문화시설과 발달한 교통관계는 참으로 놀랄 만합니다. 그러니 우리 운동의 본격적인 세계 발전은 미국을 빼놓고는 아니 된다는 것이 사실로 체득되옵니다. 한국은 너무나 작은 나라라는 것을 느끼옵니다. 그러나 섭리적 견지에서 보면 일리 있음을 생각하면서 황폐한 고국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이 큼을 느끼면서 기도할 뿐이올시다. 우리 이념에 들어온 미국 식구는 내가 본국에서 말하던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본국 교회 식구들과 그 외 문제들도 뜻 중에 무이(無異)한 입장을 생각하면서 현쟁의 입장을 잘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 엄마가 수고하여 키우시던 가까운 여러 식구들도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부디 잘

보살펴 주옵소서. 모두들 뜻 위한 제물임을 누가 알리요. 엄마가 참 고맙소이다. 큰 사명을 위하여 책임져도 여전하게 대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음을 진실로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더욱 발휘하여서 큰 발전을 결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기만을 바라옵니다. 하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귀함을 높이 체험하는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보고 아빠 잘 있다고 전하여 주세요. 여러 식구에게도 문안하여 주옵소서. 여정에서 시간을 빌려서 몇 자 적습니다. 안녕히 몸 건강하여 책임다하옵소서.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1965.2.25, 라스베이거스에서. (p. 611)

3 효진 엄마, 교회 소식도 궁금합니다. 그간 여러 아이들 데리고 무고할 줄 알면서 생각하옵니다. 부흥단의 성과는 여하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여린 몸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고 하늘은 더욱 귀히 여기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태평양을 넘어 한국 땅을 생각하옵니다. 떠나면 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저는 이국땅에서도 잘 적응하는 형이므로 만사에 그리 지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미 대륙을 힘차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3월 6일 아침 1시5분이옵니다. 지금 막 수백 마일 달려와 아카소주 리틀록이라고 하는 주청 소재지에 있는 로즈모텔을 숙소로 정하고 몇 자 씁니다. 나는 바로 몇 시간 전인 밤 8시에 다른 주에 성지를 정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10번째 주에다 성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금번 순회하면서 생각할 때 1960년 되기 전 순회 때 생각이 납니다. '이 미국 땅아, 너는 큰 몸을 굽혀 언제 하늘을 섬기려나?'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힘차게 천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였으니 승리를 거두어 세계복귀의 터전을 원할 뿐이올시다. 편지 안 한다고 말은 하고 왔지만 행여나 기대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 안됨을 느끼면서 바삐 글을 씁니다. 더욱 우리 사명이 큽니다. 이국 식구나 본부 식구나 마찬가지올시다.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에 너무나 큰 책임감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머님의 중임(重任)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몸 건강하여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여야 합니다. 나로서는 참 미안함을 느낍니다. 여린 몸으로도 잘 따라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미국 땅에 다시 올 생각을 하면서,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나가면서 큰 승리적 자신을 하늘 앞에 세우시기를 앙망합니다. 내내 평안합소서. 협회장한테 편지 못하여도 전하여 주소서. 그만합니다. 1965.3.6, 리틀록에서. (p. 612)

4 엄마께. 지금은 워싱턴DC, 미국 수도에서 펜을 듭니다. 월여(月餘)가 지났

습니다. 나는 많은 변화의 경지를 지나왔습니다. 즉 순회의 노정에서 매일 바쁜 일과에 따라 지형적 변화에 지금까지 없었던 큰 경험을 체득하였습니다. 금번은 주로 성지를 정하였는데 오늘 11시까지 워싱턴DC 성지를 정하니 21개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차후에 사진으로도 볼 줄 압니다. 서부로부터 동부까지 돌고 나서 다시금 북부를 향하여 출발할 노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대륙을 일주하므로 남이 알지 못하는 중에 성지를 전국 주를 따라 정함으로써 미국에 있어서 금후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그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미국 식구들은 선생을 처음 만나 여러 가지로 인상적인 것이 많은 듯합니다.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같이 오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을 닦아 놓고 다음에 같이 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알고, 또 뜻이 그러하기에 모두 감사할 뿐이올시다. 사람은 서로서로 작별하여도 보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도움이 되는 줄도 압니다. 효진 엄마도 많은 회상과 금후의 결의를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뜻 앞에 효성하는 자로서 뭇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될 것을 결심하는 좋은 기간이 되기를 기도할 분이올시다. 더욱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고가 많겠지만 참는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여서 참어머님의 책임에 길이 빛을 발하여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러 면으로 기도도 하시면서 높은 책임에 대하여 길이 빛내소서. 아기들이 보고 싶구먼요. '아버지를 기다리겠지.'하고 생각하면 사진을 보곤 하지요! 엄마도요! 우리 엄마 좋다고 하는 고귀한 어머님을 나도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빠 없는 동안에 많은 체험을 하였다가 기쁜 소식 듣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식구들도 씩씩합니다. 본부 식구들이 열심히 책임 다하여야 할 것을 느끼옵니다. 14일 오늘은 일요일이므로 저녁 집회를 합니다. 12일에 60여 명이 왔었으니 저녁도 그만큼 모일 것이옵니다. 미국도 노력 여하에 따라 장래가 놓여 있습니다. 본부 근황 전하여 주십시오. 곧 북미주 순회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정 식구들과 지구장들과 식구들께 편지 못한다고 문안 전하여 주세요. 워싱턴DC의 기후는 우리 한국 기후에 맞먹습니다. 작일(昨日)은 여러 곳을 구경하였습니다. 백악관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다 들어가서 구경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장래의 소원을 그리면서 도시를 돌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고 안녕히. 1965.3.14, 워싱턴DC에서. (p. 613)

5 효진 엄마, 중대한 책임과 바쁜 생활 중에서 뜻 대하는 사명에 얼마나 노고가 큽니까? 끝까지 인내를 통하여 내일의 목적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여

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작일(昨日)에 뉴욕을 떠나 바쁜 노정을 거쳐 지금 막 버몬트주 브래틀보로에 있는 홀리모텔에 묵었다가 출발 직전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향할 중비에 바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소식 전하니 죄송합니다. 4월 2일 전으로 워싱턴DC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려고 하니 참 바쁠 것이올시다. 북부지방은 지금 겨울 절(節)이어서 참 춥습니다. 전일 주신 편지를 워싱턴DC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소식 받으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떠나서 연락하는 사정에 있어서 더욱 깊은 감정과 중대함을 느끼옵니다. 더욱이 어린것들과 식구들과 서울에서 지내던 모든 사실들이 언제나 생각납니다.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시킬 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 간에 더 큰 힘과 인연을 크게 묶어 주는 것을 느끼옵니다. 그러니 살아 나가는 중에 큰 뜻을 위하여 참고 나오는 과거도 또한 귀함을 엄마도 잘 체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큰 책임과 사명에 울면서 승리를 위하여 행진하는 것이 참말 고귀함을 재삼 생각할 때에 엄마한테 참 감사할 바가 크고 많음을 느끼옵니다. 크고 높은 뜻이니 그에 비하는 수고도 참고 갑시다. 여러 가까운 식구들 문안을 빌면서, 아이들과 몸조심하여서 아이들과 만날 때까지 씩씩하게 싸워 주십시오. 내일의 소망과 세계무대를 꿈꾸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여 순회의 날을 그리면서 기뻐하렵니다. 부디 잘 싸우시고 책임 다하는 귀한 어머님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보고들 싶으면 식구들 찍힌 사진을 가끔 보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예진이 학교 다녀서 벌써 제법 자랐구나 생각하니 엄마 책임이 더욱 커지는구나 염려하게 됩니다. 효진이도 아빠 찾으면서 잘 자랄 줄 알고 그리워합니다. 정말 엄마는 잘하여 아빠한테 제일 귀하고 자랑스러운 여성 중 여성이 될 줄 생각하면서, 참 행복한 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나아가렵니다. 부디 높고 귀하신 승리한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나도 참다운 아빠가 되어 천지를 위하여 살려는 일편단심뿐이올시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65.3.20, 브래틀보로에서.

6 효진 엄마, 한 밤을 지내고 나니 3월 25일이옵니다. 벌써 작별한 지도 만 2삭을 3일 앞두고 있구만요. 그간 서울서 이 바쁜 생활에 많은 체험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뜻 중심한 대중 앞에서 언제나 조심과 공적 생활관 속에서 무심하게 지낼 수 없는 생활을 멀리서 동정하며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뭇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혼자 몸이 아닐 터인데 미안함도 큽니다. 성지를 순방하는 매일 아침의 모습을 크게 염려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귀하게 생각됩니다. 여러 사람의 본이 되어 주는 일에 감사할 뿐이올시다. 남과 달리 심정적 십

자가를 넘어가려는 그 큰 사명을 아빠만이 아는 바이며, 더욱이 넓고 높고 귀하게 경애를 받는 어머님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올시다. 다들 문안하여 줍소서. 편지 일일이 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시켜 주소서! 아이들 한테 많은 노심을 쓰시겠지요. 지금은 다들 달라진 모습을 상상도 해봅니다. 아빠는 매일같이 바쁜 미주 북부 순회노정에서 보내옵니다. 남부와 달리 북부는 추운 계절이올시다. 기후의 변화에 눈 내리는 날들을 많이 만나는데, 자동차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정이 많습니다. 멀고 먼 곳들을 찾아다니는 큰 의의를 생각하면서 복귀노정의 서글픔을 체험할 적도 많습니다. 각 주의 다른 경치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섭리가 큰 땅임을 절감합니다. 하늘의 복귀섭리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효진 엄마는 아빠의 가는 곳을 따라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기도할 것을 생각하니 참 고맙소이다. 큰 책임을 나도 높이 경애하면서 금후의 뜻 대한 심성을 크게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효진 엄마와 같이 미국과 구주의 역방(歷訪)할 날을 바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건강에 주의하시고, 언제나 앞길 닦는 데 더욱 노력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게 됩니다. 하늘 위신과 책임을 중히 여기면서 내일의 희망을 높여 가시기를 바라옵니다. 궁금한 일들이 자꾸만 날들이 많아짐에 따라 더 늘어갑니다. 오늘은 콜로라도의 주청 소재지 덴버에서 몇 자 적습니다. 아마 편지 보고 찾아보리라고 믿습니다. 아침 먹으면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상철씨를 상봉할 것이옵니다. 목요일이기에 궁금히 여김을 생각하고 바쁜 중에서 몇 자 적습니다. 다음 주는 이내 워싱턴DC에서 부모님의 날을 맞기 위하여 노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식을 맞고 또 연락할 것이옵니다. 부디 몸조심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생활에 시간 낼 여유가 있겠습니까? 한번 가면 못 오는 청춘의 좋은 시기를 뜻 위하여 아껴 드립시다. 편지마다 다짐하듯이 번번이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것은 남편 된 책임도 있고, 후에 감사할 사실임을 알기에…. 또 누가 권하겠습니까? 시간의 귀함을 잘 아시는데, 미안하지만 마음에 두시고 노력하여 아빠가 놀랄 정도로 충실하기만 바라는 바이올시다. 마음 깊이 아빠를 생각하는 것의 체휼도 필요합니다. 부디 뜻 중심한 고귀한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아빠임을 잘 알 줄 압니다. 죽든 살든 우리 일로 된 뜻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부디 안녕하기를 빌면서 이만 그칩니다. 1965.3.25, 덴버에서.

7 엄마께.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고 보고를 겸하여 전하여 주신 편지를 봉독하였습니다. 수고가 컸습니다. 과연 어머님이 귀하심을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아빠 없는 동안에 두 차례 행사에 노고가 큰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뜻하신 하늘 앞에 책임 다하신 것을 나는 기뻐하는 바이올시다. 이 부모님의 날이 우리 사는 지구상에 현현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우리 참부모님 입장이 얼마나 무서운 입장임을 절감합니다. 즉 6천년 전에 하나님 지으신 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에서 성사하여야 할 그 행례를 금일에 와서 우리가 책임 한다는 엄청난 사명 앞에 몸 굽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와 선조들이 희생과 비참한 역사노정을 엮어 오면서 하늘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왔던가? 하늘만이 아는 곡절을 헤일 수 없이 흘러오던 중 아빠가 체험과 더불어 탕감노정을 거치는 슬펐던 길을 참고 참아서 어머님 한 분을 모시어 평화의 승리를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지는 청춘을 생활삼아 황혼길을 더듬어 머나먼 새벽 미명을 향하여 40여 평생을 걸어오던 중 하늘땅 슬픔을 체험하면서 하늘의 승리의 한 날로 이루어진 부모님의 날을 생각하면 천리원적 한 많은 과거와 함께 엄마를 귀하게 생각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나 6회로 맞는 부모님의 날을 보면서도 책임과 사명을 다시금 권고하여야 할 아빠의 심정은 남은 세계적인 부모님 성취를 위함임을 알게 될 때에 효진 엄마에게 많은 수고를 다시금 남겨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깊이 동정합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우리 원수를 갚을 때까지 전진이 기다리는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상에서 어머님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아빠는 해외에서 비는 마음 큼을 아시사 태모 중이니 몸 건강하시고 내일의 책임을 빛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늘땅이 귀히 생각하매 만민이 기뻐할 날인 부모님의 날 중심이 실체들을 더욱 귀히 사모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전체를 제물같이 됨을 더욱 빛내어야 하겠습니다. 젊으신 심중에 높으신 심성(心誠)에 하늘의 짐과 세계를 품으시면서 행복한 역사적 생활의 승리권을 창조하시는 거룩하신 주인공의 책임을 완수하시사 천지 공히 그 품을 그리시는 존귀하신 어머님이 되시기만을 비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각오한 사람들이 참 많음을 먼저 망각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등대로 시봉함과 그런 자에게 생명을 주려면 빛의 본체가 되어야 한다는 엄숙한 명령을 맞고 있는 바이올시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 외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 더 많은 민족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겠거든 빚지고 이 흑암점을 우리 역사적 배후에 남기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책임진 자의 고달픔은 아빤들 모르리요? 거룩한 부모님의 날 할렐루야 그 실체 영광 받들어 하늘을 잘 시봉하리로다. 복귀의 함성 높이 성덕 쌓아서 부모의 사명을 넘어 봅시다. 지금 쓰는 편지와 더불어 협회장 편지 내용을 생각하니 많이 피곤하심을 알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도록 향심을 두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사 몸조리 하여서 책임을 다하옵소서. 여행의 몸으로서 지금 워싱턴DC에서 부모님의 날을 지내고 차후의 정리로써 바빴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과 또 생각할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에야 펜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처음 맞는 부모님의 날로서 선생을 모시고는 미국 최초의 맞음이올시다. 그러기에 바쁜 전국순회 노정을 마치고 상항을 거쳐 비행기로 미 수도인 워싱턴DC에 3월 31일에 도착하여서 부모님의 날을 지냈습니다. 워싱턴DC 식구들이 전심을 다하는 성의로 나는 미국와서 역사적인 식과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러 지방의 식구들도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같이하는 중에 3일간을 밤낮 분별없이 시간을 갖고 지냈습니다. 좋은 모임임을 체험하였습니다. 서울을 생각하면서 의자를 놓고 어머님을 생각하는 순간을 두고 대륙과 대양을 넘어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엄숙히 지냈습니다. 미국 식구들도 예복 입고 경배하며 하늘 앞에 영광되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오색인종이 합하여서 하는 식은 내 생전에도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좀 더 널리 전 세계로 넓혀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무사히 지냈습니다. 아마 워싱턴DC에 유(留)하는 동안은 그런 일정으로 도일(度日)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인사들도 상봉하여야 합니다. 7월 중순까지는 구라파로 떠나야 할 것이옵니다. 다음 여행노정은 차후로 알릴 작정이옵니다. 내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965.4.7, 워싱턴DC에서. (p. 617)

8 엄마 앞. 지내는 날들은 많은 추억과 더불어 새로이 또 새로이 거듭하여 벌써 70일이 지났습니다. 생활 풍정이 달라짐과 더불어 멀리 고국산천을 그리는 마음은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많은 성원과 인내 속에서 과거를 닦아 온 땅, 눈물로써 호소하는 땅, 많은 소망의 터를 닦으려고 정열을 다한 땅, 그곳이 곧 우리 고곡이라는 깊은 회상 속에서 45년을 생각하니 모두가 남이 모르는 뜻을 위한 한길이었습니다. 내 생애는 뜻을 위함이니 하늘의 수고 앞에서 다시금 내 일을 위한 각오와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을 새로이 결의하옵니다. 그간 많은 수고와 인고 속에서 아득한 천릿길을 닦아 온 지난날이 또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4월 17일(음 3월 16일)전일이올시다. 엄마를 천적인 사명 앞에 세우고 하늘과 땅이 염려하는 밑에서 걸어온 시일을 승리로 넘고 닦아 온 그 크신 심성 앞에 감사를 이 이국땅에서 드리옵니다. 이제는 여러 자식의 어머니로서의 입장을 또 염려하여야 하는 수고의 길을 멀리서 동정하면서 4월 17일을 생각과 더불어 지낼 줄 압니다. 우리의 과거가 곡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뜻과 역사 앞에 힘찬 보람이 돼 옴을 체험할 적에 그 지낸 가치를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참고 또 결의하고 또 넘어야 하는

복귀의 노정을 힘 있게 넘고 달려갑시다. 우리의 천국, 우리의 세계와 우리 복지를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봅시다. 작정된 생애의 노정에서 그 누구를 위하여 달리어 다만 하나뿐인 귀한 인생이 목적 앞에 진정한 감사를 돌리는 고귀한 참부모님의 사명을 높이 찬양하면서 내일 또 내일을 승리로 갑시다. 5년 후 일을 생각하면서 금후의 엄마를 더욱 그리게 되옵니다. 10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우리 과거가 더욱 높고 귀하게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시(時)에서는 우리 뜻과 가정도 여러 모양으로 달라질 것이며, 하늘이 원하는 참다운 본 되는 본향 집을 일러 드릴 것을 더욱 결의합니다. 부디 엄마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16일을 지낼 줄 압니다. 역사적 성혼일이었던 것을 그 누가 알았으리오. 오직 하늘만이 기뻐하고 사탄은 슬퍼하던 날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은 복을 주려 하고 사탄은 참소하려는 중에서 신천지의 가정의 출발이었음을 생각하니 우리가 좀 더 높은 정성과 덕을 갖추었으면 하고 생각할 적에 다시금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 아기들을 생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가끔 사진을 보곤 하지요. 여기도 봄이 옵니다. 한국 산천도 봄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시간 내시어 봄놀이도 한번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선생과 같이 즐기듯 만물을 사랑하시사 큰 위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식구들과 함께 화부(華府; 워싱턴DC) 여러 곳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생활 속에서 안일하여 태모의 건강에 유의할 것이며, 비타민 섭취에 노력하십시오. 작일 밤 전화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많이 남겨 두었다가 상봉 시에 기념물로 들려줍시다. 그럼, 난필로 실례함. 1965.4.16, 워싱턴DC에서. (p. 618)

9 효진 엄마께. 세월은 자꾸만 가옵니다. 벌써 작별한 지 만 4개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본부의 소식을 전하여 들을 때마다 평안함을 감사하옵니다. 모처럼 무고하셔서 큰 사명 앞에 충성하심을 빌 뿐이지요. 그간도 홀로 중책을 지고 심려하고 계심을 알 적마다 아빠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지요. 천적인 책임에 충효의 도리를 세우시사 만세에 추모하시는 어머님을 자꾸만 그려 보옵니다. 순결한 몸 위에 평화와 평안이 영원히 깃들이시기를 바라옵니다. 정말 기나긴 여러 행사에 수고가 컸음을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음이 간절합니다. 곤히 잠든 그 모습 위에 평강을 더욱 빌 뿐이옵니다. 아빠는 마음으로 크게 염려하면서 거행하는 식전에 복이 있기를 바랐지요! 많이 사모하는 마음도 잘 아옵니다. 인생항로에서 깊이 체험하시는 만사가 후일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기간이 되옵기만을 고대합니다. 지금 시간은 밤 1시 40분이올시다. 이쪽은 고요한 밤이올시다. 고국의

밤을 그리게 되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낮이라고 생각하니 좀 이상하게 생각되오나 밤을 두고 생각하여 보냅니다. 엄마는 어떻게 주무실까, 미국을 언제나 생각하는 마음 잘 알지요. 빨리 오셨으면 하시는 것을 숭고한 심정에 고이 스며드는 단잠을 주옵소서, 아빠는 바랄 뿐이지요. 먼 타국 땅을 격하여 두고 생각한 모든 사정들이 향기 높이 자랑의 조건들이 되옵기만 이 밤에도 아빠는 그려 보옵니다. 태모 중이신데 복중 태아도 건강하기를 더욱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하늘의 보호가 큼을 어머님도 감사하십시오. 천지운명을 빛내는 가정이요 하고 아빠는 얼마나 바라는가! 하늘도 우리 통일 신도도 그럴 것을 생각하니 금후에 더욱 자녀들 교육에 주력하여야 할 것을 느끼옵니다. 복귀의 노정이 슬프고 아픔이며 그 무거운 짐을 성취의 큰 영광으로 바꿀 것을 기쁨으로 그리면서 아빠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도 생각하면서 결심하옵니다. 엄마를 어떻게 하여서 하늘 효녀로 만들 것인가, 아빠 위하는 열녀보다도 하늘 위하는 열녀 되라고 충고하는 아빠 마음 혼자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 가서 자랑하여 만여성의 승세자의 모습을 아빠가 만천주 앞에 찬양할 그날을 바라면서 또다시 권고하는 아빠 마음도 아프옵니다. 거느리는 측근자도 다들 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같이 갈 운명을 천지와 동모(同謨) 삼고 고요한 향화(香花)와 같이 피도록 엄마의 피와 땀과 눈물이 거름이 되어야 할 그분(어머님)을 아빠는 높이면서, 그리면서 권고하고 싶음을 즐거이 보아 주십시오. 내가 귀국하면 또 가자고만 권하려고 할 아빠를 동정하여 줍소서! 하늘도 그럴 것이니, 땅도 그럴 것이니 모두가 엄마의 귀함을 세우려는 것임을 생각하시사 최후의 심정의 십자가를 멋지게 넘어 봅시다. 여성의 귀한 생애를 동정하는 참 존경받는 어머님이 되시사 청사에 공덕의 본이 되시옵시사, 아빠보다는 엄마의 높고 귀함을 드러낼 어머님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에 바쁨을 전하려 할 적마다 모두들한테 감사합니다. 노력에 비하여 성과는 보여질 것이올시다. 보내 준 혈지(血紙)를 받고 21일을 지키려고 준비 목욕하고 붓을 들었습니다. 퍽 미국 소식 궁금할 것을 생각하여 지면이 자꾸만 길어집니다. 생활을 살펴보면 식사에는 한국와 여일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숙희, 기숙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라곤 생각조차 못하여 보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영어책을 붙들고 싸움을 하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엄마도 회화연습을 하세요. 결국은 암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하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올시다. 생각하는 대로 진전이 보여지옵니다. 불원한 장래에 엄마와 같이 미국 생활도 생각하여 봅니다. 좋은 것 보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 주의하실 것과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명랑한 하루를 노래

하여 식구들과 하늘을 위안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안녕을 비오면서 그치려 합니다. 식구들께 문안하여 주세요. 1965.5.21, 워싱턴DC에서. (p. 620)

11 효진 엄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조산이 될까 봐 걱정하였다는 **소**식 듣고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일하여졌다니 다행이올시다. 또한 예진 효진 아기들이 잘 놀고 재롱 피운다는 데는 마음으로 고국을 생각하게 하옵니다. 더욱이 8월 상순에 산기인 줄 알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고국에 환가하지 못함이 죄송하옵니다. 그러나 하늘이 같이하여 줄 것을 알면서, 7월 상순에는 캐나다와 남미 대륙을 거쳐서 7월 15일에는 영국 수도인 런던에 도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지나 구라파 대륙을 일삭쯤 걸려서 순회하고는 희랍(그리스) 애급(이집트) 요르단을 거쳐 아시아 대륙으로 하여 9월 하순이나 10월 상순에는 고국을 볼 예정이옵니다. 대단히 기대되는 마음 지루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몸조심하시사 건강히 계시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잡복(복잡)한 사정에서 얼마나 고되더라도 좀 참으면 잘될 날이 올 것이옵니다. 지금 워싱턴DC 생활은 한국과 차이가 없으나 식사 시에 자고 깰 때마다 고향 생각에 잠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궁금히 고대하는 마음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그럴 적마다 효진 엄마도 매일같이 배달부가 기다려지는 마음을 생각하니 소식을 매일같이 전하지 못함을 마음으로 미안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8일 4시15분이온데 외출준비 시간을 이용하여 기다리는 엄마 앞에 갑자기 수자 적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을 상면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영어 공부를 하노라고 하지만 능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영어만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 와서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시옵소서. 흘러가는 세월을 가로막고 뜻 위한 정성을 실어서 보냅니다. 내내로 안강(安康)을 빌면서 그치옵니다. 1965.6.8, 워싱턴DC에서. (p. 621)

12 엄마 앞. 지금 막 보내 주신 예진아이의 그림을 보고 자라나는 애들의 지혜에 더욱 흡족함을 느끼옵니다. 그림을 보니 참 많이 발전함을 볼 때 많이 자랐으리라고 생각되옵니다. 퍽 보고 싶습니다. 효진이도 제법 귀염둥이가 된 모양이군요. 아빠를 자주 찾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많이들 컸겠지요. 빨리 돌아가서 보고 싶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생각하면서 8월 7일경을 혼자 손꼽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척 염려되시는 모양인데 모두 하늘 앞에 맡기고 걱정을 않았으면 합니다. 아빠는 안 계셔도 마음만은

더 함께함이오니 높이 아버님께 빌 뿐이올시다. 더욱이 지금 퍽 어려울 텐데 조심**하**시오. 예진 편지에 염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산은 엄마 계획대로 하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기만 바라옵니다. 그리고 때는 찾아와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있는 정성 다하여서 본부에서나 국외에서나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체험하옵니다. 본국이 잘 움직이니 반갑습니다. 보고서를 볼 때마다 감사할 뿐이올시다. 모두가 하늘의 수고의 덕이옵니다. 우리는 참된 천적 사명에 높게 책임을 더욱 각오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일본 소식을 들어도 본국과 같이 발전하는 보고입니다. 미국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고 난 곳은 시운이 함께함을 알게 될 때에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빨리 목적하는 하나님의 날을 성취시켜 놓아야만 되겠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또 전진하여야겠지요. 잘 참아 승리에로 넘으시는 어머님의 귀한 모습이 영광되기를 나는 모든 것 다하여 돕고 싶으옵니다. 앞으로 갈 길 앞에 광명이 깃들기를 소망하고 갑시다. 모쪼록 몸을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식구 거느리고 앞날의 건설을 위하여 준비하여 복된 가정을 성취하여 하늘 앞에 드립시다. 그리하여 천주복귀의 성업을 높이 빛냅시다. 보희한테서 여행계획서가 갈 것이옵니다. 그대로 따라 여행할 것입니다. 앞길에 천적 의의가 있기를 기도할 줄 알고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미국 식구들의 수고가 물심양면으로 큽니다. 뜻을 따라 충성하는 식구들의 귀한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요. 그간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상봉하였습니다. 퍽 궁금할 줄 압니다. 이곳 식구와 동행자들도 건전합니다. 세계를 연하여 성지를 택함이 기대가 되어 전체 운동에 천혜가 깃들기를 바라보면서 바쁜 여행의 출발 날을 바라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965.6.22, 워싱턴 DC에서.

13 효진 엄마, 일간도 무고할 줄 알면서 또다시 평안을 비옵니다. 세계의 변천을 재촉하는 세월은 덧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떠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일이 7월 1일이므로 지금 막 바쁘게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오늘로 끝내고 명일부터는 또다시 쉴 새 없는 세계순방에 바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상원의원 2인을 만나 보고 돌아와서 곧 펜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형편은 대략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25일에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 며칠 전에도 상원의원을 만나 보았지요. 현대의 세계적 지도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의 큰 이념을 중심하고 금후의 세계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참조됨이 많을 줄 압니다. 어머님은 한국에서의 사명이 얼마

나 수고로운가 하면서 생각할 때 고맙습니다. 뜻 위한 하늘을 향하여 효녀의 책임을 다하시기만 바라옵니다.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곳은, 효진 예진 사진 앞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럿이 보는 기본이옵니다. 빨리 돌아가서 만나야지. 참들 보고 싶어요. 더욱 산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같이 있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해산은 협회장과 잘 의논하면서 행하시게 하옵소서. 더욱이 식사에 주의하시어 영양에 생각을 두십시오. 효원씨 보고에 생활이 여의치 못함이 어머님까지 영향 된다는 말에 한편 염려하면서 감사함은 절약한다는 보고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늘이 책임지도록 정성 다하여 충효의 도리만을 세우소서. 여기들은 다 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미국 식구가 물심양면으로 수고가 큰가 봅니다. 앞날에 하늘이 돕기를 빌 뿐이올시다. 보내 준 여행노정을 다시 보내오니 받으시고 안전하시옵소서. 보호 중에 무고히 귀국을 고대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40여국을 역방하려고 합니다. 길 떠난 후에는 연락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위하여 빌 뿐이옵니다. 지금 여행도 앞날의 한국의 길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족 앞에 미안함을 덜고자 합니다. 가뭄이 심하다니 걱정이옵니다. 그럴수록 통일의 역군은 더욱 분발하여야겠지요. 더운 하절에 수고를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사방을 살피시사 본 되는 입장을 취하려는 것을 동정합니다. 책임진 자들의 중대함을 더욱 절감할 줄 압니다. 내내로 평안을 빌면서 바쁜 중에서 난필(亂筆) 실례합니다. 10월 중순에야 다시 만날 것을 바라면서 안강(安康)을 빌 뿐이올시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65.6.30, 워싱턴DC에서. (p. 623)

14 효진 엄마, 지금 막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비행장에서 영국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14일 후 8시15분이올시다. 해가 스페인 산야를 비춰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황혼이 찾아올 것이올시다. 농업국인데 그리 농터가 비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산도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상에서 먼 곳에는 뿌옇게 안개로 하늘과 땅이 연하여 보입니다. 두 시간만 날면 서구문명의 중심국인 영국 수도 런던에 도착하여 김영운씨를 만나 볼 생각에 궁금함으로 날고 있습니다. 2개월여에 몇 식구나 전도하였는지 새 식구들과 같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되옵니다. 해는 서쪽 구름 속에 가리기 시작하니 산야는 검은 빛이 찾아듭니다. 도버해협을 날아서 뜻길을 높이는 길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영국까지 가면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될 듯합니다. 스페인서 오늘은 관광버스를 타고 궁전과 박물관을 구경하였습니다. 왕궁은 26년간 걸려 건축한 것이면서 구라파 문명이 종합된 예술품이 놀라우리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보아도 3천여 그림이 있는 중에 유명한 걸작품이 많았습니다! 지금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싸여 들어갑니다. 햇빛은 저녁노을 빛을 물들이면서 옆 창으로 펜촉 그림을 아롱지게 합니다. 스튜어디스가 재촉하는 저녁 식사에 할 수 없이 펜을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향 소식을 영국 가면 기대하면서 날고 있습니다. 전체 식구가 무고하고 어머님 몸 건강과 아기들도 무고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마음속으로 그려집니다. 전체 활동상황이 알고 싶고, 또 다시금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일행은 전부 무고하오니 안심하시옵소서. 가까운 식구님들께 문안하여 주십시오. 흰 구름 타고 또 지나서 산야를 펴놓은 정원 삼고 나는 소음소리와 더불어 전망의 일경으로 추억 삼고 자꾸만 지나갑니다. 햇빛도 검은 구름에 가려져서 밝던 기내도 좀 어두워집니다.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65.7.14, 영국행 비행기상에서. (p. 624)

15 효진 엄마, 지금 독일 와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미국 식구와 달리 충성스러운 감이 납니다. 독일은 국민성이 근면한 국민임을 전후 부흥상을 보아서 더욱 느꼈습니다. 전국적으로 60퍼센트나 파괴된, 전국이 폐허가 된 땅을 새로운 국토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금후의 우리 책임이 큼을 절감하옵니다. 독일와서 본부의 소식을 고대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궁금합니다. 오늘은 8월 4일이올시다. 어머님을 생각하는 추억을 품은 날임을 생각하면서, 멀리 기억하면서 작년 이때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벌써 8월 이니 산월이 다 되어 얼마나 염려할 줄 생각하면서 모든 면에서 맡기고 치르기만 바랍니다. 지금 막 외출시간을 준비하고 응접실에 왔더니 새로이 순회여정이 변경된 것을 한국에 보낸다고 하여 갑자기 보고 씁니다. 만일에 새 아기의 이름이온데 남 '흥(興)' 자, 여 '인(仁)' 자로 하면 합니다. 모두들 기도하여 주신 덕택으로 우리 일행은 무고합니다. 명일 독일을 떠납니다. 18일경에 이태리 도착할 예정이옵니다. 그쪽으로 편지 전하시오. 그때에는 출산하셨을 것이옵니다. 다들 문안하고 몸조심하십시오. 자꾸만 고국을 찾아갑니다. 아이들 잘 있는지요? 그리고 협회 장한테 의논하여서 내가 미국 떠날 때에 손수건 가지고 간 것과 같은 것 20개를 마련하여 같은 도장을 찍어서 두시도록 하시오. 선물을 사서 가지고 가려면 도저히 무게 때문에 불가능한 연고이옵니다. 돌아가서 선물 대신한도록 하십시오. 모두들의 평강을 바라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줄에 이태리 숙소가 변경된 것이올시다. 1965.8.4, 독일에서. (p. 625)

참아버님께서 식구들에게 보내신 편지

16 효원씨와 여러 식구들께. 그간 다들 안녕들 하셨지요? 모두들 멀리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작별한 지가 20여 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나던 날, 여러 식구들의 과대한 환송을 받으면서,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감개무량한 바 컸습니다. 1천여 명의 청춘들이 한 분 스승에 대한 성심어린 환송심을 보낸 데 하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늘의 영광이 되기만을 바라고 마음으로 죄송함을 돌렸습니다. 식구들 앞으로 손을 흔들면서 돌아서 작별을 고할 적의 결의는 지금도 심중에서 서리고 있습니다. 잘 싸우기를 바라는 마음, 잘 순회하여 금번 천정의 높은 의의를 다짐하면서, 광장을 돌고 데크를 향하여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 것이 생생합니다. 최후로 탑승대를 오를 때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40여 성상을 같이한 고국 땅아, 잘 있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회였습니다. '고국 땅이여, 식구들을 잘 양육하여 잘 지켜 달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탑승대를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식구들의 환성이 높아질 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기도로 답하면서 비행기로 들어갔습니다. 좀 더 식구들을 향하여 보려고 하였으나 승무원의 권고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착석하여 작은 원형의 창으로 내다보면서 2개월간 잘 있기만을 빌면서 있던 중 출발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는 움직이기 시작하여 볼 수 없게 되어 수분 후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김포공항을 점점 더 높이 올라 1만여 미터 이상의 상공으로 고도를 취하여 동경으로 향하였습니다. 한국이란 고국 땅을 지나 일본 땅이 보이기 시작한 후 곧 시간이 되어 동경 착륙의 신호와 함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식구들 다수의 환영을 받으면서 데크를 내려서 보니 짙어 가는 황혼에 하네다 비행장의 네온사인과 밝은 전기불빛이 자극되었습니다. 순간 일본 식구 전체는 선생을 알아보고 큰 환성으로 영접하는 망대 앞으로 가면서 답의를 표하면 공항세관을 통하여 출구를 나가니 전체 식구의 영접에 묻혀 버렸습니다. 그 후 동경 교회본부로 고속도로를 통하여 달려 40분 후에 도착하였습니다. 도로 주변을 통하여 보니 20여 년 전과는 판이하게 발전한 면모를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식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집회로 들어가 처음으로 일본어로 소감의 일단과 일본 식구들의 새 각오를 높이는 말씀을 전하고 12시 이상 지내고 동경의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15일간은 순회기간으로 바쁜 일정을 짜 가지고 일본 전국을 순회하고 12일에 미국으로 향하였습니다. 도착은 12일 아침 5시경이었습니다. 이색적 풍정을 느끼면서 환영 나온 미국 식구들을 기쁨 가운데 만나면서 공항을 지나 자동차로 교회에 도착하여 식구 앞에 인사말씀과 환영 화동회를 맞치고

미국의 생활을 시작하여 여러 명승지와 도시의 중요지를 채택하고서 수일이 지나서야 멀리 한국을 생각하고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 보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가호가 있기만을 바라며 복잡한 일정을 보내며 많은 수고를 하면서 지낼 줄 알면서 염려를 안 하려 합니다. 19일부터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전 미국, 전 미주를 순회할 노정을 출발할 것이며, 워싱턴DC는 3월 24일, 25일경에 도착할 예정이오며 40일 가까운 일정이 미주 순회에 소요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정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낼 터이니 소식 전하려면 그곳의 주소로 편지하여야 될 것이옵니다. 그 후의 일정은 차후로 알릴 터이오니 그리 아시고 수고 많으나 참으시면서 큰 사명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식구들, 안녕하십시오. 1965.2.15, 상항에서. (p. 626)

17 제식구들 앞에. 고국이 무고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하여 준 소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떠날 때 고국산천은 동절기였는데, 지금은 봄도 지나고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연이 변함과 같이 뜻길도 변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멀고 먼 삼천리강산인 고국을 그리곤 합니다. 40여생을 눈물과 피땀을 적셔서 얻은 그 땅과 민족, 그중에서도 식구들을 어이 잊을 수 있으리오? 장래의 평안한 조국과 식구들의 안강을 꿈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아무리 외국의 문화가 높고 크다고 한들 심정을 두고 연결한 그 숭고한 힘 앞에는 자연히 머리를 숙이는 감이 납니다. 같이 고생하면서 섞어 온 정과 모든 것보다 더 강한 힘은 시대와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함을 절감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고국산천을 잊으리오? 전일에 선생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도하던 심정과 어떤 타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통절함이 여러 나라를 방문할수록 체험되리라고 느낍니다. 일본과 미국을 찾아갈 때 우리 조상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후손된 우리 시대에라도 그 책임을 탕감하여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통일식구의 입장이 그러함을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길게 참고 싸워 나아가야 하겠는가를 생각하니 우리의 갈 길에 있어서 또다시 십자가를 목표로 하여야 될 줄 더욱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비참사보다 하늘의 비참사가 더욱 큼을 느낍니다. 천주를 위한 역군인 통일신도들이 가는 길을 바라볼 적에 우리의 불쌍함도 크지만 우리를 지도하여 이끄시는 하늘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누가 짐작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큰 과오를 가져온 인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민망함과 초조함에 목이 메어 울고만 싶어집니다. 그러나 또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상하의 운명을 결하여야 할 제물적 입장에 있는 우리는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제단에서 떠나서는 안

될 희생물임을 망각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의 힘듦도 있지만 세계의 더 큰 힘듦이 남아 있는 줄 알아야 할 우리이니 참고 국가적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세계적 골고다까지 넘고 의기당당하게 전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국가적 십자가와 세계적 십자가를 향하여 용진하는 젊은 투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외국을 거치면서 금후의 계획을 위하여 세계적 기반을 준비하여야 함을 절감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청년들을 각국으로 파송할 작정입니다. 금년에 12개국 이상이 되어야겠고, 더 나아가서는 빨리 20개국을 펴놓아야겠습니다. 외국 청년 식구들이 본국 청년 식구들한테 지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것을 보고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워싱턴DC에서 브라질 선교사의 임무를 띠고 온 일본 청년을 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21세 청년으로 언어도 도무지 모르면서 생명을 각오하고 타국을 향하는데 그 통일 청년의 용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국에 있는 제식구 여러분, 본국의 위신과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는 국내에서라도 천적인 요구에 임하는 책임을 다하여 주기를 외국 식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국은 고생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린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본을 전 세계 통일 청년들 앞에 전통으로 남겨 줘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더 높은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 참고 가 보면 광명의 내일이 우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본국의 가뭄이 심한 모양인데, 우리는 그럴수록 충성할 길이 찾아올 줄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고로 선생님은 제일 더운 시절에 출발하려고 하지요. 외국 땅에 더운 땀을 흘리면서 고국 땅에서 수고하는 식구들의 땀과 어려움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7월 1일이 내일인데, 이제 미국 생활은 한 반을 남기고 있구먼요. 나는 제식구들의 장래와 하늘의 책임을 통한 충성을 세계 처처에서 빛내어 보려고 합니다. 외국 역방은 전체가 함께함을 편지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하늘의 보호가 나보다 제식구들 앞에 있기를 빌 뿐입니다. 쓰다보니 또 고생하라고 하면서 씁니다. 그러나 가야 할 운명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스승의 길과 아버님의 길을 상속하는 자들의 세계는 우리 한민족을 향하여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갑시다. 힘껏 충성합시다. 또 하계 전도기가 찾아옵니다. 3년 노정과 4년노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정과 세계 사정을 보아 미루어 참고, 죽지 말고 남아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떠나면 10월 중순에나 조국에 도착하겠습니다. 많은 식구들의 편지에 회신 못함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외국의 소식을 전하지 못함을 양해해야겠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많으나 송별의 시간이 되엇, 선생님의 출석을 고하는 찬송 소리에 중간에 그칩니다. 서울의 보고에 의하면 식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

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식구들 앞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의 건강을 바라고 천적인 사명에 충복이 되기를 바라며 난필로써 실례해야겠습니다. 내내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제식구들 앞, 선생님으로부터. 1965.6.30, 워싱턴DC에서. (p. 628)

참아버님께서 흥진님에게 보내신 편지

18 흥진아! 점잖고 열심 있는 우리 흥진아, 아빠 엄마 보고 싶지? 아빠 엄마는 우리 흥진을 제일 사랑한단다. 그러니 참 보고 싶단다. 미국에서 한국 제일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다. 26일에는 뉴욕으로 간다. **형** 누나 동생들까지 사랑하면서 잘 있겠지? 아빠 엄마 돌아가면서 퍽 많이 컸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하여서 형님과 누님께 자랑하여야 되고…. 미남자 흥이니깐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복 많이 받아야 한다. 정말 보고 싶다. 그럼 안녕. 1972.12.24, 샌프란시스코에서.

참어머님께서 효진님에게 보내신 편지

19 효진아, 보고 싶구나. 언제나 불러 보고 생각나고 달려가 안아 주고, 떼어 놓고 싶지 않은 착하고 귀엽고 귀하고 사랑스런 아들이로구나. 너희의 부모를 사랑하는 하늘의 마음 또한 이러하니 효진아, 일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너희는 행복한 하늘의 아들이요 딸이다. 자나 깨나 항상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작은 일에서 큰일에 하늘과 의논하고 하늘을 앞세워 생활하는 너희가 되어야 더 큰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신단다. 우리의 효자, 효진! 하늘의 효자요, 땅의 효자요, 온 우주의 효자, 효자의 본이 될 우리의 착하고 슬기로운 효자 효진, 사랑한다. 저번 어린이날 전화로였지만 너의 늠름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뜻을 따라 항상 바쁜 생활로 너희와 지내는 시간이 적어 무척 아쉬우나 엄마도 아빠도 네가 있으므로 든든히 생각한다. 효진아, 넌 보통 아이들과 다르단다. 딴 아이들과 어울리더라도 너의 근본을, 하늘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 남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너의 실력을 풍부히 키워야 한단다. 그러려면 남들이 잘 대도 너는 노력해야 되고, 일분일초가 아쉬움을 느껴야 된단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학박사들을 다 능가해야 되겠지. 우리 효진은 무엇이든 하면 해낼 수 있지. 아빠 엄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때 아빠 엄마 많이 많이 깜짝 놀라게 해줄래? 효진아, 사진 몇 장 보내니 흥진과 함께 보아. 흥진을 많이 많이 사랑해 줘. 넌 형이니 아빠 대신이지. 맛있는 거 생기면 먼저 흥진에게 주고, 좋은 것 있으면 동생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형이요 동생 아니니? '아빠 엄마, 나보다도 흥진 동생을 더 사랑하세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멋진 형님이 될 거지? 멋진 것은 옷을 잘 입어서 잘생겨서만 멋진 것 아니야. 이것은 다 껍데기야. 맘이, 맘가짐이 멋져야 진짜 멋쟁이란다. 효진은 잘 알 거야. 아빠 엄마는 너에 대한 큰 꿈이 있단다. 멋쟁이, 진짜 멋쟁이 효자 효진의 꿈 말이야. 엄마는 기다리고 항상 기도한단다. 건강하여라. 안녕. 1973.5.12, 벨베디아에서. (p. 629)

제2장 참부모님 미국 섭리와 공개강연

1절 참부모님의 미국 섭리 출발

어렵게 성사된 미국 노정

제3차 세계순회는 참부모님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세계선교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초반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한국 출발에서부터 일본을 거쳐 캐나다, 미국 도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하시어 미국을 중심한 세계선교를 진두지휘하시게 되었다. (p. 630)

1 1959년에 세계적 기반을 닦기 위해 미국에 선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3년노정을 통해 피 흘리는 노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난히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을 것입니다. 시급한 천의와 천적인 사명을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중심삼고는 미국을 요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1년 미국에 갈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돌파했으니 미국을 돌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78-316, 1975.06.10) p. 630

2 우리가 처음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려고 했을 때는 한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사태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일요일이라 수속을 못한 것입니다. 외무부 여권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놓아야 되는데 못 받아 놓았습니다. 일요일에라도 나가야 할 텐데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못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국 30분 전에 여권과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역사입니다. (060-225, 1972.08.17)

3 1971년 내가 미국으로 떠날 때에는 식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어서, 3년동안 미국에 대한 세계사적인 사명을 감당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감을 느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국민을 어떻게 3년 동안에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신앙의 길로 방향을 설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 거대한 나라에 갔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못 떠났을 것인데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서 출발하여 일본에 들르니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험을 해서라도 미국에 들어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 캐나다로 들어가서 그 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통일교회 식구들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나에 대해 미 국무부가 무엇을 들고 나와서 입국 허가를 해주지 않는지를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관에 가서 알아본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온 보고는 '레버런 문은 1967년 이후에 공산세력과 하나되어 협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는 통고였습니다. 누가 통일교회 문 아무개라는 사람이 공산당과 한패가 되어 협조했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항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하의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국무부에 연락했는데 그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자기들의 보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할 수 없이 나에게 비자를 내주어서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70-034, 1974.02.08) p. 631

4 캐나다에서 며칠만 연장되었다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악한 세력이랄까, 보이지 않는 사탄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그 길을 백방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워싱턴 DC로 가려고 하는데 원하는 시간에 가는 비행기 편이 없었습니다. 그때 리틀엔젤스예술단이 1971년 12월 18일에 케네디센터에서 공연하는 그 시간까지 거기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에 맞추어 도착해야 되겠는데 비행기 편이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쌍발기를 타고 아주 낮게 날아 산골짜기를 거쳐 6시간 만에야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070-035, 1974.02.08)

미국 중심한 세계선교 섭리 배경

1971년 12월 18일은 참부모님께서 미국 입성을 통해 세계섭리 노정을 본격적으로

출발하신 역사적인 날이다. 그리고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에서 활동하신 3년 간은 참부모님께서 미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기간이다. 특히 하늘 편 아벨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선교의 탄탄한 기틀을 닦으셨다. (p. 632)

5 종족적 메시아권을 세우려면 국가적 기준과 세계적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메시아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가정적 기준을 넘고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 세계적 기준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했던 사람이 실패하면 두 번 쓰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 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도 40년 동안 2세를 통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실패한 1세를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버님과 하나되지 못함으로써 40년을 중심삼고 소생 구약시대와 장성 신약시대를 사탄 앞에 다 빼앗겼으니 기반이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권, 신약 기독교권이 이루어져야 성약 완성권이 세워집니다. 소생과 장성이 세워진 후에 완성이 세워지고 구약과 신약 위에 성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사탄세계로 갔으니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미국을 하늘 편 아벨 국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을 택했으니 그 기간에 미국을 해방해 주어야 합니다. 현대의 로마인 미국을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세계로 연결시켜서 세계적인 판도를 세워야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로마의 연장인 세계 판도이기 때문에 국가기준과 가정 기반을 중심삼고 전국적인 판도를 우리가 확대해야 됩니다. (234-152, 1992.08.10) p. 632

6 제2차 7년노정 기간은 국가적 기준입니다. 제3차 7년노정은 세계적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계복귀 노정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들르면 들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한국에 와서 싸워야 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대신 한국에서 싸우던 이상 세계문대에서 이 3년 기간에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미국 조야를 움직여야 됩니다. 한국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금후의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3년 기반을 닦아 나노은 것입니다. 통일교회와 부모님 가정을 중심삼은 21년노정이 미국에서 끝나는 날에는 통일교회 가정을 중심삼은 승리의 판도가 세계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적 세계권을 확대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079-117, 1975.06.22)

7 1972년부터 남은 9년을 넘기는 날에는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종교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같이 합니다. 전부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말뚝을 박고 줄을 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금년에도 미국을 중심삼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뉴욕에다 집을 샀고, 앞으로 워싱턴DC에도 집을 사서 대대적으로 세계적인 교육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상원의원들이나 저명한 인사들과 연결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고, 대학 교수들을 중심삼고 아시아협의회로부터 세계협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공산세력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063-200, 1972.10.14) p. 633

8 복귀는 외적인 것에서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적인 기준이 되어 있더라도 외적인 기준, 몸적 기준을 수습하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됩니다. 구교는 외적 기준인 몸 부분이고, 신교는 반대를 받는 입장인 마음적 기준입니다. 신교인 미국이 구교인 유럽의 모든 것을 200년 동안 전수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옮겨서 세계의 신교와 구교를 연합하고 외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통합해서 일어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 여기에서 기독교문화권이 승리한 것입니다. 비로소 역사 이래에 안팎을 통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안팎을 통일한 때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통일 기반을 가졌습니다.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를 비로소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통일한 때는 2차 대전 직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인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만들어 나라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계적 무대에서 나라를 찾는 입장에 서게 되니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311-115, 1999.08.29)

9 내가 나라를 배후에 두고, 한국 식구들을 뒤로하고 미국 땅에 홀로 나타날 때의 그 비장한 심정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뜻으로 이 미국 대륙을 내 손아귀에 넘겨 주시고 내 손아귀에 쥐어 주시옵소서. 나는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아버지 앞에 복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폭풍우가

불어고고 수난길이 첩첩이 가로놓일지라도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행할 것입니다. 이미 쇠고랑을 차고 FBI(연방수사국)와 CIA(중앙정보국) 철창 안에서 잠잘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085-131, 1976.03.02) p. 634

10 내가 미국에 가자마자 1972년부터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상원의원들, 내가 필요하다는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들을 중심삼고 백악관을 어떻게 움직이고, 상하의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신앙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미국 전체를 사상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전 세계 공산세력이 오늘날 미국을 최고 적수로 여기고 화살을 사방에서 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국가적으로 확고한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산당은 신을 부정하지만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중심한 경제체제의 세계관을 중심삼고 나오는 하나의 종교 형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물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공산당이 가는 길입니다. 이들은 소원성취를 위해서는 사탄마귀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길 앞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지장만 있으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세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늘 편에서도 모든 국가를 대표한 미국이 확고하게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070-100, 1974.02.09)

11 아버님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때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별스럽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 있지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비록 머리는 까맣고 얼굴은 황색,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만은 하늘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순수한 미국인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 속해 있는 내가 아니라 미국을 위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모든 수난을 달갑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어려운 일을 남의 일이 아닌 내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071-123, 1974.04.29)

12 내가 1971년에 미국 땅으로 건너갔을 때에 '너희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미국이 민주세계를 대표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망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미국 기독교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나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 불쌍하게 몰리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필요하지 않으냐? 됐든 안 됐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며 혈혈단신으로 미국 대륙에 발을 디진 것입니다. 민족을 뒤에 두고 쫓기는 신세의 일신이지만 이 미국 백성을 내 백성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운명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살 수 있는 마당이 내 앞에 왔으니 환희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077-120, 1975.04.01) p. 635

13 내가 미국에 가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노정 가운데서 로마를 움직여 세계평화의 기지를 형성하려다가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내가 형성하겠다. 3년 안에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삼척동자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민족의 반역자로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114-086, 1981.05.17)

14 우리에게는 한민족을 붙들고 세계의 공산권을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담판기도를 해야 될 3년노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 기반을 세계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1972년 가을이 되면 12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기동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국내에는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의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애국을 했습니다. 애국자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을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제2차 7년노정이 끝나게 되면 수고한 사람들을 전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활동하면서 유럽 일대의 선진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순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감독요원들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056-224, 1972. 05. 14)

15 지금 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용서보다는 책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사적인 희생, 여러분이 상상 못하고 여러분 선조들이 하지 못한 역사적인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 벨베디아에 와서 아버님을 만나지만 아버님은

일선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생각합니다. 순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상하의원 가운데서 이름난 사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대개 다 만났습니다. 그다음에는 세계적인 학자들 몇몇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선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나 깨나 일체를 아버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066-071, 1973.03.17) p. 636

16 미국이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닦에 하기 위해 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을 중심삼고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라의 각 주 지도자이니만큼 말하자면 가인적 존재입니다. 그들이 내가 움직이는 데에 관심을 갖게끔 해야 영계가 상대가 되어서 우리 뜻을 펼 수 있는 영적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기반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사람들을 전부 만나고 있습니다. (066-217, 1973.05.07)

17 예수님을 중심삼고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하나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유대교가 하나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반대하고 교회도 반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책임자들, 이스라엘 주권자와 같은 사람들이 뜻을 대해 반대하지 않는 기반을 닦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고 그다음에는 교회 책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라의 최고 책임자를 만난 후에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책임자를 불러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정부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밀어댈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계가 지상을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나라가 합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영계는 지상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이 연락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버님으로 인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소생·장성·완성이 평면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영계 전체가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닦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그것을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066-218, 1973.05.07) p. 637

18 아버님은 일생을 중심삼고 보면 미국에서 보낸 기간이 1972년부터니까 햇수로 27년입니다. 아버님의 일생에서 40년 복귀노정의 절반 이상을 미국

에서 보낸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중요한 때를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아버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기반을 닦아서 결실할 때 왜 미국에 투입했느냐 하는 것이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남긴 세계적인 실적 기반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실적 기반인 이 기독교 때문에 미국에 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성신의 역사가 어머니 역사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아버지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성신이 부모의 자리에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이니 형제가 하나되어야 할 텐데 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11-114, 1999.08.29)

19 금년에 미국에서 대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만 7개월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1974년까지 하면서 미국의 중요한 책임자들과 교회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부모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서 그들을 전부 횡적으로 연락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의원들도 부모님과 관계맺으면 여러분한테 묶어 줍니다. 지방에 묶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방은 가인 아벨 복귀 기반이 됩니다. (066-218, 1973.05.07)

미국 정착과 승축일 선포

참어머님께서는 1973년 2월 26일, 참아버님께서는 4월 30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미국 중심으로 세계선교를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다. 특히 1972년부터 1974년까지 3년 기간은 예수님의 3년노정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결시켜야 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시고, 1973년 7월 1일 미국 벨베디아수련소에서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세계 10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7년노정에서 세계적 승리의 발판을 닦은 것을 축하하는 기념일인 승축일(勝祝日)을 선포하셨다.

20 여러분은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세계 도상에 여러분을 내세워서 고생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으로서는 모르는 사정입니다. 아버님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1972년부터 3년간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탕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3년간에 부모가 못 되었고 자녀를 못 가졌던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기준이 이 3년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하고 민족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적 기반으로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계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에서 부모님이 미국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067-076, 1973.05.20) p. 638

21 독일 사람, 일본 사람은 미국 사람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미국에 와서 생명을 내놓고 미국을 구하자고 하고, 독일 사람이 와서 생명을 내놓고 미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독일 사람과 일본 사람을 미국에 데려와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대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내에 기반을 못 잡는 날에는 일본과 독일에서 온 통일교회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나도 추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방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순회강연이 끝난 후 1973년 4월 30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이내에 완전히 기반을 닦아 미국 사람들로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원수 관계의 일본과 독일 사람들을 교재로 삼아 미국 청년들을 교육하였습니다. (114-087, 1981.05.17)

22 1973년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을 중심삼고 그야말로 영적 기반, 세계 기독교 판도를 부활시키는 기준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영계의 모든 승리적 기준을 세운 것이 됩니다. 한국에서부터 세계무대로 기독교문화권을 연결한 기준 위에 승리적인 실체 실적 기반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님이 한국에서 축복가정들을 동원해 이룬 것을 기반으로 1971년에 미국에 가서 1973년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서 승리한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적 기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영적 기반을 닦아서 1973년 4월에 미국 영주권을 얻고 1974년 12월 24일에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에 결정적인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165-029, 1987.05.19)

23 미국을 중심한 섭리를 추진시키는 것은 기독교가 통일교회를 반대함으로써 세계의 영적 기반이요 세계적 기독교 중심인 미국까지 침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통일교회가 미국에 가서 반대받지 않고 환영받음으로써 기독교를 부활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입장에서 반대했지만 미국이 세계적 입장에서 환영했다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가적으로 실패한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미국 전역에 걸쳐 순회강연을 하고 유럽에까지 연결시키는 대회를 하면서 외적 세계의 기반을 닦아 나왔습

니다. 미국의 기독교라든가 그 나라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단시일 내에 석권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주로 한 전 자유세계가 여기에 기치를 높이 들고 환영하는 날에는 세계적인 권내에 있어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재차 나아가지만 반대하는 날에는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1973년 4월 30일에 영주권을 받은 것입니다. (110-129, 1980.11.10) p. 639

24 아버님이 이 땅 위에 재림주, 신랑으로 와서 신부 되는 어머니를 모셔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던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통일원리로 볼 때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인연을 통해 자식을 번식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간접주관권을 완성한 기준, 즉 직접주관권 내에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완성기준을 남긴 장성기 완성급에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7년노정을 놓고 사탄권 내에 떨어져 들어와서 가정을 가지고 모진 풍상을 겪어야 됩니다. 부모님 가정이 제물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이 생전에 당하던 입장을 재현시켜 그것을 민족·국가·세계의 기준을 총합한 기반 위에서 탕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제거했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천리의 도를 순리의 기준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섭리사적 운명을 짊어지고 미국을 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의논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버님 외에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1971년 미국 땅에 내리게 될 때 아버님은 무명의 한 청년 같은 모습이었지만, 3년 만에 미국을 뒤집었다 놓아야 되고 12년 이내에 하늘 편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인류역사를 대표해서 누구보다도 아벨을 사랑하였습니다. 실천노정에서 승리적 패권을 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이상 심정적 기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곡시킬 수 있는 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인류를 붙안고 해원성사란 원한의 터전을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36-239, 1985.12.29) p. 640

25 1973년 7월 1일 미국에서 '승축일'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념의 날을 한국에서 제정했지만 세계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날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교회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마련한 날입니다. 승축일는 제2차 7년노정에서 남은 3년 중에 절반의

고비를 잘 넘었기 때문에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고비를 모두 잘 넘었기 때문에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사탄이 반대하더라도 반대할수록 무너져 내려갑니다. 옛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원한 장래에 통일교회가 전국에서 태풍 같은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권자도 빼낼 수 없는 기반을 닦아 나왔습니다. (068-159, 1973.07.29)

26 부모님이 미국에 오자마자 손을 대서 1년 이내에 미국 교회 자체 내에 정비 기반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1973년 7월 1일에 승리를 축하하는 날인 승축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삼고 이 세계에 발판을 닦을 수 있는 승리의 초점을 성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내적인 승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승리의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973년에 전 미국에서 활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1973년과 1974년에 40개 도시에서 대강연회를 함으로써 아버님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준에서 미국 대통령과 관계를 맺는 데까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072-277, 1974.07.01) 참부모경 p. 640

2절 세계통일십자군 활동

세계통일십자군 편성

참부모님께서는 1972년 제3차 세계순회 기간에 미국(50명), 영국(15명), 독일(오스트리아 포함 60명), 일본(600명), 한국(360명)의 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통일십자군(국제기동전도대)을 결성하셨다. 국제기동전도대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전위대로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1973년 새해 벽두부터 수련회를 열어 국제기동전도대의 조직 편성 및 활동 방침을 세우셨다. 1월 31일 유럽 식구 국제기동전도대 조 편성을 지휘하시고 99명을 10개조로 만들어 2월 1일 미국 각지로 배치하는 등 국제기동전도대 활동에 전력을 투입하셨다. (p. 641)

1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교단의 입장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과 전 세계 인류를 대신해서 아벨적인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 1월 8일에 미국에서 새로이 세계통일십자군이라는 명칭의 세계적인 조직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 세계통일십자군의 본부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세계의 십자군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군이란 원래 중세시대에 여러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와 싸워 이스라엘을 탈환하기 위해 나선 원정

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이스라엘권을 탈환하는 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이 공식적인 원칙을 따라서 하게 될 때에는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고 세계를 제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은 결론입니다. (056-128, 1972.05.14) p. 641

2 1972년부터 3년노정 기간은 세계 최후의 통일전선을 수호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도 이 3년노정을 거쳐야 되고 세계도 3년노정을 넘어가야 합니다. 3년노정을 넘어가야 할 세계적 운세권 내에 왔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총집결해야 됩니다. 영계가 총동원하여 협조할 수 있는 때이니만큼 지상에서 세계적으로 총동원 명령이 내려질 때를 대비해 준비해 왔는데 그것이 국제기동전도대 편성입니다. (065-222, 1972.11.19)

3 한국에서도 아버님을 무서워하고 일본이나 중국의 고위층 사람들도 아버님을 상당히 무섭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누구의 협조를 받지 않고 아버님 혼자 맨주먹으로 닦아 나왔습니다. 누구의 후원이나 원조도 없었고 의논할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제일 든든한 분입니다. 이후에는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자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사건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고, 지금까지 인류의 소원을 성취하고, 역사적인 희망의 나라를 개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탄의 선봉인 공산세계를 타파해 버리고 승리의 기반을 닦는 용사들이 되겠다고 결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개문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진 용사로서 단결하여 총진군해야 됩니다. 이러한 평화적 십자군을 편성하기 위해 제3차 세계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계통일십자군이라 지었습니다. 미국 십자군, 독일 십자군, 영국 십자군, 이 세 국가가 하나되어 공산세계를 방어할 수 있는 때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054-168, 1972.03.23) p. 642

4 아버님이 초민족적이요 초국가적인 입장에서 세계적인 십자군을 형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통일십자군입니다. 하늘이 택해 세운 이스라엘 나라, 하늘나라의 성전을 지키고 하늘나라 성전을 쟁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규합하여 이슬람권과 싸운 군대가 십자군입니다. 그런 싸움을 만일 예수님시대에 예수님을 중심삼고 했더라면 실패했겠습니까? 그때에는 지상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포위되면 아버님이 미국에 가서 기반을 닦아 미국 청년들을 동원하여 '한국을 탈환할지어다.'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군을 편성해서 북한 이상으로 동원하게 될 때에는 문제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하고 남북한의 원한의 구렁텅이인 삼팔선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한민족이 단결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와 더불어 세계의 민족들이 가담해서 대한민국을 협조할 수 있는 터전을 넓히자는 것이 아버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원정부대가 곧 편성되어 들어옵니다. 역사 이래 세계통일십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군대를 편성해서 횡적인 자기 나라와 민족을 대하여 '하늘로 돌아갈지어다.'라고 하며 싸움을 전개한 교회 혹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난시에 일선에 나간 군대를 자신이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민족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군이고 기동대고 무슨 군대냐?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라.'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망하게 마련입니다. (057-348, 1972.06.05)

5 1974년까지 영적 3년 기간을 중심삼고 기독교문화권을 연결시켰다면 이제는 육적 3년 기간을 중심삼고 육적 세계 기반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978년까지 이 기간에 영적 육적으로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3차 7년노정 기간에 영육을 중심삼은 세계적인 탕감복귀의 기반을 서구사회에 닦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사명입니다. 영육을 중심삼은 세계적 기반을 완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는 미국에서 모든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냥 그대로 세계로 밀고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1975년부터 세계로 밀고 나갑니다. 그것이 국제기동대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세계를 향해 한 걸음 옮겨 놓는 운동입니다. (074-205, 1974.12.15) p. 643

세계통일십자군 조직과 활동 International one world crusade

세계통일십자군(국제기동전도대)은 세계복귀의 사명을 하기 위해 초국가·초민족적으로 활동하는 하늘나라 평화군단이다. 국제기동전도대는 미국 각주에 파송되어 전도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지에서 개최된 각종 집회, 특히 '희망의 날'대향연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였다. 미국에서 개최된 40개 도시 대강연회를 승리한 여세를 몰아 300명의 대원이 1975년 1월 15일 일본에 도착하여 활동한 데 이어 26개국 673명이 시모노세키에서 페리호 선편으로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여기에는 일본대원 300여 명이 가세하였다. 3월 27일 참

아버님께서는 부산항에 친히 나가 이들을 맞이하셨다.

6 한국에서 1970년부터 1973년까지는 최고의 고비를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 넘어가면 국제정세가 변천되어 국가적으로 북한이 행동할 수 있는 때가 지나갑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범할 수 있는 운세는 엇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적인 때가 1977년 197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주력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계적인 방어선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85명을 동원해 새로운 부흥단을 조직해서 버스 2대로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는 버스 10대를, 1974년에는 50대를 마련해서 기동대원 2천명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 방어선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상하원을 통하여 공산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 뜻을 중심삼고 우리와 일치만 되면 세계 공산세력을 막아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054-159, 1972.03.23)

7 1972년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동원하여 기동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희생을 각오하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희생을 각오한 입장에서 개인적·가정적·종족적·민족적·국가적으로 사상이 결핍된 미국 국민 앞에 새로운 우리 사상을 주입시키고자 나선 것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973년에 400명, 1974년에는 2천 명을 어떻게 하든지 동원하여 각 주에 적어도 버스 한 대를 중심한 기동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1977년 1978년의 미국 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기독교를 규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기독교 사상을 중심삼고 새로운 전통을 확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미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미국 하나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뜻을 알고 하늘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초월하여 여러분을 대하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53-256, 1972.02.29) p. 644

8 미국에 있는 식구를 중심삼고 국제기동대가 활동하는 기준을 급속한 시일 내에 평준화할 것입니다. 이제 50개 주에서 한 달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입니다. 700

명을 동원하여 1년에 열두 사람씩 확대하게 된다면 8천4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기동대를 내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씩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중심삼고 전 미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여기에 따라라!'라고 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 기동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1974년 안에 이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책임자를 만들어 각 주에서 70명 단위로 기동대를 편성하고 거기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식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그 자체 주를 중심삼고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4개 도시나 5개 도시에 기동대를 만들어 한 달씩 그렇게 하여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대책을 취해서 기반을 닦아 3만 명 이상만 돌파하는 날에는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70-187, 1974.02.09)

9 지금 국제기동대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정예부대인 국제기동대 360명을 빼낸다는 것은 미국에서의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만을 위주로 할 수 없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움직이는 것같이 평균화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전을 해놓아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과 한국, 그다음에 유럽에 들어가서 영국을 중심삼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5개 국가에서 활동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소문이 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소문이 났던 그대로 전 세계에 소문을 내고 선전을 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자극을 받게 되고, 자동적으로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표준형으로 세계의 각 선교국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원칙을 중심삼고 앞으로 조직적인 체제를 강화하고, 선전이나 모든 면에서 그 기준을 중심삼고 강력히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작전입니다. (075-082, 1975.01.02) p. 645

10 아시아인을 통하여 미국 사람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금후 작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시아인 가운데 누구를 써야 되느냐? 한국 사람은 경제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여건에서 외국에 나가려면 비자라든가 여권에 문제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달러가 소모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외국에 안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초청장만 오게 된다면 3일 이내에 여권이 4년 기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일본은 해와 국

가이니만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 사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 손길을 거쳐 가야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일본을 내세워서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계획입니다. (055-345, 1972.05.09)

11 아버님이 영국에 가서도 기동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센터를 사 주고 왔습니다. 독일에 가서도 미니버스 6대를 사 주었습니다. 또 여덟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동 트레일러식으로 된 카라반 6대를 사 주었습니다. 그것을 늘어놓으면 100미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거창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그들이 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 영국과 독일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에게 지지 말라.'고 하고, 영국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에게 지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서로가 안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는 '너희는 독일 영국 미국 사람들에게 질래, 안 질래?'라고 하니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055-264, 1972.05.09) p. 646

12 독일 에센에 있는 협회본부에 갔더니 정문의 큰 유리문에 총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2주일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위협과 공갈 협박을 하고, 법원을 통해 별의별 모략을 해서 통일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끌려 다니면서 지금까지 싸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일주일 전에 대법원 판사로부터 '통일교회는 이제 어떠한 활동에도 법적 보장을 해줄 테니 어느 곳에서나 활동해도 좋습니다.'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그전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은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협박과 공갈을 하고, 나중에는 총으로 정문에다 들이쏴서 아무나 죽여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뜻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하루가 바쁩니다. 아침에 나가서 8시간 이상 활동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기 책임분담을 다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58-108, 06.06) p. 646

13 우리는 세계적인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기동대원을 격

려하기 위해 세계순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기동대가 미국에 편성되었고, 영국에 편성되었고, 독일이 세 번째입니다. 일본과 한국에도 기동대를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세계를 여행할 때에는 기동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학을 인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한국에 유학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무대를 우리 발판으로 삼아 활동할 수 있는 참 멋진 시대에 태어난 줄 알고 멋지게 싸워야 됩니다. (054-335, 1972.03.31)

14 기동대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지금 5개 국가의 기동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싸우는 목적은 5개 국가를 하늘 앞에 찾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싸움에서 일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싸워 보아야 압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한국이 일등 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토끼가 먼저 달려갔어도 낮잠을 잔다면 거북이한테 볼 장 다 본다는 것입니다. 먼저 왔다고, 남 잘사는데 자기도 잘살자고, 아들딸 다 거느리고 나 잘살자고 눈을 두리번거리다가는 토끼 신세가 됩니다. (058-094, 1972.06.06) p. 647

15 국제기동전도대는 하늘나라의 평화군단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전국을 편답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갈길을 보여 주기 위해서 편성된 기동대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갈 길을 새로이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곳을 중심삼고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더라도 초국가적이요 초민족적인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세계의 새로운 운세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길을 다 열어 놓아야 합니다. 기동대 여러분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발대입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 오래된 교인들보다 더 선두에 섰다는 것입니다. (061-154, 1972.08.28)

16 기동대는 일주일에 한 곳씩 순회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군청소재지를 일괄적으로 순회해야 됩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이 없더라도 순회해야 됩니다. 숙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국민운동을 제기하기 위해서 출발한 대원들이라고 모든 시민들에게 선전하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기동대라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기동대장이 아침 몇시까지 어느 곳에 집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씩 동네 반장에게 가라고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동대원 여러분 이

동네에 가게 되면 우선 반장을 찾아가 선전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서로가 돕기 운동을 하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반에 찾아왔는데 반민 가운데 한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소.'라면서 찾아간 집 한쪽 구석에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간 그 집 대문을 들어서면서 정원이 청소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마루를 닦아 주고, 변소 청소도 해주는 것입니다. 절대 신세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느 집이나 자고 난 손님은 박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대했다가는 그 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룻밤 잔 손님에게는 밥을 먹여서 보내는 것이 한국의 가정 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밥을 얻어먹고는 그냥 나오지 말고 밥값의 가치를 남기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058-118, 1972.06.06) p. 648

3절 미국 주요 도시 순회강연

선풍을 일으킨 순회강연

참부모님께서는 제3차 세계순회 기간 중 미국 영국 독일의 주요 도시 강연회를 주재하셨다. 1972년 1월 28일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 전면에 강연회를 알리는 파격적인 광고를 실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인간의 실수였던가'를 주제로 하는 소설 현상공모는 국내외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참부모님 활동이 세상 앞에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제3차 세계순회에 오르신 지 60일째인 1972년 2월 2일 역사적인 대강연회 개막행사로서 '하나님 대회'를 뉴욕 월가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미국 뉴욕을 비롯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등 7대 도시에서 강연하셨다. 강연회 선전포스터의 주제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였다. 연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신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동방에서 온 새 크리스천 지도자 문선명 선생'이라고 크게 소개되어 있었다. 통일교회는 짧은 기간에 미국에서 선풍을 일으킴으로써 젊은 인력과 강한 조직력 등 강력한 활동기반을 가진 단체로 부각되었다. (p. 648)

1 1971년 12월에 아버님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식구들은 아버님이 미국의 실정에 어둡기 때문에 미국에 왔더라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던 일을 중심삼고 그냥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부흥회를 개최한다든가 대문제를 일으키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또 미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도 미국 실정에 맞게끔 나아가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너희는 내 지시에 따라야 된다. 내가 정하면 정한 대로 움직여야 될 입장에 있으니 폐일언하고 내가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움직여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시했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자기 나라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뉴욕에 가서 링컨센터 등을 계약하여 1972년 2월 6일부터 미국 7대 도시 순회강연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험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을 거치고 독일을 거쳐서 한국에 귀국했다가 1972년 11월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2차년도인 1973년에 대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기에 1973년에 21개 도시를 선정해서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1974년 1월 28일에야 끝이 났습니다. (070-035, 1974.02.08) p. 649

2 1972년부터 3년 기간을 중심삼고 미국의 7대 도시에서 3일간씩 원리적인 3수를 중심삼고 21수를 맞추어 순회강연을 하였고, 그다음에 영국과 독일까지 합해서 9개 도시 순회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1973년에 미국 21개 도시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1974년까지 40개 도시를 중심삼고 작전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어떡하든지 미국 국민 앞에 알려야 합니다. 나쁜 소문이 나겠으면 나고 좋은 소문이 나겠으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아버님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소문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미리 세웠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7천여 무리, 7수는 언제든지 남겨 놓은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일교회 움직임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71-235, 1974.05.01)

3 제2차 7년노정이 끝나기 3년 전에 세계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노정을 끝내고 세계로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2차 7년노정 기간에 세계노정을 연결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에 미국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2차 7년노정이 끝나는 1974년 4월 20일까지 미국 전역에 부모님을 알려야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 3년간은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알리든 저렇게 알리든, 나쁘게

여기든 좋게 여기든 간에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와 타임과 뉴스위크 등 세계적인 언론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072-039, 1974.04.29)

4 우리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아벨적인 기준에서 무엇을 미국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면의 무엇을 주어야 됩니다. 안팎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간에는 아버님이 직접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아버님 일생에 대중에 대해서 공식 집회에 나타나는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은 국가기준에서 세계기준으로 가는 것이지 그 이하에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 시대를 향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이 귀한 때입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에 영계와 인류가 주목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기간에는 10개국 사람들이 가담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067-260, 1973.07.01) p. 650

5 아버님은 1972년 2월 6일 뉴욕 링컨센터 순회강연에서부터 워싱턴DC, 독일 에센 순회강연까지 원고를 가지고 강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가서 즉석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청중을 잡아 쥘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감정을 입체적으로 일체화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다년간 살아 나오면서 경험한 결과입니다. 대중 앞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에 내가 어떻게 잠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말할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말은 보통 때처럼 합니다. 작문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천만 군중을 녹여 낼 수 있는 웅변가는 청중과 그때의 감정에 따라 모든 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수습하면서 여기에 박자를 맞추어서 힘을 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054-180, 1972.03.24)

6 민주주의를 가지고 미국을 살리고 지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미국을 살리고 지도할 수 없습니다. 공산세계도 그 공산주의 여론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부모님이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의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염려하며 기독교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072-277, 1974.07.01)

7 1972년부터 1978년까지 7년간이 미국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미국에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야 1974년까지의 3년노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계적인 제3차 7년노정을 승리의 결과로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묶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중심삼고는 언제나 3년이 필요한데 이 3년 기간이 끝나는 때가 1974년입니다. 3년 기간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섭리관입니다. 언제나 3년을 앞서서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가 3년간을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심삼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체적인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67-264, 1973.07.01) p. 651

8 아버님은 종의 기반과 양자의 기반과 아들의 기반과 부모의 기반을 닦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미국에까지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 기준을 중심삼고 그 기준을 완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지금 미국을 중심하고 세계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유럽 사람들과 합동으로 하는 1974년까지의 이 3년 노정 기간입니다. 한국을 중심삼고 보면 제1차 이스라엘 종의 나라 실패를 복귀한 기준을 세워 놓고, 세계적인 기준에서 양자의 사명을 해야 될 기독교의 사명을 이어받아 세계적 대표의 기준을 세웠다는 조건을 영적인 기준에서 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와서 그것을 연장시켜서 세계적으로 그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기반을 잃어버렸고 양자인 기독교 기반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해서 영적인 기준으로라도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국가적 기준을 중심삼고 세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입장을 연결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의 3년노정 기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아버님이 승리한 기반입니다. 종의 국가기준까지 실패하였던 것을 복귀한 승리의 기반, 양자의 세계적 기반까지 잃어버렸던 것을 복귀한 승리의 기반을 여러분과 세계 각 민족 앞에 상속해 주기 위한 싸움이 이 3년노정입니다. 양자는 되었지만 양자보다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3년노정에서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가려고 했던 것을 대신하여 여러분 자신이 세계적 기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 3년 기간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양자의 시대에서 아들의 권한을 인계받을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운동은 예수님이 말한 신랑 신부를 찾기 위한 세계적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069-149, 1973.10.26) p. 652

미국 주요 도시 대강연회

미국 21개 도시 공개강연회는 1973년 9월 7일 뉴욕타임스에 전면광고를 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참부모님께서도 직접 저명인사를 접촉하시면서 대회 준비를 서둘렀고,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파견된 국제기동전도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폈다. 그 터 위에 1973년 10월 1일부터 1974년 1월 29일까지 4개월간 '기독교의 위기와 새로운 소망'을 주제로 미국 21개 도시에서 '희망의 날' 대강연회를 주재하셨다. 강연 내용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기독교의 미래 등이었다. 참부모님께서는 강연회 기간에 각계 유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와 감사장 격려문 명예시민증을 받으셨다. 32개 대도시 강연회는 1974년 2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독교의 새로운 장래'를 주제로 21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장 개최되었다.

9 아버님이 1973년 말에 21개 도시에서 대강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요전에 한 7개 도시도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4개 도시만 더 고르면 됩니다. 앞으로 뉴욕 수준의 수련소를 워싱턴DC 세인트루이스 덴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댄러스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10월 1일 뉴욕부터 하는 것입니다. 명년에는 50개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누가 아버님의 말을 못 들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한 주에 50명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 식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067-040, 1973.05.18)

10 미국에서 1973년 10월에 21개 주의 대표 도시를 통해 공격할 것입니다. 이래서 반대가 없게 되면 50개주에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공개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1978년까지 미국 전역에 이 붐을 일으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통일교회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통일교회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전체가 한 울타리권 내에서 세계를 향

하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미국이 복귀됩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기준에서는 기독교의 재부흥과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위, 이 두 문제가 점점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리라는 것이 아버님의 관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만 해놓으면 틀림없이 이 미국이 그런 입장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앞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이긴 후에 에서를 찾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와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공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기반을 닦을 후에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이념으로 무장해서 전 세계로 진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세계, 기독교, 공산세계 누가 반대하더라도 문제없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신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067-137, 1973.05.27) p. 653

11 미국에는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10개국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10개국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과 초민족적인 심정을 중심삼고 새로운 기원을 작성할 수 있는 엄숙하고도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목적을 위해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년노정은 1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 3년 기간에 미국이 세계적인 책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대학원생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1972년과 1973년에 60명에 가까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을 만난 것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미국에서 1972년에 7개 도시와 1973년에 21개 도시, 1974년에 50개 도시를 중심한 부흥회를 계획한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을 못 들었다는 말이 없게끔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가나안복지를 향한 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3년간에 다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년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복귀할 때 그 민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라도 빠짐없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적인 3차 가나안 복귀노정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공산세계는 지금 미국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모스크바로 진군해야 되는 것입니다. (067-259, 1973.07.01) p. 654

12 1978년까지는 미국에도 공산당 위협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섭리상으로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통일교회 사상을 중심삼은 기반을 미국 내에 확고히 잡아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명에 해당하는 미국 지도자들에게 3년 이내에 통일원리와 승공이념과 통일철학에 대한 책 3권씩 60만 부를 무료로 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초하루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대강연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21개 도시를 중심삼고 대대적인 강연을 실시할 것입니다. 10월 초하루부터 카네기홀을 얻어서 강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명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067-295, 1973.07.22)

13 1974년 2월 16일부터는 미국에서 순회 대강연을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개 도시를 정해 놓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개인의 욕망이라든가 통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미국에서 금후에 가야 할 새로운 신앙적인 노선을 제시해야 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해 나오다 보니 거국적인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아버님이 많이 알려졌다고 봅니다. 언론계가 동원된 문제라든가 상상외의 문제가 벌어져서 거국적인 문제가 되었고, 더욱이 워터게이트선언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통일교회 식구들이 아버님의 지시에 따라 보조를 잘 맞추어 줌으로써 그야말로 미국 언론계라든가 고위층 사람들이 우리 움직임에 대하여 과소평가했던 것에 대해 전화 혹은 지면상으로 사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움직인 것이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070-036, 1974.02.08)

14 1974년 '희망의 날' 순회강연회 기간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공산세력의 조종이 있을 것입니다. 노방전도대가 활동하는 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와 있다고 봅니다. 뉴욕 집회 때부터 계속 전국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러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섭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보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어차피 반대하는 패로 기울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산세력을 소생급으로 잡으면 기독교가 장성급으로 중간인데 이것은 예수님시대의 유대교와 맞먹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시대에 반대하던 유대교와 마찬가지니까 반드시 반대합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소생권과 장성권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우리는 완성권 기반을 가지고 세계적 기반을 넘어설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민족을 초월해 강력히 하나만 되면 사탄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원리관입니다. 소생권 장성권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완성권에 들어설 때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071-013, 1974.03.24) p. 655

15 내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일을 지금까지 많이 하였습니다. 햇수로는 3년이지만 1년8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한국에서 증명되었고 일본에서 증명되었고, 대만에서도 그런 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1973년 7월 초하루에 승축일을 만들어 놓고 1년 이내에 승한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날들은 서구문명세계에서 하늘로부터 기념할 수 있는 첫째 번 날이요 둘째 번 날입니다. 미국에서 할 것을 한국에 가서 한 것은 한국에도 세계적 운세를 맺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이요 생각도 못하던 일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서 이와 같은 기반을 닦았고 세계가 우리 무대라고 자신할 수 있고 우리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이제는 성공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072-280, 1974.07.01)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희망의 날' 대향연

참부모님께서 1974년 9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미국 8대 도시에서 '희망의 날' 대강연회를 주재하셨다. 앞서 진행된 32개 도시와 합해 미국 40개 도시 대강연회 마지막 일정이었다. 첫날은 만찬회, 둘째 날은 강연회를 열었다. 특히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희망의 날' 대강연회는 당시 미국 종교집회로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는 대회였다. 9월 17일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전야제 만찬회는 1천700여 명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했으며, 6개 TV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의 열띤 취재 경쟁 속에 미국의 유명 영통인이자 예언자인 진 딕슨씨가 참아버님을 증거하였다. 18일 강연회에는 지정석 2만5천 석외에 5천 석의 임시좌석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2만 명 이상이 입장하지 못할 만큼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아버님께서는 '기독교의 새로운 장래'라는 주제 아래 열강을 하셨다. (p. 656)

16 오늘날 민주세계를 두고 보면 미국과 한국은 로마제국과 이스라엘의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제국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때렸지만 이때에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하나되어서 아버님을

때리게 됩니다. 맞음으로써 탕감복귀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기반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죽이지 못하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또 공산세력이 깃대를 들고 와서 아버님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입니다. 아버님을 한국 기독교는 물론 미국 기독교도 반대하고, 미국 사람도 반대하고, 공산세력도 반대하는 이것은 세계적인 모든 것이 반대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아버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세에 전부 밀려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74년 9월 18일 매시슨스퀘어가든 대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대신한 민주세계와 통일교회가 맞부딪쳐서 통일교회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이고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통일교회와 아버님은 죽일 수 없습니다.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073-251, 1974.09.22) p. 656

17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는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1972년부터 1974년까지의 이번 3년 기간은 예수님 당시의 3년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성공했더라면 로마제국에 가서 대강연을 하려고 했던 그 기준가 맞먹는 것입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하나될 수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세계적으로 하늘나라의 뜻이 펼쳐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가 현재 미국의 도움을 받는 한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중심도시가 뉴욕이고 뉴욕 중심부서의 집합소가 이 매디슨스퀘어가든이기 때문에 여기에 폭발적인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은 섭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과 원수 입장에 있었고, 오늘날 미국은 기독교를 중심삼고 로마와 같은 나라지만 로마시대, 옛날 예수님 시대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즉 미국은 하나님이 2천년 동안 수고해서 이 한때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역사적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073-228, 1974.09.19) p. 657

18 우리가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에 2만5천 명, 초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한 번 만나서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 번 만난 그 사람에게 또다시 만나서 효과를 내려면 또 그만큼 노력해야 되지만, 길가의 지나가는 사람한테 정성들이는 것

만큼 집을 찾아가서 정성들이면 그 사람은 도망 안 갑니다. 두 번, 세 번 찾아가 정성을 들이게 되면 그 태도나 순수성이나 현재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다운 것을 생각할 때, 누구나 감동받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그렇게 간곡히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같고 딸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딸은 히피가 되어 있고 집을 나가서 바람둥이가 되어 있는데 '천지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순결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과 내가 친해짐으로써 내 아들딸까지도 교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동의하게 됩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져서 이 젊은이의 권고에 응하게 마련입니다. (072-051, 1974.04.29)

19 우리가 매디슨스퀘어가든 경기장을 빌려 강연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일반 광고회사를 통해 30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미국 뉴욕에서 선전비로 쓰고 있습니다. 외부 회사를 통해 선전하게 되면 비용은 5배 내지 7배가 들어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만 하더라도 각 교파가 협조해서 하는데 아버님은 단독적으로 3년 이내에 전부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미국 청년 600명 이상이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 사실을 뜻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대회를 하는 것을 볼 때에 미국의 어떤 재벌이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는 실패**할** 것이다. 사람들이 안 모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활동한 전체는 그 사람들의 연구재료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많이 문의할 것입니다. (073-134, 1974.08.16) p. 658

20 미국이 세계적인 중심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순회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내가 링컨센터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누가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아버님이 집회 한 번 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네기홀에서 할 때에도 절반, 3분의 1도 못 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강연을 1973년부터 했습니다. 카네기홀에서부터 21개 도시, 1974년에는 32개 도시를 돌며 전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방대한 자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이민문제가 생길 줄 알고 순식간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입니다. 유럽 식구들이 미국에 와서 3년간 아버님과 같이 일을 했는데 이들이 보조를 못 맞추었으면 미국에 기반을 절대 닦을 수 없었습니다. (073-132, 1974.08.16)

21 제2차 7년노정을 종결짓고 제3차 7년노정을 넘어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세계적인 사건에 걸려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때에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까지 올 때에는 영적인 국가적 기준을 중심삼고 연결시켜서 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영적 세계의 기반이기 때문에 영적인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 올 수 있었지만, 육적 기대가 성립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기간 내에 연결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갈라진다 해도 이 통일교회는 미국과 하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기독교권 내에 영육을 중심삼은 국가적 기준 형태의 조건을 세우고 영육을 중심삼은 세계적인 3차 7년노정을 출발할 수 있는 기원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것이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였습니다. 이것을 소생으로 해서 장성과 완성적 대회를 함으로써 1976년 1977년 1978년까지 이 3년 기간에 미국을 뚫고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3년 동안에 영육을 중심삼고 세계적 기반을 닦아야 할 분야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073-233, 1974.09.19) p. 658

22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찾고 그 자리를 통하여 만민을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가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되고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민족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목이 다르고 감정이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몸과 같이 움직인다면, 이 뉴욕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072-300, 1974.09.01) p. 659

23 1972년에 뉴욕 링컨센터에서 강연을 했고, 1973년에는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강연을 끝냈습니다. 3년 기간에 아버님은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전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에는 심각하게 왔던 것입니다. 3년 동안에 미국 사람 전체한테 반드시 이것을 알려야 할 책

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택할 것이냐 하고 지금까지 고심해 왔습니다. 첫째 문제 되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기간에 이 매디슨스퀘어가든을 꽉 채우고도 남는 인원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을 하면서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073-227, 1974.09.19)

24 미국을 중심삼은 제2차 7년노정까지는 사탄이 하늘을 공격하는 때였지만 제3차 7년노정부터는 세계적 기준을 넘어서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을 향하여 공격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인이 아벨을 공격했지만 이제는 아벨이 가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공격을 했지만, 제2차 7년노정에서 1971년까지 탕감조건을 세우고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굴복해야 될 때에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공격받아야 할 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기준을 중심삼고 미국에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2년 부모님이 미국에서 7개 도시 강연회를 한다고 할 때 누구도 성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식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1972년에 강연회를 하는 것도 미국에 와서야 발표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21개 도시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카네기홀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네기홀을 다 채우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였고, 결국은 정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32개 도시에서 계속 강연회를 했습니다. (074-209, 1974.12.15) p. 660

4절 '희망의 날' 한국 대회와 구국세계대회

한국 희망의 날 대향연

'희망의 날' 한국 만찬회가 1975년 1월 16일 저명인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참아버님께서 '위해서 존재하라'는 주제로 강연하셨으며, 이날 만찬회 때 지도층 인사들이 모인 한국의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등장하셨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9대 도시 '희망의 날' 대향연을 주재하셨다. 이 대회는 미국에서의 승리를 한국에 접목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참아버님께서는 '인류의 새로운 장래'라는 주제로 강연하셨다. '희망의 날' 대향연은 국제 기동전도대원들이 앞장서서 활동했으며,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p. 660)

1 제2차 7년노정 완결을 3년 앞두고 아버님은 한 시대를 앞서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기독교가 닦은 기반은 세계적 기반이지만 통일교회를 반대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 기반을 다시 수습해서 통일교회에 연결시켜야 할 영적이나마 세계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될 천의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세계를 대표한 국가요 세계 기독교를 대표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민주세계 국가의 대표인 미국에 건너가 3년 동안 공세적으로 일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삼고 한국에서는 공세를 받았지만 세계적 무대에서는 공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위에 섰다는 사실을 전개해서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될 때, 그들이 반대하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1974년 12월 29일을 기하여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야말로 세계적 영적 운세를 한 손에 몰아 쥐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국가와 민족 앞에 국가적 기준을 대신하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민족 앞에 영육을 중심삼은 세계적 사건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77-216, 1974.04.12) p. 660

2 지금은 천운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책임을 다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천운이 대한민국에 왔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빙빙 돌면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현시점이 이러한 때입니다. 천운의 방향을 우리가 이어받고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통일교회에서 300명의 기동대가 실제로 활동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공산당을 때려잡는 선봉대라면 이것은 세계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통일교회를 내세워 국가적으로 후원할 것이고 미국도 후원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공산당을 막으려는 나라가 있거들랑 '통일교회, 어서 오소!'라로 할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싫지만 공산당이 밉기 때문에 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대가 되었습니다. 120개국에 우리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희망의 날 대향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078-130, 1975.05.08) p. 661

3 예수님 당시의 3년노정에서는 유대교가 이스라엘 나라와 합동으로 반박하는 입장에 섰으나, 오늘날 통일교회의 미국을 중심삼은 작전은 유대교 입장과 같은 기독교를 향해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공격을

받았지만 반대로 세계무대에서 공격해 이기게 되면 한국에서 당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노정을 두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공격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이 파문을 일으켜 3년 기간에 일대 승리를 거두어 전 기독교인이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승리적 기독교문화권을 영적으로 인수해서 접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접붙임과 더불어 가정을 중심삼고 주체 대상 관계의 기반을 한국에 연결해야 됩니다. 이제 국제기동대가 한국에 들어와 하나되어 거국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079-020, 1975.06.16)

4 세계적인 기독교문화권을 흡수해서 한국을 중심삼고 귀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974년 아버님이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가서 한 주도 빼지 않고 샅샅이 순회하였습니다. 전부 편답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대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반대 받았지만 미국에 가서는 승리하였습니다. 한국은 국가적 기준이지만 미국은 세계적 기준입니다. 국가는 세계적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넘어 세계적 기준을 닦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권 내에서 내가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계적 기준에서 내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탕감하는 것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천운을 몰아서 한국에 온 것입니다. (079-109, 1975.06.22) p. 662

5 아버님이 미국에서 승리한 기반을 종합한 하나의 재료가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입니다. 이것이 1974년까지 3년 기간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1975년 1월 16일 희망의 날 한국 만찬회 때 아버님 자신이 비로소 한국의 공식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고위층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민주세계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외신을 통해서 알아보니 문 선생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찬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1975년을 중심한 하나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청중 가운데 반대하던 사람은 얼굴을 붉히고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래야 된다.'는 입장이 되게 한 날이 바로 1월 16일입니다. 그다음에는 통일교회 축복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1975년 2월 8일의 1800쌍 축복결혼식입니다. 통일교회 축복가정이 국제적으로 맺어짐으로써 이 민족 앞에 확고부동한 기반이 닦아진 것입니다. 1800쌍 축복결혼식을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를 한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에는 국민 앞에 영향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통일교인과 이 국민 중에 누가 더 강한가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 준 것이 희망의 날 대향연과 700명에 가까운 국제기동대 요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적 운세를 보더라도 통일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079-021, 1975.06.16)

6 그 누가 아무리 반대해도 통일교회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원리관이 그렇고 하나님 섭리의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역사적인 바람을 일으킨다는 소신을 아버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치면 기독교는 반대하려고 하겠지만 아무리 해보았자 못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예상했던 대로 부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반대하였습니다. 서울로부터 인천 전주 광주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광장에까지 와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여의도광장에서까지 했지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적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시대의 종족적 기반을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뿌리가 전국에 다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순은 안 나왔지만 여기에 접붙이는 날에는 한꺼번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여의도광장을 중심삼고 국가를 능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천운이 그런 회오리바람을 이 한반도에서 일으켜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079-022, 1975.06.16) p. 663

7 한국이 국가체제를 갖추어 어느 기준에서 공산세계를 능가할 수 잇는 경제적 기반을 세웠지만 사상적인 면에서는 능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무장을 오늘날 기독교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정신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책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세계무대와 연결시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외적·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희망의 날 대향연 대회입니다. (079-075, 1975.06.01)

구국세계대회

한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승공대회인 구국세계대회가 1975년 6월 7일 60개국 1천여 명의 대표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120만 명이 서울 여의도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아버님께서는 '세계 속의 한국'이란 주제로

강연하셨다. 특히 세계 각국 대표들은 신앙의 조국이요 성역인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의용군단을 편성해 유사시 참전할 것을 선언하는 등 구국의 함성과 열기가 충천하였다.

8 국제기동전도대가 미국에서부터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아왔는데 섭리적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복귀시대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미국에 가서 선풍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제1차 영적 이스라엘권과 제2차 기독교 이스라엘권을 육적인 제3차 세계적 이스라엘권에 결부시키지 않고는 제3차 국가적 이스라엘권이 제3차 세계적 이스라엘권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섭리상의 필연적인 귀결이요 역사적인 귀추입니다. (077-074, 1975.04.01)

9 한국은 섭리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종합문명권을 형성하여 통일을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형제끼리는 하나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와야만 통일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한국이 통일사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위주로 한 이상적 조국이 창건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세계는 비로소 평화의 세계, 하나의 세계, 통일의 세계, 승리의 세계로 수습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천국을 형성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천상천국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지상에 모셔서 통일된 하나의 천국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신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한 기반 밑에서 비로소 부모와 자녀가 하나됨으로써 평화의 천국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희망의 날 대향연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여의도 구국세계대회도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한 내용과 재료를 가지고 일본과 미국과 자유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 대회는 영계가 총집결하고 세계인이 총집결하여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소망의 터전으로 바라보면서 축복을 고대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원성사, 인류 형제의 해원성사, 앞으로 희망적인 후대의 해원성사를 전부 완결할 수 있는 대회가 바로 구국세계대회입니다. (079-084, 1975.06.01) p. 664

10 1975년 4월 1일부터 전국 9개 도시에서 희망의 날 대향연을 함으로써 통일교회와 통일교회 사람들이 드러나니 기독교에서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영계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번에 통일교회한테 지면 기독교는 마지막

이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악착같이 싸워서 통일교회를 망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눌러 버렸습니다. 소생인 부산에서부터 장성인 대구, 완성인 서울, 그리고 인천을 거쳐 전주 광주, 이렇게 9개 도시를 따라 다니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여의도광장 구국세계대회 때에는 비가 오라고 기도하고, 비가 안 오면 그 대신 반대로 해가 쨍쨍 내리쬐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해서 결국 통일교회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드러나고 가정으로 드러나고 우리 전체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민족을 드러나야 됩니다. (079-111, 1975.06.22)

11 통일교회 자체로 보게 되면 여의도광장의 구국세계대회는 하나의 모험입니다. 큰 모험입니다. 그 광장을 채운다는 것은 모험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거사를 행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운세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이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대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세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한국 자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처하고 있는 자체를 보면 민주세계가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산세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누가 길잡이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누가 먼저 여기에서 천운을 맞출 수 있는 기수의 사명을 하느냐? 민주세계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동기가 되면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 국가면 국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개인을 중심삼든가, 단체를 중심삼든가 혹은 국가를 중심삼든가 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실정에서 물론 대한민국이 하늘의 운세에 맞출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자체는 하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을 알고 있는 종교를 대표한 어떤 단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단체 가운데서도 통일교회가 그러한 기수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통일교회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서울 여의도 구국세계대회입니다. (078-206, 1975.05.25) p. 665

12 한국 정부 타도가 전 세계 공산세력의 선전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서구문명권의 기지가 바로 한국입니다. 공산세력은

그다음에 일본 해방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미국 해방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전개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한국 통일교회와 일본 통일교회와 미국 통일교회가 완전히 결속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석권하여 주도적인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민족은 희망의 날 대향연을 중심삼고 도탄 중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거국적인 대향연, 희망의 날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리하여 종교적 기준에서 통일교회를 당할 수 없다는 승리적 실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운동으로서 거국적으로 동포와 서울시민을 규합하여 세계에 선포하는 구궂세계대회입니다. (079-079, 1975.06.01)

13 본인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를 움직이는 데에 노력했고, 미국 조야에서 새로운 문명권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은 한국 자체로서는 금후에 살 수 없습니다. 3천400만이 단결하여 북한 공산당을 타도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남은 중공과 소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하나님 대신 악마의 종교 형태의 배경을 중심하고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 편 종교를 중심한 통일문화권 세계국가를 형성하여 공산주의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세계에 희망이 없습니다. 통일교회 신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고 민주세계에서 하나님 편 종교를 대표해서 결속해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 통일교인들은 이번 구국세계대회로 말미암아 세계에 정신적 자세와 긍지를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이 활동에 한국 통일교회 식구들을 중심삼고 세계 통일교회 식구가 규합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되어 역사에 없는, 비로소 하나님 뜻에 의한, 하나의 통일사상을 중심삼은 승리적 기치를 드러내야 할 것이 여의도광장 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세계문명권을 서구대륙, 나일강을 중심삼고 지중해, 로마, 영국을 거쳐 미국 대륙문명권을 형성하였던 것을 태평양문명권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079-076, 1975.06.01) p. 666

14 여의도광장은 역사적 광장이기 때문에 이번 구국세계대회는 하나님 앞에 역사적 공의의 심판을 받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야말로 세계사적 하나님 편에 선 단체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단체냐, 그렇지 않은 단체냐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가정들은 민족적 가정을 대표해 인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지녔느냐, 통일교회 사람들은 이 민족을 대해서 주체성을 살

릴 수 있는 개인들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구국세계대회에서 부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늘로부터 공의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앞에 공의의 판정을 받는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때요, 민족 앞에 지금까지 서럽고 원통했던 역사적인 모든 것을 청산짓고 새로운 수난의 대가로서 선의의 공적에 의한 혜택, 은덕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야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078-223, 1975.05.25)

15 구국세계대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서 수천억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 사람도 될 수 있는 결의, 60개국을 대표한 여러분의 나라 국민 전체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과 영계가 동원해서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나는 독일 사람이다.'는 감정을 빼 버려야 됩니다. 초민족적인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60개국을 대표한 대표자로서 참석했다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078-242, 1975.06.06) p. 667

16 1975년 6월 7일에 국제기동대를 중심삼고 여의도 구국세계대회 때 기독교와 통일교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동대는 전세계의 젊은이가 참여해 조국광복을 위해 입성해서 반대하는 기독교, 반대하는 주권, 반대하는 그 무엇을 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탕감복귀할 때입니다. 주권적인 기준 앞에 이제는 가정을 찾았으니 나라와 부딪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중심삼고 정부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하나되어서 전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국가 판도를 중심삼고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의 4대 도시에서 기독교와 통일교회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후원하는 가운데 부흥회를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라고 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손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120만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도 놀랐습니다. 60여 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신앙의 모국을 침범할 때에는 우리가 수호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 나라와 영육을 중심삼고 내가 주도적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091-123, 1989.06.24)

17 여러분이 군대 훈련을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받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도해서 의용군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서장과 면장, 군수를 동원해 의용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

을 교육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사시에는 마을을 대신하고 군을 대신한 하나의 의용군단을 편성해서 몇 천, 몇 만을 지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배포를 가지십시오. 아버님은 이 시급한 때에 국제의용군단을 만들어 유사시에 대비한 주도적인 기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기독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까지 규합해서 '의용군단 편성운동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군수와 경찰서장까지 초청해서 '이것은 통일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다. 실권은 여러분이 쥐고 훈련만 내가 시켜 주겠다. 간부들까지 정신무장은 내가 해주겠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079-054, 1975.06.16) p. 667

18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3년 공생애노정의 2년 때부터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꾸로 떨어졌지만 지금은 2년 과정에서부터 반대로 엇갈려서 올라갑니다. 1975년 1976년 1977년의 3년 기간은 세계적인 영적 승리의 기반 위에 육적 승리의 기반을 연결시키는 때입니다. 서울 여의도광장 구국세계대회를 통해 국가기준을 중심삼고 영육 승리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승리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우리를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아무리 쳐도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원리적인 절대 권한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배짱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p. 668

19 대한민국은 세계 운세를 맞을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적인 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1975년에 비로소 세계의 젊은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들어와 한국 젊은이와 합해서 희망의 날 대향연이란 역사에 없는 거국적인 대행사를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날 대향연에는 자기도 모르게 바람에 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떠한 종교 집회가 당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을 깨뜨린 것이 1975년의 희망의 날 대향연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터전으로 해서 국가적인 승리의 터전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예수님시대에 영육을 중심삼고 국가와 세계를 연결하지 못한 것을 1975년에 영육을 중심삼고 국가기준과 세계기준을 완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섭리관이 있기 때문에 1972년부터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것입니다. 한국 통일교회가 영적 기준에서는 국가보다 높은 자리, 주도적 입장에 섰습니다. 기독교가 반대해도 통일교회가 문제의 중심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종교가 되어 영적 국가적인 승리의 터전 위에 영적 세계기준의 기독교를 연결하기 위한 것

이 미국에서의 3년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승리의 영적 기반을 세계적으로 연결하여 비로소 대한민국에 와서 영육을 중심삼은 승리의 기준을 결정하는 싸움을 한 것이 여의도광장의 구국세계대회입니다. (084-149, 1976.02.22)

5절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대회

뉴욕 양키스타디움 대회

참부모님께서는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행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셨다. 그 첫째가 1976년 6월 1일 뉴욕 양키스타디움 대회다. 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는 악천후와 반대세력의 준동 속에 진행되었으며, 참아버님께서 '미국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 아래 '본인은 병들어 가는 미국에 의사요 소방수로 왔다.'고 역설하셨다. 미국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역사적 선언이었다. 완성노정인 제3차 7년노정 판가리 싸움을 세계의 중심인 미국, 그것도 미국의 한복판인 뉴욕에서 치름으로써 세계사적 선악의 분기점에서 총탕감적 기준을 세우셨다. 6월 14일자 뉴스위크지는 참아버님 존영을 표지에 싣고 '1976년의 인물'로 보도하였다. (p. 669)

1 예수님은 유대교를 중심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하기 위한 3년 싸움에 실패해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영적 기독교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영육을 중심삼고 승리한 한국의 국가적 기준을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영적 기준은 세계형이요 육적 기준은 국가형입니다. 육적 기준에 있어서 국가형 기준을 세계형까지 확대해야 될 것이 예수님 3년 공생애에 해당하는 세계적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6년은 예수님 3년 공생애노정에서 2차년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된 동기는 1년째가 아니라 2년째에 결정되었습니다. 1976년은 예수님의 공생애 제2차년도, 예수님이 십자강에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그 기간에 해당합니다. 제3차 7년노정의 3년노정에 있어서 2차년도인 1976년이야말로 세기가적인 판가름을 하는 기간입니다. 소생을 거쳐 장성수에 해당합니다. 장성수는 중심수입니다. 하나 둘 셋의 중심수입니다. 상하·전후·좌우에 해당하는 중심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복귀섭리는 2수를 중심삼고 결정타를 가하고 여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국가적 기준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3년노정의 2차년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정되어 그 여파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아버님이 이런 싸움을 하는데 미국 조야가 야단입니다. 미국이 또 2천년을 탕감하는 200년 역사에 해당됩니다. 200년의 2수와 2차년도

가 딱 맞았습니다. 오늘날이 200년을 2차년도에 탕감해서 영적 세계기반만 가졌던 여기에 영육을 중심삼은 세계기반을 결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최후의 전선이 우리 앞에 남아 있으니, 그 전선이 1976년의 양키스타디움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084-150, 1976.02.22) p. 669

2 양키스타디움 대회에서 아버님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주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는 물론이요, 전 세계 인류와 통일교회 그리고 통일교회 문 선생의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 언론기관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어렸을 적부터 바라고 고대하던 그날이 다름 아닌 바로 1976년 6월 1일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은 지극히 기쁜 일이지만 승리를 못하는 날에는 지극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기쁜 날인 동시에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니 내가 단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느냐, 패자의 깃발을 꽂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패자의 깃발을 꽂는 날에는 통일교회가 가는 길과 인류 앞에 비참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못 들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영계의 모든 영인들 그리고 온 세계의 종교가 공산세계의 침략 바람에 몰리게 되어 어느 한 때 이 세계는 황무지가 되고 지금까지의 종교는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공산당한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80년이 못 되어서 미국도 전부 뒤넘기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양키스타디움 대회를 중심한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이 전선에 선 것입니다. (082-079, 1975.12.30) p. 670

3 통일교회 시대권에도 소생시대·장성시대·완성시대가 있습니다. 소생시대는 부모님을 중심한 가정시대요, 장성시대는 대한민국을 중심한 시대요, 완성시대는 세계를 중심한 시대입니다. 제3차 7년노정은 완성시대에 해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세계적 중심인 미국에서 판가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키스타디움을 중심한 1976년 6월 1일의 싸움입니다. 사탄세계의 6수를 탕감하고 7수로 넘어가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월 1일이 좋다고 하여 이날로 결정하였습니다.

4 1974년까지 제2차 7년노정을 끝내고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제3차 7년노정의 3년노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6년이 3년노정에서 중

심되는 해입니다. 그해가 미국 독립 200주년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결판을 양키스타디움에서 짓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승리는 가인의 실패를 탕감복귀할 수 있는 것이요, 노아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모세의 실패, 세례요한의 실패, 예수님의 실**패**, 지금까지 잘못한 기독교의 모든 실패를 하나의 세계적 국가를 대표해 총결실해서 청산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격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될 때에는 미국 종교계와 미국의 각계각층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됩니다. 종교계나 어디나 다 꼭대기를 보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082-153, 1976.01.04) p. 671

5 여러분이 1976년 4월 1일 오늘부터 60일 동안에 양키스타디움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특별부흥전도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천년 역사를 대표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것을 여기에서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6천년 역사를 횡적으로 60일간에 우리가 총탕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시대의 노아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세,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는 부모님과 한국 식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미국을 그냥 두었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60일 동안 이 우리가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주세계가 망하는 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공산세력이 위협하는 것을 막는 제방을 만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청소년들의 윤리적 파탄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멸망하는 것을 여기에서 막고 새로이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비로소 섭리의 뜻을 새로운 야곱시대로 전환시키는 대우주사적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086-248, 1976.04.01)

6 지금까지 여러분이 양키스타디움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특별부흥전도집회를 위해 60일간 활동해 왔지만, 5월 30일부터 마지막 3일 동안에 하는 작전 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이 3일 기간에 통일교회가 운명을 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3일이 아니라 승리의 3일을 가져야 했던 예수님 때에도 승리의 3일을 갖지 못하고 죽음의 3일을 가짐으로써 오늘날의 영적 세계기독교가 출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도 세계사적인 미국의 3년노정에서 양키스타디움 대회를 중심한 이 3일 기간이야말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간입니

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늘이 이 3일 기간을 승리함으로써 뉴욕이 반대하던 경계선을 넘어 해방의 깃발을 들고 세계로 출동할 수 있는 기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087-162, 1976.05.30) p. 672

7 양키스타디움 대회 시작 전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도망갈 줄도 모르고 밴드를 동원해 나발을 불고 '유 아 마이 선샤인' 노래를 할 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입은 노래를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나와 빗물과 눈물이 섞여서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가 멎으면 얼마나 고맙겠나! 어서 비야 멎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완전통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20분 동안에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여!'라고 하며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줄 수 없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비였습니다. '비야 멎어라.'라는 심정으로 통일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심정권의 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이런 마음을 배웠다면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무엇을 하게 될 때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협조하시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선물을 뉴욕 시민 앞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통일교회에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승리의 축복'이라는 말이 타당합니다. (087-198, 1976.06.02)

8 내가 양키스타디움 대회 3일 전에 '이 3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지옥에 가서 전도하는 3일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쿠,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3일 동안 비가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써 영과 육이 갈라졌습니다. 절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절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와 같은 일이 이 대회에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육적 부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육적 기준을 중심삼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을 붙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회 날 비가 올 때에 전부 흩어졌을 텐데도 불

구하고 우리는 단결해서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087-199, 1976.06.02) p. 673

9 양키스타디움 대회에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비가 왜 그 시간에 왔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님은 '하나님! 이것이 뭐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영계를 통하는 한 일본 식구의 아버지가 보니까 비가 전부 영인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장막 휘장이 갈라져서 죽은 영들이 부활하여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영계가 협조하게 되어 워싱턴을 향할 것입니다. 영계에서 지상을 협조하지 못한 시대에서 지상을 협조하는 시대로 들어옴으로써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땅 위에 재림부활하여 기독교 영인들을 걸고 앞으로 기독교 운세를 몰아서 통일교회에 결합시킬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088-119, 1976.08.08)

10 양키스타디움 대회에 700명에 가까운 여러분의 부모형제가 와 있었고 더욱이나 한국 교포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사로 보게 되면 가인 아벨과 딱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전부 자기 눈을 가지고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입장에서 보아 왔지만 이 시간만은 하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역사는 가인 아벨 싸움의 역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분립되어 하나되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외적 내적으로 하나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사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부모님은 한국과 하나되는 입장을 대표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될 수 있는 입장을 대표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되면 여기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원이 싹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87-200, 1976.06.02)

11 1976년부터 통일교회를 없애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조작을 하거나 일부러 공산주의 전문가들을 투입할 것이며 내부 분열 공작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내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데일리뉴스의 기자가 와서 3일 동안 스파이 활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제재가 없습니다. 내 일생에 미국에 와서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싸우는 것은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입니다. 미국 땅에서의 양키스타디움 대회와 워싱턴 대회 같은 싸움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인류의 소원이요 또 과거에

왔다 간 조상들과 현 세계와 미래 후손들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원의 고개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판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고개를 넘자. 소망의 고개를 넘자.'는 그 고개가 바로 양키스타디움 대회입니다.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는 소생이고, 양키스타디움 대회가 장성으로 둘째 번이니 이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셋째 번은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봅니다. (082-083, 1975.12.30) p. 674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미국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가 1976년 9월 18일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는 미국 정부와 종교, 언론계 등의 총공세를 받는 가운데 개최되어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날 참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새로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 특별히 퇴폐적인 미국 청년들을 구해 주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인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선포하셨다. 워싱턴 대회는 단기간에 30만 명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미국 종교집회 사상 최다 인파를 기록하였다.

12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하는 그때는 6천년 역사의 교차점이 벌어지는 순간이요 세계를 걸고 하늘땅의 탕감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숨 막히고 긴박한 시간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DC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버님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반대한 것을 완전히 탕감복귀해 수습하고 넘어가기 위하여 전 세계가 반대하고 하나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나만 남았구나!'라고 하면서 숨막히는 시간을 향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협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 손에 의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여러분 나라와 여러분 조상이 망하고 여러분 아들딸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나라와 네 후손을 위해 울**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나라를 망치고 여러분 조상과 후손을 망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망치고 하나님을 망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안 가면 세계가 망하고 하나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아버님이 61세까지 세계적 노정을 탕감하는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최후의 고개가 워싱턴 대회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골고다를 넘는 고개입니다. (088-081, 1976.07.18) p. 675

13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중심삼고 미국의 국무부 법무부,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세계 전체가 반대해 아버님 추방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간에 나는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완전히 부딪칠 수 있게끔, 전 세계가 반대하는 데에 맞서게끔 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총공격을 받는데서 워싱턴 대회를 중심삼고 뿔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인 탕감조건을 중심삼고 완전히 청산짓고 넘어갔습니다. 통일교회가 생겨난 이래 전 세계, 사탄이 통일교회를 밀려고 한 최후의 전쟁이었습니다. (099-183, 1978.09.18)

14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는 아버님이나 통일교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는 손해가 많습니다. 인적자원 희생이요 경제적 희생이요 모든 면에서 희생입니다. 아버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양키스타디움 대회 때에는 열두 단체가 나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대회에는 더 올 것입니다. 반대파들도 워싱턴 대회가 최후의 고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총주력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클럽을 만들어 모의하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것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공산세력까지 끼어서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라든가 상부 기관을 통해서 아버님을 행사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088-123, 1976.08.08)

15 1976년을 중심삼고 통일교회는 세계적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7개소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최대의 박해 기간에 뉴욕 양키스타디움 대회를 치렀습니다. 워싱턴 30만 명 대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키스타디움 대회가 끝나고 워싱턴 대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0일 만에 역사적인 대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아주 낭패였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도 손댈 방법이 없었습니다.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재림시대의 뜻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주의가 민주주의입니다. (183-070, 1988.10.29) p. 676

16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위해서 내가 원고를 네 번이나 썼습니다. 기도

하고 기도하고 정성들이고 정성들이더라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날짜는 점점 가까워 오는데 말씀할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 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하는 그 시간에는 하늘이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반드시 그 말씀에는 무엇인가 모르게 인력이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모르게 사랑의 심정이 녹아 나올 것이고, 무엇인가 모르게 사람들이 휘말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회를 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영적인 분위기에 휘말려 자기들도 모르게 함성을 올리지 않았느냐고 나는 생각합니다. (088-273, 1976.09.20)

17 1976년 9월 18일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때 나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장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을 저녁으로 오해한 때도 많았고 저녁을 아침으로 생각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상 아버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고 만민을 위한 제삿날로 하나님 앞에 설정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맞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서는 나 자신은 제사장의 책임을 지고 세계를 대신하고 수많은 종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땅 위에 끌어내릴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계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깨끗하고 사고 없이 대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092-278, 1977.04.18)

18 미국에서 아버님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인 탕감조건을 세우고 높아졌다 하는 말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탕감조건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내 일대에 제일 심각했던 때가 워싱턴 대회라고 봅니다. 그때의 심경은 하늘땅, 전 인류 앞에서 형장에 나가는 사람의 심정이 있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가는 기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계도 심각했고 지상도 심각했습니다. (097-182, 1978.03.15) p. 677

19 1976년에 치른 뉴욕 양키스타디움 대회와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는 세계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아버님을 좋게든 나쁘게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책임은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살다가 영계에 간 영들이나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간 영인들이 나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도 나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976년은 아버님과 통일교회의 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에서는 아버님을 1976년 '올해의 인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낸 것입니다. 아버님은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 지상의 인류 앞에 책임을 다 했습니다. 미국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끔 워싱턴 대회를 통해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아버님이 난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결론을 지어 놓았습니다. (091-068, 1977.01.23)

20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중심삼고 내가 미국에 와서 그동안 했던 싸움이 일단락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1971년 12월 18일 워싱턴DC에 착륙하면서 생각하던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로마에서 싸우지 못했지만 나는 민주세계를 대표하는 미국 땅에서 싸워서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생각이 지금 새롭습니다. 그간 미국 언론기관과 온 국민이 통일교회와 나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그 반대를 뚫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대회까지 치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8-214, 1976.09.20)

미국 3대 대회 승리와 모스크바 대회 선언

미국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양키스타디움,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등 세 차례의 대규모 집회는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 승리를 의미하며, 섭리사의 모든 실패를 세계적 국가를 대표해 청산짓는다는 뜻도 갖고 있다. 참아버님께서는 워싱턴 대회 다음 날인 1976년 9월 19일 공산세계 해방을 위해 다음 대회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공표하셨다. 모스크바 크렘린을 뚫고 나가야 하나님과 인류의 해방이 벌어진다고 하시고, 참사랑을 통해 세계 구석구석에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하자고 역설하셨다.

21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미국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를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펼치고자 하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나는 양키스타디움 대회에서 '만일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의사를 데려올 필요가 없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면 외부에서 소방수를 데려올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의사와 소방수의 책임을 맡겨 미국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76년 9월 18일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에서도 나는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새로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091-138, 1977.02.03) p. 678

22 1975년 6월 7일 한국에서 60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120만 구국세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 실체를 중심삼고 승리의 팻말을 꽂은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3년노정과 연결하면 영육 실체를 중심삼고 미국이 새로운 하나의 희망의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관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 양키스타디움과 워싱턴 모뉴먼트에서 3차에 걸친 거국적인 대회를 함으로써 한국에서 이룩한 승리적 결과를 미국 땅에서 실체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계적인 하나의 중심형을 이루어 새로운 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080-156, 1975.10.21)

23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까지는 격전이 벌어져야 됩니다.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로 인해 비로소 미국 국민이 놀라서 '아이쿠, 레버런 문이 이렇구나!'라고 했습니다.대회 전날 우리가 연회를 할 때에 CBS방송의 편집부 부책임자가 와서 나에게 '레버런 문, 자신 있소?'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등이 수수께끼 사건으로 보고 거기를 어떻게 채우느냐며 이상한 눈초리로 보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들로서는 미국 언론기간에서 실시한 지금까지의 모든 조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자신 있다고 하니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것이 아주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은 그들이 컴퓨터로 낸 통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여는 의외의 파격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그때부터 여론의 초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가 강력한 단체다. 레버런 문은 문제의 사나이다.'라며 여론이 총공격을 하고 집중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부터 3년 동안에 아버님이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자유세계의 국민 전체에게 3년 동안에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088-215, 1976.09.20) p. 679

24 미국의 전체 식구를 규합해서 국제기동대를 편성하여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부터 양키스타디움 대회와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까지 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할 때 맨 처음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로 알았습니다. 우선 통일교회 교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일반 대중이 믿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언론 기관이라든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알지 못하는 한 사나이가 나타나 며칠 그러다가 말 것이다.'라면 도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평면적인 관이고, 내가 보는 것은 입체적인 관입니다. 횡적으로 보는 전체의 힘보다도 종적으로 보는 전체의 힘이 언제나 강해야 된다는 신념을 아버님만이 갖고 나왔습니다. (088-215, 1976.09.20)

25 1975년부터 1977년까지 3년 기간에 세계 통일교회는 수난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키스타디움 대회는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3년간의 세계적인 수난길 가운데 2년째인 1976년에 뉴욕 양키스타디움 대회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대회에서 승리하게 되면 3년 고개를 넘는 것입니다. 만일 양키스타디움 대회와 워싱턴 대회를 승리하고 1981년까지 지나가게 되면 공산권은 우리 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7년 기간에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리관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또 20년이 연장됩니다. 공산세력을 밀어젖히지 못하면 많은 기독교인 학살이 벌어질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역사적 시대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역사는 원리관적인 입장에서 발전해 나오는 것입니다. (087-069, 1976.05.01) p. 680

26 통일교회에서 축복받은 가정 전체가 동원되어 민족에게 감화를 끼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가면 반드시 플러스적 자리에서 세계에 전진할 수 있는 무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유세계면 자유세계를 하나 만든 다음에 플러스, 즉 주체가 되어 소련이나 공산세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버님이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에서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대회를 위해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이 시간에도 소련 위성국가의 지하에서 뜻을 위하여 생명을 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9-052, 1980.10.26)

27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에서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추방운동을 내가 전개할 것이고, 문화사절을 통해서 공산세계의 모든 문화활동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지금 그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산주의자들 이상해야 됩니다. 사탄은 힘이 약할 때 점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일신의 개척시대에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침묵과 무언으로 나왔습니다. 제1회 3차 7년노정이 끝나고 자녀들이 제2회 3차 7년노정을 출발하게 될 때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강한 신념과 강한 체력을 갖추어 그 전통을 남겨야 됩니다. 공산세계는 여러분이 맞아 싸워야 됩니다. 내가 부모 입장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칼을 가지고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세계를 망하게 하고 공산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민주세계도 구하고 공산세계도 구해 주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107-126, 1980.04.15)

천승일과 지승일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1976년 10월 4일 미국 뉴욕 벨베디아수련소에서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승리 기념집회를 갖고 이날을 천승일(天勝日)로 선포하셨다. 워싱턴 대회를 통해 영육 중심한 세계사적 승리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1977년 2월 21일 뉴욕 세계선교본부에서 11개국 74쌍 축복결혼식을 주재하셨다. 뒤이어 2월 23일 참부모님 탄신일에 새 시대 선포와 지승일(地勝日)을 제정·선포하셨다.

28 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미국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미국에 가서 진리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순회강연을 통하여 나는 이 선포의 임무를 다소간 완수하였습니다. 희망의 날 대향연 행사 기간에 50개 주를 순방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의 전도집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섭리, 영적인 면에서도 큰 뜻이 있습니다. 영계를 얼마나 통찰하고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통일교회 운동에는 그 세계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통일교회 운동은 횡적인 운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종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통일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영계에 반영되고 또한 영계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 반영되며, 이 두 세계가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 운동의 특징입니다. 횡적인 견해로 보면 우리 활동은 아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

는 시간과 재력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일은 영계를 돕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성령이 지구상에 넘쳐흐르게 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와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사고 방식으로 기울어져 있고 세속적인 문화에 오염되어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통일교회 운동 속에서 어떠한 정신적인 퇴보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척자이며 우리의 의지는 활화산과 같습니다. 내가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이후에 한 여러 가지 연설 가운데서 전 영계가 협력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한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계는 우리 운동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이후 1976년 10월 4일을 천승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의 동이 텄으며, 영계에서는 종교간의 장벽이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실제로 영들이 지상세계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091-106, 1977.02.03)

29 지금까지 영계는 전부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불교를 믿던 사람은 불교권에 들어가고, 유교를 믿던 사람은 유교권에 들어가고, 기독교를 믿던 사람은 기독교권에 들어가고,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은 이슬람교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종교 계열의 영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한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자기 종교를 위해서 준비해 나오기 때문에 담을 쌓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생긴 하나님의 한과 예수님의 한과 아버님의 지금까지의 한을 전부 영계와 육계에서 풀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전에는 그 담을 헐 수 없습니다.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런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통일됩니다. 영계가 이제 하나의 조직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상도 상대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089-101, 1976.10.04) p. 682

30 1976년 10월 4일은 아버님에게 잊을 수 없는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날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미국에 들어와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까지 승리하여 해방을 기념하는 한 날로서 이 의의 있는 날을 갖게 된 것, 두 가지의 해방을 축하나는 이날을 맞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다음에는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싱턴 대회 승리를 축하함과 동시에 방대한 내용과 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통일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지켜야 할 기념의 날로 책정하였습니다. 하늘이 승리했다는 천승일이라는 축제일로 정한 것입니다. (089-090, 1976.10.04)

31 뉴욕 양키스타디움 대회 때 '나는 미국이 병이 났기 때문에 의사로 왔고 미국이 불이 났기 때문에 소방수로 왔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에서는 '퇴폐적인 미국의 청년들을 구해 주고 내일의 희망의 젊은이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레버런 문을 몰랐소!'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회가 얼마나 역사적인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전환의 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영계의 모든 영들이 아버님 환영 일색을 이루었습니다. 갈라졌던 영인들이 아버님으로 인해 하나되어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976년 10월 4일 천승일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계에는 지금까지는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패로 갈라져 경계선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승일, 하나님이 이긴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091-064, 1977.02.23) p. 682

32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운동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1976년입니다.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통일교히를 보호하고 지지하여 대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한국 산골짜기에서 아버님이 나타나 자유세계의 중심국가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에서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내적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데에 하늘이 개입해 들어가고, 역사가 개입해 들어가고, 인류가 개입해 들어가고, 미래가 개입해 들어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선포를 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천승일입니다. (105-141, 1979.10.04) p. 683

33 천승일은 사탄세계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삼고, 혈연관계에 있어서 전환시기를 만들어 놓은 세계적 대표의 날입니다. 그다음에는 사망의 세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접을 붙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기준을 세워 놓은 날입니다. 그리고 사망세계의 도탄 가운데에서 신음하던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해방권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전 세계를 걸고 가려내서 승리의 말뚝을 박은 날입니다. 그러면 천승일이 하늘 편을 중심삼고 어느 기준이 되었느냐?

사탄세계의 개인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적 사탄 반대권, 종족적 사탄 반대권, 국가적 사탄 반대권, 세계적 사탄 반대권이 참부모 앞에서는 대항하지 못하고 뒤고 돌아서서 지옥을 향해 가는 시대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169-041, 1987.10.04)

34 우리는 사탄의 혈연세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생명권에서 해방을 받았고, 사탄의 사랑권에서 해방을 받았고, 사탄의 문화배경을 중심한 국가와 민족, 전통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탄 편이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에게는 나도 있지만 가정도 있고 종족도 있고 민족도 있습니다. 세계 오색인종을 편성해서 국가·민족해방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의 세계로 전진할지어다!'라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자랑하는 날이 천승일입니다. 그 전통을 중심삼고 '우리는 하나의 아담문화권, 하나의 참부모, 참하나님의 문화권을 창조하는 용사로 살지어다. 아주!'하는 무리가 통일교회 교인입니다. (169-043, 1987.10.04)

35 1977년부터는 미국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다 지나갑니다. 3년 동안 국세청에서 와서 조사하고 AP통신이 야단하고 국회에서도 야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고개를 다 넘었습니다. 아버님과 부딪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건이 성립 안 됩니다. 만약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안 끝냈으면 다 깨져 버립니다. 못 올라갑니다. 아버님이 재림할 것을 유언하고 죽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도 수많은 대가를 공산세력 앞에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대회를 끝냄으로써 1977년 2월 23일 아버님 생일을 중심삼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지승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계와 육계가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혀 있던 것을 이제는 터뜨리는 것입니다. 개인복귀·가정복귀·종족복귀를 해서 터뜨려 조건을 세워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워싱턴 대회가 없었다면 영계와 육계가 막혀 버렸기 때문에 영계가 육계에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와서 자리를 잡고 일하지 못하고 조금 협조하다가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뚫림으로써 수많은 선한 영들이 자기 후손의 가정, 개인에까지 찾아갈 수 있는 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한 영인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탄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계가 둘로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독교도 갈

라지고 공산주의도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고 전부 갈라집니다. 1976년 전까지는 싸우면 악한 편이 이겼습니다. 악한 편이 우세했습니다. 가인 편이 이겼습니다. 영계와 육계가 막혀 있었고 또 전부가 사탄권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길이 열려 무제한으로 영인들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아벨 편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090-317, 1977.01.15) p. 684

6절 미국 의회 초청강연과 워터게이트선언

미국 의회 초청강연

참아버님께서 미국 의회 초청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연하셨다. 당시 참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상하의원이 초청한 것이다. 1974년 10월 8일 국회의사당 덕슨관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미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셨다. 이날 상하워원 185명이 참석하여 말씀을 경청하였다. 이는 9월 13일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등 상하의원 12명의 연서로 된 초청장을 참아버님께 보내오고 전체 상하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1975년 12월 18일 상하의원들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사당 코커스룸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을 중심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주제로 강연하셨다. (p. 685)

1 내가 미국 국회에 가서 강연할 준비를 지금까지 시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974년 10월 8일에 내가 국회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아버님이 신비의 존재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하원들도 내 강연을 한번 들어 두지 않았다가 어디 가서 아버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때 답변하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창피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상하의원이 못 오게 되면 그 보좌관이라도 반드시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보내기로 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레버런 문에 대해서 여러분 상하의원들이 협조하소.'라고 할 때에는 워싱턴 대회에 틀림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73-277, 1974.09.29)

2 백악관으로부터 국회 상하의원들과 미국 국민들이 통일교회 사상으로 무장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국의 중심이 되는 기독교가 몰락하는 이때에 기독교를 재기시킬 수 있고, 가정과 윤리가 파탄디는 것을 재기시킬

수 있고, 청소년을 재기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면 세계적 대표자가 되고, 가정이 그렇게 되면 세계적 대표 가정이 되고, 미국 국민이 그렇게 되면 수많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상에 없었던 국민이 되고, 미국이 그렇게 되면 세계는 그 권내에서 하나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국회에 계시는 상하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상이 레버런 문의 사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레버런 문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류 앞에 통고시켜야 할 하나의 비결적인 진리로 아시어 이것을 국회에 적용하고, 이 국가 국민 앞에 국민사상으로 적용하는 날에는 미국은 그야말로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라는 말처럼 명실공히 세계의 주체적 국가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지상**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참이상과 참사랑과 참행복과 참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073-328, 1974.10.08) p. 686

3 어떻게 하든지 한국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의 조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제를 거쳐 상하원 기반을 만들고 유엔 무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국 의회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그들 앞에 가서 강연까지 했습니다. 그와 함께 정치만이 아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대민관계의 기반을 확보하고 전체 여론 기반을 닦아서 지금은 미국에서 내가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을 만나 '내가 2년 동안에 이런 바람을 일으킬 텐데 당신은 믿겠소?'라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에서 한다하는 실력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릇 20년 이상 공을 들여 지금 상원의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풋내기 레버런 문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에 미국에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믿을 만큼 되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것은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정받을 수 있는 통일교회 문 아무개가 되어서는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079-042, 1975.06.16)

워트게이트 사건과 미국 각성 촉구

1972년 6월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비밀공작반이 워싱턴DC 워터 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되었다. 이로 인

해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한 1974년 8월까지 곤경을 겪었다.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의 정신과 신앙·가치관이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시고 1973년 11월 30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되라'는 요지의 '워트게이트 선언'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전면에 발표하셨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위기 초래와 세계적인 영도력 상실을 우리하시며 이 틈을 노린 국제공산주의 득세를 경고하셨다. 1974년 2월 1일 백악관 대통령집무실에서 닉슨 대통령과 요담하셨다.

4 1972년과 1979년을 중심삼고 미국의 대통령이 꺾여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워**터**게이트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님과 하나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편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2년째 백악관과 우리 교차점을 가졌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논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아버님의 이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습니다. (069-308, 1974.01.01) p. 687

5 미국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중심삼고 혼란이 벌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미국 국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워트게이트 선언'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거국적으로 닉슨 한 사람을 조건 삼고 '너희도 그런 형상의 죄인이니 먼저 회개하고 닉슨도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미국에서 닉슨의 사면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민주세계가 몰락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가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몰락하는 것은 모든 국가 문제, 모든 세계 문제를 하나님과 담판지어 행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71-247, 1974.05.01)

6 아버님 자신이 홀로 미국 땅에 나서게 될 때에는 한 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고 3년이라는 기간에 2억4천만에 가까운 국민에게 아버님의 의사를 알려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소문을 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반이 없고 협력자도 없는 데다 거기에 반대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직행해야 되겠다, 심장부를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이름난 상원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하원의원들도 만나 보고 그다음에 저명한 미국의 인

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다음에는 백악관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중심삼고 내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고 전 국민이 희망이 없어 낙망하는 입장에 있으니 여기에서 기독교 사상을 중심삼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075-203, 1975.01.02) p. 687

7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종교와 종교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지방의원, 유명한 인사들을 모두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명사들도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도 자칫 잘못 미끄러지면 미국은 아주 밑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지도자, 빌리 그레이엄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라의 선두에 서서 국민운동을 일으켜 그것을 방지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일각에서 태어난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과 담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고 나아갈 방향을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험의 길을 각오했습니다. 통일교회는 최후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072-025, 1974.05.07)

8 아버님은 1972년 미국 7대 도시에서 비로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기반 위에 1973년에 21개 도시를 걸어 놓고 싸워 나갔습니다. 이 기간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중심삼고 60일 전에 이것이 제시되어 21개 도시 순회노정을 1월 28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워싱턴DC에 와서 닉슨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 그 날짜를 정하고 자청해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국가 원수가 닉슨 대통령을 만나려면 1년 반 전에 미리 다 약속을 해야 되는데 나와 이렇게 만난 것은 역사적 사건일 것입니다. 1월 30일에 국회에 보내는 교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2주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다 스케줄을 잘라 놓았다가, 교서 발표가 끝나고 2월 1일에 모든 국가의 대표자들, 어떠한 대사들도 제쳐 놓고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 아버님은 닉슨을 대해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닉슨도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역사적인 그 회견 직전에 기도했다는 것은 여가적인 사건입니다. 극적인 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가 이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아버님이라는 것을 알고 절절히 감사하며 참으로 충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070-281, 1974.02.14) p. 689

9 미국 자체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곤두박질하는 것을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을 중심한 민주세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그들이 뜻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닉슨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닉슨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섭리시대에 있어서 큰 고개를 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070-236, 1974.02.10)

10 내가 닉슨 개인을 보고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이 앞으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나라의 주권자가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그 나라의 운명을 정할 때에는 특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닉슨이 있었으면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저렇게 안 되었습니다. 내가 예상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공산세계에 몽땅 넘겨주는 국가적 수치가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민주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서 참패라는 것입니다. (080-040, 1975.10.04)

11 내가 닉슨을 지지한 것은 베트남 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끝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아시아 방어권이 연장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닉슨독트린을 수정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닉슨독트린대로 되면 한국 안보문제는 자동적으로 수그러들게 됩니다. 미국과 미국 대통령이 하나되어 아시아와 하나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미국과 대통령을 분립시켜 이것을 파탄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가 닉슨과 하나될 것이고 전 국민과 하나될 것입니다. 내가 주장한 것이 동기가 되어 그렇게 된다면 아버님과 하

나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미국을 구하고 하나 만드는 데 공로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닉슨은 나와 의논하게 됩니다. 그랬더라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106-121, 1979.12.16) p. 689

제3장 일본 특별순회와 세계 선교사 파송

1절 해와 국가·어머니 국가인 일본의 책임

일본이 해와 국가가 된 배경

참아버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펼치고자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셨다. 이들 세 나라가 아벨 국가·해와 국가·가인 국가로서 하나된다면 세계복귀는 어렵지 않게 실현되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불신으로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영국 대신 일본을 해와 국가로 세우고 새로운 섭리를 펼치셨다. 일본이 해와 국가로서 어머니가 젖을 먹여 자식을 양육하듯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를 먹이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을 축복하신 것이다. (p. 690)

1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국과 추축국이 하나되어 신부권, 즉 기독교문화권이 신랑 되는 아버님을 모셨더라면 40년 비애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참부모님의 모델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승리의 기반 위에서 모든 가정을 7년이내에 여기에 직결시킬 수 있는 섭리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해와권, 다시 말해 신부 기독교문화인 서구문명권이 오시는 재림주님이 아버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함으로써 완전히 사탄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광야에 쫓겨난 입장에 서서 다시 상륙함으로써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핍박의 과정에서 세계의 반대권에 탕감조건을 세워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핍박권, 세계를 대표한 가정권·민족권·국가권·세계권·하늘땅의 모든 전체가 반대하는 것을 40년 동안에 거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240-104, 1992.12.10)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미국·프랑스를 보면 해와 국가인 영국은 섬나라로서 언제나 대륙을 연모합니다. 미국은 영국이 낳은 아벨입니다. 구교가 신교를 낳은 것입니다. 프랑스는 연합국 측의 가인입니다. 그 반대의 사탄 측은 일본·독일·이탈리아입니다. 이와 같이 연합국과 추축국이 대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 심은 것을 종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여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국·미국·프랑스가 아버님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당시 일본이나 독일이 하나님 쪽에 설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선택한 것은 소생·장성이 없으면 성약시대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림주가 서기 위해서도 미국을 복귀하면 유대교와 기독교, 구약과 신약을 복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선택한 것입니다. 2차대전 후에 미국과 일본과 독일이 세계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버님이 아벨 국가와 해와 국가, 가인 국가로 각각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246-194, 1993.04.16) p. 691

3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세계권 내에서 가인·아벨 국가, 그다음에는 아담·해와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아담 국가입니다. 미국을 중심한 기독교문화권이 아버님을 받아들였으면 해와 국가는 영국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과 세계 기독교문화권을 중심해 하나 만들 것인데, 기독교가 반대함으로써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돌아와서 한반도를 중심삼고 원수 나라인 일본이 등장한 것입니다. 복귀시대에 들어오게 되어 일본이 해와 국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세계 종말시대에 경제권을 전부 모을 수 있는 어머니의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해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일본이 찾아야 됩니다. (136-278, 1985.12.29)

4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탕감복귀를 하려면 제일 사랑하는 나라와 제일 미워하는 나라를 하늘 앞에 서로 상대적인 입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늘땅을 복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중심삼고는 일본, 미국을 중심삼고는 독일이 상대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아담형 국가이고 일본은 해와형 국가입니다. 또 미국은 천사장형 국가이고 독일은 사탄 편 천사장형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하나되면 이 네 나라를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나라가 하나되면 세계가 복귀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영계와 육계를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와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네 나라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네 나라를 복

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017-315, 1967.04.10) p. 692

5 예수님은 영적 승리의 기대만을 만들었지만 부모님은 영육 아울러 세계적인 통일권 섭리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1972년부터 3년 동안 우리가 결속해서 일본에서도 힘을 내어 움직이면 일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해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은 발전할 것입니다. 3년 기간이 지나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원리의 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것을 성위하기 위하여 기동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빨리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55-173, 1972.05.07)

해와 국가에서 어머니 국가로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앞둔 1999년 1만2천 명의 일본 여성 선교사들이 세계선교를 위해 150개국에 80명씩 파송되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로 파송된 일본 여성 선교사는 총 2만 명을 넘어섰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순회를 하면서 이들 선교사를 일일이 격려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위에 1998년 1월 1일 '일본을 해와 국가에서 어머니 국가로 승격한다.'고 발표하셨다.

6 이제부터 미국은 장자권 나라, 일본은 어머니 나라, 한국은 아버지 나라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 이 세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1998년 4월 17일 오늘부터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세 나라가 하나만 되면 전 세계를 조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 나라가 하나되면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된 평화세계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천국입니다. (292-243, 1998.04.17)

7 부모님이 선택한 해와 국가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부모님의 명령을 따르니만큼 장자 나라인 미국이 부모의 나라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나라 일본, 아들 나라 미국이 하나되어 부모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부 원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원수이고, 일본과 미국이 원수이고, 미국과 독일이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하나되는 데는 사랑으로 위해 주고 담을 전부 헐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것이 섭리의 청산 원리입니다. (397-190, 2002.11.21)

8 해와 나라인 어머니 나라와 아담 나라인 아버지 나라가 나와야 되고 장자권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아담 해와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장자권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권, 그다음에 왕권입니다. 개인적 장자권, 개인적 부모권, 개인적 왕권과 국가적 장자권, 국가적 부모권, 우주적 왕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장자권이 가인이고, 부모권이 아담 해와이고, 그것이 장래에는 왕권입니다. 그다음에는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담 해와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 장자권이 미국이 되어 있고, 세계적 해와권이 일본이 되어 있고, 세계적 아담권이 한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 해와의 소유, 어머니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들의 소유, 어머니의 소유가 있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315-168, 2000.01.30) p. 693

9 세상에는 아버지의 나라나 어머니의 나라, 장남의 나라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 장남의 나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 3자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와에게는 오빠가 필요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일본은 장남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라로서 아버지 나라와 하나될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전부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원래대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66-221, 2004.08.29)

10 한국 사람은 한국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가든가 해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일본·미국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입적하게 되면 국가관이 전부 잊혀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적하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 환경이라든가 빈부격차라든가 전통적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미국 3국을 중심삼고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 장자권 나라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장자를 통해서 순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18-171, 2000.03.06)

11 해와 국가인 일본은 다말과 마리아의 세계적인 결실체입니다. 세계적인 결실체라는 것은 국가를 중심삼은 마리아와 다말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민족적인 해방, 마리아는 국가적인 해방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주의 해방을 위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탄편 장자인 세계 뿐만 아니라 사탄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반대로 하늘 편의 종교권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사탄권을 완전히 잘라 버리고 180도 반대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와 국가, 어머니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원리관입니다. 이것은 구원섭리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어머니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다말의 사명권과 국가적인 마리아의 사명권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 국가로서 정착할 수 없습니다. (313-014, 1999.11.09) p. 694

12 일본은 어머니 나라입니다. 언제나 아버지 나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어머니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장자권에 서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나라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머니 나라가 일본이라면 아버지와 하늘부모의 행복을 위해 제물의 길을 가야 되고, 모든 전체를 희생하여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봉헌의 전통이 서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생활적인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한 어머니 나라요, 어머니 나라를 위한 장자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국이 있으면 만국 전체가 아버지 나라의 안위를 위해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608-129, 2009.02.22)

2절 참부모님의 일본 특별순회

참부모님 가정의 일본 특별순회

참부모님께서는 1965년 제1차 세계순회와 1969년 제2차 세계순회, 1971년 제3차 세계순회 당시에 일본을 방문하셨고 그 외에도 수차례 일본을 찾아 식구들을 격려하셨다. 특히 1967년 6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자녀들과 간부들을 대동하고 일본을 방문하셨다. 이 일본 방문은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에 맞추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참부모님의 말씀, 특히 《원리강론》의 상속, 둘째 신앙의 상속, 셋째 축복 은사의 상속, 넷째 해와 국가로서의 사명 완수 등이었다. 6월 17일부터 2주간에 걸쳐 중심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신 데 이어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지방순회를 하셨다. (p. 694)

1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심정이었습니다. 마

음은 여러분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언어를 소통하는 문제가 향후에 일본 통일교회 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마음을 통하고 가까워지는 기간을 두고 비슷한 면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도 많지만 이 부풀어 오른 가슴에 뛰는 기분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967.06.12, 일본 도쿄, 참어머님)

2 아버님이 1967년 6월 12일 일본에 갔을 때 느낀 것은 신앙의 본국에 대한 일본 식구들의 마음을 단일화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체 식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되었고 또한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본부 간부들을 일본에 데려간 것은 각 지방마다 파송하여 일본 식구들과 심정적 유대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여 2주일 동안 수련회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는 지방을 13일간 순회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일본의 중요한 공장을 대부분 다 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를 놓고 신앙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가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산업계의 실황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10개 이상의 공장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한국도 이제부터는 거국적으로 단결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018-284, 1967.08.10)

3 1967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식구들의 축복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식구들은 축복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년 내지 3년만 더 있다가 축복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자기들 개인을 위하기보다 일본을 위해서 참되게 살아 보지 못하고 참되게 활동해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을 미루어 보더라도 이때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세를 얼마만큼 긴박하게 요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소원을 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018-309, 1967.08.10)

4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일본 민족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아

버님은 1967년 일본에 가서 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이 일본에 간다고 하니까 일본의 신문 기자들이 나에게 회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국가의 고관이나 수뇌들이 만나자고 하면 선뜻 응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만나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문전에서 쫓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분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하면서 통일교회를 놓고 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967년 일본 언론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통일교회에 대한 내용이 톱기사가 되었습니다. (022-095, 1969.01.26) p. 696

5 형님은 아버지 대신이며 언니는 어머니 대신입니다. 그러한 기분을 얼마나 가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상대를 비판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일본을 떠나면서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부모님의 분신으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 교회 책임자를 자기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 책임자의 성장과정이나 학력 등을 볼 때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책임자가 자신에게 배우는 입장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책임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기 십상입니다. 아버님은 그런 문화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에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진 식구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버님은 그런 식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67.08.09, 일본 도쿄)

6 공산당이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이 일어나 공산주의에 대해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철저히 교육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이 승공의 기준을 정립했기 때문에 일본도 향후 승공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아담 국가와 해와 국가입니다. 타락은 둘 중에 해와가 먼저 했습니다. 해와가 사탄에게 먼저 넘어간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자신을 중심한 생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해와가 해와 자신만을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고 아담과 상의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공산당이나 좌익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견해에서 보면 우리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

금까지는 계속 미국이 후방을 방어해 주었기에 안전했지만 향후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공이 있고 소련이 있기에 일본이라고 해도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시급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1967.06.27, 일본도쿄) p. 697

7 도쿄에 가 보면 시내에 일본 공산당 간판이 빨간 글씨로 쓰여 당당하게 나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낮에도 도쿄 역전이나 시부야 역전에서 자신 있게 공산당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도 공산당원들은 사민당과 손잡고 자민당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발의한 것은 모두 반대하는 등 국회에서도 공동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의 공산주의자와 전체의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하나의 이용 도구로 삼아 지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18-286, 1967.08.10)

8 아버님이 일본을 순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 원리연구회 학생들이 학교까지 그만두고 일본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척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각 신문마다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모가 이를 놓고 한편에서는 신문사에 반대 투서를 하였고 한편에서는 찬성 투서를 하였습니다. 특히 한 신문에서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내용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문은 좌익 신문이기 때문에 승공노선을 취하는 통일교회가 사상적으로 자기들과 적대적 입장이므로 우리 교회를 모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문에서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과는 상반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론기관도 우리를 반대하는 편과 지지하는 편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신문은 부모들이 우리를 찬성하는 투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청년 남녀들을 반드시 통일교회에 보내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반대한 신문 기사는 전부 거짓말이다. 우리 아들딸은 거기에 가서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름이 매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018-298, 1967.08.10) p. 698

1973년 세 차례 일본 방문

참부모님께서는 1973년 7월 8일 일본을 방문하셔서 7월 22일까지 체류하셨다. 이 기간에 참아버님께서는 1973년 7월 11일 도쿄 사야마 공원에서 시즈오카 이북의

식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데 이어 12일 효고현 다카라즈카 연수원에서 나고야 서쪽 지역의 식구가 모인 가운데 집회를 주재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1973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세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셔서 제2회 국제과학통일회의(ICUS)에서 연설하시는 등 많은 행사와 집회를 주관하셨다.

9 일본은 2년 안에 운명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몇 개의 길을 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후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작전을 바꾸어야 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긴급사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금 결의를 굳혀야 됩니다. 목적을 향해 돌진하지 않으면 일본은 위험합니다. 아버님이 말한 대로 일본의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늦습니다. 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한 시간을 노력하지 않으면 수천년이 날아가 버리는 비참한 운명에 놓입니다. 이 한 시간, 한순간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1973.07.08, 일본 도쿄)

10 일본은 아시아로 연결되는 대륙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다리이며 근거지는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위쪽에는 북한이 있고 주변에 소련과 중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당하는 순간 아시아 전체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명은 해와 국가의 사명입니다. 자신이 굶어도 아시아 민족에게 경제 원조, 심정적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일본의 장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통일사상을 받아들이면 일본 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선두에 서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신부가 시집을 가서 잘할 경우 집안의 모든 여론이 집중되는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참부모님과 하늘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다할 경우 일본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1973.07.08, 일본 도쿄)

11 아버님이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모**인 일본의 젊은이들을 죽도록 내몰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일본이 정말로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위해 죽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이래 누구보다 심각한 입장에서, 강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공적인 입장에 서서 일본 민족을 위해서 선두에 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그 이상의 진심을 다한 사랑의 마음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히 이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일본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1973. 07.12, 일본 도쿄) p. 699

12 일본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양문명권에 대해 새로운 선구자가 될 수 있는 동양의 대표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는 세계 속에 많은 이름을 남겨 왔는데 일본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일본은 일본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이 일본을 위해서 사는 것과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훌륭합니까? 일본인이 세계를 위해 살려면 지나간 역사를 탕감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바로잡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조상이 범한 죄를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현시대 일본이 범한 죄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대가 옵니다. 과거를 탕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이상적인 현실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위하는 삶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참다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실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투입해야 됩니다. (1973.11.18, 일본 도쿄)

1974년 네 차례 일본 방문

참부모님께서는 1974년 2월 1일 미국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과 요담하신 후 영국 런던을 거쳐 5일 일본을 방문, 2월 8일까지 머무르셨다. 그리고 1974년 들어 두 번째로 4월 22일 일본을 방문하셔서 4월 25일까지 체류하셨다. 이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세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시고 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희망의 날' 만찬회를 주재하셨다. 이날 행사에서 재무상과 농림수산상 등 각료와 4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1천800여 명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아버님께서 '위하여 살자'는 제목으로 강연하셨다. 한편 미국에서 40개 도시 대강연회를 마치고 이해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네 번째로 방문하셨다. (p. 700)

13 세계의 문제는 각국이 서로 요구하는 중심적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만일 세계 만민이 그리워하고 요구하는 핵심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일본에서 제일 어려운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동요하는 일본에서 동요하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세우지않으면 이미 늦습니다. 소련이나 미국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사람이 바로 아버님입니다. 지금

부터 몇 십 배의 수를 얼마나 모을 것인가? 개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단체 전도도 목표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긴급히 기독교를 움직이겠는가? 단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장래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일본을 중심으로 전통의 기준을 얼마나 쌓아 올리는가, 세계의 중심을 누가 양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을 세워 세계의 중심적 전통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버님의 생각입니다. (1974. 02.06, 일본 도쿄) p. 700

14 지금까지 일본 교회에서는 신앙 기준이 잘못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하면 됩니까? 물론 절대복종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인을 복종시키려면 자기 자신의 3배 이상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복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소생과 장성은 사탄이 가지고 있고, 완성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복귀의 기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배 투입하면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복귀노정의 원칙입니다. (1974.02.06, 일본 도쿄)

15 부모님이 지구장 혹은 교회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나는 아벨이고 너희는 가인이다. 즉시 복종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공직자를 임명하면 아벨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아벨이 되었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조치는 '아벨이 될 것을 기대'하는 임명이지 '아벨이 되었다.'는 임명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교회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에 상처를 받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분명한 원리적 관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죽기 전에 이 탕감의 길을 청산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대를 승리한 터 위에서 실체기대를 승리해야 됩니다. 실체기대는 사탄을 자연굴복시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3시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 아담 실체를 현실세계에서 이루어 얻었다는 기준을 세우려면 박해를 받아도 떠나지 않을 3명의 제자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74.12.26. 일본 도쿄) p. 701

16 왜 일본의 통일교회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구장들의 관념적 의식은 천적으로 통하는 기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구장은 명령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잘 때에도

식구들을 먼저 재우는 부모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식구들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자신이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식구를 위해 진심을 다해 주었는지, 눈물을 흘려 보았는지, 손을 잡으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살려 주겠다는 심정권에 서 보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원리적인 지도 방법을 언제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인 아벨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원칙적 방법을 적용하여 원칙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원리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식구가 필요합니다. (1974.02.06, 일본 도쿄)

17 여러분은 종족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종족을 구하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척전도를 하는 것 이상으로 진심을 가지고 부모와 형제를 모셔서 반드시 일가와 일족을 복귀해야 됩니다. 수를 늘리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청년이 아닙니다. 장년들은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을 언제라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 친족, 여자는 여자 친족과 기준을 맞추면 수백 명까지 모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청년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수가 적으면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대로 된 방비도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장년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공부하는 만큼 종족을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1974.05.08, 일본 도쿄)

18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한국 교포 학생 여러분이 싸워 왔다는 것을 아버님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시절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심정을 잘 압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슬픔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광복 이전에 태어난 여러분의 부모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세울 수 없는 괴로운 입장에 있었으며, 환경적으로도 주체적인 비전을 가지거나 주장을 할 수 없는 불우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일제 때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 지하운동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게 되어도 결국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생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분은 한민족의 혈통을 계승한 사람들이지만 이 일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외되고 괴로운 생활의 연속이었기에 본국의 한국인들과도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일본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들끼리 모였을 경우 건설적인 이야기보다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불평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죽음의 경지를 넘어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1974.05.12, 일본 도쿄) p. 702

1975년 이후 일본 방문

참부모님께서는 1975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1800쌍 축복식에 참가하는 일본 식구들의 상대자 결정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신 데 이어 2월 10일부터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희망의 날' 대향연에서 연설하기 위해 도일하셨다. 특히 12일에는 세계 선교사회의를 개최해 95개국에 선교사 파견을 결정하셨다. 그리고 1978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셔서 당시 사이타마현 가카미카 와무라에서 1610쌍 축복 상대자 결정과 약혼식을 주관하셨다. 1983년 미국 정부는 참아버님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탈세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한 심각한 때 일본 교회 식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어머님께서 홀로 일본을 방문하셔서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체류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1992년 3월 26일 일본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모임' 초청으로 14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셨다. 특히 3월 31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오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오후에는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민당 부총재와 회담을 하시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4월 1일 귀국하셨다. (p. 703)

19 가정교회는 부모님이 세계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종족·민족·국가적 기준을 통합해 축소한 세계를 대표한 기반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주권을 축소한 기반이며, 각 민족을 축소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가인권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국가·세계까지 통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도 그것은 세계까지 통하는 아벨권, 승리권이 됩니다. 가정교회는 지금부터 3년 동안 여러분이 완수해야 될 목표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360가정 기반을 중심으로 종족복귀, 민족복귀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1978.09.22, 일본 도쿄) p. 703

20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면목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귀의 세계적인 개척의 길을 부모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님을 대하여 왔는지 냉정하게 비판하고 오늘의 위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내일의 승리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아담 국가에 대응하는 해와 국가의 위치에 서 있다면 부모님이 어떠한 혐의를 받거나 고난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해와가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을 생각하면 그 생애 전체를 걸고, 세계를 대표하여 부모님의 심정에 단 한 점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해와 국가인 일본의 입장입니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부정의 자세로 전도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으면 지금은 당장 완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연장해서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있는 시대에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까지 역사적으로 종교를 믿다가 영계로 간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현대에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와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부모님을 직접 만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1983.03.13, 일본 도쿄, 참어머님) p. 704

21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외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며 고생해 온 것을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역사는 영광으로 출발해야 했지만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원한 많은 복귀역사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의 생애가 박해와 고난과 끊임없는 수난의 노정을 거쳐 오늘날 세계의 통일교회 기반으로 넓혀질 때까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숨겨진 사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몸 둘 곳 없는 피와 고통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조금도 양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 미국에서의 재판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1983.03.13, 일본 도쿄, 참어머님)

22 1992년에 부모님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한국과 일본, 아담 국가와 해와 국가가 하나되고 미국과 독일이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나라들은 지상천국의 일족왕국입니다. 지금까지 장자권 왕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계의 장자권을 가지고 만인의 역사를 지도하고 남을 수 있는 전통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편적인 사랑, 참사랑을 심고 정착함으로써 만년을 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기반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나라에 머무르지 말고 참부모와 하나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부터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기반 위에 정신적인 내용을 갖추게 될 때에는 심신분열의 비극의 역사가 끝나고 심신이 통일되어 완성 실체를 이룬 나라가 될 것입니다. (228-170, 1992.03.27)

3절 세계 선교사 파송과 수난

세계 선교국 확장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 개척전도에 이어 해외선교가 본격화한 것은 1965년 참부모님의 제1차 세계순회 이후였다. 제1차 세계순회를 계기로 영국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요르단 브라질 등지에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선교사가 파견되었지만, 1975년 2월 일본순회 중 일본 협회본부에서 열린 세계선교사회의에서 참부모님은 세계 95개국 선교사 파송을 결정하셨다. 이에 따라 5월 5일부로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 127개 선교국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195개국에 통일교회가 설립되는 등 세계선교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p. 705)

1 우리는 세계를 구해야 됩니다. 1974년까지 12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세계 40개국에 120개 성지를 정했습니다. 제2차 7년노정 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 파송되어 갑니까? 축복가정을 보내게 되면 박해가 덜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구들보다는 축복가정들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합당한 축복가정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부모나 조부모가 있다든지 해서 그 나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식구를 선발해서 보낼 것입니다. 그 나라와 어떤 혈통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식구가 있으면 그 식구를 파송할 것입니다. 제3차 7년노정에 들어서면 우리는 이들 120

개국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차 7년노정 동안에 제3차 7년노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052-081, 1971.12.22) p. 705

2 1975년에는 120개국에 360명의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을 내보냈지만 이제부터는 세 사람씩 보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일본 사람, 한 사람은 유럽 사람, 한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유럽인 1천 명으로 한 팀, 아시아인 1천 명으로 한 팀, 그다음에는 남북미인 1천 명으로 한 팀의 국제기동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3천 명의 국제기동대가 돌아다니면서 한 나라에 한 달씩 가서 1천 명씩 전도하는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한 팀이 1천 명씩니까 3천 명이 한 달에 한 사람씩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늦어도 석 달에 한 사람씩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석 달에 한 사람씩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통일교회 식구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기동대 가운데 독일 사람이라든가 프랑스 사람이라든가 우수한 사람들은 앞으로 국제적인 선교사업에 배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선교활동을 해야 됩니다. 3년이면 완전히 기반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073-137, 1974.08.16) p. 705

3 선교사를 보내는데 한 나라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세 나라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 문제를 일으키는 선교운동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문제 되면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나라가 일본 사람을 반대하면 일본 사람도 그 나라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요, 독일 사람을 반대하면 독일 사람도 그 나라 사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의 참소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인류를 살려 주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선한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반대한 사람이 걸리지 선을 위하고 선을 지지하게끔 한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91-062, 1977.01.23) p. 706

4 예수님이 120문도를 중심삼고 출발한 기반 밑에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출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도 120개 국가에 세 사람씩 선교사를 내보내 세계적인 출발을 해야 됩니다. 1975년 4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전부 내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세 제자와 같은 사위기대 형태를 이

룬 것을 전 세계로 널려 놓은 작전을 하기 위해 1975년에 120개 국가에 선교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부터 국가기준을 중심삼은 기반과 세계의 횡적 기반이 상대적 관계를 맺어서 모든 영이 재림해 세계에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집니다. 그러므로 국가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탕감해 주어야만 모든 영들이 전체 지상을 자기 활동무대로 해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078-016, 1975.05.01)

5 세계 기독교 전체가 하나되어 강력한 조직을 갖추어 세상 나라를 조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 자리에만 서면 보호를 받으므로 그 기독교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뜻을 성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다면 기독교를 먼저 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가인 아벨 문제를 중심삼고 세계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입니다. 하나님은 망해서는 안 되겠으니 하나의 단체가 이와 같은 사명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단체가 통일교회입니다. 이런 실정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사실을 우리 몸과 마음으로 팽팽하게 부딪쳐서 방어할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120개국에 선교사를 내보내서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을 중심삼고 강력한 체제를 형성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아벨의 세계적 판도를 재확보하자는 것입니다. (076-331, 1975.03.15) p. 707

6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국가적인 사명을 목표로 해 나왔지만, 이제는 세계적 사명으로 전개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 있는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가정부터 72가정 124가정은 될 수 있으면 제3차 7년노정에서 세계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는 데에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36가정 72가정 124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삼은 국가적 기반의 12사도와 70문도, 120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0문도는 국가대표요 120문도는 세계대표이기 때문에 124가정까지는 세계적 책임이 안팎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세계적 수난 도상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 뜻적으로 보면 원래 124가정 72가정 36가정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77-220, 1975.04.12)

7 왜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느냐? 지금 통일교

회가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평면상으로 찾아야 할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 미국 독일입니다. 이들 국가를 연결시킨다면 공산권까지 세계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사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할 국가들이 일본 미국 독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까지 복귀 사명에 있어서 가정들이 갖지 못하였던, 다시 말하면 36가정이 하지 못하고 72가정이 하지 못하고 124가정이 하지 못하였던 것을 세계적으로 나가서 대신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가정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대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다르고 민족은 다르지만 이들이 우리 가정들을 대표해서 선교 일선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고, 제3차 7년노정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가정이 일치단결해서 이들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운세를 돌려놓아야 될 것이 섭리적인 관으로 본 3차 7년노정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36가정에서부터 이들을 대표하고 이들을 총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세계 육대주를 순회할 수 있는 순회사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점점 확대해서 그 선교부가 발전함에 따라 36가정을 대표적으로 투입하고, 72가정을 대표적으로 투입하고, 124가정을 대표적으로 투입해서 7년노정에서 안팎으로 하나되게 하여 세계복귀 운세를 돌이켜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중심삼은 제3차 7년노정입니다. 이와 같은 긴박하고도 숨 막히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077-221, 1975.04.12) p. 708

8 우리가 세계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12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을 보내면 좋았겠지만 그때 한국은 여권을 내기가 힘들었고 외국에 내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전부 제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파송되어 가서는 벽돌집이나 호화스러운 빌딩에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막사에서 엎드려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 민족의 생명을 지도하겠다고 한다면 그들보다 더 고생을 해야 된다. 너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 책임자, 한 사람은 경제 담당자, 한 사람은 언론계 책임자로 활동하라고 훈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110-187, 1980.11.17)

9 여러분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할 주체적인 하나

의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1975년을 중심삼고 출발하는 국제기동대입니다. 이제 기동대를 앞세워 전 세계를 휩쓸고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시대에 120문도는 세계적 대표 국가형이므로 120개 국가에 선교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는 그 수에 해당하는 우리 선교부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선교하러 나갈 때 혼자 나갔지만 이제부터는 세 사람씩 합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을 보내는데 아버님을 중심삼고 보면 네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초민족적이며 새로운 국가의 민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적 시대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적 기준 앞에서 아담 국가, 해와 국가, 천사장 국가를 가질 수 있는 권내에 서 있기 때문에 세계가 공동 출발을 할 수 있는 때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세 사람씩 보내는 것입니다. 천사장 국가인 미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한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천사장 국가인 중국, 유럽의 해와 국가인 영국과 천사장 국가인 독일 등 7개국만 연결시키면 어떠한 나라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073-255, 1974.09.22) p. 709

10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원수 나라입니다. 독일의 젊은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의 젊은이들을 가장 많이 미국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과 독일 사람이 원수 나라인 미국에서 자기 나라보다도 미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서 세계 초민족적인 새로운 나라가 탄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목표를 세워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을 초월해서 미국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해낸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일본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역사에 남게 된다면 이것은 장래 일본과 미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선두에 나서서 '위하여 존재하는 세계' 건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일본인 전체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과 대만인, 이 3개국 사람들을 미국에서 하나로 묶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 영향을 주고 미국을 안고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일본이 구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대만이나 대한민국의 현황을 감안할 때 그러한 길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공산권으로부터 몰리고 있는 긴급한 아시아를 재생시킬 길이 없다고 봅니다. (072-027, 1974.05.07)

11 미국은 천사장 국가입니다. 미국은 타락한 세계에 잃어버린 것을 다 갖다가 얽어내야 될 복귀적 천사장이기 때문에 전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을 중심삼고 아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삼고 한국·일본·미국·독일 네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제일 쉬운 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한국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 무대를 중심삼고 자유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와서 기지를 닦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원리적 관입니다. 내가 여기에 올 때 일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다음에는 독일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버님과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4개국을 연결시키는 작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해와가 해야 됩니다. 일본은 어머니 자리입니다. 일본이 두 아들 국가를 복귀해야 됩니다. 그 나라들 중에 미국은 하늘 편이고 독일은 사탄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식구들이 미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을 품어 주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아담의 자리입니다. 일본은 해와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짝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인 아버님이 그 셋을 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두 아들의 자리에 있는 나라들을 품고 나서야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관입니다. 아버님이 127개국에 선교사를 내보낼 때에도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을 내보냈는데, '너희가 하나 안 되면 안 된다. 일본 사람을 중심삼고 하나되어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본 선교사는 미국과 하나되고 독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119-245, 1982.09.13) p. 710

12 이제 전 세계는 가을절기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회를 반대했지만 이제부터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추수의 역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추수의 역군을 동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는 추수의 역군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추수할 역군을 내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결심 위에 아버님의 결심을 연결시켜 대신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전통적인 사상을 이어받아 새로운 제2의 아버님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없어져도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통일교회의 책임자들과 선교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교국 대표들이 여러분과 같은 결의를 함으로써 하

늘땅과 영적 세계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계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제2의 아버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을 중심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2의 아버님으로서 '아버님은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방식입니다. (131-320, 1984.05.19) p. 710

13 세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통일가의 자녀들은 하늘부모를 중심삼고 심정적 인연을 결속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고받는 그 마음은 인간세계의 어떠한 심정의 내용보다도 국가라든가 천주를 중심한 방대한 심정적 인연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중심삼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심정적 터전은 '만민이 통과하더라도 그 방향이 교차될 수 없다. 가는 도상에서 도중에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확고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외국의 선교본부를 중심삼고 볼 때 한국을 통한 섭리의 인연이 그 선교본부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전달되면 그것을 자기 나라의 전국에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심정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다리를 통해서 역사세계에 새로운 천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면 한국을 중심삼고 뜻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심은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의 받침 혹은 터전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울어지면 도리어 파탄의 요인이 됩니다. (051-071, 1971.11.01) p. 711

선교사들의 시련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가 파견되면서 박해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공산권 국가에서는 선교사들이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다. 그리고 1976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빌라오블레 교회 폭파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식구가 중경상을 입었다. 프랑스 식구들은 에펠탑에서 트로카데로까지 강력한 항의행진을 벌이는 등 유럽 각 교회의 지원을 받아 3월까지 공개강연과 옥외집회를 가졌다. 이러한 와중에 1월 29일 300여 시민의 시위와 습격으로 전도소 한 곳의 기물이 파손되기도 하였다. 한편 1980년 12월 18일 사사모토 마사키(笹本正樹) 탄자니아 선교사가 순교하는 등 선교사들이 각국에서 잇따라 박해를 받았다.

14 1976년 아프리카까지 127개국에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국에서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과 싸우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의가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123개 국가에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일선 선교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물 흘려 기도하면 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런 체험들이 없으면 통일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백 퍼센트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085-078, 1976.03.02) p. 711

15 1975년과 1976년은 우리에게 최고의 핍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1975년에 선교사를 다 내보냈습니다. 이런 것이 섭리를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1981년까지 해야 될 것을 1976년까지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전 세계가 통일교회를 반대했습니다. 127개국에 선교사를 내보냈더니 부모님을 반대하는 동시에 선교사를 감옥에 보내는 일도 생겼습니다. (136-071, 1985.12.20) p. 712

16 아버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영계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잘 압니다. 내가 일생 동안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때가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때였고 황금시절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비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압니다. (189-243, 1989.04.09)

17 1975년에 전 세계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구나.'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이 세 나라 사람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들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또 이제는 새 시대에 뜻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대표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났던 소문이 각국으로 나갑니다. 미국에서 '좋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7년부터는 전부 돌려놓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래서 돌려놓는 날에는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84명 정도는 나 같으면 일주일 이내에 다 해 버립니다. 일주일 수련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때를 만들어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089-252, 1976.12.01)

18 1976년까지 세계가 통일교회를 반대했습니다. 세계 전체가 반대해야 됩

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 그 다음에는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와 모든 나라의 국민과 공산세계까지 거기에 합세하여 총공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체로부터 승리했다는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1976년을 중심한 미국에서의 통일교회가 일대 투쟁한 역사입니다. 1975년 세계 127개국에 선교사를 보내니 세계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 대사관을 통해 각 국가에서 반대하게 함으로써 세계의 통일교회 선교사들은 십자가의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내몰고 별의별 짓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더라도 사탄세계가 나를 공격함으로써 부정당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나라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골리앗과 싸운 다윗과 같이 '세계만방의 요사스러운 반대의 먹구름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내 앞으로 와라! 공격을 해라! 쳐라!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싸움은 역사이래 통일교회에만 있습니다. (136-234, 1985.12.29) p. 713

19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위협을 방비하는 일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철의 장막이라든가 공산권 국가의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버님에게 유서를 보내왔는데 '아버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영계에 가서 만나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산주의를 방어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87-025, 1976.04.23)

20 1980년 12월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사가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에 '너는 너로서 갈 길을 간 것이다. 그 나라 통일교회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와 같은 입장에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면 세계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111-019, 1981.01.11)

21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근거지가 없으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공산세력이 부모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 전부 문

제여서 암살했다는 것입니다. 암살할 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니 '소원은 없소,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경배하고 나서 간다면 아무런 후회는 없소. 나는 승리자로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부모 친척 고국을 떠나서 혼자 가더라도 슬픔을 갖지 않소. 사랑의 도리인 천도를 밝히고 가는데 죽음인들 무섭겠는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사랑이 그리워서 사랑의 천국을 가겠다고 국경을 넘고, 세계의 고독한 자리에서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사나이가 얼마나 역사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의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길에서 가르쳐 주는 교육은 진짜 교육입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약속한 약속은 천년만년 가도 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 있고 육적인 몸이 있으면 영육의 세포가 다 공명하는 자리에서 사랑의 마음이 통하는 과정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약속한 것은 천년만년 가도 잊히지 않습니다. (139-055, 1986.01.26) p. 714

22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서 어려울적마다 아버님이 옥중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극복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버님의 생애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후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역사에 기재하는 재료로 취해야 될 텐데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보통 재료는 역사에 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기가 막힌 재료가 역사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공개된 사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폐쇄된 사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실은 앞으로의 역사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119-010, 1982.07.03)

23 공개된 사회에 선교사가 나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 통일교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사회에도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국제축복결혼식에 참가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날을 생각하면서 국제축복결혼식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전도된 사람들은 얼마나 부모님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대중집회 자리에 참가하기를 바라지만 참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만나거나 어디서 만나 서로 지시를 하거나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한 기록**도** 있겠지만 폐쇄된 사회의 배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오며 선교한 기록도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공개된 사회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들보다는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마음을 못 놓습니다.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자기 전체가 파탄된다는 것입니다. (119-010, 1982.07.03) p. 715

24 공산세계에서 살다가 영계에 간 사람들이 '통일교회가 세계적인 사명을 짊어졌으면 공산세계까지 들어와서 전도를 해야지 왜 안 하느냐?'라고 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 치하 감옥에 우리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76년에 미국 벨베디아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낸 것은 세계로부터 핍박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문제가 되면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나 세계 사람들이 '레버런 문! 그러한 참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우리 국민 앞에 알려 주어야지 왜 안 알려 주었소?'라고 참소를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일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기다릴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091-160, 1977.02.06)

좌익 계열의 조직적 반대

프랑스 통일교회 폭파사건은 공산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 국회의원과 조야인사들조차 문제를 삼았다. 그리고 한 때 벨베디아수련도도 폭파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소방서와 경찰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뉴욕에서 참부모님 반대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대세력은 국제좌익세력이 배경이 되어 있었다.

25 1976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빌라오블레 통일교회에서 폭파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뜻적으로 볼 때 상당한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통일교회, 소수의 사람이 속해 있는 이 단체를 전 세계의 공산세력과 기독교가 공격한다는 사실은 큰 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아서 알듯이, 공산세력과 보수주의의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하는 등 우리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경향으로 볼 때 대중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때리면 약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약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통일교회를 없애자고 할 때 프랑스 경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로서 국가에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통일교회를 자세히 알게 되고, 그것이 약자를 모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인식만 하게 되면 대중은 완전히 우리 편으로 넘어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082-173, 1976.01.24)

26 프랑스 교회 폭파사건으로 인해 우리 남자 식구와 여자 식구가 부상당했지만 그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 아닌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사람이 부상당했다는 것은 더 역사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국제기동대의 전통이 확고히 설 수 있는 좋은 역사적 재료라고 봅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위하고 유럽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프랑스 국민이 아는 날에는 프랑스 국민은 네덜란드에도 머리를 숙여야 되고 노르웨이에도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국제기동대에 미국 사람이 많고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이 많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왔던 한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세계적인 추앙을 받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폭파사건으로 국제기동대는 생명을 바치면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위하여 싸웠다는 전통을 세울 수 있고, 빛나는 새로운 역사적인 기준이 남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세계 역사에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082-179, 1976.01.24)

27 지금까지는 사탄 편이 통일교회를 치더라도 말로 쳐 왔습니다. 말로만 쳐 왔지 폭력을 행사하든가 해서 통일교회를 깨뜨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폭파 사건은 탕감을 하고 하늘이 밟고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도리어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통일교회가 폭파당했다는 사실은 통일교회가 역사적인 탕감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쳐서는 안 될 권(圈)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통일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외적 조건들을 하늘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083-017,

1976.02.05) p. 717

28 1976년 6월 양키스타디움 대회를 중심삼고 큰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반대세력이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포위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 워싱턴 대회만 넘어가는 날에는 역사적 전환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한 4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이 기간을 중심삼고 뒤넘기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불리하게 몰릴 것이 훤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파리 통일교회가 테러를 당한 것도 그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망성이 있습니다. 벨베디아 수련소도 폭파한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오고 경찰이 동원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수 기독교와 공산당이 야합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뉴욕타임스가 정식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공산당이 배후에서 조작한다고 우리가 백주에 선전을 해도 미국 국민이 반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리한 조건을 중심삼고 넘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082-230, 1976.01.31)

29 1975년 미국 뉴욕에서 아버님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야단이 벌어졌습니다. 데일리뉴스는 4개면에 걸쳐 시리즈로 5일간 우리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일가는 신문사에서 그랬다면 이것은 폭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만큼 내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세를 취하여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륜의 때가 되면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뭐라 해도 하늘 앞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082-265, 1976.01.31)

30 왜 통일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백인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사탄 편에서 통일교회 레버런 문을 제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의 아들딸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수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딸을 잡아다가 죽였지만, 하늘 편은 사탄 원수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줍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대부모회'가 생겨났습니다. 역사 이래 자기 아들딸을 납치하는 역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20세기에 선진국의 대표국가라는 미국에서 제일 극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098-019, 1978.04.02)

31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포스트가 통일교회를 반대하고 전면적인 공세로 나올 때 기사를 보면 '반대부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버님을 따라가니 통일교회의 세뇌공작으로 전부 미쳤다고 악선전을 하기 위한 반대부모회, 젊은이들을 납치해 가서 역세뇌한다고 하는 반대부모회가 있습니다. 그 반대부모회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지지부모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는 반대부모회에서 350명이 모였으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서 3천500명이라고 하고, 35명이 모였으면 350명이라고 보도합니다. 우리는 그때 700명 가까이 모여서 지지부모회 회의를 하였는데 이것은 동그라미를 하나 빼버리고 70명이라고 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언론계에 이미 공산세력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산세력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는 미국 언론계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계를 결집해서 아버님 타도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1976년이 최대 격전의 시기였습니다. (110-177, 1980.11.17) p. 718

32 통일교회에서는 효의 도리를 가르치고 충의 도리를 가르치고 성인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국가주의적 애국자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계를 위한 애국자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효자로되 세계를 위한 효자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사회의 부모들이 보는 관이나 국가가 보는 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반대받는 것입니다. 반대부모들이 나오는 것은 공산세력의 조종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세계적인 반대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반대 부모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공산당이 세계적 공산당 배경을 중심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084-209, 1976.02.29)

33 미국에서 재판사건이 있으니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도 재판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연합전선이 펼쳐지면서 공산세력이 나를 잡아치우려는 데에 민주세계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멋진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정투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기는 날에는 통일교회 선교역사에 피 흘리는 일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로마 원로원에 가서 싸워 이겼다는 증거, 그런 사실을 남겼더라면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후대 후손들이 가는 길에 피 흘리는 것을 방지하는 책임을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126-266, 1983.04.24) p. 718

제7편 참부모님의 수난노정과 승리

차례

제1장 일제와 북한 공산 치하의 수난과 승리

1절 독립운동과 경기도경찰부 수난 ····· 722
2절 평양 대동보안서 수난 ····· 729
3절 평양형무소와 흥남감옥 수난 ····· 733
4절 모범적인 수형생활과 승리 ····· 746
5절 흥남감옥 해방과 식구 수습 ····· 758

제2장 이대·연대 퇴학사건과 서대문형무소 수난

1절 이대·연대 퇴학사건 ····· 765
2절 서대문형무소 수난 ····· 771
3절 서대문형무소 무죄 석방 ····· 777

제3장 댄버리 수난과 참부모님의 승리

1절 참아버님의 탈세 혐의 재판 ····· 783
2절 문흥진님 성화와 애승일 선포 ····· 793
3절 댄버리 수난과 옥중생활 ····· 803
4절 옥중 평화운동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규합 ····· 811
5절 댄버리 출감과 참부모님의 승리 ····· 819
6절 옥중 수난이 주는 교훈 ····· 826

제7편 참부모님의 수난노정과 승리

참아버님께서는 평생 여섯 번의 무고한 옥고를 치르셨다. 일제 치하에서 한 차례, 북한 공산 치하에서 세 차례, 대한민국에서 한 차례, 미국에서 한 차례 옥고를 치르셨으며 그 기간만 해도 5년에 이른다. 여섯 번의 옥고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노정이라고 하지만 감옥은 정신과 육체적 활동이 제한된 곳이다. 특히 흥남

감옥에서는 추위와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고 황산암모늄 비료를 가마니에 퍼 담고 나르는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게다가 서대문형무소와 댄버리 수난은 자유세계에서 자행된 핍박이었으니 탕감복귀의 길은 이토록 멀고도 험하였다.

참아버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을 큰 의를 위한 시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로하셨다. 특히 맞고 빼앗아 오는 하늘의 섭리역사를 아시는 참아버님은 오히려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휼하는 피난처라고 하셨으니 이런 역설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결국 인류가 받아야 할 탕감을 대신 짊어지고 인류구원섭리를 위한 승리의 조건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온 기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참아버님께서는 북한 공산 치하에서 수난을 통하여 새 출발의 기대를 쌓으셨다. 특히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성들이던 신령교단인 복중교를 통해 참어머님과 인연을 맺는 기회를 가지셨다. 참아버님이 대동보안서에서 수난을 받을 당시 함께 구속되어 있던 복중교 지도자가 참아버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참어머님이 6세 때 복중교단으로부터 축도를 받으셨으니 결과적으로 참아버님과 연결되는 오묘한 섭리역사였다.

참아버님의 수난은 새로운 섭리를 진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흥남감옥 수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탕감복귀하시는 섭리적 조건을 세우신 것으로 출옥 후 남하하여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댄버리 수난을 통해서는 미국 기독교 성직자들을 하나로 묶는 기적을 만드셨다. 참어머님은 참아버님과 일체를 이루어 댄버리 수난노정을 함께 걸으며 세계적 탕감복귀섭리를 승리로 이끄셨다. 이렇듯 한과 핍박의 역사를 넘어 승리하기까지 참부모님은 피와 땀과 눈물의 천로역정을 가셨다. (p. 721)

제1장 일제와 북한 공산 치하의 수난과 승리

1절 독립운동과 경기도경찰부 수난

지하 독립운동과 수감

참아버님께서는 1941년 4월부터 1943년 9월까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다. 그리고 이 기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지하 독립운동을 하셨다. 1943년 10월 중순 귀국하신 참아버님께서는 유학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 탄로나 1944년 10월 경기도경찰부에 구속되어 이듬해 2월까지 수난을 당하셨다. (p. 722)

1 아버님은 일제 치하에서 지하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갈 길을 정했습니다. 일본에 가 있으면서 돈 많은 사람이나 별의별 사람들의 유혹도 많았습니다. 아버님은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나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가슴에 있는 비밀을 자기들도 모르게 내게 직고하였습니다. (154-162, 1964.06.12) p. 722

2 아버님은 일본에 가서 유학할 때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삼고 지하운동을 했습니다. 일본 경시청의 자료 가운데 아버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요전에 일본에서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을 중심삼고 3국을 넘나들면서 사상운동을 했다는 것이 경시청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600-034, 2008.10.24)

3 옛날 아버님이 일본 도쿄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21년 후에 다시 보자고 기도하고 건너왔습니다. 그 뒤 21년 만에 다시 일본에 갔습니다. 그 때에는 일본에서 지하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어 합동작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님 뒤에는 언제나 형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한국에 나오게 되면 그들이 한국에 미리 전화를 해서 아무개가 지금 한국 어디에 간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버님이 정거장 개찰구를 나오면 원치 않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오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034-288, 1970.09.13)

4 일본에서 지하운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니주바시(二重橋) 근교에 살면서 궁전 파괴를 위한 공작을 한 사람입니다. 일본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빈민굴로부터 전부 연구한 것입니다. 일본 대신의 비서실에 들어가 비서로서 문서 쓰는 일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장래는 길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학생시절부터 지하운동을 장려하면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을 아버님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부관(釜關)연락선을 타고 왕래하면서 독립을 위한 비밀교섭이라든가, 부산으로부터 신의주와 중국의 안동(단둥)까지 히카리(光)호를 타고 넘나들면서 독립운동 배후의 인맥을 연결짓고 지하운동을 하는 내부 인사들에게 연락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465-174, 2004.08.21) p. 723

5 아버님은 한민족이 일제 치하 40년 동안 수난 가운데에 있을 때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별의별 감언이설로 출세시켜 주겠다느니 잘해 주겠다느니 했지만 아버님은 고난길을 택해 왔습니다. 하늘이 미워하는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은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끊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다 아버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몰아놓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길을 택해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161-198, 1987.02.03)

6 하나님의 심정의 인연을 거쳐 하나님의 보증자가 되고 사탄의 공인을 받는 자리까지 개척하기 위해 통일가가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비참한 길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내가 일제 때부터 감옥에 들락날락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열 손가락에 피를 내는 자리에서도 이것이 10개 국가의 피를 대신하고 10개 민족의 피를 대신하는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나 하나 죽어서 나라가 해원성사되고 나라가 해방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049-157, 1971.10.09)

7 만민이 공통으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요 만민이 찾아야 할 본연의 목적 기준은 본연의 부모를 찾는 것이요, 본성이 지향하는 고향, 즉 본성의 세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이것들을 쟁취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리원칙입니다. 아버님은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집어던졌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 갔을 때는 일본 제국주의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님은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어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추구했던 것은 하늘나라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왕이 있고 주권이 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압제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마음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출세할 수 있었던 환경을 다 버리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이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020-140, 1968.05.01) p. 724

8 내가 20대 젊은이로서 꿈에 부풀어 욕을 먹으면서 다닐 때 어머니는 '아이고, 저 녀석이 공부시켜 놓으니 저런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문씨 가문의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정성을 들였습니다. 없는 돈을

모아 외국에까지 보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감옥으로 끌려 다닌 것입니다. 일제 때 감옥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처지를 놓고 어머니는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잘못한 것이 없소, 문 아무개의 집안에 태어나 그 가문을 더럽힌 일이 없소. 대한민국 전통적 사상을 중심삼고 비판해 볼 때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없소. 내가 비록 옥고를 치르는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는 원치 않소. 여기에 충고를 해주고 격려해 주며 내일의 희망을 위해, 한민족이 해방되고 온 아시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어떠한 모험이라도 당당하게 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어머니가 내게는 필요하지 그 외에는 필요치 않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오.'라고 말하였습니다. (121-166, 1982.10.24)

9 내 손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집도 사 주고 양복도 해주었지만 부모님께는 손수건 하나 안 사 줬습니다. 불효를 한 것입니다.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습니다. 일제 때에 일본에서 돌아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나는 청천벽력같이 호령하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인 문 아무개라는 사람은 졸장부가 아니오. 내 눈에 서린 것은 어머니보다도 세계와 하나님의 슬픔이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 이 길에 와 있소.'라고 했습니다. (121-289, 1982.10.29) p. 725

원수 사랑의 길을 가다

경기도 지역과 서울의 4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일제의 경기도경찰부는 악명이 높기로 유명했다. 참아버님께서는 수감 기간에 온갖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피를 토할 만큼 매를 맞았다. 그리고 형사들이 지하 독립운동을 한 동지들의 이름을 실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발설하지 않았다. 의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섰다. 참아버님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동정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고, 매를 맞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고문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 주셨다. 1945년 2월 경기도경찰부에서 석방되기까지의 감옥생활은 장차 공적 활동을 위하여 참아버님과 하늘이 교통하는 내적인 준비 기간이었다.

10 아버님은 쇠고랑을 많이 차 봤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문 아무개가 들어왔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날 일본인들이 쑥 들어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가워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와 있나 없나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때에도 경찰서 출입을 보통으로 했습니다. 또

고문대에서 뱃심도 많이 부려 본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아버님은 일본 사람들한테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지독한 고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그때처럼 지져대면서 고문하면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025-163, 1969.10.03)

11 일제 치하에서 아버님은 군홧발에 배를 얻어맞은 고문도 당하였습니다. 두 녀석은 좌우에서 손을 잡고, 또 두 녀석은 위에서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뱃가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소에 가서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야, 멋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석방되어 나갈 때에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대여섯 시간 동안 심하게 고문을 받고도 기절하여 벌렁 나가쓰러질 때 오히려 고문하는 그에게 동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근성이 진짜입니다. '그때 그 아무개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017-298, 1967.02.15) p. 725

12 충신은 누구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 더 빛나는 충신입니다.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생명이 다하도록 생애를 바쳐서 부모를 위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과 안 바친 사람 중에 누가 더 효자냐 할 때에 생명을 바치지 않은 사람은 효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은 사람은 충신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벌써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졸장부가 아닙니다. 내가 일제 치하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싸운 사람입니다. 내가 붙잡혀 들어가서 입만 벌리면 70명의 동지들 목이 날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으면 죽었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065-064, 1972.11.13) p. 726

13 일제 때 내가 별의별 고문을 당하면서도 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경의 고문 주임이 아무리 고문을 해도 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분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365일 아무리 해보라는 것입니다. 몇 번 죽었다 깨어나서도 '왜 그래? 잠 좀 자자.'고 농담하는 것입니다 '잠을 좀 더 자려는데 왜

깨워, 이 녀석들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문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와도 '야야, 이렇게 하니까 안 아프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해결 안 날 것이 뻔하니까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너희도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지만 공판정에 나가면 내가 얘기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사나이라면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사나이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081-205, 1975.12.28)

14 아버님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안 됩니다. 일제 때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많이 당해 봤습니다. 머리가 터지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별의별 고문을 다 당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견뎌낼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은 12시간 동안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 기어서도 가지 못할 만큼 되고 몇 번씩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과정이 반복되었어도 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세계를 점령하고 하늘의 비밀을 캐내려고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말 한마디에 달**려** 있기에 죽더라도 절대로 입을 열수 없었습니다. 각목으로 소름 끼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자기가 망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한 후에 하룻밤만 지나면 그날은 슬픈 날인 동시에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033-116, 1970.08.09) p. 727

15 아버님은 매를 맞아서 피를 토하고 살이 뜨거워지는 자리에서도 '이 피는 역사를 배반했던 선조의 피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으니 짊어질 십자가가 있거든 더 지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사나이다운 기동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노정을 걸어왔습니다. '참고 나가지만 어느 한 날 갚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참으시옵소서. 한민족을 심판하시려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저에게 통고하고 심판하십시오. 또한 세계를 심판하시려면 최후에 저에게 통고하고 심판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팔자타령이나 하고 신세타령이나 하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멋진 사나이입니까? 역사시대에 한 번 나타났다가 영계에 가더라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없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017-298, 1967.02.15)

16 운동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모릅니다. 고단할 때에는 소변을 보러 가서 딱 5분만 운동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받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안 죽습니다. 고문 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물을 먹여 놓고 배나 어디나 꽉꽉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 먼저 관장을 해야 됩니다. 오줌 대신 뒤로 뽑아내야 됩니다. 숨통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의 왕인지 모릅니다. 너무 피곤하게 되면 코피가 나지요? 코피가 안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코피가 나는 것은 그 방지책입니다. 고단하게 될 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문 당할 때에는 반드시 숨통을 만들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 입술을 깨물든가 혓바닥을 깨물든가 해서 피를 흘리고 구멍을 뚫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내가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생애노정이 편안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길이 굽이쳐 왔지만 그 고개를 다 넘었습니다. (206-310, 1990.10.14) p. 728

17 아버님은 일제 말기에 형사들한테 무수히 고문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투쟁을 하고 고향에 가게 되면 아무개가 돌아왔다고 일본 경찰이 귀신같이 알고 따라다닙니다.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를 통하며 사경을 몇 번이나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했던 동지들에 대한 책임과 의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나 혼자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죽인다고 위협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경찰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해방되자마자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 그들이기에 그냥 보냈습니다. (023-135, 1969.05.18)

18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살려 주기 위해서 야간에 피신을 시켜 주던 역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버님을 대해서 그 은덕을 갚아야 됩니다. 일본 나라가 갚아야 됩니다. 이래서 20대에 감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민족의 비참함을 알았습니다. 다 교육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감옥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아무리 애국자의 말이나 책자를 통해서 알았더라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책은

마음대로 생각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가 고문을 받고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그 동지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비로소 한국의 비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을 누군가가 해방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 것도 감옥에 들어가서였습니다. 감옥이 아버님에게는 위대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복귀섭리노정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초석을 놓을 수 있는 한때였습니다. (211-150, 1990.12.30)

19 아버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일본인들에게 얼마만큼 학살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일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삼국노선을 펴기 위해서는 일본은 망했지만 필시 필요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민족성으로 보더라도 틀림없이 독일 민족 이상의 단결된 힘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로 시작하면 또 복수로 끝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이념을 중심삼고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새로운 규합운동을 한 것입니다. (023-135, 1969.05.18) p. 729

20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내 마음과 내 이념은 가두지 못합니다. 나를 치라는 것입니다. 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온 길과 하나님이 닦아 나오신 길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칠 테면 쳐라! 내가 너를 미워하는가, 안 미워하는가.' 라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감정하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피를 토하면서도 '아! 잘 맞았다. 역사적인 원한의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 내가 맞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내가 12시간 가까이 고문을 받고 피를 토한 적도 있고, 15분 동안 사람을 미치게 하는 평생 잊지 못할 고문도 받았습니다. 그랬어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고 가야 할 책임이 내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엇을 보고 복을 빌어 줄 것인가를 그 감방에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고문한 사람이 아침에 사람들이 다 나간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사과합니다. 그것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027-074, 1969.11.23)

2절 평양 대동보안서 수난

대동보안서 수감 배경

참아버님은 하늘이 예비한 남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불신에 따라 새로운 기반을 닦기 위해 1946년 6월 6일 북한 평양에 도착하셨다. 참아버님의 전도 집회는 신령적인 은사가 충만하여 많은 신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기독교 지도자들의 밀고와 공산 정권의 종교 탄압이 맞물리면서 평양 도착 2개월 만인 8월 11일 남한 정부의 첩자라는 등의 혐의로 대동보안서에 수감되셨다. 당시 허호빈씨를 비롯한 복중교 간부들도 대동보안서에 수감되어 있었다. (p. 729)

1 아버님이 27세가 되던 때는 공산세계인 평양에 가서 싸울 때입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70여 명의 기독교 목사가 단결해서 아버님을 반대했습니다. 이북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가 기독교연맹을 만들어서 공산당과 하나되어 반대하는 환경에서 그들을 대해 싸웠습니다. 우리 이념만 가지면 어디 가든지 핵심요원을 빼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평양 경창리라는 곳에 있었는데 각 교회에 소문이 나기를, '경창리에 가면 이단패 미남이 있는데 그의 말만 들으면 넘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가지 말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161-255, 1987.02.26) p. 730

2 아버님이 공산당 치하에 있는 이북으로 넘어갔는데 그만 잡혀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남에서 왔다고 해서 이승만의 앞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근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니 사회를 문란케 한다느니 해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때 매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고문도 많이 당했고 천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 나온 사람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소망에 찬 내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020-027, 1968.03.31)

3 사탄은 개인을 시켜서 나를 공격하게 하고 가정을 시켜서 제일 미워하게 합니다. 국가를 시켜서도 어떻게 죽일 수 있나 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짓을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데에 전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이북의

공산 치하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나를 남한의 스파이로 몰아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별의별 있는 말 없는 말로 뒤집어씌웠습니다. '이북 정권을 약탈하기 위한 첩자다.'라고 하는 등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죽이려고 처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쿠, 하나님의 뜻이고 뭣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다 포기다.'라고 했더라면 거기서 끝장났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계가 망하기 전에 내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세계가 남아 있는 한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떤 고문을 당하더라도, 사지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86-280, 1976.04.07)

4 내가 평양에서 공산당에게 붙들려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일제 치하 때에는 일본 경찰관에게 끌려가 감옥에 간 적도 있습니다. 나는 희망에 벅찬 마음을 갖고 감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 누구와 만나도록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희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039-049, 1971.01.09) p. 731

5 복중교 허호빈씨는 일평생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신앙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종교인을 원수와 같이 취급하는 공산당의 압제하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심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고문받은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그들이 모시적삼을 입은 몸으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 옷에 온통 구멍이 뚫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절을 수십 번이나 하고, 그의 동생은 고문에 못 견디고 죽어 갔습니다. 책임자들 40여 명도 투옥되어 비참한 가운데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그러한 입장에서 같은 단체 취급을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024-192, 1969.08.10)

6 아버님은 탕감복귀원리에 따라 나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집단들을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가 신부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은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올 때 그 준비된 집단은 신부의 위치에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야 됩니다. 만일 그 준비된 집단의 지도자였던 허호빈씨가 주님이 계신 곳을 알기 위해서 하나

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곳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아버님은 '안나'와 같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양쪽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하늘편에서 일했고 때로는 중간 입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늘 편이 아니면 중간 입장입니다. 아버님은 그 나이 많은 여인을 만난 후 허씨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님이 누구인지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씨는 하나의 큰 징후를 기대했지 한 젊은 남자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허씨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허씨는 그 사람이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한 젊은 여자를 그 집단에 보냈지만 허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허씨는 자기 집단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춘향이가 감옥에서 그녀의 남편을 만났던 것처럼 너도 감옥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받은 계시를 설명했습니다. (052-151, 1971.12.27) p. 732

7 아버님이 평양에서 허호빈씨를 만나려 할 당시에 이북은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허씨 집단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모금해서 좋은 옷을 만들고 좋은 집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집단의 지도자들을 종교적 사기꾼으로 고발하여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버님도 그 집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고발당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관련도 없었으나 그런 식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그 집단의 지도자와 같은 방에 갇혔습니다. 허씨 밑에서 그 집단을 이끌던 한 남자가 같은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1946년 8월 11일입니다. 그 집단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매우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를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052-152, 1971.12.27)

대동보안서 수난과 석방

참아버님께서는 대동보안서에서 당한 고문은 매우 혹독하였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다거나 몽둥이로 사정없이 치는 등 특수한 고문을 가하였다. 참아버님께서는 103일 만인 1946년 11월 21일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풀려나셨다. 신도들은 아버님께서 많은 피를 토하시고 빈사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사후 문제까지 논의하였으나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다. 그 후 집회소를 이전하신 뒤 말씀 전파를 계속하셨다.

8 아버님은 공산당한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도 받아 봤습니다. 고문을 당하게 될 때 '이 녀석, 네가 견디나 내가 견디나 보자.'라며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만 잠을 안 재우면 자면서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아버님은 눈을 뜨고서도 잘 잡니다.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잠이 오면 그 방법을 이용합니다. 또 고문을 받아서 멍이 들든가 아픈 데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푸는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피곤할 때에는 그 운동을 합니다. 지금도 나는 보통 하루에 잠을 한 시간만 자고도 버텨 나갈 수 있습니다. (067-203, 1973.06.10) p. 733

9 평양에서 개척할 때 기독교의 목사와 장로 부인들이 아버님한테 몰려드니까 목사 70여 명이 투서해서 아버님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남에서 온 첩자로 취급하여 소련공산당까지 와서 취조하는데 모진 고문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빨간 방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사흘만 못 자면 정신이 돌게 됩니다. 진한 빨간 방에다가 혼자 넣어 놓고 하얀 방석에 앉혀 두고서는 잠을 사흘, 일주일을 안 재우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네가 나를 안 재워?'라며 눈뜨고 잤습니다. 잠을 자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눈뜨고 자는 것입니다. 그때 문 아무개는 박수무당이고 요술까지 부리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이한 일들이 그냥 벌어진다고 소문이 나 있었서 옆에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86-299, 2005.02.09)

10 아버님은 힘도 있고 몸이 날쌥니다.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내가 운동을 한다 할 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3등 이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나이였지만 모둠매를 맞았습니다. 동서남북 12방수에서 전부 치더라도 그저 말없이 맞지 않으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고문을 하고 치더라도 '쳐라, 이놈의 자식들!'이라며 견뎌 냈습니다. 몽둥이로 맞고도 '쳐 봐라, 이 자식아!'라고 했지 쩨쩨하게 '아이고, 살려 주소!'라고 안 했습니다. 책상다리로 들이쳐도 '네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내가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들이맞아서 이가 절반쯤 깨져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수욕의 자리에서 흘린 땀은 무슨 땀입니까? 악을 썼다면 그 이상이 없고, 피를 흘렸다면 그 이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면 그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214-094, 1991.02.01) p. 733

3절 평양형무소와 흥남감옥 수난

평양형무소 수감과 공판

공산 치하의 종교말살 정책은 극으로 치달았다. 참아버님은 기독교단의 질시와 무고로 1948년 2월 22일 평양 내무서에 구속되셨으며, 4월 7일 공판에서는 사회질서 문란 등의 죄목으로 5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판결문 가운데 나오는 '허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을 하게 하셨다. 참아버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결코 허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아버님께서는 재판정을 나가시며 슬프하는 식구들에게 손을 흔들어 위로하셨다. (p. 734)

1 아버님이 교회운동을 하자 식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북 당국의 정책은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은 그들 교회의 많은 신도들이 아버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나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투옥되었습니다. 평양 내무서에 구속된 날이 1948년 2월 22일입니다. (052-155, 1971.12.27) p. 734

2 1948년 4월 7일은 아버님이 잊을 수 없는 공판 날입니다. 기독교단의 질시와 공산당국의 종교말살 정책에 따라 2월 22일에 평양 내무서에 구금되었고, 2월 25일에는 머리를 깎였습니다. 공산 치하에서의 종교 공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판은 4월 3일에서 4월 7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4월 3일은 구금된 지 만 4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 내가 평양 내무서에서 공판정에 서게 되었을 때 이북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와서 별의별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딸과 내 아들딸이 누가 훌륭하게 되나 두고 보자. 네가 가르치는 교인들과 내가 가르치는 교인들 중에 누가 더 나은지 보자. 죽더라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이 남이 알지 못하고 남이 느끼지 못한 충격을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다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 앞에 효의 도리, 충의 도리를 하겠다고 한 맹세를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피곤하려야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지치려야 지칠 사이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무골충이 아닙니다. 내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062-045, 1972.09.10)

4 아버님이 평양형무소에 들어갈 때 식구들은 자기 남편이 죽은 것보다도 더 간절히 애를 태우면서 '선생님, 이제 가면 언제 오시나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내가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원한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면 지옥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고 새로운 결의를 하면서 제2차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018-041, 1967.05.15) p. 735

5 평양형무소에 있을 때 재판받을 날짜가 원래는 1948년 4월 3일이었는데, 공산당이 교회를 탄압할 구실을 만들다 보니 기일이 늦어져 4월 7일에야 받았습니다. 그날에는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받고 감옥으로 갈 때에는 오히려 희망에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무소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는 오후 3시쯤 들어갔고, 들어간지 3일째 되는 날에 김씨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일제 때에 육군사관학교 포병과를 졸업하고 일본군 포병 대위로 복무하던 중 종전을 맞은 사람입니다. 종전 후 그는 북한 인민군에 입대해 포병사령관의 심복부하로 복무하다가 국가기밀누설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루는 꿈속에서 백발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는 이남에서 평양으로 올라온 청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줬다고 합니다. 얼마 후 포병사령관의 보증하에 그에 대한 처벌은 사형에서 4년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속에서 그 노인이 나타나서 가르쳐 준 대로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면서 며칠 안 되어 남한에서 온 젊은 선생님을 만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018-041, 1967.05.15)

6 평양형무소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직접 영계의 가르침을 통해 나에 대한 증거를 받았고, 나를 만나는 것이 벌써 1년 전부터 하늘의 약속하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을 추구하고 크나큰 소망의 터전을 닦게 하려니 이곳에까지도 하늘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사정을 생각할 때 내가 이 길을 배척하고 이 길을 멀리하

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천륜 앞에 설 수 없는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늘은 거기에 크나큰 인연을 나와 맺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반역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156-112, 1966.01.09)

7 아버님이 들어간 감방에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나이가 29세였고 그도 29세였습니다. 1948년 4월 28일 새벽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사형선고를 받자 상심하여 병이 들었다가 설상가상으로 차 사고로 죽었던 김씨의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궁전과 같은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음성이 들리고, 세 계단을 오를 때마다 3배를 하면서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눈부신 옥좌가 있고, 그 위에 청년 한 분이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굴을 들고 저 어른을 보라.'고 하여 그쪽을 우러러 보았으나 비춰 오는 광채가 너무도 눈부셔서 똑똑히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아버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끌려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지만 3일 만에야 말씀을 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버님은 김씨에게 지금까지 걸어 나온 노정을 '로렌스'라는 가명으로 3일 동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방장인 김씨였습니다. 아버님은 그에게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걱정거리를 갖고 있지요?'라고 하면서 그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물음에 그는 깜짝 놀라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상세히 털어놓고 비로소 자기가 꿈속에서 본 옥좌에 앉아 있던 청년이 바로 아버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018-041, 1967.05.15) p. 736

8 아버님이 평양형무소에 있을 때에는 박수무당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미리 알고 물어보게 되자 그런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공산당국에서 듣고는 아버님이 무섭긴 무서운지 취조할 때에도 셋 이상의 간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양형무소에서 흥남감옥으로 들어갈 때 사탄세계에서 하나님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더라도 정체를 밝히지 않고 안팎으로 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세계 앞에, 인류의 가슴 가운데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

은 자기 생명을 좌우하는 환경에서도 꺼지지 않는 심정을 가지고 죽음의 관문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역사와 문화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즉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도 그런 기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020-319, 1968.07.14) p. 737

옥 중의 옥 흥남감옥 이감

참아버님께서는 1948년 5월 20일 평양형무소에서 옥 중의 옥으로 불리는 '흥남 특별노무자수용소'(통칭 흥남감옥)로 이감되셨다. 수감번호는 596번이었다. 흥남감옥은 추위와 배고픔, 중노동을 수반하는 엄청난 작업량으로 인해 보통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특히 암모니아 가스와 분진이 땀과 반응해 살갗이 벗겨지고 짓무르는 피부병과 폐병으로 1년 만에 수감자의 40퍼센트가 죽어 나가는 현실 속에서도 참아버님께서는 육체를 강건하게 관리하시며 동료들보다 훨씬 많은 노동량을 감당하셨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곳에서 참아버님은 지혜와 사랑으로 고난을 극복하셨다.

9 아버님이 흥남감옥으로 쇠고랑을 차고 갈 때 평양에 남은 식구들이 손을 흔들면서 전송하던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그들은 자식이 죽어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떠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저 훌쩍훌쩍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늘을 찾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창에서 수난을 당하더라도 나를 찾아 주는 길손, 감옥을 찾아 주는 그들은 자기 혈족을 넘고 민족애를 넘어 천상의 심정권을 지상의 감옥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141-052, 1986.02.16)

10 흥남은 바닷바람이 불면 자갯돌이 날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디든 살이 드러난 데는 무엇으로든 가리고 싶어집니다. 쏘아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원수인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900여 명의 죄수들이 출역하러 가는데 나가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홑옷을 입은 사람들을 새벽 5시부터 7시 무렵까지 2시간여를 그 추운 데에 앉혀 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우워워워워!'하고 소리를 내며 떱니다. 그것 참 처량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워워워!' 하고 떠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아버님이 지낸 방에는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는 제일 더운 데, 제일 냄새 나는 밑창에서 지냈습니

다. 거기에서 추운 겨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겨울의 주인이 될 줄 아는 사람이 여름을 지배할 수 있고, 여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겨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배할 수 있어야 최고의 부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반대의 실적이 찾아졌다는 것은 탕감복귀에 있어서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의 실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72-245, 1988.01.23) p. 738

11 흥남은 겨울에 영하 23도까지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버님은 홑옷을 입고도 춥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음, 더 추워라. 더 추워라. 더 추워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솜바지 저고리는 남에게 다 주고 홑옷만 입고 일을 했습니다. 두꺼운 옷은 남에게 주고 홑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일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곳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남들은 제일 쉬운 일을 찾는데 제일 어려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을 못 넘어가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공산당이나 이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067-105, 1973.05.25)

12 아버님의 이를 보면 갈라진 곳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늘을 만들다가 갈라졌습니다. 감옥에서는 바늘이 참 귀합니다. 구할 수가 없으니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그때 비료공장에 비료를 담는 가마니를 매는 데 쓰는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갈고리 끝을 가만가만히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게 두들기면 안 됩니다. 약하게 두들기면 납작하게 됩니다. 그 납작한 곳을 유리로 째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갈라서 바늘을 만듭니다. 그때 구멍이 동그라면 안 되니까 이로 꽉 물어서 길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도구가 없으니까 이로 물어서 자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이 이를 볼 적마다 감옥생활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해서 바늘을 만들어 두면 그 소문이 감옥 전체에 나서 토요일만 되면 바늘을 얻으러 옵니다. 그러면 상감마마처럼 앉아서 '너도 먹고 물러가라. 너도 먹고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나가면 전부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바늘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성들여서 만든 바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든 바늘보다 더 잘 꿰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204-266, 1990.07.11)

13 여러분은 공산당의 감옥살이가 어떤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소비에트 혁명 후 많은 소련이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그들 앞에 어떠한 유산계급이나 반공산주의 분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모든 반대자들을 죽이고 싶은데 세계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해서 힘든 노동으로 그들이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감옥에 있을 때 아버님은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소련의 경험을 본받아서 모든 죄수들을 힘든 노동에 동원했고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052-164, 1971.12.28) p. 739

14 중노동을 시켜서 죽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작전입니다. 흥남감옥에 들어가서는 3년이 지나면 거의 모두 죽어 나갑니다. 틀림없이 3년 이내에 그렇게 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중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선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의 보통 사람 기준으로는 하루에 세 끼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최고로 일을 해도 열 사람이 하루 700가마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는 그 배에 가까운 양을 해야 됩니다. 먹는 밥은 적어서 큰 입으로 세 입이면 끝나 버립니다. 그러고서 중노동을 하니까 조반을 먹고 공장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벌써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그러한 다리를 끌고 가서 아침부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035-185, 1970.10.13)

15 내가 일했던 흥남의 황산암모늄 비료공장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하얀 황산암모늄이 생산돼 나오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그 큰 광장 복판에 쌓이는데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얀 것이 쭉 떨어집니다. 그 높이가 한 20미터 됩니다. 그렇게 높은 데서 넓은 컨베이어를 통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폭포수같이 장관입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식습니다. 뜨거우면 엉기니까 엉기지 않을 만큼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떨어져 쌓인 큰 비료 산이 피라미드 같은데 그것을 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은 열에 녹았다가 돌산 같이 굳어 버립니다. 빙산 같이 시퍼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료 산을 중심삼고 퍼 담는 작업을 합니다. 큰 광장에 800명에서 900명이 나가서 일하는데 대개 큰 산을 둘로 가랄 쌓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165-023, 1987.05.19)

16 아버님은 북한 공산정권의 감옥**에** 들어가서 2년 5개월 동안 중노동을 했습니다. 무슨 노동이냐 하면 비료공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황산암모늄 비료공장에서 비료가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광장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료를 가마니에 넣어 저울에 달아 화차에 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처리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산돼 나오는 황산암모늄은 뜨겁습니다. 그것이 식으면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놓아두면 바위처럼 되어 버립니다. 참으로 힘든 중노동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분담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일을 하는데, 한 조의 하루 책임량은 1천300가마니입니다. 이것을 8시간 이내에 끝내지 않으면 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035-185, 1970.10.13)

17 황산암모늄 비료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은 암모니아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산암모늄이 살 속에 녹아 들어가서 짜면 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디를 짜더라도 물이 나옵니다. 세포가 절반은 죽은 셈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정신력이 아니면 못 버팁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있는 사람들도 3년만 일하게 되면 폐병에 걸립니다. 안 걸린다면 거짓입니다. 그런 암모니아 가스가 공장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만 지나서 기침을 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된 일에 지치지 않고 자기 정성의 기반을 닦고 소생된 몸을 가져야 지탱할 것인데 보통 젊은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지도해 나왔습니다. (154-143, 1964.06.12)

18 비료공장에서 하는 일은 가마니에 비료를 담아 저울에 달고 묶어서 끌어내다가 화차에 싣는 것입니다. 자꾸 비료를 퍼내기 때문에 비료 더미 가까이에다 터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한 10미터, 15미터 밖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련 배에 싣는 것입니다. 몇 만 톤씩 싣는 데 그것을 매일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는 날에는 문제가 큽니다. 국가 간의 외교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책임량은 절대 완수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을 못하면 2급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마니를 꿰매는 일을 하는 2급으로 떨어지면 밥을 절반밖에 안 줍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못하게 되**면** 새끼를 꼬는 데로 가게 됩니다. 새끼를 꼬는 데에 가게 되면 밥이 3분

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밥 한 덩이를 받기 위해서 기를 쓰고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남들과 같이 밥 한 덩이를 받는 것이 제일의 희망인데, 그것의 절반을 받거나 3분의 1을 받게 되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 받쳐서 죽을 때까지 밥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3-195, 1987.05.01) p. 741

19 아버님은 감옥에서 학질을 앓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이놈 해보자!'하면서 약도 못 먹고 24일간 앓으면서도 책임량의 일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아침에 출역하게 되면 감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마당에 전부 모아 놓고 불법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전부 검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이 소모됩니다. 이래서 9시에 작업이 시작된다면 10여 리 길을 걸어 가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밥을 먹고 하면 2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역하게 되면 보통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9시 작업장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척 앉으면 아주 머리가 빙빙 돕니다. 머리가 빙빙 돌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어깨를 짚고 일어서게 됩니다. 작업장에 가더라도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4-140, 1964.06.12)

냉혹의 한계선을 넘은 감옥의 식사

수감자들은 적은 양의 잡곡밥과 소금국을 배급받았다. 밥은 끈기가 없어 뭉친다 해도 겨우 세 숟가락 정도였다. 그나마 일을 하지 않으면 배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작업장에 나가야만 했다. 밥을 먹다가 죽은 사람의 입속에서 밥알을 꺼내 먹는 일도 있었으니 냉혹의 한계선을 넘어선 곳이 바로 흥남감옥이었다. 이런 곳에서도 참아버님께서는 처음 보름 동안은 배당된 급식의 절반을 수감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20 감옥에서 아버님은 결코 한마디도 말을 안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에게 가장 힘든 일은 거짓 연설을 들은 후에 소감문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감시원들은 감시의 눈초리를 아버님에게 집중시켜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버님의 방에 스파이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원들은 한 죄수에게 밥을 조금 더 주어서 그 죄**수**를 앞잡이로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밥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가끔 돌을 씹을 때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뱉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죄수들은 뱉어낸 그것도 모조리 핥아먹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052-169, 1971.12.28) p. 742

21 아버님은 1949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을 일생에 잊지 못합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대개 옥수수밥과 귀리밥, 그다음에 콩깻묵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죽이지 못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메밀을 절반밖에 안 간 것으로 밥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배급해 줘서 식사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먹고 나니까 살이 부었습니다. 메밀밥만 먹으면 붓는 것입니다. 그 밥을 먹는데 밥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위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먹습니다. 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는 고픈데 그것을 먹기가 힘드니까 그냥 삼켜서 병이 난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밥 먹는 시간보다 3배 천천히 먹었습니다. 전부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서 먹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니 얼굴이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침을 배 이상 나오게 해서 오래도록 깨물어 먹어야 됩니다. 그때 메밀을 한알 한알 전부 껍질을 벗겨 먹었는데 그것이 일생에 잊히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은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쌀 한 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밥상을 받으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068-030, 1973.07.23)

22 흥남의 비료공장에서 하는 일은 중노동입니다. 일반 사회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돼지고기는 기름이 녹아내립니다. 쇠고기는 기름이 엉기지만 돼지고기 기름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세포 세척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료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 엉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돼지비계를 마구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밥이 아버님은 세 숟가락이면 그만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먹으면 세 숟가락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8시간 동안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이 아침밥을 먹고 공장에 나가는데 공장까지는 10여 리 길입니다. 10여 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게 되면 헛다리가 짚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8시간 노동을 해야 됩니다. (163-194, 1987.05.01) p. 743

23 먹지 못해 병이 나서 죽게 될 사람에게는 밥이 구세주입니다. 밥 한덩이는 세상에서 집 한 채와 바꾸고도 남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밥을 먹다가 죽으면 그 사람 입에 있는 밥을 빼 먹을 정도가 됩니다. 환장도 그런 환장이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 돌이 있어 뱉어 놓은 것에 밥 한 알이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돌에 붙은 그 한 알을 주워 먹습니다. 생지옥입니다. 그러면서 반동분자를 소리 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감옥 뒷문으로 죽어 나가는 사람이 1년에 1천 명이 있다면 400명 가까이 됩니다. 3년 내지 4년이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기름기가 다 빠져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써 나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정도가 아닙니다. 무자비한 것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냉혹한 것에도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계선을 넘고 넘은 것입니다. (163-195, 1987.05.01)

24 내가 흥남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1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천 명 가운데서 1년만 지나면 40퍼센트 정도가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매일 뒷문으로 널이 나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 가는 것입니다. 30명이 있으면 10명 이상이 죽는다는 말이 됩니다. 간호하는 사람이 있어서 밥을 먹고 죽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서 아픈 것보다도 배고픈 고통이 앞서 있습니다. 병이 난 사람이라도 일을 안 하면 밥을 절반밖에 안 줍니다. 감옥에서 큰 밥 한 덩이 받는 것과 절반 받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큰 것을 받을 때에는 천국 같고 작은 것을 받을 때에는 지옥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야 밥을 주기 때문에 앓으면서라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을 나설 때 주저앉으면서도 기어서라도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일을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반 덩이 밥 때문에 악에 받쳐서 일이 끝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밥 반 덩이 더 받는 것이 최고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받는 시간에는 아픈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 책임량 밥은 다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밥을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죽을 힘을 다 쓰면서 그 밥을 먹다가 결국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죽어 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069-253, 1973.12.30) p. 744

25 지금도 아버님이 제일 잊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흥남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오면서 가져다준 미숫가루를 감

방에 있는 죄수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감방에 3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는 나누어 줄 수 없어서 신문지 조각에 한 숟가락씩 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그것은 쇠갈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서의 콩 한 알은 바깥세상에서의 황소 열 마리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체면을 차리고 위신을 내세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콩 하나가 떨어지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30여 명이 한꺼번에 손을 내밀어 서로 콩을 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지를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033-110, 1970.08.09)

26 감옥에 있을 때 미숫가루를 나눠주는 날은 바로 잣칫날입니다. 아버님은 그것이 아깝다고 해서 혼자 먹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안 먹습니다. 이 미숫가루를 물로 이겨 가지고 미숫가루 떡을 만들어 신문지에 싸서 작업장에 가지고 나갑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점심때까지 견뎌야 하는데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을 나눠 먹고 싶어서 참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도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우리가 일하던 비료공장은 크기 때문에 제1 작업장과 제2 작업장으로 나뉘어 있고 큰 비료 산이 몇 개씩 있습니다. 작업시간에는 거기에서 일을 하지만 쉬는 시간 15분 동안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그 세계의 생활이라는 것은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러한 체험은 억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되는 세계가 바로 그 세계입니다. (033-111, 1970.08.09)

27 감옥에 있으면 전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간유가 얼마나 비린지 모릅니다. 그 비린 간유에다 밥을 말아 먹어도 비린 것을 못 느낍니다. 그것을 한 컵 그냥 퍼부어 마셔도 비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몸에 기름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굶주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하다가도 밥이 그리워서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밥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절반밖에 안 주었습니다. 밥을 절반**만** 받는다는 것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증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몇 개월은 이러이러하게 되니까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 반드시 북문 출입을 하게 된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 말대로 생활

한 덕분에 죽어 가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222-295, 1991.11.03) p. 745

28 흥남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은 밥이 그리워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일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밥을 받아 세 숟가락도 다 못 먹은 채 입에 넣고 깨물다가 죽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에 있던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입에 들어가 있던 밥알까지도 빼 먹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보름 동안이나 절반을 나눠 주고 절반만 먹고 살았습니다. 3년이 아니라 5년, 10년도 사는 것입니다. 자연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있습니다. 자연이 나를 살려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주고 싶어합니다. 자연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동산에 사과밭이 있으면 그 사과밭에서 향기가 풍겨 옵니다. 그 향기를 사과처럼 여기고 꿀떡 삼키면 진짜 사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480-303, 2004.12.31)

29 아버님은 사과 하나를 붙들고 정말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권 감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1년에 두 번, 5월 1일과 정월 초하루에는 과일을 줍니다. 사과 한 개를 배급해 주는데 자기가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나눠 주는 것을 받습니다. 벌레가 먹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저 배급해 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사과를 나눠 주면 보통 사람들은 받자마자 와작와작 1분도 못 돼서 다 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이 빛이 얼마나 고우냐! 이 빛을 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먹고 그다음에 맛을 먹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을 벌리고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두고 봐야 눈요기도 되고 냄새도 맡고 그러니 먹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신이 못 되는 것을 느껴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먹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과를 먹는데 내가 세계에서 첫째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먹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067-155, 1973.06.01) p. 746

30 아버님은 감옥에서 밥을 받아도 반찬이 없다고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놓고 맨밥을 먹으면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내일의 소망을 갖고 나오던 너 아니냐.'라고 하고 먹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반찬이 있다고 해도 밥과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는 식사하는 사람이 1천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과 밥을 같이 줄 수 없습니다. 1시간 내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 국은 저쪽에서, 밥은 이쪽에서 엇갈려서 주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밥만 타는 데도 30분이 걸립니다. 그렇게 밥과 국을 타고 나면 식사 시간이 끝나 버립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끝나자마자 3분 이내에 작업장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 한 손에 국을 받고 한 손에 밥을 받고 이렇게 갖추어 먹을 여지가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국은 국대로, 밥을 밥대로 줄을 서서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먼저 받으면 밥부터 먹습니다. 맨밥을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맨밥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맨밥도 참 맛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누룽지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잘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가 먹던 누룽지 맛이 그 맨밥 맛입니다. 거기에 탄 맛이 조금 가해질수록 맨밥 맛 저리 가라 할 만큼 맛있어집니다. 언제나 그렇게 국은 국대로, 밥은 밥대로 먹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뜻을 중심삼고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효의 도리, 충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며 살았습니다. (046-085, 1971.07.25) p. 746

4절 모범적인 수형생활과 승리

옥중의 성자

흥남감옥 수감자들에게는 밥과 휴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참아버님께서는 충모님이 면회 당시 가져오신 옷과 음식을 수감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고 탕감복귀노정을 가야 할 효자, 충신, 성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옥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등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산당으로부터 세 차례 모범노동자상을 받으셨다. 사탄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신 것이다. (p. 746)

1 흥남감옥에서 죄수들은 적은 양의 식사와 중노동으로 항상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는 항상 작용해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배가 널빤지 같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공산당 노동자 수용소의 생활입니다. 감옥에서 작업장까지의 거리가 10여리 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옥에서 작업장까지 걸어갈 때에는 손에 손을 잡고 네 줄로 서야 하고, 옆에는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줄이 느슨해지거나 손을 잡지 않은 것이 발견된다면 그들은 탈출하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자기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

까? 사람은 육신만이 아닙니다. 만일 죄수들이 음식만을 먹고살게 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052-166, 1971.12.28) p. 747

2 아버님은 흥남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2배까지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때 내 육신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때때로 속도를 높일 때 아버님의 몸이 변했습니다. 만일 보통으로 일했으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 조의 열 사람 중에는 몇몇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당량을 완수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일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 할당량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매일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에 밥 생각을 한다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밥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도록 운명으로 정해졌다고, 그러한 일을 하려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복귀섭리를 하는 것처럼 항상 그 일에 모든 심정과 성의를 쏟았습니다. (052-168, 1971.12.28)

3 아버님은 감옥에서 작업하는 동안에 항상 영계에서 경험했던 것을 생각했고, 훗날 후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 줄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후손들은 내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게 될 것이라는 망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작업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으며, 10시 넘어서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변소에 갑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결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휴식시간이라는 벨이 울려도 못 들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휴식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은 일하고 있었으나 영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으로 일했기 때문에 체중이 줄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체중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갈 때마다 항상 가장 어려운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최고의 노동자로 불리었습니다. 매일 조원들은 탈출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조를 새로 편성할 때마다 모든 죄수들이 최고 노동자와 같은 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버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052-168, 1971.12.28) p. 748

4 아버님은 청춘시대에 지칠 수 있는 때도 많았지만 지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囹

囹)의 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동정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도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였습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최고의 지혜를 다하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녹여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이 어려운 심정적 동기를 관련시켜서 하나님이 통곡하고 분함과 원통함에 사무쳐 어떻게 이것을 들이칠 수 있게 하느냐? 원수의 적진을 격파할 수 있는 심정의 폭발력을 어떻게 자극시키느냐?'라는 면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여기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야, 고파 봐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가야할 탕감복귀노정을 걸어 놓고 배고픈 것 이상 심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린 때는 있었지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051-338, 1971.12.05)

5 천만 사나이가 다 후퇴해 버릴 수 있는 고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이 죽음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밥을 절반만 먹고도 살겠다는 결심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보름 동안 내 밥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남들의 절반만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심리적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절반밖에 못 먹을 신세에서 절반을 더 타서 먹는다는 심리적 여유가 생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개월이면 몸에 변화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죽어 가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266-262, 1995.01.01)

6 자기 체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흥남감옥에 있을 때 고안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은 조금 먹지만 정신력으로 보충하면서 몸을 연단시켜 나왔습니다. 지금 몸과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조금 핼쑥해졌을 뿐입니다.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72킬로그램은 나갔습니다. 남들은 그저 뼈다귀가 나와 등이 구부정하게 돼서 송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4-145, 1964.06.12) p. 749

7 흥남감옥에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일요일에 쉽니다. 그 고된 중노동을 하

다가 일요일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그야말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악에 받쳐서 토요일 저녁까지는 어떻게든 자기도 모르게 일합니다.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비료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뼈가 녹아납니다. 그저 늘어지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나면 그다음에는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에는 그래도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는 것이 화근입니다. 아버님은 3년 가까이 그 감옥에 있었지만 낮잠 한번 자지 않았습니다. 절대 낮잠을 안 자는 것입니다. 작정한 잠, 작정한 음식 외에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154-145, 1964.06.12)

8 사람이 죽을 때에 왕자면 왕자의 권위를 갖추고 죽어야 되고, 충신이면 충신의 자세를 갖추고 죽어야 됩니다. 거지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흥남감옥에 있을 때에도 몸을 닦았는데 매일같이 냉수욕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료 더미에서 일했기 때문에 황산암모늄이 몸에 묻어 있어서 피부가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몸을 저녁에 먹으라고 주는 물을 먹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수건을 그 물에 적셨다가 냉수욕을 했습니다. '출역!'하는 소리가 나서 준비하는 그 시간에 '싹싹싹싹' 닦았습니다. 재소자들에게 변소에서 사용하는 물로 목욕하게 했지만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 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종아리를 남에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흥남감옥에서 '옥중의 성자'라는 이름을 남겨 놓은 사람입니다. (415-047, 2003.08.06)

9 하늘을 모시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몸을 등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노동을 하면서도 앉을 자리를 가려서 앉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낮잠을 자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노동을 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자마자 자지만 나는 자 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중노동을 하여서 피곤하니 먼저 자기 때문에 아버님이 자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혼자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먹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모금의 물이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방에 수십 명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때에는 땀이 나서 옷을 벗어 짜면 땀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물을 볕 바가지 먹어야 삽니다. 자기 몸을 깨끗이 한 그 자리에서 하늘을 모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덥더라

도 내 속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비료가 가마에서 쪄져서 나오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 더운 곳에서도 아랫도리를 안 보였습니다. 수절하는 여인 이상의 훈련을 해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살이가 험하더라도 내 갈길을 막지 못합니다. (141-062, 1986.02.16) p. 750

10 흥남감옥에 들어가 비료공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더운 오뉴월 복중에도 아버님은 대님을 매고 일했습니다. 정강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반소매 옷도 입지만 옛날에는 그런 옷을 참 싫어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할 거룩한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데에서는 누구한테도 이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잠을 잘 때에도 팔다리를 벌리고 자지 않았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는 데에도 예법이 있는 것입니다. (048-330, 1971.09.26)

11 내가 공산당 치하에서 감옥생활을 할 때에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감방에는 아무개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두세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짐승이 아니라 냄새를 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자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는 냉수마찰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늘을 모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천국인으로서의 삶이 빛나가 됩니다. 아무리 춥게 옷을 입고, 아무리 몰림 받는 처량한 입장에 있더라도 자기가 취해야 될 하늘의 인연을 취해 나왔습니다. (158-048, 1967.02.14) p. 750

12 감옥에서는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야 됩니다. 얘기밖에 할 것이 없으니 세상 얘기, 무슨 얘기, 안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자기 죄지은 얘기로부터 자기 부모 얘기 등 전부 나오는데, 그다음에 몇 달이 지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좋아?'라는 다짐을 받은 뒤 단편소설 장편소설을 엮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설이 아니고, 어느 문학작품에 이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제목을 달고 창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머리가 있습니다. 장편소설을 하룻밤에도 몇 편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봐 가면서 한 사흘만 얘기 해 주면 그저 무슨 얘기를 해도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맨 꼴찌, 좁을 데에 앉아 있으면 자꾸 끌어올립니다. 싫다고 해도 감방장이 자꾸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나쁜 자리, 변기통 옆에서 지냈는데,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감방장이 '내가 거기 앉을 테니까 당신이 저기 가서 앉으소.'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연의 세계입니다. (116-125, 1981.12.27)

13 재소자들에게 제일 신나는 일이 무엇이냐? 감옥에서도 한번 실컷 쉬어 봤으면, 일하는 시간에도 한번 쉬어 봤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조를 편성할 때 서로 일을 잘하는 사람끼리 편성해서 초과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면 내가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합니다. 비료 가마니를 묶어서 옮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조에 편성되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기만 하면 조 책임량을 빨리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오후 1시 반에서 2시면 끝내 버립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못 따릅니다. 밥 생각을 하다가는 밥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밥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면 그 일하는 데에 재미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점심때 한 가마니라도 더 묶겠다, 남보다도 더 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가마니를 더 묶는 데에 재미를 느끼면서 일하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몸을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몇 가마니만 하고 나서 밥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154-139, 1964.06.12)

14 비료를 가마니에 담아 저울에 달고 가마니를 옮기는 데에 우리 조는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나는 평균 5분간에 해치웁니다. 다른 조들은 15분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는 책임분담을 다할 수 없습니다. 산을 헐어 가는 것이니까 저울을 이동해 가는데 4~5미터 이상 저울을 움직였다가는 늦습니다.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모두 이 방법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혼자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버님이 1천300가마니 가운데 반 이상을 혼자서 하게 되니까 모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게 됩니다. 아버님은 모범노동자였습니다. 공산당으로부터 매년 모범노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체중이 72킬로그램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 안 나갈 것 같지만 뼈 무게가 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여위어 가는데 나는 여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연구대상이었습니다. (035-186, 1970.10.13) p. 752

15 흥남 비료공장의 황산암모늄에는 황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살에 닿으면 갈라지고 털이 빠지게 됩니다. 살이 비료 가마니에 닿으니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피가 뚝뚝 흐릅니다. 황산암모늄이 갈라진 살에 들어가서 아침이면 피가 나고 그러면 낙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환경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중에는 아버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일 잘하는 아무개라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뚫고 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감옥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배고픈 것과 추운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더운 것은 그나마 극복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잠자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죽더라도 '너는 지지 않고 이기고 죽었다.'는 사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영적으로 남기지 않고는 다시 땅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076-319, 1975.03.12)

16 내가 정성껏 눈물로 권고하며 가르치던 사람들이 흥남감옥에서 많이 죽어 갔습니다. 그런 데서도 나를 부르면서 '우리 부모한테 나는 이렇게 죽지만 아버님과 같이 좋은 날을 가졌다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라며 죽어 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지독하게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밥을 입에 넣고 깨물다가 죽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밥을 꺼내 먹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리에서 형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러니 너희는 쓰러지지 말라.'고 하며 내가 표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에서 아버님은 매해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겠다는 일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서로가 쉬운 일을 하겠다고 해도 나는 제일 어려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184-282, 1989.01.01) p. 753

17 내가 학생시절에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한 친구들과 이론투쟁도 해보았지만 그 이론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워나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떤지 세밀히 압니다. 감옥 조직이 공산당 조직에서 제일 치밀한 조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님은 자아비판을 안 했습니다. 2년5개

월 동안 자아비판서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없이 일등 노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후퇴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챔피언입니다. 누구도 나를 못 당합니다. 비료를 담는 데서도 내가 일등이고, 옮기는 데서도 그렇고, 묶는 데서도 그렇고, 또 화차에 싣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163-197, 1987.05.01)

감옥에서 꽃핀 참사랑

참아버님께서는 최악의 자리에서도 하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셨다. 그래서 감옥의 동료는 물론 심지어 공산당 요원들도 참아버님을 존경하고 따랐다. 특히 감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참사랑을 실천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죽음의 길에서도 예수님의 한을 탕감복귀하고 그 사명을 계승하셨다.

18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미숫가루를 받아도 혼자 먹지를 않았습니다.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눠 주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옆 사람들이 모아서 나에게 가져다주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명이 한방에서 자는데 내가 제일 나쁜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보러 가려면 소변통이 구석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짓밟고 가게 됩니다. 하도 빽빽하기 때문에 세게 밀다가 안 되면 발길로 들이찹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발길질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젯밤에 왜 그랬느냐?'라고 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쁠 때에는 내 배를 딛고 넘어가더라도 나인 줄 알게 되면 '몰라봐서 미안합니다.'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050-312, 1971.11.08) p. 754

19 내가 흥남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정주에서 흥남에까지 와서 나를 만나보고 가려면 증명서를 18개나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서 아들이라고 미숫가루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숫가루를 만들 쌀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동냥했다는 것입니다. 사돈의 팔촌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어서 불쌍하니 동정해 달라.'라고 눈물 흘리면서 구걸해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매달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어머니가 옷도 만들어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져다주면 미숫가루는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혼자 쌓아 놓고는 못 먹습니다.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옷은 내가 관복을 입으면 입었지 면회 올 때 가져다준 솜바지 옷은 못 입습니다. 몇 년이고 감옥에 있어도 면회를 오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들 앞에 그것을 입고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 옷도 받자마자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진 관복, 살이 다 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성자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입니다. 성자의 도리, 애국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를 하려면 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 (266-289, 1995.01.01)

20 흥남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겨울바람이 불면 자갈도 날아간다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면회 온 아들을 보니 동삼(冬三)에 내복도 안 입고 다 째진 홑관복을 그냥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복 가져다준 것은 다 어디에 두고, 솜옷 가져다준 것은 다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에는 피가 끓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나보다 더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떨어도 같이 떨고, 굶어도 같이 굶겠다는데 그것이 나쁩니까?'라고 했습니다.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와서 나한테 충고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정도 모르고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것을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나는 그런 김 아무개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자신보다 더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더 가져오겠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충고라고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잊지 못합니다. (242-203, 1993.01.01) p. 755

21 아침 한 끼를 먹고 낮 12시까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혓바닥이 닳아 단내가 납니다. 그런 환경에서 나도 배가 고프지만 같은 수감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장 장편소설을 엮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못 돼서 그들이 사식을 내 앞에 갖다 놓고는 '선생님 마음대로 처리하시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 완전 투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리의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을 내가 붙안고 가는 곳에는 그것을 파괴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출력은 강해집니다. 비장한 결의와 눈물이 교차되는 선서를 하고 대신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기치를 들고 나서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의 길입니다. (170-181, 1987.11.15)

22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잊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일날이었습니다. 감옥은 살풍경이 감도는 곳입니다. 거기에 평양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생일인 것을 알고 아침에 자기가 먹다 남은 미숫가루 한 바리를 주던 것이 일생 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몇 천배로 갚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세지기를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신세를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세를 지우려고 왔지 신세를 지려고 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한다고 나선 길에는 절대 꼴찌는 안 됩니다. (056-047, 1972.05.10)

23 내가 흥남감옥에 있을 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미숫가루를 종이에 싸서 여기 땀내 나는 샅에다 넣었다가 나눠 먹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검사하니까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호화판의 만찬보다도 **더** 인상적입니다. 살아 보니 그것이 일생 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인식기관이 거기에 젖어가야 되고, 거기서 체휼된 느낌을 가지고 영계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108-154, 1980.08.18) p. 756

24 내가 북한 흥남감옥에 있을 때 공산당 요원들과 죄수 등 별의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선두에 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감옥의 공산당 요원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희생하더라도 아버님의 비밀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세계의 극악성이 집약된 조직이 감옥인데, 그런 감옥세계에서도 나를 보호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길은 희생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나는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 감옥에서 공산당 간부였던 사람은 집에서 미숫가루를 보내오면 그것을 이겨서 떡을 만들어 샅에다 감춰서 일하는 곳까지 10여 리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감추어 놓은 것을 들킬 수 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것입니다. 아버님과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거는 위험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때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들키게 되면 큰일

나니까 샅 깊은 곳에 감춥니다. 그러면 땀이 배어 냄새가 납니다. 신문지 같은 것으로 쌌으니 미숫가루에 땀이 안 뱄겠습니까? 땀이 뱄다고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때는 억천만 우주를 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의 폭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활화산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늘의 동지가 소생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오직 그 사랑의 길만이 이 세계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74-353, 1988.03.13)

옥중 제자를 세워 탕감복귀 승리

참아버님께서는 옥중 고난을 딛고 승리하셨다. 감옥에서는 직접 말씀을 전하여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몽시와 계시 등 영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열두 명 이상의 옥중 제자를 세우셨다. 참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한 열두 제자를 복귀하는 탕감조건을 세움으로써 재림주님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다.

25 감옥에는 내가 탈옥하자고 하면 생명을 걸고 따라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지사판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도망간 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어도 영계가 동원되어서 전도해 주었습니다. 아버님의 수인번호가 오구륙 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번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에 조상이 나타나서 차입받은 미숫가루를 하나도 손대지 말고 아버님에게 가져다주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숫가루 자루를 들고 터벅터벅 와서는 '여기 596번 있어요? 누구예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계가 동원되어서 먹을 것을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그 후 내가 아무 말 없이 평양을 거쳐서 이남으로 피란 나올 때 네 사람이 따라 나왔습니다. 사위기대 복귀입니다. 교회를 중심한 네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복귀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047-192, 1971.08.28) p. 757

26 아버님은 감옥에서 극악한 사형수들에게도 하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눈물이 엇갈리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싸워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내가 감옥을 나오게 될 때에 부모가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자리를 그들에게 남겨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귀의 사명을 책

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나오게 될 때 나를 붙들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흥남감옥을 나와 이남에 올 때에 네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045-138, 1971.06.24)

27 아버님이 있던 감방에서 떨어진 다른 방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12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출역 명령만 내려지면 15분 동안에 전부 행렬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와서 변기통에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남들과 같이 가변 변기통이 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감방별로 앉아 있으면 간수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있는 데로 가려 해도 못 갑니다. 경계선을 못 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버님을 만나는 것이 하루 가운데 제일 영광된 일이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서 있는 그 앞으로 엎드려 기어서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키는 날에는 도주를 계획한다고 해서 총 개머리판으로 들이맞고 독방살이를1주일 내지 3주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만 들키면 형벌이 가해집니다.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버님을 만나 인사하고 가는 것을 하루의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들도 배가 고프면서도 나에게 가져와서 나눠 먹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한 심정적 유대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역사적 배후의 전통으로 남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074-095, 1974.11.14) p. 758

28 아버님이 공산 치하의 흥남감옥에 가서 모진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된 것은 실체적인 복귀의 천명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총칼 앞에서도 이 옥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을 하늘은 찾게 해주었습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았어도 영계의 영인들이 전도해서 아버님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자기 선조들이 직접 나타나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열두 제자 이상의 제자를 감옥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역을 하는 시간이 되면 공산당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그들은 아버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와 웅성웅성하는데, 거기에 간수들이 총을 들고 지켜 서 있는데도 바닥으로 기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택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은 그렇게 기어와서라도 먼저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거기에서 탕감기준, 사위기대 복귀의 기준을 세운 것입

니다. (023-288, 1969.06.08) p. 758

5절 흥남감옥 해방과 식구 수습

6·25전쟁과 흥남감옥 해방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유엔 평화군이 결성되어 세계연합군이 참전한 첫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장이었으며, 아벨형 인생관을 집약한 신본주의의 유심사상과 가인형 인생관을 집약한 무신론의 유물사상이 대립한 전쟁이었다. 참아버님께서는 유엔군의 폭격으로 전쟁 발발 112일 만인 10월 14일 흥남감옥에서 해방되셨다. 유엔 16개국이 참전한 6·25전쟁은 섭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재림메시아를 구출하시기 위한 성전(聖戰)이었다. (p. 758)

1 한국동란은 세계 16개국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승리를 주장하고 표방했던 전쟁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인류역사상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나라의 내란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전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님과 연결되면 하늘의 메시아정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역사를 밝힘으로써 전 세계가 받을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조국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국이 되는 한국을 보호하고 조국광복을 위해서 한국동란에 여러 나라를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119-218, 1982.09.13) p. 759

2 아버님이 흥남감옥에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산당은 감옥에 잇는 모든 죄수들을 삼팔선, 최일선에 내세워서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급박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 가운데서 형기가 긴 사람들은 더 먼 데로 후퇴시키고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일선에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인해전술을 쓰기 위해서 좋든 나쁘든 전부 끌고 나간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 쏴 버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800여 면을 흥남에서 정평까지 끌고 갔습니다. 원래 흥남에서 원산까지 기차가 다녔는데 그 때는 유엔군의 폭격으로 철로가 끊어져서 120리가량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70여 명밖에 안 남기고 전부 데려간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도 끌려갔는데 저녁 8시에 출발하여 밤새껏 걸어서 새벽쯤에 80리가량 갔습니다. 낮에는 폭격 때문에 걷지를 못했습니다. 기차도 역시 밤 시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 전에 도착하게끔 한 것입니다. 하루에 못 가니 이틀에

갈 계획으로 첫날밤에는 밤새껏 걸어서 새벽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우리를 태우러 내려오던 기차가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할 수 없이 며칠 거기에 정차해 놓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상당히 지장이 큽니다. 이 죄수들을 데리고 가다가 만일 사건이라도 나면 문제가 벌어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되고 죄수들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되돌아와서 또 사흘만에 그 800여 명의 죄수들을 데려갔는데 그때에는 내가 남아 있다가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154-137, 1964.06.12)

3 흥남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올 때에 내 뒤에는 네 사람이 따라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데를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내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버리고 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문씨 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문씨 중에 가인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자기들 고향에 안 가겠다고 해서 나올 때에 네 사람이 평양에까지 따라 나왔는데, 문씨는 어디에 연락하러 갔다가 우리가 이남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가인으로서 이북에 남았고 나는 아벨로서 이남으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북에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죽지 않았으면 찾아올 것입니다. 만일 죽었으면 내가 그 무덤을 찾아가서 비석을 하나 세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정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060-237, 1972.08.17) p. 760

4 흥남감옥에서 나올 때 감옥에서 내 뒤를 따라 나온 사람 중에 문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함흥에 있는 함경남도 도청에서 과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름이 문정빈입니다. 부하가 잘못해서 걸려든 것입니다. 나와 한 감방에 있었는데 영계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님과 인연된 사람입니다. 흥남에서 평양으로 나올 때 내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부인이 있고 아들딸이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 그 집에 들러 작별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평양에서 남쪽을 나오려고 하는 때입니다. 김원필 어머니가 교회 식구였는데 그 어머니가 순안에 장사하러 가고 없었습니다. 며칠 후면 떠나야 할 텐데 안 돌아와서 할 수 없이 김원필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문정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걸어가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돌아왔을 거리인데 안 돌아왔습니다. 사태는 점점 불리해져서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겠기에 안 되겠다 싶어 할 수 없이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따라온 그 문씨라는 사람은 못 나왔습니다. 김원필 어머니를 데리고 오려다가 남쪽으로 못 나온 것입니다. (130-325, 1984.02.13)

5 내가 감옥에서 나와 평양으로 갈 때에 따라 나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안 돌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다 돌려보내고 네 사람만 데리고 왔습니다. 평양에 와서는 자기 고향에 다녀 오라고 전부 보냈습니다. 아무 날 몇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잠깐 날짜를 놓침으로써 후퇴하는 바람에 전부 따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늘을 위해서 정성들이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외로울 때 하늘이 그렇게 협조해 준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일비재한 그러한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그 은덕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8-054, 1967.02.14) p. 761

6 내가 흥남감옥에서만 2년 5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때 노동하면서 입던 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옷 중에서 작업복, 러닝셔츠, 팬티, 이런 것은 전부 면으로 된 것입니다. 황산암모늄 비료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면에 그것이 묻게 되면 면이 녹게 됩니다. 면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전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입다 보니 구멍이 뚫리고 삭고 해서 입으면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됩니다. 냄새가 나고 형편없습니다. 옷을 비비면 가루가 돼 버립니다.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에 역사적인 재산으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 없으니 전부 이불 속에 빽빽이 집어넣습니다. 이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게 될 때에는 그것을 펴 놓고 잠을 잤습니다. 이불솜을 빼내고 2년 반 동안 입었던 누더기 보따리를 대신 집어넣은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흥남에서부터 평양에까지 10일간 그것을 지고 왔습니다. 다른 세간을 다 집어던지면서 그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그것을 어떤 식구한테 맡기면서 '비단 저고리 치마나 양단 이불은 다 버리더라도 이것만은 틀림없이 나에게 가져다줘야 돼요.'라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버리고 자기네들 것만 챙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 재료가 지금 있었으면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재료입니다. (083-260, 1976.02.08)

7 내가 흥남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팔아 봤자 한푼도 안 됩니다. 엿장수한테 주어도 엿 반 가락도 안 주는 것입니다.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명주바지 저고리는 남에게 주어 버리고 그 수의만 입고 살았습니다. 만지면 문적 문적 솜과 같이 풀려 나가는 그 누더기가 무엇 때문에 필요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10년, 1세기, 혹은 수십 세기가 지난 후에는 억천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쓰던 젓가락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설사 영국을 준다해도 못 살 것이고, 미국을 준다고 해도 못 살 것입니다. 이런 말을 오늘날 젊은이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천금만금 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026-020, 1969.10.14) p. 762

평양에서 40일간 제자 수습

흥남감옥을 나오신 참아버님께서는 10일 만에 평양에 도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피란길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40일 동안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으셨다. 고향 정주가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부모형제를 만나러 가지 않으신 것은 아벨보다 가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탕감복귀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원필·박정화 씨를 데리고 남하의 길에 올라 비로소 새 출발을 하셨다.

8 생각만 해도 아주 몸서리쳐지는 평양인데 흥남감옥에서 나와 평양을 찾아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사람 같으면 응당 자기 고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생각해 준 몇몇 식구가 남아 있는 것을 알았고, 또 내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늘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평양에 있을 때 관계되었던 식구들을 전부 찾아본 것입니다. 반대하던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까지 찾아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들어갔기에 떨어진 것이지 내가 있을 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믿는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떨어진다고 보고를 안 했고 통고도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스승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반하더라도 하늘 앞에 믿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박대할 때에는 하늘도 역시 포기하겠지만, 하늘이 아직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

고 있는 이상 그전까지는 스승으로서 맹세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모든 식구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못 가면 김원필을 시켜서 만나다 보니 고향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을 헤매도 못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58-054, 1967.02.14)

9 아버님이 흥남감옥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감옥에서 나올 때 네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함경남도에서부터 평안남도까지 제일 어려운 산악지대를 걸어 나온 것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삼고 금강산·설악산의 태백산맥, 강원도·함경도·평안도의 삼각지대를 넘어온 것입니다. 그때 북한 인민군이 태백산맥을 통해서 도망갔습니다. 군대가 우글우글하던 소굴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은 도망가는데 우리는 이남으로 내려오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려면 나흘 닷새를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갔던 죄수들을 쏴 버리고 도망가는 판입니다. 그런 위험지대를 거쳐 올 때에도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살마에게는 다 위험지대지 못 갈 데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 왔습니다. 피란민 생활을 하면서 평양에서 전도할 때 모였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내가 감옥 갈 때 눈물짓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찾겠다고 해서 찾은 것입니다. 중공군이 평양에 입성한다는 보도를 들은 판국이었지만 만나 보지 못한 한 할머니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죽은 것을 알고 난 후에 피란을 나온 것입니다. (520-186, 2006.03.13) p. 763

10 북한에서 공산당이 모든 종교단체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제일 나중에까지 남은 단체가 우리였습니다. 그때는 통일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치는 하나의 집단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해야 될 것은 교회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양에 있는 옛날 식구들을 만나 봤습니다. 아버님이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고 공산당이 핍박을 하니 드러 내 놓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옛날에 인연되었던 모든 식구들을 다 만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그들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던 것이 생생합니다. 내가 쇠고랑을 차고 5년형을 선고받고 5년 동안 잘 있다가 만나자고 할 때 눈물 흘리던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감옥에서 나와 뜻 가운데 맺어진 식구들을 다시 규합하기 위해 늙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

르기까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170-015, 1987.11.01)

11 내가 흥남감옥에서 평양으로 나온 후에 세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가니 문전에서 배반하고 두 번 가니 문전에서 배반하고 세 번 갔는데도 문전에서 배반하였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이 돌아서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최고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남들은 전부 이남으로 피란을 가는데 12월 2일 저녁때까지 사람을 시켜서 연락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할 책임을 다했습니다. 천하의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정의 이념을 들고 나와 심정에 받은 상처, 내 가슴속에 심어졌던 모든 상처를 뽑고 새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을 찾고 나서 비로소 거기를 떠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평양을 떠난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신중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지사판에서도 하나님이 맡겨 준 책임분야를 끝맺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인연되었던 사람에 대해 끝을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땅 앞에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 동정하고 후손이 동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170-015, 1987.11.01) p. 764

12 나는 8남매의 형제를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북에서 감옥생활을 할 때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평양에 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280리만 가면 내 고향입니다. 이틀이면 고향에 갔다 올 수도 있었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들을 찾아가지 않고 뜻을 대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것입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와 친척을 돌보지 않고 식구 한 사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찾아다녔습니다. (038-325, 1971.01.08)

13 내가 평양에 가 있을 때 이틀만 걸어가면 형님을 모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형님 이상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 놓지 않고는 모셔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탕감복귀입니다. 아벨이 되기 위해서는 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다음 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세계의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을 삼위기대로 묶고, 모자협조를 할 수 있는 사탄세계의 세 아들딸을 세워 나온 것입

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029-226, 1970.02) p. 764

제2장 이대·연대 퇴학사건과 서대문형무소 수난

1절 이대·연대 퇴학사건

기독교 2세 규합과 이대·연대 사건

1954년 협회 창립과 더불어 섭리의 주류는 기독교 1세권에서 2세권으로 옮겨졌다. 대학가에서 통일원리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중 이화여대와 연세대학은 기독교 재단의 학교로서 2세의 전형적인 대표격이었다. 그러나 정권과 결탁한 기독교 재단의 반대와 핍박으로 1955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이른바 '이대·연대 퇴학사건'이 발생, 사회문제로 비화하였다. (p. 765)

1 기독교는 신부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신랑 앞에 신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쳐 비로소 기독교문화권 시대에 신랑이 와서 통일천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를 중심삼고 세계가 통일되었어야 합니다. 세계가 하나되었어야 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2차대전에서 연합국인 영국·미국·프랑스가 추축국인 일본·독일·이탈리아와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한 승리적 기반 위에 해와 나라와 가인 나라와 아벨 나라가 오시는 재림주를 모셔야 됩니다. 그때에 재림주를 모셨으면 이 세계는 통일천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버님을 만나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아버님이 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요리했을 것입니다.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를 전부 수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화여대·연세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이것이 2세 남자 여자의 최고 대표였습니다. 거기서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 나라의 모든 조직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233-122, 1992.07.31) p. 765

2 한국에 있어서 연세대학과 이화여자대학 사건, 그것이 2세를 중심삼고 연결되어 나갑니다. 기독교의 1세와 2세가 종적으로는 부자관계입니다. 종적으로 보면 부자관계가 되고 횡적으로 보면 상대적 관계가 됩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그 자체를 상대적으로 볼 때에는 횡적 관계입니다. 횡적 관계가

아담 해와 같은 입장이 되면 종적 관계 되는 부모인 1세와 자녀인 2세가 자연히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원리원칙에 있어서 1세와 2세가 완전히 하나되면 가인은 굴복하게 마련입니다. 2세가 하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세 아벨권이 하나되는 날에는 1세들은 자연히 하나되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1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지금은 하늘편 보호권에 있기 때문에 1세는 2세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을 중심삼고 한국에서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이화여대와 연세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7-023, 1986.01.01) p. 766

3 아버님은 일제 치하에서 지하로 들어갔던 신령한 지도자와 하나되어 해방 이후 그때까지 신사참배를 한 교역자와 나라까지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하에 들어가 활동하던 모든 지도자들이 더 반대를 했습니다. 나라와 하나되어서 그때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하던 그들도 반대하는 입장에 섬으로써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1세에 대한 섭리의 뜻은 1세인 그때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하나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반대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다시 2세를 중심한 규합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건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43-129, 1986.03.17)

4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할 일은 1세들이 반대하니 2세를 중심삼고 규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중심삼고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화여대는 박마리아를 중심삼고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교사의 기반을 중심삼고 정부와 완전히 하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입니다. 1세들이 잘못한 것을 2세를 규합해 완전히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 2세 가운데는 신령한 사람의 아들딸도 있고, 신사참배한 사람의 아들딸도 있고, 그다음에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아들딸들도 있고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부가 뭉쳐 있었습니다. 이 2세들과 완전히 하나되었다면 거기서부터 1세들이 잘못한 것을 복귀해서 나라와 교회를 수습해 세계무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143-130, 1986.03.17)

5 한국에 주님이 오게 되면 그 당시 기독교로는 안 되고, 더욱 도약할 수

있고 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국가 독립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상적 무엇이 있으면 완전히 하나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해방직후 3년 반 동안에 아버님이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반대해서 나 혼자 몰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화여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지지만 했다면 종교는 자유니만큼 이대 총장과 이승만 정권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 자리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연세대 사건으로 그것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아버님을 세웠으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을 중심한 가인 아벨을 타고 천하에 없는 비약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나이 40세면 천하통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321-045, 2000.02.14) p. 767

6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여 출발해야 되는 것이 통일교회의 운명인데, 기독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와 대등한 교단을 재차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 2세들, 기독교에서 쫓겨난 2세들을 모아 기반을 닦아서 고생을 시키면서 역사적인 모든 것을 탕감짓고 나아가야 합니다. 즉 개인적인 담을 헐고, 가정적인 담을 헐고, 종족적인 담을 헐고, 민족적인 담을 헐면서 기독교가 세계사적 기분을 중심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치할 수 있는 영적이요 육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 통일교회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05-252, 1979.10.26)

7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볼 때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타락하지 않는 젊은 청년 남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부자관계로 하나되면 가정적인 사위기대권을 이룬 모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는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종족도 있어서 민족 편성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완전히 하나된다면 기독교를 중심삼고 나라가 하나되었기 때문에 국가적 기준에서 부모가 설 수 있는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한국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이상은 튼튼히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기독교의 배후에 선교사와 미국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미군정의 책임자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었고 교회를 중심삼고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들이 반대함으로써 다 틀어졌습니다. 예수님시대에 유대교가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럼으로써 아버님은 말할 수 없는 이단자로 몰려 추방당한 것입니다. 광야로 쫓겨난 것입니다. 4천년 동안 하늘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습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버님은 기독교와 미국이 하지 못한 책임, 대한민국과 기독교가 하지

못한 연대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독교와 정부는 국가적 기준입니다. 세계적 시대를 맞이해서는 세계적 기준에서 기독교와 나라를 수습해야 됩니다. (137-023, 1986.01.01) p. 768

이대·연대 퇴학사건의 파장

1955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통일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교수와 학생들에게 학교냐 교회냐라는 양자택일의 길로 몰아갔다. 이때 이화여대 학생 14명과 교수 5명이 의연하게 퇴학·퇴직당하였다. 언론들은 대학의 처사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기독교와 정부가 통일교회를 받아들였다면 국가적 기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될 수 있었다.

8 1955년에 일어난 이화여대 사건은 거국적이었습니다. 기독교와 합한 이승만 정권의 5대 장관들이 통일교회를 없애기 위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무대를 극복한 이후에 통일교회는 암암리에 안팎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거기서 승리하고 나와서 기독교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새로운 기독교 기반을 대치할 수 있고 전 국가의 국민을 대치할 수 있는 재편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2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일교회, 새로운 국민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0-119, 1980.11.10)

9 아버님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인류 대신 제물이 되어서 모진 매를 맞더라도 인류를 놓아 줄 수 없다며 싸움을 홀로 책임지고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통일교회 말만 들었다면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7년 이내에 한국이 뜻 가운데 서는 날에는 세계기독교를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붙여서 지상천국 이념 세계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버님을 맞아들였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화여자대학과 연세대학은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2세들입니다. 2세의 핵심을 딱 쥐는 것입니다. 1세는 타락세계에 절반이 물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탄이 귀한 것을 취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136-236, 1985.12.29)

10 이화여자대학과 연세대학 사건 때 3개월 동안에 이화여대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에 학생 100여 명이 통일교회에 나왔는데, 학교에서 반대해서 못 나가게 하니까 목욕하러 간다고 하고서는 통일교회에 가는 일이 벌어지니 학교측은 긴급대책을 세워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냐 이화여대냐 양자택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급

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통일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모두가 퇴학을 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말려서 14명만 나왔습니다. 그때 가만뒀으면 마흔 몇 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면 역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벌어졌습니다. (287-164, 1997.10.03) p. 769

11 이화여대 사건 때 6개월만 더 있었으면 300여 명이 살던 기숙사가 완전히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오죽 급박했고 요원의 불길처럼 돌아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으면 학생들에게 양자택일하라고 했겠습니까? 별의별 자식들이 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교회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사업과장으로 있으면서 신학이나 종교문제에 대해 전권을 쥐고 책임지고 있던 김영운 박사를 김활란 총장이 통일교회에 대해 조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영운이 왔는데 일주일 만에 180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얘기하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와서 속닥속닥합니다. 가만 보니 말씀만 들었다 하면 전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돌아갈 것이 무서워서 반대한 것입니다. (191-117, 1989.06.24)

12 이화연대 사건 당시 기숙사에 있던 300여 명의 학생 가운데서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통일교회 원리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몽땅 옮겨질 수 있게 되니까 이화여대가 화산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미국의 감리교 재단에서 1년에 수십만 달러씩, 그 가외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이 끊어지겠으니 이것을 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정부를 통해 아버님을 때려잡기 위해 대통령까지 움직였습니다. (438-300, 2004.02.18)

13 6천년의 봄은 한 번 옵니다. 어느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사춘기라는 것은 한 번입니다. 혼인을 결정할 때까지 봄바람이 부는데, 복귀섭리를 중심삼고 수천년 수만년의 역사를 거쳐 와서 비로소 한국 땅에서 그 봄바람이 분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300여 명의 여대생들에게 바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담을 넘고, 목욕하러 간다고 해서 뛰쳐나왔습니다. (163-258, 1987.05.01) p. 770

14 한국이 어려운 일제 치하 40년 수난길을 거쳐 해방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삼고 선교사들과 완전히 하나되어야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과 연세대학

사건이 안 났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 대학생들은 2세입니다. 복귀역사를 아버님이 잘 압니다. 2세로부터 거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연세대·이화여대 사건이 안 났으면 그때에 경무대와 연결이 되고 기독교 전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김영운씨가 이화여대 사회사업과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교수들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활란 총장이 반대하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운씨가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몇몇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만 그때 돌아가고 반대 안 했으면 한국 기독교가 다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화여대 교수 5명이 퇴직당하고 학생 14명이 퇴학을 맞는 역사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복귀역사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 습관화된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습관화된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살던 그 풍습과 습관이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170-306, 1987.12.04)

15 한국에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통일교회를 없애기 위해 나서도록 누가 조종을 했느냐 하면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가 그때 아버님을 중심삼고 돌아갔다면 박마리아와 이승만 대통령 등 최고 꼭대기를 중심삼고 세계적인 깃발을 들고 행차 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5천년 역사를 통해서 희생된 민족 위에 찾아온 천운을 중심으로 단 한 번 받은 복을 가지고 국가 창건과 더불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맹주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136-170, 1985.12.22)

16 이화여대 사태의 장본인인 김활란 총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환란을 당했습니다. 학교 교권의 간판을 가지고 남의 종단을 희생시키려고 했고 학생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정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입각했으니 그 대가를 추궁당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그때 김활란이 환영했다면 한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를 딛고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40년 역사의 중대한 고비가 기독교를 중심한 이화여대·연세대 사건입니다. 그 4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172-176, 1988.01.01) p. 771

2절 서대문형무소 수난

유언비어로 시작된 수난

이화여대와 연세대 교수·학생들의 퇴직·퇴학사건은 또다시 참아버님의 수난으로 이어졌다. 기독교 단체들은 통일교회에서 일어난 영적 열기를 갖가지 유언비어로 호도하였다. 1955년 7월 4일 참아버님께서 병역법 및 징발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되는 이른바 '7·4사건' 이 일어났다. 그 후 교회 간부 4명도 잇따라 구속되었다. (p. 771)

1 한국 전 국민이 통일교회를 반대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교회, 학교, 종교단체는 물론이고 전체 가정이 반대했습니다. 아버님이 나쁘고 통일교회가 나빠서 반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시대의 잘못된 것과 나쁜 것을 전부 우리에게 뒤집어씌워서 반대의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통일교회 원리를 들으면 일주일 이내에 다 돌아갑니다. 그때는 원리말씀을 아버님이 지도했습니다. 그러니 오는 사람마다 영적 현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교회를 안 나가면 영적으로 기합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만히 들어 보니 똑똑한 사람들은 다 통일교회로 가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를 때려잡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벌였습니다. (104-069, 1979.04.01) p. 771

2 기독교인들은 통일교회에 대해 처음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사교 집단을 들먹이며 그들과 같다고 합니다. 다 뒤집어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되면서 정보기관에서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난 소문을 40일밖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조사해서 '아무것도 없다.' 고 했지만, 그것은 그 기관에서나 알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통일교회 문 아무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지금까지의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신문기사는 몇 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형성된 그 부정적 인상을 무엇으로 바꿔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일교회 **선**전을 해도 반대를 하고 그 소문을 뒤집어엎고자 해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되고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서에서 우리를 조사한 내용을 갖고 '통일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말한다면 대번에 '통일교인들이 매수했다!' 고 나오는 것입니다. (104-070, 1979.04.01) p. 772

3 부부끼리 잘살고 아들딸을 잘 기르고 남편이 없으면 죽는 줄 알던 여자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온 뒤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와 있다가 오후 5시면 집에 돌아가 저녁밥을 지어야 할텐데, 말씀이 시작되면 다시 주저앉아 밤새껏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새벽 4시까지 얘기했습니다. 평균 2시간 잤습니다. 집에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니까 문제가 벌어집니다. 죽어도 간다고 하니 교회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대한 것입니다. 잘 믿는 신도들이 병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별의별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좋다. 다 씌워라.' 라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사건이 났을 때에도 조사 결과 무죄로 석방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죄 석방이 됐다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249-206, 1993.10.10)

4 통일교회 교인들이 한창 반대받고 핍박받을 때에는 아주머니들이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간다고 갔는데 가고 보니 통일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보통지사입니다. 그것은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쳤느니 무슨 전기장치를 했느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면술 같은 것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신령적인 길을 통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 경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076-142, 1975.02.02)

5 이화여자대학과 연세대학 사건 때에도 정부의 5대 장관이 나서서 아버님을 때려잡고 통일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죄목이 없으니까 병역기피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역기피로 때려잡는데, 그들은 연령을 두 살이나 높여서 병역을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조사해 봤자 걸릴 것이 없으니까 무죄로 나온 것입니다. (239-021,1992.11.23)

6 내가 이화여자대학과 연세대학을 중심삼고 한 60일 동안 전도하면서 두 대학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가만두었다가는 야단나겠으니 아버님을 이단으로 몰아 없는 누명을 씌웠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를 하고, 유부녀를 겁탈했다고 해서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는 병역기피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병역을 기피했습니까? 6·25전쟁 때 내가 머리를 깎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인민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군대 가겠다고 했는데도 군대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병(丙)' 자를 찍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걸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목을 걸 것이 없으니까 3개월간 야단하다가 무죄 석방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내가 무죄 석방이 된 것은 모릅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아버님이 무죄 석방됐다는 것을 압니까? 무죄라 해도 신문에 기사가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이 '성명을 냅시다.' 라고 했지만 반대성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배반한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원수시해야 될 입장이지만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세계를 거쳐 돌아와야 됩니다. 탕감복귀를 해야 됩니다. (185-206, 1989.01.08) p. 773

서대문형무소 수감생활

참아버님은 수인번호 390번을 달고 김원필, 유효원, 유효영, 유효민씨 등 간부 4명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입감되셨다. 기록적인 면회 행렬을 이룬 식구들에게 참아버님은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한편 간수를 비롯한 교도소 간부와 감방 수인들까지 참아버님의 인격에 감화를 받아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7 1955년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일교회 문 선생이 어떻고 어떻다면서 소문이 한바탕 났습니다. 내가 쇠고랑을 차고 들어가니까 구치과장이 나를 부르더니 기합을 주려고 설쳤습니다. 나는 속으로 '너 나에게 한 달 이내에 굴복하나 안 하나 어디 두고 봐라.' 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 원숭이 취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같이 데데한 사나이가 아니다.' 고 했습니다. 이래서 일주일 이내에 거기에 있는 간수들을 다 휘어잡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선생님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나올 때에는 소장까지 나와서 '문 선생님!' 이라고 했습니다. (139-050, 1971.01.09)

8 내가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 그곳의 구치과장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내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집어치우라고 해놓고 여기서 반드시 소장까지도 굴복시키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 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와서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네가 그냥 지나가지만 가다가 다시 와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왔다가 다시 갑니다. 내가 ‘네가 다시 와서 인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치과장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와서, 어느 날 아침에 떡을 해먹었는데 떡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더라고 했습니다. 떡이 왜 안 넘어가겠습니까? 조상이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들이 아버님을 푸대접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떡을 해먹다가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나보고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뒤로는 아버님의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나올 무렵에는 소장까지 찾아와서 여름이라고 참외를 사 주고 수박을 사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간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증거하는 몇 달 동안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받겠다고 그를 전도하겠습니까? 아버님이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33-267, 1970.08.16) p. 774

9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에 아버님을 만나겠다고 식구들이 죽자 살자 면회를 왔습니다. 감옥살이하는 아버님을 면회했다면 그것은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그때 면회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앞으로 표창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시집갈 때나 장가갈 때에 가슴에 품고 가서 그 가정의 보물로 간직해야 됩니다. 감옥까지 나올 때에는 간수들과 수장까지도 나와서 배웅했고, 간수들 중에는 아버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딘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가는 길 앞에는 원수가 생겨나지만 반드시 그 길은 개척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수난길을 가더라도 자기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리에서 아벨을 결정합니다. 참된 종교는 감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탄도 싫어하는 인간들이 모인 그 세계에서**도** 여느 인간들이 갖는 그 이상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 역사가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탄세계의 참소를 받지 않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새출발의 기원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034-050, 1970.08.29) p. 775

10 나는 전부가 죽으라고 하고 망하라고 했는데도 안 망했습니다. 왜 안 망했습니까? 사람들이 욕하면 욕할수록, 내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형무소에 서로 면회를 가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통일교회 교인들은 오전 8시 이후에 면회할 수 있는데 새벽 1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서대문형무소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치게 해도 저렇게 미치게 해놓았노?'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전 8시가 넘어야 면회를 할 수 있는데 새벽 1시부터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날부터 와서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68-264, 1987.09.27)

11 내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몇 개월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통일교회 문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형무소에 들어가 보면 왕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보고 무엇이라고 불러도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달도 있을 수 있고 두 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주일쯤 지나게 되자 그들이 나를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 중 제일 골칫거리인 사람, 모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몇 마디 같이 얘기하며 잘 타일렀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골칫거리인 사람이었는데 문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마간 지나자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감방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문 아무개 말을 잘 듣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을 위한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심정을 가지고 현재 한국의 운명과 미래 한국의 운명, 그리고 이 민족이 가져야 할 국민사상을 중심삼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심정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책임자 앞에는 머리 숙여야 하는 것이 천리원칙임에 틀림없습니다. (024-041, 1969.06.22) p. 776

12 형무소에서 아버님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감옥 안에서 아버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있을 때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을 참 좋아했습니다.그러니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를 푸대접하던 사람들이 만나러 오면 벌써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여 '앞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앞에 오지 마라.'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목사라는 한 양반은 아버님이 이단이고 원수의 입장이라고 맨 처음에는 서슬이 시퍼래서 '당신이 주장하는 교리가 도대체 뭣이오?' 라면 대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와서 상당히 친해진 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문이 자자해지니 형무소 소장까지도 만나려고 했습니다. 같이 들어간 제자들도 악착같이 아버님을 따르고 모시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저렇게 욕을 하고 반대해도 저렇게 끈질기니 과연 통일교회 문 선생은 난 사람이야.' 라고들 했습니다. 아버님의 자리는 이렇듯 미천한 것 같았지만 최고 귀한 자리이고 누구더러 대신하라고 해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큰소리치는 사람이라도 절대 못합니다. (021-160, 1968.11.17)

13 사람들이 '문 아무개는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나는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었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만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망하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흥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망하는 것이요, 선한 것은 흥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천하의 역사가 공증할 수 있는 참된 자리에서 섰을 때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갈 때 지나가는 행인 여자들까지도 곁눈질을 하며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고 '오냐, 너희가 걷는 그 걸음걸이는 거룩해 보이고 여기 이 사나이는 불쌍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비교의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자리가 드러나게 될 때에는 옳고 그른 것이 판결난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040-325, 1971.02.11)

14 아버님은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출발해야 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언제 나가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10년을 살든, 아니면 거기서 죽든 뜻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태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를 닦았습니다. 무슨 도를 닦느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시정해서 앞으로 보람 있는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태산이 첩첩이 가로막았으면 굴을 뚫고 고속도로를 내서라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력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 기력이 다했는데도 뜻 앞에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협조하지 말라고

해도 협조하십니다. (033-167, 1970.08.11) p. 777

15 오늘날 통일교회가 나아가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활 전체를 얼마만큼 그 시간권 내에서 실감 있게 전체화해서 전개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깊이 혹은 높이를 기독교가 출발하던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크게 되면 우리는 급진적인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패자의 서러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를 느껴 보아야 하고 망신도 당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님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가기 전 법정에 섰을 때, 과거에 아버님을 따르던 사람이 '이북에서도 감옥살이를 하더니 여기와서도 감옥살이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렸구먼.' 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감옥을 드나들면서 투쟁해 왔습니다. 이 모든 원한을 모아서 가다 보면 그 원한을 전부 풀고도 남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려야 지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입술이 부르트고 몸이 불편해도 양양해하는 원수의 등을 내가 양발로 딛고 넘어설 때까지 나는 갈 것입니다. 사탄을 대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025-332, 1969.10.12) p. 777

3절 서대문형무소 무죄 석방

무죄로 마무리된 서대문형무소 사건

1955년 10월 4일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로 석방되셨다. 식구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참아버님을 맞이하였으며, 3일 후 장충동에서 청파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10일 출옥환영회를 가졌다. 평양에서 직접 지으신 '성려의 새노래'를 부르며 수난의 의미를 되새기셨다. (p. 777)

1 1955년 이화여자대학 사건 등으로 인해 전 국가가 소동해서 나를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중심삼고 그 놀음을 한 것입니다. 들추고 해봐야 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갖은 흉악한 보따리를 다 씌워 놓았지만 죄로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북에서 내려왔으니까 머리를 깎고 그럴 때인데, 내가 인민군인 줄 알고 조사하려고 했고 내가 군대에 가려니까 군대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니 죄에 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그 사실을 기독교 교인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때에 지금같이 선포했

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길 길에는 세계적 기준을 중심삼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개인적 십자가 길에서 패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개인적 승세 기반 위에 가정적 십자가가 찾아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184-273, 1989.01.01) p. 778

2 아버님이 감옥에 갔다는 것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해서 소문을 내놓고 무죄 석방이 됐다는 것은 아주 작게 한 단으로 써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와서 싸웠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싸우지 않음으로써 뿌리까지 뽑아버린 것입니다. 역사를 두고 아버님을 반대한 사람은 뿌리까지 뽑힙니다. 아들딸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옳은 목사이고 올바른 충신인 줄 알았는데 역적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의 도리를 다한 천지의 대부모를 반대한 역적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의 무덤을 파 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240-231, 1992.12.13)

3 자유당 정권 때 5대 장관이 나를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교부 내무부 외무부 등의 5개 부처에 이승만 박사가 특명을 내려서 통일교회를 없애 버리라고 통고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소문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백백교 교주를 이야기하면서 누더기 보따리를 씌워 놓고는 들춰 보니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재판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90여 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때 세상이 전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세계에까지 그 욕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40년 동안 가만있었느냐? 맞고 빼앗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망하는 거야! 나를 한번 쳐 봐라! 치는 날에는 코너에 가서 옥살박살 날 것이다.' 라고 하며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182-306, 1988.10.26) p. 779

4 1954년에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남한에서 국가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전체가 반대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년간은 언제나 탕감을 해야 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감복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공식은 공식대로 적용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아버님을 때려잡고

밟아 치우려고 했고, 기독교와 정부가 하나되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판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됨으로써 통일교회 역사는 연장되어 나온 것입니다. (087-059, 1976.05.01)

5 무죄 석방이 무엇입니까? 무죄 석방이면 대한민국이 나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유죄라고 선포하고 아버님은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보게 되면 '죄없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그랬으면 대한민국 너는 유죄야. 그리고 문 선생은 무죄인 것을 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대하는 골수분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패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패입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독교가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은 연루자가 되어 그 범죄의 공범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기독교가 망하면 망했지 아버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187-219, 1989.02.11)

서대문형무소 수난의 의미

참아버님의 옥중 수난 다섯 번째인 서대문형무소 수난은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주와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이 벌인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야 할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통일교회는 다시 광야노정을 거치게 되었다.

6 아버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교회 문 아무개는 벌거벗고 춤춘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로 벌거벗고 춤을 추고 욕을 먹었다면 한이라도 없겠습니다. 벌거벗고 춤추는 것은 구경도 해보지 못했는데 벌거벗고 춤추는 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치고 저주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발로에서 그랬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소개하겠습니다. (032-270, 1970.07.19) p. 780

7 재창조의 섭리는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고서야 됩니다. 내가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갔지만 대한민국을 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기독교를 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모르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한 대한민국이 죄지은 것을 탕감하게 나한테 다 지워 주십시오. 나를 욕해서 복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 시대가 지나고 한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것을 거둘 때에는 몇 백배, 몇 천배로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몇 십배, 몇 백배로 큰 사랑의 구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천리의 사랑의 도리를 통해서, 생명의 뿌리가 번식되는 원칙을 따라서 씨를 뿌리면 몇 백배, 몇 천배가 거두어집니다. 이 우주의 사랑의 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79-300, 1988.08.14)

8 아버님은 삼천만 민족이 '이단의 괴수다. 망해라.' 라고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맞았으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니 때로는 남루해야 했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길을 개척하면서 갖은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풍상을 겪어 나오셨는데 내 어이 이만한 풍상을 겪지 않으리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당한 그런 사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이 갖지 못한 보화를 창고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017-252, 1967.01.29)

9 남한에 와서도 감옥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통일교회 역사입니다. 저주와 배반과 핍박의 길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뼈가없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갔을 때 구치과장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했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한 달이 못 되어서 그들은 나한테 찾아와서 '옛날에 들었던 통일교회 문 아무개와 지금 알고 난 통일교회 문 아무개는 다르더라.' 라고 사죄하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의는 아무리 혹독한 핍박**의** 쇠사슬 가운데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길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무리의 길을 책임지고 가는 길이므로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난의 매 자국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그때 입은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064-148, 1972.10.29) p. 781

10 평범한 것도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수난의 경지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옥중생활 가운데나 기근이 극심한 자리에 서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수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수난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세워 나가는 힘과 소망과 욕구를 가진 사

람에게는 그 시련과 수난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기쁨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기쁨뿐만 아니라 소망의 나라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기쁨의 천국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어떠한 소망도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 무대를 극복할 수 있게끔 연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 과정은 연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극을 보다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선물로서 준 수난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 수난이 나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터전이 되고 내일의 행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042-320, 1971.04.04)

11 외로운 길을 혼자 개척자의 사명과 선각자의 사명으로 더듬어 오면서도 아버님은 외로운 자리에 부딪히는 것을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거는 일을 했지만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정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지의 대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고문을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고 힘줄이 끊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런 자리에 내세운 하나님의 심정은 그 이상 더 애달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을 붙들고 하늘을 위로할 수 있는 나라를 찾겠다고 허덕이고 있으니 아무리 고문이 심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엇갈린 십자가의 길이 가로놓이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패배의 어려움과 절망의 환경으로 몰아넣더라도 아버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겠다고 결의하는 것입니다. (065-091, 1972.11.13) p. 782

12 지금까지 역사과정을 두고 볼 때에 역사의 주인공은 그 시대의 수난의 고비를 극복하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싸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성현들은 천의를 받들어 인간 세상에서 긍정하는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바꾸어 소망의 세계를 향하여 자기 일신을 버리고 그 이념과 더불어 환경의 시련을 극복해 나온 사람입니다. 그 성현의 삶은 비참하지만 그 내심에서 받던 모든 고충이 도리어 기쁨의 세계와 인연맺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수난의 길을 걸어온 것은 통일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고 세계에 보다 빛 될 수 있는 통일교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42-320, 1971.04.04)

13 나는 서대문 거리에서 형무소를 향하여 쇠고랑을 차고 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땅을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가 되어서는 간수들 네 사람인가가 통일교회를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장도 나를 몇 번씩 만나 봤습니다. '세상에서 나쁘다는 사나이가 이렇게 되다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이 서로 만나겠다고 문전에 행렬을 짓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팔한 청년 남녀들이 새벽부터 줄을 지어서 나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이쿠! 잘 몰랐구나!' 하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065-063, 1972.11.13)

14 여러분은 지난날 통일교회를 반대하던 교회와 나라 앞에 몰리고 쫓겨나 수의를 입고 있던 아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의를 입고 쇠고랑을 차고 재판장 앞에 섰던 아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스러웠던 그 시절이 풀려서 우리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싹이 날 수 있는 봄날이 왔기 때문에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데에는 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과 겨레를 대신하여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쌓아 올려 놓은 생명의 위업, 사랑의 위업을 그냥 그래도 계승해서 세우게 될 때, 현재 기독교가 당장은 우리와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갈 길이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048-318, 1971.09.26) p. 782

제3장 댄버리 수난과 참부모님의 승리

1절 참아버님의 탈세 혐의 재판

탈세 혐의 관련 성명서 발표

참부모님께서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비롯해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그 대표적 사건이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위원장 로널드 프레이저 의원) 청문회이다. 1978년 3월 22일부터 4차례에 걸쳐 박보희 선교사를 증언대에 세운 이 청문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이른바 코리아게이트와 연결시켜 통일교회 활동을 저지하겠다는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공세 속에 참아버

님께서는 1981년 10월 15일 탈세 혐의로 뉴욕 연방지원법원에 기소되었고 수차례 법정에 출두하셨다. 그때마다 성명서를 통해 미국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아직도 인종차별과 종교 편견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셨다. 그리고 미국과 세계 인류를 위한 희생봉사의 삶을 살았기에 한 치의 부끄럼이 없고 떳떳하다는 것을 천명하셨다. (p. 783)

1 통일교회는 일본에서 공산당을 굴복시키는 데 승리의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기준을 넘고 아시아 기준을 넘어서 세계기준인 미국에까지 접전해 들어가자 전세계 공산세력이 아버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모든 바람이 전 세계로 불어 갑니다. 이 바람의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오늘날 자유세계는 물론이요, 미국 자체도 물론이요, 전체 기독교도 물론이요, 전부가 이 바람을 받아 아버님을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옹호하여 사탄 편을 반대하고 방어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입장에서서 아버님과 하늘 편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혼자인데, 한국까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내적으로는 지지하지만 외적으로는 지지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더욱이나 미국의 카터 정부가 코리아게이트와 연계해 프레이저 의원을 내세워 통일교회를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104-257, 1979.05.27) p. 783

2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장으로 갈 때에는 사형수가 형장에 나가는 것이 쉽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우하사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옥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 당국도 갑자기 손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아버님이 시민과 소수민족을 통해 이런 기반을 닦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장작전을 했습니다. 철저히 세계적으로 조여 들어가서 목을 잘라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프레이저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공산세력과 유대인과 기독교와 미국 정부가 합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벨은 언제나 수세적이요 가인은 언제나 공세적이었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의원을 쳐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침으로써 우리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099-184, 1978.09.18) p. 784

3 미국에서 프레이저 의원과 싸울 때 아버님이 우물쭈물해서 '후퇴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와 어떻게 부딪치느냐?'라고 졸장부같이 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완전히 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고 같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친 것입니다. 날아가는 포탄,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심장부를 뚫고 나간다는 결의를 갖고 '네가 뚫리지 내가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뚫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모로 보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100-285, 1978.10.22)

4 아버님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국회나 국무부에서 야단입니다. 그리고 프레이저 의원이 국무부와 국회, 공산세력, 유대교, 기독교를 대신해서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기수가 되어 싸우다가 자기 힘에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알 만큼 그렇게 야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우리 PR팀이 되어서 '아, 축하한다!'며 전화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흥분할 때 내가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진 사람은 약자인데 하늘은 약자를 치는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하늘이 가는 길이니, 통일교회는 제발 프레이저를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거리에 나가 춤을 추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프레이저한테도 이기는 동시에 프레이저 후손한테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아버님이 훌륭하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099-154, 1978.09.17)

5 이번에 프레이저 의원이 선거에서 진 것은 아버님과 싸워서 졌기 때문임을 세상이 다 압니다. 하루에 신문 4개면에 걸쳐 기사가 나온 것은 세계 역사상에 기록일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계의 최후 공세라는 것입니다. 프레이저가 이긴다고 좋아하던 공산세력 전부를 한꺼번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그들이 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싸울 때 서로 붙들고 있는데 천사가 못 이기겠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싸움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아버님은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문 선생과 싸워서는 이익이 없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099-185, 1978.09.18) p. 785

6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은 반드시 험한 가시밭길을 가야만 했고 당대에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외에도 세계 역사시대에 그 실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과 세계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래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본인이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아는데 어찌 이 시점에 와서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본인은 이번에 미국 정부가 본인을 고소한 데 대하여 억울하다거나 노엽다거나 섭섭하다고 생각지 아니합니다. 이 기회가 누구보다도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당했고, 누구보다도 섭섭하다면 섭섭함을 당했고, 누구보다도 외롭다면 외로움을 당하신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기회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것이 영광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본인이 걸어온 일생을 돌이켜 볼 때,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일생이었으며 인류와 세계 앞에 희생 봉사하는 생활을 했다는 확신이 있기에 본인은 세계 어느 법정도, 그 이상의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 온갖 심혈을 다하여 미국을 사랑했고 미국의 정신과 도덕의 부흥을 위하여 피땀을 쏟아 왔습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115-061, 1981.11.01)

7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는 세계를 공산주의의 마수에서 구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아무것도 얻어온 것이 없습니다. 본인은 세계 통일교회 운동의 총력을 미국에서 경주하여 왔습니다. 미국은 흔히 부자의 나**라**, 원조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의 경우만은 그와 정반대로 미국은 통일교회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원조를 받아온 수원국(受援國)입니다. 만일 본인이 미국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온 것이 죄라면 본인은 주저 없이 정죄함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의 고난도 사양치 않을 것입니다. (115-062, 1981.11.01) p. 786

8 오늘날 아름다운 미국, 위대한 미국에 두 가지 허점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편견이요 인종차별입니다. 특히 인종차별 문제를 놓고 링컨 대통령이 피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해결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최근대사에 있어서 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불의와 싸우다가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투쟁은 통일교회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동양에서 건너간 통일교회 운동은 오늘날 미국에서 배척받는 모든 소수민족에게 대변자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번 기회에 미국 안에 소수민족연합회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금번 귀국하기 전에 그 기금까지 마련해 놓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소수민

족연합 인권운동은 앞으로 1980년대를 달리는 미국에 의로운 운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진리가 있다면 역사는 이 방향으로 흐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5-062, 1981.11.01)

탈세 혐의 재판의 경과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1982년 참아버님을 탈세 혐의의 재판을 위한 사전 단계로 12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였다. 당초 우리측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배심원에 의한 판정대신 판사의 재판을 요구했으나 뉴욕 지방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1982년 5월 18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뉴욕 지방법원은 7월 16일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토대로 헌금 160만 달러의 이자 11만2천 달러에 대한 소득세와 5만 달러에 상당하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1973년부터 1975년까지 3년간 7천300달러의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탈세했다면서 이에 대해 징역 18개월과 벌금 2만5천 달러를 선고하였다. 변호인단은 11월 3일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미국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이 무죄 청원서를 잇달아 제출하였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미국에서는 참아버님의 재판에 항의하는 각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 자유의 대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양심적인 인사들이 종교 탄압이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변호인단이 항소했지만 1983년 9월 13일 연방고등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고 1984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1981년 10월 15일 기소 이후 1984년 7월 20일 입감되기까지 2년9개월간의 재판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9 학교에서 두 학생이 싸우게 될 때 가만히 들어 보면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누가 공적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보다 공적인 것을 옳다고 보아야 됩니다. 내가 재판정에 나갈 때 통일교회 교인들은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만을 위하지만 나는 미국 정부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공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무슨 형을 지우더라도 하늘의 공법에 의해서 나는 승리자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 여러 번 섰지만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회는 하나님만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117-270, 1982.04.01) p. 787

10 지금 미국에서 아버님이 탈세했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중심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위성국가를 희생시키더라도 미국을 보호함으로써 세

계에 공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자유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유세계 일부를 희생시켜서라도 중심국가를 살림으로써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미국 국민도 행정부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정투쟁의 길이라도 아버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행정부가 아버님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민의 사고방식보다도 더 공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미국 국민이 생겨나면 그들은 전부 아버님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17-277, 1982.04.01)

11 아버님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공판정에 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앞으로 이 우주의 공판정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아버님이 1심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하고, 2심에서 죄가 있다고 하고, 3심에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다 부정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정은 최**고**의 역사적 대법원입니다. 미국 국민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까지 상소하지만 아버님에게는 역사적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한 때에는 이 법정에 서게 마련입니다. 아버님이 만일 역사적 대법원에 서게 되면 살아서 이 법정에서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죽어서 그 공판정에 서지않고도 무사통과하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멋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그런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살아서 그런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정의의 길은 강하고 담대한 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버님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무서워하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혼자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117-280, 1982.04.01) p. 788

12 아버님이 탈세했다는 말이 나왔을 때에는 미국 식구들조차도 불 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없는 사실을 아버님에게 뒤집어씌워서 때려잡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국민은 전부 사실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거짓말을 해서 사기해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러도 안 되는 세금을 안 냈다고 조사하기 위해 지금 수백만 달러의 돈을 쓰면서 야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제삼자가 100만 달러를 줄 테니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조사하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모르지만 죄가 없는데 뒤집어씌워서 야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정, 원수를 사랑하는 심정을 다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법정투쟁을 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시대의 로마와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입장에 미국과 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싸워 이겨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더라면 기독교는 피를 흘리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세계 통일교회 선교사에 피 슬리는 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쟁터,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총력을 다하여 성인의 정신과 의인의 정신을 가지고 돌진해야 됩니다. (118-057, 1982.05.02)

13 나는 배심원을 믿지 않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미국 법원이 강제로 채택한 것입니다. 아버님을 유죄라고 하니까 전 세계 통일교회 교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버님은 전체를 역사적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는 하나의 기원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때입니다. 백인도 눈물 흘리고, 흑인도 눈물 흘리고, 황인도 눈물 흘리고, 오색인종이 이번 탈세 혐의로 공판하는 기간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과 하나님과 세계를 위해서 눈물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인류가 눈물 흘리는 것이 되었고, 아버님 한 사람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통일교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 연결입니다. 섭리사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하나님과 아버님과 전 세계 인류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하나의 전환시기입니다. 심정적으로 하나의 고지를 점령해서 넘어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118-137, 1982.05.23) p. 789

14 지금 법정투쟁을 하면서 워싱턴 타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을 세계와 미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을 막고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 인천'영화에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유세계와 미국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러도 안 되는 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음모하고 탈세합니까? 말도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 역사적인 수치를 어디 가서 가릴 것입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얼굴도 못 들

게 됐습니다. 전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의 법정투쟁을 중심삼고 미국은 언제나 비판받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식구 여러분이 이런 국가적인 수치와 미래의 역사적인 수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1982년 7월 14일 재판 때까지 대동단결하여 있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책임지고 앞으로 미국의 수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미국 국민을 올바른 방향을 돌려놓는 기회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움직이지 않고, 눈이 피곤해서 떠지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전진에 전진을 해야 됩니다. (118-139, 1982.05.23)

15 나는 미국 정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를 교육하고 미국 사람들을 교육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버님이 가는 생애에는 낮만 있지 밤이 없습니다. 밤은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찾고 가느냐, 무엇을 채우고 가느냐,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섬으로써 하늘이 나를 위해 슬퍼하면 내가 하늘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나날이 미래를 확정짓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늘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땅을 생각해 줍니다. 하늘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이면 결국은 내려가야 될 것이고, 미국 정부가 선이면 미국 정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올라가는 미국 정부를 때리지 말고 따라가야 하지만, 내가 선일 때에는 미국 정부를 버리고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없이 제일 어려울 때에 하늘을 위로하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 길이 성인이 가는 길입니다. (119-176, 1982.07.18)
p. 790

16 아버님이 법정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미국에 나쁜 것을 남겨 줄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것을 남겨 줘야 됩니다. 미국 국민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야 합니다. 아버님을 연구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정지하게 되겠습니까, 도약하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이 공의의 천리를 따라가야지 공의의 천리가 미국을 뜨라갈 수 없습니다. 공의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올라가고 반대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내려갑니다. 제거한다면 누가 제거하느냐? 우주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공법, 공의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일생 동안 반대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고 이 나라 미래의 젊은이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자유세계를 살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119-178, 1982.07.18)

17 아버님은 세계를 위해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외에 갈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공판정에 서서 아버님 이상 희생해서 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지 않고는 미국의 갈 길, 미국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버님을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세계 국가 앞에 서겠습니까?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의의 천리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아버님이 가르쳤습니다. 아버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 심각합니다. 자식들의 장래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공의의 길은 그러한 법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법도의 길을 밟고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19-180, 1982.07.18) p. 791

18 공의의 천리를 여러분이 인계받아서 아버님과 더불어 감옥살이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세계가 환영할 때까지 가겠다고 생각하십시오. 탈세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투쟁하는 기간에는 심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결정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악심을 갖고 미국을 저주한 적이 없고 미국의 검사와 판사를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당당합니다. 미국의 선한 조상들 앞에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편입니다. 앞으로 후손들은 아버님 편입니다. 그때 자기 후손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 의인이 갈 길은 정해져 있지만 악인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악인은 언제든지 멸망합니다. (119-181, 1982.07.18)

19 기독교가 로마에서 400년 탕감한 것을, 야곱부터 지금까지 4천년 동안의 유대교 중심한 탕감노정을 아버님이 40년에 귀결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노정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이 3년간의 법정투쟁을 중심한 총공격시대입니다. 거꾸로 탕감하는 것입니다. 탕감노정은 거꾸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시대를 탕감할 수 있는 기독교가 부모님을 모신 이때입니다. 아버님이 미국 법정에서 투쟁하는 3년간은 예수님이 세계적 무대에서 로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을 민주, 자유세계에서 기반을 닦는 메시아의 3년노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때가 승리로 넘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아버님이 미국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법정투쟁입니다. 그래서 1차 뉴욕 지방법원을 거쳐 2차 연방고등법원에까지 간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심판사는 내 편이었고 부심판사 둘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장성시대에 해당합니다. 3차 연방대법원을 중심삼고 싸우는 때에는 여론이 비등해서 '선생님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자유세계 전체가 완전히 합하고 기독교 전체가 합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미국 국민과 자유세계, 기독교가 하나되어 오른편 강도처럼 아버님을 지지한 것입니다. (131-137, 1984.04.29) p. 792

20 아버님은 미국이 반대하지만 미국을 넘어서 미국 이상의 소망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내일이 클 것이고 내일보다는 1년 후가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인류가 하나되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사상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결정 났을 때 '하나님이시여! 다음에는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통일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번에 법정투쟁에서 감옥에 감으로써 앞으로 이어받을 큰 축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아버님 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세상에 없는 통일된 가정들이 따라오고 있고, 통일된 민족과 통일된 나라, 통일된 세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설 때 그 자리에서는 통일된 세계의 무리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희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은 십자가의 길을 소망과 환희의 길로써 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있음으로써 통일의 전통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들딸, 축복가정, 기독교, 미국, 세계로 줄을 지어 연결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한 길을 출발하고 있는 이날에 여러분이 눈물로 아버님을 보내주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 눈물을 흘리려거든 아버님 이상, 십배 백배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거든 내가 나올 때 천 사람을 하나 만들고 만 사람을 하나 만들 수 있는 통일의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133-263, 1984.07.20)

21 뜻길을 나오면서 감옥생활을 많이 했지만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감사하고 가야 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결과는 하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서 고개를 넘게 하여 불쌍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승하도록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정신세계가 아버님을 중심삼고 하나로 통합해 들어오는 이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의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1-319, 1984.05.19) p. 792

2절 문흥진님 성화와 애승일 선포

제물로 간 문흥진님

참부모님께서는 1983년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 한국 8대 도시에서 승공궐기대회를 주관하셨다. 당시 참부모님을 암살하려는 무리가 마지막 대회장인 광주에 파견되었다는 정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된 강연시간에 차남인 문흥진님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984년 1월 2일 성화하셨다. 기독교 국가가 반대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참부모님을 대신하여 탕감의 제물이 된 것이다. (p. 793)

1 1983년 12월 한국에서 전국 8대 도시 승공궐기대회를 통해 전 국민을 완전히 묶는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72개국의 세계평화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모아서 묶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사탄과 격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전체가 완전히 아버님의 운동에 붕 떠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가정은 혼란시대였습니다. 부모님 가정이 전 세계를 대표하여 가정적 공격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버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겠으니 흥진군을 공격할 것입니다. 마지막 광주 승공궐기대회에서 강연하는 시간에 흥진군에게 자동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161-080, 1987.01.02) p. 793

2 내가 1983년 12월에 한국에 가는 데에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개국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사탄이 아버님을 아무리 침범하고 싶어도 아버님이 탕감조건을 세우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통일교회를 민주세계가 반대했지만 그 반대하는 패들을 내가 탕감조건을 세워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의 자녀는 아직까지 여러분의 대표입장입니다. 그래서 흥진군이 거기에 상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최후에 때리는 것입니다. 전국 8대 도시 승공궐기대회가 성공리에 끝나는 그 시간에 흥진군의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마지막 광주대회 때 아버님

이 강연하는 그 시간입니다. 11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대회장이 꽉차 버렸습니다. 아버님을 해치려는 공작대원이 활동할 수 없게끔 초만원이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꽉 찬 것입니다. 공작대원들을 자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할** 수 없이 아버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130-196, 1984.01.15) p. 794

3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승공궐기대회를 하는데 맨 나중에 남은 곳이 광주였습니다. 그때 영통하는 사람들은 아버님에게 광주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이 전부 모여서 아버님을 구석에 몰아넣고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갑니다. 공적인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앉았던 사람이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대회장이 초만원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흥진군의 자동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212-092, 1991.01.02)

4 흥진군의 희생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진실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약 흥진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두 가지 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한국을 무력으로 침범했을지도 모르고 아버님이 지상에서의 생애를 끝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승공궐기대회를 통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이 아버님을 더 이상 침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승리를 거두는 동일한 시각에 흥진군을 희생의 제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130-289, 1984. 02.07)

5 흥진군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님의 보안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염려한 사람입니다. 아버님 앞에 만약 원흉이 나타나 총을 쏜다면 자기가 그 총탄을 대신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트가든에서 축복가정들을 동원해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밤에 축복가정들을 사방에 배치해 비밀리에 습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경호원이 진짜 경호원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까지 하면서 아버님의 보안문제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더구나 시카고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는 경호원과 더불어 밤잠을 안 자면서 경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심정적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총탄을 맞아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도망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적 훈련을 축복가정들에게 시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는 것입니다. (137-293, 1986.01.03) p. 795

6 내가 흥진군의 차 사고가 난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언덕길에서 트럭이 내려오다가 제동장치를 밟았는데 차가 뺑 돌았습니다. 뺑 도니까 직선으로 선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진군의 차는 바른쪽으로 달렸으니까 왼쪽에서 흥진군이 운전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자율적신경의 자동적인 반응에 의해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위험으로부터 피하려고 꺾는 것이 원칙인데 꺾지 않고 차가 비스듬히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왜 반대로 꺾었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꺾어서 정면으로 들이쳤습니다. 그것은 흥진군이 함께 탄 축복가정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밤에 공부할 때에도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찾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의식해서 운전대를 반대로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흥진군이 대신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137-291, 1986.01.03) p. 795

7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민주주의는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차 사고가 나서 흥진군이 죽었지만 같이 탔던 두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흥진군이 참 좋은 일을 하고 간 것입니다. 차를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는데 어째서 흥진군은 차를 자기 쪽으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트럭 모퉁이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동승했던 두 사람은 자기들을 의식해서 운전대를 그렇게 꺾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대표하는 희생의 제물로 갔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차에 탔던 그 두 사람은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와 같은 입장인데, 흥진군이 그들을 대신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전부 죽어 갔지만, 아버님시대에는 흥진군 하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살아나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130-199, 1984.01.15)

8 흥진군은 국가적 탕감기반 위에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를 위해서 희생했

습니다. 국가적 기반에서 공산세계와 민주세계, 이 두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미국에서 사고가 났지만 묻히기는 한국에 묻혔습니다. 몸은 조국에 돌아와서 묻힌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흥진군은 국가적 기반을 닦은 참부모의 승리적 기반 위에 섰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제나 영계에 가 있을 수 있고 지상에도 정착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국가 기반을 이루지 못한 것을 탕감복귀함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지상 나라를 찾아 올 수 있는 기반이 흥진군으로 인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30-200, 1984.01.15) p. 796

9 아버님이 대법원에서 법정투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때입니다. 예수님시대에는 예수님을 반대해서 유대교가 깨져 나가고 로마도 깨져 나갔지만, 지금은 법정투쟁을 중심삼고 기독교와 미국이 아버님과 직접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시대에 실패한 것을 탕감복귀한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흥진군이 탕감조건에 걸려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때라 흥진군도 자동적으로 지고 있는 때라 흥진군도 자동적으로 그 권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대신 입장이 부모님 입장이고 흥진군이 예수님 입장이기 때문에 아들 된 예수님이 세계적인 십자가를 져야 될 탕감적 내용과 딱 일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친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흥진군을 사탄이 친 다음에 세계사적인 내용으로 부모님이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영적 문을 열었지만 흥진군은 육적 문까지 열었습니다. 예수님시대의 오순절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세계적인 새로운 영육을 합한 오순절 시대라는 것입니다. 탕감복귀입니다. 기독교가 반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탕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신과 함께 재림해서 120문도와 더불어 2천년 동안 기독교를 중심한 기독교 문화권을 만들어 재림주 앞에 봉헌했으면 오순절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했기 때문에 전부 왕창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31-231, 1984.05.04)

애승일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1984년 1월 3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벨베디아수련소에서 문흥진

님이 성화하신 1월 2일을 애승일로 선포하셨다. 문흥진님이 제물노정을 감으로써 사망권을 이기게 됨은 **물**론 지금까지 사탄이 지배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애승일(愛勝日)이라고 명명하셨다.

10 부모님이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의 꼭대기에서 흥진군을 책임지고 1983년 12월 31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통일식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심각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랑한 장대 같은 아들이 갑자기 영계로 돌아갔지만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통일식을 해주고 난 다음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에도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그 기간에 애승일, 사망을 이겼다는 식을 했는데, 부모님이 거기에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 해와가 잘못함으로써 사망의 골짜기와 사망의 지옥, 천상세계의 지옥과 지상세계의 지옥을 만들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이 고개를 트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서서 정비해서 아들을 바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시간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이왕지사 그럴 때에는 서슴지 않고 부모로서 하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내자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도 눈물을 흘리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성화식을 해서 보내고 나서 부모로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다 보내고 나서 가는 길에 축하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408-293, 2003.06.17) p. 797

11 여러분이 자기 생명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한 사탄은 더 침범을 못합니다. 흥진군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흥진군 이상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사탄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은 사탄이 지배했지만 이제부터 사랑은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에서 하늘과 하나되어서 애승일을 선포했습니다. 사탄세계가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에 비례해서 빨리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애승일을 중심삼고 3년 동안은 밤낮없이 뛰어야 됩니다. 밤낮없이 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진군이 밤낮없이 쉬지 않고 민주세계의 젊은이들과 공산세계의 젊은이들, 영계의 모든 선배들과 후배들을 동원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지지 않게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결의를 해야 됩니다. 애승일이 나옴으로써 가인이 아벨을 환영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랑하면 탕감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사랑하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면 사탄한테 죽음을 당하고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

다. (130-206, 1984.01.15) p. 798

12 1984년 1월 3일 애승일을 설정해 줌으로써 원리결과주관권과 직접주관권 내에 사탄의 사랑으로 인해 막혔던 것을 빼 버렸습니다. 그렇게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지옥이든 어디든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밑창에까지 마음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야 됩니다. 하늘세계 사람에게 사탄세계의 사람이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승일입니다. 하늘 사랑이 과거·현재·미래권까지 대신해서 사탄세계의 사망권까지 대신해서 사탄세계의 사망권을 빼내 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승리한 것이 됩니다. 애승일입니다. 그 자리는 제물 된 아들을 놓고 그 아들에 대해서 슬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책임자들은 흥진군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흥진군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진군이 아버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지 않는 것처럼 아버님에게는 24시간 복귀 일념 외에는 없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깨끗이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진군같이 해야 됩니다. (171-274, 1988.01.02)

13 저나라에서는 흥진군이 사랑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주관권 내입니다. 타락권 내를 벗어나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사탄세계를 넘어선 내 아들이다.'라면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어렸을 때에 사랑을 못한 역사도 탕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흥진군을 사랑하는 것은 참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못했던 것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모든 것이 풀려 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방하고, 아버님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던 것을, 완성급 자리에서 사랑 못 받던 것을 해원성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죽었기 때문에 33세 이하 젊은이들은 예수님의 혜택을 못 받고 영계에 갔지만 흥진군이 감으로써 10대권 전체가 사랑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0대권이 장성기 완성급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원리결과주관군이 사탄권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장성기 완성급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던 연령인데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10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타락하지 않은 권내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원리결과주관권 내에 있는 사탄이 지상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후퇴할 시대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참부모님의 아들을 사탄 앞에 내줄 조

건이 없습니다.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내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와 유대교를 구하기 위해서 내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흥진군을 사탄에게 내줄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기독교, 자유세계, 전 세계 때문에 흥진군을 내준 것입니다. (131-234, 1984.05.04) p. 799

14 영계에 있는 기독교의 영들이 예수님을 중심삼고 지상에 내려와서 협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상에 있는 기독교가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데서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제물 드린 단체를 통해서 지상세계에서 횡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협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들과 참부모의 혈족이 영계에 가서 직접적으로 관계맺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인들의 소원은 참부모와 심정적 유대를 지상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지상에 있던 참부모의 아들을 보내면 영계에 간 그 아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흥진군을 통해서 지상에 내려와 기독교를 협조하고 소화하는 운동을 하는 데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중심삼고 기독교 영계가 지상에 재림하고, 전체 영계가 재림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61-080, 1987.01.02) p. 799

문흥진님의 축복결혼과 영계 사령관

참부모님께서는 1984년 2월 20일 미국 뉴욕 벨베디아수련소에서 문흥진님과 박훈숙님의 축복결혼식을 거행하셨다. 성화 50일 만에 열린 문흥진님의 성혼식으로 천상과 지상이 하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통일식과 애승일의 기반 위에 문흥진님에게 축복결혼과 양자를 약속하셨고, 이 토대 위에 영계를 해방하기 위한 참사랑의 전권대사이자 총사령관이라고 축복해 주셨다.

15 예수님은 30대에 돌아가셨지만 흥진군은 17세에 갔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적인 원리결과주관권이 직접주관권에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대신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간섭권을 넘어 섭니다. 원리결과주관권 내에 있지만 참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장의 보호도 보호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결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참부모 기준을 통할 수 있는 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참부모 기준 위에서 그 탕감조건을 세우고, 부활하는 데도 참부모의 사랑권 내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사탄의 간섭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상에 연결하여 50일 반에

축복해 준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2천년 후에 예수님이 와서 이루려고 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2 아담이 원리권 내에서 축복받은 것을 의미하고, 제1 아담이 미완성한 기준을 주심삼고 완성기준을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는 장성기 완성급이지만, 이것은 완성급 참부모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직접주관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계는 자동적으로 순응할 때에 들어오게 됩니다. (131-233, 1984.05.04) p. 800

16 1984년 2월 20일은 흥진군 성화 후 50일이 되는 날인데, 이는 예수님 당시의 오순절과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신 강림과 더불어 불을 받고 세계적 역사가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흥진군과 훈숙양이 결혼함으로써 120개 국가의 왕들이 이 땅에 와서 부활하여 세계적 역사를 전개할 수 있는 운동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순절을 대표한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120개 왕권이 임할 수 있고 지상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개 국가 중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한 나라만 생겨나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개문되는 것입니다. (131-016, 1984.02.20)

17 흥진군의 신부 되는 훈숙양이 혼자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참부모를 위해 정성들이는 효녀 효부가 되는 입장에 있게 될 때 축복받은 가정들은 3년노정 7년노정을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참소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원과 전통이 지상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에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상대를 가지고서 불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기준을 내가 여러분 앞에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숙양과 하나될 때 사탄은 여러분 가정을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숙양을 대신해서 살고 흥진군을 대신해서 산다는 사상을 갖는 날에는 사탄을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들에게 3년노정을 출발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131-017, 1984.02.20) p. 801

18 흥진군 결혼식 날인 오늘 3년노정을 출발하라는 엄명을 받은 축복가정들은 남편과 아내가 오늘 저녁 서로 붙들고 회개하고 내일부터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흥진군에게 신부가 없으면 왕국권이 성립 안 된다는 것이요, 둘째는 영계는 천사세계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그 왕과 백성이 아담 세계인 지상에 와서 사탄 조직을 빼앗아 하늘나라의 왕국권을 상속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세계에 맞먹는 그 천사들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보호 육성하던 것과 같은 그 원리원칙에 따라 이 지상세계를 보호 육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천사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한 원리결과주관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올 수 있는 등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훈숙양과 흥진군을 중심삼고 참사랑의 다리가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간섭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관입니다. (131-017, 1984.02.20)

19 예수님과 흥진군을 심정권을 중심삼고 볼 때 흥진군이 형입니다. 영계에 먼저 간 예수님이 장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 권한을 차자한테 넘겨줘서 심정권 기반 위에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은 본연의 기준과 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낙원문이 천국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흥진군과 훈숙양의 결혼식을 지상에서 해주어서 지상에 왕래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운 것입니다. 결혼시켜서 지상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137-188, 1986.01.01)

20 흥진군을 축복해 줌으로써 그 상대가 지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나라에 사랑의 교량이 놓여 예수님이 와서 부모님의 가정과 통일교회를 협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열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는 지상의 통일교회와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믿고 먼저 간 영인들은 하늘을 지상의 재창조 과정을 거치는 아담 해와를 협조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협조해야 되는 이치에 따라 통일교회와 기독교가 **연**합운동을 하는 데에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연결과 더불어 천상 연결 심정권을 통일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영계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잘 믿고 간 모든 기독교 선군선왕이 각 국가와 구별돼 있는 것을 전부 연결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권을 중심삼고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의 통일권을 이루는 목적 달성을 위해 도약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지상 심정권과 천상 심정권을 연결하고 통일권을 설정함으로써 상대권을 이룰 수 있는 혜택의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흥진군과 훈숙양을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140-055, 1986.02.01)

p. 802

21 지금까지 왔다 간 통일교회의 협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기준이었지 국가나 세계를 탕감하는 기준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진군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가적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명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령관, 영적 세계의 주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상과 영계를 연결할 수 있는 주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계 사람들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흥진군에게 '양자를 네게 택해 주마.'라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적 기준에서 양자를 택해 줄 수 있습니다. 양자를 설정해 준다는 것은 이상상대를 갖춘 부모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계는 처녀 총각같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그 영계의 사령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가에서는 세계의 모든 운세를 몰아서 제물적인 입장에서 바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흥진군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30-201, 1984.01.15)

22 흥진군이 영계에 가기 전 1983년 12월 31일 통일식을 끝내고 나서 기도하기를 '네가 지상을 떠나더라도 지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에게 양자를 택해 주고 아들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마.'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려면 지상에서 축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참부모는 영계, 영적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님 대신 전권대사로 사랑의 왕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 이래 내 아들이라고 하며 사랑할 수 있는 10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131-014, 1984.02.20) p. 802

23 영국에서 책임자가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영계에서 흥진군과 더불어 활동하는 배경을 가르쳐 주는데, 성 프란체스코가 이탈리아에서 죽었지만 한 번도 이탈리아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흥진군이 영계에 와서 배치함으로써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가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독일에서 죽었지만 독일에 가지 못했는데, 흥진군이 여기서 감독하라고 해서 독일에 와서 일하게 되어 참부모님께 협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고는 전부 아버님이 말한 것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흥진군

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동양 소년인데 저게 누구야? 예수님이 쩔쩔맨다.'라고 하면서 이상스럽게 생각하니까 홍진군이 말하기를 '내가 홍진님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올드 크라이스트(Old Christ)이고 홍진군은 영 크라이스트(Young Christ)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131-205, 1984.05.01) p. 803

3절 댄버리 수난과 옥중생활

청문회 증언과 댄버리 수감

참아버님께서는 1984년 7월 20일 미국 코네티컷주 댄버리에 있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셨다. 수감 전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의 발단은 탈세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권력남용에 따른 종교 박해임을 주장하셨다. 이에 앞서 6월 26일에는 미국 국회 상원 법사위원회 헌법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무죄임을 증언하셨다. (p. 803)

1 본인은 결백합니다. 본인은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으며, 오직 정부의 권력 남용과 박해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미국 전역 수천의 성직자들이 본인에 대해 정부의 박해에 대해 항의하였고, 종교자유 수호란 이름으로 일주일씩 본인과 입감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71년 본인에게 미국에 와서 기독교 신앙의 부활운동을 전개하여 이 나라의 영적 기반을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무신앙 생활의 어두운 영적 분위기와 종교적인 편협이 나타날 때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도록 본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공산 감옥에서 죽음 직전 상황까지 견디어 냈습니다. 본인은 미국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일깨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감옥에 가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활동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본인이 세금을 사취하려고 미국에 왔**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사건의 발단은 세금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교회 내 문제에 대해 침해였습니다.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종교적인 믿음과 활동 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교회의 세계본부를 이 나라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댄버리 교도소로 옮길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인을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지도자로서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에 점화의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133-212, 1984.07.19) p. 804

2 내가 댄버리를 찾아가게 될 때 세계의 통일교인들이 '아버니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모르느냐? 댄버리 저편에서 하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보고 있다. 미국 전국민이 머리를 숙일 것이고, 세계 인류가 굴복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닦는 북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은 못 듣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꿈을 안고 댄버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미국의 조야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나이가 패자의 서러운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나는 패자가 아닙니다. '이 문을 열고 나오거든, 내일의 아침이 밝아 오거든 너희는 가을을 맞이할 것이고 나는 봄동산을 맞이하여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다. 이 푸른 동산에는 너희가 발길을 들여놓지 못하는 천년 한을 품을 것이다.'라며 당당한 꿈의 길을 갔습니다. (171-083, 1987.12.06)

3 1984년 7월 20일은 정말로 영원한 역사 가운데서 빼 없애 버리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댄버리로 떠나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20일 밤 10시에 이스트가든을 출발해서 댄버리 교도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며 강하게 마음먹어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도 당신 앞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온갖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떠나기 전에 내가 감옥까지 해방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뜻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일 새벽 아버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기독교에 봉홧불을 붙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나온 일과 또 지금 지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온갖 정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꼭 성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사탄은 손을 들 것이며, 역사는 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1984.07.22, 이스트가든, 참어머님) p. 805

4 아버님이 아무리 한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몽땅 주겠다고 하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도 감옥에 갔고, 이북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갔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감옥에 갔

고, 미국에까지 가서도 감옥에 간 것입니다. 소련, 중국의 감옥까지 바라면서 행동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날에는 감옥의 벽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댄버리 감옥에 들어가는 날에 세계 통일교인들이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기가 찼습니다. '여러분은 댄버리 감옥의 철문만 바라보고 있다. 댄버리 담벼락 저 뒤의 세상은 못 보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해방의 나팔소리가 들려오고 추수할 수 있는 추수의 함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도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약이 벌어지지 않으면 도약이 벌어지게끔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미국이 내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습니다. (238-165, 1992.11.22)

5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 보따리를 창고에 남겨 놓고 80퍼센트만 사랑했다고 하면 욕심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창고를 다 헤치고 핥아 보고 틀림없다 할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욕심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밑창 사랑까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쟁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타고 가는 욕심은 천년 역사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사랑을 타고 간 것입니다. 지금 전면에서는 반대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위는 반대하지만 아래는 환영하고, 현재는 반대하지만 미래에는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누워 있어도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릅니다. 남들은 죽겠다고 야단하는데 나는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했습니다. 감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173-052, 1988.02.01) p. 806

존경받은 댄버리 감옥

참아버님께서는 세계적 골고다의 고개를 넘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셨다. 비록 억울한 옥살이라고 해도 오히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통해서 재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참아버님께서는 댄버리 연방 교도소 수감기간 내내 중단 없이 섭리를 이끄셨고, 참사랑의 생활을 통해 수감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으셨다. 특히 교도소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사랑의 환경을 만드셨다.

6 댄버리 교도소의 죄수들은 그리움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주는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맨 처음에는 나 혼자 식당 구석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석 달이 지나니까 식당에 가면 내가 잘 앉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벌써 알고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보면 내가 앉을 자리도 없게끔 다 앉아 버립니다. 내가 다른 자리로 가서 앉으면 그 자리를 내버리고 또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좋아서 그러하겠습니까? 인심은 천심입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해 주고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 갈 길을 명시해 주려는 그런 올바른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심정이 넘쳐흐르면 거기에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더라도 바위틈에서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북극의 빙산세계에서도 꽃이 피고, 얼음 안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3-284, 1987.05.01)

7 미국의 감옥에 가서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옥의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미국 국민 전체를 사랑했다는 조건적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천지가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누구도 싫어하는 감옥의 죄인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표제를 들고 나와서 외치더라도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식을 받아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다주려고 합니다. 그런 감옥살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위하는 데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하는 사람이 그 창조된 물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리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위하는 심정권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63-284, 1987.05.01) p. 807

8 댄버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통일교회를 믿다가 나갔다는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자기가 7년 동안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되어서 떨어졌는데, 나와서 보니 그 7년 동안에 배운 것으로 배고플 때에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어려울 때에도 자기가 동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통일원리가 천하에 들어맞지 않은 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학원을 나왔지만 대학을 가도 선생이 미래를 위한 길을 닦게 해준적이 없고, 자기 부모도 그렇고, 그 누구도 미래를 위해 길을 닦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동양에서 온 아버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감옥에서 보면서 '음! 레버런 문은 죽지 않았구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죽어 가는 미국 사람들을 부활시켜 새순이 돋아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주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직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 미국은 갱신하게 될 것입니다. (200-120, 1990.02.24)

9 내가 댄버리에서 나온 뒤에 그곳 책임자가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는 술을 먹던 사람들이 술을 먹으려고 보이지 않는 그늘에 숨어서 몰래 먹고, 대마초 같은 것을 피울 때에도 아버님 눈에 보일까봐 숲속에 들어가 숨어서 피우고, 싸움을 하다가도 아버님이 오면 그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죄수들이 그렇게 얌전해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나간 지 사흘도 안 돼서 옛날 그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기에 이런 감옥세계에서 말없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돌아갔나!'라고 해서 그것이 화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무부의 조사관들이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사랑을 중심삼고 무엇을 남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행로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의 역사적인 대표자가 아버님입니다. (190-030, 1989.06.18)

10 내가 미국에 가서 댄버리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댄버리는 작은 사회지만 그 나라의 제일 나쁜 것, 제일 좋은 것이 다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내가 심정적으로 일치시켜 무릎을 꿇려 훈시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미국 국민을 가르칠 수 있는 심정권 탕감조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을 완전히 배우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죄소들이야 한숨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감옥에 있는 똑똑한 죄수들이 회의를 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와 잘못만 하면 나를 죽이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보통입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그 사회를 싸우지 않고 동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결국 6개월 후에는 그들이 다 나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능력입니다. (182-094,

1988.10.14)

11 댄버리 교도소에 있을 때 나는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도소 취사장 책임자가 나한테 와서 '이제 점심 들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점심을 드세요.'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점심시간 아침시간을 놓칠까 봐 나한테 와서 재촉해 식사를 하게 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감옥에 가도 친구가 생기고 나를 옹호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렇게 받았으니 받은 대로 그 전통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길에 가면 우주가 보호합니다. 죽을 길에 가게 되면 반대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살아남고 흥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134-249, 1985.07.20) p. 808

12 내가 감옥생활도 많이 했지만 전체를 위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감옥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에도 그들은 아버님 곁에 가까이 와서 일하려고 합니다. 댄버리에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버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어려워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앞에 몇 번씩 갔다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얘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에게는 그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주먹을 쓰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좋아합니다. 아버님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전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말하지 않아도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134-250, 1985.07.20) p. 809

13 댄버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 비율을 보면 30세 전후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점점 적어집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마약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개 기독교 신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들인 목사나 천주교 신

부들이 책임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서서 그렇게 부패하고 사망길에 떨어지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좋은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나쁜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심각히 분석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34-233, 1985.07.20)

14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참 재미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늘이 상대자를 데려다주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댄버리에 들어갔더니 이탈리아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일하러 나오면 아버님이 있나 없나 와서 한번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하니 왜 이러냐고 합니다. 자기 아내와 처음 사랑할 때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과 있으면 천하만사가 걱정이 없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점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고 그 사람은 밤을 새워 나를 지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시켜서 하겠**습**니까? 아버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잠을 안 자고라도 지켜 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166-242, 1987.06.07) p. 810

15 아버님은 한번 결정하고 행한 다음에는 그것이 나쁘더라도 불평을 안 합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핍박을 받고 댄버리에 갔다 왔지만 거기에 대해 불평을 안 합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를 알고 미국 사람을 알고 서구사회의 제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감옥세계까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감옥까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까지 앞으로 천국화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설교흘 한 것도 아닙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매일 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내가 댄버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면 아마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다 올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싫어, 싫어!'라고 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님을 환영하더라는 것입니다. (167-232, 1987.07.19)

16 댄버리 감옥에 큰 바위가 있는데, 지금도 그리운 것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잠만 잘 수 없습니다. 여름인데 방에 앉아 있으면 답답하니까 산턱에 있는 바위로 가서 기대앉아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자다가 깜짝 놀라 깬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러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 놓고 네 활개를 펴고 잠잘 수 있습니까? 공인은 고달픈 사람입니다. (202-181, 1990.05.20)

17 미국 감옥에 들어가서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전에는 3시간밖에 안 잤는데 거기서는 8시간 안 자면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 잠 못 잔 것을 다 탕감했습니다.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었는데 거기에서는 쉬는 날에는 종일 24시간 놀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보더라도 누가 원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늘의 작전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사탄이 못합니다. 나는 두 면을 **다** 했지만 사탄은 두 면을 못합니다. 한 면 전문가밖에 안 되니 양면 전문가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권을 향해 나오는 데에 사탄이 따라 나오지 못하니 미국이 굴복하고 세계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앞에 반대할 자가 없습니다. (196-206, 1990.01.01) p. 811

18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했고, 아버님도 댄버리에서 미국 국민에 대한 사랑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아버님은 댄버리에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댄버리에 들어가 보니 죄수들이 몇 사람만 앉았다 하면 전부 교도소 직원들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비판하지 않고 동정해서 그들을 감화시켰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랑의 환경으로 묶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에 동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감방에 있지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님을 존경하고 아버님의 사랑에 엉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136-062, 1985.12.20)

4절 옥중 평화운동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규합

'공산주의 종언' 선포와 다양한 승공운동

참아버님께서는 198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회의에서 소련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중남미의 적화 방지를 위해 워싱턴타임스를 통해 니카라과 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옥중에서도 세계평화를 위해 쉼 없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셨다. (p. 811)

1 댄버리 옥중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회의 책임자 카플란 교수가 세 번씩이나 와서 '종언'이란 말을 그만두고 '메이비(maybe), 그럴지 모른다.'는 말을 쓰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5년 이내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산세계가 망할 것을 안 사람은 아버님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언론계라든가 종교계를 비롯해 누구도 몰랐지만 세상이 반대하는 아버님만이 알고 공산주의의 종언과 하늘나라의 개문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414-016, 2003.07.26) p. 811

2 미국은 나를 반대했지만 나는 미국을 사랑했습니다. 미국인 이상 나라를 위하고 애국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귀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민 가운데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위한다고 하는 애국자들보다도 내가 그 사람들 이상으로 미국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못 세우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타임스를 만들 때 첫 번째 지불하는 돈을 법정 테이블에서 결재했습니다. 나를 때려잡으려고 전부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에서 미국을 살려 주기 위해 워싱턴타임스를 만들었습니다. (175-023, 1988.04.06) p. 812

3 아버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사랑입니다. 미국도 내가 댄버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살려 준 것입니다. 댄버리에 있을 때 워싱턴타임스에 <인사이트>, <월드 앤 아이>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6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184-315, 1989.01.01)

4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니카라과에 대한 1천400만 달러 지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2억4천만의 백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댄버리에 있는 아버님을 밤에 깨워 호출명령을 하겠습니까? 네가 당장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워싱턴타임스가 생사를 걸고 니카라과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독일에 가고 미국에

없을 때입니다. 책임자들을 불러들여서 워싱턴타임스에서 미국 국민을 통해서 1천400만 달러를 모금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한 달 냉에 내가 즉각적으로 현찰을 지불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설을 써라. 선포해라!'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선두에서 선포하고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편집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타임스가 이 모금운동을 벌이면서 니카라과를 후원하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을 동원한 것입니다. 아버님의 입장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대한 미국의 여론이 7주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국회에서 2천700만 달러 지원안을 재차 심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138-036, 1986.01.13)

5 하나님이 니카라과를 비롯한 남북미를 중심삼고 지상천국 기지를 만들려고 미국을 축복해 주었지만 남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에 대통령도 있고 목사를 비롯한 별의별 사람이 많은데 감옥에 들어간 아버님을 찾아와 미국을 구하라고 지령을 내려야 하는 비참한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아버님의 지시를 의심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모르겠다. 기다려 보자.'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버님에게 직속으로 명령을 내렸으니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늦어도 안 됩니다. 그때가 토요일 밤이고 다음날이 일요일이니 미국의 정부기관이 전부 쉬는 날입니다. 그 당시 일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는 것입니다. 만약 월요일 밤에 그랬으면 백악관과 짜고 했다고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6-285, 1986.07.20) p. 813

6 하나님은 아버님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쉬지 않고 지시를 했습니다. 니카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님 때문에 미국의 여론이 니카라과 문제를 중심삼고 들고 일어나니까 국회에서 기각했던 지원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입니다. 아버님이 니카라과에 2천700만 달러를 지원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니카라과는 공산세력에게 넘어갔을 것이고, 멕시코로부터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5개국도 공산화되고 본격적인 전투태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자기들이 안 하게 되면 아버님이 혼자 전부 지불할 줄 알기 때문에 창피해서라도 지원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아댄 것입니다. (146-149, 1986.06.08)

7 댄버리 감옥에서 6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9일 동안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이렇게 원수 국가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제가 이제는 엄연한 현실적 사회의 중추적인 저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을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앞에 미국 국민이 미국을 사랑하는 이상 미국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의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두고 누가 더 높다는 가치기준을 결정해서 댄버리의 승패를 겨루어 나온 것입니다. (175-024, 1988.04.06)

미국 기독교 성직자의 규합과 원리교육

참아버님에 대한 종교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미국의 40개 교단 성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984년 5월 30**일** 워싱턴DC 로즈회관에서 열린 데 이어 6월 11일 뉴욕 쉐라톤호텔에서도 개최되었다. 이런 종교 자유와 화합을 위해 모인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독교 재부흥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아울러 참아버님께서는 댄버리 교도소 수감 중인 1985년 2월 28일 30만 이상의 미국 성직자들에게 종교 자유와 화합을 촉구하는 친서와 원리강의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원리강론》을 비롯한 여러 책자를 보내셨다. 또한 기독교 성짖가 7천 명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시고 이들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초청해 통일원리공청회를 실시하였다. (p. 814)

8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 정부를 대해 승리하는 날에 가능합니다. 간단합니다. 재판하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미국 정부의 배후 깊숙한 곳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왔습니다. 옛날 모세와 같이 실패하는 아버님이 아닙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은 모셍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을 복귀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을 중심한 유대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님은 그때의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유대교와 로마 전체가 갈라져 나갔지만, 아버님이 십자가의 과정을 넘어가는 이때에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열 두 제자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환영하는 입장에서 기독교의 40개 교단이 똘똘 뭉쳐서 선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가 '레버런 문을 지지하고 돕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132-025, 1984.05.19)

9 예수님은 유대교와 유대 나라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을 수습하고, 반대의 자리를 중심삼고 재차 유대 나라와 유대교가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복귀하기 위해서 제3의 무대로 나설 때 핍박을 받고 싸우다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오늘날 국가적 기준인 한국에서부터 기독교와 세계기준에서까지 환영을 받지 못함으로써 제삼자 입장에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왔는데 역시 미국에서도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반대를 받으면서 최후에는 댄버리 십자가까지 걸어 놓고 돌려 잡지 않으면 안 될 운명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들지 못함으로써 유대 나라와 유대**교**의 반대는 물론이고 거기에 로마의 반대까지 첨부되었다는 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통일교회가 한국에서 기반을 닦지 못하고 반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와 미국의 반대는 물론이고 거기에다 세계적 기반을 가진 공산주의의 반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때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로마가 반대한 것은 자유세계 미국이 반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움직여서 연합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146-121, 1986.06.08) p. 815

10 내가 미국에 온 목적은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미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서 세계 기독교를 연합하여 세계 국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끌고 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내가 미국에 온 목적입니다. 광야 40년노정을 지내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역으로 대이동을 함과 더불어 정착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어디에 가서 정착할 것이냐?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미국에 정착해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미국, 이상적인 미국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이 미국에 온 것입니다. 새로운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에 대해 승리해야 되겠고, 가정 파탄과 청소년 윤리 파탄을 방어해야 되겠고,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미국을 살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34-090, 1985.02.25)

11 미국은 기독교라는 것이 이름만 남았지 인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공산주의가 표면에 서서 나라를 움직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비로소

미국 정부가 이것이 기독교의 원수가 되고 기독교에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종교에 유리한 법조문을 자꾸 뒤집어 자기들 편에 서서 하나님과 먼 자리로 끌고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댄버리 사건은 이와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신앙의 자유화 운동을 통해 통합운동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앙의 자유화 운동과 더불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독교인 통합운동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워하는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남북미통일연합 운동과 기독교 재부흥운동을 위주로 한 신령운동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운동이요 통일교회 운동이었습니다. (146-122, 1986.06.08) p. 816

12 지금까지 미국은 자기 나라만을 위한 미국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계를 위한 미국으로서 세계를 구도하고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를 미국의 지배하에 두기를 바라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다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를 위한 평화의 세계 창건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고, 미국만을 위한 승리적 기반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지니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미국은 점점 떨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가인이 재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세상의 습관성을 중심한 전통적인 사상을 중심삼고 움직입니다. 미국이면 미국 생활을 중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습관화된 외적인 세계 기반을 중심삼고 그 밑에다 기독교를 전부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미국 정부가 기독교에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권을 침식해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문제라든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철회하는 등 점점 많은 문제가 생겨나 그것이 아버님이 댄버리에 들어갈 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댄버리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그런 것에 대한 각성이 벌어진 것입니다. (148-145, 1986.10.08)

13 예수님시대에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를 잃어버리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와 하늘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것을 아버님이 댄버리에서 나옴으로써 다 찾을 수 있는 운세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세계를 주도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실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8단계 탕감노정에 대해 배웠지만 언제 누가 탕감했습니까? 여러분이 못했기 때

문에 아버님이 장자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증거자로서 장자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 되는 아버님을 중심삼은 통일교회가 차자의 자리에서 장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의 장자가 차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였던 사탄 편의 기독교가 차자의 자리로 들어가서 장자 된 통일교회에 순응해야만 하늘의 순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탕감복귀를 하고 나서야 장자권 차자권의 기반 위에 부모님이 세계적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없어서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부모의 세계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장자권을 빼앗으니까 장자와 차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댄버리에 들어간 날이 1984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흑인 대표와 백인 대표가 아버님을 중심삼고 하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예수님을 중심삼고 두 강도가 싸웠는데, 아버님시대에 이들이 하나되었다는 사실은 백인세계와 흑인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최상의 다리가 놓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135-183, 1985.11.13) p. 817

14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기독교가 정부나 외적인 인본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물질적 사상을 가진 사람 앞에 지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독교사상을 중심삼고 미국을 완전히 본체제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댄버리에 들어감으로써 그런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운동도, 조직도 아버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7천여 명의 미국 목사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교육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중심한 기독교 운동은 미국이 제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한국 기독교가 외형적으로나마 발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48-146, 1986.10.08)

15 내가 댄버리 옥중에 있으면서 7천 명의 기독교 목사 연합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7천 무리, 엘리야에게 남은 7천 명의 무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시대에도 예수님을 중심삼고 7천 명이 하나되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적 자유세계의 무대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국가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 기준이기 때문에 7만 명의 목사를 결집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135-179, 1985.11.13)

16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중심삼고 7천의 무리가 결합되었더라면 예수님

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7천여 목사들을 중심삼고 32만 성직장에게 통일원리에 대한 내용을 통고한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거기에는 원리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차자 아벨권을 중심삼고 장자권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레버런 문이 아니면 기독교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신학계의 결론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조야가 이제는 아버님 사상이 아니면 미국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갈 방향, 미국이 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207-279, 1990.11.11) p. 818

17 예수님 십자가노정의 세계적인 탕감적 동시성의 시대를 맞이한 아버님은 할 수 없이 몰려서 댄버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기도하던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의해서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버님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를 그들이 죽을 수 없어서 그렇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별의별 짓을 해서라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거기서 아버님은 기독교 목사 7천여 무리를 모아 교육했습니다. 원리책으로부터 승공이념과 통일사상, 지금까지 말씀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옥중에서 만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책도 보내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의 기독교계에서는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해서 40개 교단이 단결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들어가 있는 옥중에 들어가 일주일씩 자기들도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동고회(同苦會)라는 것을 만들어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 문제가 됐습니다. (164-132, 1987.05.10)

18 아버님은 댄버리에 있으면서 기독교 지도자 7천여 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북미통일연합 운동을 활발히 전개시켜 기독교 목사 7만 명을 또 교육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기반을 닦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입장이고 기독교는 가인의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통일교회가 하나됨으로써 아벨과 가인이 하나되는 것이며, 기독교 지도자들과 통일교회가 하나됨으로써 아벨의 입장이 되며 미국 정부는 가인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기반을 닦은 후에 미국은 본연의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후 목적은 하나님의 이상세계입니다. 본연의 지상천국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목표인 동시에 기독교의 목표이고 통일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닦게 되면 세계 인류를 교육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146-293, 1986.07.20) p. 819

5절 댄버리 출감과 참부모님의 승리

개천문일 선포

참아버님께서는 댄버리 연방교도소에서 1985년 2월 1일 새벽 이스트가든에 계시는 참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영계와 육계의 문을 활짝 열어 연결하는 개천문일을 선포하셨다. 이를 통해 지옥에서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으셨다고 말씀하셨다. (p. 819)

1 아버님은 혼자서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과 같이 미국과 싸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월째 싸워 나오고 있습니다. 13수는 미국에서 제일 나쁜 수입니다. 13개월 동안 싸워 때려치우는 것입니다. 400일 가까이 싸움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천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상지옥에서부터 천상에까지 고속도로를 닦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을 감옥에 있는 기간에 다 세웠던 것입니다. (134-325, 1985.08.16) p. 819

2 아버님이 일생을 거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책임지고 다 닦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가 하나되어 수평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한 심정권은 그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직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개천문일 선포입니다. 내가 댄버리에 있을 때 한 것입니다. 1984년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감옥살이 13개월의 절반 되는 7개월기간에 감옥의 제일 밑창, 지옥 밑창에 들어가서 문을 연 것입니다.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심정권을 중심삼고 사탄세계를 해방해 줄 수 있습니다. (140-059, 1986.02.01)

3 1985년 2월 1일에 천상세계와 지옥의 문을 여는 개천문일을 선포했습니다. 극과 극의 자리에 세워 놓고 연결했습니다. 극과 극의 자리에 세워 놓고 연결했습니다. 평형의 극이 아니라 수직적인 극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자

리에서만이 비로소 해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힘이 연결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36-047, 1985.12.20)

4 지옥을 해방하지 않고는 천국 완성이 안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지옥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뿌리를 하늘의 피로 맑혀서 본여의 뿌리 형태를 갖추어 열매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아는 우리가 볼 때 천국문이 열리기 전에 지옥이 생겨났다는 말은 비참한 말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지옥이 생겨났습니다. 지옥이 생겼으니까 지옥까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부모는 지옥 해방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심정권을 전부 전개해 놓아야 됩니다. 세계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139-269, 1986.01.31) p. 820

5 영계에 가 있는 선군 왕권을 중심한 충신 열녀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참부모의 왕권을 중심삼은 이상권에서 부모님을 전부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영계에서도 부모님의 소식을 다 듣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이 들어갑니다. 전부 유명하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말은 사라지고 '좋다, 좋다.'라는 바람이 불어서 자꾸 영계의 자기 조상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선한 조상들이 지옥에까지 들어가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내가 댄버리에서 열어 놓았습니다. 1985년 2월 1일 오전 3시에 감옥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옥과 천국에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뚫렸지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가 있어야 되고, 운전을 배워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넣고 가르쳐 줘서 선한 영계로 끌어올리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37-190, 1986.01.01)

6 통일교회로 말미암아 천국문은 열렸지만 아직까지 아버님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뒤지고 뒤지고 밑창까지 다 뒤져서 꿰어 보니, 개인으로부너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영계, 하늘나라의 보좌까지 직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사랑의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는 사랑의 자동체에 신호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댄버리에서, 어머님은 이스트가든에서 비로소 하늘과 땅이 통할 수 있는 문을 열

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에 몇 천년 전에 갔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면 자기 후손들을 통해 지옥을 거쳐 지상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지옥을 이겨야 합니다. 지옥을 이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140-046, 1986.02.01) p. 821

7 내가 미국의 어떠한 조상보다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자기 야욕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세계의 장자권복귀가 된 것입니다. 전부 맞고 빼앗아 나오는 작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세계복귀 천주복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세계 해방을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985년 2월 1일 새벽 3시를 중심삼고 개천문 역사를 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통일교회를 생각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문을 열고 영계에 가 있는 역사적 가인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심정권에서 장자권 개인을 복귀하기 위한 장자권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개인에서부터 모두 열었으니 세계사적 장자권을 중심삼고 나서는 데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140-196, 1986.02.09)

출감과 참부모님의 승리

참아버님께서는 제210회 미국독립기념일인 1985년 7월 4일 댄버리 연방교도소에서 출소하셨으며, 뉴욕 변두리의 브루클린 하프웨이하우스로 이감된 뒤 남은 형기를 마치고 1985년 8월 20일 0시 완전 출감하셨다. 모범수로 선정되어 5개월의 형기를 단축받으신 것이다. 참아버님께서는 댄버리 수난을 통해 참어머님과 일체가 되심으로써 세계적 탕감복귀노정을 승리로 이끄셨다.

8 아버님이 댄버리 교도소에서 나올 때에는 많은 재소자들이 환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며칠 몇 시에 나간다는 것을 미리 파악한 뒤 길에 나가서 환송하자고 한 것을 교도소장이 알고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 아무개가 나가게 될 때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나오면 야단이 벌어지겠으니까 오전 8시에 나간다고 해놓고서는 7시에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재소자들이 그것을 알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고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으로 알았던 아시아의 한 사람이 포악하고 흉악한 그 사회에 들어가서 1년 기간에 그들

과 눈물의 교차를 이룬 것입니다. (163-283, 1987.05.01)

9 내가 미국의 댄버리 감옥에서 1년 1개월동안 있을 때 댄버리의 많은 죄수들이 나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을 나가게 되면 자기가 가진 귀한 물건을 나에게 다 맡기고 나가고 통일교회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오라고 신문에 광고를 하면 찾아올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통일교회를 가고 싶으면 감옥에서 훈독회 할 때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서로가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사람 이상 모일 수 없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모이겠다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감옥을 나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아버님을 보고 울었습니다. 남자 죄수들이 감옥살이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버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418-048, 2003.09.14) p. 822

10 1985년은 미국 독립 210회째 되는 해입니다. 210회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댄버리에서 출소했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적 차원, 국가적 차원으로 비약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독립기념일에 해방되었다는 것은 새 출발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섭리사적 의의가 큽니다. 유대민족이 바빌론에서 21년 만에 해방되어 고향에 돌아온 사실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국가이념을 가지고 출발하여 새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8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은 아버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연대적인 기간으로 보더라도 이런 의의가 있고, 이런 섭리역사가 동반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1986년 7월 4일이 되면 아버님을 생각할 사람이 미국에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을 아는 사람들에게 아버님이 미국에 와서 감옥에 있다가 해방된 날은 일생을 두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벌써 독립기념일 하게 되면 아버님이 감옥에서 나온 날, 해방된 날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4-229, 1985.07.20)

11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3일과 40일을 더해서 43일 기간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1985년 7월 8일에 댄버리에서 나올 것인데 7월 4일에 나왔습니다. 7월 8일부터 오늘 8월 20일까지가 바로 43일이 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찾아야 할 부활권, 기독교문화권을 실체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이 기간

에 전부 통일교회 교인으로서 완전히 서야 됩니다. 미국 국민도 이 기간에 전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아버님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을 받았지만, 이제는 실체적으로 미국 국민까지 합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져야 됩니다. 아버님이 사탄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늘의 사람이고 우리가 반대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국 국민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회개하고 나서는 일이 미국 내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댄버리에 있었던 13개월의 13수는 예수님을 중심하고 열두 제자를 합한 13수와 같습니다. 이 13수는 탕감복귀수입니다. 그렇지만 서구사회에서는 13수가 제일 나쁜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탕감복귀를 했다는 것입니다. (135-026, 1985.08.20) p. 823

12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에는 생명을 각오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 하나 해치워 버리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면 큰일 나겠으니 가자마자 하늘이 배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밤이 되어 침대에 들어가 잘 때에는 나를 지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댄버리에서 나와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중간 훈련장소인 하프웨이하우스에서도 그랬습니다. 나가기 전에 벌써 영계 통신망을 통해 나를 보호할 수 있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한 사람과 중국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잔다면 그 사람들은 교대로 텔레비전을 보며 문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망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138-046, 1986.01.13)

13 내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미국의 훌륭한 목사 12명이 와서 나를 붙들고 껴안고 야단이었습니다. 나는 만나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인사도 한 적 없고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님에 대해서 왜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수치감과 아버님이 종교인으로서 위대한 실적을 쌓고 선의 길을 중심삼고 투쟁한 그 가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일생과 비교할 때에 다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늙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 새파란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선의 세

계는 이러한 곳에서 이런 쇠줄이 이어져서 발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고리가 생긴 것입니다. 파선하여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배에 닻줄을 맬 수 있는 고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둘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는 닻줄로 매게 될 때 미국은 사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정의의 줄로 미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고 미국은 부활하고 살아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170-050, 1987.11.01) p. 824

14 내가 댄버리에 감으로써 세계적인 총탕감을 했습니다. 댄버리에 간 것은 지상세계 전체가 반대하는 것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 목적은 영계 통일과 지상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통일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댄버리에 갈 때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지상의 모든 단체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 종교 전부가, 그다음에는 미국으로부터 세계 각국 전부가 동원되었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보국(CIA)을 통해서 25개국을 조사했습니다. 이래서 조건이 있으면 걸고 잡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받은 것은 영계 쟁탈 때문입니다. 우리 통일의 기반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아버님과 미국정부는 일대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합중국이 원고가 되고 내가 피고가 되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은 영계가 통일권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5년부터 약 3년간 영계가 지상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영계 통일권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상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4-167, 1987.05.14)

15 역사시대 종교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노정을 간 아벨적인 한 사람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아버님입니다. 그와 같은 노정을 걸었습니다. 댄버리 교도소에 처넣어 망하라고, 죽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우하사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인류 전체를 구하기 위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136-051, 1985.12.20)

16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탄을 굴복시키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사탄을 굴복시키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탄이

단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타락했을망정 본연의 원칙적 기준에서 부몽의 심정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야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원리원칙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기에 다 걸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완성한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완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탄의 말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했고, 아버님도 댄버리에서 미국 사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여 사랑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축에 세계의 수많은 민족이 수평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연결된 것입니다. 아벨이 다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사상적 기준 위에는 사탄이 침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136-061, 1985.12.20) p. 825

17 여러분이 복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잘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감옥에 보내면서 그 남편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일가까지도 희생하겠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의를 다짐하는 그곳에서만이 천륜의 역사가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댄버리를 중심삼고 어머니는 누차 심정적으로 깊은 차원의 골짜기를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준이 점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댄버리를 통해 아버님의 귀한 가치를 더욱 알게 된 것입니다. (136-046, 1985.12.20)

18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감옥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계 공산당이 노리고 있는 판국인데, 그곳은 벌거벗고 벌판에 누운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지으며 그 댄버리를 매일같이 왕래했습니다. 이스트가든에 살면서 눈물을 안 흘렸을 것 같습니까? 주일 아침 5시 경배식을 하고 기도할 때에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렸느냐? 아버님은 돈도 있고 권위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미국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왜 아버님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146-183, 1986.06.15) p. 826

6절 옥중 수난이 주는 교훈

복귀노정은 탕감의 길

참아버님께서는 준비된 기독교와 중심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여섯 차례에 걸쳐 옥중 수난을 통해 탕감의 길을 걸으셨다. 그러한 탕감의 길은 하나님의 한을 해원성사 하고자 하는 피와 땀과 눈물의 천로역정이었다. 참부모님께서는 마침내 탕감복귀섭리의 종적 횡적 8단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다. (p. 826)

1 복귀의 길은 탕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복귀의 길은 탕감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일신을 중심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관이 없는 가운데서 하늘이 남기신 수난길을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그 수난길을 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비판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늘의 차이는 하늘은 높고 여러분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늘이 내세우는 자리에 가겠느냐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과 하늘의 차이가 큰 것인데 어떻게 평준을 잡아 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은 나를 찾아와야 되고 나는 하늘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늘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탕감하는 것입니다. (277-121, 1996.04.07)

2 타락한 이후에는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사탄 왕국이 돼 있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복귀하느냐? 개인을 중심삼고 따로따로 여기에 심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고차적인 종교에서는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형님 누나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못 된다.'는 성경 말씀이 역설적 논리지만 그것은 하늘길을 찾아가는 순리적 논리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버님은 이 세상천지 가운데 이런 탕감법을 알고 개인으로부터 사랑의 초점을 맞추고 가정적 사랑, 종족적 사랑, 민족적 사랑, 국가적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럴 적마다 사탄은 이것을 격파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핍박의 길을 갑니다. 사회에서 좋다 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사탄은 교만하기 때문에 제일 비참한 자리가 안전지대입니다. (181-212, 1988.10.03) p. 827

3 아버님이 20대에서 40대까지 지나온 기간은 눈물어린 투쟁기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릅니다. 감옥을 자기 생활 무대와 같이 생각하고, 고문받는 그 길을 필생의 탕감노정, 대가를 치러야 할 당연한 노정으로 알고 걸어갔습니다. 아버님은 국가와 교계의 반대를 받고, 삼천만 민중이 반기를 들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서글픈 자리에 몰렸던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059-286, 1972.07.27)

4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심정을 만물에 투입했고 인간 앞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표어가 나온 것입니다.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땀은 땅을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려야!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탕감노정입니다. 개인의 이 곡절을 거치면서 영점을 만들어야 되고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버님이 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서 중요한 때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11-318, 1991.01.01)

5 아버님의 생애를 두고 보면 감옥에도 많이 가고 고문도 많이 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죽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에 고문 자국을 남긴 자리,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탕감복귀의 길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감동과 충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늘이 모든 것을 수습해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문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을 남기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76-012, 1996.01.02)

6 아버님은 일생 동안 자기를 주장하고 살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살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밥만 먹고 배고플 때 참으면 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인간은 자꾸 죽어 가는데 그것이 자기 손을 자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고 눈물 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버님은 겨울에 기도하면 솜바지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343-095, 2001.01.16) p. 828

7 아버님은 탕감노정을 개척해서 사탄세계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닦았

습니다. 그것이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1초도 놓칠 수 없는 긴장의 생애를 걸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 심각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뒤집어엎을 수 없습니다. (362-182, 2001.12.12)

8 아버님은 아담 대신 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탕감노정을 가야 됩니다. 일대일의 청산입니다. 조건적 청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조건적 청산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조건적 청산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환영적 조건입니다. 자기 가정이 효자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나라가 충신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세계가 성인의 세계가 되기를 바라고, 하늘땅이 성자의 하늘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교육을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으니 세계가 전부 바라고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해방권을 다 해놓고 지상에 정착할 수 있는 그때서부터 그 탕감시대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7-191, 1998.11.08)

9 부모는 죽음의 경계를 넘고 있는 자식을 보게 될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최후까지 사력을 다해서 한마디라도 덧붙임으로써 부활하게 된다면 부모는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경지가 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버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걸고 싸워 왔던 생애였습니다. 그것은 영계에서 압니다. 그런 사람은 천운이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투입의 한계까지 아직 미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영원을 걸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심정권에는 그런 배후가 있습니다. (247-033, 1993.04.21)

10 아버님은 지금까지 일생 동안 탕감복귀의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개인의 고개를 넘고, 가정의 고개를 넘고, 종족의 고개를 넘고, 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 8단계의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세계가 그동안 아버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부모들이 동원되어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종족·민족·국가를 넘어서 세계가 반대했습니다. 모든 종파가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렇게 공격한 모든 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인합니다. 공격하고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굴복하는 것입

니다. 여기에서 아버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전술을 맞고 빼앗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에는 친다는 논리가 없습니다. (302-217, 1999.06.14) p. 829

11 사탄세계를 탕감복귀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가까운 길은 그 나라에서 제일 핍박받는 길입니다. 그 나라의 감옥 밑창에 이 직선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은 수난길이요, 죽음의 교차로와 같은 감옥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직선과 통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감옥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감옥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와 원수 되는 자리가 감옥 밑창입니다. 이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감옥을 뚫고 올락는 길이 제일 빠르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를 타고 가는 길에서 의로운 입장에 서서 몰려 들어가게 되면 주권자가 악한 입장에 서게 될 때에는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주권자 꼭대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 전체가 옹호하고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선 단계로 올라가는 제일 가까운 길은 감옥 길을 통해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136-046, 1985.12.20)

결국 승리자가 되다

참아버님은 일제하에서 한 차례, 북한 공산 치하에서 세 차례, 자유세계인 남한과 미국에서 한 차례씩 총 여섯 차례에 걸여 아무런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셨다. 맞고 빼앗아 오는 탕감복귀원칙을 아시기에 참고 또 참으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한 단계씩 진척시키기 위해 감옥에서도 온갖 수난을 극복하셨다. 곳곳에 자리 잡은 사탄의 대표 세력들과 떳떳하게 맞섬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셨다. 결국 참부모님께서는 온갖 반대와 박해를 넘어 승리하신 것이다.

12 아버님이 지상에서 감옥에 갔다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조상의 체면과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목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내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타까워서 여섯 번이나 감옥에 갔겠습니까? 감옥에 한 번만 가도 빨간 줄이 쳐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을 가게 되면 그것은 세상에 발을 딛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나라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감옥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612-222, 2009.05.27) p. 830

13 나는 나 자신을 관리하고 하늘의 뜻을 가릴 수 있는 정당한 삶을 그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사탄세계보다도 더 그늘인 감옥에 들어가서도 살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울고불고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나라를 살린다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뒷바라지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옥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감옥을 찾아간 것입니다. 공산세계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누구보다도 분석했습니다. 미국 감옥, 일본 감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감옥, 북한 감옥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430-061, 2003.12.30)

14 북한에 가서 세 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조금의 미련도 못 갖게 하기 위한 하늘의 작전이었고, 공산권 내에 있는 기독교의 관심을 못 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공산권 내에 있는 교회도 믿지 못하게끔 전부 끊어 버리는 작전이었고, 그 나라도 믿지 못하게 끊어 버리는 작전이었습니다. 일체를 부정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반대를 받게 하는 것이나 미국에서 반대받게 하는 것도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고개를 다 넘고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이것이 전부 하늘이 보다 더 귀한 것을 가져다주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것, 보다 더 귀중한 것, 보다 무한한 것을 가져다주고 축복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후에는 자리잡은 것을 점령할 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와 같은 수난길을 통해서 사탄이 점령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아다가 넘겨주려고 하는 하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161-198, 1987.02.03)

15 지금까지 내가 핍박받는 것이 좋아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욕먹는 것이 좋아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싫지만 싫은 맛보다도 더 좋은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영계에 한번 행차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의 맛을 알고 이 세계를 몽둥이로 치면 산산조각이 나고 왕창왕창 깨지는 실감이 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본래 몸이 철같이 태어났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싫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1년이나 2년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견녀내는 것이지 피곤하고 못살겠다고 하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 하고 나면 멋진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일

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36-121, 1970.11.22)

16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모른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다면 손발을 가만히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천번만번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통일교회 문이라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운명적인 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제삼자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048-121, 1971.09.05)

17 내가 길을 가다가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아무개야,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권고해 주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로운 자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라고 하며 힘차게 걸어갑니다. 어떤 때에는 길을 가는 거지를 보면서 '저 거지가 나를 찾아온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통곡에 통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라도 그의 손을 붙들고 남모르는 통곡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거쳤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혼자 있는 외로운 자리에서 '아버지는 매정도 하시구나. 아버지는 무자비하기도 하시구나. 책임만 맡겨 놓고 돌보아 주시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개야, 네가 거지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었다. 아무개야, 네가 도탄 중에서 불쌍한 사람과 더불어 눈물지을 때 내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도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011-203, 1961.07.17) p. 832

18 하나님의 작전법은 맞으면서 빼앗아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전법은 치고 망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도 친 측이 망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사상전인데 공산주의가 세계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제일 대표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반대했고 미국이 나를 반대했습니다. 또 일본이 나를 반대했고, 중국이 나를 반대했고, 세계 전체가 통

합해서 나를 반대했지만, 반대한 악의 세계의 복을 인수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악마는 하늘땅의 모든 복을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끝날이 되어서 사탄은 이 복을 참된 사람 앞에 인계해야 됩니다. (176-203, 1988.05.09)

19 아버님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신비스러운 미개척지를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기반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기반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반에 상당하는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완성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영계에서 몇 십 배, 몇 백배 귀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26-040, 2000.07.02)

20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염려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옛날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과 다릅니다.'라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참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시시하고 사나이답지 않은 나약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는데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울상을 하며 살려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몰렸고, 민주세계에서도 몰렸습니다. 그렇지만 몰림을 받더라도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몰아치더라도 갈 것입니다. (016-243, 1966.06.19) p. 832

21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사탄한테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문을 받고 피를 토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내 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문에 피를 몽땅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합니다. 하늘이 알고 있는데 '하님, 나 도와주소!'라는 기도를 못합니다. 전체가 살 수 있는 방향을 내 몸으로 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

를 중심삼고 지금까지 절대신앙 절대사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생동안 피눈물 나는 산골짜기를 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체적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268-300, 1995.04.03) p. 833

22 아버님은 혼자입니다. 밤의 등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등대가 귀중하지만, 낮에는 누구도 등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등대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등대지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등대를 낮의 태양으로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복귀입니다. 인간을 중심삼고 빛을 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본연의 태양과 같이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등대를 태양으로 바꿔야 되니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제2 감옥이 어디냐? 제3 감옥이 어디냐?'라며 나왔습니다. 제6 감옥에 가면서 제7 감옥까지 생각한 사람입니다. 소련과 중국의 감옥을 향하여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데 하나님이 보우하셨습니다. 그 대신 죽기 전에 감옥 이상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에 갔습니다. 소련에 갈 때에도 주변에서 제발 가지 말라고 반대했습니다. 밤 감옥을 해소하기 위해서 낮 감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서 나로 말미암아 도움이 됐으면 낮이 되는 것입니다. (311-092, 1999.08.19)

23 아버님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핍박을 받고 몰렸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보다 선한 자리를 위해서, 보다 미래에 가까울 수 있는 사연을 표준으로 해서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 그것을 중심삼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려고 하다 보니 핍박은 받지만 천지 전부가 아버님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남성이면 남성이 가야 할 길, 가정이면 가정이 가야할 천리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백 퍼센트 부합되게 될 때에는 천지가 전부 협조하게 되어 있지 파탄시킬 수 없습니다. 파탄시키면 천지의 모든 것이 깨져 나갑니다. 이 자연의 모든 원칙 기준이 혼란되어 버리고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20-151, 1982.10.05) p. 834

24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성한 아담의 자리, 천사장이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런 원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넘어 원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나도 일생 동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댄버리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댄버리에 들어갈 때 미국의 조야에서 환호했지만 나는 댄버리에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본연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탄세계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173-295, 1988.02.21)

25 세계 각국이 방향을 잃었을 때 아버님이 중심이 되어 밤낮없이 갈 방향을 개척해 왔습니다. 아버님이 탕감의 길을 가쳐 올 때에는 자기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의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 저들이 범한 죄를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로마를 점령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감옥, 북한의 감옥, 남한의 감옥, 미국의 감옥까지 다 거쳤지만 그때마다 사랑의 밧줄을 끊지 말라는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옥중에까지도 사랑의 밧줄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어디로 통하든지 그것을 연결하면 발전소의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기도 전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연결되면 그 전기로 인해 부활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웃고 넘어가는 멋진 인간이 될 때 사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복귀 완성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29-258, 1992.04.12) p. 834

제8편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실현

차례

제1장 남북통일운동과 북한 방문

1절 승공계몽운동과 국제승공연합 ····· 838
2절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 849
3절 참부모님 북한 방문 및 김일성과의 회담 ····· 855
4절 북한 투자사업과 평화공원 제안 ····· 866
5절 참어머님 대학가 순회강연과 대학생·청년 통일운동 ····· 872

제2장 세계승공운동과 공산주의 종언 선언

1절 일본 국제승공연합 ····· 882
2절 남북미통일연합과 중남미통일연합 ····· 895
3절 공산주의 종언 선언과 모스크바대회 ····· 901

제3장 유엔 갱신운동과 천주평화연합

1절 유엔 갱신운동 ····· 910
2절 국가메시아와 분봉왕 ····· 919
3절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 928
4절 천주평화연합 ····· 934
5절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 180개국 순회 ···· 945
6절 조국향토환원대회 세계순회 참어머님 말씀 ····· 951

제4장 환태평양문명권시대와 한반도

1절 환태평양문명권시대 도래와 한반도 ····· 964
2절 국제평화고속도로와 한일·베링해협 해저터널 ····· 974

제8편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실현

참부모님께서는 인류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지상지옥과 천상지옥을 철폐하고 창조본연의 지상·천상천국을 창건하는 데 한평생 모든 것을 바치셨다. 실로 그 노정은 인류가 가야할 영원한 본보기 노정이요 거울이 아닐 수 없다. 인류가 이 노정을 걸어감으로써 지상과 영계에서 하나님과 인류가 꿈꾸어 온 평화로운 이상세계가 실현될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러한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서는 무신론을 앞세우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보시고 우선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국제승공연합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 많은 기구를 세워서 통일운동에 매진하셨다. 그리고 공산주의 심장부인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무신론을 폐기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권고하셨다. 이어 북한을 떠나신 지 40여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셨다. 특히 참사랑과 두익사상을 근간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비전을 제시하셨으며, 198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 공산·민주주의 이념전쟁의 막을 내리게 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승공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셨다. 특히 남북미 평화를 위해 남북미통일연합(CAUSA)과 중남미통일연합(AULA)을 결성하시고 몽골반점동족들을 세계평화운동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운동연합을 창설하셨다. 또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유엔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시고 세계평화연합과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천주평화연합 등을 세우신 뒤 종교를 상원으로 두는 평화유엔 아래 세계가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시고 한일해저터널과 베링해협터널 건설을 위해 각종 국제회의와 학술·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셨다. 그리고 국경 철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시던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시고 지구촌을 하나로 연

결하고 소통시키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해나오신 것이다.

제1장 남북통일운동과 북한 방문

1절 승공계몽운동과 국제승공연합

한민족 각성을 위한 계몽운동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7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전국 413개 지역에 700여 명의 대원들을 파송해 계몽운동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셨다. 하나님의 복귀섭리로 보면 세계 중심국가인 한민족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민족에 대한 계몽운동은 세계 인류를 각성시키는 전초전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한민족의 섭리적 사명을 일깨우는 국민운동으로서 승공활동을 시작하신 것이다. 승공운동은 기존의 반공정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식한 터 위에서 시작되었으며, 공산주의 이론의 한계와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사상운동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p. 838)

1 한민족은 불쌍한 민족입니다. 오랜 역사노정을 거쳐 왔지만 다른 민족 앞에 장담하고 나설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갖지 못한 민족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21세기의 신문화시대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심정을 품고 인류의 슬픔과 고통을 붙안고 몸부림치는 민족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민족이 된다면 세계를 지도하고 하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006-253, 1959.05.24)

2 오늘날 한민족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아버님은 한민족에게 제일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대치하고 있지만 한민족은 절대 불쌍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 한민족에게 천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한민족은 삽니다. 역사는 한민족의 역사요 세계는 한민족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뒤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해원성사는 슬픔의 뒷골목에서부터 이루어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쁨의 터전이 세워져 나왔고 발판이 닦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통일교**회**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영통한 사람은 증거합니다. 안 하면 청상법에 걸립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도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충효의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충남충녀의 전통, 열남 열녀의 전통, 효자 효녀의 전통만 세워 놓으면 통일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009-122, 1960.04.24) p. 839

3 삼천만 민족은 하나님을 몰랐다하더라도 하나님은 한민족의 역사와 같이 하셨습니다. 의의 심정을 품고 충신의 의리를 세우기 위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어떤 충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발자취와 그의 심정 또는 그가 속해 있는 민족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한민족은 빚진 민족 중의 빚진 민족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하려는 하나님이요, 타락한 자식을 붙들고 통곡하시는 부모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잘사는 민족보다도 못하는 민족을 바라보며 더욱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한민족은 다른 민족 앞에 자랑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가질 것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피 끓는 청년남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 부르던 불타는 심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 한민족을 다른 어느 민족이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 앞에 '아버지! 저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라고 나서는 아들딸이 많다면 하나님은 이 세계와 주의, 사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남녀, 그러한 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007-062, 1959.07.12)

4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주권을 민족과 인류와 천주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각하여 승리의 실적을 남기기를 고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하늘의 민족과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자각하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민족과 국토, 주권을 천주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회복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민족과 국토와 주권을 찾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늘의 용사로서 투지를 가지고 용진해야 될 사명을 띠고 있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아버님도 책임을 자각한 다음부터는 자나 깨나 먹으나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생활했습니다. 자각하지 못한 한민족을 자각시킬 책임을 졌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부탁합니다. (011-152, 1961.05.13) p. 840

5 이 지구상에 제일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공산주의의 출현입니다. 이것이 왜 큰 사건이냐? 엄연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하면 원수 중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부모가 죽었다고 하면 그 이상 불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주인공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모든 것을 타파해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승공사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22-176, 1969.02.02)

6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가 사랑하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요, 부부도 아니요, 부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심정의 곬을 뿌리로 연할 수 있는, 어느 누가 옮길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고, 떼어갈 수 없는 그러한 중심적 심정의 주체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민족적 간격이나 어떠한 전통적 간격도 없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전통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 입장에서 만민이 공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알고 인연을 맺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체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계를 수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망의 귀일점을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상과 이념을 중심삼고 싸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와 공산의 대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민주주의로도 안 되고 공산주의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더 나은 하나의 이념으로 규합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인류는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이념을 추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 만들기 위한 도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011-058, 1961.01.01)

7 오늘날 세계는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세계가 공산세계에 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공산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사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산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주의와 사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천주주의입니다. 천주주의를 중심삼고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 일을 1962년부터 준비해서 1965년에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단체는 바로 전국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승공계몽단입니다. (019-081, 1967.12.29)

8 우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산주의를 때려잡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세계의 3분의 1을 삼키고,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까지 그 조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가 공산당을 때려잡겠다며 나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입장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일교회 강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여 차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서로 강사를 모셔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통일교회에서 공산당을 이기자고 하니 승공계몽단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사가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권을 펴 나가야 합니다. 공산당을 자연굴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적인 면에서 통일사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19-218, 1968.01.07)

9 여러분은 통일의 이념을 가지고 벽을 넘고 경계선을 넘어 삼천리반도와 삼천만 민족 앞에 나서야 합니다. 길거리의 청년들이라도 데려다가 통일이념을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실정은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있어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서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땀을 땅을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의 가치를 인류와 땅과 하늘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발판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 신도는 개인적인 제물시대를 거치고 민족적인 제물의 책임을 다하여 세계적인 제물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015-343, 1965.12.07) p. 842

10 민주세계의 주체국인 미국을 중심삼은 국가들이 하나님은 죽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1967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역사상에 한이 맺힐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3년 이내에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죽었으니 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를 누가 하느냐? 오늘날 민주세계의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진 통일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반공사상뿐만 아니라 승공사상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공산당을 이론으로 이겨야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이러이러한 것이 틀렸다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대안까지도 제시해야 됩니다. 현재 통일교회가 승공사상을 가지고 선두에 서 있는데, 통일교회는 먼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님의 운세가 꺾여 나가는 최후의 고빗길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운명길에서 새로운 이념을 중심삼고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물리치고 민주세계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명을 통일교회가 해야 됩니다. (023-178, 1969.05.18)

11 1965년 10월 강원도에서 민간인 가족이 간첩들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당과 야당 모두 강원도를 반공 시범도로 지정하여 반공투쟁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반공 시범도가 되고 이것이 점차 다른 도에까지 확산돼 가야 합니다. 그래서 19세부터 55세까지의 남자들로 반공조직을 편성해야 되고 통일교회도 반공투쟁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런 판국인데 정부에서는 반공투쟁에 대한 이념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승공운동이 강원도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렬로 가다가 전체가 뒤로 돌아가게 되면 맨 뒤에 가던 사람이 맨 처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도이지만 섭리적으로볼 때에는 제일 가까운 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통일교회 사상으로 한국군을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까지도 사상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016-066, 1965.12.26) p. 843

12 하나님을 대신하고 민족을 위하여 나선 여러분이 반공강의를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귀 도상에서 공산주의는 필연코 쳐부숴야 할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민족을 세우려고 애쓰시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환영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환영받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이 환영할 때 여러분이 앞에 서는 것보다 선조로 왔다 간 모든 의인들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환영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정적인 현상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넘어 가야 할 고개가 많이 남아 있고 달려가야 할 고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건이 있어도 그것을 기어코 넘어가겠다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17-285, 1967.02.15)

13 요즘 지구장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구장들이 도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표창을 하려고 하고 내무부 장관이 표창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념적으로 보아 나라가 우리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아버님이 어디를 잠깐만이라도 나서게 되면 감시를 하던 각 경찰국 정보과가 이제는 통일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은 점점 급변하는 세계정세 하에서, 더구나 반공체제를 강화해야 될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한 시점에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이 아까운 줄 알고 까딱 잘못하면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친족, 종족까지 죽음을 당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017-031, 1966.11.06)

14 한 지역장이 반공강사로 어느 고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강연회장에는 동네 유지들과 경찰서장으로부터 군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반공사상 강좌를 책임진 선생님이 온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은 안 오고 웬 더벅머리 총각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강사의 심부름꾼인 줄 알고 '임자, 어디서 왔나? 강사 **선**생님은 언제 오시나?'라고 물으니 그 사람은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강사로 통일교회 아무개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기에 '제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더벅머리 총각이 강사인 줄 몰랐던 그들은 쑥덕공론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또래의 어린 청년이 강사라니 면구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공문으로 초청했으니 단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반 동안 강연을 했더니 그들의 눈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반공강사인 우리 지역장들은 대개 20대 청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수나 경찰서장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념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그 이념의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이념은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이념의 기준을 넘을 때에는 그 실적 이상으로 이념의 갖

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적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나왔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실적을 쌓아서 인근 사람들을 규합해야 됩니다. (019-218, 1968.01.07) p. 844

국제승공연합 창설과 승공운동 전개

참부모님께서는 국민계몽운동 차원에서 1965년 11월 10일 반공계몽단을 공식 발족하셨다. 그리고 1968년 1월 13일 전국 각 도에 조직된 반공계몽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셨다. 국제승공연합 설립목적은 내적으로는 한국 국민을 승공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공산세력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15 국제승공연합을 왜 만들었느냐? 권력구조의 어떠한 상징의 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종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에 필요하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실적 기반에 연결될 수 있는 사상을 가진 단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상전의 관문을 통해야 됩니다. 어떠한 주의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나라라도,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이라도 앞으로 사상전의 관문에서 낙후한 입장에 서게 될 때에는 흘러가 버립니다. 본인은 그런 면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사상전에서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138-014, 1986.01.13)

16 내가 한국에서 종단을 후원하고 초교파운동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승공활동을 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위해서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세계통일의 기원이 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남북 해방은 세계 인류 해방의 기원이 됩니다.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방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 투쟁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남북의 분립은 우리 민족이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됐으니 이것을 푸는 일도 강대국의 꼭대기를 내몰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배후를 갖지 않고는 해방이 불가능합니다. (171-189, 1988.01.01) p. 845

17 우리는 공산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한국 역사는 세계 역사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을 중심삼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최일선이 되어 있습니다. 휴전선에 있는 판문점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토론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하고 있는 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이념을 가지고 휴전선을 밀고 넘어갈 수 있고 기독교의 부패성을 막아 새로운 세계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의 모체, 단결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이름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새로운 이상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023-179, 1969.05.18)

18 아버님은 반공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공을 하지 않고는 승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공을 한 다음 더 준비해서 승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산당에 대해 공세를 취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이것을 위한 거국적인 단체를 조직하려고 계획하여 상당히 진척시켰는데,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어 지금까지 연기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 단계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 세계적인 반공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반공 관련 단체들을 전부 흡수하여 새로운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시켜서 반공 지도요원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017-151, 1966.12.11)

19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오면서 박해를 받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까지 걸어 나왔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시대의 한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내용이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와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 앞에 담판기도를 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몰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큰 유혹과 풍파로부터 벗어나 소망의 한 때를 맞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통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1차 7년노정을 걸으면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살려면 공산당을 굴복시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016-238, 1966.06.19) p. 846

20 국제승공연합은 문자 그대로 공산주의를 이 지구촌에서 몰아내는 것보다도 공산주의를 이기고 소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연합체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조직체를 말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조직체가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세계적인 조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조직 기반이 국가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어떠한 주의도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반드시 끝장을 고하고 만다. 우리만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세계적인 기반, 모든 국가들을 합한 그 기반 위에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자체도 역시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연결시킨 세계적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이상의 조직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연결된 관계로부터 가정을 넘고, 종족을 넘고, 민족을 넘고, 국가를 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 이상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의 연결체를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 위에서 세계적인 공산주의, 국가 위에 서 있는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는 것입니다. (140-212, 1986.02.12)

21 앞으로 국제승공연합 활동은 교회를 앞서야 되고 나라를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차원을 넘고 국가의 차원을 넘어 어느 단체보다 앞장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제승공연합 활동을 중심삼고 거국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교회 활동을 통해서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든가 수많은 종단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산당에 승리하자고 하는 데에는 전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공교육을 할 경우에는 종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110-136, 1980.11.10) p. 847

22 아버님은 1960년대부터 승공활동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법무부의 대공관계 부서를 통해서 교도소의 간첩들에게 승공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때는 기필코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부터 10년 동안 통일교회가 걸어온 길은 수난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활동하는 통일교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일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승공교육을 해왔는데, 승공수련회에서 수련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동안 교육받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방 유지들을 모아서 교육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별의별 일이 벌어졌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이처럼 달라졌느냐며 그들 자신도 그것을 궁금해하고 감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분명 알지 못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보아도 그들도 왜 그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032-309, 1970.07.26)

23 국제승공연합 활동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자기들의 정보요원을 비밀리에 투입시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국가관을 담당하는 교수나 공산주의 비판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교육받게 해서 입체적으로 분석 보고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거국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몰랐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배웠고 통쾌함을 느꼈다.'라고 보고하니 정보기관에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034-043, 1970.08.29)

24 우리는 반공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예속된 여러 단체가 우리 앞에 밀려 나가고 꺾여 나가는 환경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그 기관장들은 별의별 압력을 가해서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당국 간에 절충해서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공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7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천 명 이상의 기독교 목사들에게 승공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모두 650만 명을 교육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에서 반공전선의 교두보가 통일교회인 줄 알고 전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가에서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사상계에서도 이미 중심이 되어서 공무원 혹은 교육기관의 사상 강좌는 우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에도 통일사상을 중심삼고 한국의 저명한 교수 400명을 교육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기독교를 옹호하고 외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반공전선에서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의 최첨단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053-079, 1972.02.09) p. 848

25 1979년 10월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에 통일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김일성이 남한을 침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국제승공연합을 중심삼고 7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생명을 각오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정부야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백성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을 안고 기반을 닦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반공전선을 구축하여 남한 땅에서부터 공산주의

를 막아내야 되고, 청소년들의 윤락을 막아내야 되고, 몰락해 가는 기독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를 제쳐 놓고 통일교회 기반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10-238, 1980.11.18)

26 1983년에 아버님이 한국의 위정자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항상 영원한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국 국민은 KAL기 격추사건과 미얀마 랭군 폭파 사건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는 표정으로 아버님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은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낙담한 표정들이었지만,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버님에게서 찾을 수 있지나 않을까 하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전국승공궐기 대회 때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는 아버님의 명쾌한 메시지를 접하고 모든 국민이 환영하면서 박수로 답례해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절망 가운데 분노를 삭이고 있던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130-287, 1984.02.07) p. 848

27 본인이 승공운동을 하는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진리와 참사랑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살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물에 빠져 허덕이는 공산세계를 사심없이 희생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9년 10월 12일에 개최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소련 중진언론인 초청 간담회'에 본인의 초청으로 소련의 저명한 언론인들이 한국에 와서 참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싫다고 했지만 본인은 억지로 그들을 평양에 보내 김일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첫째 나는 그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요, 둘째는 남한적화의 야욕을 버리라는 것이요, 셋째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진리 앞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손을 벌리면 우리는 형제가 되어 다 같이 번영하여 행복하게 잘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164, 1990.02.01) p. 849

28 김일성을 살려 줘서 하나의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버님은 과연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반공 지도자가 아니라 승공지도자입니다. 공산당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을 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중심삼고 구원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망해 가고 선한 입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흥해 가는 것입

니다. 이것이 천리가 가는 대도입니다. (177-300, 1988.05.20)

2절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창설 배경

1987년 5월 15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창설되었다. 이에 앞서 5월 4일부터 전국 10대 도시에서 남북통일운동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국제승공연합 활동의 기반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범국민운동 차원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세우신 것이다. (p. 849)

1 아버님은 광복 직후에 기독교과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은 나라, 가인권과 아벨권의 세계적인 국가가 하나되지 못한 것을 대신해 하나되었다는 조건을 세우고,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아버님을 추방하였지만 한국에 돌아와 다시 국민을 수습하여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귀노정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살았습니다. 공산권을 중심삼고 그와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들을 소화해야 됩니다. (164-273, 1987.05.17) p. 850

2 아버님이 가는 길은 새로운 조국을 찾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정초석을 놓아야 할 최후의 숨 막히는 귀착점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1987년 4·13호헌조치로부터 6·29민주화선언까지의 그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라는 타이틀 아래 여기에 철주를 꽂고 '네가 물러가느냐, 내가 물러가느냐?'하는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오로지 혼자서 달려왔습니다. 일개 남자로서 개인을 대표하고, 일족의 족장을 대표하고, 일국의 민족을 대표하고, 세계의 만민을 대표한 자리에서, 이뿐만 아니라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모든 성인현철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을 풀어 주는 데 있어서 '내 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권위를 가지고 쫓기면서도 이 길을 죽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버님을 들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자연굴복하여 자기 아들딸보다도, 자기 일개국의 국민보다도 앞서서 찬양할 수 있는 함성이 지상으로부터 솟구쳐 오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기에 아버님이 시련 무대를 극복하는 데 도와주지 않고 냅다 몰아붙인 것입니다. 거기에 역

사에 없는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174-045, 1988.02.23)

3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명령만 하면 남한을 침공할 무장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장 완비한 그 힘, 즉 욕심으로 미는 힘과 통일교회가 사랑으로 미는 힘이 있을 때 우주력은 어디를 협조할 것 같습니까? 천운은 우리를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제물적 입장에서 희생시켜서라도 북한에 있는 수천수만의 가정을 구하겠다는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될 때에 북한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연히 밑뿌리부터 썩게 됩니다. 생명의 요소는 다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 사망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통일교회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님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173-063, 1988.02.01) p. 850

4 한국을 통일한다는 것은 세계 전체를 통일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초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 터전 위에 하나의 존재로 남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죄악 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 된 세계에서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누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피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다하게 되면 통일의 이념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삼천리반도에서 공산당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021-237, 1968.11.24) p. 851

5 한반도의 남북한만 통일되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문화와 그리스문화가 하나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되면 동서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종교세계와 문화세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아버지라 하고 남한에서는 나를 아버지라고 해서 두 아버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 편 메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 편 메시아입니다. 두 메시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서 아버님이 올라가고 김일성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세계 문제는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243-263, 1993.01.17)

6 오늘날 우리는 북한과 대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북한이 남한에 간첩을 침투시키려고 하는데 어디에 침투시키느냐? 통·반에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으로 해서 선을 타고 중앙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앙의 맨 꼭대기는 지도체제가 하나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수가 확보될 때에는 지하조직을 상부에서부터 편성해서 통일적 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제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적이 어디로 침투해 들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반을 통해서 침투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통·반을 어떻게 조직화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어 놓고 통일교회 조직, 국제승공연합 조직,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조직, 이 세 조직으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통일교회가 머리이고 국민연합은 발입니다. 그런데 복귀시대에는 머리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축을 중심삼고 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합을 중심삼고 하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합을 중심삼되 통·반에 가서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171-297, 1988.01.02)

통일을 대비한 조직 강화 및 교육

참부모님께서는 남한의 경제성장과 88서울올림픽 등으로 남북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에 대한 야욕이 커지게 되자 범국민적인 승공 및 통일운동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특히 북한이 남북한총선거를 제안해 올 것을 대비하여 철저한 승공사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이를 위해 말단의 행정조직인 동·통·반, 면·리·반까지 조직을 치밀하고 공고하게 함과 동시에 공생·공영·공의의 하나님주의, 즉 두익사상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사상무장 교육을 본격적으로 펼치셨다.

7 미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은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도 1988년 이후에는 방향전환을 하여 자유 세계와 연결되는 길을 터 나오려고 하는데, 남북한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면 자유세계와 관계맺으려 하던 것이 일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정세가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틀림없이 남북한총선거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기간, 40일 내에 총선거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 남한 정부가 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의 행정부처를 대처하는 모든 조직으로부터 시·군과 면·리·통·반까지 2부로 조직해 놓았습니다. 남한의 면·리·통·반까지 이중 편성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그냥 그대로 전면적인 선전공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이런 북한에 대해 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악마는 최후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공격해 보고야 후퇴합니다. 그들이 총공세로 나올 때 남한은 이를 방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버님은 해방 후 40년 동안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138-311, 1986.01.24) p. 852

8 88서울올림픽대회를 중심삼고 북한은 구석에 몰려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성격으로 볼 때에 '중국이든 소련이든 믿을 것 없이 행동으로 남한을 급습해서 한주먹에 쥐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격을 못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남북한총선거를 하자고 나오면 소련도 좋아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거기에 안 끌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북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동서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제는 문화의 격차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것이 동서문제이고, 남북문제는 빈부의 차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기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통일운동연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173-067, 1988.01.03) p. 853

9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선거를 통해서 대중이 지도자를 선택하지만 공산체제는 노동자 농민, 즉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정권입니다.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은 없애 버립니다. 공산당이 지명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백 퍼센트 당선되는 것입니다. 독재체제를 영속화할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통일된 체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사상적인 면에서 민주체제와 공산체제를 넘어설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통일적인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론적 기반 위에서 통일체제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체제 형성에 있어서는 한국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한국을 중심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의 형태를 딴 것이 세계의 동서남북통일운동연합입니다. 한국이 곧 세계의 모델이 됩니다. 그것을 세계가 따라

오면 모든 것이 통일적 세계체제로 넘어갑니다. (173-068, 1988.01.03)

10 남북통일을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되느냐? 면·동 단위를 중심삼고 활동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방의 면을 중심삼은 리·반 강화, 리·반을 전부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을 중심한 리·반 교육입니다. 둘째는 도시의 동을 중심한 통·반 교육입니다. 셋째는 회관, 교육장소 확보입니다. 면 단위를 중심삼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넷째는 후원회를 결성해야 됩니다. 후원회만 결성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은 북한 해방을 위한 월정금을 얼마씩 내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중심삼고 리·통·반장을 통해 전체회의를 해서 준비자금을 모으는 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후원회를 중심삼고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7-358, 1990.11.11) p. 854

11 통일교회가 1968년 국제승공연합을 만든 이후 20년 동안 3박4일 정식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9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이러한 인적 보배를 연결시켰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국제승공연합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교육시킨 사람도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통일교회 교인은 안 됐지만 전국의 촌촌 방방곡곡에 우리 연줄로 연결되어 맥박이 뛰고 피가 흐를 수 있는 기지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도 몰랐고 어느 당도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당장, 하루 만에 어떤 대회장, 어떤 체육관을 마련해 놓고 대회를 한다고 선전하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숨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통·반 조직을 결성하면서 나왔는데, 아버님이 말한 이런 배후의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중추적, 중간적 교량의 기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한국 지도층 인사들의 미국 연수입니다.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체를 논의하고 큰소리하지만 아버님의 기반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단체, 어떤 정당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이런 실질적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개시해 조수가 남한에서부터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힘의 교두보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203-139, 1990.06.24)

12 통일원리와 두익사상은 악마의 세계에서는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

계에서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두익사상, 하나님사상, 하나님주의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의 가장 빠른 해답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뿌리 깊은 싸움을 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교를 화해시키는 데도 통일원리가 필요합니다. 시리아와 이집트 예멘의 이슬람교 핵심 지도자 40명이 이미 40일교육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은 못합니다.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와서 서로가 형제임에 틀림없다고 가르쳐 줄 때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222-036, 1991.10.27) p. 855

13 본인은 일생을 공산주의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생명을 지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특정한 공산주의 지도자를 반대한 것도 아니며 또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철학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철저한 체험과 소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 세계와 인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자유주의 세계, 또는 자본주의 세계가 절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세계 속에 유물론과 무신론의 팽배가 과거의 공산주의 못지않게 세계와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절대 가치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인간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그 사회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철학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무신론적 물질만능주의에서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난문제가 파생되며, 세계에 범람하는 민족상잔의 비극, 각 종교 간의 전쟁과 살상, 마약에서 오는 범죄, 프리섹스에서 오는 에이즈와 같은 천형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으려고 고심해 온 사람이며, 그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얻은 사람입니다. 인간 모두가 하나의 천지의 대주재이시며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자녀가 되는 것이 세계평화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좌익도 아니며 우익도 아닙니다. 나는 중심에 서서 머리주의, 곧 두익사상을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주의가 곧 두익사상임을 선포하였습니다. (259-127, 1994.03.29) p. 855

3절 참부모님 북한 방문 및 김일성과의 회담

고향 정주 생가 방문

참부모님께서는 북한을 떠난 지 40년 11개월 만에 북한 정부의 공식 초청에 의해 1991년 11월 30일에 북한 땅을 다시 밟으셨다. 12월 5일에는 정주 생가를 방문하셔서 친족을 만나셨고 이곳은 세계인들이 순례하는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북한 방문은 국내외 언론의 큰 관심 속에 이뤄졌으며, 12월 6일 평양 서재골 초대소에서 열린 환송식에서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면서 통일의 원동력이 참사랑이라고 역설하셨다. (p. 856)

1 내가 북한을 방문하여 고향에 가는데 헬리콥터 두 대에 나눠 타고 280리를 40분 만에 날아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내려서 우리 집이 있던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도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한 열흘 동안에 그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석이 오는 이상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무덤에도 잔디를 입히고, 비석을 해놓고 거기에 글자를 새기고 빨간 칠을 해놓았는데 전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 가 보니까 전부 페인트칠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을 김일성이 지시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토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토방에 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마당에는 모래를 깔았습니다. 잘 해놓았습니다. 왕과 같은 에서가 동생을 왕같이 모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26-119, 1992.02.02) p. 856

2 김일성에게 우리 고향을 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향은 세계인들이 수련을 받으면서 참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될 테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거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드리우는 공의의 낚시에는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덤에 상석을 해놓고 잔디를 입혀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가는 길을 2차선으로 자동차 길을 닦고, 묘지까지 가는 길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닦았습니다. 그러니 옛날 이스라엘의 야곱을 대하던 에서보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왜 훌륭하냐? 이스라엘 민족은 제1의 소생적 이스라엘이었고 기독교는 장성적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은 우리 고향을 성지로 개척할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그렇게 함으로써 제3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권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5-314, 1992.01.26)

3 내가 김일성과 회담할 때 김일석이 '문 총재님, 생가에 가셨더랬지요?'라고 물어서 갔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곳은 앞으로 유명한 곳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전부 알아서 수습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 알았습니다. 주석님!'이라고 했습니다. 김일성의 말은 하나님 말같이 그렇게 실효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처음의 모양대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지시해 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세계 만국에 널려 있는 통일교인들의 순례지가 되고, 내가 옛날에 말한 것들을 생생하게 현실적인 무대에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26-120, 1992.02.02)

4 내가 고향에 갔을 때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왔었습니다. 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부 인사하고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공산당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안한 것입니다. 누이동생, 누님을 보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말을 주고받으면 그날 상부에 전부 보고해야 됩니다. 동생의 보고와 언니의 보고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조카도 보고하고, 왔던 사람들이 전부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서로 맞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길도 막히고, 자기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일가족 전체가 보고합니다. 남편이 보고하고, 아내가 보고하고, 유치원생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보고하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족이 전부 똑같이 써도 문제입니다. '너희들, 같이 썼구나!'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는 세계입니다. (237-305, 1992.11.17)

5 나는 고향 땅, 북한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참사를 당한 것을 다 알면서도 김일성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호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머니 무덤 앞에 설 때에 통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뼛골 골수의 기름을 짜서도 울음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서글프지만, 이 원수들 앞에 내가 눈물을 안 보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성묘를 하러 왔다는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때까지 내 정성을 다해서 남북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394-055, 2002.10.06) p. 858

6 북한 내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성묘를 갔을 때 누나와 동생은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던 오빠가 왔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라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애절한 그 통곡 소리를 듣고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문씨의 아들로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주역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 중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무덤만 붙들고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나와 동생이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 미안합니다. 나는 공인으로 왔기 때문에 울 수가 없습니다. 남북통일을 해서 올 때에는 천하가, 만국이 엎드려 부모님의 누울 자리와 부모님을 모실 자리를 정해서 효자의 책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만민의 축복을 빌어 줄 수 있는 통일왕국을 건설해서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304-073, 1999.09.10)

7 어머니가 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것을 식구들이 다 압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누나도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여동생도 오빠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는 한을 가지고 비운의 길을 갔다고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북한을 구해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311-072, 1999.08.19)

8 우리 어머니가 참 불쌍합니다. 아들딸 열셋을 낳아서 다섯을 하늘로 보내고 8남매를 길렀지만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에게는 무엇이든 다 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 버선 한짝, 손수건 하나 사다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무 공이 없더라도 나를 위해 살아온 그 공을 복귀섭리의 끝자리에 가서 전부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기가 찬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나를 놓고 무엇인가 억울해하면서 콧물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어 울던 것이 눈에 훤합니다. 북한에 가서 부모님 산소 앞에 서서 생각하게 될 때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불효자입니다. (312-144, 1999.10.14) p. 858

9 여러분도 아버님의 고향에 가 보고 싶을 것입니다. 1991년에 아버님이 고향에 가서 보고 실망했습니다. 50년 전에는 거기 산에 나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도 들리곤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 삭막한 풍경에 실망한 것입니다. 오히려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 과거의 인상들이 모두 사라져 보리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훌륭한 환경을 보고 과거를 지운다면 과거의 기억이 쉽게 지워질 텐데, 반대 입장에서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옛날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계에 있는 통일교회 용사들, 젊은 정예부대를 모아 옛날 아버님이 봤던 진짜 고향의 모습을 재창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7-134, 1992.02.11) p. 859

김일성 주석과의 역사적 회담

참부모님께서는 1991년 12월 6일 함경남도 흥남시 마전 주석공관에서 남북 현안 등을 놓고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가지셨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발 등에 합의하였다. 참아버님과 김일성 주석 간에 이와 같은 남북의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 그때까지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김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3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을 북한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김 주석을 원수가 아닌 형제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귀환하셨다.

10 1987년에 김일성이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공모하여 나를 암살하기 위해서 적군파 25명을 파송했던 기쿠무라 사건의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원수를 대하게 되는데, 내가 몇 천년 만에 잃었던 형제를 찾겠다고 하는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그것만 넘어서는 날에는 아무리 악당이라도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딸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제자보다도, 자기 부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온 거기에서 재창조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난 후에 세계가 변화하고, 김일성을 만난 후에 남북회담 난항 등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거기에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창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24-266, 1991.12.15) p. 859

11 내가 있는 한 한국은 망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북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북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 편과 악마 편입니다. 이제 가인권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중국 소련 등 공산권이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은 북한 김일성뿐입니다. 아벨이 동생이고 가인이 형님입니다. 가인인 김일성을 살려 주어야 합니다. 남한에서는 김일성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차와 좋은 비행기를 태워 세계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잘못에 대해 알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입장에 세워서 한국은 만국의 왕 중 왕이 오실 나라요, 한국 민족은 선한 민족 중의 선한 민족이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선한 나라, 선한 사람들이 사는 본향이라고 선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242-192, 1993.01.01)

12 내가 김일성을 만나러 갔지만 그가 나에 대해서 여태까지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김일성에 대해 욕을 하고 '때려치워라! 주체사상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마피아는 나쁜 짓을 가르쳐 주면서도 영원히 남기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그는 영원히 남기겠다고 주체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주장하는 주체사상과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면 그의 부모 이상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의 개념을 갖고 가면 판도가 어그러집니다. 수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을 마치 40년 전에 잃어버린 형님같이 생각하는 동생의 자리에 서서 하늘 앞에서 서로가 적개심이 없이 환담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고해야 될 때에는 충고도 해야 됩니다. 형님이 잘못했는데도 '형님, 괜찮습니다!'라고 해서는 하늘이 정의의 자리에 못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수대의사당에 가서 '주체사상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주의가 아니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붉은 왕이 되어 총칼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왔지만 이제는 맨 마지막의 벼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벼랑에서 시작해서 반대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김일성은 한반도 북쪽의 손바닥만한 땅에서 주체사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버님은 전 인류가 사는 지구성 전체 앞에 하나님주의를 주장해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통일교회가 가는 길 앞에 핍박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환성과 환영**일**변도의 풍토만이 남았습니다. (226-092, 1992.02.02) p. 861

13 내가 두익사상을 놓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두익사상은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하는 우주의 근

본문제부터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인간의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종교도 철학도 혼란뿐입니다. 최후에 인간이 찾아야 할 것은 종교를 통하든 철학을 통하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은 하나님, 근본을 찾아 나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사상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통일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의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과 인간이 바라는 이상은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심삼고 그 이상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여기에서 진화론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은 진화론에 앞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보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물세계를 보면 수놈과 암놈이 있고 식물세계를 보면 수술과 암술이 있습니다. 광물세계, 분자세계를 보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원자세계를 보면 양자와 전자가 있는데, 본래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될 것을 전제로 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1.11.30. 북한 평양)

14 내가 북한을 방문해서 만수대의 사당에 갔을 때 거기에 모여 있는 당간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체사상이 뭐냐? 인간 생애를 보면 80년도 못 살지 않느냐?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운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곳에서 아무리 주체사상을 통해 강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주의가 옳은 거야!'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 나라의 한가운데로 혼자 들어가더라도 공포감에 싸여서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천하를 가르는 한판의 대승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배포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김일성은 역시 사나이다운 사나이였습니다. 세 번씩이나 자기 비서진이 '문 총재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라고 보고했는데도 그때마다 김일성은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된다.'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227-040, 1992.02.10) p. 862

15 남한이 아벨이라면 북한을 가인으로 생각하고 위하고 투입하면서 하나님같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남한 국민이 북한 주민의 2배가 된다고 하니 두 가정이 한 가정씩만 소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끼리 형제처럼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된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 방안은 이런 원리원칙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면 문제없습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정상회담 같은 것은 다 끝났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나와 약속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형제지간으로 당신을 형님이라 하고 나는 동생이라고 합시다. 동생은 문선명, 형님은 김일성, 이렇게 하겠소, 안 하겠소?'라고 제의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접견실에서 현관까지 100미터가 더 됩니다. 거기에서 나올 때 '형님, 손 내라우.'라고 했습니다. 그 손을 누구도 못 잡았었는데, 내가 잡아서 비비고 지지더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245-149, 1993.02.28)

16 김일성과 내가 만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와 김일성의 얼굴과 자세를 보면 누가 더 늠름하고 누가 주체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끌고 다녔지 김일성의 안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이 좀 떨리고 사지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7년 위로 80세가 넘었으니까 형님뻘이 되지만 내가 붙들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보안 책임자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김일성의 몸이 다치기라도 하면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즉결처분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신경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끌고 다녔지 끌려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3-290, 1994.01.30)

17 김일성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북한에 가기 8개월 전부터 정보를 다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포도 크지만 솔직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솔직히 나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배포가 큰 줄 알았더니 왜 이러냐?'고 반말도 하고, 맨 나중에는 형님 동생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이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언제나 뒷짐을 지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백두산 그림이 있는 자리에 서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북한 역사 이래 김일성이 상대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것은 내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될 수 있나?'라고 당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북한 전체에서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239-042, 1992.11.23) p. 863

18 김일성이 80세가 될 때까지 이만 한 배포를 가진 사람을 만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만날 때 원수를 만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만나거나 과거에 가장 친했던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

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세계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227-077, 1992.02.10)

19 내가 북한에 갔을 때 사탄세계의 재림주형 인물인 김일성을 조건적으로 굴복시키고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나에게 '문 총재가 오겠다면 문 총재의 고향에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짓겠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이오?'라고 하니까 김일성이 '그러고 말고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김일성에게 이용당하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231-084, 1992.05.31)

20 김일성은 사탄세계의 재림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부모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제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시킨 것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해서 굴복시켰기 때문에 부모권복귀 기반 위에 김일성을 굴복시킴으로써 부모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부모권을 복귀함으로써 왕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새로운 왕권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왕권을 중심삼고 황족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부모 된 완성한 아담 해와가 왕권과 황족권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235-239, 1992.09.20)

21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당신을 형님으로 삼고 나는 동생이 되었지만, 동생의 말을 들어야 돼요.'라고 했습니다. '형님의 사상으로는 세계를 요리할 수 없지만 동생의 사상으로는 세계를 요리할 수 있소,'라고 들이댄 것입니다. **북**한보다 내가 소련이나 중국에 더 큰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은 나를 반대해도 김일성 자신은 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246-268, 1993.04.18) p. 864

22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김일성의 오촌 조카 되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 북한에 있는 영통인들, 점쟁이들한테 사진을 가지고 감별을 받았는데 '이분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김일성이 환영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일

성이 간부들을 통해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문 총재님을 최고 간부들이 존경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267-161, 1995.01.05)

23 김일성의 부하들이 아버님이 참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을 내가 감옥살이하던 흥남 땅에서 만났습니다. 김일성의 한 부하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한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흥남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흥남에 가서 만나게 되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판에 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다 탕감복귀입니다. 북한 땅에서 고생한 모든 것, 지금까지 하늘섭리의 모든 것이 탕감복귀되는 것입니다. (225-189, 1992.01.20)

24 내가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이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는 가인 아벨 문제를 중심삼고 볼 때, 아벨권 남한이 책임을 못하고 북한이 책임을 하게 될 때에는 남한의 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 총재의 이론적 관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문 총재 당신이 온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소.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서약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수첩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다 받아 왔습니다. (232-048, 1992.07.01)

25 중국에 있는 한씨라는 사람이 아버님과 함께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후에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는 대사관에서 깜짝 놀라더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문 선생님이 북한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큰일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배포있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거기에서 당 간부들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나쁜 편견을 가지고 대했었는데 이제는 아버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버님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교육재료를 만들어서 4일간 교육을 했다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랬다는 것입니다. (227-135, 1992.02.11) p. 865

26 일찍이 나는 중국의 문을 열었고 소련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문만 열면 됩니다. 3만쌍 국제축복결혼식을 화제로 해서 내가 '일성이 형님, 3만쌍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갈 텐데 휴전선을 열 자신이 있소?'라고 하니까 '있고말고, 있고말고! 야, 그거 멋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비화입니다. 김일성이 3만쌍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없잖소?'라고 하니까 '원산의 송도해수욕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솔밭에 수십만이 들어갈 수 있소. 그러니 10명당 텐트 하나씩만 가지고 오면 만사가 해결이오.'라고 했습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곳으로 먹을 것을 나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산항을 열 테이까 전부 배로 실어 나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남한 정부와 절충하니까 당국자가 '큰일 납니다. 나라의 위신이 뭐가 됩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통일보다도 나라의 위신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동을 거니까 오히려 서로의 위신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0여 쌍만 갔다 왔습니다. (239-044, 1992.11.23)

27 김일성이 '3만쌍 국제축복결혼식을 진짜 하느냐?'며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만쌍을 어떻게 결혼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만쌍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3만쌍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이번에 3만쌍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가서 김정일과 김일성에게 보여 주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휴전선을 열어야 됩니다. 김일성이 배포도 크지만 사나이로서 됐더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을 구슬려서 휴전선을 열어야 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축복결혼식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이 나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성이 형!'이라고 하면서 세 번씩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부터 송별하는 광장에까지 손을 잡고 나오면서 '형님, 동생을 무시하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그만한 약속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오.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말해 보소!'라고 했습니다. (239-042, 1992.11.23)

4절 북한 투자사업과 평화공원 제안

금강산 개발사업 계획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금강산 개발사업이 합의되었다. 금강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경치를 자랑하며 세계적인 명승지로서 손색이 없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러한 금강산이 개발되어 세계인들이 찾아오면 북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셨다. (p. 866)

1 아버님은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인사들을 유원지에 초청하여 세계적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장소로 금강산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세계에서 최고의 유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방대합니다. 제주도 섬이 큰데, 그 절반 정도의 땅에 철조망을 쳐서 북한 사람도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놓고 통행증을 만들어서 드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강산을 다닐 때에는 비자가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곳은 지상천국입니다. 거기에 민족촌을 만들어서 그 민족촌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정년이 되면 거기에 별장지대를 만들어 훌륭한 저택을 짓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나라의 관광지는 놓아두고 먼저 그곳을 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다투어서 자기 지역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안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나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세계 각 민족이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각 분야의 최고 사람들이 와서 만찬회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인이 연설을 하고 세미나를 열면 앞을 다투어 그 연설회와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활동을 펼침으**로**써 모두 가까워지게 되고, 이상적인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지상천국의 모형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250-308, 1993.10.15) p. 867

2 세계적인 사업가나 경제인 등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잇속을 넘어서 금강산 전체의 미화를 생각하여 미래의 이상적인 관광지를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금덩이가 나오면 자기들이 싣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찾아왔다가 간 사람들의 경력이나 태도, 이권 문제를 중심삼고 나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금강산을 개발했다가는 다 망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금강산이 그렇게 보존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묶고, 중국을 묶고, 아시아 제국까지 묶어서 비행장을 닦는 것입니다. 관광을 위한 것보다도 앞으로 아시아 제국을 연결시키는 비행장이 자동적으로 닦아진다는 것입니다. 중동지역이든 어디든 관광객이 날아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장을 닦음으로써 아시아 전역, 더 나아가서는 유럽 지역, 미주까지 전 세계의 항공로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25-175, 1992.01.20)

3 금강산을 개발하면 세계 제일의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든지 들어오겠지만 아버님은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를 움직이는 장소로 삼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특권을 갖게 되면 금강산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라도 일주일 정도 원리교육을 시키고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중 삼중으로 골짜기가 되어 있어서 일주일 정도 가지고는 일곱 군데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3주일 예약을 한 사람에게는 원리교육을 하면서 안내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227-188, 1992.02.11)

4 지금 당장 김일성 주석이 '통일교회 교인들만은 들어와서 성지순례를 하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관광입니다. 정주를 중심삼고 내가 자랄 때 학교에 다녔고, 또 흥남감옥에도 갔습니다. 평야의 경창**리**에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전의 기록을 찾아서 그곳을 관광지로 만들어 우선 통일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순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놓으면 그 사람들이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데려오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남한에도 그런 곳들이 부산이나 대구 등 여러 군데가 있으니 아버님이 남북한에서 수고했던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에서 두세 번째 되는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온 관광객 중에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곤란할 텐데, 내가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으로부터 묘향산과 백두산까지 관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세계 신자들은 자기 고국보다 정주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얻게 되는 이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북한은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복 후 46년 동안 연장돼 왔습니다. 남북이 하나되어 관광분야부터 협력했으면 수천억 달러를 벌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는 일이 없고, 그

야말로 복지 중의 복지에서 복된 국민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북한 전체가 움직여서 나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1.12.04, 북한 평양) p. 868

평화자동차와 보통강호텔

참부모님께서는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에서 자동차공장 합작 투자사업도 합의하셨다. 1998년 1월 7일 출범한 평화자동차가 70퍼센트, 북한의 기계공업전문회사인 조선련봉총회사가 30퍼센트의 지분을 갖는 합영회사였다. 평화자동차는 총부지 33만 평에 세워졌으며, 북한의 기간산업을 남북 합영으로 설립해 남측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평화자동차는 초기에 이탈리아 피아트사 제품을 조립생산했다. 그리고 평양 번화가에 있는 보통강호텔을 1993년 11월에 인수, 운영하였다.

5 나는 북한에 대해 형님 자리, 아버지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푼의 이익도 안 가질 것입니다. 2002년 4월 6일에 평화자동차 공장 낙성식을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돈 한 푼 가져올 생각을 안 합니다. 더 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입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투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변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같이 후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러시아와 중국도 산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어디에나 공식인데, 그 공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372-327, 2002.03.25) p. 869

6 현재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나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통일중공업 기술을 중심삼고 평화의 간판을 붙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휘파람과 뻐꾸기 등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평양에서는 우리 공장에서 나온 자동차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천 대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는데, 3천대를 만들려면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좋은 차, 제일 좋은 기계의 수리를 북한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기술로 자동차나 배도 수리해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한 것입니다. (574-248, 2007.09.04)

7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만든 것이나 베트남에 자동차 공장을 만든 것은 모

험을 한 것입니다. 베트남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들어가 개척해서 기반을 닦고 이탈리아 회사와 기술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장이 발전하니까 베트남은 자기들 국가 이익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이탈리아와 다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동차 공장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을 옮겨다가 북한의 평화자동차 공장에 연결시켜 나온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지금까지 손해만 보다가 이제 적자를 넘어설 수 있는 기준에서 북한과 손잡고 중국에까지 연결시키면 상당히 희망적인 산업 기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북한을 중심삼고 중국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을 도입해서 역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자동차 기술을 중심삼고 중국 안동현의 큰 자동차 공장과 자매결연을 하여 기술을 도와주면서 싼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싼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거기에서 만든 것을 평화자동차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443-203, 2004.03.23)

8 북한에서 자동차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세계적인 자동차공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습니다. 또 유럽도 아닙니다. 유럽 자체는 공업기술이 평준화되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경영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체 내에서 소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찾아야 할 시장이 어디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여기를 판매시장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의 자동차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삼고 자리만 잡으면 세계의 모든 자동차회사 부품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인건비가 쌉니다. 또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국제적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여기에서 자동차 공업을 시작한다면 세계에서 당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만든다는 것에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초점을 모으고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311-218, 1999.09.10) p. 870

9 북한의 평화자동차 공장은 김일성이 직접 명해서 허가를 받아 만들었습니

다. 금강산 관광과 자동차 공장은 김일성이 나에게 부탁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훈사업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김일성이 나와 공동 결의해서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내용을 김일성이 공개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 왔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세계평화연합이라는 세계적 조직을 중심삼고 각국에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311-220, 1999.09.10)

10 북한 평양의 보통강 근처에 일본 식구들이 경영하는 보통강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단 한 곳뿐입니다. 아버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외국 손님들이 보통강호텔을 찾기 때문에 거의 만원입니다. 지금은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납니다. 북한에서는 호텔에 왔다 가는 손님이든 무슨 단체든 전부 믿지 않지만, 보통강호텔에 근무하는 15명의 일본 통일교회 사람들은 그야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아기를 낳은 열두 사람은 일본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한계 내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더라도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법을 지키고 틀림없이 약속을 행하니 믿을 사람은 이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와 비교할 때 천리만리의 거리가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온다면 어디서든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 사람들은 안 되지만 통일교회 교인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281-105, 1997.01.02) p. 871

11 아버님이 북한을 방문한 후에 북한에 경제 기반을 닦아 주고 자유세계와 통할 수 있는 통신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통강호텔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여 인공위성과 통할 수 있게 해서 자유세계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자기들이 방송할 수 있는 중비를 내가 다 해주었습니다. 또 무역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교육해 주었습니다. (262-175, 1994.07.23)

휴전선 일대 평화공원 조성 제안

참부모님께서는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제2 회의실에서 열린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연례회의에서 유엔이 한반도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에 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앞장서 줄 것을 촉고하셨다. 비무장지대는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 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2 이제 아버님이 해야 될 것은 유엔을 공략하여 한국의 판문점을 금문점으로 만들어 평화의 기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는 세계 각 국가의 재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이 자기들 국가의 정수를 갖다 퍼부어 놓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적 기반을 자랑하기 위한 요건을 중심삼고 카지노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경쟁은 망하는 경쟁입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 판문점을 금문점으로 만들어 종교가 자랑하는 무화의 정수를 갖다 놓아야 됩니다. 영국 문화, 미국 문화, 프랑스 문화, 독일 문화 할 것 없이 종교문화권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이 평화의 기지에 갖다가 심는 것입니다. 거기에 루브르박물관보다 더 좋은 박물관을 지어야 되고 궁전을 지어야 됩니다. (412-154, 2003.07.17) p. 872

13 휴전선을 철폐해야 됩니다. 휴전선의 완충지대를 유엔 소유로 만들어 철폐해야 됩니다. 남북한에 유엔이 들어와서 간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교환도 하고, 한 나라같이 취급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은 유엔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땅을 사서 완충지대와 국경지대, 산악지대와 강을 전부 유엔 소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원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유엔이 할 것은 평화세계를 만드는 것인데,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국경지대를 철폐해야 됩니다. 국경은 주로 높은 산과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도록 유엔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국경선을 어떻게 자유롭게 넘나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국경의 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축복결혼을 해야 됩니다. 교차결혼만 하게 되면 순식간에 평화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유엔이 그 길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국경을 철폐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327-188, 2000.07.30)

14 유엔과 미국이 합해서 참부모를 위한 궁전을 한국의 평화지역, 판문점에 건설해야 됩니다. 휴전선 완충지역에는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북한과 더불어 지뢰 제거운동을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유엔이 도와야 됩니다. 유엔이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아직도 휴전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63-245, 2007.05.21) p. 872

5절 참어머님 대학가 순회강연과 대학생·청년 통일운동

참어머님 대학 순회강연

참부모님의 세계적인 승리권을 한국에 전수하고 이를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운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1993년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참어머님의 전국 40개 대학 순회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운동권 세력과 전국대학원리연구회 간의 갈등관계가 완화되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모임이 마련되었고, 남북한 대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다. (p. 872)

1 앞으로 세계의 젊은이들, 2세들을 누가 지도하느냐 하는 것이 세계적 문제입니다. 광야 40년노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1세는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2세가 상륙해서 소망했던 것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가 그런 때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상륙한 2세는 새로운 건국의 사상과 세계평화의 사상으로 나라와 세계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런 탕감복귀를 통일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259-287, 1994.04.17)

2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기성가정과 그 아들딸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왕권을 수립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의미에서 우리 2세와 어머니들은 대학가 2세들이 사탄세계에 물들지 않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데 전통적 사상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꾸로입니다.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되어서 어떻게 미래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들이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들딸과 하나돼서 가나안 7족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 가정과 아들딸을 따라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돼서 미래의 천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딸을 교육해서 대학가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성들이 어머니 분신이 되어서 아들딸을 강제로 품고서라도 180도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

머님이 1992년부터 2년 동안에 256곳에서 열심히 순회강연을 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 친척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40년간 싸우던 것이 현실 문제입니다. 하늘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미국에서 강연하는 것도 아버님을 중심삼고 어머님에게 바통을 넘겨주어 대학가까지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2세를 어머니들이 구해야 됩니다. (259-327, 1994.04.24)

3 어머니를 중심삼고 대학원리연구회는 아벨이고, 대학가의 운동권이 가인입니다. 가인 아벨의 싸움을 어머니가 수습해야 됩니다. 남한의 우익 좌익이 하나되어 아벨 자리에 서서 가인 편인 북한 학생들과 통일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권자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청년들이 어머니와 하나되는 날에는 통일의 운세가 이 땅 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운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타는 젊은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야 할 시간이 지금입니다. (267-239, 1995.01.08) p. 874

4 어머니가 미국 국회에서 환영받는 가운데 강연을 했고 유엔총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유엔은 자유세계의 국회입니다. 여기에서 환영받고 해와 국가인 일본에 들어가서도 승리했습니다. 한국 대학가의 좌익계열이 원리연구회를 쫓아냈지만 전국에서 어머니가 이를 교체해 놓았습니다. 장자권복귀입니다. 기독교와 운동권이 하나되어 통일교회를 쳤지만 이제는 바꿔집니다. 바른쪽이 왼쪽이 되고 왼쪽이 바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앞으로 돌아서 들어감으로써 공산세력이 통일교회 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것입니다. (274-291, 1995.11.03)

5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기간에 어머니가 해야 될 책임이 큽니다. 어머니가 선두에 서야 됩니다. 3수는 분별수입니다. 그 기간은 분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미국으로부터 유엔, 일본, 세계까지 전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40개 대학을 중심삼고 순회강연을 했습니다. 40개 대학과 세계 40개국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등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승리의 패권은 어머님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부모님 가정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환영하지 못하고 쫓아낸 것을 부모님 가정이 2차적으로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음으로써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275-278, 1996.01.01)

6 이제부터는 자기 일족과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 중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2세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상륙작전을 할 때에는 모세도 죽고 1세는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2세와 더불어 상륙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2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정의 아들딸과 어머니를 중심삼고 미국의 100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 대학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3천300개 대학 강연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학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습해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의 나이인 16세부터 21세까지, 여기에 3년을 더해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260-088, 1994.04.11) p. 874

7 기독교에 대해 통일교회는 아벨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장자권을 탈환하기 위해 승리해 나온 통일교회를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긴 야곱을 에서가 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어머니가 미국 국회에서 강연하고 대학가를 품었습니다. 아벨인 대학원리연구회를 운동권 학생들이 폭력으로 쫓아냈지만 어머니가 이를 전복시켜 완전히 동급을 이루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40개 대학에서 강연함으로써 가인 아벨이 찾아진 것입니다. 대학가에서 반대하는 상황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몰아댄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가인 아벨이 하나됐기 때문에 북한 학생과 교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국제대학생지도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워싱턴 한국대학학생지도자 연수, 베이징 남북한 대학생 세미나를 대학원리연구회가 개최함으로써 북한의 가인 학생들과 남한의 운동권 학생들을 원리연구회가 주동이 되어 부모님 이름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270-206, 1995.06.01)

8 어머니가 한국 40개 대학에서 순회강연을 하는 목적은 대학을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심삼고 운동권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들을 소련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에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1일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데려가서 우리가 3주일만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 주고 교육하면 전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서 남북한 학생들과 소련 학생, 중국 학생들이 합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사상을 대치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그랬고, 중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일사상은 공산주의를 대치할 사상이라고 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북한 학생들에게 길을 터놓아야 됩니다. 제일 빠른 것이 그것입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남북한 학생들은 가인 아벨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는 자연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248-229, 1993.10.01)

9 한국의 40개 대학 어머니 대강연회는 기독교와 운동권이 분립되어 우리와 하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섭리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탕감노정에서 지극히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머니를 중심삼고 운동권 학생들과 대학원리연구회가 대학가에서 다시 기반을 잡아야 됩니다. 남한의 운동권 학생들을 아벨로 친다면 북한 학생들은 완전히 가인입니다. 남한에 있는 운동권 학생들은 겉은 빨갛지만 속은 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학생들은 완전히 빨갛습니다. 이제 남한 운동권 학생들과 북한 학생들을 모스크바에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조총련과 민단 학생, 일본의 학생이 가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을 중심삼고 미국과 중국, 소련의 학생들이 연합해서 북한 학생들을 동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북한에 이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 세계평화청년운동 조직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국가적으로 사상을 초월하여 청년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원리연구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회 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학가를 중심삼고 동창생들을 묶는 것입니다. 동창생과 학생은 가인 아벨입니다. 이들을 묶어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대운동을 전개하기만 하면 급진적인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과 세계평화여성연합과 학생연합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252-283, 1994.01.01) p. 876

2세를 중심한 대학가 통일운동

참부모님께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2세인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두익사상을 이념으로 한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셨다. 1986년 5월 15일 결성된 남북통일전국학생총연합(통학련)과 10월 11일 발족한 전국대학교수학생남북통일운동연합(교학통련)을 중심으로 활발한 남북통일운동이 펼쳐졌다.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남북통일의 이념과 좌표를 제시하신 것이다.

10 지금은 2세의 때입니다. 2세를 수습할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수습해서 새로운 이념을 교육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들을 교육시킬 단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에서 남북통일전국학생총연합(통학련)과 교수들도 동원해야 됩니다. 세계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적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제지간도 부자지간도 종적 가인 아벨입니다. 강력한 체제를 중심삼고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162-148, 1987.04.09)

11 남북을 통일하는 데는 아버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교수와 학생이 연합해서 그 사회의 유지와 연결하여 2세 젊은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도면 도의 큰 대회장에서 대회를 해서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학교수학생남북통일운동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수와 학생이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비로소 아버님에 의해서 역사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62-314, 1987. 04.17) p. 877

12 1986년 1월 24일 한남국제연수원에서 교수들이 모여 새로운 결의를 한 뒤 대사회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월 17일부터 전국 166개 지역에서 대학교수 순회강연회라는 놀라운 역사적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5개월 후에는 세계의 석학들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협력하여 전국 203개 지역에서 역사적인 새로운 말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넘어서 역사를 두고 기념할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고명하신 학자들이 동원되어 선두에 섰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전국대학교수학생남북통일운동연합입니다. 아버님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148-255, 1986.10.11)

13 아버님은 1986년 2월부터 세계평화교수협의회에 소속된 교수를 내세워 전국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하나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식입니다. 이 교수들을 위주로 해서 아버님이 지방에 있는 교수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가르칠 때 그들이 반대하지 않고 환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로는 교수들로부터 아래로는 촌부까지 완전히 외적 기반이 하나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국제

승공연합을 중심삼고 가인권인 나라와 아벨권인 통일교회가 완전히 하나됐다 할 때에는 정부도 통일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통일 운세권이 세계적 견지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와 승공연합을 중심삼고 완전한 국가 조직으로 하나되어서 남북통일을 해야 됩니다. 남한에서 하나님 편으로 모든 것이 하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니 사탄 편 가인권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제 남한을 중심삼고 미국과 일본, 더 나아가 중국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143-135, 1986.03.17)

14 아버님이 전국대학교수학생남북통일운동연합(교학통련)을 만들어 교수들과 학생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야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국강연을 했는데, 그때 운동권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함께 우리를 반대했고 기독교도 이에 합세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학통련이 앞장서서 대학생과 일반 국민을 교육해야 됩니다. 최후에 우리가 세워야 할 곳은 통·반·면·리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앞으로 젊은 2세들을 동원해서 1세들을 수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후에 가나안에 복귀하여 2세들을 중심하고 나라를 세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권이 주동이 되어서 건국적인 행차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가입니다. 2세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입니다. 20세를 전후한 청소년들을 규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세들과 교수들이 하나돼야 합니다. 이것은 종적인 가인 아벨입니다. 형제는 횡적인 가인 아벨입니다. 이래서 교학통련이 종과 횡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 안 되어서는 영향을 못 줍니다. (165-114, 1987.05.20) p. 878

15 1994년 들어 운동권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종교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권을 대학원리연구회를 중심삼고 수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권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권 학생들이 원리연구회를 협조해서 대학에 동아리 등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모스크바와 6월 베이징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대학생지도자 세미나를 할 때 내가 김일성을 움직여 북한 대학생들을 거기에 참석시켜 남북한 학생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만나려야 만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 학생들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책임자들이 만나려고 애썼는데도

못 만난 것을 내가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통일을 위한 주도적인 역사를 아버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기반을 닦아 국가를 초월해서 남한과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학생대회를 규합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200개 대학에 원리연구회를 다시 등록하여 공산당 이상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65-159, 1994.11.20)

세계평화청년연합 창설과 남북세미나

1994년 7월 26일 163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평화청년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 1995년 2월 22일 사회단체로 등록된 세계평화청년연합은 좌우익의 이념을 초월해 화해와 이타주의적 정신에 기반을 둔 참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평화청년연합은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평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북한 청년 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청소년 순결캠페인, 에이즈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p. 879)

16 모스크바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대학생지도자 세미나를 하던 때가 1994년 2월이었는데, 이 대회를 하자고 할 때 모두가 '내년 봄이 오기전에는 추워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라가 망하고 죽는데 겨울이 어디 있어! 죽고 망하는 일은 겨울에도 찾아오는 거야. 모스크바가 아무리 춥더라도 빨리 서둘러야 돼! 베이징 대회도 음력 6월을 넘기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대회를 한 것입니다. 세계평화청년연합도 원래는 서둘러서 1994년 6월에 창립하려고 했는데 연기해서 7월 26일에 창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학가와 연결해서 3천 개의 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대학원리연구회 조직권 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한국도 200개 대학을 대학원리연구회 조직권 내에 집어넣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남북통일입니다. 북한 대학생, 남한 대학생만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 대학생들과 러시아 대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과 일본 대학생들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2-176, 1994.07.23) p. 879

17 세계평화연합 창설대회에서 전 미국 국무장관인 알렉산더 헤이그가 연설했는데, 그때 그를 내 방에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러시아의 똑똑한 청년들과 미국 최고 대학의 학생들을 교육해서 세계청년연합회를 만들려고 하니 당신도 만드는 데 협조하시오!'라고 했더니 군인출신답게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과 러시아의 대학생들을 중심삼고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서 사상적 대치를 해 나오던 대표적인 두 국가의 젊은 청년들로 대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방학 때만 되면 세계 각국의 대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몇 대표적인 신문에 소감문을 게재하면 반드시 많은 대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국의 일류 대학을 중심삼고 세계청년연합, 대학생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6-241, 1992.02.05) p. 880

18 세계평화청년연합에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17세 이상은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학가를 중심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연합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아들딸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해야 됩니다. 2세들을 수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연합을 앞에 내세워서 대학가와 중고등학교의 사상적 이론화, 기독교문화권 이론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255-069, 1994.03.05)

19 45세부터 50세 연령의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한창 활동하는 중진들입니다. 이들만 잡으면 세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학생까지는 횡적으로 가정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종적으로 묶어야 됩니다. 이들과 사회인, 대학 졸업자들까지 국가적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와 묶어지게 됩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가정의 어머니 품에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자들은 국가의 품으로 들어간 입장입니다. 이것은 종적입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국가 기반입니다. 이들을 세계 기반에서 세계평화청년연합으로 연결하여 모든 국가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2세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통일교회는 대학교를 기지로 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대학교를 중심삼고 동창회를 움직이는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금후에 우리가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제일 첩경이라고 봅니다. (262-311, 1994.08.01)

20 세계평화청년엽합 회원은 종적인 가정·국가·세계·천주를 연하는 전통을 참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아 지상천국 근간이 디며 전체 환경에서 모범이 되어 발전적 역사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인류의 상중하시대를 연결하여 직선적 종적 전통을 생활권에서 확립해야 됩니다. 상중하시대는 노년시대, 중년시대, 소년시대를 말합니다. 노년층의 신뢰를 받고 청소년층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

다. 청년들은 가정과 학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학교교육의 결실체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교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가정천국 이념을 완성하여 도의적 세계 구현에 중심 생애를 바쳐야 하고 심신일체 생활의 중심적 표본이 되어 국가 공익을 항상 추구하여야 합니다. (262-320, 1994.08.01) p. 880

21 세계평화청년연합이 중요한 단체가 됩니다. 청년들은 졸업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의 후배들이 자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졸업생이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연구회와 졸업생이 일체를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동화시켜야 됩니다. 자기 마을에 동창생이 있으면 그 동네의 주력부대로 만들어 계몽을 하고 민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익사상을 대치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상투쟁을 해야 됩니다. 통일이 됐더라도 사상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261-253, 1994.06.19)

22 국가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청년 재교육, 가정윤리 확립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연맹을 만들어 어느 종단을 중심삼은 큰 대학도 이번에 코디악에 불러서 전부 같은 학제로 편성해서 원하는 대학의 졸업장을 몇 개도 줄 수 있도록 해서 세계의 지도자를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국경 민족 인종을 초월한 자리에서 세계를 하나님 대신 개혁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자는 운동이 세계평화청년연합입니다. (262-114, 1994.07.23)

23 오랜 기간 동안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기구를 창설해 왔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종교회의,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국제과학통일회의, 세계언론인회의 그리고 세계평화교수협의회가 그것입니다. 이제 오늘 인류 구원의 선봉에 서기 위해 세계평화청년연합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젊은이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족과 국가를 사랑하고 최고의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나의 모든 정열을 다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평화교수협의회와 위성시스템을 연결하여 국제교육고속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본인은 164개 모든 회원국들이 젊은이들의

정신 도덕의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계평화청년연합을 대표하여 우리 모두 사랑과 평화의 세계 창건을 위해 정진합시다. 본인은 여러분의 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제3 지보청년(至福千年)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262-235, 1994.07.26) p. 881

제2장 세계승공운동과 공산주의 종언 선언

1절 일본 국제승공연합

일본의 중요성과 승공운동

참부모님께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승공활동을 전개하셨다. 특히 일본을 중심한 승공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관계를 넘어 복귀섭리를 담당하는 아담 국가와 해와 국가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을 공산주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많은 지원활동을 펴셨고, 일본 청년학생들도 헌신적으로 승공활동을 전개해 큰 승리를 거두었다. (p. 882)

1 한국과 일본이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국제승공연합에 대해서 자못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 9월에 열린 제4회 세계반공대회가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정세를 두고 볼 때 1972년까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뜻을 아는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1970년에 더더욱 확고한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반공대회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아버님을 중심삼고 내적인 단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외적으로 한국 식구와 일본 식구가 단결하여 하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내적인 힘이 왼쪽으로 돌리는 외적인 힘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천배 만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수많은 수의 힘을 능가해야 되는데, 부족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031-113, 1970.05.01) p. 882

2 아버님의 관심의 대상이 한국만으로 국한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련과 핍박의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국제정세라

든가 공산당의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책임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책임진 자가 가야 할 공식적인 방향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향하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기준을 중심삼고 가는 길에는 추호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적인 개인의 감정이 개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016-301, 1966.07.31) p. 883

3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일본이 용공국가가 된다면 한국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소련 중국 일본 등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국가인 일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국가인 한국이 일본에서 국제승공연합을 중심삼고 구국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일본을 구해 주었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일본이 반공국가가 되면 한국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해와 국가의 사명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034-074, 1970.08.29)

4 통일교인들은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남북한총선거가 실시될 때 통일사상을 중심삼고 북한을 여지없이 누르고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통일교인이 지고 가야 할 책임과 사명입니다. 현재 일본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크나큰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소련에서 나왔지만, 공산주의 행동은 노동자 농민을 중심삼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정치가에게는 공산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일본은 사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상적으로 재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016-068, 1965.12.26)

5 공산당에 대하여 선두적 자리에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일본의 모든 지도자가 우리를 동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비판과 극복에 관한 책을 빨리 출판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고 강의를 함으로써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비판정신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공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제대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가 많아지고

대중이 환영하면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폭력까지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전법이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믿던 사람이 불신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9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 시작하면 점점 더 믿게 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1967.06.08, 일본 도쿄)

6 1968년 4월에 일본 국제승공연합을 발족했습니다. 그때 일본 간부들을 모아서 '우리는 이제부터 일본 이 자유천지에서 반공, 승공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일본에서 공산당의 발판이 얼마만큼이고 이들이 얼마나 극악하고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리신다.'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적인 모든 내용을 중심삼고 '이러한 운명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일을 안 하겠느냐!'고 하면서 설득하였습니다. 그전에 전부 승공이론 무장을 시켰습니다. 승공강의를 할 수 있도록 사상무장을 시키고 가두로 내보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데 선두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에 파송했습니다. 남자를 파송해서는 안 되겠기에 대담한 일본 여자를 사상무장을 시켜서 '이제부터 3년 반 동안 죽을 각오를 하고 조선대학 앞에서 승공강의를 해야 된다! 너희가 가는 길에는 죽음의 교차로가 틀림없이 있다! 각오하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일화가 많습니다. 조선대학은 일본 외무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생명을 걸고 투쟁해 왔습니다. 도쿄역이라든가 전국의 유명한 가두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적극적인 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109-232, 1980.11.01)

7 일본 국제승공연합은 공산당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 앞에서 강의를 하겠으니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보라는 식으로 조총련 사람들이 있는데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활동을 방해하느라 잡아끌고 당기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남들은 웃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한꺼번에 몰려와서 한 사람을 타고 앉아 목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주일 정도만 하면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동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나오면 그들의 내부에 분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 말에 틀림이 없고, 행동에 틀림이 없고, 도의적인 면에서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자기들의 말과 행

동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공산당에 희생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 자체가 폭발되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전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28-138, 1970.01.04) p. 885

8 우리가 일본에서 승공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50년 동안에 세계의 절반 가까운 나라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사회에까지 공산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판도를 가진 공산주의에 대해 승공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소수의 무리가 나선 것은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고 세상을 모르는 자들의 행동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969년 10월 7일에 전국승공국민대회를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가졌는데, 여기에 5천여 명이 참석해서 박수를 하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은 지금까지 일본이 자기들 뜻대로 틀림없이 적화된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활동하면서 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우리 소수의 통일의 무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사실은 일본의 공산당에도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새로운 각도에서 스스로를 비판하고 앞날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입장에 섰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은 미미했지만 이것은 일본에 하나의 파문을 일으킨 결과가 되었으며, 이 파문은 아시아 전역에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025-308, 1969.10.12)

9 1970년 9월 15일 세계반공대회가 일본에서 열렸는데 일본의 역사에 없었던 거국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거국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본 공산당도 통일교회 움직임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걱정의 도가 자기들의 갖추어진 환경보다도 더 강하게 될 때에는 이들은 제2 전선을 준비하고 제3 전선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035-027, 1970.09.27)

10 아버님은 반공주의자이지만 반공만이 아니라 승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승공연합을 만들고 700만 명에게 승공교육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버님이 지시해서 해온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 국제승공연합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각계의 지도자는 이구동성으로 국제승공연합이야말로 일본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모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일본 국제승공연합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과 텔레비전 공개토론회를 열어라!'라고 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모든 매스컴을 통해 대중 앞에서 토론회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과 우리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바른지 가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공산당은 우리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 국제승공연합과는 절대로 토론해서는 안 된다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1976.10.10, 벨베디아 수련소) p. 886

일본 국제승공연합운동의 확산

일본이 좌익 운동권 학생 및 조총련계 학생들의 활동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국제승공연합 활동은 섭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승공연합 회원들은 가두캠페인 등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위장전술에 일본 국민은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일본 공산당을 대상으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

11 우리는 혁명 대열에 참가했습니다. 혁명전선이라는 것은 천리 행군이나 만리 행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군은 생애를 걸고 몇 대에 걸쳐 계속될 것인데, 지금 행군하는 전선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전선이 더 치열할 것입니다. 그 치열한 것에 박자를 맞추어 다짐한 결의가 배가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감소하게 된다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포위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판국에서 싸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서 승공활동을 한 내용이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게재되어 전 세계 공산국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신문은 소련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보내집니다. 이렇게 볼 때 통일교회 활동은 민주세계보다 공산세계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공산당에게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공산당은 우리의 참소에 걸려서 스스로 해명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025-310, 1969.10.12)

12 소련 제국의 공산주의 이념을 펴기 위한 본부가 육대주의 각 나라에 있는 것을 내가 탐색했습니다. 최고의 언론기관과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이름 있는 정치가들을 중심삼고 직접 조사단을 만들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소모해서 이를 폭로시킨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기지가 돼 있

기 때문에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 <아키하타>를 중심삼고 회합을 했습니다. 아버님의 이론이 공산주의를 손 안 대고 말아먹게 됐기 때문에 27개국에서 승공이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논리가 있으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론체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려니 까마득한 꿈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별의별 놀음을 다 했습니다.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자 일본 도쿄대학이라든가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모임을 갖고 아버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도 아버님에게 전략적으로 굴복당했다는 것입니다. (606-228, 2009.01.13) p. 887

13 일본 공산당은 자기들의 신문인 <아키하타>를 중심삼고 연속적인 시리즈 형태로 통일교회와 국제승공연합을 파헤치는 등 제반 방법을 통해서 공세를 취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으로는 우리 움직임을 짓누를 수 없었습니다.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대중은 반대하는 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활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밀고 나옴으로써 <아키하타>가 취재해서 발표하는 것은 국제승공연합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와 국제승공연합이 불과 10년이나 20년 이내에 일본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본의 저명한 인사들의 판단입니다. (062-273, 1972.09.26)

14 일본 공산당은 금후에 일본을 적화하는 데 제일 암적인 존재가 국제승공연합과 통일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는 모든 승공활동은 전 세계의 공산당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승공연합의 이론 체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1974년 12월에 공산세계가 12개국에서 제일 이론적인 학자를 규합하기 위한 회합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 사상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종교의 배경에서부터 근거돼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서 후퇴했다는 보고를 내가 들었습니다. 통일교회 사상은 자기들로서는 용허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요** 두려운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공산당은 '통일교회 교인과 만나지 말라. 승공요원과 만나지 말고 논쟁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우리가 손해다. 우리가 할 것은 폭력과 혼란을 조성해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86-148, 1976.03.21) p. 888

15 일본에서는 승공운동을 중심삼고 낮에는 전 식구들이 동원되어 거국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 밤에는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순회부흥단에 의해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면서 식구들의 원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신앙심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곳곳에 배치해 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반공대회를 통해 일본에 있는 화교와 한국 교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에 유학 온 수많은 학생들을 대회에 참석시켜 승공연합의 기반을 닦게 할 것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들을 교육시켜 아시아에 우리 거점을 연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1차 2차 3차까지 계속한다면 그 기반이 닦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042-153, 1971.03.01)

16 내가 일본의 국제승공연합에 전국에 있는 경찰들과 중고등학교 선생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 전부 교육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의 중고등학교 교장을 교육했습니다. 조총련의 학교가 200개 정도 있는데 민단 학교는 불과 1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중고등학교를 중심삼고 전적으로 국제승공연합이 후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민단계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기반 밑에 대사관을 연결시켜 아시아에서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지금 조총련이 조선대학에서 사상 요원을 길러내는 것 이상의 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닦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학교를 지어 그렇게 해서는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비상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062-328, 1972.09.26)

17 1965년에 아버님이 일본에 들렀을 때 일본의 한 고위층 인사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당신들이 지금처럼 미미한 태도를 취하다가는 결코 공산당에게 배겨나지 못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공산당원은 1970년을 기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직 기반인 노동조합을 앞세우지 않고 현재 대학생들을 내세워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1970년대를 앞두고 모든 계획을 세워 놓고 대학가를 통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안팎의 문제로 인하여 매우 긴급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공을 부르짖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승공운동을 선포하고 나선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동안 우리 청년 남녀들은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관가나 자민당의 모든 간부들은 반공전선에서는 대학원리연구회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022-223, 1969.05.02) p. 889

18 일본에 있는 56개 대학에 통일교회의 대학원리연구회가 등록되어 있고, 석박사들이 그 배후에서 통일이념에 대하여 연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권 학생들과 통일교회 원리연구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어떤 대학의 공산권 학생들이 몽땅 통일교회로 넘어와 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공산당이 자기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요소요소에 배치한 지하단체 중의 하나가 통일교회로 몽땅 넘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공산당원들이 통일교회에 가서 뒷조사를 하거나 반기를 들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도쿄대와 교토대, 도후쿠대 등 모든 대학가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리연구회가 대회를 할 때마다 야단이 벌어졌습니다. (016-069, 1965.12.26)

19 일본의 도쿄대 대학원생 120명을 샌프란시스코에 데려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공산권을 방어할 수 있는 일은 일본 정부가 못합니다. 통일교회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 명령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늦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안 되거든 생명을 내걸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반대하지를 않나,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대 총장이 일본 협회장과 협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서 협상하다 보니 이제는 친해졌습니다. 대부분이 가겠다고 자원해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니 도쿄대 대학원 학생들도 뒤꽁무니를 빼려야 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원 학생들이 25세 이상인데 40세도 있습니다. 그쯤 되면 사회에서 자기 의지와 판단력을 가지고 당당히 지성인으로 자처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067-311, 1973.07.22) p. 890

20 내가 일본에 들러서 국회의원들에게 '한국 국회의원, 대만 국회의원, 일본 국회의원, 3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승공세미나를 하라.'라고 지시했는데, 그대로 해서 그것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나라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승공연합이 아니면 안 되고, 대만 정부도 승공연합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우리를 붙들려고 한다

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붙들고 한국과 대만에 영향을 주고, 한국은 또 우리를 붙들고 대만과 일본에 영향을 주고, 대만은 우리를 붙들고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069-286, 1974.01.01)

21 이제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위주로 자유세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묶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묶기 위해서 벌써 일본 국제승공연합과 한국 국제승공연합의 자매결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일본 중요 간부의 부인들을 모아 놓고 훈시를 했습니다. 물론 간부인 남자 책임자들은 다 알지만 여자들도 협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750만 되는 국제승공연합 회원들의 배후에 있는 부인들을 결속하여 앞으로 한국의 700만 가정의 부인들과 연합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일본 부인들을 결속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가정 대 가정의 결속을 서둘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이 제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체제를 일본과 한국에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미국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135-248, 1985.12.12)

22 금후의 아시아 정책에서 제일 관건이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은 경제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일본을 놓고는 아시아를 요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 친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문화수준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의 문화기준과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미국은 일본을 중간 매개체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빨리 한국은 국가적 기반을 세계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의 700만 승공회원 가정이 연결되면 미국의 목사 가정을 중심삼고 단결되어 들어오는 기독교 영향권을 결속할 수 있는 길이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보다도 국민적 차원, 가정의 차원에서 기반을 다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 위에서 이 기반을 확대해 우리 요원들을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요원으로 내세우게 되는 날에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새로운 세계 섭리사적 사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135-248, 1985.12.12) p. 891

조총련과 민단 그리고 남북통일운동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및 북한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는 일본이 공산화할 경우 한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승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남북통일운동에 앞장세우셨다. 이를 위해 1972년 5월 1일 국제승공연합 재일본부를 결성하였다. 특히 재일동포부터 먼저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조총련에 속한 동포들을 초청하여 1975년 9월 추석성묘단 모국 방문을 주선하셨다. 이들은 광복 후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해 가족 친지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이 행사는 이후 수차례 진행되면서 당시 북한의 위장 홍보전략에 현혹되어서 남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조총련 동포들이 새롭게 눈을 뜨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23 아버님은 일본에서 민단을 중심으로 국제승공연합 조직을 1965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리고 1972년에 국제승공연합 재일본부를 조직했습니다. 그전에는 민단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승공사상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 공론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총련과 일본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이 세 공산당과 대결할 수 있는 강력한 한국의 단체가 있느냐 할 때 없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대사와 공사, 정보원 몇 명을 중심삼고는 이들과 대결할 수 없습니다. 천만부당합니다. 싫든 좋든 통일교회 기반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국제승공연합을 중심삼고 조총련에 대비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총련과 하나된 일본 공산당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168-177, 1973.07.29)

24 일본 국제승공연합은 일본 사람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 단체의 사람**들**은 삼천리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한국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님이 명령만 내리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조총련의 조선대학인가 취소 운동을 1968년부터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총련에서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는 우리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불면 날아갈 줄 알았지만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나면 조총련계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만 지나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민단에 내가 손을 대야 되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통일교회가 민단에까지 손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수모를 당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056-108, 1972.05.14) p. 892

25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는 7·4남북공동성명을 중심삼고 통일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휴전선으로 분단된 사상체제권 내에 있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고 기반이 닦아진 한국 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일본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총련을 시켜서 민단을 흡수하고, 또 민단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흡수해서 자기들의 일괄적인 조직권 내에 집어넣게 된다면 명실공히 조총련을 중심삼고 통일이 됐다고 온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됩니다. 만일 조총련 앞에 민단이 흡수된다면 일본 정부도 사방이 공산권이기 때문에 공산권에 대한 진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지금 일본에 사람을 파견해서 전국적인 붐을 일으켜 민단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조총련이 민단을 흡수해 버리면 고위층에 있는 정부요인들이 결정적으로 북한에 협조함으로써 일본 정세는 북한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는 공산권 내에 전부 포위되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통일교회 사람은 물론이고 모두가 일본 공산당에 의해 망하는 것입니다. 정세적으로 볼 때 한국에 이러한 위급한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버님이 홀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천신만고 배후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단을 다시 구성하여 우리 체제 내에서 교육하고 국제승공연합의 민단 지부를 결성해서 전국에 그 조직망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062-326, 1972.09.26)

26 일본의 민단이 조총련에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민단뿐만 아니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도 전부 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1965년부터 그 간부들에게 틀림없이 앞으로 민단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제승공연합과 하나되어 여기에 방어선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렇게 한지 7년도 못 되어서 민단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대사관도 손을 들고 있고 민단도 손을 들게 되자 그때서야 그들은 국제승공연합에 후원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싸움은 통일교회가 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잘못하다가는 전부 역적 무덤 가운데 묻힌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민단 책임자들이 그것에 대해 환영을 해라! 대사관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본에서 모험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이 흐트러진 민단을 규합하고 정신자세를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064-249, 1972.11.12) p. 893

27 아버님이 주일 한국 대사관과 민단을 찾아가 본국에서 활동했던 반공강연에 대한 실적을 제시하며 일본에서도 교포를 중심으로 반공강연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사관 측은 국가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고자세로 나오고, 민단 측은 교포를 대신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장 이하 간부들이 한국의 어떤 장관도 부럽지 않다는 태도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그곳에 한국의 지구장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먼저 일본의 47개 현에 있는 부인회 대의원 4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구장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강연하는데 무려 열두 차례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집회 진행 책임자와 민단 책임자들도 충격적인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민단을 찾아가서 반공강연회 개최에 대해 교섭하였습니다. 그리고 반공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 자수 간첩이나 북송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북한의 실정을 폭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 어떻고 북한 실정이 어떻다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일본 실정으로 보아서는 믿어지지 않는 애매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태의연한 반공 태세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론적인 면에서 공산주의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공산주의가 어떻고, 또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반드시 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적나라하게 제시하며 강의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018-287, 1967.08.10) p. 894

28 아버님이 1974년부터 1975년까지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끝날에 패자의 서러움의 쓴잔을 마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있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일본과의 국교 단절의 비운이 찾아올 수 있는 배후에서 내가 피어린 투쟁을 해온 것을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조총련 문제를 중심삼고 공산주의를 방어하지 않으면 한국이 살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총련 문제를 중심삼고 600명의 젊은 청년들을 규합해서 교육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조국방문 성묘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083-091, 1976.02.05)

29 조총련과 민단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해와 국가 일본이 설 수 없습니다. 그들 전부가 아버님을 대환영함으로써 아버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국가 한국과 해와 국가 일본이 하나됩니다. 민단과 조총련이 하나됨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자동적으로 하나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의 가짜 부모와 남한의 참부모가 조건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와가 자동적으로 이것을 안고 가서 그 전통을 한반도에 연결시키면 한일 통일권이 벌어집

니다. 이것이 섭리관입니다. (228-234, 1992.04.03)

30 해와 국가인 일본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도 가인 아벨을 소화하고 내적으로도 가인 아벨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40년간 포용해야 될 가인 아벨이 조총련과 민단입니다. 조총련은 일본에서 볼 때 머리가 아픈 존재입니다. 이 조총련과 민단을 일본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일본에서 조총련과 민단을 하나로 만든다면 일본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 만드는 것은 아버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자체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귀노정을 걸어온 것을 하나님 밖에 몰랐습니다. 영적인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기준에 있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버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육적으로는 아버님, 이렇게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우선 조총련과 민단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은 아시아에 상륙할 수 없습니다. (247-211, 1992.11.17) p. 854

31 해와 국가인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은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세라와 베레스 같은 입장입니다. 해와의 복중에서 두 패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해와 국가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싸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해와 국가의 사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교인들이 이들을 하나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하면 유관순 사상을 중심삼고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 이전부터 아버님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통일교회와 여성들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중심삼고 외적으로 유력한 관계의 부인, 국회의원 부인, 교수 부인 등을 연결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맺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들과 통일교회는 가인 아벨입니다. 이 가인 아벨의 여성 기반을 중심삼고 어머니가 서야 됩니다. 어머니도 가인 아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해와의 복중에 있는 입장인 민단과 조총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 일을 일본이 하게 되면 조총련 대표와 민단 대표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기운이 싹트는 것입니다. (229-314, 1992.04.13)

32 다말의 뱃속에서 세라와 베레스 쌍둥이가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일본

에서도 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북한과 남한의 조총련과 민단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소화해야만 됩니다. 소화하는 것은 일본 자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님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다말의 복중에 있는 세라와 베레스같이 한 민족을 대표한 두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데에는 일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좌우익을 통일해서 그렇게 신랑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김일성까지 돌려놓아야 됩니다. 좌우익은 아들입니다. 장자권복귀를 한 다음에는 부모권복귀를 하기 위해 김일성까지도 아버님이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 통일권만 벌어지면 서양문명과 아시아문명, 좌우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228-233, 1992.04.03) p. 895

2절 남북미통일연합과 중남미통일연합

카우사아울라 창설과 1천만 회원확보 1980년 10월 남북미 대륙의 통일과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전직 국가수반을 중심으로 남북미통일연합(CAUSA)이 창설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미국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으로 남미에서 좌익정권들이 집권하는 등 공산주의 침투가 노골화하자 남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사상 교육을 실시하셨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창설된 카우사는 남미대륙의 적화를 막는 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1983년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남미통일연합(AULA)도 결성하셨다. (p. 896)

1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와 세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를 모신 것을 국가와 세계와 영계까지 확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통일교회 운동입니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국가 통일교회, 국가 참부모로 맞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일 비참한 나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에서 환란을 받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남미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카우사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미26개국에 조직을 끝낸 뒤 북미에서까지 카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4-309, 1983.03.01) p. 896

2 카우사를 중심삼고 남미의 모든 분야의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을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여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버님은 나라도 없고 몰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에 서면 남미를 하나 말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가운데에 서면 남미 지도자들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눈란이 일자 이 나라들은 각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미국식 조사 말고 우리 정보기관을 통해서 레버런 문을 조사하자.'고 해서 전부 아버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아버님이 미국에서 아무 죄 없이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조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틀렸다. 카터 정부는 반공주의자요 하늘의 뜻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핍박한 정권이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두에서 싸운 레버런 문은 우리 동지 중의 동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미가 함께할 수 있는 동지라는 것입니다. (112-083, 1981.04.01)

3 카우사를 중심삼고 남미의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교육을 끝냈습니다. **한** 나라에서 500명씩만 하게 된다면 그 500명 가운데 각료와 주책임자 등 모든 요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곳은 우리 판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많은 예산을 들여 큰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의 스위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 나라 해안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의 거부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서로 여기에 땅을 사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다가는 국가의 장래에 귀중한 것을 빼앗긴다고 보고 법적으로 규제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게 되면 25년 이상 소유할 수 없다. 25년 후에는 반환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100년으로 연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새로 법을 통과시켜 허가가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아버님과 통일사상을 끌어들이게 되면 남미가 살고 자기 나라가 부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14-204, 1981.10.20) p. 897

4 지금까지는 미국이 교회와 정치가 분립된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중심삼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영향권을 확대해야 됩니다. 저변에 영향권을 확대해서 카우사 회원을 1천만 명 이상 돌파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여 4천500만 내지 5천만 명을 기독교권으로부터 흡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버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도 전 기독교인은 물론 전 종교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이 기독교가 우리와 하나됨으로써 로마 교황청을 중심삼고 남미라든가 라틴문화를 배경으로 세계의 기독교권을 완전히 재부흥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147-055, 1986.08.30)

5 남북미에서 하고 있는 카우사 운동은 승공활동과 같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상·하원이 있고, 또한 각 주에도 상·하원 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각 주에 법이 있어서 그 주법에 의해 모든 시책을 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계의 거물들, 유명한 사람을 모두 엮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작전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정계에서 아버님이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183-125, 1988.10.31)

6 미국에서 1천만 승공연합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국제승공연합을 카우사라고 합니다. 카우사 회원 1천만 명 모집운동이 1986년 9월 1일을 기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인을 하고 어떤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에 대해 자기 전 생명과 전 재산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인하는 것은 우리 동양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마음에서 관례적으로 사인을 해왔기 때문에 사인을 하고 가입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미국의 통일교회 모든 식구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와 아버님은 가능한 일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생애를 통해서 해 나온 일은 그 당시 사람들의 안목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 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목을 넘어서 측정할 수 없는 한계 이상의 범위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지도하는 아버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147-170, 1986.09.21) p. 898

7 미국의 일반 사람이나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에서는 '사인을 받아서 카우사 멤버 모집운동을 했지만 그것은 전부 이름뿐이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인을 받으라고 한 것은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사인을 받는 일이 다 끝났다고 해서 손 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1986년 11월 24일 미국에 도착한 그날 저녁에 1천만 명 회원 모집이 다 끝났습니다. 날짜도 맞았습니다.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1천만 명을 이제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소화해야 됩니다. 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벌써 전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 35만 명을 중심삼고 연합운동을 해서 그 목사들을 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150-059, 1986.12.21)

8 미국 기독교가 200년 동안에 유럽 구교문화권의 진액을 빼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지상천국 이념을 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문화권, 통일된 그 세계의 진액을 빼다가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남북미를 중심삼으면 순식간입니다. 신교문화권도 버릴 수 없고 구교문화권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상으로 하시는 지상천국 실**현**이 구교와 신교를 중심해서 1차 2차 실패했으니 이 땅을 대표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중세에 천주교를 중심삼고 이루려던 것을 못 이루었습니다. 두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시대에 구교와 신교를 하나 만들어 지상에 하나님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델 국가를 세워야 됩니다. (267-167, 1995.01.05) p. 899

9 1992년 8월에 모든 것을 끝내고 참부모를 선포함으로써 참부모가 설정되고 지상에 착륙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잃어버렸던 것, 미국과 기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전부가 소생되어 정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횡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종적으로 섰었습니다. 종적으로는 중심이 한 점밖에 없지만 횡적으로는 360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남미를 묶어서 중남미통일연합(AULA)을 만들었습니다. 남미 천주교권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신교와 남미 천주교권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서서 다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235-251, 1992.09.20)

미국 예비역 장성과 국회의원 교육

미국 지도자들을 위한 카우사 교육이 예비역 장성과 목사,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공산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미국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 교육은 카우사 1천만 회원모집 운동과 함께 전개되었다. 그 당시 미국의 지식인·언론인들에게 유행하던 좌경화한 진부사조는 소련을 배후로 한 국제공산주의의 세계적화운동과 맞물려 자유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참부모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혼신을 다해 승공사상운동을 지도하신 것이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공산세력 확산이 저지되고 쇠퇴하게 되었다.

10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먼저 사상전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상전에서 이기려면 대국이라는 미국에서 그것을 다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7천 명의 미국 주 상원의원 가운데 1986년 6월 전까지 3천 명의 교육을 끝낼 것입니다. 미 상·하의원들이 카우사 교육을 받습니다. 통일교회 사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퇴역 장성, 육·해·공군의 사성장국들이 카우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986년 3월이면 50개 주에서 수많은 장성들이 재향군인회 고문이 되어서 재향군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체재가 됩니다. 세계 공산당을 하루속히 제거하기 위한 첨단에서 치열한 투쟁의 기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상전의 첨단에 서서 패자가 되지 않고 승자의 기수를 지금까지 유재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138-031, 1986.01.13) p. 900

11 내가 미국에서 재향군인연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퇴역장군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장단의 사람들을 고문단으로 하여 지방별로 50개 주에서 육·해·공군의 퇴역장군들을 모아서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향토방위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나라를 위하는 데에 이런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느냐? 애국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댄버리 감옥에 있으면서 1985년 국제향토방위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의 퇴역장성들 교육이 다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승공사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행정부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2-199, 1986.03.09)

12 남미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장성들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남미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군사고문단을 중심삼고 군사정보와 게릴라전에 대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세계의 저명인사들은 아버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제향토방위연합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1985년 6월 7일 댄버리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민역사관을 종결지어야 할 천명이 있음을 아버님이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139-138, 1986.01.28)

13 미국에서 공군 육군 해군의 상이군인, 장성급 이상은 이미 우리 카우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으로부터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유명한 사람은 모두 카우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국 재향군인 전체조직의 장까지 연결시키는 운동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남미통일연합(AULA), 아울라라는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권위 있는 장성들은 중남미를 지도해 왔지만 중남미를 위하는 장**성**들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남미를 위할 수 있는 미국의 사성장군 출신들을 31개국에 파송할 것입니다. 아버님이 월급을 줘서라도 파송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게릴라를 박멸하기 위해서 31개국을 연합하여 게릴라 훈련과 더불어 정보 책임자들을 교육해서 초중남미적 군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중남미가 살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아울라 조직이 편성돼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되는 날에는 경제문제는 이 연합기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공산주의를 남북미 기준에서 방어하지 않고는 세계를 적화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기구와 아시아연합기구를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산당이 있을 때가 세계적 기구를 편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님은 남들이 꿈도 꾸지 않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35-256, 1985.12.12) p. 901

3절 공산주의 종언 선언과 모스크바대회

공산주의 종언 선언

참아버님께서는 댄버리 교도소 수감 중 세계 석학들 앞에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도록 지시하셨다. 마침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련 공산제국의 멸망'을 주제로 1985년 8월 13일부터 5일간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당시 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의장을 맡은 시키고 대학의 정치학자인 몰튼 카플란 박사에게 참아버님은 이 같은 선언을 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다. 카플란 박사는 정치학자로서 '멸망할 수도 있다(maybe)'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견해를 표명하였지만 참아버님은 물러서지 않고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말씀하셨다. 이 예언대로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동베를린 국경 50여개 초소가 차례로 개방되면서 28년 만에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또한 1991년 12월에는 1922년부터 존속되어 오던 거대한 공산국가권인 소비에트연방의 해체가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공산주의 체제의 종언은 현실화하였다. (p. 901)

1 아버님은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 것은 다 맞았습니다. 세계는 공식적으로 발전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된다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시작해서 73년을 못 넘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40년 전부터 선포했는데, 73년 만에 공산주의는 깨끗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버님이 예언을 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천지대도의 가는 법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세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245-031, 1993.02.28)

2 소련제국 멸망을 아버님이 선포했습니다. 아버님이 댄버리 교도소에 있을 때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정치학자인 시카고대학의 카플란 박사가 의장이었는데, 그를 댄버리 교도소에 불러다가 소련제국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책을 17권 썼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책들이 다 무효가 되니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소련제국이 멸망할지 모르겠다.'고, '메이비(maybe)'라는 말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안 돼!'하면서 '두고 봐라. 5년이내에 공산당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얘기해!'라고 했습니다. 선포를 해야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결국 5년도 못 돼서 무너졌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님이라고 했지만, 선포하고 나서 이런 천지가 벌어졌으니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야 '위대한 스승입니다. 존경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극비의 사실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닦은 놀랍고도 역사적인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3-275, 1989.10.08)

3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선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공산세계가 무너지게 된 것도 아버님의 공로라는 것을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로도 아니고 미국의 공로도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사상을 가지고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소련 같은 데서 지하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일교회는 수십년 전부터 중국과 소련에서 지하운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소련의 KGB(국가보안위원회)라든가 중국의 정보당국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무너지고 나서 '문 선생의 지하조직이 러시아에 있었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배후의 활동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결국 그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세계의 정세에 맞추어 준비한 것입니

다. (255-107, 1994.03.10)

4 소련 공산당까지 아버님이 해방하려고 합니다. 싸움이 아닌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주의요 아버님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고독이 점령할 수 없고, 사망의 물결이 그 앞에 무색합니다. 공산세계가 총 단합해서 아버님 제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버님은 갈 길을 압니다. 혼란된 세상을 수습할 대안이 어디에 있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대표한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양심이 취하고 몸이 취해서 끌려간다고 할 때 인류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따라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지면 나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163-117, 1987.04.19) p. 903

5 아버님이 댄버리 감옥에 들어가 있던 1984년은 미국이 12년간에 걸쳐 완전히 공산화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것을 아버님이 돌려놓은 것입니다. 공산세력이 미국을 완전히 발바닥으로 밟아치우는 한계의 때가 1984년입니다. 사탄은 그때 아버님을 감옥에 쳐넣으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법정투쟁을 하면서 워싱턴타임스를 만들고, 소련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203-120, 1990.06.23)

모스크바대회

참부모님께서는 워싱턴 모뉴먼트대회 직후 선언하신 모스크바대회를 1990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셨다. 모스크바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이 대회는 전·현직 국가수반 40여 명을 비롯해 60개국의 언론인 정치인 학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1차 세계언론인회의와 제3차 세계평화정상회의, 제9차 중남미통일연합 회의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6 소련 국민 앞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무신론으로 인해 패망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아버님을 세워 통고하라고 하시는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어제는 원수였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를 대하는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73년간 갈라섰던 불효자식이 탕자의 신세가 되었다가 부모를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자를 대하는 부모가 가락

지와 옷을 준비해서 끼워 주고 입혀 준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202-049, 1990.05.01)

7 아버님이 모스크바대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통일회의와 세계언론인회의, 약소민족협회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전 수상협회를 구성해서 소련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할 때에는 전직 국가수반 및 총리 50여 명을 데리고 아버님이 단장으로 갈 텐데, 손을 내밀면 공산당 서기장이 악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유럽 기동대원 수 천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모스크바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4-149, 1981.10.18) p. 904

8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로 소련 모스크바를 들었다 놓는 대회를 하는 것은 1990년 4월에 치르는 세계언론인회의와 세계평화정상회의가 처음입니다. 소련 외무부와 KGB, 노보스티통신사 등을 중심삼고 들었다 놓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의 중요한 측근자 한 사람이 아버님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40년 동안 핍박받으며 수고했지만, 자기가 소련에 돌아가 《원리강론》을 쉽게 번역해서 당을 통해서 3천만 권만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통일교회가 40년 동안 전도한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80, 1990.04.01)

9 아버님이 소련에 가서 소련을 칭찬하고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 대해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소련은 멸망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고 모든 영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바라보는 숨가쁜 판국인데, 거기에 가서 소련을 칭찬하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늘을 섬겨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계에서 '오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231, 1990.04.22)

10 모스크바대회가 노보스티통신사의 예상보다 10배 이상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상상을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소련 역사상에 없는 기록을 깬 것입니다. 또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소련의 KGB라든가 정치국, 노보스티통신을 비롯한 언론계 등 각계 기관장들이 놀랍다고 한 것입니다.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각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님을 참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노보스티통신사가 귀빈으로 정식 초청해서 선물을 증정하고, 그렇게 고마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련을 한번 들었다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탕감조건은 세우고도 남은 것입니다. (201-245, 1990.04.28)

11 공산당을 내 손으로 녹여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민주세계도 이제 아버님의 손으로 구해 줘야 됩니다. 또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구해 줘야 됩니다. 그 모험을 무릅쓰고 탕자와 같은 자리에 선 사람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구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성도 그렇습니다. 1987년에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이 아버님을 죽이겠다고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 사건의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백주에 모스크바에 가고 북한에 간 것입니다. 미국의 CIA와 FBI가 놀라서 제발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 줄 수 있는 키를 돌려놓아야 됩니다. (248-311, 1993.10.03) p. 905

12 1990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모스크바대회 승리 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참부모 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모스크바대회를 승리했으면 승리했지 그 승리한 것이 한국 백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스크바대회를 승리한 것은 아버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통일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에 승리를 가져온 것이고, 아시아에 승리를 가져온 것이고, 세계에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세계적 승리도 세계에서 시작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역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시작은 개인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대회의 시발을 일으킨 아버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섭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자유세계, 민주세계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북한을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갈라져 싸우는 종교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204-060, 1990.07.01)

고르바초프와의 회담과 소련 지도자 교육

모스크바대회 기간 중 4월 11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참부모님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역사적 회담에서는 한국과의 수교, 한반도 통일, 소련 내에서의 종교자유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무신론적 유물론의 미래는 멸망밖에 없으므로 유물론을 폐기하고 종교를 중심한 영적 가치관의 부활을 시도하라고 권고하셨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제안으로 철의 장막에 갇혀 있던 소련과 독립국가연합의 대학생들 및 지도급 인사들의 미국 등 해외연수가 시작되었다. 1990년 7

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380명의 소련 대학생들이 미국 통일신학대학원에서 열린 국제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1991년 1~2월 헝가리의 3곳에서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고, 1991년 7~8월에는 대학원리연구회 주최로 발틱 연안 4곳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차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2년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18곳에서 3천160명의 학생들을 위해 27차례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92년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고등학교 교사들과 독립국가연합의 학생들을 위한 통일원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23곳에서 40차에 걸쳐 7천229명이 참석함으로써 이전의 최다 수련생 참석 기록을 깼다. 그해 여름에는 8주간에 걸쳐 독립국가연합 5개 지역 26곳에서 열린 129차의 세미나에 1만8천42명이 참석하였다. (p. 906)

13 소련이 살 길은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KGB가 무서운 조직입니다. KGB가 무서운 조직입니다. 우리가 언론계를 중심삼고 활동을 해 나왔는데, 모스크바대회는 KGB가 배후조종을 하고 신원보증은 노보스티통신사가 했습니다. 아버님이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공동으로 세계언론인회의를 주최했다는 사실이 소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수수께끼가 뭐냐 하면, 첫째는 아버님이 옥토버스카이라는 호텔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호텔은 쿠바의 카스트로나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버님이 투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났다는 것이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님을 잡아 죽이려고 쑥덕거리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되어서 아버님을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는 노보스티통신사와 우리가 공동으로 언론인대회를 주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73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240, 1990.04.28)

14 소련 방문 일주일 기간에 소련 내부가 완전히 아버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핵심요원, 고르바초프를 중심삼고 중요한 멤버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에 가 있는 미국 대사관, 자유세계의 모든 대사관이 합해도 아버님이 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다 이루어놓았습니다. 이다음에는 아버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 악수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소련을 못 구한다.'고 하면 '그렇소.'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고르바초프가 아버님을 만나

면 좋아하고 간부들도 아버님을 좋아합니까? 소련을 살려 주기 위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빚을 지면서라도 그 나라를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 빚을 져서라도 고르바초프를 살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역사시대에 크렘린궁을 방문한 정치가나 외교관 중에 없을 것입니다. 빚을 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곳이 원수의 나라입니까? 거기에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나라에 사랑을 가지고, 천국의 이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201-229, 1990.04.22) p. 907

15 아버님이 소련에 갈 때 공산주의 계열의 대통령을 7명이나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전직 쿠바 대통령, 예멘 대통령, 나를 소개한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그들입니다. 두익사상을 중심삼고 좌우를 거느리고 가니까 고르바초프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나라가 그 나라들입니다. 이런 것을 이미 다 수습해서 아버님을 중심삼고 모여 있으니 그런 분위기를 잘 이용하는 것은 자연법칙입니다. 일을 되게끔 몰아 나가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맞추어 그것을 타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201-250, 1990.04.28)

16 모스크바에 가서 아버님은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소련이 살 길은 오직 종교적인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종교지도자로서 지내 왔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의 한가운데인 모스크바에서 확실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도 듣고 나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연회에서는 '소련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이 소련이 새로 부활하는 길이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다! 제거당하는 것이다!'라고 더욱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70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러시아 제국이 얼마나 번성했었는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중심에 대해 대항한 것입니다. (216-085, 1991.03.09) p. 908

17 아버님이 소련을 방문해서 모스크바대회를 통해 공산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마르크스와 레닌의 동상을 없애라

고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당신이 앞으로 세계적인 역사에 기록을 남길 만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이름으로 침해된 그 모든 상처를 메울 수 있는 공을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공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겠으니 그가 동상을 때려부숴서 없애 버린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동상을 전부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아버님입니다. (473-175, 2004.10.15)

18 아버님이 소련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스크바여 잘 있거라. 또 다시 올게. 너희가 기다리다 지치기 전에 내가 올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오게 될 때 함성이 들렸습니다. 소련에서 영계에 간 수많은 영인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부디 또 오십시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련에서의 통일교회 터전과 활동은 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소련 위성국가와 소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벌써 1970년대부터 밀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서 보낸 것입니다. 난데없이 사라져 버린 그 사람이 어디 갔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련의 선교사가 되어 있고 그 위성국가의 선교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 나간 줄 알았더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거쳐 온 스승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가야 할 책임의 시대가 왔습니다. (201-336, 1990.04.29)

19 아버님이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한순간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안 만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만났습니다. 그 부인까지 만나고 그 휘하의 중요한 사람들을 전부 만나고 왔습니다. 12년 전부터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저들은 소련 위성국가들을 계몽한 사람이 아버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아버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88년에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왔을 때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누가 쫓아 버렸습니까? 아버님 배후에서 워싱턴타임스를 통해서 쫓아 버렸습니다. 2년 전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버님을 자기 안방에까지 친절히 모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가만히 있어도 소련이 아버님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정부의 중요한 간부 200명을 미국에 데려와서 교육할 것을 계획하고 왔습니다. 유명한 교수들, 경제학 박사들을 데려다가 프로그램을 짜서 가르치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201-220, 1990.04.19)

20 내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15분 전에 고르바초프가 보낸 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아버님에게 '당신이 공산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한 선도적인 입장에서 투쟁역사를 남겼는데 종교인이라면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신을 재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소련의 지도자 3천500명을 4천 명 가까이를 미국에 데려다가 몇 개월 동안 교육한 것입니다. 세상에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CIA는 아버님이 공산주의자들을 미국에 데려와 교육을 해서 전파한다고 야단했지만 결국 아버님을 믿었습니다. 소련을 요리하고 미국에 선도적으로 지도한 실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KGB의 부위원장까지 와서 교육받고 돌아갔습니다. 야당 당수도 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르바초프 정부 때 3일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3천 명의 대학생들이 탱크 앞에 드러누워서 동원된 쿠데타군을 막았습니다. 그 후에 소련 문교부 장관이 아버님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거쳐 온 것입니다. 그 배후에 얼마나 고충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393-012, 2002.09.26)

21 1990년 12월 13일에는 소련과 그 위성국가의 당수들 58명이 미국에 왔다가 갔습니다. 소련과 위성국가는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육받고 나서는 서로 완전히 하나되어 문 파티 클럽, 문당(文黨)을 만들어 놓고 돌아갔습니다. 유럽의 위성국가들을 소련과 합하게 하고 공산권을 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님의 사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클럽을 만들어 위성국가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세계적으로 아버님의 사상을 중심삼고 국책, 국가의 시정방침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213-103, 1991.01.16) p. 909

제3장 유엔 갱신운동과 천주평화연합

1절 유엔 갱신운동

종교유엔과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

참부모님께서는 종교를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종교인들이 주도하는 종교유엔 창설을 제안하셨다.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총회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와 유엔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유엔은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한 상원과 세계 각 국가 대표자

들을 중심한 하원으로 구성하여 유엔을 양원제로 운영할 것을 역설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2003년 10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센터에서 초종교초국가 지도자 1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IIPC) 창설대회에서 '새로운 국경선 철폐와 세계평화'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셨으며, 특히 소망 가운데 창설된 새로운 유엔격인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이날 '지상천국 완성은 천지 개벽 완성'이라는 휘호를 내리셨다. (p. 910)

1 내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종교유엔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세운 제안은 종교가 세계평화를 가져오는 데 선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중심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4대 종교의 교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주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절대적인 하나를 내 세울 때 절대적인 하나의 뜻 앞에 하나의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자가 나왔으면 대표자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종교세계가 하나되어서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종교는 역사적 규탄을 받게 됩니다. (248-212, 1993.10.01)

2 앞으로 세계를 하나님의 뜻 앞에 결속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결속할 수 있는 무대가 유엔총회입니다. 유엔총회는 정치세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연합기구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대표하는 종교와 싸우고 있습니다. 몸을 대표하는 그것이 사탄적 세력권과 중심삼고 마음세계인 종교와 언제나 투쟁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서 세계적인 종교권과 정치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섭리로 볼 때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구가 유엔인데, 거기에 종교유엔이 결합돼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갈라진 것이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1-194, 1994.06.19) p. 911

3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 싸워 나온 세계를 수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아버님을 중심삼고 양심적 확대세계의 종착점인 세계평화종교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싸우는 종교는 다 없어집니다. 몸의 입장인 국제연합을 중심삼은 182개 국가들은 자기 일개국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세계평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용해서 자기 일개국만 잘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권과 종교권을 중심삼은 심신분쟁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종식되어 무신론과 유신론이 싸우던 것을 하나의 대표기구에서 수습해야 됩니다. 유엔에서 수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유엔이 나와야 됩니다. (264-243, 1994.11.03) p. 911

4 사람이 몸과 마음의 두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한 종교유엔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중심한 것은 정치유엔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중심삼고 사탄권 내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정치유엔입니다. 여기에 대치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적 유엔과 같은 것이 나와야 됩니다. 몸 마음이 갈라진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계평화종교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은 몸의 기반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적 기반인 종교유엔을 편성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260-287, 1994.05.19)

5 지금의 유엔은 몸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 양심을 중심한 종교권 대사를 만들어서 정치세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유엔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랑의 세계, 사랑의 주권세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권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세계가 지향하는 본연의 길이기 때문에 만민이 여기에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7-082, 1998.11.15)

6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만**으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이 가담해야 됩니다. 종교인이 본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이면 유엔 자체가 하원이 되고 현재의 유엔에 상원이 생겨야 됩니다. 앞으로 상원은 종교권이 지배해야 됩니다. 야당과 여당을 놓고 본다면 여당은 종교권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 안 된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거짓 부모로부터 갈라진 세계적 판도를 참부모가 통합해야 됩니다. 지금 유엔은 떠 있습니다.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종교권이 정치적 내용까지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유엔, 여성유엔, 종교유엔, 청년유엔, 학생유엔을 창설하여 국가 형태를 만듦으로써 세계평화로 가는 모든 조직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308-236, 1999.01.09)

7 종교인을 중심삼고 아벨유엔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의 유엔은 몸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마음적 유엔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마음과 몸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끊임없는 전장이 되어 온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그치게 만드느냐? 휴전을 하든가 종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세계평화청년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 대학원리연구회가 나왔습니다. 이들 단체를 중심삼고 새로운 아벨유엔을 만드는 것입니다. (285-283, 1997.06.15)

8 우리의 목표는 유엔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모든 조직 기반을 다 갖추고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또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 대사관인데, 우리는 정치세계의 대사관 말고 정신세계의 대사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개발하고, 로마의 교황청과 같이 조건만 갖추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에 가입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계가 합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유엔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성유엔, 그다음에는 청년유엔, 학생유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연합을 만들고, 여성연합을 만들고, 청년연합을 만들고, 학생연합을 만들어서 이들 유엔에 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89-229, 1998.01.02)

9 천주교의 교황청인 바티칸시국이 유엔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종교유엔입니다. 세계 종교유엔과 더불어 연합국을 만들어 종교인들이 돈을 내서 하나의 나라, 종교 문화권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을 중심으로 종교인들이 협력하여 기지를 세움으로써 유엔에 가입시키면 유엔은 완전한 사상무장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에 전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종교적 배경, 사상적 배경이 울타리가 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가정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부모 부부 자녀들이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통일천국, 유엔 도상에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5-093, 1998.03.29) p. 913

10 유엔에 상·하원의 의회 같은 것을 만듦과 동시에 종교권 국가들이 유엔에 대사들을 파송할 수 있게 되면 종교권이 모든 면에서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세력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야 인본주의 사상으로 결렬

된 자유세계를 묶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총회에서 결정하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411-085, 2003.07.08)

11 민족과 국가, 동서양을 한꺼번에 축복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하늘 땅을 하루에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석방도 하루 이틀,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를 일주일 이내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구원시대가 아닙니다. 가정구원시대가 아닙니다.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가 하늘 편 아벨유엔의 상징입니다. (457-113, 2004.07.02)

12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화왕국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을 중심삼고 영계의 모든 전부가 공식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을 넘어 2001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그 정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를 설립하게 될 때 아벨권 유엔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 편을 중심삼고 아벨권이라 하면 개인시대 가정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권은 지금까지 사탄이 지배하던 그 세계를 넘고 낙원과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아 지옥에서부터 8단계를 넘어선 아벨권 국가 형태가 내적으로 설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는 아벨권 유엔으로서 가인권 유엔을 포섭해야 됩니다. 가인권 유엔은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지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시작한 것이 평화유엔입니다. 가인유엔과 아벨유엔이 하나된 것이 평화유엔입니다. (430-197, 2004.01.03) p. 914

13 이제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 즉 평화유엔시대이니 가인유엔시대는 지나갑니다. 평화유엔시대라는 것입니다. 평화유엔시대를 위해 만든 것이 평화대사입니다. 세상에는 평화유엔도 없었고 평화대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제사장, 평화의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430-210, 2003.12.25)

14 헌법이 없으면 부처별 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평화유엔시대이기 때문에 입법·사법·행정·교육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교분리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 상원과 같은 종교의회를 세우지 않고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가인유엔을 대신해 아벨유엔을 만든 것입니다. 아

벨유엔은 가인유엔을 이겨야 됩니다. 유엔이 상대가 없습니다. 종교권이 없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유엔의 이름을 세워 평화유엔으로 간판을 붙이더라도 참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439-241, 2004.02.23)

아벨유엔과 유엔 갱신의 방향

참부모님께서는 세계평화가 자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존 유엔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초종교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상원을 두는 것으로 유엔을 개편해야 된다고 밝히셨다. 기존의 가인권 유엔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벨유엔 창설을 제창하셨다. 그리고 2007년 9월 23일 미국 뉴욕의 맨해튼센터에서 전직 국가수반 등 회원국 대표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벨유엔 창설대회를 개최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가인유엔에 대비되는 아벨유엔으로 여성유엔, 청년유엔, 학생유엔, 종교유엔 등을 제시하셨다. 특히 참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참부모유엔을 만들어서 인류를 품을 때 지구촌 한 가족 이상이 구현될 것으로 보셨다. 그리고 2012년 7월 16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아벨여성유엔을 창설하셨다.

15 이제 내가 아벨유엔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 세계평화반도국가연합, 세계평화대륙국가연합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나라 지도자들이 '유엔을 믿지 말고 우리가 아벨유엔을 만듭시다!'라고 하면 세계가 어디를 따라갈 것 같습니까? 그 목적은 청소년과 가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함으로써 평화가 벌어집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99-274, 1999.02.18) p. 915

16 아벨유엔을 선포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든 무엇이 있든 아벨유엔의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입니다. 천하의 방방곡곡 주인이 없던 그곳에 주인이 일시에 나타나서 주인을 싫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훈련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는 명령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넓고 큰 문을 열어 놓고 환영하며 대하는 거기에 들어와 수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33-072, 2006.07.20)

17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천년 전부터 계획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처럼 계획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처럼 재림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아버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계까지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유엔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유엔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동원하여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아벨유엔이 나오게 됩니다. 아벨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세계가 하나됐던 것과 같은 새로운 세계를 중심삼고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주면 한 방향으로 수습되어서 세계가 천주와 더불어 하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8-226, 2003.09.24)

18 이제부터는 아벨유엔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러시아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유엔의 결정적인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으려면 제일 효과적인 곳이 미국 워싱턴이 아니라 유럽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스위스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정부체제도 연합적인 책임자들이 1년씩 책임져서 엇바꾸어 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곳도 잇구나! 통일교회 교인들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장소로 적당한 곳이 이곳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차결혼해서 연합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곳,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제네바가 그런 곳입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마를 맞대고 서로 인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결혼만 하면 진짜 한집안이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14-057, 2006.01.04)

19 아벨유엔은 가인유엔을 투쟁해서 때려잡는 것이 아니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안 따라갈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 나라가 전부 가인과 아벨의 두 패로 되어 있는데, 가인은 아벨, 하늘의 권속 앞에 따라오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서 만물을 지었던 그 기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통일교회보다도 충성을 더 해야 될 것이 가인세계입니다. 가인유엔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아벨을 위해 피를 흘리면서 아벨 개인시대, 아벨 가정시대, 아벨 종족시대, 아벨 민족시대, 아벨 국가시대, 아벨 세계시대까지 위해야 됩니다.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유심세계를 쫓아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방어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부모가 와서 수습했기 때문에 참부모의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아 미래의 국가와 세계가 더 번창할 수 있는 기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576-040, 2007.09.26) p. 916

20 우리는 각 나라에서 유엔에 파송한 요원들과 일심일체가 되어 유엔에 협조함과 동시에 그들에게서 아벨유엔에 가입한다는 결의문과 결의서를 받아놓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아벨유엔과 모든 평화기구를 중심하고 한반도에 평화지역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정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벨유엔을 한국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한의 경계선 전체가 전 세계 국가들이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412-323, 2003.07.21)

21 아벨유엔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판문점 평화지대 내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제3 이스라엘인 한반도에 세울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최후의 결말을 짓지 위한 것이 2003년 8월 15일 세계평화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서울평화선언, 즉 제3 이스라엘선언입니다. 제1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 제3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거기에 협조하고 주변 국가도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15-177, 2003.08.14)

22 아벨유엔과 가인유엔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유엔을 중심삼고 통일적인 대가족을 확장한 하나의 국가 형태의 세계로 돌아가야 지상·천상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시대의 타락의 흔적이 없는 사랑의 정착시대를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회복해서 맞추는 자리이니만큼 천지의 **해**방권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426-297, 2003.11.28) p. 917

23 아벨유엔 설정은 가인유엔을 포섭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유엔 자체가 우리를 반대하고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갈 길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벨유엔이 형님의 자리에 서서 부모님이 가진 모든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상속해서 형님 것까지도 넘겨줄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일을 해서 평화유엔을 설정해야 됩니다. 평화유엔이라는 것은 하나된 것을 말합니다. 유엔이라는 말은 국가 개념이 있지만, 아벨유엔이라는 말은 국가 개념, 국가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상에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왕권 제도도 있지만 대통령제도 있습니다. 사탄세계의 왕권이 무너져 형제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가정을 중심삼은 왕권시대로부터 국가·세계·천주 왕권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왕권 세계를 바라보는 통일교회의 모든 제도는 이제부터 아벨유엔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20-187,

2003.10.11)

24 평화유엔은 가인유엔과 아벨유엔이 하나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유엔은 이미 무력한 유엔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에 평화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가 왔기 때문에 비로소 가인유엔과 아벨유엔이 하나된 평화유엔이 나온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어 참부모를 중심삼고 망할 수 있는 유엔이 아니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엔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평화유엔이 나오는 것입니다.

25 유엔이라는 것이 먼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입니다. 그 위에 내가 서야 됩니다. 유엔의 주인입니다. 아담 해와가 유엔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평화유엔을 부모님이 주장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사탄세계에 자연굴복의 환경을 다 만들었으니, 그 만들어 준 환경에 질서를 세워 자유 평준화가 되게 하여 행복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세계 대표의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유엔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권 중심기반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일이라는 것입니다. (424-307, 2003.11.09)

26 평화유엔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결속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없이는 사탄세계의 가인유엔 기반을 대등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들이 연합한 국가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가정, 세계 가정을 중심하고 국가를 넘는 기준으로 해서 평화유엔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427-260, 2003.12.08) p. 918

27 아벨유엔은 부모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화합·통일·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유엔이 아니고 부모유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유엔의 왕이 참부모입니다. (594-085, 2008.06.24)

28 앞으로 가인유엔 시대를 지나고 아벨유엔의 시대를 지나서 참부모유엔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엔 둘이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참부모를 중심한 새로운 평화통일을 위한 참부모유엔시대입니다. (600-244, 2008.11.01)

29 이제 개인에서부터 전 세계가 부모유엔을 중심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하늘나라의 법이 나와야 됩니다. 헌법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법 없이 살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시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걸어온 그 길을 중심삼고 여러분도 같은 발걸음, 같은 고개를 넘어선 같은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문된 천국의 세계에서 지옥문과 천국문의 두 문이 아니라 한 문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611-044, 2009.05.05)

30 이제는 가인·아벨유엔이 아니라 부모유엔의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부모유엔은 가인 아벨유엔을 알아야 부모유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임분담 해방·석방권 선언교육입니다. 책임분담 해방권 선언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참부모가 참부모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참부모와 하나되어 참가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종족·참민족·참국가·참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참사랑 평화통일 조국광복은 부모유엔 천국나라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조국이 없었습니다. 참부모님이 찾고 있는 평화통일 조국광복은 참부모님의 유엔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총동원해야 됩니다. (601-055, 2008.11.03)

31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계평화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연합을 유엔에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유엔에 가입시키면 통일의 세계로 넘어 가는 데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강력한 단체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연합이 유엔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것이 문제없습니다. 퍼스트레이디들이 여성연합의 회원으로 유엔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일 유엔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뿌리가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도자세계, 정치세계, 대학세계 그리고 젊은이의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의 퍼스트레이디들이 여성연합의 회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퍼스트레이디를 자동적으로 유엔 대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267-184, 1995.01.05)

32 여성유엔이 벌어지면 세계에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여자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을 못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버님

입니다.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해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유엔이 생기면 각 나라의 대통령 부인, 총리 부인들이 그 나라 여성유엔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251-095, 1993.10.17) p. 919

2절 국가메시아와 분봉왕

국가메시아는 참부모 대신자

참부모님께서는 1996년 1월 1일 미국 세계선교본부에서 거행된 하나님의 날 기념식에서 33년 근속 공직자들과 21년 근속 해외 선교사들에게 시상을 하시고 청평 40일수련을 거칠 것을 지시하셨다. 그 후 교육을 마친 이들을 국가메시아로 임명하셨다. 국가메시아는 참부모의 분신이 되어 국가복귀의 사명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다. 국가메시아는 참부모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로써 찾으신 심정과 말씀, 혈통전환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p. 919)

1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어떻게 복귀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와 국가메시아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184개국에 국가메시아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국가메시아는 예수님 때의 종족적 메시아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중심삼고 축복가정들이 파송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파송되는 것은 직접주관권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천국이 출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세계의 사람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메시아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착지는 직접주관권입니다. 직접주관권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282-030, 1997.02.16) p. 920

2 국가메시아는 예수님의 해원성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원성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적 메시아를 세워 국가를 통일해서 로마를 소화해야 될 것을 책임 못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세계의 로마격인 미국이나 남미를 중심삼고 선도적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할 수 있는 시대적 운세는 지나갔습니다.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세계적 메시아의 자리에서 국가메시아를 파송한 것입니다. 국가메시아가 책임 못하여 한두 나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한 나라를 가지고 이루려고 한 것이 184개국의 전체 균형적인 이스라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같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교량을 놓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 국가메시아입니다. 그 나라의 어려움은 그 나라의 메시아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팔고 일족을 팔더라도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남북미를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님과 같은 정신으로 통일적인 일획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계획 밑에 같은 형태로 이루어야만 하늘이 협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협조 안 합니다. 국가메시아는 그 나라의 총독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권을 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282-333, 1997.04.07)

3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이 네 나라 축복가정들이 184개국에 들어갑니다. 주된 이 네 나라의 가정들이 한 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184개국에 4명씩 하면 736명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가정이 모자라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 가정을 보충시킬 것입니다. 독일에는 이탈리아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7개국의 대사관을 대할 수 있는 가정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7개국 사람들이 가서 참가정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가정운동은 순결운동이고 참사랑운동입니다. 아담 해와가 가정에서 순결을 잃어버리고 참부모를 잃어버리고 참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탕감해야 됩니다. 이 모든 가정들이 한 책임자, 한 부모 밑에서 하나되어 세계와 그 나라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표들은 종족메시아나 가정메시아가 아니고 국가메시아 입장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메시아의 가정 그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메시아를 184개국에 배치했으니, 이것이 복귀되면 자동적으로 세계메시아권은 해방이 벌어집니다. 왕권복귀, 지상천국이 현현할 수 있는 출발의 운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78-326, 1996.06.23) p. 921

4 아버님은 세계 해방의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 천주적 메시아, 하나님까지 해방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국가메시아의 자리에 올려 줄 테니까 아버님과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때에는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그 나라에 가져다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버님과 같이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로서 가정적 메시아 180가정을 중심삼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갈 때에는 그들을 대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주체적 메시아 자격으로 가서 그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가인과 아벨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 나라의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하나로 만들고 각료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서 국가적 전환점을 이루어 일시에 국가를 접붙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아버님이 이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담 완성, 예수 완성, 재림주 세계 완성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님 가운데는 예수님도 들어가 있고, 아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사탄이 사다리를 꺾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다 굴복했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속도로가 닦아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40년 걸려서 승리한 것**을** 여러분은 4천년이 걸려도 못 올라갑니다. 그 승리한 사다리를 여러분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279-168, 1996.08.04) p. 922

5 국가메시아는 역사상에 처음 있는 간판인데, 세상에서 만년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하늘나라 건국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281-170, 1997.01.02)

6 국가메시아는 국가의 아버지입니다. 국민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을 교육하고 각료들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교육해서 국회의원으로부터 각료, 대통령까지 될 수 있게끔 길러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도 안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286-188, 1997.08.10)

7 국가메시아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감동할 수 있게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가 같이 먹고 자면 안 됩니다. 부모라면 못 그럽니다. 본을 보여 줘야 됩니다. 문제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을 보여 주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도적입니다. 위해 살라고 말했으면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죽는 시간까지 위해 살아야 됩니다.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간다고 할 때에는 눈물과 피살을 에이는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며 가야 됩니다. 죽고 나서도 위하는 세계에 가야 됩니다. 그 방대한 화대세계에 보조를 맞춰 가려면 다방면의 구조적 형태가 파트별로 분립되어 있

는 거기에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랑을 중심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7-190, 1998.11.20)

8 국가메시아는 하나님 대신 투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개인으로 투입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정이니 무엇이니 전부 자기가 책임진 나라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돌아가겠다고 하면 벌 받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명령을 하더라도 사랑을 투입하고 생명을 투입하면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탄 혈통을 근절해야 됩니다. 강제로 근절할 수 없습니다. 자연굴복시켜야 됩니다. 재창조 역사가 그렇습니다. 절대적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데서 하나님의 환경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위업이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메시아는 국가를 위해서 투입하는 참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나 토지를 남겨 놓고 '이다음에 돌아가서 살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287-268, 1997.10.05) p. 923

9 국가메시아는 그 나라에서 참아버지를 대신하고 참어머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메시아 부부는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를 대표한 부부들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 인연은 선조로부터 지금 시대까지, 또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조들이 많으면 선한 선조들을 중심삼고 인연된 전부가 지상과 접촉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선조들이 인연된 후손들을 통해서 지상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그 나라의 책임진 사람들과 비교할 때 높은 위치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사탄세계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데에 선도적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천사세계가 조상의 선한 실적을 가진 후손을 찾아와서 협조하려고 하는데, 협조하는 그 대상이 높은 위치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 위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메시아는 고위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메시아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대통령, 왕이면 왕을 대신한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 전ㅊ체를 고루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체 하늘의 운세가 그 나라에 찾아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6-195, 1997.08.11)

10 국가메시아는 그 나라에 종교지도자가 있으면 그 종교지도자가 정성들이는 것 이상의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 나라에 애국자가 있으면 그 애국자들 앞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보다 더 정성들이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메시아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갈수록 중요한 분야, 많은 분야에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일생은 고달픈 생활입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사는 것보다 고달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달파도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메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입장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 대신, 부모님 대신 가정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과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그 땅에 찾아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재창조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재창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6-198, 1997.08.11) p. 924

11 국가메시아라는 자리는 아버님과 하나님 앞에 조약을 걸고 세워진 조건적인 책임입니다. 자유 전통에 젖어 살고 한국에서 살던 그 습관성을 갖다가 거기에 세울 수 없습니다. 새로워야 됩니다. 시대적인 평준화 기준에서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도 다 잊어버리고 옛날같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는 큰 벼락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몇 개 종족이 망하면 그 나라가 갈 길을 못 갑니다. 나라까지 망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합니다. 일생 동안 의심을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약속한 것은 언제든지 찾아가서라도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조건을 벗어나 나를 참소할 수 없게 하늘에 합당한 조건을 세움으로써 자유해방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메시아가 조건적인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대신 책임을 지고 갔으니 아버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나라에 복을 분할해 주어야 합니다. (286-210, 1997.08.11)

12 국가메시아는 자기가 소속된 나라의 어떤 식구들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잘 때에는 늦게 자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옷을 못 입고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

고 식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국가적 전권행사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286-224, 1997.08.11)

13 국가메시아는 마음을 중심삼고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지지 않는 경제인이 되어야 하고, 종교분야에서는 심령세계를 논의하고 모든 신앙 전통을 논의하는 데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당할 수 없는 주체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7-179, 1997.10.03)

14 국가메시아는 아버님이 가던 생애노정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세계로 가야 됩니다. 내가 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벌어서 자립 자족을 해야 됩니다. 국가메시아는 종족적 메시아를 배치해야 되고, 가정적 메시아를 그 나라의 일족을 중심삼고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족은 자동적으로 대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80가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고는 자기 종족적 메시아의 계대에서 그 상대적 나라를 살려 주어서 세계를 대표한 가인 나라를 중심삼고 벌려 놓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 일족을 중심삼고 일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80-318, 1998.02.02) p. 925

15 국가메시아는 종족적 메시아권을 확보해야 되고, 가정적 메시아 완성을 중심삼고 사탄세계의 가정을 이땅에서 정비해야 됩니다. 사탄 혈통을 단절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영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고 지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가 따라갈 수 있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국가메시아가 따라갈 수 있고, 국가메시아를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따라갈 수 있고,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가정적 메시아가 따라갈 수 있는 통일된 구조적 형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이념입니다. 지금까지 비어 있던 천상세계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맞춰 놓아야만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담 해와를 지으시던 본연의 마음과 사랑의 실체권을 다시 찾아 이 사랑의 실체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적 기준을 중심삼고 국가 형성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본연의 자리에 돌아왔다는 조건을 성립시켜 하나님의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국

가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국가메시아는 아벨 왕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297-180, 1998.11.20)

16 영계의 해방된 나라에 가게 하고 국민을 축복해 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메시아를 배치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부터 국민 한 사람까지 축복해야 됩니다. 국가메시아는 국가에 보낸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94-106, 1998.06.14)

17 국가메시아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무슨 시대가 오느냐? 국가메시아들이 책임을 완수하게 된다면 지상천국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대가 눈앞에 오는 것을 맞이해야 될 책임자들이 자유로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 시작도 끝도 자기를 중심삼고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 분야가 전부 영향을 받고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메시아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메시아라는 말이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동기가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없고 형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부모의 혈육을 통해 태어난 자식이 참부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모든 것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국가메시아는 아버님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동하던 모든 습관적 체제, 혹은 자기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노정에 맞추어 나아가야 할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식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83-009, 1997.04.08) p. 926

분봉왕

참부모님께서는 2008년 4월 13일 처음으로 국가메시아 중에서 일부를 분봉왕으로 임명하셨다. 참부모님은 세계 각지로 파송되는 분봉왕들에게 신천신지, 즉 천일국을 완성하기 위한 역할을 당부하셨다. 분봉왕은 예수님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의 지역 총독을 일컫는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당시 강성했던 로마를 통해 세계 전역에 분봉왕들을 파견함으로써 해방·석방의 평화왕국, 즉 천일국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분봉왕들은 각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교육하고 뜻 앞에 세워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셨다.

18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에 부모님과 더불어 자녀들을 동참시켰습니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딸이 하나되어서 대

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핏줄을 맑히는 것은 아버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난자와 정자를 중심삼고 둘이 하나되어야 핏줄이 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갈 길을 닦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국가적 기준에서 120개국 분봉왕을 배치해야 했던 것과 같이 그 나라의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 120개국 순회노정입니다. 로마시대의 예수님과 같이 분봉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분봉왕은 하늘의 총독입니다. 자기 나라의 대신으로 총독의 자리에서 핏줄을 맑힐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사탄의 핏줄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533-280, 2006.07.29) p. 926

19 분봉왕은 지금까지 왕을 거친 사람들을 하나되게 해야 됩니다. 그 왕들이 여섯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가운데서 모범적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뽑아 추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뜻이 게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 해서 추첨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가정에서도 주인이 됩니다. 제멋대로 뜻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엄격한 공식과 원칙에 따라서 질서세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우주가 부딪치지 않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멀고 먼 땅 끝에 있더라도 그 법도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탈락해 없어집니다. (592-322, 2008.06.13) p. 927

20 국가메시아는 옛날 로마시대의 분봉왕과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으로서 아벨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나라에 분봉왕과 같이 국가메시아가 되는 사람은 대사를 임명해서 완전히 하늘 편에서 당장 그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390-107, 2002, 08.05)

21 이제부터 194개국에 분봉왕을 임명해야 됩니다. 분봉왕은 그 나라에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가인 아벨의 왕권 위에 부모 왕권을 세워야 됩니다. 하늘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보다 분봉왕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602-117, 2008.11.13)

22 천일국, 평화왕국의 기금으로 각 나라에 대사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가의 분봉왕이 거기에 가야 합니다. 로마로 말하면 분봉왕은 총독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맏형님이 되어 분봉왕으로 파송될 때가 됐습니다. 여

러분은 세계 조상의 자리에서 국민을 지도해야 될 간판을 갖고 나온 무리입니다. 여기에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왕국은 축복가정들의 참조국입니다. (500-136, 2005.07.10)

23 국가메시아는 로마에서 파송한 분봉왕과 같습니다. 분봉왕은 로마로 말하면 총독입니다. 총독은 그 나라의 국민을 살려 줄 수 있는 아벨적 왕입니다. 국가메시아가 그 나라의 대통령을 중심삼고 분봉왕의 자리, 총독의 자리에서 하나되어야 하는데 하나 안 되었습니다. 이제 조건적으로라도 돌아가서 뜻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통고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축복가정이나 식구가 있으면 그 나라의 책임자와 하나되어 그 나라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단계에 사는 빈민촌 사람들까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님은 재림주이고 구세주이며 참부모라는 것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16-128, 2006.02.04) p. 928

24 194개국에 분봉왕과 평화대사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국가메시아로 배정받은 책임자들은 분봉왕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봉왕은 평화대사들을 직접 관리해서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시일이 많지 않은데, 빨리 그 일을 끝맺지 않으면 안 될 소명적인 책임이 분봉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009.10.31, 천정궁)

25 국가메시아는 분봉왕으로서 그 나라 국민을 교육해야 됩니다. 국가메시아가 그 나라의 왕을 교육하고, 그 나라의 왕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 지시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님은 그런 자격자가 되고도 남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를 다 만들어 주고 지금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평화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 평화의 왕입니다. 아버님은 평화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왕인 동시에 만국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같이하시는 것입니다. 수천수만년 동안 갇혀서 꼼짝 못하시던 하나님을 내가 문을 열고 해방시켜 드렸습니다. (597-293, 2008.09.14) p. 928

3절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뿌리찾기운동과 참부모님

1989년 6월 23일 한국뿌리찾기연합회는 참부모님을 총재로 추대하였습니다. 참부

모님께서는 각 성씨들이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축복결혼을 통해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이어받으면 그만큼 인류 복귀가 쉬워진다고 보시고 이 단체에도 많은 지원을 하셨다. 그리고 뿌리찾기운동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받아 참자녀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p. 928)

1 우리에게는 뿌리 찾기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과학이면 과학의 뿌리, 철학이면 철학의 뿌리, 종교면 종교의 뿌리가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뿌리를 찾는 뿌리찾기연합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뿌리찾기는 결국 무엇이냐? 평화니 사랑이니 통일이니 이상이니 봉사니 하는 것의 뿌리는 절대적 하나님입니다. 절대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본주의 사상이 철회되어 버립니다. 이 근본 뿌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493-079, 2005.04.21) p. 929

2 뿌리찾기연합회 가운데는 안 들어 가는 계열이 없습니다. 세계에 영향을 주겠다고 움직이는 모든 분야, 역사나 과학이나 종교 등 모두가 뿌리찾기연합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과학자 등 그 전부의 뿌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찾기 운동을 세계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뿌리찾기연합회는 먼저 몽골반점동족을 몽골반점혈족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족을 찾자는 것입니다. 혈족은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혈족의 조상이 뿌리가 됩니다. 몽골반점혈족의 조상은 하나님 외에는 지상에 참부모 밖에 없습니다. 전부 거기에 귀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93-081, 2005.04.21)

3 뿌리가 둘일 수 없습니다. 중심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진리와 이론적인 세계관은 종교에서 찾아야 됩니다. 종교 가운데 통일적인 운동, 평화운동으로써 한 뿌리의 근원은 인격적 신인 동시에 유교사상이나 불교사상 등 모든 것을 초월한 단일적인 뿌리라는 것을 결론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원리에 결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여러분 축복가정은 단일 동족입니다. 북에서 온 사람이나 남에서 온 사람이나 모두 동족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김씨 박씨 문씨 등 286성씨가 단일종족입니다. 단일 몽골반점동족을 묶어서 새로운 혈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상통일 혈족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축복결혼을 통해 하나의 혈족을 만들면

세계 인류의 70퍼센트 이상, 3분의 2 이상이 몽골반점동족이기 때문에 세계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경계선이 없는 한 주인 아버지의 소유가 될 때에는 세계평화의 왕 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뿌리의 근본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93-304, 2005.04.26)

5 아시아 국가의 대다수가 몽골 혈족입니다. 중동도 절반은 몽골 혈족이고, 백인세계도 그렇습니다. 몽골반점동족과 결혼하면 몽골반점동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핏줄이 같은 선민권, 이제 참부모로 핏줄이 연결된 모든 혈족을 중심삼고 뿌리찾기연합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 뿌리찾기연합회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해방과 석방시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태평성대, 영원한 하나의 왕국시대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핏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몽골반점의 핏줄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니 축복을 순식간에 해야 됩니다. (467-105, 2004.09.02) p. 930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창설

2004년 9월 23일 서울에서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MPFWP)이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전 세계 70퍼센트에 이르는 몽골반점동족을 묶는 범세계적인 평화연합체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창설 선언문에서 '인류역사는 종교나 이념 등의 장벽이 철폐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참사랑·참가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화해 협력, 공생공영, 원형 회복을 통해 평화세계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을 창설한다.'고 밝히셨다. 그리고 세계 인류를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몽골리언들이 먼저 단합을 하고 선구적인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셨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몽골반점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인류를 형제자매의 인연으로 묶으려 하신 것이다. 특히 몽골반점동족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보존해야 될 주역들이며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이 장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6 타락한 세계를 혁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 대해 부모님이 국경철폐를 선언했습니다. 유엔이 그것을 하지 않아서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몽골반점동족이 세계에서 70퍼센트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여러분같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결혼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천하에 통일적인 유대관계가 설정될 것이고, 또 몽골반점동족이

부모님 말대로 하나되어서 왕권즉위식과 대관식을 하면 국경이 없어질 것입니다. (473-196, 2004.10.15)

7 몽골반점동족은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남미 끄트머리에도 몽골반점동족은 있습니다. 또한 남극을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 국가들 사이에도 끼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끼리 통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동족이라면 한 동네나 한 집안에서 서로 어울려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국경이란 말이 끼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마음적 분야의 통일교회 사람들과 외적 몸적 분야의 몽골동족이 통일교회 신앙과 가치관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세계가 완전히 묶어질 수 있는 동족 형태의 무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469-257, 2004.09.21) p. 931

8 지상에서 나라를 하나 만들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국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대하거나 참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권의 평화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이어졌을 경우 평화의 나라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새롭게 출발되는 것입니다. (467-183, 2004.09.04)

9 인류의 70퍼센트 이상이 몽골반점동족입니다.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이 유엔 위에 서는 날에는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연합회 총회에서 부를 때에는 안 올 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유엔총회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벨유엔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국경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국경이 없어지면 어디든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몽골반점은 동족입니다. 동포는 동족이 아닙니다. 핏줄이 다른 사람도 포함해서 협조할 때 동포가 되지만 동족은 아닙니다. 동족은 조상의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들이 가지가지 다 있지만 그 얼굴이 조상의 얼굴을 많이 닮아난 사람은 조상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연대관계가 있습니다. 동족은 핏줄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수천수만년 역사의 열매입니다. 수천수만 조상의 핏줄들이 연결되어 유전성 법칙에 따라 어느 시대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백인 가정에서도 흑인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로 맺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상을 대신한 나이고, 또 연대적인 하나의 세포를 연결하게 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후손까지 핏줄을 통해 연결

되는 매개체의 나라는 것입니다. 핏줄만 딱 잡아당기면 전부 끌려 나오게 됩니다. (470-136, 2004.09.25)

10 전 세계적으로 혈통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혈통전환을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전환을 해야 되고, 소유권전환 전에 심정권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심정권전환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전환도, 혈통전환도 필요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혈**통전환 소유권전환 심정권전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진국이요, 부자 나라인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신이 분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버님은 몸이 어디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분쟁한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양심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양심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혁명을 해서 한 단계 차원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476-232, 2004.09.07) p. 932

11 제4 이스라엘 해방권에서는 핏줄이 하나되어야 하고 뿌리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제4차 이스라엘국, 즉 통일되고 해방된 선한 만왕의 왕의 주권을 중심삼고 가정을 확대한 국가, 가정을 확대한 세계를 이뤄야 됩니다. 가정이상으로 일원화된 국가들을 규합해서 세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늘땅을 중심한 가정적 국가 형태의 모양이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을 부모로 한 모든 축복받은 혈육은 자녀의 자리에서 안식 태평성대의 우리 본향, 본연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467-106, 2004.09.02)

12 재림주님이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선민권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한을 제거하고 부활의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가로막아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절대적인 기준에 서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랑과 생명, 그리고 혈통의 기원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소화·흡수해야 될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혈통전환을 위한 축복의 소식을 이 땅 위에 가지고 온 참부모를 반대하는 사탄세계, 천상세계와 지상지옥에 처해 있는 모든 인류가 반대하는 그 자리를 개인적인 성별권으로 축복을 이었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축복을 해서 이뤄진 성별권 위에서 비로소 개인의 축복가정왕으로부터 종족의 왕, 민족의 왕, 국가의 왕, 종교권을 중심삼은 초종교·초국가적 왕을 대신하

게 되었습니다. 제2 이스라엘권인 미국의 상·하원을 중심삼고 종교 창시자들과 종교의 지상 대표들이 합심일체가 되어 이름을 잃어버렸던 참부모 되는 참사랑의 주인, 참생명의 주인, 참혈통의 주인을 중심삼고 사탄세계의 수많은 가인적 왕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원불변의 평화의 왕권을 수립하여 신앙계의 일치권에서 승리의 **패**권을 갖춰 가인권 대표 나라인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잃어버렸던 형제권 전체 일체권을 이루어 왕권을 봉헌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 기간에 참부모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인세계의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와 하늘땅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벽을 헐고 평형기준에 공동적인 가치의 자리를 세워 핏줄을 중심한 축복해방권을 갖추어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담 가정에서부터 뒤집어진 모든 혈육을 다시 한 번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을 대표한 평화의 왕으로서 하늘이 세우신 그 왕권과 가인세계의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을 중심삼고 지상과 천상세계의 해방적 승리의 패권을 전수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470-165, 2004.09.26) p. 933

13 평화의 왕은 하나님이요, 또 평화의 고향과 평화의 조국은 하나님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구성에서 사는 인류이기 때문에 다 형제요 하나의 핏줄이요, 하나의 동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은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춰졌던 사실을 언젠가는 밝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삼고 몽골반점동족세계평화연합 대회를 했습니다. 이 대회는 하나님 아들딸의 대회, 하나님 가정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478-283, 2004.12.02)

14 몽골반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세계의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어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핏줄이 섞여 있습니다. 오대양 육대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핏줄이 섞인 것입니다. 동족이라 해도 핏줄이 다릅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기 위해 국가를 넘은 축복기준 위에서 몽골반점동족권을 몽골반점혈족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혈족은 핏줄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505-237, 2005.08.28)

15 내가 종교인들이 하나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어 몽골인들도 결속함으로써 한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인 아벨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

움을 해왔지만 비로소 평화의 승리의 깃발을 이 땅 위에 꽂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아담 해와의 한을 해원한 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며 대성통곡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눈물로 이별했는데 눈물로 탕감복귀해서 하늘 본연의 자리에 입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리 잡고 그 백성이 만천하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서하는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511-204, 2005.10.12) p. 934

16 몽골반점동족을 축복으로 결속하는 것은 국경을 철폐하는 운동입니다. 아시아의 37개국이 모두 몽골반점동족입니다. 거기에는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미국 초대 이주민 가운데 30퍼센트는 몽골반점동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일원리로 묶게 되면 세계평화는 문제없습니다. (467-166, 2004.09.04)

17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통해서 가인세계를 흡수할 때가 왔습니다. 선한 왕권이 시작했으니 이제 찾아야 할 것은 초종교권·초세계권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장자가 차자를 죽이지 않고 부모의 대신자 되는 장자권이 성립됐다면 가정이 완전 정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몽골반점권을 동족화해서 형님의 자리에 세우고 형님의 권위를 세워 동생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해야 천사세계, 사탄세계와 지옥까지도 해방이 벌어집니다. 해방의 원칙은 가인세계를 형님의 자리에 모시겠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의 세계가 됩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혈통적 근원을 접붙임으로써 완전해방의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468-161, 2004.09.13) p. 934

4절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정상회의와 세계평화연합

1987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20명의 전직 국가수반이 모인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 세계평화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평화연합의 중심에는 전·현직 국가원수들과 세계 저명인사들의 회의와 토론의 장인 세계평화정상회의가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1991년 8월 28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세계평화연합을 창설하셨다. 이것은 1990년 참부모님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회담이 계기가 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창설대회에서 각국이 이윤 추구만을 위한 경제중심

의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고 밝히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정상들의 모임을 제안하셨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의제를 중심으로 세계평화실현 문제를 논의해 왔다. (p. 935)

1 재림주로 오시는 참부모는 제3 이스라엘의 통일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협조하고 이스라엘이 협조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통일교회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부모님과 관계되어 있는 세계적인 모든 인맥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평화정상회의를 결성한 것입니다. (241-079, 1992.12.19) p. 935

2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공산주의, 둘째 종교의 몰락, 셋째는 청소년 윤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은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세계 지도자급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외적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입니다. 전세계 종교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피폐한 이 종교를 어떻게 재부흥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아버님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을 모으고, 이 세계 수많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을 중심으로 정상회의를 만들어 차원 높은 면에서 미래 세계의 갈 길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선을 넘어서서 실천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학계에서도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고, 세계 지도자층에서도 이 세계를 공산주의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외적 세계는 절대가치를 중심삼고 세계의 지성인들을 규합하는 데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117-045, 1982.01.31)

3 세계평화정상회의를 만들고 최고의 학자들을 엮어서 그 나라의 꼭대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이제 정상회의를 만들어 놓으면 한 나라에 못해도 전직 대통령이나 수상이 세 사람 이상은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현지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나라의 최고 학자들과 최고 권위 있는 사람과 그 나라의 전현직 대통령이 아버님을 좋다고만 하게 되면 세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119-018, 1982.07.03)

4 1995년 세계평화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각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가인권입니다. 새로운 왕권을 기약하러 오시는 부모님 앞에 가인적인 입장입니다. 각 나라에서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직 대통령이 세 사람 이상 있습니다. 일곱 사람까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들은 그 나라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배후 기반을 다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삼고 대통령을 움직여 아버님을 국빈 이상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런 나라를 상대할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3분의 1이상을 축복의 대열에 동참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272-054, 1995.08.30)

5 아버님은 세계적으로 세계평화종교연합을 중심삼고 종교를 연합하고 세계평화연합을 중심삼고 정치를 하나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나 하늘 편적인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으로부터 세계까지 쭉 나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승리한 아버님입니다. (247-196, 1993.05.09)

6 구약시대에서 세계적인 신약시대의 종결까지 오게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생겨났던 모든 싸움을 청산지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익과 좌익, 몸과 마음이 갈라진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세계평화연합을 창설한 것입니다. 우익과 좌익의 문제는 부모님 손에 의해 해결됐고, 이슬람 세계도 부모님을 중심삼고 축복해서 묶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주는 다시 살아난 예수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계와 종교계를 수습해야 됩니다. 세계평화종교연합은 마음세계 전체를 통일한 것이고 세계평화연합은 몸세계를 통일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갈라진 것을 세계적으로 열매를 거두어 통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3-295, 1993.01.28)

7 유럽은 이제 기독교문화를 중심삼고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교와 구교가 싸우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신교와 구교를 누가 하나로 만드느냐?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통일되면 남북미도 하나됩니다. 북미는 신교 독립국가, 남미는 라틴문화의 구교국가로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도 유럽이 하나되면 자

연히 하나됩니다. 유럽과 남북미만 그렇게 되면 아시아권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해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전부 연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묶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94년 3월 세계평화연합 서울대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권을 가지고 가치관을 설정해서 하나 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52-192, 1993.12.30) p. 937

8 한반도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대 강국이 있습니다. 이 4개국의 중요한 요원들을 조직해서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20개국 이상의 대표들을 모아 유엔을 아벨로 세우고, 세계평화회의를 주창해서 4개국의 대표 4명이 사인해서 세계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라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경제계의 최고 계층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하는 방향에 응하지 않으면 금후의 무역문제 외교문제 등 모든 면에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세계평화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의 몇몇 열강들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기반을 가지고 금후 세계가 가야 할 방향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다는 것이 최고의 위정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227-149, 1992.02.11)

9 지금까지 세계에 각종 평화회의가 많았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자기 혹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이기주의에 눈이 가려 참된 세계평화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세계평화연합 외에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 그리고 세계평화청년연합까지 창설하여 21세기를 위해서 사는 이타주의의 새 세계로 이끌기 위한 인류를 대표하는 중앙기구, 곧 민간유엔과 같은 범세계적 기구를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밝아 오는 21세기를 내다보며 서로 위하여 사는 세계와 참사랑을 실천하는 새 세계질서 확립에 매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창설한 모든 기구와 조직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세계적인 사랑의 실천장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세계평화연합은 창설한 지 채 3년이 안 되었지만 이같이 많은 세계 지도자 동지를 갖게 된 것을 본인은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이와 같은 세계평화운동을 일으킨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본인과 더불어 참된 평화세계 건설을 향하여 매진하십시다. (259-129, 1994.03.29) p. 937

천주평화연합 창설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IFWP) 총회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세계평화 구현을 위해 유엔을 상하 양원으로 재구성하고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국경지대를 평화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셨다. 이어서 2005년 9월 12일 유엔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기구로 천주평화연합(UPF)을 창설하셨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천주평화연합은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아벨적인 유엔의 사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엔이 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종교와 영적 각성을 바탕으로 지구촌 분쟁과 전쟁을 막는 데 민간 유엔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천주평화연합 창설 직후부터 12월 23일까지 세계 120개국을 순회하며 창설기념대회를 개최하셨다. 이 기간에 부룬디, 탄자니아, 알바니아, 팔라우, 솔로몬제도 등의 현직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수반 10명이 평화대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 국가 지도자들이 적극 동참하였다. 또한 필리핀과 우루과이 대통령, 알바니아 총리, 캄보디아 왕세자 등 각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천주평화연합을 통한 세계평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p. 938)

10 아벨유엔인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연합(UN)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평화연합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천주평화연합입니다. 하늘땅의 평화를 중심한 연합된 하나의 천주평화통일국, 즉 천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평화연합을 중심삼고 아벨유엔을 편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504-287, 2005.08.19) p. 938

11 하늘은 평화통일이요, 사탄은 투쟁 분열입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이 거기에서 갈라집니다. 사탄은 하늘과 같이할 수 없으니 악은 없어지고 선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사탄이 땅에서 없어지니 지구성은 완전히 흥하는 평화의 경계 내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표는 천주평화연합 창설과 더불어 조국강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생애의 목표로 정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506-290, 2005.09.05)

12 천주는 우주의 집을 말합니다. 큰 가정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은 큰 가정을 평화스럽게 만드는 연합체입니다. 큰 가정에 평화가 오기 때문에 지상·천상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영계에 맡기면 영계에서 주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상대적 관계만 되면 뜻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천주평화연합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그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탕감도 없고 사탄의 반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등에 업혀 간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핍박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천주평화연합을 세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507-283, 2005.09.13)

13 천주평화연합이 아벨유엔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아벨 왕권까지도 발표해 놓았습니다. 아벨 왕권, 천주평화연합, 그 아벨 나라는 형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형님을 협조함으로써 세계의 문젯거리들을 화합의 전통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문제도 결국 참부모가 들어가게 되면 싸움 없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부모가 나왔고 민주주의 부모가 나왔는데, 부모를 안다면 이 부모를 반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함으로써 천지통일연합이 벌어지고 그것은 천주평화연합시대에서 아벨유엔시대를 지나 아벨이 가인을 수습하여 천주평화왕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517-307, 2006.02.15)

14 부모님은 천주평화연합의 간판을 붙들고 욕을 먹든 매를 맞든 모험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깨끗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작을 고생으로 했으니 고생으로 마쳐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마치면 안 됩니다. 아들의 시대나 손자 때는 물론 몇 십대 이후에라도 다시 메우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목을 1년이 아니라 10년, 천년까지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527-306, 2006.05.31)

15 미국에서 천주평화연합 창설대회를 하자마자 120개 국가를 순회했습니다. 120개 나라에 부모님이 일생 **동**안 탕감해 나오며 승리한 것을 갖다 심어 준 것입니다. 아직도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이 120개 나라에 나가서 '부모님이 우리나라에 한번 안 오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비로소 120개 나라를 순회했습니다. 부모님이 승리한 것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반대를 못했습니다. 120개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섬나라부터 반도, 대륙에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을 전부 어머니에게 넘겨주면서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80개 국가를 순회했습니다. 어머니를 내세워서 했지만 하나님을 중심삼고 언제나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575-216, 2007.09.23) p. 940

16 아버님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세계 120개 국가에 예수님이 세우지 못하여 단절되었던 혈통을 세우기 위해 순회를 하였습니다. 핏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같이 돌면서 어머님이 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와가 타락할 때 핏줄을 더렵혔으니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그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머님과 아들딸이 하나되어 아버님이 남겨 놓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아내)를 세우고 그 어머니와 더불어 아들이 120개 국가를 돌면서 가정 이상을 심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180개국 순회에서는 가인 아벨이 갈라진 것을 묶는 것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 등 전부가 갈라진 것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사탄의 핏줄을 끊어 주고, 어머님이 대신 그것을 이어받아 세계적으로 아들딸, 가인 아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532-070, 2006.07.13)

평화대사

2001년 7월 3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주요 12개 도시에서 열린 하나님조국 정착대회 이후 세계평화운동의 기수로서 평화대사가 임명되었다. 평화대사는 각 나라의 사회지도층 인사는 물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평화대사들은 세계 구석구석에 참부모님의 심정을 연결짓는 실핏줄과 같은 사명을 수행한다.

17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문 총재는 사랑하는 아들 중의 아들이요, 충신 중의 충신이요, 성인 중의 성인이다. 왕권을 수립했으면 왕좌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비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설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입장을 알고 있는 아버님도 하나님 왕권즉위식 1주년 기념예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지구성을 하나 만들고 영계를 하나 만들어 하나님의 왕권을 수립해서 모셔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영계에 보낸 아들과 지상의 부모님이 하나되어서 영계 육계를 살리겠다고 총동원 명령을

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도 면목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상세계의 해방권을 가지고 왕권즉위식을 올려 준 그 아들이 지금도 슬픔의 자리를 걷고 있고 밤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이 한이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대표자가 하늘나라의 평화대사입니다. 하늘나라의 밀사입니다. (366-054, 2002.01.13) p. 941

18 평화대사는 하늘의 밀사입니다. 밀사는 전방에 나가 있는 최고의 전권대사, 특권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대사는 왕을 대신합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국가 전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밀사입니다. 국가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통보할 수 없습니다. 평화대사는 특권대사 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궁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541-086, 2006.09.28)

19 평화대사들은 앞으로 하나의 공적인 명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국광복의 뜻과 고향광복의 뜻을 아는 한 스승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가서 모든 나라를 최후로 정리해야 됩니다. 정비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정리할 수 있는 책임이 평화대사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의 최고 지도층 사람들에게 하늘의 헌법을 다룰 수 있는 지도자로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만왕의 왕, 분봉왕이라는 왕권을 대신한 대사로 가서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대사는 천사 세계를 대표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늘 앞에 반환하고 아무런 소유권을 갖지 않은 공적인 기준에서 가야 됩니다. (606-237, 2009.01.14)

20 평화대사들은 자기 세력 기반 이상 하늘 앞에 충성하여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평화대사의 소명적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화대사들은 절대 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에덴동산에서 조상들이 절대성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타락한 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80-094, 2007.11.09) p. 942

21 이 땅의 평화대사는 천사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누시엘의 형님 자리요 부모 자리입니다. 지상에서 참부모와 절대 성을 중심삼고 해

방적 기틀을 넘어섰지만, 영적 세계가 이분돼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천사세계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갈라진 것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중간에 나타난 것이 평화대사들입니다. 이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절대 성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전 세계가 하나의 가정의 기틀을 따른 전통으로 일원화된 세계가 되면 사탄까지도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대사는 천사세계와 영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584-174, 2008.01.05)

22 평화대사들은 천사장 누시엘의 형 노릇을 하고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세계의 근본을 중심삼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교정당(敎正堂)입니다. 교정당은 가르쳐서 바른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여러 종류의 조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유엔군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군대가 없어지고 유엔군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엔군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613-118, 2009.06.05)

23 부모님이 솔로몬군도에 자유세계의 해양권 평화대사 본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인데 대양주에 속하지 않고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대만도 섬나라인데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도 태평양 복판에 있는데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태평양 가운데 제일 큰 나라가 돼 있는데 역시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부모님이 하나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대회를 끝내고 새로운 도서세계의 종합적인 평화대사본부를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군도에 대양주 평화대사 본부를 만들려 합니다. 이들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551-169, 2007.01.06)

24 유치원에 다니는 평화대사도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평화대사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부모님이 수많은 나라에 평화대사를 세워서 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모님 대신 그래야 됩니다. 평화대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이 끝나게 되면 지상천국이 되고 해방·석방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542-330, 2006.10.23) p. 943

25 유치원생들까지도 평화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2세를 중심삼고 하

는 것입니다. 2세시대입니다. 평화대사의 아들딸까지 평화대사가 되면 현재의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장이고 천사장 가정의 아들딸입니다. 여러분은 아담 가정의 유엔 대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해서 거꾸로 끌고 날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대통령까지 평화대사로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543-052, 2006.10.25)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 평화군 평화경찰

참부모님께서는 2004년 12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해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을 기리고 그 희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엔평화군선전추모연합회를 창설하셨다. 그리고 2006년 6월 12일 천주평화연합 평화군·평화경찰 출정식을 주재하셨다. 인체에서 백혈구와 적혈구가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하는 것을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이들에게 세계의 평화를 지켜 내는 파수대의 책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평화군과 평화경찰은 참부모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조직된 평화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며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사탄세계에 침투한 악의 문화를 정화하고 선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

26 하늘나라의 의용군과 의용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를 창설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16개국의 재향군인이 여기에 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개국에 군인들이 있다면 그 군인들은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벨이 되고 참전한 재향군인은 가인으로서 이들을 묶어 주는 것입니다. (503-162, 2005.08.03)

27 평화군을 만들어야 되고 평화경찰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동란 때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한국전쟁은 하나님이 사탄과 싸운 전쟁입니다. 성전(聖戰)이라는 것입니다. 유엔과 미국이 합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으니 이것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6일에 유엔평화군성전 추모연합회 대회를 합니다. (495-110, 2005.05.07) p. 944

28 한반도의 성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을 중심삼고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규모가 됩니다. 각 나라의 외무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을 내세워서 평화군을 만들기 이전에 평화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대사를 만들면 평화군인 동시에 평화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도 교육할 수 있고

경찰에 가서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교육과 경찰 교육까지 하면 자연히 평화군, 평화경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경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투쟁적 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493-050, 04.18)

29 2005년 10월 20일 천주평화연합 창설기념 세계순회대회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군과 평화경찰 창설을 선언했습니다. 소련이 상당량의 원자탄을 우크라이나에 갖다가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 폭탄을 가지면 세계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버튼만 눌러서 이 원자탄이 터지게 된다면 그 방대한 것이 열을 뿜어서 몇 백리 안에 있는 제2 원자탄 기지의 둘 셋만 터져도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빨리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567-305, 2007.07.07)

30 평화경찰과 평화군대는 일신에 있어서 생명의 기운을 보호해 주는 적혈구 백혈구와 같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서로 도와서 인체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천국에 입성해서 개문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체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절대적 주인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절대·불변·유일·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529-231, 2006.06.12)

31 여러분의 몸 마음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몸이 사랑의 씨를 먼저 심어 마음을 유린해서 성 해방이니 프리섹스니 호모니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을 중심삼고 취하게 하여 혼미하게 만들어서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점령하기 위한 혼란된 싸움판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평화군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군이 한국을 중심삼고 동원되어서 한반도를 해방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우리가 평화군을 편성해야 됩니다. (508-121, 2005.09.18) p. 945

32 여러분의 각 나라에 평화경찰과 평화군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도, 영계와 육계의 하나의 독립된 세계에도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주로 하는 경찰 혹은 군대는 하늘의 천사세계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중

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완벽해야 천상에서도 완벽하게 됩니다. 전체가 해원된 자리에서 해방과 환희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못했습니다. 보안장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527-323, 2006.06.01)

33 천주평화연합은 아벨적 유엔입니다. 하늘나라 유엔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실효를 보려니까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힘과 경찰의 힘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군대가 가서 주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교육하면서 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평화군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화경찰도 간단한 방어체제를 갖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아야 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허투루 못 보는 것입니다. 이미 조직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509-188, 2005.10.02) p. 945

5절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 180개국 순회

조국향토환원대회 180개국 순회

2006년 3월 25일 선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권 대회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10일간 주요 지역권에서 100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가 거행되었다. 참부모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어서 축복식을 집례하셨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미국과 캐나다의 13개 주요도시에서 주재하신 데 이어 8월 19일까지 세계 180개 국가에서 참자녀들이 동참한 가운데 세계순회 대회를 개최하셨다. (p. 945)

1 어머니가 지금까지 나보다 세계순**회**를 많이 했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을 중심삼고, 아버님의 실체를 대표한 말씀을 가지고 여자를 대표해서 타락한 해와가 하지 못한 것을 밟아 치우고 그 위에서 책임 완성을 완결지어야 됩니다. 아버님이 남편의 자리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사탄을 이겨 놓았는데, 그 이긴 기반이 세계적 기반입니다. 120개 국가를 순회하고 180개 도시를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땀을 흘리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아버님의 실체적 승리를 이어받아 해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해와가 남편을 모시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세계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세계일주를 하고 가정에 돌

아와서 정착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상에 비로소 부부와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이 정착한 것은 이번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중심삼고 여자들이 어머니의 분신이 돼서 세계의 모든 인류를 해산해 줘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582-173, 2007.12.08) p. 946

2 2006년 3월 25일부터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축복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입적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아담대신 참부모로부터 1대로서 세계적인 조상의 줄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지가 생겨나 한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523-265, 2006.04.07)

3 세계의 모든 통일교회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교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조국향토환원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식구라도 그 나라가 본향이 아니고 조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조국이고 한국이 본향 땅입니다. 그러니 대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향 땅에 입적해야 됩니다. 입적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입적을 못하게 되면 한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입적하게 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같이 있더라도 몇 백대, 몇 천대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526-195, 2006.05.17)

4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는 무엇을 말하느냐? 천주평화연합이 아벨유엔인데, 여러분은 아벨유엔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내 몸 전체는 복귀된 절대신앙의 실체, 절대사랑의 실체, 절대복종의 실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창**조 대상물과 실체가 하나된 실체권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526-077, 2006.05.12) p. 947

5 2006년 5월 29일 어머니가 강연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영계를 총동원해서 해양권과 반도를 중심삼고 바다와 육지의 문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인권인 몽골반점동족권을 혈족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몽골반점동족권을 혈족으로 축복해서 한 핏줄로 묶어야 됩니다. 나라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반대하거나 세계에서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인류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해 나왔지만 이제 축복받은 가정들이 나서야 됩니다. 사탄세계의 힘보다도 종교권과 국가권이 하나되어 큰 아벨권이 되어서 몽골반점권을 소화해야 됩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27-220, 2006.05.29)

6 2006년 6월 2일 어머니가 인도 대통령까지 만났습니다. 인도 대통령은 '레버런 문의 가정이상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가정을 수습해서 하나의 혈통권을 이룬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깬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대번에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생동안 핍박을 받아 온 부모님이 국가를 넘고 종교권도 초월해서 공개적으로 축복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정과 청소년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부모님만의 특권입니다. (528-164, 2006.06.04)

7 2006년 6월 29일 어머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강연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식구들 사이에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쟁의 본거지인데 어떻게 가느냐?'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현지에 가서 방패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말만 하고 걱정하면 됩니까? 책임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니 어떻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기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죽는 것이 문제야, 사는 것이 문제야? 사는 것이 문제가 돼서 죽을 자리에 갔으면 죽음길도 가야지! 당면 문제를 자기들이 책임 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역사와 더불어 언제나 자기가 중심자리에 서면 그 중심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531-094, 2006.06.30) p. 948

8 이제 아프리카 몇 곳에서만 대회를 하면 어머님의 세계순회는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축복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자라고 해마다 커서 세계를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제 점점 그럴 것입니다. 어머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음성과 아름다운 하늘 은사의 내용이 재창조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순회강연을 하면서 청중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면 '하늘의 은사에 흠뻑 젖어 후대에 존경받는 조상

들, 나라들이 되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기쁘게 전진해야 됩니다. (533-155, 2006.07.23)

9 사랑은 돈보다 귀하고, 지식보다 귀하고, 권세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이 없다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아프리카 대회를 끝내고 우루과이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우루과이까지 가는 데는 16시간 걸립니다. 어머님이 없으면 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천지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33-217, 2006.07.27)

10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으로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국가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최후의 우리 사명입니다. 참부모의 혈족으로서 영계 육계를 책임져서 땅에 있는 축복받은 가정들과 영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같은 혜택권 내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참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본연의 가정을 찾는 때였습니다. 가정을 찾은 후에는 하늘땅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시의시대, 모심으로 구원받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는 시대가 아니고 실천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셔야 됩니다. 환원시대가 끝났습니다. (524-041, 2006.04.08)

참가정3대권 사위기대 40개국 세계순회

참부모님을 대표한 참어머님과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 4가정 등 참가정 3대권이 참여한 가운데 천주평화연합 창설기념 세계순회 강연이 2006년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개국의 12개 도시씩 480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참아버님께서는 9월 5일 서울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에서 참가정 3대권 세계순회 노정 승리기원 특별집회를 가지신 데 이어 10월 18일 천정궁에서 순회 대회 승리 귀국 환영집회도 주재하셨다. (p. 949)

11 본인은 2004년 미국과 한국의 국회에서 평화의 왕으로 추대받아 대관식을 가진 이후 2005년 9월 12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 승리적 기반 위에 2006년 6월 13일에는 실체적 천일국 창건을 위한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의 천정궁 입궁식과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본인의 세계 120개국 말씀순회 승리를 이어받은 한학자 총재께서는 참부모님을 대표한 입장에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를 누비며 180개국 말씀선포 순회를 승리함으로써 역사적인 모자협조의 섭리를 완성했습니다. 참부모의 자리에서 참자녀들을 직접 대동하고, 그들을 말씀선포와 축복행사 주관에 동참케 함으로써 인류의 첫 가정에서 어머니 격인 해와가 잃어버린 혈통권과 가인 아벨의 통일권을 복귀, 환원시킨 것입니다. 2006년 8월 20일은 본인이 일생을 통해 겪었던 여섯 번의 무고한 감옥살이 중 그 마지막인 미국 댄버리 감옥에서 세계적 차원의 옥고를 당당히 승리하고 해방·석방권을 쟁취한 제21주년 출감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하고, 또 역사적인 세계순회를 승리하고 도착하는 한 총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난 8월 20일 본인은 세계적 차원의 평화대회를 갖최했습니다. 세계 120개국의 120만 평화대사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핵심 지도자 3만여 명이 한국에 모여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심장한 대회였습니다. 이런 섭리적인 승리권의 기대 위에 본인은 이제 '천주평화의 왕'자격으로 참부모의 가정 3대권과 더불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이후천개벽시대에 하늘이 인류에게 내린 천비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538-089, 2006.09.12) p. 949

12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심정으로 2006년 9월 12일 천주평화연합 창설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설 직후부터 시작된 본인의 세계순회는 불철주야 영일(寧日)이 없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을 기하여 하늘이 주신 특별메시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상속해 주고 싶은 일념에 희생의 길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금번 세계순회 노정도 마찬가지로 88세를 바라보는 노령으로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순회길이었지만, 본인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본인으로서는 마지막 세계순회 노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한 참부모로서 인류에게 남겨 주는 최후의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천비를 밝히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귀한 하늘의 말씀을 각인하시어 여러분 생애의 기준이 되고 종족과 후손에게 상속해 주는 지혜로운 지도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538-090, 2006.09.12) p. 950

13 세계 120개국에서 당당하게 조국광복을 선포했습니다. 또 180개국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보냈습니다. 전쟁 마당에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훈련시켜 2대의 고개를 넘어 3대의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네 명의 손자 손녀를 축복한 기반 위에서 40개국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보냈습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3시대를 대표한 자리에서 첫 번 할아버지권에서 실패한 것을 개문하기 위해서 3대가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537-151, 2006.08.31)

14 하나님과 참아버지 참어머니,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끝까지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개인의 몸 마음의 싸움에서 남자 여자의 싸움, 부처끼리의 싸움, 부모와 자녀의 싸움, 종족의 싸움 등 역사의 모든 사실을 탕감하려니까 부모님이 180개 국가를 순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한꺼번에 180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로소 부모님의 손자들까지 3대가 40개 국가를 중심삼고 순회한 것입니다. 12개 나라만 하나됐더라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걸려 있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걸려 있습니다. 제1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40개 국가를 3대가 동원돼 하나되어 순회한 것입니다. 2대 이상 동원하면 반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3대가 순회를 하게 되자 대통령 이하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전부 환영한 것입니다. (575-218, 2007.09.23)

15 한국을 중심삼고 지구성의 축을 연결시켜 볼 때 반대쪽에 있는 것이 우루과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수십년 전에 우루과이에 호텔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전부 준비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순회강연을 할 때 우루과이 정부가 국회의사당을 내주고 대통령 부인을 중심삼고 어머니와 하나되어서 움직였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천주평화여성당의 이름으로 우루과이에 1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것이 우연지사가 아닙니다. (549-015, 2006.12.19) p. 951

16 이제는 하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 정월 13일까지 모든 것을 수습해서 하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3대가 출동해서 빨리 세계를 돌아야 됩니다. 여러 팀이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한꺼번에 순회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팀이면 120일, 4팀이 하면 9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축복가정들도 부모님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3대를 중심삼고 세계를 돌아야 됩니다. 3대가 한 사람과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533-292, 2006.07.29) p. 951

6절 조국향토환원대회 세계순회 참어머님 말씀

참어머님께서는 2006년 4월 28일 미국 브리지포트 대회를 시작으로 8월 19일까지 세계 180개국을 순회하시고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주재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통해 식구들을 격려하셨다. 참어머님은 120개국 순회강연 승리를 이어받아서 참자녀들을 대동하고 말씀 선포와 축복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인류의 첫 가정에서 어머니 격인 해와가 잃어버린 혈통권과 가인 아벨의 통일권을 복귀·환원시키는 데 기여하셨다. 새 말씀 선포와 함께 혈통을 전환하는 축복의 은사가 세계에 넘쳐나게 되었다. (p. 951)

미국·아시아 순회

1 여러분은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천년 전의 예수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은 여러분의 지침서이자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의 본체이신 아버님이 왜 매일 훈독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우리 조상은 훌륭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마이애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두 지역이 하나되어 참부모님의 뜻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데 여러분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어머님, 2006.12.19, 미국 마이애미) p. 952

2 아버님께서 1996년 6월 16일 도서 국가들의 연합활동을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을 만드셨습니다. 섬나라를 연합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태평양에 널려 있는 도서국가들이 대륙국가들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이들 도서국가는 힘을 합하여 해양시대에 제 목소리를 내고 세계 평화 실현에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이제 섬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륙과는 달리 바다에서는 이동이 자유로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바다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징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특히 바다를 좋아하셔서 이 시간도 한

국의 여수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영상으로 이번 대회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2006년 5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치렀습니다. 이번 180개국 순회 천주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는 우리 인간이 참부모님과 참자녀를 통해 참혈통을 전수받는 특별은사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염원하십니다. 필리핀 식구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드리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참어머님, 2006.05.29, 필리핀 마닐라)

3 아버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아시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더불어 앞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제 강대국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세력을 키워 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도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이 나라가 뜻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적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흘러가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세계 각국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 집회에 온 사람들을 여러분이 거두어야 합니다. 그들을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이 보고 싶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심정의 질긴 끈을 달아 놓기를 바랍니다. (참어머님, 2006.06.03, 인도 뉴델리) p. 953

4 캄보디아는 2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순결 캠페인을 벌이면서 축복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학교에서 위하는 삶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식구들에게 매일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나 말씀을 훈독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류가 참부모님을 모르고 영계에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캄보디아는 선교역사가 짧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빠른 기간 내에 뿌리를 뻗고 가지를 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머지않아 복귀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같은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국에서 온 식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아래 한 형제자매입니다. 이제 두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실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6.05, 캄보디아 프놈펜)

5 몽골은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남자를 능가하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나라에 참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 여러분이 승부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몽골 여성들이 더욱더 분발한다면 이 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앞에 복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라고 했는데 남자들도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복귀하는 데 남자 여자가 서로 협조한다면 그 시일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참어머님, 2006.06.17, 몽골 울란바토르)

6 세상에서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열 배, 백 배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혈족이 모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 이상의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은 소련 제국에 눌려서 이름도 없이 살아왔지만 참부모님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06년 6월 18일 대회는 흡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씨를 뿌린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실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참부모님 앞에 훌륭한 실적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어머님, 2006.06.18,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p. 954

7 카자흐스탄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혁명가요 창조주와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 타락한 세상은 돌감람나무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축복받은 여러분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돌감

람나무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게 축복가정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축복의 대열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일국을 맞을 때까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여섯 번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섭리를 이끌어 나오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축복가정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인간의 본심은 100을 받았으면 돌려줄 때 10퍼센트는 떼고 90퍼센트만 돌려주고 싶은 것이 본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참부모님께서 모든 탕감을 치러서 승리적인 기반을 닦아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축복가정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부모를 알려야 합니다. 참부모님이 이 시대에 현현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참어머님, 2006.06.20,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동·유럽·아프리카 순회

8 중동 지역은 정세가 매우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순회를 할 때 주변에서 위험하다면서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은** 전 세계를 살려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찾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황인종·백인종·흑인종이 있을 수 없고 종교의 벽, 민족의 벽, 문화의 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요르단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중동이 살 길은 과거보다는 현실을 바로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알고 참부모를 모시는 생활을 할 때 중동에 영원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참부모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르단을 세우셨습니다. 요르단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요르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7.01, 요르단 암만) p. 955

9 여러분은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을 닮고 참부모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교과서요 지침서가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축복가정들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사명은 종족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영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그러한 책임을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러분의 종족들이 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참소를 받지 않으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다 참부모님을 알려 줘야 합니다. 특히 몰타 식구들은 영계에서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선령들이 이 나라에 재림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상대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극정성을 들여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7.02, 몰타 발레타)

10 2006년 7월 2일 폴란드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만으로도 폴란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는 충분한 인적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 폴란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폴란드가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나눠 주고 더 크게 키워 주기를 바랍니다. (참어머님, 2006.07.03, 폴란드 바르샤바) p. 956

11 루마니아를 보면 로마 못지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돌감람나무로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참감람나무로 완성됐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나라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006년 7월 3일 루마니아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평화대사들과 여러분의 수고로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번창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후퇴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유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여러 면에서 발전이 뒤져 있지만 뜻을 중심삼고 앞장선다면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는 선진국가 이상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7.04,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12 참부모님 말씀이 슬로바키아를 건강한 나라로 세우는 약입니다. 이 말씀 이상의 약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도 가정문제와 청소년문제를 비롯해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4일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지만 이번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슬로바키아는 더욱 부강해질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7.0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리바)

13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하면서 국가적 단위의 축복행사를 한 것은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동유럽 지역에는 러시아정교로 인해서 축복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나 인류의 본심에서 보나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살려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천일국시대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또 슬로바키아가 역사적인 행사에 동참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하지 못한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누리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더 크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입장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느끼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06.07.0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리바) p. 957

1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종족,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나라에서 이번 보스니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나라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하는 것은 보스니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웃나라와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갖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06.07.07, 보스니아 사라예보)

15 모든 과일은 속이 꽉 차야 잘 익었다고 말합니다. 알바니아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지 않

으면 안 됩니다. 알바니아가 말씀으로 무장되면 몇 년 내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한국에서 1950년대 처음 출발할 때 100명도 안 되는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알바니아는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이 나라를 몇 배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바니아의 장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참어머님, 2006.07.07, 알바니아 티라나)

16 내가 케냐에 오기까지 많은 나라를 거쳐 왔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이 많은 기적을 낳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는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더욱 부강하고 세계 앞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참어머님, 2006.07.19, 케냐 나이로비)

17 탄자니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에이즈나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운동과 참가정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이 순결운동과 참가정운동으로 아프리카를 새롭게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쟁을 치른 1950년대의 한국은 여러분 나라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소수의 무리를 동원해서 국가 부흥의 기틀을 만드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려웠던 초창기에 중고등학생을 중심해서 전국적으로 계몽운동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부터 글을 가르치고 농촌운동에 주력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과 지금 여러분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같은 입장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부흥시키겠다는 각오 아래 24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면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7.21,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p. 958

18 여러분은 에티오피아를 복귀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계몽운동부터 펼쳐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평화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이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부터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혼자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어머님, 2006.07.21,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남미·대양주 순회

19 내가 아프리카를 순방하면서 참아버님께서 한국이 한국동란으로 인해 폐허가 된 상태에서 몇 안 되는 식구를 동원해 국민 계몽운동을 펼치신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때는 성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까지도 동원되어 국민 계몽운동을 열심히 전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셨으며, 그것이 한국을 오늘날 부국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리말씀을 중심삼은 새마음운동까지 병행하여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심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참아버님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아프리카는 1950년 대 1960년대의 한국보다 나은 입장에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왜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며, 왜 질병에 시달리는 대륙이 됐는가? 정말로 내 나라라는 생각, 내 가족이라는 생각, 주인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지침서요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왜 못살고,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발전을 못하는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우루과이에 와서 몬테비데오 시내를 돌아보니까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루과이의 여러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참감람나무라면 아직 복귀되지 못한 세상은 돌감람나무밭입니다. 여러분이 번식을 못하면 결국 숫자에 밀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겠거니, 누가 도와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내 일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참어머님, 2006.07.28,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p. 959

20 아르헨티나는 한때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을 원리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가정과 평화대사들이 하나되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2006년 7월 30일 조국향토환원대회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결실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를 방문한 뜻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경쟁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일등이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복귀는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어머님, 2006.07.2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1 볼리비아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 축복행사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뜻 앞으로 세우면 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대륙을 순회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잘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은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를 축복받는 나라로 부흥시켜 줄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8.01, 볼리비아 산타크루스데라시에라) p. 960

22 2006년 8월 1일 조국향토환원대회 말씀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부모님을 알리면 알릴수록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천운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콜롬비아에도 축복가정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가정 여러분은 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참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닦아줘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가정문제나 마약문제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마약, 폭행, 청소년문제, 에이즈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참사랑·참가정운동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참가정·참혈통·참사랑의 전통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리연구회, 청소년 순결운동 등 모든 활동이 잘 전개돼서 콜롬비아가 하나

님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06.08.02, 콜롬비아 산타페데보고타)

23 내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반사막지대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비교한다면 아프리카는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다. 그런데 왜 못살고 미개발국을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이념을 받아들여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내 가정에서부터 이웃, 나아가 나라로 펼쳐 나가게 되면 우리의 뜻이 빨리 성사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나라도 선진국 못지않게 앞서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삼고 내적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국에 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국은 선진국 못지 않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분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라 자메이카는 빠르게 발전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 한 분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자메이카를 바꾸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축복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자메이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귀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참어머님, 2006.08.04, 자메이카 킹스턴) p. 961

24 중앙아메리카의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인 바하마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 최초로 상륙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다 영국의 영토가 되었고 1973년 7월에 독립했습니다. 약 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바하마제도에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긴 순회 여정이었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면서 2006년 8월 4일 바하마 나소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전하고 축복행사를 치르는 순회였지만 이곳 바하마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과 참부모님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하마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참어머님, 2006.08.05, 바하마 나소)

25 내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10년 전에 와 보았고 2006년 8월 7일에

다시 왔지만 그동안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 국민에게 소개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를 가 본 사람은 느꼈겠지만, 그 나라도 주변 강국에 눌려서 자립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여러 나라에서 사상적으로나 정치·외교적인 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기에 좋은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레닌도 거기에서 살았고, 종교개혁가들도 거기에 살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미래를 내다본 선한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선지자격인 사람들이 있다면 스위스 못지않은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나라로 세계 앞에 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 5대 자원국인 베네수엘라가 왜 못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위정자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참부모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정신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만이라**도** 결심을 하고 24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면서 평화와 미래 그리고 이 나라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8.08,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p. 962

26 여러분이 페루를 복귀하려면 대학생 전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나라와 통일교회 미래의 지도자로서 양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사회 풍습들을 그들을 통해 정화하고 교육하는 것 이상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적령기에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축복받으면 참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온 나라가 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2세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도 먼저 대학생을 전도해야 됩니다. 국가메시아의 지도하에 대학생 전도와 2세 교육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8.09, 페루 라마)

27 칠레가 발전하려면 대학원리연구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 미래에 이 나라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연령대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도 남보다 잘해야겠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이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뜻을 함께하고 싶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학원리연구회 활동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가인과 아벨을 품어야 하듯이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어머니 입장인 교회가 대학원리연구회를 적극 도와야 합니다. 대학생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06.

08.10, 칠레 산티아고)

28 오세아니아주를 섭리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는 어머니 나라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하나되어 많은 섬나라들을 지원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나라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날아야 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이 있고 세계적으로 닦아 놓은 우리 기반도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참부모님에게 값없이 받은 것을 세상 앞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결심하고, 2세들도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참어머님, 2006.08.14, 뉴질랜드 오클랜드)

29 오스트레일리아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과 중동지역을 거쳐 왔습니다. 평화대사들이 앞장서서 천주평**화**연합 조국향토환원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떠나왔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평화대사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으려면 참부모를 맞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계몽하고 알려줄 사람이 축복가정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중동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에서 참부모님을 크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행복과 희망을 논하고 평화를 논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죽어 가는 인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뜻 앞에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참어머님, 2006.08.15,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p. 963

30 한국의 농촌에서는 계몽활동을 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을 중심삼고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솔로몬제도는 한국으로 본다면 아직 초창기와 다름없습니다. 참아버님을 중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보던 시절을 거울삼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물질문명시대의 폐해 가운데 하나가 자연을 파괴하고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하늘이 주신 천혜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자연보호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국민 정신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06.08.16,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31 팔라우가 큰 나라들과 경쟁해서 같은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원리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심정과 참부모님이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승리적 기대를 닦으신 그 사연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은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의 중심인 참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나라인 팔라우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팔라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참어머님, 2006.08.19, 팔라우 코로르) p. 963

제4장 환태평양문명권시대와 한반도

1절 환태평양문명권시대 도래와 한반도

환태평양문명권의 배경

참부모님께서는 일찍이 한반도 중심의 환태평양문명권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선언하셨다. 동서양 문명이 한반도에서 결실됨으로써 세계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내다보신 것이다. 그래서 환태평양권의 국가들이 복귀섭리 완성과 완결을 위해 선구적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p. 964)

1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인류 최초의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문명은 나일강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하천문명이었습니다. 즉 이집트문명은 나일강을 모태로 해서 발상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문명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이집트인들은 '강 저편에는 무엇이 잇을 것인가?'라고 궁금해했습니다. 항상 강 건너 저편에 가 보기를 소망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집트문명을 발전시키는 정신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천문명시대가 지나간 후에 지중해문명이 건설되었습니다. 피안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소망의 심정이 동기가 되어 인류 사회가 발전해 나왔습니다. 피안을 향한 간절한 심정이 문명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005-043, 1958.12.14) p. 964

2 문명은 하천문명에서부터 지중해문명으로, 그다음에는 대서양문명으로, 그다음에는 우주시대 문명 순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대서양문명시대는 백인들이 도서를 중심삼고 발판을 잡은 문명시대입니다. 지중해문명은 로마 봉건시대 문명입니다. 인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는 옛날 고대문명 국가들입니다. 인더스강이나 나일강이나 황하를 중심삼은 고대문명은 전부 하천문화였습니다. 지금은 태평양 문명권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시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207-046, 1990.10.28)

3 원래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뒤 서구를 중심을 발전했기 때문에 서구의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로마를 거치고 영국을 거치고 미 대륙을 거쳐 이제 극동에까지 한 바퀴 돌아간 것입니다. 탕감복귀는 역사적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탕감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복귀역사 가운데서 탕감을 하려면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서구문명과 연결될 수 있는 아시의 어떤 나라, 미국과 연락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나라를 거쳐 거꾸로 돌아갑니다. 섬나라로서 영국과 맞먹는 나라가 일본이고 이탈리아와 맞먹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영육을 중심삼고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초소가 됩니다. 반도는 바다와 육지가 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문화의 교류지가 됩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반도이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반도를 중심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이동은 반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091-253, 1977.02.23) p. 965

4 예수님은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무대의 기대가 없어져 아시아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거꾸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서양으로 가서 서양에서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탕감의 길에 일치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면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를 중심삼고 영국과 미국을 거쳐 다시 태평양문명권으로 일주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세계적으로 잃어버린 곳이 아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영과 육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양문명, 즉 물질문명이 거꾸로 쭉 돌아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49-132, 1993.10.08)

5 태평양에는 흑조라는 조류가 4천 마일을 중심삼고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이러한 주류가 있습니다. 천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에 흑조와 같은 주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세계에도 흑조와 같은 사상적 흐름이 있어서 온 인류가 그 사상적 주류에 따라 이상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세에 있어서는 민주세계 속의 미국을 중심한 흐름도 흑조가 될 수 없고, 공산세계 속의 소련을 중심한 흐름도 흑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주의 사상의 결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남아서 흑조 같은 주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상적 세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종교라든가 사상을 묶어서 대양 가운데 흑조와 같은 역할을 할 운동은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사상적 운동, 새로운 사상적 체계, 새로운 사상을 중심삼은 역사의 출발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상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행복의 대양, 이상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인도양의 물결이라고 해서 태평양에 오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28-043, 1992.03.03)

6 반도는 남자의 생식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은 반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상적인 기원은 반도에서 설정되는 것이 조화의 원칙입니다. 진행법도의 순리적 과정을 갖춘 중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도를 중심삼고 문화의 발달이 이뤄졌습니다. 희랍반도, 이베리아반도와 같이 그 모든 이상적 기준이 지중해를 중심삼고 이뤄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사랑의 작동을 할 수 있는 모체형이 이탈리아반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반도의 문명권은 역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기질이 음양의 조화가 되어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을 중심삼고 그와 같은 입지적 입장에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딱 싸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중심삼고 사랑의 파동이 이 대양을 움직이고 대륙을 움직이고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조화의 문화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곳은 아시아에서 이탈리아반도에 맞먹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79-122, 1988.08.01)

7 지중해는 여자의 자궁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자궁의 제일 깊은 자리,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적 판도를 이루어 반도를 중심삼고, 지중해를 거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거쳐서 그와 같은 반도문화권을 중심삼고 세계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래는 이탈리아를 중심삼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왜 통일을 못했느냐? 로마제국이 기독교문명을 중심삼고 교황청을 만들어서 온 세계를 지배한 것은 로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로마를 희생시켜서라도 중세시대에 온 세계를 치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었으면 그때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했으니 그 사명이 영국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도에서 섬나라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베리아반도의 스페인을 중심삼고 해양권 점령운동이 16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해상로 개발을 중심삼고 영국과 겨루었습니다. 기독교사상을 이어받아 영국을 중심삼고 로마교황청을 반대한 것이 성공회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전부 이치에 맞습니다. 영국을 중심삼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과 같은 종교가 청교도인데,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나 몰린 신교가 아벨의 입장입니다. 차자 쪽의 이 청교도가 신교 문화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륙에 와서 신교 독립국을 세웠는데 그 나라가 지금의 미국입니다. (191-107, 1989.06.24) p. 967

태평양문명권의 도래

인류문명사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중심의 대서양을 거쳐 세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태평양문명권으로 결실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환태평양문명권역에서 과거 예수님 시절 이탈리아반도의 로마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륙문명과 해양문명, 동·서양문명,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만나서 대통일화합을 이루어야 할 곳이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과 연결된 국가들은 60여 개국에 이른다. 참부모님께서는 바다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듯이 그렇게 이들 국가가 어머니 역할을 다함으로써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1996년 6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을 창설하시는 등 도서국가연합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

8 세계정세를 보게 되면 지금 시대는 태평양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천문화권으로부터 지중해문화권, 그리고 대서양문화권에서 태평양문화권시대로 이동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서양문화권시대에서 태평양문화권시대로 이동해 오는데 여기에 주역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인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는 세계를 지도하지 못합니다. 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 가운데서 5분의 3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소화 못하는 주의는 세계를 리

드할 수 없습니다. (173-219, 1988.02.18)

9 태평양문화권을 중심삼고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이 씨름을 해서 서양문명이 동양문명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문명은 사랑의 종교와 사랑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보내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늘의 품에 품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163-059, 1987.04.01) p. 968

10 물질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서양사람들입니다. 서양세계는 지식을 통해 판도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반대로 물질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기준과 물질적 기준이 일체화할 때에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질문명이 아시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평양권에서 서구문명과 아시아문명이 연합해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문명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태평양문명시대입니다. (212-139, 1991.01.02)

11 아시아문명은 남성문명이고 서구문명은 여성문명입니다. 종교는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문명은 아시아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구문명이 상대문명이고 아시아문명이 주체문명이냐? 주류 종교는 아시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은 아담이 주체이고 나중에 나온 해와가 대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담권을 중심삼은 아시아문명권이 대표 문명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던 곳도 아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몸을 다시 찾아 영적 승리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문명을 중심삼고 새로운 몸의 판도인 아시아를 통일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229-299, 1992.04.13)

12 섭리의 터전을 중심삼고 문명은 점점 세계를 일주하여 미주 대륙에서 태평양문명권시대로 건너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중해문명권에서부터 대서양문명권을 중심한 영국으로, 그다음에 미국 문명권에서부터 태평양문명권을 중심삼고 일주해서 영국과 맞먹는 입장에 있는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이 근대문명을 중심삼고 120여 년간 역사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것은 일본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시아에서 꽃피어야 할 뜻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발전했습니다. 영국과 같은 섬나라가 상대적인

입장에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서구문명을 이어받는 중간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는 영국과 같습니다. 두 나라는 자동차도 좌측통행을 합니다. 모든 것에서 영국의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유럽을 돌아서 미국을 돌아 들어오는 현대문명권을 백 퍼센트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위주로 한 문명권을 대행하는 입장에 서서 아시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반드시 하나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문명은 반드시 아시아문명과 손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078-311, 1975.06.10) p. 969

13 혼란과 절망과 도탄 중에 지옥으로 추락해야 될 비참한 운명이 인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무슨 길을 닦아 오겠습니까? 통일의 길입니다. 그 통일은 하늘 편 문화권 결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의 통일권이나 남북미의 통일권은 기독교문명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문명을 통일적 내용으로 소화해서 유럽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남북미를 화합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기독교문화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기독교문화권이 아시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독교사상을 통일적인 방안으로 하여, 기독교사상을 통해서 이 세계를 수습해 온다면 아시아는 그것을 어디에서 맞을 것인가? 일본은 여러 신을 섬기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화되었고, 단 하나 남아 있는 한국은 기독교라는 울타리권 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문명권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는 환경을 직시하면서 아시아에서 기독교문화 배경을 거족적으로 갖추어서 수용 태세를 준비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일본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러시아도 아니요 오로지 한국입니다. (222-036, 1991.10.27)

14 아시아대륙과 아프리카대륙이 한 사람과 마찬가지이고 남북미대륙이 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대륙이 주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 갈라져 나간 것입니다. 남북미는 아시아 땅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와이를 중심삼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로 하여금 미국을 흡수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하나되는 날에는 미국이 서양으로 떨어져 내려갔던 것이 어머니를 통해 아시아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양에서 몸을 잃어버린 것이 비로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됨으로써 서양문명이 태평양문명권시대를 거쳐 아시아로 돌아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잃어

버린 것이 거기에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자협조시대를 지나서 부자협조시대의 기준을 중심삼고 **환**태평양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356-013, 2001.10.07) p. 970

15 동서 문명이 교류될 수 있는 시대권을 맞아 아시아문명을 중심삼고 서구문명을 소화할 수 있는 문화권을 이룩함으로써 서구문명과 아시아 문명이 교류되도록 해야 됩니다. 동서양 문명의 하나가 남자라면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또한 하나는 정신문화권이요 하나는 물질문화권입니다. 두 문화가 합해져야 세계적인 새로운 통일문화권시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박자를 맞추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팎의 민족끼리 합해야 됩니다.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서구문명과 정신문명을 대표하는 아시아문명이 서로 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합하라는 명령은 내가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세계문명권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활동해 온 방향입니다. (035-145, 1970.10.11)

16 아시아 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통합한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유대 나라를 중심삼고 인도와 중국문화를 통일했을 것입니다. 인도문명을 대표해 한국에 연결됐던 것이 불교이고, 그다음에는 중국문화를 대표한 것이 결국은 유교입니다. 그다음에는 서구문화를 대표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국력을 중심삼고 승리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에서 세계적 종교로 열매맺힐 수 있는 대표적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이 유대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나온 불교가 한국에 심어졌고, 중국의 유교가 한국에 심어졌고, 기독교가 한국에 심어짐으로써 예수님 때에 이루려 했던 문화의 통일이 여기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을 중심삼고 서구사회의 통일세계를 만들었으나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구세계의 통일과 더불어 아시아까지 통일할 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로마의 교황청과 같은 새로운 통일교회 교황청을 중심삼고 서구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일문화권이 형성돼야 합니다. 반도를 중심삼고 새로운 세계적 문화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8-068, 1987.09.01)

17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수억 년의 역사과정, 오랜 기간을 통해서 탕감해 왔습니다. 피살을 흘리면서 탕감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님이 이론적인 역사의 배후를 다 샅샅이 드러내서 째진 것은 꿰매고 구멍 뚫린 것

은 때워서 타락하지 아니했던 본연적 모양을 갖추어서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와 세 천사장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에 와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삼고 이탈리아와 영국이 반도와 섬에서 잘못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로마 교황청을 중심삼고 반도문명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새로이 미국을 중심삼고 엮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시아에서 죽었으니 예수님의 몸을 찾아서 만국 해방과 더불어 지상천국 이념의 나팔소리를 이 아시아 지역에서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종교권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권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슬람교권과 불교권, 유교권, 기독교문화권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의 발상지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은 아시아 통일을 위해 종교권 통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7-270, 1990.11.11) p. 971

18 태평양문명권의 주역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유엔을 공략함으로써 태평양문명을 완성하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가 갈라졌던 것이 비로소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대신한 한국을 중심삼고 일본과 미국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반도국가인 한국을 중심삼고 도서국가와 대륙국가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서국가와 대륙국가를 동양에서 찾아와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삼고 예수님의 몸을 잃어버린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돌아와서 영계와 육계가 갈라져 싸우던 세계를 비로소 갖다 맞춤으로써 통일세계의 기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양권 환원, 육지권 환원, 창조이상권 환원, 제4차 아담권 출현이 벌어집니다. 그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하와이를 중심하고 남미와 북미가 하나되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쌍둥이 몸입니다. 쌍둥이가 됐던 그 기준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이, 하늘과 땅이 갈라졌던 전부가 바다에서부터 결합해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바다와 같은 복중에서 태어나기 시작했으니 하와이를 중심삼고 새로운 해양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414-183, 2003.07.31)

19 환태평양문명권시대를 발표했으니 이제는 환천주평화문명권 왕권시대를 발표해야 됩니다. 환천주평화문명권 왕국시대, 그리고 천일국입니다. 대우주를 중심삼고 연결시킬 수 있는 환원의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천일국 평화문명권 제국시대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제 한 나라가 됩니다. 환천일국 평화문명권 내 나라시대입니다. 내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환천주평화문명권 왕국시대입니다. 천일국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된 나라입니다. 동서가 하나되고, 남북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평화문명권 내 나라 시대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해방, 천상세계 해방, 지상세계 해방, 만우주 해방, 평화의 왕국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천주평화문명권 왕국시대와 천일국 평화문명권 내 나라 시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늘땅을 품고 세계 바다를 품어서 모든 것을 몽땅 하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세계를 바치고, 하늘땅을 바쳐서 하나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558-268, 2007.03.19) p. 972

20 하와이에서 한 선포가 '환천주평화문명권 왕국시대'이고, 하와이에서 한 대회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시대의 사관'입니다. 부제는 '미국을 중심한 유엔과 자유세계의 방향'입니다. 태평양 바다의 세계와 육지 세계가 하나 안 돼 있으니 하나되게 하려니까 환태평양문명권시대 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육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에 섭리적 기반을 닦았으니 그것을 육지에 가져다가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2007년 4월 3일부터 하는 대회로서 제목이 '천주평화 신문명권 개벽 선포'입니다. 문화가 출발할 때 바다에서 출발하여 반도로 해서 육지로 올라왔으니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반도국가면 반도에 있어서 태평양 바다를 품어야 되고, 반도를 중심삼고 대륙을 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섰습니다. (558-300, 2007.03.26)

21 태평양문화권시대가 왔는데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삼고 업고 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들을 전부 묶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월드컵낚시대회를 했습니다. 그 나라들을 연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엔이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유엔의 부서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나 경제사회이사회의 간부들을 중심삼고 이뤄진 세계 기반을 우리가 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해주고, 영계를 확실히 알게 해주고, 핏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앎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평양문화권의 저개발국가를 포함한 52개국이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묶어서 하나의 국가체제를 중심삼고 유엔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337-123, 2000.10.24) p. 973

22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도서국가입니다. 도서국가가 태평양 가운데 있어서 강대국들이 어디에 가든지 군함만 하나 갖다 대면 완전히 점령해서 싸움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되기 위해서는 생활과 문화적 전통, 말과 글이 같아야 됩니다. (517-012, 2006.02.09)

23 1996년 7월 초하루부터 도서국가의 대표자,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사람 열 사람씩을 일본에 데려다가 2주일 동안 교육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중심이 돼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중심삼고 방송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가 40개국입니다.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삼고 그 국가방송국과 대통령, 각료들을 전부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실력을 부러워합니다. 그 배경을 중심삼고 일본이나 영국 같은 도서국가의 발전된 경제력을 투입해서 살려 주는 것입니다. (278-324, 1996.06.23)

24 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을 해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중심삼고 일본과 미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연대적 관계를 중심삼고 자유해방권을 어느 누구든지 초국가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세계에 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뜻의 발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427-137, 2003.12.04)

25 바다는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바다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바다 이상의 부자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금은보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자원이 바다에 매장돼 있습니다. 그 바다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넘겨주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그 깊은 바다에 무엇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태평양을 정착지로 삼고, 도서국가에 학교를 빨리 만들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개국**의** 도서국가에서 데려오게 되면 도서국의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만 동참하게 되면 세계도서국가연방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 식민지 국가는 순전히 노예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인데, 형제 개념을 가지면 영국연방 같은 것을 만들어 오대

양 육대주에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통일천하를 이루고도 남습니다. (356-146, 2001.10.12) p. 974

26 내가 가는 길은 탕감하기 위한 길입니다. 탕감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미에 가나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하와이를 중심삼고 도서국가들을 묶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탕감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갈 길을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383-089, 2002.06.26) p. 974

2절 국제평화고속도로와 한일·베링해협 해저터널

국제평화고속도로와 한일해저터널 제안

참부모님께서는 1981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창하셨다. 국제평화고속도로는 지상 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 4차선으로 건설하되 고속도로 양 측면을 따라 폭 1킬로미터를 국제중립구역으로 정해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리고 인터체인지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두어 무비자 출입국제도를 도입하고 무기를 실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군대 이동을 제한해 그야말로 평화의 공도가 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한일해저터널에 관한 구상도 발표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일본 도쿄에서 영국 런던까지 자동차나 고속열차로 달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평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견하셨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82년 4월 일본에서 국제하이웨이건설사업단을 설립하고 1983년 7월에는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와 이키, 쓰시마의 육상부와 해역부 조사를 개시했으며, 1986년 10월 사가현 진제이초 나고야에서 한일해저터널 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 (p. 974)

1 우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세기를 매듭짓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려는 때에 즈음하여, 진정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쟁탈과 반목 일변도인 자국 이익만**의** 추구에서 탈피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모든 이웃 나라의 행복과 평화 없이 자국만의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지 반성하여 볼 때, 국적을 초월한 인류애 없는 세계평화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 구조 및 경제구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학설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도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

욱이 새로운 국제경제기구가 창설되어 지난날의 막대한 경제적 낭비와 손실을 막고, 또 전 세계의 국토이용 계획을 세계와 인류의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상세계가 도래하고 영구 평화가 실현되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인류는 한 가족 한 형제'라는 대명제하에 이러한 이상을 실천에 옮기는 일환으로 동서 제국을 연결하는 국제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15-177, 1981.11.10) p. 975

2 일본과 한국과 중국대륙을 거쳐 남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경유해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것을 1차 안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육지와 해저를 일직선으로 관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고속도로 중앙부에는 뉴매틱 튜브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물수송을 담당케 하며, 대도시에서는 공항도 겸하는 한편 인터체인지 일단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두어 무비자로 간단하고 신속한 출입국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고속도로 좌우 양측에는 각 1킬로미터 이상의 중립 완충지대를 설치하여 국경을 초월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초고속 승용차 및 관광버스 이용자를 위한 휴양지를 조성함으로써 초고속화로 하나의 세계를 묶는 지상천국안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안은 금후의 이상세계를 하루빨리 단축시켜 실현하려는 구체적 방안의 일부이며, 이를 통하여 과학자들도 또한 전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헌케 함으로써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묶어 새로운 문화세계를 창건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115-178, 1981.11.10)

3 세계정세로 봐서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이 문제인데, 이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시아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1981년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를 통해서 국제고속도로 건설을 미리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한일터널 굴착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1년만 더 하면 이 모든 설계가 끝나서 북으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세계고속도로를 착공할 텐데, 여기에 일본이 앞장선다면 아시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135-249, 1985.12.12) p. 976

4 아버님이 1981년에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 그다음에 교육 책임자들, 그다음에 행정 책임자들에게 수십년 전

에 발표했던 것이 학계에서 유명한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한일해저터널을 중심삼고 세계에 없는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도버해협의 해저터널도 내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출구 가까운 곳에 땅도 샀습니다. 아버님이 사 놓은 땅이 도버해협 해저터널을 파는 데에 기지가 되었습니다. 일본도 지금까지 굴착작업을 해오다가 중단을 했지만 그동안 한 10년 동안 내가 돈을 대서 굴을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뤄져야 한다면 이 국제고속도로의 이상은 불가피한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를 위해 국경을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가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남으로써 평화를 중심삼고 균형을 취할 수 있게 되며 거기에서 종적 이상을 세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431-037, 2004.01.11)

5 일본 사람이 굴을 잘 뚫습니다. 도버해협 해저터널을 일본 사람들이 뚫었습니다. 일본의 4개 섬을 연결하고, 도버해협 해저터널도 뚫은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이 그렇게 제일 빠릅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 뚫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동 건설을 다 한 것입니다. 중동에서 다리를 놓고, 굴을 파고, 빌딩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면에서 일본에 지지 않습니다. (479-327, 2004.12.15)

6 한일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물자들이 일본을 통해 들어와서 한반도를 거쳐 대륙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로 가고, 그 다음에 중국 남부로 가고, 중국 복판으로 해서 중동과 런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수송물이 전부 한국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판도를 몇 배 넓혀서 일본을 넘어 미국, 미국을 넘어 유럽에까지 연결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미국·프랑스, 일본·독일·이탈리아 6개국을 중심삼고 세계경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삼고 세계 최고 선진국들의 화물과 더불어 사람이 왕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과 사람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송로, 교통로 가운데 세계에 없는 편리한 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놓으면 한국 땅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교통기지가 됩니다. (447-199, 2004.05.02) p. 977

7 태평양을 배로 통과해서 가는 것보다 기차로 몇 백 대의 차량을 달고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시작하여 캐나다를 거쳐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지나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교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륙을 연결하는 철교를 놓아서 기차로 어디라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한일해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까운 거리인 그곳에 터널을 파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머지않아 해저터널을 뚫게 될 것입니다. 첨단기계를 가지고 하면 그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493-293, 2005.04.26)

8 신의주를 거치고 중국의 단둥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해서 미얀마로 통하는 국제평화고속도로를 만들 것을 구상해서 그 제안서를 전 세계 대통령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할 것입니다. 그때 발표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만주에는 한민족이 300만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 교포, 미국 교포, 독일 교포들을 내가 규합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독일의 모든 최고 기술을 결합시켜서 중국을 후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38-019, 1986.01.13)

9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게 되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아시아 제국에 대해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섬나라는 이미 방어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육지와 연결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연결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아시아 제국의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일본이 물자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와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반도는 대륙으로 통하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아시아 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근거리에 있는 나라들에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원자재를 해상으로 보내면 불편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외국과 수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자를 한반도를 거쳐 대륙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터널만 뚫으면 쉽게 대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389-135, 2002.08.03) p. 978

베링해협해저터널과 평화세계 비전

2005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국 4개 도시 순회강연에서 참부모님께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해협 85킬로미터 구간에 해저터널을 건설함으로써 국경과 인종·종교·이념 등의 장벽을 초월하는 지구촌 한 가족의 평화세계를 실현하자고 제안하셨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8년 1월 18일 재단법인 세계평화터널재단을 설립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셨다. 베링해협은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때 민주와 공산 양 진영을 갈라놓은 이념의 장벽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양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를 하루생활권으로 만들고 인종·종교·문화·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하나님이 소원해 오신 평화세계를 이 지구성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특히 국경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세계평화는 국경을 철폐할 때만이 올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10 부모님이 미국에서 발표한 것이 베링해협 국경선 철폐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만국이 원하는 것입니다. 국제평화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닦고 세계평화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일생활권 내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행기로 7시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문화를 주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500-126, 2005.07.10)

11 미국의 알래스카와 소련의 국경이 돼 있는 베링해협에 날짜변경선이 지나갑니다. 그 경계선을 없애서 두 패로 갈라진 지구성을 하나로 만**들** 것을 결심하고 미국에서 베링해협에 교량이나 해저터널을 건설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은 러시아와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일이요 하늘땅의 일입니다. (502-197, 2005.07.29) p. 979

12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와 같은 나라도 없어야 합니다. 나라를 없애려면 국경이 없어져야 됩니다. 경계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려니 베링해협에 평화의 왕도로와 터널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국경을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순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120마일권 내를 완충지대로 만들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경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생깁니다. (502-219, 2005.07.29)

13 베링해협에 교량을 세우거나 터널을 뚫어 북미와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여 선한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만 유통하는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쟁과 전쟁의 물자를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조국의 경계선을 중심하여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국광복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해야 됩니다. 형님이 못했으면 동생이 해야 되고 동생이 못했으면 형님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못했으면 아들이 해야 되고 아들이 못했으면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남편이 못했으면 아내가 해야 디고 아내가 못했으면 남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6-212, 2005.09.03)

14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에 평화의 왕 다리, 평화왕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왕 다리가 없었고, 평화왕 터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최후의 다리요 최후의 터널입니다. (506-214, 2005.09.03)

15 현재 세계의 고속도로는 하늘나라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사탄세계에 속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베링해협을 중심삼고 이 지구성을 포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120마일을 완충지대와 같이 만들어 놓고 8차선으로 왕래할 수 있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래 나라들은 자동적으로 어디든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왕권을 중심삼은 도로이기 때문에 싸움하는 무기 같은 것은 이 도로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군수물자, 전쟁물자는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506-035, 2005.08.30) p. 979

16 2007년 1월 3일에 12지파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베링해협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공로를 닦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성에 행차하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과 땅,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중심삼고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공로는 평화의 통일고속도로이지 전쟁의 통일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눈감고도 달릴 수 있게끔 8차선, 16차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8차선과 8차선으로 해서 16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행복한 도로가 되겠습니까? 종교인들이 그 공도를 닦기 위해서 정성들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합해서 그 도로를 닦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착취한 돈이나 더러운 돈을 가져다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철학입니다. (550-277, 2007.01.04) p. 980

17 왜 베링해협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왜 동양과 서양이 갈라졌습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왜 갈라졌느냐는 것입니다. 베링해협이 없으면 러시아와 미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사상만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공기도 경계가 없습니다. 태양빛도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3요소인 물과 공기와 햇빛은 어디든지 흘러갑니다. 어디든지 깊은 데를 찾아 들어갑니다. 또 물은 나무 꼭대기에도 올라갑니다. 모세관을 통해서 오르내립니다. 그런 요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일생활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런던에서 출발했으면 유럽이든 어디든 왔다 갔다 하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게 되면 열마나 편리합니까? 국경이 있기 때문에 비자수속만 해도 복잡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대우주에서 이상적인 법도를 통해서 움직일 때에는 국경이 있더라도 그 국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우주가 하나의 우주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이 문제입니다. (547-014, 2006.11.30)

18 태평양에 기둥을 세우고 터를 닦아서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리를 놓아서 마음대로 태평양도 건너다닐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베링해협을 중심삼고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성에 국경이 없어야 되고 하늘땅에도 국경이 없어야 됩니다. 갈등을 겪는 모슬렘과 기독교, 유대교가 한 뿌리에서 갈라졌으니 이들을 다시 한 뿌**리**로서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해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고 정치가 없이 한 가정의 형제의 우애로써 주고받고 살아야 됩니다. (523-244, 2006.04.05) p. 981

19 참부모는 중동과 남북한, 베링해협의 세 환란 지역을 다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베링해협에 해저터널을 놓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담권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파탄시켰고, 예수님시대에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파탄시켰습니다. 참부모시대에는 베링해협을 중심삼고 하늘땅의 통일세계를 이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시는 참부모가 책임을 지고 세 지역을 향한 평화의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걸음이 얼마나 숨 막히는 걸음이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부모님 대신 나서게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522-128, 2006.03.27)

20 본래 하나님의 이상 실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이상권 위에서 이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일터널이나 베링해협터늘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일일생활권 내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계가 국경선을 중심삼고 복잡한 환경과 복잡한 투쟁의 역사를 남김으로써 얼마나 혼란된 환경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하나의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인류 앞에 최후에 남아진 과제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고 책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늘의 섭리적 총정비의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0-223, 2008.10.31)

21 앞으로 한일터널과 베링해협터널을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세계 13개 종단이 연합해서 개척해야 됩니다. 종교계가 담당하고 개척한다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섰습니다. 부산을 중심삼고 남해 전체에 기반이 닦아져 있습니다. 도서국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태평양 중심한 하와이 기반, 세계의 섬과 반도와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닦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반을 통해 우리가 아벨유엔도 선포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부모유엔을 선포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왕의 해방권 대관식이 끝났고 하나님이 나설 수 있는 시대에 있으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뚜껑을 다 열 수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기준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한데 모아서 세계의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문제, 정치문제, 국가와 국가 간에 얽힌 사연들을 풀어야 됩니다. (608-096, 2009.02.21) p. 982

22 내가 일찍이 한일터널과 베링해협의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워싱턴타임스에도 이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위해 앞으로 종교인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워싱턴타임스가 통일교회 배경을 중심삼고 한일터널을 만들고 베링해협에 교량을 만들거나 터널을 파는 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싸움하다가는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단결해서 이 일을 책임진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610-185, 2009.04.23)

23 베링해협의 '세계평화의 왕 다리, 터널'은 앞으로 인류사의 화합과 통일

을 위한 대역사, 가장 큰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만 내게 되면 기술을 자랑하는 사람이 와서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뚫으면 됩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합해서 터널을 파거나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와 평화대사, NGO도 참여해야 됩니다. (503-216, 2005.08.05)

24 베링해협 도로는 지구성의 평화의 공적인 도로로서 공중을 연결시키고 바다를 연결시키고 육지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비행기로 날고 배로 왕래하고 차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공적인 도로가 됩니다. 특히 평화 왕이 설정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로는 전쟁 물품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은 이 공적인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군수물자, 전쟁 물자를 싣고는 일절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계 각국의 경비 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3-202, 2005.08.05)

25 베링해협의 개발을 위해서 내가 회사를 만들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터널도 벌써 1981년에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해도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일일생활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시간의 차이가 없고, 세계가 하나의 촌락과 같이 뜻있는 사람이 모여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올림픽대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93-139, 2008.06.14) p. 982

제9편 심정문화세계를 위한 언론·교육·예술활동

차례

제1장 통일사상과 국제학술활동

1절 통일사상연구원 ····· 986
2절 국제과학통일회의 ····· 998
3절 세계평화교수협의회 ····· 1007

제2장 세계언론인회의와 언론매체 창설

1절 세계언론인 회의 ····· 1015
2절 세카이닛포와 뉴스월드 ····· 1021

3절 워싱턴타임스 ····· 1025
4절 세계일보 ····· 1032
5절 주간지 및 통신·영상·출판매체 ····· 1039

제3장 교육기관 설립과 인재 육성

1절 교육기관 설립의 취지 ····· 1048
2절 주요 교육기관 ····· 1052
3절 원모평애재단과 선학평화상 ····· 1062

제4장 문화예술단체 활동

1절 리틀엔젤스예술단 ····· 1068
2절 유니버설발레단 ····· 1075

제5장 스포츠를 통한 심정문화세계 실현

1절 88서울올림픽과 세계문화체육대전 ····· 1081
2절 축구단 창단과 운영 ····· 1087
3절 선문피스컵과 원구피스컵 ····· 1090
4절 세계평화무도연합과 통일무도 ····· 1093

제9편 심정문화세계를 위한 언론·교육·예술활동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하신 세계는 심정문화가 어우러진 신인(神人)공동체이다. 창조이상은 개성완성·가정완성·만물주관의 3대축복을 이루는 것이며, 그 세계는 곧 하나님의 심정이 인류 문화 가운데 구현된 심정문화세계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사탄 문화권을 일소하고 하늘문화권, 참부모문화권을 재창조하기 위해 진력하셨고,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한 여러활동을 전개하셨다.

참부모님께서 지향하신 심정문화세계는 온 인류가 국경·종교·인종 등 모든 장벽을 초월해 참사랑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이다.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심정문화세계의 바탕이 되는 사상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시고 통일원리를 근거로 한 통일사상을 체계화하고 그 통일사상의 절대가치를 인류 문화에 적용하고자 여러 학술단체들을 창설·운용해 나오셨다. 특히 석학들을 중

심으로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창설하시고 종교와 과학의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과학통일회의(ICUS)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셨다. 이 회의는 절대가치관에 의한 심정문화세계 창건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평화세계를 이루는 잣대와 통로 역할을 하는 언론매체를 창설하시고 세계언론인회의를 통해 언론인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셨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섭리국가에 종합일간지를 창간하여 세계적 언론 기반을 닦으셨다. 이와 더불어 세계인의 교육에도 심혈을 쏟으셨다. 한국과 미국에 대학을 설립하고 애천·애인·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을 미래세계의 동량으로 키워 오셨다. 그리고 한국에 초·중·고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셨다.

더 나아가 참부모님께서는 심정문화를 실체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스포츠단체를 창설하셨다. 리틀엔젤스예술단과 유니버셜발레단은 세계적으로 공연을 펼치면서 국위 선양은 물론 남북문화 교륙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축구단을 창설하여 축구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에 진력해 오셨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고귀한 족적들은 오로지 지구촌에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이상세계, 심정문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제1장 통일사상과 국제학술활동

1절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연구원과 통일사상

참부모님께서는 심정문화세계를 창건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가치관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1972년 8월 20일 통일사상연구원을 창설하셨다. 특히 20세기 냉전시대에 극명하게 대립해 온 유물론 중심의 공산주의와 유심론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사상을 비판·극복할 수 있는 대안 사상으로 통일사상(두익사상)을 제시하시고,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발전시켜 평화세계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사상연구원을 세우신 것이다. (p. 986)

1 앞으로 새로운 통일사관, 새로운 통일철학 정립과 새로운 문화세계 창건이 아시아의 한반도를 중심삼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상으로 하셨던 최종적인 소망의 기점이요 심정의 기점입니다. 또한 타락세계를 해원성사할 수 있는 기점입니다. (022-022, 1969.01.01)

2 금후의 세계는 우리에게 포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 세계를 단시일 내에 하나님의 품 안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사상연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은 학문적인 면에서 철학을 중심삼고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적 근거를 중심삼고 체제를 강화해서 세계의 새로운 문화사상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062-300, 1972.09.26)

3 국제승공연합 요원들은 훌륭한 강사가 되기 위해 연마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공연합 조직은 반 조직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기에 승공연합과 통일교회 전체가 총주력을 해야 됩니다. 또 세계평화교수협의회나 전국대학원리연구회, 기독학생연합회도 총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만 명의 반장을 맡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사상연구원은 각 조직의 장들이 강의하는 것을 곁길로 가는가 안 가는가 똑바로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그들이 강의한 것을 녹음해서 언제든지 점검하고 그것이 그릇될 때에는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단체가 커지느니만큼 공인된 내용을 발표해야지 사적으로 발표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연구원은 사상적 체제 정비의 총책임을 져야 됩니다. (145-111, 1986.04.30) p. 987

4 일본과 미국과 한국의 통일사상연구원이 만나서 역사관을 정립하고 사상을 어떻게 종교와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파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의 문제는 사상이 먼저냐 신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주장이 달라지면 갈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리지포트대학 연구원과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신이 먼저냐, 사상이 먼저냐, 원리가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상의 기원이 문제가 됩니다. 신이 없다면 사상은 공중에 뜬다는 것입니다. 근원을 하나로서 규정할 수 있는 논리적인 핵을 중심삼고 사상을 펴야 됩니다. 나중에 사상의 기원에 대해 답변을 못하게 되면 두 갈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닥을 잡아서 결판내야 됩니다. (435-152, 2004.02.03)

5 이 세계를 누가 책임지느냐? 특정한 개인의 사상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역사 이래 이미 탐구한 재료를 하나 더 남기는 폐물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계를 누가 책임지고 이끌고 가느냐? 물본주의와 유물

사상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또 인본주의 사상은 향락주의 퇴폐사상과 직결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다년간 역사적인 사상체계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이 볼 때 인간세계에 절대 필요한 가치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 역사가 추구하고 인간이 도달해야 될 최후의 목적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39-010, 1992.11.23)

6 세계를 움직이려면 사상적인 면에서 왕좌에 올라서야 됩니다. 이것이 첫 과제입니다. 그다음에는 과학기술에 있어서 세계의 왕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조직 편성에 있어서 세계의 왕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언론계에서 세계의 왕좌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면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상, 둘째는 과학기술, 그다음에는 경제, 그다음에는 언론입니다. 이 4대 분야에서 패권을 쥐는 기반을 닦으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기조 앞에 상대권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 놓으면 정치적 기반은 자연히 다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은 생애를 바쳐서 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원리적 주체 앞에 대상권 세계 기반을 닦기 위해 지금까지 혼자 해 나온 것입니다. (135-095, 1985.09.30) p. 988

7 앞으로 국가는 반드시 사상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상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하늘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 예감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지능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내가 내다본 것은, 앞으로 세계사의 노정 위에 벌어질 사상전에서 남아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세계를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내가 가는 목적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남들이 소년시대로부터 청년시대, 꽃다운 청춘을 자랑할 수 있는 시대를 다 흘려버리며 노는 곳을 찾아갈 때 나는 그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가지만 나는 사상전을 돌파할 이 길을 가야지.'라고 하며 나왔습니다. (138-015, 1986.01.13)

8 통일사상이란 무엇이냐? 이 우주의 근본 문제에 대해 유물사관과 유심사관의 두 사관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화한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통합해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을 제시할 목적으로 새로이 정립하고 새로이 체계화한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065-337, 1973.03.05)

9 이 세상에는 사상이 많지만 통일사상이 주체적인 사상입니다. 통일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통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사상입니다.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하나 만드는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화(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통일세계,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102-130, 1978.11.27)

10 통일사상은 주체와 대상의 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둘이 하나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어야 하고, 가정과 사회가 하나되어야 하고, 사회와 국가가 하나되어야 하고, 국가와 세계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 통일관에 의해서 사상이니 이상이니 하는 말이 나오지, 하나될 수 있는 목적이 없고 길이 없다면 다 깨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관념을 집어넣으면 목적관은 자연히 나오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변증법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변증법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이 투쟁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순된 것이 서로 투쟁하여 통일한다는 이 논리는 완전히 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없으면 존재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되어야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067-051, 1973.05.19) p. 989

11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기 전에 상대를 위해서 천지를 지었습니다. 상대에게 완전히 주고 난 후에는 그 상대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는 준 것에 플러스 되어 아담 해와에까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고 나면 그의 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주는 방법에는 천만가지가 있습니다. 말로는 줄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수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상대를 위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나온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치는 여기에서 다 풀리게 됩니다. 어떠한 경서라도 이 원칙에 대입하게 되면 그 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통일사상의 내용을 갖고 나아가면 놀라운 내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외적 통일이 아니라 근본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들고 나온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060-291, 1972.08.18)

12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움직이고 있지만 나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세계를 위하는 것입니다. 초국가적이요 초민족적이요 초인종적인 입장에서 국경을 넘어 서로가 사랑하고 생명까지도 엇바꿀 수 있는 대가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피가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사랑으로 엉길 수 있는 하나의 대가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사상입니다. 통일교회의 사상이요 세계적 사상입니다. (038-268, 1971.01.08)

13 우리가 복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통일의 행로에서 원수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국경이 문제입니다. 민족 감정을 초월하라는 것이 통일사상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을 초월해야 됩니다.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동족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실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책임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길에는 희생과 극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과 핵심은 희생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에서는 희생하라,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는 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048-191, 1971.09.12) p. 990

통일사상은 두익사상, 하나님주의

참부모님께서는 오랜 기도와 명상의 생활을 통해 절대진리인 통일원리를 찾으셨다. 이를 통해 체계화한 통일사상은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문제가 풀리고 세계에 적용하면 세계문제가 풀리게 된다. 이것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세계관이요 우주관이요 인생관이요 섭리관이요 역사관이다. 또 모든 종교 교리나 철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체를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통합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일사상에 입각한 승공이념은 공산주의를 비판·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안 사상이 바로 두익사상, 즉 하나님주의이다.

14 오늘날 종교계를 각성시키고 세계적인 사상계를 새롭게 각성시킬 수 있는 사명을 하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관을 제시한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통일사상은 막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수직적 방향을 취하여 갑니다. 그 수직적 방향은 심정의 터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심정의 인연은 역사가 변천해 나가거나 시일이 지나고 연한이 길어진다고 해서 희미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간이 지

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결집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을 때 아들이 있는 곳에서 부모에게 소식이 온다든가, 혹은 부모가 아들에게 소식을 전한다면 그 소식은 지금까지의 모든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됩니다. 그 소식이 제2 출발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자관계의 심정세계를 통해 체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하게 될 때 하늘부모와 땅의 자녀들이 가는 길 앞에 있어서도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51-070, 1971.11.01) p. 991

15 통일사상, 하나님주의는 두익사상입니다.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닌 두익입니다. 인류의 참평화는 우익으로도 아니 되며 좌익으로도 아니 됩니다. 그 근본 이유는 우익도 좌익도 이기주의를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을 나아갈 때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해의 상충만이 있지, 통일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새 세계주의가 나와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사는 이타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이상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이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주의의 본질은 사랑이요, 이 사상은 사람의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머리와도 같은 중심사상입니다. 그래서 두익사상입니다. 오른팔도 왼팔도 알고 보면 한 몸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가 없을 때에는 오른팔 왼팔이 서로 남남이 되어서 싸우지만, 머리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들어서면 오른팔도 왼팔도 모두 머리의 명령에 따라 몸 전체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의 협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64-194, 1987.05.15)

16 민주세계는 유심권이요 공산세계는 유물권입니다. 민주세계는 내적이며 하늘 편이고, 공산세계는 외적이며 사탄 편입니다. 유물과 유심은 하나입니다. 유물과 유심이 하나인 것을 몰라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보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이 그것입니다. 꼭대기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두 손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한 손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눈도 둘, 팔도 둘, 다리도 둘로서 전부 쌍쌍입니다. 길을 걸을 때 보면 팔이나 다리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만 그것이 정식입니다. 서로 반대이지만 그것이 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집을 때에는 같이합니다. 반대가 되는 것도 좋은 것이고 하나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반대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사상이 위대한 것입니다. (039-123, 1971.01.10)

17 민주주의는 형제주의입니다. 형제주의를 지나 부모주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주의의 가르침과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통일사상입니다. 두익사상을 중심한 하나님주의입니다. 이 논리적 내용은 역사와 더불어 비례적 기준에서 상응상화(相應相和)할 수 있는 주장이지 상반상충(相反相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 나오는 이상적 완성의 때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 소련과 미국, 좌익과 우익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서서 본연지(本然地)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수많은 도인들이 나왔지만 그 도인들이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애매하니까 혼란입니다. 혼란돈 종교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너무나 이론적입니다. 이론을 알고도 실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 아버님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달리면서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천운이 가는 길입니다. (207-285, 1990.11.11) p. 992

18 하나님주의란 무엇이냐? 참사랑을 중심삼아야 되는데, 거짓 사랑으로 인해 가정이 통일 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악마주의입니다. 거짓 사랑으로 인해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몸 마음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아들딸이 원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짓 주의인 악마주의가 출발하였으니 하나님주의가 나와야 됩니다. 거짓 사랑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된 개인, 참된 부부, 참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리가 아니고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주의요 두익사상입니다. 거짓 사랑을 중심삼고 전부 원수가 되고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통일이 없고 가정 가정이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수 십만 민족 분열상을 이루어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혼란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짓 사랑으로 분열된 세상을 만든 것이 악마주의입니다. 이것은 분열주의요 지옥주의입니다. 이렇게 분열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를 참사랑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와 대치되는 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주의입니다. (241-022, 1992.12.19)

19 두익사상은 뭐냐? 뿌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지엽적으로 전부 혼란되어 사지백체로 제각기 움직이는 **것**을 머리를 중심삼고 통일체를 만들어서 완전한 인격을 만들기 위한 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통일하는 주의요, 마비된 모든 세포적인 내용을 두익사상을 중심삼고 통일하는 주의입니다. 사탄주의는 분열시켜서 세부적으로 전부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열시킨 것을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연합해서 완전화하는 주의가 하나님주의입니다. 악마주의는 거짓 사랑을 중심삼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전쟁터와 같은 혼란의 마비 상태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모든 마비를 풀어서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아들딸이 되게 하는 주의입니다. (241-023, 1992.12.19) p. 993

20 사탄주의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하나님주의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입니다. 몸이나 정신만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통일해야 됩니다. 정신 자체가 마비되어 있고 몸 자체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완전히 통일시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악마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악마를 완전히 알아서 하나님과 악마를 분립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을 다시 찾기 위한 것이 하나님주의요 두익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주의는 통일사상과도 같습니다. 통일사상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연적인 인간은 사랑으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투입한 그 사랑을 통해 심신일체의 통일권을 이룰 때 여기에서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 가정으로부터 천하통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하나님을 중심삼고 몸 마음을 통일하고 가정을 통일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주의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두익사상입니다. (241-023, 1992.12.19)

21 통일사상은 심정철학입니다. 심정철학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상이나 원리와의 관계보다 인간과 관계가 되어야만 인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신이라는 규정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인격적 신이라고 해도 상대가 없으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435-154, 2004.02.03) p. 993

통일사상과 이상세계 실현

통일사상은 오늘의 혼란된 세계상을 빚어 놓은 모든 그릇된 철학과 주의·사상을 파헤쳐 하나님 중심으로 결속할 수 있는 사상체계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문제를 극복하고 국경과 종교, 인종문제 등으로 생겨난 각종 경계선을 철폐함으로써 평화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사상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1973년 6월 1일 통일원리를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이론서 《통일사상요강》이 발간되었다. (p. 994)

22 삼천만 민족을 통일하려면 삼천만 민족 전체를 통일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통일사상이란 아버님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삼천만 민족 모두에게 집어넣어서 사상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통일교회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헤쳐 보라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헤친다고 해도 통일사상이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떠받듦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통일주의입니다. 기필코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021-162, 1968.11.17) p. 994

23 오늘날 이 세계가 동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한 중심을 중심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세계가 하나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체의 나라보다 상대방의 진실로 더 귀하고 중하다고 하는,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선의 기반이 지상에 나타날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적인 창조이상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후에 영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통일교회는 종교라는 과정적인 개념을 초월하여 양심과 더불어, 마음과 더불어, 몸과 더불어 행동함으로써 천류의 법도에 일치하고 이념화될 수 있는 먼 장래의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내 가정과 종족을 거쳐 민족을 넘고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환경, 세계의 평면도상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할 수 있는 선의 왕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계 만민이 이러한 선의 왕국이 도래한 것을 찬양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을 찬양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을 천주 앞에 영원세세토록 찬양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가 바라는 행복의 이상세계를 영위하는 것이며, 통일교회가 모색해 나가는 종착점입니다. (024-049, 1969.06.22)

24 지금까지 수천년 엮어져 온 문화사는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길 수

있는 역사의 기록을 부모님 일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통일사상을 중심한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루려는 그 세계, 부모님을 중심삼고 이루어진 그 전통의 역사를 여러분이 고스란히 인계받아서 미래에 남겨 놓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중심삼고 이루어진 것이 이 세계를 전부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 모체가 참부모사상입니다. 참부모의 전통이 없이 참다운 자식들의 역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문화의 출발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짧은 기간이 우주 역사의 척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사상의 전통적 기반을 성립시켜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아 놓은 기반 위에서 가정이 성립되어야 하고 국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 주류사상은 자기를 중심삼은 사상이 아니고 전체를 중심삼은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사상의 주류입니다. (047-196, 1971.08.28) p. 995

25 지상에서 통일사상, 두익사상을 중심한 제일주의를 중심삼고 사는 것이 결국은 천상의 완성주의 생활이 됩니다. 지상에서 사는 대로 천상 세계에 옮겨져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 제일주의와 천상 완성주의 생활입니다.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천상에서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을 가지면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제일주의와 천상 완성주의 생활은 결국 참부모를 중심삼고, 왕권을 중심삼고 생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 왕권을 중심삼고 생활하면 천상세계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나 저 땅에서나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232-335, 1992.07.10)

26 개인 입장에 있어서 세계적인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더라도 가정의 터전 위에서 쓰러지고, 죽더라도 가정의 터전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사상입니다. 가정은 죽더라도 거기에서 가족을 데리고 종족의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또 종족은 망하더라도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민족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화살을 다 받고 온갖 억울함을 다 당하더라도 그 비참한 화살은 하늘의 영광이 다짐될 수 있는 것이요, 악의 무리인 원수의 주권하에 있는 백성이 그러한 사정을 극복하고 나설 때에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백성의 전통을 세우고 사탄세계에 승리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

고 굶주린 배를 붙안고 눈앞에 있는 원수의 진영을 응시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면서 걸어온 통일교회입니다. 통일교회는 망하더라도 통일교회가 찾아가는 그 나라는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자비하게 수난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048-254, 1971.09.19) p. 996

27 지금까지 인간세계에서는 개인의 상대관이 다르고 가정의 상대관이 달랐습니다. 이 관을 총괄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주류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통일사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중심삼고 개인 통일, 가정 통일, 민족 통일, 국가 통일, 세계 통일을 이루어 나중에는 하나님 통일을 거쳐 관을 초월하는 세계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권도 없습니다. 주권자가 높은 것도 아니요 상대자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주권자는 상대자를 위한 것이요 주체는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가 와야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지배자니 비지배자니 하는 모든 어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논고를 통해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은 인간의 사랑에도 관이 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랑한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 통일사상입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세계도, 공산주의 세계도 이 사랑 기준에 흡수시켜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상세계가 올 수 없습니다. (060-283, 1972.08.18)

28 오늘날 세계가 원하는 것은 메시아사상입니다.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로 메시아사상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지 않고는 부모는 복귀되지 못합니다. 누가 가인과 아벨을 하나 만드느냐? 아벨이 가인을 하나 만드는 것이지 가인이 아벨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알고, 공산주의의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주의의 좋은 것이 공산주의의 좋은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중심한 민주세계와 공산이념을 중심한 공산세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일사상을 중심삼고 이것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메시아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중심적인 진리,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면 개인적으로 메시아사상을 가지고 진리와 사랑으로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혼란 상태를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와 참다운 사랑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아버님이 원하고 인류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118-164, 1982.05.23) p. 997

29 어떤 나라든 쇄국주의로 간다거나 제국주의를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국가는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된 나라로 출발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종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한 국가에서 출발했지만 세계가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상적인 기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상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일교회는 통일사상을 주장합니다. 이 사상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상의 골자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랑은 민족을 넘은 사랑입니다. 자기를 중심삼은 가정 일원화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느 가정을 사랑하는 도수보다도 높은 차원의 사랑을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이것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중심삼고 역사상에 없었던 윤리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강한 사랑으로 결합된 윤리 형태에서 가정 유대가 횡적으로 발전하면 이것은 종족을 넘어서 민족 혹은 국가를 형성할 것이고, 세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적인 심정적 사랑의 기원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공인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060-265, 1972.08.18)

30 통일사상을 처음 쓸 때에는 본체론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아버님이 원상론으로 고치라고 한 것입니다. 원상론에는 신상(神相)과 신성(神性)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그것은 종교적 술어가 아닙니다. 학문적 술어로 쓴 것입니다. 철학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본 된 하나님이 본래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원상론입니다. 통일사상에는 이상가정론과 영계론, 천국**론**이 없습니다. 현재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어넣어 13개 항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13수에 갖다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353-181, 2001.09.06) p. 998

2절 국제과학통일회의

국제과학통일회의 제안 배경

참부모님께서는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세계평화 실현을 모색하는 국제과학통일회의(ICUS)를 개최하셨다. 이 회의는 197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차 국제과학통일회의는 1972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현대과학의 도덕적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미국 뉴욕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렸고, 제2차 회의는 1973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현대과학과 도덕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2차 회의에는 저명 물리학자를 포함한 노벨상 수상자 5명이 참석하였다. 그 후 국제과학통일회의는 '절대가치'라는 주제를 내걸고 세계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참부모님께서 대회마다 창설자로서 기조연설을 하셨다. (p. 998)

1 아버님에게는 하늘의 소명을 받아 세계를 어떻게 수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이상세계로 끌고 가느냐, 그 첩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수사회를 결속시키고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1971년 미국에 갔을 때 황량한 벌판에 나선 고아와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데 벌거벗은 고아와 같은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에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 문제를 일으켜 격동시켜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기반을 닦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42-188, 1986.03.09)

2 내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우리 교회본부의 1년 예산이 2만6천달러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한 달에 쓰는 것이 350만 달러내지 450만 달러가 됩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몇 백배의 경제 기반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비자 문제가 나와서 미국 정부에서 일본 식구와 독일 식구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아내기 전에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이런 싸움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세계적인 반공전선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젊은이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최고의 지성인, 세계적인 학자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110-173, 1980.11.17) p. 999

3 국제과학통일회의가 출발할 때 나는 면사무소의 급사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항했으면 벌써 다 뭉그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기조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한 사람은 거기에 반대해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높은 산이 되었으면 바람도 먼저 맞아야 되고 여름이라 해도 눈을 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산이 다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살고 있을 때 그렇게 높은 산꼭대기에서 백설을 지고 혼자 고독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백두산 혹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정을 답반(踏攀)하는 용사들 앞에는 그것이 희망봉이 될 것입니다. (207-186, 1990.11.09)

4 아버님이 미국에 와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공산세력이 지금까지 정치와 외교문제를 놓고 정부에 대해 반대운동을 해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가를 중심삼은 활동이 돌변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공산세력이 지하에서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꼭대기에 가서 그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라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미국을 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연결시켜 앞으로 방대한 연결체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대회나 정치학자대회 같은 것을 구상해서 앞으로 유엔에서 공산세력이 주도권을 쥐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나라가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해서 기반을 넓혀 우리의 올바른 터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그들에게 민주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사명을 그냥 그래도 인계하여 그것을 천의에 결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67-314, 1973.07.22)

5 국제과학통일회의 각 분과 분과의 전문위원들은 전문적인 학자들로서 그들이 그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서로 통합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일이 오늘날 학계에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앞으로 통일교회가 상당히 비중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아버님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 후원·동조할 수 있는 기반이 최고의 지성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회의 가운데서 학술회의는 분과별로 전문분야의 학자들만 모여서 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대한 전체 분야의 모임을 개최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을 대표한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70명 이상이 규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학술회의는 세계에 없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

은 유명한 10개 대학이면 10개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중심삼고 그 사람들이 주동해서 금후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게 하든가, 인선을 하여 학교별로 조직화해서 모든 교수들에게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생들을 움직이는 운동을 조직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이 국제과학통일회의에 거는 소망이요 관입니다. (074-113, 1974.11.25) p. 1000

6 1972년 제1차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미국 뉴욕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개최했는데 32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심부름꾼과 마찬가지로 귀퉁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줄 모르는 영어였지만 내가 설립자로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서 그 성과가 좋으니 아버님이 잘했다고 하지 의장이 잘했다고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세계의 학자들이 아버님을 존경하고 있고 으레 어른으로 대접해야 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국제과학통일회의에 참석했던 학자들을 모아 연회를 한다면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 기반이 다 닦아졌다는 것입니다. (107-221, 1980.05.19)

7 세계적인 석학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제2차 대회는 도쿄에서 열렸는데, 도쿄대학을 중심삼은 유명한 학자들을 앞세워 세계의 석학들을 모아서 대회를 하였습니다. 나는 이 대회 창설자이니 만큼 인사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인사를 하는 것은 조직세계의 사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연하고 인사하는 순서가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저녁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를 우습게 알았다가 한번 들이맞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슨 왕관이나 감투를 쓰고 도복을 입고 행차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통일교회 교주 문 아무개야?'라고 하면서 내가 단 위로 올라가는데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놓은 판국에서 웃으면서 '나는 아시아와 세계의 운명을 걸고 여기에 섰다.'는 생각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109-235, 1980.11.01) p. 1001

8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뉴욕에서 1차 대회, 도쿄에서 2차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3차 대회는 런던에서 하게 됩니다. 4차 대회는 또 뉴욕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무대에 있는 거성들, 학계의 거성들을 규합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4차까지 해서 세계적인 저명인사, 다시 말하면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들 수십 명이 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세계무대를 향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더라도 언론기관에도 부끄럽지 않은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대회까지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세계학자들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끌고 나가면서 배후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전문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하는 것이 금후의 세계를 움직이는 데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071-173, 1974.04.30)

9 1975년 11월에 60개국의 석학들을 모아서 국제과학통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라든가 세계에서 권위있는 학자 350명을 초청해 뉴욕에서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벌써 햇수로 5년째로 들어섰는데, 6년째만 되면 세계의 이름난 학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동반하여 대학원리연구회 조직을 세계적으로 강화시켜서 이 사람들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려면 대학가를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세계적인 대학가를 움직이는 사람이 앞으로 세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와 경제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085-290, 1976.03.04)

10 박사라고 해서 자기 전문분야 외의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만들어 학자세계의 담벼락을 허문 것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경제학이니 정치학이니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제고학통일회의를 만들어 그것을 평준화한 것입니다. (375-238, 2002.04.15) p. 1002

11 아버님이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을 모아서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석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이용하더라도 망할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학계의 담을 터 버린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들과 정치·경제·철학자들이 한 대학에서 만나면서도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들을 형제지간으로 만들고, 최고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합운동을 통해 민족 감정을 넘어서서 초국가적인 민족 심정권과 초국가적인 통일적 역사를 계발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중에서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대회의 주제도 내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님을 최고로 모신 것입니다. 아버님이 위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두고 찬양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351- 305, 2001.08.28)

12 국제과학통일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사명은 첫째로 중요한 요원들을 선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발하게 되면 여러분이 추천해 주어야 됩니다. 둘째는 장기적 유대 조성입니다. 일시적으로만 하지말고 한 번 했으면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기적 유대를 맺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에 한 번 나오고 흘러가 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앞으로 미국이면 미국의 주에서 오는 교수들의 비용 일체를 그 주가 책임지고, 각 나라에서 오는 교수들의 비용 일체를 그 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들을 논설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신문사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논설위원으로서 얼마만큼 능력이 있겠는지를 알아서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를 중심삼고 중요한 인물선출, 장기적 유대, 자금부담, 대학가나 언론에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088-177, 1976.08.10)

과학의 역할과 절대가치

참부모님께서는 종교와 과학, 그리고 사상의 통일을 비롯한 세계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가치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이를 국제과학통일회의의 주제로 내세우셨다. 3차 회의부터는 '과학과 절대가치' '과학의 구심성과 절대적 가치''과학의 조화와 절대가치의 탐구''변천하는 세계에 있어서의 절대가치의 탐구''기존 가치의 재평가와 절대적 가치의 탐구''절대가치의 탐구와 학계의 책임''절대가치와 인류 평화를 위한 모색''절대가치의 탐구와 새로운 세계의 창조' '절대가치와 새문화혁명''절대가치와 현대사회의 재평가''절대가치와 과학의 통일 기원과 인간의 책임' 등 '절대가치'가 공식 회의 주제가 되었다. (p. 1003)

13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만이 아니고 보다 큰 인간 의식의 혁명입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자연과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회과학이나 예술 혹은 종교 등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현재·미래에 영향을 주는 인류역사의 궁극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간 의식의 혁명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모든 인류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하여 연구 결과를 사용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상은 개체목적과 전체목적을 완전하게 조호시킬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연구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순간적인 개체목적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전 인류를 위한 분야, 다른 여러 분야를 통합한 폭 넓은 전체목적과 더불어 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연구한 결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특수한 연구 분야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다 큰 설계와 청사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통합을 이루어 나가려는 공통이상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081-092, 1975.11.28) p. 1003

14 제4차 국제과학통일회의의 주요 목적은 특수한 연구 분야들을 통합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최고 차원의 근원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아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은 우주적인 마음 혹은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인간은 그의 생명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 우주에 있어서 절대가치의 구심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인류가 국가나 종족을 초월한 형제자매들이며 하나의 인간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참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은 그 영역의 바깥에서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081-093, 1975.11.28) p. 1004

15 과학 정책은 사회를 전체로 다루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합니다. 과학이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전체 목적의 중심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치의 기준을 토의하고 또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사물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과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야나 정신적 차원의 내적인 거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영역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세계에 놓여 있는 중심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최고 차원의 형이상학적 세계의 중심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후자를 불변의 축으로 해서 전자가 수수작용을 영원히 그 주위를 돌게 되면 시공의 모든 존재에서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081-093, 1975.11.28)

16 여러분이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나 양키스타디움 대회, 여의도 구국세계대회와 같은 것을 볼 때 굉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대개 한 때로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모여서 모든 학문을 초월해서 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지상세계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재료로 남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록영상의 한 장면은 영원히 귀중한 보물로 남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영상으로 보고 그 전통을 생각할 때마다 '레버런 문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했고, 그런 사상으로 말미암아 저러한 반응이 벌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동기가 되어 전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상은 결국 이 교수들로 말미암아 후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의 사상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090-179, 1976.12.14)

17 나는 종교지도자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과학의 문제나 종교와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영원성에 관한 어떠한 내용을 추구하고 있든, 또 다른 사람이 어느 사실을 관찰하고 있든 간에 서로 다른 학술 분야 간에는 하나의 관계가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월적인 존재와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와 철학은 오랫동안 인간의 양심을 점령하고 있는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왜 고통이 있게 되었는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후의 세계는 과연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은 학술문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규칙성과 시간과 공간에서의 사물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과거 수백년 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과학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부터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의 목적과 방향성을 모른다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기준의 추구는 이 목적을 위한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095-201, 1977.11.25) p. 1005

18 내가 국제과학통일회의를 중심삼고 절대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절대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빼놓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12차 대회부터는 확고한 조직을 편성해서 새로운 문화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불교면 불교도 이런 절대가치를 중심삼고 불교사전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도 절대가치를 중심삼고 지금까지의 신학체계를 다시 만들어 사전을 펴내야 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절대가치의 기반 위에선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에 있어서 그런 비전을 누군가가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새로운 문화혁명의 기치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배후를

중심삼고 앞으로 한국에 희망의 물결이 찾아오게 될 때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서 세계의 환호성을 받으며 전진할 수 있는 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기반을 통해야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꿈을 꾸고 지금까지 해 나온 것입니다. (109-258, 1980.11.01)

19 아버님이 국제과학통일회의를 19차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학문은 상대적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상대적 가치는 혼자서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의 속성이 다 다르지만 전체 중심적 속성의 내용은 무엇이냐? 절대성이 있다면 절대성 혼자 어떻게 상대를 맞습니까? 유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핵을 이룸으로써 운동이 벌어집니다. 주체와 대상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 이것이 4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은 유일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절대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지만 유일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유일이라는 말은 두 존재가 하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서로가 내용을 바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자 상대 것이고 상대 것이자 자기 것입니다. 영원히 가져다가 보충시킬 수 있는 내용을 두고 말합니다. (586-066, 2008.02.06)

20 부모를 사랑의 주인으로 결정지어 주는 것은 아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내입니다. 절대가치의 결정은 상대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중심삼고 창조해서 우주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와 반대 입장에 선 인간이 자기를 중심삼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든 세계는 필연코 끝날에 가서 없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이상만이 새로운 하늘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

다. 그러한 이상만이 가정이면 가정, 사랑이면 사랑, 평화면 평화, 모든 것의 기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국제고학통일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통일사상의 결론을 못 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계는 상대적 가치를 말할 뿐이지 절대가치는 없습니다. (506-267, 2005.09.04)

21 내가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절대가치론을 중심삼고 세계의 유명한 교수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절대가치의 결론을 지은 것이 2004년입니다. 비로소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전환하는 때에 절대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가 사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아기가 결정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간에 부모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 남자가 결혼하고 첫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주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내요, 아내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남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절대가치론을 중심삼고 사상적 기조가 성립되었습니다. (515-316, 2006.02.01) p. 1007

3절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창설 목적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중심으로 평화세계 건설을 위한 각 분야 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평화교수협의회(PWPA)를 창설하셨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창립총회는 1973년 5월 6일 서울에서 교수 초청 통일원리 세미나와 대학원리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연결된 교수 등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 회원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학문적 기여'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 교류·협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986년 1월 21일 참부모님의 지시에 의해 세계평화교수협의회 부설기관으로 한국 각지 100여 곳에 향토학교를 설립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등 대사회 활동도 전개하였다. (p. 1007)

1 우리가 통일과학이라는 문제를 중심삼고 전 세계적으로 교수들을 초청해서 연차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맨 처음에는 비판도 했지만 요즈음에 와서는 '레버런 문이 하는 것은 전부 심각한 문제다.'고 말합니다. 이런 단계에 들어가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수들을 하나로 규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들을 규합하기 위한 작전을 한국에서 해야 되겠기 때문에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교수들이 이 평화세계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실제 행동은 못하지만 머리를 쓰고 글을 써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선봉에 서야 되겠다.'고 해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을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세계평화교수협의회가 결성될 것입니다. (071-175, 1974.04.30)

2 세계평화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광장〉이라는 월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 대학교에 발송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름 있는 교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저명한 교수들을 규합해서 아시아평화교수협의회가 발기만 되면 이것이 유럽에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 서부의 중진교수들을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핵심요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조직을 편성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부모님은 이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중심삼고 노벨상 수상제도와 같은 제도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이상의 상금을 걸고 세계기록을 깨뜨리는 표창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071-176, 1974.04.30)

3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학자들입니다. 정치가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유명한 교수나 학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정책 수행자들은 그들의 두뇌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들과 대학생들을 보면, 학자들은 선두에 섰고 대학생들은 이 시대의 뒤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연결시켜야 중추가 됩니다. 등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교회가 반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연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나 통일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아버님이 세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미국에서 활동할 앞날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095-205, 1977.12.04)

4 인간 개인의 몸 마음이 갈라짐으로써 인류역사는 사탄 판도와 하늘 판도로 분리되어 투쟁의 역사를 거쳐 나왔습니다. 개인에서 갈라지고 가정·종족·민족이 역사시대를 거쳐 오면서 수없이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권과 정치권이 싸웠는데 언제나 정치권이 종교권을 쳤습니다. 또 과학세계와 종교권이 싸워 나왔는데 과학세계가 언제난 종교권을 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시대에는 정치권과 종교권, 또 과학세계와 종교권의 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계 학자들을 규합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과 종교권이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일하려면 먼저 세계의 학자들을 규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과학통일회의와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들 학자와 통일교회가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권과 정치권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215-065, 1991.02.06)

5 우리는 학계를 수습해야 됩니다. 학계를 수습하기 위해 국제과학통일회의를 개최해 나왔습니다. 이 회의는 세계적인 학자를 묶는 데 있어서 유일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 중심으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세계평화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중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하나의 모델형과 국가적인 하나의 모델형을 만들어 국가적을 성과 있는 사람은 세계로 갈 수 있게끔 묶어 주는 것입니다.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학술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우리가 배후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9-245, 1990.11.30)

6 우리가 국제과학통일회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이러한 세계적인 교수협의회가 있으니 당신들도 여기에 가입해 주시오.'라고 하면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10개국이면 10개국 과학계의 중진과 손잡을 수 있습니다. 교수협의회에 세계적인 학자들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아시아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학자들을 교수협의회에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인 교수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날에는 금후의 세계를 위해서 세계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다방면의 전문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분과별로 세계에 없는 간행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분야 농업분야 과학분야 등 각 분야의 잡지는 세계에 이름난 사람들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의 세계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뇌부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062-296, 1972.09.26)

7 세계적인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디 가든지 우리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ㄷ들을 초청하여 순회교수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만 강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중심삼고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순회강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월급은 우리가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순회교수단을 만들어 세계를 한 바퀴 돌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느 대학에 가 있더라도 관계되어 있는 학자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올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주관 밑에서 학위를 받으면 그 문하생들도 세계적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 6년 후에 한 바퀴 돌면서 학위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학에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062-298, 1972.09.26) p. 1010

8 앞으로 세계적인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한 500명의 교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하면 대학가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을 짓게 되면 교수협의회에서 추대를 받은 세계적인 대학교수들을 우리 학교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한곳에 집중시키면 세계적인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움직이고 사회제도가 거기에 상대적 기반을 갖게 되면 이 나라는 세계적인 문화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근대에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세계적인 인재들을 품을 수 있는 대학이 민주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각 나라에서 장관, 국장들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적인 주도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060-231, 1972.08.17)

9 미국에서 대학가를 포섭하기 위한 간접적 작전을 하기 위해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평화교수협의회를 일본에도 만들고 대만에도 만들었는데,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압니까? 세계적으로 이 평화교수협의회를 연결시켜 앞으로 세계대학연맹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세워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068-057, 1973.07.23)

10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만들 때 일화가 많습니다. 당시 정보 당국에서는 '정부의 힘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움직여도 13명의 교수밖에 안 모였는데, 문 아무개가 교수아카데미를 만들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견지에서 하지만 나는 아시아적 견지에서 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횡으로 왕래하는 기반을 다 갖추어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편성을 한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본까지 가능하였지만,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반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삼고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발판으로 삼아 유럽 여러 나라에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단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175, 1980.11.17)

11 여러분 교수들은 세계평화교수협의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핍박도 받고 별의별 어려운 환경을 거쳐 오면서 일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을 일본학자들과 연결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그 운동을 할 단계에 들어왔고, 미국이 할 단계에 들어왔고, 영국이 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연결시켜서 한국을 구하고 공산진영을 방비해야 됩니다. 이런 거대한 연결체를 만들어서 한국이 금후에 가야 할 길, 즉 남북통일을 하고 아시아 제국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을 표준으로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자들이 동원되고, 경제인들이 동원되고, 정치인들이 동원되고, 각 분야가 동원되어서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학자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110-190, 1980.11.17)

12 한국 최고의 지성과 권위를 가진 학자 여러분은 이제 이 나라가 갈 수 있는 방향을 교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연구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클럽 연구시대입니다. 그것도 국가 내의 클럽 연구시대는 지나가고 아시아의 학자들을 규합한 클럽 연구시대,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학자들을 중심한 클럽 연구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갖추지 않고는 세계에 방향을 교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풍토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국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후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내가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꿈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천의에 의해 금후

의 세계가 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노력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합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110-196, 1980.11.17)

13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중심삼고 아시아의 학자들이 힘을 합하게되면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백과사전이든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 여러분이 일심동체가 되어 협조할 수 있다면 내게 있는 미력이나마 여러분의 뒤를 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이나 회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아적인 주체성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사상이라든가 통일원리 등을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완전히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110-210, 1980.11.17)

14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2세입니다. 2세, 대학생들을 수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수들을 붙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대학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국가체제를 중심삼고 남북통일의 시대가 올 때에는 선두에 서게 해야 됩니다. 이들이 선두에 서야 됩니다. 2세를 붙들고 아버님처럼 눈물 흘리고 남북통일의 사상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지를 교회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면 책임자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선생들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애국사상을 심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통일은 문제없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향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향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학교를 만들고 지금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나 재미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적 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탕감복귀역사를 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해 나왔습니다. 내가 알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협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175-030, 1988.04.06)

15 대학교수들을 중심삼고 전국의 대학가를 움직이고 교수를 움직여야 됩니다. 또 지방의 중고등학교를 움직여야 됩니다. 공산세력이 좌익 색채를 띤 교재를 중심삼고 학교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버려두었습니다. 교육 당국이 책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에서

대학교 총장을 움직여야 되고, 중고등학교 교장을 움직여야 되고, 초등학교 교장을 움직여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누구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수입니다. 아버님이 통·반에서 향토학교를 만든 것은 이 운동을 위해서입니다. 향토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애국은 향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향토학교를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피살이 애국심에 불타거들랑 밤을 지새워 가면서 마을의 불쌍한 사람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171-302, 1988.01.02) p. 1012

세계 의장단의 '12 · 18선서 결의문'

제1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가 1983년 12월 18일 서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세계 72개국 의장단 70여 명을 비롯한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참부모님께서는 창시자로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와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격려사를 하셨다. 72개국 의장단은 참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로운 선주권''하나님 아래 하나의 백성''하나님 아래 하나로 통일된 평화세계''종교에 의한 새로운 인격 변화를 받은 인류''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세계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선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8대 도시에서 개최된 승공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16 우리가 1983년 승공궐기대회를 할 때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끝낸 교수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이 11월 28일부터 돌아가는 중인데 한국을 방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래 놓고 얼마나 움직이느냐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에 세계평화교수협의회 72개 지부가 있었는데 그 대표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었지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승공궐기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럴 만큼의 학계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10-085, 1990.12.01)

17 1983년 제1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에 참석한 의장단이 승공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때 72개국의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의장단이 한국에 와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 놓고 전국 8대 도시에서 승공궐기대회를 하였습니다. 12월 18일 결의문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앞으로 역사시대에 이 교수협의회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평화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세계를 지도하려면 자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가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42-197, 1986.03.09)

18 아버님은 한국에서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전 세계의 운세를 몰아 한국에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재미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고위층 사람이 아버님한테 와서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부탁하였고, 미국에서 장래의 운명을 건 운동을 할 사람들이 와서 아버님과 하나되어 세계문제를 해결하자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한국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을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통해서 전부 모은 것입니다. 세계 72개국의 석학들을 모아서 세계 운세를 가져다가 한국에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6·25동란 때 16개국의 유엔군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만 독립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의 자유세계 국민들이 합해 총결속해서 독립 성취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세계적 시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2개국 학자들이 한국에 가서 승공이라는 명제 앞에 선서하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30-112, 1984.01.01) p. 1014

19 1983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국가와 교회의 기반을 탕감함과 동시에 72문도가 하나 못 됨으로써 예수님이 죽은 것을 탕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72개국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의장단을 한국에 데려가 한국 민족이 협조 안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 대회는 메시아 선포와 더불어 민주세계든 공산세계든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72개국에서 온 의장단은 나에 대한 증거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지만 자유세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고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되어 지원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사탄이 지금까지 원리결과주관권 내를 중심삼고 지배하던 모든 사실, 지금까지 나라와 세계가 가는 길을 나라에서 막으려고 하던 것을 터 놓았기 때문에 사탄은 영영 지구성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뜻은 참부모와 통일교회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131-013, 1984.02.20)

20 국가 정상들의 조직인 세계평화정상회의와 교수 조직인 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중심삼고 벌써 수십년전부터 그들과 관계를 맺어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국가 정상들을 묶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님을 선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아버님을 환영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또 그 나라의 대학교 총장과 언론계의 대표들이 아버님을 환영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분야든지 세계의 정상

에 손을 안 댄 데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지시한 방향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66-176, 1994.12.25)

제2장 세계언론인회의와 언론매체 창설

1절 세계언론인 회의

언론의 역할과 책임

참부모님께서는 심정문화세계 실현을 위해 언론매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많은 투자를 하셨다. 특히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에 이은 4권으로 세계평화 실현과 자유 민주 체제 수호자로서의 사명이 크다고 강조하셨다. 이를 위해 언론매체를 설립하고 세계언론인회의를 창설하여 적극 지원하셨다. (p. 1015)

1 내가 4권주의 시대를 부르짖었습니다. 입법·사법·행정부처를 넘어설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4권인 언론이 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것은 언론계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언론기관을 창설해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중심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워싱턴타임스입니다. (403-141, 2003.01.21.)

2 이제부터는 제4권, 세계의 언론기관을 묶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계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하나님과 영계를 중심삼고 현재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올바로 교육을 하게 되면 인본주의 사상, 물본주의 사상은 다 깨져 나갑니다. 프리섹스니 호모니 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교육을 해야 됩니다. (403-184, 2003.01.22)

3 지금부터 세계는 3권 시대가 지나갑니다. 4권인 언론을 위주로 해서 세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버님은 기존의 세계언론인회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혁명적인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세계언론계연합 한국대회'를 해야 됩니다. 초세계언론계연합의 '초'는 무엇이냐? 영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면 세계의 공산주의 문제, 정치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세계와

싸우면서 언론계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제 워싱턴타임스는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에 맞추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전에 런던 세계언론인회의에서 워싱턴타임스에 보수계의 주역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정상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UPI통신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팎의 내용을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403-009, 2003.01.19)

4 4권시대에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잡는 것은 나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엔도 안 됩니다. 언론계가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언론기관이 선거 문제를 좌우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언론계를 악용하게 되면 세상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세계를 지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늘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의 세계적 지도권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4권을 중심삼고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403-010, 2003.01.19)

5 앞으로 무엇으로 세계를 지도할 것이냐? 대학으로도 안 됩니다. 정책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군사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다 실험을 필했습니다. 공산주의로도 안 되고 민주주의로도 안 됩니다. 4권시대를 맞이해 언론은 공산주의에 대해 파헤쳐야 됩니다.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 언론계가 파헤칠 때 답변을 못하면 물러가야 됩니다. 민주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 이상 단시일 내에 검증할 수 있는 실력 기반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언론이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언론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03-011, 2003.01.19)

6 미국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현재 3권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습니다. 4권인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1천700개 이상의 언론기관이 있지만 워싱턴타임스가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1천700여 개 언론기관 가운데 3분의 1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옛날에는 통일교회를 나쁘게 보도하였고 워싱턴포스트도 자기 마음대로 보도하였지만 이제는 체제가 달라졌습니다. 정부도 그럴 수 없고 진보적인 쪽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곡되게 보도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081-092, 1975.11.28.)

세계언론인회의와 언론인현지조사단 파견

제1차 세계언론인회의가 1978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언론인회의는 전 세계 주요 언론기관의 발행인, 편집인, 논설위원, 기자, 언론학자 등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참다운 언론상을 정립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열렸다. 특히 제11차 세계언론인회의는 1990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소련 모스크바에서 65개국 6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참부모님께서는 4월 11일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한·소관계의 새 장을 여는 단독회담을 가지셨다. 한편 참부모님께서는 세계 언론인으로 구성된 언론인현지조사단이 언론의 사각지대를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셨다. (p. 1017)

7 미국에서 우리를 중심삼고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신문사를 만들자마자 미국의 40대 신문사 편집국장들과 발행인들을 모스크바에 방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컸습니다. 자유세계, 민주세계에 이름이 나 있는 워싱턴타임스의 대표 아버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소련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을 중심삼고 앞으로 언론계를 동원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가에서는 독일이면 독일 전체가 부처가 20개라면 그 20개 부처를 대해서 취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유럽 전체의 이이글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의 한 국가가 유럽 지역의 평화를 위해 가는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운동을 하여 성공하는 날에는 다른 나라들까지 따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취재하여 소개를 하다 보면 유명한 언론인들이 틀림없이 규합된다고 봅니다. (121-027, 1982.10.21)

8 내가 모스크바대회를 선언했는데, 모스크바에 가게 되면 소련 언론에 질문을 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소련 언론계 대표와 자유세계 언론계 대표가 미국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필요합니다. 언론이 세계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적인 책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계언론인회의를 지금까지 해 나온 것입니다. (124-332, 1983.03.01)

9 언론기관은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들을 매일매일 지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그것이 하나의 푯대가 되어 올바로 가려 주어야 할 텐데, 이 언론기관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사회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게 되어 균형이 취해지지 않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이용되고, 돈만 가지면 마음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공증기관으로서의 지도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언제든지 균형을 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정도에 선 세계적인 언론기관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보문제입니다. 소련은 미국, 자유세계에 불리한 방향을 표준으로 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금 소련과 민주세계의 정책 수립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절대 시정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절대이념의 표준 밑에서 공산주의 이익 기반 확대를 통해 자유세계의 기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바라잡아 주는 것은 도의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교육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언론인들이 합해서 미국이나 소련이 자체의 이익을 중심삼고 나아가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계에 공포해서 그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해야 될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론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언론인회의입니다. (165-160, 1987.05.20) p. 1018

10 내가 미국에서 워싱턴타임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수 일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2년 창간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4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세계적으로는 단 하나 세계인들의 희망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워싱턴타임스가 일간지로서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세계언론인 회의도 해왔습니다. 1987년 9월 20일 수백 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대행사를 세울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 국제적인 모임을 반대하던 극렬 좌경파도 여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지금은 세계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165-162, 1987.05.20)

11 과학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결과를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충되는 가치적인 존재, 가치적인 실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해서 신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 놓고, 그 기준과 인간의 사상적 전체 기준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학자들이 해야 되고, 종교가들이 해야 되고, 정치가들이 해야 되고, 사상가들이 해야 되고, 모든 분야의 세계 첨단에 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상적 기준을 중심삼고, 언론인들을 사회의 도의적인 교육센터에 묶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보는 방향과 미국 사람이 보는 방향, 프랑스 사람이 보는 방향, 독일 사람이 보는 방향, 소련 사람이 보는 방향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전부 일치된 방향성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 세계에서 만들어 놓으려니 언론기관을 중심삼고 학자들을 묶어서 지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165-164, 1987.05.20)

12 아버님이 창설한 언론기관이 공산세계 언론계가 문제시할 만큼 커졌습니다. 워싱턴타임스를 만들고 세계언론인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인 현재조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으로 지금 언론계가 아버님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공산세계가 극단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 5월 12일 미국에 오자마자 직격탄을 쏜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공산세력과 맞붙어서 싸운 것입니다. 그들은 별의별 나쁜 말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단체 같았으면 없어지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한 악선전 가운데서도 커 나왔습니다. (132-169, 1984.06.01)

13 워싱턴타임스를 중심삼고 세계언론인회의라든가 언론이현지조사활동을 통해 세계 언론계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공산세계도 제일 문제시하고, 또 미국에서 진보주의 경향을 띤 언론기관들이 제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버님의 언론기관입니다. 이런 언론기관을 갖고 있음으로써 세계 정보에 대한 첨단의 모든 비밀이 우리 것으로 입수되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정보전쟁시대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기반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161-052, 1987.01.02)

14 워싱턴타임스가 레이건 독트린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소련의 개혁·개방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타임스는 걸프전쟁 때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은 종교전쟁이 벌어지면 인종전쟁이 되고, 인종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백인들의 목숨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불교와 유교는 동양권 종교이고 기독교는 서양권 종교이기 때문에 인종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6-257, 1991.04.07.) p. 1020

15 언론인들은 보통사람들과 다릅니다. 세계 언론인들이 소련을 방문할 때 당국에서는 자신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라고 말하지만 그 언론인들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갈 리 없습니다. 데리고 다니다 보면 담을 타 넘기도 하고, 3분의 1은 어디로 없어져 버립니다. 모두 주변을 뛰어 돌아다니며 취재해서 완전히 소련 봉쇄 정책의 배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에서는 '큰일 났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이 그렇게 소련을 한번 방문하고 나서는 좌경에서 우경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위장작전을 해서 인류를 속이고 있다. 이론 자체도 그렇다. 정치체제를 통해 70년 역사의 배후가 그러한 위장전법으로 되어 있다. 인류를 속이고 나라들을 속이고 침략해서 독재 기반을 세계에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갈 속이 없습니다. 보수파를 지금까지 두들겨 왔으므로 하는 수 없습니다. 아버님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183-126, 1988.10.31)

16 아버님이 언론인현지조사단을 세계의 언론계를 통해서 모스크바에까지 투입하였습니다. 소련을 끌어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소련이 정치국을 중심삼고 자유세계를 위아래로 공격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없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공산세력들은 1984년까지 세계 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버님이 알고 막았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련을 끌어내는 데는 언론계를 통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련 자체가 언론인들을 동원해서 외교적으로 접촉하기 위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역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세계언론인회의를 만들어서 소련을 대해서 지금까지 15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언론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신문사가 1천700개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언론사가 소련의 외교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론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에도 배후에 모여서 여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아버님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모든 비밀세계를 쳐부수는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인현지조사단이라고 하는 기자단을 구성해서 세계 도처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198-177, 1990.02.03)

17 보수세계의 왕자 자리에 서서 보수세계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아버님이 꿈꾸던 세계가 지금 눈앞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언론인회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세계 판도를 꾸며 나가야 할 그 길에서 세계의 정상들을 묶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5개국에 신문사를 갖느냐 하는 것이 세계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또 185개국에서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묶는 것은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는 묶은 사실을 정치체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유통로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통해서 그런 유통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세계를 정상에서 지도할 수 있는 길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와 보도의 체제를 세계적인 기반 위에 설정하기 위해 언론기관과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한 곳에서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281-047, 1997.01.02)

2절 세카이닛포와 뉴스월드

세카이닛포(世界日報)

참부모님께서는 일본에서 국제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고 자유주의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1975년 1월 1일 종합일간지 세카이닛포(世界日報)를 창간하셨다. 특히 세카이닛포는 냉전시대에는 승공을 기치로 공산주의 위협을 경고하는 데 앞장섰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간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데 주력하였다. 세카이닛포는 신문 방송 등 좌익 성향 매스컴의 보도 자세를 비판하며 책임 있는 보도를 지향하였다. (p. 1021)

1 앞으로 언론계에 대해서 내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내가 언론기관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면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이 세계를 망치는 것은 언론계입니다. 언론계가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뉴욕타임스 이상의 신문사를 내가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간지 창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빨리 능가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사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배달문제입니다. 신문을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할 길이 없어서 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신문사보다 나

은 조직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방에까지 뛰라고 하면 뛸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073-308, 1974.10.06)

2 일본의 통일교회 일간신문이 세계일보, 세카이닛포입니다. 1975년 정월 초하룻날 창간한 것입니다. 넉 달 전부터 신문 발간을 준비시켰습니다. 넉 달 전에 '신문사를 시작할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아이고, 어떻게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975년 1월 초하루에 신문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아버님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카이닛포가 출발하였습니다. 창간 당시 사람들이 '통일교회가 일간신문을 하는데 몇 달 가느냐? 6개월도 못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났지만 망하지 않고 완전히 체제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체제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088-172, 1976.08.10)

3 내가 일본의 각 지역에 책임자를 두고 세카이닛포를 매일 무료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언제나 무료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다음에 '당신들이 신문을 무료로 받지만 광고 낼 것이 있거들랑 우리 신문에 내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전체, 도쿄 시부야(澁谷)구면 시부야구 전체의 소식을 신문에 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면 그 권내에 있는 집은 한 집도 빠짐없이 그 광고를 보기 때문에 유명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093-292, 1977.06.11)

4 세카이닛포를 만들어 놓고 국제언론인지도자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인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좌익 신문 대표들까지도 '그 회의는 참 재미있는 회의였고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레버런 문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세계적으로 언론계를 둘로 갈라 놓는다.'는 평을 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놀란 것은 세카이닛포를 아버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95-207, 1977.12.04) p. 1023

5 아버님이 통일사상을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경제와 매스컴, 대학을 움직이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회사 여러분이 세카이닛포 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조사를 하면서 다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 일하는 사람도 특별한 자료만 있으면 일본의 세카이닛포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세카이닛포만 자리 잡히

면 미국 젊은 사람과 일본 사람을 훈련시켜 세계 각 지역에서 신문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0개국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는 통신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공산세계에서 언론 기반을 중심삼고 선전해 들어오는 길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076-257, 1975.03.03)

뉴스월드

참부모님께서는 1976년 12월 31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종합일간지 뉴스월드를 창간하셨다. 1983년 4월 4일 뉴욕시티트리뷴으로 제호를 바꿨다.

6 지금까지 언론계는 정의의 언론계가 아니고 부정의의 언론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언론계를 위해 일어서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미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가 신문사를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문이 세상을 망치는 원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신문에 가 있고, 내 귀가 신문에 가 있고, 내 코가, 내 입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신문에 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점, 분기선이 신문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방침입니다. 그다음에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미국이 망합니다. 세계가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의 선교사들에게 미리 신문기자 훈련을 하라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각 선교사 앞에 특별조치를 하였습니다. 종교를 중심삼고 세상을 붙들고 끌고 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언론기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제일 귀하고 제일 큽니다. (093-128, 1977.05.21)

7 내가 신문사를 만든다고 할 때 뉴욕타임스니 워싱턴포스트니 전부 비웃었습니다. '레버런 문이 신문사를 만들어?'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신문사 그것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실력 기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기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방면에 소질이 있는 인적자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월급을 주고서도 안 됩니다. 일본의 세카이닛포를 만들 때 4개월 전에 조직을 편성해서 만들었습니다. 뉴스월드를 만든 것은 4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100-188, 1978.10.14) p. 1024

8 우리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협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의에 따라 미래의 방파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을 긋고 새로운 기점과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개인과 가정과 종족을 중심삼고 전환점을 이루었으니 이제 국가를 중심삼고 전환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수적인 우익 쪽으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뜻으로 보면 지금이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의를 받들어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예상외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뉴스월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이 되었습니다. 레이건과 카터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레이건이 선거인단 350명 이상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였는데, 그때는 카터가 이긴다고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뉴스월드는 그런 기사를 전국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쳤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창피당하는 것을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110-047, 1980.11.08)

9 레이건 대통령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 기독교의 중심국가인데 그 전통사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공산세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준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개표 전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다고 뉴스월드에서 대서특필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문사가 1천700개가 넘습니다. 그런 신문사들이 레이건은 가망이 없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레이건이 승리를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121-151, 1982.10.24)

10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에 시위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레이건 행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많이 펼칠 것입니다. 공산세력은 엘살바도르에 게릴라를 보내서 레이건을 골탕 먹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전략 계획 밑에서 엘살바도르에서 좌익 게릴라전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뉴욕타임스를 우리 뉴스월드가 공격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좌익계열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픈 말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스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와 중동에도 신문사를 만들고 유럽에도 신문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111-289, 1981.03.08) p. 1025

11 1983년 4월에 뉴스월드를 뉴욕시티트리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래서 처음 뉴욕에 오는 사람은 뉴욕타임스와 뉴욕시티트리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관념이 그렇습니다. 뉴욕시티트리뷴 하게 되면 그것은 뉴욕타임스와 대등한 입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워싱턴포스트와 워싱턴타임스는 일반 사람들이 대등하게 봅니다. 타임스나 트리뷴이라는 것은 신문세계에서는 왕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뉴욕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반드시 신문을 사 보아야 되는데, 이때에는 뉴욕타임스와 뉴욕시티트리뷴을 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5-302, 1983.03.29)

12 이제 뉴스월드 재단에 한국의 세계일보가 들어가야 되고, 미국의 세계일보, 일본의 세카이닛포, 워싱턴타임스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뉴욕시티트리뷴, 울티마스노티시아스, 미들이스트타임스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언론기관이 뉴스월드 재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워싱턴타임스가 어느 정도 성공기준에 올라가면 막강한 힘의 됩니다. 이것이 어떤 궤도만 넘어서는 날에는 그 수익성이 대단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관계된 부처, 행정부처면 행정부처를 중심삼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186-127, 1989.01.31)

3절 워싱턴타임스

창간 배경과 주요 편집 방향

참부모님께서는 1982년 5월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종합일간신문 워싱턴타임스를 창간하셨다. 워싱턴타임스는 좌경 진보주의의 공세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보수언론을 지향하였다. 워싱턴타임스는 진보언론의 대표격인 워싱턴포스트와 함께 워싱턴 지역의 양대 일간지로서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1992년 4월 12일 김일**성** 주석과 단독 인터뷰를 하는 등 많은 특종으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워싱턴타임스 자매지로 1985년 종합월간지 <월드 앤 아이>와 시사주간지 <인사이트>를 창간하셨다. (p. 1026)

1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마비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아버님은 세계 종말시대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남이 생각하지 않

는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타임스를 만든 것입니다. 워싱턴DC에 있는 단 하나의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좌익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재벌들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연합해서 신문사를 만들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매달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워싱턴DC에서 진보적인 물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수적 사상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1천700여 개의 신문이 있었지만 보수지, 하나님 편에 선 신문은 단 하나 워싱턴타임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매일같이 새까만 밤중에 세계에 그들만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판국인데, 아닌 밤중에 보수의 등대가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209-243, 1990.11.30)

2 나를 반대하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워싱턴타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정당들을 교육하고 지도자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참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도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건국의 전통을 새롭게 세워야 하고, 이 나라의 국민이 충성하는 것 이상 충성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인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애국하는 이상의 애국심을 이 나라에 심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출범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2-241, 1987.04.12)

3 1945년 광복 이후부터 7년 기간에 하늘은 세계를 수습해서 메시아권 세계로 진출해야 되는데 사탄이 세계를 다 망쳐 놓았습니다. 한국을 갈라놓고, 독일을 갈라놓고, 전 세계를 둘로 쫙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탄 편이 우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투쟁한 대표자가 아버님입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깃발을 날리고 소련과 위성국가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소련이 저렇게 무너진 것은 고르바초프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삼고 아버님이 워싱턴 타임스를 만들고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제동을 가함으로써 소련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204-157, 1990.07.08) p. 1027

4 워싱턴타임스는 가정 파탄을 방지하고 도의적인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편집에서도 '가정'이라는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는 워싱턴DC에서 세계적인 축복결혼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희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교 무대나 정치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회의 가정운동 앞에는 머리를 숙

인다는 것입니다. 빈민은 빈민대로,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바람이 휩쓸어 태풍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과거사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와 새싹이 나올 수 있는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8-252, 1997.11.28)

5 워싱턴타임스가 미국을 살리는 데에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인들을 비롯해 그 누가 반대하더라도 앞으로 제2의 헌법 개정을 통해 건국사상을 시정해야 됩니다. 헌법을 중심삼고 미국 국민이 하나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이상의 새로운 청교도 정신을 중심삼고 천국 백성의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사상을 떠나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겠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해야 됩니다. (378-264, 2002.05.16)

6 <월드 앤 아이>의 내용은 일반 신문기자들이 쓴 내용과 다릅니다. <월드 앤 아이>는 기사를 쓸 경우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문기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방대한 지식을 통해서 '아시아의 상황은 이렇고, 아프리카의 상황은 이렇고, 미국의 상황은 이렇고, 유럽의 상황은 이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된다.'라고 언론계를 미래 추구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해가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학자들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낸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정책 방면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것입니다. (249-061, 1993.10.08)

7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인류 앞에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발표해서 모든 지식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연구자료는 만민의 것입니다. 특정한 학교의 도서관 구석에만 보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1985년 11월 국제과학통일**회**의 때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82개국에 세계평화교수협의회가 편성되어 있어서 수만 명의 학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원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전문 분야의 계열에서 연구한 것,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즉각 워싱턴타임스의 <월드 앤 아이>편집부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잡지를 내가 198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첨단을 달리는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기고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첨단시

대에 세계의 석학들을 묶어 방향성을 제시하여 전진하지 않고는 세계가 망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 어떤 언론인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138-032, 1986.01.13)

8 내가 미국과 법정투쟁을 하는 테이블 위에서 워싱턴타임스 창간 자금을 결재하였습니다. <인사이트>와 <월드 앤 아이>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살려 주겠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미국을 책임진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보호하는 자리에 섰다는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비애의 관문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밟고 넘어서기 위한 책임자로서의 사명과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중심존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지도해야 됩니다. 자유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73-264, 1988.02.21)

9 워싱턴타임스는 시사 해설을 통해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고, (인사이트)는 매일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백 퍼센트 통계를 내어 발표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매주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의 좌익 발언과 국가에 해가 되는 발언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 앤 아이>는 세계 유명 학자들을 중심삼고 분야별로 미래의 방향성을 잡아 주고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을 지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의 세계로 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51, 1990.03.30)

보수세계의 등대

워싱턴타임스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보수적 논조를 고수하면서 미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워싱턴타임스는 냉전시대의 역동적 변화를 편견 없이 심층보도함으로써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거침없는 논평으로 호평을 얻었다. 워싱턴타임스는 언론 보도부문 외에 편집부문에서도 언론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다. 1988년 10월 15일 세계신문편집협회는 미국과 유럽, 남미 및 캐나다의 주요 신문이 응모한 국제신문편집대회에서 워싱턴타임스에 최고상을 수여하였다. (p. 1029)

10 미국 의회로부터 행정부처에 있는 관리 등 미래에 미국의 종대 순과 같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진보주의 사상, 진보세계의 풍조에 서리를 맞아서 방향을 못 잡고 탄식의 극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다

섯 사람의 거부들을 모아 보수파의 신문을 만들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손해나는 것을 하려고 듭니까? 누구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수라고 하고 미국이 쫓아내려고 하는 아버님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1982년 정월 초하룻날 준비를 시작해서 3월 초하룻날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200명을 파견하면서 '3월 초할루에는 신문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58일 만에 신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워싱턴타임스가 지금에 와서는 보수세계의 등대가 된 것입니다. (127-161, 1983.05.07) p. 1029

11 미국의 행정부나 정보기관도 워싱턴타임스는 세계를 보호하고 평화세계를 위한다는 것을 압니다.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전통으로 볼 때 미국에서 그렇게 반대받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고 거국적인 국민교육과 더불어 정상적인 새로운 기독교사상에 뿌리를 박고 나간다는 것을 알고 신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도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면 워싱턴타임스가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는 다릅니다. 그러나 워싱턴타임스는 일방통행입니다. 기독교사상, 보수파의 전통을 중심삼은 신문입니다. 또 보수파만이 아닙니다.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까지 품어 나가는 가인 아벨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당 쪽 기사를 세 번 냈으면 반드시 야당 편 기사를 한 번 내지 두 번까지 실어 비중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389-174, 2002.08.03)

12 워싱턴타임스는 세계 언론계의 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보수세계 제일의 신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언론계,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도 워싱턴타임스가 보수세계 제일의 신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인터넷 신문과 더불어 보수세계 결속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세계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보수세계는 기독교사상의 연장입니다. 기독교사상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사상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 교파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면에서 구교나 신교나 다 같이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학계나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통일교회가 아니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끌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계가 백 퍼센트 포괄해서 방향만 전환하게 되면 얼마든지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282-179, 1997.03.12) p. 1030

13 오늘날 전략방위계획(SDI)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유도탄

문제를 중심삼고 원자탄이 9대 1의 비율로 벌어진 상태에서 미국이 소련을 방어하려는 것이 SDI 개발문제입니다. 그 SDI는 내가 워싱턴타임스를 선두로 세워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몰리면서도 워싱턴타임스를 중심삼고 배후를 조종해서 레이건 행정부가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제네바에 회담하려 갈 때 우리 편집국장을 보내서 'SDI 개발계획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것을 결정하기로 약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143-062, 1986.03.15)

14 세계언론인회의 런던 대회에서 언론계 최고의 편집국장과 사주들이 만나서 회의한 것이 뭐냐? 보수세계의 언론계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왔다 갔다 해서 여러 개의 신문이 있으면 국가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여론이 공중으로 떠서 날아가는 구름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타임스가 보수세계를 대표하여 인터넷을 중심삼고 세계 보수계 신문에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신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타임스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의 특급 비밀, 통신사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차원 높은 기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면에서 언론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워싱턴타임스를 먼저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왔습니다. (389-175, 2002.08.03)

15 언론은 행정부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적인 자료를 언론기관에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못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언론기관의 기사를 전부 모아 요약해서 고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가 정부로부터 매주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65퍼센트에서 75퍼센트를 워싱턴타임스가 취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계 모든 행정부처의 방향을 워싱턴타임스가 조종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워싱턴타임스의 기사를 중심삼고 요약한 내용이 공보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싱턴타임스가 지식세계는 물론 앞으로 발전할 세계적인 조류에 공헌하는 것은 위대한 공적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산주의가 녹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치문제를 중심삼고 나왔지만, 이제는 기독교사상 재건과 가정윤리 확립을 표준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37-015, 1992.11.10) p. 1031

16 워싱턴타임스는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특정인을 조사하려고 하면 즉시 그에 대한 내용을 다 뽑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계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 백악관과 많은 도서관들이 세계적 비밀에 대해서는 워싱턴타임스에 문의해야 됩니다. 이렇듯 워싱턴터임스는 세계 제일의 정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타임스가 써 놓은 기사는 세계를 울릴 수 있고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73-154, 1995.10.22)

17 워싱턴타임스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담당관이 워싱턴타임스와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섭리가 가는 방향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계나 정치인까지 워싱턴타임스를 찾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보, 신경이 종합된 곳이 신문사입니다. 워싱턴타임스는 상위급에 있는 수십 개 신문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보처와 유대주에서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의 대표 국가들이 미국에서 제일 보수적이면서 신임을 받는 신문은 워싱턴타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260-098, 1994.04.28)

18 정보세계에서 탈락하게 되면 세계의 선두자가 못 됩니다.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사를 만든 것입니다. 워싱턴타임스가 훌륭한 것이 뭐냐? 워싱턴타임스는 미국에 있는 신문이지만, 아버님은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타임스는 미국에서 일등 신문이 되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85-047, 1997.04.19.) p. 1032

19 1985년에 미국의 언론계에서 300개 신문을 뽑아 그 가운데서 언론계에 제일 크게 영향을 주고 화제가 되고 특종을 많이 한 대표적인 신문을 선정하였는데 워싱턴터임스가 뽑혔습니다. 미국이 나를 욕하고 공산세력이 워싱턴타임스에 대해 협박 공갈을 하는 상황에서 자유세계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노선을 위해 수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협박 공갈에 정면으로 나서서 세계의 암적 기반을 폭파시키는 데에 용사가 되어 달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도리를 찾아가야 할 역사는 물론 하늘은 이러한 단체를 세워서 주인 자리, 중심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운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워싱턴타임스를 중심삼고

미국 언론계는 자연히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8-117, 1986.01.19)

20 워싱턴타임스는 세계 8천 개 신문사가 모인 레이아웃 대회에서 100개 항목 가운데 38개 항목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최우수상입니다. 그 대회에서 세계적인 대신문사의 예술 미술분야 전문가 12명의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위원 전부가 일등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상을 받은 일은 1971년에 한 번 있었는데 1988년에 워싱턴타임스가 받은 것입니다. (183-157, 1988.10.31)

21 지금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워싱턴타임스의 신문 편제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같은 것은 내가 코치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런 면에 예술적인 감각이 우수합니다. 선을 긋는 것부터 레이아웃을 전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동안 신문 전시회에서 언제나 일등을 하는 것입니다. (231-043, 1992.05.31)

4절 세계일보

창간 목표와 사지(社旨)

참부모님께서는 1989년 2월 1일 한국 서울에서 종합일간지 세계일보를 창간하셨다. 세계일보는 '애천·애인·애국'을 사시(社是)로 내세우며 보수정론신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일보는 창간 이후 세계 주요 지역에 특파원과 통신원을 두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뉴스에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p. 1032)

1 '종교지도자가 무엇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언론사업에 힘쓰는가? 그 참다운 동기는 무엇일까?'라는 등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의 세계가 평화냐 전쟁이냐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언론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함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은 언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힘과 책무가 원자탄이나 군사력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일관된 참다운 가치관에 입각하여 정론을 펼칠 때 그 언론은 세계평화의 기수가 될 것이요, 무책임과 오도와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할 때 그 언론은 세계평화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1989.02.22, 한국 서울) p. 1033

2 본인은 한국을 종주국으로 하고 세계 160개 국가에 선교 기반을 가진 통일교회 창시자입니다. 종교지도자인 본인이 종주국인 한국에서 종합일간지 세계일보를 창간한 것은, 우리 인류 모두가 이상으로 하는 평화와 자유와 신의 창조이상이 실현된 참사랑이 꽃피는 인류 공영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254-109, 1994.02.01)

3 세계일보는 고고의 일성을 울리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계일보는 자유언론의 표상이요 책임언론의 귀감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는 정의에는 눈물이 많고 불의에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일보는 정당을 초월하고, 어떤 특정한 종파를 위해 있지 아니하며, 국민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일보는 한민족의 긍지요 세계인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세계일보는 미국의 워싱터타임스와 더불어 동서에 우뚝 솟은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하는 이성지요, 참다운 자유민주주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계일보는 바로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이요 여러분의 대변지입니다. 세계일보는 곧 여러분의 양심선언입니다. (1989.02.22, 한국 서울)

4 통일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세우려는 곳입니다. 인류를 구하려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만드는데 통일교회 기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서의 기관지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은 섭리사적 기관지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기관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이 교육해야 됩니다. 뜻이 세계적인 뜻이지 통일교회 안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203-114, 1990.06.23) p. 1034

5 세계일보가 내 말을 들으면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살아온 습관성, '언론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위한 절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일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전의 근본 동기기 무엇이냐? 단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일보는 누구 회사입니까? 내 회사입니다.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한 내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원들은 애국자들

이 나라를 위해 하나된 그 이상 여기에서 하나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인류를 중심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199-220, 1990.02.17)

6 본인이 세계일보를 창간한 목적은 사지(社旨)에 밝힌 대로 '조국통일의 정론, 민족정기의 발양, 도의세계의 구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누구나 바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문화사적 관점에서는 세계통일의 정론, 인류정기의 발양, 평화적 도의세계의 구현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천의에 따라 국가와 세계를 평화세계가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254-102, 1994.02.01)

7 식구들이 새벽 3, 4시에 신문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식구는 앞장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신문에 얻어맞고 신문의 피해를 입은 한을 가진 아버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일보의 사지를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날치기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혼쭐내려고 합니다. 역사의 전통과 미래 희망의 행로는 이런 그릇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서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세계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살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249-253, 1993.10.10)

8 우리는 세계일보를 넘어서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사회에 도의적인 면을 고취하고 미래 세계에 희망을 건 민족정신을 바라보면서 도의의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정의의 붓을 들면 칼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칼로 승패를 겨루면 패자와 승자가 빨리 결정나지만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론을박, 몇 세기 몇 천년이 가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출발부터 끝까지 확실한 자세로 책임적 입장, 심각한 자리에서 글을 써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직원들은 안팎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심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86-138, 1989.01.31) p. 1035

9 남북통일은 하려면 숨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신문을 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신문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남북을 통일하려면 신문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각 시도에 월간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

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천신만고 끝에 이만큼 기반을 닦아 나온 것은 천리를 받들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을 향한 정론지로 창간된 세계일보를 향한 정론지로 창간된 세계일보를 여러분이 있는 마을마다 보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장사하기 위한 신문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싸우는 신문이 아닙니다. (222-051, 1991.10.27)

10 한국통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일보, 신문을 가지고 그래야 합니다. 세계일보를 가져가는 사람은 천주일보(天宙日報)의 주인입니다. 사랑의 일보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로 옮겨 주기 위한 하늘나라의 사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전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싸우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갈 수 없습니다. 침묵하면서 자기 사명을 하는 데에 백 퍼센트 이상 투입하면 참사랑의 끈은 점점 굵어져서 새끼가 되고, 새끼가 모여서 타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는 한민족의 시조가 이루지 못한 본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전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뜻은 자동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186-113, 1989.01.29)

책임언론, 도덕언론 지향

참부모님께서는 '언론은 곧 진리의 대변자이며 양심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통 정론지로서 세계일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다. 특히 세계가 가치관의 몰락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를 지도하는 교육의 책임을 담당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자매언론인 워싱턴타임스와 UPI통신사 등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p. 1036)

11 세계일보의 '세(世)'는 이 세상입니다. '일보'의 '일(日)'나는 '날 일'자입니다. 그러니 세계일보는 세계의 날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날이냐 하면 나쁜 날이 아니라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곡에 좋은 날이 무엇입니까? 세계일보는 좋은 것을 칭찬하고 나쁜 것을 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책임적 언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념에 자기 생명을 걸고 책임져야 됩니다. (179-183, 1988.08.12)

12 여러분은 국민 앞에 신문기자로서의 실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 실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들딸 앞에 '나는 정의의 길을 갔다.'며 팻말을 써 주

고 유언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진 신문기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일보는 정의의 그날그날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179-191, 1988.08.12.)

13 세계일보는 전 세계의 제일 좋은 것을 기록해서 사회에 지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라를 비판하고 아시아를 비판하고 세계를 비판해야 됩니다.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자기가 확정지어서 발표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으로 볼 때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신문기자로서 기사는 잘 쓰지만 그것이 몇 퍼센트나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79-194, 1988.08.12)

14 언론기관은 사회교육의 표준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언론이 세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어용교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가 2세들을 자기 이상 귀하게 길러 낼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받은 대학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면 부패해 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언론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은 현실적 생활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더 생각하지, 공적인 것이라든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언론, 신의언론을 주장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05-307, 1990.10.01) p. 1037

15 세계일보이니만큼 정의에 입각해서 세게 나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세게 나가느냐? 나보다 더 세게 나가야 합니다. 아들딸, 후손이 자기 조상보다 더 잘나야 앞으로 그 집이든 회사든 나라든 망하지 않고 흥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악착스럽게, 더 세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순간을 중심삼고 싸우는 데 있어서는 생명만 걸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생명을 걸었으면 나는 사랑도 걸고, 생명도 걸고, 지식도 걸고, 돈도 걸고, 권력도 걸고 아버님 이상 더 세게 나가겠다!'고 해서 안팎으로 하나되면 세계는 통일세계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186-154, 1989.01.31)

16 통일사상연구원을 앞으로 세계일보의 연구부처로 이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집국장과 논설위원과 주필, 편집국의 부장 이상의 사람들은 간부로서 물론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당당한 이론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들을 교도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 나온 모든 것, 국제과학통일회의나 세계언론인회의 같은 것들은 재교육을 표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준비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상의 기준을 한국의 언론계에다 묶어 놓아야 됩니다. 교육이란 일정한 교과서에 의해서, 국가 시정방침, 즉 교육부가 정하는 법규 내에서 움직이지만 언론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계를 중심삼고 새로운 교육 방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면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상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86-126, 1989.01.31)

17 우리 신문사는 모니터 요원이 필요합니다. 5년 10년 후에 신문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누가 많이 길러 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문 기자들은 학교 선생님보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하는 사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도의교육과 사회정화, 인륜도덕 문제를 다루는 신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223-076, 1991.11.07)

18 워싱턴타임스에는 1천 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이마가 벗겨지고 눈이 새파란 사람들이 나를 참 존경합니다. 세계일보를 워싱턴터임스와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워싱턴타임스의 한 사람을 세계일보에 있는 사람과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계일보 기자들이 특파원으로 가 있어서는 소용없다고 봅니다. 교환요원으로 가서 특파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어디를 가더라도 워싱턴터임스 신문사도 활동할 수 있지, 따라다니면서 자기 일이 생겼을 때에만 일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세카이닛포라든가 미들이스트타임스도 이 기준으로 짜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을 빼내어, 사람이 모자라게 되면 여러 사람이 도와 가면서 편집을 하더라도 외국에 갔다 올 수 있게끔 편제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집안같이 하면서 신문사의 철저한 방향을 중심삼고 금후에 소망스러운 세계일보가 되어야 합니다. (212-346, 1991.01.11) p. 1038

19 여러분이 기사를 쓸 때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써야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워싱턴타임스를 만들어 출발할 때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를 답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언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입니다. 독자적인 표준을 내가 세운 것입니다. 일본의 세카이닛포도 이제는 기준에 올라섰습니다. 부수를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달 부수를 조금 찍어서 신문사에 와서 신문을 빼앗아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들은 알아줄 만큼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알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사분야에서 세계정세에 대해서는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정보에서 우리가 세계 첨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신문이 진보적입니다. 소련의 간접적인 선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부 패배적이고 퇴폐주의적인 사상을 고취시키는 자극적인 논설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179-198, 1988.08.12)

20 세계일보를 세계적인 모델케이스로서 앞으로 워싱턴타임스와 같이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아시아의 대표 언론기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워싱턴DC에서 만든 60페이지의 워싱턴타임스 신문 전부가 여기 세계일보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뉴스 지면을 지금보다 배로 늘려야 합니다. 워싱턴타임스에 문화부나 종교부, 가정부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사 내용을 여기에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된 워싱턴타임스 기사 내용을 읽어서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여 한국의 실정과 미국의 실정을 혼합시켜 새로운 신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281-293, 1997.03.09) p. 1039

21 AP통신이나 UPI통신에서 지금까지 세계 각 나라에 특파원을 파송한 곳이 100곳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80곳에서 모든 사진이나 전문화된 기사 내용을 부쳐 오니까 한 나라 기사를 그냥 그대로 한국에 소개할 수 있고, 각 나라의 것을 몇 개라도 신문에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얼마든지 몇 나라의 기사를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게 되면, 이 신문을 보게 되어 있지 다른 신문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수 때문에 다른 신문을 따라가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281-294, 1997.03.09)

22 세계가 가치관의 몰락으로 인하여 혼란상에 처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세계가 무너지는 이때에 누가 기수가 되느냐? 우리밖에, 아버님밖

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주적인 때가 왔고 자주성을 확립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해 나가야 됩니다. 철저히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워싱턴타임스도 그랬기 때문에 급속한 시일 내에 세계적 기준을 잡고 올라온 것입니다. 따라가지 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논조를 중심삼고 당당히 나아가야 됩니다. (203-112, 1990.06.23)

23 세계일보는 한국에 있는 10대 신문사를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타임스를 만들 때에도 훈시한 것이 절대 기성 신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은 국가적 기반의 공인된 입장에서 국가나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새로 나온 신문이 기성 신문을 따라가서는 아무리 공기를 바꾸는 기사를 쓰더라도 관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282-178, 1997.03.12)

5절 주간지 및 통신·영상·출판매체

주간신문 창간

참부모님께서는 1989년 10월 3일 한국에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집필진으로 하여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교학신문을 창간하셨다. 그리고 1980년 4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중남미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신문 노티시아스델문도, 1983년 3월 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들이스트타임스, 1996년 11월 2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티엠포스델문도를 창간하셨다. 1990년 9월 7일 워싱턴 텔레비전센터를 개관하시는 등 영상·방송매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리고 미국 유력 통신사인 UPI를 2000년 5월 15일 인수하셨다. (p. 1040)

1 전교학신문은 교수와 대학생을 위주로 한 사상신문입니다. 이것이 주간으로 나오다가 일간지가 되면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민교육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일보을 보는 사람들은 이 전교학신문을 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사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통일교회 교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님을 중심삼고 실전장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191-177, 1989.06.24)

2 전교학신문은 각 정당이 건설적이고 진보적이고 전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당을 만들어 그 정당들과 싸움은 하지 않더라도 당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지침과 표적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학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전교학신문은 학생들이 만드는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을 만드는 사람은 교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학신문을 언론인들이 간단히 보지 못합니다. 여기는 말 퍼치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전교학신문입니다. 전국교수학생신문이 아니라 전국교수학문신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신문입니다. (204-337, 1990.07.11)

3 언론계, 학계, 세계평화정상회의, 세계평화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의 사람들을 총괄해서 사회 도의교육에 주력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아버님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언론계가 세상을 망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교수들을 지원해 나왔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전교학신문을 만들고, 세계적으로는 <월드 앤 아이>를 만든 것입니다. (205-307, 1990.10.01)

4 미국 내에서 스패니시와 흑인들은 아버님에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워싱턴DC를 위주로 하고 스패니시는 뉴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워싱턴타임스와 노티시아스델문도가 그들을 중심삼고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백인이 아닌 모든 인종들을 규합하기 위한 운동을 뉴스월드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우리를 반대하지만 포괄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미가 미국에 대한 선전을 필요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스패니시라든가 흑인들이 미국에서 전국적인 활동을 하려면 아버님을 앞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학자들, 세계의 지성인들을 모아서 대학가에서

대학원리연구회를 중심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적이고 세계관적인 견해에서 볼 때 내적 공고화를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128-044, 1983.06.01) p. 1041

5 티엠포스델문도를 만든 목적은 가정 파탄을 막고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논제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피아나 폭력배, 정치하는 사람, 스파이라고 모략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아버님이 생각했고, 이 판도를 확장하는 데 제일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활자로 박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가정 파탄을 막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선도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이 신문사를 만든 것입니다. (281-177, 1997.01.02)

6 우리가 학계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신문사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교와 구교를 화합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미국 신교 중심으로 뭉쳐 있고 남미는 유럽파인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신교와 구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신교와 구교를 연합하는 운동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세계정서를 중심삼고 남미의 신문사들을 한 단계 부활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반대하던 티엠포스델문도라는 신문입니다. 취재 내용이나 편집에 있어서 일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291-065, 1998.03.05)

7 중남미의 33개국이 대부분 천주교 국가인데, 아버님이 남미에 간다고 하니까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아버님이 워싱턴타임스를 중심삼고 남미에 신문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의 재벌들이 10년 동안 합동해서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든 것을 9개월 만에 내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브라질보다는 아르헨티나가 로마 교황청의 직계입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영향하에 있고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삼고 우리가 티엠포스델문도라는 신문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비밀 프로젝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33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고 정보의 키를 아버님이 갖고 있습니다. (296-249, 1998.11.10) p. 1042

8 워싱턴DC에 방송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방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을 편성하는 데는 지금 넘버원입니다. 아버님이 그런 것을 표준으로 해서 세계 최상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제일가면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일본의 기자재 중에서도 최고 최상의 기자재를 들여다가 세계에 없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틀랜틱비디오센터라고 했습니다. 'A비디오센터'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139-329, 1986.01.31)

9 워싱턴DC에는 워싱턴 텔레비전 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전자통신사입니다. 영상통신사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자통신사였습니다. 이것은 기사를 전 세계에 AP나 UPI 같은 통신사를 통해서 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사진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온 것을 그대로 잘라다가 집어넣어서 돌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요전에 낙성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적 체제의 인적 구성은 교수들을 중심삼고 합니다. 세계언론인회의와 세계평화정상회의 등에 관계된 세계 최고 지성인과 학자, 언론인, 전직 대통령을 중심하고 후원회

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름 있는 나라는 전부 우리의 이 통신 프로그램을 보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15분짜리로 그 골자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기 프로그램을 중심삼고 방송하다가 중간에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스위치만 누르면 교체가 됩니다. 한국이면 한국의 방송국에서 만든 것처럼 제작하고 세계적인 뉴스거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212-215, 1991.01.06)

10 지금까지는 문자통신사를 통한 언론시대였지만 앞으로는 영상, 텔레비전 통신사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내가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안 볼 수 없게끔 해서 방향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 남녀들이 록 뮤직이라든가 프리섹스 내용을 중심한 오만가지 요란스러운 퇴폐적인 잡지들을 통해서 썩어 가는 것을 청산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걸작 영화 한 편씩을 만들어 세계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또 시사해설 등 시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 일주일에 영상물 한 편씩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제가를 유행시켜서 오늘날 흑암의 세계로 떨어져 나가는 방향을 '뒤로 돌아가!'해서 새로운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송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4시간 매일같이 보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214-090, 1991.02.01) p. 1043

11 미국에 '뉴 퓨처 필름'이라는 우리 비디오테이프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5만 개의 비디오테이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만든 영화를 복제해서 분야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영화, 운동영화, 무용영화 등 분야별로 분류해서 도서관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명한 우리 학자들을 중심삼고 모든 전문분야의 비디오테이프를

만듭니다. 3시간짜리, 10시간짜리, 30시간짜리, 50시간짜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50시간짜리면 다 끝납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놓으면 만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매일같이 우리가 내보내는 교육적인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디오테이프를 한 1년만 보게 되면 풍조가 달라집니다. 유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세계적으로 난무하는 이 퇴폐풍조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207-126, 1990.11.01)

말씀 및 섭리역사 기록

참부모님께서는 한평생 많은 말씀과 업적을 남기셨다. 이를 보존하고 기록·편찬하여 후세에 영원한 자료로 남기기 위해 성화출판사와 역사편찬위원회, 평일기획 등을 설립하시고 '성화'와 <통일세계> 등 많은 매체를 창간하셨다. 1961년 2월 11일 설립된 성화출판사는 참부모님의 말씀집과 《원리강론》을 비롯한 각종 서적을 발간했으며, 1981년 11월 1일 출발한 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편찬과 자료 수집 및 보관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10월 1일 설립된 평일기획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해 왔다.

12 금후의 새로운 문화세계 창건을 위한 전통적 자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측근자들이 중요시해야 될 중심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자들은 역사적 전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대 후손들에게 아버님이 살고 있는 이 당대, 이 당시의 자료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설교집을 편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이 나면 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사에서 중요한 것을 1급·2급·3급·4급, 이렇게 정해서 이것을 역사의 전통적 자료로 남겨야 됩니다. 통일교회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뜻이 아닙니다. 통일교회를 중

심삼고 국가와 아시아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그 전통 내용을 편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통일교회에 대해 알아보려는 사람은 대번에 여기에 접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역사적 전통을 추구할 텐데, 그 추구하는 내용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한 국가나 한 단체가 아니고 세계적 단체와 세계적 국가가 들어가 있고, 자기들의 하나의 종교적 단체가 아니고 종합적인 수많은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0-208, 1992.05.06) p. 1044

13 통일교회 교인들은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현실과 관계를 맺는 것이나 현재 환경에서 보조를 맞추기에 급급하니까 역사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집 편집을 아버님이 다 해준 것입니다. 장충동시대의 역사라든가 이화여대 퇴학·퇴직사건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전환시기의 한국 실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배경을 따라 섭리를 엮어 나오는 아버님은 전부 반대가 아니라 화합할 수 있게끔 엮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개인적 시대였지만 가정시대에 연결될 수 있는 사상적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은 잘 모릅니다. 복귀라고 하면 구약시대 에덴복귀파, 신약시대 에덴복귀파, 그다음에 성약시대 에덴복귀파로 갈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안 세우고서는 연관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전체 섭리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현재·미래를 거치면서 이것을 다시 보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441-324, 2004.03.06)

14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초등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버님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서울을 위주로 해서 일할 때인 장년시대가 중요하지만 누구도 그런 것을 세밀히 모르고 있습니다. 낚시를 같이 다니든가 고기잡이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은데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경험자가 없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중심삼고 연결할 수 있게 인터뷰라도 해놓아야 됩니다. 새로이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밀히 자기들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대개 같은 시대이지만 지시한 명령에 의해서 일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대 시대별로 엮으면 문화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려면 전부 재료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설명한 대로 결과가 연결되었던 사실들을 종합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박물관을 만들 수 있고, 박물관이 있음으로써 보충재료를 가져다가 2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연결고리, 몇 단계의 증거물을 가지고 연결해야지 갑자기 10년 20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기들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면 배에 대한 일기, 차면 차에 대한 일기, 어디에 갔다는 것을 전부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의 주류적 인물, 핵심 멤버가 누구인지 엮어서 기록을 가지고 박물관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1-328, 2004.03.06) p. 1045

15 한국의 역사편찬위원회는 여러 가지 책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치가 되어 있어서 방대한 자료를 일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설교집에서 '평양'하면 전 말씀선집에서 평양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책자를 편집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갖추어 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294-205, 1998.06.14)

16 성화출판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버님이 강연한 모든 것을 시리즈로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말씀도 그렇고 역사편찬도 그렇습니다. 1957년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쓴 소감문 같은 것을 책자로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특정사항 같은 것을 책자로 만들고, 자료가 많은 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1차 정비, 2차 정비, 3차 정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는 박물관에다 쌓아 놓아야 됩니다. (114-329, 1981.10.20) p. 1046

17 통일교회의 역사를 깨끗이 하고, 통일교회의 현재 시점을 깨끗이 하고, 통일교회의 미래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말씀한 것을 전부 정리해 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불능통하더라도 아버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살아생전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아버님한테 물어서 답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후대를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집은 자손만대의 보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보물입니다.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는 사람은 흘러갑니다. 아무리 요사스러운 세상의 환경이라도 여기에 흘러가지 않는 아버님입니다. 지금 문화시대를 중심삼고 이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181-276, 1988.10.03) p. 1046

18 하늘나라에도 전파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파(天波)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도 세파(世波)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파(人波)가 있어서 인간들이 사는 실정이 어떻다는 것도 인터넷을 통하고 전파를 통해 연결하는데, 이 전파를 통일시켜서 보내는 회사가 평일기획입니다. 그것을 시작했으니 하늘의 소식과 땅의 소식, 몸마음이 원하는 소식을 중심으로 표제를 만들고 생활 무대에 가까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 분야, 기술 분야 등 모든 활동 분야에 주력을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484-110, 2005.01.21)

19 소리는 혼자 낼 수 없습니다. 상대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파장이 혼자 나올 수 없습니다. 상대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전파에는 천파가 있고, 땅에도 상대적 운동을 하는 존재가 파장을 내는 세파가 있고, 마음세계에서 내는 인성교육을 중심한 도덕적 관념의 심파가 있고, 그리고 몸은 자기 개인주의 욕망, 자기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퇴폐적인 사상의 육파가 있습니다. 육파는 사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잘 변합니까? 육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고, 심파도 영계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파와 세파를 주도하는 마음과 몸의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파를 완성한 파동이 인터넷에서 주류가 되어서 완전히 양 세계를 통할하여 통일화합 평화통일을 하는 평일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영상세계의 실체상을 어떻게 감각기관에 반영시켜 지각으로 의식구조의 세계에 깨닫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84-118, 2005.01.20)

20 컴퓨터가 비밀 보화통입니다. 큰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빼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회가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됐다고 할 경우 그렇게 문제를 삼는 배후를 밝혀낸 뒤 그동안 축적된 비밀 보따리를 풀어서 원리의 근본부터 자세히 방송국을 통해서 통일교회의 실상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현재 방송국에 없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서 언제든지 그 자료를 중심삼고 질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영화같이 편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문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료를 뽑아다 쓸 수 있는 최고의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과 한국에서 자료들이 생기면 평일기획에 전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의 모든 신문사들은 플러그만 꽂으면 여기 비밀이 전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론계라든가 정치계라든가 문화활동을 하는 세계에서 통일사상을 위험시하였지만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세계는 전부 한 곬으로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닦아 주어야 됩니다. (499-271, 2005.07.03)

21 우리 보도의 자료는 세계의 어떠한 신문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워싱턴타임스라든가 UPI통신이라든가 세계에 널려 있는 신문사 조직을 중심삼은 그 자료가 막대합니다. 일일 취재해서 쓰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전부를 가지고 평일기획에서 AP라든가 UPI통신사가 보도하는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대륙에서 사건이 났다고 하면 그 대륙 중심부처에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서 자료를 만들고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의논해서 평가하여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가입 국가에 전부 지부가 있어서 현지답사, 현재 인터뷰 내용을 중심한 세밀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사로 만들어 최고의 기술로써 특별히 방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게 된다면 세계의 신문본부, 첨단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중심삼고 원리강의를 소개하고, 원리 내용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묻혀 있던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라든가 외부세계가 이러한 내용이 밝혀질까 봐 전부 억누르고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499-271, 2005.07.03)

제3장 교육기관 설립과 인재 육성

1절 교육기관 설립의 취지

교육의 참뜻

참부모님께서는 한평생 교육사업에 많은 열정을 쏟으셨다. 특히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자리에서 무지한 인간을 일깨우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셨다. 참사랑을 중심한 교육을 강조하고 몸소 이를 실천하셨다. (p. 1048)

1 선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면 과거로부터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역사과정에서 선의 길을 닦기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은 잘살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간 사람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050-101, 1971.11.06) p. 1048

2 교육이라든가 윤리라는 것은 선을 표준으로 삼고 나갑니다. 선을 표준으로 삼고 나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은 전부 본질에 있어서 상충되는 역리적인 노정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선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가르침을 받는 표준입니다. (064-020, 1972.10.22)

3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학교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승은 부모 대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교육해야 됩니다. 교실에서 만날 때의 인연 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르쳐 준 제자들을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랑의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을 사랑과 더불어 연결하는 스승이 참된 스승입니다. 생활 방편으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못 이겨서 안 가르쳐 줄 수 없

는 스승,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찾아가 자기에게 있는 지식을 사랑으로써 전수해 주고, 또 그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제 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스승이 참된 스승이요, 그런 제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127-017, 1983.05.01)

4 참사랑을 중심삼고 사회나 국가에 필요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스승은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같이 재창조의 주체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지식은 일대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스승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자기 가문, 자기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03-360, 1990.06.28)

5 참스승은 부모를 대신하여 제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학비를 못 내는 학생이 있으면 스승이 지원해야 됩니다.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학비를 대주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미치지 못하면 그 반 학생들의 부모와 선생이 합심해서 교육해 나가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 제일주의는 망합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301-094, 1999.04.16)

6 부모는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내 아들딸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제물적인 아들딸로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에는 이 지구성의 인류를 대표한 어머니 입장에서 인류를 대표한 어린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마음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같다는 심정으로 대하는 어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그

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아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1대 2대를 거쳐 나가는 동안 반드시 그 후손 가운데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031-168, 1970.05.24)

7 하나님이 아담 해와, 자녀를 교육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도리에 대한 교육을 못하였습니다. 형제애가 어떻다는 교육을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부의 천리가 어떻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바라보는 도리를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대신 횡적으로 설 수 있는 부모 교육을 못하였습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딸이었고 남매였습니다. 그 남매가 커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들딸을 낳으면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 해와가 교육을 못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삼은 가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완성되게끔 참사랑으로 다시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형제 교육, 부부 교육, 부모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222-044, 1991.10.27) p. 1049

교육사업을 하는 이유

참부모님께서 여러 교육기관을 세워 교육사업에 나선 것은 개인보다는 국가와 세계를 위하는 지도자를 기르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심정문화세계를 창건하는 데 있어서 교육만큼 우선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기관마다 '애천·애인·이국'의 건학이념을 공통으로 내세우셨고 인성과 전문성을 길러 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p. 1050)

8 이 세계적 환경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축복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고, 하나된 부모가 자식과 하나되고, 자식과 하나된 일족이 7대를 묶어서

하나될 수 있는 강력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체제라고 하면 둘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교육이고, 하나는 외적인 교육입니다. 내적인 교육은 인성교육으로부터 모든 가치관의 교육으로서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그와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외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리지포트대학이나 선문대학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교 전체가 부정하더라도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원화된 교육기준을 중심삼고 어떤 대학보다도 훌륭한 미래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피폐된 것을 막고 나서서 밤이나 낮이나 어디를 가든지 비판받지 않고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312-127, 1999.10.07)

9 젊은 사람들은 세 나라 이상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들딸이라도 그런 세계에 동참시켜야 할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전체를 책임진 부모의 자리에서 만민을 그런 입장에서 대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평에 초종교신학대학원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민속촌을 중심삼고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서 세계 만민이 찾아올 때 자기들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본부에 와서 하늘나라 궁전으로부터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아 세계로 돌아 나가야 합니다. (319-034, 2000.03.16)

10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것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를 더 사랑하라는 뜻에서이다.'라는 애국지사의 심정을 가지고 교육하면, 그런 부모 밑에서 사랑의 교육을 받은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애국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회상할

때마다 삼천만 민족을 생각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하는 입장에서 공부할 것이며, 자기 민족이 비참함을 당할 때에는 자기 부모 이상으로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입장에 서서 이루어 놓은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국민이 천년만년 흠모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다 지나갑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인계하기 위해 애쓰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면서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권고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순응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순응하라. 나를 위해 잘하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 스승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은 자기 생애를 바쳐서 제자들을 위하여 정성들이고, 부모는 자신의 가치보다도 국가와 세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식을 위해 정성들이면 그 스승의 제자와 그 부모의 아들딸은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될 것입니다. (025-098, 1969.09.30) p. 1051

11 하나님이 교회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인종을 모아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훈련장소입니다. 정신적인 훈련장소, 미래의 국민과 가정을 위한 훈련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의 갈 길, 종족의 갈 길, 나라의 갈 길을 바르게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삼고 미래의 가정과 종족과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06-035, 1979.11.11)

12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계는 하나다. 공부하는 것도 세계를 위해서 한다.'라고 해야 됩니

다. 어차피 세계는 하나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내용 가운데 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거슨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계적입니다.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을 겸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를 위한 교육이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세계 인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207-065, 1990.11.01) p. 1052

2절 주요 교육기관

통일신학교와 선문대학교,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참부모님께서는 1972년 4월 3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중앙수련소에 통일신학교를 개교하면서 대학 설립의 기초를 놓으셨다. 그리고 1985년 12월 정부로부터 4년제 각종학교로 성화신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86년 3월 신학과 학생 40명을 모집하여 개교하였다. 1989년 10월 정부로부터 성화대학 개편 인가를 받았으며, 1994년 3월 1일에 선문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건학이념을 '애천·애인·애국'으로 정하시고, '천지개벽 선문학당'이란 휘호로 선문대학교의 설립정신을 표방하셨다. 특히 1998년 10월 19일 순결학과를 신설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섭리의 주역과 세계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학교 운영의 초점을 맞추셨다. 2004년 1월 28일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 인가 및 봉헌식에서 '봉덕훈행만복흥성만세(奉德訓行萬福興盛萬歲)'라는 휘호를 내려셨다. (p. 1052)

1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이 일본의 원리연구회와 통일교회 사람들을 만난 뒤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일본에 갔다가 감동을 받고 우리 책임자들에게 신학대학을 빨리 짓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 4년제 신학대학이 설립될 것입니다. 철학과나 사회사업과, 농과 계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리대난 공과대 등으로 확대하면 종합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대학을 지어야 됩니다. (060-254, 1972.08.17)

2 앞으로 한국에서는 젊은 청년 조직,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삼고 활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중추적인 조직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세를 기르는 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세워서 2세들을 양성하려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막아 온 것입니다. 여러 핑계를 대서 반대해 왔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대학 가운데 제일가는 건물을 짓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이름난 석학들이 와서 가르칠 것입니다. (178-163, 1988.06.01) p. 1052

3 성화신학교 학생들을 밤 12시 이전에는 재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2학년부터는 영어로 강의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어라! 못 들으면 떨어지는 거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최소한 3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177-292, 1988.05.20) p. 1053

4 선문대학교는 지성세계의 전당인데 세계적인 지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해야 될 책임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교육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중심삼고 앞으로 대학을 세우는 데 방대한 자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 자원을 교회에 투자하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잘 압니다.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급속한 발전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질적인 면이나 내적인 면에서 공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변천하는 사회에서 전체가 통일된 지식기

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변천하는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금후에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282-119, 1997.03.11)

5 내가 1950년대에 '세기말적인 시대가 되면 일일생활권 내에서 세계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화도 앉아서 어디든지 통할 수 있고, 회의도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일생활권 내에서 세계가 동화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일교회가 그 수준에 올라가는데, 하늘이 발전적인 상대세계를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문대학교가 정지해 있으면 안 됩니다. 21세기를 차고 나가서 2천년 3천년 5천년 역사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방향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282-125, 1997.03.11)

6 조선소에 가 보면 조그마한 쇳조각이라도 쓸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세분해서 가져다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과 같은 것을 만든다면 손을 따로 만들고, 발을 따로 만들고, 눈이나 코를 따로 만들어서 가져다가 조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용접이 1밀리미터만 틀려도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세계가 됩니다. 선문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전통을 중심삼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무를 책임진 사람들은 계획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현재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두드러져야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모범이 되고, 교수들에게도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됩니다.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상적인 기준에서 가치관의 기조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사상무장을 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중심 뿌리는 곧게 내려가야 됩니다. (290-199, 1998.02.24) p. 1054

7 ‘애천·애인·애국’이라는 선문대학교의 건학이념에 표방되었듯이 본인이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천 이념이었습니다. 애천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은 특정 종교나 종파의 교리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계시는 근원자인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시고 인류에게는 무형의 참부모이시며, 천도와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일찍이 본인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한시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이상인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 온 본인은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있는 인재 양성을 중요한 숙원사업의 하나로 여겨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구촌시대, 인류 대가족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는 먼저 하늘과 인류와 나라와 세계와 만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3주체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실천 속에서 이룩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창의력의 계발을 통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통해서 3주체 인격자인 건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보편 교육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375-139, 2002.04.14)

8 선문대학교에서는 천리를 따르는 사랑의 실천과 체휼에 본이 되는 교수와 지도자들이 전체 학생들을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인격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인류가 염원하는 자유와 평화, 통일과 행복은 지식이나 힘 혹은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영성 계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도래한 21세기는 섭리 완성의 세기로서 인간이 피할 수 없이 영계와 가깝게 교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문대학교는 본인의 행적 연구와 함께 세계의 석학들이 몰려와서 영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대학은 인간의 지성과 전문성의

계발만이 아니라 심령 계발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는 대학교, 즉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완벽한 지도자들을 길러 내는 세계 제일의 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375-141, 2002.04.16) p. 1055

9 선문대학교는 세계의 석학들과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동연구와 토론의 장이 되어 미래의 이상 실현으로 연결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문대학교에는 세계의 천재적인 최우수 젊은 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학은 한국인들만을 위한 대학이 아닙니다. 세계인은 물론이고 천상에 있는 영인들의 소망까지 포괄하는 섭리사적인 대학입니다. 세계의 뜻 있는 젊은이들이 섭리의 조국인 한국을 알고 세계평화를 위한 참사랑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국제화교육의 요람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세계의 시민, 나아가 천일국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선민이 되어 미래세계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품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와 임직원 여러분은 이 대학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이고 지혜와 도덕성 그리고 영성을 연마하면서 참사랑의 인격을 형성하는 학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75-143, 2002.04.14)

10 선문대학교는 하나님과 천의를 따른 설립자가 바라는 깨끗하고 고상한 2세들이 공부하도록 준비된 곳입니다. 그러니 순결교육의 세계적 요람드로 만들어서 나라와 세계가 믿고 맡기는 훈육 및 실천의 장이 되어 밝은 미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무엇이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봉사의 인격을 연마하는 꿈나무들로 키워야 합니다. 천주가 바라는 초국가·초인종·초종교적으로 개방된 교육을 통해 오색 인류가 한 형제의 이상을 배우는 화합의 배움터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전문인 양성소로 육성되기 바랍니다. 선문대학교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참사랑

과 평화의 산지식을 일깨우고 봉사하며 연구하는 교육기관으로 날로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375-144, 2002.04.14)

11 지금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믿을 수 없고 남편을 믿을 수 없고, 형제를 믿을 수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을 수 없습니다. 불신풍조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악마가 지상지옥을 팽창시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누가 구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구할 사람은 참부모 이외에는 없습니다. 참부모의 가정 편성 이념은 하늘나라의 비밀창고에 들어 있는 교과서입니다. 에이즈를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추방해야 됩니다. 미국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273-268, 1995.10.29)

12 순결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과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순결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대학의 출발과 더불어 각 학과를 만들어 놓고 남자들끼리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장관이나 학자 등 나라의 이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순결대학을 졸업한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고 남자를 사위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292-075, 1998.03.28)

13 절대 성을 못 지키게 될 때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은 것이 뭐냐? 아담의 생식기와 해와의 생식기입니다. 둘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천하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천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심각했던 이상으로 여러분은 성문제를 중심삼고 절대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에 순결학과를 만든 것

입니다. (545-231, 2006.11.22)

14 2004년 1월 28일 오전 11시5분을 중심삼고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를 봉헌하는 이 기념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하여 하늘이 이 장소와 이 환경과 이 전체를 맡아 주인이 되시어서 만세에 자랑할 수 있는 교육의 전당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한국에서 선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여기 신학대학원을 중심삼고 앞으로 초종교초국가로, 새로운 하나님의 이상적 세계에 있어서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인간을 알고 하늘 앞에 주인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주인을 만세의 이상적 창조주로서, 참부모로서, 참다운 스승으로서 모실 수 있는 인재를 이 전당에서 교육받고자 원하오니, 아버님이 맡으시어 일체 봉헌된 사실을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일체 소속하는 부처 부처마다, 그리고 선생과 제자가 하나되어 '청심(淸心)'이라는 이 글자에 거리낌이 없는, 활짝 아침 태양을 맞듯이 기쁘신 가운데서 모든 마음 마음이 하나되어 하늘의 본연의 수직적인 중심을 갖추어 몸 마음에 일체 된 세계의 주인과 횡적인 실체와 하나되게 하시옵소서. (433-266, 2004.01.28) p. 1056

15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는 초종교신학대학원입니다. 유명한 박사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소속된 종단의 교리를 소개하고 통일교회와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소속된 박사가 비판한 것이나 자기가 비판한 것이 같게 될 때에는 전체 초종교 입장에서 하나의 길을 찾아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천지가 원하는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547-235, 2006.12.03)

16 미국의 통일신학대학원은 초종교신학대학원입니다. 초종교입니다. 여기에는 불교인도 들어올 수 있고, 유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졸업한 사람은 초

종교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목사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대학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평에는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는 아벨이고 그것은 가인이니 하나되어야 합니다. (563-248, 2007.05.21)

통일신학대학원, 브리지포트대학과 세계대학연맹

참부모님께서는 1974년 4월 30일 미국 뉴욕 허드슨 강가 배리타운에 소재한 7만 평(58에이커; 385,000제곱평방미터) 부지의 가톨릭신학교를 인수해 1975년 10월 20일 미국 통일신학대학원으로 개교하셨다. 그리고 1986년 11월 21일 인가를 받아 신학과와 신학교육과의 석사학위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등에서 교수들을 초빙해 초교파 대학원으로 운영하셨다. 이어서 1992년 4월 15일 브리지포트 대학교를 인수하셨다. 미국 코네티컷주 롱아일랜드해협에 위치한 브리지포트대학교는 192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 대학이 국가나 이념,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시고 1996년 1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세계대학연맹 결성을 선언하셨다.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유엔을 통하여 세계의 지도적 인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엔대학 설립을 제창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라는 공간보다는 누구나 각자 처송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상통신교육시대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17 내가 배리타운에 신학교를 만든 것은 통일교회에 신학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교수, 천주교 교수, 장로교 교수 등을 데려다가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원리를 안 가르치고 간섭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093-162-1977.05.22) p. 1058

18 통일신학대학원이 미국에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신학계에서 문제의 신학교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학구적인 실력에 있어서 어느 대학원 못지않은 수준에 올라갔지만, 정부가 정치적인 배경을 중심삼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신학자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인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차원에 와 있습니다. (147-010, 1986.08.20)

19 배리타운의 신학대학원이 1986년 11월 21일에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통일신학대학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1년 동안 싸웠습니다. 뉴욕 주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학교 설립 규정에 따라서 시설로부터 교수와 학생들까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왜 인가를 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1심에서 이겼습니다. 저쪽의 항소로 2심에 올라갔는데, 2심에서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3심까지 올라갔습니다. 뉴욕주 입장에서는 3심에서도 지면 나라의 꼴이 안 되겠으니까 거기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뉴욕주 교육위원회와 통일신학대학원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소.'라면서 기각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기각시켜 버린 지 4년 만에 인가가 났습니다. (149-262, 1986.11.23)

20 아버님이 신학교를 세운 것은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신학교들은 미국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신학교 출신들이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학 교육도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하는 것으로는 미국의 진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재교육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새로이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이 이 신학교 설립

을 서두른 것은 미국을 재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미국, 새로운 자유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216-045, 1991.03.09)

21 내가 브리지포트대학을 인수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종합대학을 인수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가마다 '지금 레버런 문이 미국의 교육분야를 점령하는 것은 미래의 미국을 망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별의별 소문이 났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신문들도 헐뜯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나쁜 짓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사나이로 살아왔습니다. (282-122, 1997.03.11) p. 1059

22 아버님이 살아가는 생활의 천지, 철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복이 있으면 복의 파이프를 달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고생한 곳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브리지포트 대학이 코네티컷주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고생한 교도소가 있는 주입니다. 그곳이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브리지포트대학을 인수하지 않았으면 그 주가 부도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대학교를 인수해서 이제는 자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주 가운데서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내가 잘되라고 기도하지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한 곳입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더라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3-222, 2002.06.28)

23 학문이란 국경을 초월해야 되고 역사까지 초월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한데 뭉쳐 교육을 하되 민족의 한계선에 지배를 받는 교육제도를 우리는 극복하자, 넘어가자

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면 미국을 위한 교육제도, 영국이면 영국을 위한 교육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새로이 구상하는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 알맞은 교육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온전한 교육을 할 수 없겠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대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대학이사연맹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071-176, 1974.04.30)

24 앞으로는 아무나 통일교회 책임자가 못 됩니다. 책임자가 되려면 세계가 공통적으로 공인하는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 군 책임자라고 하면 미국에도 군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와 맞먹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더라도 '당신, 무슨 책임자요?'라고 할 때 '군 책임자요.'라고 하면 몇 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면 어디에 가든지 다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서두른 것이 교육의 제도화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로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반 위에서 해야 됩니다. 배리타운에서 서두른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교육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075-091, 1975.01.02) p. 1060

25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과 각 분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새로운 백과사전을 편찬해야 됩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가치적인 기준을 중심삼은 새로운 백과사전을 편찬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원서가 되는 백과사전을 편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중심하고 일간지를 발간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연합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삼은 연맹을 편성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학들을 연결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0-196, 1980.11.17)

26 1996년 1월에 우루과이의 빅토리아플라자호텔에서 세계대학연맹 설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대학연맹을 중심삼고 세계의 대학들이 공동가치의 신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익이 문제가 아니고 자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인종을 초월하고 전통과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느 대학이든지 거리낌 없이 문화적 배경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지 찾아가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276-289, 1996.03.03)

27 남북미대학연맹을 중심삼고 아시아로부터 남북미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를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추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매년 평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학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이 됩니다. 정신적인 면,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 교육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여기에 언론기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보조를 맞추게 될 때에는 세계가 다른 데로 가려야 갈 수 없습니다. 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가정들이 하나된다면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276-291, 1996.03.03)

28 앞으로 공산주의 세계의 이론가들과 민주주의 세계의 이론가들과 **통**일사상가들을 연합해서 국제세미나를 많이 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미국 정부와 유엔을 여기에 가담시켜야 합니다. 미국 정부 스스로 이 혼란한 시대에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대학연맹을 통해 그 방향대로 추구해 나가게 되면 하나의 주류 사상권에 치리를 받을 수 있는 세계화의 시대로 넘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352-124, 2001.08.29)p. 1061

29 내가 계획하는 것은 대학연맹을 만들고 유엔 대학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 총장들이 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의미에서 50퍼센트의 학생들을 모으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50퍼센트를 뽑아서 유엔 대학을 창설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인재들을 교육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하지만 교육을 한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실현하려면 방대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263-293, 1994.10.27)

30 유엔에는 초국가적인 이념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인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 일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만 있지 세계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인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편성하기 위해서 브리지포트대학교와 아이비리그 10대 대학들을 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재들을 창출해서 유엔을 통하여 전 세계의 지도적 인맥 체제를만들 계획입니다. (252-285, 1994.01.01)

31 앞으로는 학교가 필요 없게 됩니다. 영상통신교육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워싱턴 텔레비전센터를 중심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자통신의 사회였지만 이제부터는 영상통신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209-316,

1990.11.30.)

32 이제는 모여서 집을 짓고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의 편리 문제, 즉 교통수단의 편리 문제, 교육의 편리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가지고 어느 산골짜기에 가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없어집니다. 전부 영상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영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6년씩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2년 이내에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까지도 영상을 통해 공부해서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에 통과만 하면 어디에 가든지 공인됩니다. (268-231, 1995.04.02) p. 1062

3절 원모평애재단과 선학평화상

원모평애재단과 애원은행

참부모님께서는 1994년 3월 25일 자원봉사 애원은행을 창설하셨다. 애원은행은 소외된 불우이웃들을 위한 사회봉사단체로서 무료급식소 '애원의 집'과 남북통일봉사단, 국제구호 봉사단 등 18개 봉사단을 두기도 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2011년 8월 16일 원모평애재단 설립을 제창하셨으며, 2013년 2월 20일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에서 참어머님을 모신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원모평애재단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양성 지원 및 참부모님의 평화사상과 비전 선양, 봉사와 나눔의 실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평화의 꿈을 가진 국내외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차 국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뜻을 갖고 출범하였다. (p. 1062)

1 원모(圓母)라는 것은 근본을 말합니다. 원모가 평화의 근본이 되고, 참사랑의 근본이 됩니다. 참사랑 위에서 재단이 설립되니 태평성대 위에 비로소 기둥이 자리를 잡고 하늘땅이 영원무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참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2011.08.17, 라스베이거스 천화궁)

2 원모평애재단의 ‘원모’는 ‘둥글 원(圓)’자와 ‘어머니 모(母)’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모나지 않고 둥글어야 합니다. 여러 성격을 가진 가족을 사랑으로 품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어머니와 같아야 합니다. 원모는 어머니 중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자신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이리저리 굴려서 원형을 만들어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부모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평애(平愛)’는 참사랑으로 낮은 곳,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며 높고 낮음이 없이 수평을 이루어 천주가 참사랑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참사랑의 씨를 뿌려야 참사랑의 평화의 나무가 싹이 터서 자랍니다. 원모평애재단은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평화의 세계를 이룬다는 비전을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야 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고,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4.02.10, 천정궁) p. 1063

3 아버님은 생전에 ‘원모평애재단은 어머니에게 남겨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축복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더욱 특별합니다. 나는 이 재단을 통해 영원한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참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평화세계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원모평애재단이 갖는 평화세계의 비전과 이상을 가슴 깊게 각인하고 동참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어머님, 2014.02.10, 천정궁)

4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은 물론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참부모님의 전승사업 가운데 일부를 담당하게 될 원모평애재단을 더 크고 넓게 키워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참하여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우리 주변의 모든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참어머님, 2014.02.09, 천정궁)

5 아버님이 지금까지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단체를 30개 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든지 이 30여 개 단체의 지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정리해서 인계하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의 기금을 만들고 매월 회비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을 댔지만 앞으로 대회에 참석할 때에는 각자 돈을 내고 참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은행 이자로 얼마든지 연차적인 대회를 할 수 있고 아들딸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축복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285-280, 1997.06.15)

6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며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마지막 순간에도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줍니다. 도덕과 가치관의 붕괴, 인간성의 상실과 물질만능주의의 병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닌 남을 배려하고 위할 줄 아는 참사랑으로써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참사랑은 주고도 잊어버리고 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양말 한 켤레를 정성껏 신기는 것, 때로는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이간의 가치는 외적 또는 물질적 가치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그 정신과 인격에 있음을 믿는 참사랑의 마음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낳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우한 가정환경, 물질적인 빈곤,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소외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스한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 애원은 탄생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가능한 만큼의 시간과 노력,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투입하고 베푸는 일은 분명 의미 있고 보람된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해서 스스로 이루는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나아가 자원봉사는 인간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지구촌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 사랑에의 신념과 사회공동체의식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경과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절대가치, 즉 변치 않는 참사랑을 실천해야 될 인간성 회복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참어머님, 1994.03.25, 한남국제연수원)

8 여러분은 복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돈을 자기 아들딸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세계를 위하고 세계 2세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운세의 판도가 열리게 됩니다. 자기 아들딸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세계의 운세권이 완전히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축복가정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축복가정 2세들의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164-113, 1987.05.05) p. 1065

9 아버님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세계의 어려운 아들딸들이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못 가니 점점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들을 연합해서 장학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벨유엔이 첫째로 해야 될 일은 장학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학회의 기금은 어디에서 끌어들일

것이냐? 세계가 아벨 주관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593-138, 2008.06.14)

10 나는 원모평애재단의 사업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아버님의 성화기금 전액을 원모평애재단에 씨돈으로 넣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서 본래 하늘의 뜻과 천지인참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원은행도 창설하여 사랑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소외된 아동들과 이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이웃에 사랑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2.20, 천정궁)

11 원모평애재단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원조는 참부모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국제축복결혼식을 시작하여 지금은 수많은 커플이 탄생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등 원수나라 사람들끼리 축복한 가정들은 진정으로 원수관계를 화해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양과 서양, 인종 간에 서로 교차축복을 하여 다문화로 꽃피는 평화세계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참어머님, 2014.02.10, 천정궁)

12 모든 일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는 평화세계 건설의 동량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조직 혹은 국가도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발전합니다. 훌륭한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원리에서는 3대축복을 완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3대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하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그 3대축복을 완성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

인, 천주에서는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은 하늘의 축복을 완성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데 평생 동안 힘쓰셨습니다. 원리를 찾기 위해 성경이 해어지도록 읽고 또 읽고 하늘의 슬픈 심정을 느끼며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그러실 때도 있었고 10시간 넘게 땀을 흘리며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신을 다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한두 시간만 하더라도 쓰러질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도 참부모님께서 보여 주신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생애노정을 배우고 따라 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원모평애재단은 참부모님의 이러한 뜻을 살려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4.02.10, 천정궁) p. 1066

13 여러분은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는 목적을 좋은 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3대축복을 완성하고 애천·애인·애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 위에 지식과 기능과 실력을 쌓아야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모평애재단은 여러분이 자신의 꿈과 하늘부모님의 꿈을 일치시켜서 더욱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02.10, 천정궁)

선학평화상

참부모님게서는 2013년 2월 20일 선학평화상을 제정하셨다. 참부모님의 평화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선학평화상은 세계평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해온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2014년 8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세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학평화상위원회'가 출범하였다.

14 2020년까지 내가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필코 성사되도록 다방면으로 환경창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가 30억일 때부터 박차를 가해 나왔는데, 지금은 70억이 넘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70억 인류에게 우리 뜻을 다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모평애재단을 통하여 많은 인재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움직이며 나눔의 생활로 참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미래에는 더 밝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힘들지 않고 아무 탕감이 없는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어머님, 2014.02.09, 천정궁)

15 국제과학통일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버님을 한 번 만나면 왜 그런지 또 만나고 싶고, 자기가 대회에 안 가면 몸 컨디션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회에 오게 되면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회의를 코치해 주고, 명예와 위신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노벨상 같은 상까지도 만들라고 해서 1차, 2차, 3차까지 20만 달러씩의 상금을 주었습니다. (303-075, 1999.08.10)

16 지금 세상에는 말없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봉사연합(United to Serve America)을 만들었습니다. 머리글자가 USA인 이 조직을 만들어 미국 250개 도시에서 부흥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숨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이아몬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을 만들어서 연합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초교파적입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것

입니다. 망해 가는 가정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은 기독교 문화권이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없이 살아 나오며 자기 전체를 희생해 나왔던 기독교 핵심 요원들과 조직 요원들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234-157, 1992.08.10)

17 우리는 평화의 비전과 사상을 후손만대에까지 상속하고 전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평화상을 제정하여 참부모님의 평화 비전과 사상을 선양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원모평애재단을 중심으로 참사랑을 실천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하는 선학평화상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며, 이 상을 인류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평화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02.10, 천정궁)

18 원모평애재단은 세계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능가하는 선학평화상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면 하늘의 뜻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로서 세계인들이 추앙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원모평애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크나큰 성업 앞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모두 동업자, 동참자가 되어 역사에 길이 남기를 기원합니다. (참어머님, 2014.02.09, 천정궁)

제4장 문화예술단체 활동

1절 리틀엔젤스예술단

리틀엔젤스 창단과 공연

참부모님께서는 1962년 5월 5일 리틀엔젤스예술단을 창단하셨다. 리틀엔젤스는 순수한 어린이들로 구성된 한국전통예술단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과 한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리틀엔젤스는 1965년 9월 미국 게티즈버그에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위한 특별공연을 기점으로 60여 차에 걸쳐 60여 개국을 순방하면서 공연해 왔다. 특히 6천여 회의 국내외 무대공연과 500회 이상의 TV 출연기록을 세웠고, 40여 개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평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1990년 4월 7일부터 17일까지 소련 모스크바 공연과 1998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북한 평양 공연,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유엔평화군 성전추모연합회와 함께 진행한 6·25전쟁 참전 22개국 순회 보은공연 등은 특별한 관심 속에 펼쳐졌다. (p. 1068)

1 아버님은 어린이무용단을 만들면서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쌀밥을 먹을 때 보리밥을 먹으며 한푼 한푼 저축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말을 들으면서도 아버님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국에 가서 소개할 것을 생각해서 어린이 무용단을 만들었습니다. (037-240, 1970.12.27)

2 아버님은 한국에서 수수께끼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전투하는 데에 돈을 쓰지만 아버님은 일전도 없이 수천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돈 한 푼 없이 하루에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하려고 하면 됩니다. 큰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용단의 일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3년간 연습을 하라. 밤낮으로 하라.'고 해서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좋다. 이 정도라면 세계에서 문제가 된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본토의 형제들도 모릅니다. 종교단체와 예술단체는 다른 것입니다. 사회악을 해결하는 최선단에 있는 통일교회가 왜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015-143, 1965.10.03) p. 1069

3 이제는 20세기 후반기에 문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선진국가들이 통일사상을 문제시할 수 있는 권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앞에 한국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한 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선화어린이무용단을 창설했습니다. 많은 자금을 빌려서 이 일을 해 나왔지만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아버님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동조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십년 동안 훈련한 연예단체들도 미국의 문화세계에 들어가 공연을 했다가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쓰러져 갔지만, 우리는 어린 꼬마들을 모아 놓고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훈련시킨 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미국에 가서 첫 공연을 했을 때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적입니다. (022-094, 1969.01.26)

4 우리는 어린이들이 공연하기 전에 한데 모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 공연하게 되는 이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린이들의 모습만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하늘 백성으로서의 천명을 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이니 미국의 문화를 제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엄숙한 사명을 짊어지고 천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고 무대에 나가면 춤도 잘 추어지고 실수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예술단체들이 우리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022-094, 1969.01.26)

5 리틀엔젤스가 다른 점은, 기도하고 나서 무대에 나가 노래하고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춤을 추어도 벌써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전체에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반사경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청중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춤추는 기술이 놀랍다고 청중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 박수를 치고 야단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 거기에서 반사되는 보이지 않는 우주선 같은 것이 비춰져서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다년간 정성들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져야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00-104, 1978.10.06) p. 1070

6 1969년에 들어와 리틀엔젤스예술단이 일본에서 상당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본 책임자가 아버님에게 리틀엔젤스 공연을 최소한도로 줄이자고 하였습니다. 한국 어린이무용단이 와서 공연하면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나 갖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님의 특명에 의해서 시작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든지 최소한도로 공연 횟수를 줄이려고 생각하고 눈치를 본 것입니다. 자기 고충을 이야기하여 아버님이 좋도록 하라고 하면 아예 몇 군데 공연해 보고 일주일 이내에 공연을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씨름도 시합을 해봐야 승패가 결정한다!'고 하면서 공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022-058, 1969.01.19)

7 일본의 교포사회나 민단이 주도해서 한국의 무용단을 초청해 공연을 할 때에는 주로 무료공연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무료료 공연을 해도 어른들은 안 오고 코흘리개들이 와서 '통탕통탕'하다가 온다 간다 소식도 없이 끝내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단에서 초청한 한국의 무용단이 지금까지 망신만 당했기 때문에 리틀엔젤스예술단도 일본에서 인사도 못할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일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했으니 교포들

의 입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969년 1월 공연은 일본 정부나 재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본에서 우리 권위를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이 많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공연은 일본 저명인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 만큼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022-062, 1969.01.19)

8 리틀엔젤스예술단의 일본 공연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내가 조직을 짜서 일일이 지시하였습니다. 두 달 이내에 전국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 밀고 나간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통일교회로 몰려들고 대성황을 이룰 것이다. 아버님에게 그런 작전이 있다.'고 한 말을 책임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어라! 망하면 내가 망하고, 죽으면 내 일신이 죽는다.'고 구슬려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개인의 주관대로 하면 다 실패하고,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028-228, 1970.01.11)

9 리틀엔젤스가 공연을 위해 도쿄의 니치게키(日劇)를 40일이나 빌렸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40일 **주**야로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한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본 연예계에서는 우리를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일주일간 초만원이 되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40일 주야로 공연한다고 하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람이 있습니다. 전부가 반대하고 그런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엎자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의 저력을 과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여론을 딛고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062-275, 1972.09.26) p. 1071

10 통일교회가 리틀엔젤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말없이 대한민국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의 긴자에서 제일 큰 극장을 빌려 40일 주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단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조총련에게 말려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문화민족이고 일본 사람까지도 감동하고 탄복하는 고대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한국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하는 일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모험길을 거쳐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여 선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065-076, 1972.11.13)

11 내가 1971년에 미국을 건너갔지만 미국에 가기 전에 이미 많은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아버님이 나타나자 대번에 CIA(중앙정보국)에서 문제 삼고 FBI(연방수사국)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에 처음 온 사람으로서 방대한 활동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반을 언제부터 닦았느냐? 리틀엔젤스예술단을 만들어서 해외공연을 하기 전부터 닦은 것입니다. 리틀엔젤스를 후원하는 한미문화자유재단을 만들 때 그 재단의 이사로 미국의 정부를 움직이던 인물들을 투입하였습니다. 트루먼 전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등 140여 명이 그때 가입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리틀엔젤스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백악관에서 공연하려면 1년 반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리틀엔젤스는 고작 일주일 만에 백악관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우리 후원 재단의 고문으로 있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벌써 그런 기반을 닦았습니다. (138-313,

1986.01.24) p. 1072

12 리틀엔젤스예술단이 이제는 유명한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 정부를 중심삼고 백악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여왕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관방청을 중심삼고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연예계에 있어서 공인받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럽을 가는데도 영국에서 두 달 동안 특청을 해왔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에서 연예인들이 우리를 환영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공연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삼고 이번에 두 달 동안 최고의 연예인들도 만나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린이들이 40일 이상 공연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일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스페인에 가서 공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무용단은 이미 세계적인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방대한 인적자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062-282, 1972.09.26)

13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와 우정의 사절인 리틀엔젤스가 이곳 소련 공연을 갖게 된 것은 저에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4천만 대한민국 국민 역시 리틀엔젤스와 더불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민국의 우정과 친선을 전달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쇼이발레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볼쇼이발레단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완벽한 연기에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실히 느낀 것은 문화예술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국적과 인종과 이념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오늘밤 볼쇼이와 전혀 다른 공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낀 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한국 어린이들이 보여 준 예술의 세계는 여러분께 동방 예술의 아름다

움과 전통을 선사하였으며, 우리는 거기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가 세계평화를 이루는 날을 앞당기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201-215, 1990.04.11)

14 1998년 5월에 리틀엔젤스예술단이 북한에 갑니다. 아버님이 계획한 것이 전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1998년 3월에 유니버설발레단이 워싱턴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12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틀엔젤스가 북한에 간다는 것은 하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플러스고 북한이 마이너스라면, 아버님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못합니다. 정부도 못합니다. 아버님이 동양 춤과 서양 발레를 합해서 동서양을 대표하는 최고의 발레단과 최고의 리틀엔젤스예술단을 만든 것입니다. 동서양에서 그런 최고의 발레단과 최고의 리틀엔젤스예술단을 만든 것입니다. 동서양에서 그런 최고의 공연을 하게 되면 통일적인 문화예술세계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292-262, 1998.04.26) p. 1073

15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축하공연을 해야 되는데 리틀엔젤스가 10일 동안 준비해서 공연했습니다. 2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10년 걸려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리틀엔젤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북한에서는 평양소년학생예술단이 남한에 왔습니다. 리틀엔젤스가 없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북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참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통일을 하는 데 선도적 입장에 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틀엔젤스 공연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의미로 오색가지 돌가루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 왔습니다. 그것은 천년만년 가는 것입니다. (325-209, 2000.07.01)

리틀엔젤스예술학교 설립

참부모님께서는 1973년 3월 27일 어린이무용단 양성과 예술인 교육을 위해 리틀엔젤스예술학교 기공식을 가지셨다. 리틀엔젤스는 그해 12월 1일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1974년 3월 5일 '애천·애인·애국'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개교하였다. 1977년 2월 8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이해 2월 16일 선화예술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6 오늘날 사상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주축이 되고 민주세계도 거기에 대치해서 따라 나오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하고 제일 근본문제가 '사랑이 무엇이냐? 정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수습하는 데에는 별것 없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을 중심삼고 수습하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젊은 사람들의 방향에 새롭게 자극시킬 수 있는 길은 음악세계입니다. 이것이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리틀엔젤스예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241-196, 1992.12.26) p. 1074

17 리틀엔젤스예술학교를 세운 것은 통일교회의 이상을 세계에 연결시켜 문화 창조의 기본이 되는 문화 예술을 보급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교의 교육목표는 간단합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애천(愛天),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愛人),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愛國)으로 세계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에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습니다. (135-261, 1985.12.12)

18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만, 공부를 함으로써 인생 문제를 놓고 하늘의 아들딸의 길,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 간 우리 형제들이 지금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

리는 듯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밤을 새워 공부하며 '희망의 내일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라.'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리틀엔젤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 리틀엔젤스는 어린이 왕궁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왕궁, 장년의 왕궁이 시작되는 것이요, 노년의 왕궁으로 확대되어 온 세계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 세계의 모든 장년들, 세계의 모든 노년들,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리틀엔젤스 출신들을 왕같이 모실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아들딸을 만들었으니 그 이상 고마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왕의 할 일이기 때문에 모든 만민이 여러분을 왕같이 추앙하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리틀엔젤스 여러분은 세계를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100-162, 1978.10.09) p. 1074

19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리틀엔젤스예술단도 그렇습니다. 리틀엔젤스를 미국에 보낸다고 할 때 다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선발대를 교육했는데, 마무리 3개월 교육해서 미국 공연에 나서게 했습니다. 단원들이 자다가 꿈꾸는 가운데서도 가르침을 받고 배웠습니다. 영계에서 코치했습니다. 우리 회관이 없었습니다. 리틀엔젤스 학교, 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이 없었지만 리틀엔젤스예술회관을 만들었습니다. (532-315, 2006.07.17) p. 1074

2절 유니버설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참부모님께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이상적 평화세계인 심정문화세계의 구현이라는 취지로 1984년 5월 12일 유니버설발레단을 창단하셨다. '예천미지(藝天美地),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비전으로 창단된 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최초의 민간 직업 발레단이다. 제1회 공연인 '신데렐라'를 필두로 세계 17개국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1천800여 회의 공연을 선보이며 아시아의 대표적인 발레단으로 성장하였다. (p. 1075)

1 발레는 서양무용인데 서양은 기독교문화권입니다. 기독교문화권은 신부문화권입니다. 주님을 신랑 삼아서 가정과 나라에 정착하기를 바라 나온 것입니다. 신부가 바라는 것은 신랑인데, 신랑 신부가 만나서 역사적인 한, 하나님의 한을 풀고 해방된 춤을 춤으로써 천지를 진동시키겠다는 결의에 찬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유니버설'이라고 지었습니다. (350-168, 2001.08.05)

2 발레 하면 서구사회, 기독교문화권에서는 최고의 예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최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1984년에 유니버설발레단을 만들어 세계 정상을 향하여 단련시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리틀엔젤스예술단을 동양문화를 중심삼고, 유니버설발레단은 서양문화를 중심삼고 예술세계의 정상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두고 찬양할 일입니다. 새로운 문화세계의 창조에 빛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310-269, 1990.07.22)

3 아버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분야에서 유니버설발레단을 만든 것입니다. 서양세계가 아무리 발레 문화를 자랑해도 지금 아버님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서양세계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갖고 자랑하지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이 있느냐 할 때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세계의 발레는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통일이 없고 전통적인 발레의 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님이 알고 앞장선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종교와 습관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지만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1984년 창단 이후 14년이 지나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니까 서양세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293-148, 1998.05.26) p. 1076

4 아버님은 세계로 출발할 때 절대 의심을 안 했습니다. 한마음이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왔다 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목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선진국가군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유니버설발레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면 뉴욕타임스에서 세 번이나 전면에 걸쳐 소개해 주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비약하여 톱건(Top Gun)이 되었습니다. (292-316, 1998.04.27)

5 아버님이 춤추고 노래하는 리틀엔젤스예술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웃으면서 노래하고 웃으면서 춤출 수 있는 최고의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세계나 미국은 개인주의의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레의 정신은 사라지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니버설발레단은 종적인 전통을 중시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넘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제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놀라운 기반을 갖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용도 문화적 배경과 정신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예술세계입니다. 우리는 동양 예술과 서양 예술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동양 예술을 대표한 것이 리틀엔젤스이고, 서양 예술을 대표한 것이 유니버설발레단입니다. (294-100, 1998.06.14)

6 여러분은 유니버설발레단에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구사회의 고위층 부인들은 발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상류사회의 여성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이 서구사회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의 여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여성들을 묶을 수 있는 방대한 조직이 됩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을 통해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미국과 유럽까지 엮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인맥을 UBC(유니버설발레단)나 UBA(유니버설아카데미)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서 묶어 놓으면 만년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 최고 수준의 발레단과 한번 연결되면 가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명문가문을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236-084, 1992.11.03)

7 통일원리를 주제로 한 발레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님이 겪어온 어려운 감옥생활 같은 것을 중심삼고 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안무가로서 세계 최고의 챔피언 같은 사람이 유니버설발레단에 있습니다. 발레 작품 중에서 '라 바야데어'가 아주 공연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군무도 군무지만 개인 기술면에서 최고 수준의 무용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 기술을 중심삼고 전문가 입장에서 대번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군무입니다. 그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전체가 보조를 맞추어야 되고, 짝을 이루어서 하나되어야 합니다. 발을 들게 될 때 조금만 높이 들어도 안 됩니다. 그 50명, 100명이 뛰는 소리가 한 사람이 뛰는 소리처럼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보면서 '아직까지

는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25-324, 2000.07.02)

8 우리 무용단은 앞으로 남녀문제에 대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문제로 세상에서 좋지 않은 입장에 떨어지고 탈락된 사실을 바라잡고 혁명해야 됩니다. 우리 유니버설발레단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문제에 조금만 걸리면 쫓겨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대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뜻적인 입장에서 본을 세워야 됩니다 연예계가 풍기문란하고 사회악을 조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는 것을 청산짓기 위한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혁명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가지고는 혁명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면에서나 행동적인 면에서나 안팎을 맞추어 그들이 공인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정정당당한 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점에서 연예 분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리틀엔젤스도 만들고 유니버설발레단도 만들어서 이제 세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338-093, 2000.10.29)

UBA 개교와 미래 예술의 과제

참부모님께서는 1989년 3월 25일 미국 워싱턴DC에 유니버설발레학원을 개설하셨다. 그리고 1990년 9월 5일 정식으로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UBA)를 개교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앞으로 문화예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소년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p. 1078)

9 예술단체로서 동양을 대표해서 유니버설발레단이 있다면 서양을 대표해서는 키로프발레단이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에 있는 소련의 키로프발레단 단장이 지금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UBA)의 학장입니다. 지금 키로프발레단의 중요한 선생들이 워싱턴 UBA에 와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양 여성들에게는 발레가 최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나 장관 부인들은 대개 발레를

감상할 줄 아는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발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유럽 문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발레단이 오면 서로 티켓을 사느라고 야단을 합니다. 아버님은 우리 발레단을 그럴 수 있는 최고 수준에까지 성장시켰습니다. (234-158, 1992.08.10)

10 1990년 9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 UBA 개관식을 합니다. 부시 행정부가 간청하고 소련 정부가 허락해서 UBA 학장 유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부시가 편지를 보내고 소련 정부가 회답을 하여 키로프발레단 단장을 UBA의 학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로프발레단의 중요한 선생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들도 소련 무대만 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유세계의 무대에서 공연하려고 해서 개관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5-187, 1990.09.01)

11 UBA의 학장 올레그 비노그라도프는 영계에서 '네가 소련을 위해 키로프를 지킬 것이냐? 레버런 문과 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님을 중심삼고 일하는 것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올레그 비노그라도프라는 사람이 아버님과 손잡았느냐 하는 것이 서구세계에서는 수수께끼입니다. 소련 정부도 모르고 서구사회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 우리 몇몇 사람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 UBA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할 때 '여기는 거룩한 고시니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 네가 이제부터 여생을 바쳐서 일할 곳이다.'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영(令)이라고 거역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본가에 온 것같이 하는 것입니다. (205-280, 1990.10.01)

12 문화 하면 예술문화입니다. 예술에는 회화도 들어가지만 무용은 종합예술입니다. 더구나 발레 같은 것은 종합예술입니다. 미에

대한 것을 그냥 그림이 아니라 살아 있는 회화와 같이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용은 그 나라 민족문화의 배경을 대표한 예술입니다. 발레에서 발끝으로 서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서구문명 최고의 예술이 발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악도 퇴폐사상,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퇴폐사상에 물들지 않은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수십년 전부터 문화면에 이러한 창의적인 기반을 닦아 왔다는 사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뉴욕타임스가 'UBA는 발레의 하버드'라고 썼습니다. UBA가 발레의 하버드라는 명칭을 받은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도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을 다리 놓아서 그 패권을 쥔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205-279, 1990.10.01) p. 1079

13 한국에는 리틀엔젤스예술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양문화와 동양문화가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기원의 때입니다. 그 박자에 공명할 수 있는 울림을 하늘땅에 남긴다는 것은 한국이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지옥 밑창에까지 자연적으로 수직이 되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하나의 기둥과 같은 흐름이 새겨나면, 그 기둥을 바라보는 주변은 깨끗이 그 영향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감사하고 박자를 맞추면서 자기 생애를 거기에 일치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 수 있는 민족이 된다면 한민족은 하나님의 조국을 위해 민족의 위치와 가치를 당당히 결실맺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10.02.02, 천정궁)

14 미국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24시간 영화를 볼 수 있습니

다. 싸움하는 영화를 보려면 보고, 전쟁하는 영화를 보려면 보고, 연애하는 영화를 보려면 볼 수 있습니다. 별의별 영화가 다 나옵니다. 도색영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대번에 거기에 끌려 들어갑니다. 청소년들은 사상이라든가 전통적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그런 것을 보고 자극적인 면을 추구하지만, 전통적으로 그것을 재제할 수 있는 환경 여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자마자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계는 오래 안 가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녀가 붙들고 함께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약에 취해서 인류는 그야말로 정신이 빠진,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돌이키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상세계를 창건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근본에 들어가서 이런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거슬 평가하여 앞으로 예술분야를 중심한 새로운 문화 창건의 전통기준을 얼마나 빨리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241-197, 1992.12.26) p. 1080

15 내가 미국에 가서 생각한 것은, 민주세계의 선도적인 미국의 젊은이들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급진적으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이 24시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 같은 것도 24시간 계속 방송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시청하는 것입니다. 현대사조의 첨단을 이끌고 가는 것이 영상 미디어인데 미국 젊은이들이 여기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사탄세계로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첨단의 영상 미디어

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리틀엔젤스예술단도 만들고, 뉴욕심포니오케스트라도 인수하고, 유니버설발레단도 만들고, 첨단을 달리는 록 뮤직 그룹까지 만든 것은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41-190, 1992.12.26)

16 아버님은 시간이 있으면 라스베이거스의 연예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맨해튼센터에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뉴욕에 하나 만들고, 런던과 도쿄에도 만들어서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소질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사도 있고 홍보 조직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추대받을 수 있는 훌륭한 연예인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리틀엔젤스예술단을 만들었고, 뉴호프싱어스를 만들었고, 뉴욕심포니오케스트라를 인수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090-262, 1977.01.03)

제5장 스포츠를 통한 심정문화세계 실현

1절 88서울올림픽과 세계문화체육대전

화합과 통일의 88서울올림픽

제24회 하계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160개국 1만3천여 명의 동서 양진영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23개 정식종목과 237개 세부종목으로 나뉘어 승부를 겨루었다. 참부모님께서는 12년 만에 동서 양진영이 모두 참가한 88서울올림픽이 섭리적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셨고, 120개국의 선교사 10명씩을 동원하여 각국 선수단을 응원하게 하셨다. 특히 음료 '맥콜'을 제공하고 선물을 하사하시며 각국 올림픽선수단을 격려하셨다. (p. 1081)

1 1988년은 1945년으로부터 43년을 넘어서는 때입니다. 40년노

정을 지나고 7년노정 가운데 3년 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989년은 1945년부터 40년노정을 지나고 7년노정 가운데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부터는 섭리적으로 전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체제, 양극체제가 생겨난 때가 6·25동란 때입니다. 거기에서 갈라졌으니 거기에서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88서울올림픽을 중심삼고 소련과 미국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민주세계를 대표한 미국의 LA올림픽대회와 공산세계를 대표한 소련의 모스크바올림픽대회 때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갈라져 서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한국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120개 국가의 통일교회 선교사들을 불러들여 이들과 하나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204-271, 1990.07.11)

2 한국은 민주와 공산의 양극 세력에 의해 둘로 갈라졌고, 1950년 6·25동란을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양극 투쟁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양극의 세계가 88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해서 하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88서울올림픽 때 몸세계를 대표하여 올림픽에 참가한 가인적 2세 선수단이 참부모를 중심으로 아벨적인 입장에 서 있는 마음세계 대표인 통일교회 선교사들과 완전히 하나되었다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120개 국가에서 귀국한 통일교회 선교사들이 120개 국가를 대표한 입장에서 참부모를 중심으로 참가하였고, 한국 정부를 대표한 대통령이 사탄세계의 가인 2세격인 올림픽 선수들과 외적으로 일체가 되었습니다. 이들 선교사가 올림픽 참가자들과 일체 되기 위해 야곱이 에서에게 했듯이 '맥콜'을 포함한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대 주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세계적 기반과 그 새로운 방향을 잡고 움직여 나온 것입니다. (215-201, 1991.02.17) p. 1082

3 88서울올림픽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몇 등 했습니까? 1등과 2등을 한 나라가 소련과 동독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3등과 4등을 했습니다. 공산세계인 소련과 동독이 1등 2등을 하고, 민주세계가 지배하는 미국과 한국이 3등 4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적인 가인 아벨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종적인 가인 아벨이 되어서 횡적으로 가인 아벨을 만드는 데 아버님이 공헌한 것입니다. 그때 소련 선수가 자기가 딴 동메달을 감사의 표시로 아버님한테 보내왔습니다. (251-185, 1993.10.17)

4 88서울올림픽 때에 한국이 4등을 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 3개를 틀어놓고 보면서 밤을 새워 정성을 들였습니다. 88서울올림픽 이전까지는 냉전시대였습니다. 냉전이니까 다 얼어붙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얼어붙고, 종교도 얼어붙었습니다. 올림픽도 얼어붙었지만 88올림픽 때 한국에서 풀렸습니다. 냉전시대의 종국을 만든 배후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리틀엔젤스예술단이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71-133, 2007.08.09)

5 88서울올림픽대회를 구경하는 데 있어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나일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늘을 대표하고 교계를 대표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TV 3대를 설치해 놓고 운동경기 전체를 보았습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들여다본 것은 세계에서 내가 기록일 것입니다. 영계에서도 같이 보고 응원했습니다. 세계 160개 국가의 2세들을 영육으로 묶은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그 기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민도 국가적인 종적 입장에 서서 세계를 대표하여 아버님과 같은 페이스로 통일적 심정을 가지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통일은 세계의 통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참부모와 하나된다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다른 모든 국가들의 중심입니다. 이럼으로써 모두 하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세계사적인 전환시기라는 것입니다. (184-088, 1988.12.20) p. 1083

6 민주세계의 승리기준을 88서울올림픽대회와 연결시키고 새로운 국가적 기준과 세계적 기준으로 연결시켜서 1988년 9월 27일 섭리적 통일전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 세계통일국개천일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올림픽대회를 중심삼고 섭리적 통일전환식과 개천일 선포식을 함으로써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07-322, 1990.11.11)

세계문화체육대전

참부모님께서는 서울올림픽대회 기간인 1988년 9월 27일 서울 한남국제연수원에서 12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심정문화세계를 지향하는 세계문화체육대전(WCSF) 개최를 제창하셨다. 세계문화체육대전은 인간이 만든 장벽들을 허물고, 초국가·초인종·초종교적으로 화합일체를 지향하는 문화축전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이 1992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7 새로운 시대가 개문돼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88서울올림픽대회 대승리와 더불어 세계문화체육대전 개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버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벌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비로소 한데 묶어 세계가 새로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감기어 돌아가면 세계가 사탄세계가 아닌 하늘세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세계로 가는 촉진제로 활용할 것이 세계문화체육대전입니다. (181-237, 1988.10.03)

8 이제 교회 축복시대를 지나 나라를 대표해서 축복받을 때가 옵니다. 문화시대를 중심삼고 이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전을 중심삼고 부모님이 축복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세계적 판도를 중심삼고 재축복이 필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120개 국가에서 온 모든 책임자들은 각 나라에서 선남선녀를 선출해야 됩니다. 운동과 학술대회를 통해서 챔피언들, 젊은 2세들을 선출해서 축복 챔미언권 내에 몰아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사해서 합격한 사람들을 이 대회에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국가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어야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남선녀들을 선출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격하게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젊은이들은 새로운 희망의 세계, 이상의 동싼, 안식의 보금자리로 터전을 잡고 그 터전에서 천년만년 새로운 이상적 꿈을 그리고 노래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181-276, 1988.10.03) p. 1084

9 원래는 세계문화올림픽대회라고 해야 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그 명칭을 쓰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세계문화체육대전이라고 쓴 것입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는 냉전시대의 국가들이 화합해 들어온 대회였습니다. 올림픽대회가 소련과 미국을 중심삼고 하나되지 못하다가 1988년에 와서야 비로소 냉전의 고개를 넘어서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몸을 화합했지 정신적인 통일권은 안 생겼습니다. 올림픽대회는 몸만을 중심삼고 세계의 2세들이 결속하는 자리입니다. 종교라든가 정신적인 내용을 중심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적인 내용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올림픽대회와 같은 세계문화체육대전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235-153, 1992.08.29)

10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은 일찍이 천명을 받아 복귀역사의 흐름을 간파해 온 본인이 생애를 두고 주도해 왔던 각 분야의 모임을 총망라하여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절대가치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첫 대전입니다. 오대양 육대주에서 다양한 문화권으로 문화권으로 사분오열 되었던 전통과 문화, 가치관 등 각양의 특색을 살려 가면서 전체적 조화를 통해 새로운 통일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토대인 원리운동은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며 새로운 참사랑의 운동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조화와 통일을 통해 본성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새 인간, 새 가정, 나아가 새 나라와 새 세계를 창조하는 운동입니다. (234-245, 1992.08.23)

11 세계문화체육대전은 전 세계의 학자·종교지도자·언론인·정치가·청년지도자·체육인 등이 하나님을 중심한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 만나는 축전입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한 인류 화합의 지혜와 경험을 결집하여 평화이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천주사적인 행사입니다. 본연의 이상세계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 참혈통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참된 자녀, 참된 형제, 참된 부부, 참된 부모의 심정권을 완성함으로써 이룩하는 세계입니다. (234-234, 1992.08.23) p. 1085

12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행차해서 7년 이내에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렸지만 이것을 내 자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나를 환영하고 지지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차대전 직후의 기독교문화권, 하나님 편 돌감람나무 밭을 잃어버렸던 것을 비로소 부모님을 중심한 통일교회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복귀하기 때문

에 여기에 접만 붙이면 전 세계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축복을 공개화하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체육대전이 그것입니다. 40일 수련을 받고, 참부모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참부모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새로운 씨를 전수받겠다는 서약을 하고 나서게 된다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0-107, 1990.12.01)

13 섭리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마당 체육대회는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청년문화 창건 운동으로, 하늘 편에 선 마음이 악마 편의 몸을 다스리는 통일적 심정권을 회복하여 흐트러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리는 젊은이들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나아가 하늘의 왕족으로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심판하는 정의의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원리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음란과 폭력의 물결을 청산하고 새롭고 거룩한 선의 혁명을 이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세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본연의 자녀·형제·부부·부모의 심정권을 회복하고 과거의 왕, 현재의 왕, 미래의 왕으로서 3대 왕권을 복귀한 참된 하늘의 왕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234-244, 1992.08.23)

14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세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종교세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선두에 서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인 아벨이 하나되고, 종교권에서도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해진 전부가 역사적인 어떤 세력권보다도 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개인으로는 묶을 수 없습니다. 가정으로 묶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만든 것이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입니다. 거기에는 2세들과 모든 분야의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과 2

세들은 종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인 아벨입니다.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인 입장입니다. 장자권 복귀를 할 때 차자와 장자를 뒤바꾸는 것이 축복입니다. 1992년 8월 25일 축복식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 앞에 참부모와 메시아 선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이 하나되고 종교권과 정치권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문화권 전체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혼란되어 있지만 통일교회의 새로운 통일문화권은 지금까지 세계를 향해서 개인으로부터 세계가 갈 수 있는 길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235-286, 1992.10.25) p. 1086

15 앞으로 세계에 남은 제일 무서운 전쟁이 인종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옐로 파워'라는 것을 압니까? 이것은 참부모가 나와서 아시아를 움직여 인종 전쟁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세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평화의 세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평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중심삼고 세계문화체육대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전이 올림픽대회를 능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은 몸을 중심삼은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체육대전은 세계에 문화를 심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의 중심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중심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중심삼고 정신을 강하게 해서 몸을 이끌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234-333, 1992.08.27)

16 주요 기념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단체를 불러서 대회를 해야 됩니다. 축하식 자체가 세계적인 연예단체들의 경연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연대회를 해서 최고를 뽑아야 합니다. 학술분야로부터 각 분야의 최고를 뽑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

상들을 참가시켜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계문화체육대전입니다. 문화올림픽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각 분야에서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시할 수 있도록 최정상급들을 세워 표창해야 됩니다. (310-248, 1999.06.30)

17 세계문화체육대전은 문화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인데 운동만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학술분야면 학술세계의 올림픽 챔피언, 물리학이면 물리학세계의 올림픽 챔피언, 문학이면 문학세계의 올림픽 챔피언, 수백 가지의 종목을 중심삼고 가려 나가야 됩니다. 아버님은 올림픽대회라든가 축구대회에 관심을 갖고 또 예술세계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는 정상의 자리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 세계문화체육대전을 종교인올림픽대회로 하려고 합니다. (383-020, 2002.06.24)

2절 축구단 창단과 운영

일화천마축구단 창단

참부모님께서는 1989년 3월 18일 축구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기치로 일화천마축구단을 창단하셨다. 일화천마축구단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프로축구대회에서 3연패를 기록했고, 1995년 아시아클럽컵 우승, 1996년 아시아슈퍼컵과 아프로·아시안클럽챔피언십에서 우승함으로써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1995년과 1996년 아시아 최고클럽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3연패에 이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다시 K리그 3연패를 기록하면서 축구 명문구단으로 자리 잡았다. (p. 1087)

1 우리 축구팀 이름이 일화입니다. 왜 일화라고 했느냐? 그 이름이 좋아서 내가 축구팀 명칭으로 정했습니다. 일화, 하나로 화한다,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화학(化學)할 때의 '화(化)'자는 그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변해서 다른 것이 될 때 화학작용이라고 합니다. 일화(一和)의 '화(和)'는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

만 가지의 소성과 개성이 있지만 화합하는 것입니다. (238-159, 1992.11.22)

2 일화천마팀을 만든 것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종교지도자가 외도 한 것입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 민족의 정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별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 그런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모델로서 첨단에 서야 됩니다. 축구가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만약 축구팀을 안 만들었으면 한국 축구가 형편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축구팀을 만들어 한국에서 3연속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는 아시아 챔피언, 아시아·아프리카 챔피언이 되어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남미에 가서 브라질 팀과도 경기를 하고 아르헨티나 팀과도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283-247, 1997.04.13.)

3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세계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기백을 자극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체육이 필요합니다. 체육은 단숨에 기백을 창출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체육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남보다 조금 더 잘해서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승리했을 때의 그 기백, 기분이라는 것은 겪어 보지 않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은 그런 면에서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문화올림픽대회나 종교단체를 중심한 체육대회 같은 것을 아버님이 지금까지 리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축구에 관심을 갖느냐? 축구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237-319, 1992.11.18) p. 1088

4 젊은 여자들도 축구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 대단한 흥미를 갖게 됩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의 축구장에 가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축구가 국민의 열기를 자극합니다. 그런 운동은 살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연합해서 충격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1년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비록 돈은 들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 도전하는 데 발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단체가 사회와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도피해 왔지만 통일교회는 사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체육을 중심삼고, 특히 이 축구를 중심삼고 사회에 도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237-320, 1992.11.18)

5 기상을 돋우는 데에는 운동밖에 없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한 골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10만 관중이 열광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레나 무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박수 치지 말라고 해도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누가 박수를 치라고 시킵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팀이 어느 팀이냐?'라고 할 때 '통일교회 팀이다.'고 하면 통일교회를 생각합니다. 또 '그 팀은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아버님이 한다고 하면 통일교회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순회하면서 언제든지 축구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시장철 같은 축구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기분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목적하는 세계로 대중을 움직여서 끌어갈 수 있는 기상을 언제든지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체육이요 예술이라고 봅니다. (237-326, 1992.11.18)

6 우리는 축구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축구계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술단체의 교육기관, 그다음에 운동계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철저한 사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도의적인 면에서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401-133, 2003.01.06)

세네 축구단과 소로카바 축구단

참부모님께서는 축구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운동경기로 보시고 2000년 4월 4일 축구 강국 브라질의 소로카바 축구단을 인수하셨다. 1991년 2월 21일 창단된 소로카바 축구단은 인수 이후 브라질 1부 리그로 승격하는 등 큰 성장을 이룩하였다. 세네 축구단은 1999년 12월 15일 브라질 자르딘에서 창단되었으며, 유소년 축구단도 운영하고 있다. (p. 1089)

7 브라질에서는 축구가 산업 기반과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은 축구에 대해 그 나라 전체가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남미 33개국 전체가 한 나라와 같은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한 나라를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프로축구단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것입니다. 또 내가 그때 축구팀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뒤에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외국 사람이 브라질에 들어와서 축구팀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일시에 붐을 일으키면 문제가 벌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계 특권의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것인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으로서 아버님만이 브라질에 축구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391-143, 2002.08.21)

8 내가 브라질에서 세네와 소로카바라는 축구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레버런 문이 갑자기 1년 동안에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축구 왕국입니다. 산업부흥이라든가 경제부흥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축구를 통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축구를 통한 수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팀을 인수하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축전까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354-122, 2001.09.19)

9 축구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중남미에 33개 나라가 있는데, 누가 그 나라들을 묶어서 한 나라로 만들겠느냐는 것입니다. 펠레를 중심삼고 할 수 있으면 펠레를 중심삼고 묶는 것입니다. 세계 육대주를 묶을 수 있는 제일 빠른 길, 세계를 대표해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올림픽이나 축구대회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내가 소로카바와 세네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동조해야 올라가지, 그러지 않으면 올라갔다가 걸려 버립니다. 그것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를 통해 남미를 하나로 묶어 세계 육대주의 한 주로서 미국보다도 먼저 하늘 앞에 바치면 미국을 앞서게 됩니다. 운동으로 연합된 연합국가를 하늘 앞에 바치면 그 운동선수들이 국강의 주류사상을 인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387-284, 2002.07.24) p. 1090

3절 선문피스컵과 원구피스컵

피스컵과 피스퀸컵

참부모님께서는 심정문화세계 구현을 위해 2002년 6월 서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선문피스컵축구대회를 창설하셨다. 피스컵은 선문평화축구재단이 개최하는 국제클럽축구대회이다. 2003년부터 2년 주기로 대회가 열렸으며 1회, 2회, 3회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제4회 대회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제5회 대회는 2012년 7월 한국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2006년부터 국제여자축구대회인 피스퀸컵도 2년 주기로 개최하였다. (p. 1090)

1 선문피스컵은 어디에서 왔느냐? 아버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섭리가 그렇기 때

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이익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같이 생각하면 이익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381-248, 2002.06.14)

2 아버님이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일화천마 팀을 만들고 브라질에서도 유명한 소로카바 팀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세계가 되면 운동이 문제가 됩니다. 운동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올림픽대회를 2003년에 할 것입니다. 한창 한일월드컵 축구 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인 6월 12일에 선문피스컵대륙연합협회라는 축구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축구 왕국이라고 하는 브라질에서 유명한 펠레를 데려와서 '피파(FIFA; 국제축구연맹)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384-030, 2002.07.01) p. 1090

3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야구라든가 하는 공을 중심삼고 하는 경기를 좋아합니다.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구대회가 올림픽보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등한 자리에 섰습니다. 대등한 자리, 평준화가 된 것입니다. 평준화된 이 세계를 중심삼고 남북미를 내가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미의 힘만 가지면 유럽은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평준화하기 위해 2003년에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것이 선문피스킹컵입니다. (411-305, 2003.07.13) p. 1091

4 앞으로는 운동과 예술로써 젊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그것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스컵 축구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할 것입니다. 클럽 대회이기에 국가대표를 초월하였습니다. 잘하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기반을 닦은 것은 놀라운 대사건입니다.

국가대표를 몇 개국에서 한 사람씩 뽑게 된다면 서로 경쟁해서 들여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432-223, 2004.01.23)

5 내가 피스컵, 피스킹겁 축구대회를 만들었습니다. FIFA에 피스킹겁 대회를 내가 창설하겠다고 하니까 FIFA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축구를 중심삼고도 여자 피스컵, 피스퀸컵 대회를 만들겠다고 하자 또 야단입니다. 내가 피스퀸컵 대회에서 '이 시간에 여자세계에서 평화의 기치를 든 축구단이 등장하니 앞으로 소망을 가져 보소! 피스퀸컵 대회를 출발합니다.'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539-201, 2006.09.20)

6 예술분야와 체육분야가 금후에 세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문화체육대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림픽이란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IOC가 반대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예술분야와 체육분야를 묶는 데 있어서 올림픽이라는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문피스컵 대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컵, 부모의 컵 천지부모의 컵입니다. 그 컵은 예술분야와 체육분야가 합쳐진 것입니다.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분야, 음악이나 무용 같은 분야의 세계 챔피언을 만드는 것입니다. (320-280, 2000.05.04)

가인아벨 원구피스컵

원구피스컵은 국경·인종·종교의 장벽을 넘어 인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의 한마당이다. 2009년 8월 15일 경기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동서남북 원구피스컵 가인아벨 천주연합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어서 2012년 3월 23일 '가인아벨 원구피스컵 천주연합대회'가 경기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원구(圓球)는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하·좌우·전후가 90각도로 완전히 하나되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원구피스컵은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되어 개최하는 평화의 제전을 뜻한다.

7 원구피스컵 대회는 올림픽대회보다도 위대합니다. 올림픽대회의 꽃인 마라톤은 그리스 병사가 페르시아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보고를 나라에 하기 위해 약 40킬로미터 달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경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중심삼고 나라에 바쳐질 수 있는 최후의 고개를 넘는 데에 공헌을 한 것이 올림픽 전통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구피스컵이란 것은 올림픽대회 이상의 행사로 출발한다는 것을 이미 아버님이 발표했습니다. (611-287, 2009.05.17)

8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원구'입니다. '원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둥글 원(圓)'은 네모(口)안에 각 사람(員)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개인 개성진리권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개성진리체가 '원'자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원구와 올림픽대회만 지배하게 되면 세상 모든 인간의 취미나 재미있는 일들은 이 권내에 다 포괄됩니다. '원(圓)'자가 그렇습니다. 개인(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 구(口)'자 두 개와 '조개 패(貝)'자입니다. '조개 패'는 눈(目)을 받드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님을 들어줘야 됩니다. 절대 가운데 유일·불변·영원이 받침을 하지 않으면 절대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부 이치에 맞는 말들입니다. 원구피스컵, 그 이름 자체를 볼 때 올림픽대회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구피스컵 가인아벨 천주연합대회는 판가리를 할 수 있는 표제입니다. (612-276, 2009.05.30)

9 부모를 중심삼고 부자관계뿐만 아니라 전후관계가 다 엮어질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 이것이 공식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구피스컵입니다. 피스컵이 혼자 될 수 없습니다. 둘이어야 됩니다. 원구도 피스컵이 아벨이니까 아벨 앞에 따라가려면 하나되어야 합니다. 육계만이 아니고 영계까지 하나되어야 합니다. 통일교

회가 영적인 사실을 확실히 모르면 원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아벨적 기준 앞에 영계가 가인의 자리에 내려와 아벨을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누가 해방시킵니까? 아벨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하나되니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 아벨을 백방으로 편성하면 일사천리로 세계는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613-326, 2009.07.12) p. 1093

10 평화의 왕과 여왕은 부모의 자리이고, 평화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의 자리입니다. 그 아래는 천만 가지의 갈래가 갈리더라도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착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그 씨는 어디에 가져다 심더라도 순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총론이 됩닏. 그렇기 때문에 원구피스컵입니다. 자녀를 대표해서는 가인 피스컵과 아벨 피스컵입니다. 왕과 여왕, 두 분이 하나되어서 화합 일체가 될 수 있는 가정 정착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씨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의 자리가 왕과 여왕의 자리이고, 가인 아벨의 자리는 아들과 딸의 자리입니다. 1대와 2대가 합해 정착하는 가정만 되었으면 거기에 정착한 것이 영원한 불씨가 됩니다. 이상가정이라고 하면 왕과 여왕, 그리고 아들딸로 이루어진 씨와 같은 기반인데, 그 기반 위에서 천 갈래 만 갈래의 개성진리체가 나옵니다. (614-316, 2009.08.15) p. 1093

4절 세계평화무도연합과 통일무도

무도의 중요성과 교육

참부모님께서는 1997년 3월 23일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원화도를 중심한 세계 무도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평화무도연합을 창설하셨다. 세계평화무도연합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기

반을 갖추고 평화의 사회·국가·세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2012년 2월 25일 한국으로 그 본부를 옮기고 출범식을 가졌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특히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데 무술이 기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p. 1093)

1 앞으로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될 때에는 운동과 예술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것을 소모할 길이 없습니다. 운동으로써만 이것을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가운데서도 무술을 해야 됩니다. 왜 무술이 필요하냐? 악마가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으니 이제는 하늘의 힘을 중심삼고 무술의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사상까지 일치된 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권위를 중심삼고 가정에서 자리 잡고 종족·민족·국가까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해 챔피언을 뽑는 대회를 해야 됩니다. 무술대회에서 초등학교 챔피언, 중고등학교 챔피언, 대학교 챔피언이 나오면 그 무술 챔피언은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챔피언이 된 사람은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나라를 중심삼고 대통령까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술을 중심삼고 악마에게 파괴되는 이 세계를 방어해야 됩니다. (384-280, 2002.07.06) p. 1094

2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체육입니다. 운동과 예술, 그다음에는 무술입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운동 종목도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기 몸과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비준을 맞추어 평면 일원화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기준에 올라가서는 도약해야 됩니다. 대번에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466-113, 2004.08.26)

3 아버님은 사상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세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재력(才力)이 있는 사람을 길러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가진 역사에 없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 갑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정도술이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그 무술에는 13미터 위에서 내리뛰는 동작도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3미터의 3배 이상인 40미터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자신과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면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키고 싶습니다. (065-305, 1973.03.04)

4 원화도를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세계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강력하게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화도는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화도는 앞으로 첫째 외적 체육의 무술적 기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분야에서 무술을 통함으로써 완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둘째는 내적 영적 가치의 부식화입니다. 인간세계에는 내 마음, 내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영계가 있습니다. 내적 영적 가치의 부식화는 뭐냐? 원화도를 통해 육체운동을 함으로써 그 시간 시간 배우는 모든 동작을 통해 원리의 깊은 곳을 점점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계통일입니다. 두 세계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두 세계는 영육세계를 말하는데, 원화도를 통해서 정신무장이 가능합니다.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정신무장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민주와 공산, 양 세계의 청년 무장을 착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무술을 하게 되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원화도를 배워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 하면

할수록 재미납니다.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 체육도 될 수 있고, 모든 운동의 근본 동작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와 공산, 양 세계의 청년 무장을 착지화할 수 있습니다. 옛날 화랑도와 마찬가지로 무술 자체를 배우는 것이 영적 교리를 통달하는 길이 됩니다. (181-320, 1988.10.03)

원화도와 통일무도

세계 무도 가운데 원화도는 참부모님께서 가르치신 수수법에 의한 원리와 원환(圓環)운동을 중심삼고 원리적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 체육으로서의 무술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원화도'는 여러 원(圓)의 어울림, 즉 원화(圓和)를 통해 사랑의 인격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무술이라고 밝히셨다. 그리고 원화도와 통일무도는 통일사상 평화사상을 기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5 원화도는 무술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 자체로써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무술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어를 위한 무술이 원화도입니다. 이것은 직선운동이 아닙니다. 직선운동에는 조화가 없습니다. 물팔매를 할 때 허리춤에서 돌멩이를 쥐고 이렇게 돌려서 휙 던지면 멀리 날아갑니다. 이 운동은 우주가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박자에 맞추어서 도수에 맞게 상대적 자리에서 하게 된다면 최고의 무술기준을 체득하여 무엇이든지 방어할 수 있는 승리자의 권한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599-167, 2008.10.17)

6 통일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백 퍼센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준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정도술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면 영계

에서 가르쳐 주고, 아버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이상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통일교회의 장점입니다. (083-194, 1976.02.08) p. 1096

7 우리가 대학을 만들고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화도를 가르쳐서 세계적인 무술권으로 발전시키게 될 때에는 이 원화도는 태권도나 정도술, 유도나 레슬링보다도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원화도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젊은이들을 중심삼고 건강이나 체육, 모든 운동문화를 수습해서 우리 원리 내용을 중심삼고 가르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마이너스는 완전한 플러스를 유발하고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합니다. 외적인 무술을 중심삼고 심신이 일치될 수 있는 이론적 체제를 갖추어 그것을 체육의 형태로 전개시키게 되면 그 체육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원리를 습득하게 됩니다. (181-317, 1988.10.03)

8 앞으로 2세들은 올림픽 사상의 전통을 이어받아 외적으로 건강하고 내적으로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애국·애세·애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도 통일적인 이론을 통해서 통일의 심정권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원리적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 무술 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화도를 시작하라고 120개국에 지시한 것입니다. 아버님도 다년간 자신의 체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원화운동을 합니다. 수수법적 원화운동, 원활히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81-312, 1988.10.03)

9 통일무도는 기존의 전체 무술을 합하여 특수한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지 한 분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사상 평화사상을 기본으로 한 무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운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야 됩니다. 예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계에 기반이 닦아지고 백그라운드가 생겨서 밀게 되면 즉각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계가 협조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세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493-045, 2005.04.18.)

제10편 환경창조와 해양·중남미섭리

차례

제1장 환경창조를 위한 경제활동

1절 환경창조를 위한 경제기반 조성 ····· 1100
2절 총생축헌납과 경제적 평준화 ····· 1104
3절 부산 범냇골 시절과 초창기의 경제활동 ····· 1114
4절 기업체 설립과 경제기반의 확대 ····· 1121
5절 과학기술평준화를 위한 노력 ····· 1127

제2장 해양섭리와 해양자원 개발

1절 한국을 중심한 해양섭리 ····· 1133
2절 미국을 중심한 해양섭리 ····· 1141
3절 낚시와 정성 ····· 1153
4절 해양자원 개발과 인류 식량문제 해결 ····· 1162
5절 해양지도자 양성과 세계낚시대회 ····· 1174
6절 신공법 선박건조와 조선사업 ····· 1181
7절 라스베이거스와 후버댐 섭리 ····· 1186

제3장 자르딘 선언과 참가정 이상공동체 교육

1절 판타날과 새소망농장 ····· 1190
2절 상파울루 선언과 자르딘 선언 ····· 1196
3절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와 40일 수련 ····· 1213

4절 남북미 통일운동의 과제와 실천 ····· 1217
5절 중남미를 중심한 이상공동체 실현 ····· 1224

제10편 환경창조와 해양·중남미섭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귀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재창조섭리이므로 사탄세계에 빼앗긴 환경을 복귀하는 섭리가 선행된다. 참부모님께서는 초창기부터 환경창조를 위하여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다. 특히 과학기술편준화 운동을 통해 세계적 현안인 선진국과 후진국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가진 기업체를 인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상하셨던 인류공동체 실현을 위해 일찍이 바다에 나가 온몸으로 파고를 넘으면서 해양비전을 제시하시며 많은 투자를 하셨다. 특히 한국의 여수와 거문도,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지를 해양섭리의 중심기지로 삼고 바다낚시를 통해 인재를 훈련시키면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밝히셨다. 우선 해양의 수산자원을 개발해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류와 크릴새우를 이용한 고단백의 식량인 어분을 생산하여 기아로 고통 받는 저개발국가들을 도우셨다. 동시에 해양 취미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라앉지 않는 배를 개발하였으며 세계낚시대회도 개최하셨다.

인류공동체 실현을 위해 섭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중남미이다. 참부모님께서는 개신교권의 북미와 천주교권인 중남미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평화세계 건설을 앞당기고자 하셨다. 이를 위해 세계의 모든 조직과 경제력을 동원해 중남미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셨다. 특히 우루과이에 호텔과 은행 등 많은 업체를 세우시고 남북민통일연합(CAUSA)과 중남미통일연합(AULA)을 설립해 남북미의 통일운동을 전개하시며 또한 중남미 지도자들을 교육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브라질 자르딘을 중심으로 새소망농장을 세우시고, 판타날과 푸에르토 레다 지역을 시범적으로 개척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셨다. 자르딘에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를 세우고 세계 축복가정 40일수련을 실시하시는 한편 레다 지역에 일본 출신 국

가메시아들을 파송해 이상촌 건설을 추진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남미에서 상파울루 선언, 자르딘 선언을 발표하는 등 복귀섭리의 종결을 위한 여러 의식을 진행하셨다. (p. 1099)

제1장 환경창조를 위한 경제활동

1절 환경창조를 위한 경제기반 조성

환경창조와 경제기반 조성의 비전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복귀섭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창조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기업을 설립하는 등 경제활동을 펼치셨다. 환경창조는 재창조역사를 위해 사탄세계로부터 하나님편으로 물질을 되찾고 하나님나라 창건을 위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 인류가 골고루 물질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이익을 떠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의 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셨다. (p. 1100)

1 하나님이 재창조역사를 해 가는 데에는 환경창조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물질,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원자재가 없습니다. 사탄 편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재창조해야 됩니다. 원자재가 사탄에게 다 갔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탄 편에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전걸식을 하면서라도 다 찾아와야 됩니다. 종의 종의 길, 종의 길, 양자의 길, 서자의 길을 거쳐 복귀의 길을 가야 됩니다. (220-359, 1991.10.20)

2 이 땅 위에 참부모의 전통, 왕권의 전통을 세우는 일을 하늘이 해왔습니다. 하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려 주기 위해 왔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의 한의 고개가 남아 있는 이 모든 마을을 찾아가 여러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원자재를 구하기 위해 3년 반 동안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바친다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자기

를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보태서 하늘 앞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거지굴에서부터 장관 집, 대통령 집 문전에까지 가서 박대를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잃어버렸던 재창조의 원자재를 하늘 앞에 맡기고, 이것으로 다시 지음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세워 탕감함으로써 바꿔치는 것입니다. (220-360, 1991.10.20)

3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죽겠다고 해야 됩니다. 죽음의 고개에 이를 때까지 다 투입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투입하지 못하면 생명의 인연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환경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에는 태양빛, 물, 공기, 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님 대신 가게 되면 그런 환경적 여건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투입하여 대상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데에 있으면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고달프면서도 자기가 고달픔을 잊어버리면 무한한 성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재창조 공식입니다. 무한히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려야지 내가 얼마만큼 투입했다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고 그 무엇도 없으니 사랑의 눈물, 생명의 눈물, 혈통의 눈물, 양심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정해 줍니다. 내가 절대 마이너스가 되었으니 절대 플러스인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서 이용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버님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부흥해서 같이 살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모았더라도 사탄 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87-272, 1997.10.05)

4 여러분이 커지려면 자기 자체를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

이고, 모든 현상세계의 발전 원칙입니다. 확장하고 발전하려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순수한 투입은 순수한 발전과 순수한 확대가 가능합니다. 함부로 투입하면 함부로 된 결과가 나오고, 심각하고 순수하게 투입하면 심각하고도 순수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참되게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되게 희생하는 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희생은 자기 자신을 투입 투자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희생하라는 말은 투자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9-060, 1983.10.01)

5 원리는 아주 방대합니다. 원리를 두고 보면 세상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 만유의 백과사전과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륜의 근본적인 것을 중심삼았기 때문에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들어맞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현대철학이나 심리학에도 들어맞습니다. 또한 물질 세계의 원칙에도 전부 들어맞습니다. 기업을 발전시키려면 경영과 시설과 기술의 3대 요소가 하나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전부 이렇게 3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026-193, 1969.10.25) p. 1102

6 앞으로 세계경제권을 누가 쥐느냐? 그것은 생산국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석유를 중심삼고 세계의 판세를 보면 석유 생산국이 완전히 목을 잡아끌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소모국, 판매시장국도 세계 경제권을 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들이 공동체제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불원한 장래에 온다는 것입니다. 원료를 세계적으로 공동관리하게 되면 생산도 공동관리해야 되고 판매도 공동관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전 세계인들 앞에 어떻게 공통적으로 보급해 주는 조직 기반을 갖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경제를 좌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080-174, 1975.10.22)

7 지금까지는 선진국가, 생산하는 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이 문제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의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원자재 공급이 문제가 됩니다. 생산국이 전권을 쥐고 움직이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원자재가 결부되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중심삼은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가 원자재, 그리고 공급시장의 3대 원칙으로 볼 때 앞으로 경제의 권한을 어떤 나라가 쥐느냐? 생산국도 아니요 원자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장을 장악하는 나라가 경제권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207-062, 1990.11.01)

8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입장에 있으면 세계경제권을 누가 쥐느냐? 생산국도 아니요 소비국도 아니요 원산지국도 아닙니다. 판매조직을 세계화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상적인 단체나 국가, 종교가 세계경제권을 쥘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그러한 조직이 낭오면 이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은 불변의 이념운동을 통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상적인 단체요 민족이 될 것입니다. (090-279, 1977.01.04)

9 국제과학통일회의를 개최해서 세계과학자협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경제인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까지 새로운 이상세계, 이상적인 경제세계를 꿈꾸어 오던 한 경제학자를 만나서 앞으로의 세계경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의 골자는 인권문제와 사상문제, 즉 사람 문제와 사상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면 서로 자기 나라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권력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중심한 입장을 어떻게 초월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055-268, 1972.05.09) p. 1103

참부모님의 경제관

참부모님께서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셨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물질의 진정한 소유주가 되고, 특정 국가가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독점해서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면 안 된다고 예견하고 경제적 평준화를 주창하셨다. 이런 경제관에 기초해 하나님을 중심한 공생·공영·공의의 인류공동체 비전을 제시하신 것이다.

10 아버님이 사업을 해서 벌려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멘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닦은 경제적 기반을 중심삼고 세계 만민 해방을 위해 모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준화입니다. 선진국이 약소국을 자기 나라 아래에 갖다 붙이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갖다 붙여야 됩니다. 평접(平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진국가 사람들은 아버님을 선진국가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고 낙인찍어서 반대합니다. 아버님은 세계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대등한 자리에 세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아프리카를 착취해서 만년 종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정책을 펴 왔고, 또한 미국도 남미를 예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써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타파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25-291, 1992.01.26)

11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하늘에 바치고 기도하고 정성들인 것은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지 통일교회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식구들은 전부 '아버님은 사업을 한다고 괜히 통일산업을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킨다.'고 했지만 그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나라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공의 기술력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목적이 나라와 관계를 맺어서 앞날에 그 이상 발전할 수 있는 항공, 우주공학 등 과학기술세계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311-217, 1999.09.10)

12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입니다. 모든 물질은 자식들에게 주시려는 선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되어 직접 상속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나는 물질을 사탄의 것이라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선한 목적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091-113, 1977.02.03)

13 우리는 여러 기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더 확장될 것이며 조직도 커 갈 것입니다. 나는 여러 곳에 이상적인 도시와 마을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여 생산하고 일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외부세계와는 다를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업체들을 세움으로써 통일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함께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091-135, 1977.02.03)

14 너나 할 것 없이 과거·현재·미래를 중심삼고 인간 군상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대체로 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역사노정에서는 경제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돈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문제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항상 경제가 문제 되어 왔습니다. 경제문제를 논하게 될 때 그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넓혀서 국가적인 경제문제, 세계적인 경제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126-076, 1983.04.12)

2절 총생축헌납과 경제적 평준화

총생축헌납과 소유권전환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관에서 사탄의 주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의 결과 하나님 중심의 심정권과 혈통권, 소유권이 사탄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귀섭리를 통해 이를 되돌리는 역사를 해오셨다. 특히 모든 섭리를 종결하기 위해 오신 참부모님께서 총생축헌납을 조건으로 사탄 주관권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 주관권으로 돌려놓고자 하셨다. 총생축헌납이란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재물 중 일정액을 하늘 앞에 바치는 조건을 세우는 것으로,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절대신앙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셨다. (p. 1105)

1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와 사탄의 소유로 갈라졌습니다. 비통한 사실입니다. 사탄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물건, 신약시대의 자녀, 성약시대의 부모가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물건 제물시대, 신약시대는 아들 제물시대, 성약시대는 부모 제물시대였습니다. 둘로 가른 것을 전부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유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물건은 구약시대, 아들은 신약시대, 부부는 성약시대인데 이 전체가 하늘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생축헌납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소유

권을 부정하고 하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전체를 하나님 편에 바침으로써 천주의 모든 것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완성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와 사탄의 소유에 대한 모든 경계선을 분별하는 것이 총생축헌납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생축헌납을 통해 소유권을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부부로 돌리게 될 때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 가정의 출발기준에 설 수 있습니다. (315-198, 2000.02.01)

2 총생축헌납은 사망권을 제거하고 생명권에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총생축헌납제의 '제'라는 것은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생축헌납 물체는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체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살았던 에덴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망의 권내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거꾸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소유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까지도 없애야 됩니다. 자기 나라까지도 없애야 됩니다. 몽땅 하나님께 드려야 몽땅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상속할 수 있는 상대권이 없기 때문에 참부모 앞에 그것을 상대적 조건물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물건을 가정에 접붙이고 종족·민족·국가·세계 전체에 연결해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물시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총생축헌납입니다. (325-050, 2000.06.29)

3 우주를 축소시킨 자기 소유권을 산 그 자체로서 참부모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납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딸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절대부정권을 넘어서기 위한 것입니다. 탕감의 역사시대에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반

으로 가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계와 육계, 지옥과 천상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생사지권에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이 총생축헌납입니다. 살아 있는 것으로 제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살아 있고 신약시대도 살아 있고 성약시대도 살아 있습니다. 전부가 살아 있는 것으로 총생축헌납을 하는 것입니다. (325-050, 2000.06.29)

4 사랑의 인연을 맺어야 소유권이 벌어집니다. 타락한 권내의 소유권은 사탄을 중심한 소유권입니다. 하나님과 참사랑을 중심한 사랑의 주인이 된 다음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소유권 전체를 청산하기 위해 총생축헌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신앙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절대신앙은 1대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것은 영원을 중심삼고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주인이 되어야 영계와 육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인연을 맺지 못하고 핏줄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영계와 육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320-115, 2000.03.31)

5 지금까지는 하늘이 복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소유한 것을 갈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총생축헌납제입니다. 헌납제의 '제'라는 것은 헌납 재산을 말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소유권을 만들기 위한 조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탄과 하나님 것으로 나누게 돼 있지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아담의 소유가 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생축헌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몽땅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일을 했

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체를 나라의 소유로 등록시켜야 되는데, 나라가 없으니 교회의 소유로 전부 등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래도 나라의 소유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아담 해와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국가기준에서 전체를 생축헌납해야 국가 위의 하늘이 자유활동할 수 있는 지상천국 이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326-139, 2000.07.06) p. 1107

6 사탄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섞여 있으니 그것을 갈라야 됩니다. 완전부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던 습관 혹은 전통에 젖어 있게 되면 그것이 담이 되어 막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역사를 대표해서 총생축헌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랐던 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묶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하늘땅을 묶는 것입니다. (328-222, 2000.08.04)

7 총생축헌납제의 제물은 소유권을 분별하는 조건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이전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 갔습니다. 그렇게 훔쳐 간 것을 하루빨리 하나님 편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돌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창고에 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도 일생 동안 내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아버님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소유권을 가지면 위법자입니다. (331-241, 2000.09.03)

8 통일교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나라에 기부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총생축헌납물입니다. 교

회 이름으로 해놓고 그 교회에 가서 먹고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교회에 있는 재산을 먹고살았다는 것이 됩니다. 개인 재산시대는 지나가고 공동 재산시대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상속세가 없어집니다. 상속세 부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세상에서 나라를 속이고 대중을 속여 모아 놓았던 돈을 한 푼도 그들 후손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 재산은 교회로 가고, 교회 재산은 나라 재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천일국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365-020, 2002.01.04) p. 1108

9 만물시대 구약시대, 자녀시대 신약시대, 부모시대 성약시대, 세 제물을 중심삼고 자기 가정과 아들딸과 만물과 더불어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총생축헌납물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정이 규합해서 만물과 자식, 자기 가정을 하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부모의 사랑 외에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주가 생겨났기 때문에 총정리해 묶어 바쳐야 됩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늘의 소유권으로 결정지어 놓아야 됩니다. 하늘 앞에 바친 모든 성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의 소유로서 다시 이어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08-269, 2003.06.16)

10 하나님은 아들딸을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계는 언제든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 주면서 좋아하고 더 주고 싶어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세계의 무한한 복을 받아 무한히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세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일하면서 지갑에 돈이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사먹고 아들딸에게 좋은 것을 사 주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뜻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뜻을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 그 돈을 쓰게 되면 돈이 운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써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살을 깎아 버리고 뼈를 깎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공금 약취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총생축헌납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소유권을 만들어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345-082, 2001.05.29)

11 소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혈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결정됩니다. 그래야 상속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속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가 재산을 만들어 앞으로 주님이 오게 되면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계를 몽땅 통째로 바치게 했다가 그다음에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의 소유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재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앞으로 통일교회의 시대가 되면 세계의 재벌들을 만나 내 강의를 서너 시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라고 물으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전부 돌려드리겠습니까, 안 돌려드리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안 돌려드렸다가는 벼락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계가 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먹고 잘살라고 줄을 늦추어 주는 것입니다. 줄을 두레박 줄같이 늘어뜨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둘렁둘렁' 돌아다니게 놓아두지만 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서 주워 먹고

좋아하고들 있지만 나중에 잡아챌 때에는 다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143-112, 1986.03.16) p. 1109

12 부모님이 지금까지 희생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물질은 구약시대이고 아들딸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니 희생해야 됩니다. 부부들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생·장성·완성을 넘어서 사랑의 이상권에 일체화, 천상·지상의 일체화권을 갖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분담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원리가 가르쳐 준 기준대로입니다. 나는 세계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받은 그 재물을 재분배해야 지상천국이 현현하는 것입니다. (213-143, 1991.0.16)

13 이제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주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의 주인이 되려면 자체의 것을 전부 하늘 앞에 바치고 다시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소유권을 유지해서는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못 선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축복받은 후에 소유가 결정되게 되어 있지 소유권을 받고 나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후**에 자기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분깃으로서 하늘로부터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이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양받기 전에 축복받고 나서 축복받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찾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우리 소유권이 된 것을 하늘 것으로 반환하고 나서 다시 분배받아야 됩니다. 반환은 참부모가 합니다. 거짓 부모가 전부 뒤집어 놓았으니 참부모가 반환하

고 나서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을 축복해 준 기반 위에 전 세계의 소유권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재분배입니다. 그때부터 소유권 설정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원리관입니다. (475-182, 2004.11.10) p. 1110

경제적 평준화와 하나님나라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을 이루어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많은 기업을 세우고 해양개발을 통해 기아로 죽어 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경제평준화와 기술평준화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잘살 수 있는 환경창조를 위해 진력하셨다. 특히 부자는 자신이 취득한 부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고 부자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 부의 평준화를 이룩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이렇듯 참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생공영공의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사회정의라고 보시고 한평생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셨다.

14 사람은 자기보다도 낮고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충신이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잣집 아들로서 잘 먹고 잘살면서 성인이나 충신이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나 사회, 가정이 혼란의 와중에 휘몰리어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암담한 혼돈시대에 처해 있더라도 그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알고 그러한 부모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누

구보다도 나라와 부모를 사랑하면서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동지를 규합해서 더 나은 길을 닦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난 자리에서부터 출발했고, 부모를 사랑하고 난 자리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스승을 사랑하고 난 자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횡적으로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는 발전해 나왔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부자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 모르고 돈을 더 모으는 데만 애쓴다면 그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큰 고마움을 느끼며 남을 도와주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됐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혼자만 욕심을 내다가는 결국 자기가 파 놓은 구덩이에 떨어져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033-286, 1970.08.21) p. 1111

15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의 돈을 내가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빚을 지고 있어도 나라가 도와주겠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국가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재산을 하늘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재산 위에 국가 재산이 붙기 때문에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딛고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나라가 됩니다. 하늘땅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세계를 바쳐야 됩니다.

16 하나의 세계가 되면 자기들만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살게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준화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자들은 수입의

70퍼센트, 못 사는 사람은 3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 불평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십일조를 받아 발전해 나왔는데 다음에는 10의 3조를 해야 됩니다.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아프리카의 미개지에 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추첨제로 하는 것입니다. 추첨제로 해야 불평을 안 합니다. (378-108, 2002.05.06)

17 지상의 제1대조가 완성한 아담입니다. 참부모입니다. 참부모의 혈통을 받아 이제부터 입적하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총생축헌납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몽땅 내 사랑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물을 갈랐는데 이제는 가르지 않습니다. 총생축헌납물입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3을 바침으로써 교회를 넘어서고 나라를 넘어서고 세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1조는 나라를 위해서, 1조는 세계를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세계 판도까지 해방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기 모든 수입의 30퍼센트를 일생동안 천국에 들어가 해방받을 때까지 바쳐야 됩니다. 이 10의 3조를 바침으로써 10분의 3이 하늘권에 완전히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소생 위에 장성이 있고 장성 위에 완성이 있기 때문에 완성기준을 해결지음으로써 전체를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353-204, 2001.09.07) p. 1112

18 동서 문화의 격차와 남북 빈부의 격차가 금세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버님이 가르쳐 주는 '위하는 주의'입니다. 자기를 위하라는 주의는 타락한 세계요, 남을 위하라는 주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의 부자들은 남에 있는 동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그들을 잘살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상 잘살게 해주고 나서 자기 동생에게 투입한 것과 같이 자기 아들딸에게 또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영원한 이상이 깃들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만세의 주체국으로서 영원히 계속할 줄 알지만 하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양문명이 선도적 입장에 섰지만 미개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양문명 최고의 기준을 투입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끝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에 투입해야 되고 세계에 투입해야 되고 하늘에 투입해야 됩니다. 내가 투입할 수 있게끔 내 기력이 남아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 있는 여력을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최하의 자리에서 투입하게 될 때 그의 후손 가운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부(富)의 상속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79-171, 1988.08.01)

19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지 못한 사람은 천상세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집보다도 나라 집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나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갖고 싶어하십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나라가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원하는 것도 탕감복귀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인간이 모르는 가운데 진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마음대로 보따리를 싸서 다니다가는 그것을 간수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로 전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에덴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기 때문에 맨 나중에는 자기 물건이 없이 다 벌거벗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빨리 청산지어서 하늘의 보화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143-196, 1986.03.18)

20 아벨유엔이 자리를 잡게 되면 자기 부동산이나 동산 할 것 없이 전부 같은 은행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정한 은행에 등록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의 몇 퍼센트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형제들에게 분배해 줘서 살려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도적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나눠 주지 않으면 조상들이 평준화가 안 됩니다. 갈 길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을 터놓아야 됩니다. 지상에서 터놓아야 영계에서도 사방으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방·석방입니다. 지상에서는 해방됐지만 천상에서는 석방이 안 돼 있습니다. 하늘이 석방되어 해방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되면 인간들이 전부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51-036, 2007.01.03)

21 여러분이 시집 장가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분깃을 정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도적 물건이 됩니다. 그것은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이자까지 첨부해서 몽땅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깃을 나누어 가지게 될 때 평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허락 밑에서 분깃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분깃을 갖지 않는다면 그 일족이 영계에서 걸리게 됩니다. 나라가 걸려듭니다. (482-031, 2005.01.07)

22 앞으로 하나의 세계가 될 때에는 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조국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조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잘살던 나라 사람은 고비사막 같은 데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을 평원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본국에 있는 땅과 재산을 팔아 평준화시켜야 됩니다. 한자리에서 나서 죽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네 나라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대와 40대, 60대, 80대에 한 나라씩 거치는 것입니다. 네 나라를 거쳐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때에는 자기 족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 단위로 하늘을 모시고 3대권이 조직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542-242, 2006.10.19)

3절 부산 범냇골 시절과 초창기의 경제활동

초상화와 우표수집 · 판매

참아버님께서 남하하여 피란생활을 하시던 부산 범일동 토담집 시절에는 김원필씨가 미군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 활동비를 마련하고 어려운 식구들을 도왔다. 그리고 협회창립 초기에는 일반 식구들이 소인(消印)된 우표를 수집해 판매하고 브로마이드 흑백사진을 컬러화해 거리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전도활동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였다. (p. 1114)

1 아버님이 부산 범일동에서 살던 때 미군부대 병사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때 천 한 장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그냥 천으로는 안 됩니다. 그림 그리는 천에 바르는 풀이 있는데 이 풀을 끓여서 천에다 완전히 발라서 말리면 천이 팽팽해집니다. 천이 팽팽해져서 그 천 구멍이 다 막혀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장을 그려 주고 4달러를 받았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1년 반이라든가 2년 반 정도 있다가 귀환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가져갈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초상화를 선물한다고 사진을 가져와 그려 달라고 해서 그려 줬던 것입니다. (127-170, 1983.05.07)

2 초상화를 어떻게 빨리 그리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진을 한두 장 가져왔지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20장, 30장까지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 부대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려 줘야 합니다. 어떤 날에는 30장까지 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미리 틀 안에 줄을 전부 쳐 놓는 것입니다. 김원필은 4B 연필을 가지고 틀에 들어 있는 수와 똑같은 크기의 금을 그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을 그어 놓으면 사람의 형을 잡을 때 그 금을 따라서 그

리면 됩니다. 그러면 몇 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술을 그려 놓으면 빨간 칠은 내가 하고, 머리도 그려 놓으면 머리 색칠도 내가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것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못 그려도 하다 보면 다 배우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뒷전에서 훈수한던 입장이었지만 하나하나 배워서 나중에는 머리 형태만 잡아 주면 옷 같은 것은 전부 내가 그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달러 가까운 큰돈을 벌었습니다. (127-171, 1983.05.07) p. 1115

3 부산 범냇골에서 피란살이를 하면서 김원필이 미군 병사들에게 초상화를 그려 주었는데 하루저녁에 30장까지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리려면 미리 내가 준비해 줘야 하는데 밤을 새워 가면서 준비해 줬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전도 경비를 하고 개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같은 얘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와 세계, 후대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097-222, 1978.03.15)

4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우표수집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낱 작은 우표 한 장을 떼더라도 그것은 불과 몇 푼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장의 우표를 떼는 사실은 숭고한 노력, 숭고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표수집으로 상을 탄 사람들을 보면 대개 젊은 사람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한때 통일교회 교인은 누구든지 한 달에 세 번씩은 식구끼리 편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할 때 40원짜리 우표를 붙이지 않고 1원짜리 우표를 붙인다면 사업부에 배로 후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휴지로 돌아갈 우표를 사용한 것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

니다. 우리 움직임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통일신도에게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150-105, 1960.02.02)

5 지금까지 우표수집을 통해 전도하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모아 준 우표로 말미암아 작년에 얻어진 금액이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100만 장, 200만 장을 표준으로 해서 우표수집을 하자고 말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표를 수집해서 물론 이익을 거두는 일면도 있겠지만, 이런 행사로 말미암아 서로서로가 한 공동목표를 놓고 정신통일을 이루고 같은 생활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0-105, 1960.02.02)

예화산탄공기총 제작과 통일산업

참부모님께서 세계적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예화산탄공기총 공장 설립과 경영이었다. 협회가 창립된 이후 1959년 5월 20일 예화산탄공기총 제작소 인가를 받고 인천에 공장을 세우셨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일산업을 설립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한국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기계공업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통일산업을 설립하여 기계공업의 세계적 기술들을 축적하신 것이다. 통일산업에 들인 정성은 통일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와 세계를 위한 것이었다. 소규모로 시작한 통일산업의 우수한 기계공업 기술은 자동차와 군수산업을 비롯한 한국의 기간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p. 1116)

6 우리는 교회활동을 하느니만큼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애용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요점에 제일 적중한 것은 산탄공기총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국에서 앞으로의 실적을 봐도 그렇고, 우리만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발전시키면 반드시 한때 히트를 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특허를 내서 물건을 만들게 되었지만,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에는 대번에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도 이 공업계통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발전단계를 거쳐 가는지 압니다. 새로 발명한 제품을 만들어서 당년에 그것을 성공시키기란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연륜이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인천에다 공장을 만들었지만 그때에는 공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수 한 명이 있었고 공작기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 몇 개와 톱, 대패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산탄공기총 공장의 기원입니다. (158-191, 1967.12.27)

7 맨 처음 산탄공기총을 만들 때 재료로 황동 파이프를 사용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사다가 하자고 해서 그때 스테인리스 총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30정 정도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탄공기총을 팔긴 팔지만 계속하려니 그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동안은 언제나 투자만 했습니다. 7년을 지내고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이것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잘못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전문적으로 완전히 파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대량생산을 했다가 틀어져 나가면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7년 정도 걸린 것입니다. 이제는 대량생산을 해도 틀림없다는 자신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역사를 거쳐서 총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8-192, 1967.12.27) p. 1117

8 산탄공기총을 처음 제작할 때에는 협회에 있는 간부들이나 식구들까지도 쑥덕공론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의 심정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이것을 책임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두 번까지 인천 공장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가니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기업화되어 한국에서 특허제품 생산에 성공한 회사로서 첫째 아니면 둘째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총을 팔고 있지만 이 총이 참 재치 있는 물건입니다. 한국은 반공국가이니만큼 시대 풍토에 알맞은 것입니다. (158-192, 1967.12.27)

9 기반이 닦아져 있는 기업체는 기술자와 자금이 있고 또한 경영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렵게 경쟁하면서 회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자금도, 기술자도, 경영 경력도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한국 산업계의 한 분야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허품을 만들기 위해 손댄 것이 산탄공기총입니다. 영적으로는 그것을 알았지만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옛날 공기총은 만든 지 오래되었지만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팔아도 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탄공기총은 앞으로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사용해 본 사람들은 산탄공기총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026-085, 1969.10.18)

10 이제 정상적인 코스에 올라가서 앞으로 2년만 공기총과 사격용 총을 만들게 될 때에는 외국으로 시작을 확대해서 수출할 것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세계시장 사정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을 최소한 150만 정, 많게는 250만 정이나 300만 정으로 봅니다. 우리가 외부의 경제적인 원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완전히 복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157-228, 1967.04.02) p. 1118

11 공장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계획을 세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조직입니다. 공정과정입니다. 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순번을 잘 짜야 됩니다. 조직을 잘 짜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완벽한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기술자입니다. 이것이 3요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어느 공장에도 뒤지지 않는 공정을 갖춰야만 됩니다. 계획관리, 조직, 기술인력이 완전히 일치돼야 한 가지 제품의 생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공장이 많아서 경쟁사업이 될 때에는 서로가 싸게 만들려고 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설과 기술을 잘 갖추고 경영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158-078, 1967.12.26)

12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며 정성들이고 온유겸손하고 형제 앞에 우애하고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누가 반대하더라도 선으로써 대하면 백 퍼센트 굴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아버님은 모든 일에 아벨적인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활철학입니다. 더 큰 공적인 것 앞에 설 때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상적인 면에서 아버님은 영계에서도 투쟁했고 지상에서도 투쟁했습니다. 상업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정성들인 면이 커야 합니다. 공장의 기반을 갖출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늘 앞에 돈을 벌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017-304, 1967.03.04)

13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외국에 충분히 원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에 충분히 원조를 할 때까지 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공장들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반대를 받아 왔지만 그런 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선, 제2선으로 나누어서 자력적인 기반을 다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심정을 배웠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제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경영하려는 것입니다. (019-065, 1967.12.24) p. 1118

14 청파동에 통일산업을 만들 때 적산가옥에서 시작했습니다. 집 뒤에 연탄을 쌓아 놓던 반 평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반이 없으니 일본 사람들이 쓰다가 만 헌 선박을 화폐 개혁 전에 72만 원을 주고 사 왔습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7천 대, 7만 대 기계로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군수산업이라든가 자동차공업에까지 꼬리를 물고 발전시킬 것이다 믿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라면 그것을 믿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낮도깨비같이 그런 말을 한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179-188, 1988.08.12) p. 1119

15 한국의 자동차공업 시작 당시 통일산업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내가 기술세계의 전권을 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이 산업부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 생각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산업에서 특제품을 만드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해져 봤자 별것 없습니다. 특허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개발을 해서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번에 기계 공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탄 공기총을 만든 것입니다. 산탄공기총을 개발하는 데에 아버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87-159, 1997.10.30)

16 일본에서 기계 전시회를 할 때 통일산업에서 개발한 시스템 기계라인을 갖다가 전시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컴퓨터칩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화낙(FANUC)이 제일인 줄 알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와서 보고는 놀랐습니다. 통일산업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에 우리가 4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대 공장의 선반 같은 것은 제일입니다. 세계에서 몇 만 톤급 배, 전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것의 스크루 축만 해도 50미터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공장에서나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자동차공업이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에 통일산업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90-242, 1989.06.19)

17 우리는 전문 기계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계공업을 위한 좋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지에 있는 공장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왜 제일 힘든 기계공업을 해야 되느냐? 빨리 세계적인 자리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때에는 세계 모든 분야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랜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해내자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산업은 모든 기계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122-201, 1982.11.11) p. 1120

18 수택리에 통일산업을 만들고 나서 내가 망우리고개를 넘어 하루에 세 번씩 간 날이 많습니다. 두 번 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한 번은 가게 마련입니다. 왜 그랬느냐? 세계의 공업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피눈물을 짜서 들인 그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영계에 간 모든 공업인들이 그 정성에 감동을 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성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늘의 소유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내가 청평에도 될 수 있으면 매일같이 다닙니다.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에서든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혼자 수십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참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33-161, 1984.07.10)

19 통일산업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님은 바쁘신데 무엇 하러 매일 같이 공장에 나오시나?'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본 것과 오늘 아침에 보는 것이 별 차이가 없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발전한 것이 있으면 그 차이가 감흥을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기계를 만들더라도 어제보다 얼마나 잘됐나 봐서 조금이라도 발전한 것이 있으면 신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슨 우리 깃대를 꽂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어떠한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까지는 아버님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계획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잘리든지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지 해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길이 열리거나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지금 모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016-318, 1966.07.31)

20 내가 공장을 대해서 정성들인 것이 수택리 공장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운명과 세계적 운세를 연결해서 기도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하나의 중요한 산업품목으로 등장하여 국가와 계약해서 생산 과

정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님의 책임은 끝납니다. 한국의 어떠한 산업체보다도 중요한 산업체로 만드는 것이 아버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급진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033-161, 1970.08.11) p. 1121

21 나는 이 나라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 일족을 투입하고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빚을 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독일의 과학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별의별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첨단과학기술을 통일산업에 연결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미래에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갖 풍상을 겪어 왔습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지금 한국의 자동차공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통일산업을 중심한 레버런 몬의 공이 크다.' 고 했습니다. (169-092, 1987.10.25)

4절 기업체 설립과 경제기반의 확대

일화(一和)

참부모님께서는 환경창조를 위한 경제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외에 수많은 기업체를 세우셨다. 그중의 하나가 1971년 12월에 설립한 ㈜일화이다. 일화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한국의 특산품인 인삼 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1973년 8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사옥을 준공하면서 '성심성의(誠心誠意)'라는 휘호를 내리셨다. 일화는 식품부문에 '맥콜'과 '초정리광천수', 인삼부문에 '인삼차'와 '진생엽', '삼정톤', 제약부문에 '우황청심원'등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p. 1121)

1 국내외에 없는 인삼제품 공장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도 됩니다. 일화라는 기치 밑에서 새로운 인삼제품 분야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통일산업이 수택리에서 다년간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일화제약은 통일산업보

다도 차원 높은 입장에서 새로이 세계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물건을 세계시장에 판매하느냐가 문제인데, 외국 식구 전체가 힘을 합하여 판매에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금후 통일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경제문제 해결의 밑받침이 되기를 바라서 여기에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068-232, 1973.08.03)

2 인삼은 한국의 특산물입니다. 인간을 중심삼고 만물을 보면 제일 비싼 물건이 인삼입니다. 그래서 인삼은 식물계의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사상과 상대적 관계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민족의 특산물이요 자랑인 인삼에 대해 우리가 보답을 하고 있느냐 할 때 보답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늘이 인삼을 주었으면 한국 백성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인류가 찬양할 수 있는 본산지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은 인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가치를 한국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인 서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서로가 귀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068-237, 1973.08.03)

3 아무리 공장이 좋고 아무리 기자재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훌륭한 이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 되는 사람이 훌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혼자만이 아닙니다. 일화그룹 전체가 합해서 하나의 체제를 이루어 여기에서 각자가 높이 올라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각자가 대표적인 입장에서 끌어올리는 입장이 되면 왼손, 오른손도 올라가게 되고 머리도 올라가게 되고 몸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화는 자연적으로 국가 앞에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아시아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화그룹 요원들은 맥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맥은 혼은 말합니다. 천운을 움직

일 수 있는 주류를 말합니다. (178-267, 1988.06.08)

4 맥콜은 건강음료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맥콜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 맥콜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반을 닦으면 틀림없이 백발백중 그냥 그대로 인류에게 맥콜을 먹게 할 수 있고 일화제품을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가치가 잠자고 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막대한 경제적 기운이 잠자고 있는 것을 깨워서 만민 해방의 음료수로서 등극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21-022, 1991.10.20)

세일여행사와 용평리조트

참부모님께서 1985년 1월 국내외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세일(世一)여행사를 설립하셨다. 특히 인류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찾아온 섭리역사인데 서로 다른 문화권과 교류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문화권을 **창**조하는 사명을 다할 것을 세일여행사에 당부하셨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장과 3개의 골프장을 갖춘 사계절 종합휴양시설 용평리조트를 2003년 3월에 인수하고 국민의 건강한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우시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다. 특히 장차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평창을 2018동계올림픽의 개최지로 선정하여 참부모님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예비하신 용평리조트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의 주무대가 되었다. 아울러 참부모님께서는 용평과 여수·순천을 묶어 세계적 관광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셨다. 그 뜻을 받들어 현재 용평리조트와 여수디오션리조트는 취미산업의 두 기둥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적인 유통·판매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고세이(幸世)물산, 세일로, 해피마인드 등의 회사를 설립하셨다. (p. 1123)

5 앞으로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좋은 때가 옵니다. 레저산업시대, 3차산업시대가 옵니다. 레저산업,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금강산보다 부산이나 제주도를 먼저 거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할 때

부산과 제주도, 백두산을 거치게 한다면 중간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호텔이나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일여행사는 중요한 거점지역에 지점을 만들어 다른 관광회사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225-176, 1992.01.20)

6 세일여행사가 일등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초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떤 관광회사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일등 관광회사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천운은 강력한 상대가 있으면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결속하면 결속할수록 거기에 비례되는 우주력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주력이 보호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넘고 아시아를 넘고 세계를 넘어 위대한 하나의 결속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여행사라는 것은 풍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기 문란한 이 세계를 선도해서 한 면이라도 정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일사상을 집어넣어 관광사업을 했다 할 때에는 어떤 세계적인 미인이라도 누가 유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은 회사가 되면 '세일'이라는 이름을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212-305, 1991.01.08) p. 1124

7 북한 청년과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청년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해야 됩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교류시키면서 교육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청년들을 세계 각국에 데려다가 그 나라 청년들과 교류시키며 교육한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에 가서도 교육하고 중국과 미국, 프랑스에 가서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제적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교육해야 됩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 강대국들을 교육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권문제나 비자문제 등은 세일여행사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세일여행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실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교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한국을 중심삼은 교류 교육입니다. 둘째는 미·러·일·중의 협력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1-094, 1992.12.19.)

8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용평리조트를 인수했습니다. 용평은 성수기가 겨울이어서 여름에는 문제가 됩니다. 여름에는 골프와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대관령을 중심삼고 산봉우리마다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농장을 만들어서 계절에 따라 무공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호텔을 만들어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겨울경치가 좋고 여름경치가 좋으니 만큼 여름이나 겨울 언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산삼 씨를 뿌려서 재배하려고 합니다. 헬리콥터로 유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1천458미터의 발왕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거기가 헬리콥터 기지가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용평은 해양공원과 육지공원을 연결시키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415-120, 2003.08.06)

9 현재 용평스키장을 활용해 오토바이 경주장이나 자전거를 타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몇 킬로미터 지점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수백 대 세워 놓고 곤돌라를 타고 가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자동차에 싣고 가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비수기를 메워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다음에는 낚시입니다. 여수·순천에서 낚시대회

를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는 청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용평의 저수지에서 고기를 길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평은 수렵장을 만들더라도[2]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렵장에는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스키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2-229, 2004.01.23) p. 1125

10 아버님이 세계적으로 취미산업을 주창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버님을 말하게 되면 취미산업과 관련시켜 생각합니다. 취미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남북미와 유럽은 물론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연락망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경제의 유동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세계 경제권의 70퍼센트 이상을 움직이는 나라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골프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평도 골프를 비롯해 국제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90-119, 2005.03.11)

11 세일로는 기계를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한 경제복귀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공업계를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의 기계공업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세계로 출발하자.'고 할 때에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가야 하는데 세일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일로는 작지만 우리 식구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로 가서 세계를 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씩 하나씩 세계의 귀착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22-196, 1982.11.11)

12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권을 쥐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적인 판매

2) 만들 지라도,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그 판매하는 모든 책임 부처의 아이템을 전국적으로 교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품목이 있다면 계절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됩니다. 가격이 달라짐으로써 그 계절에 가격이 높은 품목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품목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통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한 계절에 특별히 비싼 물건을 즉각적으로 팔 수 있는 조직 편성을 해야 됩니다. 150개 회사가 있으면 그 150개사가 갖고 있는 품목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좋은 물건을 빼서 그것을 전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세계화해야 됩니다. (116-299, 1982.01.02) p. 1126

13 앞으로는 도시 정착시대가 지나갑니다. 도시에 머물러 사는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세계무대를 자기 정원과 같이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화로 물건을 주문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전화로 무슨 물건 몇 개 몇 개를 주문하면 '총계가 얼마입니다.'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점원들이 얘기해 주는 것 이상입니다. 점원들은 틀리게도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배달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상품은 어디든지 배달됩니다. 이것을 '레버런 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화점이나 상점이 필요 없습니다. (195-188, 1989.11.15)

항공산업과 우주공학시대

참부모님께서는 수준 높은 항공기술과 우주공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타임스 항공을 설립하셨다. 한국에는 2004년 11월 한국타임스항공을 세우시고 2006년 6월 김포항공산업단지 기공식을 하셨다. 한국타임스항공은 미국의 시코르스키 헬리

콥터 회사와 기술협약을 맺고 협력관계를 갖게 되었다.

14 아버님이 과학을 알고 앞으로 산업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술 첨단의 자리에 서는 기반을 지금까지 닦아 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술을 첨단에 올려놓지 못하면 세계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사상적 왕좌에 올라왔으니 기술분야에서 과학적 왕좌권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계 원자재와 자동차 원자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고, 헬리콥터에 대해서도 아버님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워싱턴타임스항공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473-273, 2004.10.16)

15 현대문명의 이기[3]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워싱턴타임스 에비에이션이라는 항공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남북미를 연결하고 항공우주공학의 과학기술을 누가 쥐느냐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수한 비행기를 사고 프랑스 미국 캐나다가 경쟁하는 그 기술을 잡아 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비행기회사가 유명하지만, 그 회사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와 손잡고 일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9-196, 2002.02.14) p. 1127

16 기계기술보다 몇 십배 어려운 것이 항공기술입니다. 우주를 점령할 수 있는 기술, 그런 최고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시코르스키 헬리콥터 회사입니다. 그것의 다른 이름은 미국기술협회입니다. 그런 최고기술을 중심삼고 우리와 미국이 공동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우주기술, 항공기술을 우리와 더불어 협조하여 기계를 만들면 전 세계가 따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비행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해서 쓰는 것입니다. 수리

3) 利器, 실제로 쓰기 편리한 기구(한컴사전)

할 수 있으면 새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525-318, 2006.05.09)

17 미국기술협회가 항공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시코르스키 헬리콥터 공장을 만들어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한국과 미국 회사 자체가 한국 회사인 동시에 세계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회사가 돼야 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타임스항공 김포항공산업단지 기공식 말씀을 평화메시지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10년만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술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노력을 아끼지 말고 투입해야 됩니다. (533-087, 2006.07.20)

5절 과학기술평준화를 위한 노력

과학기술평준화의 필요성

참부모님께서는 1981년 11월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기술평준화운동을 제창하셨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만물주관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활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소수의 나라가 과학기술을 독점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과학기술의 평준화를 통해 모든 인류가 골고루 잘살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p. 1127)

1 본래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세계를 주관하라고 주신 축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인류는 누구나 이를 활용하고 또 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헬기산업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은 자연히 경제문제나 산업개발과 관련지어 말해야 하겠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자세, 즉 사랑이나 가치적 측면을 강조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만물세계는 인간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고 인간을 도와야 할 대상의 자리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세계를

지으신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참사랑의 실체가 됨으로써 그 대상으로 지어진 만물세계에 대한 참다운 주체요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만물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이나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인류에게 유용하도록 활용해야 됩니다. (578-282, 2007.10.18)

2 선진국가들이 남미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경제력입니다. 은행을 통해 전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을 배경으로 남미의 모든 원자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평준화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165-158, 1987.05.20)

3 아버님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심삼고 평중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 때 독일의 최고기술과 우리 통일산업을 중심삼고 기술평준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전자와 기계 분야에서는 우리가 최고수준에까지 올라오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적으로 평준화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평준화해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하나님의 사상을 세계적으로 평준화하려고 합니다. 사상평준화와 과학기술평준화, 그다음에는 경제평준화와 언론평준화, 이렇게 4개 분야만 평준화하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169-219, 1987.10.31)

4 나는 국가 배경이 없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일본이 반대해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아버님이 한번 결심하면 기술평준화는 틀림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평준화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을 평준화하는 것은 국가 간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렇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중심삼고 모든 기술을 지키려고 하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것을 나눠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4-143, 1988.12.27)

5 최고의 기술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 앞에 하늘이 부여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 민족을 중심삼고 인간들이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981년부터 세계 과학기술을 중심한 평준화 운동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평준화 운동을 하게 되면 미국의 과학기술을 남미에 나누어 주어야 되고 유럽의 과학기술을 개방해야 됩니다. 유럽 제국은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노예화해 놓은 아프리카에 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니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길을 막고 목을 조른다고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열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은 입장에서 열어 놓아야 합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인종을 초월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전부 같이 공부시켜야 됩니다. (237-062, 1992.11.11) p. 1129

6 사상적 평준화, 과학기술 평준화, 그다음에 경제적 평준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진국가의 몇 사람이 앉아서 개발도상국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다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이 세계를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그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밤이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반대를 받으면서도 이만한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145-120, 1986.04.30)

과학기술평준화의 실천

참부모님께서는 다방면으로 과학기술평준화 운동을 펼치셨다. 과학기술은 세계가 공유해야 된다고 보셨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

과 후진국 사이의 과학기술평준화 운동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선진국인 독일의 주요기계공장들을 인수함으로써 기술평준화를 위한 기반을 닦으셨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의 주요 과학기술을 확보하신 목적은 이를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나누어 주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평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에 소시지 공장을 건설하고 소시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제공하셨고, 농사짓는 법과 가축을 기르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중국에 대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 판다자동차 프로젝트를 추진하셨다.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시작하셨다.

7 기술을 평준화하는 것이 선진국가에 얼마나 무서운 작전인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기술평준화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남미에 전부 넘겨줘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남미를 경제식민지로 계속 존속시키는 것은 정치력과 군사력 때문입니다. 정치경제, 그다음에는 과학기술입니다. 주로 과학기술 같은 것은 넘겨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미에도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도 있고 다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미진합니다. 다 가르쳐 줘도 과학기술만은 안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선진국가의 최고 과학 기술 배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주자는 것입니다. (180-258, 1988.08.22) p. 1130

8 지금 세계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경제적 원자재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냄으로써 선진국이 잘 되는 것보다 중진국이 잘 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중진국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몇 개국에서 원자재를 내가 가져다가 20년 동안에 기

술평준화와 더불어 생산평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에 거기에 결여된 자재를 보급하면서 완전히 그 기술을 옮겨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최고 기술을 무조건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라면 대응적·순리적 상대권을 이룸으로써 이상적 사랑의 상대기대가 이뤄지게 됩니다. 상대기준을 넘어 상대기대가 이뤄져서 서로서로 주고받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세계로 전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80-259, 1988.06.24)

9 독일의 최고 과학기술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독일의 4대 공장을 샀습니다. 나는 세계 기술의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럽이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착취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농사짓는 법도 안 가르쳐 주고,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도 안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한 것은 그들만 잘살라고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만민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빼앗아서라도 분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기술평준화를 주창한 것입니다. (239-039, 1992.11.23)

10 아버님은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이 됩니다. 잘 적응합니다. 그런 역사를 말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실감합니다. 독일이 그렇게 아버님을 그 나라 공업계에 조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었지만 독일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공장, 정부가 경영하다가 1984년에 민영화한 것을 아버님이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그런 것을 조종했느냐? 영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장은 독일 기술의 총합적인 공장과 같은 것입니다. 라인생산의 기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 나라에서 제일 기간산업이 되는 것이 기계공장입니다. 그

러한 큰 라인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192-130, 1989.07.03) p. 1131

11 독일 쪽에 아버님이 발을 들여놓고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모두 둘러보았기 때문에 어느 공장을 가더라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공장을 살 때에는 어느 것이 보다 좋고 나쁜지를 감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1980년부터 5년 기간 동안은 독일 공업의 전환기였습니다. 인력으로 만들던 시대에서 자동화시대로 전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많은 회사가 도산해 버렸습니다. 작은 회사는 부도를 내서 도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공장을 사지 않으면 사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라인생산의 기간산업, 그리고 보링공장 등 4대 공장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한 것은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평준화 운동을 펴기 위해서였습니다. (192-130, 1989.07.03)

12 아프리카 7개국에 소시지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시지공장이 제일 유명한 데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 유명한 독일 소시지공장의 도움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소시지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산업에 한 부서를 만들어 소시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대량 생산하게끔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영양실조입니다. 단백질이 모자라는 음식을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와 목장을 통해 돼지 기르는 방법, 소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사짓는 방법, 채소 가꾸는 방법 등 전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곳에는 농업전문학교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

다.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자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살려 주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180-257, 1988.08.22) p. 1132

13 중국에 판다자동차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3천 200만 평의 땅을 계약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워싱턴DC만큼 큽니다. 중앙정부, 광동성과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내가 당시 중국의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1989년 6월을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홍콩에서 해상으로 40분 되는 거리에 있는 혜주(惠州)라는 곳입니다. 중국이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하는 기지로 혜주와 접하고 있는 심천(深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0-067, 1989.06.18)

14 내가 중국의 문도 열었습니다. 천안문 사건이 1989년 6월 4일에 일어났는데, 6월 27일에 판다 공장의 기공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공식을 언제 하게 되어 있느냐? 9월 23일까지 홍콩에 있는 중국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나서 중국 정부가 좋다고 공인한 후에 기공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10월이 되어야 기공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6·4사태 직후인 6월 27일에 기공식을 했느냐?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안전 문제로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알려 왔지만 우리는 보따리도 못 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발대는 태국으로 피난해서 눈치를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공식을 위해 중국에 들어가니 북경과 광동성에서 놀란 것입니다. 기공식은 밴드를 동원하고 불꽃놀이를 하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그러니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나온 것입니다. (199-056, 1990.02.01)

15 본인은 중국에 판다자동차 공업 도시 건설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중국에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일확천금하고자

하는 계략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수익은 한푼도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의 원칙입니다. 그 이익을 그곳에 다시 투자해서 국제평화고속도로를 만들고 다른 첨단기술도 평준화해주면서 13억 중국인들을 잘되게 해주자는 것이 투자의 동기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중국을 무시하고서는 아무도 세계평화를 운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8-164, 1990.02.01)

16 판다 계획의 목적 가운데 제일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동양의 평화를 결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192-251, 1989.07.04)

제2장 해양섭리와 해양자원 개발

1절 한국을 중심한 해양섭리

야목과 제주도에 쏟은 정성

참아버님께서는 교회 초기부터 수산사업에 관심을 갖고 1959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회 전국전도사수련회에서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야목리 연못과 바닷가를 중심으로 식구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셨다. 1963년 6월 26일 인천에서 배를 만들어 '천승호(天勝號)'라고 명명하시고 일부 식구들을 고기잡이에 나서게 하셨다. 이렇게 야목에서 시작된 해양섭리는 제주도와 여수를 거쳐 거문도까지 이어졌다. 특히 참부모님께서는 제주도를 섭리적으로 중요한 섬으로 여기고 조선소와 양식장, 귤농장을 만드시는 등 많은 정성을 들이셨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의 해양관문으로서 동해와 동중국해, 태평양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윗치에 있기 때문에 해양사업의 요충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다.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지귀도(地歸島)도 섭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구입해 낚시사업을 계획하셨다. (p. 1133)

1 통일교회가 맨 처음 출발할 때 앞으로 수산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야목이라는 곳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천년 묵은 괴물이 있다느니,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된다느니 하는 별의별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연못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별의별 것이 다 있었습니다. 야목에서 수련을 거쳤던 초기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는 가물치를 잡는 방법이 어땠고 메기나 뱀장어를 잡는 방법이 어땠다고 어디를 가나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67-135, 1987.07.11)

2 야목에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초가 많기 때문에 물뱀이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 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못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를 모릅니다. 거기에 개연이 자라고 있는데, 개연은 세 길 깊이에서도 연잎이 나옵니다. 개연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얕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연못의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물이 300미터나 되는데, 100미터씩 그물을 치니까 거기에 있는 고기는 다 걸리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트럭으로 싣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해도 거기에서 잡은 것은 안 먹겠다면서 안 가져갔습니다. 붕어, 잉어, 가물치, 메기, 뱀장어가 수두룩한데 그것을 다시 놓아주던 생각이 잊히지 않습니다. (597-035, 2008.09.02) p. 1134

3 아버님은 옛날에 야목의 연못에 가서 옷을 벗고 뒹굴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 거기에 거대한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고기들이 들어와서 왕창 잡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얼굴에 검정 칠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았습니다. 전부 새까매 가지고 눈문 껌벅껌벅하고 그러면서도 해가 지는 줄 모르고 고기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잊을 수 없는 생애의 일부분입니다.

(122-167, 1982.11.02)

4 1963년 한국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천승호(天勝號)'였습니다. 하늘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천승호를 만들어서 세계의 바다를 점령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배 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칠 때에는 못 나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부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낙비가 오는데도 낚시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저녁때까지 한 것입니다. (294-177, 1998.06.14)

5 아버님이 1963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천승호'입니다. 배 이름을 천승호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다 뜻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는 1973년부터 배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배를 탔습니다. 일편단심 배를 탄 것입니다. (294-055, 1998.06.10)

6 아버님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이름 있는 산은 전부 편답했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돌아다닌 것입니다. 육지를 찾아서 다닌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 본래는 육지입니다. 고기들은 심판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의 모든 탕감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심판받지 않은 고기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은 본연의 모습 자체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까지 27년 이상의 세월을 바다에서 배를 타는 생활을 했습니다. 물을 찾아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든 것이 1963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입니다. 그것을 해양산업과 연결하는 것입니

다. 그때의 말씀을 들어 보면 알 것입니다. 배의 이름이 '천승호'였는데 하늘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배가 필요한 것은 육지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천승호로부터 시작해서 해양사업과 조선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325-079, 2000.06.30) p. 1135

7 아버님은 시간만 있으면 제주도에 가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충신들을 유배시키던 섬입니다. 역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로 돌아 들어와야 됩니다. '제주'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또 '건너간 세계', 즉 복귀된 세계라는 말도 됩니다. 제주의 '주'는 '고을 주(州)'자입니다. 건너가서 찾는 것이 해와입니다. 하나님이 육지를 버리고 섬나라를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을 중심삼고 일생 동안 내가 정성을 쏟았습니다. (292-061, 1998.03.28)

8 제주도(濟州島)하면 제사 지내는 주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祭主)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섬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해신을 많이 섬깁니다. 한라산의 산신도 섬깁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는 정성을 갖추어서 준비합니다. 거기에도 한 주인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제주의 말에 절대 신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제주도는 한국의 제일 남단에 처해 있습니다. 육지는 남자를 말한다면 제주도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사람은 언제나 육지를 그리워하며 삽니다. 육지를 언제나 사모하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 자기들이 사랑을 이어 줄 수 있는 뜻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언제나

자유로운 육지와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41-127, 1986.02.20)

9 제주도에 지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귀도를 보고는 '아, 복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섬을 샀습니다. 우리 땅입니다. 거기 해안에서 100미터만 나가게 되면 수심이 깊습니다. 지귀도에 가서 '백두산 천지의 생명체를 여기 지귀도 땅에 심으면 우주가 새로운 씨로서 소생하는 것이다. 해방된다.' 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를 세계 제일의 유원지로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352-060, 2001.08.29) p. 1136

10 지귀도는 낚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귀도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러 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트를 빌려 주면서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농어 잡히고 도미가 잡힌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낚시꾼들은 다른 것을 또 잡고 싶어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지귀도 주변에는 없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는 배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우리 호텔을 짓는다면 거기에 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곳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귀도가 낚시터로서 살아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126-287, 1983.04.28)

11 제주도는 우리 국가의 해양관문으로서 중요한 아시아의 길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와 동중국해로 연결하고 태평양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사 요새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슬포 옆의 항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항구가 될 수 있는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제주도는 앞으로 홍콩과 같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낚시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6-312, 1983.04.30)

12 제주도를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관광지보다 차원이 높은 관광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라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라산이 어머니 몸이라고 하면 거기에 새끼들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한라산은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딸이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지가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낚시터라는 것입니다. 낚시터는 제주도만이 아닙니다. 쾌속정을 타고 나가서 옥돔 낚시든 무슨 낚시든 할 수 있는데, 일본 근해에까지 낚시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 근해에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도로 관광하러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물론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지를 만들 수 있는 매혹적인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291-247, 1998.03.15) p. 1137

여수를 중심한 해양권 개발과 거문도 해양천정궁

참부모님께서는 장래에 해양권과 육지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부산에서 목포 사이의 해양권밖에 없다고 보시고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해양시대를 개척하고자 하셨다. 여수를 중심한 한국의 남해를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해양공원으로 개발하여 아시아의 명승지로 만들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여수의 화양 단지에 청해가든 수련소를 세우시고 여수 소호동에 디오션리조트와 호텔을 세우셨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을 해양레저산업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여수를 중심으로 환태평양권을 결속시켜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셨다. 특히 참부모님께서는 청평에 제1 천정궁을 세우고, 종

교권을 규합할 수 있는 장소인 스위스에 제2 천정궁을 세우고자 하셨으며, 거문도에는 해양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천정궁을 건설하셨다. 평화메시지를 완성한 2006년 11월 15일부터 거문도가 성지라고 선포하셨다. 거문도는 성소와 지성소처럼 기도하고 정성들이는 곳이며,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거문도에서 낚시를 중심한 섭리를 진행하면서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초도, 여수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고자 하셨다.

13 장래에 해양권과 육지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부산에서 목포 사이의 해양권밖에 없습니다. 여기 경치가 훌륭합니다. 이 여수와 순천 근방의 바다가 특별합니다. 원래 이 주변의 산들은 평지였습니다. 평지가 암석에 둘러싸인 가운데 땅이 움직여 점점 중간 땅이 꺼져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낚시터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해양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먹이를 잡아먹는 데는 이런 섬 같은 곳이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권에서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작은 물고기가 많은 해안이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제일 밑바닥은 해양의 제일 깊은 곳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에서 제일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먹이가 많은 곳과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는 얕은 곳, 큰 물고기는 깊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물고기 종류가 많고 크기도 점점 큰 것이 잡히니까 낚시터로서는 여수와 순천 근방이 세계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483-059, 2005.01.16) p. 1138

14 여수라는 말은 물이 맑다는 것입니다. 여수 앞바다는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도 잘 자라고 양식에 있어 한국 제일의 기지입니다. 여기에는 조개류와 고기가 많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조금만 나가게 되면 수심이 깊습니다. 섬 둘레의 바위틈에는 벌레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조그만 고기들이 모이고 또 큰 고기가 모이는 것입니다. 태평양에 사는 고기, 그다음에 제주도 지역에 사는 고기, 깊은 세계나 얕은 세계에 사는 고기들이 여

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터로서 가장 적합한 천혜의 기지입니다. (434-197, 2004.01.30)

15 여수 땅에 조선소도 만들고 해양공원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 섬이 3천여 개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가면 주인이 없는 섬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남해안이 일본과 중국의 삼각지대에 있는데, 여기에 공원만 만들어 놓으면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다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제1 관광지로 선택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골프장으로부터 호텔, 그다음에 낚시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비행장도 닦아야 되고 헬리콥터장도 닦아야 합니다. 여수에서 월드컵 낚시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훈련해서 그런 시설을 하여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육대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403-291, 2003.01.24)

16 본인은 최근 한국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여수에서 화양단지 개발을 위한 성대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수조 원을 투입하여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대한민국이 해양레저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가 환태평양권의 섭리적 결실이 이루어질 여수를 통해서 대륙으로 퍼져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세계 만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 왔습니다. 아벨유엔을 발전시켜 세계 만민을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인도해 내고 공생·공영·공의의 평화이상세계를 창건하는 천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링해협프로젝트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개발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며, 환태평

양권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586-203, 2008.02.12) p. 1139

17 태평양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지를 여수·순천으로 옮겨 왔습니다. 대해양권 내에 오색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을 여기에 데려다가 교육하려고 합니다. 여수가 유명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미국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사는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몰(mall)같은 것도 일본식과 한국식과 미국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에 없는 큰 몰을 어떻게 짓느냐는 것입니다. 세계에 없는 몰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기존 몰과 다른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431-335, 2004.01.20)

18 여수·순천은 좋은 땅입니다. 해안시대의 개척을 비로소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변도시와 주변 국가를 넘어서 비로소 하늘과 인연맺은 여수·순천 개발의 선각자가 아버님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상적인 콘도미니엄을 중심삼고 앞으로 해양박람회 주요도시의 모델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608-142, 2009.02.23.)

19 평화메시지를 완성한 날, 2006년 11월 15일부터 거문도가 성지가 됩니다. 거문도에 가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영계에 가기 전에 하나의 표제를 남기고 가야 할 여러분의 숙명적인 과제를 청산해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549-257, 2007.11.13)

20 거문도에 왕궁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한국을 찾아오면 거문도에 갑니다. 큰 문씨(巨文)의 '섬 도(島)'자가 아니라 '길 도(道)'자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道)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쉴 수 있고 정성들일 수

있는 기도 장소입니다. 성소와 마찬가지이고 지성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세계 형제들이 와서 쉬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난처, 도피성입니다. (580-257, 2007.11.13)

21 여수 관광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백도와 초도, 거문도입니다. 거문도는 큰 문씨의 도(道)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농어와 방어 등 깊은 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많습니다. 산이 생겼다가 무너져서 가라앉은 곳이기 때문에 섬 곁에 고기들이 많습니다. 벼랑터입니다. 그런 벼랑 터 소나무에 줄을 달아매고 허리띠에다 밧줄을 묶어서 발로 버티고 낚시를 합니다. 편히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낚시를 하다가 졸아도 바다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서 숭어를 잡는 데는 기록을 깼습니다. (537-207, 2006.09.01) p. 1140

22 거문도에 새로운 남쪽 나라의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래 아버님이 천승호를 만들어 추자도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삼치입니다. 이것을 1년 사철 잡을 수 있는 곳이 제주도의 추자도, 그리고 거문도입니다. 이 고기들이 거기에서 삽니다. 방어도 거기에서 살고, 농어도 거기에서 살고, 숭어도 거기에서 사는데 이것은 여름에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잡힙니다. 계절을 극복할 수 있는 어종을 잡아서 새끼를 치게 하여 만국에 펼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해안지대에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고 수련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수산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지로서 거문도가 제일입니다. 항구가 생기기도 잘 생겼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태풍이 불더라도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섬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북쪽과 남쪽에서 커피가 나는 지역은 사철 낚시를 하는데, 바로 거문도가 그렇습니다. 사철

낚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안 잡히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모델적으로 고기 잡는 훈련과 밑감에 대한 것이라든가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초도, 그다음에 여수가 한 코스로 돼 있습니다. (544-113, 2006.11.08)

23 거문도에 땅을 사서 그 남쪽 나라에 바다의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바다의 궁전입니다. 내가 남미에 가서 원초성지·근원성지·승리성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미에 수중궁, 물 가운데 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문도로 옮겨왔습니다. 물이 맑고 섬이 많은 가운데서 한 섬을 통해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546-181, 2006.11.27.)

24 하늘나라 왕궁의 모델이 땅 위에서는 천정궁입니다. 이곳 청평은 제1 천정궁이고, 제2 천정궁은 종교권을 규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위스에 제2 천정궁을 세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서 대표할 수 있는 궁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상 근거지의 왕궁, 왕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곳이 거문도입니다. 거문도는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입니다. 그것을 보면 영국이 책임을 다했습니다. 영국이 해와 국가인데, 한국에 있어서 러시아를 방비할 수 있는 기지를 거문도에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기지를 만들어 영국 대사들이 와서 해와로서 세계의 섭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기원을 가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양궁을 짓는 것입니다. 해양세계의 대표적인 궁이 되는 것입니다. (565-228, 2007.06.12) p. 1141

2절 미국을 중심한 해양섭리

글로스터 참치잡이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글로스터와 알래스카,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양섭리를 펼치셨다. 특히 2000년 6월 17일 '바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환원한다.'는 의미의 '해양환원'을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선포하는 등 미국 중심의 다양한 해양 비전을 발표하셨다. 글로스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참치잡이 장소이다. 참부모님께서는 그곳에서 직접 만드신 '뉴호프(New Hope)'배를 타고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 참치잡이를 하며 많은 정성을 들이셨다. 그리고 '레버런 문 시스템'이라는 탁월한 참치잡이 방법을 개발하셨으며 참치잡이 대회를 개최하셨다. (p. 1141)

1 글로스터의 참치잡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본가, 호화로운 보트를 가진 사람은 한 번씩 참치잡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뉴호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뉴호프가 뉴저지에 가는 날에는 거기에 배를 가진 모든 자본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나 뉴올리언스 등 어떤 항구에 가더라도 배를 보러 찾아옵니다. 그러니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 1977년만 해도 참치 1파운드에 10센트 가던 것이 지금은 1달러70센트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참치 값을 올린 것입니다. 5달러까지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참치 한 마리에 5천, 7천 달러가 나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배를 사서 참치잡이에 총출동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글로스터와 하버타운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수천수만 척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5-051, 1979.09.16)

2 내가 선두에서 뉴호프라는 배를 타고 참치잡이를 하면서 7년 동안 글로스터에 있었지만 그동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왕관을 쓰고 비단옷을 입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시찰하고 순회할 줄 알았지, 뉴호프를 타고 새까맣게 탄 모습으로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뉴호프에 있는 사람에게 왜 레버런 문이 안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멋진 것입니다. 7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레버런 문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서면 비린내가 무럭무럭 나고 옷을 보면 어부 이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지냐는 것입니다. (109-153, 1980.11.01) p. 1142

3 낚시를 하는데 큰 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반 대중은 대부분 낚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에는 큰 배를 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뉴호프라는 배입니다. 강에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바다에 나가서 잡을 수도 있는 배를 고안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배입니다. 지금 우리 뉴호프가 유명합니다. 낚시를 하거나 바다에서 안내를 할 때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262-240, 1994.08.01)

4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참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참치가 낚시를 물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3주일까지도 안 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척의 배가 참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히는 참치는 하루에 열 마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00척이라 해도 10분의 1만 잡는 셈인데, 수백 척이 나와 있으니까 50분의 1, 30분의 1만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는 뉴호프라는 참치잡이 배는 어떠냐? 미끼로부터 모두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 내가 연구해서 개발한 '레버런 문 시스템'으로 참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백 척의 배에서 잡는 참치의 3분의 2을 우리 뉴호프가 잡습니다. (167-138, 1987.07.11)

5 내가 배를 타는 데도 일등입니다. 또 고기를 잡는 데도 그렇습니다. 참치 잡는 방법을 내가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그 방법 가지고 안 되

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3년 동안 연구해서 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치잡이에 '레버런 문 시스템'이 생겨났습니다. 미끼를 어떻게 꿰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또 경제적입니다. 전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치 줄 하나 끊어지면 150달어가 달아납니다. 낚싯줄이 걸렸다고 자르면 그렇게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채비를 조립해서 쓰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낚싯줄 좋은 것 하나만 가지면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180-274, 1988.08.22) p. 1143

6 내가 글로스터에서 참치잡이 대회에 나가서 일등을 했습니다. 참치잡이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레버런 문 시스템'입니다. 황소보다 더 큰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1.5밀리미터 낚싯줄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큰 것은 로프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구상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참치를 잡는 데 기록을 세우니 현지 어부들이 그것을 배워서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45-235, 2004.04.18)

7 글로스터, 보스턴 해역에서 잡는 참치로는 자이언트 참치, 블루핀 참치가 있는데 내가 잡은 것의 기록이 1천272파운드짜리입니다. 길이가 18피트 이상이니 5미터가 넘습니다. 호랑이는 700파운드쯤 나가고 황소는 1천 파운드 나가니 그것본다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200파운드 나가는 것을 잡는데 내 기록은 그 6배입니다. 그만하면 아주 근사합니다. 그런 참치를 잡을 때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장군이 돼서 승리한 것보다 더 멋집니다. 그야말로 사내로 태어나서 낚시질하는 데서는 왕자가 된 기분인데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167-138, 1987.07.11)

8 글로스터에서 참치잡이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잡힌 참치를 팔아 10만 달러씩 예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프리카

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버님을 중심삼고 몇 십년 그렇게 해서 예금한 금액이 몇 백만 달러, 몇 천만 달러가 될수록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바다에 나갈 때 요즈음 젊은 사람 몇몇이 나와서 '5시에 안 나가도 됩니다. 6시, 7시에 나가도 됩니다.'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열심히 입을 모아 이야기하지만 고기를 잡는 데에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게 되면 고기가 나에게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230-180, 1992.05.03)

알래스카의 자연환경과 개발

참부모님께서는 알래스카에서도 해양섭리를 위해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 알래스카는 세계적 어장으로 어류와 원자재가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교통의 요충지이다. 국제알래스카수산회사(ISA)를 세우고 알래스카를 개발해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셨다. 또 알래스카에서 낚시를 통해 식구들에게 바다에 관해 교육하고 훈련시키셨다. (p. 1144)

9 바다를 이기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바다는 육지의 3배가 됩니다. 모든 금은보화가 바다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를 점령하고 극복하자는 것이 알래스카의 정신입니다. (263-135, 1994.08.21)

10 알래스카 정신이 무엇입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바다에 나갔다가 밤 12시에 들어옵니다. 새벽 1시나 2시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책임량을 못하게 되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정을 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 과정에서는 책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훈련을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일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경험을 해서 배워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263-011, 1994.08.16)

11 아버님은 코디악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기후가 나쁘더라도 바다에 나가서 정성들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대표, 일본 사람 대표, 미국 사람 대표들에게 정성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수련장소로 해서 앞으로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 세계의 통일교회 정수부대를 코디악 정신을 전수하기 위해 수련시킬 것입니다. 각 국가 대표를 뽑아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지내 오던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련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배포를 길러 주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곳은 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산은 바람이 부나 천년이 가나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육지에서는 언제든지 길만 따라가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거기에 담요를 펴고 자고 싶은 고요한 바다였지만, 오늘 아침에는 보기에도 무서운 모양으로 변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것을 고요한 바다, 호수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사나이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264-095, 1994.10.09)

12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사람을 고기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 해양권을 쥐면 육지권까지 쥘 수 있다는 것이 섭리의 관입니다. 따라서 알래스카를 점령하면 모든 해양권을 점령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 수산자원의 85퍼센트가 알래스카에서 나옵니다. 10퍼센트는 태평양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5퍼센트는 대서양에서 나옵니다. (168-069, 1987.09.01) p. 1145

13 고기들이 추운 알래스카 지방을 왜 찾아가느냐? 더운 데 있던 고기가 한대지방을 찾아가는 것은 음양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주체와 대상이 화합하는 곳에 가서 새끼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유동하는 것입니다. 도 담수에 있던 고기는 짠물을 마셔야 새끼를 칠 수 있습니다. 참게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것이 되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화합해야 됩니다. (207-083, 1990.11.01)

14 미국 사람들도 알래스카를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툰드라 평원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툰드라는 북극과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의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에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바다를 중심삼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자원, 어류와 원자재가 집중돼 있는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세계의 수산자원 가운데서 75퍼센트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 수산자원의 85퍼센트가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의 획득자는 이 툰드라 평원밖에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로 모스크바, 런던, 뉴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힘으로 알래스카의 평원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온상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나나도 나옵니다.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산물이 알래스카에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면적이 캘리포니아주의 4배라는데 그만큼 방대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무진장의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원자재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6-022, 1992.11.02)

15 알래스카는 관광객을 유치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됩니다. 한국은 1994년에 아주 더웠는데, 그렇게 더울 때에는 돈이 있으면 알래스카로 가는 것입니다. 알래스카가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6시간 걸립니다. 저녁에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에서 자고 아침에 내리

는 일일생활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낚시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가게 된다면 주변의 산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눈 덮인 그 동산 아래에는 꽃동산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그 아래에는 푸른 바다, 아름다운 호수 같은 바다가 있어서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경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을 보면 병풍같이 고산이 둘러싸고 있고, 곧은 나무로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아래 수풀 가운데에는 보지 못한 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호수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물가를 중심으로 짐승들이 많이 삽니다. (264-098, 1994.10.09) p. 1146

16 북극 지역을 아버님이 찾아갔습니다. 북극은 물이 얼어붙은 땅입니다. 알래스카 코디악을 중심삼고 미국 해양사업의 중심자리에 간 것입니다. 국제알래스카수산회사(ISA)를 중심삼고 남극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식량문제는 바다와 물을 위주로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땅이 1년에 15제곱킬로미터 이상씩 사막화합니다. 나무가 점점 없어짐으로써 물이 침투하지 못하고 점점 땅이 사막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막을 극복하는 것은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나 맑은 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의 기름을 몇 천 마일의 파이프를 통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닷물을 몇 천 마일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지구성의 사막에 파이프만 설치하면 해양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풀들을 얼마든지 배양할 수 있고 그것을 개발해서 양식장을 무한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짓는 땅이 3천 평이면 이 3천 평의 10분의 1일 300평을 안 가지고도 양식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식량문제와 생활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물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25-080, 2000.06.30.)

하와이 섭리

미국을 중심한 참부모님의 해양섭리에서 또 다른 중심 지역은 하와이였다. 참부모님께서는 환태평양 섭리시대를 발표한 후에는 하와이를 자주 들러 정성을 들이셨다. 일본의 하와이 침공으로 미국과 일본이 하와이에서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미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하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해양의 탕감해원과 육지의 탕감해원, 천주의 탕감해원을 하와이를 중심삼고 선포하셨으며, 하와이 킹가든에서 '환태평양 신문명 개벽 선포대회'를 개최하셨다. 그리고 코나커피농장을 매입하셨으며 마우나케아에 훈련소와 학교를 지어 해양세계를 치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셨다. (p. 1147)

17 하와이의 코나 지방에는 4천200미터 이상 되는 산이 있는데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 곰도 기를 수 있고, 엘크나 호랑이 토끼 여우 늑대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취미산업을 하기에 적당한 지역이 코나입니다. 3천 미터 이상의 깊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새치류를 비롯해 큰 고기를 잡는 낚시를 사철 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하고 조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기 종류가 많습니다. 먹이가 많으니까 태평양에 있는 고기들이 여기를 서식지로 삼는 것입니다. (342-050, 2001.01.09)

18 하와이에 천국촌을 만들려고 땅을 샀습니다. 집도 짓고 배도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는 1년 사계절 동안 비가 별로 안 오니까 낚시터로는 세계에 없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춘하추동 사계절이 한 골짜기에서 다 어우러집니다. 저쪽 편은 매일같이 비가 오고 벼락을 치고 하지만 이쪽은 1년 사시사철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올 때까지 세계에 그런 곳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21-062, 1991.10.20)

19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데 미국은 천사장 국가입니다. 바다권 내에 있습니다. 하와이는 전체 인구의 80퍼센트가 아시아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연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섭리시대를 발표한 후에는 될 수 있으면 하와이를 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4천200미터가 되는 산이 있는데 그것도 형제 산입니다. 하와이는 태펴양 가운데 하나의 등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중심삼고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남북미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태평양을 중심삼고 연결돼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두 형제가 하나돼서 해방의 출산을 해야 될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해와와 천사장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돼야 합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싸우던 두 형제가 하나돼서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으로 연합할 수 있는 초원지가 되기 때문에 하와이가 중심 섬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362-119, 2001.12.09)

20 해양의 탕감해원과 육지의 탕감해원, 그리고 천주의 탕감해원을 하와이를 중심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싸웠습니다.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했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하와이를 보호해서 하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원수관계인 일본과 미국이 하나 되어서 해양권 나라들을 하늘 앞에 바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지금까지의 해양권 섭리 완성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하와이 섭리입니다. 남미와 북미,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큰 바다의 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자궁에 남자와 여자, 오누이 쌍둥이를 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해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5-243, 2002.07.14) p.1148

21 남미와 북미가 하나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하나돼야 합니다. 수에즈운하라든가 파나마운하는 인간이 잘라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 놓은 것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미와 북미가 하나되고, 그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하나돼야 합니다. 두 쌍둥이가 넷으로 갈라진 것을 태평양을 중심삼은 복중에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부모는 태평양 가운데서 남미와 북미,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하나된 것을 묶어 다시 해산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해양권 결성, 반도권 결성, 그다음에 대륙권 결성을 해서 유엔을 중심삼고 승리함으로써 지구성 어디나 관리할 수 있는 승리의 패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섭리의 지정학적 최후의 결론입니다. (410-186, 2003.07.04)

22 하와이에 가 보니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거기는 일본 사람이 30퍼센트이고 백인은 29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30퍼센트가 되는 가정과 29퍼센트가 되는 가정들을 결혼시켜 놓으면 완전히 통일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에다 이양시키면 얼마나 복귀섭리가 쉽겠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와이에서 살려고 기지를 만들고 배도 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216-275, 1991.04.07)

23 내가 태평양에서 깊은 곳의 하나인 하와이의 코나 앞바다를 훈련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태평양에서 깊은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 사는 고기를 잡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얕은 데는 거저먹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얕은 데서 길러서 먼바다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식장을 만들어서 작은 고기와 큰 고기를 다 양식하는 것입니다. (337-265, 2000.10.27) p. 1149

24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에 세계적인 천문대가 있습니다. 4천 미

터가 넘는 산이 있는 그 섬을 중심삼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훈련소를 만들고 학교를 지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16개 해양국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해양세계를 치리할 수 있는 인맥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데려와 교육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다세계가 유린당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중심삼고 보더라도 언제나 바다를 육지가 점령해 왔는데 그 역사시대를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다에서부터 천재적인 요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국가의 후손들이 육지 사람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육지가 아무리 크더라도 바다의 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대륙, 남미와 북미대륙이 쌍둥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복판에 있는 마우나케아를 중심삼고 새로이 대학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합니다. (410-187, 2003.07.04)

25 하나님을 아시아대륙에서 섬길 수 있고 바다에서까지 모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섭리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를 중심삼고 우리가 대회를 했는데, 이름이 '환태평양신문명 개벽 선포대회'입니다. 그것을 하와이의 킹가든에서 했습니다. (569-084, 2007.07.22)

26 하와이에 코나커피 벨트가 있습니다. 세계에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특수품목입니다. 그 브랜드가 통일교회에 넘어갔다고 하면 세계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코나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코나커피 밭을 사서 팔아먹으려고 하나? 장사하려고 하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농사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학적인 농사법을 전부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해양에

서 양식할 수 있는 것도 다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587-276, 2008.03.16)

27 수천수만의 샘물터가 있고 수많은 지류들이 있지만 최후에 가서 머무르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 마우나케아라는 산이 있는데 그 주변은 코나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4천 미터 이상 되는 두 산의 줄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물리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코나 섬을 중심삼고 돕니다. 그리고 북극에서 흘러온 몇 천 년 묵은 얼음이 즙과 같이 되어 바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물은 약물로서 천년만년 전의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11.17, 천정궁) p. 1150

28 하와이 코나의 해저에는 몇 천년 전부터 북쪽의 얼음이 걸쭉하게 녹아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 코나 해저의 물을 뽑아서 팔아야 됩니다. 몇 천년 전의 물이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 이상 좋은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양식을 하게 되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해저에 묻혀있는 광물을 개발하면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것입니다. 백금보다도 귀한 코발트가 태평양의 제일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곳으로 흘러와서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곳이 태평양인데, 우리가 말하는 섭리의 해방권시대가 왔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615-074, 2009.08.18)

29 육대주가 모시는 바다의 조상과 같은 왕터가 하와이입니다. 거기에서는 사철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철 자유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나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춥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무꽃이 핍니다. 채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춘하추

동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다리를 놓아서 섬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왕터의 후원지로 남긴 것이 하와이 본섬입니다. 그 본섬에서 누가 배를 짓게 해서 해양권 8개 섬에 두 척씩 나눠 줬는데 낚시 왕들이 아버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비가 없더라도 배에 가서 잘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바다 왕궁의 기대를 만들었습니다. (603-184, 2008.11.18)

미국 수산사업의 발전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해안경비대가 있는 30곳에 해양교회를 만들어서 훈련하여 미국의 수산사업, 취미를 겸한 해양관광사업을 준비하셨다. 또한 세일로 조직 전국화와 수산사업 판로의 세계적 기반을 닦고자 하셨다. 이러한 해양섭리를 위해 조선소와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판매 훈련을 시키셨다. 오대양에서 나오는 고기를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해서 미국 수산시장을 주도하고자 하셨다. 국제해양산업(IOE)이라는 수산물 운수사업도 시작하셨다. (p. 1151)

30 우리는 미국에서 해안경비대가 있는 30곳에 기지를 만들고 해양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고기 잡는 모든 것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앉아서 남을 따라가는 사람은 개혁을 못합니다. 가로막고 '내말 들어 봐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167-149, 1987.07.14)

31 내가 미국에서 해양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에 없는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해양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곳에 30개의 해양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사업도 하지만 해양관광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관광사업을 할 것입니다. 취미를 겸한 관광사업,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양교회를 만들어 훈련시킨 것입니다. (186-306, 1989.02.06)

32 미국에서 경제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선택한 두 가지 사업은 세일로 조직 전국화 운동, 그다음엔 수산상업 판로의 세계적 기반을 닦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하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기계공업이 현재 서구문명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수산사업은 주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용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수산사업에 투자를 하고 세일로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생해서라도 여기에 투자해서 기반을 재창조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5-099, 1985.09.30)

33 뉴호프라는 우리 배는 미국 동부에서 참치잡이로 유명하고 남미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수산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요원을 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내가 친히 24시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맨 처음에는 배를 타라고 하면 전부 도망가고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만 있으면 얘기하고 4년 5년이 지나고 7년이 되니까 여자들까지도 '내가 캡틴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소를 만들고, 수산물 가공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동 밴을 중심삼고 판매훈련을 시켰습니다. 1년 동안에 그물을 짜고 배를 만들고 고기를 잡고 그다음에는 고기를 판매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작은 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면 가공공장을 중심삼고 처리해야 됩니다. 해산물 식당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삼고 수산사업 기반을 닦았습니다. (110-202, 1980.11.17) p. 1152

34 내가 배리타운에 가서 잉어를 수천 마리 잡았습니다. 연못의

물을 빼니까 큰 거북이가 여섯 마리나 나왔습니다. 그 거북이들을 허드슨강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잡은 잉어는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를 놓고 '너희는 사랑을 통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는 문제를 걸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희는 희생되지만 앞날에 미국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통일교회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인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고기로 태어났지만 우리 아들딸과 미국 국민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살이 되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데 그것도 싫으냐? 잉어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과 미국 국민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93-190, 1977.05.29)

35 아프리카 사람이 좋아하고 남미 사람이 좋아하고 아시아 사람이 좋아하는 오대양 고기를 우리가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해서 미국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이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자기가 먹던 고기, 자기 입맛에 습관화된 고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그 고기가 없으면 그 손님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대양에서 잡은 고기를 식당에 보급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뜰은 하루 8시간 일하기 때문에 오후 5시면 식당 문을 다 닫지만 우리는 24시간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관계돼 있는 어떤 식당에서 어떤 재료가 품절되었다고 하면 우리와 관계된 다른 식당에서 공급해서 채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못당합니다. 그래서 수산업계에서는 아버님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146-253, 1986.07.01)

36 미국에서 국제해양산업(IOE)은 미국의 수산사업가들이 경쟁

대상으로 주목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물고기도 잡지만 이제는 운수사업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기준만 되면 하와이와 도쿄 사이를 직행하고, 유럽과 남미를 돌 수 있는 배가 생겨납니다. 현재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문제는 미국입니다. 수출입을 하는 데에 미국이 세계적인 대표이니만큼 이 미국을 중심삼고 연결해야 됩니다. 각국이 왕래하면서 미국에 물건을 내려놓고 갈 때에는 빈 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 배가 어느 항구든지 가게 될 때에는 우리 사람들 몇 백 명이 나와 있다가 순식간에 물건을 실어 줄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수사업으로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한 봉사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전 세계 국가가 후원하게 됩니다. (262-245, 1994.08.01) p. 1153

3절 낚시와 정성

낚시는 정성을 들이기 위한 것

참부모님께서 2004년 4월 24일부터 85일간 여수 바다와 저수지에서 밤낮없이 낚시를 하시면서 특별정성을 들이셨다. 참부모님의 낚시에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일념과 정성이 담겨 있다. 특히 참부모님께서 낚시를 하시는 것은 낚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최고의 정성을 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낚시를 하시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명상하며 뜻의 성취를 위한 구상을 하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음과 몸이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다. 한편 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낚시 요령을 식구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하셨다. (p. 1153)

1 아버님은 물고기를 낚으려고 낚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들이면 갈 길에 동이 터 오는 것입니다. 혼자서 세계적인 일들을 안고 추어야 됩니다. 세상에 상대가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이 정신을 통일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고 최고로 노력하는 사람이 정상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276-057, 1996.01.18)

2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영계에서 협조합니다. 유별나지 않으면 사탄세계와 다름없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유별나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버님도 괜히 정성들이면서 이러고 있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이 바다에 가거나 육지에 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기준 이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낚싯대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낚시가 목적이 아닙니다. (285-317, 1997.07.13)

3 우리가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는 것은 세상을 낚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다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하는 데는 낚시가 제일 빠릅니다. 아버님이 경험한 것입니다. 낚싯대를 드리우고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저 산봉우리가 하늘 앞에 정성들인 사람과 초점을 맞추는 그날을 얼마나 기대했겠는가? 이 시간이 그 시간이다. 여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이 낚싯대를 움직여서 만민구도의 길을 펴 나가는 데에 동조함으로써 너희도 해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갈매기를 보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중심, 통일기준에서 섭리적인 뜻의 존결을 바라는 소원의 뜻 앞에 너희가 협조하여 만물 전체가 참부모 대신 하나의 표적의 대상이 되어 정성들인 대신자로서 움직여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폭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야단하는 가운데에서도 낚시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합니다. 예전에 글로스터에서 뉴호프를 타고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의 성공을 위해 정성을 들이던 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뉴호프 2층에 앉아 21일 동안 낚시를 하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각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사 기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89-122, 1997.12.30) p. 1154

4 바다에서 배를 타고 혼자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쑹얼쑹얼 하는데 그것을 들어 보니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될 일, 내일 될 일을 자기가 옹알옹알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계시의 말입니다. 마음과 몸이 언제나 같이 친구 할 수 있는 것이 배를 타는 것입니다. 배를 타게 되면 바다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평선밖에 없는데 배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0도를 찾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됩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면 직접 영계와 접촉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찾아오고 싶어하는 곳은 몸 마음이 하나된 그곳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과 하나되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지대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262-293, 1994.08.01) p. 1155

5 육지에서는 바람이 부는 소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사람 소리, 쥐가 다니는 소리 등등 별의별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물소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전부 같은 소리니까 신경에 안 거슬립니다. 멀리 나가게 되면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도 없습니다.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지냐는 것입니다. 수양에 있어서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양은 명상과 훈련의 가정입니다. 정신세계에서는 이것을 화합하는 것이 수양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집에 있지 않고 조그마한 원호프라는 배를 타고 바람이 부는 바다에 나갑니다. 배는

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 자세에서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262-293, 1994.08.01.)

6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낚시하려고 하면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을 때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낙비가 오고 벼락이 치는 환경에서도 낚시를 해봐야 됩니다. 비가 올 때에는 주변의 물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물이 움직임으로써 고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은 억수같이 비가 오는 자리에서 낚시를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276-071, 1996.02.04)

7 아버님이 천승호를 1963년에 지었는데, 미국에 가서 그 전통을 이어서 원호프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투(two) 호프가 아니라 원 호프입니다. 하나의 희망입니다. 절대희마, 절대사랑, 절대유일 가운데서 아버님이 생각하던 사상적 긍지와 그 목적과 방향성 일치, 삼위일체권을 중심삼고 일방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배를 수십년 동안 탔습니다. 아침5시부터 해질 때까지 탔습니다. 여수에 와서 보니까 내가 낮 12시에 나가면 여러분도 따라서 그 시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대에 아버님의 모든 전통을 이어 가야 됩니다. 아버님은 아침 5시부터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가 없는 데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427-207, 2003.12.06)

8 알래스카에서 고기를 잡을 때, 해안경비대가 우리가 새벽같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고 고기잡이를 무슨 훈련같이 한다고 찾아와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탄복을 하면서 칭찬하고 갔습니다. 바다에 가서도 내가 낚시를 제일 잘합니다. 지금 고래를 잡으라고 하면 하루에 몇 마리는 잡을 것입니다. 참치로부터 못 잡아 본 고기가 없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안 잡아 본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정이 훤합니다. (211-062, 1990.12.28) p. 1156

9 세계의 사람들이 아버님을 신비스러운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스러운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행동도 잘합니다. 내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어부 중의 왕어부입니다. '저 사람이 통일교회 교주인데 무엇을 알까?'라고 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감독하면 10년이나 20년 하던 사람들도 감탄합니다. 농장에 가면 농장 일도 잘합니다. 학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님을 만나면 아버님을 보고 더 신비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신비스럽게 만듭니까? 참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205-140, 1990.08.12)

10 낚시꾼들이 물고기와 싸우는 것은 최고의 싸움입니다. 사격수가 사격을 할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격하면 백발백중일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밤에 가만히 앉아서 물결을 바라보고 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구름을 바라보고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하룻밤을 그렇게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지내다 보면 그것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때에도 희비가 많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 '야, 이것이 잡혔구나!'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잡은 것을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내 손을 거쳐서 잡는 것이다. 가만히 두고 보자. 어떤 놈이 나오느냐?'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상 여하에 따라 그 상대적 가치는 천길만길 천태만상의 가치로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152-345, 1963.08.18)

11 바다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바다 밑에 엎드려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 할리벗입니다. 그것은 엎드려서 먹고삽니다. 눈이 안테

나같이 튀어나오고 바다 밑창에 살기 때문에 꼭 이끼 낀 바위덩어리 같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으니 조그만 물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모이는 것입니다. 할리벗은 몸을 비틀어서 그 고기들을 잡아삼킵니다. 엎드려서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낚시에 걸려 끌려오면서도 '세상에서 나를 누가 건드려?'라고 하면서 꿈쩍도 않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하는 식입니다. 그런 할리벗이 아버님에게 벼락을 맞았습니다. 코디악에서 80파운드 이상 나가는 것을 잡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아버님이 200파운도, 300파운드짜리 할리벗을 잡게 된 것입니다. (206-274, 1990.10.14) p. 1157

12 아버님은 연어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연어는 용감합니다. 오대양을 누빕니다. 물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먹을 때 익혀 먹든가 조미료를 넣어서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란 종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랑 때문에 연어를 좋아합니다. 4년 내지 6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맞추어서 돌아오느냐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약속한 듯이 2주일 이내에 암수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본연의 에덴동산을 떠나서 6천년 세월을 거치고 다시 돌아와 사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어는 새끼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사랑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귀섭리에 있어서 통일교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통일교인은 사랑의 종족입니다. (248-064, 1993.06.20)

13 참치 철이 되어 바다로 나가면 모여 있는 500척의 배들이 전부 경쟁자 같이 느껴집니다. 나 혼자 낚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폭풍경보가 내렸는데도 바다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다에 나갔습니다. 가는 길이 가깝지 않습니다. 2시간 이

상 걸리니까 밤 1시에 떠납니다. 4시에 도착하려면 1시에는 떠나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곱절이 걸리기 때문에 밤 12시에 출항했습니다. 생애노정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재료는 억천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날씨니까 바다에 나와 있는 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낚싯줄을 내리자마자 고기들이 와다닥 물었습니다. 수많은 배에서 내리던 낚시를 하나밖에 없으니 굶주린 고기떼가 달려들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줄을 들이대니까 째까닥 물었던 것입니다. 폭풍우야 몰아치겠으면 치고 말겠으면 말고, 내가 폭풍우를 아랑곳합니까? 그저 땀을 흘리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233-306, 1992.08.02)

14 낚시를 넣으면 다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고기들이 노는 수온이 다릅니다.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고기들이 노는 수온이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수면으로 나올수**록** 수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고기들이 수면에 사는 것입니다. 해수의 온도에 따라서 고기들이 이동합니다. 고기는 종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언제나 옆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낚시를 하려면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어도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안 되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아버님은 수온에 맞춰서 낚시를 합니다. 수온이 어느 정도인 곳에는 어떤 고기가 있는지 압니다. (263-138, 1994.08.21) p. 1158

15 우리 같은 사람은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가 있는 데를 압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고기들이 먹을 것을 찾아 다닙니다. 그다음에 점심때에는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것입니다. 수심이 깊으면 안 됩니다. 한곳은 깊고 한 곳은 평평해야 됩니다. 고기들은 숨기 위해서 깊은 데로 도망을 갑니다. 수심이 얕은 곳으로 나와

서 놀더라도 평평한 데 나와서 높니다. 오전에는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또 먹을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수면을 봐서 '여기에는 어떤 고기가 있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21-084, 1991.10.23)

16 낚시를 한다면 지금 내 낚시가 수면에서 몇 미터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밑바닥에서 1피트 정도가 물고기가 먹이를 잡아먹기에 좋은 곳입니다. 먹고사는 것이니까 2피트를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낚시를 드리워 놓으면 매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줄을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들면 들이채야 됩니다. 그것이 기술입니다. 다랑어는 바다에서 자기가 천하제일인 것같이 자유롭게 사는 어류인데 그 조그만 미끼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221-082, 1991.10.23)

17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가 밑바닥 가까이에 가야 합니다. 고기 중에 뛰는 놈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큰 놈은 안 뜁니다. '뛰어서 뭘 하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낚싯대를 드리워서 낚시를 밑바닥에서 한 뼘 정도 띄워서 냄새를 피워 놓으면 고기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고기가 헤엄치려면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수평으로 가는 데에 걸리지 않게끔 한 뼘 이상 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낚시를 던지면 틀림없이 큰 놈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잡은 연어가 15.3파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잡은 연어들 중에서 제일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뜰채로 그것을 떠 올려야 할 텐데 석양에 햇빛이 비치니까 고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뜰채 안에 3분의 2가 들어가 있고 대가리만 내놓아도 뛰쳐 나오는데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줄이 끊어집니다. (205-322,

1990.10.01) p. 1159

18 낚싯줄은 길이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낚싯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줄이 길고 낚시가 멀리 갈수록 깊은 대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낚시꾼이라면 조그만 것이 톡톡 물어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너는 무는구나! 너희들 떼거리로 자꾸 모여라.'라고 기다려야 제일 큰 놈이 먼 데서 옵니다. 그 먼 데 있던 큰 것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님은 낚시를 곧잘 합니다. 40일 이상 밤낮으로 낚시를 해봤습니다. (152-033, 1963.03.03)

19 사냥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총을 쏘아서 동물을 잡기 때문에 도의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낚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와서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는 다섯 살부터 죽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낚시는 아무리 챔피언이더라도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 지방마다 물고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잡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지방의 방식으로 안 하고 자기 혼자만의 방식으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안 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낚시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어디에 가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고기라도 먹는 것이 장소에 따라 다르고, 낚시하는 사람이 무슨 미끼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는 다 배워야 합니다. 만국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에 대한 재미도 다양합니다. (252-206, 1993.12.30)

기아 해결을 위한 낚시 교육

참부모님께서는 아프리카의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낚시와 사냥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하늘에 바쳤듯이 참부모님께서 낚시와 사냥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백년 천년 후에도 세계 만민이 참부모님께서 낚시하시면서 쏟은 정성과 이루신 해양섭리의 실적, 그리고 그 심정을 **상**속받아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골고루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전형을 만들고자 하셨다. (p. 1160)

20 열대지방에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낚시를 못하면 안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고기잡이를 가르쳐 줘야 하고, 사냥해서 살아남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동물을 잡는 것은 통일교인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낚시와 사냥을 배우면 이제 팀을 만들어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냥 선교를 보내고 낚시 선교를 보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함으로써 이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낚시하고 사냥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262-255, 1994.08.01)

21 낚시는 간단합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도 여자들이 바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촛불에 바늘을 달궈서 낚싯바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다 만들어서 했습니다. 낚싯줄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론 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낚싯줄은 명주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는 납덩이를 잘라서 매달고 찌는 수수깡을 잘라서 매달면 됩니다. 그래서 미끼를 꿰어서 낚싯대가 없어도 던져 놓게 되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진장한 것이 고기입니다. 고기는 물이 있으면 어디든 있으니 문제없습니다. 부인들이 낚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낚시를 안 할 수 없고 사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263-045,

1994.08.16)

22 굶어 죽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제3세계의 사람들은 낚시를 할 줄 몰라서 죽는 것입니다. 낚시만 하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물이 있고 호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무진장입니다. 그러니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양식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일을 벌써 아버님이 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실만 있으면 됩니다. 바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촛불을 켜 놓고 바늘을 달궈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낚시를 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아기 열 명을 먹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키만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적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262-103, 1994.07.23)

23 세계에서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 죽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버님이 낚시하는 것이 좋아서 낚시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를 바라보면서 대양을 건너 그 2천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피살을 투입해서라도 살려 줄 수 있는 길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바다를 통해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바다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팔십 노인이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을 아껴서 낚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전부 핑계를 대고 도망하려고 하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낚시하러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쉬는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갑니다. 아버님이 통일교회 책임자들과 그런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 그 땅은 앞으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낚시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면 그것이 후대에

세계 구도의 길을 확장하여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봅니다. 백년 천년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78-319, 1996.06.23)

24 여러분 선교사들도 사업 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세계에서 2천만 명이나 굶어 죽어 가는 생명을 살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는 데서는 농사 방법, 물이 있는 데서는 양식법을 가르쳐 주어서 굶어 죽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부인들과 아이들이 낚시를 할 줄 알면 왜 굶어 죽습니까? 물이 있고 물고기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낚시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또 사냥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악어니 뭐니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관광수렵연합회도 세계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굶어 죽는 세계 사람들을 참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전 세계 인류가 형제인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해 2천만 명이 통일교회 교인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통일교회가 주도해서 세계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농사짓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을 한시라도 빨리 배우라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전수받아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253-109, 1994.01.09)

4절 해양자원 개발과 인류 식량문제 해결

해양사업에 대한 참부모님의 비전

참부모님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해양을 미래 인류 생활의 중심지역이며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해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 특히 인류의 미래 생활공간은 바닷속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셨다. 그래서 해양호텔, 수중주택, 어장빌딩 등 해양시대에 대비한 여러 구상을 말씀하셨다. 또한 북극원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고 북극지방에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해양관광산업과 취미산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셨다. (p. 1162)

1 앞으로 육지는 사람으로 꽉 차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바다에서 사는 시대가 불원한 장래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계의 해양기지만 확보하게 되면 세계의 모든 문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계의 해안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6-327, 1982.01.02.)

2 바다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물세계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고차원의 영양을 가진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양식하고 판매하는 시장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양산업시대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아버님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도 했고 거기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세계로 확장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460-113, 2004.07.15)

3 해양에는 물고기를 비롯해 무진장한 자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의 고기를 가공해서 팔기를 원하는데 팔 곳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원하는데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고기를 잡아서 일본에 파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고기가 필요하고 미국은 일본 기술이 필요하니 서로 합작해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결혼시켜서 미국과 일본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합작으로 투자할 때 미국에서는 미국 남편이 사장이 되고 아내가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게 된다면 부사장 하던 아내가 사장이 되고 미국인 남편이 부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작투자는 그냥 그대로 됩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와서 싸움을 못합니다. 누가 타고 들어와서 해먹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6-250, 1986.07.01) p. 1163

4 수산자원은 무한합니다. 일반 자원, 원자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본래 먹이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고기들은 큰 고기들에게 잡아먹힙니다.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많게는 50만 개 이상을 낳습니다. 이 알이 자연상태에서 부화하게 되면 잡아먹혀서 1퍼센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백 퍼센트 부화시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이는 풀을 가루로 만들어 뿌려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아먹지 않게 해서 원자재를 무한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그런 것이 많으면 양식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고기를 기르면 한 집의 살림살이는 간단합니다. 200편이면 한 집이 먹고살 수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기르면 식량이 됩니다. 고기에 영양이 많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294-175, 1998.06.14)

5 금후에 육지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때는 지나갑니다. 수중자원을 누가 세계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기술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해양세계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무한한 원료의 근본지가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닷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바다 양식을 해야 됩니다. (126-202, 1983.04.19)

6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앞으로 땅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날에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무엇을 잡아먹든가 해야 됩니다. 바다를 중심삼고 살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1973년부터 배를 산 것은 앞으로 수산사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동부의 어장이 어떻다는 것을 대개 조사했고, 사업계획이 어떻고 앞으로 해운산업의 법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

습니다. (088-179, 1976.08.10)

7 앞으로 해양세계를 누가 점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다는 무한합니다. 그런 바다를 점령하고 모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옷을 맞춰 입고 산소통만 지고 다니면 한 달 동안 아무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89-294, 1989.06.17) p. 1164

8 사람은 누구나 좋은 데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수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멋진 장소입니까? 아파트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잠수정입니다. 단추만 누르면 시원한 데로 내려갑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별의별 고기가 다채로운 춤동작을 하고 천천만만 색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기에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영계에 가기 전에 그런 데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217-212, 1991.06.01)

9 이제는 사람이 사는 빌딩보다 어장빌딩을 만들게 되면 부자 중에 그런 부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도 분산화해야 됩니다. 도시에서 살면 인분이나 소변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연에서 살게 되면 아무 곳에서나 그것이 거름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소변도 거름이고 인분도 거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분산화를 위해서 어디든지 자체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히 산악지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산악지대에만 있으면 사는 것이 지루하니까 바다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잠수정을 연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 30미터 아래로 들어가면 태풍이 불어도 고요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30미터 아래로 들어가면 풍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미터 이하, 100미터 이하라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반사경으로 바다 풍경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중에서도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때 필요한 것만 달고 다니면 됩니다. 어디에는 어느 급의 고기들이 잘사니 거기에서 한 달 살고, 한 10미터쯤 올라와서는 어느급의 고기가 잘사니 거기에서 한 달 살고, 이렇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중생활시대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236-310, 1992.11.09)

10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북극 개발입니다. 만년설 땅 밑창에 만년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문화도시를 만들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올 것입니다. 대학교 같은 것도 지하에 3분의 1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면 난방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료를 안 때더라도 학생이 몇 십 명만 들어가면 자연히 열이 나게 됩니다. 사람 몸의 열이 37도입니다. 보통 10도만 되면 되는데, 37도니까 몇 명만 지하에 있으면 열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들어가게 되면 대번에 전체가 훈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현대문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생활 형태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최고의 이상적인 세계를 향하여 체제 혁신을 다짐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36-311, 1992.11.09) p. 1165

11 아버님은 현재와 같은 수산사업시대는 지나간다고 보고 있습

니다. 앞으로는 양식을 하고, 수산사업에 종사하더라도 관광과 취미를 겸하지 않고는 일생을 걸고 이 사업에 종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은 돈과 원자재가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인맥,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산사업을 자기 천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시대·장년시대·노년시대도 바다가 좋고, 자기가 죽으면 아들딸 손자손녀들에게도 바다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62-238, 1994.09.01)

12 장래에는 레저산업이 상당히 발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이 스트레스를 푸느냐? 아버님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냥, 하나는 승마, 그리고 낚시입니다. 사냥이나 승마를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승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계층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냥도 40세 전후까지만 할 수 있지 50세만 넘어도 힘들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특정 계층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는 소년시대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낚시사업은 세계적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07-123, 1990.11.01)

13 취미산업은 취미를 목표로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하지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다들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선취권을 쥐는 것이 세계의 금융계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평화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바다에 대해 수십년 동안 계획해서 지금까지 해양산업의 모든 것을 개척해 나온 것입니다. (252-210, 1993.12.30) p. 1166

14 앞으로는 바다에서의 취미산업과 더불어 농사도 취미농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노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노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같은 데에 한 200평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취미농업을 해서 먹고살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슴 같은 짐승도 길러서 놓아주고, 물고기도 길러서 놓아주고, 그다음에는 곡식도 자연에 인공을 대입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재생시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뤄 모든 면에서 서로서로 돕고 살면서 취미를 가지고 살다가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집중의 사회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252-210, 1993.12.30)

15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태평양 바다 가운데 쇠기둥을 박고 호텔도 만드는 것입니다. 헬리콥터의 기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버튼만 누르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세 시간쯤 날아가는 것도 지루합니다. 한 두어 시간씩 가다가 해상호텔에 가서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있게 태평양에 호텔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쯤 가서 점심을 먹고, 가족들과 배를 타고 낚시도 하는 것입니다. (203-058, 1990.06.14)

16 이제부터 소형 비행기시대가 오고 자동차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경치가 좋은 데는 큰 도시가 아닌 깊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날아가서 개인 풀장을 만들고 낚시터를 만들어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빌려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님은 비행기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해군 함정 같은 큰 배에 잠수정 몇 십 척, 소형 헬리콥터 몇 십 대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배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배에 실려있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먼저 이동해서 낚시를 하다가 배로 돌아오고, 또 작은 배로 먼저 섬 같은 곳에 건너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도 갈 길을 알면 일주일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배를 타고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사무를 볼 수 있고 여행하면서도 일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276-032, 1996.01.02) p. 1167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과 실천

참부모님께서는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대량으로 양식해 식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물고기 대량양식사업을 추진하셨다. 육지에서도 물고기 대량양식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것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 특히 물고기를 가루로 만든 고단백 식량인 피시파우더(어분)를 개발하고 알래스카 코디악에 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셨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남극에 있는 크릴새우를 잡아 파우더를 비롯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저개발국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셨다. 이 사업을 위해 크릴새우를 잡을 수 있는 배와 크릴새우를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판매조직을 모두 갖추셨다. 통일교회의 세계적인 조직망은 저개발국가에 크릴새우 파우더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17 지구의 3분의 1이 육지이고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풀도 바다에서 나는 풀은 대개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지의 풀과 나무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는 육지에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바다소도 있고, 바다말도 있고, 바다사자도 있고, 바다호랑이도 있고, 바다뱀도 있습니다. 또 고기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육지 고기나 먹지 바닷고기는 냄새 난다고 먹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즈음 오래 살겠다고 해서 자연식품을 좋아한다는 것

입니다. 요전에 내가 마이애미에 가서 소 한 마리에 얼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25달러에서 70달러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뉴욕 같은 데에서는 400달러입니다. 그런데 참치 한 마리는 4천 달러나 나간다는 것입니다. 참치는 한 마리가 새끼를 150마리 이상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는 새끼를 1년에 한 마리를 낳습니다. 그러니 바다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참치 한 마리만 잡으면 1년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8-215, 1980.10.05) p. 1167

18 장래 식량문제의 해결책은 바다 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를 먹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반을 세계적으로 닦기 위해서 누가 돈 한 푼 안 내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싱 스포츠, 피싱 트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상류층 사람들을 전부 묶어서 그것을 하려니 방대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려니 내가 전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어디 바다에 어떻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관광낚시를 전부 코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가더라도 사흘이면 노는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면 무진장입니다. 무한한 비밀의 세계, 무한한 어족을 중심삼고 상대하게 되면 휴가철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참 매력적인 것입니다. 배를 세우고 낚싯대를 바다 밑바닥으로 늘어뜨려 보라는 것입니다. 대어가 올라오면 기가 막히게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217-172, 1991.05.26) p. 1168

19 인류에게는 태초부터 세 개의 적이 있습니다. 기아와 질병, 그리고 인간의 무지입니다. 세계 민족들은 그러한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문제들은 아프리카·중앙아메리카·남아메리카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장차 대양의 자원들을 산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업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큰 어선의 건조부터

어획도구와 어장 건설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미래에 바다는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 개척이야말로 우리 세계에서 기아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193-327, 1989.10)

20 앞으로 인류의 식량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국에 기지를 만들기 위한 해양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양식문제를 중심삼고 세계를 다니면서 교재를 만들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개발해야 됩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데는 내가 챔피언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고기를 잘 먹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교육하려면 바다에 한번 두 번 데리고 나가서 밑천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무궁무진해야 됩니다. 무슨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다는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190-021, 1989.06.18)

21 참부모가 지상에 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양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중심삼고 툰드라 대평원, 시베리아 평원, 얼음에 싸인 북극권에서 앞으로 인류의 식량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상재배를 전문화해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교섭을 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몇 천만 명을 투입할 수 있는 기지가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우선 온실을 통해서 과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와 농산물 생산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218-084, 1991.07.02)

22 앞으로 조그마한 빌딩 하나만 만들어서 양식을 하면 수십만

평의 목장에서 소를 길러서 팔거나 우유를 짜서 파는 것보다도 몇 십 배의 이익이 남습니다. 지금은 바닷물을 어디에서든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몇 백리, 몇 천 리가 되는 곳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파이프만 깔아 놓으면 물은 어디에서든지 끌어 댈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바닷물을 끌어다가 산골짜기에 양식 빌딩을 지어서 어떤 물고기든지 양식할 수 있습니다. 수십 층 빌딩을 지어 놓고 양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앉아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먹이도 줄 수 있고, 다 큰 고기는 자동적으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6-350, 1990.10.14)

23 물고기 양식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을 부화해 몇 개월 동안 기른 뒤 비닐봉지를 넣고 구멍을 뚫어 비행기에 싣고 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에 떨어뜨려 놓으면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계에 양식장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옵니다. 알래스카에는 2만 평 이상의 호수가 300만 개나 있습니다. 이 2만 평의 호수에다 고기를 양식하게 되면 200세대, 300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호수가 300만 개라면 6억 이상의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호숫가에 양식장만 만들면 아프리카 사람 6억5천만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271-039, 1995.08.15.)

24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다를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춘하추동에 따라 그 지방의 온도, 그 물에 맞는 물고기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생활을 중심삼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공적인 뜻을 중심삼고 그러한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392-314, 2002.09.25) p. 1170

25 아버님은 알래스카에 가서 킹새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킹새먼이 연어과인데 연어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 중에서 최고의 고기가 킹새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만 낳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지었겠지만, 이제는 어머 연어가 새끼들의 먹이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연어가 죽지 않고 바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알을 까게 되면 인류를 먹일 수 있는 식량 중에 이렇게 편리한 식량이 없습니다. 양식하는 데 가게 되면 점심은 문제가 없습니다. 점심도 그렇게 맛있는 점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치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킹새먼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요즈음 공해문제가 심각한 데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문제가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 전부 생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래 인류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책으로는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의 원자재인 알은 무진장입니다. (233-050, 1992.07.20)

26 아버님은 수십년 전부터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산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분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단백 식품인데 어떤 동물에도 없는 영양분입니다. 그렇게 가루로 만듦으로써 보관과 운반이 편리해집니다. 그것은 98퍼센트가 단백질입니다. 지금까지 선진국가가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96-228, 1998.11.10)

27 캐나다로부터 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양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바다에서 잡는 고기의 상당 부분을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그 대부분을 전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는 것을 모아 가루로 만들어 사람이 먹

을 수 있는 영양제로 만들어 저개발국가들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서 전 세계 저개발국가 사람들이 통일교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95-111, 1998.08.18)

28 금후의 세계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기근입니다. 그러니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남미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없습니다. 여기 남미에서는 1헥타르 정도는 어디서든지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3천 평 정도는 누가 파고 심더라도 말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계선에는 많은 땅이 공지로 되어 있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것만 개간하더라도 여러분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문제, 양식문제입니다. 육지의 음식만 가지고는 고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물고기 양식을 해야 됩니다. 물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1-092, 1997.01.02) p. 1171

29 제3세계의 사람들은 아버님이 자기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자르딘에 농장을 만들고 어분 공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님의 편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계의 난민들에게 우리가 어분을 공급해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할 때에는 많은 인류가 통일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놓는다면 참부모의 위대함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통일교회 후손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가 자르딘을 찾아와 고기를 양식하여 인류를 살리기 위해 수고한 그 공적의 터전을 중심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77-143, 1996.04.07)

30 남극 바다에 가서 크릴새우를 잡아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류 앞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 3분의 2의 사람들은 앞으로 통일교회 말씀과 해양섭리를 중심삼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명을 지나서 희망의 태양이 올라올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339-110, 2000.12.07)

31 남극 바다에는 크릴새우가 무한히 있습니다. 인류의 식량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크릴새우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급히 잡아 가루로 만들어 185개국에 조직 편성을 해서 판매하느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메시아는 그 나라의 아벨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이상 필요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손해만 안 볼 수 있도록 조직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조직을 얼마만큼 세밀이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88-179, 1997.11.27) p. 1172

32 크릴새우를 잡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것을 가루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건강식품으로 파는데, 우리가 대량생산해서 30분의 1의 가격으로 팔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 4척이 크릴새우를 잡으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오지의 굶어 죽는 사람의 절반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자기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어분 만드는 공장을 부대시설까지 갖추어 우루과이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85개국의 선교부가 나라와 협조하고 국가의 힘을 통해서 판매시장을 닦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후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반을 중심삼고 어분을 들여오게 되면 그 국가와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닦는 것입니다. (291-121, 1998.03.05)

33 어분 얘기를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어분을 만들기 위해 아버님이 7천 톤급 배 4척을 구입하여 남극의 크릴새우를 잡는데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식량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아버님이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저하다가는 그들과 경쟁이 벌어집니다. 세계 연합전선을 통해서 거부들이 이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나오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와닥닥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5개국의 국가메시아 가운데 네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내세우고 거기에 세 사람씩 붙여서 이 사업을 위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289-126, 1997.12.30)

34 낚시 밑감을 연구해야 됩니다. 밑감을 파는 것이 무서운 장사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장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분을 만들고 있는데, 크릴새우에는 사람에게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기에도 최고의 낚시밑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10단계 20단계로 나누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서 냄새나기 전의 고기도 갖다가 밑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고기도 있습니다. 천만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밑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남미의 빠꾸라는 고기도 먹는 것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살로브라강에서는 고무나무 열매를 밑감으로 씁니다. 물고기가 고무나무 열매는 물어도 게는 잘 안 뭅니다. 그런데 판타날의 아메리카노호텔이 있는 데서 낚시를 해보니까 고

무나무 열매는 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따라 먹는 것이 다르니 수십 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단백 크릴새우를 밑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13-173, 1999.11.29.) p. 1173

35 인간이 바닷물고기의 밑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다른 고기에 비타민과 같은 여러 성분을 배합해서 밑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물고기가 먹는 먹이에 따라 고기를 구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이의 종류에 따라 고기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교회가 이 어분을 만드는 데 기록을 깼습니다. 남극의 크릴새우는 크기가 작습니다. 거기에서 영양소를 빼서 식량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식량화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남극의 크릴새우 5억 톤이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산업계를 통해서 잡는 것이 1억 톤 정도입니다. 5억 톤의 크릴새우가 매해 죽어 가니 이것만 잡으면 인류를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펭귄이라든가 바다사자라든가 물개가 많이 사는 것입니다. 조금만 먹거나 한 끼만 먹어도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54-283, 2007.02.07)

36 아버님이 해양산업을 중심삼고 남극이든 북극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극 바다에 가서 크릴새우를 잡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그것을 식량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해양산업가운데 통일교회의 남극 크릴새우 사업은 세계의 최첨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7천 톤급 2척으로부터 시작해서 5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척까지 늘어나게 되면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세계의 영양 결핍자들에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는 것입니다. (337-024, 2000.10.17)

37 우리가 배를 한 척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배 한척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보스톤에서 가까운 글로스터에서 출발한 수산사업이 알래스카를 넘고 남미를 넘어서 남극에까지 진출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반대받는 가운데서 해양을 개척하여 이제는 세계가 무시할 수 없게끔 자리 잡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산사업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해양산업의 개발을 위해서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제는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해양산업 발전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큰 선박 5척을 만들어서 그냥 죽어 가는 남극의 크릴새우를 잡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해양산업을 개발하는 국가와 회사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서 가까운 글로스터에서 시작해서 아버님이 그런 기반을 닦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344-034, 2001.03.01) p. 1174

5절 해양지도자 양성과 세계낚시대회

해양지도자 양성을 위한 수련

참부모님께서는 인류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삶의 터전으로 해양을 지목하고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 특히 해양지도자 양성을 위해 특별수련회도 개최하시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낚시대회도 주재하셨다. 해양훈련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깊은 명상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고 담력을 기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의 수산자원을 개발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특히 섭리적으로 어머니 국가인 일본 여성들을 해양지도자로 훈련시켜서 태평양문명권시대에 대비하셨다. 2004년 11월부터 68차례에 걸쳐 청해가든을 중심으로 여수·순천지역에서 40일 동안 진행된 해양지도자 수련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일본 출신 여성들이 참가하였다. (p. 1174)

1 바다에는 연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신비로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 때는 아무리 세상의 높은 데라도 히말라야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정까지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대기나 그 주변의 산에 있는 초목이나 동물까지 조사하면 다 알 수 있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에베레스트산 높이보다도 더 깊은 곳이 있는데, 제일 깊은 거기에 세상의 귀하지 않은 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귀한 것만 남아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1만1천 미터 이상의 깊은 바다 가운데에 에베레스트산이 있는 히말라야산맥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양수 가운데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이 바다에서 기원이 되어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만든 비밀의 장소인 바다에 제일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511-112, 2005.10.11.) p. 1175

2 바다에 대한 훈련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훈련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프리카라든가 미개 지역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이 있는 데에는 물고기가 있고 짐승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이 있으면 채소니 뭐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짐승도 있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면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동물과 물고기가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는 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후진국에 대해 선도적인 책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유치원 선생, 초등학교 선생, 중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수준을 올려 주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살려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낚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60개 국가에 배를 네 척씩 다 나눠 주서 그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머리가 깨어나지 않아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444-191, 2004.04.04)

3 신앙생활을 하는 데 제일 깊은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낚시입니다. 새벽에 강에 나가 별을 바라보면서 낚시할 때에는 깜깜하니까 물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는 낚싯줄을 잡고 있거나 낚싯대를 잡고 있으면 물었는지 압니다. 본격적으로 물고기가 무는 것인지 와서 건드리는 것인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깜깜한 가운데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손 감각을 중심삼고 미끼를 낚시에 꿰어서 밤에 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도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조그만 비옷을 입고 젖지 않게 하기 위해 감싸고 앉아 있으면서도 낚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은 낚시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낚시를 **할** 때에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을 중심삼고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391-129, 2002.08.20) p. 1176

4 알래스카는 여름이면 밤이 없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해가 진 다음에는 어두워지는데 거기는 7시, 8시쯤 되어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잘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고 바다가 좋아서 나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바다를 좋아할 게 뭡니까? 누구나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배를 안 탈 텐데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내가 전수하지 못하고 죽으면 다 스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수했다고 해도 계속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배치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만두고 남자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도 같이해야

됩니다. (294-177, 1998.06.14)

5 내가 1992년 코디악에 있었던 세계지도자교육 기간에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2시 이전에는 자지를 못했습니다. 수련생들을 낮에 데리고 나가서 밤에까지 훈련했습니다. 훈련을 할 때에는 바다에 나가서 한 것입니다.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물고기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 훈련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 책임자에게 그날 날씨를 알아 오라고 하면 바람이 부는 것은 기록해도 비가 오는 것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 비 오는 것은 안 적느냐?'라고 물어보면 , 비 오는 것은 아무리 적어 봤자 몇 년째 한 번도 거기에 따라서 실천을 안 하니까 적으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을 세웠습니다. 비야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배를 타는 데에 문제가 되지만 비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큰 배들이나 못 나가지 우리 자그마한 배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물고기를 잡는 것에 맛이 들립니다. 한번 그 맛이 들리면 또다시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것이 매력적인 일입니다. (236-030, 1992.11.02)

6 태평양 넓은 바다에 배를 타고 수련생들을 데리고 가서 롱라인 낚시를 하면서 교육합니다. 아침에 하게 되면 점심때를 넘기면서까지 같은 속도로 달려가서 낚시를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어니 무엇이니 어떤 고기든 다 걸립니다. 황새치니 삼치니 참치니 안 걸리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 밑감을 무엇으로 쓰느냐 해서 밑감을 내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못 잡는 바다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은 제일 물살이 센 곳입니다. 거기에도 배를 보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해서 후대 자산으로, 해양산업의 전통적 교과서를 만

들 수 있는 자료로 남겨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23-320, 2003.11.02)

7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왔는데, 하와이와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까지 묶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일본 군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부인을 맞아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일본 나라가 구해 줘야 되겠습니까,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일본 나라가 그것을 안 하니까 통일교회 사람이라도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일본 통일교회 사람들을 내 보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통일교인들을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버님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식구들을 동원해서 어머니 대신 교육도 하고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똑똑한 여자들을 뽑아서 바다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들이 바다의 용사가 되어 그 아들딸들을 구해 주기 위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버린 자기 동족을 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동원돼서 학교 선생을 하고,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는 데 챔피언이 되어서 먹고살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권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337-144, 2000.10.25)

8 일본의 젊은 여자들을 하와이에 투입해서 하와이와 일본을 중심삼고 세계 62개 도서국가를 연합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배 훈련을 비롯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앞으로 도서국가에 가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어머니 대신 그 나라의 대통령과 고위층 사람들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들을 많이 배치한 것입니다. (362-120, 2001.12.09)

9 한국인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프타운과 같은 아프리카 남단도 개척해서 세계의 최첨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아버님입니다. 일본 여자 식구들에게 해양권을 사랑하는 최고 훈련을 지금 여수·순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본 여자 식구들이고, 그것이 해와 국가 해방에 제일 가까운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세계 선교에 나간 일본 여자 식구도 전부 여수에 와서 훈련을 받도록 아버님이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에 시집온 일본 여자 식구들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통일교회 여자 식구들이 이 여수·순천 바다에 와서 한국의 물과 산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국인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본 식구들이 정성을 들임으로써 일본 민족의 미래 해방권이 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연결하여 밤 세계를 낮 세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평생에 걸쳐 일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낮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밤의 세계도 일본 나라가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93-289, 2005.04.26) p. 1178

10 선원의 부인들로서 고생해 온 일본 여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선원 부인의 사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어머니 세계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아버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일본 여자들을 데려와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일본 여자들이 수련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 전부를 세계적으로 수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한국에 시집온 부인들이 수련을 하지 않고 남았다고 한다면 자기 체면을 세우고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 시집온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수·순천의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고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493-338, 2005.04.27)

11 내가 바빠하는 것은 해양권을 빨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자들에게 40일, 72일, 120일수련을 한꺼번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사람 몸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그러니 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공기도 물 때문에 있고 생명 때문에 있습니다. 여수에서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은 72일수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일수련을 **할** 것입니다. 120일만 수련하면 배에 대해서 대충 다 압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대양에 대한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됩니다. (531-159, 2006.07.03) p. 1179

12 앞으로 수련하는 일본 부인들이 해양세계의 어머니들이 될 것입니다. 출동명령을 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보따리를 싸서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을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 여성입니다. 이제 이들은 대장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네에 가서 한국 남자를 동원하여 평화의 경찰관, 평화의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522-207, 2006.03.29)

낚시월드챔피언컵대회

참부모님께서는 세계 낚시인들의 친목 도모와 낚시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2001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27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스포츠 낚시월드챔피언컵대회를 개최하시고 대회 기간 중 세계스포츠낚시연합을 창설하셨다. 이 낚시월드컵은 한국 여수와 대만 타이베이, 호주 골드코스트, 스페인 마르베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연례적으로 열렸다.

13 앞으로 낚시 올림픽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낚시

를 하는 사람들이 4억 명입니다. 낚시는 다섯 살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나 재미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 올림픽대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신문사가 있고 UPI통신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중심삼고 낚시대회를 선전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결혼식을 인공위성으로 통해 세계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낚시대회도 얼마든지 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땅끝 마을에 사는 사람도 거기에 우리 책임자가 있어서 관리만 하게 된다면 고기를 잡아서 낚시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낚시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0-291, 2001.08.18)

14 한·미·일 3개국 대표 120명을 모아서 참부모님 성혼 40주년 기념 낚시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경연대회를 하면 국가 대표로 나서기 때문에 국경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고 나서는 싸우기 전보다도 더 하나될 수 있는 기풍을 닦아야 됩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역사적을 볼 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원수 입장이었지만, 여기에서 낚시대회를 하고 난 후에는 그러한 벽을 차버려야 됩니다. 이 대회를 미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세계 185개국 우리 기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해야 됩니다. 한 곳에서 춘하추동 1년에 4번씩 하는 것입니다.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마다 낚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331-128, 2000.08.31) p. 1180

15 평화유엔과 평화왕국을 위해서 낚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땅이 원하는 평화왕국과 하늘땅이 원하는 평화유엔을 만들어 해방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낚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0월 21일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피스컵대회도 그런 의미에

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수·순천에서 오래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제 여기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폭발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낚시대회를 시작하니만큼 시민들이 잘 협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유엔과 평화왕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낚시대회와 같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폭발적인 기원을 세움으로써 세계가 후원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평화유엔과 평화왕국을 위한 세계에 없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수·순천사건 이상으로 하늘의 큰 폭발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피스컵낚시대회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22-075, 2003.10.21)

16 아프리카 선교사들도 알겠지만, 아프리카의 어머니들이 나같이 낚시만 할 줄 알았으면 절대 아들딸을 굶어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많고,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고,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든지 강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만 잡으면 큰 것은 일주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악어 한 마리만 잡으면 한 달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마는 1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냥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관광수렵연합회와 낚시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물과 땅이 있으면 됩니다. 땅에서는 농사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그것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사짓는 법도 안 가르쳐 주고 착취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텍사스 농장을 만들고 낚시터를 만들고 농사짓는 방법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54-305, 1994.02.16)

6절 신공법 선박건조와 조선사업

원호프와 천정호

참부모님께서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1963년 6월 26일 처음으로 어선인 '천승호'를 진수한 데 이어 가라앉지 않는 배 '천승호'를 진수한 데 이어 가라앉이 않는 배 '원호프'를 건조하셨다. 원호프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낚싯배로 공인되어 명성이 높았다. 참부모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석고몰드 신건조공법을 개발하셔서 이 공법으로 배를 만드는 '마스터마린조선'이라는 선박회사를 한국 목포에 설립하셨다. 2011년 2월 17일 석고몰드 공법과 유리섬유 재질을 이용해 처음 건조한 '천정호' 진수식을 여수에서 거행하셨다. 이 새로운 선박건조기술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셨다. (p. 1181)

1 원호프는 바다의 일등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배들은 길이가 30피트에서 50피트가 되는데 크고 호화롭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원호프라는 우리 배는 작지만 빠릅니다. 쉬쉬쉬 하고 달려가니까 다들 조그만 배가 온다고 우습게 보고는 '위험한데 저것 죽으려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70-064, 1995.05.04)

2 수산사업은 역시 아버님이 아니면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물도, 배도 아버님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호프라는 것은 참 유명한 배입니다. 그 배는 물결을 잘 타기로 아주 유명한 배입니다. 소형 낚싯배로는 세계에 그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계해서 9년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촌사람들은 물결만 봐도 잡아먹을 것 같으니 으르렁거리는 사자보다도 바다를 더 무서워합니다. 배 밑바닥이 문제입니다. 밑바닥에 구멍이 뻥 뚫리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 무서움을 극복하게 하려니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에는 배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뜨기 때문에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206-346, 1990.10.14)

3 해양권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인 아버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원호프라는 배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장병 7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조사했는데, 원호프가 세계의 기록적인 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도 공인할 수 있는 패권 자리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우리 조선회사가 유럽으로부터 수주해서 320미터 이상 되는 배를 만듭니다.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609-292, 2009.04.09) p. 1182

4 유리섬유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소재로 쾌속정 같은 배를 만드는 것을 정부에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통일을 위해 개방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쾌속정도 지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원호프 같은 빠른 배를 건조해서 팔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배를 한국에서 우리가 처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들면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나 일본까지 망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형선박 건조 분야는 아시아에서 패권을 쥘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62-264, 1994.04.09)

5 우리가 타는 원호프는 대양을 건널 수 있는 멋진 배입니다.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모험을 합니다. 바다 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배입니다. 배 타기를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대서양 보스턴의 글로서터에서 참치잡이를 개척할 때 이 배를 타고 한 것입니다. 그 세

계에서 내가 챔피언입니다. (538-325, 2006.09.18)

6 원호프는 별스러운 배입니다. 바람이 불어 큰 파도가 치더라도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태평양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원호프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꺾으면 바로 돕니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버님이 압니다. 유리섬유로 만들면 배가 백년 이상 갑니다. 공장에 들여 놓고 청소만 하고 미비한 곳을 보강한 뒤 칠만 하게 된다면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544-097, 2006.11.08)

7 내가 배를 수십년 동안 탔습니다. 매일 배를 타고 앉아서 그 배가 어떻게 달리는지 보는 것입니다. 배가 앞이 들리고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부력대를 아는 것입니다. 부력대를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깊이를 얕게 해도 안 됩니다. 얕으면 들이박습니다. 깊이 하면 또 거꾸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커브를 돌 때 문제가 생깁니다. 큰 배는 서서히 꺾어야지 휙 꺾지 못합니다.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알고, 바람이 불면 풍랑이 어떻게 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서서히 꺾는데도 힘을 주게 되면 휙 돌아갑니다. 한쪽으로 돌아가고 사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한 곳에서 돌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배 밑창에 물을 받는 곳이 용골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 용골을 어떻게 하면 배 속도가 느리고 어떻게 하면 배를 휙 돌리게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원호프라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는 빠릅니다. 지금은 모든 조선회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지만 가라앉지 않는 배를 내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551-212, 2007.01.07) p. 1183

8 원호프 이상 낚시하기에 좋은 배가 없습니다. 낚시해 본 사람은 이것이 빠르고 민첩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물고기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빠르더라도 틀림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 누구든지 홀딱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를 많이 팔고 여러분의 생활 기반을 닦아 주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340-060, 2000.01.07)

9 그동안 아버님이 해놓은 모든 것을 전시하면 대단할 것입니다. 목포에서는 큰 배도 만들고 있습니다. 수송선이니 트롤보트니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쓰는 페리보트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무엇이든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조선도 만듭니다. 도면만 있으면 무슨 배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우리 배가 질이 좋고, 정성껏 만들기 때문에 성능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몇 십만 톤급의 유조선이나 큰 배를 만들지만, 그런 배는 앞으로 소용 가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그런 배는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유통구조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배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회사가 전체를 대표하여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262-262, 1994.08.01) p. 1184

10 석고몰드공법으로 만든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결이 10미터로 닥쳐오면 이것을 거슬러서 10미터를 따라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져서 뒤집히더라도 가라앉지 않는 배가 석고몰드공법으로 만든 배입니다. 이 배를 사서 타지 않으면 쓰나미를 거슬러 넘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1.03.31, 천정궁) p. 1184

11 우리가 만든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배가 바위에 부딪히더라도 깨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배를 타고 즐겁게 살고 싶어도 죽을 것을 염려해서 배를 못 사는데, 그런 배가 있다면 자기 집 재산을 털어서라도 산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 배만 있다면 안전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서 파도가 10미터 이상으로 산같이 되어도 이 배는 그것을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배는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보통 달리게 되면 시속 80마일 이상 날아갑니다. 80마일 이상 100마일이 되면 비행기처럼 뜨게 됩니다. 85마일만 되면 뜰 수 있으니 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도에서 위로 갈 수 있도록 방향만 잡으면 뜹니다. 하늘로 뜰 수 있기 때문에 벼락이 치더라도 안 깨집니다. (2011.04.01, 청해가든)

12 목재나 다른 재료로 배 몰드를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석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고의 원료는 돌가루입니다. 지구성 자체에 이 몰드를 만들 수 있는 원자재가 무진장합니다. 그러니 계산을 하면 이익입니다. 아버님이 석고몰드로 만든 배를 탄다고 하면 백년 후에는 얼마나 자랑이겠습니까?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몰드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무척 오래 걸리는데 석고몰드로 하면 12일이면 배 한 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0개 국가에서 몰드를 만들어 몇 만 척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120개 국가에서 몰드를 만들어 몇 만 척이라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무진장 있다는 것입니다. 석회질 광물은 모래처럼 어디에나 널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무진장의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만 톤의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육지와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식물이 살

게 되면 노아의 방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2011.01.14, 청해가든)

13 구명 재킷은 공기가 새지 않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붕 뜹니다. 석고몰드로 만든 배는 철판 가운데 공기를 몇 백 배 압축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뜹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뜨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석고 몰드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결사적으로 천정호를 만들었습니다. (2011.02.26, 천화궁) p. 1185

원양어업의 전초기지 톱오션

참부모님께서는 '톱오션'이란 배를 만들어 인류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어분을 생산하고자 크릴새우를 잡는 조업을 남극해 일대에서 시작하셨다. 다른 어류도 잡으며 남극의 어업활동을 개척해 나가신 것이다.

14 남극을 개발하기 위해서 톱오션이란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곧 남극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 배 말고도 또 최신식 배 2척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남극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배를 타고 떠나면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가정문제 때문에 배를 탈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에 큰 배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진출하는 데에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극의 모든 정보를 우리 사람들이 조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326-279, 2000.07.15)

15 톱오션이라는 배가 남극 바다에 가서 크릴새우를 잡습니다. 크릴새우는 고단백질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새끼로부터 모든 동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인류를 위한 사료입니다. 만물을 위한 사료로 우리가 공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함으로써 바다에서부터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324-114, 2000.06.17.)

16 지금 남극 바다에서 조업하는 배가 7천 톤급입니다. 러시아 배를 우리가 인수했는데, 2척 중에 1척이 조업에 나섰습니다. 제일 춥고, 제일 바람이 세고, 빙산이 떠돌아다니는 곳에서 조업합니다. 거기 고기들은 얼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음 밑이 의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만 얼음은 그림자가 지니까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큰 빙산 밑에 고기들이 떼로 모여 있고 크릴새우 떼도 그런 데에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훑어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모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큰 배는 어창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보통 배를 샀는데 어창을 5배 이상 크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제일 많이 잡아야 하루에 80톤 되는데 이것은 하루에 320톤까지 잡으니까 4배입니다. (334-070, 2000.09.28)

17 대양에서는 새치가 아니면 큰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남극에 가는 톱오션을 한번 타고 갔다 와 봐야 남극 **북**극에 대한 상황을 잘 압니다. 북극과 남극에서 잡는 고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남극은 깊은 바다니까 위험합니다. 빙산과 싸우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빙산이 있으면 빙산 아래가 물고기들의 은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빙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난바다에 있으면 지나가는 큰 물고기들이 잡아먹으니까 빙산 아래에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릴새우도 그런 은신처인 얼음 아래에 붙어 다니고 또 조그만 물고기들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로 그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 배는 빙산을 깨면서 갑니다. 빙산을 얼마만큼 깨고 다가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368-327, 2002.02.01)

7절 라스베이거스와 후버댐 섭리

환락의 도시에서 평화의 기지로

참부모님께서는 도박과 환락의 상징도시인 미국 라스베이스거스를 선한 도시로 변화시켜야 세계를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로스앤젤레스로부터 그랜드캐니언과 후버댐, 그리고 라스베이거스까지 오가면서 그 지역을 하늘 앞으로 복귀하기 위해 많은 정성을 쌓으셨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는 음란과 환락의 도시이지만 이곳을 하늘을 중심한 건전한 취미산업의 본거지로 변화시킴으로써 미국과 세계를 복귀하는 데 중요한 기지로 삼고자 하셨다. (p. 1186)

1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시계가 필요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서 낮과 같으니까 시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져가면 80퍼센트는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스베이거스는 그랜드캐니언과 후버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로 인해 음란의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을 놓아두고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랜드캐니언, 후버댐,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문화의 주류적 골짜리요 기본 문화인데, 이곳을 사탄이 갖고 있습니다. 이곳을 전부 점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88-071, 2008.04.12) p. 1186

2 로스앤젤레스로부터 그랜드캐니언, 후버댐, 라스베이거스의 유흥단체들을 소화하지 못하면 평화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을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목적을 세워서 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착수하여 시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세계적 운동에 하나님이 배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자신을 가지고 나서면 모든 것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취미산업은 유흥단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면 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답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손대야 됩니다. (589-055, 2008.04.28) p. 1187

3 미국이 세계 정상의 지도국가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3대 요소가 그랜드캐니언과 후버댐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서 그랜드캐니언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개발해서 어느 민족이라도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후버댐입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는 후버댐을 중심삼고 사막 가운데 만든 도시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든 실력을 옮겨서 저장해 놓은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그다음에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거기는 배우학교가 있고 신문화를 만드는 본거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적인 말세시대에 와서 누구든지 그 지역을 모른다면 신문화, 새로운 개척시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문화가 여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587-285, 2008.03.17)

4 라스베이거스는 지금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있지만 후버댐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사막으로 인해 사람들이 물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버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7개 주의 식수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백년 동안 먹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후버댐이 생겼습니다. 또 전기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콜로라도강 끄트머리에 로키산맥이 있습니다. 그곳은 토네이도가 내려오는 위험지역으로 산골짜기의 깊은 곳입니다. 거기에 접해 있는 5개 주는 옥토와 같은 주가 되었고, 최대의 전기 생산량을 중심삼고 남부의 문화도시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종합해서 '모든 환경여건을 한데 몰아 문화세계를 창조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이제 종교가 이곳에 자리 잡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589-068, 2008.05.02)

5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그랜드캐니언, 후버댐, 그다음에 라스베이거스를 몰라서는 미국 문화의 망하고 흥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의 뒤에는 흥하는 사람이 따라다니고, 흥하는 사람의 뒤에는 망하는 사람이 따라다녀서 둘이 가인 아벨 관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인적은 것은 퇴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간판을 붙여서 음란한 사람은 사람은 못 오게 해야 되고, 주색잡기를 하는 사람은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취미산업기관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입되는 돈은 미국 돈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비밀자금이 밑창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꼭대기로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를 망칠 수 있는 악한 동력에 의해 움직이니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589-123, 2008.05.04) p. 1188

6 미국을 망치는 본거지가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목을 틀어쥐어 하늘의 기관으로 사용하면 평화의 왕국이 거기에서부터 꽃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패의 본고장에서 섭리의 꽃이 필 수 있는 터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를 20년간 연구했습니다. 거기의 무엇이 나쁜지 샅샅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대면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 이상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592-305, 2008.06.11)

교육과 난민을 위해 써야 할 수익금

라스베이거스에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오간다. 참부모님께서는 라스베이거스를 하늘을 중심한 건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이곳에서 나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인재들의 교육과 기아 구제사업을 위해 쓰고자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셨다. 이러한 섭리를 위한 기지로 라스베이거스에 건물을 구입하시고 천화궁(天和宮)으로 명명하셨다.

7 라스베이거스는 음란의 왕터입니다. 이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가 어떻게 나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도박장에 가더라도 왕초가 되어야 합니다. 음란세계에 가서 모르면 언제나 속는 것입니다. 마피아들이 망원

경을 끼고 모든 것을 살피고 있어서 하나도 속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소화해서 거기에서 거둬지는 수익을 가인 세계의 아들딸들을 교육하는 비용으로 절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매년 굶어 죽는 2천만 명을 살려줄 수 있는 평화의 기지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위에 하나님 뜻의 기반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589-056, 2008.04.28)

8 여러분에게 모금운동을 시킬 것입니다. 유엔에서 모금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부로부터도 모금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되고 평균적인 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기부금으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의 절반은 어렵게 살아가는 가인세계의 아들딸들을 공부시켜야 되고, 그 나머지 절반은 피란민처럼 먹지 못하고 죽어 가는 2천만 명을 살려 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계의 도박장, 카지노 같은 것뿐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까지도 하늘이 인수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은행이자 이외에는 돌려주지 않고 이익금의 절반은 가인세계의 못사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써야 됩니다. 초민족·초국가적인 면에서 천재들을 교육시켜서 인재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아로 죽어 가는 2천만 명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590-115, 2008.05.19) p. 1189

9 나 혼자서는 세계를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지도자를 훈련만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체적인 자리에 있으면 상대세계는 얼마든지 선정하여 소화해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실력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버님의 계획입니다. 서부에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까지 4대 도시를 중심삼고 훈련만 하면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에 있어서 지도층으로서의 경력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그랜드캐니언으로부터 후버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키면 천하에 그 이상의 실력자가 없을 만큼 됩니다. 아버님이 훈련시키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 누구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609-328, 2009.04.09)

10 라스베이거스에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천화궁(天和宮)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 '화'는 화합의 '화(和)'자입니다. '벼 화(禾)'변에 '입 구(口)'를 씁니다. 이 글자의 의미처럼 하루에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이 궁전에 오면 밥을 먹여 주는데,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안 내고 싶으면 내지 말고 먹고만 가라는 것입니다. (611-103, 2009.05.06)

11 라스베이거스의 레저산업을 아시아와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아의 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들르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한 맥으로서 어떻게 그곳을 살릴 수 있게끔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그곳의 모든 것을 흘러가는 문화로서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15-238, 2009.08.24)

제3장 자르딘 선언과 참가정 이상공동체 교육

1절 판타날과 새소망농장

원초성지로 봉헌한 판타날

브라질의 판타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아마존강을 중심으로 본연의 상태로 존속해 온 곳이다. 참부모님께서는 판타날을 원초성지·근원성지·승리성지로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자연을 사랑하는 기준을 세우고 제4차 아담권

시대에 창조본연의 지상·천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지로 만들고자 하셨다. 그리고 브라질 자르딘을 중심으로 새소망농장을 세우고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모델적인 공간으로 삼고자 하셨다. 중남미 섭리는 개신교 중심의 북미와 천주교권인 중남미를 하나로 묶어 세계평화를 실현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p. 1190)

1 판타날은 원초적 자연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고기로부터 동물, 식물이 모범적인 자리에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창조된 후의 지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이상적인 섭리의 뜻을 품었던 하나님 앞에 지금 타락한 인류의 조상 때문에 생긴 수난길을 거치고 다 벗어나 해방되어서 첫출발을 할 수 있고 완성한 제4차 아담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천지, 새로운 지상·천상천국을 연결시키는 착지의 출발 기지가 이곳 판타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 해와도 추운 데서는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도 아담 해와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 이 사랑의 가정을 위하여 천추만대의 후대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관리 육성해서 살 수 있게 이와 같은 환경을 축복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첫출발하는 성지라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성지입니다. 첫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성약시대를 출발하고 지상·천상천국을 개문하는 가정적 출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310-277, 1999.07.27) p. 1190

2 판타날을 중심삼고 곤충박물관·동물박물관·식물박물관·어족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은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멸종되지 않은 본연의 기준을 중심삼고 사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이 판타날을 원초성지·근원성지·승리성지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게 되면 물고기도 나를

위해서, 수목도 나를 위해서, 푸른 지대도 나를 위해서, 동물도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나 때문에 태어났으니 내가 위해 주는 그 세계에서 비로소 평화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414-059, 2003.07.27) p. 1191

3 참부모님과 통일가가 가는 모든 길 앞에 전체 선두에 서서 이제 사탄을 굴복시켜 천사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사옵니다. 그런 첫 출발 기지로서 이곳 판타날이 원초적인 기지가 되어야 하겠고, 근원적인 기지가 되어야 하겠고, 승리의 성지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온 만민은 이곳을 추모하면서 정성들여 하늘의 복을 모아 일가, 일국가, 일세계 앞에 자기들로 말미암아 전수할 수 있는 참된 부모들이 되기를 약속하는 기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을 지키고, 이곳을 자기 몸과 같이 가정을 중심삼고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몸의 상대적 존재로서의 출발 기지를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전체·전반·전권·전능으로 주관하시어서 하늘에 직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기지를 여기에 택하여서 아버지 앞에 봉헌하오니 이 자리를 거룩히 보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의 은사를 뿌리 내리셔서 만세의 지상·천상천국을 커버하고 남을 수 있는 정성의 피어린 심정이 연결되어 새로운 혈통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중심삼아 천추만대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자녀의 가정들이 하나되게 하시어서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아 고스란히 충효의 도리를 다짐할 수 있는 만세의 후대 후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원초성지·승리성지·근원성지로 택정하고 봉헌하옵니다. (310-280, 1999.07.27)

4 살로브라와 판타날, 그다음에 자르딘은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승지가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연합할 수 있는 내용을 여

기에서 선포했습니다. 수륙, 물과 땅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수륙이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짓고 가는 것입니다. (293-272, 1998.06.02)

5 내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남미, 특히 브라질을 중심한 그 방대한 지역이 험한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평지에서 연결되어 1천 미터 이상의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언덕 같은 데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 나가기 때문에 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산맥이 되어 있으면 큰 산맥을 따라서 강이 몇 개로 형성되는데, 같은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줄기가 무성합니다. 강이 가다가 합쳐지고 또 갈라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고지에 따라서 기온이 다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온도에 따라서 사는 종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온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삼고 찾아가서 서식을 하고 알을 낳는 것입니다. 동쪽이나 남쪽, 북쪽 등 지역이 다르더라도 같은 온도라면 몇 백 미터 높은 곳에서도 같은 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물고기 종자가 있는 것입니다. (267-269, 1995.01.20) p. 1192

6 마음을 한 곬[4]으로 24시간 집중해서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것은 낚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배를 탔습니다. 눈만 뜨면 바다에 나갔습니다. 이제 참하나님의 해방권을 이루었으니 낚시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디악에 가서 4·4절을 선포하고 나서는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부터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해서 종의 멸종을 방지할 책임이 부모님과 통일교회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모든 만물이 있는 곳이 판타날, 아마존강 유역을 중심삼은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4) 연어나 물고기가 한 곳으로 모여서 다니는 길목이나 물고기 떼가 몰려다니는 일정한 길(한컴사전)

창조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낚시를 하지 말라고 해도 낚시를 하고 그물로도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보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곳 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바다의 고기를 대신 제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298-019, 1998.12.31)

7 하나님이 원한의 역사를 거치면서 모든 것을 심판했지만 물고기세계에는 심판이 없었습니다. 노아 때 홍수심판을 했다는데 고기가 죽었습니까?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있던 물고기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게 되자 그 모든 세계의 것을 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자유천지가 되었던 때가 노아의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수중에서부터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런 기준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님도 판타날, 물의 세계 남미를 찾아온 것입니다. 남미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초적인 것이 그냥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멸종된 것이 많은데, 단 하나 판타날을 중심삼은 지역과 아마존강 유역에는 많은 종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296-020, 1998.10.10) p. 1193

8 천리이치는 좋은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을 소화하고 영원할 수 있는 권위의 그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생살이의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골짜기도 좋아하고 꼭대기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골짜기는 싫어하고 꼭대기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판타날을 찾아왔습니다. 물이 깊은 거기에 세계의 모든 깊은 데서 사는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미가 있습니다. 북반부에서 보지 못한

모든 생물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력적입니다. 이런데 바다에 가서 바닷고기를 잡겠습니까? 바닷고기는 아무리 잡더라도 노래를 못합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 노래 못하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보니 그 노래가 천태만상입니다. 오케스트라 이상 아름다운 노래를 물고기가 하는 것을 들으니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296-115, 1998.11.03)

9 자르딘 부근에 있는 벨지도는 농사를 짓든가 과수원을 하든가 식목을 하는 데에 제일 이상적인 땅입니다. 브라질에서 제일 좋은 땅이고, 남미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남미는 주로 벌판만 있는데 이곳에는 산도 있습니다. 한국 풍토입니다. 산이 많고 물이 맑습니다. 맑은 호수와 같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맑을 강을 보기가 참 힘든데 오로지 여기에만 맑은 강이 있습니다. 맑은 강이 흐르는 거기에 22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구아수폭포는 그 하나이지만, 이곳은 관광지로서 이 이상 좋은 곳이 없습니다.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라도라는 고개를 비롯해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낚시를 하면 잘 무는데 먹을 것을 주면 뛰어와서 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오기만 하면 거기에서 살려고 야단일 것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레버런 문이 왜 자르딘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하다가도 그곳을 와서 보고는 '야! 여기가 천국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9-200, 1996.08.04)

10 내가 남미에 가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천수만 마리의 새가 모여서 음악회를 하는지 '짹짹짹'하고 같은 소리를 내는데도 박자를 맞추어서 내는데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새 오케스트라가 저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곤충 오케스트라, 새 오케스트라, 동물 오케스트라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것이 이 세

상에서 최고로 멋진 오케스트라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면서 취하고 기분이 좋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미에 가서 발견한 것이 노래를 못하는 물고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북반구의 물고기들은 노래를 못합니다. 남미는 언제나 봄 여름이고, 언제나 꽃이 피고, 언제난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노래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노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4개월 동안 동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이 있는 푸른 지대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상지대인 동시에 동물이나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이상지대입니다. 그런 푸른 지대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천국을 만들고 인간으로서 동물과 더불어 춤을 추면서 인간 오케스트라, 동물 오케스트라, 자연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 환경에서 즐기며 사는 사람이 천국의 제일 좋은 곳에 갈 것입니다. (285-243, 1997.06.05) p. 1194

자르딘의 새소망농장

참부모님께서 브라질 자르딘을 찾으신 것은 1994년 12월 8일이며, 이때 이곳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새소망농장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실천 도장으로 삼고자 하셨다. 참부모님께서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자르딘에 새소망농장을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고자 한 에덴동산, 즉 이상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지역으로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계인이 함께 모여 자연과 더불어 형제사랑을 체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훈련을 시키셨다. 예부터 자르딘은 '주님이 오시는 곳'이라는 예언이 전해져 왔다.

11 자르딘에서 세계를 하나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만국 평등주의 사상적 기반을 급속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초민족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르딘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르딘은 본

래 가든입니다. 가든은 에덴동산을 말합니다. 옛날에 예언하는 신부들이 자르딘에 주님이 온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새소망농장이 있는 곳은 복 받는 곳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해발 900미터에 있기 때문에 열대지방 곡물과 한대지방 식물이 어디에서든지 자랄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벼농사든 무슨 농사든 간단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6-203, 1996.02.19) p. 1195

12 땅을 사랑해야 만물을 사랑할 수 있고, 만물을 사랑해야 모든 동물들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과 만물과 사람을 사랑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브라질에 있는 우리 새소망농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은 세계, 하늘땅을 대표합니다. 세계 160개 국가의 모든 동물들을 대표합니다. 그 지역에는 새와 곤충, 물고기, 이름 모를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야! 사랑을 한다면 진짜 멋진 사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에 잠을 깹니다. 오색 가지의 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을이 되면 곤충들의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하지만, 남미에는 새 오케스트라가 있고 물고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269-171, 1995.04.17)

13 만물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새소망농장에 모든 것이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동물원과 식물원도 있을 것이고, 동물원과 식물원은 물론이고 호수를 중심삼은 양식장도 있을 것이고, 산을 중심삼고는 사냥터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대양까지도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모든 박물학자·식물학자·농학박사·과학자는 여기에 모일 것입

니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공장을 옮겨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가 이상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 이상적인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 만민의 교재,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269-046, 1995.04.06)

14 새소망농장에 세계에 없는 제일가는 목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새소망농장에 가서 배우자.'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물이면 돌과 식물과 동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창건을 위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그런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 없었던 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우리의 나라입니다. (270-032, 1995.05.03)

15 아버님은 바라를 사랑합니다. 물을 사랑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품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자르딘에 가게 되면 미란다강과 플라타강이 있는데 그 **둘**이 음양입니다. 플라타는 맑은 물인데 미란다는 흙탕물입니다. 미란다강에서는 흙탕물이 되어 있더라도 소용돌이에 의해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면 서슴지 않고 휘돌아 들어갑니다. 흙탕물 때문에 빛깔이 달라졌지만 흐르고 흘러 시일이 가면 다시 제 빛을 찾아 맑아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상은 뭐냐? 물은 자라나는 생명체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몇천 미터 땅속에서도 스며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을 갖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그런 사상을 이어받은 통일교회이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두 품고 소화해서 만물 앞에 자랑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격려하고 새로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276-140, 1996.02.18)

16 자르딘에 있는 강 이름이 미란다와 플라타입니다. 금 물, 은 물입니다. 물 중에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은 황토빛입니다. 금빛입니다. 영계에 가면 은빛, 백금빛입니다. 두 강이 합하는 거기에 내가 낚시터의 왕궁, 수왕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3분의 2가 물입니다. 모든 만물은 물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물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지상의 생명체 전부가 물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한 표시적 조건에 적합한 땅입니다. 부모님과 세계 사람들이 이 물줄기를 품게 된다면 세계, 하늘땅의 생명이 품긴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68-285, 1995.04.03)

2절 상파울루 선언과 자르딘 선언

상파울루 선언

참부모님께서는 1995년 3월 31일 제36회 참부모의 날을 맞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한 1954년 이후 4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40년 노정을 출발하는 의미의 '상파울루 선언'을 선포하셨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자르딘 선언'이 8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p. 1196)

<상파울루 선언문> 참부모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개인에서 천주까지, 또 종의 종에서 하나님까지 단계를 높이면서 희생과 참사랑에 의해서 탕감복귀노정을 이겨 오셨다. 제36회 참부모의 날을 기하여 전 세계의 통일교인들이 참부모님의 이 승리의 기대를 상속받고 우리의 책임분담 기간이 되는 제2차 40년노정을 출발하는 것을 선포하는 상파울루 선언을 발표하셨다. 뜻길에는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제로, 즉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 하고 교만이나 개인주의는 금물이다. 참부모님의 전통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념으로 땅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사

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온, 즉 참사랑을 투입해 온 생활이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생활전통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땅과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참사랑의 실천 전통을 계승하여야 한다. 제2차 40년노정의 출발은 제36회 참부모의 날인 1995년 3월 31일부터이며, 2세 중심, 또 축복가정의 단위로 성취해야 될 우리의 책임분담 기간이다. 참부모님께서 종적 횡적으로 승리하신 기대를 상속받는 우리의 책임분담은 천주복귀까지가 아니라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한 가정들이 합심일체가 되어 국가를 복귀하는 데까지이다. 따라서 40년 기간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믿음과 책임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년이나 7년 만에 성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참부모님이 남미에서 이상촌과 이상적인 나라의 본보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신 섭리적인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남미섭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벨권의 승리와 축복을 가인권에까지 옮기고 넓히는 섭리이다. 아벨의 위치에 있는 북미 개신교권의 기반을 남미 천주교권으로 옮기고 하나되게 하는 섭리이다. 그다음 그 하나된 아벨권의 승리를 유대교권으로 연결지어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 하나된 넓은 아벨권 승리를 이슬람권으로 연결시켜 크게 만들고, 그 크게 넓어진 아벨권의 승리와 축복을 다른 종교권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미래 섭리의 방향이다. 북미를 비롯한 세계 통일교회는 정성을 다해 남미를 지원해야 된다. 참부모의 승리권을 우리가 상속받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인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폭을 넓히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1995.3.31, 상파울루)

1 상파울루 선언과 더불어 남미 전선으로 대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떠난다고 발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을 떠나 남미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기관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투입했던 모든 경제력과 인맥

을 남미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상적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적 집, 이상적 마을, 이상적 도시, 이상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8-131, 1995.03.31)

자르딘 제1선언-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참부모님께서는 1995년 4월 3일 발표한 새소망농장 선언을 자르딘 제1선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선언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바탕으로 참부모님의 생활을 닮아 이상적 사회, 이상적 나라의 모델을 세우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자르딘 제1 선언> 오늘의 세계는 성도덕의 문란과 가정 파괴, 그리고 개인주의의 팽배로 심각한 인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지구 환경오염과 공해들은 인류의 존재 자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전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남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실천운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만물과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환경보호운동이 절실할 때이다. 특히 이 운동들은 종교인들이 솔선해야 된다. 참부모님께서는 일찍부터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자연만물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친자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오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자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지어 주신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인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상적인 사회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국경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자각하고 참부모를 중심하고 한 형제가 된 대가족사회, 그곳은 혈통과 소유권과 심정을 복귀한 축복가정들이 참부모의 언어와 참부모의 문화 아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의 세계를 이루는 곳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

문화 속에서 공생·공영·공의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부패나 부정, 그리고 전쟁이나 죄악과 무관하며, 인류는 지구 환경의 공해 요인들을 제거하고 만물을 참된 주인으로서 사랑하고 보호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 세계에 있어서 생활을 위한 활동과 작업은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심정을 바탕으로 한 기쁜 봉사요 실천이며, 따라서 구성원의 생활 정도는 평준화된다. 교육은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하여 받되 지식교육·체육교육·기술교육은 물론이요 축복가정을 터로 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우선함으로써 천도를 따르는 선민을 기르는 교육이 된다. 이와 같은 이상의 실천은 참부모의 사상, 즉 위하는 참사랑의 이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아담의 타락으로 믿음을 잃고 복귀의 길을 운명적으로 가야 할 인류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종교를 세워 섭리하심도 이 목적을 위함이다. 노아와 같은 승리적 인물의 절대신앙이 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참부모님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처절한 영적 싸움까지 이겨 오시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실체가 되시었고, 그 승리 기반을 이제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이러한 전통을 실천으로 닮고, 또 땅과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해 온 참부모님의 생활을 닮아 그대로 살아야 이상적인 나라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새소망 농장은 바로 그 실천을 위한 훈련장이다. 투입하고 또 투입하면서 땅과 물과 자연을 사랑하고 만국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는 실천 도장이다. 이곳에서 성과를 거두어 만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인류가 피부색과 문화와 국가를 초월하여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교육할 것이다. 또한 자연만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범과 함께 온 지구 환경을 이와 같은 사상에 의해 국제 관리를 해야 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인류가 전쟁과 기근과 범죄를 없애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본을 이곳에서 보여 줄 것이다. 세계 160개국 선교국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기도로

성원을 할 것이다. 세계 청년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실천 경험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그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우선 각 대륙별로 지원을 하고, 또 40개국에서는 일차적으로 5명씩 파송하되 1995년 5월 1일부터 각 2명씩 먼저 보내어 이 역사적인 운동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1995.4.3, 자르딘)

2 제2차 40년노정을 자르딘 농장에서 선언했습니다. 자르딘은 이것을 선언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지낸 모든 일을 재편성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역사적 재료를 남겨야 됩니다. 아버님을 위주로 해서 여기 자르딘 농장을 중심삼고 움직이고 이 남미에서 새로이 전통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일의 선두에 선 사람들은 스페인계도 아니고 앵글로색슨계도 아니고 게르만계도 아닌 동양 사람들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동양에도 없었고 서양에도 없었던 단체입니다. 이 통일교회는 개인을 혁명하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를 혁명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타락한 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형성, 창조해 내야 합니다. 창조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다시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하는 재료는 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어 온 것을 뜯어 고쳐서 재창조해야 됩니다. (277-067, 1996.03.31) p. 1200

3 자르딘 선언은 제2차 40년노정에서 지켜야 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에 대해 발표한 것입니다. 에덴 복귀입니다. 에덴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에덴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상대 평형기준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모든 만물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끔 주어야 됩니다. 받

았으니 완전히 절대 주어야 합니다. 절대 희생하고 줄 수 있어야 이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수작용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타락이 없었던 만물 전체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 지은 이 세계를 전부 관리할 수 있고 동일권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축복은 지금 열두 고개를 넘었습니다. 3억6천만쌍까지 열두 고개를 넘어 지상에 착륙할 때가 되었습니다. 3억6천만쌍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탄 혈통을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 참가정,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영광된 참가정을 이뤄서 살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르딘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축복받은 가정들이 종적으로는 올라왔지만 횡적 기준에 못 서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횡적 기준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평화를 위한 이상가정교육센터를 만들어 지금까지 축복받은 가정들을 새로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광된 가정에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르딘 가정 훈련입니다. (294-319, 1998.08.09)

4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몸으로가 아니라 한 몸과 같이 생각하는 일체이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복종한 것입니다. 이 이상적 실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투입한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완전복종의 개념 위에 서 있던 주체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라고 하면 자르딘 선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절대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신앙의 실체, 절대사랑의 실체, 절대복종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상대되는 사람도 자연히 그래야 됩니다. (269-184, 1995.04.23)

5 자르딘 제1선언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 가지 개념 위에서 창조했습니다. 통일교인들은 아버님이 가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사랑의 길입니다. 어떻게 출발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입니다. 낮과 밤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생명이 다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해답은 같다는 것입니다. (294-331, 1998.08.17)

자르딘 제2 선언-절대·유일·불변·영원의 하나님을 닮자

참부모님께서는 1998년 8월 7일 하나님의 4대 속성인 절대·유일·불변·영원성을 닮은 자녀·부부·부모가 되어 지상천국의 영원한 기지인 참가정을 완성해야 된다는 내용의 자르딘 제2 선언을 발표하셨다.

<자르딘 제2 선언 요지> 하나님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절대자녀·유일자녀·불변자녀·영원자녀가 되어야 하며 절대부부·유일부부·불변부부·영원부보로 살아야 하고, 절대부모·유일부모·불변부모·영원부모가 되어야 하며 절대가정·유일가정·불변가정·영원가정으로 완성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참아버지이고 유일 참아버지, 불변 참아버지, 영원 참아버지이다. 그런 아버지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아들을 찾는 것이다. 그런 아들딸들은 절대부부·유일부부·불변부부·영원부부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안착하기 위한 가정은 절대가정·유일가정·불변가정·영원가정이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의 영원한 기지인 것이다. (1998.8.7, 자르딘)

6 제2차 자르딘 선언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부모·부부·형제·자녀와 가정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차 자르딘 선언입니다. 이것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국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세계,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지상천국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창조이상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종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종족, 절대국가, 절대세계, 절대지상천국, 절대주인이신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부모·참스승·참왕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부모요 스승이요 왕인데 하나님이 그런 세 가지 격을 갖고 계시고, 그 위에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294-330, 1998.08.09) p. 1202

자르딘 제3 선언 - 제1 창조주, 제1 창조주, 제3 창조주가 되라

참부모님께서는 1998년 8월 21일 자르딘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에서 제1차 40일 수련생에게 2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1, 제2, 제3 창조주가 되라'는 요지의 자르딘 제3 선언을 발표하셨다.

<자르딘 제3 선언 요지> 하나님은 제1 창조주로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해와는 제2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3의 창조주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딸(아담 해와)을 잃어버린 슬픔도 크지만 손자를 갖지 못한 한도 있다. 3대가 제1 창조주와 같은 심정으로 한집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1998.8.21 자르딘)

7 자르딘 제3 선언은 하나님은 제1 창조주요, 아담은 제2 창조주요, 아담의 자손은 제3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제3 창조주는 하나

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해방과 부모의 해방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3 창조주, 아담의 자녀는 제3차 실체 왕국을 창조하는 주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295-243, 1998.08.28)

8 자르딘 제3 선언은 제1 창조주, 제2 창조주, 제3 창조주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주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창조주이고 아담은 유형의 창조주인데 사랑이상인 사위기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담 해와의 사위기대를 이루지 못했고, 아담 아들딸의 사위기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298-021, 1998.12.31) p. 1203

9 자르딘 제3 선언은 제1 창조주, 제2 창조주, 제3 창조주에 대한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 자체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은 제1 창조주, 아담은 제2 창조주이고, 아담의 아들딸은 무형과 실체의 두 부모의 사랑을 받아 영육계의 통일적 결실을 맺어 완성함으로써 영계와 육계의 완성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제3 창조주의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히 타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제1 창조주의 사랑에 제2 창조주가 영원히 일체가 되면 타락할 수 없고 그 아들딸도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나 하나님과 숙명의 부자관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관계를 이루는 것도 숙명적 과제입니다. (296-236, 1998.08.28)

자르딘 제4 선언 - 숙명적 제안 해원

1998년 8월 28일 자르딘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에서 거행된

제2회 칠팔절 경배식에서 국가메시아들과 40일 수련생이 참석한 가운데 자르딘 제4 선언인 '숙명적 제안 해원(宿命的 提案 解怨)'을 선포하셨다.

<자르딘 제4 선언 요지>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관계다. 부자관계는 숙명이다. 부모의 모든 한과 문제는 자식만이 풀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이다. 입적한 가정은 다시는 불신이나 배신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가 우리는 부자지간으로서 공명통일되어야 한다. (1998.8.23. 자르딘)

10 천지부모천주안착권을 바라고 나온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사명입니다. 운명적인 사명이라면 자식의 사명을 부모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명도 아내가 대신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관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숙명적인 해원을 못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관게를 맺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바라고 출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비참사를 확싫히 알아야 됩니다. 숙명적인 부부입니다. 아담 해와의 둘밖에 없습니다. 숙명적인 부부의 인연을 해결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실체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숙명적인 부부의 해원을 못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상적인 결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숙명적인 한을 해원하지 못한 하나님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주 본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그런 한이 있는데 역사상에 아버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원히 그 한을 풀어드릴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295-236, 1998.08.28) p. 1204

11 부자관계는 숙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자관계를 느

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적 축복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숙명적 부자관계, 숙명적 형제관계입니다. 형제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죽어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숙명적인 목적입니다. 숙명적인 형제, 숙명적인 부부, 숙명적인 부모, 숙명적인 가정, 숙명적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숙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숙명적인 세계, 숙명적인 지상천국을 이루어서 해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적인 자녀입니다. 자녀는 4대 속성,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속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아버지요, 유일의 아버지요, 불변의 아버지요, 영원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상대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통적인 모든 것을 백 퍼센트 이상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부모의 목적이었습니다. (295-247, 1998.08.28)

12 자르딘 제4 선언은 숙명적 제안해원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옴으로써 사탄 혈통을 끊고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시대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부자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돼야 하는데 종이 돼 있고 서자가 돼 있고 양자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본 혈통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적 과제로서 이것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부자관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떼어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떼어 버릴 수 있었으면 복귀역사를 할 필요 없이 다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숙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자관계 부부관계를 마음대로 떼었다가는 사탄의 농락에 완전히 꾀어서 제물이 되어 버립니다. 숙명적 부자관계, 그다음에는 숙명적 부부관계입니다. 아담 해와에게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담 해와 외에 여자가 하나 더 있고 남자가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다. 숙명적 관계입니다.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숙명적 자녀입니다. 숙명적 부모, 숙명적 부부, 숙명적 자녀,

숙명적 형제애가 연결되어 있으니만큼 그것이 가정이상의 전통으로 천년만년 그 기준이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종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세계요, 지상·천상천국이 아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98-021, 1998.12.31) p. 1205

13 숙명적인 과제로 해방한 부부를 가져야 되고 형제도 가져야 됩니다. 형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핏줄, 혈통이 연결돼 있습니다. 숙명적입니다. 완성한 그 가정이 모든 가정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숙명적 가정의 소원을 해원성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가정의 사명입니다. 아버님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숙명적인 비밀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체권 가치를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기 위한 교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서 상대적 기준에 완전히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할 수 있고 해방권뿐만 아니라 상속권까지 인계받을 수 있는 자유천지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숙명적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아담 가정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확실한 제안입니다. 숙명적 제안은 하나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합니다. 사탄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타락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돌아감으로써 지상·천상천국 개문이 벌어집니다. (296-268, 1998.11.10)

14 자르딘 제4 선언은 숙명적 제안해원입니다. 그 제안은 하나님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었으면 아담 해와 때 타락한 것을 순식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섭리역사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사랑의 혈족이 연결된 것을 하나님이 손도 대기 싫고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간섭합니까?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핏줄을 전환해서 해방권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해서 해방시대에 하나님의 숙명적 제안 해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역사 이래 절대부모·절대부부·절대형제·절대자녀·절대가정을 중심삼고 숙명적 과제로 막혔던 것을 전부 청산해야 됩니다. 그것을 완성한 아담이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부자관계,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296-310, 1998.11.18)

자르딘 제5 선언 - 4·4절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1998년 9월 8일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가정적 4·4절을 선포하셨다. 1998년 9월 20일 벨베디아에서 '섭리적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가정적 4·4절 선포를 자르딘 제5 선언이라고 명명하셨다. (p. 1206)

<자르딘 제5 선언 요지> 하나님이 아담 가정을 잃어버린 것은 제1대 사위기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다음에 아담 해와의 아들딸인 손자 손녀를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 대신 가정으로 제1대 사위기대를 찾고, 아담 가정 아들딸의 사위기대를 하늘 앞에 찾아 세우셨다. 그래서 지상에 하늘이 찾고 싶었던 제1대 사위기대와 제2대 사위기대를 한꺼번에 찾았다. 그리하여 남북통일이 될 수 있고, 온 세계가 통일될 수 있고, 하늘땅이 통일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제1대 사위기대와 제2대 사위기대를 찾은 것을 기념해서 4·4절을 선포하게 되었다. (1998.9.20, 벨베디아)

15 아버지, 이제 3억6천만쌍을 축복함으로써 사탄세계 혈통 단절을 위해 한국에서는 청소년 순결교육이 이미 끝났사옵고, 일본과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확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사오니, 그 교육이 당신의 뜻 앞에 일취월장하고, 승리의 권한과 당신의 해방적 전체·전반·전능·전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열매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수를 중심한 아담 가정의 사위기대와 아담 아들딸의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역사적 전통을 세계화하지 못한 것을 참부모의 사위기대와 더불어 모든 가정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사탄을 제거하고 더럽힌 핏줄의 모든 것을 지워 버리고 넘어설 수 있는 전체 해방시대를 맞게 하여 주신 은사를 감사하옵니다. 1998년을 중심삼고 9수도 사탄수요 19수도 사탄 수이지만 여기에 8수를 연결시킴으로써 이날 9월 8일 새로운 해방의 출발을 선언할 수 있는 4·4수의 기반을 밟고, 지상의 4수와 천상의 4수를 중심삼고 해방적인 천주를 향하여 온 가정들이 나아가 입적할 수 있는 천국시대를 맞게 하여 주신 은사를 감사하옵니다. 오늘을 기원으로 하여 수에도 사탄의 참소조건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당신의 이름과 참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온 천주와 전체 앞에 선포하고자 원하오니, 이날을 당신의 권한을 가지고 전체·전반·전능·전권의 능력을 중심삼고 행사할 수 있는 해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참부모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연결된 기쁨의 해방의 선언과 더불어 **만**민 해방권을 연이을 수 있는 승리의 선포를 하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이제4·4절 해방의 날을 선포한 것을 지상 천상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재차 선언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면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4·4절을 선포하나이다! 아주, 아주, 아주! (295-258, 1998.09.03) p. 1207

16 4.4절이 선포됨으로써 하늘이 전체·전반·전능·전권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지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세계는 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일체화, 일방으로 전체가 전반적인 기준에서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전능, 하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는 전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국가적인 기준에서 전권의 시대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지나서 전능의 시대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국가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분방한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95-253, 1998.09.08)

17 4·4절 선포 이후부터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국가적 기준에 있는 사탄이 세계적 기준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나 아버님이나 사탄세계에 대해 망하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망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탄세계의 국가적 기준을 넘어섰고 하나님이 국가와 세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가정들도 넘어섰기 때문에 사탄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전체를 관리하던 시대가 개문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전권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295-266, 1998.09.08)

18 3억6천만쌍을 축복하는데 절반이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정 전권시대입니다. 소생, 장성을 넘어섰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세워서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대전환시기라는 것입니다. 3분의 2를 넘어섰기 때문에 장성권을 넘어서 완성권 내에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와 영계가 갈라지고 개인·가정·종족·민족이 갈라졌던 것이 하나되어서 전 세계의 가정이 본연의 완성한 아담 가정과 아담의 아들딸 가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늘편 가정 완성기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 아담, 그다음에 아담의 아들딸, 3대권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삼대상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직접 주관할 수 있습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시키는 선포식이 4·4절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적 그 나라와 갈라졌던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파괴시켜 놓은 것을 참부모가 때워서 하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4·4절 선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탕감이 필요 없습니다. 역사를 두고 탕감해 온 것이 즉결처분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거슬 몇 천만년을 통해서 탕감해 왔지만, 이제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하늘나라 법의 규제를 받아 처분받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별의별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295-267, 1998.09.08) p. 1208

19 여러분은 160가정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160가정을 정비해야 되느냐? 16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4수의 4배수이니 4·4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6·25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유엔군도 16개국이었습니다. 또 한국과 북한이 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유엔에 가입했는데, 160번째와 161번째 가입국입니다. 160수는 사탄분립수인데,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을 볼 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비로소 그런 때를 맞춰서 세계적인 섭리의 프로그램을 중심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8-200, 1999.01.02)

자르딘 제6 선언 - 총영계 영인 해방식

참부모님께서는 1998년 10월 5일 추석을 맞이하여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가메시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영계 영인 해방식'을 선포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선포를 자르딘 제6 선언이라고 명명하셨다.

<자르딘 제6 선언 요지> 참부모님께서 총영계를 해방시키셨다. 그 영인들은 하나님 앞에 해방됨으로써 축복받을 수 있는데 축복을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지상에 재림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1998.10.5, 브라질 상파울루)

20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사탄의 몸을 이어받은 기준에서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은 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완성할 수 있는 참부모가 와서 세계적인 무대 위에서 해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을 넘고 세계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세계적인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인류의 해방권을 맞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야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지상에서 아담 해와가 축복받지 못하게 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영인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천사장의 입장에서 축복받은 지상의 후손, 아담 자리에 있는 후손에게 내려와서 협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297-274, 1998.12.22) p. 1209

21 가정에서 결혼을 잘못해서 지옥이 생겼고, 천상세계에 낙원과 중간 영계, 지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면 가정적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완성한 사랑의 혈통적 인연을 이어받아서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직행했을 것인데 이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사탄혈대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모든 역사성을 잘라 완전히 취소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본연의 아담 해와가 축복받지 못한 자리에 갖다가 접붙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사장이 아담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축복받은 가정이 천국에 직행하게 될 때 천사장 입장에 있는 선조들도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비되지 않고는 영계와 육계에 남아진 지옥, 지상지옥과 천상지옥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없으면 지상에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은 연결이 안 됩니다. 거짓 부모의 사랑·생명·혈통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짓는 것은 하나님도 사탄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완성한 아담, 오시는 재림주가 참부모의 입장에서 하늘의 비밀, 사탄의 비밀, 역사의 비밀을 풀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297-274, 1998.12.22)

자르딘 제7 선언-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1999년 1월 8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을 거행하셨다. 이 선포는 천주적 4·4절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이 선포를 자르딘 제7 선언이라고 하셨다. (p. 1210)

<자르딘 제7 선언 요지>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면 천상에 한 맺힌 영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혼 영들,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어릴 때 죽은 사람들도 축복해 주어야 된다. 그 영인들도 다 자랄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어릴 때 죽었다 하더라도 성장한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처녀 총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지옥의 살인마까지 성인들과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준 것이다. (1999.1.8,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22 1999년 1월 8일 아침 7시 반을 넘어서 8시로 가는 4·4수의 입장에서 4·4절과 더불어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해방적 기원을 마련하여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을 함으로써 온 천주가 이것을 인식하고, 그럼에 따라 지옥이나 선한 영인들 앞에 막혔던 담을 헐고 완전히 해방했사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국을 바라보는 지상의 탕감 노정을 빨리 해소하여 본연의 기준에 있어서 참부모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지상에 와서 함께 모시고 살았다는 조건을 남김으

로써 완전 해방권을 갖추어 전부가 천국행의 축복받는 가정의 무리가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전히 빌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이 식전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오며, 이 일을 동행 성사하여 선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나이다. 아주, 아주, 아주! (298-217, 1999.01.08)

23 영계에 있는 모든 선조들을 해방해 주어야 합니다. 사탄도 해방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준 160가정들이 가인권 일족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일족과 연결시켜서 헌납식을 해야 됩니다. 총생축헌납식을 하면 그 기반 위에서 120대 조상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대 조상과 더불어 120대 왕과 대통령들을 축복함으로써 그 백성과 아들과 왕이 주류에 대해서 횡적으로 방계의 황족권이 됩니다. 이들 전체를 축복할 수 있는 해방을 해주어야 됩니다. 120가정은 예수님이 이스라엘권의 나라를 중심삼고 해방해 주려던 것인데 영계에서 그것을 다 해방해 주어야 됩니다. 기독교권을 전부 해방해 줘야 합니다. 참부모의 시대이기 때문에 120대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통일천하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0대를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참부모와 하나님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298-221, 1999.01.08.) p. 1211

24 하나님은 지옥의 문을 열어서 살인마까지 축복해 주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대담하게도 지옥문을 열고 천국으로 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통일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영육 결혼을 해서 지상에서 삼일식까지 하게 했습니다. 영육 축복 일체권을 이루어 삼일식까지 하게 되었으니 지상에서 결혼도 못하고 영계에 가 있는 애혼들과 16세 이상 연령 된 모든 사람들까지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 지옥문을 열고 영계에 간 모든 사람들 앞에 축복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혈족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완전히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죽은 모든 영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조상들이 축복받은 권내에서 영계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 기반을 전부 탕감복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계는 타락한 인간이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영계에서는 완성한 축복가정들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담이 완성한 이후에 생활할 천국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면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부수는 것입니다. 모든 지상의 일족들은 천국행, 출애급과 같이 지상세계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출애급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참부모, 가정왕으로서 세계, 지구성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300-306, 1999.04.11)

자르딘 제8 선언 - 천주참부모연합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 탄신 8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00년 2월 13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천주참부모연합을 선포하시고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창립하셨다. 그리고 천주참부모연합 선포는 자르딘 제8 선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다.

<자르딘 제8 선언 요지> 참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 개인완성·가정완성·국가완성·세계완성, 하나님 해방, 참부모 해방, 사탄 해방, 지옥 해방이었다. 참부모가 천주의 모든 것을 연합한 천주참부모연합의 중심이 된다. 천주평화통일가정당으로 나라를 세우면 백성은 다시 호적에 올려 입적을 해야 된다. (300-306, 1999.04.11) p. 1212

25 하나님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니 아들딸이 풀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참부모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천주참부모연합은 영계와 육계의 연합입니다. (316-301, 2000.02.15)

26 전체 천주가 참부모연합체입니다. 참부모는 천주와 국가 연합체입니다. 참부모를 이루지 않으면 만물인 생물·광물세계가 전부 완성이 안 됩니다. 영계도 그렇습니다. 물고기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광물까지도 전부 참부모의 이름을 되받지 않고는 해방이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참부모연합입니다. 천주 자체가 이미 하나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있으니 지상에서도 반드시 하나돼야 합니다. 국가들은 지금까지 통일천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들을 국가메시아들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316-294, 2000.02.15)

27 아버님이 지금까지 개인완성·국가완성·세계완성, 하나님 해방, 참부모 해방을 해 나왔습니다. 사탄까지도 해방해서 지옥을 해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연의 에덴동산에서는 아담 가정 하나였지만 세계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가치가 동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이 싸워 이룬 가치가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 가치가 되었으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함으로써 일체 다른 것이 없는 순수한 입장에서 흡수 통일될 때에는 참부모의 사랑·생명·혈통과 양심 기반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탄은 상관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세계까지 자유자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천주참부모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참부모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 앞에 가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완성 가정완성,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316-252, 2000.02.15)

28 천주참부모연합을 만든 것은 하늘 문제가 땅 문제를 중심삼고 전권하에 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전부가 갈라져 있습니다. 가인 아벨이 갈라지고, 부모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세계가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닏. 몸 마음이 갈라져서 개인이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종족이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국가가 갈라지고, 세계가 갈라지고, 하늘 땅이 갈라진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일하느냐? 이 근본에 모두 일체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천주참부모연합입니다. 참부모가 천주의 모든 것을 연합한 것의 중심입니다. (317-009, 2000.02.15)

3절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와 40일 수련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

참부모님께서는 1998년 7월 1일 브라질 자르딘에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를 세우고 전 세계 축복가정 40일수련을 실시하셨다. 모든 축복가정은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p. 1213)

1 브라질 자르딘에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를 짓고 있습니다.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상가정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상세계도 변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상세계는 변하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세계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사람'하면 하나의 모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라는 말에는 절대의 개념, 유일의 개념, 불변의 개념, 영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294-292, 1998.08.09)

2 자르딘에 수련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르딘에서 일주일 수련을 계획해서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곳이 5천 명은 정상 수용이고, 대강당 주변에 편안히 앉아서 들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시설을 하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소가 하나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버님의 구상이 멋지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으니 핵심요원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맥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인맥만 장악하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287-227, 1997.10.04)

3 자르딘에 수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복가정 40일 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가 17세 18세가 되면 가정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미의 전체 축복가정은 40일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착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 모델형에 맞게끔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정 정착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고 그물을 새로 떠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287-250, 1997.10.04)

4 아버님이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를 브라질 자르딘에 세웠습니다. 한국의 맨 반대쪽에 세운 것입니다. 그곳을 거쳐 가야 됩니다. 일본 식구, 한국 식구들은 전부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위기대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와 아들딸이 가서 교육받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정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온 사람은 40일수련을 끝마쳤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과 같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내가 못 오면 아들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부모와 자식까지 다 와서 교육받아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근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95-151, 1998.08.19)

5 가정교육이 끝나면 일족 교육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 가면 채찍으로 후려갈겨서라도 자르딘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자르딘이 아니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님이 맨 꼭대기에 있다가 세상에서 쫓겨나서 지상·천상천국을 다 못 이루었으니 오른편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수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광야에서 개인·가정·종족을 중심삼고 가정적으로 접붙여 사탄 편 가정 위에 올라가서 가정적 대표인 부모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환경에 가려면 여기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이 자르딘의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입니다. (298-062, 1999.01.01)

6 축복은 사방에서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출발선은 한 점입니다. 그곳이 남미 자르딘 수련소입니다.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이상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 부처끼리만 와서도 안 됩니다. 원래는 아들딸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세계복귀시대로 들어가려면 자기 아들딸만이 아니라 일족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전체가 축복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교회축복, 그다음에 나라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축복을 받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그 축복을 앞에 놓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가정교육이 지금 자르딘 교육입니다. (299-207, 1992.02.16) p. 1215

7 아버님이 하는 일은 아버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적인 전체 내용이 횡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환경적 여건에 맞을 수 있는 주체 대상을 고루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대에 이런 현실을 보고 있지만 이 뜻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그 복잡한 내용을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뜻의 완성과 뜻을 중심삼고 해방의 자리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과 여러분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정착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영원한 개인적 정착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르딘에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를 만들어서 가정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땅 끝에서 땅 끝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귀입니다. 지구성을 돌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자르딘 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98-010, 1998.12.31)

축복가정 40일수련의 의의

자르딘의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에서 진행된 축복가정 40일수련은 전 세계 축복가정들이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수련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상가정 실현을 위한 재교육이다. 하나님을 닮아 절대가정·유일가정·불변가정·영원가정이 되어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8 자르딘에서 하는 교육은 완전히 천국을 무사통과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자르딘에 가정교육 훈련소가 생겨서 여기에서 이상가정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가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위기대의 네 사람이 와서 교육 받아야 합니다. 부모만이 아니고 가정 전체

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입적이든 무엇이든 부모님을 못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축복받았더라도 자르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는 자리입니다. (297-071, 1998.11.15) p. 1217

9 각 나라에는 오래된 축복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르딘에 오게 해서 특별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40일 수련을 하는데 자기 아들딸과 같이 오라는 것입니다. 각국의 원로 축복가정 40일 수련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세계적으로 다 파송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서 새로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이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 축복가정들은 40일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수련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나라밖에 몰랐습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 밖에 몰랐는데 세계적인 어머니의 책임을 하려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북미가 연결된 남미에 와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294-195, 1998.06.14)

10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가정 전체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시대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는 이 40일 동안에 새로이 결의해야 됩니다. 과거에 축복받고 생활하던 것을 비판하고 현재의 입장에서 뜻을 대해 성약시대에 합당한 가정으로서 새로이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축복가정들과 연결되고, 전 세게 축복가정들과 연결된 것이 앞으로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설정되면 자동적으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최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296-016, 1998.10.10)

11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 네 요소가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권에 맞는 상대적인 존재를 끌어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절대부모·유일부모·불변부모·영원부모가 되어야 하고 절대자녀·유일자녀·불변자녀·영원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부부·유일부부·불변부부·영원부부, 절대가정·유일가정·불변가정·영원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룸으로써 지상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기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한 모든 것이 그 부모·자녀·부부, 그리고 가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성시키는 것이 자르딘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골수에 새기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자르딘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의 철칙입니다. 지구 끝에까지 가더라도 여기에서 결심한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05-261, 1998.08.21)

4절 남북미 통일운동의 과제와 실천

남북미 통일의 방향

참부모님께서는 남북미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북미가 아벨의 입장에서 가인 입장에 있는 남미를 도와줘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남북미를 통일할 수 있는 각종 기구를 만들고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그 필요성을 역설하셨다. 특히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남북미가 하나되면 역사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웠던 기독교문화권의 유럽도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될 수 있으며, 나아가 유대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될 수 있다고 보셨다. 이를 위해 교차축복결혼을 통해 남미의 천주교와 북미의 개신교가 하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p. 1217)

1 기독교를 중심삼고 미국이 아벨이면 남미는 천주교권으로 가인입니다. 라틴문화권, 천주교는 가인권입니다. 형님과 마찬가지입

니다. 형님인 천주교는 프로테스탄트교, 동생을 통해야 됩니다. 동생은 이 천주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미국에서 신교, 동생 아벨국가권 북미를 하나 만들어 그 위에 부모님이 와서 미국에 닦아진 모든 세력 기반을 통해 이 남미 제국, 천주교문화권을 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천주교문화권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 통일교회가 천주교문화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가 생겼으면 천주교문화권이 통일교회를 통해서 가야 되고, 브라질 사람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268-197, 1995.04.01)

2 남북미가 하나될 때에는 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은 한 나라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연합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이 두 나라가 원수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유럽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같은 그 시대를 찾아 들어가면 기독교문화권입니다. 결국 남북미만 하나된다면 유럽이 하나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이 하나된 다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하나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문제는 남북미가 어떻게 하나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기준에서 기독교문화권이 되어 있고 현대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미국을 중심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을 남미가 지금까지 반대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만 된다면 막강한 세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도 자연히 기독교문화권, 남북미도 기독교문화권, 그다음에 아시아도 기독교문화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남북미 기독교문화권을 하나로 만들어서 아시아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아시아와 남북미만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길이 없습니다. (268-311, 1995.04.03) p. 1218

3 미국 사람은 남미에 가서 훈련하고 남미 사람은 미국에 가서

훈련해야 됩니다. 두 나라 말을 해서 앞으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남미 전도, 북미 전도를 해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 교차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차결혼을 시키면 부모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문화권은 다 형제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원수 관계인데 이 원수 나라 사람도 내가 교차 결혼을 시켰으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차결혼은 문제없습니다. 교차결혼을 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71-284, 1995.08.28)

4 남북미만 하나되면 유럽은 자동적으로 통일되고, 로마의 실패와 유대교의 실패와 야곱 가정에서의 실패까지 복귀하는 것입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져 싸우던 그런 분립된 역사로부터 에덴에 돌아가서 아담과 해와, 몸과 마음이 갈라진 그 연(緣)까지 전부 땜질해서 갖다 메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세계적 가정까지 타락권 내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계 레벨, 아담 가정 레벨, 이것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전부가 가인 아벨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반대로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총탕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섭리사적 전체를 다 탕감했기 때문에 전체 대승리입니다. 8단계 승리, 전체 승리라는 표어가 됩니다. 남북미가 하나되면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가 싸우던 것이 끝나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269-200, 1995.04.23)

5 아버님이 기독교 이상의 아벨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통일교회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되기 때문에 미국이 플러스가 됩니다. 남미는 천주교인데, 형이니까 가인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게 되면 세계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가 갈라진 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로마가 예

수님을 반대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기독교가 세계적 신부권으로 발전한 다음에 그 중간에 나온 것이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이 분쟁 중입니다. 극동에서는 김일성과 통일교회가 가인 아벨 입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만 되면 천하가 다 하나됩니다. 세계적 대표 국가형인 미국이 아벨 입장에 서고 남미는 가인 입장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통일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세계권 내에 있는 유럽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고 종족을 대표하는 아벨권과 가인권으로 갈라진 것이 하나될 수 있고 몸과 마음이 통일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갖다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남미를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267-043, 1994.12.27) p. 1219

6 북미가 아벨의 입장에 서서 가인 입장에 있는 남미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를 투입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기 생명과 재산을 남미를 위해 투입한다면 남미를 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고기압이 있으면 자연히 저기압을 찾아가서 메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단계에 있는 미국이 남미를 구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한 남미는 필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남미를 위해 전부를 투입해야 됩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장자권을 대표한 남미와 하나되지 않고는 참가정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가정과 연결되지 못하면 참다운 지상천국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269-285, 1995.05.01)

7 개신교가 아벨의 자리에 서서 남미의 구교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남미를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중심이 없습니다. 개인 중심이

없고, 가정 중심이 없고, 국가 중심이 없고, 세계 중심이 없는데 부모님이 와서 개인 중심을 보여 주고 가정 중심, 종족·민족·국가 중심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들과 세계 국가를 대표할 수 있고 유엔이 바라는 형태를 이루게 되면 전 세계가 그것을 아벨 국가기준으로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입니다. 미국은 반대했지만 남미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통일교회가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장자권복귀·부모권복귀·왕권복귀를 할 수 있는 시대이니 이것을 밀고 나가더라도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69-285, 1995.05.01) p. 1220

8 미국을 보나 한국을 보나 통일적인 운세로 방향을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기독교와 하나되면 미국은 아벨 국가가 됩니다. 남미를 하나 만들면 독일을 중심삼고 갈라진 구교와 신교가 자연히 이러한 영향을 받아 통일적 문화권이 됨으로써 유럽의 여러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길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유대나라를 중심삼고 돌게 된다면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가인 아베을 중심삼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노정이 어디에나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원리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옛날의 아담가정이 되어 노아 가정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반대받으며 길을 닦았습니다. 이제 남북미를 통일해서 부모님을 따라 다시 돌아가게 되면 세계는 하나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부모님은 아담 가정이 혈통적인 기준에서 실패한 것을 복귀함으로써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로부터 그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시대로부터 재림시대까지 전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남북미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되면 한반도의 남북통일은 물론 이스라엘과 이슬람, 유럽까지 통일이 문제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입니다. (266-134, 1994.12.22)

9 참부모가 남미를 찾아온 이때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기독교문화권이 싸우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내가 잘 압니다. 그런 슬픈 사연을 다 잊어버리고 남미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중심삼고 닦아진 통일교회 기반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은 단지 절대복종·절대순종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의 절대 불신, 절대 심정불일치권을 넘어가려니 절대신앙, 절대통일이 필요합니다. (268-177, 1995.03.31)

남북미 통일운동과 17개국 순회강연

참부모님께서는 중남미통일연합(AULA)과 남북미통일연합(CAUSA)을 창설하여 중남미 33개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함으로써 남미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이끄셨다. 특히 남북미의 통일운동을 위해 한국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에 은행, 신문사, 교육기관, 호텔, 백화점 등을 세우고 남북미활동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셨다. 한편으로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4개국을 경제적으로 연합함으로써 남미가 하나되도록 이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가 남미를 도와주게 함으로써 남북미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자 하셨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1995년 5월부터 7월까지 남미 17개국을 순회하시고 '참된 가정과 나'라는 주제로 강연하셨다. 이 기간에 8개국의 대통령을 만나셨다. (p. 1221)

10 아버님은 남미에서 공산혁명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판국이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총칼 앞에 맞서 중남미통일연합을 만들고 남북미통일연합을 만들어 돈을 써 가면서 사상적 교육을 했습니다. 미국의 공산세력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279-131, 1996.08.01)

11 미국이 나를 싫다고 쫓아냈지만 남미는 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과 같이 제일 밑창에서부터 올라왔지만 남미에서는 최고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미 각 나라의 500명에 이르는 천재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원하고, 대학교 총장과 신문사가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천재적인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남미에서 아버님이 교육한 천재적인 사람들이 북미를 지도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의 대표국인 미국보다 천주교 국가는 가정제도가 공고합니다. 미국 하나로는 이상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상대로 만들 것이냐? 유럽은 언제나 갈라져 있지만 남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는 미국과 같이 기독교가 문화적인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 두 대륙을 어떻게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271-320, 1995.09.03)

12 아버님은 중남미 33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브라질도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아버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도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이상으로 남미 사람들이 개인적 중심을 찾고, 가정적 중심을 찾고, 종족·민족·국가적 중심을 찾고, 세계적 중심을 찾고, 천주적 중심을 찾아서 하나님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남미가 되면 남미가 먼저 지상천국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269-287, 1995.05.01) p. 1222

13 남미를 중심삼고 볼 때 브라질이 가인이면 파라과이는 아벨입니다. 파라과이는 동양 사람 피가 섞인 혼혈국가이기 때문에 아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초국민적 초인류애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파라과이는 아벨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하게 되면 파라과이나 우루과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개국 경제통

일권을 이루어 미국을 방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와 남미 간 분쟁의 중간권에 참부모님이 서서 축복으로 구교와 신교를 통일하고 있으므로 남미와 북미가 통일되는 대전환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구교 신자도 신교 신자도, 남미 사람도 북미 사람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일권에서 축복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문화권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남미와 북미, 구교와 신교가 일체권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307-061, 1998.11.06)

14 아버님은 남미의 본부를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한국과 직선으로 축을 세우게 되면 그 반대편입니다. 축을 세우고, 여기 꼭대기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한국입니다. 지구성을 뚫고 거기에 물을 떨어뜨리면 우루과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 은행을 만들고, 신문사를 만들고,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남미에 아버님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뒤넘기치면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해서 별의별 고충을 다 겪었습니다. 우루과이의 우리 호텔이 남미에서 제일가는 호텔입니다. 중남미 33개국 지도층 교육을 우리 호텔에서 했습니다. 호텔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됩니다. (566-091, 2007.06.15)

15 남미에 가서 보면 옛날에 내가 자랄 때 고향에서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낮아 보입니다. 햇빛이 좋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초목이 좋습니다.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지역이 지상의 이상천국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벌써 50년 전부터 내가 순회하면서 그 땅을 주목하고 나왔습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아무리 아버님을 쫓아내려고 하더라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닦아진 기반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버님이 거

쳐 가면서 역사에 남긴 모든 위업이나 실적이 자기들 자식을 기르는 데 교육의 재료가 되고, 문화의 재료, 정치의 재료, 이상적 재료가 돼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자기 주변을 포위하고도 남는 것을 알게 되면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3-172, 2003.01.21)

16 남미에 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지상천국 천상천국으로서, 같이 살 수 있는 동족·친족·민족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같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자기 나라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넣어 지상에 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 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해야 됩니다. 인류의 식량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288-079, 1997.10.31)

17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못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의 정글에 빠져 있으니 아버님이 맨 밑창에 가서 이것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이미 우루과이를 아벨로 세워 놓았는데 이 아벨의 상대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어머니가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신이 와서 가인 아벨을 낳아 길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이 가인과 아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0-126, 1995.05.14)

18 예수님의 일생을 해원성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뤄야 할 가정·종족·민족적 기반을 중심삼고 통일적 주도국가를 이루어 로마를 소화할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한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미의 33인을 중심삼고 17개국을 연결하여 상하의 국가적 핵심요원들을 동원해 예수님이 나라를 움직이지 못했던 한을 풀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가정과 일파를 중심삼고 새로운 이스라엘 건국이념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겠기에 어머니가 이것을 전부 인수받아서 남미를 순회할 때 33인이 핵심이 되어 각국의 상하의원을 동원해 17개국 연합운동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을 거치고 한국과 일본을 거쳐서 세계 판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280-219, 1997.01.01)

19 사탄세계의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는 가정 발판을 세계에 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시대를 지나서 왕권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인적 왕권시대가 아벨적 왕권시대로 이양되어 가는 때입니다. 부모님시대로부터 세계 왕권시대, 아벨 왕권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권시대를 지나서 왕권시대로 넘어갑니다. 사탄 편 왕권시대에서 하늘 편 왕권시대, 가인 왕권시대에서 아벨 왕권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17개국 순회강연이었습니다. (275-283, 1996.01.01) p. 1224

5절 중남미를 중심한 이상공동체 실현

중남미의 환경자원 보존과 개발

브라질의 자르딘과 인접한 판타날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이 인간의 손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판타날이 80퍼센트 이상 고유의 모습 그대로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촌을 세울 수 있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정성을 들이셨다. 그리고 남미 대륙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급속냉동해서 세계 각 지역으로 판매하는 것을 계획하셨으며, 동시에 남미에 대규모의 양식장을 건립하고자 하셨다. 남미는 북반구와 기후가 반대이므로 이를 활용한 낚시 관광사업도 구상하셨다. (p. 1225)

1 죽음길을 생명길로 바꿔 나가는 것이 복귀의 길입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야 사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비참한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려니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투입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현재의 나를 죽여 미래의 부활체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길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책임자의 길입니다. 책임자는 자기를 투입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상원의원이나 세계적으로 이름이 잇는 사람 가운데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남미의 산골짜기, 농촌에 가서 지내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창조할 때와 같은 원시적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귀입니다. 그 물을 사랑하고 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강에는 별의별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좋아했습니다. 통일교회 여러분은 한 달 동안 고기를 잡아먹었으면, 그 대신 곡식이나 먹이를 한 보따리씩 가져다 먹여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환 법도입니다. (276-024, 1996.01.02)

2 남미에 2천 헥타르 정도 되는 땅을 사서 지금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게 된다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장을 경영하면서 자급자족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놀라운 것이, 열대지방의 과일 나무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농장을 사기 전에 농장 주인이 없을 때에 주로 갔었는데 뜰에 열대과일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었습니다. 닭들이 밟고 다니는 마당에 심어 놨습니다. 파인애플 냄새가 향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었습니다. 파인애플인데 왜 이렇게 내버려두느냐고 했더니 그냥 내버려 두긴 왜 내버려두느냐는 것입니다. 머글 수

있게 되면 잘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종류의 바나나가 열리는 바나나나무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큰 바나나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맛있는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렇게 조그마한 것을 가져옵니다. 익은 바나나나무 아래에 가면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자연히 생긴 그 열매만 따먹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67-031, 1994.12.27)

3 남미에 가 보니까 놀라운 것이, 보통 소나무 같은 것을 쓰려면 50년 이상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는 5년 된 것도 굉장히 굵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가 15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나무가 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흑단은 남미 열대지방에서 나는 비싼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말뚝을 해 박으면 100년에서 150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소식입니다. 그런 나무를 5년 내지 10년 만에 한 번 잘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원시림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9억 평이 넘습니다. 10억 평에 가까운 그 땅에 완전히 원시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소를 만들어서 나무를 자르자마자 모두 제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만 되면 완전히 주택용 재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좋은 이상적 모델 주택을 해놓고 나중에 벽돌을 구워서 붙이기만 하면 현대식 주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267-030, 1994.12.27) p. 1225

4 브라질에서 쓰는 목재는 파라과이에서 운반해 오고 있습니다. 이 원시림의 나무 값만 해도 대단합니다. 제주도의 3배 이상 되는 그 땅에 나무가 꽉 차 있습니다. 그 나무만 잘라서 집을 짓게 된다면 이상적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조립식으로

건축을 해서 팔아 가지고 목장도 만들 수 있을 만큼 모든 자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67-036, 1994.12.27) p. 1226

5 하나님은 환경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통일교회도 전도할 때에는 먼저 환경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남미에 와서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적 농지, 이상적 산림 기지, 이상적 수산사업 기지, 이상적 산업기지를 다 준비해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 3만 평이 넘는 땅에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통일교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표본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해야 됩니다. 물이 있는 데에서는 양식을 해야 됩니다. 땅이 있으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세계가 지금 산소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수목을 벌채하게 되면 유럽이 산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벌채를 못하게 하니까 아마존강 유역을 개발하는 브라질은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달라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다 빈 곳이 없게끔 나무를 심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산림을 가꿔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1-067, 1997.01.02)

6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남미입니다. 남미의 모든 지역을 알고 점차적으로 착지하여 물에 대한 관리 문제, 지역에 대한 개척 문제를 해결해서 신문화 도시가 아니라 농촌과 연결된 자연 문화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 물이 있는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이 금후의 세계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294-174, 1998.06.14)

7 우루과이에 목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브라질이나 우루과이에는 목장을 움직여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번식한 새끼들을 세계 160개 국가에 나눠 줘서 거기에서 기르게 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

다. 돈으로 주면 써서 없어지지만 소는 자꾸 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고개만 넘어가면 세계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목장 주인이 되고 농장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도 할 수 있고, 낚시 같은 취미생활을 어디 가서든지 즐길 수 있는 세계 판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판타날에 갈 때 1천 헥타르의 땅이 70만 달러였습니다. 소 700마리에 농장까지 합해서 70만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파라과이입니다. 닭도 키우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고향이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전부 코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농장 가운데 유치원을 만들고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오색인종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개 국가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은 뒤 각 국가에 돌아가 고향 향토를 개발하면 재창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66-140, 1994.12.22) p. 1227

8 내가 양식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활어 요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내가 코치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디어입니다. 여과장치를 해서 수조의 물을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우리가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잡은 킹새먼이나 실버새먼 같은 비싼 고기들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산 채로 일본 시장에 가져다가 파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활어는 죽어서 냉동된 고기보다 3배 내지 5배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장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활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잡는 것만으로는 다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낚시로 해서 산 채로 공급할 수도 있지만 양식을 해서 활어를 보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가정, 마을에까지 우리 탱크를 만들어 배치해서 거기에 책임자를 세워 1년에 생선을 몇 파운드나 가져갔는지 그것만 계산해서 대금은 반년에 한 번씩 은행을 통해서

결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으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생선을 사 먹지 말래도 사 먹게 됩니다.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을 함으로써 경제적 유통구조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광공원 같은 데에 그런 것을 크게 만들어 놓고 책임자 한 명을 세워서 맡겨 놓으면 장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선회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207-120, 1990.11.01)

9 파라과이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다 먹지도 못하고 썩혀 버립니다. 그러니 거기 강을 중심삼고 우리 요원들이 낚시관광을 안내하면서 물고기를 사서 강변의 큰 냉동실에 모아 일본이나 유럽, 중국으로 팔자는 것입니다. 급속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면 현지에서 잡은 물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1만 톤 이상 되는 배를 가지고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잡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육대주의 우리 160개 기지에서 길러서 잡은 물고기도 사방으로 날라 반대편 지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있을 때에는 북쪽에는 없고, 북쪽에 있을 때에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교체 분배해서 얼마든지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270-063, 1995.05.04)

10 남미의 산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을 가지고 완전히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물은 지하수가 흐르는 곳을 파야지 다른 곳을 파게 되면 아무리 파더라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 장사만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힘, 엔진의 힘을 중심삼고 터널을 파서 십리 백리 천리 떨어진 곳에 양어장 빌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의 무역센터보다 높은 빌딩을 지어서 고기 양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타날의 물고기 종류가 수천 종인데, 그것을 빌딩에서 양식해서 컴퓨터에 자료를 넣어 버튼만 누르면 지나가는 사

람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사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펄펄 뛰는 물고기를 생선회로 해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302-100, 1999.06.01)

11 아버님이 남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절기에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유치하려면 사계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겨울이 문제입니다. 사계절만 잘 연결될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전개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알래스카의 코디악과 여기는 반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피한을 가는 데 반하여 다른 한쪽에서는 피서를 갑니다. 엇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북반구와 남반구를 교차시켜 계절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낚시를 하더라도 여름에 하던 것이 겨울에는 막힙니다. 이것을 사시장철 어떻게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디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체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여름이 더울 때입니다. 그러니 코디악에 가도 되는데 '남미는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다. 그러니 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춘하추동을 한국 사람 앞에 엇바꾸어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관광시설을 하게 된다면 춘하추동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0-300, 1995.07)

의료 · 교육지원과 레다 문화도시 건설

참부모님께서는 남미 판타날 지역에 도로를 만들어 주고 29대의 구급차를 기증하셨다. 판타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 사정이 나빠 병이 나더라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을 알고 도로를 만들어 주고 구급차를 지원하신 것이다. 또한 자르딘에 학교를 건립하고 인재를 교육하셨으며, 나아가 미국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텔레비전과 VTR를 통해 교육함으로써 남미의 교육수준을 높이고자 하셨다. 참부모님께서 남미에 머무르면서 자르딘에 이어 많은 정성을 기울인 곳이 차코 지역이다. 차코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그랜드차코 지역의 일부로 면

적은 25만 제곱킬로미터(750억 평)에 달한다. 1999년 8월 일본 출신 국가메시아들에게 차코 지역에 있는 푸에르토 레다의 개척을 지시하셨다. 레다는 차코에서도 사람이 살아 가기에 가장 힘든 곳이지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시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레다에 8만 헥타르의 땅을 구입해서 개발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레다를 중심으로 모범 농장과 모범 수산사업 시설을 만들고 자연과 조화된 문화도시 건설을 계획하셨다. (p. 1229)

12 남미의 판타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길이 없어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길을 내서 자유왕래 하게 하여 세계로 뻗어가고 날아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을 아버님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아기가 아파도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구급차를 한 대씩 구비해 주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을 구비해 줬습니다. 그때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그 지역의 주지사가 오고 경찰서장, 시장, 병원장들이 모인 데에서 내가 전달하여 적절히 쓰게끔 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50대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500대, 몇 천 대까지 불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정에 의사를 불로 올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276-196, 1996.02.19)

13 미국에서 하던 대로 남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텔레비전과 VTR만 갖춰져 있으면 미국 방송을 틀어놓고 그 교재를 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그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해서 공부한 것을 문답해서 지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이 모일 때, 차가 필요하면 구급차를 중심삼고 학교로 안내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구급차를 이중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인

구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대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농사짓는 법이라든가 광야[5]를 다룰 수 있는 방법, 양식하는 방법을 전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까지 나오면 그 지역의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목장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개발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등하교를 거쳐 대학교를 졸업하는 16년 동안, 박사 코스까지 해서 20년 동안에 목장에서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체제에 들어오면 자기들 집에서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276-197, 1996.02.19) p. 1230

14 자르딘에 학교를 지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전체를 수용할 수 없으니까 본부에서는 특수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합니다. 유치원은 각 도시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대학에 보내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산 사업 방법, 산림을 가꾸는 방법, 농사를 짓는 방법,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방법 등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에 지은 것을 확대하여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단과대학을 중심삼고 종합대학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다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중남미 33개국의 33개 도시에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실 2개를 만드는 데에 70평이면 되는데, 5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실 칸막이를 미닫이로 하

5) 廣野(넓은 땅; 척박한 미개척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되면 두 개의 교실을 6개나 7개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객 몇 백 명이 가더라도 그 집 한 채에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용 숙소도 되고, 그다음에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그다음에는 훈련장소도 되는 것입니다. (281-300, 1997.03.09) p. 1231

15 내가 남미로 건너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계선을 넘고 안데스산맥의 고개를 넘으면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브라질 선교사와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일에 내가 찾아와서 개발할 것입니다. 아버지,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일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국 대신의 나라로 삼은 파라과이에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일본 식구들이 남미에 갈 수 있게 안 돼 있었습니다.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국가메시아들을 파라과이의 푸에르토레다로 보낸 것입니다. 8만 헥타르가 되는 거기에 배치했는데, 그 땅을 기적적으로 구입해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피폐한 도시 형태를 새로운 도시, 자연과 화합한 문화도시 형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레다에서부터 빅토리아 농장까지는 6시간 걸립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디오의 19개 족속이 사는 그 마을에 광장을 만들고 병원, 학교,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등을 대신할 종합센터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땅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2시간 걸리는 곳곳마다 기지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파라과이강과 아마존강에 50킬로미터마다 182곳의 초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초소를 지어서 관광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주인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정 출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거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야 할 고개를 넘기 위한 평지작업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눈

물을 흘리면서 그 지역을 순회해야 됩니다. (407-176, 2003.05.15)

16 천주의 모든 복귀의 중심적 사명이 해와 국가에 있습니다. 이 판타날 땅에서 누가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됩니까? 일본은 해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염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해수였습니다. 그것이 증발하고 순환운동을 하여 담수에 의해 산천초목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름을 만들어 세계로 새로운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고생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행복의 기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미래의 행복의 기지는 영원히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 이상 고생하여 판타날에서 세계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세계에 젖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1999.09.21, 파라과이 올림포) p. 1232

17 여러분을 판타날에 40일 동안 파견했습니다. 40일을 조건으로 40년 400년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400년 동안 카타콤에서 박해를 받으며 승리의 천국을 착륙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도 이렇게 세계의 복지를 건설하기 위해 400년이라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40년만이 아닙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뻐서 해야 됩니다. 이 땅을 그러한 기준으로 올려놓을 경우 미래에 관광의 왕국이 됩니다. 세계 만민이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일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어머니 나라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1999.09.21, 파라과이 올림포)

18 일본의 국가메시아들에게 빨리 파라과이의 푸에르토 레다에

농장을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해와 국가가 한 농장이라도 본보기를 만들어 세계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321-254, 2000.04.24)

19 페루 같은 나라에서는 정어리가 무진장 잡힙니다. 그래서 정어리를 잡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우더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고 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양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양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통해 레다를 중심한 판타날에 자리를 잡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보호입니다. 공해를 방지하면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26-281, 2000.07.15)

20 브라질은 흑인과 스패니시의 혼혈이 많고, 파라과이는 아시아인과 스패니시의 혼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1995년 5월 16일 중남미 17개국 순회강연을 파라과이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과라니족, 인디오들을 포섭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를 내줘서 기름값이 들어가더라도 주일 같은 날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다 농장에 집을 크게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 식구들을 다 불러서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 식구들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따로 한국 사람이 개척하고, 그다음에는 일본 사람이 개척하고, 그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육대주 책임자들이 개척해서 자기 지역에 연관적으로 배치하면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326-232, 2000.07.13) p. 1233

21 판타날에 냉동회사를 만들어서 현지인들이 잡은 물고기를 세계에 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냉동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그 냉동 컨테이너를 빌려 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빌려 쓰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180개의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레다 농장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를 빌려 거기에서 잡은 고기들을 냉동보과했다가 팔 수 있습니다.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판매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387-186, 2002.07.22)

22 육지의 원자재는 앞으로 50년도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00년 이내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양권을 우리가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식구들을 시켜서 파라과이강 유역에 레다 농장을 중심한 모범 농장이라든지 모범 수산사업 시설이라든지 모범 문화도시 형태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9-093, 2003.06.20)

23 일본 국가메시아들이 남미에 들어가서 레다 농장을 중심삼고 파라과이 지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3년 있으라고 했는데 3년이 아닙니다. 파라과이 전역을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하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해양기술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중심하고 세계를 개발하는 그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418-207, 2003.09.24)

사우스콘 4개국을 중심한 섭리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남미 4개국은 사우스콘으로 불리며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형성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남미에 평준화된 모델국가를 만들고 그것을 남미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셨다.

24 현재 남미에서는 사우스콘이라고 해서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

르헨티나 브라질의 4개국이 공동시장 개발을 위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모든 물자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4개국이 하나돼서 경제적으로 한 나라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파라과이 대통령이나 우루과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큰 나라들 틈새기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71-032, 1995.08.15) p. 1234

25 평준화된 모델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모델국가를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삼고 만들려고 합니다.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이 또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 나라들을 중심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네 나라는 모두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나라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루과이에는 우리 은행이 있고 컨벤션센터, 백화점,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국에 은행 지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남미 33개국까지 통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하나되어야 합니다. (268-057, 1995.02.07)

26 사우스콘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 네 나라만 합하면 남미 전체의 5분의 4가 될 것입니다. 남미 대부분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면세조치를 하고 물자가 자유로이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원간에 이 남미는 세계적 추세에 있어서 한 나라가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권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는 방대한 땅이 놀고 있습니다. 나라가 주인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목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무를 심어서 완전히 푸른 지대를 만들어야 되겠

다는 것입니다. (269-158, 1995.04.17)

27 사우스콘의 네 나라를 뭉치게 해서 인재들을 키우게 되면 앞으로 남미에 통일적인 인맥을 양성하게 됩니다. 선문대학과 브리지포트대학, 그다음에 리버티 유니버시티, 제리파웰 대학을 연합해서 우리가 4개의 대학을 사우스콘에 만들 터인데, 이것을 미국의 모든 재력과 모든 지식을 이동시키고 유럽 지역까지 동원해서 제일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부터 세계 저개발국가를 중심삼고 160개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면적으로 모든 문화**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 기준을 만들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삼고 160개 국가와 연결할 수 있는 문화를 전시하는 세계 전시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학을 중심삼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유학시설을 해 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동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세계가 거기에서 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269-163, 1995.04.17) p. 1235

28 남미에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합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대통령을 통해서 만들 것입니다. 우루과이에는 우리 은행이 있고, 파라과이 은행에서는 지분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국에 지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중심삼고 남미의 최고 은행가들을 모아서 중앙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은행보다도 큰 은행을 만들어서 연합체제로서 유통구조를 자율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82-201, 1997.03.12)

29 통일교회는 대학가와 언론계와 사상계와 금융계를 묶어야 됩니다. 금융계에 어떻게 기반을 닦느냐 하는 것이 남미에서의 은행 문제입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은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최첨단에 올라간 증권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값이라든지 은값을 결정하는 곳이 영국과 일본과 대만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브라질을 비롯한 사우스콘 4개국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자리 잡은 것은 그런 여건에서 세계 첨단적인 증권가를 조종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벌써 1980년부터 은행가들을 교육해 나왔습니다. (300-290, 1999.03.24)

30 파라과이를 중심삼고 내가 지시한 대로 해서 30만 헥타르에 이상향을 만들게 되면, 파라과이 국회를 통하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남미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우루과이와 하나되어 두 나라에게 '해라.'하게 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세관을 중심삼고 유통구조가 개방되니만큼 완전히 한 체제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정부가 아버님의 이상향에 대한 계획이 이 세계에 평화의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266-138, 1994.12.22) p. 1236

31 한국이 북이라면 남쪽 끝이 우루과이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루과이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에 대해 비웃었습니다. 미국의 책임자들도 미국에 더 보태지 왜 거기를 지원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 대통령은 아버님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을 만들었고, 호텔을 만들었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백화점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를 중심삼고 은행, 호텔 관광사업, 백화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경제적 유통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상적 기준에 있어서 천주교를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269-211, 1995.04.23)

32 미국은 맨 밑창에서 올라갔지만 이제 남미는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빠릅니다. 남미의 우루과이에는 벌써 1980년부터 내가 은행도 만들었고 호텔도 만들었고 신문사도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루과이가 바로 한국의 맨 밑창[6]입니다. 땅끝과 땅끝입니다. 축입니다. 내가 남미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은 중남미 33개국을 면세 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철폐해 경제유통로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개발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가톨릭이 지금까지 신교와 싸운 것에 대해 회개하고 일치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섭리적인 방향과 외적인 방향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71-031, 1995.08.15)

33 아버님이 파라과이 정부에 여당과 야당,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서 아버님을 대해야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 둘이 하나되어 참부모님을 모시면 그 나라는 세계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중심적 국가로서 남북미를 대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는 이미 내가 손을 댔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와 한국이 가인 아벨입니다. 결국 둘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파라과이는 사우스콘의 축입니다. 그래서 내가 브라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를 중심삼고 연합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4대 국가는 동서남북입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만 하나되면 그 축을 중심삼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하나되는 것입니다. (268-206, 1995.04.01)

---

6)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음.

제11편 초종교평화운동과 영계 해방 섭리

차례

제1장 초교파운동과 종교연합운동

1절 종교의 참뜻 ····· 1240
2절 종교를 통한 인류 구원과 하나님 해방 ····· 1249
3절 초교파운동과 기독교와의 대화 ····· 1259
4절 종교연합운동과 세계평화 ····· 1268

제2장 초종교평화운동과 초종교 축복결혼식

1절 국제종교재단과 세계종교의회 ····· 1276
2절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 1285
3절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과 초종교 축복결혼식 ····· 1290

제3장 영육계 일체시대와 영계 해방

1절 참부모님과 영계 ····· 1297
2절 영인 구원과 영계 해방 ····· 1306
3절 영육계 일체시대 주요 선포 의식들 ····· 1315
4절 영연세협회시대와 영계 대혁명 ····· 1339

제11편 초종교평화운동과 영계 해방 섭리

인류는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심정적 인연이 끊어지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무지 속에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의 영적 무지를 타개하고 구원섭리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방편으로 세운 것이 종교였다. 종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성인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인류를 각성시켜 왔으며, 마침내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서 부모의 종교 시대를 열고 모든 종교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토록 하기 위해 종교의 연합과 일치운동에 한평생을 바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일찍이 1960년대 중반부터 초교파운동을 전개하며 통일교회와 기독교단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셨고, 1970년대에는 한국종교협의회를 중심으로 종교연합운동에 앞장서셨다. 초교파운동과 종교연합운동은 종교인들을 화합과 통일로 이끄는 두 축으로서, 1980년대부터는 국가적 단계를 넘어 세계적인 초종교평화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종교제단과 세계종교의회, 세계평화종교연합,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등을 세우셨다.

참부모님의 종교연합활동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 그래서 종파를 초월한 초종교 축복결혼식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셨다. 2002년 미국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14만4천쌍 초종교 성직자 축복 결혼식'을 거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초종교 축복식을 주재하심으로써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세계를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 세계평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셨다.

참부모님께서 이와 같이 초종교평화운동을 이끌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깊게 체휼하는 자리에서 전체 영계의 실상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실현해야 될 천일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영육계에 걸쳐 탕감복귀 섭리 노정을 승리해 가시면서 타락의 역사로 인해 영계와 지상에 겹겹이 싸인 장벽을 허물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기반을 닦으셨으며 영계 해방의 길을 여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상과 영계를 마음껏 치리하실 수 있고 영계의 영인들과 지상인들이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영육계 일체권의 시대를 선포하셨다.

제1장 초교파운동과 종교연합운동

1절 종교의 참뜻

신에 대해 올바로 가르쳐야 할 종교

참부모님께서는 1946년 광복과 함께 공식 섭리노정을 출발하면서 종교를 앞세워

구원섭리와 세계평화를 주도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한평생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다. 참부모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밝히셨다. (p. 1240)

1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느냐? 모든 종교는 먼저 신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에 대해 가르쳐 주는 데도 막연하게 가르쳐 주는 종교는 불확실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세계적인 종교 가운데서 이런 내적인 깊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인간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은 아버지의 뼛골, 아버지의 혈육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의 인연은 세상의 그 어떤 공식이나 법도로도 끊을 수 없으며, 어떤 권세나 명예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만대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적인 중심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만유 앞에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018-108, 1967.05.28) p. 1240

2 오늘날까지 인간은 보이는 물질만을 추구해 나오다 보니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물질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물질세계만 연구하고 그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욕구는 아니었습니다. 물질세계를 초월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무형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이념에 의해서 무형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무리, 그러한 민족·국가·인류가

있다면 그들을 중심삼고 20세기의 물질문명을 초월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가 이룩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물질세계를 추구하다 보면 물질의 제1원인인 힘의 세계를 거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신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세계는 봉이지 않는 세계와 상응적인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들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사무친 내적 심정을 체휼하게 되면 천상의 모든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002-238, 1957.06.02) p. 1241

3 종교는 사람만을 위주로 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즉 신을 모체로 한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발원이요 본원이기 때문에 신을 빼놓은 종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중심삼은 권내에서만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천의를 받들어야 되고 천정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컫는 4대 성인들은 전부 종주들입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만일 사람이 만들었다면 사람을 위주로 할텐데,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성인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것이 종교문화권 세계입니다. (038-183, 1971.01.03)

4 참된 종교는 가공적인 이상이나 가공적인 인류애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본연의 문제에 들어가서 인간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도록 신에 대한 인식을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종교여야 합니다. 그 이상 참된 종교는 없습니다. 그 가치는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천개 만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상의 어떤 위인이나 성현들을 통합해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역사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자각된 경지에서의 개인적인 인식관·국가관·세계관·우주관 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고차적인 것이 없습니다. 심정문제는 생활권 내에서 벌어집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생활권 내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말한다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033-231, 1970.08.16) p. 1242

5 세계의 모든 문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사상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류역사와 종교는 공동 운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시대를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님이 이상세계와 이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 종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종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본심은 인류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종교라고 할 때의 '종(宗)'은 '마루 종'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마루 되는 가르침, 즉 대들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그 이상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이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양심이 최고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희망하는 그 정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하나님을 강조하고, 절대자인 이 우주의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023-126, 1969.05.18.)

6 절대적인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세기뿐만 아니라 역사를 두고 어떠한 식자층이나 어떠한 성인들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인류의 과업입니다. 시대적인 과업이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인 면에서 신을 찾아 나가는 철학적인 세계의 관이 있지만, 그와 달리 신을 만나서 신에서부터 시작하는 신학적인 세계의 관도 있습니다. 신을 만나서 신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 인류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탐구해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신과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생활 무대는 개인의 생활뿐만이 아니고 가정으로부터 사회·국가·세계의 생활권까지 발전시켜 나갑니다. 신의 생활이념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문화적으로 다르고, 지역적으로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습관이 다르니만큼 거기에 적응될 수 있는 종교적인 내용을 중심삼고 신과 더불어 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샤머니즘화된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방향성이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 생활권, 가정 생활권, 민족 생활권, 국가 생활권, 세계 생활권을 통하여 위대한 종교로 발전해 나왔을 것입니다. (240-261, 1992.12.13) p. 1243

7 종교는 진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라는 것은 진리만이 아닙니다. 주의와 사상은 진리를 중심삼고 나아가지만, 종교는 진리 외에 심정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주의와 사상에는 심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식과 부모가 말없이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무엇이 얽혀 있습니다. 논리적인 조건을 넘어 움직이는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는 조직적인 결합입니다. 심정적인 결합이 아니고 조직적인 결합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경

주자로서 역사적인 그 코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 시대적인 실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미래적인 내용, 그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역사적인 심정, 시대적인 심정, 미래적인 심정까지 갖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코스를 세워 나오고 닦아 나오기에 얼마나 수고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도 무난히 뚫고 나가리라고 봅니다. (007-140, 1959.08.09)

8 인간세계에 있어서 천주적인 이념을 가진 주의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이상의 주의 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대해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아들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즉 떼려야 뗄 수 없는 부자의 인연과 그 가치를 토대로 출발한 것이 종교입니다. 따라서 참종교는 단지 민족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국가, 미래의 세계, 더 나아가서는 천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지음 받은 땅과 인간과 삼위일체적인 관계로서 하나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지금까지 주종의 관계를 중시했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라는 선후의 관계 등의 질서적인 인연을 맺어 나왔습니다. 천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04-098, 1958.03.16) p. 1244

9 참부모는 영원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담 해와, 최고의 선조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여자, 하나의 남자입니다. 이들 인간조상이 참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타락함으로써 엉터리 부모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부모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이상

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법으로 비추어 볼 때 사랑하는 신랑 신부를 중심삼은 진정한 가정, 진정한 이상국가, 진정한 이상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종교가 아니면 참종교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부모가 태어나야만 진정한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이론을 가진 종교입니다. (257-131, 1994.03.14)

종교는 타락인간 수리공장

종교의 사명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고 하나님께서 본래 구상하셨던 창조본연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인류가 마치 고장 난 기계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는 고장 난 인간을 고치는 수리공장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10 종교는 천지창조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천륜의 도리를 따라갑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하나의 목적 세계를 향하여 섭리해 나오시니 그 방향을 향해 섭리해 나오시니 그 방향을 향해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육적 생활 전체를 부정합니다. 불교도 그러하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그냥 그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개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식적인 법도를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법도를 가르쳐 주는 곳이 통일교회요, 이런 공식적인 법도가 들어있는 것이 통일교회 교리입니다. 통일교회 교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복귀섭리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016-118, 1966.01.02)

11 종교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사람을 개조하는 곳입니다. 개조는 어떻게 하느냐? 몸과 마음이 영원히 싸우지 않는 평화의 자리에서 천주의 대주재를 대표한 하나의 상대적 자격과 실체적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자격을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적 생애를 향략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동작전을 해서 완수해 보자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086-034, 1976.03.04) p. 1245

12 인간 본래의 주인은 절대적이요 통일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지남철과 같이 주체 앞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높은 곳을 숭상하고 절대적인 것을 흠모할 수 있는 마음을 계발해 나왔습니다. 이 분야의 사명을 짊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몸보다도 강한 마음의 주체성을 갖추어 이 몸을 완전히 주도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입니다. (085-310, 1976.03.04)

13 참사랑만 임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몸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중심삼고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 종교를 세워 나왔습니다. 종교세계는 잘못된 인간을 수선하는 수리공장입니다. 부품을 만들어 고장 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몸과 마음을 하나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하고 연구를 해도 몸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다 깨져 나갑니다. 십년공부가 아니라 천년공부도로아미타불입니다. 이런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통일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준 성인이 없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왜 접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199-343,

1990.02.21)

14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이상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다가 타락함으로써 고장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어디로 향하고 어떤 주인을 따라 어떤 세계로 가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세 인류사회입니다. 종이 있다면 그 종보다도 못하고, 만물이 있다면 만물보다도 못한 가치의 자리로 떨어진 인간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그냥 맹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창조원리를 통해 온갖 역사를 수습해서 수리공정을 거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수습하고, 고장 난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수리공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101-139, 1978.10.29) p. 1246

15 여러분은 바로 고장 난 사람들입니다.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 삐삐거리기만 하지 제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고장이 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고자 하는데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장 난 인간을 수리하는 요령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장 난 사람들을 수리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었느냐, 또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를 왜 보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수리공장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 타락 직후 샤머니즘으로부터 발전해 나왔습니다. 작은 수리공장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수리공장으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039-278, 1971.01.15)

16 세계 문화권은 종교사상권과 종교문화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발원지는 종교입니다. 문명이 종교의 기반 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수리공장의 책임을 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4대 종교문화권 내에 전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수리공장에서 팔과 다리와 목과 머리를 만들었다면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전체를 조립하는 종합공장이 통일교회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교를 통일해야 되겠다고 간판을 들고 나온 것만 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 불교를 믿던 사람도 들어오고, 기독교를 믿던 사람도 들어오고, 유교를 믿던 사람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종교를 안 믿던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러니 통일교회는 종합종교입니다. 종합적으로 조립하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종합 수리공장이 된 것입니다. (039-278, 1971.01.15)

몸 마음 통일과 자아주관

참부모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갈라진 마음과 몸의 싸움으로부터 인류의 갈등과 분쟁이 비롯되었다고 보시고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종교는 몸과 마음을 통일한 터전 위에 모든 인간이 참사랑을 통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둬야 한다.

17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통일해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외침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도 다 허사입니다. 인간의 정의를 논할 수 있는 논리적 기원의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원의 터전이 없는 논법이라는 것은 현실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몸에서 완전히 통일되었다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몸 마음을 참사랑을 통해서 하나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몸 마음이 하나되어 있는 것은 서로 위하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몸은 마음을 위하고 마음은 몸을 위해 자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영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더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영생의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210-239, 1990.12.23) p. 1247

18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잘나기를 바라지만, 잘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날 수 있는 첩경은 나부터 바로잡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매일같이 싸우는 데도 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자기, 자기 아들딸, 손자, 천천만대 내려가더라도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왔다 갔지만 여기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으로 하나되어 공명의 경지에 들어가면 도를 안 통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핍박을 받고 몰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나 자신이 갈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직 아래에 들어가면 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방수(方手)를 알기 때문에 제아무리 야단하더라도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248-277, 1993.10.03)

19 여러분은 개인의 몸과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적 자리에 서 있는 마음은 몸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해 나왔습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일을 일생 동안 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삼고 몸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몸 마음이 하나된 거기에 하늘이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는 가인 아벨과 마찬가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둘이 하나될 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연을 중심삼고 하나된 가인 아벨 자리를 찾아 세우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시대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시대까지 정리해서 승리적 기반을 성립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해방, 아담 해와의 해방, 자녀**의** 해방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7-318, 1990.11.11) p. 1248

20 종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에 강한 힘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으면 정신이 쏠릴 만큼 자극을 받습니다. 몸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끔 마음속에 강한 충격을 주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주인이 하나님이로구타. 이 몸과 상관되어 있는 악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끔 마음속에 강한 힘을 보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과 몸의 힘이 비슷하니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 3배쯤, 5배쯤의 힘만 불어넣으면 마음이 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몸을 때려잡는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음에 강한 힘을 보급하는 것이 종교의 2대 역사(役事)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면 3년 동안만 몸을 끌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과 몸의 힘이 비슷비슷하니 몸이 굴복할 수 있도록 그저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금식을 해라. '온유겸손해야.'라고 합니다. 몸은 온유겸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겸손해라! 희생해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면 가운데 한 방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에서는 고생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085-310, 1976.03.04)

21 주체와 대상인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내가 도를 닦으면서 제일 고생한 것이 그것입니다. 몸 마음이 쉽게 하나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잠자는 것과 먹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정신이 헷갈립니다. 잠이 오면 눈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다음은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3대 원수입니다. 이 문제를 전부 청산지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표어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를 주름잡고 천하를 통일한다 하더라도 나 자체의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전부 일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232-123, 1992.07.03)

22 세계가 필요로 하는 종교는 어떠한 종교냐? 평화를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한 종교가 되는 것은 자기를 중요시하고, 또 자기를 중심한 소유관념이나 소유욕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역사시대에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중심한 주체적 관념에 지배받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의 역사를 따라가게 될 때에는 전쟁역사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하늘은 '자기를 희생시켜라! 자기를 부정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주체의 자리에 서더라도 자기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종교이 길입니다. (172-143, 1988.01.10)

2절 종교를 통한 인류 구원과 하나님 해방

종교의 목적은 인류 구원

종교는 구원섭리를 통해 인류를 창조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여 창조목적을 완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말씀과 사랑으로 식구들을 양육하시고 대외적으로는 종교연합운동을 통해 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셨다. (p. 1249)

1 인간이 제일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제일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어떠한 욕망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접붙여서 하나님과 관계된 욕망으로서 새로이 출발될 수 있는 욕망의 도상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입장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과 관계를 맺은 입장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입장을 거치지 않고는 타락의 인연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아무리 행복

의 요건을 지니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다도 강하고, 이 환경의 동기가 된 그분과 더불어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렇게 불쌍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시대를 책임지고 구원섭리를 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032-094, 1970.06.28)

2 역사는 반드시 사랑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통일된 목적세계로 넘어가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륜 생활의 도리의 길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실천한 경력을 자신 있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연을 거쳐 나오는 인류역사 가운데 종교 역사를 보게 될 때 오랜 역사와 더불어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계속되기 때문에 주류적 종교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려 가서 사랑의 가정을 이룸으로써 사랑의 종족을 이루고 사랑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주류 종교의 목적입니다. (136-212, 1985.12.29) p. 1250

3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악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을 길러 낼 것이냐? 이 천지를 창조한 주인이 있다면 이것은 그분에게 중대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길러 내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대하여 섭리해 나오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람을 길러 내는 방편으로 세우신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날부터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의 본심 깊은 곳에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마음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악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선민(善

民)의 기준,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향하는 선의 목적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은 우리가 선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016-108, 1966.01.02)

4 종교의 목적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세계를 넘어서 평화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볼 때 본래 인간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 나아서 나오면 구원됐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구하자 하는 것은 상황이 나쁘게 되었기 때문에 본연의 상태로 돌이키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새로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3-213, 1995.10.29)

5 하나님의 종교를 세운 목적은 전 세계의 돌감람나무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완성시키는 것이 종교의 책임이요 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죄인이 되었으니 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입니다. 따라서 종교의 목적은 인류를 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내가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잘 되겠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를 구하고, 인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인은 '내가 종교를 믿는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

로 돌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 아들딸, 내 자손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세계를 먼저 구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구원받으면 내 가정과 아들딸이 몽땅 구원받고, 세계가 구원받으면 내 나라도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교는 인류를 구하자고 하는 종교이며, 인류를 구해서 그 인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참된 종교인입니다. (080-201, 1975.10.23) p. 1251

6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기독교를 통일하고 나서 그 나머지 모든 종교들을 폐품같이 쓸어버리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계를 구하겠다는 그 구원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구하겠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종교를 수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이 지구성뿐만이 아니라 우주까지도 구원해야 됩니다. 과거·현재·미래의 인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지구성에 살다 간 모든 사람까지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요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가진 주체라면 종교를 통일한 후에는 기필코 이 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세계 전체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9-067, 1990.11.27)

7 종교가 찾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역사노정에서 인간이 찾아 나온 것도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중심삼은 세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 간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도 충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 앞에는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중심삼고 전 인류 앞에 본받을 수 있는 첩경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 길은 만민이 공통으로 흠모하며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부터 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034-346, 1970.09.20.)

개인 구원에서 가정 구원의 시대로

참부모님께서는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정임을 천명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바로 세워 그 가정으로부터 구원의 판도를 전 세계로 넓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위해 종교는 개인이 아닌 가정을 구원함으로써 세계복귀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1954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한 이후 40년 만인 1994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바꾼 것도 가정 구원의 중요성 때문이다. (p. 1252)

8 지금까지의 종교는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이래 지금까지 종교가 넘고자 한 하나의 고개였습니다. 이 개인의 고개를 넘고 나면 가정의 고개가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개인 구원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6천년 동안 개인 구원을 위줄로 하던 종교 형태에서 벗어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금후에 통일교회가 해결해야 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가정 구원을 목표로 삼고 나온 종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과정을 거쳐 나온 수많은 종교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개인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요, 국가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개인 구원을 종교의 목적으로 삼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교회가 가야 할 길 앞에는 가정의 고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고개를 넘는 데는 자기 혼자 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둘이 같이 넘어가야 합니다. 같이 넘어가는데 전후관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관계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해와는 천사장, 아담은 해와를 따라감으로 인해 타락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같은 입장, 평등한 입장, 동등한 입장에서 가야만 상대적인 구원이 성립되는 것

입니다. (031-010, 1970.04.06)

9 지금까지 교회는 어디까지나 개인 구원시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한 가정 구원섭리시대입니다. 가정들이 연합하게 되면 종친 구원섭리, 국가 구원섭리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친이 축복을 받으면 종친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축복을 받으면 나라가 구원을 받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원이 비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시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 갱인이 타락함으로써 가정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고, 가정이 하나되고, 나라가 하나되고, 세계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통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혈통이 연결됨으로써 전부 분열되었습니다. 이제는 참부모가 옴으로써 몸 마음이 하나된 부부를 중심삼고 가정이 하나된 터전 위에 전 세계가 복귀될 수 있는 평준화시대, 통일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참부모님이 참혈통을 가지고 와서 개인의 몸 마음을 연결지음으로써 완전히 하나된 남녀가 가정을 중심삼고 완성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성 가정이 확대된 자동적 횡적 확장의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285-167, 1997.05.01) p. 1253

10 지금까지의 종교는 어디까지나 개인 구원을 목적으로 하면서 개인을 악에서 구한다는 내용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종교는 개인을 중심삼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종교입니다. 천의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천정과 인정이 합해진 자리에서 어떠한 시련도 견뎌 낼 수 있는 가정 구원 운동이 새로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한 종교운동은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특정한 나라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초국가·초민족적인 기준에서 가정의 이념을 중심삼고 나타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금후 이 세계에 절대 필요한 종교일 것입니다. (032-199, 1970.07.15)

11 우리는 개인 구원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구원의 기틀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 형성의 기초가 되고 국가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가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참은 참끼리 합하지 말라고 해도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기름은 아무리 합하려고 해도 분리됩니다. 합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가정, 통일의 요건을 갖춘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델적인 가정으로 말미암아 종족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활해 오던 가정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현실적인 사회제도나 세계정세에 관점을 두고 거기에 일치시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가정과는 다릅니다. 모델적인 가정이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니요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을 초월합니다. (035-130, 1970.10.11)

12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 신앙을 해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세계를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종족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종교가 추구해 나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교회가 가는 길은 이와는 다릅니다. 개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가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종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종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민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국가를 찾는 것은 국가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찾기 위해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형성의 기

본은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구원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정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종적인 입장에서 상대적 관계를 맺었지만, 이 시대에는 종적인 입장에서만 상대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한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종적인 내용을 갖추어 내가 주체가 되어 종적인 하나의 실체가 되고, 그 실체는 횡적인 하나의 상대적 터전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앙자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오던 것과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일반 종교가 바라는 입장과 오늘날 통일교회가 바라는 입장이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045-061, 1971.06.13) p. 1254

13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이 하나될 수 있는 비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문제입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결실적인 가정의 기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색해 나갑니다. 그러한 기원이 나타나 씨를 뿌리면 새로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인 정상에서 가정적인 정상을 어떻게 뛰어 넘느냐를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적 정상에서 종족적 정상을 어떻게 뛰어넘느냐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구원되고, 그런 가정이 있어야 종족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또 그 종족은 민족의 정상을 넘어가야 하고, 그 민족은 국가적 정상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세계적인 정상을 타고 넘으면 세계복귀는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의 7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 7단계를 넘어 8단계에 올라서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031-192, 1970.05.31)

14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

고 했습니다. 그 독생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천지의 핵심을 설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첫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논하게 될 때 예수님 이상의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전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랑과 신부 이상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형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을 중심한 신의에 의한 가정과 인의에 의한 가정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소망의 길은 가정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라면 가정을 이룹니다. 인정의 보금자리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정의 보금자리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신을 중심삼은 동시에 인간을 중심삼은, 즉 신과 인간이 합한 가정을 모색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는 신과 인간이 합일한 가정이 나와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39-261, 1971.01.15) p. 1255

하나님 해방과 부모의 종교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창조본연의 세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는 데 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한평생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을 해원하기 위해 전력투구하셨고, 마침내 2001년 1월 13일 하나님왕권즉위식을 거행하심으로써 하나님 해방을 실체적으로 이루어 드리셨다. 그리고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출현하였고, 이들 종교는 복귀섭리역사의 진전에 따라 그 시대적 소명을 달리해 왔다. 참부모님께서는 종의 종교, 양자의 종교, 아들의 종교 시대를 지나 부모의 종교가 등장한다고 말씀하시고 통일교회가 부모 종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부모의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본연의 부모를 찾음으로써 모든 종교를 통일하고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최후의 종교라고 설명하셨다.

15 종교를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호메트도 자기보다 인

류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자기보다도 인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도 자기보다도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이상 인류를 사랑하고, 또 인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종교인들의 목적은 어떻게 인류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10-140, 1990.12.17) p. 1256

16 복귀노정은 개인복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씨로 해서 가정을 복귀해야 되고, 가정을 씨로 해서 종족을 복귀해야 되고, 종족을 중심삼고 민족·국가·세계, 더 나아가서는 천주복귀를 완성해야 하나님의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창조이상을 통해서 세웠던 경륜이 천주사적 입장에서 완성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실패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지금까지 해방된 자리에 계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사명은 바로 인류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인류를 해방하는 목적은 인류해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해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뜻이 완성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인류적이고 천주사적 행복의 기원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이 국가에도 적용되고, 종족에도 적용되고, 가정에도 적용되고, 개인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27-305, 1992.02.16)

17 지금까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의를 못 내렸습니다. 이러한 혼란된 세계에서 통일교회는 구원의 정의를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섭리는 복귀섭리라

는 것입니다. 복귀라는 말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아담 해와가 죄 짓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이 구원섭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나 메시아의 구원 목적,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목적은 죄 없는 세계, 하나님과 본연의 세계를 찾아가기 위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인 세계 인류가 하나되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자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메시아의 목적과 인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셋을 전부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메시아를 해방하고, 인류가 해방되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의 세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러한 관을 중심삼고 나왔습니다. 통일교회를 통해 종교를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지상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80-203, 1975.10.28) p. 1257

18 본인의 생애는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이었으며 투쟁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사경에 처하여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자체가 오히려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안 후부터는 일분일초도 다른 데에는 여념이 없었으며,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생각과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시려는 생각에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참사랑이시고,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역

사를 두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슴에 계속 불효의 못을 박아 왔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인류의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같은 단장의 슬픔의 한이 맺히신 것을 본인은 발견했습니다. 본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에게 맺힌 그 한을 풀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픔과 외로움과 고뇌로부터 해방해 드리는 것이 본인이 살아온 목적이었습니다. (198-162, 1990.02.01)

19 최후의 심정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종교는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다는 것을 세밀히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훌륭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억울한 하나님, 분통하고 한이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밀히 가르쳐 주는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슬픈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해방시켜 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종교가 나와야 역사적인 종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종교가 나와야 시대적인 종교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고 그런 심정을 통할 수 있게 해서 그 심정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로할 줄 아는 종교를 만들어야만 그 종교가 끝날에 남아질 종교가 될 것입니다. (151-128, 1962.10.28) p. 1258

20 종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자의 종교가 있고 아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부모의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고 구세주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세주도 종교도 다 필요 없습니다. 대번에 하나님과 하나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 땅에서 살 것이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딸과 후손이 전부 하늘나라로 들

어가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에서 천상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가는 종교의 기준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본래의 선한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대상인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원칙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요,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요, 창조의 위업을 이어받아 기쁨을 느끼게 되는 4대 요건입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종교의 내용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053-296, 1972.03.04)

21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 중에 최후의 종교는 하나님의 본성의 원리를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 주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낳아 줄 수 있는 부모의 종교입니다. 통일교회는 부모 종교의 사명을 완결해서 종의 종교에서 못한 것, 양자의 종교에서 못한 것, 아들의 종교에서 못한 것을 전부 대신 완성하는 사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종교만을 중심삼고 인류는 소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악한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탕감복귀한 선한 부모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의 혈통으로 복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완전히 갖ㅊ추지 않으면 본연의 완성된 사람,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056-304, 1972.05.18)

22 종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참된 부모의 인연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통과해서 본연의 인연, 즉 본연의 참다운 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복귀하려는 것이 지금까지 종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 끝날에 세계 문화를 지배할 수 있는 종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본연의 남성과 여성이 됨으로써 잃어버린 부모의 인연을 결정지을 수 있는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세계를 통일한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타락 전 본연의 남성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이 연결된 그 남성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여성을 찾아 세워 하나의 참된 부모를 이 땅 위에 탄생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종교가 되지 않고는 이 우주의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없고 온 인류를 통일할 수 없습니다. (022-010, 1969.01.01) p. 1259

23 구약시대는 물질을 제물 삼은 시대요, 신약시대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제물 삼은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물질을 제물 삼아 아들딸의 살길을 닦아 나왔고, 신약시대에는 아들딸을 희생시켜서 재림주님이 올 길을 닦아 나왔습니다. 재림주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올 길을 닦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역사노정에서 희생해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길이 종교를 통한 구원섭리의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밝혀냈습니다. 종교가 가는 길에는 종의 종교가 있고 양자의 종교가 있고 서자의 종교가 있고 직계자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 부모의 종교가 나와서 평화의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6-098, 1990.10.03)

3절 초교파운동과 기독교와의 대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기독교는 절대자 하나님을 따르지만 수많은 교파로 갈라졌다. 초교파운동은 모든 교파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한 분의 하나님 아래 손을 잡자는 것이다. 참부모

님께서는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실현해야 될 본질적 도리와 임무임을 강조하고 초교파운동을 전개하셨다. (p. 1259)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닙니다. 만약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창조목적도 둘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조목적이 둘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됩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만물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창조목적을 세우셨고, 그하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존재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로 하여금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목적을 중심삼고 온 천지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밀치고 넘어지며 나아가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016-108, 1996.01.02) p. 1260

2 오늘날 인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동시에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세계적인 하나님이요, 세계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우주적인 부모입니다. 세계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파권 안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온 천지의 중심으로 믿으며 부를 수 있고,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모여야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001-344, 1956.12.30)

3 하나님은 반드시 지상에 종교를 세워서 세계 구원섭리를 하시는데 그 종교는 세계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모색해야 됩니다. 그 종교의 교리는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된

종교적 교리의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와 사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동적인 입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편 사람이나 자기 민족, 자기 문화배경과 하나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적인 모든 내용을 흡수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하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원수는 제거해 버리고 자기편만 하나되기 위한 주장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나되자고 하는 종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를 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종교를 목표로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수백 교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만일 이 대우주와 더불어 세계를 구한다는 목표가 확실했다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093-200, 1977.06.01) p. 1261

4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적인 하나님이기에 세계를 제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된 저도 세계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몇 백 분은 더 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하나의 사랑권 내에 품으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버리더라도 세계를 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은 자기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나라를 다시 부활시켜서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022-138, 1969.02.02)

5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실 때 선한 사람은 구하고 악한 사람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시켜서 악한 사람을 구하

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독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죽인다면 그 하나님은 포악하고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이시고 잊치에 맞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085-183, 1976.03.03)

초교파운동의 필요성과 그 방향

참부모님께서는 아벨권인 통일교회와 가인권인 기독교단을 하나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아벨형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우려 하셨다. 이런 취지 아래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초교파운동은 교파 간 화합과 일치 운동의 전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종교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6 아벨은 가인을 굴복시켜 실체기대를 세워 자녀를 복귀하는 동시에 부모를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 조건을 세우려면 아벨 혼자서는 안 되고 가인과 하나되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벨적 교단인 통일교회와 가인적 교단인 기독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협조하여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 아벨이 하나되는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초교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21-013, 1968.08.13) p. 1262

7 우리 앞에는 지금 초교파운동이 점점 급박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아벨적인 기준에 서서 에서에게 배척받던 야곱이나 형제에게 배척받던 요셉과 같은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배척받던 기준에서 점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본다면 환고향하던 때, 자기가 떠나기 전의 고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대로 되돌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님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원수 입장에 있었지만 굶주리고 불쌍한 처지에 있으니 먹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고 그 형제들의 어려운 환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전부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급 것을, 즉 요셉 관할권 내의 것을 가져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갖고 있는 것도 전부 가져다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재물을 주고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상속을 받으려고 했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형님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문제가 아닙니다. 형님만 찾아오면 사탄세계의 물질은 몽땅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몽땅 탕감복귀되는 것입니다. (157-279, 1967.04.10)

8 형, 가인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기독교를 만나 볼 수 있는 때가 되어 오기 때문에 초교파운동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물질을 중심삼고 희생하면서 자기 형님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중심삼고 이 나라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원리적인 조건을 갖다 부각시켜서 탕감시켜 나가지 않으면 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교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형님과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형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으로 피난 갔던 야곱은 고향에 돌아오게 될 때 자기가 21년 동안 정성들여 모은 종과 재산을 '에서' 앞에 전부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157-175, 1967.04.02)

9 이제는 어떤 교단이라도 세계적인 종교와 연결되어야 하고, 철학도 세계적인 철학기준에 연결되어야 하고, 정치도 세계적인 정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국가적 차원에서 닦아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이 수비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독교를

중심삼고 통일교회가 많은 종교를 규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966년부터 초교파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중심삼고 초교파적 활동을 전개해서 그들과 우리가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통일교회 교리가 어느 종교의 교리보다 최고라는 것을 공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019-080, 1967.12.29) p. 1263

10 내가 지금까지 천주사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나오면서 고심하던 것은 이 민족과 기독교와 우리가 하나되는 그 한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과 기독교와 우리는 하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귀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을 보낼 때에는 항상 어떻게 기성 종교와 나라를 수습하여 하나되는 기점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성 종교 앞에 환영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31-079, 1970.04.19)

11 초교파운동은 모든 교회를 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복귀해야 됩니다. 아벨이 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서까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어떻게 규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고충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내가 빚을 져서라도 발판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뒤로하고 원수를 먼저 위해 주어야 됩니다. 내 자식보다도 원수를 더 사랑했다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해방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031-082, 1970.04.19)

12 본래 메시아는 실체기대를 완성하여 교회와 민족권을 중심삼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기준은 장성기 완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는 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대해서도 새로운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교와 예수님이 하나되고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되어야 했던 기준에 서야 합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치는 자리에 섰었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완결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초교파운동과 종교협의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063-198, 1972.10.14) p. 1264

13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다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틀림없지 않으냐? 포도나무나 머루나무처럼 가지가 조금 다를 뿐이지 모양은 같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초교파운동을 할 수 있고 종교협의회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하나되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동이 되어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부흥회를 할 때 통일교인들이 가서 전도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친화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33-203, 1970.08.12)

14 초교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내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리밥을 먹지만 그들을 동정할 수 있으니 얼마나 위대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이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수식어가 내 앞에 붙는다면, 나는 '황공스러운 말씀이오. 나는 뒤로 물러갈 테니 통일교회 무리를 사랑하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사상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좋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108-262, 1980.10.16)

15 우리는 선악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 제일 빠른 길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180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세계를 안 분입니다. 내가 영계로부터 모든 것을 더듬어 보고, 인생살이의 밑창이나 높은 데를 다 들추고 알아보니 과연 그분은 진리, 참다운 세계의 깊은 내연을 안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를 위해서보다 기독교를 위해서, 초교파를 위해서 경비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굶기고 고생시키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통일교회는 기성교단을 사랑함으로써 끝에서 끝으로, 나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끝에서 끝으로 전환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109-306, 1980.11.02)

16 기독교에서 보면 유대교가 형님 입장에 있고, 통일교회에서 보면 기독교가 형님 입장에 있다고 본인은 믿고 말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하나되었다면 오늘날 이 세계는 이와 같은 비참한 세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중심삼고 볼 때, 재림이라는 명사를 놓고 오늘날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현재 세계적인 정상, 사조권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인 통일교회가 나와서 기독교에 문제가 되고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일념에서 시작했다고는 추호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배

후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올 적마다 하늘과의 직접적인 해결 방책을 따라 순응함으로써 어려운 고빗길을 거쳐 오늘의 명성을 가진 통일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통일교회가 그 길을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110-212, 1980.11.18)

다양한 초교파활동

통일교회와 장로교, 감리교 대표가 강사로 나선 연합부흥회가 1966년 8월 15일부터 3차에 걸쳐 일주일씩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참부모님께서는 1966년 11월 7일 기독교초교파운동본부를 창립하셨으며, 이는 1974년 초교파기독교협회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81년 3월 28일 국제크리스천교수협의회(ICPA)와 1981년 11월 14일 국제기독학생연합회(ICSA)를 창립하셨다.

17 1968년 9월 9일에 크리스천아카데미하우스에서 '신흥종교연구모임'이라는 명칭으로 통일교회가 기독교계와 정식으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기독교계의 최고지도자 등 나를 반대하였던 지도자들 약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보아 이러한 때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몇 년 전부터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때가 바뀌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갖고 나타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나를 맞이하여 통일교회의 진리를 추거(推擧)할 수 있게 된 것은 머리를 숙이는 것과 같은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통일교회는 무섭다. 기독교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도무지 당할 수 없다.'고 하게끔 되었습니다. 통일교회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복귀의 길을 개척해 나왔습니다. 천하 모든 것이 일어서서 반대하더라도 나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022-196, 1969.02.02)

18 통일교회가 아벨이라면 가인 교회를 복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벨을 위해서 전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위해서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197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통일원리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완전한 아벨이 되기 위해서는 가인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벨로서 승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통일교회가 통일교회만을 위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운명입니다. 가인과 아벨로 인하여 타락의 암이 그렇게 생겨났으니 그것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아벨 교단으로서 가인 교단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가인 아벨이 화합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대한민국은 아벨 국가형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통일교회가 하나된 터전 위에서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아벨적 사명을 책임지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046-122, 1971.08.13)

19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반대를 받았지만 1971년 말에 와서는 옛날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원리 공부를 하고 나서는 비밀문서를 쓰는 상황입니다. 협회에 가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통일교회 교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야단하던 목사들이 이제는 통일교회 교인들을 오라고 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원리공청회를 기독교 목사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장로들까지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051-255, 1971.11.28)

20 기독교 목사 100여 명이 통일교회 원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원리를 듣고 감화를 받아서 '그동안 통일교회 문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문 아무개를 몰아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목사들도 단에 서서 통일교회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 만한 목사들은 다 왔다 갔습니다. 자기들은 통일교회 원리를 듣고 배웠으면서 교인들에 대해서는 통일교회에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041-296, 1971.02.17) p. 1267

21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강연한 이후 통일교회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통일교회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무리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교파 운동에 기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 기독교 활동과 대학생 운동을 활발해 전개해야 됩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통일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통일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027-135, 1969.12.03)

22 전국적으로 우리를 환영할 수 있는 판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붐을 일으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빠른 길은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하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기원이 됩니다. 서울에서 안 되면 각 지방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한 도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곳에 집중하여 기독교 교인들과 통일교회 교인들의 화합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섭리의 방향이 그렇게 어느 한 점에서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 점이 한국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조국의 사명을 다했다는 푯말이 붙는 것입니다. (122-161, 1982.11.02)

23 기독학생들은 원리를 한 번만 들으면 선발대가 됩니다. 일반

사람은 선발대가 되려면 원리를 듣고 6개월에서 1년 반이 걸리지만, 기독학생들은 일주일만 원리를 들으면 선발대가 됩니다. 지금 대학가의 기독교인들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학원리연구회 학생들과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교수들을 가지고는 못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대학가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삼고 기독교수와 기독 학생이 하나될 때에는 일반 교수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15-230, 1981.11.19)

24 기독교 최고 책임자들에게 내가 성지순례를 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야단이 났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부흥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로나 목사들이 8시간만 내 말을 들으면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들이 반론을 하지 않고 전부 좋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는 지고 저녁이 되어 캄캄해져 오는데 불빛은 통일교회 위로 비치는 것입니다. 별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와 통일교회의 전환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시기는 기독교를 두고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적 기반밖에 없던 시대에서 육적 기반을 상속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15-150, 1981.11.08)

4절 종교연합운동과 세계평화

하나님 중심의 종교연합운동

참부모님께서는 각 종교에서 신봉하는 중심존재는 모두 하나의 신, 즉 하나님으로 귀일됨을 밝히고 하나님을 중심한 종교연합운동을 전개하셨다. 특히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종교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p. 1268)

1 오늘날 세계적 대종교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가 있습니다. 이들 종교는 문화 배경이 다른 각 지역을 수습해서 하나의 세

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형성해 나왔습니다. 그런 종교문화권을 배후로 해서 하나의 세계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의 섭리를 중심삼고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종교연합운동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49-083, 1986.11.17)

2 이 세계에는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이 나와서 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아직까지 종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 지극히 후퇴적이요 몰지각한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서로서로 하나 되어서 세계의 해방을 위하고, 이 땅위의 악을 철폐하고, 선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종파적인 입장에서 싸우는 종교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차적인 문화가 저급한 문화를 흡수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차적인 종교는 저급의 종교를 흡수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좋은 세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093-200, 1977.06.01)

3 신이 바라는 세계는 둘일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신이 계획하고 바라는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시작한 창조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중심삼고 엮어가는 모든 역사적인 방향은 하나여야 할 텐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방향을 거쳐 가는 인류 군상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향을 어떻게 하나의 목적을 향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종교에서 믿는 신은 이름이 여러 가지이고 그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에서 신

봉하는 중심존재는 하나의 신에 귀일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가르치는 방향과 목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종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모든 종교가 자기 나름의 길을 수습해서 일대 변혁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140-010, 1986.02.01) p. 1269

4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인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를 수습하려니 자연히 각 민족에 따른 종교가 필요합니다. 각자 역사와 환경, 문화의 배경과 풍속,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형태를 하나의 목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종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을 보면 상류에는 수많은 지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지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서로 합해지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하나의 강이 되어 대해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종교도 하나의 줄기로 합해 나와 최후에는 하나님을 심중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093-199, 1977.06.01)

5 종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뜻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는 공헌해야 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선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그 선과 사랑은 국가나 민족, 종교권 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세계적 기반을 넘어 인류를 향한 선과 사랑을 논하는 데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교 자체 내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종교 자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것에서 벗어나 세계를 책임지고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국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국가 내에 위치하여 국가 내뿐만 아니라 문화권 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종교 교리를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구원이나 완성을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계를 외적으로 수습하고 종교를 내적으로 수습해서 하나의 세계로 역사 발전의 방향을 지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093-199, 1977.06.01) p. 1270

6 에베레스트 산정을 중심삼고 볼 때 그 에베레스트 산정 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연봉으로 이루어진 산맥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역사시대에 공헌했다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에베레스트산에 연결된 봉우리들이 합해서 그 산정을 추앙할 수 있는 기준에 속해 있는 것같이 종교권도 그와 같아야 저나라에 가서 해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봉이 없는 상황에서 연봉이 아무리 자기주장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권을 묶어서 신의의 시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종교는 역사와 더불어, 그리고 시대와 더불어 막연하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 이면의 동기적 요소로서 생활의 행동을 제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종교 배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종교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교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상적 결실을 이룬 생활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세계가 하나의 방향을 갖추게 될 때 지상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205-277, 1990.10.01)

7 하나님이 양심 기반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서 종착점을 중심삼고 규합하는 통일적 양심기준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연합운동, 종교통합운동을 그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개신교를 중심삼고 하나되자 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은 가톨릭을 중심삼고 하나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자고 해야 되는 데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전부 하나되자고 해야 되는 원리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64-026, 1987.05.03)

8 하나님은 세계를 전부 수습해서 통합하는 운동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제일 문제는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인류를 전부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여기에 대해 무신론, 신이 없다는 부정적 사상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종교를 붕괴시키려는 종교전쟁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산주의라는 사상체계를 중심삼고 세계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배후에서 조종하여 종교를 분립시키고 종교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류 문화권인 기독교문화권의 핵심인 백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흑백문제, 즉 인종차별문제를 제기하여 종교전쟁을 유도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금후의 세계적인 위험성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환경으로 몰아가는 역사시대를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종교를 통일하는 운동을 하십니다. 기독교를 연합하고, 모든 인종을 규합하고,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방어하고,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인종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운동을 하나님이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공산주의 방어와 기독교의 모든 종파를 초월한 초교파운동과 종교를 초월한 초종교운동이 이 끝날에 나오지 않고는 하늘 편이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161-238, 1987.02.22) p. 1271

한국종교협의회와 미국성직자연합 운동

통일교회는 1970년 4월 15일 한국종교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기성 종단들과 손잡고 종교연합운동에 나섰다. 참부모님께서는 초교파운동과 더불어 여러 종단들이 참여한 종교협의회 활동을 통해 종교를 중심한 내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승공운동을 통한 외적인 통일 기반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국가와 세계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제2 이스라엘로서의 미국의 기독교 교파가 하나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종교권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미국 기독교 성직자들의 규합을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다. 특히 2000년 5월 기독교 성직자 120명을 중심으로 미국성직자지도자연합(ACLC)을 창설하여 미국 기독교가 초종교권을 통해 세계

평화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셨다.

9 통일교회는 1970년 4월 15일을 기해서 한국종교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7대 종교가 가입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3개 종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반대하겠으면 반대하라는 식으로 쭉 끌고 나오다 보니 반대했던 종파들 전체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대 종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통일교회는 여덟 번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협의회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각시켜서 이 협의회를 통해 대사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031-082, 1970.04.19)

10 우리가 종교협의회라든가 국제승공연합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종교계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수많은 종단들이 하나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라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반공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반공운동을 통일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교회가 안팎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중심삼은 통일운동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물질적 손해와 인적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요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032-306, 1970.07.26) p. 1272

11 1970년에 한국종교협의회의 3대 목표를 정할 때 구국을 중심삼사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구국의 방향은 무엇이냐? 승공사상으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당을 반대하고 싸워 이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종교협의회를 중심삼고 닦아 나오던 내적인 기반이 각 종단 종교인을 중심삼고 외적인 기반으로 닦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제승공연합 기반을

중심한 외적인 국가기준과 종교협의회를 중심한 내적인 교회기준이 서로 일치되면 안팎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수련을 시키면 사람이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종교협의회를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 이상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국제승공연합 활동을 중심삼고 외적인 활동을 하고, 내적으로는 한국종교협의회를 중심삼고 구국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소원이요 민족적 숙원인 남북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033-198, 1970.08.12)

12 1960년대는 개인으로 탕감할 때였지만 1970년대는 가정으로 탕감할 때입니다. 가정적 아벨을 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적 아벨을 중심삼고 종족적 아벨권을 만들려고 하니 가정적 가인권에 있는 기독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이 모르는 가운데 기독교를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먹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교인들을 먹이지 못하고 고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조건, 자기 생명까지라도 그들을 위해 주었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규합하여 한국종교협의회 활동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단체를 하나로 규합하려면 어떤 종교보다도 사랑했다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자기의 제일 귀한 것을 제물 삼아서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천명에 의해 하나되는 것입니다. 끌려오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034-280, 1970.09.13) p. 1273

13 우리는 뜻을 위해 전진해야지 후퇴나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전진을 위한 일시적인 정지는 있을 수 있고 정비하기 위한 정지

는 있을 수 있지만 정지하기 위한 정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전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통일교회 때문에 죽겠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후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모두 자극을 받아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기독교 앞에 공헌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종교협의회가 통일교회를 가입시켰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나와 통일교회에 자극받았기 때문에 옛날의 종교보다도 새로운 종교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소모는 있었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36-131, 1970.11.22)

14 통일교회는 한국종교협의회나 주간종교를 중심삼고 종교 최고 책임자들을 하나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토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 모든 종교단체는 초종파적인 입장에서 종교의 원수인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상적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파를 초월하고 초종교적인 입장에서 반공자세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사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를 책임진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초교파운동을 하면서 한국종교협의회까지 끌고 나왔고, 또한 그것을 중심삼고 주간종교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046-127, 1971.08.13)

15 주간종교사는 통일교회 주간지를 만들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종교 주간지를 만들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에 관한 계획이 많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종교계는 자기 종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독불장군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휴전선 이북의 공산권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신이 싫어하는 공

산주의요 인류가 싫어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종교인들끼리 합심하여 결판을 지어야 할 제3의 원수, 큰 원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 안에 있는 원수보다 더 큰 원수입니다. 그러니 종교인들이 우선 합동작전을 해야 됩니다. 합동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045-275, 1971.07.04) p. 1274

16 서울에는 한국종교협의회에 속해 있는 종단들의 집회소가 많은데 어떻게든지 그 장소를 활용해서 그 종단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협 창립 22주년 총회 때 그런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후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협 의장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 포교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하고 기독교 집회소에서 스님들이 포교하는 교환 활동을 전개시키려고 합니다. 종교 전체가 연합해서 공산주의를 방어하고 무신론자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198-049, 1990.01.20)

17 지금까지 역사시대에는 국가와 세계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를 중심삼고 냉전태세로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각축전을 함으로써 블록이 형성되어 근세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나라를 중심삼고 살면 되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넘어서 세계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4대 성인으로 인해 세계적인 판도를 갖춘 종교권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종교도 자기 종파적 혹은 지역적 문화배경을 중심삼고 나아가서는 안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종교 간에 화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초교파운동과 한국종교협의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종교연합체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2-148, 1991.01.06)

18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대원수였는데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함정을 벗어난 것입니다. 나에게 미국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고 빼앗아 옵니다. 그렇게 통일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나는 망해 가는 미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나를 참소할 아무런 조건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미국자유협회(AFC)와 세계성직자회의(IOC), 통일신학대학원(UTS)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243-281, 1993.01.28) p. 1275

19 우리는 미국에서 교회의 십자가를 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를 중심삼고 교회의 십자가를 떼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구제주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떼면 연합교회로 안 갈 수 없습니다. 교파가 몽땅 십자가를 떼어 보십시오. 십자가를 떼고 연합교회의 간판을 붙이면 미국은 살아납니다. (399-336, 2002.12.26)

20 미국의 44개 종단에서 중요 책임자 120명이 청평수련소에 가게 됩니다. 청평에 가서 통일적인 연합교회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만들면 미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를 가지고는 애국을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싸우기 때문에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교회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교회의 가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4만4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322-190, 2000.05.11)

21 미국의 50개 주를 어떻게 찾느냐? 이것을 위해서 120명의 주교급 이상이 한국에 가서 14만4천 연합교회를 만들기 위한 선언을 해놓고 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파 싸움 때문에 가정도 잃어버리고 아들딸도 잃어버리고 사회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부 교파 싸움 때문에 망쳤습니다. 미국이 망하게 되면 교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종교가 망하는 것이 종교 싸움 때문입니다. 교파 싸움과 종교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시키고 사탄 앞에 재타락시킨 결과가 되었으니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323-108, 2000.05.31)

22 미국성직자지도자연합(ACLC)과 한국에 갔다 왔던 목사들의 열두 교파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14만4천 교회를 만들게 되면 그 목사들을 중심삼고 정치와 교회가 합하여 미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기반을 닦게 되면 다음으로 미국 기독교가 초종교권을 중심삼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구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323-324, 2000.06.03)

제2장 초종교평화운동과 초종교 축복결혼식

1절 국제종교재단과 세계종교의회

국제종교재단 창설과 세계종교의회 활동

참부모님께서는 1983년 4월 25일 세계 종교의 통합운동을 위해 국제종교재단(IRF)을 창설하신 데 이어 1985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국제종교재단 주최로 미국 뉴저지주 아메리카나 조지그레이트호텔에서 세계종교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셨다. 이날 참부모님께서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종교들이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p. 1276)

1 일개국가 체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연합국가 체제를 거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는 과학기술을 중심삼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 종단의 교리를 가지고는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 도저히 보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단이 울타리가 되어 동서남북으로 크게 싸여 있어야 남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변천하는 사회에 밀려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가 연합전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일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전통적 교파, 종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안 통합니다. 자꾸 젊은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를 자꾸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폐사상 제거문제나 공산주의 방어문제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을 앞에 놓고 있는 입장에서 연합전선을 취해서 새로운 방향 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단계로 몰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제종교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174-064, 1988.02.17)

2 우리는 종교세계를 수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종교재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들은 미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수천년 동안 기독교 하나도 통일 못했는데 레버런 문은 종교를 어떻게 통일한다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했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기관들이 이것을 다 흘려버렸습니다. 이것은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교연합운동을 대학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수들로부터 대학생,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삼고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2세시대입니다. 우리가 2세를 중심삼고 종교연합운동의 봉화를 올리지 않으면 금후의 모든 종교가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인류 앞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품어 주는 큰 울타리는 다른 종

단이 제시하는 목적보다 더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을 향해서 종교가 가는 것입니다. (205-276, 1990.10.01) p. 1277

3 본인이 강조해 온 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종교간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종교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변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각 종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은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하늘부모의 자녀들인 연고로 한 대가족 안의 형제자매들이며, 따라서 종교 간의 갈등과 증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영적 탐구의 길에서 하나님과 여러 차례 대면하였고,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과도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부터 오는 영감의 교신을 생활 속에서 체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약소민족의 땅 벽촌에 태어난 한 사람이 어떻게 몰이해와 핍박 속에서 세계적인 영적 기반을 닦을 수 있었겠으며, 세계 종교지도자들의 이 수준 높은 모임을 주최하고 이런 연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운동의 목표와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에 의해 설정되고 채택되어 왔습니다. 본인이 밝힌 내용이나 활동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것들입니다. 국제종교재단은 1993년에 세계종교의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1893년에 시카고에서 열렸던 세계종교의회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행사들은 세계적으로 초종파의 광장을 마련하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모든 생명체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밝혀 나가고 그 원리의 다양한 발현을 충분히 고양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세계종교의회는 전 인류가 희구하는 세계평화의 성취도 모색할 것입니다. (133-275, 1984.08.13) p. 1277

4 시리아의 그랜드 머프티(이슬람 율법해석 최고 권위자)인 아마

드 구프타로는 벌써 40년 전부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를 받아 감옥에도 많이 가면서 뜻을 못 이루고 낙심하고 있다가 내가 종교의회를 중심삼고 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를 찾아와 만나 보고는 '이분이 선두에 서면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자기 사제들 2만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40년 동안 노력하던 종교 통일의 방안을 레버런 문이 이미 실천궁행하고 있으니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레버런 문을 협조하는 데에 나와 더불어 총동원하자!'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5-216, 1990.09.02)

5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하나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호메트, 유대교의 모세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사랑의 마음,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마호메트도 사랑했고 이슬람교도 사랑했다. 예수님도 사랑했고 기독교도 사랑했다. 모세도 사랑했고 이스라엘도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결과적 존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될 수 없습니다. 1990년 8월 16일 제2차 세계종교의회를 개최하였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종교의회를 만들어서 종교계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교파에서도 하나되지 못했는데 초종파적인 면에서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일교회 책임자로서 그렇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이래야 되고, 사상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의 키포인트는 이래야 되고, 출발점은 이래야 되고, 내용은 이러한 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을 갖추어 실천 무대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신념을 집어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아버님이 사상적인 면에서 왕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10-120, 1990.12.17)

새종교일치연구회와 '하나님회의', 세계종교청년세미나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적인 초교파운동을 위해 1981년 1월 저명한 종교학자와 신학자 280명을 미국 뉴욕으로 초청하여 새종교일치연구회(New ERA)를 창설하셨다. 또한 같은 해 12월 하와이에서 164명의 신학자와 종교학자, 철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회의'를 개최하셨다. '하나님회의'에는 올바른 신관이 정립된 터전 위에서 비로소 종교일치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참부모님의 뜻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각 종단의 2세권을 교육하여 종단 간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키고 종교연합운동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 아래 1982년부터 12개 종단을 대표하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세계종교청년세미나를 개최하셨다. 또한 1985년 각 종단의 젊은 지도자들로 구성된 세계종교청년봉사단(RYS)을 통해 세계 각 종교의 성지를 함께 순례하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끄셨다. (p. 1279)

6 미국에서는 새종교일치연구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종파운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을 모으다 보니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전부 활동하게 해야 되겠기에 1천 명 정도를 모아 놓고 선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전체 신학자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1975년 1976년에는 통일교회 학자들은 얼굴도 못 내밀었습니다. 그런 무대 위에 이미 통일교회 신학이 자리를 잡고 수십 권의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반대하는 한국 신학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교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요?'라고 묻게 된다면 '싸우는 신학자들을 전부 하나 만들어서 내 뜻에 일치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단이란 소리를 듣고 몰리고 쫓기면서도 이런 일을 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길을 개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1-305,

1982.10.30)

7 내가 1981년에 '하나님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회의'라는 타이틀을 중심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다 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회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완성의 길은 종교를 초월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계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을 뚫자는 것입니다. 초종교적인 입장에서 담벼락을 허물어야 합니다. 초종교·초종단적인 기준을 연결시켜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완성을 기할 수 있는 종착점을 향하여 한 길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알았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길을 누군가가 개척해야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각오하고 개척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종단세계에서도 내가 유명해졌습니다. (121-307, 1982.10.30) p. 1280

8 통일교회는 세계를 구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미국을 희생시켜서라도 세계를 구해야 된다는 전통적 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일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통과 부모님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이 전통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독교연합운동을 하고 종교연합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종단장들이 참소하고 모든 종파나 영계가 참소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을 규합하고 수많은 학자들을 규합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0-240, 1984.01.29)

9 1981년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회의'를 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할 것 없이 세계적인 대학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상에 처음입니다. 공동 목표가 '하나님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언한 종교의회라는 타이틀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해 나오면서 '힌두교 종파들이 갈라져서 싸우는데 통합운동을 하는 대회가 있으면 내가 돈을 대 주마!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대회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얼굴을 들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회를 하면서 초종교적으로 청년들을 지도해서 세계적 활동의 청년 조직을 1982년 하기방학 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게 되면 이슬람교의 제일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 놓고 강의하고, 아시아에 오게 되면 불교라든가 유교의 제일 유명한 학자, 미국에 오게 되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독교 학자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버러지게 되면 종파나 교파 싸움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서 종교 대회에 참석시켰다는 네임밸류를 갖게 될 때에는 이미 자체 내의 분파 투쟁시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17-046, 1982.01.31) p. 1280

10 지금까지 국제과학통일회의 같은 학자대회를 해오면서 세계 유명한 학자 중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유명한 학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각 종교의 최고 신학자들을 규합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학자들이 말하고 싶으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는 의문에서 시작해 역사적인 과정을 섭리사와 더불어 비판하여 '현세에 이러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래서 이렇게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을 뒷받침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신학자들을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파의 최고 학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회의'를 통해서 닦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젊은 청년들을 묶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계를 이어받을 후계자는 젊은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강운데 8개 종단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 그 학자들이 추천하고 그 종단들이 추천하는 20명씩을 뽑아 전체 160명을 자기 종단뿐만 아니라 8개 종단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126-171, 1983.04.19)

11 본인은 미국 통일신학대학원을 중심한 두 개의 일치화운동으로서 '새종교일치연구회'와 '하나님회의'를 창설하고 이들을 통하여 기독교 내의 교파 간은 물론 타종교 간의 조화와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시도해 본 결과, 이러한 조화와 통일은 인내와 희생, 참사랑의 값진 결실로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 간의 진지한 대화와 조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상에 하나님의 뜻 성사를 촉진하고 세계평화를 실현코자 본인은 세계종교의회와 세계종교회의를 시작하였는데, 현재 이러한 모임들은 정체된 종교계에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소년들의 인종분쟁 및 종교전쟁을 막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이상적 평화세계를 세우는 데 적극 기여할 기구로 세계청년회의와 세계종교청년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모든 기구를 통하여 종교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7-099, 1989.06.30)

12 종교연합운동을 대학가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대학가의 뜻있는 청년 남녀들이 하나되어서 종교연합을 할 수 있게끔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세계종교청년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제2차

세계종교의회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종단장들이 꼼짝 못한 것입니다. 이 종교의회의 표제가 '사회 및 후세에 대한 종교 전통 계승'이었습니다. 사회가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들ㄹ일 수 있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종단장들이 아닙니다. 종교인들과 종교권 내의 2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82년부터 8년 동안 세계종교청년세미나를 통해서 움직여 나오던 똑똑한 사람들을 각 요소요소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제는 각 종단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5-271, 1990.10.01) p. 1282

13 인종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7년에 세계종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세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1982년에는 세계종교청년세미나를 열어 자기 종주의 본고장, 종주의 출생지 같은 성지를 순례하는데 그곳을 순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단을 가든지 일주일씩 교육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20대 30대의 청년들은 앞으로 그 종단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지내 오면서 이것을 내가 한다는 거슬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지도자라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14-174, 1991.02.02)

14 세계종교청년세미나는 열두 종단을 중심삼은 초종파적인 연합체인데 1982년부터 8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종단의 책임은 세계를 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종단의 젊은 지성인들이 8년을 거치는 동안 깨달은 것은 '우리 종단장도 교리와 교파는 다르지만 레버런 문과 같이 종단을 넘어서 세계를 구하겠다는 사상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터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종교의회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결속하게 되면 앞으로 불신풍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평화의 세계로 옮겨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것이 평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을 실현함으로써 하늘나라와 같은 통일된 가정형태를 지상에 남기자는 것입니다. (210-127, 1990.12.17)

《세계경전》 출간

《세계경전》은 세계 유수한 신학자와 종교학자들이 편집위원이나 편집자문위원으로 참가하여 각 종교의 경전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160여 주제를 선별하고 이를 모아 하나의 통일된 경전으로 엮은 것이다. 1991년 8월 15일 영문판으로 먼저 출간하여 봉정한 뒤 1994년 5월 1일 한글판에 이어 일본어판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참아버님의 말씀선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세계경전》 제2편이 2009년 1월 28일 출간되었다. (p. 1283)

15 1990년 8월 16일에 제2차 세계종교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종교의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종교계 국가들이 하나되어 하나의 통일적인 나라 형태를 만들어서 형제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종교의회에서 비자만 내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의 경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거기에 역사관이 필요합니다. 철학적 내용에서 모든 이론적 체제를 갖추고 인간 인간의 근본문제를 구명할 수 있는 하나의 교리를 편성해야 됩니다. (202-045, 1990.05.01)

16 종교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주인인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니 세계종교회의를 통하여 초종교적 입장에서 종교 이론에 배타적인 공산주의와 인륜도덕을 파탄시키는 사악한 인본주의 사상을 소화하

겠다고 제창한 것입니다.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큰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 경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경전에서 천리대도의 핵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종단의 교리의 핵심을 빼서 하나의 경전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191-086, 1989.06.24)

17 종교들의 싸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전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지금까지 6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종단의 유명한 신학자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핵심교리를 뽑아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4년 전에 끝내고 편수를 위한 감정요원으로 학계 전문가를 동원해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수한 그 표본 밑에서 하나의 경전을 발표한 것입니다. 경전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권도 기독교문화권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권의 인구가 전체 인류의 3분의 2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치리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6-277, 1990.10.14) p. 1284

18 하나의 《세계경전》을 만들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1985년 제1차 세계종교의회에서 결정해서 1991년에 출판됩니다. 이슬람교 지도자인 여러분도 다른 교파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만 알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독교도 알아야 되고, 유교도 알아야 되고, 불교도 알아야 되고, 통일교회 교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통일교회 교리를 먼저 듣게 하느냐? 내가 이런 것을 제창하였고, 이론적인 면이라든가 보는 관에 있어서 앞서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화시켜서 통일교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통일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려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

나의 경전을 만드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각 종교의 세계적인 학자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종교 교리에서 하나의 세계적인 경전을 만드는 데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뽑아라.'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4회나 열어 세계적인 대학자들의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세계경전》을 편성하였습니다. (210-125, 1990.12.17)

19 1990년 8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2ㅊ차 세계종교의회에서 《세계경전》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전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을 중심삼은 목적은 절대자의 목적이며, 그 절대자의 목적이 둘일 수 없습니다. 뜻이 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절대자 신을 중심삼은 이상경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섭리관이라 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전은 교과서와 마찬가지인데 그 교과서가 둘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준비해 나왔습니다. 6년 정도 걸렸습니다. 6년 동안 세계적인 대학자들, 이슬람교 학자로부터 힌두교 학자, 불교 학자, 천주교 학자, 기독교 학자까지 모든 종교의 학자들에게 자기 경전을 중심삼고 세계에 남길 수 있는 앞으로 나올 《세계경전》에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최고의 내용을 뽑으라고 한 것입니다. 깊은 내용은 대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212-322, 1991.01.11)

20 경전은 인간을 위해 있습니다. 내가 《세계경전》을 공인하기까지 종단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단의 학박사들이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씩 고쳐 하나의 경전을 만든 것입니다.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등 12개 종교의 대표되는 모든 경전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전은 출발이 불확실하고 끝이 불확실했습니다. 이것을 통일교회 교리를 중심삼고 다시 만든 것

입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사관적인 논리를 갖춘 통일교회 교리이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리를 안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가 편성 책임자가 되어 만들어서 1991년 8월 15일에 나한테 헌납하였습니다. (224-242, 1991.11.24)

2절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 창설

참부모님께서는 종교계를 통일하여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27일 서울에서 34개국 2천여 명의 종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종교연합(IRFWP)을 세우시고, 바로 그 다음날 51개국 전·현직 대통령, 총리 등을 초청하여 세계평화연합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종교권을 대표한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정치권을 대표한 세계평화연합이 마치 인간의 마음과 몸같이 하나되어 세계평화 실현에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p. 1285)

1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세계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민족과 문화배경이 다름에 따라 종교도 종의 종교, 양자의 종교, 서자의 종교, 직계자녀의 종교가 있는데 이들 종교는 부모의 종교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종의 종교도 주인의 가정에 일치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양자도 아들이니까 부모를 중심삼은 종교시대가 오면 양자의 종교도 부모 종교시대에 일치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고, 서자의 종교나 지계자녀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모로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주들을 하나님 대신, 부모 대신 모실 수 있게 준비시켜 나온 것입니다. 교리의 근본에 들어가면 다 같기 때문에 오래된 종교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시대가 오기 때문에 참부모 종교가 현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인들이 교주를 모셔 왔던 것은 부모를 모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계에 차원 높은 혁명이 벌어

질 수 있는 하나의 주체관입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삼고 부모님이 참부모 종교의 뜻을 대표한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예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 대표들이 세계평화종교연합 창설을 위한 성명서에 사인을 하고 결의대회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종교권을 한 틀거리에 갖다 묶는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5-272, 1990.10.01) p. 1286

2 지금까지 정치와 과학이 종교를 반대해 나왔지만 비로소 부모님을 중심삼고 통일의 형태가 벌어집니다. 종교권과 정치권과 과학세계가 하나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세계는 외적인 면에서 좌우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세계와 공산세계, 가인 아벨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투쟁권이 통일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권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종교연합, 정치권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연합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215-065, 1991.02.06)

3 뜻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대개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외적인 세계의 세계평화연합과 내적인 세계의 세계평화종교연합입니다. 세계평화종교연합은 마음적 기준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종교권과 정치권을 중심삼고 전쟁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희생자를 냄으로써 목적 달성을 향해 나오던 역사는 필시 하나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 종교계를 규합해야 되고 정치계를 규합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선 사람과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떤 나라가 하든가 모든 종교단체가 합해서 하든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208-043, 1990.11.15)

4 세계 종교계에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싸우고 불교는 종단끼리 싸우고 기독교는 교파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 싸우던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고 수련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빼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 세계의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행정 책임자들도 결국은 부모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표준을 중심삼고 결집할 수 있는 세계적인 종교 클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합해서 세계적인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1991년 8월 27일 창설한 세계평화종교연합입니다. (248-174, 1993.08.03) p. 1287

5 종교는 종의 종교로부터 양자의 종교, 서자의 종교, 아들딸의 종교, 어머니의 종교에서 부모의 종교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것이 아버지 종교를 중심삼고 합해서 나온 부모 종교가 통일교회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참부모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종단장들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 초종교적인 면에서 세계평화종교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사상적 견해에 있어서 갈 길을 모르는 모든 국가들에게 가르쳐 주고, 모든 정상급에 있는 위정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평화연합을 중심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을 대표한 정치 판도와 마음을 대표한 종교 판도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몸 마음이 갈라져 싸우는 것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만들지 않으면 세계평화의 길이 없습니다. (236-220, 1992.11.08)

6 부모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몸 마음이 갈라진 것을 수습하기 위해 마음을 대표한 종교를 거쳐 나왔고, 이제 정치세계로

뻗어 나온 것입니다. 몸이 마음을 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가 종교를 희생시켜 나왔던 것을 세계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하는 모임이 1991년 8월 27일에 창립된 세계평화종교연합입니다. 이 세계평화종교연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세계가 마음세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마음세계가 몸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마음세계가 몸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마음을 중심삼고 몸을 관리해서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 생활권 내에서 이것이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과정에서는 종교와 과학, 종교와 정치, 정치와 과학, 그것들이 하나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219-227, 1991.09.08)

7 평화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방향, 종교의 방향이 통일된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종교가 지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마음적 종교권을 결성하는 것이 1991년 8월 27일 세계평화종교연합 창설대회입니다. 거기에는 12개 종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0개국 이상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세계로 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평화종교연합의 출범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9-075, 1991.08.25)

8 몸 마음이 갈라진 역사적인 한을 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분야에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연결시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세계를 대표한 것이 종교요, 몸세계를 대표한 것이 정치입니다. 이 몸 마음이 갈라져 싸우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 천리의 대도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마음을 중심삼고 절대 통일적 인간성, 통일적 가치관을 세우고, 그런 가치를 지닌 완성한 아담을 중심삼고

완성한 해와와 일체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주체관을 중심삼은 종족관, 종족관에 연결된 민족관, 민족관에 연결된 국가관, 국가관에 연결된 세계관을 중심삼고 천주를 사랑의 인연으로 묶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론체제를 다 끝맺고 규범을 통하여 사회생활제도까지 전부 공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8-152, 1990.11.17)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창설

참부모님께서는 초종교적 기반을 유엔을 중심한 초국가적 기반과 연결하기 위하여 초종교초국가연합(IIFWP)을 창설하셨다. 초종교초국가의 비전은 기존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 창설로 이어졌는데, 2003년 10월 3일 초종교초국가 평화의회(IIPC), 2005년 9월 12일 천주평화연합(UPF) 창설이 그것이다.

9 부모님은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유엔까지 소화하려고 합니다. 유엔 NGO(비정부기구) 세계연합으로부터 만국평화상이라는 세계적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지켜본 결과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해서 모시게 된 것이 2000년 8월 17일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유엔 대회였습니다.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의 초종교라는 것은 종교 이상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고, 초국가라는 것은 국가 이상의 유엔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세계적인 종교인과 정치인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부모님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틀림없이 훌륭한 종교인과 정치인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331-231, 2000.09.03)

10 초종교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이 세계 종교의 갈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초국가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치 풍토라든가 유엔을 중심삼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국가 초종교입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초언론기관과 금융기관을 중심삼고 이 일만 하게 되면 세계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에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야의 NGO를 규합해서 유엔을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유엔은 우리를 소화하고 리드할 수 없습니다. 학술적인 대회나 모든 대회에서 유엔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지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324-164, 2000.06.23) p. 1289

11 유엔에 하원제도로 정치권, 상원제도로 종교권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상원 하원은 야당 여당과 같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에 상원과 하원이 구성되면 종교권은 자동적으로 정치권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분립되어 있습니다. 정교분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교일치가 됩니다. 앞으로는 선거가 없어집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되게 해야 됩니다. 초종교와 초국가입니다. 종교와 국가가 원수 입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329-217, 2000.08.09)

12 유엔에 상원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엔이 국가주의 환경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부모의 사상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국가주의적이고 종교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유엔은 자연히 나가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넘어서면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적인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 세계평화반도국가연합, 세계평화대륙국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삼고 아벨유엔을 만드는 것입니다. (326-257, 2000.07.14)

13 이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벨유엔을 만들었

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라는 표제를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포괄됩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는 민족주의, 국가 연장주의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패권을 중심삼고 제도를 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는데, 그 제도라는 것은 자기 국가에 한정되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초유엔을 주장해야 됩니다. 세계NGO연합(WANGO)이념은 초유엔주의입니다. 유엔이 하나의 가정주의, 대가정, 하나님이 창조이상으로 했던 가정주의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은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341-094, 2000.12.31) p. 1290

14 새천년의 개막과 더불어 세계는 급속도로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넘어 ‘하나님 아래 하나의 우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찍이 설파해 왔던 지구촌 대가족의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은 인종 간의 차별과 종파 간의 갈등 대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류가 평화세계를 지향해 가는 데 있어서 종교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파나 종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종교 자체가 타락의 부산물입니다. 본인이 유엔에서 이미 천명한 바 있는, 세계평화를 향한 각종 국경선 철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이 앞장서서 NGO연합단체인 세계NGO연합을 중심으로 유엔본부로부터 급격하게 오대양 육대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347-169, 2001.07.04)

15 세계에 비정부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나라에 많은 데는 3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만 개가 있는 단체들의 총회를 결성해서 초종교초국가연합을 중심삼고 활용하는 것

입니다. 세계NGO연합이 초유엔입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을 비롯해 4대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2000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NGO연합,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가는 데에는 반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160개 국가 이상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막을 쳤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343-035, 2001.01.15)

3절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과 초종교 축복결혼식

시리아 이슬람교 지도자 40일수련과 평화대행진

1990년 8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2차 세계종교의회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세계 종교의 내적 결속을 위한 연합교육을 제언하셨다. 그 일환으로 1990년 12월 2일부터 1991년 1월 10일까지 미국 뉴욕의 뉴요커 빌딩에서 시리아의 이슬람교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0일수련이 개최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들에게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간의 오랜 앙금을 풀고 중동지역 평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셨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 세계 종교지도자 등 2만여 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 안착을 기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 22일 예루살렘에 모여 역사적인 평화대행진을 펼쳤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루 전날인 21일 평화대행진을 위해 정성을 모으는 가운데 제1, 제2, 제3, 제4 이스라엘이 하나의 승리권에서 통일·정착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체통일식'을 거행하셨다. (p. 1291)

1 1954년 통일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는 공산주의가 73년 이상을 못 간다고 가르쳐 나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슬람교를 포함한 종교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을 누가 말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벌써 50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역사 이래 이와 같은 종교권·나라권·민족권을 총망라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일생을 바쳐 싸운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종교계 일치운동을 위해서 그 기초를 놓아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통일의 결실을 가져온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 과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225-019, 1992.01.01)

2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종교의회에서 우리가 연합적인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적 결속을 다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주동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을 모든 종단 대표들이 손을 들어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의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그 첫 사례가 시리아의 이슬람권 대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1990년 12월 2일부터 뉴욕에서 40일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의 1500년 역사를 두고 볼 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슬람권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중진 지도자들이 세계가 반대하는 통일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대해서 '파더 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파더 문이라고 합니다. 통일교회 교인들보다 낫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온 그들에게 '여러분이 교육받는데 교리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뜻이 문제이니 여러분이 만약 통일교회 교리를 듣고 거기에 교화를 받아 내 제자가 되더라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210-206, 1990.12.23) p. 1292

3 내가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라센제국과 기독교가 십자군전쟁 때부터 서로 원수입니다. 이것을 수습해야 됩니다. 왜 시리아의 이슬람교 지도자 통일원리수련을 했겠습니까? 이러지 않고는 세계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라크가 문제인데, 이라크를 중심삼고 이슬람교가 하나되어 기독교와 싸우게 되면 세계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국경전쟁 다음에는 종교전쟁이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것이 필생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문제를 중심삼고 '기독교는 우리의 원수

다. 이제부터 12세기의 십자군전쟁에서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나아가자.'고 한다면 이슬람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정상이 교차되어 위험수위에까지 차오르는 이때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210-129, 1990.12.17)

4 기독교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33년을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34년째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33세 34세부터 40세까지 왕권을 중심삼고 세계를 지배해야 했던 것과 같은 막대한 대변환시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듯 섭리의 때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모든 처리를 다 해놓고 지금 평화유엔을 중심삼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유대교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 한 분을 죽임으로써 고장이 났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영육의 두 세계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상에서 육적 세계의 평화왕권을 세워야 할 뜻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시는 재림주가 구름을 타고 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내용, 미성사한 모든 것을 재차 수습해서 찾아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복귀입니다. 한을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2일에 가자지방, 이스라엘을 중심삼고 평화대행진을 했는데 그때 통일교인 3천 명이 동서남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일 모임을 갖기 어려운 연말에 사방에서 3천 명이 들어가서 대회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431-039, 2004.01.11) p. 1293

5 하나님과 아담의 나라가 종횡으로 하나되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3이스라엘에까지 만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제1 이스라엘의 자리, 그다음에 제2 이스라엘 미국의 자리, 제3 이스라엘 한국의 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지역은 자동적으로 평화의 지구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가자지방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사람들을 모아 놓고 평화대행진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뜻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한 핏줄고 연결된 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와 예수님을 중심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권적 주권을 세우지 못한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아벨 자리에 있는 미국과 천사장 자리에 있는 프랑스가 하나되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사탄 편에 대해 승리하고 굴복시켜 그 위에 한국을 중심삼고 평화의 왕국을 정착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역사시대에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던 전부를 탕감복귀하여 승리의 패권시대를 맞이해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실패했지만 가자지방의 평화대행진을 통해 실체적으로 지상에서 재림주가 제1, 제2, 제3 이스라엘 기반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부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429-016, 2003.12.23)

초종교 축복결혼식과 그 의의

참부모님께서는 종교 간의 장벽이 사라져야 평화세계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초종교 축복결혼식은 그러한 장벽을 일시에 허물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셨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14만4천쌍 초종교 성직자 축복결혼식'을 거행하는 등 수차례 초종교 축복결혼식을 주재하셨다.

6 1993년 2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평화종교연합 회의에서 '모든 종교들이 합해서 결혼을 시키자.'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어 앞으로 세계적인 가정윤리

를 세우는 데에 종교가 선발대가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가 힘을 합해 이 공식적인 **원**리에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각 교단이 합동결혼식을 내 이름을 가지고 몇 만쌍이고 몇 백만쌍이고 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세계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세계평화종교연합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246-025, 1993.03.23) p. 1294

7 천일국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지상천국을 의미합니다. 영계와 육계, 우익과 좌익,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천일국의 의미입니다. 평화의 세계는 종교 간의 경계와 장벽이 없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초종교적인 국제결혼을 통하여 평화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와 모슬렘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자녀와 민주주의자들의 자녀가 결혼하여 모두가 결국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정은 고통과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원래 장자는 동생을 사랑해 주어야 했지만 반대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심정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끝을 보시고 싶어했습니다. 유대교가 인류를 위한 종교의 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기독교가 출현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인 아담과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3차 아담의 시대인 재림주의 시대로서 완성의 기간입니다. 재림주의 사명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3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모든 인류의 혈통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통하여 참감람나무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2003.03.02, 미국 워싱턴DC)

8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정을 중심삼은 세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소위 유대인과 이슬람교인,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간의 교차결혼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의 자녀와 한국 대통령의 자녀가 결혼한다면 그 결혼을 통하여 원수관계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삼고 평화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엔이 초종교·초인종·초국가적인 결혼의 챔피언인 부모님을 초청하여 전 인류를 축복해 주자고 한다면 전 인류를 복귀하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가정이 된다면 친척의 아들딸이나 조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축복이 들판의 불처럼 번져 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친척의 아들딸들을 강제로라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축복의 참다운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유대교 지도자, 이슬람교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간에 교차결혼을 하도록 제안한다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의 대신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40일 동안 교육해서 백 퍼센트 동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의 선조들과 종교의 창시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2003.03.02, 미국 워싱턴DC)

9 종교는 독신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독신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주류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개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혈통을 중심삼고 3대권 완성을 이루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참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3대를 완성한 기반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상세계를 축복하고 하늘땅을 묶어서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일이 통일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랍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과 아랍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지 못할 일도 믿어야 하고, 행하지 못할 일도 행해야 되고, 핍박도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평화초종교 초국가연합에서 하는 중동평화세미나에 온 사람들 가운데 나를 맨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지도자들, 이슬람교인, 유대교인이 얼마나 통일교회를 미워했습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신부 수녀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평화의 세계는 국경을 중심삼고 원수끼리 그 아들딸을 교차결혼시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차결혼을 시킬 수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단체가 종교계에는 없습니다. 통일교회 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인과 유대교인이 교차결혼을 하게 되면 아랍전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406-025, 2003.03.02)

10 189개국의 선택된 종교지도자 14만4천쌍이 일심·일체·일념이 되시어서 하늘로부터 허락하는 축복의 혜택을 부여받은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이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당신의 창조이상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잃어버린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인연을 갖추어야겠습니다. 당신의 혈통적 기반을 중심삼고 창조이상적 가정 완성을 표방하여 아담 해와를 짓고 천주의 사랑이상을 듬뿍 안고 이상적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고, 부부를 중심삼은 자녀들을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삼은 1대 2대 3대, 하나님 가정에 있어서 손자 손녀를 갖추어 사랑과 생명과 혈통으로 일체된 가정적 기틀의 정착을 바라던 것이 당신의 창조이상이었으나 인류시조가 장성 과정에서 실수의 한 날을 맞음으로써 타락이라는 원한의 올무를 이 지상에 남겼사옵니다. 그로 인해 인류의 조상은 물론이요 저희에게도 해방적 기쁨의 세계가 상실되고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사옵니다. 이러한 저희를 탕감이라는 복귀노정인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세워서 6천년의 세월을 허비해 가

면서 해방된 복귀의 승리의 한 판도 에덴의 기준을 찾아오시기 위해 아버님께서 얼마나 수고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모든 종교지도자들과 더불어 하늘과 땅의 통일적인 축복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일심·일체·일념의 하나의 혈족을 갖추어 아버지 앞에 잃어버렸던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 본연의 심정권까지 찾아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376-025, 2003.03.02) p. 1296

11 개인 몸 마음의 통일과 부부의 통일과 부자간의 통일과 형제간의 통일과 종족·민족·국가·세계의 통일을 위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헐고, 경계선을 철폐하고, 원수의 자리를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아담 해와의 타락하지 않은 형제지우애[7] 자녀들로 한 가정적 기틀 위에서 참부모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일족의 모양을 갖추어서 초민족적·초국가적·초세계적·초천주적 축복의 행사를 단행하였사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상의 통일권과 천상의 통일권을 세워서 영계와 육계의 경계선을 철폐하고 사탄세계와 하늘세계의 경계선을 철폐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정, 참사랑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삼고 세계 인류가 한 형제,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바라던 가인 아벨의 형제 자녀들로서 국가를 넘어서고 종교적 기준을 넘어선 가정적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초국가적이요 초민족적이요 초종족적인 기준에서 일심·일체·일념을 가지고 축복행사를 거행하여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이 시간이 되었사옵니다. (392-098, 2002.09.14) p. 1296

제3장 영육계 일체시대와 영계 해방

1절 참부모님과 영계

---

7) 兄弟之友愛 ; 형제간에 친하여 서로 사랑하는 관계

실존하는 영계를 밝히신 참부모님

참부모님께서는 일찍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밝혀내고 영계 해방을 위해 한평생 정성을 들이셨다. 특히 영계에서는 43일간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인(御印)을 받는 등 지상과 영계의 통일과 구원을 향한 천주적 섭리를 이끄셨다. (p. 1297)

1 본래 종교는 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통일교회도 그렇습니다. 통일교회도 전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높은 영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왔습니다. 영계가 안내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신을 부정하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현실 속에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꿈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적 안테나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의 곳을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중심 쪽으로 모여들게 되어서 통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통일교히는 신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250-012, 1993.10.11)

2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즉 영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들은 다 이것을 체험하고 통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체험하지 않았다면 남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통일교회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체험을 하게 되니 안 믿으면 못살게끔 영계에서 들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못합니다. (024-329, 1969.09.14)

3 나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배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에 들어가 체험도 해보았고,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 없고 영계가 없다고 아무리 변명한다고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실증적인 재료를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활권 내의 인연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절박한 자리, 눈이 물크러지도록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며칠 동안 호소한 정성 밑에서 나온 것입니다. (026-015, 1969.10.14) p. 1298

4 나는 아무리 영계의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갈 길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냉정합니다. 무자비하게 방향을 가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혼란된 영적 과정을 극복해 나오고, 혼란된 시대 과정을 극복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파가 부딪쳐 오더라도 그 풍파가 내게 부딪쳐서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이래 가지고 개인적 혼란시대를 거치고, 가정적 혼란시대를 거치고, 국가적 혼란시대를 거쳐서 지금 세계적 혼란 과정에서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된 이 과정에서 기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071-050, 1974.04.28)

5 자기 소성이 신령적인 면에 맞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나는 본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궁금해합니다. 밥을 안 먹고 24시간 동안 들어도 들을수록 재미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진리로 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면을 가려서 가야 됩니다. 자기 소성을, 자기가 어떠한 면의 사람인가를 각자가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면을 계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를 탐구하거나 신령면에서 체휼하거나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와 진리 탐구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느낀 것을 진리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고, 지성적인 면의 사람은 그 지성적인 면에 신령적인 면을 보강할 수 있는 체휼적인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와 상대적인 소성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삼든가 스승으로 삼아서 지도를 받고 협조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바른 길입니다. (076-141, 1975.02.02)

6 영계에 가서 하나님까지 인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원리 공부를 하면 다 알게 됩니다. 영계를 전부 파헤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누더기 보따리를 샅샅이 풀어서 군왕이 입고 행차할 수 있는 왕복까지 만들 수 있을 만큼 방대한 그 세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는 역사 이래에 나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인을 받고 승리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203-299, 1990.06.27) p. 1299

7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지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면 이튿날 혹은 다음 주에 있게 될 회의의 내용까지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이지만 자지 않고 마음 깊은 자리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압니다.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혼잣말을 합니다. 그 경지에 가면 그렇습니다. 라디오 방송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울려 나오고 대우주에 공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파수, 파장이 맞아야 됩니다. (558-126, 2007.03.06)

8 영계의 수많은 영인들과 43일 동안 싸운 적이 있습니다. 12사도와 예수님까지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인들은 내가 영계를 망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이고 거짓인가를 밝히는 싸움이 43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판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참인지 싸워 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영계도 양보하지 않고 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천년만년 싸움이 계속될 것 같아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입장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천리의 공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수많은 영인들도 나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계도 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렇게 영계를 통일한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지상의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019-154, 1968.01.01)

참부모는 영계 전문가

참부모님께서는 공개 강연을 통해 '영계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영계의 최고 전문가이시다. 영계와의 교류를 통해 인간조상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한과 인간의 한을 샅샅이 파헤쳐서 하나님의 해방을 이끌어내시고, 인간이 영생을 위해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셨다.

9 여러분은 영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영계의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영계를 개문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기반으로써 영계를 교시하고, 체계적 내용으로 밝혀 준 원조가 문 총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나를 두고 참부모라고 하는데, 그 참부모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참부모가 되었으면 참된 가정을 거느려야 됩니다. 여기에 족속이 붙으면 참족속을 거느려야 되고, 이것이 민족으로 확장될 때에는 민족을 거느려야 되고, 국가와

세계로 확장될 때에는 국가와 세계를 거느려야 되고, 하늘땅 영계와 육계로 확장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203-325, 1990.06.28) p. 1300

10 세계는 참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지상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사랑의 궁전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계의 궁전은 하나님도 만들지 못하고 영인들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만들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사랑의 궁전은 참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부모가 영계에 가서 '여기를 궁전으로 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를 중심삼고 온 영계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계에서도 나를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5-257, 1990.09.09)

11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 어디서든지 '아버님!'하고 부르게 되면 대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심정에 맞추게 되면 동참권·동위권·동거권을 가지기 때문에 나를 부르면 금방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온 영계를 구경시켜 줄 것입니다. (229-165, 1992.04.11)

12 나는 죽음 후의 방대한 본국의 활동 무대를 알고 있습니다. 저나라에서는 몇 억 마일을 순식간에 통과하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비행기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최고의 속도입니다. 참사랑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부르면 곧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몇 억만 리가 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영계에 가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웃고 춤을 춥니다. 자기 사랑의 가치관의 완성기준에 따라서 각각 소리를 내며 춤추든지, 소리를 안 내고 춤추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때에 가서 '아버님이 가르쳐 준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구나. 그때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해**도** 이미 통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에 합격시키고 그 세계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조화가 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227-100, 1992.02.10) p. 1301

13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계에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가는 데를 따라다니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가고 싶어하니까 영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영계에 가면 영계 꼭대기에 앉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꼭대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46-334, 1986.08.10)

14 나는 때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모험도 하는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갖지 못한 안테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통하고 입체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 하면 벌써 열 마디 사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071-328, 1974.05.05)

15 과학은 가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맞으면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통일교회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실재의 내용과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고 갑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철학자들과도 이론적인 면에서 전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도 훤합니다. 영계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를 통일할 수 있고 종교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079-347, 1975.09.28)

16 지상의 한 사람 앞에는 수많은 영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한 사람 앞에는 수많은 영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인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인들이 나를 위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높은 영계와 통하는 사람에게 내 성명 세 글자를 갖다 주고 '이분에 대해서 기도해 보소.'라고 해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아이쿠!'하며 경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문가니까 **훤**히 압니다. 영계를 통일 못해서는 지상통일을 못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영계를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영계를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인들이 전부 나를 협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를 위해 24시간 기도하라고 했다면서 불자 한 사람이 찾아와 경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82-308.

1976.02.01)

17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서 만물을 창조하고, 아들을 창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자리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운명길이 재창조의 길이요 복귀의 길입니다. 새로 사온 물건이 고장 났으면 수리 공장에 보내서 수리를 하든가 재차 만들든가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가 믿듯이 '아! 공중잔치를 해서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망상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고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영계에 대해서 샅샅이 아는 사람입니다. (092-179, 1977.04.03)

18 '도대체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 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보면 틀림없이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영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늘의 특정한 혜택을 받아서 영계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어떠한 영통인이라도 나에게 오게 되면 굴복했습니다. 영계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를 만들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혜택을 받아 저세계를 탐색해 보면서 도대체 천국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헤치고 뚫고 찾아보니 천국의 조직은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위해서 산 사람만이 들어가 살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077-325, 1975.04.30)

19 나는 사탄의 모든 비밀무기를 폭파시키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날까지 이 지구성을 유린해 나왔는데 그것을 전부 속속들이 파헤쳤습니다. 사탄이 가는 곳곳마다 속속들이 붙어서 뿔질하는 챔피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계가 전부 혼란되어 있었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서 전부 엮어 놓았습니다. 또 영적 세계에서 도주들을 만나 원리적인 투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100-025, 1978.10.04) p. 1302

20 나를 땅에서 만나서 누구보다 사모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은 나와 가까운 영계에 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반대해서 교회와 멀어졌던 사람들도 수습해 주어야 됩니다. 참사랑의 심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져 있더라도 다 불러서 해방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마까지도 찾아서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본래는 에덴에 있어서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복해 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인마와 성인, 가인 아벨을 한자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부와 같은 대등한 가치의 자리에 세우고 싶었던 가정이상을 중심삼고 출발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해야만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참사랑이 없이는 구원섭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14-307, 2000.01.14) p. 1303

영육계 일체시대와 참부모님 직접주관

참부모님께서는 영육계를 통일함으로써 영육계 일체시대를 여셨다. 그럼으로써 영계와 육계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영육계가 서로 협조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1 영계가 통일되지 않고는 지상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 나오는 데 있어서 영계가 그런 배경에서 전부 협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도 다 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문화권, 통일된 그 세계에서 하나되면 그때부터 영육이 일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40년노정으로 통일적 기반을 맞추기 위한 일을 지금까지 되풀이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비준, 그 기준을 지상에 일체화시킴으로써 영계와 육계가 교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막혀 있었습니다. (260-106, 1994.04.28)

22 영적 세계를 동원해야 됩니다. 영계를 동원하려면 영계의 선조보다도 내가 무엇이든 앞서 있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효자 효녀, 충신이라고 자각하는 입장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지 말고 3시대를 대표해 선조는 물론 자기 부모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손 앞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영계를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영계와 육계가 합동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선조들을 동원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선조들이 가르쳐 주는 그 환경을 따라가면서 땅 위에서도 일체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275-190, 1995.12.08)

23 감옥생활을 하면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수록 영적인 마음과의 공명권이 예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견딜 중노동을 할 때에도 몸은 노동을 하지만 마음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체험이 참으로 빨라집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몸의 피곤이 다 달아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안 하게 되면 영계에 가서 공명체가 안 됩니다. 그러한 체험을 갖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몽사몽간에 나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안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지만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 생활권 내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와서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망상이 아니고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활동하게 되면 영계가 자유자재로 협조해서 하는 일이 횡적으로 확대됩니다. (102-049, 1978.11.19)

24 지금까지의 종교는 교주가 영계에 가서 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부모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나 각 종교의 교주들은 영계에 간 후 영인체가 지상에 와서 협조하였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으면서 영계에 간 영인들과 여러분을 통하여 뜻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는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영계를 조종하여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부자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생활적인 환경이 공통되어야 하고 감정이 서로 공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감정과 환경이 같은 생활권에서 공생하는 것이 부자의 인연을 중심한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활권에서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 부모님을 가깝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통일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들여야 합니다. (021-238, 1968.11.24) p. 1305

26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된 그 사랑을 갖고서는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요 자연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첫사랑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도 영원히 살아야 그 아들딸도 영원한 사랑의 뿌리에 도

달하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입니다. 통일교회의 힘이 그것입니다. 뿌리에 가면 갈수록, 혹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간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에서 가르쳐 줍니다. 땅끝과 땅끝에 떨어져 살더라도 밤잠을 못 자고 밥 먹을 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 영계를 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보는 것입니다. (283-273, 1997.04.13)

27 부모님을 정말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꿈이나 계시 속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국경과 시공을 넘어 부모님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합니다. 안테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의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높으면 세계 어디든지 통합니다. 하나님이 영계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백 퍼센트 가르쳐 줍니다. 박해 가운데서는 빠짐없이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하러 올 테니 어떻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실체적 체휼권에서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257-306, 1994.03.16)

2절 영인 구원과 영계 해방

지상·천상천국의 문을 여신 참부모님

참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류의 거짓 혈통을 단절하고 복귀섭리의 전 단계를 승리하심으로써 지상과 영계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경계선을 철폐하고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닦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사랑하고 참부모 이상 인류를 사랑하게 되면 지상에서 천상에 이르는 직통 길을 누구나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본연의 중심자리에 참부모님이 안착하심으로써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강조하셨다. (p. 1306)

1 하나님은 영계에서 직접 일할 수 없습니다. 천사나 성도들, 선한 선조들을 시켜서 일하지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일할 수 있었으면 타락도 없었습니다. 직접 일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것은 참부모입니다.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거짓 부모의 모든 실상을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천주까지 정화시킨 기반 위에서 하

나님이 지상세계에 내려와 완성한 터전을 중심삼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323-232, 2000.06.03)

2 오시는 재림주는 완성한 아담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완성한 아담을 중심삼고 절대 하나되어야 완성한 해와가 됩니다. 어머니가 그 일을 대신해서 탕감역사를 해 나왔습니다. 아담 창조 완성, 해와 창조 완성을 세계적인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남자 위치에, 여자들은 여자 위치에 서서 사랑을 중심삼고 평등·평준화된 가정이상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과 땅, 세계 동서에 전부 막혀 있던 것이 본연의 기준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가야할 길은 한 길 밖에 없습니다. 참부모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다 굴복했고 사탄세계의 모든 방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되어 나라를 움직여서 하늘 앞에 바침으로써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10-286, 1999.07.27) p. 1307

3 아담 해와는 하나님 앞에 만대의 독자 독녀입니다. 세상에서도 7대 독자 독녀가 죽었다 할 때에는 나라까지도 선물을 보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대의 아들 딸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위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아버님 만이 타락의 슬픔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대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가는 길을 따라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개척해서 지옥문을 타파하고 천국문을 개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옥이라는 한의 그 문턱을 다 무너뜨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지옥까지 막혀 있던 것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닦아야 됩니다. 평준화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상만이 아닙니다. 영계가 전부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적 평준화, 종족적 평준화, 민족적 평준화, 국가적 평준화, 세계적 평준화, 천주적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가정 형성으로 말미암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2-227, 1999.06.14)

4 축복의 혜택권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땅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영계 축복시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해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갈라졌습니다. 영계에 갈 때 자기 도수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영계에 들어가서 비디오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나옵니다. 다 기록되어 있

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곳에 데리고 갑니다. 가정에 열 사람이 있어도 심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헤어져야 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에서 해방됩니다. 지상에서 사랑하던 사람이 영계에 가 있으면 그 사람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 사람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옥 해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일방적인 통행으로서 천국 편성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갈라졌던 모든 개인과 가정을 헤쳐서 세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갖다 맞춤으로써 지상·천상천국의 통일권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해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83-146, 1997.04.08) p. 1308

5 일생 동안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개인 단계에서 그 일을 했고, 가정 단계에서 그 일을 했고, 종족·민족·국가·세계 단계, 그다음 천주 단계에서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댄버리에 왜 들어갔느냐? 영계와 육계가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것을 풀기 위해서 영계와 지옥에 길을 닦아 놓아야 하는데, 댄버리에 있을 때 어머니와 특별기도를 함으로써 그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의 모든 담이 무너져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또 영계에 자기 친척들 중에 선한 영이 있으면 교육해서 끌고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영계의 구세주 역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역할은 이 땅에만 있었는데, 이런 길을 닦아 줌으로써 저나라의 선한 영들이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을 교육하고 선한 조상이 구세주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36-187, 1985.12.22)

6 아버님 일대에 개인에서부터 세계, 영계까지 고속도로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1985년 2월 초하루 댄버리에서의 개천문일 선포입니다. 지상세계에서부터 천상세계까지 고속도로를 연결시켜 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일 어려운 자리, 제일 어려운 밑창에서부터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새로운 기원은 옥중에서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혁명가들은 감옥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열고 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옥중의 제일 밑창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닦아 나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옥이면 지옥에서도 남자 여자가 갈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상세계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칸막이로 막혔던 것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열린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의 사랑에 의한 혈통적 인연으로 막혔던 것이 참부

모의 사랑에 의해 새로운 축복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써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66-243, 1987.06.07)

7 댄버리를 중심삼고 지옥과 천상의 문을 열어젖히고 지상의 지옥문까지도 열어젖혔습니다. 그래서 댄버리를 나올 때에는 통일가와 아버님을 중심삼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만국이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반을 닦으려니 참부모의 아들인 흥진군을 영계에 보내고 영계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늘땅을 중심삼고 제물적 입장에서 참부모의 사랑권에서 영계에 간 사람은 흥진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삼고 교파들이 갈라졌습니다. 민족별로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담을 다 헐고 한 줄로 모여들 수 있도록 줄을 쳐 놓았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흘러서 한 곳으로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흥진군의 사랑의 길을 통해 영계에서 지상을 왕래하는 것입니다. 본래 영계에 간 선한 선조들은 본연의 사랑의 줄을 타야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해 왕래할 수 있는 다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69-204, 1987.10.31) p. 1309

8 본연의 세계에서 천국을 가는 길은 참부모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인도합니다. 참부모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참부모가 길을 닦아 놓았으니 참부모를 사랑하면 이 길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참부모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인류를 참부모 이상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만사형통입니다. 막히는 길이 없고 소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로 직통하는 주류 심정노선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상에서 천국까지 직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0-058, 1986.02.01)

9 영계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이 아버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일했고, 앞으로 올 이상적인 사회와 이상적인 세계를 이룰 수 있는 2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더라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그대로 연장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 가까운 데 가서 그 일을 같이 안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나라는 네 나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5-212, 1990.09.02)

10 참부모는 거짓 부모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해산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영계에 들어갈 때 더 나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전부 해방해 주어야 합니다. 지상세계의 감옥 문을 열고 천상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 정도와 양심에 따라 천상세계에 올라가게 되면 교육을 합니다. 원리말씀과 이상세계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영계에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 클럽을 중심삼고 교육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귀됩니다. 그러면 통일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이 시작하고 천상천국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까지도 해방해 주어야 됩니다. (293-273, 1998.06.02) p. 1310

11 역사적인 원한의 담을 참부모가 헤쳐 버려야 됩니다. 그 일은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보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상지옥에 살고 있고 영인들이 영계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지상지옥과 천상지옥의 문을 모두 열어 지상의 개인으로부터 국가와 세계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천상세계까지 통할 수 있게끔 길을 연장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주류와 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되고, 그 하나된 기준에서 가정을 거치고 종족을 거치고 민족과 국가를 거치고 세계를 넘어 천상세계에 가더라도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헤쳐 버려야 됩니다. 최후의 문제는 막혀 있는 영적인 지옥문과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상지옥 맨 끝에 가서 지상지옥 문을 열고, 천상지옥 맨 처음에 서서 천상지옥문을 열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을 이긴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지상을 거쳐서 천상세계의 지옥 문까지 열어 지상에서 천상까지 갈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140-043, 1986.02.01)

12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부모님의 가르침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영계에 가 보십시오. 전부 알고 이루고 승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대결해서 굴복시켰기 때문에 부모님이 향하는 세계, 전망하는 세계에는 사탄이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평

면권에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영계의 천국까지 평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면화해서 연결하면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에서 산 사람과 그 일족이 그대로 천상천국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천국은 본가입니다. (256-025, 1994.03.12)

13 영계와 육계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진리가 원리입니다. 본연의 플러스는 하늘이요 지상은 마이너스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되는 자리에서 전체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체 역사가 섭리적 관점의 세계 역사라는 개념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부모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타락한 아담세계를 깨끗이 청소해서 완성하여 천국으로 연결되게끔 하였습니다. 본연의 기반은 아담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이 확장되어 전 인류까지 퍼져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 가정이 확정되면 타락 가정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가정이 이 땅 위에 정착하게 되면 그 조상과 부모들이 축복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연후에 지상에 이상가정이 정착하고 이상가정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 그것이 지상천국입니다. 그런 지상천국이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이 이뤄집니다. (292-214, 1998.04.17) p. 1311

14 참부모님이 영계와 지상세계를 청산할 수 있고 이상적인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전체·전반·전권·전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의 조직, 여러 나라의 전체 조직이 일반화됩니다. 전체·전반적으로 모든 능력을 가진 사탄세계는 완전히 하늘의 권한 앞에 무능해지고 하나님의 전권·전능시대로 넘어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93-326, 1998.06.07)

15 천지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영계와 육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과 몸이 화합해서 살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천국이 됨으로써 천상천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들어갈 때에 우리 가정이 들어가고 내 나라가 들어갈 수 있으니, 내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393-088, 2002.09.29)

16 참부모의 활동 범위는 이 지구성만이 아닙니다. 방대한 영계, 그 세계의

끝까지도 관여해서 사탄의 그림자가 있으면 청산해야 됩니다. 그냥 탕감이 안 됩니다. 참부모는 실체탕감을 하게 됩니다. 아담 해와의 실패, 예수님의 실패, 우주적 실패, 사탄에게 더럽혀진 것을 전부 청산해야 됩니다. 사탄을 굴복시켜서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명령을 하고 정비된 기준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재건, 지상천국 천상천국 완성의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사랑의 논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397-208, 2002.11.24) p. 1312

17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했다는 것은 종교세계의 소망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모든 목적이 끝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이상을 세워서 만물을 짓고 사람을 지어 사랑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을 이루어 타락이 없었던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이념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개인·가정이 아닙니다. 세계 인류가 같은 해방적 축복 중심가정의 자리에 섬으로써 지금까지 비어 있던 천국에 한꺼번에 갖다 맞출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역사의 전부를 수평기준에서 하나님이 이상으로 하시던 그 기준을 때우든 꿰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빈자리에 갖다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상과 천상에는 이상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계 전체를 활보할 수 있고 지상도 마음대로 활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46-239, 2001.07.01)

악령 분립과 영인의 해원·축복

참부모님께서는 천주적 승리권을 토대로 영계의 문흥진님과 대모님을 중심삼고 1995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청평 역사를 통해 악령을 분립시키시고 1999년 2월 12일부터 영인 해원의 은사, 1999년 12월 12일부터 조상축복의 은사를 베푸셨다. 이와 같이 타락의 혈통을 청산짓는 축복의 은사를 영인들에게까지 부여함으로써 전 인류는 천주적인 해방의 시대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18 모든 사람에게 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평 역사는 참부모님이 이 영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이 그 영들이 영계의 지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서치라이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한 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담이나 조건이 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방의 담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악령들을 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 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령들을 털어주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이 타락함으로써 악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창조역사를 해야 됩니다. 조상들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장 자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량 축복, 영계 해방 축복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298-212, 1999.01.08) p. 1312

19 청평수련소는 여러분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본거지입니다. 영계에도 수련소가 있습니다. 그 수련소를 통해 지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탕감이 안 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참부모와 하나되어 죄에 대한 탕감을 하게 되면 영계의 수련소도 안 가고 직접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딸을 낳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접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탕감복귀시대를 다 ㅊ청산했습니다. 이제부터 낳는 아들딸은 천국으로 직행해야 될 텐데, 거기에 못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 문턱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죄가 완전히 탕감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옥 대신 영계에 축복가정의 감옥이 생겨나고, 축복가정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다리는 낙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지은 죄를 영계에서 해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더라도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깨끗이 죄를 탕감해야 됩니다. 영계에 대해 얘기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니만큼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424-104, 2003.11.04) p. 1313

20 여러분은 청평수련소에 가서 조상 해원식과 축복식을 해야 됩니다. 빨리 조상들을 해원하고 축복받게 해야 천사세계의 축복가정으로서 지상의 축복가정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환난이 없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세계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320-118, 2000.03.31)

21 여러분 축복가정은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영계와 육계의 자기 일족을 전부 해방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조상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와 같은 탕감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계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조상들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 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310-097, 1999.06.06)

22 흥진군이 영계에서 보내온 보고 내용을 여러분 자신이 영계에 가서 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흥진군이 대신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흥진군과 여러분이 형제로서 하나됨으로써 영계도 해방되고 지상도 해방됩니다. 지상이 귀합니다. 흥진군이 보내온 영계의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지상에서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그 말은 탕감은 지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도 내 것이요 지상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와서 비로소 부모님과 흥진군이 하나되고, 여러분이 흥진군과 형제로서 하나되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지상의 여러분과 부모님이 하나됨으로써 영계를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흥진군과 영계가 하나되어 비로소 지상에 착륙함으로써 축복가정이 착륙되어 지상천국 대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424-100, 2003.11.04) p. 1314

23 여러분은 조상들을 해원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야 조상들이 흥진군과 같이 지상에 재림해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천사세계는 타락 전 아담의 16세까지 혈통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을 축복함으로써 복귀됨과 동시에 타락한 세계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형님의 자리에서 실수해서 가정을 파괴시킨 것을 뒤집어 탕감의 자리를 거쳐 가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협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님과 동생을 뒤집어야 됩니다. 형님이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424-102, 2003.11.04)

24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전부 아담의 후손인데 타락함으로써 천사장의 혈통이 되어 영계에 가 있습니다. 가인 형태로 벌어진 영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을 해주어서 수평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영들을 모아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아기로 태어나서 죽은 영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16세 이상으로 결혼해 보지 못하고 영계에 간 사람들을 전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이나 결혼하지 못하고 죽어 간 모든 처녀 총각들 16억쌍을 결혼해 준 것입니다. 40억쌍, 100억쌍, 120억쌍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미혼 남녀들을 중심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지상의 사람에게 들어와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영들을 전부 쫓아내 버리고 축복받은 선한 영들이 지상에 와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 남녀들이 축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축복받고 싶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어 끌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301-211, 1999.05.01)

25 청평 역사는 에덴동산에서 천사장과 아담 해와가 분립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탄의 핏줄을 전부 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평 역사를 거친 사람들은 정화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360만쌍 축복이 끝나고 청평수련소에서 대모님과 홍진군이 전부 축북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했으니 영적 기준을 실체적으로도, 영적인 기준에서 타락했던 아담해와의 모든 것을 청산짓고 실체적인 천사장권에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천사장권이란 아담의 몸이 16세에 사탄의 몸이 된 것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몸을 접붙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접붙여 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사랑을 펼쳐졌는데 긍정적인 사랑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홍진군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참부모의 아들딸이 가서 예수님이 결혼하지 못해서 갈라진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내적인 입장에 있고, 대모님은 예수님을 낳아 준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서 모자협조를 통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책임을 해서 예수님을 살려 주어야 됩니다. (290-178, 1998.02.22)

26 천지부모천주안식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집, 가정 집, 종족 집, 민족 집, 국가 집, 세계 집, 천주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어서 세계 판도를 꾸며서 살 수 있는 해방권을 만들어 놓겠다는 결의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전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권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세계가 강림합니다. 그다음에 선한 선조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선한 선조들은 천사 형님입니다. 천사는 몸을 갖지 않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탄은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 조상들은 천사장과 다릅니다. 아담 몸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축복과 더불어 천상 조상들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05-011, 1998.03.29)

3절 영육계 일체시대 주요 선포 의식들

주요 선포 의식과 그 의미

참부모님께서는 생애를 통해 수많은 **실**체적 탕감조건을 세우고 승리하여 영계를 해방하고 통일하셨다. 이 과정에서 행하신 여러 단계적 선포의식은 복귀섭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1991년 7월 1일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7·1절)' 이후 하나님과 일심·일체·일화를 이루기까지의 노정은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의 천로역정이었다. 1997년 11월 29일 4000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을 통해 첫 영인축복식을 거행하심으로써 이해 12월 1일 영계축복개문을 선포하셨고, 1998년 5월 15일 지옥해방과 천국개문을 발표하셨다. 그러면서 이해 6월 2일 영계에 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6월 13일 3억6000만 가정 1차 축복식을 기해 성인과 악마들을 함께 축복해 주시며 영육계 통일 축복식을 선포하셨다. 이로써 1999년 2월 12일 직계 조상 해원식을 시작하셨고 3월 21일 사탄 자연굴복일 선포와 5월 14일 천주 해방식에 이어 9월 9일 천지부모 천주 통일 해방을 의미하는 9·9절을 선포하심으로써 사탄에 의해 막혔던 지상과 천상의 담을 허무셨다. 다음날인 9월 10일 10시 10분, 즉 3·10절을 통해 하늘 편에 1부터 10까지의 수를 봉헌함으로써 구약·신약·성약시대를 탕감복귀하고 완전히 청산한다고 선언하셨다. 뒤이어 10월 23일 총천주축복해방일과 10월 24일 제4차 아담권시대 도래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완전한 아담의 자리에서 11월 7일 천성왕림궁전을 봉헌하고 1999년 12월 12일 조상축복식을 시작하신 데 이어 2000년 6월 29일 천주 환원식을 선포하셨다. 그러한 터전 위에 2001년 1월 13일 하나님왕권즉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4월 10일 천사세계 해방 석방 선포와 5월 5일 쌍합십승일을 통해 후천시대 출발을 선포한 뒤 2005년 9월 12일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고 2006년 6월 13일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및 대관식을 거행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러한 기반 위에 2007년 4월 3일부터 세계 순회강연을 통해 천주평화신(神)문명 개벽시대를 선포하시고 2010년 7월 8일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천지인참부모정착실체 말씀선포대회에서 하나님의 실체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고 하나님 완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2011년 천력 7월 3일 '섭리적 최종목적 되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해 11월 17, 18일을 '천일국 최대승리 기념일'로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셨음을 만천하에 공표하셨다. (p. 1317)

1 예수님이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내가 메시아다!'고 선포했다면 핍박을 안 받습니다. 로마에서 반대받는 이상의 세계적 판도가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면 그 자체가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안 하면 올라가다가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생애는 언제나 선포입니다. 막아 놓아야 됩니다. 물이 못 나오게 막아 놓아야

됩니다. 천지부모천주승리축하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 특권이 아버님에게 있습니다. 참부모 해방, 만민 해방, 하나님의 전권시대로 들어간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선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습니다. 원리결과주관권 이하에 있는 사탄의 전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선포가 필요합니다. (310-142, 1999.06.15) p. 1317

2 부모님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관할 수 있는 시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관하던 원리결과주관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관한다는 키를 박아 놓아야 됩니다. 이 정표를 박아 놓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짓 부모로 인해 파괴되었던 것을 참부모가 하늘 사랑의 주권 기준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탕감시킬 수 있는 자리에 못 서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거짓 사랑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탄 주관권으로부터 하늘 주관권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132-097, 1984.05.20)

3 하나님은 섭리역사 발전 노정에서 승리했다는 팻말을 꽂고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 국경을 선포해야 국경이 설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하는 가운데 참부모가 와서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그 말뚝은 사탄도 못 빼고 하나님도 못 빼는 것입니다. 천운은 그것을 중심삼고 확청운동을 함으로써 환경을 정비할 수 있게끔 영계를 동원하고 이 땅 위에 종교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체제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319-076, 2000.03.17)

4 지금까지 부모님은 많은 선언을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많은 선언을 해서 중심에까지 온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묶어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아담 완성자로 오시는 참부모가 그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네임밸류[8]를 붙여 놓으면 그것을 뗄 사람이 없습니다. (330-011, 2000.08.12) p. 1318

---

8) The name value 그 이름값; 참부모의 이름에 걸맞는 가치를 매겨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훼손할 수 없다.

5 아버님이 선포한 것은 사탄이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인된 사실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선포하게 되면 한계선에 들어와 가지고 사탄 세계가 제멋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선포를 했기 때문에 끝장이 난 것입니다. (383-280, 2002.06.29)

총해원식

(1975.5.1, 천주청평수련원)

6 국가와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한 세계적 기준을 중심삼고 영적 기준이 세계 기반에 연결될 수 있을 때에 비롯 영계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계는 대한민국 영인이나 일본 영이나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영인들이 전부 자기 나라에만 연결되어 있지 세계적인 한 길로 몰아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전체가 동원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해결해 주기 전에는 영계에서 정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도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얼마나 그런 원수의 영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1975년 5월 초하룻날에 총해원식을 했습니다. 전체를 해방해 주고 전체를 용서해 주는 해원식을 한 것입니다. 사탄까지도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총해원식을 함으로써 원수를 원수로 대할 수 없고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원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지상과 영계가 하나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으로 영계와 지상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 사이에 심정적 결렬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과 영계가 하나된 자리에 아담 해와의 가정과 종족·민족·국가·세계를 중심삼고 초민족적 형태가 벌어지면 세계적인 통일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083-110, 1976.02.05)

7 지금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지상에 내려올 수 있으니 전 영계가 지상으**로** 직행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파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전부 막았습니다. 위에서부터 해결되어서 통첩이 가야 문을 열어 놓고 횡적으로도 갈 수 있고 종적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해원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행차함과 동시에 참부모가 오고, 그다음에는 영계에 있는 선군들, 선한 도주들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악한 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다 반대하지 않고 하늘나라

에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총자루를 거꾸로 쥐고 사탄까지도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주권이 자기도 모르게 화해되어 가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3차 7년노정 기간에 미국을 휩쓸어서 영적 세계 기독교 운세를 몰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영적 국가적 기준을 넘어서 세계적 기준까지 가서 운세를 몰아 들어왔기 때문에 육적 국가적 기반을 연결시켜서 영적인 세계적 승리의 터전 위에 육적 세계적 터전을 결속함으로써 영육을 완전 탕감할 수 있는 세계사적 기원을 마련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078-224, 1975.05.25) p. 1319

통일식

(1976.1.31.,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

8 1976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 한국에서 통일식을 했습니다. 복귀의 노정을 걸아가는 데에 있어서 개인완성을 하고, 가정완성을 하고, 종족·민족완성을 하고, 국가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부모님이 개인기준·가정기준·종족기준·민족기준·국가기준을 중심삼고 그 일을 했지만 영계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계와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통일교회 가정을 중심삼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은 닦아 놓았지만 연결이 안 되었으니 이 길을 중심삼고 영계와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지상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식을 할 수 있습니다. (083-109, 1976.02.05)

9 1976년 1월에 한국에 온 것은 모든 역사를 탕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음력 정월 초하룻날 통일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계와 육계를 중심삼고 국가가 승리한 기반에서 출발할 수 있는 통일식 기원을 못 가졌습니다. 그 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나라 백성이니 하늘나라 아들딸이니 하지만 부모님의 생일을 맞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중심삼고 생일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영계에 간 영인들도 아직까지 참부모 생일을 맞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행세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세계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했다면 아담이 완성한 권내에 동참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의 만민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특권적 계기를 마련해 주는 식을 한 것입니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부모님의 생일입니다. (084-152, 1976.02.22) p. 1320

문씨 종족 해방과 세계 종족 해방 선포식 통일해원식

(1978.11.2, 천주청평수련원)

10 지금까지 내가 막혔던 영계의 수많은 담을 헐었습니다. 또 지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인종들 가운데 막혔던 담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헐었습니다.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76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 영계에 있는 모든 교파, 종교들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국가 간의 모든 문을 열어 놓을 때가 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것이 종족의 문입니다. 지금까지 종족의 문을 안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씨 종족 해방과 세계 종족 해방 선포식 통일해원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많은 도의 세계의 문을 열고, 이 땅의 수많은 종족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종족의 문을 열어 놓으면 국가적인 문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옛날의 도인들, 종교를 믿다 간 영들이 지상의 복귀섭리에 있어서 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아벨권을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특정한 종교에서만 있었는데, 오늘날 지상에서 담을 헐고 그 범위를 넓혀 놓음으로써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나 안 믿었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영인들이 지상에 와서 자기 후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05-264, 1979.10.26)

11 세계를 대표한 탕감역사를 개인적·가정적·종족적·민족적·국가적·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중심삼고 소생, 그다음에는 가정을 중심삼고 장성, 종족을 중심삼고 완성, 3단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중심삼고 볼 때 종족은 소생, 민족은 장성, 국가는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 멤버들은 모두 국가를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라를 중심삼고 볼 때에는 세계와 영계까지가 3단계입니다. 3단계권으로서 세

계를 복귀해야 됩니다. 원리가 3수의 3단계를 중심삼고 10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그러한 사명을 중심삼고 복귀역사를 탕감해 나갑니다. 탕감해 나가서는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삼고 이런 역사를 해서 갖다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978년 11월 2일 문씨 종족 해방과 세계 종족 해방 선포식 통일해원식을 해서 전부 연결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담벼락이 전부 없어져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없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상대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계를 동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아담과 마찬가지이고 영계의 영들은 천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선한 영들은 천사의 책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 조상들의 조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조상 복귀입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상이니까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과거도 책임지고 현재도 책임지고 미래도 책임지는 것입니다. 3시대의 책임자입니다. (102-030, 1978.11.19) p. 1321

영육계 통일식

(1982.2.22, 미국 이스트가든)

12 아버님이 1948년 2월 22일 북한 옥중생활로부터 출발해서 1950년 12월 남한에 들어와 기독교권 내를 중심삼고 1982년 2월 22일까지 33년이 걸려 영육계 통일식을 했습니다. 33년이 되는 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33년이 되는 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33년은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맞먹습니다. 이것을 탕감하고 보니 영적 기반, 육적 기반이 세계상에 서야 했습니다. 영육 중심삼은 여기에 탕감기준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기준을 넘어 세계적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그날이 1982년 2월 22일입니다. 34세권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출발하는 때입니다. 부활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탕감했기 때문에 핍박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7-260, 1982.03.28)

13 1982년부터 7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세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세계에서는 기독교 재부흥이 벌어질 것이고 도덕 윤리의 재건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몰랐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일교인이 심정적으로 하나될 수 있는 좋은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미국 법정 투쟁을 중심삼고 모든 통일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 반대할 때에는 우리가 공격하는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7-262, 1982.03.28)

개천문일 선포
(1985.2.1, 미국 댄버리연방교도소)

14 미국이 나를 댄버리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1985년 2월 1일에 개천문일을 설정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가지 않았다면 지옥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안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안 갔더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잡아넣고 자기 소원을 성취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나는 죽지 않고 지옥과 천국 문을 열고 지옥과 천국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자기 선한 조상들이 와서 지상지옥에 있는 후손들을 교육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상의 선한 선조들이 지옥에 가려야 갈 수 없게 담으로 전부 둘러쌓여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막힌 담을 연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을 중심삼고 막혔던 담, 남자와 여자를 중심삼고 막혔던 담, 사탄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전부 막혀 있던 것을 내가 본연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헤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 종족의 문, 일가문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140-036, 1986.02.01)

세계통일국개천일 선포
(1988.10.3, 일화 용인공장)

15 자기 고향에 있는 형제자매를 각국의 형제자매와 연결시키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첫째가 어디냐 하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시작되려면 일본과 한국이 하

나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독일과 소련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 4개국이 세계적 결실체로서 참부모를 중심삼고 지장을 받지 않게끔 가인 아벨 양면의 기반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비로소 승리적 천국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의 통일 시작이고, 둘째는 미국과 한국과 독일과 소련의 통일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기독교와 한국 통일교회에 의한 통일세계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와 기독교문화권이 아벨이 되어서 유물사관의 공산세계와 유심세계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통일입니다. 그것이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통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섭리사적 탕감 책임 완수입니다. 섭리사적 책임 완수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완성한 가정이 출발함과 더불어 사탄세계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방된 세계 기반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 가정 체제, 가정만이 아니고 종족·민족·국가·세계 체제권이 생겨남으로써 사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해방세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지상천국 세계가 출발하고, 여덟 번째는 가정·국가·세계,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실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땅에 비로소 사랑일체 이상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서약과 관계되어 있는 전후의 모든 내용을 중심삼고 1988년 10월 3일인 오늘 세계통일국개천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81-311, 1988.10.03) p. 1323

천지부모 선포식

(1990.2.27, 한남국제연수원)

16 부모님의 가정은 종대입니다. 그러니 종대 뿌리로부터 종대 순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하나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것에 접붙이지 말고 같은 종류에 접붙여야 됩니다. 같은 종류가 누구냐 하면 친족입니다. 과거에는 가인과 아벨이 종류가 달랐습니다. 하늘 편 종자 밑에 가인을 잘라 버리고 아벨을 접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혈족도 달랐지만 지금 시대는 혈족이 같습니다. 아들이 자기 부모 앞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습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대번에 하나됩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접붙이기가 힘들었지만 참감람나무끼리는 쉽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1990년 2월 27일에 천지부모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거치고 와서는 잡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아 놓으면 이제부터는 무섭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삼고는 천사세계와 마찬가지인 영계의 선조가 얼른와서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지켜 주게 되어 있습니

다. 하늘나라,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나라에서는 천사장이 언제든지 아담을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왕권을 선포하고 난 후에는 선한 영인들이 언제나 왕권 일족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00-342, 1990.02.27) p. 1324

영계해방권 선포
(1990.11.17, 한남국제연수원)

17 1990년 11월 17일 31회, 30주년 자녀의 날을 맞아 기도한 내용이 뭐냐? 이제는 모든 것이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영계해방권을 선포했습니다. 부모님이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영계는 가인이 아벨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통하는 사람들, 영계에 접한 사람들이 지상의 아벨권을 중심삼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승리의 기반을 닦아 줌으로써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벨이 형님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천사장이 먼저 나왔지만 원래는 아담 앞에 굴복하고 아담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악마가 지금까지 장자권을 중심삼고 이 땅의 미숙한 인간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통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의 후손들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제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갑니다. 장자권복귀시대가 지나감으로써 영계는 아담권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제와 실전적 기대를 중심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드리는 식이 오늘 자녀의 날 경배식에서 했던 영계해방권 선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때가 다 되었으니 지금까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거꾸로 흐르든 조류가 이제는 바로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차자들과 지금의 모든 차자들은 하늘의 치리권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복귀 이후의 차자권시

대에는 악마의 활동 무대를 천법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계에 간 모든 영들이 지금까지 지상의 아벨권을 이용했습니다. 장자가 차자를 죽여서 제물로 삼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이용하던 것에서 이제부터는 장자권이 복귀되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영계까지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협조해야 자기들이 복 받게 되어 있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자꾸 구렁텅이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운이 급변해 들어갑니다. (208-153, 1990.11.17)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

(1991.7.1., 한남국제연수원)

18 아담을 중심삼고 천사장이 장자권을 약탈했던 것을 복귀함으로써 천사세계가 아담을 키워서 성숙할 때까지 양육해야 했던 그 본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영계가 인간세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하고 우려먹었습니까? 아담 해와를 타락시킨 그 놀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영계가 행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수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참부모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행세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모님을 중심삼고 처리해 놓아야 됩니다. 거짓 부모로서 치리했으니 이제 참부모로서 이렇게 묶어서 선포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을 한 날이 바로 1991년 7월 1일입니다. (218-033, 1991.07.01) p. 1325

19 영계와 육계가 지금까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길을 갑니다. 정통 환원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계와 육계는 완전히 정통, 정도의 길로 환원해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참부모의 영광된 세계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7월 1일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와 참부모님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으니 참부모님의 영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주 앞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니 이것을 중심삼고 영계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218-056, 1991.07.01)

천주통일 선포

(1992.10.26., 미국 알래스카)

20 예수님이 33세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2년에 그와 같은 일이 33회 자녀의 날을 중심삼고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해방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아버지를 중심삼고 나오던 모든 것들이 탕감시대를 승리해서 그 기반 위에 어머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대회가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로 현재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중심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아버님이 있는 곳은 북쪽입니다. 서로 상대가 되어서 아버님을 중심삼고 아시아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체와 대상, 동양과 서양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표상적인 날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내용 중에 최후의 내용이 영계와 육계, 모든 것의 통일을 선포해 놓고 부모님도 이 땅 위에서 통일될 것을 다 선포한 것입니다. (235-339, 1992.10.26) p. 1326

21 이제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중심삼고 섭리의 세계적 도상을 넘어갑니다. 그 모든 실체적인 것을 축복가정들을 중심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 10월 26일은 하늘땅이 기념할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하늘의 부모와 땅의 부모가 예수님의 33년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녀의 기준을 가지고 국가적 기반, 세계적 기반 위에 하늘땅을 대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주통일을 선포함으로써 가정이 혼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하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되어 새로운 이상세계 완성을 향하여 새로운 이상세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봄이 오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시작해서 전체에 봄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35-339, 1992.10.26)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해방 선포
(1999.1.8.,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22 1999년 표어가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입니다. 축복한 모든 것이 하늘땅 어디든지 뻗쳐 가고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사탄혈통 근절'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근절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절단했습니다. 가지를 절단하고 잎도 절단하고 나무토막의 3분의 1을 절단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근절입니다. 뿌리를 배 버려야 됩니다. 뿌리는 가정에서 빼야 됩니다. 몸 마음 통일, 부부통일, 자녀통일을 해서 절대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르딘 선언의 제2 선언입니다. 제3 선언과 제4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는 4·4절 선언이 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사위기대를 완성하여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들딸이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4·4절을 넘어 자르딘에서 가정훈련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 한 해를 향하여 전진에 전진을 다짐해야 됩니다. 승리의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세, 우리 가정 만세를 해야 됩니다. 최후에 만세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를 맞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298-057, 1999.01.01) p. 1327

23 참부모님이 가는 길 앞에는 사탄의 흔적이 없는, 사탄이 없어진 지옥 해방권 세계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문을 열어 놓았다고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계에서도 원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계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나라에 가서 영계의 그릇된 것을 일시에 파괴시키고 밀어젖혀야 됩니다. 혁명을 해야 됩니다. 1998년 6월 13일 제1차 3억6천만쌍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서 성인과 살인마를 같이 축복해 줌으로써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이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의 비통함과 아담 해와의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것입니다. 세계 정상의 기준에서 살인마와 성인이 부모님 앞에 한 가정으로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벌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벌로 다스리면 사탄을 추방해야 되고 옥살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옥살박살되면 창조이상의 본연의 형태가 완비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품어 해방해서 인간의 맨 끄트머리에 따라다니게 해서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야 합니다. (315-271, 2000.02.05)

천주 해방 선포식
(1999.5.14, 브라질 판타날)

24 사탄이 굴복한 날짜가 1999년 3월 21일입니다. 누시엘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참부모님 앞에 굴복하고, 인류 앞에 굴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암시를 주었습니다. '너는 천년만년 탄식할 수 있는 무덤 속에서 스러질 녀석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안하고 눈짓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고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괴수인 히틀러 일당,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같은 영인들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세워서 사탄을 철옹성같이 방어하는 것입니다. 침범할 수 없습니다. 천하에 자랑할 것은 축복가정입니다. 축복가정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면 사탄은 축복가정을 침범할 도리가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모든 초종교적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지상에 있는 사탄 세력들을 방어할 수 있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주사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46-080, 2001.06.21) p. 1328

25 우리가 지상을 중심삼고 축복한 것이 4억쌍입니다. 4수를 중심삼고 4억쌍 축복식을 했는데, 사탄세계의 모든 가정들은 완성한 아담 가정권 내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축복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 가정의 타락 이전에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들이 참부모를 통해서 결혼시켜 줄 수 있는 자리에 넘어감으로써 타락된 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축복시대 이후에 제4차 아담권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혈통적 인연을 자기 직계아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을 종적 참부모인 하나님과 횡적 참부모인 부모님이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에 본연의 기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본연의 기준을 세계적 무대에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완결됨으로써 아담 이후에 천국이 비었던 것을 한꺼번에 갖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계에 갈 때에는 여기에 타락의 흔적이 없게끔 이것을 청

산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탄식하던 모든 만물이 참부모를 찬양해야 됩니다. 거짓 부모가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참부모의 승리를 찬양해야 됩니다. 사탄까지도, 천지의 모든 것도, 하나님까지도 참부모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짓 부모가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고 해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종교권까지도, 지금까지의 제3세계권 사탄세계까지도, 그다음에는 영계에 있는 성인현철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참부모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담 후손, 예수님의 후손, 재림주의 후손으로 3시대의 후손과 마찬가지입니다. (302-021, 1999.05.14)

26 아담을 완성한 재림주는 예수님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딸들까지도 해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방을 선포했으니만큼 이제 남은 문제는 영계를 전부 축복가정의 영계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가정,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맨 처음에는 영계에 있는 조상들을 4대까지 축복해 주었지만 7대까지 연장했습니다. 7대까지 조상 해원성사를 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시대, 성**약**시대는 120대만이 아닙니다. 180대까지 축복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전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세계와 더불어 섭리의 뜻을 몰라서 못하고 있지만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시급히 이것을 전파하게 된다면 지상·천상천국으로 하나될 수 있는 거리가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302-022, 1999.05.14) p. 1329

총해원 추석절
(2000.9.12, 미국 이스트가든)

27 '2000년 총해원 추석절'이라는 것은 뭐냐? 원래는 자기 조상들을 숭배하고, 그래서 무덤이 생겨났습니다 평면적 입장의 뚜껑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끝날에는 모든 무덤이 열리고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와 같은 식입니다. 영계도 상·중·하로 되어 있고 지옥도 상·중·하로 되어 있어서 횡적으로 전부 갈라져 있는데 전부 철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80세에 처음 맞는 추석에 이 전체, 조상들을 해방해 주어야 됩니다. (332-119, 2000.09.12)

28 재림주는 사탄세계에서 보면 맨 마지막으로 나온 하늘의 사람입니다. 아벨 중에 장자권·부모권·왕권을 가진 맨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모든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계로부터 육계까지 무덤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종적으로도 그렇고 횡적으로도 8단계, 팔정식을 중심삼고 막혔던 전부를 총체적으로 열어젖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80세 되는 2000년 추석인 오늘을 기하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한계선을 가지고 이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을 중심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거짓 결혼을 함으로써 덮어졌던 것을 참부모의 축복받은 혜택권을 중심삼고 개인시대·가정시대·종족시대·민족시대·국가시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지나 지상·천상 통일적인 축복권을 완성하고 해방권을 벌여 놓음으로써 이 전체를 터놓아 주어야 합니다. 원래는 제4차 아담권 심정세계가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시대가 아니라 보고시대가 됩니다. (332-119, 2000.09.12)

영계 통일해방식 선포
(2000.10.14, 천주청평수련원)

29 2000년 10월 14일 영계 통일해방식을 거행한 이후부터는 영계 축복**받**은 사람들의 상대 되는 사람들이 지상에 올 수도 있고, 지상에서 기도하면 영계와 통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하고 사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가정들이 중심한 영계와 육계가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지상에 이룬 것을 영계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되는 영계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장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타락한 천사장권 내의 조상들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가정들은 지상에 있는 아담 후손, 지상의 완성한 아담인 참부모를 중심삼은 혈족의 인연을 놓고 볼 때 같은 핏줄의 인연을 받았지만 이들이 먼저 갔으므로 천사장 입장에 있는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통일적인 의식을 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계의 조상들이 지상에 와서 축복받은 가정들을 협조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아담 가정을 길러서 하늘에 모시고 들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 축복을 받은 조상 가정들이 지상에 와서 축복가정들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 개인이나 가정, 종족을 세계권 내의 사탄 후손들이 함부로 칠 수 없는 것입니다. (336-276, 2000.10.14) p. 1330

30 이제 갈래갈래 찢어졌던 영계와 육계가 하나로 관계맺어집니다. 이북 흥남감옥 출감 50년을 넘어서면서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 통일해방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에 간 부모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축복받은 5대 성인 가정들과 합해서 해방의 새로운 지상천국의 대혁명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5대 성인과 부모님의 자녀들과 축복가정들이 화합해서 영계 통일해방식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됩니다. (395-009, 2002.10.14)

낙원 지옥 철폐와 천국 입적 선포의 날
(2000.12.3,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31 하늘의 뜻을 따라 편성된 가정의 연체가 얼마나 귀하고, 자기 개개인들은 개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땅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대표적인 가정들로서 하늘의 축복의 인연이 만세의 자기 혈족을 통하여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인연들을 통하여 근친과 원친을 합하여서 당신의 사랑의 한 지체가 됨과 동시에, 하나의 사랑의 나무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뿌**리와 줄기와 순을 중심삼고 만민의 모든 가지가 되어 사랑의 꽃을 피워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 결실을 온 천지에 꽉 채워 해방의 천국을 완성해야 될 가정이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참부모의 이름을 중심삼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이라는 표어를 중심삼고 이제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하나님의 슬픔의 기반이 되었던 낙원과 지옥을 철폐하는 이 시간을 갖겠사오니, 아버지,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참부모와 참부모의 가정 일족, 성인들과 성인들을 중심삼은 모든 종파의 해방을 선언하였고, 사탄세계의 괴수였던 누시엘이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던 모든 기지를 종교권 내의 모든 축복가정들이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방향을 중심삼고 하나의 주류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삼은 보좌로부터 지상의 왕궁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맞은 해방의 은사를 가짐으로써 지상세계 천상세계의 낙원과 지옥을 해방하여 천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직행행로를 개척하는 이 시간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39-017, 2000.12.03) p. 1331

32 살인마들의 축복을 단행한 아버님이 위대한 지략가입니다. 그것을 단행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지 않은 것을 원칙을 중심삼고 치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 나가느냐 누가 깨져 나가느냐, 이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3일에 낙원과 지옥을 철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철폐했느냐? 지옥문을

다 열어 놓고 낙원문, 천국문까지 다 열어 놓았는데, 그 떼거리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축복해 준 것입니다. 축복해 주니까 종교권이 철폐되고, 종교권이 철폐되었으니까 그 밑창에 있던 지옥권이 낙원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낙원도 철폐해 가지고 없어지니 천국과 통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앞장서면 하나님이 서슴지 않고 지옥이니 천국이니 어디든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종적 기준으로만 왔다 갔다 하던 하나님이 아버님을 따라 세계를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았으니 사랑의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념이나 지옥의 이념도 천국의 사랑을 중심삼고 수평으로 잠길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서 점령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유해방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해방해야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본연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341-021, 2000.12.29) p. 1332

33 2000년 말까지 영계의 종교권을 전부 축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낙원을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과 지옥을 어떻게, 무슨 이치로 해방하느냐는 것입니다. 종교권을 해방하고 지옥까지도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참부모에게는 지옥의 문이 없습니다. 참부모는 천국만 갈 수 있는데, 반대하는 기준은 어느 한계선 권 내입니다. 사탄의 권한 내에 있을 때에는 반대하지만 그 권한을 넘어서게 되면 사탄이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엔입니다. 유엔은 세계 국가의 정상급입니다. 그래서 초종교·초국가·초유엔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부모주의이고 하나님주의입니다. 참부모가 사탄의 종교권 아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부모가 나라권 아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부모가 유엔권 아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종교·초국가·초유엔주의입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하나님주의를 합한 주의가 절대 위하는 사랑주의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위하는 부모주의, 참된 부모주의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다 그 품에 녹아나는 것입니다. 전부 소화되는 것입니다. (341-016, 2000.12.29.

영계 육계 총통일 선포식
(2002.3.1, 미국 하와이)

34 부모님이 지상이라 하면 홍진군은 영계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새로운 시대의 종착점을 넘어서면서 미래에 지팡이라면 지팡이, 무기면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계는 영계대로 분립

해서 역사했고 지상은 지상대로 역사했지만, 이제는 천일국을 중심삼고 자주국 승리권 해방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전부가 공통적인 목적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서 같이 협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계와 육계가 갈라져서 반대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형제권, 아담이 위에 들어가고 천사장이 아래로 들어간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영계의 축복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아담세계 지상의 천일국을 도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세계는 타락했기 때문에 축복을 통한 혈통적 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축복가정을 도움으로써 일체화하는 것입니다. (371-248, 2002.03.01) p. 1332

35 흥진군이 청평수련송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성인들을 대표해 영계의 사령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세미나를 하고 중간 매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상에 연결시키기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행ㅊ차가 미국에서 거행할 14만4천쌍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지상만이 아니고 지상과 천상세계가 합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계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다른 혈족이 아니고 우리 집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나라의 일로서 이 일은 내가 지금까지 가담해서 하는 일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가입하여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주국 승리권 해방시대의 일입니다. 자주국 승리권 해방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영계나 육계가 이제 한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계에 영향을 주어야지 영계의 지배를 받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계의 사령관이 흥진군입니다. 예수님시대와 딱 반대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부모님이 있고 흥진군은 예수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있는 흥진군이 영계에 가서 현재 부모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와서 하늘을 대하여 영계와 육계가 갈라진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자관계의 일체권에서 자주적 승리의 패권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 선언은 여기 책임자가 하거나 청평수련소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전체의 책임은 하나님이 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선언함으로써 그러한 행차에 개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71-249, 2002.03.01)

6천년 역사 대해원식(2002.4.4, 미국 이스트가든 · 천주청평수련원)

36 교차결혼을 함으로써 수평선, 평형선을 중심삼고 개인과 가정도 막힘이 없어야 커서 올라가 세계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막혀 있습니

다. 사탄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차 혈통을 만들었으니 평형선 혈통권을 중심삼고 개인 해방권에서부터 가정 해방권,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 해방권까지 8단계 해방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개인을 탕감해 축복을 받고 가정 해방에서부터 하나님 해방까지 8단계 기준을 세워 놓으면 본연의 기준을 중심삼고 하늘땅이 화합할 수 있는 시댕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2002년 4월 4일에 한 6천년 역사 대해원식입니다. 6천년 역사 대해원식, 대역사 해원 총탕감식을 지냈으니만큼 사탄은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사탄은 인류 세계에서 떠나야 되고, 하늘의 모든 축복받은 사람은 인류세계에 찾아와 고향 땅과 나라를 찾기 위해서 선두에 서야 됩니다. 아담 해와 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 아벨이 형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두에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소대장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명령을 하면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할 수 있는 마음, 일심·일체·일념만 되면 하늘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운과 하늘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지부모님의 승리 기반과 조건, 모든 주류사상의 방향이 목적지까지 뚜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운전만 잘하면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모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374-055, 2002.04.05) p. 1334

천지부모 통일 안착권 선포
(2002.6.11., 천주청평수련원)

37 천지부모 통일 안착권을 선포하게 되면 그 천지부모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들도 안착해서 안착한 자리에 국가와 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다리가 놓임으로서 대건설이 벌어집니다. 영인들, 성인들이 와서 자기 조국을 중심삼고 세계를 구하기 위한 다리를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하나된 자리에서 놓아 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된 것과 같이 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381-105, 2002.06.11)

38 여러분이 천지부모를 중심삼고 정착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효자, 나라에서 충신, 세계에서 성인, 천주에서 성자의 도리를 전부 이어받아야 됩니다. 가정맹세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맹세문을 그냥 그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뼈살에서 울려 나오는 최후의 절규의

말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천지부모와 살아야 됩니다. 일체를 주체와 같이해서 사는 것입니다. 종적 횡적 천지부모를 중심삼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이어받은 축복가정, 하나님이 동거할 수 있는 축복가정의 귀함을 새로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축복가정은 지금까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결실해야 될 그 기반을 이루어야 됩니다. 각자가 분별된 입장에서 결속해서 거기에서부터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를 묶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일족을 중심삼고 해야 됩니다. 민족이라고 하면 열두 종족 이상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도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여러 나라 사람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비참사를 통해 모든 핏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두 민족을 결합시켜야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5단계 만에 국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382-137, 2002.06.21) p. 1335

39 하나님의 혈족과 지상 참부모의 혈족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계축복 통일, 지상축복 통일 기반이 되어 있으니 천지부모가 통일되어 안착하는 것입니다. 지상·천상천국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지부모 통일안착 선언인데, 김씨면 자기 김씨만이 아닙니다. 하늘땅을 중심삼고 영계가 전부, 성인현철들이 전부 하나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까지 5대 성인을 중심삼고 전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공산세계, 그다음에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조상들, 왕들의 전통을 이제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전통 표준을 중심삼고 축복 중심가정은 늘 영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가 주체입니다. 타락한 세계가 아닙니다. 본연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히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382-140, 2002.06.21)

천주평화통일 해방성화식
(2002.10.18, 한남국제연수원)

40 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입니다. 아버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 육계가 전부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로 모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까지 8단계로 올라가야 천주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한 전부가 내게 달려서 찾아왔습니다.'라면 바쳐드리고 난 후에 돌려받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의 세계는 너희에게 상속

할 것이다. 수고했다.'고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탄세계를 이겨야 됩니다. 사탄세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주인, 생명의 주인, 혈통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나라의 주인, 세계의 주인, 천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탕감복귀, 해방의 성화식을 하는 것입니다. 해방성화식은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395-120, 2002.10.18) p. 1336

41 제4차 아담권 해방시대 위에 지상·천상천국이 연결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고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천상지상화합통일 대회라는 것은 천상세계 지상세계 평화통일 해방성화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천지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는 그것이 여러분 생애노정과 역사와 동반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395-246, 2002.10.21)

42 2002년 10월은 하늘나라 복귀섭리를 정리한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것이 천상지상화합통일 대회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고 천상과 지상이 화합해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중심삼고 영계의 5대 성인과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수억의 영계인들과 지상의 축복받은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중심삼아 결의대회를 하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과거의 보따리가 있으면 다 불살라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딸과 만물을 합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몽땅 청산한 위에서 '내 것이 없고 전체가 하늘 것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부모님 가정의 3대와 여러분 가정의 3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 만들기 위한 기준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가인이 협조하고, 천사장이 협조하고, 영계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중심삼고는 국가가 하나되기 위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은 사탄세계, 가인세계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시대를 넘어 갔습니다. 갈라졌던 것을 통일된 세계로 만드는 시대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총결산한 것이 천주평화통일 해방성화식입니다. (395-254, 2002.10.30)

43 하나님의 해방권을 이룰 수 있게끔 조건적인 것은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5일 천지부모통일안착 생활권대회를 하고, 영계와 육계의 화합 통일을 기념하는 선문대 대회를 중심삼고 천주평화통일 해방 성화식을

했습니다. 세상을 불살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와 육계가 같다는 천일국평화통일 **평**정국가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지옥문 낙원문 천국문 없이 사방으로 축복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못 들어갑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그 나라를 찾아서 바치고 나라와 더불어 들어가야 됩니다. (399-095, 2002.12.19) p. 1337

일체통일식
(2003.12.21, 한남국제연수원)

44 일체통일식이 무엇입니까? 제4차 이스라엘국이 제1, 제2, 제3 이스라엘과 하나 안 되어 있습니다. 제1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로 말미암아 미국이 제2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스라엘 한국을 독립시킨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2 이스라엘권인데 영계를 모릅니다. 영계와 육계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영계와 육계를 아는 사람, 아담 해와가 실수하던 자리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통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어떻게 났는가를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종교의 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정세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다가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로 갔으니 십자가로 와야 됩니다. 죽을 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오시는 재림주님이 천하의 평균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렁 판에 가서 기둥을 꽂아 정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끔 해야 될 판가름하는 평화선언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앞서 2003년 12월 21일에 일체통일식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싸움판 가운데서 심으려던 제4 이스라엘국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죽었던 예수님이 제4차 이스라엘국 앞에 부활한 예수님으로 왕권을 대신해서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8-264, 2003.12.21)

45 2004년부터는 일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가정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천국 안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천일국이기 때문에 천일국을 대표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역사적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거쳐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들과 천사세계, 지상에 있는 축복가정들과 천상세계의 축복가정들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3대 손자 손녀의 가정과 같은 자리에 서서 새로운 혈족을 중심

삼고, 참부모가 1대라면 여러분이 2대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3대인데 이 3대를 중심삼고 축복함으로써 영계와 육계가 하나됩니다. (428-245, 2003.12.21) p. 1338

해방적 천주통일국개천일 선포
(2004.10.3, 구리중앙수련원)

46 2004년 10월 3일부터는 세계통일국개천일이 아니라 천주통일국개천일이 됩니다. 세계가 아니라 천주입니다. 천주·천지·천지인부모는 무엇이냐?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를 쓴 아담 해와가 성숙해서 결혼식을 함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렸던 것을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탕감복귀해서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고 격위에서는 주체격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해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지었습니다.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져서 태어난 그것이 장성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천주적 통일권 부모는 마음 자체를 중심삼고 몸 자체의 실체적 참부모가 결혼식을 했으면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자체가 아무리 주체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격이 완성 안 하면 안 됩니다. 상대격도 완성 안 되었지만 주체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천국 들어갈 터인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원해방으로부터 지옥 해방, 영계 전체 해방을 위해서 축복 전체화를 중심삼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471-208, 2004.10.03)

천지해원 추석절
(2005.9.18., 미국 이스트가든)

47 하늘땅의 천총관, 하늘을 대표한 홍진군이 참부모님 앞에 2005년 9월 18일 오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에서 영계메시지를 보고하였으니,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대표자로서 이 천지해원 추석절을 받아 주기를 바랍니다. 천총관 홍진군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분을 대신하고 영계와 육계를 대신해서 선포하는 말이요, 그 선포된 내용은 홍진군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축복가정 일체, 지상·천상세계 전부, 또 나머지 모든 인류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특은을 허락할 수 있는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승리한 그 터전 위에서 천지부모가 만세의 승리의 패권을 가져와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행사를 완결지을 수 있는 대에 여러분이 지극한 정성, 일심·일체·

일념으로써 안팎의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공개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신 생축의, 제물의 한 단체로서 봉헌하여 하늘의 해방과 땅의 해방을 선포하는 기념의 날 이 의식에 참석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508-114, 2005.09.18) p. 1339

48 하늘땅이 하나되고, 세계가 하나되고, 국가가 하나된 터전 위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흔적이 없는 터전 위에서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성과 소유권을 상속받고 책임분담을 완성함으로써 경계선, 국경선 철폐가 이루어지고 자유분방의 해방·석방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이 없던 본연의 창조하던 그 자리에서 태양을 다시 만들고, 또 달을 다시 만들고, 땅을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물을 다시 만들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한 새로운 새 아침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식이 2005년 9월 18일의 천지해원 추석절입니다. 천주 전체, 천상천하, 지상세계와 영계를 합해서 경계선이 없고 국경선이 없는 해방·석방권입니다.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진 것은 교회 재산이 아니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인류에게는 국경선과 경계선이 있습니다. 국경선과 경계선이 없이 어디든지 자유분방하게 가서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핏줄을 더럽힌 기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혈족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부모 완성 혈족권이 이루어진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자주장할 수 있는 하늘땅의 왕자 왕녀 이름으로 대신 복귀되었다는 명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본래 황족입니다. 아담의 아들딸 황족입니다. 여러분은 황족권에 심정적으로 일치함으로써 천주 해방, 지상 세계 천상세계 해방·석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선과 경계선이 없는 천주평화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천주평화의 왕국은 천일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제1차 아담, 제2차 아담, 제3차 아담의 경계선과 국경선을 해소한 다음에 그것을 인계받아 제4차 아담 심정권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508-120, 2005.09.18) p. 1339

4절 영연세협회시대와 영계 대혁명

영연세협회(靈聯世協會)시대의 의의

참부모님께서는 영육계 일체시대 개막에 맞춰 영원히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영육계를 자유롭게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영연세협회시대를 2009년에 선포하셨다. 이로써 영계와 육계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관할 아래 직접 교류하고 주관받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p. 1339)

1 영연세(靈聯世)가 무엇이냐?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계와 세계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단절되지 않게 다 붙여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연세협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나라와 혈통이 갈라질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주의를 주장해 온 한국 백성은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이래 평화의 전통을 지니고 하나님을 모셔온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핏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혈통의 주인입니다. 평화와 핏줄이 하나된 주인이 되면 조국광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구성 자체가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 땅인 동시에 하나님의 조국에 소속된 아들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고향 땅이 됩니다. (2009.12.22, 천정궁) p. 1340

2 지금까지 평화의 주인이 있었다면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알고 섬겨 온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민족은 역사 이래에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싸워서 어디를 유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참된 평화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 왔기 때문에 문화의 종착지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슬하이며, 거기에 가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무릎 앞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영연세협회입니다. 그래서 영계와 연결됩니다. 연합이 아닌 협회입니다. (2010.01.05, 천정궁)

3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영연세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聯)'자는 '귀 이(耳)'변에 '실 사(絲)'를 했습니다. '이을 연(連)'자가 아니라 실로 얽어맨 '연'자입니다. 영계와 세상을 실로써 짜 매어서 하나되는 것이 영연세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계와 세상이 연결됨으로써 통일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통일교회, 그 위에 올라가는 것도 통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애인(神愛人)입니다. 참다운 하나님과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참다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계와 세상으로 갈라져 두 패가 되어서 싸우는 것을 꼼짝 못하게 연합체제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하늘 신(神)',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나오고 참사랑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애인인데 그 참사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애인,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2009.12.01, 천정궁) p. 1340

4 영계는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공간세계로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런 세계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몇천년 동안 죽은 사람들도 전부 그냥 그대로 아버님이 명령하면 아들딸의 축복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그래서 영연세협회라고 했습니다. (2009.10.10, 이스트가든) p. 1341

5 하나님이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주인의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한민족이 외적으로 준비해 나왔는데, 통일교회가 종교권을 합해서 영연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축복받은 가정들이 종교를 근간으로 영육계를 통일해서 한국의 전통을 중심삼고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 영연세협회와 지상·천상천국 만왕의 왕이 하나되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영육계의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교본과 교재가 되어 있으니 강력한 체제를 중심삼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 땅이니 평화의 세계만이 남아져서 자손만대로 승리의 패권적인 자리가 계속됩니다. 지상과 천상이 하나되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천사장이 하나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 땅인 동시에 만국의 조국과 고향 땅입니다. 거기에 충효지도를 다하고 가정의 도리를 봉헌해 바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2010.01.19, 천화궁)

6 지금까지 한국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이 타락 이후의 섭리역사 전체를 탕감했습니다. 가인 아벨의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 놓아야 합니다.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이 완전·완결한 것과 같이 참부모가 완전·완결·완성해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 하나님인데,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세계를 이기고 아벨이 희생했던 것을 대신해 가인이 절대 아벨을 모시면서 갈라졌던 참부모와 하나님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가인이 아닙니다.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한 가인의 역사를 씻어 버리고 동생을 타락하기 전 형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형 되는 가인이 동생을 참부모 대신, 참하나님 대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평화를 중심삼은 하나님의 승리적인 패권과 승리한 참부모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 영연세협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긴 아벨이 가인가 하나되어 쫓아 버린 참부모와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님이 동생의 자리에서 모실 수 있는 시대로 급변하는 것입니다. (2010.02.07, 천정궁) p. 1342

참부모님을 중심한 영계 대혁명

참부모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셨으며, 이러한 섭리는 영계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딘다. 지상·천상세계의 완성은 오직 참부모님을 중심삼고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찍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신 참부모님께서는 영계에 가셔서 영계의 정비를 위한 대혁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7 여생이 길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기 전에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의 종착지를 밝혀 줘야 되고, 하늘나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신개척지를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 뜻에 대해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미래에 영계에 가서 대혁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천만년 쌓였던 그 세계를 본연의 형태로 갖추기 위한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 혁명은 하나님도 못하고 천사세계도 못합니다. 성인현철이 가도 꼼짝 못하고 영어의 신세로 살아오던 그 환경을 어떻게 천상천국으로, 평화 복지의 등대와 같은 세계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보다 더 많고 복잡한 혁명적인 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63-047, 2007.05.08)

8 50년 전에 아버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50년 동안에 아버님이 한 일만큼 변화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2세 3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영계의 실상을 알게 되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손을 털고 가더라도 나를 땅에 돌아오라고 말할 수 없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한국이 돌아가고 미국이 돌아가면 아버님 일은 끝나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또다시 제2 혁명을 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 직계 1대조를 중심삼고 만국의 중심 메시아와 같은 입장에서 책임을 할 모든 것, 하나님을 모시고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못했는데 다시 그 이상의 전통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혁명을 해놓고 가야 합니다. 미비한 것을 남겨놓고 저나라에 갈 때 그것이 따라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혁명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갈 길을 서둘러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574-181, 2007.09.03)

9 홍진군을 비롯한 네 아들딸을 영계에 보냈는데, 그들은 지금 아버님이 영계에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자기들이 지상에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버님은 그들이 지상에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버지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바랄 것 같습니까? 아들의 자리는 아들의 자리이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을 바라보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천상세계에서 지상 때문에 하늘부모를 모시지 못했는데 아버지와 자식이 합해서 모실 수 있는 길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해방, 재림주의 해방권이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빨리 영계에 가야 됩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혁명을 할 것입니다. 사탄은 탕감복귀해서 영계에 들어온 가정들 앞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명령일하에 전부 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3-124, 2005.08.03)

10 영계에서는 모두 아버님이 빨리 와서 영인들을 수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영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은 끝났습니다. 영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은 어차피 통과 장치입니다. 내가 영계에 가면 총동원입니다. 지상을 정비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천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상 정비는 다 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천상에서는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정비를 백 퍼센트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상의 완성도, 천상의 완성도 아버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꿈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247-265, 1993.05.09)

11 영계에 가서 할 것이 뭐냐? 타락하기 이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자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늘땅에 통일천주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계에 가서 똑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상에서 틀림없이 하나되어서 참부모와 같이 일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둘을 중심삼고 갈라졌던 부자간이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에서도 갈라질 수 있는 입장에서 하나됨으로써 사탄은 완전히 없어지고 통일적 창조본연의 이상 자리를 가서 때우는 것입니다. 흠은 있지만 맞추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573-035, 2007.08.20)

12 내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나는 내 갈 길을 80퍼센트는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20퍼센트는 안 가르쳐 줘도 내가 개발해 나온, 섭리의 길을 바로잡아 나온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합

니다. 영계에 가면 복잡한 모든 것, 잊어버린 사람들까지 찾아 다시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계에서 원수시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아니고 거짓 부모였다고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한때에 있어서 내가 더 가치 있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신세진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하는 자리의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신세진 것은 몇 백 배 몇 천배 갚아 주려고 합니다. (408-243, 2003.06.09) p. 1344

13 영계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없이 불쌍합니다. 그것을 알고는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첩첩히 가로막힌 그 길을 어떻게 헤치고 가겠습니까? 내가 영계에 가면 영계를 대혁명할 것입니다. 잘라 버릴 것은 잘라내고, 길이 막혔으면 길을 내고 굴도 뚫고 할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내가 오기를 바랍니다. 가게 되면 몇 천년 역사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알고 모른 척한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늘이 보고 있는 그 양, 보는 관이 얼마만큼 높고 귀한가 그 비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천한가 하는 그 차이를 메울 길이 없을 것입니다. (591-326, 2008.06.02)

14 여러분은 영계, 이후에 갈 그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저나라에 가면 혁명을 할 것입니다. 지상에서 지금까지 따라가지 못하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단계, 몇 백 단계를 뛰어 넘어가야 할 그런 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을 지상으로 보낼 것입니다. 지상을 걸쳐 오라는 것입니다. (594-088, 2008.06.24)

15 내가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혁명이 벌어집니다. 혁명이 벌어지면 영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런 바람을 일으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통일교인들 가운데 누가 열심인가 영계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앞장서겠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붙어야 합니다. 국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환경에, 섭리적으로 볼 때 70퍼센트 이상의 자리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족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386-291, 2002.07.18) p. 1344

제12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여성시대 섭리

차례

제1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1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그 배경 ····· 1348
2절 참부모님 말씀과 훈독회 제정 ····· 1355
3절 '가정맹세'제정 ····· 1365

제2장 팔정식과 칠일절 선포
1절 팔정식과 천부주의 선포 ····· 1369
2절 칠일절 선포와 환고향 섭리 ····· 1381

제3장 성약시대 개막과 성약섭리 전개
1절 성약시대 선포와 종족메시아 활동 강화 ····· 1393
2절 주요 선포식과 성약섭리 전개 ····· 1403

제4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참어머님 세계순회
1절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여성시대 선포 ····· 1419
2절 참어머님의 세계순회 ····· 1429
3절 참어머님 책임 완수와 승리 ····· 1438
4절 일본 여성 16만 명 특별수련회와 자매결연 ····· 1442

제12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여성시대 섭리

참부모님께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신 지 40년째가 되는 1994년 5월 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를 선언하셨다. 참부모님은 개인구원시대를 지나 가정을 통한 천국 실현의 때가 됐다고 보시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창립하신 것이다. 그리고 1996년 7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세계대회를 통해 이를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

대를 맞아 모든 가정이 지켜야 할 지침인 '가정맹세'를 제정·선포하셨다. 또한 1997년 10월 13일 훈독회를 제정하시고 말씀을 뜻 새겨 읽고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1945년 공식노정을 출발하신 이후 탕감복귀를 통한 구원섭리를 이끌어 오셨다. 그러나 1989년 애원섭리시대와 팔정식을 선포하심으로써 세계 인류는 탕감이 필요 없는 시대로 진입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로써 장자권을 복귀한 팔정식의 기대 위에 천부주의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1991년 7월 1일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칠일절)을 거행함으로써 한스러운 역사적 탕감노정을 완성하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축복을 선포하셨다. 새천년을 앞두고 1993년 1월 3일 신약시대의 완성과 성약시대의 출발을 선포하셨으며, 성약시대 출발과 함께 환고향을 통한 종족메시아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축복가정이 섭리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시대임을 밝히셨다.

참부모님께서는 1992년 4월 10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여성시대 도래'를 선포하셨다. 이때부터 비로소 공개적으로 전 인류 앞에 등장하신 참어머님께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면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주재하고 여성해방을 선언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1990년 3월 27일 미국에서 거행된 제31회 참부모의 날 기념예배에서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고 참어머니을 제2교주로 발표하셨으며 1999년 6월 14일 세계 80개 도시에서 참가정 세계화전진대회를 끝낸 뒤 참어머님께 표창패를 수여하셨다. 이는 참어머님이 참아버님과 더불어 모든 섭리를 공동으로 이끌어 오면서 복귀섭리를 마무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승리하였음을 공표하신 것이다. (p. 1347)

제1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1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그 배경

창립 배경과 의의

참부모님께서는 199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가정맹세'를 선포하시고, 이어 10월 9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결성한다고 발표하셨다. 1996년 7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대회를 개최하셨다. 그리고 1997년 4월 10일부터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셨다.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가정을 통해 이룩될 수 있음을 천명하신 것이다. (p. 1348)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립은 아담 가정에서 실패한 어머니와 아들딸을

규합해서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의 가정적 시대를 중심삼고 이제 종족적 시대, 친족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시대는 아담 가정을 찾아 나오기 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일원화해서 종친연합을 찾아가는 길이고 종친연합이 연결되어서는 국가연합을 찾아가는 길이고, 국가연합은 세계연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대전환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없어지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84-158, 1997.04.16)

2 지금 시대는 통일교회가 개인을 수습하고 가정·종족·민족·국가를 수습하는 때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수습하면 됩니다. 그것이 유엔국입니다. 통일교회가 유엔기구를 수습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남북통일도 중요하고 아담해와 국가가 하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반대할 수 없는 본연의 아담 가정이 세계적 대표가정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정을 주체로 하여 횡적으로 하나되는 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에 지상에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를 편성함으로써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국가적 기준에서 이루려다가 실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 재림시대에 참부모님이 와서 거짓 부모로부터 확대된 세계를 참부모의 문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탕감조건을 통해 사탄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 반대로 가정을 편성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만 편성하면 종족·민족·국가·세계 편성은 일시에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협회 창립 40주년을 넘겼기 때문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엽합을 창립하는 것입니다. (264-240, 1994.11.03) p. 1349

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없어진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생긴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구원인데 이제는 가정구원으로부터 친족구원과 국가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시대인 성약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차원의 종교입니다. 가정 기반이 전 세계 인류에 연결되어서 자동적으로 종족적 가정교회, 국가적 가정교회, 세계적 가정교회로 커졌습니다. 천국, 이상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종족, 이상국가, 이상세계, 이상천주,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지상과 천상에서 완성을 본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까지 해방된 것입니다. (285-178, 1997.05.01)

4 작은 일로 시작하더라도 하늘적으로 끝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가도 손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평화연합과 세계평화종교연합, 그리고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세웠는데 이 조직들을 편성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아들딸까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모델로 해서 사랑을 중심삼고 전체를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조이상적 정착지, 남자가 정착할 수 있고 여자가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거쳐갈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놓음으로써 모든 투쟁 역사의 원리적 길을 거쳐 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민이 건너야 할 수많은 다리를 앞에 놓고 길을 닦아 나옴으로써 자연히 가정이 행차할 수 있는 목적지로 가서 귀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31-313, 1992. 06.21)

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기독교'를 빼 버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중심삼아야 성약이 성립됩니다. 예수시대에 완성하지 못한 것을 재림주가 이 땅에 와서 틀을 다시 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중심으로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성약시대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독교가 반대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업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84-268, 1997.04.18)

6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몸도 하나님 것이요, 사랑도 하나님 것이요, 소유도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심정권도 앞으로 하늘을 중심삼고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혈통복귀·소유권복귀·심정권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40년 전에 얘기했다가는 '문 총재는 솜털도 뜯지 않고 통째로 삼키겠다고 한다.'는 등의 소문이 나겠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믿을 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정연합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가정의 모든 사람은 가정연합 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맹세문에 걸리지 않도록 자세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

다. 그것은 부모님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각자의 책임입니다. 아담 해와 가정 자체를 수습해서 복귀의 승리권을 이루어 하늘나라의 혈족권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복귀해 나가야 할 원리적인 결론입니다. (264-199, 1994.10.09)

7 가정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모든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평면적으로 보면 사탄 편의 가정과 하늘편의 천사장 가정이 있습니다. 지옥갈 수 있는 천사장 가정과 하늘 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사장 가정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아담 가정으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소망입니다. 또 참혈통을 전수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반을 갖는 것이 타락한 자신들의 최고 희망입니다. 몇 대 만에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의의 터전을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264-204, 1994.10.09)

8 인류는 역사시대를 거쳐 오면서 평화시대를 찾아왔지만 통일을 몰랐습니다. 평화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가정은 세계를 대표하고 하늘땅을 대표합니다. 평화, 수평만 되어서는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90각도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 전체 내용의 복합적인 결론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평화만 해서는 아무 평가가 안 나옵니다.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효자의 길, 충신의 길, 성인의 길, 성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부모가 해방 못 되고, 나라가 해방 못 되고, 세계가 해방 못되고, 하늘땅이 해방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수평이 이루어져야 거기서부터 해방이 벌어집니다. (315-302, 2000.02.06) p. 1351

9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 선진국과 후진국에는 크나큰 국경선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에는 문화의 차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북간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골짜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생겼으니 이쪽 저쪽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하면 이 산이라든가 저 산이라든가 반드시 두 산을 놓고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어떻게 평형선으로 만드느냐? 또 산은 대개 국경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지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 만들려면 먼

저 평화가 이뤄져야 됩니다. 평화는 평평해서 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 남쪽에 사는 사람,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은 물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잘났든 못났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수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세계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세계와 통일의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평화를 바라고 통일을 바랍니다. 세계평화통일을 해서 가야 할 곳은 가정연합, 가정에 정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5-141, 2000.10.03) 참부모경 p. 1351

참가정운동과 가정연합의 활동 방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참된 가정을 기반으로 인류 구원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창조본연의 이상세계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해 축복결혼을 통한 참가정운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셨다. 나아가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세계평화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고 종교 간의 화해와 연합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셨다. (p. 1352)

10 축복을 받으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없어지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할 때에 가정이 사탄 편,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때에 참가정을 중심삼고 직접주관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과 참부모의 가정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일되느냐?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국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참부모와 하나됨으로써 간접주관권에서 직접주관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 노정입니다. 그럼으로써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전까지는 타락한 세계의 혈통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세계의 혈통입니다. 그렇지만 통일교회의 이름을 갖고 축복받게 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이 다릅니다. 심정적 변화, 생활적 변화를 해서 전부 지옥세계를 청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71-015, 1995.07.30)

11 축복결혼식을 36, 72, 124, 430, 777, 1800, 6000, 6500쌍으로 확대해 나왔고, 3만쌍까지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횡적으로 전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3만쌍을 축복한 다음에 36만쌍을 축복하고, 지금은 360만쌍을 넘어서 3억6000만쌍까지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찾아오기 위한 열두 진주문, 열두 고개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오기 위한 열두 고개를 넘어 세계 가정 평준화가 되어서 타락이 없는 자유 축복권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세계 차원의 시대입니다. 세계 가정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정이 전부 평면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계선도 없고 국경도 없고 전부 수평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습관이니 다른 문화니 전통이 없습니다. 사탄의 반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세계적인 가정을 축복해 주면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가정을 수습하는 것은 정치·경제·문화·교육을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우리를 반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초계급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사탄을 제거할 때까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세계 청소년과 가정을 다시 규합해 본연의 세계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287-080, 1997.08.31) p. 1353

12 부모님이 세워 놓은 전체 조직들은 참가정을 중심삼고 가정 축복을 하기 위한 일에 총주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총목표는 가정 축복입니다. 전체의 방향성, 전체 단체들의 하나의 표준은 가정연합 확장운동, 거국적인 확장운동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종족적 기반만 해결하면 거국적 편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상 전통이 무너지더라도 가정만 살면 문제없습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283-313, 1997.04.13)

13 요즘에 지구촌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구 가정시대를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연합이 나온 것과 상대적인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가정연합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대등한 시대에 들어왔으니 시작만 하면 일시에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꿈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망의 세계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중심이 꽉 짜여 있기 때문에 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흥해 가는 세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정적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권을 갖추지 않고는 그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분석해서 미급한 자체는 제거하고 여기에 가국적(家國的) 내용을 갖춰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

정생활의 모토입니다. (275-037, 1995.10.30)

14 여러분 가정은 천지의 왕을 모시는 표준적인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연합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적한 가정은 천지부모가 수고한 창조이상을 그대로 송두리째 이어받아 자기 가정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천세만세 나라와 천주 앞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랑의 샘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말씀, 부모님 생애의 모든 기록을 천리의 근본으로 알고 거기에 부합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상생활, 가정생활에서부터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본원적 사정, 그 모습이 헝클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왕**이 됐기 때문에 가정의 왕을 모시고 종족의 왕으로부터 나라의 왕, 세계의 왕, 천지의 왕의 자리로 왕권을 해방함으로써 그 위에 군림해야만 천지부모의 왕권이 전체 해방되는 것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시대의 해방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간판을 뗀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337-242, 2000.10.27) p. 1354

15 이제는 종교권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해체했습니다. 이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일대일로 정비하여 탕감노정을 간 것입니다. 몇 백배, 몇 천배가 되는 탕감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체인을 붙여서 끊지 못하는 연대관계로 만든 것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351-046, 2001.08.21)

16 종교가 정착하는 곳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가정을 찾기 위해서 종교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축복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종교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없어지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중심삼고 나아가게 됩니다.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가정이 정착하게 되면 종교의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362-156, 2001.12.12)

1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간판을 없애 버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창

립했습니다. 평화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상이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하려면 화합해야 됩니다. 평화는 수평이 되어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파 화합이 아니라 종단 화합입니다. 기독교가 한 패가 아니라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불교와 유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종단 화합, 국가 화합의 기준은 통일교회가 안착을 바라는 가정입니다. 그 세계의 평화통일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교파와 종단의 싸움을 붙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교파와 교파를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되면 세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531-100, 2006.06.30)

1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종친연**합**과 국가연합으로 커 나가야 됩니다. 가정연합과 종친연합만 끝나면 그 안에는 나라도 있고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종친연합이 중요합니다. 이제 종교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니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이상적인 가정이 정착해야 됩니다. (285-010, 1997.04.19) p. 1355

19 아버님은 골짝 길, 험한 길, 어려운 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편히 모실 수 있는 평지와 고속도로를 닦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으로 끝납니다. 참된 가정이 생겨나서 참된 부모가 있고, 참된 부부가 있고, 참된 자녀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영원히 너희와 더불어 이 집에서 살겠다!'고 계약을 해줄 수 있고 어인을 찍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282-085, 1997.03.10)

20 영계와 육계가 지금까지 갈라졌던 것을 메워서 아들딸로부터 3대를 중심삼고 영계와 지상을 동원해 축복 혜택권 내에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계와 육계의 일체권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실체로 세워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가정이 안착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이 안착하면 종교라는 이름 자체도 떼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997년 4월 8일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간판을 떼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름으로 4월 10일부터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 정착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친 내용으로 심정적 일체권을 중심삼고 지상에서 안착하는 가정은 직접 천상으로 갈 수 있습니

다. 타락이 없었던 세계, 해방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통적 인연, 부모님이 이어 준 전통사상을 자기 일족과 후손 앞에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378-229, 2002.05.13) p. 1355

2절 참부모님 말씀과 훈독회 제정

참부모님께서 남기신 말씀

참부모님께서는 일생에 걸쳐 많은 말씀을 남기셨다. 말씀은 인류에게 남기신 소중한 교본이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원의 비밀을 비롯한 위대한 원리가 담겨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1997년 10월 13일 훈독회를 제정하시고 말씀을 읽고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셨다. (p. 1355)

1 아버님이 역사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사정, 가정에 대한 사정, 나라에 대한 사정, 혹은 세계에 대한 사정, 하늘나라에 대한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그 말한 것이 어디에 가서 머무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창조적인 실체를 이루어 놓아야 되는데, 그 말한 것의 실체적 대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은 그 말을 자기 말로서 했느냐, 세계의 말로서 했느냐? 그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세계를 위한 말이 세계적인 실체를 가져야만 세계를 위한 말로서 말한 사람도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말은 반드시 주체적인 근원이 되어서 상대적 실체와 더불어 하나되어야만 말의 목적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 것이 실체로 이뤄져야 됩니다. (301-114, 1999.04.25)

2 아버님 말씀은 혼자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본과 교재에는 개인의 말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계와 공명된 자리에서 하늘이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깨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과 영계가 협조하고 천사세계가 협조합니다. (2010.02.03. 천정궁)

3 해방 후 제일 복잡다단했던 정치·경제·문화의 변화시대에 40년 동안 싸워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 나온 모든 내용이 말씀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래뿐

만 아니라 역사시대의 그 어떠한 문제도 부모님이 거쳐 온 그 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백과사전과 같이 모든 승리의 방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면 사회과학을 공부한 왕자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과학기술로부터 정치·경제·종교·문화 등등 안 한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전부 뜻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치세계, 경제세계, 지식세계 등 모든 것이 장래와 통해야 되고, 세계와 통해야 되고, 하나의 이상세계와 통해야 되고, 권력구조도 거기에 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207-070)

4 참부모를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가 누구입니까? 참부모를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를 모르니까 말씀집을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집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 이상으로,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의 책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다도 거기에는 통일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집이 남아 있게 되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높은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09-169, 1999.05.01) p. 1357

5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50년 전에 한 말씀이나 지금 한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청춘시대부터 노년시대까지 파란만장한 수난길을 거쳐 왔지만 그때의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문제입니다. 문인세계에도 문제가 되고 예술세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아버님은 다각적인 면에서 소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학적인 면에서 장편소설을 매일 한 편씩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시적 감정이 풍부합니다. 또 혁명적인 말을 쓸 줄 압니다. 말씀집을 읽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말이 툭 튀어나와 연결되어 나갑니다. 혁명적입니다. 이론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몇 고개를 뛰어 넘어가서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

다. (325-108, 2000.06.30)

6 50년 전에 말씀한 것이나 지금 말씀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몇 억천만년이 지나도 말씀한 그 내용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은 기준을 중심삼고 말을 해야만 역사적 하나님, 과정적 하나님의 슬픔을 해원할 수 있는 아들의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게 될 때에는 절대 나 혼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다면 본심이 우러나옵니다. 아버님 자신이 옛날에 얘기하던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심정과 그때 영계에서 협조하던 영력이 축소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축소된 그것을 전 세계 가정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영계에 보냄으로써 축소된 심정이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확대 심정권, 핵심권이 연결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개재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훈독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 상태가 결여된 것이요, 병폐가 생기고 타락할 수 있는 근원이 곁다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밥보다도 맛있고 무엇보다도 맛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24시간, 몇 년을 계속해도 이것을 한꺼번에 한술의 밥같이 삼켜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훈독회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323-244, 2000.06.03) p. 1358

7 아버님은 어디에 가서 말씀을 하든지 그 환경에 맞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석에서 영감에 의해서 합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읽어 보면 알 것입니다. 말씀들이 전부 같은 내용 같지만 전후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공부하려면 정성을 들이면서 해 나가야 잘 풀립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대목에서는 이해할 수 없게 비약하고 멈춥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144-289, 1986.04.26)

8 내가 원고를 써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고 없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할 수 있는 원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되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말하다가 틀리면 혀가 안 돌아갑니다.

틀리면 압니다. 거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말씀입니다. 누가 그것을 점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설교하더라도 5분 전까지 제목을 허락지 않습니다.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모릅니다. 사형장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서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천하의 모든 것이 녹아납니다. 그런 역사를 한 원본 기록이 말씀입니다. (316-046, 2000.02.09)

9 아버님 자신이 함부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같은 때에 얘기하게 되면 5분 전까지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책을 보고 참고하거나 역사적인 인물들이 해오던 것을 제목을 가져다가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늘 것으로서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독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일치만 되는 날에는 부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시간과 계절을 극복하고 시대와 세기를 극복해서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활화산과 마찬가지입니다. 화구(火口)만 생기면 불을 뿜어댑니다. (532-016, 2006.07.10) p. 1359

10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동화되어야 합니다. 비장한 말을 들으면 속으로 통곡이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봄이 되면 싹이 다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말씀과 다릅니다. 아버님이 그런 심정적 권내에 있어서 주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무엇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마음이 울려 나옵니다. 마음이 울려 나오면 나 자신이 거기에 점령당합니다. 아버님 자신도 자신이 한 말씀을 훈독하면 수십년이 지났지만 그 경지에 대번에 들어갑니다. 깜깜한 밤중에 아침 햇빛을 바라는 것과 같이 40년 전에 밝은 햇빛을 찾아 나왔지만 이제 정오에 이르러 그림자도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세계를 반드시 하늘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말씀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세계에 뻗치게 되면 세계에는 사탄이 없어집니다. 어두운 세계는 없어집니다. 어두운 세계는 없어집니다. 지상·천상세계가 광명의 세계로서 하나님의 빛을 중심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천지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창조의 조화능력을 지니고 있는 말씀을 발표했다는 것이 위대합니다. (322-012, 2000.05.11)

11 통일교회를 창립한 것이 35세 때입니다. 말씀집이 600권이 넘지만, 통일교회를 세운 그때의 말씀이나 몇 십년을 거치고 난 지금의 말씀이나 전부

하나의 내용이지 그 말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선포한 그 말씀의 내용이 변하는 세상의 곡절 가운데 정면충돌을 하고자 했지 도망가거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유명해졌습니다. (503-035, 2005.08.01)

12 여러분이 말씀집을 읽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도 아버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내가 해온 것,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조사해 본 내용이 말씀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지 않으면 내가 걸어온 탕감복귀 노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목사가 읽는다면 입을 열어서 아버님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960년대에 그런 말씀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반대합니다. 아버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죄를 짓는 것은 2천년 역사의 승리권을 형성한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일입니다. (190-231, 1989.06.19) p. 1360

절대시해야 할 훈독회 전통

훈독회는 절대시해야 할 생활전통 중 하나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읽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다짐과 동기 부여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참부모님께서 제시하신 가정교회는 훈독회가 중심이 되므로 훈독회를 통해 말씀을 절대시하고 생활화하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13 영계나 육계나 모든 가정이 축복을 받은 그때가 되면 만국은 참부모님의 말씀 훈독회를 통해서 하나의 지상·천상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이 제일 세우고 싶은 말씀이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나라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교육하고 싶은 말씀이 참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독회를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아버님이 좋아하는 훈독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독회 챔피언 중의 챔피언이요, 장자 왕 중의 장자 왕이요, 가정 왕 중의 왕이요, 나라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아버님은 하나님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세계에서 훈독회 장자권·부모권·왕권까지 하나님 대신 갖추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아버님을 대신해서 가정의 장자권·부모권·왕권을 계승할 수 있고, 평면적을 대등하고 공평한 지상천국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303-122, 1999.08.08)

14 통일교회에서 훈독회를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이 아버님이고 다음이 어머니입니다. 아버님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과 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주체 앞에 완전한 대상을 만들어 주고, 부모님이 했던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훈독회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훈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들과 같이 훈독회를 하고 형제들과 같이 훈독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295-269, 1998.09.08)

15 아버님이 말씀을 중심삼고 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서 검사 논고를 통한 그 논고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입장에서 내가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실천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내용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6천년을 총결산하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훈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아버님이 그런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니만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하나되어 넘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차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지상에 대해서는 내가 다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전부 행하고 한 것입니다. 실천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언제나 심판하는 것입니다. 영계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314-034, 1999.12.30) p. 1361

16 요즘에 내가 말씀을 훈독하면서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때보다도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한 내용을 다 아는데도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코를 막고 눈물을 참으려고 하면 눈이 울고, 눈을 막게 되면 마음이 울고, 마음을 막게 되면 온 몸이 다 웁니다. 입을 막게 되면 마음에 피가 흐르고, 마음을 막게 되면 사지가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울고불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웃는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장한 고개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310-056, 1999.06.06)

17 내가 한 말씀을 내가 압니다. 얼마나 심각한 역사를 거쳐 왔는지 모릅니다. 피가 끓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할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환경인데, 어느 누가 그 말씀

앞에 와서 감동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311-097, 1999.08.19)

18 통일교회 교인들은 훈독회 시간이 그리워야 됩니다. 아버님 자신이 그러고 있습니다. 훈독회 시간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얘기한 것인데, 다 아는 것인데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천년만년 생명의 요소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밤을 새워야 됩니다. 일생 동안 붙들고 읽더라도 맛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놓을 수 없어서 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314-023, 1999.12.30)

19 영계와 육계를 통일한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훈독회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영계나 육계나 매일같이 훈독회 말씀을 중심삼고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훈독회는 매일 해야 됩니다. 하늘땅이 그것을 중심삼고 전부가 말씀의 상대, 말씀의 실체권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충고해야 되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충고해야 됩니다. 상과 하가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 형제니까 형제권에서 충고할 수 있는 때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한 사람이 나와서 통일시키기 위해 훈독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50년 전에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매일같이 평준화 교육입니다. 말씀을 중심삼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해서 영계를 보고 조상들을 만나서 영계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문의해야 직접적으로 영계나 육계가 연결되지 자기 생각이 접해 들어가면 통하지 않습니다. (314-046, 1999.12.30) p. 1362

20 여러분은 일생을 살 때 심정적으로 어떤 가보를 남기려고 합니까? 가보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보를 영계에 남겨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생애가 아닙니다. 고달프고 기가 찹니다. 아버님이 영계에 가고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만나 정서적인 면이 격동하고 어루러져서 주체적인 입장과 상대적인 입장이 잘 되어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말씀을 실체로 이루어 놓아야 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게 되면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독회를 세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훈독회를 강조하느냐? 말씀의 참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님을 대할 때보다 더 느껴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한두 시간이지만 이 말씀은 영

원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느껴야만 앞으로 통일교회가 천하를 순식간에 물들여 버릴 수 있습니다. (318-114, 2000.03.04)

21 아버님이 훈독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몇 사람을 놓고도 말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몇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놓고 거창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애달픈 심정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훈독회를 하면 그 심정의 세계를 통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자기도 모르게 목이 메는 것입니다. 훈독회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전기로 말하면 축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사람의 말이나 그렇게 안 됩니다. 아버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지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세상에 없는 말씀이요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계는 그 말씀을 중심삼고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실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후대의 자손들 앞에 남겨야 할 유언입니다. (301-087, 1999.04.16) p. 1363

22 여러분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훈독회가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착지를 해야 됩니다. 영계는 벌써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계는 일주일 이내에 모든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바쁜 일인지 모릅니다. 훈독회를 통해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훈독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에 있는 자기 조상을 해방하고 앞으로의 자기 후손을 해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과거·현재·미래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2세들을 중심삼고 3대가 됩니다. 3대를 중심삼고 지상에 다리를 놓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91-239, 1998.03.15)

23 훈독회를 왜 합니까? 훈독회를 하는 것은 말씀을 하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생사지경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지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정성들여서 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심정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회상할 수 있는 말로서 듣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던 심정을 회상하기 때문에 한마디, 어디 토가 틀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못 이루어졌느냐? 나 자신이 못 이루었으면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고서 연장해서라도 죽기 전에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됩니다. 말씀만 남기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이상의 실체를 남겨야 합니다. (324-027, 2000.06.04)

24 훈독회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심정세계를 여러분의 가정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훈독회는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정적 훈독회, 교회적 훈독회, 사회적 훈독회, 국가적 훈독회, 세계적 훈독회가 펼쳐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싸워 나오던 과정에서 영계가 협조했는데, 여러분은 조건만 세우더라도 영계의 협조를 받고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훈독회는 절대 필요합니다. (292-216, 1998.04.17) p. 1364

25 훈독회는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은 최고의 생사지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천하가 터져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심정이 우러나오고 영계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전부 살아 있습니다. 시간권을 초월한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이자 오늘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훈독회에서 아버님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버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경지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296-331, 1998.11.18)

26 아침에 태양이 뜨면 변화무쌍하더라도 언제나 그 빛이고, 그 세계이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태양 빛의 혜택을 받는 것에 영원히 감사해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훈독회를 중심삼고 하늘이 살아있고 영원한 세계의 인연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할 수 있는 감동적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맺느냐 하면 생사지권에서 맺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나의 일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심각한 자리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296-332, 1998.11.18)

27 훈독회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밥먹는 것보다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독회에 재미, 취미를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할 때 몇 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부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160가정, 180가정들을 축복해서 하나의 종족이 입적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의 자세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지금 사는 것보다 현실적이

어야 됩니다. 밥 먹는 것은 잊어버려도 훈독회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에도 하고 저녁때에도 해야 됩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도 시간이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하루에 네 번은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때 밥 먹고 하고, 저녁 밥 먹고 하고, 자기 전에 또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령이 자랍니다. 안 하면 깜깜하고 비 오는 날 같고 안개 낀 것같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훈독회 시간을 더더욱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완성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95-274, 1998.09.08)

28 훈독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먼저 훈독한 사람들은 세계 훈독역사 창건시대에 대표적인 하나의 지역이면 지역, 나라면 나라의 중심 지표, 중심 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 본부에 와서 교육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을 다 팔고 땅을 다 팔아 버려서 피란민같이 떠돌아 다니더라도 여러분은 세계의 주도적인 훈독회의 조상 자리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화가 가능합니다. 축복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짝 골짝마다 통·반과 같은 조직을 해서 그것을 책임진 사람들이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서가 영계의 한 부서처럼 되어서 영계와 차이가 없는 일체적 비준에 맞게끔 교육해야 됩니다. (296-221, 1998.11.10)

29 훈독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 행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훈독회를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입을 함부로 벌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안 할 수 없습니다. 면까지, 통·반까지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입니다. 세계의 나라들이 한국을 신앙의 조국으로 삼고 있는데, 그 조국 강토에 있는 본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훈독회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국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290-160, 1998.02.18) p. 1365

3절 '가정맹세' 제정

‘가정맹세’ 제정 의의

참부모님께서는 199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명칭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면서 축복가정이 지켜야 할 천일국 지침인 가정맹세를 제정·선포하셨다. 가정맹세는 당초 7절로 되어 있었지만 1998년 2월 3일에 8절이 추가되었다. 이제는 개인시대가 아니라 가정시대이기 때문에 가정맹세는 개인적 맹세와는 다르다면 천일국시대 가정의 사명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다. (p. 1365)

1 가정맹세가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누구 앞에 맹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늘부모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원한을 가졌던 땅 위의 부모를 해방 성사해서 종적인 하나님과 횡적인 참부모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만민의 모든 가정**들** 앞에 본받으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가정맹세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어 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되어서 가정맹세를 해야 됩니다. 아들딸이 하나되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 안 되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308-022, 1998.11.21) p. 1366

2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해 온 것이 아니라 가정을 찾기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가정이 만세계, 만국의 조직 편성 단위입니다. 그 단위가 없어서는 공식을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위주로 해 나왔지 국가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원리 가운데는 싸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8개 항의 가정맹세가 있지만 싸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전의 ‘나의 맹세’에는 싸우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 ‘가정맹세’에는 싸움의 개념이 없습니다. (434-040, 2004.01.28)

3 가정맹세문은 개인적 맹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맹세는 개인맹세가 아니고 가정맹세입니다. 가정이 공식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대표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전체 가정을 대표해서, 어머니도 전체 가정을 대표해서, 아들딸도 전체 가정을 대표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하고, 둘째는 부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해와를 중심삼고 개인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맹세는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67-147, 1995.01.04)

4 가정맹세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완성한 가정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지 못한 사람은 가정맹세를 외울 수 없습니다. 타락 때문에 몸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거짓 부모,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청산해야 됩니다.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 셋이 몸 마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셋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참사랑을 중심삼고 몸 마음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개인에 대한 목표이고 복귀의 목적, 섭리의 목적입니다. (267-146, 1995.01.04)

5 이제부터 가정을 중심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이나 자유나 평화나 하늘땅의 전부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가정을 중심한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가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만 하나 만들면 세계통일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260-152, 1994.05.02) p. 1367

6 가정맹세를 사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빛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역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맹세는 안 없어집니다. 타락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타락하고 핏줄이 달라졌으니 근원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정맹세를 만들 때 참부모, 하나님의 실체대상이라는 입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정맹세는 참부모가 책임을 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567-164, 2007.06.30)

'가정맹세'는 천국의 절대적 규약

참부모님께서는 한평생 남기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을 뽑아 가정맹세에 담아 온 인류에게 지침으로 남기셨다. 가정맹세는 천일국 주인으로서 인간이 창조본연의 세계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창건과 심정문화 세계 완성, 하나님과 일체이상 실현 등을 다짐하는 절대 규약이며 가정의 절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다.

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40년을 넘어서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바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 규약, 헌법과 같은 가정맹세를 제정했습니다. 가정맹세라는 말은 역사에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고 천국을 완성

하는 가정맹세입니다. 이것을 보면 탕감복귀 내용을 중심삼고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는 사람은 타락세계의 가정권 내가 아니라 완성한 가정권 내에 들어갑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가정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짓 사랑으로 분립된 심신의 통일이 벌어집니다. (264-245, 1994.11.03)

8 창조원리를 보면 원리경과주관군과 직접주관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절대 창조원리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위배해 타락한 아담 해와를 지옥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통일교회 교인에게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시대입니다. 가정맹세는 하늘땅의 헌법입니다. 여러분이 맹세문의 하나만 완성하더라도 천국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모르니까 소경이 팔양경 외우듯이 그대로 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세를 했으면 맹세한 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껍데기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양인데 속이 없는 사람이 됐으니 속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이상적 직접주관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맹세문은 법을 세우고 정리하기 위한 표제들입니다. (388-076, 2002.07.30) p. 1368

9 가정맹세문은 아버님이 이루어서 만든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깨끗한 가정맹세를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헌법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버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490-242, 2005.03.14)

10 가정맹세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부해 보면 엄청난 사실, 개인적으로 짐작도 못할 사연들이 엮어져 있습니다. 가정의 기반이라는 요소를 씨로 심게 될 때 그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없어집니다. 가정맹세는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지켜 가야 할 저울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저울대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위해서 보다 정성들이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564-207, 2007.06.02)

11 여러분은 가정맹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맹세는 어느 것 하나 뺄 것이 없습니다. 8절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대 절대조건 위에 성의 완성이 벌어져야 됩니다. 참부

모시대에 와서 성의 완성을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16세에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성은 없어졌습니다. 《평화신경》은 하늘나라의 가정과 하늘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헌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맹세는 《평화신경》의 골자입니다. 천상세계나 지상세계에서 완성한 사람들의 가정맹세입니다. (599-317, 2008.10.24)

12 여러분이 외우는 가정맹세문은 여러분을 위한 맹세문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을 대표하고, 현재의 종씨를 대표하고, 미래의 후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상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전통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들 앞에서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가정맹세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래 한 가정'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뿌리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성 위에서 가정맹세를 외워야 됩니다. 총의에 대한 결론이 가정맹세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정맹세를 외울 때 조상과 종씨, 후손과 더불어 외우는 것입니다. 절대 성 위에서 가정맹세를 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602-086, 2008.11.13) p. 1368

제2장 팔정식과 칠일절 선포

1절 팔정식과 천부주의 선포

팔정식 선포와 그 배경

참부모님께서는 1989년 8월 20일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 노스가든에서 댄버리 출감 4주년을 기념하여 애원섭리시대(愛援攝理時代)를 선포하셨다. 이날 '구원섭리의 완결과 애원섭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는 탕감복귀 구원섭리시대였지만 앞으로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지며 사랑으로 섭리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밝히셨다. 또한 1989년 8월 31일 팔정식(八定式)을 선포하심으로써 탕감이 필요 없는 시대를 여셨다. 팔정식의 8단계는 종적으로는 종의 종·종·양자·서자·직계자녀·부부·부모·하나님, 횡적으로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의 8단계이다. 팔정식은 참부모님께서 이 종적 8단계와 횡적 8단계 탕감복귀노정에서 승리적인 기대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p. 1369)

1 애원섭리시대를 선포한 날이 1989년 8월 20일입니다. 애원섭리란 피흘려 탕감역사를 하는 구원섭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타나고 사랑의 시대

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원(愛援), 사랑을 중심삼은 구원섭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8월 31일 팔정식을 선포했습니다. 종적 탕감, 횡적 탕감을 전부 청산지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제일 높은 지역에 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9월 초하룻날 천부주의시대를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는 1990년 2월 27일에 천지부모를 선포했습니다. 천지부모나 왕권 설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왕권 설정을 발표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땅의 왕권이 착지됨으로써 참부모가 행세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204-281, 1990.07.11) p. 1369

2 애원섭리시대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2003년 7월 13일에 탕감시대 철폐를 선언해서 애원섭리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이상 주관권 대전환 시기에 타락한 것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엔 갱신만 끝나면 구원섭리는 다 마무리됩니다. 종교와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의 싸움, 나라의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이 결합함으로써 참혈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자관계에서 이뤄지니까 한 가정제도입니다. 세계 만민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가정에서 찾는 것입니다. 멀리멀리 있는 세계 만민이 몇 천년 전에 제일 가까웠던 형제였는데 그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멀리 갔으니까 몇 천년 거리가 생겨서 제일 가까운 형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가 합해야 되고 남북이 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시대라는 것입니다. (414-220, 2003.08.02) p. 1370

3 하늘의 섭리시대는 부모의 시대, 사랑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정착입니다. 이제 종교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받고

따라가면 박사가 되는 것과 같이 원리의 길을 그냥 밟아서 열심히 가면 천상인격 완성, 지상인격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원섭리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리로 볼 때 원리결과주관권을 넘고 직접주관권 내의 하나님 사랑과 일체가 된 기준에 들어가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연결되어 부모권 복귀시대가 되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6천년에 걸친 섭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아버님마저 희생해서 결국 타락한 아담 가정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사람이 복귀된 소생 아담이 되고, 여러분 종족은 장성 아담이 되고, 아버님은 나라를 중심삼고 완성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세계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상속권을 물려받는 위대한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세계는 손댈 수 없습니다. (193-100, 1989.08.31)

4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특권을 내려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낳은 부모보다 더 높은 메시아 자리에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서 예수님 대신 여러분의 부모를 아담 해와 대신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가 복귀된 자기 한 가정의 바른 부모로 섬에 따라서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 메시아의 친권을 상속하게 됩니다. 원리에 입각해서 말하면 원리결과주관권에서는 장자권복귀에 의해서 책임분담을 완성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사탄을 이겨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이제 그대는 하늘의 자녀이니 나는 천사장으로서 그대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기대를 복귀한 터 위에서 원리결과주관권을 직접 주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자권복귀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태어난 아이나 다음에 태어난 아이나 아담 해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중심한 자녀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족, 혈족을 연결

하는 섭리시대로 돌아왔으니까 애원섭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091, 1997.08.31) p. 1371

5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번 부모로서 오시어 세계를 구원하려 했으나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셋째 번 부모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부모가 와서 40년간 재차 탕감복귀를 하여 승리의 기반을 세움으로써 장자권을 복귀하고, 예수님이 실패한 모든 것을 복귀하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의해서 아담 가정이 복귀되고, 예수님 가정이 복귀되고, 각 나라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복귀되면 세계적 중심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주, 즉 참부모를 중심삼고 세계적 부모, 국가적 부모, 종족적 부모, 가정적 부모가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국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국가를 보려고 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인 축복가정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가정적 입장에서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세계는 내외, 즉 가인 아벨 문제로 분열되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3-087, 1989.08.31)

6 아버님 자신이 종의 종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일본에서 폐품 수집을 하는 등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3년 이상 생일에 금식을 하고, 설교를 할 때에도 누더기를 걸치고 하곤 하였습니다. 복귀입니다. 종의 종으로서도 세계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의 종으로서도 세계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의 종의 자리에서부터 종의 자리, 그다음에는 양자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양자는 혈통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담이 전통을 세워야 할 그 책임분담을 완성해야 됩니다. 전통을 세우는 데는 실패한 아담의 책

임이 있으니까 괴로운 일도 참고 넘어서 책임분담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의 기반을 완전히 자녀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해와를 통하여 천주복귀를 위한 장자권을 세우고, 그 장자복귀의 책임을 부여받은 해와는 장자 차자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3-093, 1989.08.31) p. 1372

7 재림주님은 종적인 기준을 전부 갖추어서 평준화 기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탕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복귀·가정복귀·종족복귀·민족복귀·국가복귀·세계복귀·천주복귀·하나님복귀까지 8단계를 접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권 내에서 반대가 없도록 기독교문화권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기독교문화권의 목적은 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횡으로 탕감복귀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판도에서 종횡으로 탕감한 기준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과 기독교가 아버님을 받들지 못함으로써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편의 가인·아벨·해와 국가, 사탄 편의 가인·아벨·해와 국가와 한국까지 7개국이 원수가 됐습니다. 사탄은 이 7개국을 몰아서 아버님을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기준을 넘어설 때까지 축복 판도를 중심삼고 777가정까지 축복가정 부인 3년 전도 출동 명령을 해서 이 기준의 판도를 닦은 후에 아버님이 미국에 간 것입니다. 이래서 세계적 판도를 수습할 때까지 재차 8단계를 탕감한 것입니다. (199-157, 1990.02.16)

8 우리는 종의 종으로부터 종·양자·서자·직계자녀·부부·부모를 거쳐서 하나님까지 8단계를 거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적 8단계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 8단계를 거쳐 가야 합니다. 이것을 묶어서 정착했다고 선포한 것이 팔정식입니다. 이것을 1989년 8월 31일 알래스카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앞에 탕감이 필요 없는 시대로 넘

어갑니다. 그 말은 아버님이 가는 데나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는 데에는 핍박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끼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가 참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지로서 정착하는 식이 팔정식입니다. 이 팔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1989년 9월 1일 천부주의를 선포했습니다. 팔정식이 끝날 때까지는 장자복귀시대인데, 완전히 장자권이 하늘 편으로 복귀됩으로써 사탄이 반대할 수 없는 세계적 정상권에 서는 것입니다. (193-207, 1989.10.04)

9 하나님 세계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팔정식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종의 종으로부터 종·양자·서자·직계자녀·부부·부모를 거쳐 하나님까지 8단계를 거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자를 찾아 나오는 논리입니다. 신랑 된 주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 승리적인 여자를 찾아 나와야 됩니다. 아벨이 아담 대신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몇 천년에 걸쳐서 아담이상이 완성되고 신랑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신부권이 세계 통일권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기반을 갖지 않고는 승리적인 신랑으로 지상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나라권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세계권의 사탄이 달라붙어서 때려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준비하면서 신부권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나 짓는 것은 간단하지만 아담의 재창조는 역사적으로 볼 때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242-243, 1993.01.02) p. 1373

10 팔정식! 하나님의 섭리에서 8수가 정착을 못했습니다. 8수는 하늘에서도 동그라미, 땅에서도 동그라미입니다. 세계통일국개천일을 선포한 다음 첫해인 1989년 8월이 중요합니다. 이해 8월 말에 천주사적인 정착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섭리시대는 장자권복귀와 더불어 부모권복귀가 이루어지고 부모권을 복귀함으로써 왕권복귀가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시대는 지나가고 사

랑의 세계가 옵니다. 민주주의로 하나님과 참부모를 살 수 있습니까? 선거로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랑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팔정식이 지상에도, 천상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통일교회 전 식구를 대표하고 인류전체를 대표하고 각 국가의 대표, 천사세계 모든 것의 대표가 된 입장에서 아버님이 기도해서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193-110, 1997.08.31)

11 북극성과 가깝고 제일 높은 자리인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팔정식을 거행했습니다. 종횡으로 막힌 하늘나라와 지상지옥의 막힌 모든 담을 헐고 인간세계의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막힌 담을 다 헐어 치우는 것입니다. 이 담에 막혀 있는 한 사탄이 우거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영계로부터 지상세계에 사탄이 우거하는 것을 볼 때 '네가 나를 세계적으로 반대했다. 너보다 인류를 내가 사랑했고 너보다 인류에게 바른 하나님의 천도를 가르쳐 줬지만 너는 인류에게 패망의 도리를 가르쳐 줬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의 주도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불한당 같은 불효자식을 의인의 길로 돌이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악마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93-299, 1989.10.08) p. 1374

12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축복 전에 나라와 세계를 바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귀노정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일교회 축복은 교회 내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나라와 세계의 축복을 하게 될 때에는 본연의 기준으로 돌려 하나의 나라가 아니 되려야 아니 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천부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결혼식을 함으로써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부주의의 내용입니다. 한국동란 때문에 세계가 양극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대회를 중심삼고 하나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 때에도 갈라져 양극이 되어 있었던 것이 서울 올림픽대회를 중심삼고 하나된 것입니다. 그때 축하공연에 리틀엔젤스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2천대의 자동차를 기부할 텐데 가져가라. 가져가는 데는 한국에서 북한을 통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면과 정신면에서 통일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젊은 사람들, 가인적 젊은 사람들과 통일교회 젊은 선교사들이 올림픽대회에서 하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사관도 없는 나라들도 통일교회 교인들이 그 나라 깃발을 들고 응원했습니다. 하나되어서 응원한 것입니다. 그런 조건적인 기반 위에서 1989년 8월 31일에 팔정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세계 젊은이들의 이상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 이런 날을 설정한 것입니다. (287-125, 1997.09.19)

13 8월 31일은 팔정식 선포 기념일입니다. 팔정식 선포일은 8월 마지막 날인데 귀중한 날입니다. 개인시대·가정시대·종족시대·민족시대·국가시대·세계시대·천주시대·하나님까지 8단계와 혈통적 복귀의 기준에서 종의 종의 시대로부터 올라갑니다. 참부모가 나옴으로써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되어 세계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식이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것을 코디악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코디악이 출발의 기준입니다. 코디악은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한 경계선입니다. 바다의 섬나라입니다. 바다에서 시작해서 반도를 통하여 육지로 상륙해서 비로소 세계적인 출발을 한 것입니다. 종의 종에서부터 종·양자·서자·직계자녀·부부·부모·하나님까지 8단계를 중심삼고 그것이 안팎으로 탕감되어 종횡으로 접촉됨으로써 천부주의가 9월 1일에 선포된 것입니다. (596-242,

2008.08.31) p. 1375

14 천부주의는 하나님과 참부모의 주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늘과 땅이 하나되어서 이 우주가 가정으로부터 세계로 출발하는 새로운 기원의 날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팔정식은 참부모가 종적인 모든 한의 길, 횡적인 모든 한의 길을 거쳐 감으로써 선포됐습니다. 하늘이 종적으로도 올 수 없고 횡적으로도 올 수 없었는데 참부모에 의하여 횡적 종적으로 연결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중심삼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팔정식이 있지 않고는 천부주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확대는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하는 것입니다. 3만쌍으로부터 36만쌍, 360만쌍을 중심삼고 가정적 세계 판도가 됨으로써 참부모의 가정이 가는 데 있어서 종횡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거할 수 있는 시대권을 맞이했기 때문에 천지부모천주안식권을 선포했습니다. 3만쌍 36만쌍 360만쌍, 소생 장성 완성이 됨으로써 세계의 통일가정들이 움직이는 데에 장애물 없이 환영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가서라도 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287-108, 1997.09.19)

15 팔정식이 끝남으로써 천부주의, 부모권 해원성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오게 됨으로써 부모님이 부모의 자리에서 종족적인 메시아 예수님의 자리를 해원성사하고 아담 가정을 해원성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족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의 실수의 기반을 전부 해소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사람의 고향이 하늘나라의 고향 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 형태를 중심삼고 부모님과 연결돼 부모님께에 치리받을 수 있는 고향 땅이 되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지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3대가 되어야 하늘 앞에 조건으로 성립됩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입니다. 이것이 복귀역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해방, 부모님 해방, 자기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193-213, 1989.08.31) p. 1376

천부주의와 장자권·부모권·왕권복귀

참부모님께서는 팔정식을 선포한 기대 위에 1989년 9월 1일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 노스가든에서 천부주의(天父主義)를 선포하셨다. 이로써 타락인간이 참부모를 맞이하게 되었고 참부모도 역시 가인과 아벨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 하늘부모주의, 천부주의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장자권·부모권·왕권이 복귀됨으로써 사탄이 반대할 수 없는 세계적 정상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밀면 공산세계까지도 밀릴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16 천부주의는 무엇을 중심삼고 이루느냐? 가정을 중심삼고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 가정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정, 타락하지 않은 종족 가정, 타락하지 않은 민족 가정, 국가 가정, 세계 가정 등으로 계대를 이어서 나와야 합니다. 한 선조로부터 장손을 통해 내려와서 지금까지 확대돼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된 기준을 이루어 영계에 가게 되면 세계적 맨 종손이 되는 이가 왕이 아니고 복귀된 아담이 왕입니다. 그래서 아담왕권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고 몇 천 년 몇 만년 장손을 통해 내려와 현대의 통일된 세계 왕권이 성립되어야 했습니다. (194-114, 1989.10.08)

17 종적 횡적 8단계를 올라가야 합니다. 팔정식이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부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천부주의는 가정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는 가정주의인데,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민족·참국가·참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세계적 피박을 받았습니다. 사탄세계는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 하나님가 참부모, 남자와 여자, 자녀가 다 올라갔습니다. (287-146, 1997.09.14)

18 사탄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부모들이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과 같은 자리에 세워 줌으로써 어머니 아버지가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가치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아담 해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들딸이 사는 고향 땅까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해서 가정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이 땅 위에 와서 40년 동안 한 것이 뭐냐? 하나의 메시아권을 중심삼은 개인적인 판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판도권을 중심삼고 수만 쌍의 축복가정을 사탄세계에 배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해서 수만 쌍을 가정적 메시아권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전도시대는 지나갑니다. 가정 전도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렸던 개인의 몸 마음을 중심삼고 나를 찾아야 됩니다. 주체와 대상을 중심삼고 대응적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주체 대상입니다. 여자는 주체인 남자 앞에 절대 대상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되어서 참사랑을 남편으로부터 전수받는 것입니다. 참된 완성의 자격을 가지려면 참사랑으로 남자 여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결혼함으로써 동서가 합해 수평을 이루게 되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부모·부부·형제·자녀 4대 심정권의 통일권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는 장자권, 형제를 찾아 나오는 싸움입니다. 이후에 남아지는 시대는 부모주의시대입니다. (245-154, 1993.02.28) p. 1377

19 장자권을 복귀하고 팔정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천부주의시대입니다. 부모주의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분수령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권은 탕감조건을 중심삼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권이 횡적 기준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생 아담, 장성 아담, 완성 아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로 보게 되면 소생 아담은 타락한 아담, 장성 아담은 예수님, 완성 아담은 재림주입니다. 구약시대는 물질을 중심삼은 제사입니다. 신약시대는 아들이 희생되는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하늘땅의 부모를 복귀하기 위해서 재림주 입장인 부모님이 이땅 위에 와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지상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만물을 희생시켜서 아들을 모시기 위한 시대였고, 신약시대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부모를 모시기 위한 시대였습니다. 해방 직후에 부모가 와서 통일천하가 된 그 기반 위에서 모두 하나되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차 탕감복귀해서 부모가 고생하여 하나님을 지상에 다시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199-097,

1990.02.15)

20 민주주의를 가지고는 세계를 수**습**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르냐? 공산주의는 사탄적 공산주의요 미국 민주주의는 천사장적 민주주의인데 부모가 없습니다. 인류역사는 출발할 때 형제가 피 흘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세계도 피 흘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씨를 심었기 때문에 수확할 때가 오면 양쪽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공산세계를 봐도, 민주세계를 봐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세계가 못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미국 지도층 인사들도 쳐다보고만 있지 못을 못 댑니다. 어느 누구도 망해 가는 미국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누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모주의, 천부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205-176, 1990.09.01)

21 천부주의로 말미암아 두익사상을 중심삼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연합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왕권복귀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 기반이 없어서는 활동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똑바르게 되고 본연의 기준 앞에 거울같이 될 때에 종적인 하나님은 거기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반을 따라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횡적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원리결과주관권 내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완성의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3-217, 1989.10.04)

22 8단계의 종적인 탕감과 횡적인 탕감이 끝났기 때문에 1989년 8월 31일에 팔정식을 알래스카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하루에는 천부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애원주의인 동시에 부모주의입니다. 부모주의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사탄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착지가 없습니다. 정착은 가나안 복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가나안 7족이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1989년부터 우리가 잔치를 했습니다. 울면서 고향문전에서 쫓겨났던 그 길을 금의환향하는 입장에서 환희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한 일족을 중심으로 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기반을 전부 닦고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해서 일족을 전부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199-158, 1990.02.16)

23 참부모님과 심정권이 하나되지 않고는 장자권복귀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장자권이 복귀된 자리라 하더라도 참부모님과 심정이 일치되지 않고는 종족적 메시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부모님과 심정권이 일치되면 타락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종적으로 개재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권에 일치될 수 있는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연결되는 사랑은 수직밖에 없습니다. 수직 앞에 제일 직단거리는 횡적인 면에 접하는 90각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합덕할 수 있는 심정적 결합점이 어디냐? 그곳은 90도 중앙선 이 한 곳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종회, 전후, 형제 사랑을 중심삼고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7수라는 것은 사랑의 핵을 총합한 자리를 말하고 사랑의 완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완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215-128, 1991.02.06) p. 1379

24 아버님이 형제권을 복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기독교를 중심삼고 형제권을 복귀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4천년의 역사를 복귀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장자권을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있고 전 세계에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삼고 형제권을 복귀함과 동시에 소련까지도 복귀해야 됩니다. (205-183, 1990.09.01)

25 천부주의를 통해서 부모주의를 복귀했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전부 아담해와의 자리에 세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에 세워 주고 아버님은 재림주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부모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향이 하늘나라의 고향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 그렇게 되어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의 3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205-192, 1990.09.01)

26 여러분의 형제를 복귀하고 부모를 복귀해서 가정의 왕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대우주의 왕권도 여러분과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됨으로써 작은 승리의 터전이 큰 승리로 연결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이 여러분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하나되면 여러분도 아버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종족적인 왕권을 갖게 됩니다. 아버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그래 놓아야 여러분의 고향 땅이 천국이 됩니다.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탄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천부주의입니다.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하나님주의, 천부주의와 참사랑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왕권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소화하는 쪽이 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주의라는 것은 지팡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왕권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러면 복귀역사는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205-193, 1990.09.01) p. 1380

27 형제권복귀가 끝나고 부모권복귀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는 왕권복귀입니다. 부모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림주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종족적 메시아를 보내서 전부 수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적으로 아담시대·예수님시대·재림주시대의 세 기준을 전부 닦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전부 승리해서 닦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재림주시대에 여기에서 뻗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게 되면 원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차 아담이 온 것은 2차 아담과 1차 아담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담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종교가 필요 없게 되고 세계가 선민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전체가 한 부모를 통해서 연결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땅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가 참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201-130, 1990.03.27)

28 가정이 하늘 편에 서면 어차피 부모님을 중심삼고 세계적 판도가 연결됩니다. 원래의 고향은 아버님이 태어난 곳이지만 모든 종족의 고향이 정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하늘을 중심삼은 부모가 태어나니 이곳이 에덴동산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동산을 중심삼고 태어난 여러분의 선의 후손은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님 일족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전부 연결되어서 묶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적인 것을 자기 일족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성립됨으로써 이제는 왕권복귀가 가능한 것입니다. (201-131, 1990.03.27) p. 1380

29 통일교회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참된 사람, 참된 부부, 참된 가정, 참된 종족, 참된 민족, 참된 국가, 참된 세계, 참된 새로운 천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원이 되어 개인 구원만 완성한다고 해서 이 천주가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 구원을 완성함으로써 세계가 해방되고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반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운데는 세계가 들어가 있고 천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천국은 이상적인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상적인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를 거쳐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 땅 위에 재현하여 세계적인 섭리의 중심을 결정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해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5-167, 1990.09.01) p. 1381

30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는 모든 것의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최고는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의 대표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대상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플러스로서 주체요, 우리는 마이너스로서 대상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기준은 그와 같은 창조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대한 선물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두 부부가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종족의 대표가 되어야 하고 민족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자권복귀·부모권복귀·천주권복귀·왕권복귀라는 말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개인관이 아닙니다. 섭리 전체가 세계적이요 역사적입니다. 부모주의에서 천부주의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천국 왕권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버님은 대표적으로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섭리적 조건을 세워 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할 길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205-169, 1990.09.01) p. 1381

2절 칠일절 선포와 환고향 섭리

칠일절 선포 배경과 그 의의

참부모님께서는 1991년 7월 1일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을 거행하시고 이날을 칠일절로 명명하셨다. 이날이 역사적 전환기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장자권을 복귀함으로써 천사세계가 아담이 성숙할 때까지 양육해야 했던 그 본

연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영계와 육계는 완전히 정통의 길로 환원하여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와 참부모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밝히셨다. 그래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뿐만 아니라 종교계를 향하여 영원한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한 축복을 선포했다고 설명하셨다. (p. 1382)

1 1991년 7월 초하루는 우연한 해의 7월 초하루가 아닙니다. 섭리사로 보게 될 때 1991년은 역사적인 전환시기입니다. 지금 세계정세도 그렇고 역사의 흐름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세계나 공산세계도 방향을 잃어버렸고 종교계도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하던 모든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열매는 참된 열매인지 거짓 열매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참열매만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복귀섭리 구원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여럿이 아닙니다. 종교가 찾아 나가는 결실, 즉 그 열매라는 것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무슨 종단 열매를 원하겠습니까? 하늘 혈족의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혈족입니다. 하늘 핏줄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핏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랑의 인연을 거칠 수 있는 전통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18-013, 1991.07.01) p. 1382

2 오늘은 1991년 7월 1일입니다. 1991년은 섭리사적 전환시기에 맨 마지막 고비의 위치를 차지한 해입니다. 정월부터 6월까지 의 복잡다단한 환경을 넘어서 1991년의 반을 보내고 새로이 맞는 후반기는 섭리사에서 정상을 넘어 새로운 소망의 평원으로 향하는,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기간입니다. 동서의 분규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한을 남겼던 모든 싸움의 고통도 참부모를 중심삼고 해소되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해소되고, 참부모를 통해 승리적 수확을 갖춰서 공산세계와 자유세계, 북한과 남한이 하나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날을 기하여 선포식을 함으로써 섭리사를 대표했던 모든 것, 하늘이 세워 나오던 조건들을 청산짓고 승리와 해방과 영광의 날을 자축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올 것을 알고, 가정을 수습하고 종족을 수습하여 하늘부모를 그 종족권 내에 모실 수 있게 준비해 나왔습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지 않고는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섭리사의 전체 뜻을 헤아려 보게 될 때, 이미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하고 1991년 7월 1일 전 세계적으로 자기 스스로 종족권 메시아가 되겠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

사랑의 인연을 따라 더럽혀진 혈통을 분별하여 하늘권속으로 세운 모든 축복가정들과 축복가정 후세를 대표해서 참부모 일족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8-007, 1991.07.01) p. 1383

3 1991년 7월 1일을 중심삼고 한스러운 역사적 탕감노정을 걷어치우고 새로이 창조주 하나님과 본연의 부모가 되는 횡적 참부모를 모시고 좌우가 하나되고, 남북이 하나되고, 종교권과 정치권이 하나되어 장자권을 이어받고, 부모권을 이어받고, 왕권을 이어받음으로써 본성세계의 해방권을 찾으려는 선언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성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개인적 중심이요 가정·종족·민족·국가 전체의 중심인 참사랑의 도리를 따라서 절대적인 하나의 방향, 절대적인 목적 귀결인 본연의 천국은 지상에서 생활한 가정의 터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지금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하고 통반격파라는 엄숙한 사명적 과제를 앞에 놓고 전진명령을 할 것을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218-011, 1991.07.01)

4 예수님은 메시아 선포식을 못했습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중심삼고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선포는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일족을 거느리고 민족과 더불어 해야 됩니다. 일족이 있어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길을 다 거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세계에서 아버님을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여러분이 여러분 일가에서 빚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에게서 동서남북으로 순이 나와서 아름답게 자랐을 때 종대 순 대신 그 가지 순을 갖다가 심으면 마찬가지 종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1991년 7월 1일 오늘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을 하는 이 식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식전을 바라고 모든 종교와 국가들도 이런 식전을 바랐는데, 이 식을 거행함으로써 선포했으니 모든 문제가 이 기준을 중심삼고 수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218-038, 1991.07.01)

5 1991년 7월 초하룻날 부모님이 완전 해방을 말했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전권을 발표한 것입니다. 민조세계와 공산세계뿐만 아니라 신앙계를 향해 영원한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한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축복했지만 책임분담을 못하고 사랑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이 3대 축복 사랑을 재기시켜서 영원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류세계에 있어서 탕감권을 인간들

이 다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3-224, 1991.11.10) p. 1384

6 후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님의 손과 발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은 대개 다 알지만 손발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칠일절에 이렇게 사진을 가까이에서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 행사는 부모님의 손발 등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손이나 사진을 찍어 놓으면 별의별 사기꾼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됩니다. 발도 하나하나 찍고, 두 발을 모아서도 찍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손을 찍고 발을 찍고 옷도 다 찍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얼굴이나 몸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알고 있지만 손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흘러가면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에 대한 모든 것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칠일절이 뜻있는 날이고,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한 이때는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고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모든 전체를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은 하늘을 상징하고 발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체는 만물 전체를 총합한 실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하늘 앞에 봉헌하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 이 제3회 칠일절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48-072, 1993.07.01)

환고향 섭리와 종족메시아 파송

참부모님께서는 1991년 9월 1일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에게 환고향을 지시하셨다. 지금까지 참부모님께서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일족을 구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앞서 칠일절을 기해 모든 축복가정은 종족메시아로서 종족복귀 활동에 매진할 것을 지시하셨다.

7 칠일절을 선포할 때에 종족메시아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적 메시아를 넘어서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종족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의 두 성씨를 합한 것입니다. 두 성씨를 합한 종족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참부모를 두고 말합니다. 혼자 개인적인 면에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적 메시아는 종족적 메시아 후보이고, 종족은 두 성씨가 합한 것이니 합하게 되면 종족적 메시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족만으로 안 됩니다. 민족 편성을 해야 됩니다. 민족은 열두 종족이 들어가야 됩니

다. 열두 지파가 하나되어서야 비로소 나라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410-119, 2003.07.02) p. 1385

8 내가 북한에 대한 탕감조건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늘 편에서 여러분을 고향으로 보내는 데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복귀섭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통일천하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통일천하의 운세를 후대 앞에 남겨 주고, 선조들 앞에 그 은덕을 입혀 주고 싶거들랑 행동을 재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 일족의 통일교인 가운데 먼저 가서 종족적 메시아 팻말을 박아 놓아야 됩니다. 빨리 가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죽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죽고, 매맞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매 맞고 욕먹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욕먹고, 배를 곯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배를 곯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 밑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 놓고 종족을 중심으로 종족적 메시아 팻말을 박아야 됩니다. (219-153, 1991.08.29)

9 예수님의 종족이 하나되지 못한 것을 탕감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종족족 메시아권을 허락해서 환고향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수천수만의 마을 마을에 종족적 메시아, 아들딸을 배치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시대와 달리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핍박시대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부모의 자리에서 책임을 못함으로써 역사적인 죄상이 벌어져 만민을 도탄에 빠뜨려 지옥에 가게 했고 죽음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이들을 해방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이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그 모든 혜택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받을 때에는 공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짜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탄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을 수 있게끔 밑창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족을 중심삼고 동네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179-086, 1988.07.22) p. 1386

10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사랑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인연을 따른 축복받은 가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는 타락의 가정을 출발한 아담 해와의

자리와 다릅니다. 아담이 타락한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이지만 지금 축복받은 가정은 복귀시대에 부모님을 중심삼고 완성기 완성급을 넘어설 수 있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권 가정이 참소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거느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환고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환고향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준은 타락한 아담의 기준인 장성기 완성급이 아니라 완성기 완성급의 기준입니다. 그런 조건적인 입장에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 실체를 복귀하려니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갈라진 남북을 하나 만들어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남한의 고향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외부에 나가서 핍박받던 것의 3배 이상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정성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탄세계는 자동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178-086, 1988.06.01)

11 환고향을 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통일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해원성사를 해야 됩니다. 역사시대의 모든 것을 해원성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해원성사를 해야 되고 아버님의 해원성사를 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자기 일족을 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33년 동안 부모와 친족, 처자식을 버리고 외국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지, 자기 부모와 자기 일족, 처자식을 거느리고 사랑하는 시대를 못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을 따라 나온 자리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젊은 시대의 종족적 판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한 치 앞서서 국가적 기준에 섰다면 여러분은 종족적 기준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국가적 기준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입장이니 여러분은 종족적 자리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85-090, 1989.01.03) p. 1387

12 1991년 9월 초하룻날 전 통일교회 축복가정들 앞에 환고향을 명령했습니다. 축복가정들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보따리 싸게 해서 피란민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환고향하라고 한 것입니다. 환고향하지 않고는 어머니를 해방할 수 없고, 누나를 해방할 수 없고, 누이동생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환고향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어머니, 누나, 누이동생을 중심삼고 나아가게 되면 태평 왕궁의 터전이 마련됩니다. 그것을 중심삼

고 종족적 메시아라는 승리의 왕권 기지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231-101, 1992.05.31)

13 지금부터는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환고향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환고향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환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어디에서 받느냐? 지금 찾아오는 세계적인 운세를 개인과 가정이 받는 동시에 그것을 자기 종족 앞에 나누어 줘야 됩니다. 환고향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으로 오는 세계의 운세를 섭리의 뜻과 더불어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일족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는 횡적으로 보면 소생·장성·완성, 아담시대·예수시대·재림시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3수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종족적 메시아가 고향에 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복귀해야 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반대함으로써 역사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226-150, 1992.02.04)

14 지옥을 180도 뒤에 놓고 사탄을 겨냥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하늘나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환고향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식구들 앞에 종족적 환고향을 명령하려면 부모님이 환국해야 됩니다. 북한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9월 초하룻날부터 90일 지나서 북한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환국하는 것입니다. (227-284, 1992.02.14)

15 아버님에게 제일 억울한 것은, 부모형제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어 **눈**물 흘리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들을 전도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로 끌어내야 됩니다. 밧줄이든, 자기 옷이든, 자기 팔다리든 무엇으로든 이리저리 얽어매서라도 그들을 지옥에서 끌어 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린 이상, 세계를 위해 눈물 흘리던 이상으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버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상으로 민족과 종족과 친족과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022-162, 1969.02.02) p. 1388

16 부모님은 여러분 앞에 최공의 선물, 예물을 주었습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4천년 만에 메시아로 온 승리적 축복기대를 중심삼고,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가 반대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전부 해소해 버린 기준 위에서 부모가 세계에 파급될 수 있는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여러분을 맞아 주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일족이 가는 곳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 세계무대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특권적인 선물로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196-250, 1990.01.01)

17 여러분은 밤낮없이 고향에서 종족을 복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고향에서 종족복귀를 위해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족을 구하기 위한 책임을 전 세계 축복받은 가정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축복받은 가정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아들 한 사람만 보냈지만, 부모님은 축복받은 아들딸뿐만 아니라 결혼한 가정과 그 아들딸까지 보내서 종족적 메시아권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이 지상세계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보따리를 싸서 자기 갈 곳을 찾아가야 할 것을 알고 꽁무니에 서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해방해야 되고 악마도 구제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228-241, 1992.04.03)

18 아버님은 예수님을 대신한 재림사상을 가졌으니 예수님의 이스라엘권을 대신한 재림사상을 여러분이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과 아버님이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것을 대신하는 자링에 서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기준을 여러분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패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탕감해야 되고 아버님의 십자가의 길을 탕감해야 됩니다. 야곱이 간 길을 이스라엘 가정들이 가야 했던 길이요, 모세가 간 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했던 길이요, 예수님이 간 길은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요, 아버님이 간 갈을 통일교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그 권한은 뭐냐? 종족적 메시아가 예수님시대에 해야 할 책임만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인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거기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나라를 찾고 세계를 찾는데 한꺼번에 다 된다는 것입니다. (189-152, 1989.04.01) p. 1389

19 축복받은 가정 앞에는 세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 앞에 세상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가정과 하나님을 모시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요사스러운 악의 세계를 중심한 습관성을 깨끗이 청산하고 해방된 모습을 가지고 본연 시대의 장자권을 순수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딸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아들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부모권복귀입니다. 장자권을 거쳐서 가정을 이루어 아들딸을 가져야 부모권이 복귀됩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부모권을 복귀함으로써 여러분의 본향 땅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축으로 하여 왕권이 연결되고 나라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계와 나라의 기준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수직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데는 개인이 소생이요, 가정이 장성이요, 종족이 완성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국가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개인적 터전 위에 가정이 있고, 가정적 터전을 중심삼고 동서남북으로 모든 종족들이 연결될 때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211-349, 1991.01.01)

20 부모님은 영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사명은 누가 인계받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릿입니까? 자녀들이 인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운이 영원히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개념을 가졌습니까? 백 퍼센트 부모님의 사명을 인계받아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참부모의 자녀 위치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참부모의 완성한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상속받는 선물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참부모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본연의 존재입니다. 몸 마음이 참부모님의 개념을 중심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담 자리입니다. 최초의 개념은 나의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하면 몸 마음이 공히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잃어버린 이 개념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참부모님이 몸 마음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개념이 그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244-317, 1993.03.01) p. 1390

종족메시아 활동 방법

참부모님께서는 종족메시아로 잘리잡기 위해서는 먼저 입회원서를 받고 그다음에는 각 가정에서 참부모님 사진을 모시고 교회 깃발을 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종족메시아는 고향에 돌아가 제도화와 평준화를 위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

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네 사람이 사위기대를 이뤄 형제처럼 지내면서 활동할 것을 당부하셨다.

21 축복받은 가정은 부모를 알고 스승을 알고 나라님을 압니다. 부모와 스승과 나라님은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점은 가정입니다. 부모 대신 사랑을 연장한 스승, 부모 대신 사랑을 연장한 나라님, 이것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사랑의 환경을 원합니다. 회사에 가도 그런 주인을 찾고, 학교에 가도 그런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상천국의 조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중심삼은 전통이 서기 때문에 습관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심정권을 갖고 하늘 편적 습관 기반을 닦은 생애노정을 거쳐 간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무사통과로 달리는 기차처럼 그대로 자유 해방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성은 어디까지 찾아 내려가야 되느냐? 가정에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은 세계의 습관성을 타도하고 국가의 습관성과 싸워 이겨 이것을 대한민국 가정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타락했으니 가정에서 참부모님의 사진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사진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사진을 걸어 놓으면 과거·현재·미래의 통일이 벌어짐으로써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새벽 3시면 와서 경배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자기 일족을 보살피면서 땅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부모를 중심한 심정권적 조건이 성립됨으로써 영계에서 그 가정을 협조하게 됩니다. (213-049, 1991.01.13) p. 1391

22 지금까지는 아벨이 가인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탕감적 시대권 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권을 대표한 영계가 아담권을 대표하는 지상세계를 이용해 나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부모님이 나와서 장자권을 복귀하여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질서를 갖추어 놓음으로써 지상 세계 아담권 앞에 영계의 천사장이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장권은 아담권 앞에 동생과 같이 순응해야 될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진을 걸게 되면 천사권이 먼저 모셔야 됩니다. 아담 해와를 키우기 위한 전통적 역사를 천사세계가 먼저 가르쳐 주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벽 3시만 지나면 부모님의 사진을 보고 조상들이 행렬을 지어 둘러서서 영적으로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악령은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215-106, 1991.02.06)

23 40년 동안 4300년의 역사를 추슬러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밤이나 낮이나 놀 새가 없고 밥 먹을 새도 없이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야 할 천리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피곤하고 고단해 쓰러지는 자리, 피를 토하는 자리에서도 물불을 안 가리고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죽더라도 고향을 향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장자권 본연의 아담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장자권 주체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승자의 아담 해와의 아들딸은 타락한 후손이 아닙니다. 왕손의 후손으로서 고향 마을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나라와 세계를 다 잃어버리게 한 원수를 앞에 놓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고향 땅에 왔는데 잠이 옵니까? 전부 인계하고 상속받아서 팻말을 꽂고 깃발을 꽂고, 그 왕권을 가진 부모님의 사진을 모시고 깃발을 달고 호적을 달리한 입적을 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입적시키고, 그다음에 왕권 주인의 사진을 모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떠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와서 새벽 3시면 부모님의 사진을 보고 하늘 귀례식(歸禮式)을 합니다. 출동 명령과 더불어 일족을 평정하기 위한 천사장과 같은 병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갈 길을 개척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221-014, 1991.10.20)

24 고향에 돌아가 원리관적 조직을 해야 됩니다. 일족을 거느리려면 그냥 그대로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화하고 평준화해야 되니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조직을 보게 되면 3단계로 연결한 조직이 됩니다. 3단계는 하나입니다. 한 운명권에 있습니다. 앞으로 면·리·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3단계가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적 관을 중심삼은 생활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반과 통해야 되고 통과 통해야 되고 면·동과 통해야 됩니다. 3단계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삼고 반에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전부 그래야 연결됩니다. 반·리·면, 반·통·동, 그 다음 3단계는 면·군·도 조직입니다. (219-209, 1991.08.29)

25 종족적 메시아로 고향에 가게 된다면 혼자 기반을 닦기 힘들 것입니다. 생활적인 면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집도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피란살이입니다. 그래서 사위기대의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죽을 쑤어 먹어도 같이 쑤어 먹으면서 합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출발하

는 것입니다.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네 사람이 형제와 같이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4형제가 같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한 방향을 맡아서 어느쪽이 먼저 격파되느냐 하는 목표를 중심삼고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부족할 때에는 열두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기반을 닦는 데에 셋이, 넷이, 또 열둘이 합해서 하나하나 기반을 닦아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휩쓸 수 있습니다. (219-210, 1991.08.29)

26 재림주가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해서 가정메시아로서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 가정과 같은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여러분의 고향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되고, 부모 자체가 자기 선조가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3대 중요한 사명이, 첫째는 선조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향을 복귀하는 것이고, 셋째는 인류시조인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도 추방당해 버렸으니 그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250-177, 1993.10.14) p. 1392

제3장 성약시대 개막과 성약섭리 전개

1절 성약시대 선포와 종족메시아 활동 강화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 배경

참부모님께서는 1993년 1월 3일 서울 청파동2가 전 본부교회에서 '섭리사적 회고와 성약시대'라는 말씀을 통해 신약시대의 완성과 성약시대의 출발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1월 10일 미국 벨베디아수련소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7년 기간의 실패로 다시 출발했던 1952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의 재탕감노정을 승리한 기반 위에 비로소 성약시대가 출발되었다고 선언하셨다. 이어 1993년 4월 10일을 기해 세계 160개국에 '참부모와 성약시대'라는 주제의 말씀을 일제히 선포할 것을 지시하셨다. (p. 1393)

1 구약시대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실천해 나온 시대요, 신약시대는 믿음을 찾아 실천해 나온 시대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성약시대는 사랑을 찾아 실천해 나가는 때입니다. 소망을 찾기 위한 섭리시대였던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 선민이라는 조건을 세워 나

왔고, 신약시대에는 물세례와 불(성령)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 나왔습니다. 그다음 성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을 맞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랑의 인연을 맺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005-109, 1959.01.04) p. 1393

2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양자의 시대입니다.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성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양자가 되어서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야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약시대에는 양자가 아닌 직계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는 혈통이 다릅니다. 부모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즉 양부모로서의 아버지와 양자로서의 아들이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자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이게 될 때, 양자로 들어오는 그 아들이 양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목적과 일치되지 않으면 양자로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계자녀가 되면 그러한 목적도 필요 없습니다. 직계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는 이리 가고 아들은 저리 가더라도 아무것도 갈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나쁘다고 느끼면 둘이 같이 좋은 곳을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양자와 다른 것입니다. 양자는 한 때를 중심삼고 만나는 것이요, 직계자녀는 부자의 관계 속에 영원을 두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혈통적 관계에 있어서도 핏줄이 다릅니다. 핏줄은 역사의 기원에서부터 역사의 끝까지 이어 내려갑니다. 수천만 대가 흘러가더라도 수천만 대 전의 핏줄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024-322, 1969.09.14) p. 1394

3 복귀섭리를 두고 볼 때에 성약시대는 신약시대를 완성지어야 되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를 완성지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뜻을 완성짓지 못함으로써 그 뜻이 성약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약시대는 역사적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대인 것입

니다. (046-113, 1971.08.13)

4 구약시대는 물질의 시대, 신약시대는 아들의 시대, 성약시대는 부모의 시대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만물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볼 때 소생은 물질, 장성은 자녀, 완성은 부모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부모와 아들딸과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게 천지만물을 에덴동산에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6천년 동안 종이니 양자니 하는 것을 세워서 섭리해 나온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종의 종의 시대입니다. 종의 종은 물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는 양자의 시대입니다. 아들을 세워서 역사하던 때가 예수님시대입니다. 성약시대는 부모가 고생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물질로 제물을 바치고, 신약시대에는 아들로 제물을 바치고, 성약시대에는 부모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성약시대에는 부모가 탕감해야 됩니다. (046-262, 1971.08.17)

5 구약시대는 만물을 복귀하기 위한 세계적인 조건을 세워 놓는 때이고, 신약시대는 세계 만민을 복귀하기 위한 기반을 세계적으로 닦는 때이고, 성약시대는 세계를 하나의 주권으로 통일하기 위한 때입니다. 이러한 분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복귀하려면 그 국토를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백성을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백성과 하나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주권복귀입니다. 국토와 백성, 다시 말하면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의 부모를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된 그 자리가 **하**늘나라를 대표한 지상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 나가는 주권은 무엇이냐? 그 주권은 이 세상의 주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만물 복귀시대, 신약시대는 자녀복귀시대, 성약시대는 부모복귀시대입니다. 국강와 세계를 두고 보면 구약시대는 만물 땅, 즉 국토복귀시대에 해당합니다. 신약시대는 국

민복귀시대에 해당합니다. 성약시대는 주권복귀시대에 해당합니다. (055-247, 1972.05.09) p. 1395

6 어머니가 '참부모와 성약시대'라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성약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살림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역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조이상은 사랑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기대의 완성, 인간 책임분담의 완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중심삼고 살림 못한 것을 이제부터 역사시대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살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서 가정이 출발하는데, 우리 가정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가정 출발과 더불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전권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부모의 이념을 선포하고 성약시대를 선포함으로써 사탄세계는 그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248-012, 1993.05.30)

7 하나님께서는 제 남편을 택하싱어 한국의 기독교인에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당시 한낱 초라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던 제 남편이 그와 같은 새로운 진리를 전해주도록 택함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연장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현현을 믿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재림주가 인간의 형체를 쓰고 지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 기독교와 남편이 하나되었더라면 지상세계는 물론이요 천상세계에까지도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 동안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로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남편을 맹목적으로 반대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키우고 발전시켜서 재림주님을 위한 길을 닦게 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기독교 절대권의 국가를 육성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한국의 목사들은 전 세계의 기독교를 대표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세계 기독교가 남편과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 기독교는 그때부터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도덕적 권위도 실추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대전 후 미국과 기독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된 승리적인 기대 위에 서 있었고 재림주님을 맞을 때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림주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게 되었고, 덩달아 세계가 남편의 활동을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밑창에까지 밀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어머님, 1993.10.04, 한국 서울) p. 1396

8 기독교문화를 뿌리로 하여 세워진 미국을 신약시대에 비유하면 한국은 구약시대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처음 20년간 남편은 한국에서 유대교 입장과 같은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구약시대를 탕감하는 노정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위에서 우리는 1960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부모의 성혼식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1971년 저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년간 우리는 미국에서 신약시대를 완성하고 성약시대를 출발시키기 위한 탕감노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의 가정을 찾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어머님, 1993.10.04, 한국 서울)

9 오늘날 복귀섭리역사의 전환점에서 참어머니 위치에 있는 여자는 참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후 하나님의 섭리는 40년을 연장하여 1992년까지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잃어버린 세계적 신약

시대를 찾아 세우기 위해 한국·영국·미국·프랑스·일본·독일·이탈리아를 하나 만들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1992년 4월 남편과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고 세계적으로 여성시대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그 터 위에 1992년 한해 동안 저는 참어머니의 심정으로, 앞에 열거한 7개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오세아니아까지 찾아가서 그곳의 여성들을 동원해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지부를 창설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중심삼고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 갈라져 있던 나라들이 참어머니를 맞이하고 전후 잃어버렸던 신부의 기대를 복귀해 참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승리한 세계적인 기반 위에서 참부모가 되었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참어머님, 1993.10.04, 한국 서울) p. 1397

10 신약시대는 재림주를 맞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재림주가 행차해서 가정·종족·민족·국가를 7년 동안에 수습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약시대입니다. 재림주가 와서 땅에서부터 잃어버린 아담 가정형을 세계적인 판도권 기반 위에서 청산지어서 자리를 잡고 출발할 때가 약속을 이루는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쫓겨나서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성약시대가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구약시대·신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준비한 신부권을 미국이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것을 놓쳐 버리는 날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터전을 중심삼고 그것을 조건으로 남기지 않고는 탕감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아벨의 자리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243-127, 1993.01.03)

11 성약시대는 영육을 중심삼은 시대이기 때문에 영을 중심삼은 신약시대 그 자체로는 성약시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이때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모든 탕

감을 해서 재림주와 하나되면 성약시대로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되지 못하면 재탕감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반이 무너지면 무너진 이 기반을 대신 닦지 않고는 자리를 잡고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등장하려면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약시대의 영적인 사실을 완전히 인계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인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무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예수님한테서 인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이 영적인 인계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부를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이겨야 되고, 영계에 있는 수많은 영인들이 모두 자연굴복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 최고의 승리의 터전 위에 서야만 인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인계받은 것을 지상에서 실체로서 완성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완성되어야 할 섭리가 신약시대에까지 연장되어 내려와서 아직까지 영육 아울러 완성이 못 되었기 때문에 성약시대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부 영적으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약시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육 아울러 이루려던 모든 것을 재림주님이 다시 탕감해 주지 않으면 성약시대의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054-284, 1972.03.26) p. 1398

12 메시아는 참부모닙니다.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 거짓 양심의 기준에서 출발했던 역사를 청산짓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와서 본연의 완성한 아담, 즉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이상적인 남성을 중심삼고 잃어버렸던 어머니와 아들딸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해와, 어머니 대표국가 영국과 아벨 대표국가 미국, 그리고 가인 대표국가 프랑스를 중심삼고 기독교 문화권이 통일천하를 이뤘는데 그때 아버님과 하나돼야 했습니다. 아버님과 하나됐으면 공산권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40년 만에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신부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아벨 국가 미국을 수습해야 됩니다. 아버님의 아내는 세계를 대표한 참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잃어버린 영국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미국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프랑스를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연합국 기반, 통일세계 신부권 기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와 싸워 평정을 해서 세계적 승리의 기반을 닦아 그 위에 어머니를 세워서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발표한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성약이 아닌 실패의 약속, 약속을 이루지 못한 파약 시대로 인도했던 것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파약이 아닌 성약시대로 접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성약시대입니다. 창조이상 약속 위에 세계적 판도에서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262-107, 1994.07.23)

13 참부모가 정착함으로써 여성해방과 더불어 참부모와 성약시대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문화권이 신부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여성을 묶어서 1992년에 어머니 대선포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성해방운동입니다. 어머니가 해방을 선포하고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사탄세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수습하고 나라를 수습할 수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참부모님 가정의 전통을 새로이 편성함으로써 참종족·참민족·참국가·참세계·참하늘땅·참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전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247-110, 1993.04.25)

14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와 성약시대'는 전환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가정 편성, 이상적 종족 편성을 하려니까 가정연합이 나와야 됩니다. 통일교회의 축복은 장성기 완성급 천사장, 하늘 편 천사장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권이 넘어서야 직접주관권인 아담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1960년을 중심삼고 장성기 완성급을 통해서 완성기를 넘어가는 과정에 세계적 박해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 박해시대를 넘어서 정착해야 됩니다. 원래 1952년이면 정착해야 될 것이 연장되어 1992년 어머님을 중심한 여성시대 발표, 즉 여성해방과 더불어 새로이 부모님이 같은 자리에서 하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해방을 하지 않으면 아담 해방권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아담 해와의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 가정의 잃어버린 부부의 기준을 이루기 전에는 전부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갖춘 기반을 통해서 새로이 이상적 가정을 편성해 넘어가야 됩니다. (264-231, 1994.11.03) p. 1399

15 아버님은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나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통일적인 세계와 잃어버린 신부권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세워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더불어 1년 동안 일해 나온 것입니다. 아버님이 일생 동안에 전부 전수해 주어서 어머니를 같은 자리에 세워 놓고 기독교문화권 상속이라는 것을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연적인 해방의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도 해방되고, 부모님도 해방되고, 만민도 해방되어 신약시대 전체의 완성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이제 성약시대를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3-146, 1993.01.03)

16 재림 때까지는 재림주 한 사람으로 왔지만 재림주가 이 땅에 정착함으로써 수만 명의 종족적 메시아를 횡적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잡아치울 수 있는 악마의 세력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입장에서 초월적인 장성기 완성급, 완성기 완성급에서 전부 배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통일천하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가서 정착시켜야 되느냐? 가정에 들어가서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반격파

라는 말을 중심삼고 가정교회 활동을 교시해 나왔습니다. 여자들을 내세워서 이것을 다시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준, 최후의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 적용시켜서 가정에서 잃어버린 해와와 가인 아벨을 찾아 씨로 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연적인 고향에서 선한 지파의 족장이 되고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사탄과 관계없는 세상이요, 거기에서부터 지상천국이 현현하는 것입니다. (243-146, 1993.01.03) p. 1400

성약시대 종족메시아의 책임

참부모님께서는 성약시대의 선포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구원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종족메시아 활동을 본격화할 것을 지시하셨다. 종족메시아는 가정을 복귀하고 나아가 종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를 복귀해야 되는 사명을 띤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참부모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을 강조하셨다.

17 이제 세계적으로 전부 환고향을 해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배치했다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상에 착륙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오시는 주님은 한 분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주님이 다시 와서 종적으로 참부모가 되어 이 땅 위에 착륙함으로써 아들딸을 낳아 횡적으로 수만 쌍의 종족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약시대의 출발입니다. 1993년부터는 세계를 향한 남북통일의 운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성약시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 가인 아벨이 역사 이래 자리를 잡지 못함으로써 이룰 수 없었던 세계적인 판도를 1992년 4월 10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 및 세계기성가정 축복결혼식을 중심삼고 우익과 좌익과 바라바권을 통일했습니다. 그때 이슬람권 8개국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축복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탕감길이 많았지만 이제는 만민해방과 더불어 사탄세계에서 반대하던 어머니 아버지, 공이 없는 사람들도 무조건 축복해 줘서 완성한 아담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세워 준 것입니다. (243-137, 1993.01.03)

18 지금까지 역사에는 종교의 뜻을 위해서 세계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향리를 버리고, 부모처자까지 버리면서 출가하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탕감복귀시대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세계를 품고,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종족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소생·장성·완성이지만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참부모가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탕감복귀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를 거쳐 왔지만 성약시대가 완성하게 되면 성약시대가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인 2대는 예수님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3대가 성약시대에 해당하니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가정을 수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족적 책임의 중심자를 통일교회에서 말하기를 종족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종족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성약시대의 문이 열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243-140, 1993.01.03) p. 1401

19 아버님은 싸워서 기반을 닦았지만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고향을 등지고 세계를 등지고 쫓겨나서 다시 찾아 오는 일을 했지만, 여러분은 아버님이 이긴 세계를 상속받고 나라를 상속받고 민족까지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족만 연결시키면 그 종족들이 민족과 국가와 세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종족들에게 그 이상 줄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는 왕의 권위를 갖춘 조상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라도 남겨 놓고 가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복지가 되었으니 건국이념을 찾아야 됩니다. 통일교회도 맞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남북을 통일해야 됩니다. (243-164, 1993.01.03)

20 종족적 메시아가 되려면 가정적 메시아를 찾아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내려와서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조상들은 천사장의 자리입니다. 완성한 아담 자리에서 전부 살려줘야 할 텐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으니 영계의 조상들이 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물건을 전부 탕감시키고, 그다음에 신약시대와 같이 아들을 탕감시킵니다. 성약시대에는 부모가 탕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체가 들이맞습니다. 그런 공포의 세계가 영계에서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빨리 해서 입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시대에 예수님이 종족적 메시아와 가정적 메시아를 거느려서 나라에 입적하려고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재림시대에 세계적 판도권 내에서 입적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안 되고 가정적 메시아가 안 되면 입적할 수 없습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되려면 가정적 메시아를 완성해야 됩니다. 가정적 메시아도 왜 메시아라고 했느냐 하면 사탄과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251-266, 1993.10.31) p. 1401

21 지금까지 종교는 출가를 명령하고 결혼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환고향을 하라고 합니다. 세계통일국개천일을 선포하고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발표했기 때문에 가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국입니다.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아담 가정을 가지고는 세계통일을 못합니다. 아담 가정 기준과 같은 영국·미국·프랑스, 세계적 국가를 대표해서 가인 아벨이 신부 국가를 대표해서 가인 아벨이 신부 국가와 하나되어 오시는 신랑 된 재림주 참아버지를 모셔서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평면적으로 재림주 완성권이 종족적 메시아 완성권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 완성권은 제1차 조상 아담이 타락으로 실패한 것을 제2차 조상 예수님이 복귀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으니 제3차 조상이 와서 예수님의 실패를 복귀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가정적 메시아인 아담 가정을 복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 도상에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48-316, 1993.10.03) p. 1402

22 오늘날 통일교회는 광야 40년노정을 끝내고 가나안에 상륙했습니다. 이제 참부모를 선포하고 나라를 복귀해야 됩니다. 환국과 사탄권 정비입니다.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건국사상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귀한 그때와 마찬가지인데, 세계 판도 그 자체가 사탄 편과 하늘 편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세계입니다. 국가의 한계선을 넘어선 세계적 판도에서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249-246, 1993.10.10)

23 성약시대 개막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구원역사를 완성할 메시아의 분신이 되는 종족메시아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귀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종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를 복귀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명을 띤 사람들을 종족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수만 쌍의 종족메시아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상적인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약시대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락할 때와는 정반대로 어머니가 자식들과 하나되어서 남편을 복귀해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어머님, 1993.10.04, 한국 서울)

24 여러분 가정을 중심삼고 자랑할 것은 참부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시대에 승리자 중의 승리자요, 구원섭리 가운데 사탄을 퇴치한 대장 중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참부모를 선포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전통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마을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그들 앞에 자랑해야 되고, 종족 앞에 자랑해야 되고, 국가 앞에 자랑하고 세계 앞에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의 어디에서나 참부모를 자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갈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만사형통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를 다니면서 참부모를 선전함으로써 해방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75-297, 1996.01.01)

2절 주요 선포식과 성약섭리 전개

참부모님께서 1993년 1월 3일 성약시대 개막을 선포하신 후 팔일절 선포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해소 선포, 천지부모천주안식권(칠팔절) 선포, 성약시대와 천상·지상천국 완성 선포, 천지부모천주승리축하 선포,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권(구구절) 선포,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식(삼십절) 선포, 자기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기도하는 시대 선포, 쌍십절 선포, 총천주축복 해방일 선포,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 완수 선포를 통해 성약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이와같은 일련의 선포를 통해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전개될 천주평화통일국 섭리를 준비하셨던 것이다. (p. 1403)

팔일절 선포

(1993.8.1, 미국 벨베디아수련소)

1 가정이 제일입니다. 가정에는 3대가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왕과 여왕의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는 장차 왕이 될 왕자와 왕녀입니다. 가정을 참부모의 이상을 중심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태평이 떠오르면 모든 피조물은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만물이 참부모를 우러러 하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50개 주에 승리의

기반을 닦아서 하나님이 축복한 모든 그 뿌리, 개인 기반, 가정 기반,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의 기반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되어서 이스트가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되는 식이 8월 초하루 이 식입니다. 8월의 8수는 재출발수입니다. 기념일입니다. 지금부터 통일교회시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48-105, 1993.08.01)

2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책임 못한 1세들은 다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것이 뭐냐? 통일교회나 세계 전체가 미완성권 내에 머무르고 있는데, 완성의 자리에 섰다고 하려면 전부 쓸어버려야 됩니다. 제1차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아버님이 선두에서 책임지고 잃어버린 기독교 문화권을 복귀했습니다. 천사장이 해와를 끌고 지옥으로 갔고, 천사장과 해와가 하나되어서 아담을 끌고 간 것을 세계적 도상에서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아버님과 하나 못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 못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광야로 쫓겨나 4천년 역사, 창세기 이후의 모든 역사를 탕감한 것입니다. 야곱 가정에서부터 민족을 중심한 모세, 예수님을 중심한 120문도, 그다음에 아버님을 중심한 160개 선교국, 이 모든 것을 탕감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아버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하늘이 기독교를 잃어버리고 자유세계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국시대, 8월 1일을 환국의 날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어버렸던 기독교문화권, 신부권을 찾아야 됩니다. (248-240, 1993.10.0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해소 선포(1996.11.1,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3 1952년부터 40년 동안에 모든 것을 탕감하고 1992년에 어머님을 여성해방의 터전 위에서 아버님 옆에, 대등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아버님의 권한을 어머님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3년 4년 이내에 어머님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1997년까지 전부 청산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남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탕감해소 선포식까지 해야 됩니다. (280-269, 1997.01.02)

4 어머니는 세계적 메시아 기준에서 종족적 메시아 기준과 가정적 메시아 기준을 연결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인해 잃어버린 33년의 생애를 대표한 33인을 세워서 그 나라의 주체와 대상을 엮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미로부터 미국 일본 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33인을 중심하고 허허벌판이 돼 있는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남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미가 문제였습니다. 남미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북미는 우리가 닦은 기반이 있으니 어느 때 가든지 집회는 문제없습니다. 가인 아벨의 16개 국가를 중심하고, 이것이 32수인데 어머니까지 하면 33수와 마찬가지 수가 됩니다. 가정적 메시아권, 종족적 메시아권, 국가적 메시아권을 다 이루어서 세계적 메시아권이 땅에서 순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가정이 비로소 이 땅 위에 착지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6년 7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설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초하루 이후 석 달 하루 만인 11월 초하루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해소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전 세계의 가정들은 가만두어도 통일교회를 찾아와서 축복받겠다고 할 수 있는 운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281-039, 1997.01.02)

5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을 복귀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 가정을 중심하고 잃어버렸던 장자권 부모권·왕권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균형적인 평준화와 수평선을 이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가정을 재차 편성해서 개인시대로부터 가정시대,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시대까지 직선상에 세워 온 것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시대부터 가정시대·종족시대·민족시대·국가시대 어디든지 자유로이 왕래했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반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착, 수많은 가정들의 정착과 탕감 해소를 선포한 것입니다. (282-320, 1997.04.07)

6 참부모를 부모 이상 모셔서 참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참부모가 승리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부모가 승리한 것을 그 아들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사탄도 하나님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해소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정착해서 참부모가 완전히 승리한 것을, 비로소 참부모를 부모로 모시고 절대 가정에서 효자·충신·성인·성자

가 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한 몸이 된 아들 딸이 될 때 하나님의 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0-077, 1996.11.01)

천지부모천주안식권(칠팔절) 선포 (1997.8.9, 구리 중앙수련원)

7 동양 서양의 문화 전체를 잃어버리고, 남북의 통일세계를 중심삼고 만국의 중심국가여야 할 조국강산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이루어서 당신의 문중이 하늘의 문중이 되어야 할 혈족 자녀들이 이분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삼고 이분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통일의 무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40년 기간은 섭리사의 4천년을 대신한 기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기독교 국가, 혹은 종교와 종교 신앙을 중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 행사를 가해 왔던 사탄세계와 온 세계가 합해서 주권국가와 당신의 뜻 앞에 반대하고 오시는 참부모를 공격하였던 40년 역사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홀로, 홀로, 홀로 이 길을 개척하신 아버지의 지도 아래 개인적인 당신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부부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가정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종족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국가적이요 세계적이요 천주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당신이 자유자재로 거할 수 있는 창조이상적 자유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수난의 40년 역사를 거쳐 와서 이제는 고개를 다 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참부모를 중심삼고 천주안식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44-289, 1986.04.26)

8 오늘 이날은 이 아들이 77세를 맞이한 날이요, 1997년 7월 7일 7시 7분 7초를 중심삼고 7수를 8회 연결시킬 수 있는 초점을 맞추어 7·8수를 넘어설 수 있고 안식년과 재출발의 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가의 모든 무리는 이제 하늘의 권위와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하늘을 모시고, 국가를 중심삼고 하늘을 안식시키고, 세계를 중심삼고 하늘을 안식시키고, 천주를 중심삼고 하늘을 안식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자유 행차할 수 있는 안식적 기반이 가정으로부터 천주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왕권이 일시에 수립될 수 있는 한계선을 넘는 때를 맞게 해줌으로써 이 일을 성사하게 되었습니다. (286-082, 1997.08.09) p. 1406

9 이제 참부모의 가정으로부터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그 눈물 자국이 없어

질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해방을 기원하여 부모님 가정으로부터 만국을 행차하는 데 막힘이 없이 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세계와 사랑하는 천주를 창조이상의 특권적인 최고의 정상에서 자유로이 갖출 수 있는 행차를 참부모 이름으로 선포함과 더불어 당신의 해원성사의 전폭적인 해방을 선포하오니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천지부모천주해방권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이를 선포하시옵소서. 천상세계와 지상의 통일권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시옵소서. (286-083, 1997.08.09) p. 1407

10 하나님은 안식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의 이상가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집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느냐? 참사랑을 중심한 참부모와 참자녀, 즉 참가정을 중심삼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일족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교인들은 가정을 중심삼은 일족의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적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국가를 형성하면 국가적 메시아가 되고 세계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상천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개인에서부터 전 세계, 하늘나라 끝까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가다가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쉬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이 가정일 때에는 거기에서 개인과 부부와 아들딸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286-114, 1997.08.09)

11 하늘이 안식권을 선포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3만쌍 36만쌍 360만쌍을 중심삼고 3600만쌍, 3억6000만쌍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3억6000만쌍이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개를 넘음으로써 세계의 모든 인류는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했고 세계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부모님을 중심삼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나라에서 승리하고, 세계 판도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중심삼고 비로소 온 인류가 해방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계적 가정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가정들이 하늘땅을 대표할 수 있는 가정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부모가 개인적으로 승리하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으로 사탄세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하늘이 자유판도 위에 서서 어느 마을에 가서라도,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축복이 자유화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는 것입니다. (287-109, 1997.09.01)

성약시대와 천상·지상천국 완성 선포 (1999.4.11, 미국 이스트가든)

12 미국은 부모 앞에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반대하는 탕자 입장에 있던 미국인데 부모님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과 미국의 자리를 찾아 줌으로써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장자가 하나됐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참가정세계화 전지대회 순회강연입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지상에 임지를 정해 배치했습니다. 참부모의 이름으로 그들을 임지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인 전체를 동원해서 한국도 뜻 앞에서 멀어지고, 일본도 뜻 앞에서 멀어지고, 미국도 뜻 앞에서 미완성 단계에 있는 것을 1999년 2월 7일에 한국에서 3억6000만쌍 국제축복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여기에서 부모님이 전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실패한 모든 것과 지상의 선민 국가들이 책임하지 못한 것을 부모님이 직접 책임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결속해서 착륙시킨 것이 1999년 2월 7일 국제축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아버님이 한국의 8곳에서 순회강연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은 어머니가 책임지고 순회강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6개 도시, 미국에서 24개 도시 등 세계에서 모두 80개 도시 대회를 다 끝냈습니다. (300-300, 1999.04.11)

13 부모와 자녀가 실패했던 모든 것을 비로소 다시 부모님이 책임지고 이뤄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고 기독교도 못했던 것을 비로소 부모님이 책임지고 다시 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승리, 일본의 승리, 미국의 승리로써 장자권을 중심삼고 기독교문화권이 1945년에 책임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광야 40년 가정 가나안 노정에서도 실패했던 전부를 부모님이 책임지고 전권을 쥐고 처리해서 가인 문명세계 34개국을 중심한 지상에 정착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1999년 '참어머님 참가정세계화전진대회' 순회노정입니다. 이것을 세계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까지 합하면 34개국입니다. 예수님이 34세에 나라를 찾고 세계로 넘어가야 할 모든 실패를 찾고 세계로 넘어가야 할 모든 실패를 다 청산하고 세계에 기반을 확장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300-301, 1999.04.11)

천주부모천주승리 축하 선포 (1999.6.14,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4 나 자신을 중심삼고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몸은 횡적이고 마음은 종적입니다. 그것이 정분합입니다. 몸과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분열된 몸 마음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완성해야 될 목적입니다. 몸 마음을 하나 만드는 것이 소생의 정분합입니다. 그다음에 부부가 하나되는 것이 장성의 정분합이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는 것이 완성의 정분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이라도 그것이 하나라도 결여되면 저나라에 가서 천국이 아니ᄅᆞ 낙원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나라에 가서 몇 천년, 몇 만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의 낙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책임을 지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종으로 횡으로 청산했습니다. 그러니 참부모를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999년 6월 14일에 '천지부모천주승리 축하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 축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303-135, 1999.08.08)

15 '천지부모천주승리 축하 선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국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27일 남미에 가서 성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원초성지, 두 번째는 근원성지, 세 번째는 승리성지입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축복받은 가정들이 원초성지를 잃어버렸고, 승리성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완성 가정을 이루어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여기는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정리할 수 있는 성지입니다. 그리고 자르딘에 세계평화이상가정 교육본부를 지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육받고도 이 자리를 거쳐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303-138, 1999.08.08)

16 1999년 6월 14일 오후 1시15분을 기하여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5월 14일 브라질 판타날에서 '천주해방선포식'을 하고 5월 30일에는 벨베디어에서 '참부모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를 한 그 기반 위에 하늘땅을 대표한 참부모의 승리권을 중심삼고 승리 환영 선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하늘 앞에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여 슬픈 역사를 남긴 전부를 가슴에 묻은 채 그 누구도 소원을 풀 수 없는 한의 심정을 품어 오신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참소 저주하면서 조롱하던 사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곡절이 많았던가를 압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완성한 아담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핏줄이 연

결된 사랑의 종족권을 편성해서 민족과 나라를 거쳐 세계 위해 지상·천상천국의 출발을 보시려던 당신의 이상은 완전히 수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루어야 할 본연의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완성적 가정 윤리가 없어지고 가정 기반이 없어져 버린 이 세상 끝날에 비로소 참부모가 왔습니다. 참부모의 이념의 계대를 잇기 위해 청소년부터 장년시대의 수난의 환경을 거쳐 오면서 하나님의 가정적 청소년 윤리 기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의 혈대를 연결시키는 세계화 축복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혈연적 관계가 오색인종을 넘어서 형제의 인연의 심정을 묶을 수 있는 판도가 4억쌍을 넘어설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302-234, 1999.06.14) p. 1410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권(구구절) 선포(1999.9.9, 구리 중앙 수련원)

17 아버님 79세의 9수에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를 중심삼고 천지의 한으로 막혀 있던 사탄의 완성수인 9수권을 넘어서게 됩니다. 천상세계로부터 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타락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전체는 사탄을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원리는 설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복중시대로부터 유아시대·형제시대·약혼시대·결혼시대·부모시대·조부모시대와 왕시대까지의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세계와 여자세계가 공히 핏줄을 중심삼고 연결되어야 할 일체적인 이상권이 사탄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복중권으로부터 유아권·형제권·약혼권·부부권·부모권·조부모권·왕권까지 막혀서 선과 악이 싸워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편의 아벨적인 형제권이 많은 피를 흘려 나왔습니다. 그 아벨을 중심삼고 가인을 역으로 굴복시키고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찾아서 사탄세계를 자연굴복시키지 않으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선한 핏줄의 인연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의 구원역사**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근본적인 주류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파헤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 위에 참부모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3-253, 1999.09.09) p. 1411

18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전체는 9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9수를 하나님이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10의 1조권을 중심삼고 사탄수인 9수를 청산하기 위한 섭리역사를 해 나왔던 것입니다. 사탄수의 정상수인 이 9수를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으로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참부모를 중심삼고 정비하여 지상지옥과 천상지옥의 모든 막혀 있던 담이 종횡으로 헐려서 지상의 사랑

을 중심삼고 천국에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연결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303-254, 1999.09.09)

19 칠팔절을 중심삼고 천지부모천주안식권을 선포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사탄세계에 막힌 모든 것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는 2000년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1999년 9월 10일에 10수를 더함으로써, 1999년이 2000년대를 맞이할 수 있는 수가 됨으로써 타락이 없는 본연의 창조이상이 완성되고,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모든 차원에 있어서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형적인 통일세계를 찾으려는 그 본연의 뜻이 성사되는 천지의 해방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1999년 6월 14일을 중심삼고 '천지부모천주승리 축하 선포식'을 가진 기반 위에서 오늘의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3-255, 1999.09.09)

20 1999년 9월 9일부터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선언 앞에 절대복종 절대굴복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늘을 반대하던 것이 180도 선한 방향으로 돌아서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인연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에덴동산에서 천사장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천륜의 대주체 부모, 상대의 부모, 천지의 부모를 따르지 못했던 것을 탕감복귀하여 온 인류와 만물을 절대 신봉함과 동시에 절대사랑과 절대해방권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타락한 천사장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이 구구절에 선포합니다. (303-257, 1999.09.09)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식(삼십절) 선포(1999.9.10, 구리 중앙수련원)

21 1999년 9월 10일 10시 10분을 기하여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구구절을 선포한 것은 칠팔절에 천지부모안식권을 선포한 그날 이후 천지부모천주승리 축하 선포식이 끝남으로써 부모님을 중심삼고 땅 위의 모든 가정의 형제 인연을 거치고, 자녀의 인연을 거쳐서 부부의 인연과 부모의 인연과 왕권의 인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모가 이 땅 위에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천지부모 선포를 함과 동시에 승리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천지의 대변혁시대를 선포한 기반 위에 이제 구구절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칠팔절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선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계로 하여 사탄세계에서 활동하던 모든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 하늘 앞에 귀의하게 할 수 있는 한 날인 구구절을 세웠

습니다. 그럼으로써 1999년 9월 10일 10시 10분을 택해서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식, 삼십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4-057, 1999.09.10))
p. 1412

22 참부모의 이름으로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권을 맞게 하는 구구절 위에 이제 삼십절을 세워 하나님을 중심삼고 천지부모가 모든 정상의 자리에서 만우주를 품을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길을 가던 구구절이 삼십절권 내에 세워짐으로써 방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주관구너 내에서, 하늘 경계선과 사탄 경계선의 완충지대와 같은 것이 통일적 기준으로 합하여진 권내에서 칠, 팔, 구절로서 설정할 수 있는 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까지 사탄권 내에 있는 것을 다시 수습하여 하나님 편에서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의 기준을 하나로써 봉헌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304-057, 1999.09.10)

23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전체에 통일적인 전부를 중심삼고 구구절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칠팔절과 구구절과 삼십절을 중심삼고 모든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십 수, 백 수, 천 수, 억만 수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승리적 패권을 가지게 되었고, 수리의 몇 천대 권한을 갖춘 만우주의 존재들을 주인의 자리에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십절을 중심삼고 아버지께서 통고하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받아 선포의 날로서 정하여 영원한 선포로 대신하오니, 온 만상은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전통이 시작되기를 참부모와 더불어, 종적인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종적인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이 시간 모든 천주 앞에 선포하나이다! (304-059, 1999.09.10))

24 지금이 1999년 9월 10일 10시 10분인데, 이 시간에 삼십절을 선포했습니다. 그 10이 3수가 됩니다. 9월 10일 10시 10분에서 9수를 빼고 삼십(10.10.10)수가 됐습니다. 복귀섭리에서 모든 것이 3수를 기반으로 해서 오케이입니다. 구약시대 오케이, 신약시대 오케이, 성약시대 오케이입니다. 10수는 귀일수이니까 복귀의 완결수가 되는데, 10을 3수로 연결시켜서 사탄 꼭대기 수인 9수를 넘어선 3단계의 10수입니다. 이 하늘의 10수를 가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완성, 신약시대의 완성, 성약시대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운세, 동양 서양의 통일의 운세를 맞이하고 남북의 문화 격차와 빈부 격차가 평준화된 본연의 창조이상으로 사랑의 주권하에서 치리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04-060, 1999.09.10)) p. 1413

25 1999년 9월 10일을 기해서 아담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아담 가정 완성을 종족·민족·국가·세계 판도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가던 것이 전환된 것입니다. 전환됐기 때문에 머리는 머리끼리 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팔절을 중심삼고 9수와 10수가 합해지니까 경계선과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계선과 완충지대는 없어지고 전부 하나님의 주권 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04-063, 1999.09.10)

26 삼십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전체 섭리를 대행할 수 있는 아벨적 입장에서 개인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적 시대에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아벨적이고 국가 중심의 장자권입니다. 재림시대까지는 세계무대를 중심삼고 참부모 완성을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세계무대에서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을 완전히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탄의 경계선은 없어지고 하늘나라의 경계선만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경계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평준화가 되어서 평면세계와 입체적 세계의 자녀들과 한 기착점을 중심삼고 부자관계·부부관계·형제관계에 방해가 없고 장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본연적 혈통의 가정 형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승리의 한 표적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그날이 1999년 9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304-103, 1999.09.10) p. 1413

자기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기도하는 시대 선포(1999.9.14, 미국 이스트가든)

27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준 것을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육적 사탄세계를 대해 몸을 가지고 싸워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아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를 할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자기 책임시대에 맞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참부모의 공로로 말미암은 참된 아들딸된 아무개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옵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다 주었습니다. 이제 참부모의 승리적 기반을 알고 나도 그와 같은 실적을 가지고 아들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나라에 있어서 아들의 책임을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자와 충신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4-129, 1999.09.14)

28 참사랑은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 아들딸을 놓고 하는 기도는 통일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지상천국, 가정적인 지상천국, 국가적인 지상천국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민족 경계선, 국가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실천하고 나서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할 것이 없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약속해야 됩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보다도 행동했습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304-130, 1999.09.14)

29 참부모를 통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기도한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독생자인 아들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가정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더불어 일가족이 들어갑니다. (304-139, 1999.09.14)

쌍십절 선포

(1999.10.10,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30 오늘이 1999년 10월 10일인데 쌍십절입니다. 하늘의 10수와 땅의 10수가 합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1999년 9월 14일에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타락권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딸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들딸들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모든 축복가정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게 됨으로써 자기 아들딸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기준이 안 되어 있고 조건이 아직까지 닿지 않아서 그렇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딸을 축복해 줌으로써 제4차 아담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04-155, 1999.10.10)

31 쌍십절은 하늘과 땅이 완전 일치될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실체를 중심삼고 타락한 가정이 완전히 해방됨으로써 1차, 2차, 3차 아담권을 넘어서 4차 아담권이 됩니다. 4차 아담권으로 넘어가려면 자기가 자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죄를 탕감해 자주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자기 아들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304-155, 1999.10.10)

32 제4차 아담권이 되어야 한다고 1998년에 선포했습니다. 쌍십절에 제4차 아담권 고개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은 영광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10월은 4일이 아버님이 서대문형무소에서 해방된 날이요, 14일은 흥남감옥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내가 천주적 4·4절을 선포했으니 우루과이에서 천주적 4·4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위기대 이상이 연결되면 사탄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정비해서 이제 제4차 아담권시대, 탕감이 필요 없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탕감복귀가 아니고 자연복귀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04-160, 1999.10.10)

총천주축복 해방일 선포
(1999.10.23, 미국 이스트가든)

33 1999년 10월 23일은 지난 10월 10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쌍십절을 선포하고 열흘을 지내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총천주축복 해방일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10, 10, 10을 더한 30에 3수를 더한 33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기 때문에 전체 섭리관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부모님이 발표한 모든 내용을 종결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발표한 것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거쳐 제1차, 제2차, 제3차 아담을 통해서 영적 육적으로 갈라진 것을 다시 찾아 40년 만에 실체권 전체를 탕감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실체, 타락이 없는 영원한 승리권에 설 수 있는 아담 승리의 판도를 이 땅 위에 세워야 하는 시대가 이미 발표한 제4차 아담권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4차 아담권 시대에는 세계의 축복받은 모든 통일교회 교인들을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축복받은 자리에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자리에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자리에 서서 1차, 2차, 3차 아담권의 모든 승리권 위에서 그것을 상속받음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절대신앙·절대

사랑·절대복종의 심정권을 중심삼고 천지부모와 하나된 그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을 청산지어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창조주로부터 실체권 전체가 탄식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권의 탕감조건을 넘어서서 만물 해방의 주인, 자녀 해방의 주인, 그다음에는 아담 해와 가정 해방의 주인, 하나님 해방의 주인 자리를 결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날을 설정해서 청산지어야 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총생축헌납제를 탕감조건으로 가정을 중심삼고 해 나왔고, 쌍십절을 중심삼고는 축복을 전수해 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304-169, 1999.10.23) p. 1416

34 만물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물 탄식권을 해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방적 은사권 내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해방권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이 아직까지 조건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탕감의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 부모님이 승리한 것을 부여해 줌으로써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민족·국가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국가기준에서 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밟아 치우고 하늘의 전권행사로서 연결시킬 수 있는 탕감조건을 다 세웠습니다. 코디악에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날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선**언을 중심삼고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 23일을 기해서 4대 심정권 일치, 만물 해방, 자녀 해방, 부부 해방, 천지부모 해방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이런 승리의 기준을 중심삼고 믿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만물의 해방, 절대 자녀의 해방, 절대 부부의 해방, 절대 자녀의 해방, 절대 부부의 해방, 절대 가정·일족·일국의 해방권이 벌어짐으로써 사탄세계는 끝장을 맞을 날이 머지않다는 것입니다. (304-172, 1999.10.23) p. 1417

35 1999년 10월 23일은 만물 해방과 자녀 해방, 부부 해방, 참부모의 지상권 해방, 천상세계의 창조 해방권을 선포하여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구구절과 삼십절을 선포한 기반 위에 참부모 대신 하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고, 하늘의 모든 개척적인 노정을 건의할 수 있는 기준까지 되어서 상속을 모두 받았사옵니다. 그럼으로써 참부모의 승리권을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이양하는 식으로서 사탄권 전체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하늘의 세계로 만물·자녀·부부·부모권 전체가 영광의 출발을 선언할 수 있는 새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 모든 식을 거쳐 만물 해방, 자녀 해방, 부부 해방, 참부모 해방, 천상의 창조주 천주부모 해방과 더불어 천상·지상 통일적 당신의 이상적 사랑의 주권세계로서 전진을 다짐할 수 있게끔 참부모, 여호와의 참천지 부모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하오니, 일체 승리의 일방통행으로 당신의 사랑의 주권세계로 전진할지어다! (304-174, 1999.10.23)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 완수 선포
(1999.12.26, 미국 벨베디아수련소)

36 '섭리관적 책임 완수'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완수하게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섭리라는 원치않는 일을 해왔습니다. 본래 구원섭리가 없이 섭리관적 완성을 위해서 창조이상을 세웠던 것인데, 우리 인류시조가 사탄의 침입으로 별개의 세계를 만듦으로써 섭리사적 책임 분야는 없어지고 구원섭리관적 책임 소명을 지금까지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313-262, 1999.12.26)

37 지금까지 역사는 섭리관적인 역사가 아니고 구원섭리관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거짓된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전체는 아들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관적 모든 역사는 해독할 수 있고 완전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313-262, 1999.12.26) p. 1418

38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 완수'라고 할 때 그 책임 완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섭리관의 모든 것을 전부 해명했고, 미지의 사실을 밝혔고, 그 미지의 내용이 가져온 모든 것을 청산하고 창조를 시작하던 본연의 기준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님이 그런 일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하나님과 창조이상으로 세워 나오던 아들딸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지상세계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를 중심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천국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이론적 내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313-263, 1999.12.26)

39 하나님의 섭리관적 모든 이상이 완성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움직이게 될 경우 아들 된 인간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아들을 위한 상징적 형상체인 만물도 전부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영원한 세계까지도 완전한 실체로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면 모든 것은 완전·완성한 것으로서 완전·완성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체권, 하나의 이상적인 판국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되었다면 그 이하의 모든 만물은 인간을 양육하고 인간을 보전하고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 만물창조의 세계입니다. (313-263, 1999.12.26)

40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 완수는 무엇이냐? 우주 자연의 결혼이 우리 인간의 결혼과 하늘나라의 결혼과 통할 수 있다는 그 관과 책임에 대해 가르쳐 준 사람이 부모님이고, 그 책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의 주류는 절대·유일·영원·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연결되는 존재도 자동적으로 절대·유일·영원·불변의 존재가 됩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313-273, 1999.12.26) p. 1418

제4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참어머님 세계순회

1절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여성시대 선포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참어머님의 첫 공개강연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가 1991년 9월 17일 일본 도쿄베이호텔 NK홀에서 7천여 명의 일본 여성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날 '아시아와 세계를 구원하는 참사랑운동'이라는 주제로 공개강연을 처음으로 하셨다. 그리고 아시아평화여성연합 한국지부 창설대회가 1991년 10월 31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여성 지도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를 통해 한국의 여성들과 일본의 여성들은 하나가 되어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참아버님께서는 아담 국가인 한국과 해와국가인 일본의 여성들이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세계복귀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p. 1419)

1 1991년 9월 17일부터 일본에서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서울에서 아시아평화여성연합 한국 창설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까지 끝냈습니다. 그런 대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중심삼고 5년 동안이나 준비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1만 명을 대회에 참석시킬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일 동안에 1만5천 명을 거뜬히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개월 만에 거행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에 16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강연함으로써 아버님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둘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뒤에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려 주어야 됩니다.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탕감복귀 과정에서 여자의 한이 많습니다. (229-312, 1992.04.13) p. 1419

2 한국의 여성들과 일본의 여성들을 연결시켜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통**해서 일본 여자들과 한국 여자들이 하나되었습니다. 국가를 넘어 가인 아벨 기준을 어머니를 중심삼고 3차 만에 세운 것입니다. 1992년 4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에도 일본에서 5천 명 이상이 와서 참석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큰 해와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복귀된 큰 해와를 중심삼고 하나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가인 아벨의 입장에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가인 자리에서 하나됨으로써 두 나라의 여성이 통일권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삼고 어머니 될 수 있는 대표적 기준에 섰기 때문에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뒤따라오던 해와가 아버님 옆에 서게 되어 부모권이 세워진 것입니다. (229-312, 1992.04.13) p. 1420

3 1991년 9월 알래스카에 있을 때입니다. 일본이 해와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을 규합하고 한국 여성들과 하나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길이 없었습니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일본에 가서 7천 명 대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세상에 벼락 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일본의 총리 부인까지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연설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시아평화여성연합 대회까지 한 것입니다. 한국이 주체국이니만큼 아시아 평화여성 국가가 아니라 세계평화여성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232-196, 1992.07.06)

4 세계적인 때가 오면 어머님은 대중 앞에서 아버님 대신 강연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해와 국가를 동화시키려면 한국어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일본어 공부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님이 유창한 일본어를 말하게 되면 일본이 납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아버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258-330, 1994.03.20)

5 어머님이 최초로 대중 앞에 서게 된 것은 일본 도쿄베이호텔 NK홀에서 열린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의 7천 명 대회 때였습니다. 처음인데도 당당한 자세로 해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아버님을 따라서 국제회의에 많이 참석하면서 많은 유명 인사들 앞에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중이 감화하도록 음조를 높이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연설을 하자 대중은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매끄럽고 솔직한 모습으로 풀어 가는 내용을 듣고 감화되는 것입니다. (257-288, 1994.03.16) p. 1421

6 어머니가 처음으로 단상에 선 것은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 때였습니다. 그때에 7천 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일본 여자들 가운데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단상에 서서 한번 둘러보고 청중을 전부 파악해서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쿄돔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연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본말로 연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15일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일본 청중 앞에 나서서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려고 생각하면 남자라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로서 5만 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머니도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쿄돔의 5만 명 대회가 대성공이었습니다. (328-211, 2000.08.03)

7 어머니가 일본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40개국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장자권인 미국에서 승패를 결정짓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페인어로 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언어로 하라고 하더라도 4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328-212, 2000.08.03)

8 일본 여성들을 한국 여성들과 하나로 묶어서 어머님과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귀입니다. 아버님은 남성으로서 장남과 차남을 복귀하고, 그와 동시에 어머님은 여성을 중심으로 장녀와 차녀를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인 장자를 복귀하는 것과 같은 역사과정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님으로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장자권이 복귀됐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장자권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어머님이 복귀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한국 여성을 맺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대승리를 한 기반 위에서 해와의 승리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24-092, 1991.11.23)

9 앞으로 여성시대가 옵니다. 여성시대가 오니만큼 부인들을 동원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담 국가 앞에 해와국가로 택한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본의 모든 여성들을 묶어야 됩니다. 외적 여성, 내적 여성을 완전히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여자들을 제주도 수련소로 불러서 그동안 미비했던 것을 전부 지시하여 일본의 한 현에 100명씩 여자를 배치했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이니 섬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기에 한국 섬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기에 한국 섬을 통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머니가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놓아서 일본 여성들을 통일교회 여성들이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야단났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면 수용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수용 태세를 갖추면 갖출수록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이 빨리 하나되는 것입니다. (222-218, 1991.11.03)

10 여성연합운동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폭발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불을 던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여운이 영원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진만 봐도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입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에서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가슴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듯이 하늘의 사랑으로 인연된 말씀을 듣고 감동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사진만 봐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성현의 가르침이 그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심정적 인연을 중심삼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역사를 초월해서 언제나 그 가치가 연결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소생의 힘이 같이하는 것입니다. (237-051, 1992.11.10)

11 일본을 해와 국가라고 한다면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아벨의 자리에 섭니다. 일본은 가인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전통적인 정신을 일본에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와는 16세 때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애국심을 가진 동정(童貞)의 여자,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전통적인 정신을 가진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의 정신을 일본 여자들이 상속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람을 보내어 아무도 모르게 유관순 선양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일본 여자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전통적인 정신을 접붙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가서 일본 여자들에게 접붙이면 일본이 한국과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91년 9월에 어머님을 일본에 보내서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229-150, 1992.04.11)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과 여성해방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1992년 4월 10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와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서울대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여성시대 도래'를 선포하셨다. 세계 72개국 여성대표 및 전국 여성 16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설대회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에 참어머니께서 추대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한학자 총재는 본인과 함께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한 전 세계 여성의 대표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남성들이 주도했던 전쟁과 폭력, 억압과 착취, 그리고 범죄의 세계를 종결짓고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유가 넘치는 이상 세계를 실현할 참된 일꾼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여성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세계여성시대 도래 선포와 함께 세계를 순회하면서 지도자들을 격려하시고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하셨다.

12 역사적인 4천년의 모든 것을 정비해서 세계적인 개인의 원수, 세계적인

가정의 원수, 세계적인 민족의 원수, 세계적인 국가의 원수를 다 굴복시키고 돌아와서 남북통일과 하나님의 해방을 주장하는 때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통일천하를 이루어야 했던 것을 40년 동안 탕감해 승리의 패권을 다시 잡을 날을 맞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해와 종교, 신부 종교인데 신부의 사명을 못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못한 것을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의 세계평화여성연합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7개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수나라들까지 통일권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잃어버려서 실패했기 때문에 땜질을 해야 됩니다. 탕감해야 됩니다. 광복 이후에 영국·미국·프랑스가 아버님을 모시지 못하여 신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7개국을 위해서 아버님이 4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7개월 동안 어머니를 세워서 2차대전 직후의 통일왕국으로 진전하던 기반을 통일교회로 대신하게 하고, 이 세상을 지도하는 모든 대표자를 대신해서 승리적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권으로 승리적인 출전을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1992년에 세운 것입니다. (239-242, 1992.11.25) p. 1424

13 한국이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한국 여성은 장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여성은 차녀 입장입니다. 이들이 하나돼야 하는데 참어머니가 세계적인 어머니 자리에 서기 때문에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축복가정 여성들이 합동작전을 하여 일체가 된 기반에서 어머니가 아담국가, 세계 국가의 여성 대표로서 가인 아벨, 주체 대상권을 이루었고 재창조역사 과정의 플러스 마이너스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30-346, 1992.05.10)

14 어머니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성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여성연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어머니로서 아들딸을 교육해야 됩니다. 세계평화통일당은 교육할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을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딸을 교육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되어 가정의 주인 되는 남자들, 즉 천사장 입장인 남자들

을 아담의 자리에 세우고 그들이 사탄세계의 천사장 입장인 세상 사람들을 교육하도록 해야 됩니다. (243-153, 1993.01.03)

15 세계평화여성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여자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가정 기반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확대된 자리가 세계 인류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중심은 가정입니다.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가정적 메시아 기반은 소생, 종족적 메시아는 장성, 국가적 메시아는 완성, 이렇게 횡적으로 세 자리입니다. 이 모두를 연결해야 됩니다. 횡적으로 이룬 이 모든 것을 종적으로 이어받아서 세계적 기반을 쌓아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7개국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횡적으로 해와의 기반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기반 위에서 참부모를 선포한 것입니다. (248-127, 1993.08.01) p. 1425

16 참부모 기준을 중심삼고 이제 하늘나라의 세계적 왕권판도를 만들어야 세계의 모든 종족권 국가기준의 새로운 족속들이 세계 판도를 중심삼고 북한의 김일성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남북한 국민을 중심삼고 참부모와 거짓 부모의 자리가 비로소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시대에 이것을 빨리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1991년부터 그런 섭리를 해서 1992년 4월 10일 세계 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함으로써 어머니를 중심삼고 아담 국가와 해와 국가가 완전히 하나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승리적 해와가 나오지 않다가 승리적 해와가 나오게 되었으니 사탄세계, 타락한 세계는 없어져야 됩니다. (230-286, 1992.05.08)

17 1992년 4월 10일에 우리가 소망하던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교회 역사 이래 봄이 찾아왔습니다. 1992년 봄은 통일교회의 봄입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아버님이 가는 데에 따라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담이 해와를 그냥 따라가다가 망했으니 아담이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가 이제는 세계에서 자기 자리에 돌아와 환고향해서 행차 준비를 갖추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님 혼자 싸웠지만 이제는 고향 문턱에 들어와서 자기 상대를 맞아 행차 준비를 해서 대열을 갖추어야 되겠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세계 여성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29-202, 1992.04.12)

18 1945년부터 7년 기간을 거쳐 1952년에 통일세계가 완성될 것이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에 다시 그것을 이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부문화권인 기독교문화권이 신랑과 하나 못 되었기 때문에 7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완전히 하나되어서 가정으로부터 사회,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성한 아담을 모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에 승리한 아담을 세워서 해와가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 판도에서 잃어버렸던 전부를 청산함으로써 세계대전 이후의 통일적 천국이념을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해방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54-286, 1994.02.16) p. 1426

19 1992년은 어머니의 해였습니다. 전 세계의 여성을 해방한 것입니다. 1992년 4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72개국의 여성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세계 여자들을 해방시키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방향은 어머니 뒤를 따르는 길,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색을 어머니와 같은 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중심 뿌리, 중심 줄기, 중심 싹입니다. 세계의 여성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평화여성연합이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여성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관이 여자 편을 연결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48-126, 1993.08.01)

20 세상 가정의 여자들을 중심삼고 배후의 가지각색의 풍파를 내가 헤쳐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동생처럼 올바로 지도해야 됩니다. 오빠의 자리에서 누이동생과 같이 지도하고,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와 같이 지도하고, 아버지 자리에서 딸과 같이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줘서 대등한 자리에 서서 여성해방을 선포한 때가 1992년 4월 10일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 여성해방을 선포했다는 것은 통일교회에서 40년간의 핍박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세계의 핍박, 가정적 세계의 핍박, 종족적 세계의 핍박, 민족적 세계의 핍박, 국가적 세계의 핍박, 세계적인 핍박까지 핍박하는 환경을 다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기독교문화권이 하지 못하던 것을,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기독교 문화권을 대표한

세례 요한적 판도를 재편성했던 것입니다. (245-137, 1993.02.28)

2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년 만에 이뤄야 할 것을 40년 연장하여 1992년에 참부모님이 해방권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버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반대가 없어지고 해방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어머니 아버지가 만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자유세계를 대표한 미국이 신부 교회를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때와 같은 자유로운 환경이 재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개를 다 넘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버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계적으로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의 담이 없어지고 사탄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횡적으로 설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여성해방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43-218, 1993.01.10) p. 1427

22 1992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참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신약시대에 참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것을 좌익과 우익을 품을 수 있는 승리적 패권을 쥐고 참어머니가 등장하는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성해방을 선포함으로써 1992년 4월 10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통해 참어머니가 등장해 7개국이 한국 여성과 하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만으로 16만 명을 모은다고 하니까 모두 꿈같은 얘기로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여자라는 여자는 전부 동원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동원되었습니다.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이 탄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6천년 한의 고개를 넘어서서 비로소 6천년 만에 여자의 통일적 평균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해방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245-140, 1993.02.28)

23 여성해방시대가 선포되기 전까지 어머니는 아버님을 중심삼고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님과 하나되어 나오기 때문에 아버님의 승리는 어머님의 승리를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탄세계의 최후 절정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세계를 넘을 수 있는 때를 맞이해서 비로소 해방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참어머니가 참아버지와 대등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는 횡적으로 아버지 뒤를 따라왔지만

비로소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 평면적으로 같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여성해방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2-235, 1992.07.09) p. 1428

24 어머니를 앞에 내세움으로써 해와가 복귀되고 천사장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엄청난 운세가 어머니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천사장은 참부모의 혈육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낳아 줘야 됩니다. 낳아 주는 데는 어머니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분신으로서 전 세계여성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가 여성시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231-310, 1992.06.21)

25 어머니는 천사장인 남성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성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삼천리반도에 여성의 바람, 태풍을 일으켜 남성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중심삼고 세계의 국가들을 하나로 엮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됩니다. 이제 여성을 내세울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하늘편 해와의 말을 들음으로써 복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236-019, 1992.11.02)

26 세계적 여성시대를 선포함과 동시에 어머니를 내세워서 비로소 역사적인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하늘땅, 지옥에까지 다라려 있던 혹을 전부 잘라 버리고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와서 세계적인 혹을 지옥에까지 붙여 놓은 것을 참부모가 깨끗이 청산하고 모든 만민의 가정을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가정과 같은 입장에 세워서 참부모님이 접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승리한 조건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233-189, 1992.08.01)

27 1952년부터 뜻을 이루어야 했지만 그것을 못 이루면서 40년 연장되어 1992년에 모든 것을 청산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시아로부터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중심삼고 해와권을 인수받아야 됩니다. 여자로 말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언니의 자리에 있습니다. 장녀권을 복귀하려면 해와 나라로부터 인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중심삼고 하나를 만들게 되면 세계가 반대할 수

있는 환경권을 어머니가 다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미국이 반대할 수 없고 소련이 반대할 수 없고 김일성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판도를 전부 수습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삼고 어머니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기독교가 2천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을 탕감복귀해서 우익과 좌익, 이슬람권을 수습했습니다. 이것을 1992년 4월 10일 어머니를 중심삼고 연결시켜 나왔습니다. 기독교문화권이 통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문화권이 신부문화권이니만큼 어머니의 등장과 더불어 4대 문화권이 한데 연결될 수 있는 조건적인 기반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1992년 4월 10일 이슬람 8개국 대표와 일본·미국·한국·유럽 대표의 세계기성가정 축복결혼식입니다. 이 기성축복을 통해 연결하여 그 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공산권, 중국까지 참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미국·프랑스, 해와 국가인 가인, 아벨 국가를 중심삼고 하나된 기반을 이어받을 수 있고 신부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서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중심삼고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독교문화권을 대표한 신부권을 전부 해방하여 세계평화여성연합으로 규합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분신과 같이 세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들에게도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미국, 유럽, 대양주, 러시아에까지 여성의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243-1993.01.28) p. 1429

28 1992년 여성해방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연설문을 읽을 때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잔치에 내가 초대받아서 휘호를 썼고, 남편의 자리에 서서 후원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세계여성시대 도래'라는 휘호를 써 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비로소 세계무대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120개 국가 순회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대회 때마다 어머니가 고생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84-048, 2005.01.20) p. 1429

2절 참어머님의 세계순회

한국·일본 대회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 21개 시도 대회가 1992년 5월 11일 인천을 시작으로 6월 2일까지 21개 도시에서 열렸으며, 이어 전국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전국 시·군·구 대회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40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참어머님께서는 대회에

서 '이상세계의 주역이 될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셨다. 이어서 1992년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본 10개 주요 도시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개최하셨다. (p. 1430)

1 나는 70평생 기반을 닦아 나왔습니다. 내가 닦은 그 모든 것을 7개월 동안에 어머님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닦은 기반을 여성해방과 더불어 어머님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에 닦은 실적을 7개월 동안에 전수해 준다는 것입니다. 1992년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면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가 끝납니다. 모든 여성을 해방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239-201, 1992.11.25) p. 1430

2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한지 한 달 만인 5월 11일부터 세계평화여성연합 전국 21개 시도 대회를 하고 있는데, 21개 도시의 체육관이라는 체육관은 전부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농번기인데 시골에 가서 누구를 망신시키려고 저러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축복가정 열 가정이 1만7천 명을 모든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서 해줬습니다. 밭갈이를 하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 봄철입니다. 이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씨앗을 다 뿌려 놓았습니다. 지금은 문전옥토에 씨앗을 뿌려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산꼭대기나 골짜기에 있는 논밭에도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뙈기라도 땅이 있으면 거기에도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231-128, 1992.06.02)

3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지금까지 21개 지역에서 개최했습니다. 시·군·구 250곳 가운데서 어머니가 40곳에서 대회를 합니다. 어머니를 중심삼고 40일 동안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40개 도시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면 나머지 도시들은 여러분이 죽을힘을 다해서 성공시켜야 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그냥 구해지지 않습니다. 구할 수 있게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231-128, 1992.06.02)

4 어머니는 천사장인 남성들의 눈에는 미의 대상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천사장이 해와를 따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반대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21개 도시를 포함하여 60여 도시

를 순회하게 될 때 남자들 중에 어머니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환영하는 입장에 섰다면 하늘 편의 천사장, 반대하지 않는 천사장권 환경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아주 훌륭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에 서서는 서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가 됐다는 것은 어머니가 전 세계에 여성대표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영계에 있는 모든 여성과 지상에 있는 모든 여성이 어머니를 여왕님으로 모시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31-335, 1992.07.01) p. 1431

5 하나님이 '여성해방운동을 하라.'고 해서 아버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집에 들어오니까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다보니 12시20분이 되었습니다. 고단한데도 그 시간에 출발해서 대회가 열리는 곳에 새벽 3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종이 가는 길이지 주인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가도 넉넉할 텐데 왜 밤중에 갔느냐? 차 사고가 나서 굴러떨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익이 생긴다고 그렇게 합니까? 세계의 남성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아내를 모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자들이 자리 잡아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32-055, 1992.07.01)

6 1992년 9월 24일 일본 도쿄돔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할 때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일본 복판으로 들어가서 일본말로 한다고 하니까 식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일본말을 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발음이 아주 또렷하더라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줄을 읽고 나니까 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가 틀릴까, 어디가 틀릴까?'라고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읽어 나갈 때마다 전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의 심정이 되어서 강연을 따라 나와 보니 '야, 잘했다!'라는 탄복의 소리가 나오고,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회였습니다. 그다음에 10개 도시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이것이 감동이었습니다. (238-345, 1992.11.22)

7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에서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일본말로 연설을 하고 영어로 연설을 했겠습니까? 참부모가 아들딸과 통하려면 일본말이 아니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아들딸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아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아가 어머니를 찾는 격이 됩니다. 고아가 되어서 도적에게 끌려가서 그 세계에 물이 들었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본말로 강연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 편에서 볼 때 일본 국민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고아가 된 아들딸을 모르는 것을 어머니가 일본말을 배워서라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연의 어머니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거짓된 어머니라면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말을 배워서라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부모사랑의 심정권입니다. (239-116, 1992.11.24) p. 1432

8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일본 도쿄돔 대회에서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의 창립 대표가 나와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특기사항은 무엇이냐?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가는 길을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의 텔레비전방송으로 전해집니다. 자기 나라만 세계에서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연합 대회는 세계 각 나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최고의 선진국가에서 여성연합운동을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주목을 한 것입니다. 당을 가진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선거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여성연합과 같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연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대회 소식이 AP통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육대주에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237-079, 1992.11.11)

미국·유럽·아시아·대양주 대회

참어머님께서는 1992년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미국 8대 도시와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8개 도시, 11월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11월 29일 호주 시드니, 12월 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12월 8일 필리핀 마닐라,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주재하셨다. 미국 대회부터는 '세계평화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셨다.

9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미국·프랑스가 아버님을 모셔서 기독교문화권이 신부로서 전 세계 통일권을 이루어야 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탕감해서 이 고개를 넘어서 신부권 되는 기독교문화권을 다시

접붙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92년 1년 동안에 어머님이 세계 113개 곳에서 대강연회를 한 것입니다. 접붙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탕감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같이 서는 것입니다. 같이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뒤로 돌아서 세계를 넘고 국가를 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에덴동산에서 왕래할 수 있었던 기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고향을 돌아가야 됩니다. (244-310, 1993.03.01)

10 어머니가 일본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한 것을 미국의 주 책임자들이 듣고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어머니가 순회강연했던 것을 미국의 주 책임자와 미국자유협회(AFC)의 책임자들이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미국 50개 주 지방조직에서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머니가 순회한 것은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다 보고 들어야 합니다. 아담 국가의 전통은 해와 국가가 이어받아야 되고, 해와 국가의 전통은 천사장 국가가 이어 받아야 되고, 천사장 국가의 전통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련회가 된 것입니다. (236-036, 1992.11.02)

11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 워싱턴DC 대회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크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서로가 표창패를 주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대회에서는 '세계의 어머니'라는 상패까지 수여했습니다. 그들은 원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전 여성을 대표한 기구의 회장이 나와서 '세계의 어머니' 상패를 주고 일대 연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38-347, 1992.11.22)

12 1992년 11월부터 유럽 4개국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강연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아버님은 같이 안 갑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모실 수 있게 끔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강연까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부간에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싸움을 하려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지만, 남자들이 가게 되면 투쟁이 벌어져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자를 내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계는 사랑을 모두(冒頭)로 하기 때문에 여자를 **안**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236-256, 1992.11.08) p. 1434

13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미국의 8개 도시에서 합니다. 미국이 서구사회의 주체라면 유럽은 상대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니 4,5곳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몇 개 나라라도 한 나라로 보아야 합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8개 주에서 했으면 유럽도 그 상대에 맞춰 8개 도시에서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소련까지도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원수 나라들이 합해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다 한 자리에서 조국광복의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원수 세계로 투쟁 역사를 엮어 나왔던 모든 것이 새로운 전통을 세움으로써 하늘이 군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6-121, 1992.11.04)

14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 강연회를 하면서 어머니가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대회에서는 4개의 단체로부터 큰 상패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중심삼고 여자들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한 줄에 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삼고 신부 교회인 유대교가 하나되지 못한 것을 오늘날 세계도상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238-018, 1992.11.19)

15 원래는 어머니를 중심삼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장자권을 복귀하게 되면 독일은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어머니가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와 국가인 영국을 중심삼고 미국과 프랑스는 가인 아벨인데, 이들 나라가 참아버지를 모시지 못함으로써 세계적인 승리의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섭리상의 네 나라에서 왜 대회를 해야 되느냐? 2차대전 때 추축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을 축복하면 이탈리아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탈리아를 빼놓으면 배후의 모든 것이 묶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정지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가 유럽까지 순회하는 것입니다. 섭리사에서 어머니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로서 복귀의 책임을 진 입장에서 세계적인 청산을 해야 될 기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235-340, 1992.10.26)

16 개인 전도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축복의 논리를 중심삼고 가정을 돌려놓아야 됩니다. 해와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사탄세계가 되었으니 탕감복귀 원칙에 따라 이것을 반대로 돌리려면 어머니가 선두에 서서 여자를 세계

적으로 편성해 하나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통해서 한국을 휩쓸고,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앞으로 그 주변국가와 육대주의 중요한 도시를 여성을 중심삼고 휩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를 제창한 여자는 어머니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딸은 어머니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사탄세계는 180도 돌아서서 어머니를 중심삼고 가는 것입니다. (238-076, 1992.11.19) p. 1435

17 어머니가 유럽 대회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입을 옷들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한 벌도 없었습니다. 식구들에게 모두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결혼반지까지도 누구에게 줬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238-153, 1992.11.22)

18 세계평화여성연합 모스크바 대회를 하라고 일주일 전에 지시한 사람도, 황무지 같은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며 가는 어머니도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스크바가 어떠한 곳입니까? 일주일을 남겨 놓고 모스크바 대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사입니다. 러시아를 가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주일 이내에 다 해 버렸습니다. (239-319, 1992.12.09)

19 나 이상 러시아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러시아 고위층의 아들딸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교육 시켜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부모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밀라노 대회가 끝날 때 모스크바 대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지시했는데, 그 대회 장소가 준비 안 되어서 대회 바로 전날 16시간 전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16시간 동안에 팸플릿을 만들고 강당을 빌리고 무대를 설치해서 대회를 끝낸 것입니다.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회장에 7천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3천 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성공적으로 대회를 끝낸 것입니다. (243-139, 1993.01.03)

20 어머니가 세계평화여성연합 중국 대회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공산체제인 중국에서 대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이 허락하지를 않고 군부가 허락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당에서 이 대회의 원고를 검열하는 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대회에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얘기했던 그 골자를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그것이 꿈이 아닌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41-141, 1992.12.20) p. 1436

21 어머니가 중국에 가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우리가 전부 소화하여 틀림없이 공산당 전당대회를 하는 인민대회당에 가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고 여성들, 영어를 할 줄 아는 여성들을 참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대회를 했고 중국에서도 대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에서도 대회를 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해야 됩니다. (241-027, 1992.12.19)

22 세계평화여성연합 중국 대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도 문제가 되고 당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곤란하다고 틀었는데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강연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민대회당에서 이런 강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강연문을 읽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국에 소문도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241-157, 1992.12.23)

23 등소평의 한 아들은 장애자로서 50만 중국 장애인협회의 회장입니다. 1992년 12월 23일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가 열리기 전날 그 사람의 직속 부하들이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여 환영회를 개최했는데 그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모두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중국의 전국부녀연합회에서 초청했습니다. 13억이 넘는 전체 인구의 반이 여기에 속해 있는 셈이니까 대단한 단체입니다. 부녀연합회는 40년이 됐다는데 지금이 한창 전성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배경도 대단합니다. 공산당은 주로 부책임자가 전체를 조정합니다. 그 초청만찬회에 부책임자가 나와서 어머니를 환영하는 등 초청만찬회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종교에 대해 모르는 입장에서 서로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무척 좋아져서 노래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대회에도 상당히 관심과 기대를 갖고 참석

했을 것입니다. (241-158, 1992.12.23) p. 1437

24 미국과 독일을 포함해 7개국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대회를 끝냈고, 이제 대양주에서까지 대회를 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가지 않더라도 대양주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함으로써 47년 전 기독교문화권이 신랑 앞에 책임 못했던 것을 신랑과 신부가 책임을 한 승리적인 기반을 중심삼고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유세계가 회생하는 것입니다. (239-307, 1992.12.09)

25 세계평화여성연합 필리핀 대회는 전국적인 규모였습니다. 기관 요원들과 필리핀의 중심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직 장관이나 현직 장관, 장관 부인 등도 7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전체가 움직인 대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여성연합의 대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각 나라 대회에 대해서 자기들의 대사관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연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239-297, 1992.12.09)

26 필리핀 대회 일정에 맞춰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가 마닐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몽시를 보았습니다. 아주 또렷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몽시 중에도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나이는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아기가 젖을 먹고 싶어하기에 젖을 먹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 몽시를 그냥 잊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천주교에서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현현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할 것이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이라며 천주교인들이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대회가 열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귀빈 중에 한 사람이 시내에 붙여 놓은 노랑 저고리를 입은 내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보고는 '이분이 마리아의 사명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40-099, 1992.12.10) p. 1437

3절 참어머님 책임 완수와 승리

참어머님 책임 완수

참아버님께서는 1990년 3월 27일 미국에서 거행된 제31회 참부모의 날 기념예배에서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시고 참어머님을 제2 교주로 발표하셨다. 이는 참어머님이 참아버님과 더불어 모든 섭리를 공동으로 이끌어 오면서 복귀섭리를 완성하는 데 승리하셨음을 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며, 참어머니로서 완성 실체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p. 1438)

1 제4차 아담권시대를 발표했는데, 가인과 아벨을 중심한 어머니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모든 전체를 접붙여 줘야 됩니다. 그것이 모자협조시대입니다. 모자협조시대에서 부자협조시대로 접붙여야만 부모님 가정을 따라서 축복받은 가정들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협조 부자협조를 해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지금까지 하늘 앞에 협조하지 못하고 반대했습니다. 나라를 밟고 넘어서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함으로써 세계를 넘고 천상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모자협조시대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승리한 기반 위에 부자협조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337-014, 2000.10.16) p. 1438

2 어머니가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내세우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움도 많이 느꼈겠지만 고개를 다 넘었습니다. 그것이 다 교재가 되었습니다. 또 내가 많은 대화를 했지만 참 어머님이 일본 집회를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원래 어머니가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얌전하면서도 대담한 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서슴지 않고 청중을 감싸서 묶어 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님 대신 제2 교주라고 이름을 붙여 줬는데 '그 이름을 괜히 붙여 준 것이 아니구나! 아버님이 잘 알아서 붙였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 해 걸릴 수 있는 기반을 한꺼번에 닦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머니 이상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219-268, 1991.10.11)

3 이제 아버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아버님이 70이 넘었으니까 후계자가 안 나오나?'라는 말은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있고 우리 아들딸들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들딸들은 통일교회 식구들보다 하나님의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위하는 데 선두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

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에 잘못되거나 원칙에 틀어지면 우리 가정회의를 통해서 새로이 결정해서 이것을 바꾸는 시스템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1 교주이고 어머니는 제2 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남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수평입니다. (201-127, 1990.03.27) p. 1439

4 지금까지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을 선포하여 2003년 7월 13일 탕감시대 종결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귀섭리의 모든 것이 완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육을 중심삼고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탕감시대 복귀를 통해 돌려드림으로써 어머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육을 중심삼은 일체적 창조이상이 지상과 천상에서 완결돼 부모의 성혼식과 입적식이 가능함으로써 지상세계도 성혼식과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창조이상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을 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어머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체를 써서 저나라에서 부모의 자리에 섬으로써 처음으로 부모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적 부모가 되고 참부모가 몸적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아들딸이 전부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414-271, 2003.08.04)

5 하나님은 초종교, 초정치, 초국가, 초NGO, 초세계의 하나의 나라를 이루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아담 완성자로 와서 잃어버렸던 해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적 기준에서 아담 가정이 실패하여 잃어버렸던 해와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세우게 됨으로써 가정 기반 위에 민족을 넘어 국가적 기반 위에서 승리의 패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이상으로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복귀하려는 모든 뜻이 이처럼 슬픈 어두운 세계로 굴러떨어졌지만, 홀로 밤중 가운데서도 종의 종 자리로부터 종의 자리,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직계자녀의 자리까지 거치고 어머니를 찾아 세워 부모의 자리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 아벨의 공산권과 민주세계를 수습하여 이것을 품고 본연의 아버지인 참**부**모 앞에 봉헌해 드려야 하는 것이 어머니, 해와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해와의 사명을 중심삼고 모든 민주세계의 자유 환경을 파탄시키는 사탄권 주권과 싸우면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 극복까지 했습니다. 세계적 한계선을 넘어 그렇게 극복함으로써 어머니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여 이 천지간에 승리한 어머니 완성의 실체를 갖추어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천일국을 개문하게 되었습니다. (404-290, 2003.02.06) p. 1440

참어머님 표창패 수여

참어머님께서는 1999년 5월 30일 세계 80개 도시에서 참가정세계화전진대회를 끝내시고 미국 벨베디아 성지에서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 축하 선포식'을 거행하셨다. 그리고 6월 14일 서울 한남국제연수원에서 제37회 참만물의 날 경배식을 마친 뒤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식'을 거행하셨다. 이는 참어머님께서 세계 80개 도시 순회강연을 승리함으로써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한 것을 선언하는 뜻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이날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 표창패를 참어머님께 수여하셨다. 이 표창패는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갖고 오셔서 1960년 성혼 이후 참된 자녀·부인·부모의 사명을 다하고 세계순회를 통해 만민에게 참부모님 생애 교본을 전수한 것에 대해 치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특명과 복귀섭리역사의 결실로 맺어진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탕감복귀의 고난의 노정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1960년 성혼하신 후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와 참부모님의 복귀성업이 영계와 육계에서 승리적으로 마무리되는 1999년 '참가정세계화전진대회'를 통해 세계 80곳에서 '참부모님께서 전수하는 생애의 교본'을 만민에게 전수하셨습니다. 본인은 창조본연의 아담이요 인류의 참된 아버지로서 귀하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 하늘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와 후손들에게 그 치적을 기리고저 본 패를 드립니다. (310-211, 1999.06.16)

7 아버님이 어머니를 표창했습니다. 또 통일교회가 표창해야 되고 창조주가 표창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다! 아버지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쪽에 아버님이 있었지만 왼쪽에 어머니를 설정했기 때문에 칠일절, 칠팔절, 칠구절, 칠십절을 중심삼고 해방의 시대로 넘어감으로써 7·10수를 중심삼고 탕감시대 종결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나타났었지만 실체 아버지의 상대로 어머님이 나타남으로써 실

체적 지상·천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실체부모, 하늘나라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완전한 여자와 완전한 남자가 일심·일체·일념이 되어 아들딸을 중심삼고 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완성됩니다. 완성하지 못한 가정은 저나라에 못 들어가니만큼 모진 수욕과 고난을 통해 메워야 될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로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414-279, 2003.08.04) p. 1441

8 어머니가 사탄세계의 최고 계층을 중심삼고 세계 80개 도시에서 참가정세계화전진대회 순회강연을 해서 승링의 패권을 갖고 돌아옴으로써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공인한 자리, 사탄이 공인한 자리, 인류가 공인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롯한 인류의 종교권을 넘어 승리의 판도권에 섰기 때문에 아담 앞에 실수한 해와가 복귀된 가치로서 같은 자리에 입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하늘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식'에서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대등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녀평등권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남녀평등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을 결속시켜서 남자들을 교육할 때가 왔습니다. (302-232, 1999.06.14)

9 어머님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참가정세계화전진대회를 개최한 것은 어머님의 책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대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늘이 역사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조건이 들어맞아서 후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참부모와 인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와서 승리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식입니다. (302-137, 1999.06.12)

10 1999년 6월 14일에 어머니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는 것은 뭐냐? 해와**들**이 3시대의 아담들을 다 희생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3시대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아버님과 대등한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위기대 완성, 삼대상목적 완성을 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는 성약시대의 완성을 의미하고, 성약시대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의 명령은 아담을 완성한 기준의 명령

이요, 예수님이 국가 이상을 이룬 그 기준 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종교권이 사탄세계인 외적 세계를 대해서 천주사적인 승리를 하여 세계권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재림주가 싸워 이겨서 그것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민족을 대신하고, 국가를 대신하고, 세계를 대신한 상대권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302-286, 1999.06.26) p. 1442

4절 일본 여성 16만 명 특별수련회와 자매결연

16만 명 특별수련회 의의

일본 여성 지도자 특별수련회가 1993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개최된 이후 1994년 11월 20일까지 미국 뉴욕 이스트가든과 한국 제주국제연수원, 경기도 구리시 중앙수련원 등지에서 16만 명의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특별수련회 기간에 일본 복귀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물론 어머니 나라로서 일본의 사명과 책임 등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다. 특히 제주국제연수원의 경우 1천 명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제25차 수련회에는 4천800명까지 참석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p. 1442)

1 부모님은 통일교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와 천주,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권이 사라져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워 버리려고 해도 하늘이 보호합니다. 그러니 점점 커져서 천주의 정상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그재그가 아니라 수직입니다. 40년 동안에 4천년의 역사를 복귀할 수 있는 실적 기반을 남기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입니다. 그것이 말만이 아닙니다. 그 기반이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했다고 해서 '참부모이니까 모두 절대복종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보다 하늘적이고 신비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던 신비적인 내용, 친척이나 한국 여자들에게

도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일본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라로서 세계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여성 지도자 특별수련회입니다. (255-147, 1994.03.10) p. 1443

2 일본 여성 지도자 특별수련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5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수련입니다. 보통 여성이 아니라 특별한 일본 여성입니다. 새로 온 사람들은 이런 표제를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왔는데 특별수련이라니?'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954년에 한국협회가 출발한 지 올해가 40년이 되는데, 그동안 대표적인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책도 출판해서 교육하도록 중심을 세웠지만 이렇게 일본 여성 5만 명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일본 역사에도 없었고 세계 역사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256-010, 1994.03.12)

3 영국에서는 구교와 신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 그와 똑같은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해와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질적인 두 아들딸이 있는데, 그것이 북한의 조총련과 남한의 민단입니다. 해와 국가 일본의 뱃속에 이질적인 쌍둥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 정부나 국민이 나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해와 국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쌍둥이를 낳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조총련과 민단을 하나 만드는 활동을 할 것을 제주도 수련회가 끝나기 이전에 지시했습니다. (255-159, 1994.03.10)

4 이제부터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국제적인 유대를 맺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정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대표한 여성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하나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은 장녀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차녀 입장으로서 장녀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 기간에 열사의 이름을 남긴 여자는 유관순밖에 없습니다. 한국 여성의 대표자가 유관순이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유관순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일본 전국에서 민단과 조총련이 합해야 됩니다. 해와 입장에 있는 다말의 뱃속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싸웠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되는 일본 여성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 언니와 동생이 복귀노정에서 어머니를 중심삼고 하나되어 나아가면 일방통행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일방통행입니다. 그렇게 하나되어 일본을 거느리고 아시아를 거느려서 세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소명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놀라운 시대에 동참하는 영광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231-090, 1992.05.31) p. 1444

5 일본에는 통일교회가 2만 개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한 사람은 막대한 수이지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비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흘러갔습니다. 하늘이 때에 맞춰서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일본의 생사지권을 좌우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간요원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놓쳐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손을 댄 것입니다. 남자들을 내세워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자들을 내세워서 남자들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구경꾼들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6만 명 교육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순리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역리적 입장에서 이 일

을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16만 명 교육입니다. (260-201, 1994.05.19)

6 일본 여성을 700명씩 알래스카 교육에 참가시키려고 했지만 비행기편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주도에 몇 만 명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 번에 2천 명씩 데려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비행기 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준비하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역사는 무정한 것입니다. 역사에 맞는 것만 남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맞는 것이 되려면 미리 확실히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9-059, 1993.10.08)

7 통일교회 일본 여성들이 제주도로 수련을 왔는데 아버님을 한 번도 못 만나 본 사람이 3분의 1,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구먼. 이웃 나라에 있으면서 내가 찾아가지 못하여 못 만났구나!'라고 했습니다. 스승의 명령에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철, 20년 이상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일해 왔을 이 사람들을 스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251-093, 1993.10.17) p. 1445

8 제주도에서 교육할 때 제일 많이 모인 것이 4천800명이었습니다. 거기 교육 장소는 260평 정도니까 600평 되는 구리 중앙수련소의 절반만합니다. 그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 장소에서 4천800명까지 수련했습니다. 그 장소는 고문장보다 더했습니다. 사람이 바쁘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게 해서 꽉 붙여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별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모릅니

다.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그런 교육을 한 번 더 받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때에는 층계나 어디나 전부가 침대였습니다. 침대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자면 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변소에까지도 슬리핑백을 가지고 들어가서 잘 수 있으면 호텔방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주도에 가야 된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사태 모양으로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련소를 만들어 교육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260-203, 1994.05.19)

한일 여성 자매결연

참부모님께서는 1993년 10월 6일부터 1994년 11월 20일까지 제주도와 구리에서 개최된 일본 여성 지도자 특별수련회에서 한일 양국의 교류와 섭리적 책임을 강조하셨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하나되어 아시아와 세계복귀를 위해 나설 것을 역설하시면서 자매결연을 통해 자매같이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한히 연결되어 있는 방대한 세계의 텍스트북으로서 틀과 공식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천주적인 인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다.

9 일본과 한국은 섭리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유럽을 보라는 것입니다.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연합(EU)이 되었습니다. 하나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그 기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 기간은 대변동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와서 감동을 받는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한국에 있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수택동 수련소에서 감동을 받으면 자기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통일교회 교인들은 아닙니다. 한국의 마을 마을에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을 통해서 연결된 여자를 비롯해 온갖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양에서부터 하나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매결연밖에 길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가 아시아와 더불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세계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255-280, 1994.03.11)

10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엮는 것이지만, 민간외교는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계에서 양방의 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문제보다 사상문제를 중심삼고 서로 교류하면 할수록 양방의 이익이 커집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교회가 하고 있는 자매결연은 사탄세계가 볼 때 비상한 문제의 사건입니다. (255-211, 1994.03.11)

11 일본과 한국을 자매관계로 묶게 되면 세계로 통하는 길이 연결됩니다. 이런 것은 누구든지 바라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뤄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단한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으로써 문화의 교류, 사상의 교류, 물질의 교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255-212, 1994.03.11)

12 일본 여성은 복귀된 동생이고 한국의 여성은 복귀된 언니입니다. 그러니 언니 입장인 여러분이 새로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일본 동생들에게 여러분이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아들과 딸을 장가보내고 시집보낼 데가 없습니다. 미리 자매결연을 해서 아들딸들이 아담 국가와 해와 국가 사람들끼리 축복받는 것이 복입니다. (253-302, 1994.01.30)

13 한일 양국은 수천년 동안 서로 떨어져서 비애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 비애의 역사를 종결시키기 위한 만남의 한순간을 하나님과 우주, 만물, 역사도 원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이상 찬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해야 됩니다. 세상 여자들이 처음에는 '자매결연은 혼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에게 득 될 것이 없다.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와서는 전부 흥분해서 서로 붙안고 난리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련을 몇 시간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세계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256-153, 1994.03.12)

14 일본 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을 갖춰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되어야 합니다.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 중에서 누가 앞에 서야 되느냐? 언니가 누구냐 하면 한국 여자입니다. 한국 여자가

언니 입장인데 옛날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수가 아닙니다. 동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집안 식구가 됐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여기에서도 빨리 거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20-119, 1991.10.16)

15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을 자매관계로 만드는데, 하나는 레ᄋᆞ이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누가 레아이고 누가 라헬이냐? 처음에 태어난 언니,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먼저 창립한 일본이 레아입니다. 라헬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복귀를 해야 됩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 가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레아는 라헬을 선두에 세워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되어야 합니다. 모자협조에 있어서 천하통일은 여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인 공식입니다. (224-193, 1991.11.24)

16 한국 여자는 일본 여자에 대해 언니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복귀시대에 세계 운세를 탄 해와권을 통해서 차자를 복귀함으로써 장자를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차녀 입장인 일본을 복귀해서 장녀 입장인 한국을 복귀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해와 국가의 대표로 서서 일본을 작은딸로 세워 장녀인 한국의 딸과 하나 만듦으로써 장녀권 언니와 차녀권 동생을 하나님 품에 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일본 식구와 한국 식구가 그런 교차적 입장에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 형제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6천년 만에 갈라졌던 패가 만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보다 이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232-032, 1992.07.01) p. 1448

17 빨리 여성연합을 결성해서 북한까지 가담시키려고 합니다. 북한 여성들까지 가담시켜 일본에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500명, 북한에서 500명이 일본에 가서 여성들의 통합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한 가정씩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 가정에서 옷이나 생활필수품 등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북한에 나눠 주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한국에 구호물자를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을 해서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일본에 그러한 100만 명의 기반이 있다면 북한의 100만 여성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만 여성이 연결되면 한 여성을 중심으로 네 식구만 있다고 해도 400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너덧번만 계속하게 되면 2천만 명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을 일본

에서 해야 됩니다. (219-271, 1991.10.11)

18 남한에 있는 2천만 여자들이 내 말을 들으면 북한 2천만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을 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올라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남한의 두 사람이 북한의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쌀을 갖다 먹이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다 남은 옷이라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굶주려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236-217, 1992.11.08)

19 부모님이 콘도미니엄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등 4개국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같이하면서 사는 전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3년 동안 같이 살면 자기들은 말을 못하지만 아들딸들은 3년 이내에 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으면 초등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비디오테이프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강와 국가끼리 자매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축복가정들이 연결되면 언제든지 세계를 여행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문제는 문화배경과 언어입니다.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는 것은 평화세계를 만드는 데 절대 필요한 조건입니다. (252-199, 1993.12.30) p. 1448

제13편 복귀섭리 완결과 천일국 정착

|차례|

제1장 하나님 왕권 즉위식과 해방권 대관식

1절 하나님왕권즉위식 ····· 1452
2절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과 축복가정왕 즉위식 ··· 1461
3절 쌍합십승일과 후천시대 개막 ····· 1468
4절 천주평화의 왕 즉위식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 1476
5절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 1485

제2장 천일국 기원절과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

1절 천일국시대 개막과 기원절 ····· 1491
2절 참아버님의 성화와 전통 상속 ····· 1499

3절 천일국 3대 경전 편찬 ····· 1506
4절 천일국 헌법 제정 ····· 1509

제3장 참부모님의 생활철학과 공적 생활

1절 참부모님 생활철학 ····· 1525
2절 참부모님 공적 생활과 정성 ····· 1534
3절 참부모님 건강생활 ····· 1543

제4장 천일국 정착과 우리이 갈 길

1절 초창기 신앙 회복과 환경창조 ····· 1548
2절 축복가정의 책임과 미래 지도자 양성 ····· 1557
3절 천일국 국민의 생활 ····· 1570
4절 천일국 정착의 길 ····· 1579

제13편 복귀섭리 완결과 천일국 정착

천주평화통일국, 곧 천일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실현된 지상과 천상의 천국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천국을 이루지 못하신 채 한스러운 복귀섭리를 이끌어 오셨다. 죄악의 역사를 청산짓기 위한 복귀섭리는 중심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 독생자인 예수님께서도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재림을 약속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 성사는 또다시 미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참부모님께서 1960년 어린양 혼인잔치, 즉 성혼식을 통해 이 땅에 현현하셔서 구원섭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셨다. 특히 새로운 진리를 전 세계에 선포하시고 구원섭리의 최종목표인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상속을 위해 축복결혼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마침내 형언할 수 없는 탕감과 정성으로 2001년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통해 하나님과 인류 해방의 기틀을 닦으셨다. 그리고 기원절까지 13년 동안 참부모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촌음을 아껴 가며 전력투구하셔서 후천시대와 천력을 선포하시고 지상 천정궁을 봉헌하여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안착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만세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로써 메시아·참부모·평화의 왕의 복귀노정을 승리하신 참부모님은 금혼식을 맞이한 2009년에 온 누리에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온 천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올리셨다.

참부모님께서 2010년 천력 5월 8일과 15일에 하나님의 실체대상으로서 양위분의 최종일체를 선언하신 가운데 참아버님께서는 모든 섭리적 사명을 완성·완결·완료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뒤 2012년 천력 7월 17일, 기원절을 약 6개월 앞두고 성화하셨다. 그리고 참어머님께서는 2013년 천력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이어 참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정착을 위해 참아버님과 일심·일체·일념·일화·일핵의 자리에서 천일국 3대 경전 편찬과 천일국 헌법 제정,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이렇듯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지상과 천상에서 천일국을 정착시키는 대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p. 1451)

제1장 하나님 왕권 즉위식과 해방권 대관식

1절 하나님왕권즉위식

하나님 왕권 회복을 위한 섭리역사

2001년 1월 13일 천주청평수련원에서 하나님왕권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참가정을 찾으신 기반 위에 장자권 부모권을 복귀하여 하나님께 왕권을 봉헌해 드린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함으로써 지상과 천상에 천일국을 선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참부모님이 하나님을 지상에 모시고 하나님왕권즉위식을 개최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지상과 천상의 두 세계에서 왕권을 갖게 되셨다. (p. 1452)

1 구약시대는 형제가 하나되는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부모와 하나되는 시대이고, 그다음에 성약시대는 왕권과 하나되는 시대입니다. 장자권복귀·부모권복귀·왕권복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부모로 모셨으면 왕권복귀까지 한꺼번에 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못 이뤘기 때문에 연장되어 성약시대에 와서 왕권복귀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04-011, 1999.09.05)

2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희생시켰습니다. 만물을 희생시켜서 아들딸이 갈 수 있는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한 준비로서 제물, 만물을 취한 것입니다.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됐더라면 그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아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위에 참부모가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와야 됩니다. 신부의 자리에서 세계를 수습해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가인과 아벨을 수습해야 됩니다. 에덴동산의 가인 아벨로부터 국가적 예수님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가인 아벨, 끝날에 가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인 아벨을 세계적인 왕권을 중심삼고 전부 수습해야 됩니다. (280-079, 1996.11.01)

3 구약시대는 형제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유대교는 아벨의 입장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하나된 기반 위에 부모주의와 연결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머니를 중심하고 하나되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연결되면 예수님을 중심하고 가정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성약시대를 완성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물질을 희생시켜 나왔고, 신약시대인 예수님 때에 와서 아들과 나라를 정착시키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제물시대까지 왔는데, 부모도 하늘을 모시기 위해서는 제물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모시기 위한 40년 수난길을 거쳐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상에 모셔 오는 것입니다. 지상과 천상의 두 세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지상·천상의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04-032, 1999.09.05) p. 1453

4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중심삼고 하나가 되었더라면 그 당시에 장자권 복귀가 이뤄졌을 것입니다. 형제간의 통일은 같은 레벨, 같은 가치, 같은 기준에서 이뤄집니다. 메시아가 없이는 통일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장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메시아와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되었으면 메시아의 가정이 출발함으로써 선민 나라를 중심삼고 축복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어린양잔치,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모가 돼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가정이 장자 가정이 되고 세계 인류를 차자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권복귀가 이뤄집니다. 전 세계가 축복받은 가정이 되어 메시아를 중심삼고 국가기준을 넘어서 기독교문화권이 제2 이스라엘권으

로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찾는다면 세계의 대표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때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축복가정 세계화 기반 위에서 온 인류가 한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림주가 오는 것입니다. (303-098, 1999.08.03)

5 재림주가 오는 것은 장자권을 완성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재림주가 와서 장자의 권한, 가정적 참부모의 권한, 세계적인 왕의 권한을 세워서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참부모로부터 모든 소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탕감시대를 넘어서 봉헌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주와 하나되어 재림주의 것으로 결착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원성사했으니 돌려받아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원성사했으니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그날부터는 천지의 왕권을 누구든지 상속받고 천지부모의 권한, 천지의 장자권의 권한이 평면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위에 부모권, 그 위에 왕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세계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장자권·부모권·왕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위에 여러분이 서야 지상·천상세계의 완전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도 해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해방을 받기 때문에 해방된 주인을 모시고 영원히 지상·천상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부모권을 승리한 가정들이 예수님을 세계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전체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03-098, 1999.08.08) p. 1454

6 아버님은 사탄세계의 왕권을 중심삼고 계대를 이어 온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하늘을 배반하고 하늘 뜻을 배반한 것을 탕감하여 승리적 패권을 찾아야 됩니다. 개인시대로부터 종족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사탄의 왕권에 의해 침식당하였던 모든 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자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장자권복귀, 그다음에 부모권복귀를 해야 됩니다. 본래는 부모가 주인인데 사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로서 하늘 편에서 장자권을 복귀하고 부모권을 복귀하고 그다음에 왕권을 복귀해 나가는 것입니다. (248-082, 1993.07.01)

하나님왕권즉위식을 위한 기대 조성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왕권즉위식을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환원과 육지환원, 천주환원을 선포하셨으며, 2000년 9월 26일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삼시대대전환사위기대입적통일축복식을 거행하셨다. 이에 앞서 1998년 6월 13일 3억6000만 가정 축복결혼식 때 영계의 성인과 살인마를 같은 입장에서 축복해 줌으로써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고 지옥이 철폐되는 기대를 조성하셨다. 나아가 2000년 8월 18일 유엔본부에서 국경철폐를 선포함으로써 천일국 입적 기대를 마련하셨다. (p. 1455)

7 1963년부터 출발한 해양사업이 이제 세계적인 판도를 중심삼고 정상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준비를 해놓고 지난날들을 회상하게 될 때 바라를 품고 주인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지켜 주는 아들딸이 없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참부모가 나타나서 그러한 것을 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대양을 중심삼고 해맸사옵고, 해양권인 코디악에서 통일교회가 잊을 수 없는 팔정식을 발표했고 천부주의를 선포했사옵니다. 그날로부터 세계에 대변혁을 가져왔던 역사적인 기원을 이루어 다시 세계적인 대혼란을 수습해서 해양세계와 육지세계를 연결지어 이제 하늘의 주인이 해양의 주인을 넘어서 육지의 주인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324-109, 2000.06.17)

8 2000년 6월 24일 한국에서 남미와 북미를 연결시키는 해양환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대륙의 남단에 있는 한반도에서 아시아 대륙을 중심삼고 전 세계 육대주를 연결하는 대륙환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이상 가운데 지어진 당신의 본연의 동산에 있던 해양과 대륙이 바다와 육지의 환원을 중심삼고 천지부모님 앞에 연결된 것을 오늘 이 시간을 기하여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지에 선포합니다. (324-268, 2000.06.24)

9 참부모는 제주도의 지귀도에서 배를 타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백두산을 넘고 히말라야산맥의 에베레스트산을 넘어 평원의 세계에 연결하였사옵고, 해양세계와 육지세계의 환원과 더불어 해양과 육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최종적 환원의 선포를 하였사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연되었던 전부를 제주도를 대신한 지귀도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만우주 앞에 선포하오니, 이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6월까지 제가 계획하던 전부를 완결하지는 못하였지만 조건적

인 80퍼센트 이상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사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신이 소원성취의 일념을 가지고 만사를 승리의 결정적인 패권의 자리로 옮겨 놓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부모님의 상대적 기준에서 받들어 성취, 성취, 성취, 해방권의 세계로 전환될 것**을** 이 시간 온 천주 전체 환원식을 대신하여 선포하옵니다. (325-077, 2000.06.29) p. 1456

10 2000년 9월 26일 수련회의 전체 표제가 삼시대전환사위기대입적 통일축복식입니다.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 사위기대 전환 입적 일체권 시대라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시대입니다. 입적이 이뤄져야 일체권이 생깁니다. 영계 육계 일체권, 입적 일체권 시대입니다. 사위기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은, 창조이상의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사위기대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은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으로 돼 있습니다. (333-281, 2000.09.27)

11 성인과 살인마를 같은 입장에서 축복해 줌으로써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고 지옥이 철폐되는 것입니다. 낙원과 가라졌던 것이 전부 수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세계화 단계로서 국경철폐를 이미 유엔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2000년이 넘어가기 전 12월 3일에 낙원·지옥과 철폐와 천국 입적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낙원과 지옥을 철폐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참부모가 탕감권을 넘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철폐돼야 합니다. 이것을 철폐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즉위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340-043, 2000.12.23)

12 2000년 12월 1일, 이날부터 역사적인 2000년을 중심하고 새천년을 맞을 수 있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날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한의 고개를 넘어 당신이 바라던 창조이상세계를, 사랑을 중심삼고 개인 완성과 가정·종족·민족·국가완성, 천주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전체를 정비하기 위한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옵니다. 이제부터 2001년 정월 13일까지 43일 기간을 중심삼고 새로운 출발의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하오니 정비해야 될 섭리사의 일체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한이 되었던 전부를 정비하여 해방의 날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는 가정의 왕이요, 국가의 왕이요, 세계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주인의 자리에 즉위할 수 있는 기념의 기간으로 정하옵니다. 아버지, 그날을 예고하는 선포의 날인 오늘부

터 43일을 지나서 모든 사망의 권한을 밟고 재차 해방의 세계로 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천운을 품고 아버지 앞에 참부모가 일체 이상을 이루기 위한 가정적 축복을 중심삼은 패권이 성립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신 은사를 감사하옵니다. 오늘부터 원초·근원·승리성지권을 중심삼고 43일을 밟고 넘어서서 정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의 일체를 갖추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 인간조상이 거짓 조상이 됨으로써 왕권으로부터 전부 뒤집어 놓고 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부모님과 통일교회 축복가정이 함께 수습해서 하나님을 참왕위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가정이상 국가이상 천주이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참부모 앞에 상속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총생축헌납입니다. 자기 나라든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다 걸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된 자리에 있어야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랑까지 잃어버리고 핏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왕권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 수습해 세계 만국이 협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왕위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체·전권·전능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지옥, 사탄을 비롯한 졸개들을 한순간에 전부 정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왕권즉위식을 해드린도고 했습니까? 참부모가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입적한 축복가정들을 중심삼고 해드리는 것입니다. (339-156, 2000.12.22)

14 부모님은 일생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의 8단계를 통과해서 승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원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슬람세계도 품어 주었습니다. 원수인 미국도 살려 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권, 이슬람교권, 흑인세계와 백인세계뿐만 아니라 영계의 지옥까지도 원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가정 기반 위에서 형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해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좌까지 해방해 드리는 것입니

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에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즉위시켜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참부모가 복귀해서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천지의 왕좌에 앉혀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을 포섭해야 되고, 세계평화의 기준인 국경 철폐를 해야 되고, 원수 국가 사람들끼리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다 내리고 있습니다. (339-156, 2000.12.10)

15 2001년 1월 13일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왕권즉위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즉위시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식을 할 것입니다. 왕권복귀의 예식을 크게 두 번 했습니다. 소생·장성을 했으니 완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위를 세워 드려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못하는 것을 한 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한 지옥과 낙원을 철폐하고, 하나님이 손을 못 대었던 것을 손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왕권을 파탄시켰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하나님을 본연의 자리에 세워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세계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339-065, 2000.12.06)

16 낙원과 지옥 철폐를 깨끗이 하였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이룬 모든 길 앞에는 지금까지처럼 탕감노정이 없습니다. 지상·천상천국의 해방권이 벌어짐으로써 거짓 부모와 천사장이 뒤집어 박은 것을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천사장을 추방하고 본연의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즉위시켜 드리는데 하나님 혼자서는 못합니다. 거짓 부모가 죽였으니 탕감 원칙에 따라 참부모가 모셔서 그 자리에 세워 드리지 않고는 영영 하나님이 왕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즉위시켜 드려야 합니다. 구세주요 참부모로서 모든 하늘나라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사랑과 생명과 핏줄로 지상과 천상에 축복받은 권한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계의 혈통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탄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짓 부모와 천사장이 하나되어서 뒤집었던 것을 참부모가 사탄을 제거해서 지옥과 낙원을 철폐하고 천국만 남아진 그 위에서 하늘나라의 중심인 하나님을 왕위에 세워 드리는 것이 하나님왕권즉위식입니다. (339-087, 2000.12.07)

17 오늘 2001년 1월 1일을 기하여 지나간 역사시대는 하나의 밤 기간이었으나 3000년을 향하는 이 기간은 낮 기간이 되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거리

낌이 없는 종횡의 자유권을 갖추어 천지 대주재의 사랑의 주권, 조국광복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참부모의 이름으로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정의 왕으로서 천지부모를 모시고, 나라의 왕으로서 천지부모를 모시고, 천주의 왕으로서 천지부모를 우리 가정으로부터 모시어 하늘의 고속도로가 직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과 몸으로 거리낌 없이 자주적인 권한을 갖고 행차·전진할 수 있게끔 만세에 태평성대를 이루시옵기를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나이다. (341-155, 2001.01.01) p. 1459

18 하나님왕권즉위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전체·전반·전권·전능을 행사 하시어 당신이 원하는 모든 종교권의 영계를 동원하여 지상에서 완성할 수 있는 자주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자주장 권한을 가지고 참부모가 와서 지상과 천상세계의 보조를 맞추어 승리의 대해방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2001년 1월부터 지상과 천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일심일체가 되어서, 지상 정착을 위한 아담권 지상 기반을 중심삼은 장자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와 왕권의 자리를 천상세계가 계대를 잇는 기준에 있어서 장자권 복귀와 차자권복귀가 이루어짐으로써 차자의 권한이 장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천지개벽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42-263, 2001.01.13)

하나님왕권즉위식과 하나님 해방

하나님왕권즉위식은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환원해 드리기 위한 의식이다. 즉 사탄에게 점령됐던 천주를 복귀하고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했음을 의미하는 의식이다. 인간 타락으로 인해 사탄의 수중에 있던 지상과 천상세계를 되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맺혔던 한이 풀리고 해방되는 순간이다. 하나님 해방과 인류 해방을 위해 한평생 전력투구하신 참부모님의 승리의 결과이다. 하나님왕권즉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되는 천일국 기원절을 향한 노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순결혈통 보존과 인권유린 금지, 공금약취 금지, 참된 가정의 본을 세우는 것 등 하늘의 천법 4가지가 선포되었다. 새 시대 창조본연의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완성하는 백성들이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다.

19 이제는 무엇보다 축복가정으로서 하늘의 왕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축복 중심가정은 하나님의 왕권을 지켜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축복가정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왕권즉위식입니다. 그것이 제일의 표적, 절대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주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하겠다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보호하고 확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절대·유일·불변·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가정은 일생 동안 그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343-120, 2001.01.21) p. 1460

20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개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첫 번째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와 세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만물도 완성한 아담 가정에 연결되고 싶어합니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 아니라 슬픔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본연의 하나님으로 복귀시켜 드리느냐 하는 것이 끝날에 있어서 모든 종교와 국가, 그리고 메시아·참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모든 것의 유일한 정착지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못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권즉위식을 함으로써 모든 피조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도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지금부터는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축복가정들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343-121, 2001.01.21)

21 하나님 자신도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해방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방을 못하게 하였느냐? 아담과 해와입니다. 거짓 부모를 따라 거꾸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해방해 최후에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즉위시켜야 됩니다. 거짓 부모가 거짓 혈통으로써 천주를 뒤집었기 때문에 참부모가 다시 뒤집어서 지옥까지 다 메웠습니다. 성인과 살인마까지 축복해 주었습니다. 통일교회와 우리를 반대하던 종교권 사람들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아들딸과 축복받은 성인을 전부 묶어서 해방권, 통일**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341-016, 2000.11.29) p. 1461

22 부모님은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를 확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못 됐기에 스승의

자리를 확정해 드리고, 주인이 못 됐기에 주인의 자리를 확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고향과 조국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한 것입니다. (361-084, 2001.11.20)

23 하나님왕권즉위식을 부모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왕권즉위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즉위식의 내용에 맞기 때문에 천상세계에서 영어의 신세가 되고 마음과 몸의 칸막이가 되었던 것이 비로소 해방되어서 지상에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19-291, 2006.03.06)

24 하나님도 참부모가 해방시켜 드려야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부모가 망쳐 놓은 것을 참부모가 고쳐 놓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제 할 것을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해 드렸으니 그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혈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핏줄을 연결시키기 위해 4억쌍을 축복하였습니다. (343-190, 2001.01.29)

25 비참한 역사를 누가 책임집니까? 모르는 사람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칼을 비롯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수술하여 환자를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참부모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늘땅도 타락한 세계권 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방해 줍니까? 재림주가 참부모로 와서 참왕의 가정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왕을 편성해서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한 것입니다. (418-251, 2003.09.25) p. 1461

2절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과 축복가정왕 즉위식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이 2003년 2월 6일 참아버님 84세 탄신일, 참어머님 61세 화갑일을 맞이해 천주청평수련원에서 거행되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염원은 참부모님의 성혼과 더불어 출발된 축복결혼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 성혼식을 함으로써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참부모님은 온 인류가 천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일국 백성이 될 것을 당부하셨다. (p. 1462)

1 지금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기준 이상의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길에 사탄이 없는 환경까지 축복을 해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거짓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참사랑을 통해 거짓 사랑한 것을 찾아와서 개인 축복, 가정 축복, 종족 축복, 민족 축복, 국가 축복을 함으로써 국가를 형성해야 됩니다. 또한 국가 형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부모가 세계까지, 영계까지 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짓 부모가 그래 놓았으니 참부모는 개인을 찾고 가정을 찾고 종족·민족·국가·세계·영계까지, 천상세계의 천사장의 핏줄까지 전부 접붙여서 돌감람나무를 없애고 참감람나무 열매로 일원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세계까지 통합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계까지 축복하였습니다. 조상들이 가인 천사세계 입장인데 이 상대이상이 없는 천사까지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줌으로써 축복한 가정, 일족이 들어가는 곳이 천일국입니다. (405-206, 2003.02.11)

2 하나님은 나라가 없어서 성혼식을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자녀들이 입적을 못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이 결혼식을 수속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못했으니 아들딸을 자녀로서 입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사탄이 전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집안이 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싸우지 않고 소화해서 자연굴복시킬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천지창조를 한 이념적 기반에 다시 돌아가서 확장에 확장을 함으로써 세상 끝까지 승리의 패권을 돌려 잡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완성한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즉위식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천일국을 중심삼고 개문 축복성혼식을 한 다음에 영계와 지상의 축복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408-061, 2003.05.30)

3 천주를 품고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을 함으로써 부부의 인연을 갖추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참부모님의 전통을, 본연의 창조이상이었던 심정적 욕구의 희망을 완성할 수 있고, 천지의 해방 이후에 **처**음 축복가정이 들어가는 나라의 기틀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인연을 전수받은 지상에 있는 가인적 축복가정과 우리 조상들이 협조하고 천상세계의 하나님과 성인 성자 모두가 협조하여 동생의 자리에서 형님으로 모시는 일체적 지상 완전 승리의 패권 앞에 일체가 되시옵소서. 그리하여 만세의 해방과 승리의 패권, 사랑 주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물건으로부터

대우주 전체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의 혈육적 인연을 전체 피조만물이 상속받아 본연의 생명의 기쁨과 본연의 행복의 충만함을 갖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한 참부모의 몸까지 흡수통일 완성하여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은 축복가정들과 만우주의 존재를 일체화해서 다시 아버지 앞에 축복의 해방권의 천일국에 결속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 봉헌할 수 있는 출발의 때를 맞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의 축복은 천상세계의 기쁨이요 지상세계의 기쁨이요 천지부모의 해방적 기쁨인 동시에 천주부모의 승리 해방적 기쁨입니다. 천일국 축복 지상·천상의 가정들이 일체가 되어 일심·일체·일념·일화의 뜻을 품고 당신이 바라는 고향을 출발하여 이상적인 조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본성적 기준에서 축복받은 천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성 해방, 승리 완결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들이 될 것을 이 시간에 특권을 가지고 천지부모와 천주부모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404-282, 2004.02.06)

4 오늘은 2003년 2월 6일, 이 시간을 기하여 천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과 지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천일국에 입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정들이 입국할 수 있는 천리의 도리를 따라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형제인연을 세워서 가인적 형의 자리에 있는 조상들도 축복받고, 아벨적 동생의 자리에 있는 지상의 가정들도 축복을 받아서 부모님의 핏줄을 통해서 대치해 주는 공으로 말미암아 형님 자리의 조상들이 동생이 되고 동생 자리의 지상 가정들이 형님이 되어 천지개벽의 역사가 뒤넘기칠 수 있는 소망의 출발의 천일국 개천일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404-284, 2003.02.06)

5 천일국의 문을 활짝 열고, 어느 가정이나 참부모님의 전통을 따라서 그 이름과 그 말씀과 그 실적과 그 성사한 승리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하여 효의 도리를 다하고 충신의 도**리**를 다하고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하는 이들 앞에 자유 지상권 내에 있어서 상속할 것을 원하오니 천주부모와 천지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성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창조이상의 일념을 해방시키는 지상·천상천국의 통일국 입국 전체 해방권으로서 본연의 왕권 축복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계자들, 후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진정히 보고하면서 아뢰나이다. (404-285, 2003.02.06)

6 여러분은 이제 결실한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부모를 따라 출생신고의 간판을 가졌으니, 참부모의 아들딸로서 어디 가든지 완전한 씨가 되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직계 아들딸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천일국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개인적 타락에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다 타락하였지만, 참부모가 예수님이 하지 못하였던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세워 입적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부모와 같이 또 상속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선 여러분이 이제 유엔까지도 움직일 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천국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 천국, 장성 천국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모님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접붙여서 완전한 씨를 맺힐 수 있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주인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몇 천년 동안 비어 있던 하늘나라가 제1대조, 제2대조, 수천 대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1대조 2대조 3대조, 대수가 나옵니다. 조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410-109, 2003.07.02)

7 이제는 구원섭리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일국 주인 축복 중심가정으로서 부모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대등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내 버려두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을 부모님이 만들어 나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를 찾고 세계까지 축복해 주고 부활권, 영생권까지 연결해야 될 그 고개를 여러분이 넘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이미 다 넘어섰습니다. 참부모와 참부모의 아들딸도 틀림없이 이제는 같은 한 열매, 천일국 주인 된 열매이니 여러분 가정에 그 씨를 뿌려 놓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왕족을 낳고 왕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8-114, 2003.06.03) p. 1465

8 천일국 입적 축복입니다. 입적이라는 말을 넣어야 천일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떨어져 나왔으니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입적 결혼축복식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464-127, 2004.08.08)

9 입적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동양과 서양, 하늘과 땅, 상하좌우는 물론 부자 남녀 부부 형제 등 세계가 전부 제멋대로 갈라진 것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핏줄을 연결함으로써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천년 전 가정도 계모 계부가 아닌 친모 친부를 중심삼고 거꾸로 태어나 입적을 함으로써 비었던 천상세계를 한꺼번에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고 참부모가 사랑하고 싶은 형제와 같이 원수를 사랑했다는 기준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409-183, 2003.06.25)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

2003년 2월 6일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 직후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참부모님은 가정왕에 즉위하심으로써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놓으신 것이다. 실로 6천년 복귀섭리사의 결실이자 새 시대 천일국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참부모님께서는 탕감복귀 구원섭리시대를 완료하고 실체적인 하나님조국 천일국 창건을 위해 전력투구하셨다.

10 지금까지 축복한 것이 4억쌍이고 영계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식 수속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때에 선포한 것은 정오정착시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빛이 아침에도 정오, 점심때에도 정오가 되어서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때에도 그림자가 없고 밤에도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춘하추동 사계절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시대에 들어가야만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장철 정오정착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만 그 족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5-186, 2003.08.14) p. 1466

11 2003년 참부모님의 생일을 중심삼고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 가정왕 즉위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꼭대기로 올라가서 넘어가야 됩니다.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해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꼭대기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2000년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맨 꼭대기가 하나님왕권즉위식입니다. 그렇게 왕권즉위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천일국을 위해서 2000년 9월 26일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 축복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입적해야 됩

니다. 나라에서 입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 증명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부모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귀하게 여기면 어디 가든지 만사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같이, 야광석 같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424-142, 2003.11.06)

12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역사시대에 하나님과 참부모가 천지인 부모의 자리에서 가정을 거느리고 종족·민족·국가·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 나라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영계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영계의 실상을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무형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타난 그 바른쪽에 참부모가 나타나고 불기둥같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29-025, 2003.12.23)

13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상을 줘야 되고, 받은 그 상을 어머니한테 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승리했다는 그 상을 천지에 있는 축복받은 가정들, 통일교회 식구들이 어머니에게 표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천주·천지부모님 참사랑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함으로써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실체, 참부모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지상세계에 있는 참부모가 천상세계 무형의 부모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본래는 아담 가정이 완성하여 그래야 될 것이었습니다. 온 세계의 축복가정 전체가 부모님의 등극과 더불어 그 나라의 왕자 왕녀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영계와 육계에 하나님이 정착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429-025, 2003.12.23)

14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하고 천일**국**을 만들어 놓고는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축복성혼식을 했고, 연이어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재림주이고 참부모라면 그런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의 왕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가정의 왕이 됐다는 선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31-151, 2004.01.14) p. 1467

15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천일국을 개문했으니까 가정이 비로소 출발하는 것입니다. 열두 진주문을 다 열었으니까 타락이 없는 개문을 중심삼고 비로소 재림주님이 가정왕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3년 2월 6일이었습니다. 가정왕이 됐으니 종족왕이 돼야 합니다. 사탄이 3단계의

소생·장성·완성권 사랑을 중심삼고 꼭대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 되는 아담이 와서 개문해야 됩니다. 개문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축복가정들이 세계 가운데서 반대를 받아 열두 고개를 넘어설 수 있게끔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개문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왕 즉위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가정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모님이 가정생활을 여러분과 같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상을 다 찾아서 아들딸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볼 수 있는 가정이 돼야만 천주부모·천지부모·천지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489-017, 2005.02.25)

16 천일국을 개문했으니 그 나라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영계도 흥진군이 그런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할 때 즉각 부모님이 입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입적된 모든 사람들 앞에 타락성이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계는 속이지 못합니다. 천국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흔적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식을 통해 여러분의 옷을 한꺼번에 쌓아 놓고 불살라서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미련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롯의 처는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역사의 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든 자매든 다 잊어버리고 새로이 출발하여 타체 자각의 일념으로 전체를 넘어선 자**리**에 서지 않고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심각했습니다. (460-181, 2004.07.17) p. 1468

17 제4차 이스라엘국을 창건함으로써 천일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일국이 나옴으로써 부모님이 성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담시대로부터 예수님시대, 재림주까지는 영육 일체권을 중심삼은 천일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육 일체권의 천일국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적으로 제4차 이스라엘국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성화식(聖火式)을 끝낸 것입니다. 영계·육계 모든 일체식을 해서 다 불살라 버리고 비로소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성화식이 끝난 다음날에 제4차 이스라엘국을 발표하고 그 기반 위에 부모님이 성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왕권즉위식을 통해 2003년 2월 6일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성혼축복식을 했고, 그다음에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했습니다. 가정왕이 되는 것입니다. (430-013, 2003.12.30)

18 가정왕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조국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조국을 선포하기 위해 지옥 밑창에서부터 천상까지 사경을 헤매는 수난을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4일을 중심삼고 모든 사탄 주관권 대전환한다는 창조이상 주관권 대전환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부 동원해서 조국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죽을힘을 다해 탕감복귀섭리시대를 철회한다는 탕감시대 철폐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3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8월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7수를 넘어서기 전에 탕감복귀 구원섭리 철회를 선포했습니다. 나라니 세계니 종교권이니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타락 때문에 사탄 나라가 생겨났고 타락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으므로 탕감 구원섭리를 철회하니만큼 종교시대가 없어지고 정치시대가 없어지니 하나님의 조국광복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원리관을 중심삼고 정정당당한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430-123, 2004.01.01) p. 1468

3절 쌍합십승일과 후천시대 개막

쌍합십승일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2004년 5월 5일 전남 여수 청해가든에서 쌍합십승일을 선포하면서 이전의 시대를 선천시대, 이후 시대를 후천시대라고 선언하셨다. 쌍합십승일은 하늘과 땅이 바뀌고 상하·전후·좌우가 바뀌는 때이며, 어두운 악의 세계가 사라지고 광명한 선의 세계를 되찾을 수 있는 날이라고 설명하셨다. 또한 이에 앞서 4월 19일에 안착시의의 날(安侍日)을 제정하셨다. (p. 1469)

1 2004년 5월 5일 오늘을 기하여 쌍합십승일을 선포했습니다. 5월 5일은 5와 5를 합하면 10수입니다. 왼손 다섯 손가락으로 후천시대를 붙들어서 뒤집어 하나로 만들어서 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곗바늘은 바른쪽으로 돌아야 하는데 사탄은 왼쪽으로 돌게 했습니다. 시곗바늘이 왼쪽으로 돌던 것이 쌍합십승일을 맞춰서 바른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시대를 넘어서 통일적 이상의 후천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 모든 식물과 동물로부터 인간까지, 그리고 영계의 영인들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가 발표됐으니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이 설정되어 하나님 주인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세계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조상이라든가 영계에 가 있는 종교 도주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교파 분열과 가정 분열을 하는

이들을 전부 정리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들도 축복을 통해서 완전히 뿌리까지 뽑는 것입니다. (448-016, 2004.05.05) p. 1469

2 쌍합십승일을 책정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바뀌고, 상하가 전환되고 좌우가 바뀌고, 전후가 엇바뀌고, 악의 어두움이 먼저 시작됐던 것을 선의 광명으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광명한 승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정오정착의 때로서 천지인부모를 모실 수 있는 승리적 본연의 때를 맞이했사옵니다. 그렇게 되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평화왕국이 아니라 투쟁의 악한 사탄 왕권시대가 되었던 것을 청산하고 참사랑을 중심삼은 평화의 왕국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결전을 하는 날이옵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오늘을 중심하고 바뀌고, 13수를 중심삼고 하늘과 땅이 하나됨으로써 하나님 보좌의 권한이 지상·천상에 중심이 되고 당신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인연으로 일족이 확대된 세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당신의 통일적인 천하의 사랑의 왕국을 선포할 수 있고 조국을 선포할 수 있는 대승리의 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447-309, 2004.05.05)

3 쌍합십승일을 중심삼고 구시대와 신시대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왼손 손가락 다섯과 바른손 손가락 다섯이 10수, 쌍합십승수입니다. 이 쌍합십승수가 하나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과 석방이 벌어지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4천년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시대에 40년에 걸쳐 탕감복귀를 통해 왕권을 수립해야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 재림주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나라와 세계, 하늘나라와 천주까지 다시 찾고 천상·지상세계의 축복을 40년을 중심삼고 완료했습니다. 그리하여 십승일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삼고 후천시대의 춘하추동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4천년, 400년, 40년, 4년, 40개월, 40일을 중심삼고 모든 것이 탕감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해방을 위해서 쌍합십승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석방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지옥을 철폐하고 천국화할 수 있는 본연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450-121, 2004.05.19) p. 1470

4 2004년 5월 5일 '쌍합십승권의 날' 출발을 선포하였고 하늘과 땅, 인간과 만물, 선천과 후천, 음과 양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화합과 통일을 완성해야 될 시대가 후천시대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였습니다. 타락의 후예 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늘의 섭리의 뜻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천시대로 명명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귀한 천운의 시대를 열어 가면서 하늘은 이제 우리에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절대가치적 삶을 살라는 천명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450-184, 2004.05.21)

5 귀일수인 10수를 중심삼고 모든 것을 청산짓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 시대를 넘으면서 차원 높은, 한 단계가 올라간 귀일수인 10수에서부터 출발하니만큼 사탄세계를 능가해서 새로운 하늘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교차점을 만들어 여기에서 쌍합십승일을 중심한 후천시대의 출발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인권이 완전히 굴복해서 사탄 그림자가 있던 모든 수의 날들을 전부 밟아 치우고 십승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세계는 지나가고 선천시대의 핏줄이 달라진 후천시대의 아벨적 승리의 패권을 형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451-199, 2004.05.29) p. 1470

6 2004년 5월 5일부터 달력이 바뀌게 됩니다. 7일 간격의 안식일 달력이 8일 간격의 안시일 달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봄철을 갖지 못했습니다. 춘하추동의 주인이 못 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후천시대를 맞이해서 5월 5일 십승일을 맞은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사탄세계 선천시대를 하나님이 왼쪽에 붙들고, 후천시대를 오른쪽에 붙들고 빙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합십승일입니다. 쌍합십승권이라는 것입니다. (450-177, 2004.05.21)

7 2004년 5월을 맞이하여 안시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13일, 21일을 중심삼고 안시일 3차를 끝마침으로써 새로운 후천세계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승리의 세계를 중심삼고, 그리고 참사랑과 참가치관의 일체이상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만우주 가운데 이루어야 할 책임적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하여서 쌍합십승일, 쌍합십승권을 이룬 모든 날들이 하나에서부터 열 이하의 날들과 사시 사계절과 4년과 8년과 9수와 10수를 중심삼고 당신이 주인이 되시어 춘하추동을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해와 새로운 10수를 중심삼고 백, 천, 만 전체를 당신이 주관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안시일을 제정한 모든 것이 당신의 뜻 가운데 일취월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450-158, 2004.05.21)

후천시대 개막

참부모님께서는 쌍합십승일로부터 '모든 것이 해방시대 완성시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소유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후천시대 개막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봄을 잃어버리셨지만 탕감복귀를 통해 최초로 봄을 맞이하신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년만년 주인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밝히셨다. 다시 말하면 후천시대는 탕감의 시대가 지나감으로써 창조본연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8 2000년을 지나 새로운 3000년으로 향하는 2001년 1월 13일 하나님왕권 즉위식을 거행하고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분립된 2004년 5월 5일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487-169, 2005.02.15)

9 예수님이 가정에 있어서 효자·충신·성인·성자로서 서야 했던 세계 통일의 왕의 자리, 원래의 그 자리에서 전체 해방·석방의 세계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맹세를 완전히 소화 해방한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후천시대, 하나님의 세계를 해방하여 지상·천상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타락세계와 복귀세계는 다릅니다. 여수·순천에서 후천시대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천상·지상천국을 중심삼고 과거시대의 철폐, 그리고 종의종으로부터 8단계를 넘어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계자녀의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 해방의 상대, 실체 사랑의 기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직행할 수 없습니다. 천리, 하늘의 원리, 천법에 의해 그런 공식 노정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축복받았다고 해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83-245, 2005.01.19) p. 1472

10 2004년 5월 5일에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교체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다음에 절대가치관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축복받은 아들딸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니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줘서 형제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형님의 자리에서 부모와 일족을 거느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 원리 해결의 결론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지상에 재림

을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사탄 이상으로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 데려가느냐? 그냥 두면 한 사람이 아니라 일족과 그 성씨가 망하니까 천상세계의 축복받은 그들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사탄까지 불러다가 떠나지 못하게 감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488-302, 2005.02.23)

11 선천시대는 가인시대요 후천시대는 아벨시대인데 후천시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천시대는 하나님의 이상가정이 실현되고 평화의 모델이 될 때 완성됩니다. 그런 가정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아담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이상적 평화의 세계관, 지상·천상천국의 이상적인 구조가 전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류의 후손으로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상가정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과 참부모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적인 부모라고 하면 참부모는 횡적인 부모인데, 종횡의 부모가 하나되어 가정을 이뤄서 4대 심정권의 기반을 찾아야 평화가 시작됩니다. (534-111, 2006.08.03) p. 1473

12 처음부터 완성된 선천시대를 이루어서 출발했다면 모든 개인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부부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민족·국가·세계·천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인까지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평화왕국 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는데 타락으로 뒤집어졌으니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우주 창조의 부모인 동시에 스승과 주인의 자리를 완전히 이루어 놓고 하늘나라 충신·열녀의 가정을 중심삼고 지상과 천상의 기반을 완결할 수 있는 때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선천시대를 지나고 후천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448-011, 2004.05.05)

13 선천시대가 지나가면 후천시대가 오는데 후천시대는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악마가 차지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때는 지나갑니다. 하늘이 차지할 때인 후천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천시대를 세워야 할 책임이 구세주·재림주·참부모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는 어떻게 세상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축복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혈족으로 묶어 주기 위한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 자기 일족들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책임추궁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네 형님·동생·누나들도 축복해

주었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축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9-270, 2004.05.16)

14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니 후천시대의 생활은 선천시대의 생활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천ㅅ시대에서부터 후천시대로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더라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지 않고는 부모님이 열어 놓은 후천세계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66-201, 2004.08.27)

15 돌감람나무에서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돌감람나무를 잘라 참감람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때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사탄의 권한 위에서 주관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후천시대입니다.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복귀를 해야 되고 죄지은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몸이 더럽혀졌을 때 깨끗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시대가 오게 됩니다. 탕감의 모든 것이 지나가서 죄가 없고 사탄이 없고, 악의 권한의 그림자도 없는 세계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본연세계 마음의 아버지가 되고, 부부의 아버지가 되고,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세계와 하늘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비로소 출발하는 것입니다. (542-168, 2006.10.16) p. 1474

천주평화신문명개벽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2007년 3월 17일 미국 하와이 코나 킹가든에서 '환태평양섭리의 새 출발대회'를 개최하신데 이어 19일 하와이 와이콜로아 해양리조트 메이어트호텔에서 '환천주평화문명권 왕국시대 및 환천일국 평화문명권 초국가 내나라시대'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참부모님과 참자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해 4월 3일부터 한국과 일본, 미국의 주요 도시를 비롯한 세계 200여 개국에서 천주평화신문명개벽 선포대회가 개최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강연에서 '신문명시대는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일체를 이루어 어디에도 다툼과 단절이 없는 소통과 평화의 시대'라고 선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는 환태평양 해양시대이며 신문명 평화의 시대'라고 말씀하셨다.

16 하나님의 소유권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핏줄과 가인 아벨의 아담가정의 화근을 제거하고, 참부모와 하나돼서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세계로 넘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땅에 이런 기반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영계의 성인과 여러분 조상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사탄의 갈 길을 막을 수 있게끔 성벽을 만들어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 기도하게 된다면, 영계에 있는 신앙의 조상이 되는 4대 성인, 그다음에 종교권 내에서 활동하고 봉사·희생했던 역사시대의 모든 공신들과 여러분의 선한 선조들이 와서 협조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천주평화신문명개벽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4일부터 이 선포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상들을 해방할 수 있는 내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을 다하여 사탄세계를 **멸**하고 평화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왕자 왕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59-323, 2007.04.04) p. 1475

17 오늘은 48주년이 되는 참부모의 날입니다. 이제부터 7년간이 문제입니다.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역사의 개인으로부터 천주까지 타락의 결실로 말미암아 엉클어진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 놓고 비로소 맞이하는 첫 봄,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환경과 같은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드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섭리의 때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태평양섭리 시대를 맞아 천주평화신문명개벽 선포를 한 것입니다. (561-010, 2007.04.17)

18 신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문명입니다. 하나님적 문명입니다. 신문명 개벽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미지의 사실로 다 덮어 놓았습니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공개시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부자관계입니다. 부자일체는 한 몸을 말합니다. 부부일신도 한 몸을 말합니다.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딸은 형제가 일신이 돼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3대를 중심삼고 이것이 한 가정이 돼야 합니다. 이 3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 3단계의 모든 부부들은 어떤 입체적인 세계나 평면세계에 갖다 놓더라도 같은 가치로서 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4대권을 넘어서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씨, 아버지의 씨 자기 부부의 씨를 그대로 내재해서 열매맺힐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핏줄입니다.

(561-146, 2007.04.21)

19 2007년이 특별한 것은 환태평양신문명 개벽시대를 발표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승리한 모든 것을 하와이에 가서 세계에 다시 부식(扶植)시켜 고개를 넘는 것입니다. 천지부모는 물론이고 천지인부모, 또 천지인부모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의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해방의 시대, 법적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돌아감으로써 종교권이 필요 없고 정치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시대로 들어갑니다. (569-075, 2007.07.22) p. 1475

4절 천주평화의 왕 즉위식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예수님과 참부모님 평화의 왕 대관식

예수님과 참부모님 평화의 왕 대관식이 2003년 12월 2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독립공원에서 2만여 명의 세계 각 종교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부모님께서 서울 한남국제연수원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보시는 가운데 2천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간의 반목을 청산하고 세 종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되어 예수님을 제1 이스라엘 평화의 왕으로 모셨다. 제1 이스라엘의 승리권은 제2 이스라엘 미국, 제3 이스라엘 한국으로 연결되었다. 2004년 3월 23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상하의원과 유엔대사 등 전 세계 각계 지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왕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그해 8월 20일 한국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참심정혁명과 참해방·석방 천일국 입적 축복식 및 참부모님 제4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에서 평화의 왕으로 추대를 받으셨다. 이후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각 씨족 천일국 입적 축복식 및 평화의 왕 대관식이 이어졌고 각 씨족들이 평화의 왕관을 참부모님께 봉헌하였다. (p. 1476)

1 예수님이 왕권을 못 세웠으니 형님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데려가 왕권즉위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가 2003년 12월 22일입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흥진군이 데려가서 한 것입니다. 참부모의 아들딸이 간 것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왕권즉위식을 해놓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영계와 육계가 갈라졌습니다. 흥진군이 예수님을 중심삼고 이스라엘의 왕권즉위식을 함으로써 영계와 육계를 하나되게 한 것입니다. (490-178, 2005.03.13)

2 영계가 일체권을 중심삼고 협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계의 초종교적인 기반 위에서 나라의 왕권을 세우지 않고는 종교를 하나 만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 대관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유대교권과 이슬람권의 후원 밑에서 대관식을 한 것입니다.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중심삼고 예수님의 대관식을 해준다는 것은 영계에서 통일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파나 사탄세계의 타락한 국가 권위를 하늘이 무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해체해 버리고 핏줄을 전환시켜서 전 세계가 하나의 가정 형태로 되어서 단일국가를 형성해야 심정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32-191, 2004.01.23) p. 1477

3 부모님이 미국 상원에서 평화의 왕 대관 즉위식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혈족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몽골반점 가정의 왕입니다. 그다음에 아담 가정에서 가인 족속, 즉 세계의 족속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왕입니다. 종교권 내에 이스라엘이 있으니 재림주를 중심삼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최후에 하늘나라와 지상세계가 통일되지 않았으니 심정적으로 통일한 결실의 해방적 세계가 후천 신천신지 안식 태평성대시대가 됩니다. (467-107, 2004.09.02)

4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이스라엘은 혈연적 관계에서 도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 관계로서 이어질 수 있게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 대관식을 하고, 그다음에 흥진군과 예수님이 2004년 2월 4일 미국 정부청사에서 평화의 왕관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왕권을 부모님 앞에서 이어 놓고 의회 상원을 중심삼고 실체부모가 왕권 수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흥진군과 예수님이 미국에서 그런 식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갈라져서 두 갈래가 된 것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의 총사령관으로 있는 흥진군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대간식을 하고, 그다음에 영육 실체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제2 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부모님을 모시는 대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실체 평화의 왕 대관식을 3월 23일에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체 평화의 왕 대관식을 8월 20일에 비로소 4차 만에 본국인 한국에서 한 것입니다. (470-043, 2004.09.23)

5 2003년 8월 20일은 아버님이 댄버리에서 나온 지 18년이 되는 기념의 날입니다. 아버님이 하늘땅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갔다가 해방돼 나온 이날 제4차 이스라엘국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하늘땅에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제2 이스라엘권인데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3 이스라엘권이 한국인데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이 유리고객하고 있습니다. 몰면 몰리고 쫓으면 쫓길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4차 이스라엘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싫든 좋든 우리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정성을 다해 생명을 걸고 나서야 됩니다. 생명보다도 나라를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416-043, 2003.08.20) p. 1478

6 제4차 이스라엘국은 외적이고 천일국은 내적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나라와 더불어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넘고 종족을 넘고 민족을 넘어 축복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왕 중 왕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국가와 세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재림주는 하늘땅, 천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민족이라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상·천상 해방과 지옥 철폐, 낙원 철폐를 함으로써 천국만이 남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을 수립함으로써 사탄이 혈통을 중심삼고 부모의 자리, 스승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다시 탕감하여 고속도로를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하늘나라의 궁전까지 고속도로를 달려가야 합니다. (416-067, 2003.08.20)

7 오늘은 봄을 맞이하는 2004년 2월 22일입니다. 2004년의 4수를 중심삼고 2·2·2의 6수가 같이 하나되는 날입니다. 봄을 맞이한 이 땅에는 천주부모·천지부모·천지인부모가 정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 영계에서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실체상을 중심삼고 영계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4수 탕감, 6수 해방수를 갖춘 날이기 때문에 천주·천지·천지인부모 정착 해방이 되었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상을 중심삼고 이 땅 위에 부모님을 보내어 탕감복귀를 해소해서 에덴동산에서 개인시대·가정시대·종족시대·민족시대·국가시대·세계시대·천주시대의 막혔던 모든 담을 평준화하여 사위기대의 기본적 가정의 틀 위에 6수를 탕감하는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날을 기하여 천주·천지·천지인부모 정착의 날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천주·천지·천지인부모 정착의 날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천주·천지·천지인부모 정착의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땅에도 계시고 영계에서도 실체상을 가지고 같이 모실 수 있는 해방적 지상·천상, 천계가 개문한다는 것입니다. (439-161, 2004.02.22) p. 1478

8 아버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느끼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라도 요리할 수 있고, 남북통일도 할 수 있고,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통을 휘어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주를 중심삼고 국토를 만들고, 우주와 영계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만들고, 나라를 중심삼고 주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주권적 기반을 중심삼고 하늘땅이 생겼고, 하늘땅의 백성이 생겼으니 왕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20일에 평화의 왕 대관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대관식은 받들어서 모신다는 것입니다. 대관식만 한 것이 아니라 대관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는 왕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천하, 우주가 그 왕권의 소유요, 하늘 땅의 백성이 그 왕권의 국민입니다. 그 왕 터와 국토와 국민이 하나되어 영원한 하나님을 중심삼고 무형의 부모, 유형의 부모, 실체 부모 아들딸의 왕국을 세우니, 거기에서 낳은 아들딸은 즉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방·석방세계에서 안착 태평성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466-054, 2004.08.24)

9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형님 자리가 가인 편입니다. 가인 편의 개인시대·가정시대·종족시대·민족시대·국가시대까지 나왔습니다. 하늘 편에서도 셋째아들 셋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국가기준을 찾아 나왔습니다. 셋을 택해서 잃어버린 전체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셋 자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국가기준 이상을 넘어섰다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이 사랑과 생명으로 직접 주관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할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아들로 키워 나가야 됩니다. 개인에서 가정·종족·민족·국가기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천년 만에 이스라엘 선민권 나라에 예수님이 와서 참부모 혈족 나라를 이루어 이 나라를 중심삼고 가인 나라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를 가인 아벨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둘이 싸우면 안 됩니다. 4천년 만에 오신 예수님은 나라를 대표한 셋의 왕자로 왔습니다. 셋의 왕권을 대신한 것입니다. 재림주는 3시대

에 있어서 하늘땅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와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초종교권·초국가권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가인 아벨의 기준을 중심삼고 초종교권의 아벨로서 승리하여 초국가권을 뒤집어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동생이 형님의 자리에 서고 형님이 동생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4년 8월 20일 '특사[9]-참심정혁명과 참해방·석방 천일국 입적축복식, 참부모님 평화의 왕 대관식'입니다. 선천시대가 가고 후천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천일국입니다. (477-141, 2004.11.25) p. 1480

10 여러분은 국가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축복받고 국가기준을 넘어서야 했지만 결혼도 못했고 국가기준도 못 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축복받은 가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가 가정을 이루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인연을 받아 가정을 중심삼고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기준까지 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다 넘고 영계까지 연결해서 하늘땅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영계 육계에 경계선이 없게끔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기준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의 가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영계와 육계, 천상·지상 최고의 기준에서 반대가 없고 환영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참심정혁명과 참해방·석방 천일국 입적축복 행사와 참부모님 평화의 왕 대관식입니다. (465-161, 2004.08.21)

11 제3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참부모가 평화의 왕 즉위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지상세계에 천주부모와 천지부모와 천지인부모의 왕국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지인부모를 중심삼고 제3 이스라엘권까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실패한 것을 핏줄로 전환시켜 제4 이스라엘 중심삼은 국가권내에 들어갑니다. 제4 이스라엘국은 이스라엘 나라와 미국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계 육계가 갈라졌던 것을 대관식을 함으로써 지상에 와서 이스라엘 구약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대관식을 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약시대를 거치고, 대관식을 해준 참부모를 통해서 성약시대를 넘어서 한 나라 백성이 되어 천일국에 가입함으로써 비로소 전세계가 하나의 대가족 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해서 대가족이 연결

9) 선문대학교에서의 특별사면 행사

된 새로운 제4차 이스라엘권이 됩니다. 이 외적 세계를 중심삼고 정치세계와 이스라엘 핏줄을 맑힌 것이 하나되어 본연의 심정문화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3대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지부모의 성혼식과 입적식을 할 수 있는 천일국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섭리가 끝나고, 사탄은 완전히 굴복하고 본연의 창조이상의 해방권과 석방권이 이뤄져 전부가 고속도로의 행렬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이어받은 하나의 일족을 중심삼은 통일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430-252, 2004.01.03) p. 1481

천주통일 평화의 왕 대관식과 천정궁 입궁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

참부모님에 대한 평화의 왕 추대식은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1년여 동안 진행되었다. 그 후 참부모님 탄신일인 2005년 2월 14일 한국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천주통일 평화의 왕 대관식을 개최한 데 이어 2006년 6월 13일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천정궁 입궁식과 대관식을 경축하는 축제가 일주일 동안 천주청평수련원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참부모님은 입궁식 전날 밤에 천정궁에서 부산 범냇골 성지에서 채화된 성화로 성화대에 점화하신 뒤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흙을 합토하고 물을 합수하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빚으신 것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참부모님으로부터 천일국을 상징하는 장미와 백합을 받았다. 천정궁 광장에서 열린 대관식은 세계 194개국 깃발을 든 기수단이 도열하고, 세계 각국에서 평화의 왕으로 추대하는 의미에서 보내 온 왕관을 단상 양 옆에 진열해 경축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참부모님은 천정궁을 성별하신 뒤 '천일국은 태평성대의 이상천국'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12 우리 내외의 생일과 천주통일 평화의 왕 대관식 기념행사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일회성 행사라면 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인류구원섭리를 위한 대표적인 공적 행사이기에 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계와 세계와 온 인류를 등에 업고 걸어야 하는 구세주·메시아·참부모의 길은 가장 가까운 피붙이인 가족, 친족부터 희생해야 되는 가시밭길입니다. 이 짐은 형제나 자식이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대신 지울 수도 없으며, 오늘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거나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메시아는 영계가 공인하고 하나님의 어인으로 인침을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487-151, 2005.02.14) p. 1481

13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가정을 통해 참사랑의 이상을 완성하고 자손을 번성케 함으로써 천상·천하에 평화통일의 왕국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

님의 순결·순혈·순애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은 아담과 해와를 기점으로 하여 횡적으로 확산되어 후손들을 통해 가정·국가·세계·천주로 전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는 자연히 참부모·참스승·참주인·참왕의 위상을 갖게 되어 있으며, 참혈통을 중심한 천주평화통일의 왕국이 됩니다. 본인은 2001년에 하나님왕권즉위식을 봉헌했으며, 2004년에는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그리고 후천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선천시대는 대립·투쟁·상극·불화의 시대였으나 후천시대는 조화·협력·상응·화해·평화통일의 시대입니다. 선천시대에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켜 지배했으나 후천시대에는 이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됩니다. (487-152, 2002.02.14)

14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기해서 부모님이 이제 평화의 왕으로서 아벨 승리의 패권위에 설 수 있는 대관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모님을 따라오는 것보다 이제는 받들어 모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을 따라 다니던 때와 다릅니다. 왕 대신 전체의 표상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도 왕의 표상에 대해 전체 앞에 표상적인 대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왕과 더불어 하나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살 수 없는 시대가 현재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73-034, 2007.08.20)

15 제3차 아담이 와서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완결하여 제4차 아담심정의 해방세계로 넘어갈 때 지상·천상천국이 하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주를 중심삼고 아담시대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비로소 재림주가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거짓 부모가 막았던 것을 열어 놓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 해방·석방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근본이니 여러분은 그 근본을 중심삼고 사랑과 생명이 합한 혈통의 결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부모와 하나가 되었다는 일체의 심정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랑을 가지고 직접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573-034, 2007.08.20)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참부모님께서 2009년 1월 15일과 1월 31일 한국과 미국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세 차례에 걸쳐 주재하셨다. 하나님왕권즉위식 이후 8년여 동안 참부모님께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의 심정권까지도 해방하기 위한 섭리를 전개해 오셨

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천주적 승리권 위에 죄악의 선천시대를 종결짓고 후천시대를 개막하셨다. 그리고 유엔 갱신을 통한 하나의 세계를 위해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시고, 세계 180여 개국을 순회하며 후천개벽시대를 개문하는 말씀과 축복을 해주셨다. 촌음을 다투는 섭리의 대장정 속에 2008년 7월 19일 악천 후 속에 참부모님이 탑승하신 헬리콥터가 착륙하려다 경기도 가평군 장락산(천성산)에 추락한 후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사탄 편의 최후 공세에도 중생·부활·영생의 축복을 내리셨다. 그 후에 거행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참부모님 50회 성혼기념일이자 참아버님의 구순을 맞아 하나님의 심정권까지 해방하고 동서양에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천주사적인 행사였다. (p. 1483)

16 헬기 사고가 일어난 2008년 7월 19일 오후 4시43분을 중심삼고 만유의 존재를 타락하지 않은 권으로 해방·석방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만물이 얼마나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의 영광된 세계의 한 분자로서 흡수되기를 바라고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인류의 조상이 희생봉사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천만 번 희생하더라도 참부모 실체의 완성에 동참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세포까지도 참부모를 닮기를 바라던 만유의 존재가 참부모의 완성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595-165, 2008.08.07)

17 사탄세계가 통일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번 헬기 사고로 인해 다시 중생·부활·영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옥을 영어로 '헬(hell)'이라고 합니다. 헬기 사고는 지옥사건입니다. 하늘의 이상권을 한꺼번에 한 그릇에 몰아넣어서 뒤집어엎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타니 최후에 하늘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종착점을 향하는 거기에서 하늘과 모든 아벨적인 이상세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중생·부활·영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96-036, 2008.08.16)

18 공중권세를 악마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니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립돼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야 **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사랑의 도리를 세워야 됩니다. 근원이 악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에서 출발했으니 참사랑 위에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실천해서 이 구덩이를 메우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체험하고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인간 세상에 전개시키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가던 소원까지도 파괴시키기 위해 최

후의 천주적인 결정을 지으려 한 것이 이번 헬리콥터 사건입니다. 사탄이 최종의 공격을 했지만 하늘이 막은 것입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아무런 상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존함으로써 이 지상에 있는 사람과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부모의 현현을 소리치는 그 함성과 더불어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맞게 된 것을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존재는 크나 작으나 참부모님 완성의 분신체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출발과 더불어 아들딸의 출발이 벌어져서 가정·국가·세계·천주가 하나님을 수평의 주체로 만들어 그 상대적인 권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동산이 생겨나 거기에 새로운 싹이 트게 됨으로써 새로운 줄기, 새로운 가지, 새로운 잎이 생기고 새로운 꽃이 피어서 결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최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억만세를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마지막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전체를 동원하고 지상세계의 전체를 동원한 것입니다. 악마세계가 전체를 동원하여 승리를 우리 것이라고 자신 만만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부모를 보호한 것입니다. (595-055, 2008.08.01) p. 1484

19 2008년 7월 22일 이 아침을 중심삼고 한 고개를 넘게 되옵니다. 천주 전체를 미끼로 하려던 사탄이 탕감의 고개를 세운 대로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지 못한 환경을 대신하여 부모님이 살고 전체가 살아남으로써 지상재림의 완결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승리의 패권국가로 전전할 것을 다짐하옵니다. 하늘땅의 모든 영인들도 이제는 부모님의 혜택권 내에서 축복을 다 받고 하늘의 족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상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축복을 최고의 귀한 표적으로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고 선포하옵니다. (595-009.2008.07.22)

20 예수님은 죽은 후 40일 이후에 승**천**했습니다. 나도 헬리콥터 사고가 나고 40일을 중심삼고 중생완성과 부활완성, 그다음에는 영생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40일 기간에 중생완성·부활완성·영생완성을 할 수 있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604-194, 2008.12.24) p. 1485

21 여러분은 어디든지 자기 일족과 종족을 거느리고 가더라도 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초창조세계의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의 창조이상이 완결된 지상천국, 하나님의 통일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선포가 아니라 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국과 지상에 있는 인간의 조국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된 통일세계는 지상·천상천국이 됩니다. 해방이 아니라 가정의 석방까지 할 수 있습니다. (435-328, 2004.02.06)

22 2009년 1월 15일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핏줄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핏줄을 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조국의 출발과 하나님 고향의 출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원리이고 천리입니다. 순리인 동시에 천리입니다. 인류 최고의 희망인 동시에 새로운 목적세계의 열매로 수확해서 창고에 들어야 할 사실입니다. (607-037, 2009.01.29) p. 1485

5절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천력 선포와 참하나님의 날은 처음으로 음력 원단(양 2.14)에 거행되었다. 그동안은 양력 원단에 지켜져 왔었다. 이날 참부모님께서는 천력(天曆)을 선포하셨다. 천일국 기원절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기존의 양력과 음력은 이제 가인 아벨의 입장에 서서 새로이 섭리를 기억하고 명시하는 '천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960년 참부모님의 성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이상 실현을 위한 재출발이요 인류 입장에서는 구원의 기점이 된다. 참부모님 금혼식은 성혼 50회와 50주년을 맞이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거행되었다. 그만큼 천주**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두 해에 걸쳐서 경축하게 되었으며, 금혼식을 기하여 주요한 섭리적인 변화도 뒤따랐다. 특히 2009년 음력 3월 16일(양 4.19) 금혼식과 함께 천지부모 천주 가인 아벨(선악) 평화 안착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10년 천력 3월 16일(양 4.29) 아벨유엔 정착 대관식 및 제50주년 금혼식을 거행하였다. (p. 1486)

1 1초 동안에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다 모르고 삽니다. 절대신앙의 개인적 존재, 절대사랑의 개인적 존재가 전부 1초 동안에 갈라진 것을 모릅니다. 음력을 쓰느냐, 양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두 세계가 갈라졌습니다. 서양과 동양이 갈라진 것입니다. 조

상은 동일한데 어떻게 돼서 서양과 동양으로 갈라졌고, 나라와 나라들이 갈라졌고, 형제들까지 전부 다 갈라졌느냐 하는 것을 모릅니다. (613-197, 2009.07.07) p. 1486

2 양력과 음력이 갈라질 수 없습니다. 음력은 양력보다 1년에 11일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에는 양력에 비해 모자라는 날짜를 메우기 위해서 약 3년마다 한 번씩 열두 달이 열세 달로 1년이 될 때가 있습니다. 13수의 기원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음력밖에 없습니다. 양력에는 13수라는 한 달을 중심삼고 열두 달이 끌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음력은 작은 것에 전체가 순을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작은 수가 전체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마의 세계를 한꺼번에 삼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13-208, 2009.07.07)

3 참부모님의 금혼식, 참스승·참주인의 금혼식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영원히 한 번밖에 없습니다. 참부모의 금혼식이 두 번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참스승의 금혼식이 두 번 있을 수 없습니다. 참왕의 금혼식이 두 번 있을 수 없습니다. 2009년을 중심삼고 금혼식이 2010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전부를 끝마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611-074, 2009.05.06)

4 금혼식을 하게 되는 2009년 금년에 모든 것을 완결·완성·완료, 결실과 완성과 끝을 내는 것입니다. 완결·완성·완료하는 것입니다. 소생·장성·완성·완료하고 영생복락의 세계로 전진해야 됩니다. (611-142, 2009.05.08)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가 2010년 7월 8일 천정궁과 7월 24일 미국 뉴욕 맨해튼센터 등 한국과 미국에서 수차례 개최된데 이어 2011년 4월 2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전국 공직자와 식구, 평화대사 등 1만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 한국임을 천명하셨다. 이날 새벽 미국을 출발하여 긴 여정 끝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여 쉴 틈도 없이 몇 시간 만에 대회를 주관하셨다. 그리고 그 이튿날 유럽 순회대회를 위해 장시간의 비행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섭리를 종결하시고 인류를 다시 낳으시는 심정으로 유럽 8개국,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회에 이르기까지 비장한 각오와 결단 속에 10개국 세계순회를 단행하셨다. 참부모님은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통해 최종일체를 이루어 복귀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책임과 사명을 완성했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터전 위에서 만왕의 왕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권위를 갖고 정착완료하셨다. 이 대회를 통해 본연의 에덴을 복귀한 시대, 타락이 없었던 시대, 사탄이 없었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p. 1487)

5 말씀이 먼저입니까, 실체가 먼저입니까? 오늘날 종교에서는 실체에 대한 것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체와 말씀이 일체가 되기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어서 그 행한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내외가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계나 학문세계에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체말씀 선포대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2010.07.08, 천정궁)

6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대회인데 말씀 앞에 실체를 갖다 놓았습니다. 개인으로부터 하늘땅을 연결시키고 최종적인 것이 완결되는 것으로서 천지인참부모 정착과 실체말씀 선포와 천주대회가 있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땅을 연결시킨다는 의미는 화합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합이 먼저입니까, 통일이 먼저입니까? 화합이 먼저입니다. 화합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되고 제멋대로 나갑니다. 화합 통일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통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일의 주체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되어야 아들딸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셋과 넷의 존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2011.04.03, 천정궁) p. 1488

7 천지인참부모가 정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의 실체, 정착한 실체가 말씀하는 그것이 우주를 해방시킬 수 있습

니다. 그것이 실체말씀 선포입니다. 천지인참부모가 정착했다는 것은 실체가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말씀 선포입니다. (2011.11.27, 천정궁)

8 참부모님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부모가 해방된 자리에서 지키고 있고, 그를 다시 꺾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뜻 노정에 있어서 주저하는 불쌍한 무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종족적 세계메시아의 책임을 대표한 자리에서 한 이 말씀은 해방의 승리 패권적 자유 천지의 자주장과 타락이 없었던 그 이전 세계의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까지 합해서 그 끝장을 맺기 위한 일을 참부모님 생애 전체의 결실로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의 말씀입니다. (2011.02.03, 천정궁)

9 천주부모는 무형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부모는 실체 부모를 말하는데, 두 부모가 하나되어야 인격적 부모가 되어 천주·천지·천지인부모가 됩니다. 인격적 신이 안 되어서는 참부모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체를 입어서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인격적 신이 되어야 합니다. (450-175, 2004.05.21)

10 천주부모·천지부모·천지인부모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천주천지인부모입니다. 사람이 돼야 하고 사람의 부모가 돼야 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대신 체를 입어서 보이는 신, 보이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체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천주부모와 천지부모를 그냥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한 복귀적인 과정을 거쳐서 천주천지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436-136, 2004.02.07)

11 천지인부모는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사랑을 중심삼고 기뻐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무형실체와 유형실체가 합덕한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과 실체 하나님을 모시는 부부가 조상이 됩니다. 조상이 둘일 수 없습니다. 부모가 둘일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요, 어머니도 하나요, 조상도 하나요, 손자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몸마음을 전개시켜 실체 형상을 쓴 것입니다. 체를 가져야 번식이 됩니다. 체를 가진 천지인 부모의 가정은 하늘나라 백성을 상속해서 이 땅에서 직접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 잡고 타락이니 복귀니 하는 흠이 없는 아들딸,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아들딸을 낳아서 길러야 할 소명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436-136, 2004.02.07) p. 1489

12 축복가정은 탕감혁명·양심혁명·심정일체권을 중심삼고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상대가 되어 종횡으로 주고받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열매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씨요 저나라에서는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창고에 납입시키는 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지상세계이니만큼 지상세계가 완성되어야만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완성한 것을 여러분이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자의 왕이 되어야 하고 충신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로 하늘은 내세우니 이것을 고착시켜 만세의 태평성대 조국광복을 이루어야만 해방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438-091, 2004.02.15)

13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일체권 참부모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하나님과 실체 하나님이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실체권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이 고생한 것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등 8단계 전부가 반박했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깨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중심삼은 자아 자각권을 중심삼고 나왔지만 부모님은 타아자각권을 중심삼고 위해서 투입하며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세계의 모든 인연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체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 정착, 가정적인 체 정착,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인 체 정착, 8단계의 체 정착을 통해 성자의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또한 참부모의 가정적 형태를 이어받아 복중시대에서부터 결혼시대까지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의 심정권을 이어받아 체를 완성시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14-284, 2003.08.04)

14 실체시대에는 몸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체의 몸과 하나님까지 알아야 됩니다. 실체시대는 본연의 에덴을 복귀한 시대, 타락이 없었던 시대, 사탄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세계도 아담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 의향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상대가 되겠다는 아들딸들이 되어야 영원한 부자관계가 맺어집니다. (2009.10.13. 천정궁) p. 1490

15 2012년까지 가정적 에덴복귀시대를 탕감하여 천국에 입적해야 됩니다. 제4차 이스라엘국을 중심삼고 국가권과 종교권 일치권을 연합하시어서 참부모를 중심삼고 천지인부모의 안착으로써 무형의 세계와 유형의 실체세계가 합하여 인간을 중심삼은 전부를 완성·결실하는 천지인 정착, 천주 천지 해방세계를 중심삼고 땅에서부터 하늘로 직행할 수 있는 천국이상 실현을 종결할 수 있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를 맞이하여 모든 선포한 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고, 저희가 선언한 것이 하늘의 뜻과 천주·천지·천지인부모님의 일체 이념과 일치가 되어서 안착할 수 있는 일화통일의 세계로 전진하게 되었사옵니다. (429-264, 2003.12.28)

16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에는 누구든 안착합니다. 전부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상의 유토피아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으니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면 그만이고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해방·석방시대를 완료했습니다. 안착 태평시대를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462-243, 2004.07.28)

17 안착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상충하지 않고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입니다. 그 세계가 유토피아입니다. 나 자신의 몸 마음이 싸우고 있다면 태평시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본에 들어가서 무조건 부모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나는 그렇다. 천지가 변하더라도, 태양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천변지이가 벌어져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떨어지더라도 잠깐입니다. 그 위에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안착해야 거기에 태평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개인 생활권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대신 안착 태평시대를 맞아야 행복한 이상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462-244, 2004.07.28) p. 1490

제2장 천일국 기원절과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

1절 천일국시대 개막과 기원절

천일국 선포의 배경

천일국은 천주평화통일국의 약칭이다. 참부모님께서는 2001년 탕감복귀역사의 승

리권 위에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올리시고 그해 10월 3일 제14회 세계통일국개천일을 기해 천일국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다. 천일국은 평생을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실현을 위해 바치신 참부모님의 비전이 결실된 하나님나라이다. 참부모님은 천일국(天一國)은 '두 사람(二人)이 하나(人)되는 나라(國)'라고 풀이하셨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종적 참부모로, 천지인참부모님을 횡적 참부모로 모시고 한 형제자매로 사는 공생·공영·공의의 이상세계이다. (p. 1491)

1 천주평화통일국, 그런 이름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천국, 이상세계, 유토피아 세계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못 들어 봤지만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세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환경을 넘어서 시공을 초월한 영계와 육계가 있더라도 그럴 수 있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천주평화통일국,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천일국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그 아들딸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 아들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들딸이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개인이나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59-080, 2001.11.06)

2 우리는 죽기 전에 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아내는 남편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 이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합해져서 종족이 되고, 종족들이 합해져서 나라가 되고, 나라들이 합해져서 세계가 되고, 세계가 합해져서 하늘땅, 천주평화통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인류가 백성이 되고 지구성이 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357-195, 2001.10.30) p. 1492

3 여러분이 갈 나라는 천주평화통일국입니다. 그곳은 사탄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메시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하늘나라에서 나 자신의 몸 망음이 하나되

어야 합니다. 그렇게 심정적 일체가 됨으로써 지상에 새로운 천주국가, 천일국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나라, 다음에는 자기 부부의 나라입니다. 부부의 나라도 둘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도 하나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부부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완성적 축복기준을 대표할 수 있는 분별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적 기준이 하늘의 축복권과 지상의 축복권과 같은 입장에서 부자 축복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60-266, 2001.11.17)

4 국경을 넘고 영원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주평화통일국입니다. 탕감법을 해소하고 천상까지 안내할 수 있는 나라가 천일국이라는 것입니다. 지상과 천상의 통일국입니다.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둘입니다. 그 둘이 하나된 나라가 천일국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됩니까? 참사랑을 하나됩니다. 그다음에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하늘 평화와 땅 평화입니다. (365-106, 2002.01.05)

5 하나님의 본연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사탄까지도 사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이 가는 세계는 해방이요, 당신의 소원은 이루지 못함이 없소!'라고 축복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함이 없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라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참가정의 이름으로 세계는 해방될지어다!'라고 할 때 '아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고 얼음이 아무리 두껍게 얼었더라도 봄이 되었으니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봄철에는 씨를 뿌렸던 세계의 끝까지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가정입니다. 사탄은 딱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아담과 해**와** 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가정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189-065, 1989.03.12) p. 1493

6 천주평화통일국의 백성은 대한민국의 백성만이 아닙니다. 세계 인류 전체를 넘어서 영계의 수천억 되는 조상들과 천사세계까지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할 길이 고달프고 고달프더라도 가야 됩니다. 사랑의 상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남편의 심정, 아내의 심정, 형님의 심정, 동생의 심정을 다 투입하고도 잊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58-062, 2001.11.01)

7 지금까지 핍박받은 것은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핍박받는 것도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지 못한 나라, 조국을 어떻게 찾아 드리느냐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색인종을 묶어서 세상이 욕하는 가운데서도 축복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종족과 민족을 편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무형의 하나님이 인간세계를 이렇게 만들기에는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133-307, 1985.01.01)

8 이제 부모님이 새로운 가정, 새로운 종족, 새로운 나라를 편성할 수 있는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유엔과 세계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새로운 가정 편성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더럽힌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성별된 국가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럽힌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해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담의 완성한 후손으로서 면목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노정을 지나서 조국창건을 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은 세계적 광야노정인 40년노정을 중심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재차 편성하여서 세계의 왕국을 창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8-120, 1995.03.31)

9 모세가 80세에 고향과 나라를 찾아서 예수님시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그것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을 중심한 가나안 복귀 40년노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상과 지상이 하나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축복가정의 가나안 복귀노정에서 뒤넘기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게 하려니 브라질 자르딘에서 축복가정을 일체화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일심일체로 정착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되었기 때문에 축복가정은 하늘이나 땅을 뒤집더라도 상충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새로운 차원의 상륙을 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족적인 기준에서 고향과 나라를 찾으려다가 못 찾았던 것을 오늘날 아버님이 지상·천상천국과 가정이상의 완

결을 목표로 한 전부가 80세가 되는 이때에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314-266, 2000.01.09) p. 1494

10 기독교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삼고 하나되지 못하면서 참부모까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나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 4300년을 중심삼고 가나안 복귀, 지상·천상천국을 완료할 것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총정리하기 위해서 제1, 제2, 제3 이스라엘,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완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완결돼 정착 기반 위에 서야만 천일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28-152, 2003.12.18)

11 천일국이라는 말은 참부모로 말미암아 생긴 말입니다. 하나님 왕권을 수립해서 천지부모 안착 생활권을 거치고, 지상·천상 화합 통일대회를 거쳐 지상·천상 평화통일해방성화식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천일국을 선포했는데, 가정맹세도 천일국을 완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비롯한 어머니 아버지, 형제, 나라, 세계, 성인·성자, 천상세계의 전부가 가정맹세문을 중심삼고 같은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왕권즉위식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천일국 때문에 했습니다. 천지부모 통일안착 생활권대회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천일국 국민들이 안착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하늘나라와 지상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일체적 환경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적 결의로부터 8단계의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평준화 기준에서 공동의 목적을 중심삼고 넘어가야 할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396-149, 2002.11.05) p. 1494

기원절과 그 의미

기원절은 실체 천일국의 출발이자 기원의 날로 하나님왕권즉위식 이후 13년 만에 공식 선포되었다. 섭리사적으로 보면 6천년 만에 맞이하는 천주사적인 경사의 날이었다. 참부모님은 천일국을 세우기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흘리시며 천로역정을 걸으셨다. 1960년 성혼 이후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의 노정을 승리하시고 축복을 통해 수억 쌍의 영육계 하늘 백성을 찾아 세우셨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단체를 창설하시는 등 내외적인 모든 기반을 닦으신 뒤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셨다. (p. 1495)

12 부모님은 2001년 10월 3일 세계통일국개천일로부터 13년 기간에 생애를 총평하고 그 표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이라는 것은 3000년을 향한 출발의 해입니다. 그리고 인류역사는 남자와 여자 각 3천년으로 계산하면 6천년이 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6천년에 해야 될 책임을 부모님 생애를 총평한 13년 동안에 마쳐야 됩니다. 아담이 책임하지 못한 것을 부모님이 그 13년 동안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핏줄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핏줄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2013년 1월 13일이 우리의 디데이입니다. 부모님이 13년 동안에 다 깨끗이 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2010.02.01, 천정궁)

13 타락한 세계는 오(O)의 세계가 아니고 엑스(X)의 세계입니다. 오에는 수억의 엑스가 들어갈 수 있지만, 엑스의 세계에는 오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2013년 1월 13일은 하늘이 선포한 디데이입니다. 이 디데이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래 사탄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도적질해서 살았으니까 전부 하늘 것으로 바쳐 드려야 됩니다. 전부 수습해서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 거짓 주인, 거짓 왕이 되어서 거짓 피를 남겼다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계를 모릅니다. 근본의 출발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을 중심삼고 결과라는 것은 하나의 갈 길입니다. 그 길은 둘이 아닙니다. 한 길입니다. (611-046, 2009.05.05)

14 1년 열두 달이 돌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12수의 중심이 13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의 중앙에 들어가 13수로서 핵이 되어야 하는데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13수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이 2013년 1월 13일입니다. 13수를 맞춰야 됩니다. (611-313, 2009.05.20)

15 하늘은 앞으로 기원절까지 새로운 섭리를 해야 됩니다. 천국이상과 해방이상의 모든 문제를 하늘이 원하는 대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팎의 섭리적인 뜻과 세상의 뜻을 해결해야 될 모든 교육이 끝나야 됩니다. 하나의 세계로 가야할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교육을 다 마쳐야 됩니다. 2010년 1월 19일 오늘부터 기원절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끝내서 하

나님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의 문제와 사탄의 핏줄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해방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늘이 원하는 교육을 완전히 필해야 됩니다. 섭리의 디데이를 중심삼고 여러분이 그 일에 맞게 끔 해 나가야 됩니다. 유엔 문제와 국가 문제를 포함한 전부를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결의하고 거기에 맞추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세계가 망하지 않고 남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프로그램은 모든 섭리의 끝을 맺습니다. (2010.01.19, 천화궁)

16 기원절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며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인류역사 이래 꼭 있었어야 하고 와야 할 날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런 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참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절을 13일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12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3일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로 세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인 아메바로부터 고등동물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출발되는 13일째 되는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참어머님, 2013.02.23, 천정궁)

17 하나님도 무형의 실체를 가지고는 완성을 못합니다. 무형의 하나님의 실체인 천지부모가 천지인부모가 **돼**야 할 텐데, 사람으로서 완성한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아담도 책임분담을 미완성했습니다. 천지인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라는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중에 떴습니다. 천지부모가 하나될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타락이 없었던 집에 와서 절대성이 나옵니다. 천지인부모가 되어서 절대 성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것은 개인적인 성이 아닙니다. 전인류의 절반이 여성인데 하나의 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이 상대성을 이루지 못하면 전체 몸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코도 그렇고, 사지백체가 그렇게 들어맞아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의 여자, 완전한 하나의 남자를 중심삼고 맞아야 됩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천지부모천주안식권의 안식권이라는 것은 제1차 아담시대, 제2차 예수님시대, 제3차 재림주시대, 제4차 아담 심정권의 시대에 가서야 안착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투쟁이

없이 화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디데이가 되는 2013년 1월 13일까지 축복을 중심삼고 큰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610-012, 2009.04.10)

18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 인류 가운데 우리만이 이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기원절을 맞았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복을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축복가정들은 하늘부모님께나 천지인참부모님께 너무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은 값없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왔다 갔던 천상의 모든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고대하다가 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보다도 더 섭리의 뜻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정성을 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참어머님, 2013.02.24, 천정궁)

천지인참부모 천일국 즉위식 및 기원절 입적 축복식

6천년 만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날이 밝았다. 2013년 천력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되었다. 이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을 찬양하는 환희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전 세계로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천지인참부모 천일국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복귀섭리의 모든 것을 완성·완결·**완**료하시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신 천상의 참아버님의 성포와 성관이 모셔졌다. 곧이어 보라색 용포를 입고 왕관을 쓰신 참어머님께서 천상천하의 축하 속에 아름다운 장미와 백합을 든 손주님 4명을 거느리고 입장하셨다. 하나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권능과 권위를 상징하는 천황보,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천일국경전 《천성경》과 《평화경》, 그리고 천황봉이 참어머님께 봉정되었다. 참어머님께서 천일국 상징과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시면서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다. 또한 '천일국 원년'을 실체적 천일국이 시작되는 기원절에 맞춤으로써 이날의 의의를 드높였다. 천지인참부모 천일국 즉위식에 이어 영육계의 선남선녀들이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하는 축복의 은사를 베푸셨다. 참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혼문답은 천일국 완성을 향한 결의이자 하나님의 은사를 간구하는 축원이었다. 입적 축복식은 천상과 지상이 일체화된 새 시대가 열림을 실감하면서 큰 환호 속에 성료되었다. 기원절 경축오찬은 천지인참부모님의 승리를 축하드리는 자리이자 천운천복을 상속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참어머님께서는 특별상을 축복가정 대표 1천200명에게 수여하셨다.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의 영새(靈璽) 문양을 사방에 수놓은 보자기가 들어 있는 이 상은 천운천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시는 참부모님의 뜻이 담겨 있다. 천일국 원년, 기원절을 전후하여 원모평애재단이

설립된 것을 비롯해 세계평화정상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국내외 정상급 지도자들과 통일가 지도자, 그리고 세계식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평을 중심으로 거행되었다.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 성화식 이후 40일 예배 때 각 대륙회장들에게 성주를 하사하시고 전 식구들이 지난날의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은사를 베푸셨다. (p. 1498)

19 〈천일국 선포〉 경애하옵는 하늘부모님, 만왕의 왕이신 천주참부모님, 평화의 왕이시여,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늘부모님께 아뢰오니, 국호를 천일국으로, 국화는 장미와 백합으로, 국조는 학으로 정하였사오며, 천일국기와 천일국가를 제정하여 하늘 앞에 봉정하였나이다. 오늘 2013년 천력 1월 13일을 기하여 천일국 원년을 선포합니다. (참어머님, 2013.02.22, 청심평화월드센터)

20 〈입적축복 문답〉 경애하옵는 하늘부모님, 천지인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축복가정들과 전 세계 인류를 대신하여 여기에 모인 축복가정들은 이제 새 역사의 천일국을 맞아 천지인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통일가의 전통을 세움은 물론이요 하늘이 전 세계의 인류를 품을 때까지 총력을 다해 전진할 것을 약속하느뇨? (참어머님, 2013.02.22, 청심평화월드센터) p. 1499

21 〈입적축복 선포〉 하늘부모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찬미와 찬양이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천지인참부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큰 축복과 은사의 날에 설 수 없는 부족한 몸들인 것을 아오나 하늘은 넓게 크게 다시 품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어찌 저희만이 받으오리까? 아뢰옵건대, 하늘부모님, 저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의 완성을 향해서 총진군할 것을 다시 한 번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하늘부모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당신 앞에 사랑받고 자랑이 되는 자녀들로서 서고 싶은 마음 간절하옵니다. 하늘이시여,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늘부모님께 간구하옵나니, 저희를 끝까지 지켜 주시옵고 당신의 뜻을 크게 온 세계에 펼치시옵소서. 아주! (참어머님, 2013.02.22, 청심평화월드센터)

2절 참아버님의 성화와 전통 상속

참아버님 성화

참아버님은 성화를 예비하시듯이 천력시대를 발표하신 2010년부터 혹독하다 할 만큼 성체에 엄청난 무리를 가하는 노정을 걸으셨다. 세계순회를 하시며 강연을 10여 차례나 하시고 매일 훈독회를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섭리를 식구들에게 일일이 교육하셨다. 그러시면서 세계 복귀를 위한 유엔섭리를 마무리하시려는 듯이 2012년 천력 5월 27일(양 7.16) 아벨여성유엔을 생애 마지막 단체로서 창설하셨다. 성화 한 달여 전인 천력 6월 15일(양 8.2)에는 고향 정주에서 서울로 이전한 오산학교를 찾아 옛날을 회고하시고, 천력 6월 25일(양 8.12) 천정궁에서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끝을 맺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신 뒤 다음날 '복귀섭리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최후기도를 참어머님과 함께 올리셨다. 참아버님께서 2012년 천력 7월 17일(양 9.3) 오전 1시54분 93성상의 섭리를 승리로 마감하고 성화하셨다. 성화 이후 13일 동안 세계 각국에 분향소가 차려져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으며, 각국의 정상들이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시하였다. 특히 북한에서는 '문선명 선생은 서거하셨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조전을 보내온 뒤 참아버님께 '조국통일상'을 수여하였다. AP와 로이터, CNN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참아버님의 삶과 업적을 비중 있게 다루는 등 세계인들이 참아버님의 성화를 애도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참사랑의 삶을 특집기사와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이 기간 전 세계에서 찾아온 식구들은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매일 아침 훈독회를 하며 정성을 들였다. 천정궁에는 전현직 국가수반과 식구들의 참배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참어머님은 성화식 전날 거행된 입전식에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 위에 정착시키겠습니다.'라고 결의하시고 천력 7월 29일(양 9.15) 청심월드센터에서 거행된 성화식을 주재하셨다. 성화식은 국내외 31개 종단 지도자들과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축복가정 대표 등 3만여 명이 식장 안팎을 비롯해 천주청평수련원 야외식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엄수되었다. 성화식에 앞서 참아버님 성체를 모신 차량은 오전 10시 천정궁을 떠나 40여분 만에 식장에 도착하였다. 참아버님 성체는 존영을 앞세운 참자녀님과 12명의 봉송위원들에 이어 참어머님과 참자녀, 손자 손녀들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식장 중앙에 마련된 길을 지나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식단에 모셔졌다. 애도의 물결이 일렁였다. 국내외 귀빈들은 송사에서 '문 총재께서는 한평생 인류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많은 업적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문 총재께서는 초종교운동의 승리자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숭고한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며 업적을 추앙하였다. 인터넷을 2시간 동안 전 세계에 생중계된 성화식은 참아버님의 말씀과 사랑과 업적을 되돌아보고, 그 삶과 가르침을 따라 천일국을 정착시킬 것을 결의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원히 모시겠습니다.'라고 식장이 떠나가도록 외치는 식구들의 함성을 뒤로하며 참아버님 성체를 모신 차량은 성화식장을 떠나 다시 천정궁으로 향하였다. '아버님 뜻을 반드시 이루겠

습니다.''어머님 모시고 중단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천성산으로 가는 가도에는 통일기와 장미와 백합을 든 식구들의 눈물어린 외침과 다짐이 울려 퍼졌다. 참아버님 성체는 본향원(本鄕苑)에 도착하여 원전식이 거행되었다. 원**전**식은 '실존하는 영계'에 대한 말씀 훈독에 이어 참가정과 각계 대표들이 장미를 한 송이씩 헌화하고 헌토를 한 뒤 억만세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천일국 진성덕황제(天一國眞聖德皇帝) 억조창생 만승군황(億兆蒼生 萬勝君皇) 천지인참부모 천주원전식 억만세!' 참석자들의 억만세로 성화식과 원전식은 13일장으로 마무리되었다. (p. 1501)

1 하늘의 사정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알다 보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93세에 무엇이 생기기를 원하겠습니까? 생길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더 털어줘야 됩니다. 말하다 보니 목이 멥니다. 뒤에 눈이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서 그 길을 지켜 주고 그 길을 개척해야 될 아들딸의 소명적 책임이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아시아가 없어집니다. 세계가 없어집니다. 죽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내가 소년시대에 뜻을 알고 통곡하던 자리도 그립습니다. 나무를 붙들고 내 사정 알아줄 이 없다고 통곡하던 그 자리에 가 보면 그 나무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다시 그 모양대로 내가 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발걸음을 따라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만 아버님이 해원될 수 있는 조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망을 보고 가지만 여러분은 그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나가고 말지만 그 세계를 여러분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청춘세월을 흘려버리고 고생하던 그 생활을 대신하여 복으로서 내가 아들딸과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의 후대 후손 앞에 남겨 줄 수 있는 조상들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2011.09.02, 천정궁)

2 하나님의 원한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빨리 영계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효자의 모습을 하고, 왕복을 입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기 때부터 왕자 왕녀 이상 사랑했다면 뽀뽀하는 것입니다. '너는 천년만년 영원히 고생시키지 않겠다.'라고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몇천 번이라도 맹세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을 내가 압니다. 그 앞에 서서 '제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영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라고 할 때에 수천 층 위 보좌에 있던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게 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463-216, 2004.08.02) p. 1502

3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쫓아 버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영계에 갈 때 여러분의 기반을 닦아 주겠습니까? 아버님이 영계에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영계에 빨리 가야 되겠습니까, 늦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품었던 이상의 완성시대 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계도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육해야 됩니다. 이제는 때려 모는 것입니다. 말하면 즉석에서 헌법과 같이 됩니다. 방대한 영계가 얼마나 더럽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에서는 아버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상은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본향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아 주어야 됩니다. (564-289, 2007.06.04)

4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신 지 40일 기간에 영계를 두루 섭렵하셨습니다. 특히 섭리사에 나왔던 인물들도 만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의 상황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나는 40일 동안 천정궁을 왕래하시는 아버님과 같은 심정으로 대화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버님의 생각이자 내 생각이었고 내 생각이자 아버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참아버님과 나는 일심·일체·일념·일화로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역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가 한국 교회를 신령과 진리로 새롭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아버님께서는 120퍼센트 찬동하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섭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영계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이때이니 우리도 지상에서 아버님과 보조를 맞춰 하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일국 정착을 위해 전력투구, 사생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10.25, 천정궁)

5 아버님 성화 이후의 40일 동안은 아버님과 내가 일심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섭리적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집을 한 채 샀다고 생각합시다. 먼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부터 합니까? 우선 전깃불부터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요소요소 있어야 될 곳에 배치할 것입니다. 다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님도 성화 이후 40일간은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신령과 진리로 초창기의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살아서 숨 쉬는 교회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라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 2012.10.05, 미국 뉴욕) p. 1503

6 참아버님 성화를 겪어 보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여러분이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았으니까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도와주고 여러분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버님을 모셨고 축복받은 자녀들로서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성장했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10년을 1년으로 생각하며 사생결단 전력투구,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09.17, 천정궁)

참아버님의 전통 상속

참어머님께서는 성화식 이후 3일 만인 2012년 천력 8월 2일(양 9.17)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거행된 삼일예배 겸 세계지도자특별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중단 없는 전진'을 촉구하셨다. 특히 참어머님은 참부모님 전통 전승, 축복가정 이상 완성, 종족메시아의 사명과 책임 완수, 심정문화 공동체 실현 등 향후 통일가의 갈 길을 제시하셨다. 참어머님은 성화식 이후 40일 예배까지 참아버님 영전에 하루 세 번 진지를 차려 올리시며 천상의 참아버님과 하나되시어 천일국 실현을 위해 정성을 들이셨다. 그리고 40일 예배 직후 1970년대 참아버님이 걸으셨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뉴욕까지 5천600킬로미터를 횡단하시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뒤 기원절 준비와 천일국 경전 편찬, 천일국 헌법 제정, 글로벌 인재 육성 등 전승사업을 전개하셨다.

7 여러분은 천국을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있던 물건을 전부 털어놓고 나누어 주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남기는 것은 유물과 말씀입니다. 실체는 영계에 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유물과 말씀이 사다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이상 그 물건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실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늘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399-072, 2002.12.19)

8 나는 이미 이 생애를 고생으로 출발했으니 고생으로 끝마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통일교회와 우리 아들딸에게 남겨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 남겨 주는 복 위에 천년만년 미래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끔 기도했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되는 한, 그 은사의 복이 계속되는 한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천년 역사

를 책임지고 뒤넘기치는 사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서 거동을 하는 한 편안히 누워서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를 가나 도중에 객사하든가 단상에서 쓰러질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천상ㅅ세계에 돌아갈 하나의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264-185, 1994.10.09)

9 나는 아버님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하나님의 창조목적, 창조이상세계를 이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필코 내가 이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시는 날 아버님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님이 남기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낙오자가 되는 아들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버님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보내 드리면서 내가 마음 아파한 것을 이렇게 힘들게 가셔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재림주·참부모로 오신 분이 감옥에서부터 출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다 준비했는데 인간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 준비한 환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밑창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님 이상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심정문화세계, 통일된 하나의 세계,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을 기필코 이뤄야만 됩니다. (참어머님, 2012.09.03, 천정궁)

10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학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버님이 성화 후 본향원에 계시는데 나는 매일 참배합니다. 한국의 명문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돌아가게 되면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합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을 못 때고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 데서 땅에 묻힌 부모와 3년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효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훈독하면서 참부모님이 남겨 주신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2.10.27, 천화궁)

11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언**제** 이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버님께 돌려드린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베옷을 입고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버님께 다시 한 번 맹세하기 바랍니다. 아버님도 영계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이때 우리도 지상에서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 풀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참어버님, 2012.10.25, 본향원) p. 1505

12 여러분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부모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제자, 또는 축복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고대하고 하늘이 고대했던 참부모님이 오셔서 섭리역사를 완성·완결·완료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셨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애박물관인 천지선학원을 지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게도 새 시대, 새 역사의 천일국시대에 있어서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님과 종적 기준을 세워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기록이 지상에도 남게 되고 저나라에도 남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아버님의 유업을 갈고닦아 후대까지 빛을 발할 수 있게 전통을 세울 것입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님의 뜻이고 내 뜻입니다. (참어머님, 2013.05.13)

13 나는 아버님이 성화하신 뒤 생애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을 천지선학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천지선학원 박물관은 초현대적이고 다목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입장해서 전체를 한 번 둘러보고 나갈 때에는 입회원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곳에는 감동적 콘텐츠를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할 수 있게끔 참부모님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의 소원은 하나의 세계, 즉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평화로운 지상·천상천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는 비로소 탕감복귀를 승리하신 터전 위에 지상·천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축복가정 여러분은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열 달이라는 어머님의 수고가 있어야 하듯이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탄생한 생명들이 이 천지선학원을 거쳐 가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4.11.12) p. 1506

14 하늘의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항상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며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부모님을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모시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늘의 크신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3.22, 천정궁)

15 여러분은 앞으로 아버님이 영적으로 함께하심을 체휼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님을 뵙고 싶으면 많은 실적을 가져와서 아버님을 뵙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평소에 팔다리를 남에게 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의 몸을 보호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 사람한테 가서 영적인 역사를 하실 것 같습니까? 일사분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원리를 중심삼고 나아갑시다. 기원절을 놓고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은 자신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10.25, 본향원)

3절 천일국 3대 경전 편찬

천일국 경전 편찬과 전통 확립

천일국 3대 경전은 참부모님께서 한평생 일반 대중이나 식구들에게 내리신 말씀을 주제별로 묶은 《천성경》, 참부모님 생애노정과 업적을 담은 《참부모경》, 그리고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 선포하신 강연문을 엮은 《평화경》을 말한다.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 성화 직후 참아버님의 전통과 유업을 전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전 편찬을 지시하셨다. 후대에 길이 지침이 될 교재교본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듯 천상의 참아버님과 일심·일체·일념·일화·일핵의 자리에서 섭리를 경륜하시는 참어머님께서는 천일국 경전 편찬을 통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셨다. (p. 1506)

1 아버님의 말씀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정리가 안 된 채로 있습니다. 모든 서적들이 그렇습니다. 2천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예수님의 뜻을 폈는데, 아버님 말씀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미래에 혼돈이 올 것입니다. 후대 사람이 봐도 비판할 수 없는 원리원칙으로, 뿌리도 하나요 줄기도 하나요 열매도 하나인 영원한 말씀으로 남겨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생활기준이 되고 푯대가 되고 생활지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석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귀한 원석이라도 갈고닦아서 빛이 나게 해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은 한마디로 원석은 원석인데 정제되지 않은 원석과 같습니다. 나까지 그렇게 놓아두면 누가 이것을 갈고닦겠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그 누구도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영구히 보존되기를 바라서 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이 말씀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어머님 2013.01.07, 천정궁) p. 1507

2 여러분이 어머님만큼 섭리역사를 알고 원리를 압니까? 이미 이루어진 상태밖에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전부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명을 다하고 영계에 갈 때 이 《천성경》을 안고 가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사는 동안 어머님의 교육을 받아 아버님의 말씀을 사랑하다가 품고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상에서 깨끗하게 완성·완결·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1.07, 천정궁)

3 우리는 참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탕감의 원칙을 알았고, 그 탕감을 통한 복귀의 원칙을 통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과 같은 심정권에 서야 하고, 나아가 같은 심정권에서 살아야 합니다. 참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참가정의 자녀들도 이점에서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여러분과 참가정이 참부모님과 같은 심정권에 올바르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늘의 전통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 전통을 세우기 위해 천일국 경전을 편찬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4.20, 천화궁)

4 말씀은 진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부모님께 사랑으**로** 심정문화세계를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천상에 계시는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님 앞에서 성숙된 아들딸로 서겠다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09.03, 천정궁) p. 1508

경전 편찬 과정과 섭리적 의미

천일국 경전 편찬은 첫째 탕감복귀섭리노정을 걸으신 참부모님의 말씀과 생애노정 및 행적을 영원한 역사적 유산으로 전승하고, 둘째 천일국의 비전과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세운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훈독을 통한 인격화가 이뤄져 그 지평이 세계와 천주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2013년 기원절에 3대 경전 중《천성경》과 《평화경》을 봉정하였다. 일본어판은 그해 참아버님의 성화 1주년에 봉정하였고, 영어판은 2014년 성화 2주년에 발간되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판 발간도 연이어 진행되었다. 《참부모경》은 2015년 기원절에 봉정하였다.

5 아버님의 업적은 타락한 인류 앞에 보석과 같은 진리의 참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천성경》이라는 책 속에 한 줄로 꿰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일국 시대에 박차를 가해야 될 입장인데 이 말씀이야말로 천일국의 실질적인 중심이 됩니다. 열매입니다. 기둥입니다. 이 말씀과 하나되어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 나간다면 얼마나 하늘이 기쁘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늘이 바라시는 뜻 앞에 해야 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하루빨리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이끌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일국의 효자 충신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실에서 게을리한다면 하늘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궁행해야 되는지를 재삼 결의하고, 《천성경》《평화경》출판기념식을 기하여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중심삼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어머님, 2013.06.10, 천주청평수련원)

6 말씀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체로 말하면 척추입니다. 척추가 잘못되면 모든 장기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일국 경전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아버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되어 살아서 숨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창조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판도가 커지게 되면 어둠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참어머님, 2013.08.24, 천정궁)

7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참부모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가 천지인 참부모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아버님의 역사적인 전 생애를 놓고 후대를 위해서 남겨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님 말씀을 천일국 경전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매일 지니고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매일 가지고 다니듯이 나는 아버님의 말씀 《천성경》《참부모경》《평화경》을 여러분 품에서 떼어놓지 않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도구입니다. 얼마나 귀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인류를 살리는 말씀이 나왔으니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3.04.15, 천화궁)

8 여러분의 조상들을 해방해 줘야 됩니다. 조상을 해원하고 모든 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에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농축액과 같은 《천성경》《평화경》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생명이라도 더 참부모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고 밤잠을 안 자더라도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

천궁행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3.06.23, 미국 하와이) p. 1509

4절 천일국 헌법 제정

천일국 헌법 이념

참부모님께서는 2001년 천일국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 천일국을 치리하는 헌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다. 그리고 헌법이 어떻게 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다. 천일국 헌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내용이어야 하며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을 담은 '가정맹세'가 그 기본정신이라고 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가정맹세'가 성약시대를 넘어 천주평화통일왕국을 이루는 절대 기준이요 헌법과도 같다고 강조하셨다. 따라서 천일국 헌법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 말씀의 핵심이 잘 요약된 '가정맹세'를 최우선을 해서 제정되었다. (p. 1510)

1 국가법을 보면 전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몇 년 징역'이라고 하면서 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은 자유와 해방이 깃들어 있고 우주가 보호 육성하는 것이며 세계와 더불어 권한과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악은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우주의 공의 앞에 제재를 받아야 되고, 국가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전체 사회의 제도 앞에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악을 환영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우주에서는 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은 제재의 법도입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선에 대한 보상법이 없습니다. 최후에 공의에 의하여 심판받는 날이 오면 하나님은 악의 법을 치워 버리고 선의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는 선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악한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더라도 선한 법과 가치를 중심삼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천법, 즉 천적인 헌법을 중심삼고 선에 대한 보상을 정한 법이 생겨날 것입니다. 천리와 공의에 따라서 그런 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 세계가 바로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016-134, 1966.01.02) p. 1510

2 통일교회는 앞으로 선한 법을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 국제적인 법을 만들어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선정해서 상금을 주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선은 보호 육

성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자유와 해방이 깃들어 있으며 진리가 영원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희망이 깃들게 하고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016-135, 1966.01.02)

3 선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은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악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도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야 할 첫째의 길은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와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하나된 후에 그 가정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되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되고, 그다음에 아들딸과 하나되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 원리에 나오는 삼대상목적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073-085, 1974.08.04) p. 1511

4 하나님의 뜻에는 섭리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의 치리에 받게 되어 있지 그냥 주먹구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법이 천법입니다. 이것은 만민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세계를 하나로 보고 그런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법에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를 받더라도 그 법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절대 안 통합니다. 천법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과 약속해 놓고는 '그거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적당히 하자.'라고 하면 안 통합니다. 엄청난 뜻이면 뜻일수록 엄청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법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천명입니다. 사회의 어떠한 명예라든가 체면이나 위신을 통하지 않습니다. 천명에 의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면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옛날 그와 같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3-240, 1979.03.01)

5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하늘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가법이 없습니다. 전부 타

락한 가법입니다. 수많은 민족이면 민족들이 전부 얼룩덜룩한 문화권을 중심삼고 이어 온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단일문화권을 중심한 역사적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면 가법에 의해 치리받아서 살아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언어도 둘이 아닙니다. 말도 앞으로는 전부 혁명을 해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배운 그 말을 아담 해와가 할 것이고, 아담 해와의 아들딸은 아담 해와가 하는 말을 배우기 때문에 말이 자동적으로 통일되고 문화도 자동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역사도 둘이 있을 수 없고 하나입니다. (065-196, 1972.11.19) p. 1512

6 말씀이 앞으로 헌법이 됩니다. 말씀을 아버님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님에게 무자비한 분입니다. 천법을 영원한 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영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아버님이 대표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일점일획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지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 실천하더라도 백 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360-174, 2001.11.15)

7 하나님이 바라는 천법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위기대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통일교회 원리말씀은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천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조 하는 그 몇 조의 말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의 법은 사람이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느냐, 실체가 되었느냐, 사람이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법이 있는 나라는 어디든지 거리낌없이 통할 수 있습니다. (103-234, 1979.03.01)

8 통일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이 통일교회 말씀입니다. 원리 말씀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을 다 지킵니까? 금식을 하고, 약혼해서 3년 동안 떨어져서 살고, 결혼해서 40일 동안 성별한다는 등 복잡한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잡아다가 교도소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 법을 어기게 된다면 벌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교회는 인간이 가정을 찾아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법

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면 그것은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3-235, 1979.03.01)

9 하나님은 아버님에게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것과 우주의 근본은 부자관계라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풀어내야 됩니다. 이 부자관계의 부자는 세상 핏줄을 가진 그 부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근원에서부터 풀어 나가야 됩니다. 타락을 모르면 모릅니다. 내가 근본을 다 밝혔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입니다. 천법입니다. 축복가정을 아버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주 본래의 공식적인 법도입니다. 법도에 맞기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절대 실천하고 절대 준수하여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376-315, 2002.04.29) p. 1513

천일국 헌법 제정과 그 필요성

2000년 초반부터 참부모님 말씀에 따라 헌법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되었다. 2013년 천일국 기원절 선포와 더불어 천일국이 창건되었기 때문에 천일국의 헌법이 나와야 한다는 참어머님 말씀에 따라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참부모님의 말씀은 천주적 승리의 보고이고 생애 노정은 모든 인간이 따라가야 할 삶의 전형이다. 이에 따라 천일국 헌법 제정 원칙은 천일국 이상의 지상 실현, 참부모님 말씀 중심 제정, 천일국 국민의 신앙 정립과 비전 제시, 초국가·초인종·초문화·초종교적 보편성, 만장일치제 지향, 상향식 무급봉사제 채택 등 9가지로 정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말씀선집과 '가정맹세' 등의 말씀 연구를 통해 천일국 헌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리하고 천일국 국민의 생활지침과 규범을 도출하였다. 참부모님은 헌법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말씀하셨다. 첫째 하나님왕권즉위식을 거행해서 하늘이 왕권을 가졌으니 법을 중심삼고 치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천일국을 선포했으므로 국권을 세우는 헌법을 제정할 때가 왔다고 보셨다. 셋째 천일국의 치리와 정착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국가를 중심한 이상 실현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376-315, 2002.04.29)

10 20세기 문명의 발전은 지식 위에서, 공식 위에서, 법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최후에 남는 것은 법도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헌법을 중심삼고 부처법이 돼 있어서 나라가 그 법 이에 서 있습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헌법이

없고 하늘나라의 헌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부처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세계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은 하늘나라의 헌법을 모르고 부처법을 모릅니다. 제멋대로입니다. 갈래갈래 싸움터를 만들어 놓은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헌법에 의해서 나라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고 가정에서부터 종족과 민족이 어떻게 확대되어 나왔다는, 이론적으로 확실한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456-166, 2004.06.28) p. 1514

11 재림주는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공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심판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랑하던 국가기준 이상의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워지지 않고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헌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065-195, 1972.11.19)

12 하늘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헌법을 지상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상에서 완성할 수 있는 해방적 조건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적 체제, 종족적 체제, 국가적 체제를 실체적 권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체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법이 중심입니다. 법을 중심삼고 절대 순응할 수 있는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상과 천상세계에 사탄이 남겼던 역사적인 모든 법과 실체를 부정하고 천국으로 일원화해야 됩니다. (325-160, 2000.07.01)

13 대통령도 헌법이 제정된 후에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헌법을 오늘 아침에 제정했는데 내일 저녁에 집어치우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됩니다. 천년 왕이 되려면 천년 법을 세워 놓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순식간에 가려서 행하려 하는 사람은 풋내기 왕입니다. 하루살이 왕밖에 못됩니다. 천주를 통일해서 대법도를 세운 그분이 하루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금방 변경할 수 있습니까? 대도, 대의에 의해 세워진 천법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74-234, 1974.12.31)

14 하늘나라의 헌법, 하늘나라 각 부처의 법을 중심삼고 체제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의 절대 권한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법 위에

가정이 서고, 법 위에 나라가 서기 때문에 법을 절대 수호하고 절대 실천하는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부처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법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육법전서가 있으면 육법전서에 의해서 각 부처에 대한 모든 법이 있게 됩니다. 법을 중심삼고 그 부처의 선악을 가려 나갑니다. 무엇이 틀렸다 하면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절대 수호해야 됩니다. 원리말씀도 절대 수호해야 됩니다. 법 중의 법이 원리말씀입니다. (324-140, 2000.06.18) p. 1515

15 가정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 참사랑의 헌법을 중심삼고 모든 것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해서 변화시키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체제는 관리체제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차이없이 잘사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관리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관리, 가정적 관리, 종족적 관리, 민족적 관리, 국가적 관리, 세계적 관리까지 전부 사랑을 중심삼고 이뤄집니다. 이것은 가정이 확대된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의 8단계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미 갈 길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 방향을 통해서 투쟁이나 배척 없이 안착할 수 있는 공식화된 관리체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303-194, 1999.08.25)

16 하늘나라가 있으면 하늘나라의 왕국법이 있습니다. 종적 기준으로 하늘나라의 왕궁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궁법을 중심삼고, 종적인 이상적 기준을 따라서 나라의 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성자는 하늘나라의 왕궁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왕궁이 있으면 왕궁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나라 왕궁이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직속 대열에 통할 수 있는 황족권의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8-184, 1987.09.20)

17 헌법이면 헌법을 중심삼고 각 부처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중심삼고 부처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의 골자를 중심삼고 하늘나라의 헌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없으면 그 부처가 생기지 못합니다. 법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고, 국가수준도 그렇고, 세계수준도 최고의 법적 기준에 의해서 상대적 비준에 맞아야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뜻을 위주로 한 법적 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상적인 법을 세웠는데 인간이 법대로 안 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시대로 돌아갈 때에는 법 절대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이익을 위한 법입니다. 세계평화, 하늘땅을 하나 만들 수 있는 평화의 이상을 중심한 법이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은 앞으로 없습니다. (515-032, 2006.01.21) p. 1516

18 국가시대를 지나서 세계시대에 가서 축복받게 되면 백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되어야 비로소 천국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정에서도 전부 모여 누가 원칙에 일치된 삶을 살았는지 공적인 논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정 전체를 위해서 보다 희생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통일교회 전체가 알고, 부모님 일족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된 후에는 세계가 다 법적 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의 헌법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법에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법에 상치 안 되는 후계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128-112, 1983.06.05)

19 하나님 왕권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국가 왕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권,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를 넘어 천주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라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적시대가 되었습니다. 입적을 할 때에는 내용과 외용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하늘 앞에 입적되어야 하고, 대통령이나 장관, 국장까지 입적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국가기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되어야 합니다. 강제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헌법이 생겼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치리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 법만 있었지 타락해서 파괴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법이 나왔으니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356-056, 2001.10.08)

20 섭리의 뜻은 한국을 중심삼고 조국광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국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출발시킨 고향 땅이 광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국과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타락하지 않은 새로운 출발과 연결돼야 모든 역사가 청산됩니다. 정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섭리시대는 지나갑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면 법적 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의 법적 시대에 들어가니만큼 몇 천년, 몇 만년 가더라도 1분 1초가 틀리지 않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섭리시대는 지나가고 본연의 창조이상세계가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헌법을 중심한 법적 시대로 들어갑니다. (611-024, 2009.05.04) p. 1517

21 이제는 법적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용서할 수 있는 시대와 다릅니다. 아담 해와가 잘못해서 직접 처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즉결처분을 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세상의 법을 다 알고 있으니만큼 이제 설정된 세상 법보다 몇 백배 무서운 하늘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충성했던 자기 조상들을 대표하여 그 몇 백배, 몇 천배 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나 나라나 아들딸까지 자기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에게 관리받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딸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하던 것을 그냥 해 나가다가는 그 자녀들의 갈 길이 막힙니다. 그런 무서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511-286, 2005.10.14)

22 영계에서 지금까지 문제 된 것을 전부 끌어내서 부모님이 해방했기 때문에 영인들이 지상에 내려오는 데에 상충이 없습니다. 전부 축복받았습니다.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천사권 가정들이 내려와서 일대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가정을 수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영계에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대변혁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분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보호하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천법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 천법을 중심삼고 헌법과 법에 의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이나 천국을 가르게 돼 있지 탕감법을 적용해서 가르게 안 돼 있습니다. 새로운 법치국가 형태를 갖춰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왕권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를 편성해야 됩니다. 초민족·초국가·초세계의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346-204, 2001.07.01) p. 1517

천일국 헌법 제정 목적

천일국 창건의 섭리사를 밝힌 헌법 **전**문은 헌법의 제정 목표가 무엇인지를 천명하고 있다. 천일국 헌법은 천일국 국민 모두가 참부모님이 생애를 통해 보여 주신 말씀을 실체화 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법도·규범·지침으로서, 천일국을 정착·완성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체제·가정체제·국가체제·세계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리고 천일국 헌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국경·인종·성별·문화·종교 등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참사랑의 심정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가운데 이상가정을 통한 심정문화세계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p. 1518)

23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가 되면 그때의 법은 세상의 법이자 하늘나라의 법이 됩니다. 여기에서 쓰는 헌법은 하늘나라의 헌법이 되고 하늘나라의 헌법은 여기에서 쓰는 헌법이 됩니다. 그런 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슬픈 하나님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헌법 선포식을 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러려면 세계를 무대로 하여 하늘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지극히 제한된 자리이지만 여러분만을 중심삼은 자리가 아니라 수천억이 되는 온 영계의 영인이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역사시대의 공신들이 바라보는 그 하늘의 법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거동하는 것이라든가 앉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66-298, 1973.05.16)

24 아담과 해와가 영원불변한 천도를 어겼기 때문에 법을 적용해 처벌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법에 치리받게 됩니다. 형법의 치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때가 옵니다. 거기에는 부자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갈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불살라 버려서 없어져야 됩니다. 숙청과 마찬가지로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정비가 아니고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재까지 없어지고 그림자까지 보이지 않게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권 위에 절대 성을 중심삼은 참사랑의 핏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몸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적 결실체가 수확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하늘땅에 타락의 그림자도 없게끔 된 그 세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자리를 잡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뜻을 완성하고 참부모의

자리를 완결해서 만사형통한 해방·석방의 왕권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606-224, 2009.01.13) p. 1519

25 사랑의 힘, 사랑의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는 존재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화합하고 하나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그것을 보호하고 하나되기 위한 것입니다. 화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세계는 사랑을 중심삼은 생명력을 지닌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야말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를 위해서 우주를 지었다면, 그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111-171, 1981.02.15)

26 천운의 종착점은 뜻의 완성세계에 있으므로 완성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법을 중심삼고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 주권이 나 자체를 통하고, 가정을 통하고, 민족을 통하고, 국가를 통하고, 세계를 통해서 천주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계에서 '나는 순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으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곳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천운은 하나의 선의 주권세계를 향해 갈 것입니다. 가는 데는 그냥 점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가정을 통해서 넘어가고, 종족을 통해서 넘어가고, 민족을 통해서 넘어가고, 국가를 통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세계를 통해서 넘어가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게 하여 선의 주권을 중심한 선의 헌법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후대 사람들이 개인을 넘고 가정을 넘는 데 있어서 투쟁없이 순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지상천국시대입니다. (078-139, 1975.05.08)

27 하나님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주관하는 주인이요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세계는 하나님께 주관받는 나라와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지상에서는 지상천국이요 천상에서는 천상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 땅 위에, 인류역사에 비참한 역사는 없고, 오늘날 미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니 혹은 흑인이니 백인이니 황인이니 하는 민족이나 인종의 분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세계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단일민족·단일문화·단일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세계도 아니요 공산세계도 아닙니

다.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자로서 하늘의 헌법에 의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는 세계일 것입니다. (074-173, 1974.12.09) p. 1520

28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섭리에 있어서 치리하던 구약의 법과 같은 법은 많이 있었지만, 구원섭리를 넘어선 완성 섭리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선한 세계에서 치리할 수 있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현현하는 시대가 올 텐데 이것은 한 개인이 순응해야 될 법이요, 한 가정이 순응해야 될 법이요, 한 국가가 순응해야 될 법이요, 전 세계가 순응해야 될 법입니다. 이 법은 지상에서만 순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세계에서도 그냥 그대로 순응해야 될 법입니다. 이 법의 치리를 받고 이 법에 훈련된 사람은 저나라에 가서도 자동적으로 생활환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설정되는 때가 선주권시대입니다. 그 세계는 차원 높은 세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면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법이 아니라 입체적인 면에서 보는 법입니다. 그 세계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078-136, 1975.05.08)

29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태도를 취하면 법에 걸리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결과는 어디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상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인을 받기 때문에 수천년이 지나도 그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법의 정의를 세워 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탕감복귀라든지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해방권과 석방권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천주가 보호해서 키워 줍니다. 상속권을 전수합니다. 동거권 동락권의 모든 것, 공동의 가치로 인정하는 모든 것을 전수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45-050, 2006.11.18) p. 1520

30 주권자와 국민에 의해서 국가의 선악의 기준이 결정된다면 이 우주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요 주인공입니다. 그다음에는 세계 사람이 됩니다. 국민을 대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자와 세계 사람이 합해 하나의 헌법이 나와야 된다는 말도 타당합니다. 각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주권자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어 있지만, 이 대우주의 세계인들과 대우주를 주관하는 주권자가 합한 공동의사에 의해서 우주의 불변의 헌법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양심이 변하지 않고 인간의 이상과 희망이 변하지 않는 한 인류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헌법이 나와야 됩니다. (079-175, 1975.07.27) p. 1521

31 여러분 조상과 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판사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참기 힘든 것을 참아왔고, 어려운 자리를 극복했고, 환경을 수습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주의 법과 질서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과 사랑의 질서, 인륜, 가정·사회·국가·세계·천주·하나님 전체를 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헌법기준을 중심한 우주법 치하에 살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을 비롯한 모든 법이 지지하고 옹호하고 해방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사랑하고 위하여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117-313, 1982.04.11)

32 영원한 고향 땅,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생활법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가 살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자녀가 살고, 손자 손녀가 살고, 종족이 살고, 민족이 사는 전통적인 모든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신과 일족이 사는 그 나라의 족속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면 제재를 받습니다. 국경이 있어서 이 국경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든 무엇이든 어디를 가든 걸려 버립니다. 범죄적 조건에 걸려 사방에 엉켜서 살 길을 못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향 땅을 중심삼고 삶의 훈련을 철저히 받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10-112, 1999.06.15) p. 1522

33 가정맹세에서 천일국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심 뿌리가 되는 부모가 초민족적이요 초국가적인 영계와 육계,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것을 일대에 청산해서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해와가 일대에 망쳐 놓았던 것을 참부모가 일대에 청산하고 하늘나라의 헌법을 중심삼고 가정과 나라를 구성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360도권의 방향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 제정한 것은 어떤 나라의 헌법이나 국권, 전통을 가지고서는 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역사 위에 세워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93-021, 2005.04.18)

next

천일국 헌법 제정 방향

천일국 헌법은 천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체적 천일국을 정착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천일국 생활 규범과 천일국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2001년 하나님왕권즉위식에서 혈통과 인권과 공금, 그리고 가

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것이 천일국 헌법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천일국 헌법에는 운영조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천정원(天政苑), 입법을 담당하는 천의원(天議苑), 법을 담당하는 천법원(天法苑), 재정을 담당하는 천재원(天財苑), 민의 수렴과 보도 및 홍보를 담당하는 천공원(天公苑)의 5원을 두고 있다. (p. 1522)

34 이제는 하늘이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법을 중심삼고 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왕권즉위식 때 3대 하늘나라의 헌법에 대한 개요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헌법이 발동됐습니다. 그대로 살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타락한 것이 무엇이냐? 아담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모 앞에 효도해야 되고, 그 부모가 바라는 나라의 충신, 세계에서 성인, 하늘땅에서 성자의 도리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349-100, 2001.07.14)

35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일이 있더라도 핏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사조치를 잘못해서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평준입니다. 인권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인사조치를 못합니다. 자기보다도 선조가 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대 안 지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목을 쳐 버리면 자기 조상이 전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인권을 정상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참사랑, 위하는 사랑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류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류사상을 흩어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 중에 둘째 번 죄입니다. 셋째 번은 공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342-298, 2001.01.13)

36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1조건입니다. 하늘나라의 헌법이 필요하고 국법이 필요하고 가정 법이 필요하지만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 바탕이 수평이 되어서 내 마음이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중앙에 서면 이것이 전체 수평의 중심이 됨으로써 개인적 중심으로부터 8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516-236, 2006.02.07)

37 하나님과 영계에 대해 확실히 가르쳐 줬고, 천일국시대의 법을 적용할

때가 왔기 때문에 구원섭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준 이후에는 여러분과 더불어 붙들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보여 주고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 위에 하늘의 도리를 세워 주고 탕감을 다 해주고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영계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계의 실상을 전부 샅샅이 기록해 보내온 것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영적 참부모인 하나님도, 실체 참부모도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헌법에 대한 것도 말했습니다. (365-196, 2002.01.08)

38 참부모·참스승·참왕의 대신자로서 무형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이 실체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창조이상의 완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새로운 헌법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계의 실상이 말씀과 일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이것을 땅 위에서 결실해 거두어서 하늘의 복을 가득히 쌓아 놓는 실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뒤로 가야 됩니다. 실체 완성한 가정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지상과 천상에 머무르지 못할 곳이 없는, 또 주관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일방 완성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602-257, 2008.11.16)

39 입법·사법·행정과 언론·금융까지 합해 5개 부처를 중심으로 유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그다음 4권에 언론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권이 금융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언론계입니다. 내가 이 머리카락을 다 알고 솜털 하나도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 투명체와 같은, 육각이 확실한 수정체와 같은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세계는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비밀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426-107, 2003.11.19)

40 5권분립의 통합적인 하나의 평화세계가 개문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면 하늘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초적인 헌법 초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유엔에 가지고 가서 증거를 하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헌법 초안은 가인 세계의 내용을 중요시하였지만 우리만이 적용할 수 있는 헌법을 갖추어서 하늘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일 동안 총회를 열어 정리하여서 유엔총회의 결의로써 선포하여야만 하늘나라의 헌법 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등등을 집약시켜서 이 기간에 해야 됩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하늘나라의 헌법 선포까지 하고 나서 5권분립의 시대로서 평화세계의 출발을 선

언하여야 됩니다. (606-091, 2009.01.07)

41 아벨유엔을 만들어서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천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헌법이 있는 한 구조적인 실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법에 맞게 할 때에는 공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권분립에 대한 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언론계와 금융계까지 더하게 되면 5권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5권시대가 되면 완전히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행정 조직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 동산의 주인 노릇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고 현재 완성시대를 넘고 있습니다. (588- 073, 2008.04.12) p. 1524

제3장 참부모님의 생활철학과 공적 생활

1절 참부모님 생활철학

참사랑을 바탕으로 한 생활철학

참부모님께서는 인간이 가야 할 전형노정을 걸으셨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사랑의 생활철학을 보여 주셨다. 참부모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천일국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기도 하다. 탕감복귀노정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지옥의 밑창까지 내려가야 하는 고난의 삶이다. 참부모님께서는 누구도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인류의 해방을 위해 참사랑을 실천하셨다. 또한 당신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으셨고 남보다 더한 고생은 하나님까지도 감동시켰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투입하고 잊어버리셨다.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는 흥남비료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할 때에도 생명과도 같은 주먹밥을 다른 죄수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항상 남의 무거운 짐까지 대신 짊어지셨다. 참어머님께서도 어려운 식구들의 사정을 접하시면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삶을 사셨다. (p. 1525)

1 부모님의 생활철학은 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위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기 위해 있는 정성을 다 투입하는 것입니다. 백 퍼센트 이상 투입하면 하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사랑보다도 더 큰 하늘의 사랑에 접하면 사탄세계의 사랑권에서 떠나 하늘 편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적인 힘이 배가될 수 있는 하늘의 재창조의 섭리관이 현실적 생활무대에 연결됨으로써 하나님 아들딸의 권세를 갖추어 전체를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됩니다. 또 받은 사람은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고마움의 행실을 보탬으로써 영속적인 순환운동이 가능하게 되어 대우주세계와 내가 관계를 맺

을 수 있습니다. (417-137, 2003.09.06)
2 여러분은 두 가지가 있을 때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부모에게는 덜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비교해서 둘 중에 좋은 것을 갖겠다고 하면 그것은 타락한 세계의 전통으로 내려가는 것이요, 둘 중에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하면 전보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없어집니다. 두 물건 가운데 좋은 것을 부모에게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세계는 정오정착의 광명한 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생활철학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귀한 것이 있으면 하늘 앞에, 후손들 앞에 넘겨주려고 하지 써 버리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409-225, 2003.06.28)
3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 인류 가운데 머무르는 사랑이지 통일교회 안에 머무를 사랑이 아닙니다. 세계에그 사랑을 남겨 주고 그 사랑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내세워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희생시키고 고생시키는 것은 세계를 대표한 사랑의 결실을 가져오는 데 공헌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일교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통일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 내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일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통일교회 안에서 사랑의 흠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통일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을 지금까지의 종교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세워 그렇게 지도하려는 나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생의 철학입니다. (082-053, 1975.12.30)
4 내가 양복 입기를 싫어합니다. 넥타이를 안 매고 생활합니다. 왜 그러느냐?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는 비용의 10분의 1을 절약하겠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 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땅 위의 인류 앞에 소망적인 흔적이 아닐 것이냐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호텔에 가면 머무르는 방이 있고, 목욕실도 있는데 잘 꾸며 놓았습니다. 목욕실에 들어가면 수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나는 수건을 쓰면 언제나 작은 것을 씁니다. 큰 융단 수

건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건 값을 절약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겨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양말을 안 신는 것도 그것으로 정성들여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의 갈 길을 개척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이 무서운 것입니다. (240-279, 1992.12.13) p. 1527

5 아버님은 인간이 본래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 즉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동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흘려 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내 생애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흘려 보지 못한 새로운 눈물을 흘리고 죽자 하는 것이 생활철학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는 천년 만년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러한 심정과 내용을 갖고 그러한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 피를 토하며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슬픈 눈물을 짓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시대의 그 누구에게보다도 나를 통하여 애석한 사연을 남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은 지금까지 이것을 필생의 소원으로 삼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세계 만민 가운데 많다 하더라도 아버님만큼 되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031-326, 1970.06.07)

6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절대적 환경을 존중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한한 발전의 세계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무한한 한계를 내가 넘어서려고 하기 전에 그 본체 되는 하나님을 내세우고야 한계의 기준을 넘어 무한한 발전의 세계로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창조입니다. 환경을 못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도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자멸할 수 있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힘이 안 납니다. 주변 환경이 안 좋아하고 힘이 동반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점점 멀리 떠납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해야 될 텐데 더 좋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중심삼고 경계선을 쳤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삼고 움직이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 고개를 못 넘기 때문에 우주와의 상관관계 상응관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칙에 일치 안 된 상대적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철학을 갖고 삽니다. (596-213, 2008.08.29) p. 1528

7 완전한 주체와 완전한 대상이 하나된 것은 천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연과 역사적 변천이 이것을 움직여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

권을 가지고도 완전한 주체 앞에 완전한 대상이 되어서 수직을 지켜 가는 사람은 때려서 넘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치더라도 하늘 땅이 뿌리와 순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때려서 넘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친 사람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철학입니다. 하나님을 위로 모시고 그 아래 수직의 자리에서 축이 되어서 받들고 있는 한,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놓지 않는 한 이것을 친 사람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대표하고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를 대표한 기둥이 되어 있으니 기둥을 보호할 수 있는 천운이 받들고 있기 때문에 치는 사람은 반드시 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305-285, 1998.08.27)

8 부모님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돈이 생기면 내가 쓰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남기고 싶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참고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파하면 나보다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복 빌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복 빌어 주면 그가 먹고 복 받는 것에 동참자가 됩니다. 가인을 위하는 사람은 가인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히말라야산맥의 에베레스트산보다 높이 올라가고, 태평양의 1만 미터 이상 깊은 곳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338-322, 2000.12.01)

9 어머님은 자기 좋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식구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어디를 나가야 될 때 입을 것이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만을 중심삼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감이 빠른 데 대해서 하늘에 감사하고, 둘째는 뜻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려는 것에 감사하고, 셋째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 세계 것으로서 그냥 그대로 서슴지 않고 나눠 주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자꾸 주어서 걱정일 만큼 천성적으로 타고 났다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성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 가정에 많은 아이를 주신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를 중심삼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092-329, 1977.05.03)

10 지금까지 나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빚을 지지 않습니다. 빚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버님의 철학입니다.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통일교회의 어느 누구보다도 시간과 정성의

양에서 몇 배가 되는 내용을 뜻을 위하여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빚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027-124, 1969.11.30)

11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신세를 지겠다는 사람은 부모의 살을 에는 자요 뼈를 깎아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 앞에 빚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빚을 지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야, 이제 그만 좀 쉬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쉬지 않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혼자 앉아서 울 수 있는 아버지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생활철학이요 지조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장(腹臟)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답으로 '우리 한번 만나자꾸나. 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부자관계를 위해서, 그런 인연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 하늘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자꾸 내려가야 됩니다. (226-042, 1992.02.01)

12 중심존재가 되면 빚을 진 것은 다 갚아야 됩니다. 또한 중심존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일일이 돌아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길가에서 만나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다 꺼내서 줍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일개인이 아닙니다. 모든 통일교회 사람들에게 전부 줄 수 없으니 그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을 따라 내가 가는 길을 돕겠다는 사람은 나 이상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30대까지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생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보내 주면 불쌍한 사람에게 전부 **주**고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전차비가 5전이었습니다. 화신백화점에서 노량진으로 건너갈 때에는 반드시 적선해 주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만민의 한을 품고 '아버지,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지금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당신의 마음 가운데 민족 해방과 더불어 이 땅 위에 부가 찾아오고 만민이 추앙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생활이 잊히지 않습니다. (227-288, 1992.02.14) p. 1530

13 아버님은 하늘을 위해 동정해 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신세를 갚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따라가는 길에서 여러분을 고생시키지만 아버님이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시키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책임을 못 지게 되면 영계에 가서라도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그런 서약을 하고 가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는 절대 배신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신세를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세를

지고는 못 견디는 분입니다. 열만큼 자기를 위해 주면 몇 백배, 몇 천배로 갚아 주려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소성과 그래야 됩니다. (049-076, 1971.10.03)

참주인의 삶과 가정생활

참부모님은 고독하고 외로운 당신의 삶을 '홀로아리랑'이 가사에 비유하시고 하셨다. 원리를 찾을 때에도, 백척간두 같은 복귀섭리 노정을 개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오직 홀로 싸워 승리하셨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만물 사랑은 지극하셨다. 타락 이래 참주인을 맞이하지 못한 그 한과 슬픔을 아시고, 또 만물과 교감하며 창조본연의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기쁨을 느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가정을 기반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참부모님께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하였다. 참부모님 양위분은 늘 손을 잡고 다니셨고 공사석에서 항상 함께 움직이셨다. 생애 전체가 공적인 삶이였기에 바쁜 일정 속에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 가정을 제물 삼아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이루어는 데 전력투구하셨다. (p. 1530)

14 아버님은 광산에서 땅굴을 파는데 챔피언입니다. 동발까지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석탄공이 되었어도, 쫓겨서 감옥에 들어가 영어의 몸이 되었더라도 죽기 전에 뜻의 판도를 이런 세계를 통해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숯을 굽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나 무엇이나 다 훤합니다. 아무리 헬리콥터에 태워서 낙하산으로 동물들이 사는 골짜기에 떨어뜨려 놓더라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데에도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독버섯은 어떤 것이고, 풀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물고기가 있으면 낚싯대를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낚시도 할 줄 압니다. 물고기 세 마리만 잡으면 하루 먹고삽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인은 서른 세 살까지 고생시켜야 된다는 것이 생활철학입니다. (213-136, 1991.01.16) p. 1531

15 아버님은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게 삽니다.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연 전부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자연을 친구로 삼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핏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핏줄을 닮으라고 하고 생활방식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것은 경험과 실험을 필한 결론인데 그 결론이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09.19, 이스트가든)

16 아버님은 남미에 맨손으로 갔습니다. 전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면 쫓겨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말라고 권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가서 망할 수도 있다고 알고 간 사람이 망하였습니까, 흥하였습니까? 망한다고 각오하고 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애의 철학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생활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못한다는 일도 내가 손만 대면 3년 이내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낚시터에 가게 되면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고, 운동을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챔피언입니다. (281-306, 1997.03.09)

17 나는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면 양말을 벗어 버립니다. 넥타이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안 맵니다. 안 매고 절약해서 굶어 죽는 세계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공기가 맑을 때에는 옷을 하루 입어도 옷깃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루만 입고 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벗어 놓으면 가져다가 빨래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옷을 벗어 둡니다. 또 빨래바구니에 갖다 놓으면 꺼내다가 다시 입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절약하여 남겨서 세계의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75-152, 2007.09.18)

18 오늘 내가 공식석상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하고 나왔지만, 이것은 나일론이니까 얼마 안 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웃옷은 요전에 13달러, 바지는 7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합해서 20달러입니다. 이 허리띠도 값은 싸도 악어가죽으로 된 것보다 더 튼튼합니다. 설마 이렇게 싼 것을 입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님의 생활 내면을 알고 싶어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구두쇠입니다. (227-159, 1992.02.11)

19 나는 내 소유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깍쟁이가 없습니다. 나같이 자기한테 무자비한 노랑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온다고 해서 내가 양복을 입고 나왔지만, 넥타이를 안 하고 양복을 간단히 입으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이것 위와 아래를 합해서 50달러면 사 입습니다. 내가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고 어디든지 갑니다. 왜?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빚지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세계의 통일교회 선교사들이 처마 끝을 바라보고 눈물지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을 텐데 내가 네 활개를 펴

고 잠자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사상은 고귀한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지니고 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중심존재가 됩니다. 중심존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227-290, 1992.02.14)

20 사람은 말과 행실, 이 모든 것이 단정해야 됩니다. 언행심사(言行心事), 말과 행실, 그다음에는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단정해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 하나 살아가는 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체 생활과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갖출 때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적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에 주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의 실적은 탕감 실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실적으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131-312, 1984.05.04) p. 1533

21 물건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비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게 손질하고 정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일본이 왜 축복을 받는지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리를 잘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쁜 영인은 나쁘게 하는 것을 시키고 좋은 영들은 깨끗이 신성하게 정비하라고 하는데, 좋은 영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빨리 발전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쁘게 활동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면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131-303, 1984.05.04)

22 아버님은 사람들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여 한평생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고 고생을 뛰어넘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생애에 걸쳐서 마라톤대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이 저렇게 하게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여자의 힘도 남자의 힘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은 잠자고 있는 아이가 혀를 내밀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울면서도 젖을 빠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입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183-053, 1988.10.29)

23 나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귀한 생명 앞에 아버지 어머니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너에게 빚을 안지겠다. 네가 자는 시간에 내가 복을 빌고 꼭 안고 뽀뽀해 준다. 내가 시간

이 없어서 언제나 네 손목을 쥐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너를 품고 뽀뽀해 주는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다.'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085-136, 1976.03.02)

24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분쟁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울고불고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미래의 후계자들이 상속해 나가야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상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승 중의 스승입니다. 아이들은 못 속입니다. 절대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벌써 어머니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스승 중의 스승이 돼야 합니다. 부모는 제2의 하나님 자리에 서서 스승 중의 스승이 돼야 합니다. 그들의 정서적인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남편이 되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아내를 맞을 것이다. 만일 안 되면 길러서라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심정적 교육은 거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165-095, 1987.05.20)

25 나와 어머니는 아들딸 앞에서는 절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애들이 하나님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 아들딸에게 절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제일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분이며, 하나님 다음 가는 엄마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세계의 성인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제일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그러한 심정 밑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천국을 이루고자 나선 우리이지만 나라를 통해서는 천국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부모님이 언제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살고 싶어하는 가정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면 주권자가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115-217, 1981.11.15)

26 부모는 어린애의 기저귀를 빨면서 냄새가 나도 아기의 봉실봉실 웃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저 좋아합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눈에 어른어른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경우 하나님 것이라면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묻혀 있는 사랑의 줄이 울려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다가도 아이를 척 끌어안고 젖이 아파서 멍할 정도로 젖을

먹이는 모습은 정말 멋지다는 것입니다. (025-264, 1969.10.05)

2절 참부모님 공적 생활과 정성

공적인 삶의 자세

하나님의 뜻은 창조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한평생 그 뜻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위해 죽고자 하셨다. 오직 하늘의 뜻만을 생각하고 뜻만을 위해 살아오셨다. 밤낮이 없었고 잠도 편히 주무시지 못했다. 세계를 순회하실 때에도 언제나 강행군하시면서 식구들을 격려하셨다. 참부모님의 생애는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인 노정이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신 채 공적인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p. 1535)

1 아버님은 어디를 가든지 성별하고 삽니다. 어디를 가서 앉더라도 성별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방패를 해놓고 나옵니다. '여기 어떠한 환경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앉았다 간다.'고 해야 사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앉는 자리, 보는 자리, 어디가 편안한지 그것을 봅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신경이 최고로 예민하기 때문에 압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들어가면 벌써 섬뜩해집니다.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 자리에 갔다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등불을 켜고 다니는 것입니다. 전기로 말하면 낮이 천 촉의 등불이라면 나는 천 촉 이상 켜고 다녀야 됩니다. 햇빛 아래에서 더 밝으면 햇빛 가운데서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더 밝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위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 촉, 천 촉, 하늘로부터 직접 옵니다. 발전소에서 직접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335-252, 2000.10.05)

2 아버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오늘날 이러한 자리에까지 못 오고 흘러가 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로 있으면 밤 열두시가 되었어도 헤어지기를 싫어해야 됩니다. 헤어졌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반가워서 눈물이 앞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길은 잘 먹고 잘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늘은 그런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의 비밀과 모든 것을 옮겨 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뛰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뜻 앞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308-210, 1999.01.05) p.

1535
3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연어는 산란하고 죽은 다음 새끼에게 자기 몸을 먹이려고 합니다. 맨 나중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밑바닥까지도 파 먹이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나도 소유권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권이 있으면 후대 만국의 후손들에게 소유권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 해서 감춰 두고 쓰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헌금을 하게 되면 절대 그 돈을 안 씁니다. 고스란히 보태서 세계로 뿌려 놓습니다. (322-018, 2000.05.11) p. 1536
4 나는 돈이 있어도 좋은 집을 짓거나 내 일신의 행락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위해 돈 쓸 곳이 있으면 빚을 지고서라도 쓴다는 신념을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남겨야 할 사명을 짊어진 통일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여러분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남길 수 없습니다. 그 교재를 남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슬퍼도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없고 억울해도 억울함을 나타낼 수 없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개척자의 사명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031-274, 1970.07.19)
5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아들딸들은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감으로써 쓰레기통에 불사를 수 있는 쏘시개도 못 되고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돈 있는 부잣집 아들딸 이상으로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하거나 굶어죽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것이 종말시대에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별동부대라도 만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살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철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600-105, 2008.10.27)
6 헌금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독약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피땀을 흘려서 마련한 하늘에 기억될 수 있는 예물을 자기 아들딸과 자기를 위해서 쓰면 일족이 망합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대번에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세계의 더 큰 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를 생각하면 안 걸립니다. 그것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전부 망하는 것입니다. (273-203, 1995.10.27) p. 1536
7 아버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해 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공적인 돈은 한 푼도 안 쓴다. 돈

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생해서 모은 그 돈을 탐내는 일은 못합니다. 참아버지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여자 식구가 7년간 같은 속옷을 입고 활동했다는 보고를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일본 민족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살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7-244, 1998.11.21) p. 1537

8 통일교회에 들어와 통일교회에 의지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통일교회 앞에 마이너스시키고 신세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 운동에 플러스시킬 수 있는 여러분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뜻 앞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하늘 앞에 염려의 대상이 되면 가는 길 앞에 얼마나 지장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일생을 정한 표준은 이것입니다. 이 뜻이 세계로 넘어갈 때까지는 자기 나라라든가 자기 친척이라든가 뜻 앞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37-043, 2000.10.21)

9 지금까지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합니다. 마음 놓고 밥 한 그릇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를 지내 오면서 별의별 말을 다 들었지만 변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6천년 동안 변명하고 나섰다면 이 천지는 남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정적인 심정을 더듬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고 나와서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부끄러워해야 될 자신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몰리면 몰릴수록 자기 자체를 감추려 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026-019, 1969.10.14)

10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됩니다. 완전한 주체를 중심삼고 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태양빛이 비칠 때 딱 수직의 자리에 있으면 그림자가 안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오가 되어 태양빛 아래에 서면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해가 제일 높은 데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더라도 걱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차원 높은 데서 자리를 잡습니다. 남들은 다 쓰러지고 다 후퇴하고 없어진 자리에서도 걱정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활철학이 그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부정당해 왔지만 부정당하면 당할수록 그 부정당하는 자리에서는 낮았던 것이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주체는 완전한 대상을 만들어 낸다는 원칙을 중심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292-017, 1998.03.22) p. 1538

11 아버님은 쉬는 날에도 잠을 잘 틈이 없습니다. 계속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꺼내면 도중에 끝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낮잠을 잔 것은 몇 번밖에 없습니다. 1990년을 넘어서서 피곤한 경우에는 낮잠을 잤지만 자더라도 한 시간 이상은 안 잡니다. 한 시간 이상 자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은 자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보통 새벽 3시 반이 되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청년들에게 안 집니다. 건강유지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47-052, 1993.04.21)

12 하늘나라에서는 돈 가지고 못 삽니다. 지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는 눈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은 누가 딱 한마디만 하더라도 통곡할 수 있는 심정을 지니고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었던 그 마음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저나라에 가서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일할 것이 첩첩 태산같이 쌓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시간이라도 남아 있으면 내일 하루를 얻기 위해서 밤에라도 그 일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큰 일, 또 내일은 더욱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탑을 쌓기 위한 벽돌을 한 장이라도 누가 더 올려놓아야 됩니다. 일생 동안 자기를 잊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세계 정상을 넘어섰습니다. (208-143, 1990.11.17)

13 여러분은 통일교회의 발전을 그 나라, 그 민족 앞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동지가 피를 흘리고 밤잠을 못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빚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밤 12시가 지나게 되면 '그들이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라면서 잠을 안 자고 그들의 빚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231-066, 1992.05.31)

정성과 기도생활

참아버님께서는 수많은 한자 중에 단 한 자만 선택하신다면 '정성 성(誠)'자를 꼽으실 정도로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정성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

다.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정성들이는 사람이나 정성들인 물건을 언제나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과 기도에 앞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다. (p. 1539)

14 아버님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살이하는 사람들의 어버이가 됐고, 노동판에 가면 노동자들의 어버이가 됐습니다. 내가 미국 글로스터에서 7년 동안 배를 탔지만 그런 마음으로 탔습니다. '뉴호프'를 타고 다닐 때 전부가 낮잠을 자고 있어도 나는 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항해를 해야 되는데 선장이 졸고 있으면 깨웠습니다. 배를 타면서 선실에 침대가 있는데도 머리가 아파서 한 번 누워본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대양을 가르는 모든 선원들의 전통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일산업을 만들어 놓고 청파동 본부에서 수택리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3시간,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 거리를 하루에 보통 두 번 가는 것은 무수히 많고 세 번 가는 때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배리타운 신학대학에도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며 살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매일 갑니다. 어디를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갑니다. 정성들이러 가는 것입니다. (117-022, 1982.01.30)

15 정성은 닻줄이 없는 곳에 하늘나라의 닻줄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코, 두 코 걸어서 닻줄이 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닻줄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닻줄을 타고 하늘나라로 자유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닻줄을 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닻**줄**을 매 놓으면 이것을 타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정성을 들이면 그것이 닻줄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넓어지면 닻줄이 아니고 사다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점점 더 정성을 들이면 이 사다리가 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하늘나라와 접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든가 하늘나라가 내려오든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다리를 높이고, 또 영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놓고 공을 들임으로써 땅 위에 재림할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또 지상에서 나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면 그로 인해 높은 산이 생겨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에 오르는 것입니다. (169-223, 1987.10.31)

16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도수를 더 크게 들여야 할 것이 얼마든지 남아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위해서 어느 존재든지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낮은 세계가 더 높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가는 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새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정성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패자의 서러움이 따르지 못합니다. 승자의 기쁨만이 따르게 됩니다. (276-143, 1996.02.18)

17 민족과 세계에 남을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닦아서 만민 해방을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하나님과 사탄 앞에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려면 엄청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청평에도 매일같이 갔습니다. 밤 12시가 되어 돌아와서는 그 땅이 보고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성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묶어 하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 피와 땀과 더불어 정성 들여 돌여드려야만 하늘은 나라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게 재료를 공급하는 주체자로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109-182, 1980.11.01)

18 통일교회 사상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남미에서 어떠한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지칠 수 없습니다. 남미가 부활하고 세계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대륙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도울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남미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님도 80세가 가까운 연령이 되어 있지만 매일같이 플러스시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땀을 흘려도 한 방울 더 흘리고, 걷더라도, 동작을 하더라도 하나 더 하지 마이너스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에게 정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지는 패퇴와 사망으로 연결되고, 발전은 번창과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76-146, 1996.02.18) p. 1541

19 아버님은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하거나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적 세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똑바로 수직이 되면 가장 빨리 흐르는 것처럼 평면이 90도가 되어야 가장 빨리 흐른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흐르듯이 청중을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야기에 의해서 몇 명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10시간 이상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소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47-032, 1993.04.21)

20 아버님은 길을 걷는 데에도 남은 1시간 반 걸리는 길을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20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뚜벅뚜벅 천천히 걷지만, 아버님은 벌써 발을 떼는 높이가 1인치에서 3인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에 7센티미터에서 15센티미터를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빠릅니다. 20리 길을 가면 25분에서 30분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바쁜 세월에 빠른 도수를 맞춰야지 빠른 세월에 낮은 도수를 맞추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600-140, 2008.10.29)

21 하나님은 훌륭한 교육 재료를 진지하게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님도 그렇습니다. 복귀의 진리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영계 등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17시간 이상 계속 기도만 한 적도 있습니다. 10시간, 12시간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모두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통하게 됩니다. 무릎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만민 해방, 인류 해방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 찾아내어 그것을 밝히고 보니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250-318, 1993.10.15) p. 1542

22 아버님이 기도할 때에는 소나무 뿌리가 뽑히고 바윗돌이 굴러갈 정도로 힘을 주면서 합니다. 오뉴월에 솜바지를 입고 피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바지에서 땀과 눈물을 짜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녹아나고 뼈가 으스러지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해원성사 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212-039, 1991.01.01)

23 아버님이 기도를 할 때에는 이 세계 꼭대기를 붙들고 이 지구성을 돌리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5분 이내에 땀이 납니다. 싸움 중에서 최고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싸움입니다. 최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압니까? 기도해서 효과를 봤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들어줄까?'하고 자꾸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시한 대로 믿고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100년이 가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 없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해 일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

다. 몇 억만년 가더라도 틀림없이 이루려는 뜻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 몇 억만년 가더라도 변치 않는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066-213, 1973.05.07)

24 하나님은 신세 안 지려고 합니다. 한 만큼 메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가 좀 지루할 뿐입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아들딸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년만년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천년 이후의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만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기도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주로부터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심각하게 해놓으면 그 기도 기준이 천상에 남아 있는 한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망하라고 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통일교회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예측하면서 그 시대의 책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나님같이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길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212-272, 1991.01.06)

25 지금까지 표어를 세워 기도해 나오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때에는 세상 사람이 못 믿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도 못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리 판단에 대한 명확한 주체성을 갖지 않고는 지도자가 못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 같은 이상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랑입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많은 민족 앞에 내가 사랑을 갖고 나타나게 될 때에는 나에게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따라서 전부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끝날은 사랑이 메마른 시대이기 | 때문에 그 세계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언제 그렇게 됐는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077-063, 1975.03.30)

3절 참부모님 건강생활

참부모님의 건강관리

모든 생명 현상은 천리에 따른다. 참부모님께서는 천리법도에 따른 생활과 운동으

로 건강을 유지하셨다. 염분 소모를 감안하여 물 섭취 양을 조절하고, 간식이나 과식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특히 창조본연의 생활을 하면 병도 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다. 병이 나도 하나님의 뜻과 심정에 몰입하여 천운의 보호로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많으셨다. (p. 1543)

1 나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몸 컨디션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먹고 자는 모든 전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위하는 자리에 있으면 병도 보따리 싸서 가야 됩니다. 왜냐? 천운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67-018, 2002.01.19)

2 아버님은 아침에 운동을 7분 동안만 하면 됩니다. 남들은 서너 시간씩 하지만 7분도 안 걸립니다. 수십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에서나 학생시절에 운동을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탱합니다. 눈에서부터 어깨로부터 모든 부위를 운동합니다.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원리가 위대합니다.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지 않고도 호흡으로써 건강을 유지해 나왔습니다. 생명의 요인으로 먹는 산소가 귀한 것입니다. 호흡을 하는데 신선한 공기를 중심삼고 태양빛을 마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일하면서도 태양이 딱 올라오면 변소에 가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과 공기와 햇빛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3대 요소입니다. 태양빛과 물, 그리고 공기를 새로이 마셔야 됩니다. (439-016, 2004.02.17)

3 아버님은 될 수 있는 대로 간식을 하지 않습니다. 간식을 하면 여러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기 먹는 표준 양을 넘겨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닷맛이 나게 먹어야 됩니다. 많이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한꺼번에 빨리 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소화되어서 영양소가 배설물에 3분의 1이 섞여 나갑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이 달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단맛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 그렇게 됩니다. 밥을 먹게 되면 후닥닥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맛이 나게 먹어야 됩니다. 단맛이 맛있고, 단맛 가운데 영양소가 있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물같이 되어서 영양이 잘 흡수됩니다. (541-235, 2006.10.10)

4 아버님은 지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12시간 24시간을 서 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20시간도 까딱없습니다.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러면 늙은 노인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정신이 시들지 않게끔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위대합니다. (205-090, 1990.07.07)

5 아버님이 20대에는 하지 않은 운동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가 나쁘다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오늘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신적 신념입니다. 높은 곳을 갈 때에도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낮은 곳을 갈 때에도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안정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121-009, 1982.10.21) p. 1545

6 아버님은 피곤하면 어깨를 풀어줍니다. 난간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푸는 것입니다. 잠이 오더라도 변소에 가서 5분만 있으면 잠이 도망갑니다. 잠보다 더 강한 힘을 불어넣으면 다 후퇴해 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다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으로 균형을 취하는 것입니다. 간식을 안 먹습니다. 방해됩니다. 물도 함부로 안 먹고, 과일을 갖다 놔두어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든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찬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아랫다리가 문제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딱 서서 버텼다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일어서야 됩니다. (322-140, 2000.05.15)

7 아버님은 운동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철 변하는 것입니다. 봄에 운동하는 것과 다른 계절에 운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후가 다르고 습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균이 생기더라도 죽습니다. 감옥에서도 내가 개발한 운동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운동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3시간 4시간 운동하는 사람도 내가 건강 유지하는 것을 못 따라옵니다. 골수의 맨 꼭대기에서부터 합니다. 정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눈이 아프면 눈에 아픈 것보다 몇 배 이상의 힘을 주면 낫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4시간 잠을 안 자고 버티는 데는 누구도 나를 못 당합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차를 타고 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610-110, 2009.04.14)

참부모님의 건강 비법

참아버님께서는 여섯 차례의 감옥생활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참기 힘든 고난을 겪

으셨지만 특별한 건강관리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내셨다. 특히 옥중에서 수수작용의 원리를 적용한 호흡법이나 체조 등 다양한 건강법을 개발하셨다. 타고난 튼튼한 체력도 있었지만 이러한 건강관리는 초인적인 활동을 하신 데 큰 힘이 되었다. 참어머님께서는 주로 식이요법과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셨다. (p. 1546)

8 숨을 쉴 때에는 깊이 들이쉬어야 됩니다. 숨을 쉴 때 '후우!' 내쉬면 텅빕니다. 텅 비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걸어야만 건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걷지 않고도 건강해지는 방법을 압니다. 십리를 간다면 천리 길을 갈 힘을 십리 길을 가는 데에다 다 퍼붓는 것입니다. 많이 흡수하고 많이 뱉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에서 많이 걸러서 새로운 피가 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짧게 숨을 쉬면서 하면 심장에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그 운동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운동을 했습니다. 힘을 줘서 버티고 '우우!' 쉬는 것입니다. 힘을 줘서 그러면 몇 배가 되겠습니까? 운동 중에 그 이상 운동이 없습니다. 7분에서 13분이면 충분합니다. 힘을 주고 폐를 꽉 닫고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숨구멍을 좁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이 폐 운동입니다. (499-115, 2005.07.02)

9 코를 잡고 입을 꽉 다물면서 숨을 힘껏 내쉬게 되면 눈으로도 공기가 나가고, 입으로도 공기가 나가고, 귀로도 공기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막힌 것을 청소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늙더라도 귀가 안 먹고 눈이 어둡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목운동까지 하기 때문에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야 코가 사방으로 통합니다. 아침에 코를 잡고 이 운동을 해보십시오.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감기에도 안 걸립니다. 아버님이 건강한 것은 그런 운동을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332-309, 2000.09.24)

10 숨 한번 '흐읍' 들이쉬면 이것이 얼마나 가느냐?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자맥질을 해야 됩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아침저녁으로 하게 되면 호흡이 건강하고 균형 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폐활량이 늘어나고 숨을 오래 쉴 수도 있으며 물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폐활량이 많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산소를 많이 보급받기 때문에 자연히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과학적입니다. 자기 버릇이 길을 가면서 땅을 바라보고 가느냐, 먼 데를 바라보고 가느냐? 길을 갈 때 가슴을 내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제일 귀한 것이 코입니다. 코가 표준이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576-196, 2007.09.30)

11 배꼽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급소라고 하는 곳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다 움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본연적 힘, 막강한 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체 가운데 제일 움푹 들어간 것이 배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신경은 전부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다른 데 하지 말고 여기 아래 움푹한 데, 배꼽에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들어갔던 배꼽이 벌컥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줘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병균으로 막혔던 모든 세포가 뚫린다는 것입니다. (206-172, 1990.10.07) p. 1547

12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호흡과 더불어 말초신경을 위해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만 호흡을 잘못함으로써 말초신경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는 안착·정착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춤추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무술을 하는 것도 운동입니다. 다 건강을 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정신분야에까지 연결시켜 안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술의 기술도 어려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 보안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니까 뺄 수 없는 것입니다. (569-120, 2007.07.22)

13 아버님은 세수를 할 때 물로 눈부터 씻어 줍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눈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눈을 씻어 주고 가만가만 꽉 누르면서 운동해 줍니다. 이러면 자고 일어날 때보다 시원합니다. 운동했으니까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곳을 쳐다보면 다릅니다. 초점이 맞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눈을 청소하고, 그다음에는 코를 청소해 줍니다. 이렇게 코를 잡고 '후욱' 공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운동을 합니다. 일생 동안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눈에서부터 코와 목이 통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청소해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을 쉬면서 운동합니다. 짧게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목이 쉬었더라도 풀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어깨도 운동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감도가 강하게 되면 저기압은 나가고 고기압이 점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왜 하느냐? 호흡하는 신진대사가 박자를 맞추어서 원활하게 원형적인 궤도를 달리기 때문에 피곤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잘 크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하는 운동은 굴절운동 같은 운동입니다. 말초신경을 중심삼고 자기 몸의 균형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565-269, 2007.06.12) p. 1547

제4장 천일국 정착과 우리이 갈 길

1절 초창기 신앙 회복과 환경창조

교회부흥과 초창기 신앙 회복

초창기 교회는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식구들로 늘 붐볐고, 새로운 식구를 위해 밤낮없이 원리강의가 끊이지 않았다.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전도하며,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다. 참어머니께서는 이 같은 초창기 신앙으로 돌아가 살아 숨 쉬는 교회를 만들어 천일국 정착에 박차를 가하자고 식구들에게 당부하시고, 광야시대를 넘어 천일국 정착시대의 신앙 자세를 제시하셨다. (p. 1548)

1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아버님 생전에 전 인류가 아버님을 정말로 참부모로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한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방법은 딱 하나, 원리말씀으로 그렇게 만드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는 원리말씀이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원리말씀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아가 천일국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어머님, 2012.10.27, 천화궁)

2 아버님은 초창기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끈끈한 심정세계의 인연으로 식구들을 길러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설명이 없어도 하늘 중심하고 맺어진 인연과 정으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다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축복가정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다 협조해야 됩니다. 심정적인 교회가 되려면 공직생활을 하거나 공직생활을 하지 않는 입장에 있어도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는 먼저 상대와 환경, 이웃을 위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09.03, 천정궁)

3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일교회가 어떻게 초창기 심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과 신령이 하나되어서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원리말씀을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7일수련, 21일수련 혹은 40일수련을 거쳐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인을 많이 배출해 생동감 있게 살아서 숨 쉬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09.30, 천정궁)

4 통일교회에 정말로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원리를 제대로 아는 식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였느냐 하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원리강의를 계속하고 식구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남으로써 개인과 가정, 종족, 사회, 나라가 참사랑을 실천할 때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입니다. 그러면 개개인 스스로가 마음의 평

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10.01, 천정궁)

5 통일교회는 본래 신령과 진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교회나 식구들이 심정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식구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부모님과 밤을 새우면서 같이 있고 싶어 했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어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초창기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가 참사랑이 넘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주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축복가정들을 배출해 내면서 잊지 못할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식구들이 개척전도를 나가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고 나가는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36가정에서부터 430가정이 나올 때까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섭리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참어머님, 2012.10.01, 천정궁)

6 초창기에 유효원 협회장은 불편한 몸으로 하루 종일 강의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한두 시간만 하더라도 힘든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우리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영양 보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지고 세워진 것이 36가정입니다. 우리가 36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심정의 뿌리가 그 바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뜨거운 사랑으로 넘쳤던 그 초창기와 같이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원리강의가 끊이지 않으며 수련이 계속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참어머님, 2012.10.01, 천정궁)

7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무슨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저 부모님을 뵈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오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자기의 계산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나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다. 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살아서 숨 쉬는 통일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10.18, 청해가든)

8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지역 사람들을 복귀하려면 교회에 불이 꺼져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서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로서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영계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 숨 쉬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10.16, 해양천정궁)
9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실증을 보여 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님이 전 세계를 둘러보시다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끌려서라도 오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 스쳐 지나가실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10.16, 해양천정궁)
10 우리는 아버님이 평소에 하고 싶어하셨던 것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적 외적으로 질서와 전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상 사람들에게 통일교회가 건재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섭리적으로 이뤄진 실적을 보고 '아, 내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아야 할 곳은 여기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안내해서 스스로 찾아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가정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10.01, 천정궁)
11 우리는 영계와 하나된 자리에 있음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계와 상대기준만 되면 백퍼센트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서 숨 쉬는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가 백 퍼센트 협조합니다. 영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지상·천상천국입니다. 천일국입니다. 그것을 우리 당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실감하고 산다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어머님, 2012.10.18, 청해가든)

전도와 환경창조

전도는 하늘의 백성을 찾는 것이다. 하늘 백성이 늘어날수록 하늘 주권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뜻인 천일국 정착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류는 신령과 진리가 함께할 때 전도될 수 있다. 신령과 진리는 죄악의 세상을 이길 갑주와 창이다. 신령의 갑주를 입고 진리의 창을 들고 나가야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참부모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빛내는 환경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p. 1551)
12 우리에게는 참부모님이 계시고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의 생애와 삶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는 지방의 교회까지 다 부흥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은 교회가 살아서 숨 쉬어야 됩니다. 축복가정들이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종족

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10.01, 천정궁)
13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들어온 지 50년, 60년이 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입교했든지 간에 통일교회를 찾아온 그 시절이 그리울 것입니다. 아버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삶과 새 생명을 갖게 해주신 주님을 만나다니!'라며 다 흥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유독 나만이 먼저 하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며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 앞에 받은 은사와 축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타락한 인류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은사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탄을 분립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50년 전, 60년 전 초창기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다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본향을 그리워하며 활동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불 태워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참어머님, 2013.02.19, 천정궁)
14 여러분이 아버님을 재림주, 메시아, 만왕의 왕, 진성덕황제로 모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백성이 없는 황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만 가지고 됩니까? 세계 인류가 그렇게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계속해서 아버님을 증거하고, 아버님의 업적을 속개하고, 아버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참어머님, 2012.09.30, 천정궁)
15 전 인류를 다 축복받게 해야 됩니다. 천일국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별다른 차이 없이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는 식의 태도로는 영계의 협조를 못 받습니다. 사생결단, 전력투구라는 말이 실감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늘 앞에 보고하고 하늘과 같이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2.10.18, 청해가든)
16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신비하고 기다려집니까? 하늘의 축복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여하에 따라서 하루에도 한 생명씩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상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 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어머님, 2012.12.14, 천정궁)
17 영계는 사랑으로 숨 쉬는 곳입니다. 사랑의 공기로 숨을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심느냐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

면 따라다니는 필수조건이 만물복귀입니다. 그것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이 복 받는 자리입니다. 복을 어떻게 더 크게 키우고 여러분이 후대에서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자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 줬느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12.25, 천정궁)

18 우리는 하늘이 염원하고 인류가 소원하는 평화세계,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일을 앞장서서 실천하여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교육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알게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됩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가 30억일 때부터 박차를 가해 나왔는데, 지금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3.02.20, 천정궁)

19 메시아·재림주·참부모님이 이 땅에서 많은 섭리역사를 펼쳐 나오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에 다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한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못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재림주·참부모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생명을 찾는 데 노력했습니까? 살아온 생애보다는 앞으로 저세상에 갈 때까지의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참부모도 모르고 이 말씀도 모르고 영계에 가게 될 때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왜 당신은 내가 살아 있을 때 이것을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못하게 되면 후손을 통해서 탕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리와 말씀을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3.03.22, 천정궁)

20 하나님의 조국인 이 나라를 어떻게 복귀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도해서 사람을 돌려 놓아야 됩니다. 모든 기관기업체와 단체들이 이제는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섭리도 내가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실적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이 직접 치리 하시는 때를 맞이했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백성이 없는 왕으로 계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모두 충효열의 대열에

동참시키고 싶습니다.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충효열의 대열에 동참하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3.01.07, 천정궁)

21 내가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생활은 제한이 있습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을 건강하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생명, 10명, 100명,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에 그들의 영생을 내가 맡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기억되는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일생으로 끝나지만 저세상에서의 부자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젊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할 것입니까? 그런 것에는 욕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참어머님, 2013.10.15, 일본 도쿄)

22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전도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삭막합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을 모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참부모님을 다 아는 세상을 만든다면 그 이상 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육으로 얼마나 감사한 생활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전쟁을 생각해야 되고 이해타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서 영계의 아버님이나 하늘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지금 앉아 있는 축복가정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0.17, 일본 도쿄)

23 나는 여러분에게 환경창조를 잘하자고 말합니다. 환경창조가 잘된 곳에서는 한마디의 말씀만을 해도 열 가지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가정들이 환경을 그렇게 창조한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도 전도가 안 될 리 없습니다. (참어머님, 2013.02.10, 천정궁)

24 우리는 참부모님이 오셨음을 온 세계 인류에게 알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참부모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리는 것이 미래 우리의 큰 책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재림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약시대를 넘어서 천일국을 열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섭리적인 때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참부모님이 오셨음을 알려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나아가 참부모님이 오셔서 생애를 통해 일구어 놓으신 인류 구원

을 위한 실적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로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움직여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3.04.20, 천화궁)

25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참부모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남북통일, 세계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그것을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루에 한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상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은 천일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축복의 자리를 줬는데 그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조상 앞에나 후대 앞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항상 부모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참어머님, 2013.05.13, 한국 부산)

26 하와이에는 반야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크고 우거졌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 줍니다. 그래서 나무 밑이 휴식처가 됩니다. 이 나무는 하늘로만 뻗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땅으로 내려와 수많은 뿌리를 내려 점점 몸체가 커지며 자랍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창조한 자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반야트리처럼 지구성 오지까지 탐사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정성과 사랑의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인류 앞에 승리적인 기반을 닦아 오셨지만, 아직도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보태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갈 방향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촌음을 아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하늘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계 도처에는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섭리는 모르지만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반야트리를 보면서 '그래도 이 나무는 하늘이 축복해 주신 그 역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늘의 귀한 뜻을 알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눠 주는 축복가정,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흘러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인류에게 꿈이요 희망입니다. (참어머님, 2014.05.11, 천정궁)

27 지금 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는 초스피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눈 깜빡할 사이에 전 세계로 연결됩니다. 하늘은 인류를 위해서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발달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문명을 잘 활용해서 종족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고 국가복귀, 세계복귀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2세와 3세, 후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어머님, 2014.03.31, 미국 하와이)

28 이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가 1초권 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촉각을 세우고 있다면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육하고 여러분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모든 자료와 실적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가정이 되었습니다. 축복가정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몰라서 책임을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백 퍼센트 이상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여 실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명문가로서의 전통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03.07, 천화궁)

29 국가메시아와 대륙책임자, 특명총사들은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그 나라와 그 대륙을 어떻게 하면 하늘 편으로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최고지도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나라의 국교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혼돈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일분일초를 아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을 우리는 모색해야 됩니다. 하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준비한 하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과 인류 앞에 얼마나 크게 공헌할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4.05.11, 천정궁)

30 지금 이 순간에도 참부모님을 모르고 죽어 가고 있는 인류가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와 동시대권을 살았음에도 6천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흘러가 버리는 우리 형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두 팔을 걷고 힘차게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참부모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참부모님을 말미암지 않으면 이 나라와 세계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하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해 드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나는 세계 대륙을 언어권으로 나누어 특명총사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1초권에서 함께 섭리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고자 합니다. 이들은 일선에서 여러분과 세계 인류와 함께 참부모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05.11, 청심평화월드센터)

31 하늘부모님이 바라시는 하나의 세계를 내 당대에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세계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권으로 선교지역을 나누었습니다. 세계가 전부 영어권만이 아닙니다. 영어 외에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세계 대륙을 똑같이 분할해서는 득보다는 손실이 많습니다. 아시아에 주력해야 됩니다. 현재 각 대륙의 대륙회장들은 주로 교회를 발전시키고 식구화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명총사는 세계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와 교섭을 해야 됩니다. 각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뜻 앞에 세워야 국가복귀가 됩니다. 우리 시대에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명총사는 대륙회장과 하나되어 안팎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4.05.08, 천정궁)

32 천정궁에 세계본부를 두었습니다. 이제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힘, 작은 정성이라도 참부모님과 일치할 수 있는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이 세계 인류에게 꿈이요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중심은 참부모입니다. (참어머님, 2014.05.11, 천정궁)

2절 축복가정의 책임과 미래 지도자 양성

천일국 미래와 축복가정의 책임

참부모님은 천주적 승리권을 축복가정에게 값없이 상속해 주셨으며 한국을 하나님의 조국으로 봉헌해 드리자고 강조하셨다. 참아버님 성화 이후 참어머님은 지구성 모든 인류에서 한시라도 빨리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상에 정착시키는 책임을 다하자고 누누이 역설하셨다. 이 같은 하늘의 섭리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사람은 축복가정들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들을 종족메시아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의 천일국 이상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p. 1558)

1 2천년 섭리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섭리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특별히 2000년 이후 12년간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며 섭리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으니 땅에 있는 우리가 기필코 성사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뤄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어머님, 2013.06.23, 미국 하와이)

2 우리의 소원은 자유·평화·통일·행복한 세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탕감복귀섭리를 완성·완료할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과 나라와 세계가 다 함께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한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열어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역사에 자랑스러운 효자·충신·성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가정이 되고, 전 세계에 참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책임을 다하는 축복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3.10.18, 일본 나고야)

3 우리는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참부모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값없이 참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단히 결심하고 실천궁행해야 됩니다. 이제는 참부모님을 가정에 모시고 축복가정과 천일국 백성으로서 행동하여야 될 때임을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5.24, 천정궁)

4 우리는 참부모님으로 인해 인류역사 처음으로 축복가정이 되었습니다.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기원절을 맞이했고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입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70억이 있지만 이 놀라운 천주사적인 엄청난 비밀을 우리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도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부모를 알려야 됩니다. 참부모님 제세 시에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축복받았으니 천국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참부모님 재세 시에 축복가정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4.03.31, 미국 하와이)

5 인류역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전개되겠습니까? 인간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양심작용에 의해서 선을 추구해 나왔지만, 오늘날 세계는 인종문제 종교문제 사상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섭리 역사를 해 나오셨습니다. 인간이 궤도 탈선을 했기 때문에 본 궤도를 들어갈 수 있는 탕감섭

리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러한 인간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참부모로 오셔야 합니다. 인간을 다시 낳아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이 복잡한 인류역사가 수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땅 위에 참부모님이 현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님 앞에 참효자 참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3.12.15, 천정궁)

6 하늘부모님이 소원하셨던 고향을 찾아 드려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참부모님의 고향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하나되어서 조국통일, 남북통일로 가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필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인류 앞에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현재 인류 앞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문제 정치문제 사상문제 국경문제 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일본의 전 국민과 위정자들이 아시아에서 존경받으며 하나가 되는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0.22, 일본 고베)

7 여러분은 고향을 찾아 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결심했습니까? 이러한 책임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아버님께 천상에서 잃어버린 자식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 세우시려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아버님의 모습이 내 뇌리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지상에 계시면 활발하게 동서양을 누비면서 활동하실 것입니다. 지상의 우리가 그 책임을 해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지상에서 천국을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타락권 세계에서 살다보니까 자기 중심의 생활에 찌들고 자기 주변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2.01, 천정궁) p. 1560

8 어떤 나라가 부자이고 강대국이라고 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동질점, 같은 분야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섭리역사를 놓고 참부모님 이상 세계평화를 위해 실천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이상 섭리적으로 성공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은 원리를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3.10.14, 일본 삿포로)

9 아버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조국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여러분과 함

께 이 나라를 봉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엄숙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윗자리에서 내려와라! 밑창에서부터 일해라!'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뜻을 완성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조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님과 같이 호흡했고 일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후대로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12.25, 천정궁)

10 우리는 천일국을 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천일국은 우리가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천일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아직 세계 인류는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섭리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참아버님께서는 늘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방면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육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참어머님, 2013.02.23, 천정궁)

11 나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전통을 확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천일국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추앙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촌음을 아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전 인류를 천일국의 백성으로 하늘이 다 품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2.28, 천정궁) p. 1561

12 하나님의 소원, 참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6천년 전에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입니다. 천지인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축복가정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이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나라와 세계에서 하나가 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참부모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고향을 찾아 드려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3.10.20, 일본 나가노)

13 지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촌음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될 수 있고, 효자가 될 수 있고,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다 주시는 하늘 앞에 여러분은 거기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앉아서 계속

말씀만 듣는 것보다는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하지만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은 참 위대했다. 조상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후손들이 말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2세들이 자연스럽게 뜻 앞에서 잘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3.04.15, 천화궁)

14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꿈을 크게 넓게 높게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나라와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마치 세계는 항해사와 선장, 나침반을 갖추지 못한 배를 탄 형국입니다. 언제 어떻게 풍랑이나 암초를 만나 침몰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전 세계 통일가의 용사들은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방관하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아와 같은 세계 인류에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역사하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참부모님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고, 참부모님으로 인해 이 나라와 세계에 희망이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봄날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모든 식구들은 열매를 거두는 날까지 총궐기해야 되겠습니다. (참어머님, 2014.5.11, 청심평화월드센터)

15 현재의 여러분이 뜻 앞에서 서 있는 농부라면 여러분에게 부여된 종족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옥토로 가꾸어야 됩니다. 박토를 옥토로 가꾸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게을리 행동한다면 가을에 여러분이 거둘 수확은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각자 먹고사는 것에 연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참부모님을 만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크다면 얼마나 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봄을 맞아서 어떻게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가에 따라서 섭리역사의 가을을 맞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실적으로 부모님 앞에 서게 되느냐 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4.25, 천화궁)

16 축복가정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책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종족, 여러분의 후대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환경은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여러분 주변을 어떻게 환경창조하느냐에 따라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달려 있습니다. 말만 자꾸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실천궁행해야 될 때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주변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크게 이루어 놓아야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탕감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못하게 되면 자연히 탕감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있고 축복가정으로서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참부모님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본을 보여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를 중심삼고 살아가는 불쌍한 무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전통을 세운 고속도로로 갈 수 있게 지금 모든 면에서 그러한 환경을 갖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만 다하게 되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세계, 하늘부모님을 모신 하나의 세계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어머님, 2013.08.15, 천정궁) p. 1563

17 여러분은 짧은 생애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일심·일체·일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70퍼센트밖에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한 30퍼센틀를 사랑하는 자식과 후손들에게 탕감시켜야 할 것으로 남겨 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점점 세계는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교육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세워 주신 평화대사들이 있고 평화군과 평화경찰이 있습니다. 어수선한 이 세계를 정리하고 교육한 사람들이 평화군이고 평화경찰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정성을 많이 들이십시오. 하늘의 말씀, 참부모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가정과 모든 섭리기관이 하나되어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참어머님, 2013.12.01, 천정궁)

18 참부모님이 제창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가 남북미대륙을 중심삼고 펼친 사업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평화 기반을 만들어 놓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고 열매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륙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자매로 하나되어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인류의 염원이며 후손만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꿈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은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후의 변화와 빈곤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미의 많은 나라들도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미는 신세계 창건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륙입니다. 이런 남북미대륙에 천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남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닫힌 귀를 열어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4.04.22,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p. 1564

19 남북미의 공동 발전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집이요 번영하기 위한 환경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소중히 다루고 주관할 때 자연 역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깆체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제 국경과 인종, 종교의 벽을 헐어 버리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교차축복결혼을 통한 이상가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원수끼리 화해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축복결혼밖에 없습니다. 축복결혼은 '이상가정을 통한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수억 쌍이 여기에 참여했고 실제로 인류가 직면한 높은 장벽을 헐어 내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은 남북미 종교 화합과 일치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의 세계는 무엇보다 종교 화합과 일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통해 인류를 인도해 나오셨습니다. 천운이 몰려오는 지금, 남북미의 종교 간의 조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남북미 종교지도자들과 여러분이 종교 화합과 대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은 브라질 자르딘과 파라과이 푸에르토 레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상촌 건설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데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나라, 신세계는 초종교·초국가·초인종의 세상입니다. 국경이 없는 자유와 평화, 통일과 행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미에 쏟은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단축시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둥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상공동체를 실현하고 신세계를 건설하는 활동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04.22,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여성의 역할

여성은 복귀섭리역사에 막중한 책밍을 부여받고 시대마다 섭리의 일선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통일가 여성들은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모신 참된 딸, 참된 아내, 참된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참사랑을 실천하며 땀을 흘렸다. 특히 후천시대 개막과 더불어 여성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고 커지게 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완성을 위해 가인과 아벨을 하나 만들어 가인권을 복귀하는 종족메시아의 사명을 여성들이 앞장서서 수행해야 된다고 당부하셨다. (p. 1565)

20 이제는 여성들이 앞장을 서야 할 때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종족, 나라, 세계에서 여성들이 모성애를 가지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과 우리는 목표가 뚜렷한 하늘의 참아들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리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새롭게 태어나서 이 뜻을 위하여 정말로 전력투구 사생결단할 수 있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남성이 있다면 그 뒤에는 위대한 여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책임을 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도 남성이 더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없으면 남편도 온전하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한 남자가 되지 못합니다. 멋진 남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성보다도 여성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10.17, 천화궁)

21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사명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낳아 줘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커다란 집을 지어 주셨으니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서 집안의 모양새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참어머님, 2013.01.09, 천정궁)

22 아버님께서 여성시대의 도래를 선포해 주시면서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99.999퍼센트이고 아버지의 정자 씨는 0.001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신 아

버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 순회강연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얼마만큼 자녀들한테나 남편한테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모든 여성이 차별없이 살아가게 함은 물론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는 여성 지도자들로 세워 주고 싶습니다. (참어머님, 2013.01.09, 천정궁)

23 주역에서 음양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천시대는 양의 시대, 남성들이 많이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음의 후천시대, 즉 여성의 시대가 출발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편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인간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음과 양이 나란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시대가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의 시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성들이 앞장서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섭리를 하늘만이 아는 것인데, 때를 맞춰서 2013년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하늘의 오묘한 섭리를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맞게 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4.15, 천화궁)

24 여성 여러분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24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정도로 천일국 백성을 만드는 데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늘 앞에 실체적으로 이 나라를 봉헌해서 세계의 섭리를 앞당길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역사나 탕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선민이다.'라는 그 한 가지만을 지킨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내 드리면서 민족적으로 탕감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2천년 동안 유리고객하는 민족,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명맥을 이어 나왔던 것은 어머니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섭리를 위한 환경창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1.09, 천정궁)

25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모든 본보기노정을 다 보아 왔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자들도 군대에 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행동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일에 여성이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성의 책임이 크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섭리적인

대열에 나와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후손들이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말해 줬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어머님, 2013.04.20, 천화궁)

26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어머니, 부인, 며느리들이 중요한 전통을 이어나왔습니다.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부인 식구들을 일선에 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 놓은 목표를 놓고 어떻게 실천궁행하느냐에 따라서 천일국 완성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섭리의 목표를 놓고 일선에 서는 여성으로서 사생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참어머님, 2013.04.20, 천화궁)

2세 교육과 미래 지도자 양성

천일국 개문은 참부모님과 1세들의 사명이었다면 천일국 정착은 축복가정 2세들과 자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늘의 뜻과 심정, 그리고 참부모님의 전통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생애노정을 배우고 참부모님을 증거하며 참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전승된다. 참아버님 성화 이후 참어머님은 2세들을 천일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천주평화사관학교를 개교하시고 2세 특별수련회를 개최하시는 등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셨다. (p. 1567)

27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세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먼저 심리적으로 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서고 절대 성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춤을 추어도 좋고 음악을 해도 좋은데 성장해서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부흥과 2세 교육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축복가정 2세와 세상까지도 포괄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내가 장학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어머님, 2012.10.01, 천정궁)

28 통일가를 이끌어 가고 미래의 책임자가 되어야 할 2세들을 놓고 볼 때 걱정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현실을 내가 한꺼번에 책임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려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내적인 것에서부터 외적인 것까지 정비해야 되는 입장이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집을 짓는다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지어진 집을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다듬고 하는 거슨 더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 책임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2.10.18, 청해가든)

29 우리 교회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세들을 위한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2세들이 뜻 앞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

들이 뜻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새 역사가 출발하고 있는 천일국시대에 2세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천일국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참어머님, 2013.05.08, 천정궁)

30 아버님이 타셨던 헬리콥터를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보고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팔아서 후대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2세를 양육하는 데에 장학금으로 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뜻대로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영구 보존하지 못하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을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알리고 통일교회가 힘차게 번창해 나가는 것을 인류와 하늘 앞에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참어머님, 2012.09.30, 천정궁)

31 여러분 2세들은 학교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간에 참부모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이 돼야 합니다. 일등이 돼야 합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2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성장해서 하늘 앞에 큰 인물들이 돼야 합니다. 참부모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2세들이 함께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세계인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3.08.03, 강원도 고성)

32 인간의 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궁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축복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중심인물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2세들은 희망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부모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자유·평화·통일·행복이 넘치는 세계에는 세상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검사·판사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행복한 세상에 전 세계 인류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부모님을 소개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시대를 함께한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자랑스러운 통일가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0.27, 청심평화월드센터)

33 이제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 양성은 물론이거니와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이 넘치는 참사랑의 세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할 수 있는 참사랑의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드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2.23, 천정궁)

34 2세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뜻 안에서 순결하고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환경창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당당하게 참부모님의 2세 3세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길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참어머님, 2013.10.17, 일본 도쿄)

35 지도자는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2세들을 모아 놓고도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젊을 때에는 혈기로 인해 판단하는 데 있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이 뜻길을 나오시면서 몸을 치는 기도정성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열 몇 시간씩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정성을 들였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가 아버님께서는 불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시는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세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참아 나왔습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는 1세와 2세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2세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1세를 모시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어머님, 2013.10.15, 일본 도쿄)

36 천주평화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은 섭리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이 얼마나 고대하고 인류가 기다리던 한 날인가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인류 앞에 빚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젊음과 패기는 천일국 정착의 밑거름과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섭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새 시대 새 역사의 천일국 완성을 위한 첫 번 열매로 맺어지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서하고 맹세한 대로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천지인참부모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03.04, 청심신학대학원)

37 여러분은 천일국의 백성들로서 전 세계 인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후계자들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문가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명문가는 자신보다 나은 후계자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아들과 딸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더 믿을 수 있으며 더 충성스러운 효자 효녀를 많이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참어머님, 2014.07.27, 미국 하와이)

3절 천일국 국민의 생활 1570

감사하는 생활

천일국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상과 지상이 하나되고,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이다. 천일국 국민은 말 그대로 창조본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동고·동락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삶은 천운과 천복이 함께한다. 참어머님께서는 마음을 비울 때 감사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일러 주셨다. (p. 1570)

1 내 일생의 좌우명은 어떻게 해야 어제보다 오늘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댄버리로 출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세워진 입장에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써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 1984.07.31, 벨베디아수련소) p. 1571

2 여러분은 마음을 비워야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높은 자는 진심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매일 생활함에 있어서 하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놓고도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동안 하지 못한 뜻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달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주위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어머님, 2012.10.27, 라스베이거스)

3 진정으로 백 퍼센트 감사할 때 마음과 몸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주신 축복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주변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축복을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로 넓혀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이래 한번밖에 계실 수

없는 천지인참부모님과 함께 동역·동사하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어머님, 2012.11.24, 청심평화월드센터)

4 여러분이 책임을 못하게 되면 탕감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늘 앞에나 형제 앞에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평화가 옵니다.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구속받지 않게 됩니다. (참어머님, 2012.12.14, 천정궁)

5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깊은 사랑이 접해 들어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한 비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될 때에는 감사의 말을 세상에 남기고 사랑만 갖고 아버지께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서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축복의 자리를 위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불행에 부딪히면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소화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에는 세계에 없는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093-195, 1977.05.29) p. 1572

6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것이요, 이제부터 가야 할 세계적인 개척노정의 95퍼센트의 사명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입장에 처했을 때에만 감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때만 우리를 위해 수고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수고하실 것을 다짐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 대신 일하시며 싸워 나오신 하나님에 대해 좋은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자리에서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029-338, 1970.03.14)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

참부모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셨고, 인류를 위해서

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용서와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다.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인다. 참부모님의 기적 같은 생애 업적은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일구셨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이 벌어지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p. 1577)

7 아버님은 원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대번에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아들 딸이 밥을 굶고 있다고 하면 내가 쌀을 사다 주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면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이름만 보아도 사탄이 뒤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통일교회가 그렇게 반대를 받는데도 발전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런 사랑의 도리를 따라서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서 그렇게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사탄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309-303, 1999.06.06) p. 1573

8 아버님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잡혀서 죽도록 고문을 당하였지만, 그 누구보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셨고 일본 식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일본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NGO(비정부기구)에도 일본 식구들이 나가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공산 치하의 평양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 두 번이나 무고하게 투옥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노동수용소라는 흥남비료공장에서 '감옥 안의 성자'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북한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아버님을 처형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구사일생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1991년 우리 부부는 당시 흥남감옥을 지나 함흥 주석공관으로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가면서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때 남북통일의 새로운 초석을 놓았습니다. 하늘부모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에 기적을 만드시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무고하게 옥고를 치렀지만, 부모님은 세계에서 애천·애인·애국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1970, 1980년대 미국 영국 등지에서 서양 식구들이 애국가를 한국어로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댄버리 감옥에 억울하게 가셨지만 미국을 움직여 세계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미국 지도자들과 기독교 목사들이 냉전 종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이후 초종교 평화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한마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어머님, 2014.08.12, 천정궁)

9 댄버리 13개월 동안의 그 말할 수 없는 수난은 다시 한 번 부모의 입장으로서 세계 앞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본의 생활이 되셨던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하늘은 사랑으로 인간을 대해 나오시면서 항상 맞고 빼앗아 나오는 작전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고 역사 이래 몸소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서 실천하고 행동하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 하늘인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앞에 녹아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지식층인 교수들을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국제승공연합 간부들로부터 반지부장들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하늘을 중심한 참부모님의 참사랑의 이념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참사랑만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개인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가 되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가 되며, 나아가서 종족과 국가와 세계가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참어머님, 1986.05.11, 일본 도쿄) p. 1574

10 아버님께서 댄버리에 계시는 그 1년 동안은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팎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은 뜻적으로 볼 때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트셨습니다. 홍진군 성화와 애승일 선포 이후 아버님께서 댄버리에서 개천문일을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인 투쟁이 있었으며, 섭리적 승리로 종결짓기 위한 노력과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댄버리 교도소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하면서 아버님이 겪고 계시는 괴로움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참어머님, 1986.08.20, 벨베디아수련소)

11 여러분은 이 시점,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명문가 자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하늘 앞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도 여호수아와 하나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복귀된 이런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런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자랑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 강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환경창조를 하고 싶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위해 주고 키워 주고 자랑해 주게 되면 전체가

클 수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개인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으로 나가면 줄어들고,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발전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와 식구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3.09.23, 천정궁)

12 아버님이 1971년 미국에 가셔서 '나는 의사요 소방수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그토록 준비하셔서 자유세계의 보루로 세워 놓았던 미국이 본래 하늘의 뜻을 받드는 방향과는 다른, 가정 파괴의 퇴폐 문화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존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을 하늘이 어떻게 수고하여 길러 나왔는가를 잘 아시는 아버님은 다시 한번 일선에 서서 종교와 사상 문제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을 구하고자 혈혈단신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미국을 살리고자 한 것은 하늘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자유세계,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그 나라에 아버님께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모든 선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 오신 분을 댄버리에 가시게 했습니다. 댄버리에 가시면서 아버님께서는 하나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저 뒤편에 어떤 하늘의 축복이 있을지 모르니 너희는 강하여라. 당당하여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세계 섭리역사에 있어서 미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한 참부모이십니다. (2014.08.12, 청심평화월드센터)

13 아버님은 인종 간의 통합과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왔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에 대한 반대자들을 사랑합니다. 아버님은 오래전에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이제까지의 어느 누구보다 미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편견에 의한 모든 형태의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는 미국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국제적으로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인종 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사랑하는 인간 가족으로서 일하며 공부하도록 가르쳐 왔던 것 같이, 그 사상이 바로 아버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종교적 편견과 불관용성과 인종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인 삶으로 성직생활에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참어머님, 1985.05.11, 미국 침례교 쇼우신학대학)

하나되는 생활

인간은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연체적인 존재임을 자각할 때 하나되는 길이 열린다. 나와 남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자각은 무지와 타락성으로 인해 막혀 있다. 무지와 타락성을 진리와 사랑으로 극복하면 인간의 본성이 계발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전율처럼 느껴야 한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참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랑과 진리로 삶과 세상을 경륜하면 나로부터 천주까지 일심·일체·일념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p. 1576)

14 우리는 어떻게 하나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늘부모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류시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무지 가운데 떨어져 창조본연의 본성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무지의 벽을 6천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높고 두터워졌고 타락성의 강은 넓고 깊어졌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벽을 넘어가거나 이 강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늘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양심은 제2의 하늘부모님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늘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전율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하늘부모님의 대신자를 만나야 합니다. 인류역사는 한 중심을 세우고자 하시는 복귀섭리역상입니다. 2천년 전 하늘의 독생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또다시 재림의 때까지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인류는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하늘의 신부인 독생녀를 찾아 참부모로 현현하신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늘부모님 대신자이신 참부모를 만나 모시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6천년 동안 내려온 원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참어머님, 2014.08.12, 천정궁)

15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과 책임자, 나라들이 책임을 못하게 될 때 어떤 큰 탕감을 치렀는가를 보아 왔습니다. 큰 축복받은 자리, 그 자리가 나만의 자리가 아닌 전체, 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책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일본은 한국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잘산다고 하여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하나되지 못하면 영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잘못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일본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나가 될 때 모든 문제점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축복

가정들과 국민이 참부모님과 하나되어서 아시아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참어머님, 2013.10.16, 일본 도쿄) p. 1577

16 내가 얼마 전에 알프스 영산들 12개봉을 오르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용서하고 품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하나의 세계가 되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참부모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했지만 그 책임을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기대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네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세계 앞에 보여 줘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위상을 세워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도 식구들도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 뜻성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결의하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참어머님, 2014.07.01, 천정궁)

17 많은 나라들이 다 그들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정상들이나 책임자들은 백성들을 잘 되게 하고 잘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국경선이 있습니다. 또한 인종분쟁을 비롯해 종교 분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늘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 세계 인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신 분이 참부모이십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형제국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게 될 때 지금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어머님, 2014.08.12, 천정궁) p. 1578

18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되자'는 운동입니다. 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형제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고도 힘들겠지만 기필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부모를 중심하고 세 사람이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그 기대를 넓혀 나간다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의 축소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위기대에 있어서 횡적 숫자는 세 사람입니다. 사위기대의 횡적 세 사람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된다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넓혀

볼 때 세계는 세 사람이 하나되어 이루는 사위기대의 확대적 형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머리를 가진 지적인 사람과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 또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세 부류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들을 축소해서 생각하면 나 한 개인에 집약시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서로가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협조해 나간다면 하나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어머님, 1981.10.24, 벨베디아수련소)

19 참부모님 앞에는 무조건 다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참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잘난 자식들보다는 좀 모자라는 자식에 대해서 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길러 보면 다들 그런 심정을 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제들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기반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부모를 중심한 끈끈한 참가정의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중심삼고 환경을 넓게 깊게 높게 창조하는 것에 따라 우리 기반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통일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3.10.01, 천정궁)

20 형제간의 싸움은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깊은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부모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참부모님과 일심·일체·일념·일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하나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부모를 닮은 참자녀의 생활을 하게 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한 핏줄이고 한 형제자매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삶과 평화의 세계를 우리는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을 모신 하나의 세계, 인류가 한 형제자매로 대가족을 이루는 그날까지 힘차게 용진해야 됩니다. (참어머님, 2014.08.12, 천정궁) p. 1579

21 축복결혼은 타락한 인류가 참부모님에 의해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세계가 오염되고 혼탁한 곳이라면 축복가정은 맑은 물,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대해를 바라보고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죽어 가는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맑은 물, 생명수로 혼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종족메시아에게 있습니다. 이제 종족메시아 운동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태국과 필리핀을 넘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유럽대륙, 남북대륙, 아프리카대륙, 오세아니아, 중동을 거쳐 거대한 바다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지나가는 곳마다 무수한 생명체들이 새롭게 탄생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부모를 알게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과 종족, 나라, 그리고 세계가 섭리의 뜻 앞에 참부모님과 하나가 되고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게 될 때 하늘부모님이 소원하고 인류가 바랐던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즉 지상천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세계 축복가정들이 하늘부모님은 물론 참부모님과 일심·일체·일념·일화가 되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심정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참부몽의 현현을 알려 세계 인류를 천일국 백성으로 안내하는 아름다운 효자·효녀·충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 2014. 10.26, 청심평화월드센터)

4절 천일국 정착의 길

참사랑·참평화의 길

사랑과 평화는 참부모님의 평생에 걸친 화두였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참사랑의 길을 걸으시면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와 세계의 막혀 있던 담을 철폐하고, 초국가·초인종·초종교 활동 등을 통해 세계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셨다. 참부모님께서 걸으신 참사랑·참평화의 길을 누구나 간다면 하나님과 인류의 소원인 천일국은 정착될 것이다. (p. 1580)

1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밤을 새웠고, 사랑을 위해서 통곡을 했고, 사랑을 위해서 천리길을 달렸고, 사랑을 위해서 대양을 건넜고, 사랑을 위해서 이색 민족을 사랑하려고 허덕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은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참 어려운 길입니다.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보따리를 싸서 훌쩍 떠나오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108-288, 1980.10.16) p. 1580

2 참사랑의 길은 개척의 길입니다. 밟아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던 길을 나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몇 억만년 전에 가던 길을 우리의 종적인 1대조 선조들이 엄연히 밟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의 길입니다. 모르고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리를 알고 복귀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사탄세계의 어려운 개인적·가정적 참소의 길을 넘어서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원리원칙적 발판이 없으면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원리의 길을 밟아왔고 사탄의 개인적 참소조건을 원리원칙으로 넘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 기준까지 원리의

길을 밟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215-059, 1991.02.06)

3 참사랑은 생명을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이후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부모로 모셔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감옥에 들어가고 별의별 욕을 먹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37-077, 2000.10.22)

4 인간시조가 타락한 이후로 많은 벽들이 세워졌습니다. 개인적·가정적·종족적·민족적·국가적·세계적·천주적인 벽이 생겨났습니다. 그 일곱단계의 벽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 벽이 서 있는 기반이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벽,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인 벽, 모든 **것**이 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몸은 그 수많은 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벽은 항상 사탄 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곧바로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그재그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참사랑의 길은 직단거리입니다. 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생동안 사탄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239-261, 1992.12.06)

5 참된 사랑은 동작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힘은 입력보다 출력이 작지만 참사랑은 입력보다 출력이 커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그것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생애를 통하여 모두 투입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참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모여들어 옵니다. 부모님이 일생 동안 이런 공적인 길을 대표해서 고생하면서 역사를 더듬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흐릅니다. 누가 그렇게 울리는 것입니까? 참된 사랑은 만민을 넘고 우주를 넘어서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224-153, 1991.11.24)

6 참사랑은 어떤 비참한 상황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완성만이, 성공만이, 성취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다 파악하고 자동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부모님이 구상하면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으로 핍박받은 환경을 다 거쳐서 개인적인 승리, 가정적인 승리, 종족적인 승리, 민족적인 승리, 국가적인 승리, 세계적인 승리의 판도를 만들어 오

늘날까지 종교계에서 최고 정상의 자리, 정치계에서도 최고 정상의 자리, 문화면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 정상의 자리에 섰습니다. 핍박을 받는 데 있어서도 역사상 최고의 핍박을 받았지만,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역사 이래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0-162, 1992.05.01)

7 복귀는 재창조이지만 구원은 개조입니다. 그냥 그대로 병난 사람이 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재창조, 탕감복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런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참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칙을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참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 파헤친 것입니다. 참사랑은 직단거리로 통합니다. 이런 원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겨울 동삼삭에 입고 있던 솜바지를 적셔서 짜야 할 만큼 눈물 흘린 고통스러운 길을 거친 것입니다. 인류를 자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일신의 가죽을 벗겨 팔고 살을 떼어내고 뼈를 깎고 골수까지 짜서 희생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사탄의 후계자가 되어서 사탄의 핏줄을 남겨 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423-226, 2003.10.30) p. 1582

8 사랑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서 자꾸 가다보니 제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 가는 사람은 성공하게 마련입니다. 억천만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동기, 그러한 원천을 지닐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투입해도 싫증이 안 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매일같이 남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남과 같이 시간을 지켜서 밥을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남과 같이 편안하게 살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콩 볶듯이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청춘입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생애를 통해서 사랑을 중심삼고 고생할수록 거기에는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미남이고 제일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것이고, 그다음에는 아버님일 것입니다. (186-092, 1989.01.29)

9 댄버리에서 언제나 잊지 않은 것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큰 사랑의 길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목숨을 걸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목숨 이상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목숨 이상의 것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참다운 사랑의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사랑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 아버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천궁행하기 위해 역사시대에 40년 동안 갖은 수욕과 수난을 당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사랑이라는 이 절대적인 보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영광을 차지한다거나 성공을 바라면서 나오지 않았지만, 남들이 망한다고 하는 자리에서 나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세계적 판도가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135-171, 1985.11.12) p. 1583

10 종교와 정치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으면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로 갈라져서는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이상세계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종교와 국가들을 수습할 사람은 부모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오면 세계평화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새로운 이상세계, 제3의 세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님 외에는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를 움직여서 하나의 이상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29-056, 1992.04.09)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길

참부모님은 인륜도덕의 근본으로 충효사상을 강조하셨다. 효성은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는 덕목으로서 이를 훈련하여 세상의 부모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국가를 넘어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인이요, 더 나아가 세계를 넘어 하나님까지 그 사랑이 다다르면 성자가 된다고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성자의 길을 걸으셨고, 그 대를 2천년 만에 참부모님이 이으시며 성자의 삶을 인류 앞에 보여 주셨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다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요, 심정 중의 심정이라고 증거를 받으셨다. 평생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난과 형극의 길을 거쳐 구원섭리를 마무리하시면서 성자의 칭호를 받으신 것이다. (p. 1583)

11 우리는 효자가 되고 충신 열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효자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충신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편안한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국태민안의 자리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

다. 나라 형편이 최후의 고비에 부딪혀서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역경의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국운을 돌려서 국난을 풀어 주는 책임을 한 사람이라야만 그 나라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충이라는 명사, 어려울 때 효라는 명사, 어려울 때 열이라는 명사는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151-245, 1962.12.15) p. 1584

12 하늘의 황족이 되려면 효자·충신·성인·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 장소가 가정입니다. 완성한 가정이 확대되면 이상적인 왕국이 됩니다. 언제나 가정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남자 여자, 두 사람 문제입니다. 이상적 남자와 이상적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상가정이 확대되어서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봉사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효자가 되는 것처럼 나라의 왕을 모시고 위하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요, 온 인류를 위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다릅니다. 성자는 천상천국의 법을 완성한 분이요 지상천국의 법을 완성한 분입니다. 영계의 법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영계를 조종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지상을 조종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어떤 국가라도 다 환영합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자입니다. (293-211, 1998.05.26)

13 의인은 나라를 위해서 종의 종의 자리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서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종의 종 된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부모를 위하겠다고 할 때 그에게 효자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것이 인간세계 도덕의 골자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보다 종 되는 것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나라를 위해서 종보다 더 극심한 종이 되는 것이 충신이 될 수 있는 길이며, 부모를 위해서 보다 종 된 자리에서 희생해 가는 것이 효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088-295, 1976.10.03)

14 애국자 가운데에는 수많은 효자가 들어갑니다. 효자가 못 되었더라도 애국자가 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효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충신은 위인은 될 수 있지만 성인은 못 됩니다. 성인은 인류를 위한 사람입니다. 민족을 넘어서 원수의 나라까지 사랑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성인은 나라의 애국자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에는 애국자를 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국자보다도 성인의 **도**리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한 단계 더 성자의 자리를 말합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줄 압니다. 인간세계의 법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궁법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궁법을 성인들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는 성인들을 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6-125, 1989.12.31) p. 1585

15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라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가정을 가진 모든 백성은 왕이나 대통령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가정 전체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영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종적이기 때문에 가정이 절대 필요하고, 나라가 절대 필요하고, 세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전부 막혀 버립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부모의 사랑의 화신체가 되기 위한 것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라님의 권한을 중심삼고 거기에 대등한 화신체가 되기 위한 것이요,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상대가 되고 일체가 되겠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화신체, 대신 존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상대권은 나로부터 하늘, 세계, 가정에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생전에 이루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할 길입니다. 완성하는 길입니다. (285-092, 1997.04.21)

16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이요 마지막 결론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핵은 효의 도리입니다. 가정의 핵 위에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핵은 충신이 도리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충신은 성인의 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인은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효자·충신·성인·성자, 이 모든 것이 핵은 핵인데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말해 나온 것은, 앞으로 끝날 시대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점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부부끼리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어서 충신이 되는 것입니다. 충신이 되어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가 되어서 모든 상속권을 갖는 것입니다. (206-176, 1990.10.07) p. 1586

17 참된 성자, 하나님의 아들딸은 하나님을 위하듯이 하나님에게 속한 전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성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인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듯이 인류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

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잊고 인류를 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잊고 이 인류를 위하니 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자의 길에서부터 충신의 길, 성자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내용을 중심삼은 효자의 도리를 통해서, 충신의 도리를 통해서 성자의 도리를 이루어 놓으면 그 나라가 지상천국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천상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습니다. (133-243, 1984.07.19)

18 누구도 부모님의 갈 길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산으로 말하면 히말라야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정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거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찾아진 너는 세상만사 모든 것의 몇 백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해야만 하나님 심정에 못이 박힌 것을 해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고 엄청난 심각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308-149, 1998.11.29)

19 어느 나라의 충신 열녀도 사탄세계의 혈통관계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전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적 사랑,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복귀노정에서 수고한 그 길에 여러분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부모의 심정을 중심삼고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갖출 수 있는 내가 되지 않고는 전통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자의 길을 가르치신 하나님이요, 그 효자 된 사람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자로 길렀고, 그다음에 성인의 결실체, 성자의 결실체로 길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312-261, 1999.11.07)

20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나라나 온 우주의 주인보다 앞서 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이 바라던 사랑의 정착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중의 부모요, 스승 중의 스승이요, 왕 중의 왕입니다.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양심을 그렇게 귀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는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고생하고 보니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허전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눈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눈물로 대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하고, 눈물로 대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눈물 없이는 복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95-020, 1998.08.16)
21 나는 지금까지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처자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중심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원성사해 놓지 못했고 효자와 충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길을 안 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일생이 끝나더라도 그 길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늙어 죽도록 그 길을 따라가다가 뜻을 못 이루었어도 가야 됩니다. 세계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길도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죽어서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영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천년 기간이라도 영계에서는 하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걸려 성사한 일이라도 1년 걸려 성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034-358, 1970.09.20)
22 천주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소원릉 중심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은 내 뜻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해방을 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 자신이 구원의 도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227-326, 1992.02.16) p. 1588
23 아버님은 생애를 뜻의 해방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메시아는 뜻의 해방을 위해 태어나서 뜻을 중심삼고 생애를 통하여 뜻을 완성해서 해방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해방권은 하늘나라의 해방인 동시에 하나님이 해방을 말합니다. 그다음에는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인류를 이 사탄 감옥세계에서 해방하고, 그다음에 탄식하고 있는 만물까지 전부 해방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판타날에 찾아가서 낚시를 하고 산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러한 심정적 유대를 자연과 더불어서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착점에 이것을 결속시켜 이 모든 탕감역사들과 모든 경제복귀를 해야 하는 뜻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302-239, 1999.06.14)

하나님 모신 하나의 세계

참부모님의 말씀과 생애 업적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라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참부모님은 성혼 이전에 새말씀인 통일원리를 찾고 섭리의 출

발을 준비하셨으면 성혼 이후 기원절까지는 복귀의 길을 끝내셨다.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 하나님께 환원하고 새 하늘 새 땅의 후천시대를 맞이한 다음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셨다.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넘어 복귀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신 것이다. 기원절 이후 천상의 참아버님과 지상의 참어머님은 천일국 경전 편찬, 천일국 헌법 제정 반포, 글로벌 인재 양성, 신종족메시아 활동 등을 통해 이 땅에 천일국 정착에 힘쓰셨다. 참부모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비전과 업적은 국경선이 없는 하나의 평화세계를 이루는 초석이 되고, 인류에게 내리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우주의 비밀을 밝힌 새 생명의 길이 되고, 한평생 보여 주신 참사랑의 노정은 효자·충신·성인·성자의 전형이 되었다. 참부모님은 천일국의 밝은 해와 달로 하나님을 모신 창조이상세계를 영원히 비추고 있다. (p. 1588)

24 전 세계 통일가의 축복자녀들은 천지인참부모님이 살아오신 전통을 절대신앙으로 전수받아 종족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종족과 사회, 국가, 세계에서 그 책임을 기필코 완수하여 하늘부모님이 바라시고 천지인참부모님께서 고대하시는 전 세계 인류를 천일국 백성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6천년 동안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서 탕감복귀섭리역사를 완성·완결·완료하시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천일국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늘부모님의 소원이요 천지인참부모님의 소망이었던 천일국이 창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 감사와 송영을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은 천일국 조상의 자리에 세워 주시려는 큰 뜻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을 열어 주셨음을 이 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인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하여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필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 앞에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열어 드리겠다고 다짐하여야 됩니다. 그 길을 향해 전력투구, 사생결단,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것만이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참어머님, 2013.05.05, 청심평화월드센터)

25 우리이 자랑과 기쁨, 그리고 행복은 참부모님이 없이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의 소원은 지상천국 건설이며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될 수 없다면 우리 후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날을 이 지구상에 오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통일운동은 반드시 참부모님과 더불어 뜻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후세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다짐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늘의 뜻을 이 시

대에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26 아버님께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통일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명상에 잠겨 계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뵈올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원리로 무장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확고하게 연결된 심정세계에서 변치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스러울 때 언제나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어머님, 1983.03.13, 일본 도쿄)
27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천지인참부모이십니다. 아버님께서는 90평생 하늘 섭리를 붙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성화하시기 전에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세워 놓으시고, 특히 13년간은 전력투구해 오셨습니다. 우선 하늘부모님의 입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고통과 전쟁과 비참한 역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적으로는 신령과 진리로 교단을 이끌고 외적으로는 참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참어머님, 1967.08.03, 일본 도쿄)
28 나의 삶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하늘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고, 하늘과 하나되어 하늘빛과 닮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생명을 잉태합니다. 바닷속에는 온갖 생명체가 살고 있고 풍성하게 길러집니다. 달의 인력에 화답하여 조수 간만의 차를 만들고 절기를 바꿉니다. 햇살에 호응하여 수증기를 만들고 기후를 조절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겉에서는 평온합니다. 그러나 깊은 속에는 대양을 움직이는 거대한 물줄기가 도도히 흐릅니다. 한번 격랑이 일면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삼켜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깊은 바닷속의 소용돌이를 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섭리는 물론 내 생애도 이렇게 전개돼 왔습니다. 태풍처럼 몰아치는 섭리의 중심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타고 넘으면서 승리하여 탕감복귀섭리역사를 아버님가 함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참어머님, 2013.02.20, 천정궁)
29 하늘부모님께서는 독생녀로 길러 주셨고, 참부모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숱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참부모로서의 역사노정은 당신만이 아시고 당신만이 기억하시는 굽이굽이마다 넘어야 했던

많은 사연들이 있사옵니다. 하늘부모님, 그러나 감사하옵니다. 본래 당신이 소망하셨던 창조이상을 이루기 위해 참부모를 찾아 나오시는 노정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사옵니다. 이 땅에 천일국을 선포하기까지 기다려 주신 하늘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참어머님, 2013.12.06, 천정궁)

참부모님 주요 섭리 실록

◈일러두기

1. 참부모님 주요 섭리 실록은 날짜순을 정리하였다.
2. 참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거나 참여하신 행사를 위주로 기록하였다.
3. 천일국 경전에 수록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참부모경》《천성경》은 말씀의 해당 면수와 단락번호, 《평화경》은 강연문의 시작 면수를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참122-6]은 《참부모경》122쪽 6번의 말씀, [천1240-22]는 《천성경》1240쪽 22번의 말씀, [평201]은 《평화경》201쪽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나타낸다.
4. 국제 회의와 순회강연회는 행사 시작일이나 참부모님께서 참석하신 날을 기준을 표기하였다.

1920

01.06 문선명(文鮮明) 참아버님 성탄(양2.25)[참부모경122-6]

1934

04.01 참아버님, 오산사립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참부모경165-3]

1935

04.01 참아버님, 정주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전학[참부모경165-5]
04.17 참아버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참부모경161-5]

1938

03.25 참아버님, 정주공립보통학교 졸업
04.12 참아버님, 서울 경성상공실무학교 전기화 입학[참부모경167-8]

1941

03.08 참아버님, 경성상공실무학교 졸업

04.12 참아버님, 일본 유학을 위해 부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항 도착 [참부모경175-4]

04. 참아버님, 도쿄 와세다대학 부속 와세다고등공학교 전기공학과 입학 [참부모경176-5]

1943

01.06 한학자(韓鶴子) 참어머님 성탄(양2.10)[참부모경133-2]

09.30 참아버님, 와세다고등공민학교 졸업[참부모경182-21]

10. 참아버님, 일본 유학 마치고 귀국[참부모경182-22]

1944

10. 참아버님, 유학시절 지하항일운동을 이유로 경기도 경찰부 수감[참부모경722-2]

1945

02. 참아버님, 경기도 경찰부 석방, 고향 정주에서 요양[참부모경729-20]

* 참아버님, 8.15광복 후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이사

10. 참아버님, 김백문의 '이스라엘수도원' 상도동 집회소에서 사역[참부모경215-18]

1946

03. 참아버님, 김백문으로부터 '솔로몬왕과 같은 사명자'라고 증거 받음[참부모경216-20]

06.06 참아버님, 평양 도착, 경창리 집회소에서 말씀 전파[참부모경220-7]

08.11 참아버님, 평양 대동보안서 수감[참부모경224-16]

11.21 참아버님, 대동보안서 석방[참부모경225-18]

* 참아버님, 박을용으로부터 '실체 하나님'이라는 증거 받음[참부모경226-2]

* 참아버님, 영계 43일 노정 승리 후 하나님의 어인 받음[참부모경228-6][참부모경1298-6]

1948

03.22 참아버님, 공산당국의 종교 말살정책에 따라 평양 내무서 수감[참부모경734-1]
04.07 참아버님, 사회질서 문란 죄목으로 5년형 판결 후 평양형무소로 이감[참부모경231-1][참부모경734-4]
06.21 참아버님, 흥남 덕리 특별노무자수용소로 이감, 비료공장에서 강제노역[참부모경232-3][참부모경737-9]
09.09 참아버님, 북한정권 수립 기념으로 3년 4개월로 감형
* 참어머님, 복중교 허호빈 모친으로부터 '하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축도 받음[참부모경135-6]
* 참어머님, 삼팔선을 넘어 남하(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 동행[참부모경185-9]

1950

04 참어머님, 서울 효창초등학교 입학[참부모경188-1]
06.28 참어머님, 서울에서 6·25전쟁으로 1차 피란길 떠남[참부모경187-13]
09.28 참어머님, 국군 서울수복 후 귀경[참부모경187-14]
10.14 참아버님, 흥남감옥 출감(2년 7개월 21일간 수감[참부모경234-6]
10.24 참아버님, 평양 귀환, 40일간 평양 체류, 옛 식구 찾음[참부모경235-10][236-1]
12.04 참아버님, 평양에서 남하길 오름(김원필 박정화 동행)[참부모경236-2]
12.27 참아버님, 서울 흑석동 도착

1951

01.03 참아버님, 중공군 서울 진입에 따른 퇴거령으로 피란길 떠남)
01.04 참어머님, 국군 1·4후퇴로 인해 2차 피란길 떠남[참부모경187-14]
01. 참아버님, 경주에서 부산으로 이동[참부모경240-9]
01.27 참아버님, 부산 초량역 도착(경주~울산 도보, 울산~부산 기차 이용[참부모경243-5]
01. 28 참아버님, 부산에서 곽노필과 상봉
01. 31 참아버님, 노상에서 일본 유학시절 학우 엄덕문 상봉 후 함께 지냄[참부모경243-6]
05.11 참아버님, 옥중제자 김원덕의 괴정동 집에서 《원리원본》 집필 시작[참부모경249-2]

05. 참아버님, 범냇골에서 약 4개월간 하숙
08 참아버님, 범냇골에 토담집 지음[참부모경245-10]

1952

05.10 참아버님, 《원리원본》 집필 완료, 강현실 전도[참249-3][참256-10]
12.01 참아버님, 이요한 전도

1953

01. 참아버님, 부산 수정동으로 이사[참부모경256-10]
07.20 강현실 대구 40일 개척전도 파송[참부모경256-11]
09.17 참아버님, 부산에서 서울 기반 마련 위해 상경
12.24 참아버님, 부산 영도 특별수련회, 유효원 전도[참부모경251-11]

1954

02.09 대구에서 참아버님 탄신 34주년 기념식
04.26 참아버님, 서울 성동구 북학동으로 이사[참부모경261-7]
05.0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참부모경258-1]
07 3개소 교회장 임명(서울 유효원, 부산 김봉운, 대구 이요한)
12.31 성화기독학생회 결성[참부모경400-1]

1955

01.17 본부교회 성동구 흥인동으로 이전
02. 참어머님, 강원도 춘천 약사동으로 이사, 봉의초등학교 6학년에 전학[참부모경188-1]
02.22 성화청년회 결성[참부모경400-1]
03.27 협회 기관지 <성화> 창간
03.30 제1차 협회 원리시험 실시
04.27 본부교회 중구 장충동으로 이전
07.04 서울치안국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참아버님과 간부 4명 구속[참부모경773-7]
09.20 참아버님 외 간부 서울지방법원 1부에서 공판[참부모경778-1]
10.04 참아버님, 서대문형무소에서 무죄로 석방[참부모경778-1]
10.07 본부교회 용산구 청파동1가로 이전[참부모경269-1]

10.23 중고등부 성화학생회 결성[참부모경407-3]

1956

04.10 참어머님, 서울 성정여중 입학[참부모경188-1]
10.04 《성가》 발행[참부모경422-1]
10.14 성화장년회 결성[참부모경402-7]

1957

07.20 최초 하계 40일전도 파송(전국 70개 주요도시 120곳)[참460-1]
08.15 《원리해설》 발행[참부모경422-1]

1958

06.27 식구 삼위기대 최초 편성[참부모경381-1]
07.07 최초로 747지프차 구입
07.15 최봉춘 일본선교사 파송[참부모경292-6]
09.12 서울 전도지역 추첨 배정(120개 지역)

1959

01.02 김영운 미국선교사 파송[참부모경295-14]
03.07 영성합창단 창단
03.25 참어머님, 성정여자중학교 졸업[참부모경188-1]
04. 참어머님, 성요셉간호학교 입학[참부모경189-4]
05.20 예화산탄공기총제작소 설립[참부모경1116-6]

1960

02. 참어머님, 성혼식을 앞두고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는 몽시 받음[참부모경81-14]
02.24 성지(聖紙) 분배 탄공기총제작소 설립
02.26 참아버님과 참어머님 상면[참부모경192-12]
03.13 순석(巡石) 분배
03.27 참부모님 가약식, 부모의 날 선포(음3.1)[참부모경84-20][참부모경505-1][천성경240-22]
04.11 참부모님 성혼식, 성염 분배, 제1차 7년노정 출발(음3.16)[참부모경83-16][참부모경76-24][참부모경86-1]

04.16 3가정 축복결혼식[참부모경322-1]
04.17 심정부활의 날 선포[참부모경501-1]
10.14 협회기구 확정 및 간부 임명[참부모경396-1]
11.19 추수감사절 예배, 자녀의 날 선포(음10.1)[참509-1][천성경242-30]

1961

01.27 예진님 탄생(음12.11)[참부모경89-10]
02.11 도서출판 성화사 설립[참부모경1043-12]
02.20 성화학생회 기관지 <성로(成路)> 창간
04.17 실체부활의 날 선포[참부모경501-1]
05.15 33가정 축복결혼식[참부모경324-6][천성경526-4]

1962

05.05 대한어린이무용단(리틀엔젤스예술단) 창단[참부모경1068-1]
06.04 72가정 축복결혼식[참부모경326-1][천성경526-4]
10.28 '나의 맹세' 선포[참부모경511-5]
12.29 효진님 탄생(음12.3)[참부모경89-10]

1963

02.08 기성가정 축복결혼식(26쌍)[참부모경332-16][천성경535-44]
03.28 독신가정 축복결혼식(41쌍)[참부모경335-25][천성경536-50]
05.3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정부 등록(사회단체 제261호)[참290-2]
06.26 천승호 진수식[참부모경1134-4]
07.24 124가정 축복결혼식, 서울 시민회관[참부모경327-4][천성경527-7]
07.26 헌공식, 만물의 날 선포(음5.1)[참부모경513-1][천성경1244-35]
10.0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재단법인 인가[참부모경396-1]
11.08 전국성화총동창회 창립총회[참부모경407-3]

1964

04.10 대구 제3차 원리대강연회 참관[참부모경468-21]
04.14 3년노정 모범 40명 표창장 수여[참부모경442-9]
05.12 탕감기금 헌납에 관한 식
07.15 일본 통일교회 종교법인 등록[참부모경468-21]
07.28 혜진님 탄생(음6.20)

1965

01.28 제1차 세계순회 출발, 도쿄 하네다공항 도착[참부모경585-25]

01.31 일본 순회, 8개소 성지 택정[참부모경585-25]

01.31 도쿄 02.02 나고야 02.03 오사카 02.04 다카마쓰
02.05 히로시마 02.06 후쿠오카 02.08 삿포로 02.10 센다이

02.13 미국 순회, 55개소 성지 택정[참부모경587-30]

02.13 샌프란시스코 02.19 로스앤젤레스 02.25 라스베이거스 02.26 피닉스
02.27 앨버커키 02.28 댈러스 03.01 오클라호마 03.03 캔자스시티
03.04 세인트루이스 03.05 리틀록 03.06 뉴올리언스 03.07 탬파
03.08 키웨스트 03.09 데이토나 03.10 컬럼비아 03.11 프레데릭스버거
03.12 워싱턴 03.18 뉴욕 03.19 브래틀버러 03.20 클리블랜드
03.21 시카고 03.22 세인트폴 03.23 링컨 03.24 덴버
03.25 솔트레이크시티 03.26 캐스케이드 03.27 시애틀 03.28 포틀랜드
03.29 샌프란시스코 03.31 워싱턴

05.03 유엔본부 방문

06.25 아이젠하워 전 미국대통령 예방,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참590-37]

07.01 캐나다 오타와 순회

07.02 오타와 성지 택정, 미국 케네디공항 도착

07.03 중남미 순회, 5개소 성지 택정[참부모경591-40]

07.03 파나마 파나마시티 07.04 콜롬비아 보고타 07.05 칠레 산티아고
07.0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07.0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07.10 유럽 순회, 20개소 성지 택정[참부모경591-40]

07.10 포르투갈 리스본 07.12 스페인 마드리드 07.14 영국 런던
07.20 덴마크 코펜하겐 07.22 노르웨이 오슬로 07.24 스웨덴 스톡홀롬
07.26 독일 베를린 08.0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08.08 벨기에 브뤼셀
08.09 룩셈부르크 08.10 프랑스 파리 08.12 스위스 제네바
08.14 리히텐슈타인 파두츠 08.15 오스트리아 빈 08.17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08.18 이탈리아 로마 08.20 바티칸 08.22 그리스 아테네

08.14 인진님 탄생(음7.18)

08.24 중동 순회, 8개소 성지 택정[참부모경592-42]

08.24 이집트 카이로 08.28 싱가포르 08.30 이스라엘 예루살렘
09.03 시리아 다마스쿠스 09.05 레바논 베이루트 09.06 이란 테헤란

09.07 아시아 순회, 8개소 성지 택정[참부모경593-46]

09.07 인도 뉴델리 09.14 싱가포르 09.15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르
09.17 태국 방콕 09.19 베트남 호찌민 09.22 필리핀 마닐라

09.24 홍콩 09.27 대만 타이베이

09.29 일본 순회[참부모경594-47]

10.10 제1차 세계순회 마치고 귀국[참부모경576-1]

12.07 지방 8개소 성지 택정 위한 전국 순회

12.08 춘천 12.11 청주 12.12 대구 12.14 부산

12.17 광주 12.18 전주 12.19 대전 12.22 수원

12.31 서울 구진봉, 인왕산, 흑석동, 태릉 성지 택정[참부모경448-24]

1966

01.01 서울 남산, 도봉산, 청파동1가 전 본부교회 성지 택정(세계120개 성지 택정 완료)[참부모경579-10]

01.05 심정초 전수식

01.10 전국대학원리연구회 창설[참부모경411-12]

04.15 통일기계제작소 신축 낙성식, 구리 수택리[참부모경1119-14]

05.01 《원리강론》 발행[참부모경420-11]

11.07 기독교초교파운동본부 창설[참부모경1261-6]

12.04 흥진님 탄생(음10.23)

1967

06.12 참부모님 일본 순회

06.12 도쿄 07.08 나고야 07.09 오사카 07.10 고치

07.11 히로시마 07.12 후쿠오카 07.17 삿포로 07.18 센다이

07.19 마에바시 07.20 가나자와 07.21 도쿄

12.24 은진님 탄생(음11.23)

1968

01.01 하나님의 날 선포[참부모경519-1][천성경1233-2]

01.13 국제승공연합 창설[참부모경844-15]

02.04 제2차 7년노정 시작[참부모경450-1][천성경1236-11]

02.22 430가정 축복결혼식, 서울 시민회관(436쌍)[참328-8][천528-13]

09.09 신흥종교연구모임에서 인사 말씀, 크리스천아카데미하우스[참1265-17]

12.18 제1회 한일친선수렵대회, 제주도

* 미국 자유지도자재단(FLF) 창립

1969

02.02 제2차 세계순회 출발(5.2까지 21개국 순방), 일본 순회[참596-1]

02.04 미국 순회, 샌프란시스코공항 도착

02.08 로스앤젤레스 교회 방문

02.09 미국 협회본부 방문, 워싱턴DC[참부모경597-7]

02.28 43가정 축복결혼식, 워싱턴교회(미혼 7쌍 기성 6쌍)[참330-13][천528-13]

03.16 유럽 순회[참부모경596-3]

03.16 포르투갈 리스본 03.18 스페인 바르셀로나 03.20 영국 런던
03.24 독일 에센 03.2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04.02 프랑스 파리
04.04 스위스 제네바 04.05 오스트리아 빈 04.07 이탈리아 로마
04.10 그리스 아테네

03.28 43가정 축복결혼식, 독일 에센 폴켄하임(미혼 7쌍 기성 1쌍)[참330-13][천528-13]

04.12 중동 순회 04.12 이집트 04.13 키프로스 04.14 이스라엘 04.16 이란[참596-5]

05.01 43가정 축복결혼식, 일본 도쿄(미혼 12쌍 기성 10쌍)[참330-13][천528-13]

05.02 제2차 세계순회 귀국

05.11 독일 협회장 파울 베너, 오스트리아 협회장 피터 코흐 임명

05.23 일본 반공지도자 간담회, 서울 앰버서더호텔

05.25 현진님 탄생(음4.10)

06.01 세계 식구 120일 특별기도 실시

11.01 통일인쇄소 개소식, 구리 수택리

12.09 한국문화재단 설립

1970

01.21 국제승공연합 제1회 아시아승공대회, 서울 시민회관

02.10 중앙수련원 개원, 수택리

04.15 한국종교협의회 가입[참부모경1271-9]

07.15 종단지도자 초청모임, 협회본부[평화경201]

07.17 국진님 탄생(음6.14)
10.21 777가정 축복결혼식, 서울 장충체육관(790쌍)[참337-1][천529-16]
12.01 축복가정 부인 3년 총동원(10명씩 120개 지역에 파송)[참부모경471-1]
12.20 협회기관지 <통일세계> 창간

1971

01.21 국제승공연합 부인회 결성[참부모경890-21]
02.26 일신석재공예주식회사 설립, 전북 전주
06.17 청평수련소 착공[참부모경433-13]
07.04 <주간종교> 창간[참부모경1273-14]
12.05 제3차 세계순회 출발(1972.5.8.까지 15개국)[참부모경601-1]
12.05 일돈 도쿄 도착[참부모경630-2]
12.11 미국 로스앤젤레스공항 도착[참부모경602-6]
12.12 캐나다 토론토 도착[참부모경630-3]
12.16 ㈜일화제약 설립[참부모경1121-1]
12.18 미국 워싱턴DC 도착[참부모경631-4]
·리틀엔젤스예술단 공연 관람, 케네디센터 오페라하우스[참부모경1071-11]
12.31 미국 제1회 원리수련회, 워싱턴DC

1972

01.04 미국 통일운동 캠페인 선포[참부모경604-9]
01.08 미국 세계통일십자군 편성[참부모경641-1]
02.03 미국 7대 도시 공개강연회(각 3일간)[참부모경605-12]
02.03 뉴욕 링컨센터 02.08 필라델피아 쉐라톤호텔
02.11 볼티모어 가우처대학 02.19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
02.28 로스앤젤레스 앰버서더호텔 03.04 샌프란시스코 스카티시라이트템플
03.09 버클리 클레어몬트호텔
03.16 유럽 순회[참부모경601-3]
03.16 영국 런던 03.23 독일 에센 03.3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04.02 프랑스 파리 04.05 오스트리아 빈 04.07 이탈리아 로마 04.10 그리이스 아테네
03.20 영국 공개강연회, 런던 프렌즈미팅하우스[참648-1][평19][평355]

03.23 유럽 세계통일십자군 편성, 독일 에센[참부모경 645-11]

03.28 독일 공개강연회, 에센 잘바우홀[참 650-5][평19][평355]

04.03 통일신학교 개교[참부모경 1052-1]

04.11 아시아 순회[참부모경 603-7]

04.11 이스라엘 텔아비브 04.13 이란 테헤란 04.15 인도 뉴델리
04.17 태국 방콕 04.19 대만 타이베이

04.25 세계승공궐기대회, 도쿄[참부모경 882-1]

04.26 일본 세계통일십자군 편성[참부모경 646-13]

05.08 제3차 세계순회 마치고 귀국, 한국 세계통일십자군 편성[참 606-15]

08.20 통일사상연구원 창설[참부모경 986-1]

10.10 뉴욕 벨베디아수련소 부지 매입

10.19 한국티타늄공업주식회사 설립

11.21 제4차 세계순회 출발[참부모경 608-18]

11.26 제1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뉴욕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참 988-1][평 709]

1973

01.16 유럽 식구 미국 수련회

01.31 유럽 국제기동전도대 10개조 편성[참부모경 641-1]

02.26 참어머님 미국 영주권 취득[참부모경 637-20]

03.01 미국 100일수련회 개최, 벨베디아

04.30 참아버님 미국 영주권 취득[참부모경 637-20]

05.06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창설[참부모경 1007-1][천성경 1149-1]

06.01 《통일사상요강》 발행[참부모경 994-22]

06.30 미국 50개주 국제기동전도대 배치 완료[참부모경 643-6]

07.01 승축일 선포, 벨베디아[참부모경 640-25]

07.22 제4차 세계순회 귀국 환영집회, 중앙수련원

08.03 일화제약 사옥 준공식, 구리 수택리[참부모경 1121-1]

09.15 국제새소망합창단 설립

10.01 미국 21개 도시 공개강연회 (각 3일간)[참부모경 652-9][평화경32]

10.01 뉴욕 카네기홀 10.06 볼티모어 리릭극장
10.11 필라델피아 스코티시의전회당 10.16 보스턴 존 한코그홀

10.20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 10.26 뉴올리언스 예술극장
10.30 댈러스 시립중안극장 11.03 탬파 쉐라톤호텔
11.06 애틀랜타 리겐시히앨하우스 11.26 오마하 버케고등학교
11.30 미니애폴리스 서부은행 강당 12.04 신시내티 컨벤션센터
12.09 디트로이트 마소닉강당 12.12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
12.16 캔자스시티 캐프리스극장 12.20 털사 어셈블리홀

11.02 국제문화재단(ICF) 창설

11.21 제2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도쿄 제국호텔[참부모경 1000-7][평 718]

11.30 워터게이트선언[참부모경 686-4][평화경 1311]

12.27 리틀엔젤스예술단 유엔 공연 관람, 뉴욕 유엔 본회의장

1974

01.08 미국 21개 도시 공개강연회(각 3일간)[참부모경 652-9][평 688-8]

01.08 덴버 필프스강당 01.13 시애틀 샨장룸
01.18 샌프란시스코 스코티시의전강당 01.22 버클리 젤러베이치강당
01.27 로스앤젤레스 힐튼호텔

01.30 미국 21개 도시 공개강연 승리 환영회, 워싱턴DC

02.01 닉슨 대통령과 요담, 워싱턴DC 백악관[참부모경 688-8]

02.16 미국 32개 도시 공개강연[참부모경 658-20][평 366]

02.16 메인주 포틀랜드 홀리데이인 02.18 벌링턴 라마다호텔
02.20 맨체스터 쉐라톤웨이페어러호텔 02.22 프로비던스 홀리데이인
02.24 하트퍼드 홀리데이인 02.26 프린스턴 나소인
02.28 윌킹턴 듀폰호텔 03.02 리치먼드 존마셜호텔
03.04 찰스턴 찰스턴하우스 03.06 롤리 쉐라톤크랩트리호텔
03.08 컬럼비아 힐튼타운하우스호텔 03.10 버밍햄 하얏트호텔
03.12 내슈빌 라마다호텔 03.14 루이빌 골트하우스호텔
03.16 인디애나폴리스 컬럼비아클럽호텔 03.18 밀워키 애스터호텔
03.20 디모인 포트디모인호텔 03.22 리틀록 로빈슨오디토리엄
03.24 잭슨 힐튼호텔 03.26 위치토 홀리데이인플라자
03.28 앨버커키 힐튼호텔 03.30 피닉스 피닉스시빅플라자
04.01 라스베이거스 쇼보트호텔 04.03 래러미 와이오밍대학
04.05 수폴스 홀리데이인 04.07 파고 홀리데이인
04.09 미줄라 플로렌스 호텔 04.11 보이시 시립대학
04.13 솔트레이크시티 트래블로지호텔 04.15 오리건주 포틀랜드 힐튼호텔
04.18 앵커리지 캡틴쿡호텔 04.21 호놀룰루 프린세스카이울라니호텔

04.30 미국 뉴욕 배리타운 가톨릭신학교 매입[참부모경 1057-17]

05.07 '희망의 날'만찬회, 도쿄 제국호텔

05.13 '생명의 향연' 원리공개강연회(미국 10개 도시, 각 3일간, 7월 21일까지)

09.18 '희망의 날' 대강연회[참부모경 656-16]

09.18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09.27 필라델피아 음악아카데미
10.16 워싱턴DC 콘스티튜션홀　10.30 애틀랜타 시립중앙공회당
11.12 시카고 매코믹 애리크라운극장　11.28 시애틀 중앙오페라하우스
12.09 샌프란시스코 오페라하우스　12.23 로스앤젤레스 슈벨트극장

10.08 미의회 초청강연회, 국회의사당 상원의원회관[참부모경 685-1]

10.15 미국 조야 및 저명인사 초청 만찬회, 워싱턴DC 힐튼호텔

12.22 제3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런던 로열랭커스터호텔[참부모경 1001-8][평화경 722]

11.30 유럽지도자회의, 영국 런던

1975

01.01 일본 세카이닛포(世界日報) 창간[참부모경 1021-1]

01.16 '희망의 날' 한국 만찬회, 서울 조선호텔[참부모경 662-5][평 53]

02.08 1800가정 국제축복결혼식, 서울 장충체육관(1,816쌍)[참부모경 339-6][참부모경 662-5][천성경 530-21]

02.12 세계선교사회의에서 95개국 선교사 파송 결정, 도쿄[참 705-2]

02.13 '희망의 날' 대강연회, 도쿄 무도관(2.15까지)

03.02 권진님 탄생(음1.20)

04.01 '희망의 날' 대강연회 (각 2일간)[참부모경 664-10][평화경71]

04.01 부산 시민회관　04.06 대구 경북체육관　04.14 서울 장충체육관
04.19 인천 시민회관　04.25 전주 코리아극장　04.30 광주 실내체육관
05.06 대전 충무체육관　05.11 청주 충북체육관　05.16 춘천 강원체육관

05.01 총해원식, 청평수련원[참부모경 1318-6]

06.07 구국세계대회, 서울 여의도광장[참부모경 663-9][평화경 1151]

09.20 미국 통일신학대학원(UTS) 설립[참부모경 1057-17]

10.10 뉴욕시티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참부모경 1080-15][천 1110-16]

11.27 제4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뉴욕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참부모경 1001-9][참부모경 1003-13]

12.09 참아버님, 미국 리커대학 명예법학박사 학위 받음

12.18 미국 상하원 초청강연, 국회의사당[참부모경 685-1][평화경 1318]

* 국제구호친선재단(IRFF) 창설

1976

05.12 뉴욕 맨해튼 뉴요커호텔(세계선교본부)매입
05.26 양키스타디움대회 지지집회, 뉴욕 월가광장
06.01 뉴욕 양키스타디움대회[참부모경 669-1][평화경 1327]
07.11 선진님 탄생(음6.15)
09.18 워싱턴 모뉴먼트대회[참부모경 674-12][평화경 1334]
10.04 천승일 선포, 벨베디아[참부모경 681-28]
10. 미국 초교파기독교협회 창설
11.27 제5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워싱턴DC 힐튼호텔[평화경 727]
12.31 <뉴스월드> 창간, 뉴욕[참부모경 1023-6]

1977

02.21 국제축복결혼식, 미국 뉴요커호텔(74쌍)
02.23 지승일 선포, 벨베디아[참부모경 683-35]
03.04 선화예술고등학교 설립[참부모경 1073-16][천성경 1110-16]
05.03 참부모님 양위분의 세계적 해방 선포(음3.16), 벨베디아
05.10 한국 통일신학교 설립[참부모경 1052-1]
07.01 청파동2가 본부교회 신축 헌당식
07.02 참아버님 보스턴에서 2개월간 튜너잡이
07.05 세계선교본부 설립, 원웨이프로덕션 영화사 설립
11.25 제6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호텔
11.27 제1차 세계종교회의[참부모경 1281-11]
12.04 워싱턴DC교회 헌당식

1978

06.22 영진님 탄생(음5.17)
07.05 제1회 초교파국제회의, 세울 앰버서더호텔
09.25 일본 유학시절 하숙집 주인 미쓰하시 고조 내외와 재회, 나리타공항
10.19 한국민사상선양 월례회조찬회, 조선호텔[평화경 1163]
제1차 세계언론인회의, 뉴욕 월돌프아스토리아호텔[참 1017-7]
10.29 부산 범냇골 범일전 개관

11.25 제7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보스턴 쉐라톤호텔
12.01 경복초등학교 인수

1979

09.26 형진님 탄생(음8.6)
10.11 제2차 세계언론인회의, 뉴욕 플라자호텔[참부모경 1017-7]
11.23 제8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로스앤젤레스 센추리플라자호텔[평 733]

1980

04.15 제2회 3차 7년노정 시작 선포, 벨베디아
04.21 미국 뉴욕에서 스페인어 신문<노티시아스 델 문도> 창간[참부모경 1040-4]
05. 보스턴 모닝가든 매입
10.01 해양교회 설립[참부모경 1151-30]
10.02 제3차 세계언론인회의, 뉴욕 성레지스쉐라톤호텔
10. 남북미통일연합(CAUSA) 창설[참부모경 896-1]
11.18 초교파기독교협회 문선명선생 초청만찬회, 서울 롯데호텔
11.27 제9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마이애미 퐁텐블로힐튼호텔[평화경 737]

1981

02.07 연진님 탄생(음1.3)
03.28 국제크리스천교수협의회 창설
05.14 초교파기독교협회 문선명선생 초청만찬회, 서울 롯데호텔
05.16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서울 롯데호텔[평 386]
06.20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식구 집회, 프랑스 모니수련소
07. 오션 챌린지 프로그램 창설, 70일간 튜너잡이, 미국 글로서터[참부모경 1141-1]
08.19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순회
08.21 이탈리아 순회
09.18 우루과이 일간신문 <울티마스 노티시아스> 창간
10.01 제4차 세계언론인회의, 뉴욕 비스타인터내셔널호텔
10.22 참아버님, 뉴욕 연방지방법원 출두[참부모경 783-1]

11.01 참아버님 귀국, 재판 관련 기자회견, 김포공항[참부모경 785-6]
· 역사편찬위원회 설립[참부모경 1043-12]
11.08 리틀엔젤스예술회관 준공식
11.09 참부모님 신문로공관 입주
11.10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서울 세종문화회관[참부모경 974-1][참부모경 1127-1][평화경 742]
11.14 국제기독학생연합회 창설[참부모경 1267-23]
12.18 국제평화재단(FPI) 창설

1982

04.01 뉴욕 연방지방법원 12명의 배심원 구성 완료[참부모경 788-13]
05.17 <워싱턴타임스> 창간[참부모경 1026-1]
05.18 참아버님, 탈세혐의 유죄 평결, 뉴욕 연방지방법원[참부모경 787-9]
06.14 정진님 탄생(음4.23)
07.01 2075가정 국제축복결혼식,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참부모경 340-8]
07.16 참아버님, 탈세혐의 1심 언도(징역 18개월과 벌금 2만5천 달러)[참부모경 787-9]
10.04 제5차 세계언론인회의, 서울 롯데호텔[평화경 812]
10.14 6000가정 국제축복결혼식,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참부모경 340-10, [천성경 531-23]
10.21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저명교수 초청만찬회, 서울 롯데호텔
11.25 제11차 국제과학통일회의, 필라델피아 프랭클린플라자호텔[평 750]

1983

03.01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들이스트타임스> 창간
03.23 미연방고등법원 탈세혐의 재판[참부모경 791-19]
04.04 <뉴스월드>를 <뉴욕시티트리뷴>으로 제호 변경[참부모경 1025-11]
· 학교법인 성화학원 설립
04.25 국제종교재단(IRF) 창설[참부모경 1276-1]
08.29 참부모님 용산구 한남동으로 공관 이전
09.06 제6차 세계언론인회의, 콜롬비아 카르테헤나 힐튼호텔
09.13 미연방고등법원 탈세혐의 항소기각 원심 확정

· 탈세혐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기독교계 성명서 발표

11.02 카우사(CAUSA) 본부 봉헌식, 뉴욕 티파니빌딩[참부모경 896-2]

11.24 제12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시카고 메리어트호텔[평화경 896-2]

12.14 전국승공궐기대회[참부모경 1013-16]

12.14 마산 실내체육관 12.16 대전 충무체육관 12.17 대구 실내체육관
12.19 부산 구덕실내체육관 12.20 서울 잠실종합실내체육관
12.21 청주 충북실내체육관 12.22 전주 전북 실내체육관 12.23 광주 실내체육관

12.23 문흥진님 교통사고, 뉴욕주 포킵시 근처[참부모경 793-1]

1984

01.02 흥진님 성화, 뉴욕 성프란시스병원[참부모경 793-1]

01.03 애승일(愛勝日) 선포, 벨베디아[참부모경 797-10]

01.08 흥진님 세계성화식, 리틀엔젤스예술회관

05.12 유니버설발레단 창단[참부모경 1075-1]

05.16 애천일 선포, 이스트가든[천성경 1230-18]

05.20 애천초 전수와 일정기도회 출발, 벨베디아

06.11 미국 뉴욕지방법원 형집행 연기(7.20까지 32일간)

06.26 참아버님, 미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언, 국회의사당 상원의원회관 [평화경 394]

07.20 참아버님, 코네티컷주 댄버리 연방교도소 수감[참부모경 803-1]

07.21 참어머님, 성지 철야기조, 이스트가든

09.03 제13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워싱턴DC 메리어트호텔[평화경 774]

11.03 제1회 원리연구회 세계대학생총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평 1002]

11.15 참아버님,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가톨릭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 받음, 유엔본부

11.20 제7차 세계언론인회의, 도쿄 뉴오타니호텔[평화경 819]

12.31 참아버님, 댄버리 연방교도소에서 신정 휴가 출감(5일간)

1985

01.08 세일여행사 설립[참부모경 1123-6]

02.01 개천문일 선포, 댄버리 연방교도소[참부모경 819-1][참 1322-14]

02.28 참아버님, 미국 30만 목사에게 옥중서신 보냄[참 817-16][평 406]

04.04 참아버님, 부활주일 특별휴가 출감(6일간)

05.11 참아버님, 미국 쇼우신학대학 명예신학박사 학위 받음
05.28 참아버님, 미국 성경신학대학 명예신학박사 학위 받음
08.13 공산주의 종언 선언,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 스위스 제네바[참부모경 811-1][참부모경 901-1][천성경 1132-17]
08.15 참아버님, 미국 버나디안대학 명예법학박사 학위 받음
08.16 일승일 선포 및 성수식, 이스트가든
08.20 참아버님, 입감 13개월 만에 출감[참부모경 821-8]
· 종교자유연맹 주체 참아버님 출감 환영만찬회,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평화경 413]
· 세계 축복가정 성수식 거행, 벨베디아
11.16 세계종교의회 창립총회, 뉴저지 아메리카나 그레이트조지호텔[평화경 420]
11.29 제14차 국제과학통일회의, 휴스턴 인터콘티넨탈호텔[평화경 778]
12.11 참부모님 승리귀국 환영만찬회, 서울 힐튼호텔
12.12 전 국가원수 및 수상 환영오찬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
· 참아버님, 국제기사단 최고십자정의기사장 봉정, 국제기사단 명예총재로 추대
12.16 국제승공안보결의대회, 서울 잠실실내체육관[평화경 1198]
12.18 종합월간지 <월드 앤 아이> 발행[참부모경 1027-6]
12.27 성화신학교 4년제 각종학교로 설립 인가[참부모경 1052-1]

1986

03.14 대학교수 초청강연 및 만찬회
03.14 대전 유성관광호텔 03.15 광주 신양파크호텔 03.17 대구 금호호텔
03.18 부산 웨스틴조선비치호텔 03.20 서울 힐튼호텔
04.12 축복가정 2세 36가정 축복결혼식,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 345-14]
05.15 남북통일전국학생총연합 창설[참부모경 876-10]
05.26 ㈜일흥산업 설립
09.18 참아버님, 브라질 훈장학회 '국민문화공로 십자장' 받음
· 제8차 세계언론인회의,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
10.11 전국대학교수학생남북통일운동연합 창설, 서울 롯데호텔[참 877-14]
11.21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가[참 1058-19]
11.27 제15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워싱턴DC 메리어트호텔[평화경 784]

1987

05.15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창설대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 849-1][평화경 1205]
06.01 세계평화정상회의 창설대회, 서울 롯데호텔[참 935-1][평 1343]
06.03 세계평화를 위한 서울선언, 서울 롯데호텔[천성경 1315-3]
09.21 제9차 세계언론인회의, 서울 롯데호텔[참부모경 1018-10][평 825]
11.16 사회단체장 및 지도층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서울 쉐라톤워크힐호텔
11.27 제16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애틀랜타 스토퍼웨리베리호텔[평 789]

1988

02.01 도원빌딩 준공식
06.08 ㈜일화 용인공장 준공식[참부모경 1121-1]
09.27 섭리적 통일전환식 선포, 한남국제연수원[참 342-5][참 1083-6]
· 세계문화체육대전 선언, 서울 쉐라톤워크힐호텔[참 1083-7]
10.03 세계통일국개천일 선포 및 한국과 세계 120개국 자매결연, ㈜일화 용인공장[참부모경 1322-15][천성경 1246-41]
10.30 6500가정 국제축복결혼식, ㈜일화 용인공장[참 341-1][천 531-25]
11.25 제17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로스앤젤레스 스토퍼콩커스호텔

1989

01.03 종족적 메시아권 선포, 한남국제연수원[천 967-1]
01.10 배달문화선양회 제1회 정신문화상 봉정
01.11 축복가정 2세 72가정 축복결혼식,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 349-27]
01.12 1275가정 국제축복결혼식, ㈜일화 용인공장
02.01 한국 <세계일보> 창간[참 1033-1]
03.18 일화천마축구단 창설[참 1087-1]
03.23 제10차 세계언론인회의,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평화경 831]
06.23 한국뿌리찾기연합회 문선명총재 추대식,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 928-1][평화경 1027]
08.20 애원섭리시대 선포, 노스가든[참부모경 1369-1]
08.31 팔정식, 노스가든[참부모경 1372-8]

09.01 천부주의 선포, 노스가든[참부모경 1376-16][천성경 212-30]

10.12 중국 판다자동차공업도시 조성 설명회, 서울 신라호텔[참 1132-13][평화경 1349]

11.03 홍순애 대모님 성화, '충심봉신' 휘호 '대모' 존호 하사[참 147-12]

12.28 성화대학 대학 개편계획 승인[참부모경 1053-4]

1990

01.25 남북통일을 대비한 지도자대회, 제주국제연수원

02.01 참아버님 고희 경축식, 올림픽펜싱경기장[평화경 213]

- 참아버님, 멕시코 Color of Honor' 훈장 받음
- 참어머님, 미국 블룸필드 대학 명예인문학박사 학위 받음, 서울 힐튼 호텔

02.02 제2차 세계평화정상회의 및 제8차 중남미통합기구 총회, 서울 롯데호텔[평화경 1216]

02.20 참부모님 환영대회

02.20 부산·경남권 부산통일회관 02.21 대전·충청권 천안 성화대학교
02.22 대구·경북권 대구통일회관 02.23 광주·전라권 광주 신양파크 호텔
02.24 인천·경기·강원권 ㈜일화 용인공장 02.25 서울권 리틀엔젤스예술회관

02.27 천지부모 선포, 한남국제연수원[참부모경 1323-16]

03.18 미국 5대 도시 참부모님 환영대회

03.18 샌프란시스코 미야코호텔 03.20 로스앤젤레스 월셔이벨극장
03.23 시카고 마더고등학교 03.25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
03.31 뉴욕 맨해튼센터

03.27 여성전체해방권 선포[참부모경 1438-1]

04.08 참부모님 소련 방문[참부모경 903-6]

- 리틀엔젤스예술단 모스크바 초청공연 관람, 모스크바 소년극장[참부모경 1072-13]

04.09 제11차 세계언론인회의, 모스크바 세계무역센터[참 906-13][참 1017-7][평화경 836]

04.28 모스크바대회 승리귀국 참부모님 환영집회, 한남국제연수원

04.30 모스크바대회 승리귀국 참부모님 환영대회[참부모경 95-6][참 905-12[평화경 1223]

04.30 충주 와이키키 수안보관광호텔 05.03 전주 실내체육관 05.08 인천 실내체육관
05.09 춘천 실내체육관 05.10 대구 경북실내체육관 05.11 부산 사직체육관

05.12 마산 종합운동장 야구장 05.14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05.15 수원 실내체육관
05.17 제주 그랜드호텔 05.21 대전 충무체육관 05.22 광주 종합체육관

05.10 세계일보 주최 문선명회장 모스크바대회 보고회, 서울 롯데호텔

06.01 세계평화연합 창설 제창, 워싱턴DC 제퍼슨하우스[참부모경 936-5]

06.26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미국방문단 특별집회

06.26 전남·전북·광주·제주권 광주 신양파크호텔
06.27 경남·경북·부산권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06.28 충남·충북권 대전 리베라호텔
06.29 서울·인천·경기·강원권 리틀엔젤스예술회관

07.06 최고경영자 초청 대소 한일공동경제사절단 파견 설명회, 서울 힐튼호텔[평화경 1238]

08.16 제2차 세계종교의회, 세계평화종교연합 창설 선포, 샌프란시스코 하얏트리젠시호텔[참부모경 1283-15][천성경 1103-10][평 448]

09.06 유니버설 발레아카데미(UBA) 개교, 워싱턴DC[참부모경 1078-9][평화경 1033]

09.07 워싱턴 텔레비전센터 개관[참부모경 1042-8]

10.21 세계종교협의회 이슬람교지도자회의, 이집트 카이로[평화경 455]

11.14 시리아 그랜드머프티 환영만찬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 1277-4]

11.20 남북총선을 대비한 지도자대회

11.20 서울북부 동대문교회 11.25 전국대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
11.27 서울남부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11.28 서울동부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11.29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11.30 서울서부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12.02 이슬람교지도자 40일수련, 뉴요커빌딩[참 1291-2]

12.15 알래스카 코디악 세계수련소 준공식[참 1144-9]

12.17 시리아 이슬람교지도자 초청 만찬, 이스트가든

12.18 소련과 동구권 정치지도자 초청 만찬, 이스트가든[참 908-19]

12.19 세계종교협의회 미국 전체대회, 뉴요커호텔

12.27 남북총선을 대비한 서울 교구별 동지도자대회,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12.27 서부교구 12.28 남부교구 12.29 동부교구 12.30 북부교구

1991

02.18 러시아 지도자 초청 강연회, 이스트가든

04.21 브라질 훈장학회, 참부모님께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과 메달

봉정

04.24 루이스 A. 라이가이예 우루과이 대통령과 회담, 몬테비데오 빅토리아 플라자호텔

04.27 카우사 창립 10주년 기념 문선명선생 환영대회,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국립극장[평 86]

07.01 하나님축복영원선포식(칠일절), 한남국제연수원[참 1324-18][참 1382-1][천성경 1247-45]

08.15 《세계경전》 봉정[참부모경 1283-15]

08.22 참부모님 본향인 집회,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08.24 제18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평화경 794]

08.27 세계평화종교연합 창설대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부모경 1285-1][천성경 1103-10][평화경 462]

08.28 세계평화연합 창설대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부모경 936-5][천성경 1149-1[평화경 1356]

· 인도 국제통일재단, 참아버님 '1991 통일상' 참어머님 '1991 통일메달' 봉정, 리틀엔젤스예술회관

08.29 환고향 총동원 선포, 통일그룹지도자 특별집회,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참부모경 1385-9][천성경 993-1]

09.17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 도쿄베이 NK홀[참 1419-1][평 895]

09.18 참어머님 일본 순회집회

09.18 도쿄베이 NK홀 09.20 기후 메모리얼센터
09.23 삿포로 그랜드호텔 09.24 후쿠오카 국제센터

09.22 홋카이도 쇼와신산 정상 성지 택정

10.24 남북통일지도자총연합회 결성대회

10.24 서울권 리틀엔젤스예술회관 10.26 충청권 천안 성화대학교
10.27 전라권 광주 신양파크호텔 10.28 부산·경상권 대구 통일회관
10.29 제주 로열호텔

10.25 이상가정을 향한 건전결혼 설명회, 시도 교구본부

10.25 서울 세계일보사 국제연수원, 춘천 강원교구
10.26 대전 충남교구, 청주 충북교구 10.27 전주 전북교구, 광주 전남교구
10.28 창원 경남교구, 대구 경북교구 10.29 제주교구

10.31 아시아평화여성연합 한국 창설대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 1419-1]

11.07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일본여성지도자집회, 한남국제연수원

11.20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전국대회, 올림픽펜싱경기장

11.30 참부모님 북한 방문[참부모경 856-1][참부모경 1072-14][평1248]

12.05 북한 정주 양친묘소 참배[참부모경 857-5]

12.06 김일성주석과 회담 및 오찬, 흥남 마전 주석공관[참부모경 859-10]

12.07 참부모님 북한 방문 담화문 발표, 중국 베이징[평화경 1252]

1992

03.31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와 회담, 도쿄 뉴오타니호텔

04.10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 올림픽주경기장[참부모경 1423-12][평화경 901][평화경 905]

· 1200쌍 세계기성가정 축복결혼식, 올림픽주경기장(1,267쌍)

04.15 미국 브리지포트대학 인수[참부모경 1058-21]

04.18 참가정 부활과 세계해방의 날 선포, 벨베디아

05.11 세계평화여성연합 전국 시도대회[참부모경 1430-1][평화경 916]

05.11 인천 실내체육관	05.12 춘천 실내체육관	05.13 수원 실내체육관
05.14 대구 통일회관	05.15 마산 실내체육관	05.16 사천 체육관
05.17 천안 성화대학교	05.18 논산 군민회관	05.19 포항 실내체육관
05.20 전주 실내체육관	05.21 청주 실내체육관	05.22 광주 종합체육관
05.23 제주 실내체육관	05.25 부산 구덕실내체육관	05.26 목포 실내체육관
05.27 대전 한라체육관	05.28 의정부 공설운동자	05.29 순천 실내체육관
05.30 남원 KBS홀	06.01 영주 실내체육관	06.02 진주 문화예술회관

05.21 워싱턴타임스 창간 제10주년 기념식,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평846]

06.10 세계평화여성연합 전국 40개 시군구대회[참 1430-3][평화경 928]

06.10 서울 성동구	06.10 서울 관악구	06.11 서울 동대문구	06.11 서울 은평구
06.12 대구 수성구	06.12 대구 남구	06.13 부산 남구	06.13 부산 진구
06.15 진해	06.15 거제	06.16 김해	06.16 울산
06.17 경주	06.17 영천	06.18 김천	06.18 구미·선산
06.19 여수	06.19 광주 서구	06.20 장흥	06.20 나주
06.21 정읍	06.21 김제	06.22 군산	06.22 이리
06.23 양양	06.23 강릉	06.24 충주	06.24 제천
06.25 온양	06.25 대천	06.26 공주	06.26 대전 유성구
06.27 여주	06.27 양평	06.28 광명	06.28 이천
06.29 성남	06.29 안산	06.30 동두천·양주	06.30 구리·미금

07.06 세계평화여성연합 지도자대회[평화경 1473]

07.06 충청권 청주실내체육관	07.07 경상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07.08 전라권 광주종합체육관　　07.09 수도·강원권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08.19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참부모경 1083-7]

08.20 제19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및 제5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참부모경 1005-19][평화경 798]

08.22 제12차 세계언론인회의, 제5차 세계평화정상회의, 서울 힐튼호텔[평화경 855][평화경 1255]

08.23 제8차 원리연구회 세계대학생 한마당체육대회

08.24 참부모 선포, 세계평화통일당 창설 제창,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부모경 94-4]

08.25 3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참부모경 343-7]

08.26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대회, 서울 쉐라톤워크힐호텔[평화경 938]

· 제3차 세계종교의회,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평화경 467]

09.24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일본대회[참부모경 1431-6][평화경 943]

09.24 도쿄 도쿄돔　　09.25 후쿠오카 후쿠오카종합운동장
09.26 히로시마 그랜드호텔　　09.28 센다이 센다이선플라자홀
09.29 나고야 나고야레인보홀　　09.30 고베 고베월드기념관
10.02 삿포로 로이튼호텔

10.04 세계평화여성연합 재일동포대회

10.04 도쿄 히비야공회당　10.05 오사카 나카노시마공회당　10.06 나고야 캐슬호텔

10.20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미국대회[참부모경 1432-9][평화경 938]

10.20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　　10.21 뉴욕 맨해튼센터
10.22 보스턴 파크플라자호텔　　10.23 시카고 메리어트다운타운호텔
10.24 애틀랜타 메리어트마퀴스호텔　　10.25 휴스턴 더블트리호텔
10.26 로스앤젤레스 웨스틴보나벤처호텔　10.27 샌프란시스코 웨스틴성프랜시스호텔

11.11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유럽대회[참부모경 1433-12][평화경 938]

11.11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라벨라호텔　　11.12 독일 베를린 힐튼호텔
11.13 영국 런던 비빙스턴하우스　　11.14 영국 에든버러 발모럴호텔
11.15 프랑스 파리 벨롱그리즈호텔　　11.16 프랑스 아라스 힐튼호텔
11.17 이탈리아 로마 카발리에리힐튼호텔　11.18 이탈리아 밀라노 레오나르도다빈치힐튼호텔
11.22 러시아 모스크바 신알베이드 10월극장

11.29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호주 시드니대회[평화경 938]

12.02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회[평화경 938]

12.08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필리핀 마닐라대회[참 1437-25][평 938]

12.22 중국장애인연합회 등박방주석과 오찬,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참부모경 1436-23]

12.23 세계평화여성연합 중국 베이징대회, 베이징 인민대회당[참부모경 1435-20][평화경 938]

1993

01.03 성약시대 출발 선포[참부모경 1393-1][천성경 126-10]

02.28 재미교포 초청 대강연회, 뉴요커호텔

05.13 '참부모와 성약시대'선포 미국 순회강연[참 1395-6][평화경 1482]

05.13 뉴욕 맨해튼센터
05.14 시코커스 메도랜드 힐튼호텔
05.15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
05.16 보스턴 버클리공회당
05.17 시카고 드레이크호텔
05.18 미니애폴리스 메리어트호텔
05.19 애틀랜타 힐튼호텔
05.20 휴스턴 더블트리호텔
05.21 덴버 웨스틴호텔
05.22 로스앤젤레스 하얏트리젠시호텔
05.23 시애틀 쉐라톤호텔
05.24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컨벤션센터
05.26 알바니 옴니알바니호텔
05.27 뉴헤이븐 파크플라자호텔
05.28 볼티모어 메리어트호텔
05.29 필라델피아 아담스마크호텔
05.30 세인트루이스 스토퍼콩코스호텔
05.31 밀워키 피스터호텔
06.01 솔트레이크시티 레드라이온호텔
06.02 샌디에이고 쉐라톤호텔
06.03 앨버커키 더블트리호텔
06.04 뉴올리언스 힐튼호텔
06.05 모빌 홀리데이인
06.06 메인주 포틀랜드 쉐라톤에어포트호텔
06.20 앵커리지 앵커리지퍼포밍
06.21 피닉스 웨스트코트인더뷰츠호텔
06.22 토페카 홀리데이인웨스트홀리돔
06.23 디트로이트 디어본메리어트호텔
06.24 마이애미 하얏트리젠시호텔
06.25 맨체스터 뉴햄프셔홀리데이인
06.26 샬럿 이그제큐티브파크메리어트호텔
06.27 내슈빌 리갈맥스웰하우스
06.28 브리지포트 브리지포트대학
07.10 호놀룰루 알라모아나호텔
07.11 라스베이거스 샌즈호텔
07.12 빌링스 쉐라톤호텔
07.13 샤이엔 리틀아메리카
07.14 수폴스 베스트웨스턴램코타호텔
07.15 오클라호마시티 메리어트호텔
07.16 잭슨 홀리데이인다운타운
07.17 컬럼비아 브룩랜드케이시고교
07.18 윌밍턴 래디슨호텔
07.19 프로비던스 메리어트호텔
07.20 보이스 레드라이온호텔
07.21 파고 홀리데이인
07.22 오마하 홀리데이인컨벤션센터
07.23 디모인 메리어트호텔
07.24 리틀록 아칸소엑셀시어호텔
07.25 찰스턴 찰스턴하우스홀리데이인
07.26 오리건주 포틀랜드 홀리데이인
07.27 인디애나폴리스 웨스틴호텔
07.28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상원의원회관
07.29 버링턴 쉐라톤호텔
07.30 루이빌 브라운호텔
07.31 리치먼드 래디슨다운타운호텔, 콜럼버스 컨벤션센터

06.02 일본 교회지도자 특별수련회, 노스가든[참부모경 1442-1]

08.01 '환국(본향)의 날'팔일절 선포, 벨베디아[참부모경 1403-1]

09.07 참어머님 유엔본부 초청강연[평화경 950]

09.11 ‘참부모와 성약시대’선포 일본 순회강연[평화경 1482]

09.11 삿포로 로열호텔, 이와미자와시민회관 07.30 센다이 선플라자
09.13 고리야마 유락스아타미, 도쿄 포시즌스
09.14 도쿄 국회헌정기념회관 09.15 나가노 시민회관
09.16 산조 니가타산업진흥센터 09.17 마에바시 군마현민회관
09.18 도쿄 유엔대학 09.19 가나자와 관광회관
09.20 기후·아이치 기후그랜드호텔, 나고야 하쿠초센추리홀
09.21 오카야마·히로시마 콘벡스오카야마 09.22 돗토리 마쓰노이팰리스
09.23 다카마쓰 커뮤니티센터, 마쓰야마 카렐리아홀
09.24 무나카타 무나카타유릭스 09.25 구마모토 현민극장
09.26 도스 시민문화회관 09.27 오키나와 기노완컨벤션극장
09.28 교토 나가오카교기념문화회관
09.29 고베 고베문화홀, 오사카 미나미덴노테라도호텔
09.30 오사카 리가로열호텔

09.14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1주년 기념대회, 도쿄 도쿄돔

10.04 전국 40개 대학 순회강연[참부모경 872-1][평화경 1482]

10.04 단국대, 국민대 10.05 서울대 10.06 성화대, 충남대 10.07 청주대, 충북대
10.08 동국대, 숙명여대 10.09 삼육대 10.12 강원대, 한림대 10.13 경상대
10.14 창원대 10.15 인천대, 인하대 10.16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고려대
10.18 원광대 외국어대, 광운대 10.20 수산대, 부산대 10.21 대구대, 영남대
10.22 순천대 10.23 전남대, 조선대 10.24 제주대 10.25 한양대, 성신여대
10.26 우석대, 군산대 10.27 성균관대, 경희대 10.28 홍익대, 건국대 10.29 경기대, 용인대
10.30 중앙대

10.06 일본여성지도자 5만명 특별수련, 제주국제연수원(12월 22까지)[참부모경 1442-1]

10.30 한국종교협의회 한학자총재 초청강연회, 서울 캐피탈호텔

10.31 국회 한학자총재 초청강연회, 의원회관[평화경 1482]

11.02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 세계순회강연[평화경 1482]

11.02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호텔 11.03 룩셈부르크 인터콘티넨탈호텔
11.04 벨기에 브뤼셀 소데호텔 11.05 네덜란드 헤이그 쿠르하우스호텔
11.06 아일랜드 더블린 웨스터베리호텔 11.07 영국 런던 로열랭커스터호텔
11.08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11.10 프랑스 파리 메리디앙호텔
11.11 노르웨이 오슬로 그랜드호텔 11.12 스웨덴 스톡홀름 스칸딕크라운호텔
11.13 스위스 제네바 노가힐튼호텔 11.14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인터콘티넨탈호텔
11.15 오스트리아 빈 힐튼호텔 11.17 불가리아 소피아 비토샤호텔
11.18 헝가리 부다페스트 힐튼호텔 11.19 폴란드 바르샤바 메리어트호텔
11.20 우크라이나 키예프 프레지던트호텔 11.21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회당
11.22 벨라루스 민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 11.24 포르투갈 리스본 쉐라톤호텔
11.25 스페인 마드리드 프린세스호텔 11.26 이탈리 로마 카발리에리호텔
11.27 체코 프라하 아트리움호텔 11.28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라탁심호텔
11.30 이스라엘 예루살렘 홀리데이인크라운플라자

12.01 이집트 카이로 메리어트호텔 12.02 그리스 아테네 메리어트호텔
12.03 케냐 나이로비 케냐타국제콘퍼런스센터
12.05 나이지리아 아부자 트랜스코프힐튼호텔 12.02 파라과이 아순시온 과라니문화센터
12.09 브라질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 12.10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메트로극장
12.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이사르파트
12.12 페루 리마 쉐라톤호텔 12.13 콜롬비아 보고타 테켄다마호텔
12.16 뉴질랜드 오클랜드 쉐라톤호텔 12.17 호주 시드니 리츠칼튼
12.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스타나호텔 12.20 인도 뉴델리 국회의사당, 공군회관
12.22 대만 타이베이 국회의사당

12.30 세계 40개국 대표 선교사회의, 한남국제연수원

1994

01.12 제1회 세계평화관광낚시 수렵대회, 제주도

02.01 세계131개국 선교사 파송

03.08 미국 100개 대학 순회강연[평화경 1482]

03.08 하버드 대학 03.09 메릴랜드대학 03.11 뉴욕대학 03.12 코넬대학
03.13 시카고주립대학 03.15 컬럼비아대학 03.16 프린스턴대학 03.17 하워드대학
03.19 펜실베이니아대학 03.21 예일대학

03.10 제2회 1차 일본여성 특별수련회, 중앙수련원(3.17까지)[참 1442-1]

03.25 자원봉사 애원은행 창설[참 1063-6]

03.26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오찬, 한남국제연수원

03.27 제2차 세계평화회의, 서울 롯데호텔[평화경 96]

05.01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올림픽체조경기장[평화경 1042]

· 가정맹세 제정[참부모경 1365][천성경 1335-1]

05.0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 창립[참부모경 134801][천성경 1256-21]

07.26 세계평화청년연합 창설대회,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참 879-16]

08.01 해양섭리 20주년 기념식, 벨베디아

10.12 한·중 여성지도자 세미나, 리틀엔젤스예술회관[평화경 969]

11.07 홍순애 대모님 기념관 개관

11.19 일본여성 16만명 교육 대승리 축하 기념식, 중앙수련원[참 1444-5]

11.20 16만쌍 한일여성 자매결연 승리대회, 중앙수련원[참 1445-9]

12.08 브라질 마투그로수도술주 자르딘 최초 방문[참부모경 1194-11][천성경 673-2]

1995

01.08 세계평화청년연합 전국대의의 총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

01.11 일본남성 특별수련회, 중앙수련원

01.12 한일남성 형제결연, 수원실내체육관

01.22 일본여성 특별수련회 및 미일여성 자매결연, 워싱턴DC

03.31 상파울루 선언, 브라질 상파울루교회[참부모경 1196-1]

04.03 새소망농장 선언(자르딘 제1선언), 자르딘 새소망농장[참 1201-5]

04.07 축복가정에 관한 선언, 자르딘 새소망농장

05.01 제2차 40년노정 출발 선포, 자르딘 새소망농장[참 1199-2]

05.18 '참된 가정과 나' 중남미 17개국 순회강연[참 1221-10][평 521]

05.18 파라과이 아순시온
05.22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소피텔
05.3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알베아르팰리스 호텔
06.07 브라질 브라질리아
06.19 페루 리마 쉐라톤호텔
06.20 볼리비아
06.21 에콰도르 키토 오로베르데호텔
06.23 칠레 산티아고
06.25 콜롬비아 보고타
06.27 파나마 파나마시티
06.28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르네상스자라구아호텔
06.30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07.03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07.04 니카라과 마나과 엘올로프팔매
07.05 코스타리카 산호세 윈덤에라두라호텔
07.06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07.07 멕시코 멕시코시티 피에스타아메리카나호텔

05.22 선학장학재단

08.20 세계평화청년연합 한국대회, 서울 장충체육관[평 1007][평 1013]

08.21 제3차 세계평화종교연합 세계대회, 서울 힐튼호텔[평화경 474]

08.22 제20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서울 쉐라톤워크힐호텔[평화경 804]

· 제13차 세계언론인회의, 서울 신라호텔[평화경 536]

08.23 제3차 세계평화회의, 서울 롯데호텔[평화경 104]

· 제2차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대회, 서울 롯데월드호텔[평화경 536]

08.24 충모님(문경유-김경계) 대모님(한승운-홍순애) 대형님(문용수-지치숙)가정 영인축복식, 한남국제연수원[참부모경 361-12]

08.25 36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 올림픽주경기장[참 351-1][천 532-32]

08.27 한마당체육대전, 서울 효창운동장[평화경 1051]

09.05 '참된 가정과 나' 미국 16개 도시 순회강연[평화경 521]

09.05 필라델피아 메리어트호텔
09.06 뉴욕 맨해튼센터
09.07 브리지포트 브리지포트대학
09.08 뉴브런즈윅 힐튼호텔
09.09 보스턴 코플리플라자호텔
09.10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
09.11 애틀랜타 쉐라톤게이트호텔
09.12 시카고 다운타운메리어트호텔
09.13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대학
09.14 마이애미 퐁텐블로호텔
09.15 휴스턴 아담스마크호텔
09.16 로스앤젤레스 하얏트리젠시롱비치호텔
09.17 덴버 하얏트리젠시덴버테크센터호텔
09.18 시애틀 쉐라톤호텔
09.19 오클랜드 컨벤션센터
09.20 앵커리지 캡틴쿡호텔

09.07 참아버님 브리지포트대학 명예인문학박사 학위 받음

09.14 '참된 가정과 나' 일본 5개 도시 순회강연[평화경 521]

09.14 도쿄 도쿄돔 09.15 삿포로 르네상스호텔 09.16 나고야 센추리홀
09.17 오사카 SS빌딩 09.19 후쿠오카 시호크호텔

09.16 부시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 오사카 한큐인터내셔널빌딩

10.06 순결과 참가정운동 대강연회[평화경 521]

10.06 부산외대 10.19 대구대 10.26 고려대, 한양대

10.21 세계평화청년연합 전진대회[평화경 521]

10.21 전북권 전주학생체육관 10.24 부산권 구덕체육관
10.25 경남권 마산실내체육관 10.27 대구·경북권 포항실내체육관
10.28 전남·광주·제주권 나주체육관 10.30 충청권 대전 충무체육관
10.31 수도권 올림픽펜싱경기장

10.22 세계평화청년연합 초청 특별강연회

11.05 '참된 가정과 나' 세계 16개국 순회강연[평화경 521]

11.05 프랑스 파리 소피텔생자크호텔 11.07 폴란드 바르샤바 메리어트호텔
11.08 이탈리아 로마 쉐라톤호텔 11.09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
11.10 헝가리 부다페스트 비가도콘서트홀 11.16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대통령궁
11.16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부아르호텔 11.18 가나 아크라 국제콘퍼런스센터
11.19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국회광장
11.22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칼튼호텔
11.25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호텔 11.27 필리핀 마닐라 인터콘티넨탈호텔
11.29 호주 캔버라 하얏트호텔 12.01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운플라자호텔
12.04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 12.07 캐나다 토론토 로열요크호텔

1996

01.14 세계평화정상회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

02.26 중남미 종교지도자 특별연수, 빅토리아플라자호텔

04.16 워싱턴타임스재단 창설기념 특별강연, 워싱턴DC 힐튼호텔[평 112]

05.24 세계평화청년연합 제2차 세계대회,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평화경 112]

06.16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 창설대회, 도쿄 게이오플라자인터콘티넨탈[참부모경 972-21][평화경 1364]

06.28 세계평화신구국연합 창설대회,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

07.20 '참부모와 참가정' 미국 12개 도시 순회강연[평화경 112]

07.20 워싱턴DC 07.21 덴버 07.22 애틀랜타 07.23 댈러스
07.24 로스앤젤레스 07.25 샌프란시스코 07.26 시애틀 07.27 시카고
07.28 캐나다 토론토 07.29 보스턴 08.02 필라델피아 08.03 뉴욕

07.3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설 세계대회, 워싱턴DC 국립박물관빌딩[참 1348-1][평화경 112]

08.20 세계평화반도국가연합 창설대회,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평 1371]

09.1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85개국 결성 일본대회[평화경 218]

09.10 지바 마쿠하리메세 09.11 고베 국제회관 하버랜드플라자
09.12 나고야 아이치체육관 09.13 삿포로 데르메인터내셔널호텔

09.1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85개국 결성 한국대회[평화경 218]

09.15 서울 올림픽펜싱경기장09.16 대구실내체육관 09.17 전주실내체육관

09.2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85개국 결성 남미대회[평화경 218]

09.20 볼리비아 라파스 라디숀프라자호텔 09.21 칠레 산티아고 하얏트호텔
09.22 파라과이 아순시온 엑셀시어호텔 09.23 브라질 상파울루 아넴비대극장
09.2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알베아르팰리스호텔
09.26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
09.27 페루 리마 쉐라톤호텔 09.28 에콰도르 키토 스위소텔
09.29 콜롬비아 보고타 컨벤션센터
09.30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인터콘티넨탈타마나코호텔
10.01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10.02 파나마 파나마시티 국립극장
10.03 코스타리카 산호세 코스타리카호텔 10.04 니카라과 마나과 국회의사당
10.05 콰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크라운플라자호텔
10.06 멕시코 멕시코시티 쉐라톤마리아이사벨호텔

10.0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85개국 결성 캐나다대회, 몬트리올 메리어트 호텔[평화경 218]

10.1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85개국 결성 유럽대회[평화경 218]

10.11 이탈리아 로마 힐튼호텔 10.12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센터

10.1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85개국 결성 미국대회[평화경 218]

10.14 워싱턴DC 10.15 필라델피아
10.16 보스턴 10.17 애틀랜타 르네상스웨이벌리호텔
10.18 뉴어크 크라운플라자호텔 10.19 시카고
10.20 마이애미 쉐라톤호텔 10.21 휴스턴 아담스마크호텔
10.22 시애틀 10.23 로스앤젤레스 옴니로스앤젤레스호텔
10.24 덴버 10.25 샌프란시스코
10.26 미니애폴리스 하얏트리젠시호텔 10.27 브리지포트 브리지포트대학
10.28 볼티모어 르네상스하버플레이스호텔 10.29 뉴욕 맨해튼센터

10.0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해소 선포식, 몬테비데오 빅토리아 플라자호텔[참부모경 1404-3]

11.07 남미 33개국 여성지도자수련회

11.2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간신문 <티엠포스델문도> 창간 [참부모경 1041-5]

11.24 중남미·일본 여성지도자 자매결연식,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

12.18 세계평화무술인연합 창립총회,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

1997

03.13 세계평화를 향한 참가정실천 한국대회[참부모경 367-5][평 218]

03.13 창원 실내체육관 03.14 나주 실내체육관 03.15 군산 실내체육관
03.16 춘천 실내체육관 03.17 순천 팔마체육관 03.18 서울 올림픽역도경기장
03.19 포항 실내체육관 03.20 광주 실내체육관 03.21 부산 시민회관
03.22 청주 실내체육관 03.23 진주 예술회관 03.24 수원 실내체육관
03.25 대구 실내체육관 03.26 대전 다목적체육관 03.27 목포 실내체육관
03.28 전주 전북학생회관 03.29 천안 선문대학교 03.30 제주 오리엔탈호텔
03.31 인천 실내체육관 04.01 구리 실내체육관 04.02 서울 장충체육관
04.03 성남 실내체육관

03.23 세계평화무도연합 창설 세계대회, 워싱턴DC 힐튼타워호텔[참부모경 1093-1]

04.0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 개막 선포, 중앙수련원[참부모경 1348-1][천성경 1256-21]

04.23 아시아문인회의,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평화경 218]

05.19 세계평화신구국연합 국가지도자 초청만찬회,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평화경 543]

06.13 서구 문인연합 창설대회,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평화경 218]

07.22 세계평화통일을 향한 한국 참가정실천 지도자대회[평화경 543]

07.22 서울강남권 롯데월드호텔 07.23 부산권 부산 롯데호텔
07.24 경남권 창원호텔 07.25 광주권 신양파크호텔
07.26 대전권 유성관광호텔 07.27 충북권 청주 리호관광호텔
07.28 대구권 프린스호텔 07.29 전남권 광주 신양파크호텔
07.30 전북권 전주 리베라호텔 07.31 인천권 올림푸스호텔
08.01 강원권 춘천 베어스타운 08.02 충남권 온양관광호텔
08.03 경기북부권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08.04 경북권 경주 교육문화회관
08.05 경기남부권 서울 신라호텔 08.06 서울강북권 서울 롯데호텔

08.07 참가정실천 여성지도자대회[평화경 543]

08.07 대전 리베라호텔 08.08 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

08.09 천지부모천주안식권(칠팔절) 선포, 중앙수련원[참부모경 1406-7][천성경 1249-52]

09.11 제4차 아담권시대 선포, 이스트가든[참부모경 102-25][참부모경 1415-30]

09.20 아마존강 일대 탐사(7일간)[참부모경 1192-6]

10.13 훈독회 제정,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참부모경 1356-1][천

성경 1195-1]

11.25 제21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제7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 워싱턴DC 힐튼호텔

11.26 제4차 세계평화종교회의, 워싱턴DC 힐튼호텔[평화경 555]

· 제14차 세계언론인회의, 세계평화문인연합 대회, 워싱턴DC JW메리어트호텔[평화경 871]

11.27 제4차 세계평화회의, 워싱턴DC 캐피탈힐튼호텔[평화경 564]

·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대회, 워싱턴DC 그랜드하얏트호텔[평 543]

11.28 제3차 세계평화청년연합 세계대회, 워싱턴DC 하얏트리젠시호텔[평화경 1018]

11.29 4000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 워싱턴DC RFK스타디움

11.30 제3회 세계문화체육대전 한마당체육대회, 워싱턴DC 컨벤션센터[평화경 1055]

12.01 영계축복 개문 선포식, 이스트가든[참부모경 361-12]

1998

01.07 북한에 평화자동차총회사 설립[참부모경 868-5]

01.23 4천만쌍 축복승리 및 참부모님 말씀훈독대회[평화경 573]

01.23 서울 올림픽역도경기장	01.24 전남 광주 구동실내체육관	
02.04 부산 구덕실내체육관	02.05 영주 실내체육관	02.06 천안 충남학생회관
02.07 창원 실내체육관	02.08 성남 실내체육관	02.09 대전 시민회관
02.10 대구 실내체육관	02.11 춘천 백령문화관	02.12 부천 실내체육관
02.13 전주 실내체육관	02.14 충주 실내체육관	02.15 구리 실내체육관
02.16 광주 구동실내체육관	02.17 제주 KAL호텔	02.18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02.02 새로운 성약시대 선포, 한남국제연수원

· 참부모님 탄신 축하 및 성약말씀 전수식, 중앙수련원

02.23 한국 정당 및 기업체 순방, 말씀 주제별정선 증정

02.23 참가정운동 일본 말씀훈독대회[평화경 573]

02.23 가나가와 하타노문화회관	02.24 홋카이도 텔메인터내셔널
02.25 도호쿠 즈이후호텔	02.26 간토 포트아레나호텔
02.27 주부 아이치체육관	02.28 간사이 고베월드기념홀
03.01 호쿠리쿠 JAL호텔	03.02 시고쿠 마쓰노이팰리스
03.03 주고쿠 우편저금홀	03.04 규슈북부 시호크호텔
03.05 규슈남부 뉴오타니구마모토호텔	03.06 도쿄 오타쿠체육관

03.10 세계화시대를 향한 지도자대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평화경 573]

04.01 참가정운동 미국 말씀훈독대회[평화경 573]

04.01 워싱턴DC 하얏트리젠시호텔
04.02 브리지포트 브리지포트대학
04.03 보스턴 존핸코크홀
04.04 세인트루이스 래디슨에어포트호텔
04.05 애틀랜타 베벌리호텔
04.06 리치먼드 제4침례교회
04.07 댈러스 하비호텔
04.08 루이빌 킹솔로몬침례교회
04.09 뉴욕 맨해튼센터
04.10 시카고 메리어트호텔
04.11 시애틀 웨스턴호텔
04.12 로스앤젤레스 웨스틴호텔
04.13 덴버 더블트리호텔
04.14 오클랜드 메리어트호텔
04.15 미니애폴리스 래디슨호텔
04.16 토론토 한인회관

04.17 장자권·부모권·왕권 개문 선포, 벨베디아

05.02 기독교문화권과 통일교문화권의 일체화 선포, 벨베디아

05.15 지옥해방과 천국개문 선포, 브라질 판타날 아메리카노호텔[참부모경 1306-1]

05.26 전환적인 만물해방의 날 선포, 벨베디아

06.11 1998년세계문화체육대전, 뉴욕 윌돌프아스토리아호텔[평 588]

06.13 제1차 3억6천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참부모경 356-17]

06.23 제1차 국가메시아 40일 특별수련, 파라과이 푸에르테올림포

07.01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 봉헌식, 자르딘 새소망농장[참 1213-1]

07.22 제1차 세계평화와 이상가정을 위한 40일 특별수련회,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참 1215-8]

08.07 자르딘 제2선언,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참부모경 1201-6]

08.21 자르딘 제3선언,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참부모경 1202-7]

08.28 자르딘 제4선언(숙명적 제안 해원),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참부모경 1203-10]

09.08 자르딘 제5선언(가정적 4·4절 선포), 노스가든[참부모경 1206-15]

10.05 자르딘 제6선언, 총영계·영인해방식 및 전체해방통일식, 브라질 상파울루[참부모경 1208-20]

11.06 복귀완료 선포,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

12.19 세계평화종교연합(IRFWP)대회, 워싱턴타임스빌딩[평화경 480]

1999

01.08 자르딘 제7선언(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 천주적 4·4절),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참부모경 1210-22]

01.17 참가정세계화 전진대회[참부모경 1441-8][평 500]

01.17 서울북부권 올림픽역도경기장

01.18 광주·전북·전남·제주권 광주 염주체육관

01.19 대전·충북·충남권 충주 실내체육관 01.20 경기남부·강원권 수원 실내체육관

01.21 부산·경남권 부산 구덕실내체육관 01.23 대구·경남권 대구 실내체육관

01.24 인천·경기북부권 부천 실내체육관 01.25 서울남부권 올림픽역도경기장

02.01 세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만찬회(김대중 대통령 참석), 서울 롯데호텔

02.06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창설대회, 서울 롯데호텔[참 1288-9][평화경 1387]

02.07 3억6천만가정 국제축복결혼식, 올림픽주경기장

02.11 일본 참가정세계화 전진대회[평화경 500]

02.11 고베 하버랜드플라자국제회관 02.12 다카마쓰 마쓰노이파레스

02.13 나고야 아이치현체육관 02.14 오사카 이케다시 사쓰키야마체육관

02.15 히로시마 우편저금홀 02.16 후쿠오카 상피레드홀

02.17 구마모토 구마모토현립극장 02.18 동도쿄 도도로키아레나

02.25 삿포로 르네상스호텔 02.26 센다이 시로이시시 문화활동센터

02.27 후쿠이 베닉스플라자 02.28 니가타 니가타체육관

03.01 나가노 국제21호텔 03.02 지바 지바포트아레나

03.03 가나가와 오다와라시 문화회관 03.04 서도쿄 도로로키아레나

03.19 미국 참가정세계화 전진대회[평화경 500]

03.19 워싱턴DC 03.20 루이빌 03.21 뉴욕 03.22 노포크

03.23 마이애미 03.24 콜럼버스 03.25 프로비던스 03.26 필라델피아

03.27 시카고 03.28 애틀랜타 03.29 오클랜드 03.30 시애틀

03.31 미니애폴리스 04.01 덴버 04.02 로스앤젤레스 04.03 포틀랜드

04.04 샌디에이고 04.05 댈러스 04.06 포킵시 04.07 브리지포트

04.08 메릴랜드 04.09 디트로이트 04.10 보스턴 04.11 시코커스

04.11 성약시대와 천상천국 지상천국 완성 선포, 벨베디아[참 1408-12]

04.12 세계 참가정세계화 전진대회[평화경 500]

04.12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사이언스센터

04.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세계무역센터

04.22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대만문화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 받음)

04.24 호주 시드니 힐튼호텔 04.26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호텔

04.28 케냐 나이로비 케냐타국제콘퍼런스센터 04.29 짐바브웨 하라레 쉐라톤호텔

04.30 우간다 캄팔라 세레나호텔 05.02 베넹 코토누 쉐라톤호텔

05.04 브라질 상파울루 에스포르테클럽 핀헤이로스(명예교육학박사 학위 받음)

05.06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터콘티넨탈호텔

05.07 파라과이 아순시온 과라니극장 05.08 칠레 산티아고 쉐라톤호텔

05.09 에콰도르 키토 스위소텔 05.10 콜롬비아 보고타 테켄다마호텔

05.11 코스타리카 산호세 래디슨호텔 05.12 니카라과 마나과 카미노리얼호텔
05.13 멕시코 멕시코시티 피에스타아메리카호텔
05.14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05.16 영국 런던 코너트회의센터
05.17 네덜란드 헤이그 서커스극장 05.18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문화·회의센터
05.19 스위스 제네바 프레지던트윌슨호텔 05.20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신국립극장
05.21 필란드 헬싱키 마리나호텔
05.22 러시아 모스크바 나탈리아사츠 어린이음악극장
05.23 몰도바 키시너우 공화국궁전
05.25 카자흐스탄 알마티 구국회의사당(국립여자대학 명예문학박사 학위 받음)
05.26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국립드라마극장 05.27 몽골 울란바토르 국회의사당
05.29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05.14 천주해방선포, 브라질 판타날 아메리카노호텔[참부모경 1409-16]

05.30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 벨베디아[참부모경 1409-16]

06.14 참부모님 천주승리축하 선포, 참어머님 천주승리축하 표창패 수여, 올림픽체조경기장[참부모경 1409-14][참부모경 1440-6]

07.27 원초·근원·승리성지 택정 봉헌식, 브라질 판타날 아메리카노호텔[참부모경 1190-1][천성경 675-9]

08.17 여호와의 전체·전반·전권·전능의 날 선포, 노스가든

09.09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권(9·9절)선포, 중앙수련원[참부모경 1410-17]

09.10 천지부모천주통일해방권(삽십절 선포), 중앙수련원[참 1411-21]

09.14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선포, 이스트가든[참 1414-27]

10.10 쌍십절 선포,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참부모경 1415-30]

10.23 총천주축복해방일 선포, 이스트가든[참부모경 1415-33]

11.07 천성왕림궁전 봉헌식, 청평수련원[참부모경 436-22]

11.12 영진님 세계성화식, 파주 원전

12.15 지상천국 출발 선포,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 브라질 세네축구단 창단[참부모경 1089-7]

12.26 참부모님 섭리관적 책임완수 선포, 벨베디아[참부모경 1417-36]

2000

01.17 우루과이 여성지도자 초청강연,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

02.02 워싱턴타임스 제2회 아메리칸 센추리 어워드 시상식, 미국 국회의사당[평 233]

· 2000세계문화체육대전, 서울 롯데호텔[평 233]

· 2000세계문화체육대전, 서울 롯데호텔[평 233]

· 참아버님, 브라질 대통령훈장 받은, 러시아 우퍼볼타대학교, 키르기스스탄 국립사법대학교, 브라질 바히아 신학철학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받음

· 참어버님, 도미니카공화국 페데리코 엔리케스 이카르바할대학 명예박사 학위 받음

02.11 말씀선집 300집 출판기념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

02.13 4억가정 1차 국제축복결혼식, 올림픽주경기장[참 357-20]

· 천주평화통일가정당 및 천주참부모연합 창립,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부모경 1212-25]

02.14 제4회 세계한마당체육대전, 올림픽체조경기장[평화경 1069]

02.21 문선명선생 탄신 80주년 축하 남북통일전진대회[평 1261][평 1274]

02.21 여수 진남실내체육관 02.22 수원 실내체육관
02.23 전주 실내체육관 02.24 공주 백제체육관
02.25 서울강남 올림픽역도경기장 02.26 구리 실내체육관
02.28 부산 구덕실내체육관 02.29 광주 구동체육관
03.01 영천 실내체육관 03.02 춘천 실내체육관
03.03 인천 실내체육관 03.04 창원 실내체육관
03.05 청주 실내체육관 03.06 서울강북 올림픽펜싱경기장
03.07 대전 한밭체육관 03.08 목포 실내체육관
03.09 대구 실내체육관 03.10 부천 실내체육관
03.11 제주 한라체육관 03.12 전국대회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02.25 남북통일지도자 전진대회, 서울 힐튼호텔

03.07 일본 동서남북통일전진대회

03.07 후쿠오카 일본종합전시장 03.08 히로시마 히로시마체육관
03.09 나고야 아이치체육관 03.10 도쿄 아카시아전시장

03.17 문선명선생 탄신 80주년 축하 남북통일전진 종교지도자대회, 서울 롯데호텔

04.04 브라질 소로카바축구단 인수[참부모경 1089-7]

04.08 미국 12개 도시 순회강연

04.08 워싱턴DC 르네상스호텔 04.09 보스턴 파크플라자호텔
04.10 뉴어크 로버트트리트호텔 04.11 시카고 시빅오페라 하우스
04.12 미니애폴리스 메리어트호텔 04.13 시애틀 시립컨벤션센터
04.14 샌프란시스코 힐튼오클랜드공항호텔 04.15 로스앤젤레스 웨이틴호텔
04.16 댈러스 크라운플라자호텔 04.17 애틀랜타 크라운플라자리비니아호텔
04.18 마이애미 더블트리호텔 04.19 뉴욕 링컨센터

04.21 참부모님 성혼 제2차 40년노정 출발 및 제4차 아담권 정착시대 선

포, 이스트가든[참부모경 1199-2]

05.08 남미 유럽 순회강연

05.08 파라과이 아순시온 엑셀시어호텔
05.09 파라과이 시우다드델에스테 팔라시오 데로스 콘그레스
05.10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빅토리아플라자호텔
05.11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콘라드호텔
05.12 아르헨티나 부네노스아이레스 힐튼호텔
05.13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인터플라자호텔
05.14 아르헨티나 산타페 콘퀴스타도르호텔
05.15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 그란과라니호텔
05.16 브라질 캄포그란데문화회관
05.17 브라질 브라질리아 보나파르테호텔(브라질 정부 훈장 받음)
05.18 브라질 상파울루 미상공회의소
05.19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시극장
05.20 영국 런던 메리어트호텔
05.21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발모럴호텔
05.22 영국 버밍햄 센테니얼센터
05.23 네덜란드 헤이그 쿠르하우스호텔
05.24 덴마크 코펜하겐 래디슨SAS호텔
05.25 스위스 인터라켄 카지노쿠르살호텔
05.26 알바니아 티라나 국회의사당
05.27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차우세스코궁전
05.28 러시아 모스크바 래디슨슬라비얀스카야호텔
05.29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코 유럽그랜드호텔
05.30 몰도바 키시너우 공화국궁전
05.31 캐나다 토론토 웨스틴프린스호텔

06.17 해양환원 선포, 노스가든[참부모경 1455-7]

06.23 참어머님, 유엔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그랑프리평화상 수상, 서울 롯데월드

06.24 육지환원 선포, 한남국제연수원[참부모경 1455-7]

06.29 천주환원 선포, 노스가든[참부모경 1455-9]

07.01 제4차 아담 심정권환원 선포, 한남국제연수원

07.30 제1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부인 특별수련회, 청평수련원

08.18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2000총회, 한반도 비무장지대(DMZ)평화공원 제안, 뉴욕 유엔본부[참부모경 871-12][참부모경 910-1][평화경 1391-1]

· 참부모님 유엔 비정부기구세계연합 만국평화상 수상, 뉴욕 유엔본부[평화경 1399]

09.26 제1차 삼시대대전환사위기대입적통일축복식, 청평수련원[참부모경 1456-10]

10.27 천지부모님 가정왕권시대 선포, 한남국제연수원

11.06 환태평양 도서해양지도자 40일 특별수련, 하와이 코나센터

11.30 남미섭리 승리 및 환태평양섭리시대 선포, 브라질 판타날[참 967-8]

12.01 하나님왕권즉위식을 위한 선포, 브라질 판타날 아메리카노호텔[참 1456-12]

12.03 낙원·지옥 철폐와 천국입적 선포의 날 선포,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참부모경 1330-31][참부모경 1456-11]

12.16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미국 창설대회, 시카고 메리어트호텔

2001

01.13 하나님왕권즉위식, 청평수련원[참부모경 1459-19][천성경 1360-1]

01.15 2001 세계언론인회의, 도쿄 게이오플라자호텔[평화경 1073]

01.19 미국성직자 지도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한 '새천년상'봉정, 워싱턴 DC 하얏트호텔

01.27 2001세계문화체육대전 국제특별회의, 뉴욕 유엔본부[평화경 1073]

· 2001세계평화축복결혼식, 뉴욕 유엔본부(4억가정 2차, 210쌍)[참부모경 357-20]

02.25 참부모님 미국 50개주 순회 훈독대회[평화경 1413]

02.25 뉴욕 가든오브프레이어 캐서드릴대성장
02.26 뉴어크 로버트트리트호텔
02.27 브리지포트 브리지포트대학
02.28 시카고 라이프센터교회
03.01 보스턴 파크플라자호텔
03.02 필라델피아 크리스천타베나클교회
03.03 마이애미 안티옥침례교회
03.04 애틀랜타 르네상스콩코스호텔
03.05 컬럼버스 힐튼호텔
03.06 휴스턴 침례교회
03.07 앨버커키 메리어트호텔
03.08 미니애폴리스 침례교회
03.09 시애틀 힐튼호텔
03.10 솔트레이크시티 힐튼호텔
03.11 오리건주 포틀랜드 더블트리호텔
03.12 오클랜드 컨벤션센터
03.13 피닉스 피닉스공항메리어트호텔
03.14 덴버 더블트리호텔
03.15 로스앤젤레스 웨스틴보나벤처호텔
03.16 리틀록 로빈슨센터
03.17 잭슨 힐튼호텔
03.18 프로비던스 메리어트호텔
03.19 노포크 쉐라톤워터사이드호텔
03.20 윌밍턴 윈덤윌밍턴호텔
03.21 디트로이트 리틀록침례교회
03.22 디모인 메리어트호텔
03.23 캔자스시티 그리스도교회
03.24 모빌 아서아우로컨벤션센터
03.26 뉴올리언스 인터콘티넨탈호텔
03.27 샤이엔 리틀아메리카호텔
03.28 세인트루이스 리갈리버프런트호텔
03.29 볼티모어 침례교회
03.30 메인주 포틀랜드 홀리데이인바이더베이
03.31 빌링스 홀리데이인그랜드몬타나
04.01 멤피스 침례교회
04.02 윈스턴세일럼 아담스마크호텔
04.03 루이빌 침례교회
04.04 밀워키 힐튼호텔
04.05 오클라호마시티 미리아드컨벤션센터
04.06 오마하 메리어트호텔
04.07 나슈아 메리어트호텔
04.08 컬럼비아 아담스마크호텔
04.09 인디애나폴리스 침례교회
04.10 파고 라마다플라자호텔
04.11 라스베이거스 감리교회
04.12 앵커리지 캡틴쿡호텔
04.14 호놀룰루 힐튼하와이안빌리지호텔
04.15 보이시 그로브호텔
04.16 워싱턴DC 옴니쇼어햄호텔
04.17 세퍼드타운 클라리온호텔, 벌링턴 래디슨호텔

05.08 참부모님 미국 뉴욕 할렘 훈독대회, 뉴욕 맨해튼 가나안성결교회

05.15 참부모님 미국 국회 훈독대회,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레이번빌딩

05.25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국제심포지엄, 뉴욕 힐튼호텔

05.27 세계종교지도자 축복결혼식, 뉴욕 힐튼호텔

06.21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명예박사 학위 받음, 뉴욕

07.03 하나님조국정착대회

07.03 참아버님, 서울 롯데호텔/ 참어머님, 부산 롯데호텔
07.04 참아버님, 대구 인터불고호텔/ 참어머님, 서울강북 롯데호텔
07.05 참아버님, 경기·강원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참어머님, 광주 신양파크호텔
07.06 참아버님, 서울강북 롯데월드호텔/ 참어머님, 인천 롯데호텔

07.13 참부모님 국회 초청강연회, 서울 국회의원회관[평화경 127]

08.18 제1회 세계지도자 통일사상 승공이론 수련회 및 낚시대회, 제주국제연수원[참부모경 1179-13]

10.08 총청산선언(영계 축복가정의 지상 재림 선포), 청평수련원

10.17 제1회 스포츠낚시월드챔피언대회, 일본 나가사키[참 1179-13]

10.19 세계스포츠낚시연합 창설[참부모경 1179-13]

10.20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2001총회, 뉴욕 힐튼호텔

10.29 천주평화통일국 한국대회[평화경 137]

10.29 대전·충남·충북권 유성 리베라호텔
10.30 서울권 신라호텔
10.31 광주·전남북·제주권 광주 신양파크호텔
11.01 부산·경남권 부산 롯데호텔
11.02 경기남부권 서울 롯데호텔
11.04 대구·경북권 대구 인터불고호텔
11.05 인천·경기권 서울 롯데호텔
11.06 경기북부·강원권 서울 롯데월드호텔

11.05 천주평화통일국 일본대회[평화경 137]

11.05 후쿠오카 그랜드하얏트호텔
11.06 다카마쓰 마쓰노이팰리스
11.07 오사카 미쓰이아반호텔
11.08 고베 오크라호텔
11.09 나고야 힐튼호텔
11.10 동일본 도쿄 게이오플라자호텔
11.11 지바 도요코인 지바포트아크에어호텔
11.12 도쿄 오크라호텔

11.08 천주평화통일국 한국지도자대회, 서울 신라호텔[평화경 137]

11.15 천일국국민증 발급 선포, 한남국제연수원[천성경 1294-21]

12.26 천주평화통일국 미국대회[평화경 137]

11.26 브리지포트 브리지포트대학
11.27 뉴어크 로버트트리트호텔
11.28 댈러스 스털링호텔
11.29 오클랜드 메리어트호텔
11.30 로스앤젤레스 LA공항메리어트호텔
12.01 뉴욕 가나안침례교회
12.02 워싱턴DC 엘린채플AMF교회
12.15 시카고 힐튼호텔

12.16 천일국 상속 선포, 하와이 코나

2002

01.26 자주국 승리권시대 선포, 하와이 코나[참부모경 109-11][천성경 1313-41]

02.15 2002세계문화체육대전,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총회, 서울 힐튼호텔[평화경 148][평화경 1082]

02.16 4억가정 3차 국제축복결혼식, 올림픽펜싱경기장[참부모경 357-20]

03.01 영계육계총통일 선포, 하와이 코나[참부모경 1332-34]

04.04 6천년역사 대해원식, 이스트가든[참부모경 1333-36]

04.14 참부모님 선문대 명예신학박사 학위와 명예문학박사 학위 받음[평화경 1094]

04.27 14만4천가정 성직자 축복결혼식, 워싱턴DC 쉐라톤내셔널호텔[참부모경 1275-20][참 12936][평화경 596]

05.21 워싱턴타임스 창간 20주년 기념식, 워싱턴DC 힐튼호텔[평화경 882]

06.11 천주부모통일안착권 선포, 청평수련원[참부모경 1334-37]

06.12 선문피스컵 창설대회, 리틀엔젤스예술회관[참부모경 1090-1][평화경 109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차례 |
마지막